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1권(제1분과 편)

2010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양국 위원장 공동 인사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한일관계사 쟁점 분야에 대하여 한일 양국 학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학설 및 역사인식에 대한 공통점을 도출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발족했다.

제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한일정상 간 합의로 2002년 5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활동하였던 것에 이어, 제2기 위원회는 2007년 6월에 발족해 2년 6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그동안 4개 분과로 나뉘어 양국이 합의한 24개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12~17차에 걸친 합동회의와 5차례의 전체회의,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많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한 역사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과별로 정리하여 논문집의 형태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이 공동연구보고서의 간행을 통해서 이제 한일양국의 학자들은 진지한 역사대화의 첫 장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 공동연구보고서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과, 동시에 양국 연구자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는 논문들도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동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논문 및 논평들은 역사의 진실에 접근해 가려던 노력의 공통된 표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의 이 노력에는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정확한 역사와 다양한 역사이해의 올바른 방법을 전해주고자 하는 공통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이 보고서에 담겨진 연구성과가 결코 만족스럽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양국의 역사교과서 집필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우선 기대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의 연구성과들은 향후 한일관계사 연구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한일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의 번영을 기약하는 미래의 학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조 광(趙 珖)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鳥海靖)

한국측 위원장 서문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여 선사시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교류해온 국가였다. 이 교류의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의 역사에서 중첩되거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 상호 역사에서 공유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해석의 다양성이 배태(胚胎)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호 충분한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역사학의 오랜 전통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해석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앞서 사실에 대한 규명작업이 먼저 요청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접국의 역사에서는 비록 전문적 연구자의 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혹 공유·중첩된 역사적 사실의 존재 자체마저 부인되거나 왜곡 설명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되었다.

인접국의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국제평화와 상호이해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유네스코는 이미 1947년부터 각국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국제이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파악하고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의 학자와 교육 전문가들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기꺼이 공동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1965년 이래 최근까지 유네스코 양국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차례 전개되기도 했다. 또한 1983년 이후 한일문화교류기금과 일한문화교류기금 등에서는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주관하기도 했다.

특히 1982년 이후 한일 간에 역사문제가 상호 분쟁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어 나갔다. 이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여러 학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양국의 양식 있는 인사들도 분쟁의 해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간에 전개된 이와 같은 노력들은 양국 사이에 전개된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돌이켜 보건대, ‘역사분쟁’은 한일 양국의 우의와 상호관계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정부도 이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2001년도에 일본의 특정 출판사에서 간행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역사분쟁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던 양국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2002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공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양국의 역사 서술에서 드러나는 상호간의 차이점 가운데 19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갔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적 지원 아래 역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첫 번째의 연구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2005년에 종료되어 연구결과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에 그쳐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동연구로서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양국의 정상들은 다시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관련된 공동연구의 지속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서 2007년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회가 출범하여 2009년 말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이제 그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간행하게 되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 작업 과정에서도 한일 양국의 연구위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분야에 관한 자신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양국의 역사학계에서 축적해 온 연구 성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이견이 있었던 일부 문제에 대해서 연구위원들은 공동인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역사대화는 결코 단시간의 작업에 그치는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그 실제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역사대화는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역사대화는 그 결과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양국 국민 상호간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

또한 역사대화는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고 상대방의 연구성과를 경청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갖추어 질 때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대화,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이 전개하고 있던 역사대화를 목도하면서, 특히 역사 앞에서 겸허하고자 하는 그들의 성숙된 자세에 탄복했다.

그리고 베트남과 프랑스,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와 영국 간의 역사대화 과정에서 그 역사가 가지고 있던 역동성에 대한 상호인정과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장면에 감명 받은 바 있었다. 역사대화의 구체적 성과는 이미 현대사에 관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교과서인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를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했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 대화의 성과가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

공동 역사교과서의 간행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동 확인 및 확인된 사실에 대한 공통의 해석과 평가가 주류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친 성실한 역사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21세기는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역사대화의 시대이며, 그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향유하며 상호이해와 우의를 다져나가는 시대라고 생각한 바 있다.

이제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자들도 대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역사대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당해 냈다. 우리가 이룬 대화의 성과들은 이 공동보고서에 결집되어 공표되었다. 이 공동보고서가 역사연구자와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자 그리고 한일 양국의 우의와 친선을 소중히 여길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은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업은 한일 양국이 역사대화를 지속하는 데에 하나의 밑돌을 더하게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조 광(趙珖)

일본측 위원장 서문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1년 10월 15일의 일한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해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역사사실과 역사인식에 관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것”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2년 5월 제1기 연구위원회(전체회의)가 개최되었고 2005년 3월의 제6회 전체회의로 일단 종료된 후, 그 연구성과로서 2005년 6월 1일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연구결과보고서가 공간(公刊)되었다. 그 사이인 2004년 12월 17일 일한 정상회담 때 양국 수뇌 간에 역사공동연구를 계속하기로 합의되었다.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상기의 합의에 의거해서 제1기 위원회의 공동연구 성과를 계승해 2007년 4월 27일 양국 위원장 회담, 같은 해 6월 23일의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어 2009년 11월 28일의 제5회 전체회의에서 가보고서를 교환, 양국 지원위원회에 제출, 동 보고서의 공간(公刊)(2010년 3월 예정)으로 종료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역사공동연구를 지원해 주신 일한 양국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의 제1분과(고대사), 제2분과(중세 근세사), 제3분과(근현대사)에 새롭게 교과서 소그룹을 더해 3개 분과, 1개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각 분과, 그룹마다 합계 십 수 회에 이르는 연구회, 보고회를 통해서 양국의 위원, 연구협력자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전개했다. 그 성과는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보고서에 집약되어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역사에 반드시 ‘유일한 올바른 이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역사사상(歷史事象)에 대해서 국가, 지역, 민족, 여러 집단, 그리고 개인 사이에도 다양한 이해, 해석, 평가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그러한 역사사상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과 정확한 역사사실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이해, 해석, 평가 등에 대해서도 그 차이점은 차이점으로서 서로 인정하고 그 다른 까닭을 곰곰이 검토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역사의 상호이해를 깊이하려는 노력을 거듭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걸쳐서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역사의 상호이해를 깊이하고 혹은 역사를 재검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나 자신, 1970년대 후반

부터 약 30년에 걸쳐서 그러한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제국(諸國), 중국, 동남아시아 제국(諸國) 등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때로는 스스로 상식이라고 이해했었던 역사의식을 크게 바꾸는 새로운 역사이해에 눈을 뜬 경험도 있다.

특히, 21세기 초에 본, 알타,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열린 유럽 현대사 교육회의에 참석했을 때, 1990년대의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많은 귀중한 1차 사료가 발견·공개되어 역사사실이 잇달아 밝혀지고 동시에 동유럽과 구소련 내의 제국(諸國)에서 근현대사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역사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치문제, 외교문제와 연결되어 예상 밖의 대립, 알력을 만들어내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특정 역사관에 입각하여 '유일한 올바른 역사'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가능한 다각적으로 역사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에 솔직히 귀를 기울이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상호작용(interplay of views)을 존중하는 그러한 기본자세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나로서는 감명 깊은 경험이었다.

이후, 일한역사공동연구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역사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한층 유효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나 자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가능한 일국사, 일민족사를 넘는 넓은 관점에서 국제관계(교류)사, 지역사, 비교사 등을 대담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국가사, 민족사 입장에 선 역사연구,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역사연구, 역사교육에 있어서 배외주의적 경향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러한 구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야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국제관계를 취할 경우에 외교, 전쟁, 정치 등의 분야에 더하여 사회, 문화, 생활과 그 교류 등이라는 '역사의 인간적 측면'에도 충분히 눈을 돌려야만 할 것이다. 외교, 전쟁, 정치 등의 분야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관계사의 전부가 아닌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세 번째, 국제적인 역사공동연구는 이른바, 다원적 중층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양국 정부사이의 합의에 의한 일한역사공동연구가 큰 의의를 가졌다는 것은 설명할 것도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양국 역사연구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최근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흡수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요즘, 일본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용으

로 출판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40종류 이상이 되고, 그 집필자는 적어도 200명 이상에 달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공권력이 특정의 역사관을 교과서 집필자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다양한 역사이해를 인식하는 의미에서도 본 공동연구와 동시 병행적으로 민간 수준에서 역사가, 역사교육가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일한 양국이 가능한 한 폭넓게 역사사료를 공개하고 자유로운 상호이용, 열람이 가능한 조건을 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요즘 일본에서는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사회과의 역사적 분야)의 근현대사 대외관계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역(譯)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역사교육에서 국제적인 역사 상호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번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의 성과가 이후 일한 양국민, 특히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역사 상호이해를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싶다.

2009년 11월 28일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鳥海靖)**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전체 위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1분과 위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 국 측

노태돈(盧泰敦)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김태식(金泰植)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조법종(趙法鍾)	우석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는 한국측 제1분과 간사)

일 본 측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규슈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
사카우에 야스토시(坂上康俊)	규슈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도요대학 문학부 교수
	(★는 일본측 제1분과 간사)

제1권 목차

양국위원장 공동 인사말
한국측 위원장 서문
일본측 위원장 서문
제1분과 위원 명단
전체보고서 목차

머리말 ····· 1

논문편 ····· 3

조법종 古代 韓日關係의 成立 ····· 5
－彌生文化 主體問題에 대한 檢討－

하마다 고사쿠 古代 日韓關係의 成立 ····· 65
－地域 間의 交流에서 古代國家의 關係로－

김태식 古代 王權의 成長과 韓日關係 ····· 125
－任那問題를 包含하여－

모리 기미유키 ·하마다 고사쿠 古代 王權의 成長과 日韓關係 ····· 255
－4~6세기－

노태돈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韓日關係 ····· 375
－7~9세기－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韓關係 ····· 447
－7~9세기－

좌담회 토론문 ····· 565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 567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 581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 ····· 605

연구활동기록 ····· 617

연구 후 소감 ····· 629
조법종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활동을 정리하며 ·· 631
하마다 고사쿠 공동연구를 끝내고 ····· 633
김태식 공동연구 말미의 단상 ····· 635
모리 기미유키 공동연구를 마친 소감 ····· 637
노태돈 공동연구를 마치고 ····· 639
사카우에 야스토시 공동연구를 마치고 ····· 641

전체보고서 목차

제1권(제1분과편)

머리말

논문편

조법종 古代 韓日關係의 成立
－彌生文化 主體問題에 대한 檢討－

하마다 고사쿠 古代 日韓關係의 成立
－地域 間의 交流에서 古代國家의 關係로－

김태식 古代 王權의 成長과 韓日關係
－任那問題를 包含하여－

모리 기미유키 古代 王權의 成長과 日韓關係
·하마다 고사쿠 －4~6세기－

노태돈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韓日關係
－7~9세기－

사카우에 야스토시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韓關係
·모리 기미유키 －7~9세기－

좌담회 토론문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

연구활동기록

연구 후 소감

조법종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활동을 정리하며
하마다 고사쿠	공동연구를 끝내고
김태식	공동연구 말미의 단상
모리 기미유키	공동연구를 마친 소감
노태돈	공동연구를 마치고
사카우에 야스토시	공동연구를 마치고

제2권(제2분과 한국편)

머리말
활동기록

제1부 논문편
손승철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왜구의 구성문제를 포함하여－
이계황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한명기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왜관 문제를 둘러싼 대일인식을 중심으로－

제2부 좌담회 토론문

제3부 연구사편
이재범 고려 전기 한일관계사 연구 현황
김보한 한국 내 왜구 연구의 학술사적 검토
한문종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년~2007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노영구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제4부 사료해제집편
손승철·김강일·이상훈 중·근세 한일관계 사료해제집 해설
손승철·김강일 조선시대 한일관계 사료해제
이상훈 임진왜란 관련 사료해제

제3권(제2분과 일본편)

머리말
활동보고

제1부 논문편
사에키 고지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구와노 에이지　동아시아 세계와 文祿·慶長의 役
－朝鮮·琉球·日本에 있어서 對明外交儀禮의 관점에서－
스카와 히데노리　17~18세기의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글로벌 히스토리와의 접속－

제2부 좌담회 토론문

제3부 연구사편
모리히라 마사히코　10세기~13세기 전반 麗日關係史의 諸問題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나카다 미노루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아라키 가즈노리　16세기 日朝交流史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나카노 히토시　文祿·慶長의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야마구치 가요　日本에 있어서 왜관 연구의 동향

제4부 사료해제집
사에키 고지·스카와 히데노리·구와노 에이지 편
중세·근세 일한관계 사료해제집

제4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1부 한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상호관계

제1장 주권과 독립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하라다 다마키	大韓國國制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대한제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방식－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장 권력과 국민

조성윤	개항 초기 서울 지역 민중의 근대적 국민의식 형성과정과 반일의식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쓰키아시 다쓰히코	근대 조선의 국민국가 창출과 입헌군주제론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부 일제 식민지기 조선과 일본의 사회변동

제1장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

류승렬	일제하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조작과 강제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오카모토 마키코　조선총독부 관료의 민족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민족문제와 민족격차의 내포－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제2장 근대화

정태헌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야마다 간토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제3장 전시체제

정혜경　송출과정을 중심으로 본 전시체제기 조선인 국외노무동원의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아리마 마나부　1930～40년대 일본의 문화표상 속 '朝鮮人'
－영상사료를 실마리로－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제5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3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

제1장 경제

허영란	해방 이후 식민지 법률의 정리와 탈식민화 －‘구법령’정리 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요시오카 히데미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2000년대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2장 외교

이석우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기미야 다다시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의 청구권 문제 재고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3장 대중문화

이성환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집필자 답변
야마나카 지에	‘기껏해야 만화’를 통해서 보이는 일한 사회는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4부 사람의 이동과 여성

제1장 사람의 이동의 한일상호비교

하종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오니시 유타카 제국의 형성·해체와 주민관리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제2장 여성의 사회진출의 한일상호비교

양현아 식민지 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와 '관습' 문제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하루키 이쿠미 근대 일본과 조선의 良妻賢母主義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자료집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제6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1부 이념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정재정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
비평문(야마우치 마사유키), 집필자 답변
정진성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야마우치 마사유키·후루타 히로시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
－아시아주의와 세계사 교과서－
비평문(정재정)

제2부 제도·편찬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이찬희 한일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집필자 답변
야마무로 겐토쿠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 교과서의 경우－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나가시마 히로키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의한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朝鮮史’ 교육－小田省吾로부터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비평문(정진성), 집필자 답변

〈교과서문제의 史的 전개〉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 －1982년과 2001년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이데 히로토 ·후쿠시마 히로유키 ·이시다 마사하루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제7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3부 기술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현명철 일본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오타 히데하루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
－'朝鮮의 役'의 제문제－
비평문(현명철),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김도형 韓日 歷史敎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기무라 간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
비평문(김도형),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신주백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 서술의 변화
(1945년~현재)
비평문(시게무라 도시미쓰)
시게무라 도시미쓰
·이이무라 도모키 일한 상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현대사 기술방식 분석－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연민수	日本歷史敎科書의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이노우에 나오키	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기술 －문제점과 변천－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머리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의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의하여 설립하기로 합의되고, 그 후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6월 23일에 발족되었다. 제2기 위원회 중에서 제1분과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고대 한일관계사의 학설과 해석의 현상과 문제점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1분과는 한일 쌍방 3명씩 합계 6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제1기에는 연구기간의 문제로 검토하지 못했던 시대를 주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 결과, 고고학이 대상으로 하는 시대부터 고대 말인 9세기 말까지의 한일관계사를 길게 고찰하게 되었다. '고대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천'이라는 大主題를 설정하고, 이를 (1) 3세기 이전, (2) 4~6세기, (3) 7~9세기로 나누어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

약 2년 반 동안 먼저 연구 과제와 분과 운영방침을 정한 후, 총 17회의 합동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가운데 한일 각 위원들은 대체로 예정대로 각 과제를 검토하였고, 그 성과를 상호 간에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기간 종료를 앞둔 2009년 8월에는 각 위원들이 각 주제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 제기를 하여 좌담회를 열었다. 그 밖에 합동분과회의 개최지에서는 연구 주제와 깊이 관련된 사적, 유적, 고고·문헌자료에 대해서 현지 연구자들의 협력을 얻어 공동조사와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와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교환으로 한일의 학설의 現狀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과 이해를 상호 간에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추진된 2년 반의 공동연구의 성과로서 각 위원 개인의 조사·연구 성과로서의 논문과 좌담회 토론문, 그리고 활동기록을 정리하였다. 고대 한일관계사의 학설은 문헌·고고 연구자들이 매일매일 연구에 정진하여 점진적이기는 하나 진보하고 있고, 이 연구보고는 양국에 있어서의 연구의 현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학술 각 분야에서 학술 교류가 왕성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역사 분야의 연구는 국가와 민족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보고서가 고대의 한일교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분들에게 활용됨으로써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교류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진전되고, 역사인식의 상호

이해가 심화되게 된다면 다행이겠다.

끝으로 이 2년 반 동안 공동연구회의 개최와 유적·자료 조사에 협력해 주신 양국의 여러 기관과 그 밖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또, 사무국으로서 제1분과의 지금까지의 운영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한국측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사무국, 그리고 일본측 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	일본측 위원
盧泰敦	濱田耕策
金泰植	坂上康俊
趙法鍾	森　公章

논문편

조법종	古代 韓日關係의 成立 －彌生文化 主體問題에 대한 檢討－
하마다 고사쿠	古代 日韓關係의 成立 －地域 間의 交流에서 古代國家의 關係로－
김태식	古代 王權의 成長과 韓日關係 －任那問題를 包含하여－
모리 기미유키 ·하마다 고사쿠	古代 王權의 成長과 日韓關係 －4~6세기－
노태돈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韓日關係 －7~세기－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韓關係 －7~9세기－

古代 韓日關係의 成立

－彌生文化 主體問題에 대한 檢討－

조법종(趙法鍾)

序論
제1장 韓日 農耕文化의 交流
제1절 稻作農耕文化의 傳播
1. 韓日 稻作農耕文化의 起源과 開始
2. 韓半島 稻作農耕文化와 無文土器文化
3. 日本列島 稻作農耕文化의 展開
제2절 彌生土器文化의 成立과 韓日文化交流
1. 彌生文化 開始年代와 系統
2. 韓半島 無文土器 및 日本列島 彌生土器文化의 交流
제2장 韓日 金屬文化의 交流
제1절 靑銅器·鐵器文化의 交流
1. 韓半島 靑銅器文化의 日本列島 傳播
2. 鐵器文化의 交流
제2절 靑銅器·鐵器時代 遺物의 交流와 墓制의 樣相
1. 靑銅器, 鐵器遺物의 交流樣相
2. 墓制의 樣相
제3장 古朝鮮·三韓·三國 初期 倭와의 交流
제1절 古朝鮮時期 日本列島와의 交流
1. 古朝鮮時期 倭와의 關係
2. 衛滿朝鮮時期 對外交流
3. 衛滿朝鮮時期 倭와의 交流
제2절 三韓과 三國 初期 倭와의 交流
1. 東夷지역에서의 重譯外交
2. 三韓과 倭와의 交流－문헌검토－
3. 三韓과 倭와의 交流－고고학적 검토－
4. 三國 初期(西紀 3世紀까지) 倭와의 交流
結論

【國文抄錄】

1. 한일 선사문화의 교류에 대한 한국,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볼때 일본 彌生(야요이)文化 성립의 중요 요소인 水田稻作, 청동기, 철기 등 금속문화의 전래 양상에 대해 종래 일본학계 및 개설서에서는 그 전래 주체와 지역에 대해 모호하게 '대륙'이라고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관련 연구 성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稻作文化의 경우 한반

도 松菊里文化의 영향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의 경우 細形銅劍 즉, 한국식 동검으로도 불리는 한반도 중심의 청동문화가 일본열도에 전해졌음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된다.

2. 일본 선사고고학계가 최근 진행한 AMS(이온빔가속기질량분석법) 측정에 의한 새로운 연대관을 근거로 彌生時代 개시 시점이 기원전 930년까지 소급되어야 한다는 기원전 10세기설 주장은 전제조건으로서 彌生文化의 기원지인 한반도의 농경 및 청동기문화 연대도 함께 상승해야하는 상황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학계의 입장이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연구내용은 이 같은 연대 상승에 회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3. 일본의 대외 교류에 대한 최초의 역사기록인 ≪山海經≫과 ≪漢書≫ 地理志 기록의 내용에 대해 일본학계에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출발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볼 때 古朝鮮, 蓋國 등과 倭 사이에 존재하였던 교류와 긴밀한 관계를 설명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衛滿朝鮮 이후 성립된 낙랑, 대방 등 군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衛滿朝鮮과 倭와의 사이에서 존재한 교류 관계가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고조선과 왜와의 관계가 확인된다. 종래 이 같은 이해가 양국의 개설서나 연구에서 부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실과 의미 부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이번 연구에서 고조선 및 삼한을 포괄한 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重譯外交가 확인되었다. 즉, 東夷世界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重譯을 해주는 重譯국가와 被重譯 국가나 종족 사이에 附庸國적 성격의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三韓이 倭를 郡縣과 연결하는 데 중역을 해주었다는 기록에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대 중역외교에 의한 삼한－왜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5. 선사, 고대의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양국의 고고학적 성과를 체계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주제어 : 彌生文化(야요이문화), 稻作文化, 細形銅劍, 衛滿朝鮮, 重譯外交

序 論

先史 및 古代 한일관계의 형성과 전개는 신석기시대 이래 현해탄을 중심으로 한 물적, 인적 교류를 토대로 韓半島의 無文土器, 水田稻作, 靑銅器·鐵器文化가 日本列島에 전해져 수전도작 및 금속문화로 상징되는 彌生文化를 형성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또한 이후 고조선, 삼한 및 삼국 초기단계의 기록에서 이 같은 문화적 교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사이래 고대사 초기에 전개된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학계가 여러 방면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彌生文化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교과서 및 양국의 개설서에서 심도있게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이 시기에 대한 한일 양국 학계에서 이룩한 성과를 정리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검토하여 한일 양국 교과서 및 관련 자료집필자들에게 연구개요 및 쟁점을 소개하기 위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韓日 農耕文化의 交流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稻作農耕文化의 傳播과정을 검토하고 韓日 稻作農耕文化의 起源과 開始의 實狀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韓半島 稻作農耕文化와 無文土器文化의 구체적 내용을 정립하고 日本列島의 稻作農耕文化의 展開 양상을 상호 연결지어 파악함으로써 한일 농경문화 교류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선사시기 수전도작문화가 일본열도에 人間의 移動에 依한 技術과 文化傳播를 통해 성립되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彌生文化의 成立과 관련된 韓日 文化交流를 검토하고 최근 일본 선사고고학계에서 AMS측정법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彌生時代 기원전 10세기 開始說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彌生文化성립의 實際時期와 새로운 年代觀에 나타난 문제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열도지역의 彌生문화 개시 연대의 상승은 유물의 단순 연대상승에 의해 나타날 수 없고 滿洲 및 韓半島의 청동기 및 철기문화의 연대에 연동된 것으로 동아시아 청동기, 철기문화 연대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속에서 가능한 문제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韓日 金屬文化의 交流양상을 靑銅器, 鐵器遺物의 交流와 墓制 등 물적, 인적 교류의 구체적 상황을 정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국 청동기, 철기문화의 교류 또한 기술을 보유한 人間集團의 移住에 의해 나타난 사실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역사시기의 교류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古朝鮮·三韓·三國初期

倭와의 交流를 각각 나누어 古朝鮮時期 日本列島와의 交流에서는 고조선의 對外關係와 衛滿朝鮮時期 對外交流 그리고 衛滿朝鮮時期 倭와의 交流를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三韓과 三國初期 倭와의 交流의 실상 파악을 위해 東夷지역에서의 重譯外交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三韓과 倭와의 교류에 대한 文獻檢討와 考古學的 資料檢討를 연결지어 파악하여 重譯外交의 中心에 고조선, 삼한이 존재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1장 韓日 農耕文化의 交流

제1절 稻作農耕文化의 傳播

1. 韓日 稻作農耕文化의 起源과 開始

東아시아의 稻作과 관련된 論議는 栽培稻의 起源과 稻作農法 특히, 水田稻作의 傳播過程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현존 稻는 크게 長粒形의 Indica와 短粒形의 Japonica로 나뉘는 데 이들의 起源에 대해 크게 中國南部에 分布하는 多年生과 南아시아에 分布하는 一年生 普通野生稻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1] 이들의 연계성에 대해 1990년대부터 DNA분석을 통해 栽培稻의 두 生態型인 Indica와 Japonica가 각각 일년생과 다년생 普通野生稻에서 기원하였다는 二元說이 제기되었다.[2] 이 같은 견해에 대해 中國學界는 이 두 품종이 모두 中國에서 起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3] 그러나 중국 현지 야생도에 대한 核 DNA分析[4] 및 葉綠體 및 핵의 DNA配列變異에 대한 분석 등에서

1) 安承模, 1999 ≪아시아 栽培稻의 起源과 分化≫ (學研文化社)

2) 佐藤洋一郎, 1996 ≪DNAが語る稻作文明－起源と展開≫ (NHK Books) ; 1999 ≪DNA 考古學≫ (東洋書店)

3) Sun. C. et al. 2002, Genetic differentiation for nuclear, mitochondrial and chloroplast genomes in common wild rice (Oryza rufipogon Griff) and cultivated rice (Oryza sativa L.), Theoretic and Applied Genetics 104(8)
안승모, 2006 <재배도의 기원과 韓半島로의 전래－도자료를 중심으로－> ≪일한교류전 稻の來た道≫ 70~71 인용
이 논의의 핵심은 벼 葉綠體의 DNA고리에서 일년생과 Indica는 缺失이 존재한 반면 다년생과 Japonica는 결실이 없는 데 중국의 野生稻에 이 같은 현상이 모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입장차이에서 나타났다.

Japonica는 中國 南部의 多年生 野生稻, Indica는 南아시아 東部와 東南亞 西部를 포함한 히말라야 이남의 一年生 野生稻에서 기원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古代米의 DNA분석에서도 中國 古代米는 모두 Japonica로 파악됨에 따라[5] 二元起源說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韓半島의 稻와 日本列島 稻의 起源地가 中國 南部와 直接的으로 連結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韓國의 水田稻作文化 傳來 系統과 年代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稻作文化관련 資料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長江유역의 新石器早期(紀元前10000~5000년)유적의 彭頭山遺蹟의 炭化米와 플랜트오팔(植物硅酸體)[6]과 新石器晩期(紀元前5000~3000년경) 河姆渡文化期의 炭化米[7]와 馬家浜문화기(紀元前5000~4000) 江蘇省 草鞋山유적의 水田遺蹟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韓半島 稻作전래와 직접적 관련이 높은 지역인 山東半島의 烟台市 楊家圈유적(紀元前2500~2000)과 遼東半島 大連市 大嘴子유적(紀元前1900~1300)에서 炭化米가 확인되고 있다.[8] 이같은 中國 農耕文化 및 稻作의 韓半島 傳來는 紀元前 4000년경의 新石器文化段階로서 黃海道 鳳山郡 智塔里, 鳳山郡 馬山里, 平壤 南京유적 등에서 피, 조등이 출토되어 雜穀 田作農業이 확인되고[9] 京畿道 高陽 및 金浦, 一山 등지의 新石器 後期 炭化米 등을 통해 陸稻作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10000여년 이전의 양상인 淸原 小魯里의 13000~15000년BP 土炭層의 稻籾 예를 제외하면 韓半島 栽培稻의 年代는 5千年前頃 출현하고 있다. 京畿 高陽市 大化里 土炭 稻籾의 연대가 4070±80BP로서 2880~2450BC 연대를 보여준다.[10] 그런데 紀元前 3000년경 韓半島 서해안의 稻作은 중국의 稻作地域과 연결지어 살펴야 하는 데 현존 中國 山東地域 稻作은 紀元前 2500년경 龍山時代부터 출현하며 紀元前 3000년경 이전의 稻作 北限은 淮河유역이란 점에서 이 시기의 稻作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韓半島에서의 農耕사회로의 전환과 水稻作의 본격화 문제는 新石器時代 식물재배 양상이 존재하고 忠北 沃川 大川里遺蹟에서 벼 재배가 확인은 되지만[11] 대부분 지

4) Cheng, Chaoyang et al. 2003, Polyphyletic Origin of Cultivated Rice:Based on the interspersion Pattern of SINEs. Mol Biol Evol 20.
5) 佐藤洋一郎, 1999 ≪DNA 考古學≫ (東洋書店)
6) 裵安平, 1989 <彭頭山文化的稻作遺傳與中國史前稻作農業> ≪農業考古≫ 1989-2
7) 浙江省博物館, 1981 <河姆渡遺蹟動植物遺存的研究> ≪浙江省文物考古學刊≫ 1
8) 許明綱, 劉俊勇, 1991 <大嘴子靑銅器時代遺址發掘記略> ≪遼海文物學刊≫ 1991-1
9) 변사성, 고영남, 1989 <마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10) 安承模, 2007 <栽培稻의 起源과 韓半島로의 傳來－稻資料를 中心으로－> ≪日韓交流展 稻の來た道≫ 73
11) 한창균 외, 2002 <옥천 대천리유적의 신석기時代 집자리연구>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발표집≫ ;

역에서 논, 밭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住居地 등에서 栽培植物遺體의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과 栽培關聯 道具의 未備性에 입각해 대부분 이 시기를 農耕사회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12] 따라서 農耕民은 기후의 寒冷化에 따른 移動[13]과 狩獵採集民의 人口增加에 따른 農耕의 採擇[14] 등이 진행되면서 無文土器단계에 본격적인 農耕社會로의 전환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韓半島 稻作農耕文化와 無文土器文化

韓半島 稻作農耕은 無文土器文化의 전개양상과 연결되어 無文土器時代[15]로 통칭되고 있으며 靑銅器時代로 표현하고 있다.[16] 1980년대까지 韓半島 農耕에 대한 論議는 벼농사의 起源과 傳播문제가 중심 연구주제로 진행되었고 1990년대 이후 大單位 聚落發掘, 栽培植物遺體와 耕作遺構 發見 등을 통해 農耕社會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農耕사회 전개의 핵심은 水稻作의 본격화로서 기술력과 노동조직이 기반된 사회전반의 변화를 수반한 생산방식의 변화를 전제한 것이다.

韓半島 無文土器時代 水稻作의 본격화시점에 대해서는 松菊里土器文化 以前과 以後로 보는 두 견해로 나뉘고 있다. 以前說의 경우 울산 야음동 논유구[17]와 밀양 금천리 可樂洞식 주거유적과 관개시설[18]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以後說은 水田이 발견된 論山 마

구자진, 2003 <옥천 대천리의 신석기집자리에 대한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12) 이진민, 2007 <남한지역 農耕사회의 성립과 전개> ≪요시노가리 일본속의 고대한국≫ 296

13) 안재호, 2000, <한국 農耕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 51 ; 김재윤, 2003, <한반도 刻目突帶文土器의 편년과 계보>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85

14) 이준정, 2001 <수렵채집경제에서 농경으로의 전이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영남고고학≫ 28, 20

15) 靑銅器時代와 無文土器時代라는 개념은 無文土器의 사용, 靑銅器의 사용과 생산, 農耕사회의 성립, 마제석검, 석촉 등 무기류와 마제석부, 반월형석도 등 마제석기류의 제작, 支石墓로 대표되는 집단적 분묘축조의 時代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靑銅器時代란 표현은 동북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관점의 용어라면 無文土器時代는 韓半島에 한정된 표현이란 점에서 논자에 따라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다. 특히, 靑銅器는 前期후반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無文土器와 시점상 낙차를 갖고 있는 특징이 반영된 개념이다.
배진성,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22~23

16) 최몽룡, 1997 <청동기시대>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 최몽룡, 2008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동기, 철기시대의 연구방향> ≪한국 청동기, 철기시대와 고대사회의 복원≫ (주류성출판사)

17) 곽종철, 이진주, 2003 <우리나라의 논유구 집성> ≪한국의 農耕문화≫ 6 (경기대학교박물관)

전리, 보령 관창리, 부여 구봉리유적의 炭化米, 대규모 취락 등을 근거로 송국리식 土器단계에 水稻作의 본격화를 상정하고 있다.[19] 사회 전반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후자의 입장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韓半島 南部地域의 無文土器 展開樣相은 土器相을 根據로 前期(驛三洞文化:孔列土器, 可樂洞式:二重口緣單斜線文土器, 欣岩里式土器), 中期(松菊里式土器:外反口緣土器), 後期(粘土帶土器)로 파악하는 3시기 구분 입장에서 早期로서의 刻目突帶文土器가 설정되고 粘土帶土器를 鐵器時代로 파악하는 立場이 개진되면서 학계의 연구양상은 粘土帶土器를 포함한 4段階說[20]과 포함치 않은 早期－前期－中期－後期의 4분기설로 정착되고 있다.[21] 그런데 후자의 경우 前期와 中期時代에 해당하는 土器들의 다양한 출토 양상은 時期的 樣相이기보다는 地域的 系統性 差異일 가능성 등이 있고 특정 양식을 단순하게 적용키 어려운 점도 있어 早期－前期－後期로 설정하기도 한다.[22] 그러나 粘土帶土器文化는 鐵器時代로 時代성격이 구분되어 설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파악되어 早期－前期－松菊里文化段階로 설명한 時代槪念이 사용되고 있다.[23]

韓半島 無文土器 早期로 編年되는 刻目突帶文土器文化[24]는 石上圍石式 爐址를 갖춘 無柱孔의 方形, 長方形 住居址와 深鉢形의 刻目突帶文土器, 兩刃의 半月形石刀를 특징으로 서울 미사리유적, 남강댐 수몰지구의 진주 대평 어은1지구, 정선 아우라지, 금릉 송죽리, 순창 원촌유적 등에서 나타나 남한지역에 등장한 最初의 農耕社會로 파악되고 있다.[25] 이 文化의 起源地는 豆滿江流域,[26] 鴨綠江中上流流域[27]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

---

18) 이상길, 김미영, 2003 <밀양금천리유적> ≪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19)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편, 2005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경문화사)

20) 이 경우는 앞서 3시기구분에 早期로서 刻目突帶文土器단계가 추가된다.

21) 粘土帶土器문화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남한지역 無文土器문화의 時代편년은 다음과 같은 4분기로 구분된다.
早期(刻目突帶文土器)－前期(可樂洞, 驛三洞식 土器)－中期(欣岩里식土器)－後期(松菊里式土器)
裵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15

22) 安在晧, 2006 ≪靑銅器時代 聚落硏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3) 김장석, 2007 <靑銅器時代> ≪한국고고학강의≫ (한국고고학회) 75

24) 안재호, 2000 <한국 農耕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
刻目突帶文土器문화는 미사리유적 발굴 이후 진주 남강댐 수몰지구에서 확인되면서 한 時代로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25) 이진민, 2007 <남한지역 農耕사회의 성립과 전개> ≪요시노가리 일본속의 고대한국≫ 299

26) 김재윤, 2003 ≪한반도 刻目突帶文土器의 편년과 계보≫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7) 천선행, 2005 <한반도 돌대문土器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57

히, 鴨綠江의 公貴里, 深貴里 遺蹟과의 類似性이 지적되고 있다. 이 土器는 新石器末期의 土器와 공존하고 있는데[28] 平底鉢 위주의 土器, 半月形石刀, 石斧, 대팻날로 이루어진 석기조성, 長方形住居地, 海洋資源을 이용치 않는 양상 등은 후속 驛三洞 可樂洞 土器文化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어 在地文化의 變化가 아닌 새로운 集團의 移住로써 설명된다. 최근 이 문화는 靑銅器時代 上限年代의 지표로서 紀元前 2000~1500年頃이 제시되고 있다.[29]

紀元前 2000년기 말부터 시작하는 無文土器時代 前期에는 韓半島 대부분 지역에서 稻作이 진행된다. 稻作이 실시된 前期文化로 西北地方은 팽이형土器文化, 中部와 南部는 孔列文土器가 중심을 이루는 驛三洞·欣岩里類型[30]과 二重口緣土器系統의 可樂洞類型이 존재하고 있다.

驛三洞文化는 孔列土器, 단지형 赤色磨硏土器, 無施設式 爐址를 갖춘 長方形, 細長方形 住居地를 특징으로 남한 전역에 분포한다. 石器는 魚形, 舟形石刀, 二段柄式 石劍, 三角灣入 二段莖鏃, 圓筒形 蛤刃石斧 등이 나타난다. 이 문화의 기원지는 東北韓, 西北韓說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문화의 在地的 受容說도 제시되고 있다.[31] 可樂洞문화는 二重口緣單斜線文土器, 圍石式 爐址를 갖춘 方形, 長方形의 住居地를 특징으로 錦江流域에 분포하는데 기원지로서 鴨綠江下流, 淸川江－大同江流域의 팽이형土器문화와 연결되고 있다.[32] 두 문화는 주거지 배치 및 석기 조성 양상에서 공통점이 많으며 생계방식도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벼, 보리, 조, 기장 등의 栽培植物遺體, 耕作遺構, 收穫具인 半月形石刀, 伐木具인 磨製石斧, 여러 세대 공동주거를 반영한 住居地의 細長化, 群集化는 農耕이 生業全般을 規制한 社會임을 보여준다.[33]

無文土器時代 稻作관련 유물인 炭化米는 팽이형土器문화에서는 平壤 南京 36호 주거지, 刻目突帶文土器文化인 美沙里 유형에서는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104호 주거지, 可樂洞과 欣岩里유형에서는 강릉 교동 1호 주거지와 驪州 欣岩里 12호에서 출토되었다. 따

28) 국립김해박물관, 2004 ≪韓國圓形粘土帶土器文化資料集≫
29) 최몽룡, 2008 ≪한국 청동기·철기시대와 고대사회의 복원≫ (주류성출판사) 87
30) 欣岩里유형은 驛三洞식의 공열과 可樂洞식의 이중구연, 단사선문이 한 土器 또는 동일유구에서 공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서북계와 동북계의 복합유적으로 이해되었다(이백규, 1974 <경기도출토 無文土器 마제석기> ≪고고학≫ 3). 최근에는 이 문화는 驛三洞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어 파악되고 있다.
31) 김장석, 2001 <흔암리유형재고> ≪영남고고학≫ 28
32) 이형원, 2001 <앞 논문>
33) 이진민, 2007 <남한지역 農耕사회의 성립과 전개> ≪요시노가리 일본속의 고대한국≫ 302~303

라서 無文土器時代 전 지역 및 문화내용에서 고르게 稻作農耕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韓半島 無文土器 前期時代의 稻作은 新石器 稻作의 連續이거나 遼東에서 다른 靑銅器文化要素와 더불어 傳來되었을 가능성 중 후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전래 루트는 遼東에서 鴨綠江, 淸川江을 거쳐 江原道 東海岸으로 넘어가 다시 南韓지역으로 확대된 루트와 遼東에서 西海岸으로 넘어온 루트가 상정되고 있다.[34]

松菊里類型의 文化는 無文土器 中期 또는 後期時代로 편년되는데, 韓半島에서 水田稻作文化가 본격적으로 展開되어 灌漑를 隨伴한 水稻作이 完成된 시기이다. 이 문화의 발생지는 충남 서해안－금강 중하류유역으로서 문화 기원에 대해 자생설과 외래설이 병존하는 데[35] 논산 마전리, 울산 옥현 등지에서 방형의 소구획 水田이 발견되었으며 밭과 계단식 水田은 前期부터 존재한다. 이 문화의 특징적 양상은 중앙에 楕圓形 구덩이를 갖춘 圓形住居地, 外反口緣土器, 三角形石刀, 有溝石斧를 세트로 충청, 호남, 영남지역에 분포한 문화양상으로 주거지의 경우 爐址가 잘 발견되지 않고 貯藏竪穴이 別途로 마련되었으며 주거지 규모가 세대별로 분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木材加工을 위한 單刃石斧의 발달과 논유구의 증대, 삼각형석도의 존재는 본격적인 水稻作農耕과 人口의 增加를 보여주고 있다.[36]

한편, 無文土器時代 경작형태는 충적지의 밭농사, 山地의 火田, 丘陵의 水田으로 대별되는 데 화전과 밭농사는 前期부터, 水稻作은 中期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7] 한편 韓半島의 稻作은 처음부터 水稻作의 형태로 들어왔으며 육도는 밭유구에서 도의 plant opal이 다량 검출된 광주 신창동유적을 근거로 紀元前 1세기 이후에야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38] 韓半島의 稻作은 장강유역의 稻作이 산동, 요동반도의 발해만을 따라 전래되면서 水稻作, 陸稻作이 같이 들어왔을 것으로 파악해 유적의 입지에 따라 밭농사, 天水畓, 灌漑水田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것으로 보는 것이[39] 적절하다고 이해된다.

한편, 無文土器時代 석기는 석검, 석촉, 반월형석도, 유구석부에 대한 검토가 중심을 이루었다. 석검 특히, 有柄式石劍은 韓半島에서 특히 발달되었음이 강조되었고 石鏃의 경우 無莖式에서 有莖式으로 변화되는 양상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되었다. 특히, 석제 공구

34) 안승모, 2007 ≪앞 책≫ 75
35) 이건무, 1992 <송국리형 주거분류시론> ≪택와 허선도선생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36) 이홍종, 2005 <송국리문화의 문화접촉과 문화변동> ≪한국상고사학보≫ 48
37) 안재호, 2006 <靑銅器時代취락연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38) 조현종, 2004 <우리나라 도작농경의 기원과 도작유형> ≪농업사학회지≫ 3(2)
39) 안승모, 2002 <韓國と日本の初期稻作－未解決の諸問題－> ≪朝鮮半島と日本の相互交涉に關する綜合學術調査≫ ; 2006 <앞 논문>

류는 벌채석부(합인석부), 유구석부, 편평편인석부, 석착 등 4종류의 공구류가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발달된 農耕기술에 필수적인 木製農耕具製作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農耕문화양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소이다.[40] 특히, 이는 요령지역 신석기-靑銅器 전환시점에서 요서에서는 목축과 農耕을 병용하는 형태였지만 요동지역은 가축의 사육화가 보이지 않는 農耕주체의 사회였다는 이해[41]와 연결된 생계양식과 결부된다.

한편, 有溝石斧는 韓半島 無文土器의 독특한 요소로서 목제도구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송국리문화권에서만 사용되었던 交刃의 三角形石刀는 東北아시아에서 韓半島만의 特徵이자 考案品으로 파악되고 있다.[42]

3. 日本列島 稻作農耕文化의 展開

韓半島의 稻作農耕은 無文土器時代 中期에 해당하는 松菊里文化시기에 본격적으로 일본열도로 전해져 북부 九州지역을 중심으로 정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북부 九州 玄海灘 沿岸平野의 佐賀縣 唐津市 菜畑, 宇木汲田, 福岡縣 二丈町 曲り田, 福岡市 有田, 板付 등 초기 稻作유적의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43] 특히, 板付遺蹟, 野多目遺蹟의 논유적은 한국의 蔚山 옥현유적이나 論山 마전리유적처럼 소구획 水田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稻作農耕은 특히 벼농사 기술뿐만 아니라 稻作農耕을 수행한 사회체제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홍도,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마제석검, 석촉 등 韓半島 靑銅器문화양상과 궤를 같이하며 環濠集落과 松菊里型 住居地, 支石墓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에 의해 農耕문화가 전파되었음을 보여준다. 竪穴住居와 貯藏穴의 別途配置 등 새로운 住居形式 및 石棺墓로 대표되는 松菊里文化의 영향은 또한 북부 九州 내해인 有明海 沿岸 佐賀平野의 吉野ケ里유적과 久保泉丸山유적에서도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44] 이는 송국리문화가 일본 彌生문화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문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열도지역으로의 稻作傳來루트에 대한 일본학계의 입장은 종래 다음과 같은 5가지 입장이 제시되어 있었다. 즉, 1)중국 북부－韓半島－북부 九州, 2)산동반도－요동반도－

40) 배진성, 2005 <무문土器시대 석기의 지역색과 조성변화> ≪사람과 돌≫ (국립대구박물관)
41) 千葉基次, 1996 <遼東靑銅器時代開始期> ≪東北アジアの考古學≫ (깊은샘)
42) 배진성, 2007 ≪앞 책≫ 18
43) 조현종, 2000 <일본의 도작농경연구－미생시대水田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11
44) 深澤芳樹, 2005 <彌生時代槪說> ≪日本考古學≫ (小學館)

韓半島-북부 九州 3)중국 북부－韓半島 중서부－북부 九州 4)중국 장강하류－九州(직접 도래설) 5)沖繩諸島－九州(남쪽 도래설) 등 견해가 제시되었는 데 4)의 직접도래설의 경우 農耕관련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과 5)의 남쪽 도래설의 경우 관련 米의 연대가 紀元後 7~8세기를 넘지 못하는 현상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45]

따라서 일본 초기稻作이 韓半島에서 전래되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학계의 입장은 동일하다. 즉, 水稻作과 灌漑農耕技術, 農耕道具, 米의 粒形, 作物組成 및 문화요소 전반에 있어 彌生早期의 稻作은 松菊里文化 要素와 함께 韓半島 남부지역에서 전래된 것에 동의하고 있다.[46]

한편, 일본학계에서는 繩文시기 稻作을 열대형 Japonica의 畑作으로 파악하여 조엽수림형의 전작이 남로를 통해 일본열도로 유입되었다는 화남직접 도래설이 제기되었다.[47] 그러나 남로에서는 작물고고학적 자료가 결여된 반면 韓半島와 九州는 즐문土器時代와 無文土器前期의 활발한 교류와 韓半島에도 열대형 Japonica에 가까운 粒型이 존재하는 사실에 의해 繩文稻作 또한 韓半島에서 전래된 것으로 파악된다.[48]

이 같은 양상은 日本列島의 農耕地域의 분포를 통해 확인된다. 즉, 일본 九州 북부지역의 稻作 관련 유적의 분포는 현해탄지역과 연한 佐賀縣 唐津市 菜畑유적, 福岡縣 二丈町 江辻遺蹟, 曲り田, 福岡市 板付遺蹟, 那珂遺蹟 등에서 繩文晩期의 農業聚落, 環濠聚落 및 水田遺蹟이 밝혀져 이 지역 중심으로 韓半島의 無文土器文化가 유입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초기稻作과 韓半島 선진문화가 玄海灘 沿岸의 佐賀縣 唐津平野에 전파되고 이후 福岡縣 絲島平野, 福岡平野로 확산되어 廣義의 筑紫平野로 擴散된 것으로 이해되었다.[49] 그런데 佐賀縣 佐賀市 久保泉丸山유적의 野臼式土器의 볍씨흔적, 吉野ケ里 環濠의 繩文晩期 벼플랜트오팔 등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有明海沿岸의 佐賀平野로 전해졌음을 보여주어,[50] 韓半島로부터의 農耕文化關聯 渡來集團의 規模가 大規模였음을 확인시켜준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일대 支石墓의 분포양상에서도 확인된다. 일부에서는 稻作전래 루트를 중국 長江 및 淮河관련 경로를 제기하기도[51] 하지만 北部 九州 初期稻作農耕 石

45) 佐原眞, 2007 <稻,鐵器,靑銅器>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273~274
46) 深澤芳樹, 2005 <彌生時代槪說> ≪日本考古學≫ (小學館)
47) 森貞次郎, 1985 ≪繩文農耕≫
48) 안승모, 2006, <앞 논문> 76
49) 片岡宏二, 2006 ≪彌生時代 渡來人から倭人社會へ≫ (雄山閣)
50) 七田忠昭, 2007 <吉野ヶ里遺跡－佐賀平野に花開いた韓半島の文化> ≪한일문화교류－韓半島와 일본규슈≫ 98
51) 和佐野喜久生, 1998 <江南行 日本稻のルーツを求めて> ≪虹を見た≫ (海援社)

製 및 木製農耕具가 韓半島系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時間 및 地域差에 의한 逐次的 傳播樣相으로 이해된다.[52]

그런데 水稻作은 조직화된 농업생산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즉, 水田경작을 위한 육모 및 수량조절, 제초, 시비 등 農耕과정에 대한 지식과 통제가 필요하며 목제 가래 및 괭이 등 목공구와 이를 제작하기 위한 돌도끼, 돌자귀, 돌대팻날, 돌끌 등 목제 가공도구와 수확용구로서의 반달돌칼, 돌낫 등 다양한 공구류의 제작 및 활용이 수반된다. 또한 水稻作을 위한 주거의 고착화, 경작지 토지소유 및 세습, 농업용수의 통제와 조정, 노동의 조직화, 잉여생산의 통제 등 정치권력의 형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韓半島와 일본열도에서의 稻作문제는 사회와 문화변화의 출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彌生문화의 요소는 水田稻作과 함께 저장용 호형 土器, 마제석부, 수적구, 석검, 석촉, 支石墓, 돼지의 사육 등으로서 韓半島 無文土器문화와 공통의 양상을 보여준다.[53]

한편, 일본 초기 農耕문화에서는 가축사육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54]되었으나 彌生집락에서 발견된 멧돼지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 稻作農耕과 함께 新種의 돼지가 수입되었다고 파악하였고[55] 彌生時代에서 고대에 걸쳐 家畜飼育이 진행되었음이 주장되었다.[56] 이는 彌生時代 水稻作 개시에 의한 변화가 생계양식의 변화와 함께 담당 종족의 변화 등 전면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韓半島에서 靑銅器유적에서 보고된 개와 돼지뼈에 대한 보고와 연결되고 있다.[57] 또한 신석기시대 韓半島에서 繩文時代 九州에 전해진 結合式釣針과 組合銛의 전통을 이은 逆T字形釣針은 산동반도－요동반도－韓半島 남부연안－서북 九州에 분포하고 있어[58] 요동반도 稻作栽培文化와 韓半島로 연결되는 漁撈活動文化의 연결성도 확인된다.

일본학계에서는 종래 繩文人에서 彌生人으로의 변화에 대해 繩文人이 進化해 彌生人이 되었다는 小進化說[59]과 九州의 山口縣 土井ケ浜遺蹟 人骨이 繩文人과 현격히 다르다

52) 七田忠昭, 2007 <위 논문>
53) 春成秀爾, 2007 <彌生時代槪觀>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54) 甲元眞之, 山崎純男, 1984 ≪彌生時代の知識≫ (東京美術)
55) 西本豊弘, 1993 <彌生時代ブタの形質につい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50
한편, 멧돼지에 대한 DNA검사를 통해 韓半島로부터 반입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小澤智生, 2000 <繩文彌生時代に豚は飼われていたか> ≪季刊考古學≫ 73).
56) 佐原眞, 1996 ≪食の考古學≫ (東京大學出版會)
57) 김신규, 1970 <우리나라 원시유적에서 나온 포유동물상> ≪고고민속론문집≫ 2
58) 甲元眞之, 1999 <環東中國海の先史漁撈文化> ≪熊本大學文學部論叢≫ 65
59) Suzuki.H, 1969 Microevolutionaly changes in the Japanese Population from the prehistoric age to the present-day, J.Fac.Sci.Univ. Tokyo.Section v3

는 것에 근거한 韓半島 渡來說[60]로 입장이 나뉘어 있었다. 종래 일본학계에서는 문화변용을 중시한 전자의 입장이 강조되었으나 고인골 연구 및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 현재는 도래설이 유력한 견해로 지지받고 있다. 이는 低顔, 低身長의 繩文人에 비해 北部 九州 彌生人의 高顔 高身長化 현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61] 특히, 彌生人 齒牙의 大型化는 유전적 진화의 역행현상으로 韓半島로부터의 인간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며 韓半島 남쪽 金海 禮安里 人骨 등과 北部 九州, 山口地域 彌生人 人骨이 매우 흡사한 상황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62]

그런데 최근 福岡市 糸島半島의 新町遺蹟 支石墓 出土人骨이 繩文人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을 부각하여 繩文으로부터 彌生으로의 변혁은 繩文系 土着集團이 주도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63] 그러나 韓半島 남부지방의 禮安里나 勒島유적의 人骨 身長이 반드시 크지 않았다는 점[64] 등에 의해 이 같은 논리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彌生中期 이후의 압도적인 彌生인골의 점유양상은 韓半島로부터의 이주한 도래인의 규모가 대규모인가 소규모 집단이 도래하여 높은 인구증가율에 의해 점유비율이 높아졌다는가[65]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추론을 수용키 어려우며 渡來人集團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사회변화와 水稻農耕이 진행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66]

제2절 彌生土器文化의 成立과 韓日文化交流

1. 彌生文化 開始年代와 系統

日本 彌生時代의 年代觀은 1960年代까지 紀元前 3世紀~紀元後 3世紀까지의 기간으로 파악하던 時代觀에 대해[67] 1970년대 岡崎敬이 宇木汲田 貝塚의 C14年代를 근거로 繩文

60) 金關丈夫, 1976 ≪日本民族の起源≫ (法政大學出版局)
61) 오세연, 2000 <稻作農耕사회의 형성> ≪겨레와 함께한 쌀≫ (국립중앙박물관) 44
62) 金鎭晶, 小片丘彦, 峰和治, 竹中正巳, 佐熊政史, 除レイ男, 1993 <金海禮安里古墳出土人骨>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15
63) 金關恕, 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編, 1995 ≪彌生文化の成立－大變革の主體は繩文人だった≫ (角川書店)
64) 春成秀彌, 1989 <朝鮮半島における戰亂と人ケの移動> ≪彌生時代の始まり(考古學叢書 11)≫ (東京大學出版會)
65) 中橋孝博, 2005 ≪日本人の起源≫ (講談社)
66) 中橋孝博, 2007 <繩文時代から彌生時代へ>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253~255.

晩期의 夜臼式土器를 紀元前 5~4世紀, 彌生前期前半 板付Ⅰ式土器를 紀元前 4~3世紀로 比定하고 中期後半은 紀元前 1世紀로 파악하여 紀元後 3世紀까지 존속한 문화로 파악하였고[68], 橋口達也가 北部 九州 甕棺에 부장된 漢鏡 年代 등을 검토하여 板付 Ⅰ式 土器 上限을 紀元前 300年 前後로 본이래 板付Ⅰ式 土器를 彌生時代의 개시와 연결지어 파악하였다. 1978년 北部 九州에서의 水田稻作 開始年代를 繩文晩期로 편년되었던 刻目突帶文土器 즉, 夜臼式土器, 山ノ寺式土器의 성립단계 즉, 水田農耕의 시작을 彌生時代의 개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확립되어 彌生時代 早期를 紀元前 5~4세기, 前期를 紀元前 3세기로 조정하였다.[69]

따라서 2003年 以前까지는 稻作農耕을 수반한 문화가 北部 九州地域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시점으로서 紀元前 450年頃으로 비정되어 繩文晩期, 彌生早期(紀元前 5~4世紀)~彌生前期(紀元前 3~2世紀初)~彌生中期(紀元前 2世紀初~紀元前 1世紀 내지 紀元後 1世紀初)~彌生後期(紀元後 1~3世紀中葉)로 時期區分되어[70]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2003年 日本 東京歷史民俗博物館팀(以下 '歷博'으로 略稱)이 土器에 대한 AMS(이온빔가속기질량분석법)測定에 의한 새로운 年代觀을 근거로 彌生時代 開始時點이 紀元前 930年까지 遡及되어야 한다는 紀元前 10世紀說 主張이 提起되면서 開始期 年代에 상당한 混亂이 나타나고 있다.[71] 우선 彌生時代의 編年을 '歷博'의 입장이 제기된 이후 AMS編年에 의할 때 早期(先Ⅰ期 紀元前 10~9世紀),前期(Ⅰ期, 紀元前8~4世紀), 中期(Ⅱ~Ⅳ期, 紀元前 4~紀元後1世紀), 後期(Ⅴ, Ⅵ期 紀元後 1~3世紀)로 제시된다.[72]

이 견해에 대해 日本學界는 贊反으로 立場이 나뉘었는 데 수반된 前提는 贊成의 경우 韓國의 靑銅器文化 年代遡及[73]으로, 反對의 경우 年代測定 過信의 문제[74] 및 變動可能性

---

67) 小林行雄, 1951 ≪日本考古學槪說≫－創元選書 218 (創元社) 162~163
이때의 근거는 北部 九州의 甕棺墓에 부장된 前漢鏡 年代를 기준으로 彌生中期 上限을 紀元前 1世紀로 잡고 中期의 下限은 王莽의 貨泉으로 紀元後 1世紀 前半以後로 잡았다. 彌生前期는 紀元前 1세기앞에 200년을 더하여 紀元前 2, 3세기에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68) 岡崎 敬, 1971 <日本考古學의 方法> ≪古代의日本≫ 9 (角川書店) 30~53

69) 鄭漢德, 2002 ≪日本의 考古學≫ (學研文化社) 140

70) 鄭漢德, ≪위 책≫ 154

71) 이에 따르면 彌生 早期는 紀元前 930년경, 前期는 紀元前 810년경, 中期는 紀元前 350년경, 後期는 紀元前후로 실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대관보다 500년 이상 소급된 내용으로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春成秀爾, 藤尾愼一郎, 今村峯雄, 坂本 稔, 2003 <彌生時代の開始年代－C14 年代の測定結果について－> ≪日本考古學協會第69會總會研究發表要旨≫ 65~68 ; 藤尾愼一郎, 2004 <韓國,九州四國の實年代> ≪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72) 春成秀爾, 2007 <彌生時代槪觀>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268

을 提起하고[75] 韓半島 관련유물의 年代觀과의 不一致를 제기하였다. 특히, 새로운 연대관에 의할 때 문제가 되는 점은 彌生早期, 前期遺蹟에서 出土된 鐵器의 年代問題가 발생한다. 日本學界는 彌生時代의 鐵器를 戰國 燕과 連結지어 韓半島를 통해 傳來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76] 이 경우 紀元前 4世紀를 넘어갈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歷博'팀은 기존의 관련 유물들이 모두 出土가 不分明하거나 再堆積된 것, 誤認된 것 등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彌生鐵器遺物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77] 그러나 기존의 彌生遺蹟에서 출토된 遺物들 모두를 否定하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없으며 연대를 맞추기 위한 강변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같은 贊反입장과 함께 年代上限 引上을 韓國, 中國 遺蹟에 대한 年代再檢討를 통해 進行하는 입장도 있다. 즉, 彌生 開始年代를 松菊里 石棺墓의 琵琶形銅劍年代를 春秋中期(紀元前 7~6세기)의 유물과 연결지어 연대를 紀元前 6세기 중엽으로 보거나[78] 湖西地域 遼寧式銅劍과 韓國式銅劍 연대를 재검토하여 飛來洞銅劍=西周後期 小黑石溝 M8501 이후→松菊里1호→禮山東西里=鄭家窪子6512호로 편년하여 彌生開始年代를 紀元前 8세기 중엽~7세기 중엽으로 비정하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79] 또 遼西의 小黑石

---

73) 宮本一夫는 歷博說을 지지하면서 韓半島 遼寧式銅劍 年代를 紀元前 9세기로 소급하였다. 宮本一夫, 2004 <青銅器と彌生時代の曆年代> ≪彌生時代の實年代 炭素14年代をめぐって≫ (學生社)
岡內三眞은 歷博발표 이후 韓半島 琵琶形銅劍 開始年代를 紀元前 6~5세기에서 紀元前 9세기로, 韓國式銅劍 연대를 紀元前 4세기에서 紀元前 5세기로 상향조정하였다. 岡內三眞, 2004 <東北式銅劍の成立と朝鮮半島への傳播> ≪彌生時代の實年代 炭素14年代をめぐって≫ (學生社)

74) 高倉洋彰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에 대한 불신을 관련 유물 연대가 실연대와 맞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高倉洋彰, 2003 <彌生時代開始の新たな年代觀をめぐって> ≪考古學ジャナル≫ 510
橋口達也는 福岡 曲り田遺蹟에서 鐵器가 공반된 사실과 北部九州 甕棺 年代觀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연대관 수용이 불가함을 강조하였다. 橋口達也, 2003 <炭素14年代測定法による彌生時代の年代觀に關聯して> ≪日本考古學≫ 16
柳田康熊은 磨製石劍의 祖形을 琵琶形銅劍과 桃氏劍으로 보고 연대상한을 부정하고 있다. 西谷正은 彌生時代 시작시기를 戰國竝行期로 보아 새로운 연대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柳田康熊, 2004 <朝鮮半島の中國式銅劍と實年代論> ≪九州歷史館資料論集≫ 29 (九州歷史資料館)

75) 大貫靜夫, 2005 <最近の彌生時代年代論について> *Anthropological Science (Japanese Series) 113-2*, 106
大貫靜夫는 年代測定値의 變動可能性을 근거로 彌生時代의 開始年代를 紀元前 8世紀, 中期는 紀元前 300년쯤으로 설정하고 있다.

76) 村上恭通, 2003 <中國, 朝鮮半島における鐵器の普及と彌生時代の實年代> ≪考古學ジャーナル≫ 510 ;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忠北大考古美術史學科)

77) 春成秀爾, 2008 <青銅器と彌生時代の年代>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3≫ (雄山閣) 4

78) 武末純一, 2004 <彌生時代の年代> 西川壽勝, 河野一隆 編, ≪考古學と實年代≫ (ミネルヴァ書房)

遺蹟의 靑銅禮器 銘文분석을 통해 小黑石의 銅劍을 頂點으로 하는 比來洞 銅劍, 欣岩里式土器－黑川式土器를 연결지어 彌生開始의 始作을 紀元前 7世紀로 보기도 한다.[80] 한편, 日本 彌生文化 成立의 근간이 韓半島의 松菊里文化임을 강조하면서 松菊里文化의 年代를 紀元前 900年頃으로 보고 彌生時代의 성립연대를 紀元前 850~800년 사이로 파악하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81] 이 같은 論議에서 확인되는 것은 日本列島의 最初 農耕文化인 彌生文化의 개시 연대가 상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彌生文化의 起源地인 韓半島의 農耕 및 靑銅器文化 年代도 함께 上昇하는 것이 필수적인 前提條件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학계에서는 이 같은 일본학계의 논의에 아직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학계는 彌生文化의 系譜와 관련하여 繩文文化의 傳統繼承과 韓半島 등 大陸文化에서 그 出自를 구하는 내용을 설정하여 彌生문화 가운데 日本列島 獨自의 側面을 부각하고자 하였다.[82] 이런 이해의 연장선에서 繩文文化의 전통은 女性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높고 大陸文化로 指稱된 문화현상은 男性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이 많음이 강조되었고[83] 이를 男性이 中心이 된 韓半島로부터의 渡來人과 繩文人과의 混血로서 설명하는 내용[84]과 연결지어 파악하고 있다.[85] 또한 稻作栽培와 관련하여 彌生時代의 대표적 工具인 大形蛤刃石斧가 繩文時代 磨製石斧의 系譜와 연결된다고 보고 繩文文化의 전통을 강조하였다.[86]

그러나 彌生文化 이전의 繩文文化의 경우 北部 九州를 중심으로 韓半島와의 文化交流가 頻繁하였음이 繩文期의 경우 結合式 釣針, 石製銛頭에 의한 새로운 漁法의 등장, 中期의 動物解體 및 骨角器 製作에 편리한 石刃技法의 수용 등에 의해 지속적인 관계가 파악되며[87] 이같은 전통 속에 彌生時代 특유의 扁平片刃石斧가 등장하고 있음[88]이 지적되어 韓半島에서의 문화수용이 확인되고 있다.

---

79) 庄田愼矢, 2005 <湖西地域出土 琵琶形銅劍과 彌生時代 開始年代> ≪湖西考古學≫ 12 (湖西考古學會)
80) 甲元眞之, 2006 ≪東北アジアの靑銅器文化と社會≫ (同成社) 149~153
81) 이홍종, 2000 <無文土器와 彌生土器의 實年代>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82) 佐原眞, 1975 <彌生文化の三要素> ≪古代史發掘≫ 2 (講談社)
83) 甲元眞之, 1978 <彌生文化の系譜> ≪歷史公論≫ 4-3
84) 金關丈夫, 1973 <人類學からみた古代九州人> ≪古代アジアと九州≫ (平凡社)
85) 甲元眞之, 2004 ≪日本の初期農耕文化と社會≫ (同成社)
86) 下條信行, 1975 <北九州における彌生時代の石器生產> ≪考古學硏究≫ 22-1
87) 李相均, 1998 ≪新石器時代의 韓日文化交流≫ (學硏文化社)
88) 甲元眞之, 2004 ≪日本の初期農耕文化と社會≫ (同成社)

한편, 彌生時代의 石器는 韓半島系 磨製石器계통인 半月形石刀, 石鎌, 有溝石斧, 蛤刃石斧, 자귀, 石鑿 등 工具類와 一段柄式石劍, 有莖式石劍, 有莖式石鏃 등의 武器로 구성되는 데 낚시바늘과 黑曜石製 화살촉, 돌송곳 등으로 구성된 繩文時代의 石器組合과는 구분되어 水田稻作, 支石墓, 靑銅器와 함께 韓半島에서 전래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彌生土器문화는 繩文末期의 淺鉢과 深鉢형태에서 貯藏用 壺, 炊事用 甕, 取食用 豆, 鉢 등이 제작되어 농업생산에 따른 생업경제변화의 상황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韓半島 無文土器 영향을 받아 제작된 貯藏用 壺 사용이 주목된다.[89]

2. 韓半島 無文土器 및 日本列島 彌生土器文化의 交流

日本列島 특히, 九州地域에서 출토되는 韓半島系의 土器文化 樣相은 刻目突帶文土器, 孔列文土器, 丹塗磨硏土器, 松菊里式土器, 粘土帶土器 등이 있다. 彌生早期 土器인 夜臼式土器(刻目突帶文土器)의 始原에 대해서 日本學界에서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먼저 福岡平野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水田과 刻目突帶文土器가 共伴된다는 점을 들어 北部 九州地域을 登場地域으로 보는 견해[90]와 繩文晩期 中半에 近畿地域에서 發生한 후, 北部 九州地域에로 波及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91] 北部 九州說의 경우, 刻目突帶文土器의 登場 背景과 관련된 系譜에 대해서는 韓半島의 刻目突帶文土器에서 그 系譜를 구하고 있다.[92] 후자인 繩文繼承說은 土器 自體의 變化相을 고찰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土器圈의 交流를 통해 여러 要素가 結合되면서 近畿地域에서 먼저 刻目突帶文土器가 탄생한 후, 九州地域으로 파급되면서 偶然히 水田農耕과 結合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土器文化의 主體는 繩文集團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들 繩文集團이 능동적으로 水田農耕文化를 받아들일 力量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학설을 뒷받침 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93] 그러나 彌生文化와 繩文文化와의 差別性을 고려할 때, 外來集團의 關與가 不可避했을 것이라는 解釋을 提示하고 있어[94] 결국 外來文化의 受容이 大前提가 될 수 밖에

89) 국립중앙박물관, 2007 ≪요시노가리 일본속의 고대한국≫ 30
90) 山崎純男, 1989 <彌生文化成立期における土器の編年的硏究> ≪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攷≫
91) 泉拓良, 1990 <西日本突帶紋土器の編年> ≪文化財學報≫ 8 (奈良大學文學部文化財學科) ; 家根祥多, 1993 <遠賀川式土器の成立をめぐって－西日本における農耕社會の成立－> ≪論苑考古學≫
92) 李弘鐘, 2000 <無文土器가 彌生土器 成立에 끼친 影響> ≪先史와 古代≫ 14
93) 田中良之, 1984 <繩文土器と彌生土器, 彌生文化の硏究 3 : 彌生土器Ⅰ> (雄山閣)
94) 家根祥多, 1997 <朝鮮無文土器から彌生土器へ>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Ⅰ≫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日本列島의 刻目突帶文土器의 出現에 대해서는 韓半島 南部地域의 影向이 제기되었고[95] 本村里遺蹟 3호 住居地 출토 刻目突帶文土器와 菜畑遺跡 출토 夜臼式土器의 절대연대가 거의 같다는 것으로부터 일본 刻目突帶文土器의 出現을 韓半島 南部地域에서 구했다.[96] 한편, 일본학계의 일부에서는 韓日 양지역 刻目突帶文土器의 문화전체를 고려할 때, 韓半島는 田作형태인데 비해 日本列島는 水田형태이며 아울러 石器의 組合도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한국 남부지역에서 水田農耕文化와 함께 刻目突帶文土器가 등장하였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97] 이처럼 彌生早期 土器인 刻目突帶文土器의 출현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학자 간에 이견이 있지만, 水田農耕을 기반으로 한 文化體系인 松菊里文化가 韓半島로부터 日本列島로 건너가면서 彌生文化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은 대부분 동의하는 점이다. 그런데 그 문화의 주체는 松菊里式土器를 직접 사용했던 집단이라기보다는 夜臼式土器의 母胎가 된 韓半島 南部의 刻目突帶文土器系와 驛三洞系라는 점이 주목된다.[98] 이러한 사실은 彌生 開始期에 나타나는 住居形이 變形 松菊里形 住居地이고 土器 또한 松菊里式土器가 아닌 刻目突帶文土器와 直立口緣土器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는 刻目突帶文土器 집단이 南部地域에 居住하면서 松菊里文化를 採用한 다음 日本地域으로 移住했을 가능성과 이들 집단이 일본열도로 먼저 이주한 후 남부지역의 驛三洞系와 交流하면서 松菊里文化를 採用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일본열도의 彌生文化 탄생은 한반도에서 松菊里文化를 채용했던 남부지역의 刻目突帶文土器系와 驛三洞系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된다.[99]

한편 韓半島지역의 初期 鐵器時代의 대표적 문화양상인 粘土帶土器文化의 출현은 遼東地域에서 燕將 秦開의 古朝鮮 侵攻時點에 등장하였다는 燕 昭王代說[100]이 제기되었으며, 이와는 달리 春秋末 戰國初 遼河中流域 靑銅器, 土器文化가 韓半島 북부지역을 거치지 않고 中西部地方으로 들어와 韓半島 粘土帶土器文化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95) 이홍종, 2000 <無文土器가 彌生土器성립에 끼친 영향> ≪선사와 고대≫ 14
96) 安在晧,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韓國上古史學會)
97) 藤尾愼一郎 외, 2006 <彌生時代の開始年代－AMS－炭素14年代測定による高精度年代體系の構築> ≪彌生時代の新年代≫ (雄山閣)
98) 이홍종, 2006 <무문토기와 彌生토기의 실연대> ≪한국고고학보≫ 60
99) 이홍종, 2007 ≪한일문화교류－韓半島와 일본규슈－≫ 30~31
100) 박순발, 2004 <遼寧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定着過程> ≪錦江考古≫ (창간호, 충청문화재연구원)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101] 이 같이 粘土帶土器文化는 古朝鮮과 깊은 연관이 있는 遼西-遼東지역의 住民移住로 韓半島에 등장한 문화로서 紀元前 6세기 말, 5세기 초로 설정되고 있다.[102]

韓半島 특히, 嶺南地域에서 출토되는 日本列島의 遺物은 彌生中期의 壺와 甕 등이 있다. 즉, 彌生土器는 嶺南海岸地方을 中心으로 發見되고 있는 데 특히, 慶南 泗川의 勒島遺蹟의 경우 彌生前期末頃의 土器가 유일하게 출토되고 있으며 金海, 釜山, 蔚山 등지에서 彌生 中期 이후의 城ノ越式, 須玖式土器가 확인되고 있다.[103] 즉, 金海 會峴洞 貝塚, 金海 大成洞 小城遺蹟, 釜山 池內洞遺蹟에서 彌生 中期(紀元前 2세기~紀元後 1세기)土器가 출도되고 있는데 이들은 日本製作品, 日本人이 건너와 制作한 것, 無文土器人이 模倣制作한 것 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粘土帶土器와 함께 출토되고 있다.[104]

한편, 일본지역에서 출토된 粘土帶土器는 北部 九州地域인 福岡, 小郡에서는 圓形粘土帶土器가 彌生前期 중엽의 板付Ⅱ式段階土器 등과 같이 나타나고 있고 長崎지역에서는 三角形粘土帶土器가 須玖式土器와 함께 나타나 시기적 선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105]

日本列島의 彌生時代를 대표하는 集落形態는 環濠集落이 존재한다. 현재 鹿兒島에서 群馬縣까지 약 5000여 유적이 확인되고 있는데,[106] 日本列島에 존재하고 있는 環濠集落의 系譜에 대해 일본학계에서는 韓半島 南部로부터의 系列과 長江流域에 系譜를 두는 루트를 제시하고 있다.[107] 그러나 북부 九州 초기 農耕集落의 근거로 파악되는 韓半島의 慶南 蔚山 檢丹里遺蹟과 忠南 松菊里유적에서 環濠集落이 발견되고 있고 稻의 傳播루트와 연결된다는 점에서[108] 북부 九州의 초기 農耕집락은 韓半島의 環濠集落에 그 系譜를 두고 있다고 파악된다. 특히, 북부 九州 지역의 突帶紋土器로부터 彌生前期 단계 집락의 양상은 水田, 排水路使用, 斷面 Ⅴ字形의 外濠와 內濠, 區劃區, 竪穴住居, 掘立柱 建物, 大

101) 이건무, 2003 ≪한국식동검문화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02) 박진일, 2007 <粘土帶土器로 바라본 初期鐵器, 彌生時代曆年代考> ≪한일문화교류, 韓半島와 일본 규슈≫ (국립중앙박물관)
103) 안재호, 홍보식, 1998 <삼한時代 영남지방과 북구주지방의 교섭사연구> ≪한국민족문화≫ 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井上主稅, 2006 ≪嶺南地方出土 倭系遺物로 본 韓日交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4) 국립중앙박물관, 2007 ≪요시노가리 일본속의 고대한국≫ 256
105) 박진일, 2007 <앞 논문> 157~158
106) 中村愼一 編, 2001 ≪東アジアの圍壁, 環濠集落≫ (平成12年度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補助金·特定研究(A1) 考古學資料集 25)
107) 寺澤薰, 1999 <環濠集落の系譜> ≪古代學研究≫ 146
108) 藤田三郎, 2003 <日本の農耕集落>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Ⅴ－集落と都市－≫ (同成社) 84

型建物, 貯藏穴, 墓地 등이 광범위한 지역에 計劃的으로 造成되었다는 점에서[109] 韓半島로부터 이주한 農耕집단에 의한 정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 韓日 金屬文化의 交流

제1절 靑銅器·鐵器文化의 交流

1. 韓半島 靑銅器文化의 日本列島 傳播

韓半島와 日本列島 間의 金屬文化 交流에 있어 韓半島에는 琵琶形銅劍과 銅矛로 구성되는 순수 靑銅器時代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 성과로 보는 한 그러한 단계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철기시대 이후 靑銅器와 鐵器가 거의 同時에 韓半島에서 日本列島로 流入되고 있다.[110] 또한 일본열도에서의 彌生時代 金屬器 사용의 특징은 利器는 鐵器가 祭器는 靑銅器가 사용되었고 이들이 製作은 되었지만 素材는 韓半島로부터 入手하였음이 지적되고 있다.[111] 日本學界는 彌生靑銅器文化의 形成에 나타난 韓半島 靑銅器文化의 收容과 定着 양상을 遼寧式銅劍(琵琶形銅劍)과 磨製石劍, 石鏃을 부장하는 支石墓 등의 墓制로 대표되는 '遼寧靑銅器文化複合'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12] 그런데 이 문화는 中國 中原의 靑銅器文化와 뚜렷한 差別性을 보이며 遼東半島, 韓半島 및 滿洲地域을 중심으로 琵琶形銅劍과 銅矛, 支石墓로 구성되는 靑銅器문화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靑銅器文化로 파악되고 있다.[113] 한편, 日本列島에서 가장 오래된 靑銅器유물은 彌生前期(板付Ⅰ式 土器時期)의 유물로서 福岡의 今川遺蹟에서 출토된 兩翼形 銅鏃과 銅鑿의 경우로서 銅鏃은 寶城 德峙里의 예처럼 遼寧式 銅劍이나 銅矛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며 銅鑿은 扶餘 松菊里 1號 石棺墓 出土例가 있어 今川遺蹟은 松菊里文化의 영향하에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109) 藤田三郎, 2003 <위 논문> 86~87
110) 鄭漢德, 2002 ≪日本의 考古學≫ (學研文化社) 202
111) 奈良文化財研究所監修, 2005 ≪日本の考古學≫ 111
112) 近澤喬一, 2000 <彌生時代> ≪山口縣史 資料編 考古≫ 1 (山口縣)
113) 박진욱, 강인숙, 황기덕,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이영문, 1997 <한국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한 고찰> ≪한국고고학보≫ 38

송국리문화의 시기 문제이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팀의 AMS에 의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 의한 연대상한 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中國紀年銘 遺物을 활용한 較差年代法이 제시되었고, 이를 琵琶形銅劍과 연결시켜 편년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기원전 8~6세기[114] 또는 기원전 6세기 후반~5세기 전반으로 파악하기도[115] 하였지만, 土器와 石器 등의 韓日較差編年을 감안하여 紀元前 4世紀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116] 따라서 이 문제는 송국리문화의 연대에 대한 정립에 따라 그 시기와 성격이 변동되며 아직까지는 한국, 일본학계의 통일된 입장이 없다는 점에서 시기확정은 곤란하다.

이 같이 日本列島의 靑銅器文化는 韓半島로부터 각종 靑銅器類가 전래된 것에 의해 시작되었다. 北部 九州를 시작으로 西日本으로 확대되어 靑銅武器의 경우 유입단계의 靑銅器는 韓半島製가 舶載되어 수입되었고 北部 九州에 地域王權이 확립되는 中期後半에 日本列島에서 靑銅器가 生産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日本學界에서 최근에는 靑銅器의 列島化 時期를 彌生時代中期前半(汲田式甕棺時期)으로 올려보고 韓半島 靑銅器의 輸入樣相에서 일종의 選擇을 강조하고 있다.[117] 그런데 靑銅器 鑄型의 양상을 보면 韓半島에서는 石製品이 중심이 되고 일부 儀器제작을 위해 土製品을 사용한 양상이 日本 北九州의 佐賀縣 佐賀平野를 중심으로 吉野ヶ里, 鍋島本寸 유적에서도 同一樣相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계통과 내용의 연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118] 또한 細形銅劍은 北部 九州의 金海式 甕棺期(彌生時代前期末) 이후 유입되어 墓의 副葬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은 韓半島와 동일한 배경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119]

2. 鐵器文化의 交流

彌生時代의 鐵器文化는 北九州지역을 중심으로 九州南部, 瀨戶內, 山陰연안으로 확대되어 중기 후엽 近畿지역으로 확대되고 후기에는 關東,甲信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

114) 大貫靜夫, 2003 <松菊里石棺墓出土の銅劍を考えるための10の覺え書き> ≪第15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研究會交流會豫稿集≫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115) 庄田愼矢, 2005 <日本 先史考古學의 時代區分과 年代問題> ≪先史와 古代≫ 22, 66
116) 武末純一, 2004 <彌生時代前半期の曆年代>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 박진일 2007, <粘土帶土器로 바라본 初期鐵器,彌生時代曆年代考> ≪한일문화교류, 韓半島와 일본 규슈≫ (국립중앙박물관) 162
117) 宮井善朗, 2003 <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靑銅器の比較>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 Ⅲ (同成社)
118) 後藤直, 2000 <日韓の靑銅器> 李弘鍾編, ≪韓國古代文化의 變遷과 交涉≫ (書景文化社)
119) 宮井善朗, 2003 ≪위 책≫ 63

고 있다.[120] 그런데 이는 모두 '舶載鐵製品', 즉 한반도에서 직접 전래된 것이란 점이 강조되고 있다.[121] 彌生시대 鐵器文化 전개과정의 특징은 前期에 磨製石器를 대신하여 鐵製 工具類가 먼저 유입되고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며 鐵鏃에 이어서 中期 단계에 鐵製武器類(劍, 刀, 鉾 등)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에 비해 鐵製 農具類는 그 출현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 전래된 '大陸系 磨製石器'인 蛤刃石斧, 片刃石斧, 有溝石斧, 半月形石刀 등이 生産道具의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舶載되어 들어온 일부 鐵製 工具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彌生時代 前期 段階는 물론 이후 독자적 형태를 갖는 鐵製 工具가 자체적으로 제조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北九州에서의 前期末~中期 前半, 畿內에서의 中期 前半頃에도 鐵素材는 日本列島內에서 生産하지 못하고 全的으로 韓半島로부터의 流入品에 의존하고 있었다.[122] 이 같은 사실은 당시 韓日 양국 사이의 교류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부족함이 지적되며 특히, 鐵器 製作과 鐵素材生産은 별도의 단계로서 파악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123]

彌生時代에 鐵生産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일본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있었다. 이는 구체적인 製鍊遺蹟을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鐵器와 鍛冶遺蹟 등의 양상을 고려한 정황적 판단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廣島縣 三原市의 小丸유적 SF1호 製鍊爐를 확실한 彌生時代 後期의 鐵生産爐로 제시하였으나,[124] 추가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彌生時代 鐵生産說은 미약한 상태이다. 한편, 金屬學的 分析을 통해 제시된 5세기 이후 古墳時代 鐵生産說이[125] 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철기생산 유적인 鍛冶遺蹟이나 鐵滓 관련자료들이 九州地域을 중심으로 岡山, 廣島, 大坂 등 서일본 일부지역에서도 관련유적이 파악되고 있어 彌生時代의 後期以後에는 日本內에서 自體的으로 鐵器를 제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26]

---

120) 野島 永, 2000 <彌生時代の鐵流通試論> ≪製鐵史論文集≫
121) 川越哲志, 1993 ≪彌生時代の鐵器文化≫ (雄山閣)
122) 李南珪, 2002 <日本 古代 鐵器文化의 形成－彌生時代를 中心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9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23) 李南珪, 2002 <앞 논문> 221~223
124) 松井和幸, 1986 <鐵生産の問題> ≪論爭學說日本の考古學≫ 4 (雄山閣)
125) 大澤正己, 1984 <金屬學見地からみた古代製鐵> ≪古代を考える≫ 36 ; 1997 <彌生時代の鐵器の動向－金屬學的見地からのアプローチ> ≪東日本における鐵器文化の收容と展開≫ 第4回鐵器文化研究集會
126)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靑木書店) 91~95

따라서 ≪三國志≫ 魏書東夷傳 弁辰條의 "… 國出鐵, 韓濊倭皆縱取之 …"란 記事와 최근 고고학자료를 감안할 때 彌生時代 後期까지 韓半島로부터 倭 지역에 계속 공급된 鐵素材에 주로 의존하면서 일부 자체적인 생산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이 당시 交易되던 鐵素材와 관련하여 이를 板狀鐵製品[127]이나 板狀鐵斧[128]로 보거나, 中國製의 鑄鐵脫炭鋼이나 炒鋼製 鐵板으로 보는 說[129] 및 鐵器나 素材가 中國으로부터 流入되었다는 說[130] 등이 제기되었다. 이는 이 시기 鐵素材를 생산하는 製鍊遺蹟이 韓半島에서 확인이 안되었던 상황에서의 논의였다. 그런데 최근 泗川 勒島유적에서 출토된 鐵滓들의 분석 결과 鎔解爐의 slag임이 밝혀졌고[131] 華城 旗安里유적에서 炒鋼의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132] 중국 및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의 鐵素材 유입이 함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제2절 青銅器·鐵器時代 遺物의 交流와 墓制의 樣相

1. 青銅器·鐵器遺物의 交流樣相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青銅器는 초기에는 무덤의 副葬遺物로서 대부분 출토되고 있다. 이들 유물은 지역별·시기별로 양상을 달리하는 데 일본의 경우 이 시기 最高 支配層무덤으로 인정되는 九州 佐賀縣 宇木汲田 12號, 積石木棺墓로서 吉武高木 3號 유적으로 銅鏡, 銅劍, 銅矛 등이 출토되며 韓半島의 次上級墓의 例와 같은 遺物相으로 분류된다.[133] 특히, 吉武高木 3號는 日本 土着 甕棺墓가 아닌 韓國系 積石木棺墓로서[134] 이 유적을 남

127) 岡崎敬, 1951 <日本における初期鐵製品問題> ≪考古學雜誌≫ 42-1
128) 東潮, 1995 <弁辰과 加耶의 鐵> ≪加耶諸國의 鐵(加耶研究學術叢書1)≫ (仁濟大學校 加耶文化研究所)
129) 大澤正己, 1997 <彌生時代の鐵器の動向－金屬學的見地からのアプローチ> ≪東日本における鐵器文化の收容と展開≫ (第4回鐵器文化研究集會)
130) 李京華, 1992 <試談日本九州早期鐵器來源問題> ≪華夏考古≫ 第4期
131)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 ≪勒島 貝塚Ⅴ≫ 考察編
132) 畿甸文化財研究院, 2003 <華城 發安里 마을유적·旗安里 製鐵遺蹟 現場說明會資料>
133) 이청규, 2007 <한일 青銅器와 요시노가리 유적> 국립중앙박물관, ≪한일문화교류, 한반도와 일본 규수≫ 78~79
134) 福岡市教育委員會, 1986 ≪吉武高木－彌生時代埋藏遺跡の調査概要(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143)≫

긴 집단은 韓國系 靑銅器를 제작한 日本 初期 鎔范과 南韓系 無文土器가 같은 유적에서 공반되는 사실을 볼 때 靑銅器 製作集團을 동반한 韓半島 南部地域 移住民集團임을 보여준다.[135]

한편, 韓半島 靑銅器는 주로 무덤의 副葬品으로서 日本列島에서는 초기 副葬品形式에서 점차 埋納된 祭器로서 대부분 발견되어 副葬과 埋納이란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同一한 系統에서 變化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器種과 形式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136]

武器의 경우 銅劍, 銅矛, 銅戈가 가장 대표적인데 劍은 자루가 별도 장착되는 別鑄式으로 검몸에 등대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琵琶形－中間形－細形－變形으로 변하고 일본에서는 中細形－中廣形－平形으로 변한다. 이같은 형식은 銅矛와 銅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韓半島에서 일본열도로 이동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大型化, 非實用化되어 武器形祭器化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137] 특히, 韓半島 남부지역 출토 琵琶形銅劍은 등대를 磨硏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實用具가 아닌 儀器로 파악하고 있으며,[138] 그 형태가 遼西지역과 유사함이 지적되고 있다.[139]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공통으로 출토되는 鐵器文化段階의 대표적 武器는 細形銅劍, 細形銅矛, 細形銅戈 등이다. 특히, 細形銅劍은 韓國式 銅劍이라고도 부르는데 관련문화가[140]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분포하여 한일 간의 문화교류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열도에서의 細形銅劍文化 관련 유적은 40개 정도로 九州의 北部地域을 중심으로 列島의 西部에 분포하고 있으며[141] 백수십 점의 細形銅劍과 細形銅矛, 細形銅戈 각 30여점 그리고 鑄型도 출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2] 이들 무기형 청동기들의 일본열도에서

---

135) 이청규, 2007 ≪요시노가리－일본속의 고대한국≫ 80
136) 이청규, 2003 <한일靑銅器의 비교> ≪한국문화사상대계≫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37) 이청규, 2008 <앞 논문>
138) 이양수, 2007 <요시노가리로 가는길> ≪요시노가리－일본속의 고대한국≫ 272
139) 국립김해박물관, 2003 ≪弁辰韓의 黎明－점토대토기의 등장－≫
140) 세형동검은 독특한 유물조합상을 보여준다. 즉 동모·동과·삼각형 석촉의 무기류와 동부·동착·동사와 같은 공구류, 방패형동기·검파형동기·나팔형동기의 이형동기, 조문경·정문경의 다뉴경, 팔주령·쌍두령·조합식 쌍두령·간두령 등의 의기류, 곡옥·관옥의 옥류, 점토대토기·흑도로 대표되는 토기가 특징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硏究≫ (學硏文化社) 13
141)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硏究≫ (學硏文化社) 74~79
細形銅劍 關聯遺蹟의 分布는 北部 九州의 福岡縣, 佐賀縣에 집중되고 瀨戶內海를 따라 山口, 廣島, 岡山, 愛媛, 高知, 德島를 거쳐 畿內地域에 이르며 동쪽의 名古屋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142) 吉田廣, 2001 ≪彌生時代の武器形靑銅器≫ (國立歷史民俗博物館 春成硏究室)

의 鑄造時點은 3種 모두 彌生中期 前半에 시작되고 있으며 有明海 沿岸地域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143] 또 武器形이외의 鉇, 銅鐸 등도 같은 시기에 주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武器類와 精文鏡, 銅鉈, 石製曲玉, 管玉, 小玉 등이 공반되고 있는데, 일본열도의 細形銅劍文化는 鐵器를 공반하지 않은 채 특징적인 中細形化 過程이 진행되어 中廣形, 廣形으로 儀器化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紀元 전후에는 金海地域을 중심으로 발전한 변형세형동검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일본열도의 細形銅劍은 檢身길이 18~36cm로 26~32cm인 것이 80%이상을 차지하여 韓半島의 양상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본열도 細形銅劍은 15개 형식이 설정되는 데 韓半島와 공통된 형식은 6가지로서 일본열도에서의 독자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144] 이는 細形銅劍의 儀器化 現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韓日 靑銅文化의 發展의 特性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한편 儀器로서 韓半島에서 나타난 것은 多鈕鏡, 銅鈴, 異形銅器, 銅鐸 등으로서 이중 銅鏡과 銅鐸이 韓半島와 日本列島에서 儀器로서 공통적인 기능을 하였다. 靑銅器를 祭祀行爲를 통해 埋納하는 儀禮와 관련된 遺蹟은 韓半島에서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나[145] 일본지역에서는 紀元前 1세기경부터 상당한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 시기는 일본에서 靑銅器가 본격적으로 製作되는 時點으로 中細形段階로서 大形化된 銅矛, 銅戈의 埋納이 시작된 시점이다. 또한 埋納의 양상을 보면 辟邪的 意味의 武器形 祭器와[146] 招神的 意味의 銅鐸이 儀器用으로 제작되어 매납되고 있다. 특히, 銅鐸의 경우 馬韓社會에 존재하였던 蘇塗의 大木에 鼓와 鈴을 달았던 의식행위와 연결되는 양상으로 주목된다.

또한 일본열도에서는 지역적으로 畿內지역을 중심으로 한 銅鐸文化圈과 九州를 중심으로 한 銅矛, 銅劍文化圈으로 대별되어 설명되고 있다.[147] 한편, 두 문화의 重複地로서 中國지방과 四國지방이 존재하며 특히, 九州系 武器形祭器와 近畿系 銅鐸形 祭器가 공반

143) 吉田廣, 2008 <日本列島における武器形靑銅器の鑄造開始年代> ≪東アジア靑銅器の系譜(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 46~47

144) 조진선, 2005 ≪위 책≫ 131

145) 이상길, 2000 <靑銅器 埋納의 性格과 意味－馬山 加浦洞遺蹟 報告를 겸하여-> ≪한국고고학보≫ 42
비파형동검단계의 청도 禮田洞, 성주 草田面, 개성 海坪里 등지와 세형동검단계의 마산 加浦洞, 산청 白雲里, 사천 馬島洞, 영암 新燕里, 남해 小草島, 대구 晩村洞유적 등이 이 같은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다.

146) 吉田廣 編, 2001 ≪彌生時代の武器形靑銅器(考古學資料集21)≫

147) 金關恕, 佐原眞, 1986 <道具と技術> ≪彌生文化の硏究≫ 6 (雄出閣)

되는 지역으로 廣島, 島根縣이 확인되고 있다.[148]

특히, 近畿지방 彌生시대의 祭器를 대표하는 銅鐸의 原型은 韓國의 小銅鐸 즉, 銅鈴에서 찾고 있는 데 家畜用 鈴으로부터 대한해협을 건너며 祭祀用의 鐘과 같은 기능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149] 그런데 전래시점에 한반도에서 牛馬飼育이 발달치 않은 점을 근거로 韓國의 小銅鐸이 祭祀用具였고 이것이 일본열도에 전해진 것으로 재조정되었다.[150] 또 일본 銅鐸과 관련된 銅鈴은 2개 1조로 충남지역에서 銅劍, 多鈕鏡과 함께 세트를 이루어 나타나 샤먼과 관련된 祭具로 파악되고 있다.[151] 이는 銅鐸이 일본열도에서 農耕祭具에서 政治的 祭祀象徵으로 변화하는 양상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반도지역에서의 彌生系 靑銅儀器의 출현은 金海 良洞古墳群, 金海 內德里유적, 大邱 晩村洞유적, 比山洞유적과 固城 東外洞 貝塚 등으로서 中廣形銅矛, 中廣形銅戈, 倣製鏡 등 九州地域 靑銅器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주로 葬禮儀禮用으로 輸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52]

일본 彌生時代 鐵器의 양상은 斧, 刀子, 鑿 등 공구류와 劍, 戈, 矛, 刀, 鏃 등 무기류로 대별된다.[153] 이들 유물은 한반도와 인접한 북부 九州의 福岡縣 曲り田 유적의 板狀鐵斧, 福岡縣 今川유적의 鐵鏃, 熊本縣 齊藤山의 鐵斧, 北九州市 長行유적의 鑄造鐵斧 등이 대표적이다.[154] 그런데 일본학계는 鐵器가 중국 戰國時代 燕에서 생산된 鐵器가 舶載되어 왔다는 입장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시기적 상한은 기원전 4세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彌生早期의 上限年代로 인식되었었다.[155] 그러나 최근의 연대상한 논의에서는 이들 유적의 유물들이 再堆積되었거나 出土가 不分明하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鐵器의 존재시기를 彌生文化 開始始點이 아닌 中期以後로 설정하고있다.[156]

---

148) 島根縣教育委員會, 1986 ≪銅鐸,銅矛出土地(荒神谷遺跡發掘調査槪報2)≫
149) 佐原眞, 1979 ≪銅鐸(日本の原始美術 7)≫ 48~49
150) 佐原眞, 1987 <家畜のベルから祭りのベルへ> ≪古代出雲荒神谷の謎に挑む≫ (角川書店) 249~253
151) 春成秀爾, 2008 <銅鐸の系譜> ≪東アジア靑銅器の系譜≫ (雄山閣) 68
152) 岩永省三, 2002 <靑銅武器儀器化の比較硏究> 西谷正 編, ≪朝鮮半島考古學論叢≫ (すずさわ書店) ; 이상길, 2000 ≪靑銅器時代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 박사학위논문)
153) 이남규, 2002 <日本 古代 鐵器文化의 形成－彌生時代를 中心으로－> ≪강좌 한국고대사－문화의 수용과 전파≫ 9, 197~215
154) 정한덕, 2002 ≪앞 책≫ 204
155) 橋口達也, 1979 <甕棺副葬品からみた彌生時代實年代論> ≪九州自動車道關係埋藏文化財調査報告≫ xxxi 中卷 (福岡縣教育委員會)
156) 春成秀爾, 2008 <靑銅器と彌生時代の年代> ≪東アジア靑銅器の系譜≫ (雄山閣) 4

이들 유적에서 발견된 철기의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학계에서 지적이 있었는 바 그 의미는 철기사용시점의 상한을 올리는 인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것이다.[157]

2. 墓制의 樣相

靑銅器를 부장한 무덤은 紀元前 10세기경부터 紀元後 1세기까지 中國 東北地域, 韓半島, 日本列島 西部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무덤의 형식은 琵琶形銅劍段階에 積石墓, 石棺墓, 石槨墓, 支石墓가 있고 細形銅劍段階에는 積石木棺墓, 木棺墓, 木槨墓, 甕棺墓 등이 있다.[158]

靑銅器副葬 양상은 中國 東北地方은 紀元前 8~4세기 琵琶形銅劍段階, 韓半島에서는 紀元前 3세기~紀元後 1세기경 細形銅劍段階, 日本列島에서는 紀元前 2세기부터 紀元後 1세기경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琵琶形銅劍단계의 무덤양식은 石槨墓와 木槨墓인데 비해 細形銅劍段階에는 積石木槨墓임이 주목된다.

이 같은 墓制의 내용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墓制 가운데 日本의 支石墓는 그 계보가 韓半島에 있으며 韓半島의 支石墓 가운데 碁盤式 支石墓를 주체로 하며 蓋石式 支石墓도 존재하는 점이 공통의 입장으로 제시되고 있다.[159] 日本 支石墓는 彌生時代 早期에서 中期時代로 편년되는 유적으로서 일본열도 가운데 九州지역에만 한정되어 나타나 주로 서북지역인 福岡縣, 佐賀縣, 長崎縣, 熊本縣에 집중되어 있다.

특징은 우선 분포양상에서 韓半島로부터 전래되었음에도 對馬島 壹岐島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일본 彌生時代의 중심지인 福岡平野에서도 초기 支石墓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福岡平野 주변지역인 佐賀縣이나 長崎縣에 다수 支石墓가 분포하고 支石墓 하부양상도 다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보여준다.[160] 이 같은 상황에 의해 支石墓의 계보는 韓半島 남부이고 첫 出現地域을 玄海灘 沿岸으로 보거나[161] 기원지를 전라남도로 보고 출현지역을 長崎縣 중심의 西北九州로 보는 견해[162] 등으로 나뉘고 있다.

---

157) 이남규, 2002 <위 논문> 191~194
158) 이청규, 2007 <한일 청동기와 요시노가리 유적> ≪요시노가리－일본속의 고대한국≫ 78~79
159) 森貞次郎, 1969 <日本における初期の支石墓>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160) 吉門雅高, 2003 <古代日本の支石墓> ≪晉州南江遺蹟과 古代日本≫ 259
161) 森貞次郎, 1969 ≪위 책≫ ; 甲元眞之, 1978 <西北九州支石墓の一考察> ≪熊本大學法文論叢≫ 41
162) 西谷正, 1997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綜合的研究≫ (九州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그런데 일본학계는 支石墓 수용단계에서 하부구조의 길이가 짧은 형태로 나타난 것과 支石墓 내부 주체가 土壙이나 木棺, 石棺, 甕棺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 점을 들어 일본 토착인 즉 繩文人이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변용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163] 또한 支石墓 발견 人骨의 성격이 繩文人 또는 그 계보를 갖는 존재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입장을 더욱 강조하였다.[164] 그러나 韓半島 支石墓 중 하부구조의 길이가 짧은 것이 여러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日本的 變容을[165] 말할 수 없으며 韓半島人의 形質的 特性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支石墓人骨의 성격을 단순히 繩文人으로만 특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166] 감안할 때 일본학계의 이 같은 解釋은 신중함이 요청된다. 오히려 이 문제는 支石墓가 農耕社會의 紀念物로서 聚落, 生產施設 및 耕作地 등과 함께 일정한 空間的 單位를 점유한 의미가 부각되어야 한다.[167] 즉, 支石墓는 장기적인 儀禮 遂行이 반복되어 血緣의 紐帶와 일정 耕作地와 領域에서의 日常生活, 紀念物을 중심으로 한 儀禮 遂行의 求心點이란 점에서[168] 이는 農耕社會를 새롭게 日本列島에 전래한 集團의 象徵物로서 파악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북부 九州의 彌生時代 墓制로서 彌生時代 전기 후반~후기 전반까지 대형토기를 사용한 甕棺墓, 土壙墓, 石棺墓 등의 墓制가 성행하였다. 이들 분묘에서 출토된 인골의 경우 북부 九州의 북부지역(사가평야, 후쿠오카평야)의 옹관묘 출토 인골은 도래계 彌生人으로 파악되었고, 西北 九州(가라쓰평야, 나가사키현) 해안가의 토광묘, 석관묘에서 출토된 인골은 短身으로 한반도문화를 수용한 繩文系 彌生人으로 파악되었다.[169] 또한 요시노가리 유적의 甕棺 등에서 출토된 300인의 인골들에 대한 분석에서 高身長, 高顔의 渡來系 人骨 특성이 지적되었다.[170] 또한 이들 유적과 떨어진 해안선지역의 다른 유적에서는 長身의 도래계 인골과 短身의 繩文人骨이 혼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어 佐賀평야를 중심으로 有名海 연안북부로 한반도의 도래인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71] 한편, 甕棺墓의 경우 무문토기시대 중기~후기의 옹관묘에는 合

163) 本間元樹, 1991 <支石墓と渡來人> ≪兒嶋隆人先生喜壽記念論集 古文化論叢≫
164) 橋口達也, 1995 <墓制の變化(一) 北部九州－支石墓と大形甕棺の登場－> ≪彌生文化の成立≫ (角川書店)
165) 春成秀爾, 1991 ≪彌生時代の始まり≫ (東京大學出版會)
166)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편, 2003 <綜合討論> ≪晉州 南江遺蹟과 古代日本≫ 374~376
167) 李相吉, 2000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硏究≫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8) 李盛周, 2007 ≪靑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學硏文化社) 100
169) 內藤芳篤, 1971 <西北九州出土の彌生時代人骨> ≪人類學雜誌≫ 79
170) 松下孝幸, 1994 ≪日本人と彌生人≫ (祥傳社)
171) 七田忠昭, 2008 <요시노가리유적吉野ケ里遺跡> ≪한일문화교류, 한반도와 일본 규슈≫ (국립

口式도 있지만 成人用에 적합한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九州의 성인용 옹관묘가 한반도 옹관묘 계보이지만 북부 九州에서 자체 발전한 葬法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72]

제3장 古朝鮮·三韓·三國 初期 倭와의 交流

제1절 古朝鮮時期 日本列島와의 交流

1. 古朝鮮時期 倭와의 關係

中國文獻 중 가장 먼저 '朝鮮'이 등장한 기록은 기원전 7세기경 기록인 ≪管子≫에 나타나고 있는 齊나라와의 교역관련 내용이다.[173]

A-1. 桓公問 管子曰 吾聞海內玉弊有七筴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 燕之玆山白金一筴也 發朝鮮之文皮一筴也(≪管子≫ 23, 揆道)

상기 A-1 사료에 나타나고 있듯이 고조선과 중원세력과의 기록에 나타난 교류양상은 춘추시기로 파악된다.[174] 또한 후속된 사료에 의하면 戰國時代 燕과의 인접성이 부각되고 있다.

A-2.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山海經≫ 海內北經)

중앙박물관) 110

172) 七田忠昭, 2008 <위 논문> 111

173) ≪管子≫는 春秋時代 관중의 저술로 전해지지만 戰國時代 때 편찬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管子≫ 輕重篇은 더 후대의 기록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전국시대 이전부터의 전승이 전국시대에 정리된 것으로 이해된다.
胡家聰, 1994 <再論 ≪管子 輕重≫ 不作于漢代而作于戰國－兼論考證的類比法之或然性> ≪社會科學戰線≫ 1994年 3期, 139~143 ;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45~46

174) ≪管子≫ 24, 輕重甲 "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 游於天下 而傷寡人 … 發朝鮮不朝 請文皮태服而以爲幣乎 … 一豹之皮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관자 기록의 연대성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으나 우선 춘추시대적 인식의 계승으로 이해된다.

A-3. 蘇秦 … 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戰國策≫ 燕策)

상기 사료에서는 燕文侯(기원전 361~333) 시기 燕의 동쪽에 존재한 조선이 언급되고 있다. 이 같이 조선과 燕의 지리적 인접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면서 '遼東'이 바로 함께 존재한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先秦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조선의 역사적 존재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기원전 7세기경 春秋時代의 중국과 교역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戰國時代 문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燕나라와의 지역적 인접성이 강조되면서 관련지명으로서 '列陽', '遼東'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시기 古朝鮮과 倭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 시기관계를 추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료가 주목된다.

A-4. 朝鮮在列陽東海北山南列陽屬燕 蓋國在鉅燕南倭北 倭屬燕(≪山海經≫ 12, 海內北經 蓋國)

상기 A-4 사료는 倭에 대한 中國史書의 최초기록으로 倭와 주변에 대한 地理的 情況을 소개하고 있다. 종래 일본학계에서는 이들 사료 및 중국 古典에 나타난 倭, 倭人 관련 기록을 근거로 왜인의 분포를 日本列島뿐 아니라 韓半島 및 中國沿岸 地域 등으로 확대시켜 해석하기도 하였다.[175] 이에 대해서는 倭와 관련된 표현들이 대부분 交流 관련 표현을 확대 해석하였거나[176] 史料의 誤傳에 따른 解釋의 誤解임이 지적되었다.[177] 그런데 이들 사료에 나타난 지리적 정황은 古朝鮮과 倭와의 교류가 전제된 상황에서 전해진 지식에 근거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먼저 鉅燕이란 표현은 戰國時代 燕의 전성기를 표현한 것으로 기원전 3세기 중반 燕 昭王代의 강성기로서[178] 기원전 4세기경 燕과 古朝鮮의 전쟁과정에서 고조선에 대한 공략을 통해 요동반도의 천산산맥을 계선으로 하는 영

175) 江上波夫, 1984 <東アジアにおける倭人の起源と活動> ≪江上波夫著作集≫ 8 (平凡社) ; 井上秀雄, 1975 <中國古典の朝鮮と倭> 國分直一 編, ≪倭と倭人の世界≫ (每日新聞社) ; 國分直一, 1980 <倭と倭種の世界> ≪東ジナ海の道－倭と倭種の世界－≫ (法政大學出版部) 富田仁 編, 1992 ≪事典外國人の見た日本≫

176) 山尾幸久, 1979 <日本書紀の中の朝鮮> ≪共同研究 日本と朝鮮の古代史≫ (三省堂) ; 1982 <朝鮮の兩漢の郡縣と倭人> ≪立命館文學≫ 439~441

177) 沈仁安 著, 藤田友治·藤田美代子 譯, 2003 ≪中國からみた日本の古代≫ (ミネルヴァ書房) 56~63 특히, 檀石槐와 관련된 倭人기록은 ≪三國志≫의 汗國기록의 왜곡임을 확인하여 倭人의 北方存在說을 부정하고 있다.

178) 조법종, 2006 ≪고조선고구려사연구≫ (신서원) 230~232

역을 확보한 상황[179]에서 고조선이 倭와의 교류를 통해 유지하고 있었던 倭에 대한 지리정보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蓋國의 지리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鉅燕의 南에 蓋國이 그리고 倭의 北에 蓋國이 존재하며 倭가 燕에 속한다는 내용은 倭의 位置가 구체적으로 蓋國의 南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蓋國은 청대의 학자인 郝懿行이 ≪山海經箋疏≫에서 ≪三國志≫ 高句麗傳에 나오는 蓋馬와 연결하여[180] 파악한 이래 이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燕－古朝鮮－蓋國－倭로 연결되는 교류체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원전 4~3세기경 燕 昭王代에 燕은 古朝鮮과의 전쟁을 통해 상당한 영역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古朝鮮과 蓋國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면서 이미 고조선, 개국과 연결되고 있는 倭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山海經≫에서 倭를 '倭屬燕'이란 표현으로 나타낸 점이다. 여기서 '屬'이란 표현은 政治的 隷屬이나 地理的 連屬이 아닌 往來와 交易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1] 그러나 燕, 秦시기 고조선을 공략하고 양국 상황을 표현한 '屬'이란 표현의 내용을 보면 첫째, 일부 영역을 침범하여 자신의 領域化 하였거나(사료 B-1) 政治的 服屬을 약속했으나 직접 入朝하지 않았던 상황(사료 B-2,3)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1.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 朝鮮爲置吏 築鄣塞 (≪史記≫ 115, 列傳55 朝鮮列傳)[182]

B-2. 秦幷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史記≫ 115, 列傳55 朝鮮列傳)

B-3. 歷至孝文卽位 將軍陳武等議曰南越 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 後且擁兵阻驪 選蠕觀望 (≪史記≫ 25, 律書3)

따라서 '倭屬燕' 이란 표현은 燕에 의해 誇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記錄이지만, 倭가 古朝鮮에 어느 정도 포용되어 있던 정치세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古朝鮮을 略屬했다

179) 서영수, 2007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학연문화사) 42~44

180) ≪三國志≫ 魏志 東夷傳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 ≪後漢書≫ 東夷傳. 同 ; 李賢注云 : ≪蓋馬, 縣名, 屬玄菟郡≫ <今案蓋馬疑本蓋國地>

181) 沈仁安 著, 藤田友治·藤田美代子 譯, 2003 ≪中國からみた日本の古代≫ (ミネルヴァ書房) 56~57

182) 연에 의한 고조선 공략의 내용을 보여주는 사료를 보면 영역을 확보하였음을 보여준다. ≪三國志≫ 韓傳 引用 "≪魏略≫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鹽鐵論≫ 8 伐攻篇 "燕襲走東胡 僻地千里度遼東而攻朝鮮"

고 표현한 燕이 '古朝鮮에 屬한 存在로 認識된 倭'를 연결지어 '倭屬燕'이란 상징적 표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倭와 中國과의 최초 交流 記事로 언급되는 ≪山海經≫ 기사의 내용은 사실은 古朝鮮, 蓋國과 倭 사이에 유지되었던 政治的 隷屬認識 및 文化的 交流에 근거한 傳聞이나 관련 知識과 物品의 交流 등을 근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교류가 존재했다면 古朝鮮 및 蓋國을 통한 교류로서 이들의 中繼的 役割이 존재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이같은 내용은 위만조선 시기의 사료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2. 衛滿朝鮮時期 對外交流

衛滿朝鮮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는 細形銅劍文化로 특징지워진다.[183] 위만조선시기인 기원전 2세기경 韓半島에서 日本列島의 壹岐를 거쳐 北九州지역까지 위만조선 계통의 細形銅劍文化와 한반도 남부지역의 無文土器文化가 전래되었다.[184] 이 같은 상황은 앞서 검토한 유물의 전래양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상황을 확인시켜주는 사료자료의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만조선시기 衛滿은 漢과의 관계속에서 발달된 무기와 기술 등을 확보하고 주변세력을 장악하였다.

C-1. 會孝惠 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 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閼不通 (≪史記≫ 115, 朝鮮列傳 55)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만조선은 漢과 주변 蠻夷로 표현된 세력과의 中繼的 役割을 수행하면서[185] 이를 統制한 점이다. 특히,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閼不通"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위만조선은 단순히 주변세력들이 漢과 交流하는 것을 中繼한 것

183) 이청규, 2007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고조선사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105~108

184) 武末純一, 2002 <일본 구주 및 근기지역의 한국계 유물>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 三國의 交涉≫ (복천박물관) 123~126 ; 이재석, 2007 <고대 구주 해안도서와 동아시아의 교류> ≪구주 해안도서와 동아시아≫ 158~159

185) 崔夢龍, 1985 <古代國家成長과 貿易－衛滿朝鮮의 例>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역사학회)

이 아닌 統制하고 調整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시기 이전부터 주변세력 특히, 辰國으로 표현된 남쪽의 정치세력과는 海路 및 陸路를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D-1. 初 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 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 (≪後漢書≫ 89, 東夷列傳75 三韓)

D-2. 侯準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其後絶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韓)

D-3. 魏略曰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韓)

D-4. 魏略曰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 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蓄不相往來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韓)

사료 D-1·2에 의하면 衛滿이 準王을 공격하자 準王은 左右宮人(餘衆數千人)을 이끌고 海路를 통해 韓(馬韓)지역으로 피신해 그 지역의 王을 自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D-3 사료에서는 준왕이 海中에 있으면서 朝鮮과 往來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특기되고 있다. 이 사실은 고조선시기 이미 매우 활발한 海上交流가 韓지역과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규모가 수천 명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準王의 피난지역이 이러한 海上交流의 중간거점으로 古朝鮮과의 교류를 중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역거점임을 보여준다. 이는 고조선시기 蓋國과 연결된 倭와의 실제적 교류양상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사료 D-4는 陸路를 통해 위만조선 이전 및 초기부터 이미 辰國으로 상징되는 세력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록에 나타난 "辰國으로 간 朝鮮相 歷谿卿이 朝鮮과 貢蓄을 不相往來하였다"는 상황은 이미 그 전부터 유지되었던 교류관계를 이용하여 歷谿卿이 辰國으로 정치적으로 망명하였고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음을 언급한 것이다.

3. 衛滿朝鮮時期 倭와의 交流

왜와 중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은 漢武帝의 衛滿朝鮮 攻略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이 다음 E사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E-1.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 … 樂浪海中有倭人 分爲百餘國 以歲時來獻見云 (≪漢

書≫ 卷28下, 地理志8下)

E-2. 秦幷六國 其淮泗夷皆散爲民戶 陳涉起兵 天下崩潰 燕人衛滿避地朝鮮 因王其國 百有餘歲 武帝滅之 於是東夷始通上京 王莽簒位 貊人寇邊 建武(25-55)之初 復來朝貢(≪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倭

E-3. 時遼東太守祭肜威讋北方 聲行海表 於是濊貊倭韓萬里朝獻 故章和已後 使聘流通 (≪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倭)

E-4.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三國志≫ 卷34, 魏書30 東夷 倭)

E-5. 倭在韓東南大海中 依山嶋爲居 凡百餘國 自武帝滅朝鮮 使驛通於漢者三十許國 (≪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倭)

상기 E-1 사료는 倭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 중국기록에 나타난 첫 기록이다. 그런데 倭가 중국사회에 구체적으로 소개된 것은 사료 E-2에 나타난 것처럼 前漢 武帝의 衛滿朝鮮 攻略 이후 倭의 存在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漢書≫에 나타나고 있듯이 "樂浪海中有倭人 分爲百餘國, 以歲時來獻見云"이라는 표현은 앞서 낙랑과 현토에 대한 언급 이후 왜에 대한 이해가 바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앞서 검토되었듯이 衛滿朝鮮 이전부터 倭와의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케 한다. 이는 漢－倭의 교류가 旣存 交流網에 대한 선지식과 네트워크 구축없이 이뤄질 수 없는 양상이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樂浪海中이란 표현은 D-4의 準王海中이란 표현과 연결되는 것으로 고조선과 바다로 연결된 왜와의 관련성이 이전의 상황을 계승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파악된다.

한편, E-4·5에 나타나고 있듯이 '武帝滅朝鮮'이란 역사적 사건이 있은 후에 '漢時有朝見者'가 존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古朝鮮 以來의 倭와의 交流體系와 내용은 衛滿朝鮮의 崩壞로 교류를 대신 통제하게 된 樂浪 등 郡縣勢力이 旣存의 交流網을 活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政治勢力의 도움과 協助를 통해 교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앞 장에서 검토한 勒島, 金海 등 南海岸 일대의 산재한 中國系 遺物이 발견되는 유적지에서 왜계 유물이 함께 반출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류의 중계과정에서 기왕에 중시되지 않은 내용이 '重譯'으로 표현된 교류의 중계 및 조정 역할자의 존재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한시기 왜와의 교류내용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 三韓과 三國 初期 倭와의 交流

1. 東夷지역에서의 重譯外交

고조선 및 위만조선시기 이래 유지되었던 주변 세력, 특히 왜와의 교류는 한군현의 개입 이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중국세력과 삼한세력과의 관계는 후한시기 낙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유수 광무제의 後漢 수립(25년) 이후 중국을 재통일하고(36년) 안정을 회복하자 주변세력과의 일련의 외교관계를 재확립하였다.[186]

이 가운데 後漢이 倭奴國王에게 金印을 하사한 것에 대해 이를 後漢이 倭奴國과 힘을 합쳐 韓세력을 통제하려했다는 遠交近攻策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187] 이는 당시 상황과 후한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부정되고 있다.[188] 오히려 왜와 중국과의 교류양상을 보면 교류를 중계한 韓의 역할과 仲裁的 機能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倭의 中國과의 交流는 중간정보 및 교류의 仲裁役을 맡은 韓으로 상징되는 세력과의 관계가 필수적임을 파악케 된다.

중국은 주변세력과의 관계에서 먼 遠邦 등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지역과의 교류는 언어를 통역해 주는 존재가 전제되어 교역이 진행되었다. 이 같은 양상은 ≪史記≫를 집필한 사마천의 자서에서 이들과의 교류가 重譯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東夷사회가 그러한 대상 중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F-1. 太史公曰 … 漢興以來 至明天子 獲符瑞 封禪 改正朔 易服色 受命於穆淸 澤流罔極 海外殊俗 **重譯款塞** 請來獻見者 不可勝道 (≪史記≫ 列傳130, 太史公自序70)

F-2. 書稱 漸于海 西被于流沙 其九服之制 可得而言也 然荒域之外 **重譯而至** 非足跡車軌所及 未有知其國俗殊方者也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重譯이란 표현은 ≪史記正義≫에서 '更譯其言'이라 표현하였듯이[189] '거듭된 통역'

186) 즉, 고구려는 32년 고구려견사봉공, 47년 낙랑귀부하고 44년 한국인이 낙랑에 귀복, 49년 오환대인 내조, 부여왕 공헌, 남흉노 칭신, 52년 북흉노견사봉헌, 54년 선비대인귀복, 57년 왜노국왕 견사봉헌 등으로 진행되었다.

187) 井上光貞, 1963 ≪日本歷史 1一神話から歷史へ≫ (中央公論社) ; 王金林, 1986 ≪古代の日本－邪馬臺國を中心として≫

188) 沈仁安 著, 藤田友治·藤田美代子 譯, 2003 ≪中國からみた日本の古代≫ (ミネルヴァ書房) 84~86

즉, 중국(A)과 이미 교류체계가 갖춰지고 언어소통체계를 갖춘 국가나 종족(B1)에 의해 그 국가(B2)와 교류를 맺고 있었던 다른 국가나 종족(C)이 이들의 언어통역 등의 도움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A↔B1⇔B2↔C)

그런데 이 같은 重譯國家 間의 樣相(B2↔C)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東夷地域에서 中國과의 重譯을 擔當했던 高句麗, 百濟와 주변 국가들의 관계에서 상황이 유추된다.

먼저, 肅愼이 高句麗에 의한 重譯을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F-3. 景元三年(262 中川王15) 夏四月 遼東郡言肅愼國遣使重譯入貢 獻其國弓三十張 長三尺五寸 楛矢長一尺八寸 石弩三百枚 皮骨鐵雜鎧二十領 貂皮四百枚 (≪三國志≫ 卷4, 魏書43 少帝 陳留王奐)

F-4. 三年(459, 長壽王47) … 十一月己巳 高麗國遣使獻方物 肅愼國重譯獻楛矢石砮 西域獻舞馬 (≪宋書≫ 本紀6, 孝武帝)

F-5. 孝武帝大明三年(459, 長壽王47)十一月己巳 肅愼氏獻楛矢石砮 高麗國譯而至 (≪宋書≫ 29, 志19 符瑞下)

사료 F-4,5에 보이는 것처럼 肅愼이 中國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重譯의 절차가 필요했으며 이 重譯을 위해서는 중간역할을 해주는 세력인 高句麗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F-4 사료에서는 高句麗가 宋에 사신을 보낼 때 바로 연이어 肅愼國이 重譯을 통해 이르렀음을 보이고 있지만 고구려의 重譯역할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F-5 사료에 肅愼의 內朝가 '高麗國譯而至'라고 나타나고 있듯이 고구려의 重譯역할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또한 F-3에서 肅愼이 遼東郡과 중역을 통해 연결된 상황도 후술사료를 감안할 때 고구려에 의한 重譯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구려의 中原王朝↔高句麗↔肅愼 간에 유지된 重譯外交에서 고구려가 숙신을 중국에 연결지워준 이유가 기왕에 유지되었던 高句麗와 肅愼 간의 정치적 관계에서 확인된다. 즉, 太祖王 69년(121) 肅愼의 來獻,[190] 西川王 11년(280) 肅愼을 공략해 高句麗가 肅愼을 附庸으로 삼은 기록[191]과 廣開土王碑에 나오는 息愼 즉, 肅愼이[192] 高句麗에 朝

189) ≪史記正義≫ "重譯 更譯其言也"

190) ≪삼국사기≫ 15, 고구려본기3 太祖大王六十九年, "… 冬十月 王幸扶餘 祀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肅愼使來 獻紫狐裘及白鷹·白馬 王宴勞以遣之"

191) ≪삼국사기≫ 17, 고구려본기5 西川王十一年, "冬十月 肅愼來侵 … 王於是 遣達賈往伐之 達賈出奇掩擊 拔檀盧城 殺酋長 遷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 王大悅拜達賈爲安

貢한 사실 등을 보면 重譯을 맡은 國家는 被重譯勢力에 대해 政治的으로 上下隷屬的 關係였음을 보여준다. 즉, F-4,5가 보여주는 重譯國家의 위상과 역할이 상하 朝貢 및 附庸[193] 관계하에서 형성된 교류관계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肅愼이 高句麗의 도움을 통해 重譯이란 외교절차를 거쳐 중국과 교류한 사실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 국가인 고구려가 전제되고 이 고구려와 숙신과의 朝貢 및 附庸관계라는 차등적 교류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高句麗가 肅愼을 中原王朝에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百濟가 주변 小國을 中國과의 외교관계에서 重譯을 통해 같은 양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음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G-1. 百濟舊來夷 馬韓之屬 … 普通二年 其王餘隆遣使奉表云 …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新羅**止迷麻連 上己文 下枕羅等**附之** … (≪梁職貢圖≫)

G-2. 其俗呼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啄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 … **語言待百濟而後通焉** (≪梁書≫ 54, 列傳48 東夷 新羅)

사료 G-1,2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梁과 新羅의 외교적 교류는 百濟를 통하여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G-2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외교적 연결 상황이 백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사실은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있는 역량과 양국 간의 상하 정치적 위상 등에 의해 나타난 중역적 성격의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新羅가 百濟의 附庸的 存在임을 보이고 있는 다음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G-3. 新羅者 … 其國在百濟東南五千餘里 其地東濱大海 南北與句驪 百濟接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 **其國小 不能自通使聘** 普通二年 王姓募名秦 **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 (≪梁書≫ 54, 列傳48 東夷 新羅)

상기 사료에 나타난 것처럼 신라는 나라가 작아 스스로 사신을 보내 교빙할 수 없었

國君 知內外兵馬事 兼統梁貊肅愼諸部落"

192)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韓國古代社會硏究所編) 26

193) 附庸은 중국의 작제와 연결된 토지면적 중 소규모를 지칭한 표현이었는 데 점차 정치적 신속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
≪晉書≫ 卷40, 志4 地理上 總, "王者之制爵祿 公侯伯子男凡五等 天子之田方千里 公侯田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不能五十里者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北史≫ 本紀9, 周本紀上9 太祖文帝宇文泰, "辛亥 剋其城 戕梁元帝 虜其百官士庶以歸 沒爲奴婢者十餘萬 免者二百餘家 立蕭 爲梁主 居江陵 爲魏附庸"

던 상황이었고(其國小, 不能自通使聘) 따라서 백제를 따라 양나라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되었듯이 高句麗－肅愼, 百濟－新羅의 例에서 확인되었듯이 重譯에 의해 中國과의 외교관계를 형성한 국가나 세력들의 양상은 중역 담당국가와 피중역국가 및 세력 간에는 부용 관계 등 정치적 상하관계가 존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형성되었다.

2. 三韓과 倭와의 交流 -문헌검토-

三韓과 中國과의 교류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는 朝貢의 형식을 빌린 교역활동으로 교역 담당자는 富의 축적과 정치권력을 성장시켰다고 파악하였고,[194] 교역형태와 교역품 및 교역의 추이 등 삼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195]가 진행되었다.

한편, 위만조선 붕괴 후 中國과 韓과의 교류는 앞서 衛滿朝鮮이 郡縣에 의해 대치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韓과 倭와의 교류양상은 韓과 倭와의 자체적 교류와 함께 中國 郡縣과의 交流를 韓이 中繼하는 重譯的 性格의 交流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韓과 倭 교류의 핵심은 다음 사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철을 중심으로 銅과 織物 등이 교류되었다.[196]

H-1. 弁辰 …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韓)

H-2. 國出鐵, 濊倭馬韓並從市之. 凡諸貿易, 皆以鐵爲貨 (≪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三韓)

상기 사료에 나타난 것처럼 弁辰의 鐵은 韓, 濊, 倭 및 樂浪, 帶方의 二郡에까지 공급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철기교역 및 철기를 활용한 貿易은 활발한 교류양

194) 李鍾旭, 1986 <韓·倭의 政治勢力과 樂浪郡·帶方郡의 關係> ≪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 (韓日文化交流基金) 1~33 ; 1994 ≪韓日古代文化의 連繫≫ (서울프레스) 215~237

195)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編,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35~57 ; 1998 ≪韓國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264~290

196) 菅谷文則, 1988 <古代の日本列島から輸出品と東アジアの交易>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10 (吉川弘文館) 307~316 ; 駒井和愛, 1972 ≪樂浪－漢文化の殘像≫ (中央公論社) 118
삼한지역과 왜에서 함께 생산되는 縑布가 중요한 교역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상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왜와 郡縣이 연결되는 과정에 있었던 서남해안의 여러 '韓國' 특히, 狗邪韓國이 이 같은 중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倭와 中國 郡縣과의 교류는 사료에 나타난 것처럼 대동강유역에서 서해안, 남해안을 거쳐 낙동강유역에 이르는 루트로서[197] 郡縣과 三韓, 三韓과 倭와의 鐵交易網을 통한 교류에 근거한 것이다.

H-3.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倭)

사료 H-3에 나타나고 있는 使驛通於漢者三十許國이란 기록에서 나타난 '使驛通' 이란 표현에서 중역외교관계의 상황이 보이고 있다. 여기서 驛은 譯人을 의미하는 것으로서[198]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漢과 倭의 연결은 이 양자를 연결해주는 譯人의 존재로서 이뤄진 중역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앞서 高句麗가 肅愼을, 百濟가 新羅를 중국에 연결하여 주었듯이 倭도 中間 重譯國家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즉, 漢語를 할 줄 알고 倭語를 할 줄 아는 韓의 譯人들에 의한 重譯에 의해 이들의 교류가 이뤄졌음이 유추된다. 이 같은 중역의 양상은 이후 한, 후한 이후 계속되는 중국의 역대왕조와 왜와의 교류상황에서 상당기간 진행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使驛通於漢者三十許國"이라는 사료에 보이듯이 100여 개의 나라 가운데 30여 국이 이 같은 중역외교를 통해 연결될 수 있었던 존재로서 이미 韓과의 교류망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존재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된다.

여기서 중국세력과의 교류에 관여된 譯人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H-4. 魏略曰 … 至王莽地皇時(20-22) 廉斯鑡爲辰韓右渠帥 … 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鑡曰 <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戶來曰：<可>鑡因將戶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卽以鑡爲譯 從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鑡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乃出辰韓萬五千人弁韓布萬五千匹 鑡收取直還 郡表鑡功義 賜冠幘田宅 子孫數世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韓)

197) 노중국, 2002 <진변한의 정치사회구조와 그 운영> ≪진변한사연구≫ 273~274
198) ≪後漢書≫ 標點校勘記 案, "干誤謂驛當作譯 使譯 使則使者 譯則譯人"

H-5.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韓)

상기사료 H-4에서는 王莽地皇時(20~22)에 廉斯鑡가 郡縣과 辰韓과의 通譯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감안할 때 譯人을 통한 교류양상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들 사료의 내용은 重譯이 아직 직접적인 通譯에 의한 정치외교적 교류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중역은 이 같은 상황이 한차례 더 설정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H-5는 魏 正始연간(240~248)에 部從事 吳林의 뜻이 通譯의 잘못으로 (吏譯轉有異同) 오해를 발생시켜 韓과 충돌을 일으킨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韓－漢교류과정에서 통역에 의한 교류양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한－왜로 연결되는 중역외교적 양상은 특히, 魏晉時期에 부각되고 있다.

Ⅰ-1. 正始元年(240) 春正月 **東倭重譯納貢** (≪晉書≫ 1, 帝紀1 高祖宣帝懿)

Ⅰ-2. 宣帝之平公孫氏也 其女王遣使至帶方朝見 其後貢聘不絶 及文帝作相 又數至 **泰始初**(266) **遣使重譯入貢** (≪晉書≫ 97, 列傳67 四夷 東夷 倭人)

Ⅰ-3. 魏明帝景初二年 司馬宣王之平公孫氏也 倭女王始遣大夫詣京都貢獻 魏以爲親魏倭王 假金印紫綬 齊王正始中 卑彌呼死 立其宗女臺輿爲王 魏略云 <倭人自謂太伯之後>其後復立男王 並受中國爵命 **晉武帝泰始初 遣使重譯入貢** (≪通典≫ 16, 邊防典185 邊防1 東夷上 倭)

사료 Ⅰ-1의 상황은 曺魏가 238년 공손씨세력을 정복하고 東夷와 접촉하면서 倭와의 교류가 진행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魏는244년 고구려 정벌 이후 동이경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199] 경략의 배경과 목적은 曹魏의 背後 안정과 吳·蜀과의 전쟁에 소요되는 物力 조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吳와의 경쟁 구도속에서 高句麗, 扶餘의 향배가 불확실하고 韓이 帶方郡을 공격한 상황에서 倭의 女王國이 魏에 朝貢한 상황은 魏로 하여금 倭에 대해 金印사여의 特惠와 關心을 갖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200] 그러나 실제 기재 내용은 상당히 소략하고 혼란스러워 결국 當事者에 의한 傳聞이나 記錄이 아닌 中繼者에 의한 間接的인 傳聞記錄이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201] 이 같

199) 金容範, 1986 <魏晋의 東北關係－秩序推移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大庭脩, 1996 <三·四世紀における遼東地域の動向> ≪古代中世における日中關係史の研究≫ (同朋舍出版) 41~59

200) 井上秀雄, 1978 <中國文獻朝鮮,韓,倭> ≪任那日本附倭≫ ; 김기섭 역, 井上秀雄, 1994 <중국문헌에 나타난 朝鮮, 韓, 倭에 대하여> ≪고대한일관계사의 이해－왜≫ (이론과 실천) 49~51

201) 井上秀雄, 1978 <中國文獻朝鮮,韓,倭> ≪任那日本附倭≫ ; 김기섭 역, 井上秀雄, 1994 <중국문헌에 나타난 朝鮮,韓,倭에 대하여> ≪고대한일관계사의 이해－왜≫ (이론과 실천) 48~49,

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료에 나타난 重譯에 의한 교류에 의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후한, 위, 진대까지의 中國과 韓, 倭의 교류관계표를 보면 韓은 後漢, 魏代 郡縣과 대립적 상황을 보이고 있고 倭는 魏와의 朝貢관계가 많았다. 晉代에는 馬韓, 辰韓의 朝貢이 12회 나타나며 倭는 266년 1차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앞서 사료Ⅰ-1,2,3에 나타나고 있듯이 倭의 魏, 晉과의 交流가 重譯에 의한 入貢이란 점이다.

연대	연호	한	왜
44	建武 20년	東夷韓國人 樂浪來附	
57	建武 中元 2년		倭奴國朝貢, 印綬하사
107	永初 元年		倭奴國 帥升 朝貢,生口바침
121	建光 元年	馬韓이 高句麗와 함께 玄菟城공격	
122	延光 元年	馬韓 夫餘, 玄菟에게 격파	
238-9	景初 2~3年	樂浪, 帶方 2郡부활 諸韓國 2郡朝貢 辰韓8국 분할통치 제안 諸韓國이 2군과 전쟁	倭 女王 遣使朝貢 친위왜왕 칭호, 금인받음
240	正始원		위사 답례사절 파견
243	正始 4		倭王조공
246	正始 7	韓의 수십국 군에 내항	
247	正始 8		魏使來
261	景元 2	樂浪의 外夷 韓이 조공	
266	泰始 2		倭人 조공
277	咸寧 3	馬韓이 다시 내조	
278	咸寧 4	馬韓이 내부를 청함	
280	太康元	馬韓 辰韓 나란히 조공	
281	太康 2	馬韓 辰韓 나란히 조공	
282	太康 3	馬韓 중 아직 조공하지 않은 나라 조공	
286	太康 7	馬韓 辰韓 나란히 조공	
287	太康 8	馬韓내조	
289	太康10	馬韓내조	
290	熙 元	馬韓내조	

그런데 重譯의 담당국가는 표에서 확인되듯이 사행로와 연결된 馬韓, 辰韓으로 표현된 존재가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앞서 중역외교에서 확인된 중역국가와 피중역

52~53

국가간의 정치적 상하관계의 상황이 상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다음 사료는 앞서 거연이 고조선을 치고 연을 왜속연이라 한 것처럼 공손씨가 대방군을 설치한 이후 강성해진 한예를 공격하고 나니까 왜가 복속된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韓)
>
> 順帝昇明二年 遣使上表曰 <封國偏遠 作藩于外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葉朝宗 不愆于歲 臣雖下愚 忝胤先緒 驅率所統 歸崇天極 道逕百濟 裝治船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吞 .掠抄邊隸 虔劉不已 每致稽滯 以失良風 雖曰進路 或通或不 (≪宋書≫ 卷97, 列傳57 夷蠻 東夷 倭國)

3. 三韓과 倭와의 交流 －고고학적 검토－

삼한과 왜와의 교류양상은 고조선 및 후속 낙랑유물의 교류상황을 통해 확인된다.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 무렵까지 馬韓지역에 있어서 樂浪과의 상호관계는 한반도의 북한강 상류지역과 한탄강 상류지역에서만 보이고 그 외 馬韓지역에서는 자료가 뚜렷치 않다.[202] 반면, 辰弁韓지역은 기원전 2세기 말~기원전 1세기 중엽까지는 고조선 계통의 문물이 유입되다가 기원전 1세기 후반~기원후 1세기 후반까지는 鍛造鐵器와 漢式物品의 수용이 본격화되고 木棺墓가 대형화되어 木槨墓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여주면서 2세기 중엽부터 漢鏡을 중심으로 한 낙랑문물의 유입이 활발하게 나타났다.[203] 또한 北部九州지역에서 彌生 중기 전반 이후 중국계 유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중기 후반에는 漢式鏡, 후기 이후에는 漢式鏡과 小環頭鐵刀 등과 貨泉 등이 나타나 중국 및 낙랑문화가 확인되고 있다.[204]

---

202) 김무중, 2006 <馬韓지역 낙랑계 유물의 전개양상>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01~305

203) 김길식, 2006 <진변한지역 낙랑 문물의 유입 양상과 그 배경>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76~377

204) 七田忠昭, 2007 <吉野ケ里遺跡－佐賀平野に花開いた韓半島の文化－> ≪한일문화교류,한반도와

진변한 시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왜계 유물은 그 중요성에 비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개괄적인 연구[205]와 彌生式系 土器의 분포[206]와 倭系 青銅器의 유입[207]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으나 일본에서의 韓國系 유물의 출토 사례나 연구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다.[208] 辰弁韓時期 남해안 일대의 倭系 遺物은 대체로 彌生式土器와 青銅器로 나누어지며 그 중 青銅器는 武器形青銅儀器와 倭系 仿製鏡이 있다. 土器와 青銅器, 두 종류의 왜계 유물은 出土되는 유구의 성격이 다르고 분포범위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삼한시기 辰弁韓은 문헌기록상 기원후 3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의 木棺墓와 기원후 2~3세기의 木槨墓로 나타나는 문화는 무덤양식의 변화는 있지만 土器樣式이 거의 비슷한 지리적 공간속에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여주어 같은 辰弁韓 초기단계로 설명되고 있다.[209] 이 같은 내용 중 창원 다호리 1호묘가 축조된 기원전 1세기 후반은 일본열도의 미생 중기후반에 해당하며 낙랑군을 통한 중국과의 교섭이 시작된 시기이다. 이 시기 교섭의 결과 前漢鏡, 琉璃璧, 金銅四葉座式金具 등의 樂浪系 遺物이 北部 九州 三雲南小路 1호 甕棺이나 須玖岡本 D지점 甕棺 등에 부장되며 武器形 祭器로의 변질이 시작된 中細形 銅鉾도 부장된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이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지 않아[210] 樂浪郡 교섭루트의 차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中細形銅鉾를 통한 양자의 연결은 낙랑계 유물과의 공반관계를 감안할 때 낙랑군을 통한 北部 九州와 前漢과의 교섭에 한반도 남부 三韓지역의 首長層의 개재가 확인되며 이들 유물에 의해 前漢(樂浪郡)－韓半島 南部(韓)－北部 九州(倭)라는 三者間 交涉關係가 考古學的으로도 確認된다.[211] 한편, 사천 勒島유적에서는 彌生系토기 등 왜계 유물이 현저한데

일본 규슈≫ (국립중앙박물관) 111~115

205) 柳田康雄, 1989 <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系遺物> 福岡縣教育委員會 編 ≪九州における古墳文化と朝鮮半島≫ (學生社) 10~54

206) 武末純一, 1994 <弥生時代の朝鮮半島系土器> ≪倭人の世界－樂浪海中の弥生文化－≫ (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特別図錄第43册) ; 申敬澈·河仁秀, 1991 <韓國出土の弥生土器系土器> 小田富士雄, 韓炳三 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編)≫ (六興出版) 178~81 ; 片岡宏二, 1999 <朝鮮半島へ渡った弥生人> ≪弥生時代渡來人と土器·青銅器≫ (雄山閣) 130~48

207) 小田富士雄·武末純一 1991, <日本から渡った青銅器> 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編)≫ (六興出版) 155~59

208) 李盛周, 2002 <南海岸地域에서 출토된 倭系遺物>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 三國의 交涉≫ (복천박물관)

209) 이청규, 2009 <茶戶里遺蹟의 青銅器와 辰弁韓> ≪考古學誌－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記念 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86

210) 高倉洋彰, 1995 ≪金印國家群の時代≫ (青木書店)

특히, 북부 九州의 어촌형 유물이 상당수 존재하며 그 범위가 九州 및 東瀨戶內까지 연결된다.[212] 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문헌적인 사료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시켜준다.

특히, 삼한과 왜의 교류는 문헌에 나타난 것처럼 鐵交易에서 활발하였는데 일본학계에서는 彌生時代 鐵器生產과 관련된 鐵素材에 대해서 自給說과 舶載說이 있으나[213] 이 시기 鑄造品 및 銑鐵은 모두 流入品으로 보며 일본에 풍부한 沙鐵도 제련유구 및 제품이 확인되지 않아 이 시기 鐵素材는 한반도로부터 유입된 '弁辰鐵'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철소재 형태에 있어 棒狀과 板狀은 漢代의 형식이 한반도를 거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214] 그리고 彌生中期 말부터 鍛冶爐유적이 북부 九州에 나타나는데[215] 三韓地域 鐵器 제작기술의 직접수용이 강조된다.[216] 한편, 彌生後期에 삼한계 토기 및 낙랑계 토기가 近畿와 東瀨戶內까지 파급되고 있다.[217] 이는 大和, 吉備, 出雲지역의 세력이 北部 九州를 통해 鐵을 확보하던 상황에서 朝鮮 혹은 對馬와 직접 교섭해 철을 확보하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 삼한 및 낙랑과의 교류루트는 최근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된 樂浪系土器遺蹟(경기 가평 달전리, 경기 화성 기안리, 경남 삼천포 늑도, 전남 승주군 대곡리)과 五銖錢유적(여천군 거문도, 다호리 1호) 등을 통해[218] 삼한과 왜의 통교망이 한반도 남부를 거쳐 서해안으로 연결된 문헌상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한편, 樂浪의 성격이 중국의 선진문화수용의 거점이라는[219] 측면이 강조되는 입장에 대해 무역거점적 성격[220]이 강조된 이래 韓·倭의 정치세력과 중국 군현과의 관계를 威信財교역틀로 파악해 한반도의 백제, 신라 등 맹주국의 교역독점 및 성장에 따른 단절과 상대적으로 단계가 늦은 왜와 낙랑의 교역유지를 설명하기도 한다.[221]

---

211) 井上主稅, 2009 <茶戶里遺蹟에 보이는 倭 관련 고고자료에 대하여> ≪考古學誌－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記念 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228~ 229

212) 武末純一, 2009 <茶戶里遺蹟과 日本> ≪考古學誌－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記念 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248~251

213) 後藤直·茂木雅博, 2003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交流と交易≫ (同成社)

214) 村山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靑木書店)

215) 宋井和幸, 2001 ≪日本古代の鐵文化≫ (雄山閣)

216) 심봉근 1997 <앞 논문> ; 이남규 2002 <앞 논문>

217) 武末純一, 2002 <日本 九州 및 近畿地域의 韓國系 遺物－土器, 鐵器生產關係를 중심으로>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三國의 交涉≫ (복천박물관) 125~126

218) 九州考古學會, 嶺南考古學會, 2000 ≪考古學から見た弁·辰韓と倭≫

219) 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硏究≫ (吉川弘文館)

220) 김원룡, 1967 <삼한시대의 개시에 관한 일고찰> ≪동아문화≫ 7

221) 李鍾旭, 1994 <韓倭의 政治勢力과 樂浪郡帶方郡의 關係> ≪韓日古代文化의 連繫≫ (韓日文化交流基金)

彌生 중기 후반 이후 왜의 각 지역에서는 首長의 威信財가 중국계 문물 특히, 漢鏡이 집중 매장되어 낙랑과의 교류가 부각된다. 또한 樂浪系土器가 對馬, 壹岐, 伊島國 등지에서 발견되는데 北九州지역에 분포하는 삼한토기와 병존하며 삼한토기의 영향을 받은 미생토기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다호리 1호분의 銅鉾는 彌生 中細形銅鉾로서 왜와 영남지역 철을 매개로 한 관계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222] 또한 한반도에서 전래된 小銅鏡은 大馬, 佐賀, 福岡, 大分, 熊本 및 岡山 및 大阪까지 확대되고 있다.[223] 특히, 石井入口(大分縣竹田市), 二塚山(佐賀縣上峰村)에서 발견된 것은 魚隱洞 및 坪里洞 것과 같은 鑄型을 사용한 同范鏡으로 확인되어 영남지역과의 교류를 확인시켜준다.[224] 또한 彌生시기에 제사 후 매납되는 廣形의 銅鉾, 銅戈가 대구 만촌동 및 김해 양동리 등지에서 발견되지만 한국에서는 부장품 및 생활공간에서 확인되어 양 지역의 문화적 독자성이 강조되기도 한다.[225]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 보면 고고학적 자료에 나타난 만주－한반도 서북부－중남부－일본열도로 연결되는 고조선 청동기 문화의 교류 전통이 이후 낙랑과의 연결속에서 양상이 문헌적인 내용으로도 확인되며 고조선시기에 고조선－한－왜로 연결되는 정치문화적 해상교류 양상이 설정된다.

4. 三國 初期(西紀 3世紀까지) 倭와의 交流

삼국 초기 왜와의 교류관련 기사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新羅－倭 관계 기사가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종래,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倭' 관련 기사에 대한 일본학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4세기대까지의 관련 기사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倭' 관련 기사가 ≪일본서기≫ 기사와 일치하지 않아 조작된 것으로 보거나[226] 왜국 관련 사료가 중국 사서의 영향을 받아 조작되었는데 특히, 기원 전후 및 1, 2세기 등 시기의 왜인, 왜병 관련 기사들은 ≪삼국사기≫ 편찬시에 사관이 조작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았다.[227] 한편, ≪삼국사기≫에 보이는 '倭' 관련 기사

222) 武末順一, 2005 <三韓と倭の考古學> ≪古代を考える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223) 高倉洋彰, 1990 ≪日本金屬器出現期の研究≫ (學生社)
224) 小田富士雄, 1982 <日韓地域の同范小銅鏡> ≪古文化談叢≫ 9
225) 武末順一, 2005 <三韓と倭の考古學> ≪古代を考える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226) 津田左右吉, 1912 <新羅征討地理考> ≪朝鮮歷史地理≫ 1
227) 鈴木英夫, 1977 <三國史記新羅本紀倭人倭兵記事の檢討> ≪國史學≫ 101

를 '倭人' 또는 '倭兵'으로 표기된 기사군과 '倭國'으로 표기된 기사군으로 구분하고 왜인, 왜병 관련 기사군은 6세기 진흥왕대의 ≪國史≫ 편찬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왜국 관련 기사군은 8세기 후반 이후, 곧 신라 하대에 만들어진 사서가 원전일 것이라고 보았다.[228] 또한 '倭'는 가라 지방의 별명이고 '倭'의 근거지를 가야 지방으로 보거나[229] 이러한 '倭'의 가야지역 거주설에 대해서는 일본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논자가 많다.[230] 북한의 김석형도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231] 이런 관점에서 신라를 습격한 왜인은 일본열도에서 계절적으로 바다를 건너 내습하여 물건과 사람을 약탈하는 해적 집단이며[232] 신라본기의 왜인, 왜병은 대마도를 병참지로 삼은 해적으로, 그 실체는 北九州의 왜인일 것으로 파악하였다.[233]

이 같은 일본학계의 입장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대체로 九州지역의 독자적 정치 세력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등에 나타난 '倭'의 실체일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畿內의 야마토 정권을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234]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집중된 왜관련 기록에 나타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관련 사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			왜				신라		
왕	연대	월	표현	행위	지역	결과	대응	결과	관련사건
赫居世	8年 (전50)		倭人	行兵 欲 犯	邊	聞始祖有 神德 乃還			
南解	11年 (14)		倭人	遣兵船百 餘艘 掠	海邊 民戶		發六部 勁兵	以禦之	
脫解	1年		倭國						脫解本多婆那國

228) 井上秀雄, 1970 <日本書紀の新羅傳說記事> ≪日本書紀研究≫ 4

229) 井上秀雄, <앞 논문>. 그에 앞서 三品彰英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가야와 '倭'의 동질성을 주장한 바 있다[三品彰英, 1959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 (吉川弘文館) 170~172].

230) 旗田巍, 1975 <三國史記新羅本紀にあらわれた倭> ≪日本文化と朝鮮≫ 2

231)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232) 旗田巍, 1975 <앞 논문>

233) 山尾幸久, <任那日本府と倭について> ≪史林≫ 56-6

234) 李鍾恒, 1977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의 實體에 대하여> ≪國民大學論文集≫ (인문과학편) 11 ; 延敏洙, 1988·1989 <5世紀 以前의 新羅의 對倭關係> ≪日本學≫ 7, 8~9 ; 金澤均, 1990 <三國史記 新羅의 對倭 關係 記事 分析> ≪江原史學≫ 6 ; 李鍾旭, 1992 <廣開土王陵碑 및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兵'의 正體> ≪韓國史市民講座≫ 11

	(57)?								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脫解	3年 (59)	夏5月	倭國				結好	**交聘**	
脫解	17年 (73)		倭人	侵	木出島		王遣角干羽烏禦之	不克 羽烏死之	
祇摩	10年 (121)	夏4月	倭人	侵	東邊				
祇摩	11年 (122)	夏4月	倭兵					王命伊湌宗等諭止之	大風東來折木飛瓦 至夕而止. 都人訛言 **"倭兵**大來" 爭遁山谷
祇摩	12年 (123)	春3月	倭國					**講和**	
阿達羅	5年 (158)	春3月	倭人	來聘					
阿達羅	20年 (173)	夏5月	倭女王 卑彌乎	遣使 來聘					
伐休	10年 (193)	6月	倭人	大饑 來		求食者千餘人			
奈解	13年 (208)	夏4月	倭人	犯	境		遣伊伐湌利音將兵拒之		
助賁	3年 (232)	夏4月	倭人	猝至	圍金城		王親出戰 賊潰走	遣輕騎追擊之 殺獲一千餘級	
助賁	4年 (233)	5月	倭兵	寇東邊					
	4年 (233)	秋7月	倭人	戰	沙道		伊湌于老與**倭人**戰沙道	乘風縱火焚舟 賊赴水死盡	
沾解	3年 (249)	夏4月	倭人	殺舒弗邯于老					
儒禮	4年 (287)	夏4月	倭人	襲	一禮部	縱火燒之 虜人一千而去			
儒禮	6年 (289)	夏5月	倭兵	至			聞**倭兵**至 理舟楫繕甲兵		

儒禮	9年 (292)	夏6月	倭兵	攻陷	沙道 城		命一吉 飡大谷 領兵救 完之		
儒禮	11年 (294)	夏	倭兵	來攻	長峯 城	不克			
儒禮	12年 (295)	春	倭人					王謂臣下曰 **"倭人**屢犯我城邑 百姓不得安居 吾欲與百濟謀 一時浮海 入擊其國 如何" 舒弗邯弘權對曰 "吾人不習水戰 冒險遠征 恐有不測之危 況百濟多詐 常有呑噬我國之心 亦恐難與同謀" 王曰 "善	
基臨	3年 (300)	春正月	倭國					與**倭國**交聘	

상기 표에 나타난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은 이미 지적된 것처럼 왜로 표현된 존재들의 신라 내습 시기가 夏4, 5, 6월에 집중된 사실이다. 이 시기는 가장 곤궁한 시기로서 식량 약탈 등을 염두에 둔 해적적 성격의 존재[235]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해된다. 특히, 앞서 왜가 문화교류 및 대외교류를 위한 창구로서 서남해안 루트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해 보면 이들의 교류네트워크가 차단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은 피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의 대외중계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신라에 대해 집중적 해적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結 論

본 연구의 결론은 이상의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東아시아의 稻作과 관련된 論議는 栽培稻의 起源과 稻作農法 특히, 水田稻作의 傳播過程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현존 稻는 크게 長粒形의 Indica와 短粒形의 Japonica로 나뉘는 데, 古代米의 DNA분석에서 中國 古代米는 모두 Japonica로 파악됨에 따라 二元起源說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韓半島의 稻와 日本列島 稻

235) 旗田巍, 1975 <앞 논문>

의 起源地가 中國 南部와 直接的으로 連結되어있음을 확인시켜주며 日本列島에서 확인된 稻에 일부 남방전래의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 韓半島에서 傳來된 稻가 대부분임이 확인되고 있다.

韓半島의 稻作과 관련된 松菊里類型의 文化는 無文土器 中期 또는 後期時代로 편년되는데, 韓半島에서 水田稻作文化가 본격적으로 展開되어 灌漑를 隨伴한 水稻作이 完成된 시기이다. 이 문화의 발생지는 충남 西海岸－錦江 중하류 유역으로서 이 松菊里文化가 본격적으로 일본열도에 영향을 미쳐 북부 九州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도작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稻作農耕은 특히, 벼농사 기술뿐만 아니라 稻作農耕을 수행한 사회체제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韓半島 靑銅器문화양상과 궤를 같이하며 環濠集落과 松菊里型 住居地, 支石墓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에 의해 農耕문화가 전파되었음을 보여준다. 竪穴住居와 貯藏穴의 別途配置 등 새로운 住居形式 및 石棺墓로 대표되는 松菊里文化의 영향은 有明海 沿岸, 佐賀平野의 吉野ケ里유적과 久保泉丸山유적에서도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日本 彌生時代의 年代觀은 2003年 日本 東京歷史民俗博物館팀이 土器 有機物에 대한 AMS(이온빔가속기질량분석법)測定에 의한 새로운 年代觀을 근거로 彌生時代 開始時點이 紀元前 930年까지 遡及되어야 한다는 紀元前 10世紀說 主張이 提起되면서 開始期 年代에 상당한 混亂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彌生時代의 編年을 '歷博'의 입장이 제기된 이후 AMS編年에 의할 때 早期(先Ⅰ期 紀元前 10~9世紀), 前期(Ⅰ期, 紀元前 8~4世紀), 中期(Ⅱ-Ⅳ期, 紀元前 4~紀元後1世紀), 後期(Ⅴ, Ⅵ期 紀元後 1~3世紀)로 제시된다. 이에 대해 日本學界는 贊成의 경우 韓國의 靑銅器文化 年代를 遡及하거나, 反對의 경우 年代測定 過信의 문제 및 측정치의 變動可能性을 提起하고 韓半島 관련유물 年代와의 不一致 문제를 제기하여 학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日本列島의 最初 農耕文化인 彌生文化의 개시기의 연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彌生文化의 起源地인 韓半島의 農耕 및 靑銅器文化 年代도 함께 上昇해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인 前提條件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한국학계는 이 같은 일본학계의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강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반도 등의 연대가 같이 상승할 때 가능한 견해라고 파악되며 일본열도만의 일방적 연대상승은 무의미하다.

日本列島 특히, 九州地域에서 출토되는 韓半島系의 土器文化 樣相은 刻目突帶文土器, 孔列文土器, 丹塗磨硏土器, 松菊里式土器, 粘土帶土器 등이 있다. 彌生 早期土器인 夜臼式土器(刻目突帶文土器)의 始原에 대해서 日本學界에서는 韓半島 傳來說과 繩文土器 繼

承說이 있는데, 彌生 早期土器인 刻目突帶文土器의 출현문제에 대해서는 韓日 學者 間에 異見이 있지만, 水田農耕을 기반으로 한 文化體系인 松菊里文化가 韓半島로부터 日本列島로 건너가면서 彌生文化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은 대부분 동의하는 점이다.

한편 韓半島지역의 初期 鐵器時代의 대표적 문화양상인 粘土帶土器文化는 古朝鮮과 깊은 연관이 있는 遼西·遼東지역의 住民移住로 韓半島에 등장한 문화로서 紀元前 6세기 말, 5세기초로 설정되고 있다.

韓半島와 日本列島 間의 金屬文化의 交流에 있어 韓半島에는 琵琶形銅劍과 銅矛로 구성되는 순수 靑銅器時代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 성과로 보는 한 그러한 단계가 뚜렷하지 않고 靑銅器와 鐵器가 거의 同時에 韓半島에서 日本列島로 流入되고 있다. 日本學界는 彌生靑銅器文化의 形成에 나타난 韓半島 靑銅器文化의 收容과 定着 양상을 遼寧式銅劍(琵琶形銅劍)과 磨製石劍, 石鏃을 부장하는 支石墓 등의 墓制로 대표되는 '遼寧靑銅器文化複合'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화는 中國 中原의 靑銅器文化와 뚜렷한 差別性을 보이며 遼東半島, 韓半島 및 滿洲地域을 중심으로 琵琶形銅劍과 銅矛, 支石墓로 구성되는 靑銅器문화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靑銅器文化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日本學界에서 최근에는 靑銅器의 列島化 時期를 中期前半(汲田式甕棺時期)으로 올려보고 韓半島 靑銅器의 輸入樣相에서 일종의 選擇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靑銅器 鑄型, 儀器, 銅劍 등 양상은 한반도와 동일한 배경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어 개별선택이 아닌 문화체계의 전파입장이 유효한 해석이다.

彌生시대 鐵器文化 전개과정의 특징은 前期에 磨製石器를 대신하여 鐵製 工具類가 먼저 유입되고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며 鐵鏃에 이어서 中期 단계에 鐵製 武器類(劍, 刀, 鉾 등)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에 비해 鐵製 農具類는 그 출현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 전래된 '大陸系 磨製石器'인 蛤刃石斧, 片刃石斧, 有溝石斧, 半月形石刀 등이 生產道具의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船載되어 들어온 일부 鐵製 工具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彌生時代 前期 段階는 물론 이후 독자적 형태를 갖는 鐵製工具가 자체적으로 제조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北九州에서의 前期末~中期 前半, 畿內에서의 中期 前半頃에도 鐵素材는 日本列島內에서 生產하지 못하고 全的으로 韓半島로부터의 流入品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시 韓日 양국 사이의 교류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靑銅器는 초기에는 무덤의 副葬遺物로서 대부분 출토되고 있다.

韓半島 靑銅器는 주로 무덤의 副葬品으로서 日本列島에서는 초기 副葬品形式에서 점차 埋納된 祭器로서 대부분 발견되어 副葬과 埋納이란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同一한 系統에서 變化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器種과 形式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鐵器文化段階의 대표적 武器는 細形銅劍, 細形銅矛, 細形銅戈 등이다. 특히, 日本列島에서는 백수십 점의 細形銅劍과 細形銅矛, 細形銅戈 각 30여 점이 출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鑄型도 출토되고 있다.

한편 儀器로서 韓半島에서 나타난 것은 多鈕鏡, 銅鈴, 異形銅器, 銅鐸 등으로서 이중 銅鏡과 銅鐸이 韓半島와 日本列島에서 儀器로서 공통적인 기능을 하였다. 靑銅器를 祭祀行爲를 통해 埋納하는 儀禮와 관련된 遺蹟은 韓半島에서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나 일본지역에서는 紀元前 1세기경부터 상당한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銅鐸의 경우 馬韓社會에 존재하였던 蘇塗의 大木에 鼓와 鈴을 달았던 의식행위와 연결되는 양상으로 주목된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墓制 가운데 日本의 支石墓는 그 계보가 韓半島에 있으며 韓半島의 支石墓 가운데 碁盤式 支石墓를 주체로 하며 蓋石式 支石墓도 존재하는 점이 공통의 입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古朝鮮時期 倭와의 關係내용을 보면 倭와 中國과의 최초 交流 記事로 언급되는 ≪山海經≫ 기사의 내용은 사실은 古朝鮮, 蓋國과 倭사이에 유지되었던 政治的 隷屬認識 및 文化的 交流에 근거한 傳聞이나 관련 知識과 物品의 交流 등을 근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교류가 존재했다면 古朝鮮 및 蓋國을 통한 교류로서 이들의 中繼的 役割이 존재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衛滿朝鮮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는 細形銅劍文化로 특징지워진다. 위만조선시기인 기원전 2세기경 韓半島에서 日本列島의 壹岐를 거쳐 北九州지역까지 위만조선계통의 細形銅劍文化와 한반도 남부지역의 無文土器文化가 전래되었다.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는 北九州 중심으로 확산되어 佐賀縣 宇木汲田 甕棺墓群, 福岡縣 吉武高木墓群, 福岡縣 吉武 大石墓群, 山口縣 梶栗浜 石棺墓群, 福岡縣 飯倉丸尾 甕棺墓 등에서 발견된 청동유물은 세형동검 2~3단계로 추정되는 것으로 대부분 한반도에서 직접 유입된 것이다. 유적은 甕棺墓, 木棺墓, 石棺墓로서 細形銅劍, 銅鉾, 銅戈, 多鈕細文鏡, 銅釧, 管玉, 勾玉, 丸玉 등이 세트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慶州 九政洞, 入室里, 益山 平章里 유적과 연결되며 全南 咸平 草浦里 石棺墓 일괄 출토품과 유사하다. 또 咸南 李花洞 토광묘 출토유물에서도 같은 세트가 나타나고 있어

동일 시기로 편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는 중국의 前漢 前期, 우리나라의 衛滿朝鮮시대로 편년된다.

古朝鮮 以來의 倭와의 交流體系와 내용은 衛滿朝鮮의 崩壞로 교류를 대신 통제하게 된 樂浪 등 郡縣勢力이 旣存의 交流網을 活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政治勢力의 도움과 協助를 통해 교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앞장에서 검토한 勒島, 金海 등 南海岸 일대에 산재한 中國系 遺物이 발견되는 유적지에서 倭系遺物이 함께 반출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三韓과 三國 初期 倭와의 交流에서 주목되는 것은 東夷지역에서의 重譯外交의 주체로서 고조선뿐만 아니라 삼한 및 삼국이 부각된다는 사실이다. 즉, 중국은 주변세력과의 관계에서 먼 遠邦 등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지역과의 교류는 언어를 통역해 주는 존재가 전제되어 교역이 진행되었다. 이 같은 양상은 ≪史記≫를 집필한 사마천의 自序에서 이들과의 교류가 重譯을 통해 이루어졌음이 강조되어 확인된다. 東夷지역의 경우 高句麗-肅愼, 百濟-新羅의 例에서 확인되었듯이 重譯에 의해 中國과의 외교관계를 형성한 국가나 세력들의 양상은 중역 담당국가와 피중역국가 및 세력 간에는 附庸관계 등 정치적 상하관계가 존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三韓과 倭와의 交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韓과 倭와의 교류양상은 韓과 倭와의 자체적 교류와 함께 中國 郡縣과의 交流를 韓이 中繼하는 重譯的 性格의 交流가 진행된 사실을 통해 삼한사회의 交流中繼力量이 重譯外交로 나타나고 있다. 즉, 後漢, 魏, 晋代까지의 中國과 韓, 倭의 교류내용을 보면 倭의 魏, 晉과의 交流가 重譯에 의한 入貢이란 점이 확인되며 앞서 중역국가와 피중역국가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가 상정된다. 그리고 韓과 倭 교류물품의 핵심은 鐵交易과 銅, 織物 등이었다.

삼국초기 왜와의 교류관련 기사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新羅－倭관계 기사가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신라를 습격한 왜인은 일본열도에서 계절적으로 바다를 건너 내습하여 물건과 사람을 약탈하는 해적 집단이며 신라본기의 왜인, 왜병은 대마도를 병참지로 삼은 해적으로, 그 실체는 北九州의 왜인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이 확인된다.

첫째, 한일 선사문화의 교류에 대한 한국, 일본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해 볼 때 일본 彌生文化 성립의 중요 요소인 水田稻作, 靑銅器, 鐵器 등 金屬文化의 전래양상에 대해 종래 일본학계 및 개설서에서는 그 傳來主體와 地域에 대해 모호하게 '大陸'이라고만 표현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연구성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稻作文化의 경우 韓半島 松菊里文化의 영향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의 경우 細形銅劍 즉, 韓國式銅劍으로도 불리는 韓半島中心의 靑銅文化가 日本列島에 전해졌음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된다.

둘째, 일본 선사고고학계가 최근 진행한 AMS(이온빔가속기질량분석법)測定에 의한 새로운 年代觀을 근거로 彌生時代 開始時點이 紀元前 930年까지 遡及되어야 한다는 紀元前 10世紀說 主張은 前提條件으로서 彌生文化의 起源地인 韓半島의 農耕 및 靑銅器文化 年代도 함께 上昇해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학계의 전반적인 연구내용은 이 같은 연대상승에 회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셋째, 일본열도의 對外交流에 대한 최초의 역사기록인 ≪山海經≫과 ≪漢書≫ 地理志 기록의 내용에 대해 일본학계에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출발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볼때 古朝鮮, 蓋國 등과 倭 사이에 존재하였던 교류와 긴밀한 관계를 설명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衛滿朝鮮 이후 성립된 樂浪, 帶方 등 郡縣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衛滿朝鮮과 倭와의 사이에서 존재한 교류관계가 前提되었다는 점에서 고조선과 왜와의 관계가 확인된다. 종래 이 같은 이해가 양국의 개설서나 연구에서 부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실과 의미 부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重譯外交의 주체로서 古朝鮮, 三韓, 三國의 역할 확인이다. 이번 연구에서 고조선 및 삼한을 포괄한 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重譯外交가 확인되었다. 즉, 東夷世界가 中國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重譯을 해주는 重譯國家와 被重譯國家나 種族 사이에 附庸國적 성격의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三韓이 倭를 郡縣과 연결하는 데 重譯을 해주었다는 기록에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대 중역외교를 진행한 삼한과 왜와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先史, 古代의 韓日關係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양국의 考古學的 成果를 體系化하고 統合할 수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山海經≫
≪管子≫
≪史記≫
≪鹽鐵論≫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北史≫
≪三國史記≫

慶南考古學硏究所, 2006 ≪勒島 貝塚≫ Ⅴ 考察編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편, 2005 ≪송국리문화를 통해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경)
곽종철·이진주, 2003 <우리나라의 논유구 집성> ≪한국의 農耕문화≫ 6 (경기대학교박물관)
구자진, 2003 ≪옥천 대천리의 신석기집자리에 대한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金容範, 1986 <魏晋의 東北關係－秩序推移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鎭晶·小片丘彦·峰和治·竹中正巳·佐熊政史·除レイ男, 1993 <金海禮安里古墳出土人骨> ≪釜山大學校 博物館遺蹟調査報告≫ 15
金澤均, 1990 〈 三國史記 新羅의 對倭 關係 記事 分析 〉 ≪江原史學≫ 6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華城 發安里 마을유적·旗安里 製鐵遺蹟 現場說明會資料>
김길식, 2006 <진변한지역 낙랑 문물의 유입 양상과 그 배경>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김무중, 2006 <馬韓지역 낙랑계 유물의 전개양상>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김신규, 1970 <우리나라 원시유적에서 나온 포유동물상> ≪고고민속론문집≫ 2
김원룡, 1967 <삼한시대의 개시에 관한 일고찰> ≪동아문화≫ 7
김장석, 2001 <흔암리유형재고> ≪영남고고학≫ 28
김장석, 2007 <靑銅器時代> ≪한국고고학강의≫ (한국고고학회)
김재윤, 2003 ≪한반도刻目突帶文土器의 편년과 계보≫ (부산대 석사논문)
노중국, 2002 <진변한의 정치사회구조와 그 운영> ≪진변한사연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韓國古代社會硏究所編)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忠北大考古美術史學科)
박순발, 2004 <遼寧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定着過程> ≪錦江考古≫ 창간호 (충청문화재연구원)
박진욱·강인숙·황기덕,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박진일, 2007 <粘土帶土器로 바라본 初期鐵器, 彌生時代曆年代考> ≪한일문화교류, 韓半島와 일본 규슈≫ (국립중앙박물관)
배진성, 2005 <무문土器시대 석기의 지역색과 조성변화> ≪사람과 돌≫ (국립대구박물관)

裵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변사성·고영남, 1989 <마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서영수, 2007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학연문화사)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申敬澈·河仁秀, 1991 <韓國出土의 弥生土器系土器>, 小田富士雄, 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 弥生時代編 (六興出版)
安承模, 1999 ≪아시아 栽培稻의 起源과 分化≫ (學研文化社)
안승모, 2002 <韓國と日本の初期稻作－未解決の諸問題－> ≪朝鮮半島と日本の相互交涉に關する綜合學術調査≫
安承模, 2007 <栽培稻の起源と韓半島への傳來－稻資料を中心に－> ≪日韓交流展　稻の來た道≫
安在晧,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韓國上古史學會)
안재호, 2000 <한국 農耕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
安在晧,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안재호, 2006 <青銅器時代취락연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안재호·홍보식, 1998 <삼한時代 영남지방과 북구주지방의 교섭사연구> ≪한국민족문화≫ 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延敏洙, 1988·1989 〈5世紀 以前의 新羅의 對倭關係〉 ≪日本學≫ 7, 8·9
오세연, 2000 <稻作農耕사회의 형성> ≪겨레와 함께한 쌀≫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1992 <송국리형 주거분류시론>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이건무, 2003 ≪한국식동검문화의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李南珪, 2002 <日本 古代 鐵器文化의 形成－彌生時代를 中心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제9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이백규, 1974 <경기도출토 無文土器 마제석기> ≪고고학≫ 3
李相均, 1998 ≪新石器時代의 韓日文化交流≫ (學研文化社)
이상길, 2000 <青銅器 埋納의 性格과 意味－馬山 加浦洞遺蹟 報告를 겸하여－> ≪한국고고학보≫ 42
李相吉,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이상길·김미영, 2003 <밀양금천리유적> ≪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李盛周, 2002 <南海岸地域에서 출토된 倭系遺物>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 三國의 交涉≫ (복천박물관)
李盛周, 2007 ≪青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學研文化社)
이양수, 2007 <요시노가리로 가는길> ≪요시노가리－일본속의 고대한국－≫
이영문, 1997 <한국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한 고찰> ≪한국고고학보≫ 38
이재석, 2007 <고대 구주 해안도서와 동아시아의 교류> ≪구주 해안도서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李鍾旭, 1986 <韓·倭의 政治勢力과 樂浪郡·帶方郡의 關係> ≪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 (韓日文化交流基金)
李鍾旭, 1992 〈廣開土王陵碑 및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兵'의 正體〉 ≪韓國史市民講座≫ 11
李鍾恒, 1977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의 實體에 대하여〉 ≪國民大學論文集≫ 인문과학편 11
이준정, 2001 <수렵채집경제에서 농경으로의 전이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영남고고학≫ 28
이진민, 2007 <남한지역農耕사회의 성립과 전개> ≪요시노가리 일본속의 고대한국≫
이청규, 2003 <한일青銅器의 비교> ≪한국문화사상대계≫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청규, 2007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고조선사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이청규, 2007 <한일 靑銅器와 요시노가리 유적> ≪요시노가리－일본속의 고대한국－≫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엄)
이청규, 2009 <茶戶里遺蹟의 靑銅器와 辰弁韓> ≪考古學誌－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記念 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編,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李賢惠, 1998 ≪韓國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李弘鐘, 2000 <無文土器가 彌生土器 成立에 끼친 影響> ≪先史와 古代≫ 14
이홍종, 2000 <無文土器가 彌生土器성립에 끼친 영향> ≪선사와 고대≫ 14
이홍종, 2000 <無文土器와 彌生土器의 實年代>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이홍종, 2005 <송국리문화의 문화접촉과 문화변동> ≪한국상고사학보≫ 48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편, 2003 <綜合討論> ≪晉州 南江遺蹟과 古代日本≫
鄭漢德, 2002 ≪日本의 考古學≫ (學研文化史)
조법종, 2006 ≪고조선고구려사연구≫ (신서원)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조현종, 2000 <일본의 도작농경연구－彌生時代水田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11
조현종, 2004 <우리나라 도작농경의 기원과 도작유형> ≪농업사학회지≫ 3(2)
천선행, 2005 <한반도 돌대문土器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57
崔夢龍, 1985 <古代國家成長과 貿易; 衛滿朝鮮의 例>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역사학회)
최몽룡, 1997 <청동기시대>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최몽룡, 2008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한국청동기, 철기시대의 연구방향> ≪한국 청동기, 철기시대와 고대사회의 복원≫ (주류성출판사)
최몽룡, 2008 ≪한국청동기·철기시대와 고대사회의 복원≫ (주류성출판사)
한창균 외, 2002 <옥천 대천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연구>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발표집≫

家根祥多, 1993 <遠賀川式土器の成立をめぐって－西日本における農耕社會の成立－> ≪論苑考古學≫
家根祥多, 1997 <朝鮮無文土器から彌生土器へ>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Ⅰ≫
甲元眞之, 1978 <彌生文化の系譜> ≪歷史公論≫ 4卷3號
甲元眞之, 1978 <西北九州支石墓の一考察> ≪熊本大學法文論叢≫ 41
甲元眞之, 1999 <環東中國海の先史漁撈文化> ≪熊本大學文學部論叢≫ 65
甲元眞之, 2004 ≪日本の初期農耕文化と社會≫ (同成社)
甲元眞之, 2006 ≪東北アジアの青銅器文化と社會≫ (同成社)
甲元眞之·山崎純男, 1984 ≪彌生時代の知識≫ (東京美術)
岡崎 敬, 1971 <日本考古學の方法> ≪古代の日本≫ 9 (角川書店)
岡崎敬, 1951 <日本における初期鐵製品問題> ≪考古學雜誌≫ 42-1
岡內三眞, 2004 <東北式銅劍の成立と朝鮮半島への傳播> ≪彌生時代の實年代 炭素14年代をめぐって≫ (學生社)
江上波夫, 1984 <東アジアにおける倭人の起源と活動> ≪江上波夫著作集≫ 8 (平凡社)
高倉洋彰, 1990 ≪日本金屬器出現期の研究≫ (學生社)

高倉洋彰, 1995 ≪金印國家群の時代≫ (青木書店)
高倉洋彰, 2003 <彌生時代開始の新たな年代觀をめぐって> ≪考古學ジャナル≫ 510
菅谷文則, 1988 <古代の日本列島から輸出品と東アジアの交易>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10 (吉川弘文館)
橋口達也, 1979 <甕棺副葬品からみた彌生時代實年代論> ≪九州自動車道關係埋藏文化財調査報告≫ xxxi中卷 (福岡縣教育委員會)
橋口達也, 1995 <墓制の變化(一) 北部九州－支石墓と大形甕棺の登場－> ≪彌生文化の成立≫ (角川書店)
橋口達也, 2003 <炭素14年代測定法による彌生時代の年代觀に關聯して> ≪日本考古學≫ 16
駒井和愛, 1972 ≪樂浪－漢文化の殘像－≫ (中央公論社) 118
九州考古學會·嶺南考古學會, 2000 ≪考古學から見た弁·辰韓と倭≫
國分直一, 1980 <倭と倭種の世界> ≪東ジナ海の道 －倭と倭種の世界－≫ (法政大學出版部)
宮本一夫, 2004 <青銅器と彌生時代の曆年代> ≪彌生時代の實年代 炭素14年代をめぐって≫ (學生社)
宮井善朗, 2003 <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青銅器の比較>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 III (同成社)
近澤喬一, 2000 <彌生時代> ≪山口縣史 資料編 考古≫ 1 (山口縣)
旗田巍, 1975 〈 三國史記新羅本紀にあらわれた倭 〉 ≪日本文化と朝鮮≫ 2
吉門雅高, 2003 <古代日本の支石墓> ≪晉州南江遺蹟과 古代日本≫
吉田廣, 2001 ≪彌生時代の武器形青銅器≫ (國立歷史民俗博物館 春成研究室)
吉田廣, 2008 <日本列島における武器形青銅器の鑄造開始年代>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第3卷 (雄山閣)
金關恕·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編, 1995 ≪彌生文化の成立－大變革の主體は繩文人だった－≫ (角川書店)
金關丈夫, 1973 <人類學からみた古代九州人> ≪古代アジアと九州≫ (平凡社)
金關丈夫, 1976 ≪日本民族の起源≫ (法政大學出版局)
奈良文化財研究所監修, 2005 ≪日本の考古學≫
內藤芳篤, 1971 <西北九州出土の彌生時代人骨> ≪人類學雜誌≫ 79
大貫靜夫, 2003 <松菊里石棺墓出土の銅劍を考えるための10の覺え書き> ≪第15回동아시아 古代史考古學研究會交流會豫稿集≫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大貫靜夫, 2005 <最近の彌生時代年代論について> ≪Anthropological Science (Japanese Series)≫ 113卷2號
大庭脩, 1996 <三·四世紀における遼東地域の動向> ≪古代中世における日中關係史の研究≫ (同朋舍出版200)
大澤正己, 1984 <金屬學見地からみた古代製鐵> ≪古代を考える≫ 36
大澤正己, 1997 <彌生時代の鐵器の動向－金屬學的見地からのアプローチ－> ≪東日本における鐵器文化の收容と展開≫ (第4回鐵器文化研究集會)
島根縣教育委員會, 1986 ≪荒神谷遺跡發掘調查概報(2)－銅鐸,銅矛出土地－≫
東潮, 1995 <弁辰과 加耶의 鐵> ≪加耶諸國의 鐵≫ 加耶研究學術叢書 1 (仁濟大學校 加耶文化研究所)
藤尾慎一郎 외, 2006 <彌生時代の開始年代－AMS－炭素14年代測定による高精度年代體系の構築> ≪彌生時代の新年代≫ (雄山閣)
藤尾慎一郎, 2004 <韓國,九州四國の實年代> ≪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藤田三郎, 2003 <日本の農耕集落>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 V (集落と都市) (同成社)

武末純一, 1994 <弥生時代の朝鮮半島系土器> ≪倭人の世界－樂浪海中の弥生文化－≫ 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特別図錄第43册
武末純一, 2002 <日本 九州 및 近畿地域의 韓國系 遺物－土器, 鐵器生産關係를 중심으로>≪古代 東亞細亞와 三韓,三國의 交涉≫ (복천박물관)
武末純一, 2004 <彌生時代前半期の暦年代>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武末純一, 2004 <彌生時代の年代> ≪考古學と實年代≫, 西川壽勝·河野一隆編 (ミネルヴァ書房)
武末順一, 2005 <三韓と倭の考古學> ≪古代を考える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武末純一, 2009 <茶戶里遺蹟과 日本> ≪考古學誌－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記念 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福岡市教育委員會, 1986 ≪吉武高木－彌生時代埋藏遺跡の調査概要－≫ 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143
本間元樹, 1991 <支石墓と渡來人> ≪兒嶋隆人先生喜壽記念論集 古文化論叢≫
富田仁編, 1992 ≪事典外國人の見た日本≫ (日外アソシエーツ)
裵安平, 1989 <彭頭山文化的稻作遺傳與中國史前稻作農業> ≪農業考古≫ 1989－2
李京華, 1992 <試談日本九州早期鐵器來源問題> ≪華夏考古≫ 第4期
寺澤薫, 1999 <環濠集落の系譜> ≪古代學研究≫ 146
山崎純男, 1989 <彌生文化成立期における土器の編年的研究> ≪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攷≫
山尾幸久, 〈任那日本府と倭について〉 ≪史林≫ 56－6
山尾幸久, 1979 <日本書紀の中の朝鮮> ≪共同研究 日本と朝鮮の古代史≫ (三省堂)
山尾幸久, 1982 <朝鮮の兩漢の郡縣と倭人> ≪立命館文學≫ 439－441期
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森貞次郎, 1969 <日本における初期の支石墓>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森貞次郎, 1985 ≪繩文農耕≫
三品彰英, 1959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 (吉川弘文館)
西谷正, 1997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綜合的研究≫ (九州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西本豊弘, 1993 <彌生時代ブタの形質につい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50
小林行雄, 1951 ≪日本考古學概說≫, 創元選書 218 (創元社)
小田富士雄, 1982 <日韓地域の同范小銅鏡> ≪古文化談叢≫ 9
小田富士雄·武末純一, 1991 <日本から渡った青銅器> 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 弥生時代編 (六興出版)
小澤智生, 2000 <繩文彌生時代に豚は飼われていたか> ≪季刊考古學≫ 73
松井和幸, 1986 <鐵生產の問題> ≪論爭學說日本の考古學≫ 4 (雄山閣)
宋井和幸, 2001 ≪日本古代の鐵文化≫ (雄山閣)
松下孝幸, 1994 ≪日本人と彌生人≫ (祥傳社)
沈仁安著·藤田友治·藤田美代子譯, 2003 ≪中國からみた日本の古代≫ (ミエルウア書房)
深澤芳樹, 2005 <彌生時代概說> ≪日本考古學≫ (小學館)
岩永省三, 2002 <青銅武器儀器化の比較研究>, 西谷正編, ≪朝鮮半島考古學論叢≫ (すずさわ書店)
野島 永, 2000 <彌生時代の鐵流通試論> ≪製鐵史論文集≫
鈴木英夫, 1977 〈三國史記新羅本紀倭人倭兵記事の檢討〉 ≪國史學≫ 101
王金林, 1986 ≪古代の日本－邪馬臺國を中心として－≫ (六興出版)
柳田康雄, 1989 <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系遺物> 福岡縣教育委員會 編 ≪九州における古墳文化と朝鮮

半島≫ (學生社)
柳田康雄, 2004 <朝鮮半島の中國式銅劍と實年代論> ≪九州歷史館資料論集≫ 29 (九州歷史資料館)
庄田愼矢, 2005 <湖西地域出土 琵琶形銅劍과 彌生時代 開始年代> ≪湖西考古學≫ 12 (湖西考古學會)
庄田愼矢, 2005 <日本 先史考古學의 時代區分과 年代問題> ≪先史와 古代≫ 22
田 廣編, 2001 ≪彌生時代の武器形靑銅器≫ 考古學資料集 21
田中良之, 1984 <繩文土器と彌生土器, 彌生文化の硏究 3 : 彌生土器Ⅰ> (雄山閣)
浙江省博物館, 1981 <河姆渡遺蹟動植物遺存的硏究> ≪浙江省文物考古學刊≫ 1
井上光貞, 1963 ≪日本歷史 1一神話から歷史へ≫ (中央公論社)
井上秀雄, 1970 〈日本書紀の新羅傳說記事〉 ≪日本書紀硏究≫ 4
井上秀雄, 1975 <中國古典の朝鮮と倭>, 國分直一編 ≪倭と倭人の世界≫ (每日新聞社)
井上秀雄, 1978 <中國文獻朝鮮, 韓, 倭> ≪任那日本附倭≫, 김기섭역, 井上秀雄, 1994 <중국문헌에 나타난 朝鮮, 韓, 倭에 대하여> ≪고대한일관계사의 이해－왜≫ (이론과 실천)
井上主稅, 2009 <茶戶里遺蹟에 보이는 倭 관련 고고자료에 대하여> ≪考古學誌－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記念 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井上主稅, 2006 ≪嶺南地方出土 倭系遺物로 본 韓日交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佐藤洋一郞, 1996 ≪DNAが語る稻作文明－起源と展開≫ (NHK Books)
佐藤洋一郞, 1999 ≪DNA 考古學≫ (東洋書店)
佐原 眞, 1979 ≪銅鐸≫ 日本の原始美術 7
佐原 眞, 1987 <家畜のベルから祭りのベルへ> ≪古代出雲荒神谷の謎に挑む≫ (角川書店)
佐原眞, 1975 <彌生文化の三要素> ≪古代史發掘≫ 2 (講談社)
佐原眞, 1996 ≪食の考古學≫ (東京大學出版會)
佐原眞, 2007 <稻,鐵器,靑銅器>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中橋孝博, 2005 ≪日本人の起源≫ (講談社)
中橋孝博, 2007 <繩文時代から彌生時代へ>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中村愼一編, 2001 ≪東アジアの圍壁, 環濠集落≫ 平成12年度文部科學省科學硏究費補助金·特定硏究 (A1) 考古學資料集 25
津田左右吉, 1912 〈新羅征討地理考〉 ≪朝鮮歷史地理≫ 1
千葉基次, 1996 <遼東靑銅器時代開始期> ≪東北アジアの考古學≫ (깊은샘)
川越哲志, 1993 ≪彌生時代の鐵器文化≫ (雄山閣)
泉拓良, 1990 <西日本突帶紋土器の編年> ≪文化財學報 제8집≫ (奈良大學文學部文化財學科)
村山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靑木書店)
村上恭通, 2003 <中國, 朝鮮半島における鐵器の普及と彌生時代の實年代> ≪考古學ジャーナル≫ 510號
春成秀彌, 1989 <朝鮮半島における戰亂と人ケの移動> ≪彌生時代の始まり≫ 考古學叢書 11 (東京大學出版會)
春成秀爾·藤尾愼一郞·今村峯雄·坂本稔, 2003 <彌生時代の開始年代－C14年代の測定結果について> ≪日本考古學協會第69會總會硏究發表要旨≫
春成秀爾, 1991 ≪彌生時代の始まり≫ (東京大學出版會)
春成秀爾, 2007 <彌生時代槪觀> ≪日本の考古學≫ 上 (學生社)
春成秀爾, 2008 <銅鐸の系譜> ≪東アジア靑銅器の系譜≫ (雄山閣)
春成秀爾, 2008 <靑銅器と彌生時代の年代> ≪東アジア靑銅器の系譜－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第3

卷－≫ (雄山閣)
七田忠昭, 2007 <吉野ケ里遺跡－佐賀平野に花開いた韓半島の文化－> ≪한일문화교류, 한반도와 일본규슈≫ (국립중앙박물관)
片岡宏二, 1999 <朝鮮半島へ渡った弥生人> ≪弥生時代渡來人と土器·青銅器≫ (雄山閣)
片岡宏二, 2006 ≪彌生時代 渡來人から倭人社會へ≫ (雄山閣)
下條信行, 1975 <北九州における彌生時代の石器生產> ≪考古學研究≫ 22卷1號
許明綱·劉俊勇, 1991 <大嘴子青銅器時代遺址發掘記略> ≪遼海文物學刊≫ 1991－1
胡家聰, 1994 <再論≪管子 輕重≫不作于漢代而作于戰國－兼論考證的類比法之或然性> ≪社會科學戰線≫ 1994年 3期
和佐野喜久生, 1998 <江南行 日本稻のルーツを求めて> ≪虹を見た≫ (海援社)
後藤直, 2000 <日韓の青銅器>, 李弘鍾編, ≪韓國古代文化의 變遷과 交涉≫ (書景文化社)
後藤直·茂木雅博, 2003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交流と交易≫ (同成社)

Cheng, Chaoyang et al. 2003, Polyphyletic Origin of Cultivated Rice:Based on the Interspersion Pattern of SINEs. Mol Biol Evol 20
Sun. C. et al. 2002, Genetic differentiation for nuclear, mitochondrial and chloroplast genomes in common wild rice (Oryza rufipogon Griff) and cultivated rice (Oryza sativa L.), Theoretic and Applied Genetics 104(8)
Suzuki,H,1969, Microevolutionaly changes in the Japanese Population from the prehistoric age to the present －day,J.Fac.Sci.Univ. Tokyo.Section V3

古代 日韓關係의 成立

－地域 間의 交流에서 古代國家의 關係로－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서론
제1장 고고학의 성과를 통해 본 '반도·해협·열도'의 지역 간 교류
1. 彌生시대와 민무늬토기시대의 年代論
2. 토기의 교류
3. 금속기의 교류
4. 주거의 교류
제2장 문헌·문자 사료를 통해 본 고대 일한의 지역 간 교류
제1절 BC 1세기~AD 1세기 일한의 지역 간 교류
1. 중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의 지역 간 교류
2. 한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의 지역 간 교류
제2절 AD 2~3세기의 일한관계
1. 중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관계
2. 한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관계

【國文抄錄】

필자는 이제까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4세기부터 9세기까지의 범위에서 일한관계사를 연구해 왔다. 그 관계사는 고구려, 백제와 왜국, 신라와 일본의 외교 교섭에 관점을 둔 관계사였다. 거기에서는 왕권의 발동에 따른 양자의 외교 전개와 그 근저에 있는 자기인식의 상대화를 문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한관계사의 대상시대를 크게 거슬러 올라갔다. 그것은 율령법의 체계를 갖춘 고대국가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의 한반도와 일본열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의 교류와 관계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었다. 고대의 일한관계사라고 하면, 자칫하면 근대의 국가 간의 관계의 고대사판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두 지역의 관계는 '다지역 간의 교류' 또는 '다지역 간의 교섭'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보고의 기조에는 반도와 열도 지역 간이 지리적으로 아주 근거리라는 실감과 확인이 있다. 두 지역의 사이에 놓인 해협에는 섬들이 이어져 있다. 해협에 떠 있는 이 섬들이 이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승선하여 이 해협을 건너거나 항공기 내에서 해협을 내려다볼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실감한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열도의 주로 서부지역의 彌生時代와 이에 병행하는 반도 중남부 지역의 민무늬토기시대의 토기와 금속기(화폐, 청동기, 銅鏡, 철기)와 주거를 중심으로 두 지역 간의 사람들의 왕래와 정착 실태를 일한의 대표적인 유적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유물과 유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두 지역 간의 교류를 담당한 사람들의 왕래의 가능성과 그 배경을 중국과 한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 비판을 참고로 하면서 소개하였다.

거기에서는 BC 1세기부터 AD 3세기까지를 두 개의 절로 나누었다. 이 분절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것이다. 단, 두 지역 간의 교류와 관계는 길었던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면서도 보다 왕성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정치 과제가 점차로 포함되어 가는 것의 근저에는 BC108년에 반도의 북부지역에 漢帝國이 4郡을 배치하고, 이 중의 樂浪郡은 3세기 초에는 그 남부를 분할하여 설치되었던 帶方郡과 함께 4세기 초(313년과 帶方郡은 314년)까지 존속한 것이 깔려 있다.

이 두 郡이 400여년 간(帶方郡에서는 약 100년 간) 존속하고, 중국왕조의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두 지역에서 끼쳤으며, 또 두 지역이 주체적으로 그것을 바랐던 점은 반도와 열도 두 지역 간의 교류와 고대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관계사를 이해할 때에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2장이 다루는 시대에서는 일한의 두 지역 간의 교류와 관계를 연결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존재가 중국왕조이고, 또 그 두 郡이라는 것은 경시할 수 없다. 두 지역의 여러 지역의 세력이 이와 관계를 맺는 것이 또 일한의 여러 지역 세력의 교류와 관계를 심화시킨 측면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제어 : 無文土器(민무늬토기), 彌生土器(야요이토기), 海村, 三國志, 三國史記

서 론

일본과 한국의 역사공동연구에서 기대되는 성과란 무엇인가? 역사연구자는 역사를 다양한 史觀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이것을 공표하는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역사인식으로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史實을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史實을 해석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연구자의 사명이며 또 기쁨이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하고 있다.

역사를 생각하는 관점은 사회적인 여러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知의 營爲로서 생성하는 것이지만, 역사를 생각하는 가치관의 형성은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국가와 사회의 역사가 이것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연구자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잊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역사연구자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을 뛰어 넘어 진행하는 국제적인 역사공동연구, 게다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호간의 관계사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史實의 발굴과 검증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에 입각한 상호의 관점을 대조해 보면서 상호간의 관계사를 대한다면 공동연구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관계사에서 생성된 역사인식이 투영되어서는 여기에서 담당하는 고대의 관계사 이해에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도 이미 밝혀져 있다.

따라서 일한의 역사 그 중에서도 관계사는 일한 양국 간의 관계만으로 진행된 관계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각각의 내적 외적인 여러 조건의 대응관계 속에서 관계사는 진행되고 다음 세대에까지 그 영향을 짙게 남긴 역사이다. 이러한 사실을 등한시 하고 一國主体의 史觀에 빠져서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연구의 성과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일한관계사 연구는 세계사적 조건과 일한 각각의 내적인 조건과의 상호성이라는 다각적인 검토 속에서 비로소 그 역사를 풍부하게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담당하는 '고대의 일한'이라는 時空間에서의 관계사에 대한 검토는 국민국가의 틀에 입각하여 視點을 정하는 것이 꼭 적절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한'이라는 오늘날의 국가명을 늘어놓는 것 이외에는 적절한 時空間을 나타내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일한'이란 단어를 편의상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이 지역의 역사를 보는 시각의 현대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을 것이다. '일본열도와 한반도 지역'이라는 정의도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반드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열도

와 반도'의 '諸 지역'이란 시각에 입각하여 이 時空間에서의 교류와 관계의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 시도되어도 좋고, 내가 담당하는 4세기까지의 시대는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일한관계사'란 일본국과 한국이라는 상호에 국민국가의 타인의 시점에 입각하여 구성되는 역사이지만, 통일적인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이 '열도와 반도'라는 넓은 지역에서는 이 '일한'의 관계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일본국'과 '한국'이라는 식으로 양자로 구분하여 이 광역의 관계사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넌센스이다. 열도와 반도에는 많은 '지역'과 그 역사가 있으며 '일본국'과 '한국'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그것은 씨족공동체를 단위로 하고 또 자연적 조건에 많이 규정된 복수의 지역이 구성하는 사회이다.

게다가 이 사회는 반드시 특정 지역에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긴 시간의 범위에서 이것을 보면 이동이 활발하다. 단 이 이동은 반도에서 열도로의 벡터는 강하면서도 그 전단계에는 반도의 북부 나아가서는 아시아대륙 동부로부터의 파상적인 이동이 반도 제지역의 이동을 야기하고 또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의 연쇄는 축적된 각 단계의 문화를 자극하고 문화의 완만한 발달을 촉진시킬 것이다. 문화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교류를 통해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며 이는 이러한 광역의 인간문화에서도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유구한 고대의 역사 속에서도 인접한 근대국가의 각각의 역사에서 그 관계사를 보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역사의 둔화'에 빠질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우열과 先後와 강약을 겨루는 것과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 함정은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

열도에서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彌生시대부터 기원후인 고분시대까지, 반도에서는 민무늬토기시대부터 삼한·삼국시대라는 시대 범위에서는, 양 지역에서 씨족의 이동·정착에 의한 씨족의 집합부터, 수십에서 백 가까운 초기국가(≪漢書≫ 등에 보이는 '國'의 기록)로의 전개를 볼 수 있다. 이 초기국가가 나아가 연합 혹은 분쟁 후에 통합을 거쳐 '대왕'을 받들고 그 후 중국왕조와의 通交가 축적되면서 율령을 체제화시킨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이 과정의 역사를 국민국가의 시각에 입각하여 '일한의 관계사'로서 이해하는 것에는 주저와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일한관계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역 간' 교류의 역사이다. 일한 고대국가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 이 '지역 간 교류'를 비추어 보아, 그 의의를 '고대국가의 형성사'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야말로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패트릭・J・기어리 著, ≪The Myth of Nations; The Medieval Origins Europe≫의 일본어 번역 ≪Nation이라는 신화－유럽 諸국가들의 중세적 기원－≫ (鈴木道也・小川知幸・長谷川伸之 譯, 白水社, 2008년 6월) 속에서 다수의 예를 들어 설명하듯이 고대의 언어와 문화는 매우 유동적이며 거기에는 불변의 영역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도 균일하지 않고 또 국민국가에는 고유의 선조와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내가 담당하는 '고대 일한관계의 성립'이란 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기어리는 시사하고 있다. '지역 간 교류에서 고대국가의 관계로'라고 부제를 붙인 것은 위에 서술한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

한편 西洋史家인 고 阿部謹也씨는 ≪북의 거리에서－어느 역사가의 원점－(北の街にて－ある歷史家の原点－)≫ (洋泉社, 2006년 8월 초판, 초판은 1995년에 講談社 간행) 속에서 "아카데미즘 속에 있는 연구자에게는 어떤 자세가 있고 그 자세의 배후에는 국가가 확실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는 개인이긴 하지만, 그 개인이 아카데미즘의 과제 속에서는 국가와 융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술회를 섞어 역사연구자의 어떤 자세를 지적하고 있다. 국제적인 공동연구 특히 인접한 상호간의 관계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각했으면 하는 阿部씨의 지적이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제1부에서는 고대 율령국가 성립 이전의 반도지역과 열도지역, 나아가 아시아대륙 동부에 걸친 광역의 '역사'를, '신화와 전승'으로 승화시킨 '왕권의 神 이야기'와 '창작된 역사' 혹은 '역사의 발명'이라는 현대가 창작한 고대사로부터 분리하여, 이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헌비판에서 획득한 지역 간 '교류'를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정리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제1장 고고학의 성과를 통해 본 '반도·해협·열도'의 지역 간 교류

【기본적인 관점】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걸친 넓은 '지역 간'에서 2~1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태고의 시대에는 '日' '韓'이라는 타자로 양분하는 조건에서의 상호인식은 아직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日' '韓'의 교류사라는 것은 과연 현대적으로 고찰하는 사고의 틀 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교류라는 것은 적어도 양자 혹은 그 이상의 귀속의식으로 맺어진 집단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정치, 경제, 문화에서 나타나는 모든 활동과 그 성과에 따른 이해이다. 여기에서 고대의 '일' '한' 관계를 오늘날의 역사학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고찰하는 視野 속에서, 그 대상은 확실한 시대로는 빨라도 4세기 전반부터의 大和 정권 성립 이후의 諸 호족연합으로 운영되는 고대국가 1단계의 시대이며, 광역의 토지와 호족이 지도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위에 성립된 어느 정도의 통일적인 통치체제를 준비한, 현대적으로 보면 초기국가 이후이다.

위에서 서술한 시각에서 조금 더 '日' '韓' 관계사의 대상을 거슬러 올라가도, 일본열도에서는 邪馬台國을 비롯한 다수의 소국이 여러 가지 이익대립 속에서 존패를 걸고 치열하게 연합과 함께 통합을 향해가던 시대, 또 한반도에서는 邪馬台國과 마찬가지로 ≪三國志≫ 東夷傳에 기록된 3세기 중반 이후의 삼한시대 여러 소국가들 이후부터일 것이라고 여기서는 이해한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북부지역에는 중국 전국시대의 동북부에 있던 燕國과 인접한 '朝鮮' 세력이 있었고(한국사에서는 '고조선'이라고 시대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정점이었던 箕子와 衛滿의 출신이 이야기되지만, 넓은 '고조선'의 사회와 정치 구조가 해명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고고학의 견지에서는 통일적인 '고조선'의 국가구조는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의 사회, 문화 구조이다), 결국에는 BC 108년에 前漢 武帝의 원정으로 이 '고조선'의 지배체제(이 시기에는 부족장을 매개로 한 느슨하고 혹은 강권적인 지배구조의 면이 강함)가 붕괴되고 그 故地

에 樂浪郡, 眞蕃郡, 臨屯郡, 그리고 다음 해인 BC 107년에는 玄菟郡이라는 총 4개의 郡과 그 管下에 10여개의 縣이 설치되는데, 이 4郡을 통하여 前漢부터 西晋까지 중국의 중앙집권적인 통치 하에서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받게 된다.

'고조선'과 4郡에 인접하여, 반도의 북부에서는 고구려족의 통합이 국가의 지배체제를 갖추고, 남부지역에서는 크게 마한, 진한, 변한으로 분류되는 삼한 속에서 여러 소국들이 지정학적 조건으로부터 郡縣의 정치규제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통합을 향한 긴장관계 속에 있던 시대에 고대 '日' '韓'관계와 관련한 역사학적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필자는 그 시대에 선행하는 유구한 시대에 반도와 열도지역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의 왕래에 대해 그 회수의 많고 적음은 계측 불가능하지만, 또 해류의 제약을 극복하는 항해술의 발달에 규제되면서도 쌍방향 왕래가 시도되고 또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두 지역의 유적과 유물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왕래는 이쪽에서 보면 '도래'이고 저쪽에서 보면 '渡航'이지만 이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일' '한' 이라는 식으로 양자를 구별하여 관계의 역사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이며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 '한' 고대국가의 교류관계가 탄생하는 요람기이며 지역 간의 교류인 것이며 아시아대륙이라는 관점에서 조감한다면 '일' '한'의 지역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지역 내의 교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의 시각에 입각하여 일본 역사학의 시대구분인 彌生시대, 한국에서는 민무늬토기시대부터의 '일' '한' 두 지역의 교류를 유적과 유물에 초점을 맞춘 고고학의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이 시대에 선행하는 구석기시대의 문화는 반도지역에서는 동북부의 咸鏡北道 雄基郡의 屈浦里유적부터 서남부의 忠淸南道 公州市의 石壯里유적 등까지 100곳이 넘는 유적이 알려져 있고, 열도지역에서는 群馬縣의 岩宿유적 발굴 이래 각지의 유적에서 구석기시대는 확인되고 있다. 지질학에서는 신생대 제4기 更新世에 해당하며 그 하한은 1만여년 이전이라는데 이 시대에는 반도와 열도 사이에는 육지가 연결되어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해협이 극히 좁았거나 하여 '교류'라는 고정된 지역 간 인적 왕래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동'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태일 것이다.

이어지는 신석기시대는 토기를 지표로 하여 반도지역에서는 빗살무늬토기시대, 열도지역에서는 縄文시대에 해당한다. 그 상한은 뷔름 빙기(Wurm Glacial Period)가 끝나는 12000년 전경, 하한은 BC1000년경 사이로 구분된다. 반도지역에서는 서북의 黃海北道 鳳山郡의 智塔里유적부터 동남의 慶尙南道 釜山廣域市 影島區의 東三洞유적 등 다수의

유적이 알려져 있고 또 열도지역에서는 千葉市의 加曾利패총 등 각지에 이 시대의 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 유구한 시대에는 반도지역에서 제작된 결합식낚싯바늘(結合式釣針)이 福岡 平野지역에서 출토되고 있고 한편 열도 서부지역의 佐賀縣 有田町의 腰岳에서 채취한 흑요석이 반도지역으로 건너간 것이 알려져 있다. 또 반도지역의 구멍무늬토기(토기 속 혹은 바깥부터 아가리에 구멍을 뚫어서 돌아가며 배치한 토기)가 열도 서부지역으로 건너간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상호 간에 문화의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片岡宏二 2006】.

여기까지의 시대와 그 문화는 위에서 서술했듯이 현대적인 문제의식의 관점에서 '日' '韓'이라는 이편 저편 양쪽으로 나눈 관계사적 연구시각에 입각하여 고찰한다면 그 문화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아 원초적으로도 공통의 문화를 갖고 있고 위에서 서술한 고대국가의 탄생을 준비하는 광역의 기층사회와 그 원초의 문화가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시대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필자는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영토라는 시각에서, 또 근대 이후의 '일본과 한국'과의 여러 관계 그 중에서도 '일한병합'의 역사에서 발생한 정치, 문화의 交涉史라는 시점을 무의식중에 이 유구의 시대에까지 소급시켜 이 원대한 시대를 이해한다면 그 고찰의 결과는 상당히 난폭한 歷史像이 될 것이다. 고고학의 분야에서 태어난 이 시대의 문화를 무의식 속에서 현대적인 국민과 국경의 의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실상과는 괴리된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상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1. 彌生시대와 민무늬토기시대의 年代論

따라서 문헌을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역사학의 성과와 지하에 묻혀있는 인간의 사회생활의 단계적 발달의 증거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개별적 종합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는 고고학의 성과와의 응용적 고찰이 가능한 시대, 즉 반도지역에서는 민무늬토기시대, 열도지역에서는 彌生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약 10세기경부터의 양 '지역' 간의 인적 교류에 대해, 매장문화재와 문헌고찰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위에서 '기원전 10세기경'이라고 썼는데 별표【<표 Ⅰ>을 참조】에서 보듯이 열도지역의 시대구분인 彌生시대의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국립역사민속

박물관·歷博學術創成研究그룹이 실시한 탄소14년대 측정법을 통한 성과에 입각하여, 종래의 彌生시대 개시와 관련한 年代觀에서 약 5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이 '기원전 10세기경'이라고 결론지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07】.

이 별표를 작성한 藤尾愼一郎씨와 함께 연구그룹을 운영했던 春成秀爾씨는 "彌生 早期의 시작이 기원전 10세기 후반, 전기가 기원전 9~8세기, 중기가 기원전 4세기에 시작된다고 하는 탄소14년대는 고고학적으로 점검해 보아도 성립된다"고 설명한다【春成 2006, 86p】.

春成씨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北部九州의 縄文말기 黑川〔濱田註：鹿兒島縣 日置郡 吹上町 永吉砂走 黑川〕式의 古段階는 기원전 1300~1000년경, 黑川式의 新段階는 기원전 1000~950년경, 彌生 早期의 山寺〔同註：長崎縣 南島原市 深江町〕式·夜臼〔同註：福岡縣 糟屋郡 新宮町ゆうす (유스)〕 Ⅰ式은 기원전 950년경, 夜臼Ⅱa식은 기원전 840년, 彌生 전기의 板付〔同註：福岡市 博多區〕 Ⅰ式은 기원전 780년이 각각의 상한이다"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여 반도지역의 대체적인 탄소연대는 "민무늬토기 早期인 渼沙里〔濱田註：京畿道 河南市〕式은 기원전 13~12세기, 前期인 可樂洞〔同註：서울특별시 松坡區〕式은 기원전 12~11세기, 欣岩里〔同註：京畿道 驪州郡 占東面〕式은 기원전 11~10세기, 中期인 休岩里〔同註：忠淸南道 瑞山市 海美面〕式은 기원전 10~9세기, 松菊里〔同註：忠淸南道 扶餘郡 草村面〕式은 기원전 8~7세기이다"라고 설명하고, "탄소연대라도 黑川式－可樂洞式·欣岩里式, 山寺式·夜臼Ⅰ式－休岩里式, 板付Ⅰ式－松菊里式은 거의 병행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양 지역 간의 토기문화의 병행관계를 설명하고 있다【春成 2007, 21p】.

이 새로운 彌生연대에 대한 年代觀은 현재 왕성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이다. 그 측정재료가 독(甕)에 부착되어 있는 탄화물이라는 점에 대해, 인골과 사슴뼈에 의한 측정결과를 가지고 이 가설을 비판·검증하는 성과도 제출되어 있고【田中良之·溝口孝司·岩永省三·Tom Hjghman2004. 岩永2005, 2005~2009】, 최근에는 고고학의 연구자세에 대한 물음과 함께 관계 학계에서는 왕성하게 재검증과 가설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사회의 관심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문헌과 이것을 해석하는 역사학의 성과와 매장문화재의 역사학적 연구와의 대조가 가능한 시대, 즉 반도에서는 ≪한국고고학사전≫ 【한국문화재연구소, 2001년 12월】에 따르자면 민무늬토기시대(청동기시대), 열도지역에서는 이 시대에 상당하는 縄文시대 말기부터 彌生시대의 開始期에 상당하는 약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이 두 '지역' 간

의 교류를 문화유산과 문헌비판을 통해 얻은 고찰의 성과로 정리해보자.

학문과 지식의 구축이라는 의욕에서 보면 매우 자극적인 이 시대 반도지역과 열도지역의 문화교류에 대한 확인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금속기뿐만 아니라 유적 그 자체의 주거지, 분묘의 형태 등 고고자료가 어떻게 병행하는가 하는 관계의 구성에 파급된다. 그것은 두 지역 간을 왕래하고 또 이주해서 결국에는 혼합·융합된 사람들이 고대국가의 단계적 발전마다 일한관계의 前史를 구성한 역사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토기의 교류

【열도지역에서 출토되는 민무늬토기】

반도지역에서의 청동기 사용은 그 후의 철기사용과도 중첩되지만 이 시대의 지표가 되는 토기문화의 형태는 민무늬토기라는 점에서 오늘날에는 넓게 민무늬토기시대라고도 명명하고 있다. 그때까지의 빗살무늬로 대표되는 토기의 기하학적인 문양은 거의 소멸되고 납작바닥과 민무늬를 특징으로 한다. 거칠게 제작된 항아리(壺), 독(甕), 바리(鉢) 등의 토기, 붉은간토기(丹塗硏磨土器), 후에는 검은간토기(黑色硏磨土器)를 특색으로 한다.

武末純一씨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武末純一 2002】, 남북 약 1,150㎞(도서부 포함), 동서 약 360㎞인 반도의 민무늬토기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조기(새김덧띠무늬토기(刻目突帶文土器)를 주축으로 하는 渼沙里式토기), 전기(아가리에 점토띠를 두르고 그 아래에 빗금무늬를 넣은 可樂洞式이 이 시기의 先行型), 구멍무늬를 새긴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인 欣岩里式으로 구분된다), 중기(休岩里式, 松菊里式), 후기(水石里〔京畿道 渼金市〕式, 勒島〔慶尙道 泗川市〕式)로 시기가 구분되는 가운데(<표 1>참조), 武末씨는 九州북부지역과 교류하는 한반도 남부의 토기에 대해서는 독(甕)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는 欣岩里式(아가리 바로 밑에 작은 구멍을 두른 구멍무늬독(孔列文甕)), 중기의 松菊里式(밖으로 바라진 아가리를 가진 독), 후기 전반은 水石里式(아가리의 단면이 원형이면서 점토띠를 붙인 겹아가리토기(粘土紐貼付二重口緣土器)), 후기의 후반은 勒島式(아가리의 단면이 삼각형인 점토띠를 두른 점토띠토기)으로 크게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武末씨는 열도 서부지역과의 병행관계를 고찰하여 민무늬토기 조기는 黑川式

(鹿兒島縣 日置郡 吹上町 永吉砂走黑川 동굴에서 출토된 토기)보다도 빠르고, "전기는 黑川式~刻目突帶文期(繩文말기~彌生조기), 중기가 刻目突帶文期~板付(福岡市 博多區) Ⅰ式期(彌生조기~전기 초), 후기는 板付Ⅱ式期~須玖(福岡縣 春日市) Ⅰ式期(彌生전기 중반경~중기 전반)에 거의 상당한다"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반도와 열도 두 지역의 문화의 시대축이 대응하는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武末純一 2002, 113~114p】(<표 2> 참조).

민무늬토기시대의 열도 서부지역과 반도 남부지역과의 교류를 토기의 면에서 해석하는 데에는 片岡宏二씨가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것【片岡 1999】이 유익하다. 片岡씨는 주고쿠(中國)지방의 島根縣, 廣島縣부터 鹿兒島縣까지의 열도 서부지역에서, '구멍무늬토기'(전기 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島根縣 松江市의 다테초(タテチョウ)유적부터 鹿兒島縣 曾於郡 志布志町의 飛渡유적까지 모두 74개소에서 발견하고 정리하고 있다【片岡 1999, 57~63p】.

그 중에서 '彌生시대 전기 말에는 조선계 민무늬토기의 대량출토'를 야기한 현상을 인정하고, 도래인이 열도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그 배경이며, 그 계기가 된 것은 "衛滿朝鮮이 箕子朝鮮을 멸망시켜서 그 일족이 전란중인 땅을 떠나 남하한 것이며 남하한 곳에서도 이주가 더욱 촉진되어 그 여파가 일본에까지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片岡 1999, 51~52p】. 衛滿朝鮮의 개시는 BC 194년이라고 하지만 위에서 서술했듯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彌生시대의 개시연대가 500여년이나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箕子朝鮮과 衛滿朝鮮의 교체시기는 BC 2세기 초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열도 서부지역에서의 '조선계 민무늬토기 대량출토'의 원인설은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반도 남부지역의 문화요소가 열도 서부지역으로 전파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겠지만, 반도와 열도 두 지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고고학적 편년과 실제 연대와의 대응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片岡씨는 일본에서 출토되는 松菊里型토기(아가리가 완만하게 밖으로 바라진 납작바닥 토기)와 유사한 토기와 그 계통의 토기가 출토되는 岐阜縣 可兒市의 北裏유적부터 四國지역에서 福岡縣 小郡市의 津古土取유적까지의 19개 유적에 대하여 "한반도의 중기 민무늬토기인 松菊里형토기가 그대로 일본으로 전해진 것 또는 도래인이 일본 국내에서 제작한 것, 나아가 松菊里형토기의 제작기술·器形을 모방한 것 등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분류하고 있고(75p), 사람들의 이동, 정착과 그 땅에서의 기술교류를 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武末純一씨는 민무늬토기시대 후기 전반인 水石里식토기가 열도의 九州, 中國, 四國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佐賀縣 小城市 三日月町의 土生유적에서는 항아리, 독, 굽다리접시(高坏)가 彌生토기와도 융합된 사례를 지적하고 있고【武末 1991, 14p】, 片岡씨는 後藤直씨가 먼저 진행한 연구를 계승하여 '후기 전반'의 조선계 민무늬토기를 마가리타(曲がり田)유적(福岡縣 糸島郡 二丈町)과 福岡市 博多區의 諸岡유적, 板付유적, 또 福岡縣 小郡市의 横隈山유적, 佐賀縣 小城市 三日月町의 土生유적 외에도, 熊本 이북에서는 山口縣까지의 23개 유적에서 확인하고, 또 長崎縣 壹岐市의 하루노쓰지(原の辻) 유적 외에, 福岡, 山口縣에서도 9개의 유적을 확인하고 있다【片岡宏二 1999, 95p】. 이 문화를 뒷받침하는 사람의 주거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하고자 한다.

또 武末씨는 민무늬토기시대 후반인 勒島유적에서는 "열도의 彌生중기 초반~전반인 조노코시(城ノ越)(福岡縣 中間市 城ノ越 패총)式토기와 須玖(福岡縣 春日市 須玖) Ⅰ式토기, 또는 그 모습이 비슷한 토기가 상당히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彌生토기가 勒島로 반입되어 "彌生토기와 민무늬토기가 혼연일체가 된 것 같은 토기가"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武末 1991, 14p】.

여기에서 토기 교류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교류의 實相을 고찰하게 된다. 後藤直씨는 "유적의 외부로부터 민무늬토기인에 의해 또는 彌生인의 손을 거쳐 반입되었다고 봐야 한다"【後藤直 2006】, 그리고 "諸岡유적의 민무늬토기는 彌生사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해, 土生유적에서는 彌生취락의 한가운데서 많은 민무늬토기와 擬민무늬토기가 나오고 있다"【後藤, 91p】라는 점에서 "민무늬토기 담당자들은 彌生사회 속에 들어가 거기에 생활터전을 잡고 彌生토기에 가까운 변형된 擬민무늬토기를 만들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북부九州에서 출토되는 조선계 민무늬토기는 한반도남부의 민무늬토기사회와 彌生사회의 교섭을 담당하며 왕래했던 사람들이 남긴 것이며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는 彌生토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지만(92p), 그들이 왕래했던 事情과 목적, 그리고 그들이 彌生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事情은 불분명하다고 한다【後藤, 92p】.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한 규명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片岡宏二씨의 연구【片岡 1999】이다. '도래인 집단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 최초로 발굴된 것은 1974년에 조사된 諸岡유적(福岡市 博多區)이고, 水石里식 민무늬토기 독과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인정된다. 片岡씨는 諸岡유적과 土生유적에서 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여 두 지구에 대한 도래인의 주거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유적에서 출토되는 민무늬토기의 비율을 보면 彌生토기가 다수이기 때문에 도래인 취락만으로 완결되는 넓은 취락이 아니라, '도래인 취락'이란 "도래인이 주거하는 취락이라는 이해에 머무르고", "전통적인 한반도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고"있었고, "彌生사회 속에서는 특수한 존재였다"라고 한정하고 있다.

片岡씨의 분석·정리에 따르자면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이것이 '彌生토기의 영향을 받아 모습을 달리하는 擬조선계 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에 대해서, 현해탄 연안부에 산재한 유적에서는 擬조선계 민무늬토기는 출토되지 않고 또 조선계 민무늬토기도 몇 개정도인 반면, 북부九州 내륙부에 집중된 유적에서는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擬조선계민무늬토기가 항아리, 굽다리접시(高坏)등 각 器種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교역과 우연히 흘러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도래하여 彌生사회 속에서 정착해 살게 된 도래인 집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후자의 예는 <표 3>이지만, 후자에서 대표적인 諸岡유적 타입은 "도래인 집단은 기존의 彌生취락의 일각으로 이주하고 게다가 한정된 시간 내에 생활한 후에 다시 어디론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土生유적 타입은 諸岡유적 타입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彌生취락이 존재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형태로 도래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래인의 거주기간은 장시간이었고 타지로 이동하는 일 없이 彌生인에게 동화되는 마지막까지 그 땅에 정착했다"라고 구분하고 있다【片岡 1999, 103~113p】.

【반도지역에서 출토되는 彌生토기】

반도 남부지역과 열도 서부지역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유물로는 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彌生토기가 있다. 시기가 빠른 사례로는 1934년 金海(金海市 會峴里)패총에서 출토된 독널(甕棺)이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1980년에 慶尙南道 泗川市 勒島유적에서 甕棺 등의 彌生토기가 발굴되었기 때문에【申 1980】, 彌生전기부터 중기에 상당하는, 민무늬토기시대 후기에 상당하는 시대에 이 해역의 상호교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慶尙南道 남부지역의 12개 유적에서 출토된 彌生토기에 대하여 片岡宏二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金海市 池內洞유적에서는 九州 서북부의 彌生토기와 비슷한 토기가 출토, ② 釜山市 溫泉洞유적에서는 '熊本縣을 중심으로 하는 九州중부지방의 특징적인 토기'가 채집되고 있어서, "반도 남부사회가 九州 중부 지역까지 교섭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③ 固城 東外洞유적은 '북부 九州와의 관계'가 주목된다【片岡 1999】.

1985년 이래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④ 勒島유적에서는 주거지 11개 사례, 움집유적 3가지 사례가 검출되었다【申 1980】. 또 片岡씨가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하여 安在晧·徐姈男씨【부산대학교 박물관 1989】는 勒島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彌生시대 전기초반 조노코시(城ノ越)式期'와 '彌生시대 중기 초반, 조노코시(城ノ越)式토기의 늦은 단계'와 '須玖Ⅰ式토기단계'의 3단계에 彌生토기와 병행하고 있다고 이해했다고 한다【片岡 1999, 132p】.

⑤ 釜山市 福泉洞 萊城유적에서는 다수의 彌生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를 조사한 河仁秀씨【河 1990】는 출토된 토기가 북부 九州의 彌生토기와 형식과 표면처리 방법 등에서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고 민무늬토기인이 彌生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민무늬토기가 출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東萊城유적의 彌生토기는 민무늬토기인들이 彌生토기의 영향을 받아 직접 제작했다기보다는 당시 東萊城유적에 거주하고 있던 彌生인들이 직접 제작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다 깊숙이 다루고 열도지역에서 넘어간 渡航人의 존재를 보고 있다.

申敬澈씨와 河仁秀씨는 東萊城유적에서는 '중기 초반 조노코시(城ノ越)式토기부터 중기 전반 須玖Ⅰ式에 걸친 토기'가 동시기에 출토된 토기 중에서 94%나 차지한다고 하는 특이성을 제시하면서, 勒島유적에서는 그 비율이 8%라는 점에서 "勒島유적의 彌生토기는 반입품으로 보이고 東萊城유적의 彌生토기는 교역 또는 대외교섭을 위해 거주했던 彌生인들이 제작한 것"이며, 전자에서는 열도지역과의 장기간에 걸친 교섭이 후자에서는 彌生인의 단기간 거주와 彌生토기제작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했던 열도 서부지역에서의 민무늬토기에서 보이는 도래인의 거주와 대조적인 인적 교류의 동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片岡씨는 勒島유적과 固城 東外洞패총에서는 "유적을 운영하는 주체자가 항해민적인 성격"이라고 상상하고 있고 장기적인 접촉이라는 점에서 "북부 九州와 접촉을 가진 항해민이며 어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지적한다【片岡 1999, 130~148】. 한편 東萊城유적, 金海패총, 池內洞유적에서는 나온 彌生토기는 생활도구와 매장을 위한 甕棺, 제사토기 등 다양한 종류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일한교섭의 기본적인 모습으로서 직접적인 도래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나아가 金海 池內洞유적에서 출토된 제사용 붉은간토기는 壹岐·對馬·糸島지방에 분포하는 것이며, 伊都國에 의한 현해탄을 왕래하는 해상교역이 지적되고 있다. ≪三國志≫ 魏書 倭人傳의 기록에 나오는 '倭人'이 사는 '그 北岸은 狗邪韓國'이라는 海峽圈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기 바로 전 단계이다.

【武末씨의 '海村'설】

武末純一씨는 "漁勞뿐만 아니라 해상교역활동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취락을 '海村'"이라고 정의했다. 반도 남부와 九州 서북부지역 간의 상호 인적이동, 즉 상호간에 바다를 건넜고 또 그 후에 정착한 사례도 있었겠지만 또는 해협을 건너 항해하면서 물자의 상호교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생활상의 個性을 抽出하고 있다【<茶戶里유적과 일본> 국립중앙박물관 ≪茶戶里유적 발굴성과와 과제≫ 2008년 11월, 293쪽】.

그러면서 武末씨는 반도 남부지역에서의 '海村'의 요소를 보여주는 昌原市 茶戶里유적 출토품에서, 반도지역의 원삼국시대에 대응하는 열도의 彌生중기 후반부터 彌生후기에 걸친 반도와 열도의 해협을 건너는 교류를 소개한다.

武末씨에 따르자면 해상교역 활동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海村의 전형적인 예로는 九州 서북부 지역에서는 福岡縣 志摩町의 御床松原유적이 있다. 또 對馬와 壹岐市의 하루노쓰지(原の辻)유적과 同市의 가라카미유적이 있으며, 반도 남부지역에서는 泗川市 勒島유적이 있다. 하루노쓰지유적에서는 도래인 등이 왕래하는 선착장도 발견되고 있다.

御床松原유적과 勒島유적에서는 "아와비오코시 (역주:전복따는 도구)" 등의 어업용 도구가 많이 출토되고 있고, 농경사회임을 상징하는 농기구인 돌칼이 적다는 점에서 '海村'의 생활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두 지역 이내로 한정한다면 일찍이 故 岡崎敬씨가 九州 서북부의 海浜지역에서 발견한 '海人'의 취락이 있다.

이 '海村'의 '海人'이 반도 남부지역과 九州 서북부와 교류했던 생활상을 전하는 유물이 위에서 서술한 토기이며 아래에 소개하는 두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반입된 中國의 銅錢 등이다.

【漢代화폐의 출토】

"海村"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는 반도와 열도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이 지역 외의 문물인 中國 漢代의 유물이 있는데, 그 중 화폐는 연대 폭을 좁힐 수 있어

서 유적의 실제 연대의 종합적인 판정에 유효하다.

우선 반도지역에서는 李榮勳씨【李 1991】와 金京七씨가 정리한 바에 따르자면【金 2007】, BC2~1세기부터 기원 전후에는 昌原市 茶戶里유적에서는 五銖錢(前漢 武帝 元狩4년〔BC119〕, 직경 1寸〔2.6㎝〕, 무게는 5銖〔3.25g〕인 円形方孔錢)이 3점, 昌原市 城山패총에서는 同 1점, 勒島에서는 同1점과 半兩錢(秦의 半兩錢은 12銖〔8g〕, 漢代의 半兩錢은 高后〔BC186〕半兩은 무게가 8銖〔5.3g〕, 武帝〔BC120〕의 半兩錢은 2.7g, 半兩이라고 陽鑄한 円形方孔錢) 4점, 永川市 古鏡面의 龍田里에서는 五銖錢 3점이 출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도 참조).

한편 열도지역에서는 高倉洋彰씨【高倉 1991】와 岡部裕俊·比佐陽一郎·片多雅樹씨가 2004년8월 단계에서 정리【岡部外 2004】한 바에 의하면, 御床松原유적에서는 貨泉 3점, 半兩錢 1점이, 新町유적(福岡縣 糸島郡 志摩町)에서는 貨泉 1점, 半兩錢 1점, 근처인 前原市 上鑵子유적과 同市의 三坂七尾유적에서는 모두 貨泉이 1점, 그리고 壹岐市 하루노쓰지유적에서는 貨泉 10점, 對馬市 시게노단유적(豊玉町 佐保)에서는 貨泉 1점, 또 鳥取市 靑谷町의 靑谷上寺地유적에서는 貨泉 4점이 출토되었다. 또 御床松原유적에서 가까운 福岡市 西區의 元岡유적에서는 五銖錢이 1점, 貨泉이 8점 출토되었다【武末 2002, 297p】.

또 小田富士雄씨에 의해 江戶시대에 山口縣 宇部市 오키노야마(沖ノ山)에서 半兩錢 20점, 五銖錢 96점, 파편이 19개 출토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小田 1992】. 또 北九州 小倉南區 守垣유적에서는 五銖錢 1점이 출토되었다. 한국에서도 다량으로 銅錢이 출토된 예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반도지역에서의 漢代화폐 출토사례로는 기원후 1~3세기에는 全羅南道 海南 郡谷里패총(1세기 중반)에서 貨泉(新나라 王莽때의 円形方孔錢으로, '貨泉'이라는 2글자를 陽鑄. AD14년에 처음으로 주조, 1寸〔2.25㎝〕, 무게는 5銖〔3.19g〕, 後漢의 光武帝 때인 建武16년 〔AD40년〕에 前漢의 五銖錢이 부활되었지만, 貨泉은 私鑄되었다), 또 慶尙南道 麗水市의 巨文島에서는 五銖錢이 980점, 慶尙南道 金海市 會峴洞패총에서는 貨泉 1점, 慶尙北道 慶山市 林堂洞유적에서는 五銖錢 3점, 濟州島 山地港에서는 五銖錢 4점, 貨泉 11점, 大泉五十(新나라 王莽代의 円形方孔錢으로 大泉五十이라고 陽鑄되어 있음. AD7년부터 14년까지 주조됨)이 2점, 貨布(新나라 王莽이 AD14년에 처음으로 주조, 20년에 재주조, 方肩方足 형태로 상부에 원형의 구멍, 길이는 5.8㎝, 폭은 2.4㎝, 무게12g) 1점, 濟州島 北濟州郡 終達里패총(섬의 동북부)에서는 貨泉 1점, 濟州島 서북부의 錦城里 주거지유적에서는 貨泉 2점이 출토되었다.

3세기 말에 편찬된 ≪三國志≫ 卷30 <魏書> 韓傳은 濟州島의 풍습을 기록하면서 "乘船往來, 市買韓中"라고 했고, ≪後漢書≫ 卷85의 韓에도 "乘船往來, 貨市韓中"라고 나와 있어서 濟州島의 '海村'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반도 남부지역의 '韓'에 왕래하고 있었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志≫ 卷30 倭人傳에도 "對馬國 … 無良田, 食海物自活, 乘船南北市糴" "一大(支)國 … 差有田地, 耕田猶不足食, 亦南北市糴"라는 기록이 있어서 九州 서북부지역의 對馬國과 一支國의 주민들은 반도지역으로 건너가 곡물을 매입하여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었다. 여기에 故 岡崎敬씨가 표현했던 북부 九州해역 '海人'이 해상으로 왕래하던 생활상이 있고 이 '海人'의 생활상은 반도남부의 多島海에서도 표현되는 것이며 그 기반은 武末씨가 표현한 '海村'이다. 武末씨는 이것을 정리하여 "彌生시대 중기에는 한반도 남부의 海村과 서일본(특히 북부 九州) 海村 사이에는 상호 왕래하는 海村의 독자적인 세계가 구축되었다"고 보고 있다.

王莽이 치세하던 시기에 "民私以五銖錢市買"(民이 사적으로 五銖錢으로 시장에서 사고판다)(≪漢書≫ 卷24下·食貨下)라는 기록이 있어서, 前漢 武帝 元狩 5년(BC 118년)에 주조된 五銖錢이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 五銖錢 외에도 漢의 銅錢이 반도남부와 九州서부의 '海村'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이는 두 지역의 왕래와 경제교류를 제1차적으로 또 그 內地部로 이어지는 2차적인 교류를 설명하고 있다.

3. 금속기의 교류

청동기 제조는 서아시아에서는 일찍이 B.C 3000경에 시작되어 동아시아의 중국에서는 B.C 2000년대 초에는 제조가 시작된다고 한다【田中琢·佐原眞 ≪日本考古學事典≫ 三省堂, 2003년 2월】. 銅·주석·납을 첨가한 청동기가 무기와 祭器로서의 능력과 그 형태·장식·중량 등이 표현하는 장엄성에서 나오는 가치가 위신을 상징하는 이 청동기문화가 극동의 반도와 열도지역으로 전파된 '海域圈' 교류의 역사를 정리해 보자.

그런데 金貞培씨는 덴마크의 Christian Jurgensen Thomsen이 ≪北方古文物入門(Ledetraad til Nordisk Oldkyndiighed)≫ (코펜하겐, 1836년) 에서 설명하고 있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3구분법을 비판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의 특징으로 시기구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金 1979】, 이 3가지 도구가 사회경제를 진전시켜서 부족사회에

서 국가사회로 진전시켰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또 西谷正씨는 반도지역의 역사구분론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토기의 특색을 중시하여 '구석기시대 / 빗살무늬토기시대 / 민무늬토기시대 / 원삼국시대 / 삼국시대'라는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西谷 1982】.

따라서 청동기의 교류, 그 시초는 반도지역에서 열도지역으로의 전파이지만 결국은 열도지역에서 반도지역으로 건너가기도 한다.

【청동기·銅鏡의 왕래·교환】

岩永省三씨가 정리【岩永 1991】한 바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열도로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彌生시대 전기 말에서 중기 초반에 걸쳐서이고", 그 器種은 "세형동검·세형동모·세형동과·다뉴세문경·銅鉇"라고 한다. 그리고 열도지역에서는 반도지역의 청동기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세형동검·동모가 제조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제작한 것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도래한 鑄造工人이라는 점" "제작을 의뢰한 것이 彌生人사회였다고 해도 당초에는 주조장인의 제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彌生人의 취향을 강제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고찰하고 있다(117p).

그러나 中細形銅劍 등 열도 독자적인 청동기가 출현하는 배경에 대해서 岩永씨는 "彌生시대 전기 말~중기 초반에 걸쳐 민무늬토기 문화인집단이 일정 정도의 인원수로 도래한 것은 틀림없겠지만", "그들은 아마도 후속 도래자가 끊어졌거나 급감했기 때문에 주변의 彌生人집단과 급속하게 동화되어 갔는데" 그 기술을 계승한 彌生人들도 반도지역의 무기인 청동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여 "열도인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열도지역에서 반도지역으로 건너간 청동기 중에도 각종 利器와 青銅鏡이 있는데 小田富士雄씨와 武末純一씨가 정리한 통람【小田·武末1991】에 의하면 반도지역에서 출토된 열도지역에서 제작된 青銅利器는 일찍이 1917년에 鳥居龍藏에 의해 ①'(傳)慶尙南道 金海에서 발견된 中廣銅矛'가 알려져 있다. 그리고 釜山市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②'(傳)慶尙南道 金海市 明法洞에서 출토된 廣形銅矛', ③'慶尙南道 固城(東外洞)패총에서 출토된 廣形銅矛', ④'慶尙南道 金海郡 酒村面 良洞里에서 출토된 変形細形銅劍·異形中細形銅矛', ⑤'慶尙北道 大邱市 晩村洞에서 출토된 中廣形銅戈', ⑥'(傳)江

原道에서 발견된 中廣形銅戈'를 열거하고 있다. 단 小田富士雄·武末純一씨는 "청동무기에 있어서 中細形式을 북부 九州産이라고 결론짓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만, 中廣形·廣形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서 제작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북부 九州産이라고 결론지어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듯이 ④의 '変形細形銅劍'은 對馬市의 佐保 시게노단유적 이외에 對馬市 上縣町 白岳유적, 福岡縣 三潴町 塚崎유적, 佐賀縣 요시노가리(吉野ヶ里)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어서, "한국에서의 북부 九州産 靑銅利器의 분포는 경상남도 김해시 부근과 경상북도 대구시 부근으로 집약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 岩永씨【岩永 1991】는 이에 덧붙여 "慶尙北道 九政里 및 竹東里 출토 細形銅戈는 福岡縣 須玖岡本 13호 독널과 福岡縣 水城 출토 細形銅戈와 同型式"이라는 예를 소개한다.

【銅鏡의 교류】

銅鏡의 교류로는 前漢의 日光鏡을 모방한 小銅鏡(韓鏡)이 慶尙北道 永川郡 琴湖邑 魚隱洞유적과 大邱廣域市 西區 坪里洞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전자에서는 韓鏡 12面(渦文鏡 11面, 八乳放射線文鏡 1面)이, 후자에서는 韓鏡 5面(渦文鏡 4面, 放射線文鏡 1面)과 四乳虺龍文鏡 1面이 漢鏡과 함께 출토되었다【小田 1982】.

이 원삼국시대의 小銅鏡은 초기에는 테두리가 5㎝로 얇았다가 7㎝이상으로 변화하는데, 魚隱洞유적에서 나온 渦文鏡 4面과 같은 본을 사용해 만든 同笵鏡이 佐賀縣 三養基郡 上峰町 二塚山 46호 독널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彌生 "후기 초반에 북부 九州에 전해진 '韓鏡'은 이윽고 韓鏡을 모델로 하는 북부 九州에서의 彌生시대 小型仿製鏡(倭鏡) 제작을 개시하고 있지만"【高倉 1991】 한편 반도지역에서 출토되는 倭鏡은 ①부산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傳) 慶尙南道 咸安郡 伽倻邑 沙內里鏡', ②'濟州島 濟州市 健入洞鏡(山地港鏡)'과 ③한국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菊隱李養璿蒐集문화재자료의 4面(1面은〔傳〕慶尙南道 金海郡 酒村面 良洞里, 3面은 출토지 미상)까지 합하여 모두 6面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 중에서는 ③의 출토지가 미상인 3面은 북부 九州의 佐賀縣 礫石鏡과 同縣 白石鏡, 또 福岡縣 本庄鏡, 山鹿 1호土壙墓鏡, 同縣 가메노코(龜ノ甲)鏡, 鹿兒島 縣外川江鏡 등에도 面徑이 7~10㎝ 등 뒷면 문양의 각 요소의 구성이 같고, ①과 ③의 5面은 "銅質을 봐도 日本産 小型仿製鏡이라고 해도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토되고 있는 小型仿製鏡(倭鏡)은 모두 …(중략) …九州

의 彌生시대 후기 중반 경부터 후반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고 "한반도의 남해안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것 같다"【小田·武末 1991,159p】라고 한다.

上野祥史씨는 한반도 남부의 3세기에서 7세기에 걸친 유적에서 출토되는 鏡은 21건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유적연대 4세기의 慶尙南道 金海郡 酒村面 良洞里 441호 고분에서 출토된 方格T字鏡은 "倭에서 鏡의 배포주체인 畿內세력으로부터의 직접 유입과 그 배포를 받은 倭세력을 통한 2차원적인 유입이 상정되며", 그 중 전자에서는 "倭로부터 鏡의 논리와 가치체계가 함께 유입되는 것과 그 논리와 가치체계와 분리되어 유입되는 것" 모두 3가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上野 2004, 414p】. 이 3가지 가능성 속에서 반도 남부지역에 유입된 倭鏡은 이 외에도 慶南·昌原市 三原洞 18호 옹관묘에서 출토된 內行花文倭鏡, 慶北·慶州市 皇南里에서 출토된 捩紋鏡을 들 수 있고, 이 3鏡 모두 4세기, 4세기 후반에 제작된 鏡과 유적이라는데, 반도 남부지역과 열도의 倭와의 지역 간 교류의 증거이다.

【반도지역에서의 철·철기의 생산과 유통】

한반도의 철기의 기원에 대하여 村上恭通씨【村上 2008】는, 그 最古는 "平安北道(渭原郡) 龍淵洞 적석총 출토품이며 다름 아닌 戰國시대 후기 燕國産 철기이며", 중국에서는 '钁'(역주: 괭이)라고 부르는 농기구(鐵斧)의 칼끝으로 보이는 것이다【村上 2008, 151p】라고 한다. 그 연대는 약 기원전 3세기라고 한다【李南珪 2001】. ≪史記≫ 卷69·貨殖列傳에는 "夫燕 … 北隣烏桓夫余, 東綰穢貉朝鮮眞番之利"라고 나와서 燕과 '朝鮮' 간의 경제교류가 번성했었다는 사실은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 반도지역 중서부지역에서는 忠淸南道 扶餘郡 合松里, 全羅北道 長水郡 南陽里, 忠淸南道 唐津郡 素素里에서는 '钁'과 鑿(역주:끌)이 세트로 부장되어 있고, '钁'은 双合笵이어서, 燕의 제철기술과 반도지역에 존재하던 청동기 주조기술이 복합되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하면서, 반도지역에서 생산기술이 변모한 흔적을 지적하고 있다【村上 2008, 152p】. 그 연대는 "기원전 4세기 후반경이 상한이 될 것이다"라고 春成씨는 村上論을 정리하여【春成2008, 160p】, 철문화의 시작 상한을 올릴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도 남부의 철문화의 事情을 고고학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관찰해 보고자 한다.

인접한 중국 戰國의 燕으로부터 유입된 주조철기와 그 기술이 반도지역에서 변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東潮씨에 의하면 반도에서 철기가 처음 보이는 예로는 "북부지

역에서는 咸鏡北道 會寧郡 五洞, 咸鏡北道 茂山郡 虎谷洞 등 기원전 5~4세기로 戰國시대(燕)와 병행하는 시기이다. 남부지역에서는 南陽里(全羅北道 長水)·合松里(忠淸南道 扶餘)에서 기원전 3~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東 1999, 16p】라고 한다.

李南珪씨는 반도지역의 초기(철기 사용개시부터 삼국시대 직전까지)철문화의 시간차와 지역차라는 점에 대하여 '①淸川江 이북지역 ②豆滿江유역 ③大同江·載寧江유역 ④漢江유역 ⑤洛東江유역 ⑥그 외의 지역'으로 모두 6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李南珪 1991】.

또 東潮씨【東 1999】는 '동북아시아 諸지역의 철'의 事情과 출토유물을 함께 정리하고 반도북부의 '樂浪郡, 玄菟郡과 遼東郡', '부여', '변한', '진한', '마한' 5지역으로 철기문화의 다양성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반도지역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서북부, 동북부, 동남부, 남서부에서는 철의 문화는 다양하며 또 각 지역도 세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반도지역의 지역적이면서 다양한 철문화 속에서, 반도와 열도 지역에 있어서의 철문화 교류와 큰 관계가 있는 樂浪지역의 철기에 대하여 東씨는 '漢系統'과 '非漢系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이 철문화는 "삼한·倭의 철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 즉 樂浪지역의 철기 생산과 남부로의 보급은 양방향이라는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東씨는 平安南道 龍岡郡 葛峴里 甲墳과 咸鏡南道 金野郡의 所羅里 토성에서 출토된 '납작도끼(板狀鐵斧)'는 "변한지역에서 공급된 '철'일 것"이라고 설명한다(23p). ≪三國志≫ 弁辰傳 "國出鐵, 韓, 濊, 倭皆從取之"의 기록에 부합되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樂浪郡에서 남부의 변한지역으로 전해진 문물에는 銅鏡, 貨錢(상술), 漆器, 鐵鼎, 銅鍑(金海 大成洞 29·47호 고분), 鐵鋌 등이 알려져 있는데【東 '無文土器·原三國時代の鐵器出土地地名表', 441p】, 최근에는 慶尙南道 茶戶里(昌原市 東邑)유적의 문화가 樂浪문화와의 연결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國立中央博物館 2008】.

前漢의 鏡과 五銖錢, 筆의 출토는 반도 남부지역, 武末씨의 제안하는 海村과 樂浪郡과의 통교를, 나아가 북부九州産 銅矛의 출토는 倭지역과의 교류를 상기시킨다【李健茂 1992, 井上主稅 2008】.

東씨가 정리하고 있는 변한, 진한, 마한지역에 해당하는 鐵鋌을 매장하는 유적은 慶尙北道에 42고분(高靈郡 池山洞고분군 외), 慶尙南道에서는 61고분(釜山廣域市 福泉洞고분군 외), 全羅南北道에서는 9고분(靈光郡 禾坪里 下花B호 고분 외), 忠淸南北道에서는 5고분(中原郡 樓岩里1호 고분 외)을 열거하고 있고 방대한 양의 鐵鋌이 출토되고 있다

【東 '鐵鋌出土地地名表' 453p】.

茶戶里의 철이 상징하는 사회에 대하여 村上恭通씨【村上 1998】는 茶戶里유적 분묘군은 BC1세기 후반에서 AD2세기 전반까지의 유적인데 "茶戶里 분묘군 시대에는 세형동검이 약간 남아 있을 뿐이어서 그 대부분이 철로 전환되었다는 상황을 간파할 수 있다"【村上 1998, 27~28p】 "대량의 철기를 이 시기부터 부장하고 있었던 사실을 같이 고려해 보면 철기의 소유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威信財로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며 바야흐로 변한·진한의 철이 선진지대인 樂浪에는 공급되었지만 남부에서는 威信財의 단계였던 것이다. 철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를 표현하는 단계는 '철은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의 초기이다. 철이 보급되어 首長의 小國家 통합이 진행되는 단계는 3~4세기의 交代期 즈음에 그 계기가 보인다.

村上恭通씨는 313년에 樂浪郡, 다음 해인 314년에 帶方郡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 그 통치기구가 붕괴되자 변·진한은 이 2郡에 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변·진한에서 철과 철기생산의 독자적인 발달을 촉진시켰다고 정리하고 있다【村上 1998, 28p】. 그 구체적인 예는 金海市 良銅里 고분군과 金海市 大成洞 고분군 출토품 중 武具와 馬具에서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열도에서의 철·철기의 생산과 유통】

그럼 일본열도에서는 철기의 사용과 생산이 어떻게 시작되고 보급된 것일까? 潮見浩씨가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자.

우선 일본에서 '철기의 사용은 彌生시대부터'라는데 이는 일찍이 1937년에 조사된 奈良縣 磯城郡 田原本町의 唐古유적에서 출토된 '녹각으로 만든 손칼자루(鹿角製刀子柄) 속에서 鐵銹'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철기는 彌生시대 전기부터 존재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고 그 "철기의 보급은 상당히 후의 일이지만" "청동기보다도 오래 전 시기부터 존재했고 彌生문화의 성립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주목받았지만【潮見 1979, 1982】, 열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철기는 福岡縣 糸島郡 二丈町 石崎의 마가리타(曲がり田)유적에서 출토된 鐵片이며 이 유물은 繩文시대의 종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潮見 1986】.

또 1955년에 조사된 熊本縣 玉名郡 天水町의 齊藤山패총에서 출토된 철기(칼날 부근의 파편이고 중국 戰國~前漢의 자귀(手斧)와 통한다)가 '彌生시대 초반'의 철기에 추가

되어 있다. 또 같은 종류의 철기가 同縣 鹿本郡 植木町의 轟유적에서 출토되고 있고 쇠도끼(鐵斧)로 추정된다.

潮見씨는 이러한 열도의 最初期 철기에 대해 판단하여 "한반도 남부로부터 우리나라에 철 소재가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 의존하여 우리나라의 철기가 개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으로는 곤란한 듯 보인다"【潮見 1979, 58p】라고 한다.

초기에 속하는 철기의 製法이 단조인지 주조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 문제인데 반도지역에는 樂浪郡의 설치를 계기로 단조철기가 보급된다【東 1999, 118p】. 이 외에도 彌生시대 전기의 철기에는 鹿兒島縣 日置郡 金峰町의 高橋패총에서 鐵片 2, 山口縣 下關市의 綾羅木鄕유적에서 쇠손칼(鐵刀子) 1, 鐵鉇(역주:고대의 대패) 1, 廣島市의 中山패총에서 鐵片 2, 兵庫縣 明石市의 吉田패총에서 鐵片 4, 大阪府 堺市의 요쓰이케(四ッ池)유적에서 쇠손칼(鐵刀子) 1 등 加工具와 절삭용으로 사용되었던 철기인 공구가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彌生시대의 철기 중에서는 長崎縣 壹岐市의 두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주목받고 있다. 長崎縣 壹岐市 芦辺町의 하루노쓰지유적은 彌生 중기층에서는 석기와 철기가, 후기층에서는 철기만이 출토되고 있어서 '彌生시대의 생산용구가 석제용구에서 철제용구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노쓰지유적과 壹岐市 勝本의 唐神유적에서 출토된 손칼(刀子), 자귀(手斧), 鐵鉇 등의 공구류, 鋤先·鍬先·낫(鎌) 등의 농기구류, 화살촉(鏃), 작살(銛), 낚싯바늘 등의 수렵, 어로용구 등에 철기가 사용되고 있어서 彌生후기부터 철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열도서부에 철기가 보급된 것이 확인되는 배경으로, 소재인 철의 생산이 개시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이입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새로운 과제이다.

壹岐市의 두 유적에서 출토된 5~20㎝정도의 棒狀·板狀의 철에 주목하여, 岡崎敬씨는 이를 철기의 소재라고 판단하여 ≪魏志≫ 韓傳의 '韓와 濊와 倭'가 변한, 진한의 철을 구한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岡崎 1957】. 그리고 潮見浩씨는 福岡縣 飯塚市 立岩 10, 28, 34, 35, 39호 고분 등에서는 前漢鏡과 함께 철제무기가 출토되고 福岡縣 前原市 鑓溝유적, 佐賀縣 唐津市 櫻馬場유적, 佐賀縣 神崎郡 東背振村의 三津永田유적에서는 後漢鏡과 함께 철제무기가 출토되고 있다. 前漢鏡의 건너온 사정에는 漢四郡의 설치가 촉진시킨 九州지역 족장과 중국과의 교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漢書≫ 卷28下·地理志·燕地條 "樂浪海中有倭人, 分爲百餘國, 以歲時來獻見云")

橋口達也씨【橋口 1970】에 따르면 중국에서 철제무기가 보급된 것은 前漢 후반부터

이고, 열도서부지역에서 前漢鏡과 함께 철제무기가 출현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기원 1세기 전반경"이어서, "초기의 철제무기는 중국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럼 '철의 생산'에 대해 살펴보자. 철기생산 개시시기와 철기보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 배후로서 철의 생산개시를 추정한다면, 철기의 생산은 九州에서는 전기 말이나 중기 전반, 九州以東에서는 중기 후반이다. 그리고 철기의 보급은 중기와 후기의 교차시기이므로 "철의 생산은 전기 말 혹은 중기 전반에 우선 九州에서 개시되어 九州 以東지역에서는 중기 후반이 된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후기 이후"【潮見 1979, 58p】라고 할 수 있다고 潮見은 정리한다.

宣石悅씨는 철의 교역에 있어서 對馬國과 一支國, 즉 對馬와 壹岐가 반도와 열도지역 간에 '南北에 市糴'(≪三國志≫ 魏書·東夷傳·倭人條)을 하는 중계적 역할을 평가한다. 아마도 해산물과 납작도끼(板狀鐵斧), 덩이쇠(鐵鋌)를 교환하고 또 열도지역에는 후자와 쌀, 진주, 목재 등의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宣 2004, 140p】.

【열도 서부지역의 철 사정】

≪日本書紀≫ 卷9의 氣長足姬尊(神功皇后) 攝政52年 秋9月 丁卯朔丙子條에 "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 則獻七枝刀一口, 七子鏡一面及種種重寶.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当飮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372년에 상당한다. 이렇게 漢江 상류로 추정되는 谷那鐵山(江原道 鐵原이나 黃海道 谷山郡)에서 채굴한 철을 倭國으로 보낸다고 하는 傳承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칠지도는 분명히 奈良縣 天理市의 石上神宮에 소장되어 있는 '七支刀'로 보이는데, 그 뒷면의 명문에는 백제인에 의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선사 이래로 이와 같은 칼은 아직 없었다. 백제의 왕세자가 왜왕을 위해서 만든('先世' '以來' '未' '有' '此' '刀' '百濟' '王世子' '倭王' '爲' '造') " 철검이다. 백제가 왜에게 철제품을 보낸 구체적인 사례이다.

東씨는 <고대동아시아에서의 철의 생산과 유통(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鐵の生産と流通)>【東 1999】에서 3세기 후반의 반도와 열도의 정치사회를 기록한 ≪三國志≫ 魏書 韓傳에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라고 나오고, 또 ≪後漢書≫ 卷85 東夷·韓傳에도 "國出鐵. 濊倭馬韓並從市之. 凡諸貿易皆以鐵爲貨"라고 나오고, ≪三國志≫ 魏書 倭人傳에는 "對馬國 … 乘船南北市糴" "一大國 … 亦南北市糴"라고 나오며, 또 同韓傳에는 제주도 사회를 "乘船往來市買中韓"라며 해협을 왕래하는 경

제활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東씨가 정리한 바에 따르자면 "彌生·고분시대의 주조철기는 한반도에서 온 舶載品으로 보이며 각각의 유형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東씨는 熊本 齊藤山유적에서 나온 쇠도끼(鐵斧)는 慈江道 渭原龍淵洞출토 쇠도끼(鐵斧)와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한다【東 1999】.

단 彌生·고분시대유적에서 출토된 제철 슬래그(鐵滓)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상황으로는 열도지역의 제철 개시는 5세기 중반쯤으로 보이고【關 2008】, 또 "한국보다 500년 정도 늦게" "고분시대 후기인 6세기 중반에는 서일본 일부 지역에 제철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穴澤 2004】. 그 이전에는 <魏志弁辰傳>의 기술대로 반도지역에서 철 소재가 반입되어 제품화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4. 주거의 교류

彌生시대에 반도지역과 열도지역 간에 서로 도래하는 사람, 渡航하는 사람들 또 渡來·渡航地에 정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수량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반도지역에서 열도지역으로 도래하여 정착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 반대 경우의 숫자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집자리과 고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의 경제성장에 의해 각지에서 주택건축과 도로의 건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집자리을 포함하는 취락유적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中村 2001】.

집자리의 대표적인 예는 ≪東アジア考古學辭典≫ 【西谷正編 2007, 東京堂出版】등에 따르자면 아래의 유적들이 있다.

①東川洞유적(大邱廣域市 北區)은 92, 93년에 경북대학교가 조사, 삼국시대의 집자리.
②大坪里유적(慶尙南道 晋州市 大坪面) 97년에 경남대학교박물관이 조사, 자연제방 정상부에 움집터(竪穴住居跡) 12기가 발굴됨.
③漢沙洞(京畿道 河南市)에서는 숭실대학교 등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움집터(竪穴住居跡) 38기, 저장구덩이(貯藏穴) 34기 등이 발견되었다.
④泉田里(江原道 春川市 新北面), 長川里(全羅南道 靈岩郡 西湖面)에서는 84~86년에

목포대학교박물관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움집터(竪穴住居跡) 11기가 발견되었다.

⑤默谷里유적(慶尙南道 山淸郡 山淸邑)

⑥大坪里 玉房유적(慶尙南道 晋州市 大坪面)에서는 자연제방을 이용하고 있고, 움집터(竪穴住居跡), 1지구에서는 2중의 환호(環壕, 폭2m, 깊이1m)가 조사되었다. 목책(木柵), 60여기의 주거지, 2지구에서는 30여 주거지, 3지구에서는 10여기의 움집터, 4지구에서는 1~2중의 환호, 60여기의 집자리(세로 4m정도, 폭 3m, 깊이는 20~80㎝), 5지구 500여 집자리는 休岩里式이 주이다. 6지구는 경작지이고 7지구는 2중의 환호와 20여 집자리, 8지구는 집자리, 9지구는 10여개 집자리가 발굴되었다.

⑦梨琴洞(慶尙南道 泗川市)에서는 집자리 22기와 고인돌(支石墓), 돌널무덤(石棺墓), 돌뚜껑움무덤(石蓋土壙墓)이 발굴되었고, 松菊里型집자리와 松菊里型 甕棺이 확인되고 있다.

⑧檢丹里유적(慶尙南道 蔚山廣域市 蔚州區 熊村面)은 본격적인 청동기시대의 유적, 독립된 산의 능선 중앙부인 해발 206.4m의 고지대로부터 서쪽으로 뻗어간 낮은 구릉에 위치함. 88년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함. 298m의 타원형 環壕가 하나 발견됨, 단면은 V, U자형이고 깊이가 1.5m, 넓이는 2m정도, 내부에는 움집터(竪穴住居跡) 42기, 굴립주건물이 1기, 외부에 50기의 움집터(竪穴住居跡), 고인돌(支石墓) 3기 등이 발굴되었다. 유적은 長徑이 118m, 短徑이 70m, 내부 면적은 6000㎡이다【≪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년 12월】.

⑨川上里유적(慶尙南道 蔚山廣域市 蔚州郡 凡西面) 96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조사. 움집터(竪穴住居跡).

⑩松菊里유적(忠淸南道 扶余郡 草村面)은 낮은 구릉지에 소재하는 민무늬토기시대(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유적이다. 1974년 이래 1997년까지 순차적으로 국립중앙·부여박물관이 조사한 결과, 유적의 면적은 30ha~61ha의 넓은 범위이고 움집터(竪穴住居址)가 42기 확인되고 있다. 자루형태의 수혈식저장구덩이(竪穴式貯藏穴)에서는 탄화된 자포니카 계통 쌀이 출토되었다. 총연장 470m의 木柵列과 環壕, 상자돌널무덤(箱式石棺墓), 소형독널무덤(小型甕棺墓)이 있고, 遼寧式銅劍, 간돌검(磨製石劍), 민무늬토기, 토기가마터(土器窯跡) 등 민무늬토기시대의 문화를 전하고 있다. 목책 기둥은 직경이 20~60m, 기둥간 간격은 1.8m이다. 민무늬토기는 아가리가 밖으로 바라진 松菊里토기, 붉은토기(丹塗土器)도 출토되고 있다.

⑪麻田里(忠淸南道 論山市 練武邑)에서는 민무늬토기시대의 집자리 4기가 발굴되었다.

⑫無去洞 玉峴유적(慶尙南道 蔚山廣域市 南區), 98~99년에 경남대학교박물관, 밀양대학교박물관이 조사. 해발 35m의 평탄한 구릉과 그 아래의 평지에 주거지와 수전터가 발견됨. 주거지는 장방형(8, 0~9, 0×5, 0m가 최대)과 방형(5.0m이내)이 주류임. 기둥구멍은 장방형주거에서는 3~5개가 2~3열로 배치되어 있다. 방형에서는 주로 2개가 2열로 되어 있다. 구멍 2개가 1열인 것과 기둥구멍이 없는 것도 있다. 구멍무늬(孔列文)와 짧은 빗금무늬(短斜線)민무늬토기, 간돌검(磨製石劍), 돌화살촉(石鏃), 반달돌칼(半月形石刀), 가락바퀴(紡錘車) 등이 출토되었다. 수전터와 움집터가 54여기 발견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고고학사전≫ 2001】.

⑬勒島유적(慶尙南道 泗川市) 85~86년에 부산대학교박물관이 조사로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철기시대(BC2세기 중엽~BC1세기 전반)의 유적이고, 패총, 주거지11, 須玖Ⅰ式 彌生토기, 墳墓, 46ha(≪한국고고학사전≫)를 발굴하고 있다【沈奉謹·金宰賢 2001】.

이들 가운데 교류라는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松菊里유적과 그 토기이다. 松菊里式토기는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몸통이 계란모양으로 부풀어 있고 아가리는 밖으로 바라져 있다. 20~40㎝의 규모가 많고 높이는 10㎝정도에서 80㎝나 되는 것도 있다. BC6~5세기경에 나타난 토기라고 정리될 수 있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01】.

그리고 그 松菊里型 주거란 竪穴의 중앙부에 타원형의 구덩이와 함께 2개의 기둥구멍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扶余의 松菊里, 瑞山의 休岩里, 靈岩 長川里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 서남부에 분포하고 있지만, 동남내륙부의 黃江, 南江 일대, 大邱, 慶州, 蔚州, 梁山 등부터 반도 중서부에서는 安城川유역, 忠淸, 全羅 일대에서 넓게 발굴되고 있다【端野 2008】. 그리고 濟州島, 일본의 九州지방에도 有溝莖式 琵琶型銅劍의 분포와 겹치면서 확인된다. 내부 중앙의 타원형의 구덩이 속에 기둥구멍이 있는 것은 休岩里型 주거지, 구덩이 외부에 기둥구멍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檢丹里型 주거지로 분류되지만, 타원형의 구덩이 주변에 기둥구멍이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타원형의 구덩이 외곽에 4개의 보조적 기둥구멍이 배치된 대형주거지도 있다. 이 구덩이는 초기에는 석기를 제조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생각되었지만 나중에는 저장용 등 다양화한다고 이해되고 있다【≪한국고고학사전≫】.

그런데 열도지역 가운데 반도지역에서 도항·도래해 오는 배는 우선 북부 九州로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약간 내륙부로 나아간다. 後藤直씨는 福岡市 博多區에 소재한 諸岡유

적의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그곳에서 후기민무늬토기시대 전반의 조선계 민무늬토기가 다량으로 발굴되고 있고, 彌生사회에 일시적으로 도래하여 彌生사회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결국에는 반도로 귀환한 사람들을 찾아냈다【後藤直 1979】.

그리고 片岡宏二씨는 열도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松菊里型토기를 정리하여 반도지역에서 열도지역으로 반입된 것, 또 도래인이 열도지역에서 제작한 것, 그리고 열도지역에서 이것을 모방한 것이 오늘날 출토되고 있다고 정리하고 '일본에서 출토되는 松菊里型토기 및 그와 관련된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奈良縣에서 長崎縣까지 모두 19유적에서 확인하고 또 열도 서부지역 각지에서 민무늬토기를 확인하고 있다【片岡 1999】.

그래서 片岡씨는 열도 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그것이 彌生토기와 융합된 擬조선계 민무늬토기를 정리하여 도래인이 주거하는 취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형태를 분류하고 있다.

片岡씨는 우선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擬조선계 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취락유적을 현해탄 연안부에 산재해 있는 타입(島嶼분산 타입)과 북부 九州의 내륙부에 집중되는 타입(내륙집중 타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擬조선계 민무늬토기는 출토되지 않고 조선계 민무늬토기의 출토도 몇 개정도에 불과해서, 소규모 교역과 우연히 흘러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한 유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선착장 유적이 발견된 長崎縣 壹岐市의 하루노쓰지유적과 福岡縣의 마가리타유적, 같은 현의 御床松原유적 등이 있어, 이를 島嶼 타입이라고 명명하였다. 후자에서는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擬조선계 민무늬토기가 독, 항아리, 굽다리접시(高坏) 등 각 器種 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彌生사회에서 자리 잡고 살던 도래인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福岡市 博多區의 유적과 연관시켜서 '諸岡 타입', 또 佐賀縣 小城市 土生유적과 연관시켜서 '土生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4> 참조】.

'諸岡 타입'이란 "彌生시대 전기 말 기간 중에 운영되었고 그 단계에서 조선계 민무늬토기와의 共伴을 끝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유적에서는 취락 자체가 전기 말 전후 시기까지 선행·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래집단은 기존의 彌生취락의 일각으로 이주하였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생활한 후 다시 어디론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後藤直씨의 견해를 계승하여 조선계 민무늬토기는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래인의 생활영역은 彌生취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정리하고 있다【片岡宏二 1999】.

한편 '土生 타입'은 彌生시대 전기 말부터 출현하지만 주체는 중기 초반부터 전반에

걸친 유적이다. 土生유적에서는 擬조선계 민무늬토기가 골고루 출토되고 있어서 "土生타입 도래인의 주거기간은 장시간이며 타지로 이동하는 일 없이 彌生人에게 동화되어 마지막까지 그 땅에 정착하여", 집단으로서 彌生취락 내의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독자적이면서 완결에 가까운 취락구성을 만들고 있었고 결국에는 彌生人에게 동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片岡 1993, 1999, 108p】.

최근 주목받고 있는 渡航에 대한 것은 慶尙南道 泗川市 勒島【부산대학교 박물관 1989, 沈·金 2001】와 釜山市 東萊區 東萊城유적 외에 반도 남부지역에서 彌生土器系 토기가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河 1990, 申·河 1991】. 勒島에서 출토된 彌生土器系 토기는 열도지역산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申·河 1991】 열도지역에서 반도지역으로 건너간 문물에는 청동기(中廣銅矛) 6점과 청동거울 6면이 확인되고 있고【小田·武末 1991】, 두 지역 간의 상호 왕래가 창출해 낸 문화교류도 주목받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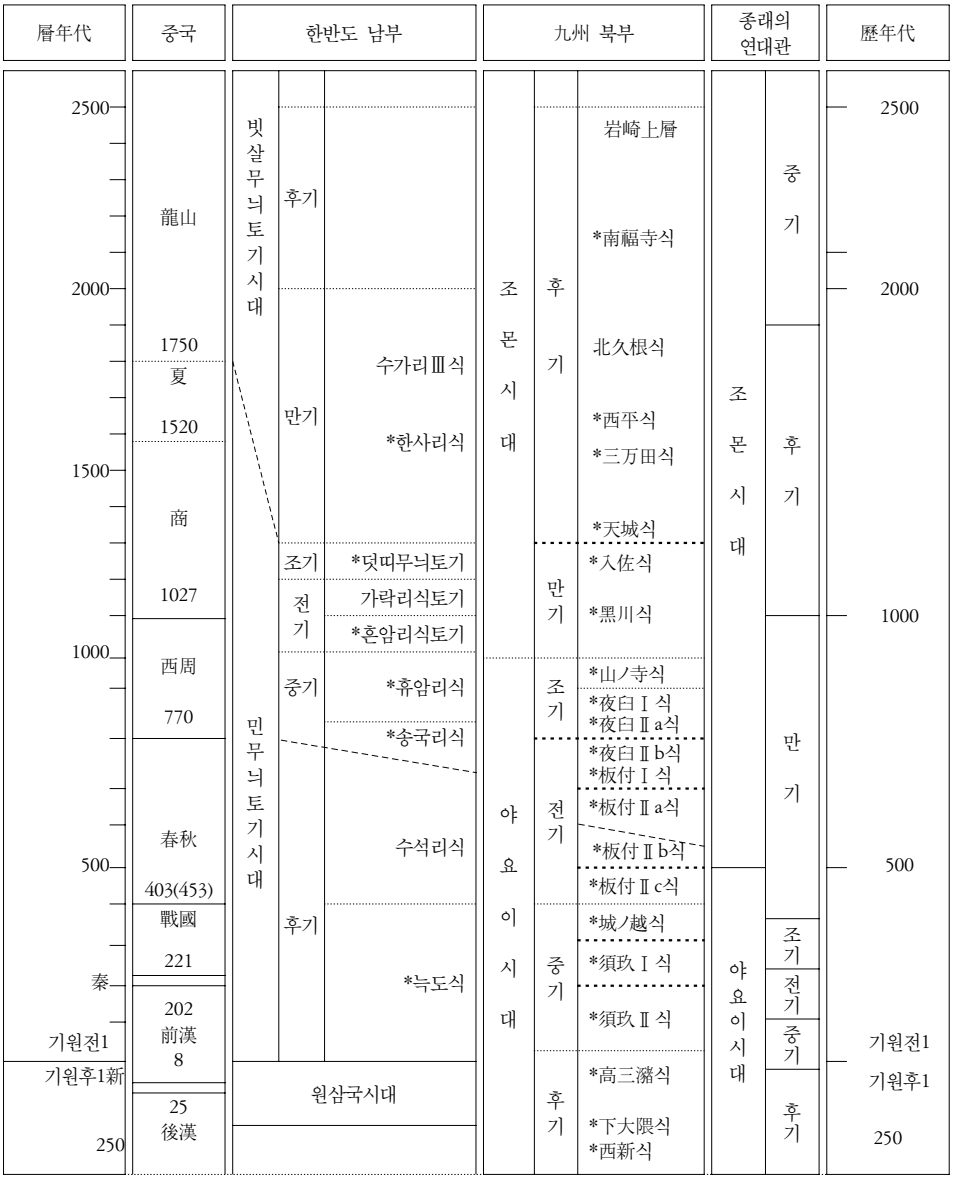
·東潮, 1999 ≪古代東アジアの鐵と倭≫, 溪水社
·穴澤義功, 2004 <日本古代の鐵生產>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第110集
·穴澤咊光, 1993 <遺物からみた交流と交易－日本から出ていったもの－> ≪古墳時代の硏究≫ 13, 雄山閣出版
·井上主稅, 2008 <茶戶里遺跡にみられる倭と關連する考古資料について> ≪茶戶里遺蹟發掘成果人 課題≫, 國立中央博物館
·岩永省三, 1991 <日本における靑銅武器の渡來と生產の開始>, 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岩永省三, 2005~2009 <考古學－弥生時代の實年代－> 1~6 ≪九州大學總合硏究博物館ニュース≫ NO.5~12
·岩永省三, 2005 <弥生時代開始年代再考> ≪九州大學總合硏究博物館硏究報告≫ NO.3
·上野祥史, 2004 <韓半島南部出土鏡につい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第110集
·岡崎敬, 1957 <日本における初期鐵製品の問題> ≪考古學雜誌≫ 42卷序
·岡崎敬, 1982 <日本および韓國における貨泉·貨布および五銖錢について> ≪森貞次郎博士古稀記念古文化論集≫ 上卷
·岡部裕俊·比佐陽一郎·片多雅樹, 2004 <三坂七尾遺跡出土貨泉について>
·小田富士雄, 1982 <日·韓地域出土の同范小銅鏡> ≪古文化談叢≫ 第9集
·小田富士雄, 1992 <日韓の出土五銖錢·第2報> ≪古文化談叢≫ 第28集
·小田富士雄·武末純一, 1991 <日本から渡った靑銅器>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河仁秀, 1990 <無文土器時代> 釜山市立博物館, ≪東萊福泉洞東萊城遺跡≫
·片岡宏二, 1991 <日本出土の無文土器系土器>, 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片岡宏二, 1993 <朝鮮系無文土器の彌生土器化とその社會> ≪MUSEUM≫No.503
·片岡宏二, 1999 <渡來人の擴散と足跡>, 同 ≪弥生時代渡來人と土器·靑銅器≫, 雄山閣出版
·片岡宏二, 1999 ≪弥生時代渡來人と土器·靑銅器≫, 雄山閣出版
·片岡宏二, 2006 ≪弥生時代渡來人から倭人社會へ≫, 雄山閣出版<第1章 渡來文化と渡來人>
·韓國國立中央博物館, 1978~1991 ≪松菊里≫ Ⅰ·Ⅱ·Ⅲ·Ⅳ(Ⅴ는 公州博物館 1993년. Ⅵ는 扶餘博物館 2000년 발행)
·金京七, 2007 <南韓地域 窒塘 漢代金屬貨幣 人 益 性格> ≪湖南考古學報≫ 第27号
·全玉年, 1996 <韓國考古學의 時期區分과 年代觀>第40回埋藏文化財硏究集會≪考古學과 實年代≫, 埋藏文化財硏究會
·金貞培, 1979 <韓國考古學에서의 時代區分問題> ≪韓國學報≫ 第14輯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Ⅰ≫ (일본어판은 2001년, 六一書房)
·國立慶州博物館, 1987 ≪菊隱 李養璿蒐集文化財≫
·國立慶州博物館, 2007 ≪國立慶州博物館 鏡鑑≫
·國立中央博物館, 2008 <茶戶里遺跡과 日本> ≪茶戶里遺蹟發掘成果와 課題≫ , 293頁

·國立中央博物館, 2008 ≪哀企合 紗稅 蟹虞 陷硲軒－益 降閏引 奄系－≫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7 ≪弥生時代はいつから!?－年代研究の最前線－≫)
·後藤直 1979 <朝鮮系無文土器> ≪三上次男先生頌壽記念東洋史·考古學論集≫ (同, ≪朝鮮半島初期農耕社會の研究≫ 〔同成社, 2006年〕에 수록)
·後藤直, 1979 <朝鮮系無文土器> ≪三上次男先生頌壽記念東洋史·考古學論集≫
·後藤直, 2006 ≪朝鮮半島初期農耕社會の研究≫, 同成社
·潮見浩, 1979 <倭の鐵> 上田正昭ほか ≪ゼミナール日本古代史≫ 上,光文社
·潮見浩, 1982 ≪東アジアの初期鐵器文化≫, 吉川弘文館
·潮見浩, 1986 <鐵·鐵器の生產> 岩波講座 ≪日本考古學≫ 3 <生產と流通>
·申敬澈, 1980 <熊川文化期紀元前上限說稅再考> ≪釜大史學≫ 第4輯(後藤直 역은 ≪古文化談叢≫ 第8集〔1981年4月〕에 수록)
·申敬澈·河仁秀, 1991 <後期無文土器と 弥生土器系土器> 小田富士雄·韓炳三 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沈奉謹·金宰賢, <勒島遺跡の意義>, 田中良之編 ≪弥生時代における九州·韓半島交流史の研究≫ 2001年. 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研究院)
·關淸, 2008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列島の鐵生產> 王維坤·宇野隆夫, ≪古代東アジア交流の總合的研究≫,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宣石悅, 2004 <加耶の鐵と倭の南北市糴>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10集
·高尾浩司, 2001 <青谷上寺地遺跡と妻木晩田遺跡－絢爛豪華な鐵器文化－>, 鐵器文化研究會·鳥取縣敎育委員會編 ≪日本海(東海)がつなぐ鐵の文化≫
·高倉洋彰, 1990 ≪日本金屬器出現期の研究≫ <第1章韓國原三國時代の銅鏡>
·高倉洋彰, 1991 <日本の大陸系靑銅器>, 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高倉洋彰, 1995 ≪金印國家群の時代－東アジア世界と弥生社會－≫, 靑木書店
·武末純一, 1991 ≪土器からみた日韓交涉≫, 學生社
·武末純一, 2002 <弥生文化と朝鮮半島の初期農耕文化>, 佐原眞編 ≪古代を考える稻·金屬·戰爭－弥生－≫, 吉川弘文館
·田中良之·溝口孝司·岩永省三·Tom Hjghman, 2004 <弥生人骨を用いたＡＭＳ年代測(予察)> ≪日·韓交流の考古學≫, 九州考古學會·嶺南考古學會
·中村愼一編, 2001 ≪東アジアの囲壁·環濠취락≫ 平成12年度科研特定研究(Ａ1)≪日本人および日本文化の起源に關する學際的研究≫
·西谷正, 1982 <朝鮮考古學の時代區分について> ≪考古論集－小林行雄博士古稀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平凡社
·西谷正, 2009 ≪魏志倭人傳の考古學≫, 學生社
·西本豊弘編, 2006 ≪弥生時代の新年代≫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 第1卷, 雄山閣
·西本豊弘編, 2007 ≪縄文時代から弥生時代へ≫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 第2卷, 雄山閣出版
·橋口達也, 1970 <中國(戰國~漢代)における鐵器－とくに鐵製武器を中心として－> ≪たたら研究≫ 第17号
·端野晋平, 2008 <松菊里型住居の傳播とその背景>, 九州大學考古學研究室50周年記念論文集≪九州と東アジアの考古學≫
·春成秀爾, 1990 ≪弥生時代の始まり≫, 東京大學出版會

・春成秀爾, 2006 <弥生時代の年代問題>, 西本豊弘編,≪弥生時代の新年代≫, 雄山閣出版
・春成秀爾, 2007 <大陸文化と弥生時代の實年代>, 廣瀨和雄編 ≪弥生時代はどう変わるか≫ 學生社, 21頁
・春成秀爾, 2008 <解題>, 春成秀爾・西本豊弘編著≪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出版
・春成秀爾・西本豊弘編, 2008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出版
・福泉博物館, 2009 ≪神의 거울 銅鏡≫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
・宮本一夫編, 2005 ≪弥生時代成立期における渡來人問題の考古學的研究≫,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考古學研究室
・宮本一夫編, 2008 ≪壹岐カラカミ遺跡Ⅰ－カラカミ遺跡東亞考古學會第2地点の發掘調査－≫,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考古學研究室
・宮本一夫編, 2009年 ≪壹岐カラカミ遺跡Ⅱ－カラカミ遺跡東亞考古學會第1地点の發掘調査－≫,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考古學研究室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青木書店
・村上恭通, 2008 <東アジアにおける鐵器の起源>, 春成秀爾・西本豊弘編著≪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第3卷, 雄山閣出版
・森岡秀人, 2003 <貨幣>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交流と交易－≫ Ⅲ, 同成社
・森浩一, 1983 <稻と鐵の渡來をめぐって－民俗文化の傳統を再評価する－>日本民俗文化大系第3卷
・吉井秀夫, 2002 <朝鮮の墳墓と日本の古墳文化>, 鈴木靖民編 ≪倭國と東アジア≫ 日本の時代史2, 吉川弘文館
・李健茂, 1992 <茶戸里出土稅筆拭 企馬食> ≪考古學誌≫ 第4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福岡考古≫ 第21号
・李南珪, 1982 <南韓初期鐵器文化稅 一考察> ≪韓國考古學報≫ 13
・李南珪, 1991 <韓國の初期鐵器と鐵生產>, 小田富士雄・韓炳三 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李南珪, 2001 <韓半島鐵器文化の歷史－統一新羅時代以前－>, 鐵器文化研究會鳥取縣教育委員會 編, ≪日本海(東海)がつなぐ鐵の文化≫
・李榮勳, 1991 <韓半島南部の中國系青銅器>, 小田富士雄・韓炳三 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표 1〉 탄소 14년대의 較正 연대에 입각한 민무늬토기·彌生시대의 實年代

(藤尾愼一郎 2008)



*는 연대를 계측한 토기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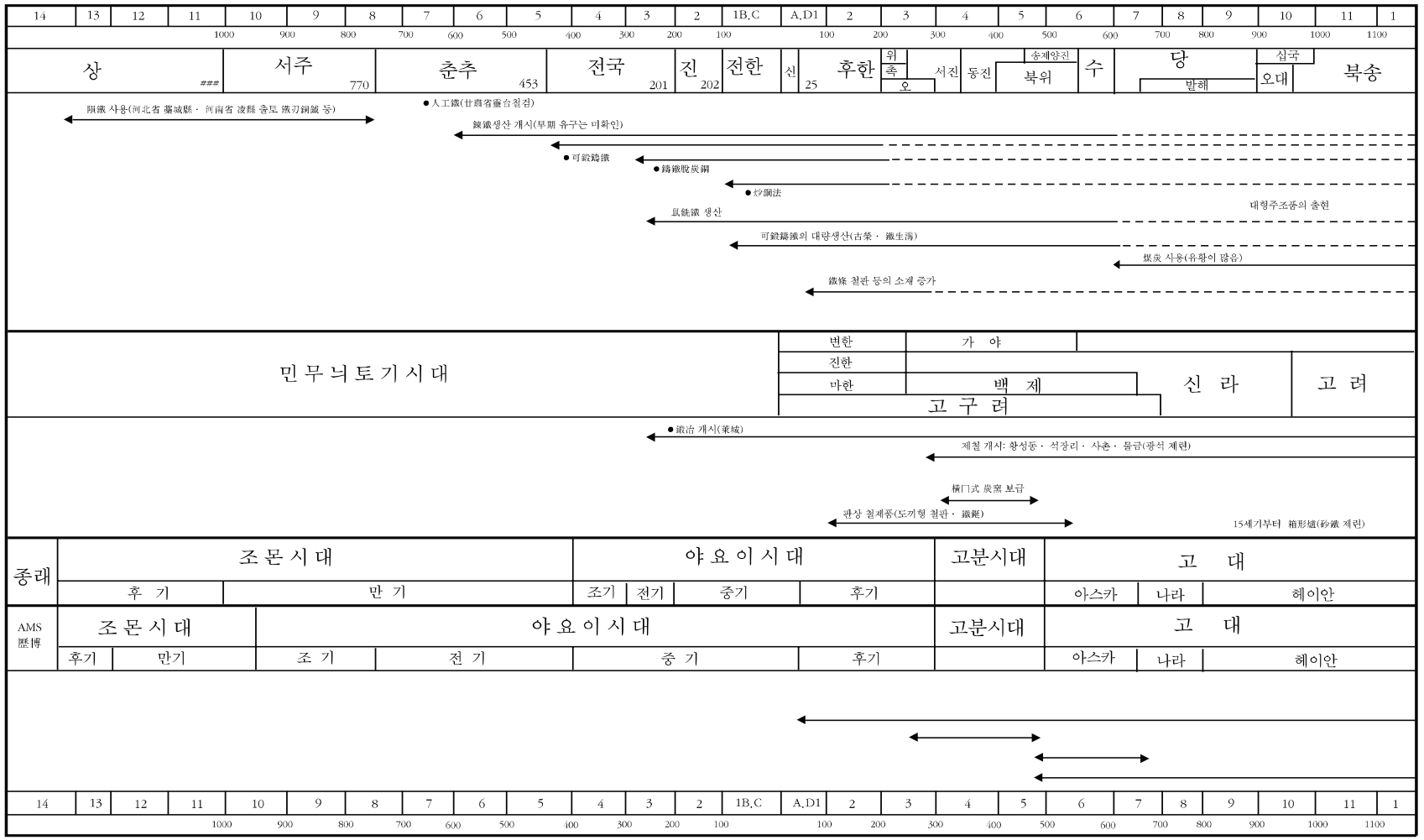
탄소 14년대의 較正 연대에 입각한 민무늬토기·彌生시대의 實年代

(武末純一·李昌熙의 병행관계와 탄소 14년대를 바탕으로 작성, 2008.2.5)

이전의 표와 비교하면 늑도식의 하한을 高三潴식 중간까지로 병행시켰다. 점선은 AMS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점선이 두꺼우면 試料 수도 많고, 精度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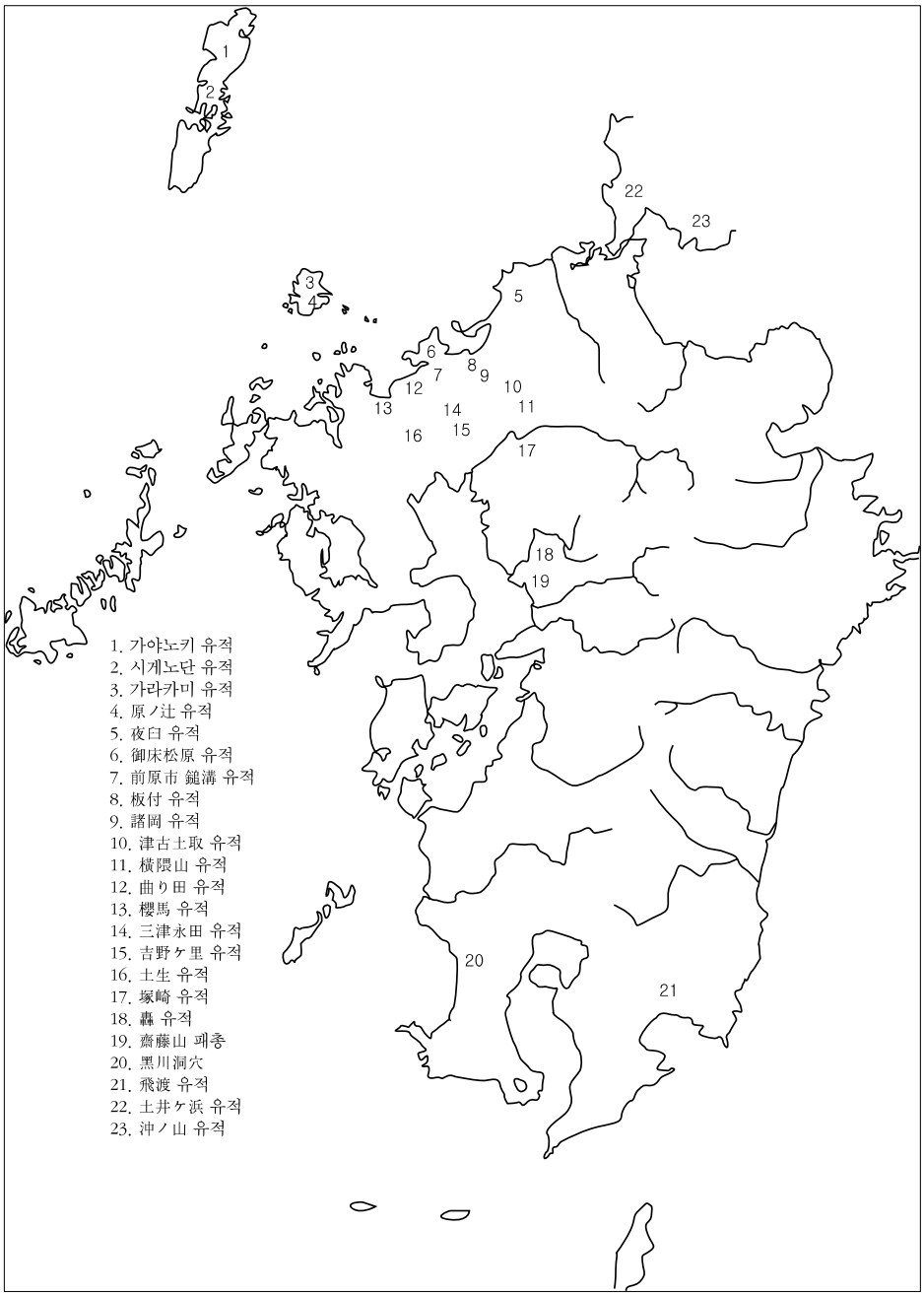
〈표 2〉 북부 九州의 야요이토기와 한반도 남부의 민무늬토기·삼한토기의 병행관계

〈표 3〉 동아시아의 철 및 철 생산 연표 (關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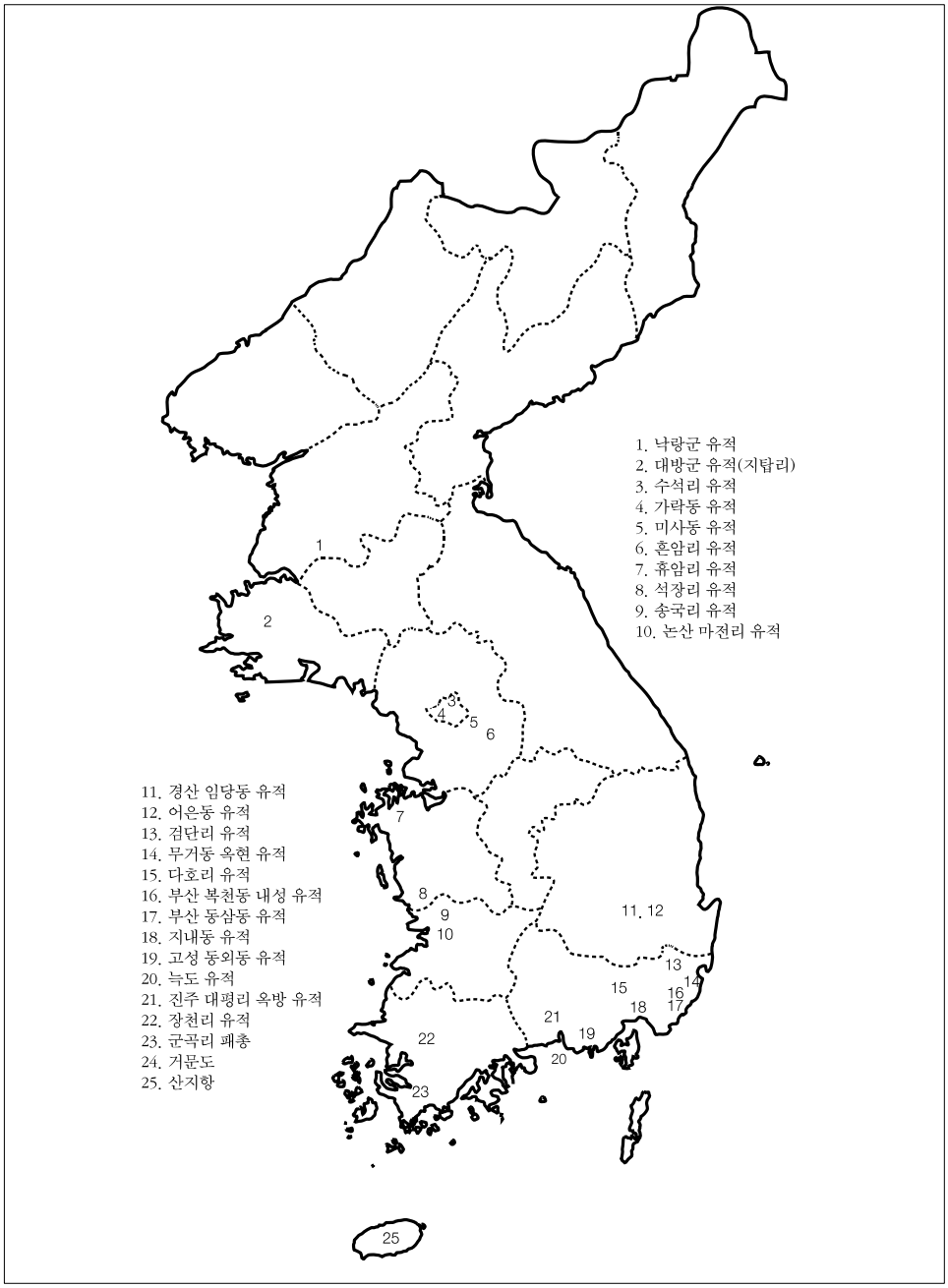


〈표 4〉 도래인 집락의 각 유형과 그 집락 (片岡廣二 2002)

		주요 유적명	소재지
島嶼 타입 유적	(전기 말~중기 초두)	天ヶ原 유적	長崎縣壹岐郡勝本町
		古田 유적	長崎縣北松浦郡小佐々町楠泊免
		里田原 유적	長崎縣北松浦郡田平町
		曲り田 유적	福岡縣糸島郡二丈町石崎
		綾羅木郷 유적	山口縣下關市綾羅木
	(중기 후반)	オテカタ 유적	長崎縣下縣郡嚴原町豆酘
		大田原 유적	長崎縣下縣郡峰町
		原の辻 유적	長崎縣壹岐郡芦戸町
		沖ノ島 유적	宗像郡大島村沖の島
		御床松原 유적	福岡縣糸島郡志摩町大字御床
		六連島 유적	山口縣下關市大字六連島字音次郎
		秋根 유적	山口縣下關市秋根町
내륙 타입 유적	諸岡 타입 유적 (전기 말)	諸岡 유적	福岡市博多區諸岡岡ノ前
		板付 유적	福岡市博多區板付
		那珂君木 유적	福岡市博多區那珂
		那珂 유적	福岡市博多區那珂1丁目
		三國の鼻 유적	小郡市津古 및 横隈
		横隈鍋倉 유적	小郡市横隈字鍋倉
		みくに東 유적	小郡市横隈字鍋倉
		横隈山 유적	小郡市三澤古賀
		江津湖 유적	熊本縣熊本市健軍町苗代津
		御幸木部町	熊本縣熊本市御幸木部町
		石の瀬 유적	熊本縣宇土市石小路
	土生 타입 유적 (중기 초두~중기 전반)	土生 유적	佐賀縣小城郡三日月町土生
		自在 유적	佐賀縣小城郡小城町
		切畑A 유적	佐賀縣神崎郡神崎町大字城原
		上黒井 유적	佐賀縣神崎郡千代田町大字姉
		姉 유적	佐賀縣神崎郡千代田町大字姉
		黒井 유적	佐賀縣神崎郡千代田町大字姉
		貴別当神社 유적	佐賀縣神崎郡千代田町大字姉下西
		鍋島本村南 유적	佐賀縣佐賀市鍋島町大字本村南
		津留 유적	佐賀縣佐賀市鍋島町大字八戸溝
		宇土城跡 유적	熊本縣宇土市古城町・神馬町



[지도 1] 九州 주요 관련 유적



[지도 2] 한반도 주요 관련 유적

제2장 문헌·문자사료를 통해 본 고대 일한의 지역 간 교류

제1절 BC 1세기~AD 1세기 일한의 지역 간 교류

1. 중국 문헌을 통해 본 일한의 지역 간 교류

열도지역의 彌生중기 후반에서 후기 후반에 이르는 시대와 병행하는 반도지역의 역사는 거의 삼한시대에 해당한다. 이 시대의 열도지역의 역사는 중국왕조의 正史類, 그 중에서도 東夷傳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중국왕조 측이 기록한 조공·공물을 바친 것(貢獻)에 대한 기록이 중심이어서, 반도와 열도 두 지역 간의 교류를 고찰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 중국 문헌은 隔靴搔痒인 감이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중국왕조와 이 두 지역과의 通貢을 통하여 두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소지역국가, 여기에서는 자연 지리적인 조건으로 한정된 소국가에서, 그것들이 연합과 戰勝 등을 통해 통합된 보다 넓은 국가, 또는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國家群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 시대의 중국正史에 기록되어 있는 두 지역의 중국왕조에 대한 通貢기사를 통해 두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조선(衛氏朝鮮) 사회－漢의 郡縣통합의 前提－】

BC 108년과 다음 해인 BC 107년에 한반도의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설치된 前漢의 郡縣, 이른바 漢 4郡은 성쇠를 거쳐 樂浪郡은 313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그리고 樂浪郡 남부에 설치된 帶方郡은 3세기 초에 公孫氏에 의해 314년에 중국 동북부의 遼西로 철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400여 년간의 郡縣의 역사는 바로 고대의 반도와 열도 두 지역 간의 교류가 고대국가의 關係史로서 진행되는 전단계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시대의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단순히 반도와 열도라는 단어로 한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一元的인 또 단층적인 사회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司馬遷의 ≪史記≫ 卷115·朝鮮傳에도 보이지만 고조선 사회에

는 중국 동북부의 燕을 비롯한 세력에게 떠밀린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었고 거기에 크게는 二元的인 사회와 문화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史記≫ 朝鮮列傳을 통해 고조선 땅에는 토착민과 함께 중국 동북부와 山東半島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 더해져 하나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고 또 그 주변에 '眞番' '朝鮮'이라는 정치사회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한반도 서북부에 다양한 정치사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史記≫ 이후의 역사서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魏略≫ (魏·魚豢撰, 3세기말 성립)의 逸文을 편찬했던 張鵬一의 ≪魏略輯本≫ (1924년)卷21·朝鮮에도 '중국 망명'집단이 '朝鮮' 속에서 일정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또 3세기말의 陳壽가 편찬한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東沃沮에도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라고 나와서, 마찬가지로 '衛滿朝鮮'에는 '燕齊趙의 民'이 유입된 사회가 있어서 이 朝鮮을 沃沮, 濊, 고구려, 진한이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사회가 반도지역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문자기록에서 열도지역의 정치사회에 관해서는 겨우 '倭'와 '倭人'이란 단어로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주거지와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모호한 기록이다. 이 단계에서는 '倭'란 중국대륙의 동쪽 해역에 사는 종족으로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 '倭人'과 반도지역의 교류에 관한 것은 문헌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

【사료Ⅰ: BC 1~AD 1세기】

·≪山海經≫ 第十二海內北經 '蓋國, 在鉅燕南倭北, 倭屬燕.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論衡≫ 第八·儒增篇 '周時, 天下太平, 越裳獻白雉, 倭人貢鬯'
·≪論衡≫ 第十九·恢國篇 '成王時, 越常獻雉, 倭人貢暢'

·≪史記≫ 卷115·朝鮮列傳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 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浿水爲界, 屬燕. 燕王盧綰反入匈奴, 滿亡命, 聚党千餘人, 魋結蛮夷服而東走出塞, 渡浿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朝鮮蛮夷及故燕齊亡命者, 王之. 都王險.

·≪魏略輯本≫ (1924年) 卷1·朝鮮
燕人衛滿亡命, 爲胡服東渡浿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中國亡命, 爲朝鮮藩屛. 準信寵之拜以博士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辺. 滿誘亡党, 衆稍多. 乃詐遣人告準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戰不敵也.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濊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 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戶二萬. 昔箕子旣適朝鮮, 作八條之敎以敎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 朝鮮侯準僭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魋結夷服, 復來王之.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참고문헌】

·井上秀雄, 1973 <中國文獻にあらわれた朝鮮, 韓, 倭について> (≪日本書紀研究≫ 第7卷, 후에, 井上,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1978年〕에 수록)
·井上秀雄, 1975 <中國古典の朝鮮と倭>, 國分直一編 ≪倭と倭人の世界≫, 每日新聞社
·江上波夫, 1979 ≪ゼミナール日本古代史≫의 '序', 光文社
·藤井重雄, 1969 <倭人管見－論衡と後漢書烏桓鮮卑傳－> ≪新潟大學敎育學部紀要≫ 第10卷 第1号
·三上次男, 1966 <古代の西北朝鮮と衛氏朝鮮國の政治·社會的性格>> (同,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李丙燾, 1976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일역은 1980 ≪韓國古代史研究－古代史上の諸問題－≫, 學生社)

【樂浪郡과 玄菟郡－반도의 다양성과 열도사회－】

前漢의 武帝는 朝鮮(衛氏朝鮮)의 衛右渠가 外臣의 職約에 반하여, 朝鮮의 남쪽에 있는 眞蕃이 漢왕조에 조공하는 길을 막은 것에 진노하여, 元封3년(BC.108년)에 육군과 해군을 파견하여 朝鮮을 멸망시켰다. 이에 朝鮮의 옛 도읍지(王儉城)가 있었던 땅 즉 오늘날의 平壤市 樂浪區域에 朝鮮縣을 설치하고 합계 15縣을 통괄하는 樂浪郡의 治所를 여기에 두었다. 마찬가지로 朝鮮에 속해 있던 지방에도 眞蕃郡, 臨屯郡, 玄菟郡의 3郡을 설치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북부전체와 남부에 이르는 朝鮮의 땅은 漢의 郡縣통치로 새롭게 편성되게 되었다.

4군 중에서 臨屯郡과 眞蕃郡의 郡治의 소재는 ≪資治通鑑≫ 卷21·漢紀13·世宗下之上에 인용된 ≪茂陵書≫ 속에 "臨屯郡, 治東暆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領十五縣. 玄菟郡, 本高句驪也, 旣平朝鮮, 併開爲郡, 治沃沮城,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驪西北. 眞番郡, 治霅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領十五縣. 余據後廢臨屯眞番二郡"이라고 나와 있듯이 2郡의 治所는 長安에서 6~7천 여리, 약 3천km 내외의 땅에 있었지만, 정확한 소재지는 오늘날에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眞番의 이름은 ≪史記≫ 卷69·貨殖列傳에는 "夫燕 …중략… 北, 隣烏桓夫余.

東, 綰穢貉朝鮮眞番之利"라고 나오고, 또 同卷115·朝鮮列傳에도 '朝鮮王 滿'의 용맹스러운 위세 앞에 眞蕃과 臨屯이 복속했다라고 전하는("以故滿得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기록으로 볼 때도 眞番과 臨屯 2郡은 樂浪郡에 접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眞蕃郡의 治所라고 하는 雪縣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후보지가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治所를 全羅道를 포함하는 반도 남부로 추정하는 南在說 외에 京畿道로 추정하는 北在說이 있다【山尾1985】.

4군 중에서 長安에서 가장 먼 땅에 郡治를 둔 眞番郡은 ≪漢書≫ 卷7·昭帝紀에 "始元五年(BC82) 夏, 罷儋耳眞番郡"이라고 나오고, ≪後漢書≫ 卷85·東夷傳·濊에도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幷樂浪玄菟"라고도 나와서, BC 82년에 臨屯, 眞番 2郡은 폐지되었고 그에 속해 있던 縣은 인접한 樂浪과 玄菟 2郡에 편입된 것이다.

이리하여 반도의 중·북부는 眞番 臨屯 2郡의 縣을 편입한 소위 '大樂浪郡'과 玄菟郡의 치하 중에서 겨우 한반도의 땅에 이르는 縣, 그리고 남부에는 郡縣지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뒤에 서술하듯이 폐지된 2郡의 全縣이 樂浪郡에 편입된 것은 아니다.

한편 玄菟郡은 ≪漢書≫ 卷7·昭帝에 "元鳳六年(BC75) 春正月, 募郡國徒, 築遼東玄菟城"라고 나오고 있고 위에서도 서술했던 2郡의 改廢라고 하는 漢의 동방정책과 연동하여 그 郡治가 遼東으로 이동했다. 이 이른바 '제2玄菟郡'은 漢의 동방정책이 후퇴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고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東沃沮에 "(전략)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라고 나오듯이 '夷貊' 즉 고구려의 저항을 받아 초기의 治所에서 후퇴하였던 것이며 옛 玄菟郡의 東辺에 있던 屬縣은 樂浪郡에 편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한반도 동북부에 걸친 제2玄菟郡의 규모에 대해서는 ≪漢書≫ 卷28·地理志第 8 下에 "玄菟郡, 武帝元封四年(BC.107)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應劭曰, 故眞番朝鮮胡國〕. 戶四万五千六, 口二十二万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전략 … 應劭曰, 故句驪胡〕, 上殷台, 西蓋馬"라고 나와서 屬縣은 적다. 또 大樂浪郡에 대해서도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應劭曰, 故朝鮮國也 … 後略〕戶六万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万六千七百四十八. 縣二十五, 朝鮮〔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訾邯, 浿水, 含資, 黏蟬, 遂成, 增地, 帶方, 駟望, 海冥, 列口, 長岑, 屯有, 昭明〔南部都尉治〕, 鏤方, 提奚, 渾彌, 呑列, 東暆〔應劭曰, 移〕, 不而〔東部都尉治〕, 蠶台, 華麗, 邪頭昧, 前莫, 夫租"라고 나와서 屬縣과 戶口數를 기록하고 있다.

또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東沃沮에는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嶺之東, 分治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嶺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이라고 나와 2개의 都尉로 통괄되는 총 12縣이 樂浪郡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여서 樂浪郡의 屬縣은 13縣에서 25縣으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南部都尉를 둔 昭明縣이 舊 眞番郡의 땅을 또 東部都尉를 둔 不而縣이 旧臨屯郡의 땅을 통제했던 것이다.

東部都尉가 主管했던 7縣이란 東暆縣에서 夭租까지의 縣이다. 폐지된 臨屯郡의 治所였던 東暆縣에 都尉를 파견하지 않고, 臨屯郡下의 不而縣을 大樂浪郡의 동부지배의 거점으로 중시했던 것은 역시 동북쪽에 접해 있던 고구려의 압박에 대비한 조치일 것이다.

광역화한 '大樂浪郡'에서는 舊 眞番郡의 땅은 南部都尉가 또 舊 臨屯郡의 땅을 東部都尉가 다스리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군현의 사회규모를 보면, 大樂浪郡에서는 1戶 당 6.5口 이고, 1縣 당 호수는 2,512戶와 16,270口가 된다. 이에 반해 제2 玄菟郡은 현은 겨우 3현이고, 1戶 당 4.9口이며, 1縣 당 호수는 15,002戶와 73,948口가 된다. 통계 숫자에 오류가 없다면, 이 2郡의 사회 구성의 차이는 엄청나다. 특히 縣의 人戶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樂浪郡은 25縣을 통할하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는데, 人戶의 파악이 玄菟郡의 그것보다도 훨씬 침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人戶 파악의 차이는 그 사회 구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大樂浪郡과 제2玄菟郡은 後漢代에 명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後漢書≫ 卷23·郡國志5·第23·幽州에는 이른바 제3玄菟郡에 대하여 "玄菟郡〔武帝置, 雒陽東北四千里〕. 六城. 戶一千五百九十四, 口四万三千一百六十三. 高句驪, 遼山遼水出〔山海經, 遼水出白平東. 郭璞曰, 出塞外御白平山. 遼山小遼水所出〕. 西蓋馬. 上殷台. 高顯, 故屬遼東. 候城, 故屬遼東. 遼陽, 故屬遼東〔東觀書. 安帝卽位之年(106년), 分三縣來屬〕"이라고 나온다. 또 大樂浪郡에 대해서는 "樂浪郡〔武帝置, 雒陽東北五千里〕十八城. 戶六万一千四百九十二. 口二十五万七千五十. 朝鮮, 謰邯, 浿水, 含資, 占蟬, 遂成, 增地, 帶方, 駟望, 海冥, 列口, 長岑, 屯有. 昭明, 鏤方, 提奚, 渾彌, 樂都"라고 나온다.

이에 따르자면 제2玄菟郡은 AD106년에 遼東郡의 북쪽 '200里'의 땅으로 西遷하게 되는데 이 이른바 제3玄菟郡에는 遼東郡의 3縣이 편입되어 있다. ≪漢書≫ 卷28·地理志第8下에 의하면 遼東郡의 3縣 중에서 候城은 遼東郡의 中部都尉를 파견하는 요충지였던 縣이다. 또 大樂浪郡은 25縣에서 東暆, 不而, 蠶台, 華麗, 邪頭昧, 前莫, 夭租 7縣이 이탈하여 18縣으로 감소했다. 이 7縣은 처음에는 臨屯郡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리하여 玄菟郡이 재차 西遷하고 大樂浪郡 중에서 동북부의 7縣이 郡에서 이탈하고

있는 정치동향, 그 배경은 역시 한반도 동북부에서 성장하고 있던 고구려의 팽창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2세기 초의 大樂浪郡은 1戶당 약 4.2口였고 1縣당 戶數는 3,416戶이므로 口數는 14,280口가 된다. 또 제3玄菟郡은 1戶당 27口였고 1縣당 약 266戶이므로 7,194口이다. 大樂浪郡과 제3玄菟郡의 사회구조 수치를 보면 제3玄菟郡의 戶數가 탈자 등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적다. 제3玄菟郡은 제2玄菟郡보다 3縣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人戶를 파악한 수가 적다. 이 수치에 오류가 없다면 제3玄菟郡은 高句驪縣을 통하여 高句驪族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 혹은 高句麗縣의 성격이 명목뿐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漢 武帝가 반도지역에 설치한 4郡 중에서 眞番郡과 臨屯郡은 중심에서 동떨어진(僻遠)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樂浪郡에 합병되었지만 玄菟郡이 2번에 걸쳐 遼東으로 후퇴한 것은 전적으로 高句麗族의 저항 때문이었다.

반도지역에서는 漢代에 시작된 郡縣통치인 중앙집권통치기구에 대하여, 저항했던 고구려와 그 통치 하에서 지역의 지배와 문화를 획득했던 韓과 그 後方의 倭라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高句麗族이 郡縣지배에 대하여 저항하고, 韓族은 순응했던 것은 그 사회의 씨족제라는 틀에서 가족이 어느 정도 자립하고 있었는가의 차이와 또 수렵사회와 농경사회의 차이가 그 원인이며, 나아가서는 왕조가 수렵사회에 펼친 '羈縻'策이라는 간접통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중국왕조에 의한 반도지역 지배에 대한 저항과 순응(혹은 선택적 순응)이라는 2가지 자세가 그 후의 반도와 열도의 교류와 관계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참고문헌】

- 池內宏, 1951 <前漢昭帝の四郡廢合と後漢書の記事> <樂浪郡考> <遼東の玄菟郡と其の屬縣>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漢魏晋の玄菟郡と高句麗> <公孫氏の帶方郡設置と曹魏の樂浪·帶方二郡> <曹魏の東方經略> <晋代の遼東> ≪滿鮮史硏究≫ 上世·第1册, 吉川弘文館, 初版 1979年 第2版
- 栗原朋信, 1970 <漢帝國と周辺諸民族> 岩波講座世界歷史4 ≪東アジア世界の形成≫ Ⅰ
-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1993 ≪平成五年秋季特別展－弥生人の見た樂浪文化≫
-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硏究≫ 第1号, 東京大學文學部朝鮮文化硏究室
- 堀敏一, 2006 ≪東アジア世界の形成≫, 汲古書院

·山尾幸久, 1985 <中國史料に見える「倭」と「倭人」>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4号, 大和書房
·李成市, 1993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第一章東アジアの諸國と人口移動>, 岩波書店

【郡縣의 사회동향】

樂浪郡 治址(平壤市 樂浪區域 土城里)에서 발굴된 封泥에서는 '樂浪大守章' '樂浪大尹章'과 '樂浪守丞' '樂浪長史'의 장관과 차관직의 印 외에 '朝鮮令印' '朝鮮右尉' '駟望丞印' '屯有令印' '東暆長印' '不而長印' '海冥丞印' '昭明丞印' 등 각 縣의 장관, 차관의 직명날인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런 관리가 郡縣을 운영했지만 郡縣사회의 안정은 山東半島에서 樂浪郡으로 이주하는 자들을 불러들여 일정한 세력을 키운 자가 나타나고 있다. ≪後漢書≫ 卷76·循吏·王景傳에서 "王景. 字仲通, 樂浪誀邯人也. 八世祖仲, 本琅邪不其人…중략…乃浮海, 東奔樂浪山中, 因而家焉. 父閎, 爲郡三老. 更始敗, 土人王調殺郡守劉憲, 自称大將軍, 樂浪太守. 建武六年(AD30), 光武遣太守王遵將兵擊之, 至遼東. 閎與郡決曹吏楊邑等共殺調迎遵, 皆封爲列侯, 閎獨讓爵. 帝奇而徵之, 道病卒"이라고 볼 수 있듯이 樂浪郡에서는 '土人인 王調'가 太守를 살해하고 '大將軍樂浪太守'를 자칭한 것과 같이 郡縣통치에 저항하는 세력도 발생하고 있다. 그 한편으로는 이 王調를 살해한 王閎은 8代祖가 山東半島에서 온 이주자였다. 이 王調와 王閎 외에도 '王光'과 '王旰' 등과 같이 樂浪郡治에 토착화한 중규모 세력의 일족도 있었다.

樂浪郡의 정치사회는 언제까지나 그 이름과 같이 중국본토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郡縣 내 유력자의 탄생은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東沃沮에 "光武六年(AD30)省辺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 華麗, 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 主簿諸曹, 皆濊民作之. 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라고 나와서, 大樂浪郡下의 不耐·華麗·沃沮의 '渠帥'를 縣侯로 봉할 정도로 옛 臨屯郡 치하에 있던 沃沮族은 그 정치사회의 민족성을 유지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藤田亮策, 1948 <樂浪封泥攷><樂浪封泥續攷>同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窪添慶文, 1981 <樂浪郡と帶方郡の推移>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第3卷, 學生社

·全浩天, 1998 ≪樂浪文化と古代日本≫, 雄山閣出版
·高久健二, 2002 <樂浪郡と三韓>, 西谷正編 ≪韓半島考古學論叢≫, すずさわ書店
·田村晃一, 2001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군현에 대한 대응－마한과 왜 VS 고구려와 신라의 대립축 발생－】

BC 108년에 시작된 한반도의 중·북부와 중국 동북부에 걸친 중국왕조에 의한 이른바 4郡 통치는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또 4郡 사회가 균일했던 것도 아니다. 人戶 파악을 통한 신분지배 조직을 각각의 사회에 침투시키고자 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기반의 상황에 따라 순응과 저항의 자세가 표출된다. 4郡 중에서 樂浪郡은 313년에 한반도에서 遼東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4郡을 改廢시킨 정치사회의 동향의 근저에는 高句麗族과 濊族, 그리고 韓族의 정치사회의 구조의 차이가 있었다.

즉 씨족의 유대가 갖는 규제에서 人戶가 어느 정도 자립하여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있는가, 바꿔 말하자면 郡縣制 지배는 人戶의 개별 지배를 기본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씨족의 결합을 유지하는 部制의 강약의 차이에 따라 한반도 중·북부에 설치된 4郡 통치의 성패가 갈리게 된 것이다.

그 성패란 위에서 서술했듯이 高句麗族과 沃沮族, 濊族의 사회에 통치망을 구축했던 臨屯郡이 설치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저항 때문에 폐지되고, 玄菟郡은 2번의 西遷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반면 이른바 古朝鮮 사회를 기반으로 한 樂浪郡이 400여년에 걸쳐 존속하고 나아가 그 남부에 증설된 帶方郡은 100년 가까이 존속했다. 이 2郡은 그 남쪽에 접해 있던 韓族과 倭族의 諸 小國이 통교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자의 2郡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대응을 볼 수 있다. 이 대조적인 郡縣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상호관계를 낳은 하나의 원인이고 그 후 동아시아세계의 상호관계를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동아시아 諸 민족의 대조적인 郡縣에 대한 대응과 諸 민족 간의 상호관계의 동향은 아래의 사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료Ⅱ: AD 1세기】

① ≪後漢書≫ 韓傳 '建武二十年(AD44), 韓人廉斯人蘇馬諟等, 詣樂浪貢獻. 光武, 封蘇馬諟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
② 同 卷1·光武帝紀 '建武二十年秋, 東夷韓國人, 率衆詣樂浪內附'
③ 同 卷85·東夷傳序 '建武之初, (貊人)復來朝貢, 時遼東太守祭肜, 威讋北方, 聲行海表, 於是濊貊倭韓萬里朝貢'

④ 同 卷1·光武帝紀 '建武二十三年(47)冬十月, 高句驪率種人, 詣樂浪內屬'(同卷85·東夷·高句驪 '建武二十三年冬, 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 詣樂浪內屬')
⑤ 同 卷85·東夷·倭傳 '建武中元二年(57),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称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⑥ 同 卷85·東夷·倭傳 '安帝永初元年(107), 倭國王帥升等獻生口百六十人, 願請見'(≪翰苑≫ 所載의 ≪後漢書≫ 佚文에서는 '倭面上國', 北宋版≪通典≫ 에서는 '倭面土國', ≪唐類函≫ 所引의 ≪通典≫ 에서는 '倭面土地')

2. 한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의 지역 간 교류

한국문헌 중 현존하는 最古의 편찬역사서인 ≪三國史記≫ 의 기록을 통해 반도와 열도지역의 교류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이 史書에 편찬된 특히 2~3세기에 상당하는 시대의 열도지역의 정치사회체는 '倭' '倭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 는 고려·仁宗 23년(1145년)에 宰相이었던 金富軾(1075~1151)이 감수하고 선칙을 받들어 편찬한(奉宣撰)의 紀傳体사서이다. 전50권 중 新羅本紀는 12卷, 高句麗本紀는 10卷, 百濟本紀는 6卷이다.

편찬대상의 시대를 보면 상당히 후세에 편찬한 것이지만 이 사서는, 고려 초기에 편찬되었다고 해석되고 있는 ≪海東三國史≫ (≪구삼국사≫ 라고도 칭함)와 ≪資治通鑑≫ 등의 중국사서를 참조하고 있고 또 신라시대에 저술된 ≪花郎世記≫ (8세기 초 金大問 저술)와 545년에 居柒夫 등이 수찬한 ≪國史≫ 와 또 신라 말기의 문인관료인 崔致遠의 저작 등을 참조했을 것이므로, ≪三國史記≫는 편찬이 해당 시대와 거리가 멀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新羅本紀>의 倭人관계기사를 불신할 수는 없다【高 1996】.

또 ≪三國史記≫의 수찬보다 약 140년 정도 늦게 고려의 승 一然(1206~1289)이 私撰한 ≪三國遺事≫ 속의 新羅史上의 遺事에서도 倭 관련 전승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사는 아래와 같다.

倭와 倭人이 <新羅本紀>에는 나오는데 이 시기에 상당하는 <百濟本紀>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倭, 倭人이 신라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관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金錫亨씨는【金 1969】 이 倭, 倭人의 근거지는 북부 九州라고 한다. 井上秀雄씨【井上 1991】는 나아가 倭, 倭人의 근거지를 加羅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新羅本紀>의 기사를 바탕으로 倭, 倭人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倭, 倭人은 신라에 대립적이었고 또 '渡海'해야 하는 바다 저쪽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倭, 倭人의 근거지가 '야마토'라든가, 倭, 倭人의 정치사회의 실태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기사가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거지를 '加羅', 북부 九州, 야마토 등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요점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이다.

어쨌든 倭, 倭人은 신라, 백제, 加羅 등과는 다른 정치사회이고 해상 건너편의 존재이지만 또 加羅지역에 나타나는 세력이다.

그런데 BC1세기~AD2세기까지의 기간 중 중국 사료에는 倭의 100여국과 韓의 씨족이 郡에 通貢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신라를 습격하는 倭人과 加羅는 對新羅관계에 있어서 공통된 입장에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신라는 진한 24국 중 1국이었다.

鈴木英夫씨【1996】가 밝히듯이 <新羅本紀>에 편년된 신라와 倭, 倭人, 倭國과의 관계기사는 ≪後漢書≫ 東夷傳에서 보이는 倭國과 韓의 기사에서 촉발되어 신라와 倭國의 通交를 구상했던 기사가 있다.

【BC 1세기】

① ≪三國史記≫ 卷1·新羅本紀 '始祖赫居世八年(BC50년)倭人行兵. 欲犯辺. 聞始祖有神德. 乃還'
② 同 '始祖赫居世三十年(BC28년)夏四月己亥晦. 日有食之. 樂浪人將兵來侵. 見辺人夜戶不扃. 露積被野. 相謂曰. 此方民不相盜. 可謂有道之國. 吾儕潛師而襲之. 無異於盜. 得不愧乎. 乃引還'
③ 同 '始祖赫居世三十八年(BC20년)春二月. 遣瓠公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卞二韓. 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 對曰. 我國自二聖肇興. 人事修. 天時和. 倉庾充實. 人民敬讓. 自辰韓遺民. 以至卞韓樂浪倭人. 無不畏懷. 而吾王謙虛. 遣下臣修聘. 可謂過於禮矣. 而大王赫怒. 劫之以兵. 是何意耶. 王憤欲殺之. 左右諫止. 乃許歸. 前此中國之人. 苦秦亂. 東來者衆. 多處馬韓東. 與辰韓雜居. 至是寖盛. 故馬韓忌之有責焉. 瓠公者未詳其族姓. 本倭人. 初以瓠繫腰. 度海而來. 故称瓠公'

【AD 1세기】

① ≪三國史記≫ 卷1·新羅本紀 '南解次次雄元年(AD4년)秋七月. 樂浪兵至. 圍金城數重. 王謂左右曰. 二聖棄國. 孤以國人推戴. 謬居於位. 危懼若涉川水. 今隣國來侵. 是孤之 不德也. 爲之若何. 左右對曰. 賊幸我有喪. 妄以兵來. 天必不祐. 不足畏也. 賊俄而退歸'
② 同 '南解次次雄十一年(AD14년)倭人遣兵船百艘. 掠海辺民戶. 發六部勁兵以禦之. 樂浪謂內虛. 來攻金城甚急. 夜有流星. 墜於賊營. 衆懼而退. 屯於閼川之上. 造石堆二十而去. 六部兵一千人追之. 自吐含山東. 至閼川. 見石堆. 知賊衆乃止'
③ 同 '南解次次雄十六年(AD19년)春二月. 北溟人耕田. 得濊王印, 獻之'
④ 同 '儒理尼師今十三年(AD36년)秋八月. 樂浪犯北辺. 攻陷朶山城'
⑤ 同 '儒理尼師今十四年(AD37년)高句麗王無恤襲樂浪滅之. 其國人五千來投. 分居六部'
⑥ 同 '儒理尼師今十七年(AD40년)秋九月. 華麗不耐二縣人連謀. 率騎兵犯北境. 貊國渠帥以兵要曲河西敗之. 王喜與貊國結好'

⑦ 同 '脫解尼師今, 一云吐解. 時年六十二. 姓昔. 妃阿孝夫人.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有娠. 七年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 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 以帛裹卵幷寶物. 置於櫃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辺. 金官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BC19년)也. 時海辺老母. 以繩引繫海岸. 開櫃見之. 有一子兒在焉. 其母取養之. 及壯身長九尺, 風神秀朗. 智識過人. 或曰. 此兒不知姓氏. 初櫃來時. 有一鵲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 又解韞櫃而出. 宜名脫解. 脫解始以漁釣爲業. 供養其母. 未嘗有懈色. 母謂曰. 汝非常人. 骨相殊異. 宜從學以立功名. 於是專精學問. 兼知地理. 望楊山下瓠公宅. 以爲吉地. 設詭計. 以取而居之. 其地後爲月城. 至南解王五年(AD8년). 聞其賢. 以其女妻之. 至七年(AD10년). 登庸爲大輔. 委以政事. 儒理將死曰. 先王顧命曰. 吾死後無論子壻. 以年長且賢者繼位. 是以寡人先立. 今也宜傳其位焉'

⑧ 同 '脫解尼師今三年(AD59년)夏五月. 與倭國結好交聘'

⑨ 同 '脫解尼師今八年(AD64년)秋八十月. 百濟遣兵攻蛙山城. 冬十月. 又攻狗壤城. 王遣騎二千擊走之'

⑩ 同 '脫解尼師今十年(AD66년)百濟攻取蛙山城. 留二百人居守. 尋取之'

⑪ 同 '脫解尼師今十四年(AD70년)百濟來侵'

⑫ 同 '脫解尼師今十七年(AD73년)倭人侵木出島. 王遣角干羽烏禦之. 不克. 羽烏死之'

⑬ 同 '脫解尼師今十八年(AD74년)秋八月. 百濟寇辺. 遣兵拒之'

⑭ 同 '脫解尼師今二十一年(AD77년)秋八月. 阿飡吉門與加耶兵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飡. 賞功也'

⑮ 同 '婆娑尼師今六年(AD85년)春正月. 百濟犯辺'

⑯ 同 '婆娑尼師今八年(AD87년)秋七月. 下令曰. 朕以不德有此國家. 西鄰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繕葺城壘. 以待侵軼'

⑰ 同 '婆娑尼師今十五年(AD94년)春二月. 加耶賊囲馬頭城. 遣阿飡吉元. 將騎一千擊走之. 九月. 加耶人襲南鄙. 遣加(召)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 出戰負之. 虜獲甚多'

⑱ 同 '婆娑尼師今十七年(AD96년)九月. 加耶人襲南鄙. 遣加(召)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 出戰負之. 虜獲甚多'

⑲ 同 '婆娑尼師今十八年(AD97년)春正月. 擧兵欲伐加耶. 其國主遣使請罪. 乃止'

제2절 AD 2세기~3세기의 일한관계

1. 중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관계

4郡설치 후의 1세기 동안 韓, 倭, 濊, 貊 및 고구려는 樂浪郡을 통하여 조공하고 邑君의 칭호와 印綬를 얻어 朝謁하고 또 內附하는 者가 있었다. 그런데 樂浪郡 혹은 郡을 통하는 後漢 왕조와의 通交관계는 2세기에도 이어지지만 다른 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郡縣지배에 대한 저항이다. 고구려와 부여는 玄菟郡과 遼東郡에 대하여 通交와 공

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상의 대응을 취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遼東郡을 공격하고 또 濊, 貊과 함께 玄菟郡과 樂浪郡下의 華麗縣을 공격했던 적도 있다(AD 118).

2세기 후반 後漢의 중앙정권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는 郡縣에 속해 있던 주변 諸민족에 대한 통제에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諸민족 내부의 지배층 사이에 자립을 촉진시키게 된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의하면 고구려 왕가의 장자인 拔奇와 小子인 伊夷模가 대립하여 209년에는 伊夷模가 新國을 건설하고 拔奇가 遼東으로 도망가게 되는 내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三國志≫ 卷30·魏書·韓傳에는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桓靈之末(146~189년)'에 韓과 濊가 강성해져서 郡縣이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사태 속에서 郡縣의 民은 '韓國'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 郡縣의 民이 그 農工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韓國'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한 사태는 '韓의 國'내의 정치사회에 소국가적 사회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郡縣지배에 대응하는 韓族과 高句麗族의 동향은 왕권의 성장과 그에 대한 각 씨족의 집중을 통한 국가형성의 일단계라고 봐야 할 것이고, 이런 동향은 바다를 건너 倭國에서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사료⑫에서 볼 수 있듯이 倭國의 내란과 여왕 卑弥呼가 추대되기에 이르는 동향은 後漢 말의 왕조 중앙의 혼란과 한반도 남북에 있어서의 왕권의 성장과정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광범위한 연쇄라고 봐야 한다【池田 1998】. 倭國에서의 왕권의 성장이 한반도의 동향과 동떨어져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卑弥呼의 시대에도 분명하다. 그것은 그때까지 연면히 계속되어 온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 일체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AD 2세기】

① ≪後漢書≫ 卷85·東夷·高句驪 '和帝元興元年(105)春, 復入遼東, 寇略六縣, 太守耿夔, 擊破之, 斬其渠帥'

② 同 卷 5·安帝紀 '永初三年(109)春, 高句驪遣使貢獻'

③ ≪後漢書≫ 卷85·東夷·夫餘 '安帝永初五年(111), 夫餘王始將七八千人, 寇鈔樂浪, 殺傷吏民, 後復歸附'

④ ≪後漢書≫ 卷85·東夷·高句驪 '永初五年(111), 宮(太祖王)遣使貢獻, 求屬玄菟'

⑤ ≪後漢書≫ 卷85·東夷·高句驪 '元初五年(118), 復與濊貊寇玄菟, 攻華麗城'

⑥ 同 安帝紀 '建光元年(121년)春正月, 幽州刺史馮煥, 率二郡太守討高句驪, 穢貊, 不克. ○夏四月, 穢貊復與鮮卑寇遼東, 遼東太守蔡諷, 追擊戰沒. ○冬十二月, 高句驪·馬韓·穢貊, 囲玄菟城. 夫餘王遣子, 與州郡幷力討破之'

⑦ 同 安帝紀 '延光元年(122)春二月, 夫餘王遣子, 將兵救玄菟, 擊高句驪·馬韓·穢貊破之, 遂遣使貢

獻. 秋七月, 高句驪降'

⑧ ≪三國志≫ 卷30·魏書·高句麗 '宮死, 子伯固立. 順桓之間(126~167), 復犯遼東, 寇新安居鄕, 又攻西安平, 於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後漢書≫ 卷85·東夷·高句驪 '遂成死, 子伯固立. 其後濊貊率服, 東垂少事. 順帝陽嘉元年(132), 置玄菟郡屯田六部. 質桓之間(146~167)復犯遼東西安平,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⑨ 同 卷30·魏書·高句麗 '靈帝建寧二年(169),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熹平中(172~178)伯固乞屬玄菟'

⑩ 同 卷30·魏書·韓 '桓靈之末(146~189년)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196~220년)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 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 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⑪ 同 卷30·魏書·高句麗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大加優居, 主簿然人等, 助度擊富山賊, 破之'

⑫ 同 卷30·魏書·倭人 '其國本亦以男子爲王, 住七八十年, 倭國亂, 相攻伐歷年, 乃共立一女子爲王, 名曰卑彌呼, 事鬼道, 能惑衆, 年已長大, 無夫壻, 有男弟佐治國'(≪後漢書≫ 卷８５·東夷·倭傳 '桓靈間(146~189년), 倭國大亂, 更相攻伐, 歷年無主, 有一女子, 名曰卑彌呼')

⑬〔'中平□年(184~189) '銘環頭大刀·'中平□年五月丙午造作文刀百練淸剛上應星宿□□□□'·奈良縣天理市東大寺山古墳出土〕

이러한 郡縣 내의 유력세력의 성장은 郡縣통치와 알력을 낳기에 이른다.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韓에는 "桓, 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196~220년),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 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이라고 하고 있어서, 2세기 후반의 '桓靈之末' 즉 後漢의 桓帝(147~168년)와 靈帝(168~189년) 代에는 韓族과 濊族이 정치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黃巾의 亂으로 대표되는 後漢왕조의 혼란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樂浪郡과 그 屬縣의 통제에서 韓濊가 이탈하여 韓族의 '國', 즉 3세기에 그 상세한 내용이 魏王朝에 알려지는 樂浪郡의 남쪽에 접한 삼한의 땅에 郡縣에서 유입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2세기에는 後漢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자 그 주변의 郡縣에도 변동이 생겨나 遼東 방면에서는 玄菟郡의 小吏에서 입신한 公孫度가 遼東郡을 거점으로 자립된 정권을 세웠다. 公孫度는 바다를 건너 山東半島까지도 확보하고 스스로를 '遼東公平州牧'이라 칭하고 반도지역으로 진출하여 樂浪郡을 거두어 '遼東'의 '王'이라 할 만한 지방정권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아들인 公孫康은 樂浪郡 남부에 帶方郡을 개설하여 '政權'의 위세를 떨쳤기 때문에 韓과 倭의 諸소국들은 帶方郡에 왕성하게 通交해 왔다.

後漢 말의 혼란으로 인해 遼東을 거점으로 하여 자립한 公孫씨는 建安中(196~220년)에 樂浪郡 치하의 屯有縣 이남의 땅에 새롭게 帶方郡을 설치하고 한반도 중·남부에 대한 郡縣지배를 재편하고 그 강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公孫康은 公孫模와 張敞 등을 파견

하여 옛 郡縣의 유민을 모아 兵을 일으켜 韓과 濊를 토벌했기 때문에 公孫씨의 무위를 두려워한 韓族과 倭族은 帶方郡에 '屬'하기로 한다. 帶方郡의 治所는 오늘날의 黃海北道 鳳山郡 智塔里토성으로 比定되는데 이 郡에 '屬'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관계인 종속자세를 중심으로 한 通好와 이에 부수되는 경제·문화적 교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公孫씨의 樂浪·帶方 2郡지배가 오래가지는 못했다. 魏 明帝는 公孫씨가 3代에 걸쳐 遼東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東夷諸族의 魏로의 通好가 두절된 정황을 탐탁해하지 않아 東夷에 이르는 魏의 국제관계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景初中(237~239년)에 帶方郡 太守 劉昕과 樂浪郡 太守 鮮于嗣에게 군을 이끌고 公孫淵를 토벌하게 하여 樂浪·帶方 2郡을 魏의 동방정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公孫씨로부터 탈환했다(≪三國志≫ 卷30·東夷傳序 및 韓傳).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 韓 諸國의 수장인 '臣智'層은 2郡을 통하여 魏왕조에게서 '邑君'의 칭호와 그 '印綬'를, 그리고 次位인 首長은 '邑長'의 칭호와 그 印綬를 받았다. 이렇게 '印綬'를 몸에 지닌 자는 韓族사회에서는 '千有余人'에도 올랐다고 한다. 魏의 樂浪郡과 帶方郡을 기점으로 한 동방정책은 한층 더 韓族사회, 나아가 倭사회에 침투하여 그 정치사회에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반도지역의 극적인 변동과 중국 왕조의 정치력과 문화적인 힘 앞에 고구려, 穢貊과 韓, 倭가 재빨리 대응해 간다. 魏가 246년(正始7)에 幽州刺史인 毋丘儉의 군을 파견하여 고구려에 큰 타격을 줘 고구려의 세력을 약화시키자 韓과 倭는 활발하게 魏에 通貢하고 있다. 倭의 여왕이 大夫인 難升米 등을 郡에 보내어 天使에게 朝獻하기를 요청하자 郡의 太守였던 劉夏가 倭의 使者를 京都(洛陽)까지 배웅했는데 이런 倭王의 적극적인 대응은 韓 諸國이 魏의 慰撫를 얻어 魏의 2郡에게 앞 다투어 通交하고 있었던 것이 배경이다. (【사료】 참조)

【AD 3세기 전반】

① ≪三國志≫ 卷30·東夷傳序 '公孫淵仍父祖三世, 有遼東, 天子爲其絶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景初中(237~239), 大興師旅誅淵, 又潛軍浮海收樂浪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② ≪三國志≫ 卷30·東夷·韓傳 '景初中(237~239),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 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余人. 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 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③ 同倭人傳 '景初三年(239년)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使朝獻, 太守劉夏遣吏將送詣京都. 其年十二月, 詔書報倭女王曰…중략…今以汝爲親魏倭王, 假金印紫綬…후략…'
④ 同倭人傳 '正始元年(240년), 太守弓遵遣建忠校尉梯儁等奉詔書印綬詣倭國, 拜假倭王, 幷齎詔賜金, 帛, 錦罽, 刀, 鏡, 采物, 倭王因使上表答謝詔恩'
⑤ 同倭人傳 '其四年(243년), 倭王復遣使大夫伊聲耆, 掖邪狗等八人, 上獻生口, 倭錦, 緯青縑, 緜衣, 帛布, 丹木□(犭+付), 短弓矢. 掖邪狗等壹拜率善中郎將印綬'
⑥ 同倭人傳 '其六年(245년), 詔賜倭難升米黃幢, 付郡假授'
⑦ 同濊傳 '正始六年(245년)樂浪太守劉茂, 帶方太守弓遵以遼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擧邑降'
⑧ ≪三國志≫ 卷4·魏書·三少帝紀4(齊王芳) '(正始)七年(246년)春二月, 幽州刺史毋丘儉討高句驪,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 各率種落降'
⑨ 同濊傳 '其(正始)八年(247년),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⑩ 同倭人傳 '其(正始)八年, 太守王頎到官. 倭女王卑彌呼與狗奴國男王卑彌弓呼素不和, 遣倭載斯, 烏越等詣郡說相攻擊狀. 遣塞曹掾史張政等因齎詔書, 黃幢, 拜假難升米爲檄告喩之. 卑彌呼以死, 大作冢, 徑百餘步, 狗葬者奴婢百餘人. 更立男王, 國中不服, 更相誅殺, 當時殺千餘人. 復立卑彌呼宗女壹與, 年十三爲王, 國中遂定. 政等以檄告喩壹與, 壹與遣倭大夫率善中郎將掖邪狗等二十人送政等還, 因詣臺, 獻上男女生口三十人, 貢白珠五千, 孔青大句珠二枚, 異文雜錦二十匹'
⑪ ≪三國志≫ 卷4·魏書·三少帝紀4(陳留王奐) '(景元)二年(261년)秋七月, 樂浪外夷韓, 貊各率其屬來朝貢'

樂浪·帶方 2郡이 魏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東夷의 諸族들은 魏에 '굴복'하는 자세를 취했다. 246년에 魏가 幽州刺史인 毋丘儉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따르자면 이 때 고구려의 수도 丸都城은 함락되었고 왕은 南沃沮의 땅으로 도피하고 있다.

이 고구려의 대패배는 단순히 패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을 남쪽으로 촉진시켰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매장문물에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韓과 倭가 활발하게 樂浪·帶方 2郡으로 通貢하고 나아가 魏의 수도 洛陽에도 通交하게 된다.

이보다 이전인 239년에는 倭의 大夫인 難升米 등이 帶方郡에 도착했고, 또 洛陽에까지 배웅을 받고, 다음 해에는 倭國이 魏의 使者를 맞이하여 金印紫綬 등을 받았고, 243년에는 大夫인 伊聲耆, 掖邪狗 등 8명이 魏에 사자로 보내진다.

魏의 고구려 공격 다음 해인 247년에는 倭國王 卑弥呼가 倭의 狗奴國王과 서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帶方郡에 호소하는데, 이에 대해 魏는 參謀에 해당하는 塞曹掾史 張政을 보낸 정도이지만, 이러한 열도의 전쟁도 魏의 동방원정과 고구려의 패배와 반도지역의

동향에 대응하는, 열도지역의 권력집중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일 것이다.

이런 중앙과 동떨어진(僻遠) 倭國王이 魏의 帶方郡에 대해 通交하고 그리고 洛陽에도 가서 '金印紫綬' 등을 받은 배경에는 중국본토에서는 魏가 남쪽의 吳와 대립하고 있었고 지리적으로 그 吳를 견제할 수 있는 곳에 倭國이 있다는 인식에서 倭國을 높이 평가한 것도 있을 것이다【金子 1998】. 또 倭國이 帶方郡에 왕성하게 通交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樂浪·帶方 2郡이 魏에 접수된 것과 魏로부터 '邑君' '邑長'의 印綬를 받은 韓族사회의 씨족장인 '臣智'層이 이미 魏에게 臣從하고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倭國使를 帶方郡과 洛陽으로 안내하는 작용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魏가 晋왕조로 교체된 다음 해인 266년에 倭國使가 '重譯'하여 入貢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례이다.

이 韓과 倭가 왕성하게 帶方郡과 樂浪郡에 通交하는 관계는 265년에는 司馬炎이 魏를 대신하여 晋을 개국한 후에도 계속된다.

【AD 3세기 후반】

① ≪晋書≫ 卷3·武帝 '泰始二年(266)十一月己卯, 倭人來獻方物'
〔≪晋書≫ 卷97·東夷·倭人傳 '泰始初, 遣使重譯入貢'〕
〔'晋起居注云, 武帝泰初二年十月, 倭女王遣重譯貢獻'(≪日本書紀≫ 卷 9·神功皇后攝政66年)〕

② ≪晋書≫ 卷3·武帝 '咸寧二年(276)二月, 東夷八國歸化. 七月, 東夷十七國內附'·同 '咸寧三年(277), 是歲, 西北雜虜及鮮卑, 匈奴, 五溪蛮, 東夷三國, 前後千余輩, 各帥種人部落內附'

③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咸寧三年(277), (馬韓)復來'
·≪晋書≫ 卷3·武帝 '咸寧四年(278)三月, 東夷六國來獻. 是歲, 東夷九國內附'

④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咸寧四年(278), (馬韓)請內附'
·≪晋書≫ 卷3·武帝 '太康元年(280)六月甲申, 東夷十國歸化. 七月, 東夷二十國朝獻'〔280년, 晋이 吳를 멸망시킴〕

⑤ ≪晋書≫ 卷97·東夷·馬韓傳 '武帝大康元年(280)·二年(281), 其主頻遣使入貢方物. 七年(286), 八年, 十年(289), 又頻至'

⑥ 同東夷·辰韓傳 '武帝太康元年(280), 其王遣使獻方物'
·≪晋書≫ 卷3·武帝 '太康二年(281)三月, 東夷五國朝獻. 夏六月, 東夷五國內附'

⑦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康二年(281), 其主遣使入貢方物'

⑧ 同東夷·辰韓傳 '太康二年(281), (辰韓)復來朝貢'
≪晋書≫ 卷3·武帝 '太康三年(282)九月東夷二十九國歸化, 獻其方物'

⑨〔≪晋書≫ 卷36·張華傳'乃出張華爲持節都督幽州諸軍事領護烏桓校尉安北將軍, 撫納新旧, 戎夏懷之. 東夷馬韓新彌諸國, 依山帶海, 去州四千余里, 歷世未附者二十余國, 竝遣使朝獻, 於是遠夷賓服, 四境無虞頻歲豊稔, 士馬彊盛. 朝議欲徵華入相, 又欲進号儀同'〕

⑩ ≪晋書≫ 卷3·武帝 '太康七年(286)八月東夷十一國內附. 是歲, 馬韓等十一國遣使來獻'

⑪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康七年(286), (馬韓)至'

⑫ 同東夷·辰韓傳 '太康七年(286), (辰韓)又來'

·≪晋書≫ 卷3·武帝 '太康八年(287)八月東夷二國內附'
⑬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康八年(287), (馬韓)至'
·≪晋書≫ 卷3·武帝 '太康九年(288)九月東夷七國, 詣校尉內附'
·同'太康十年(289)五月鮮卑慕容廆來降, 東夷十一國內附. 是歲, 東夷絶遠三十余國, 西南夷二十余國來獻'
⑭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康十年(289), (馬韓)至'
·≪晋書≫ 卷3·武帝 '太熙元八年(290)二月辛丑, 東夷七國朝貢'
⑮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熙元年(290), (馬韓)詣東夷校尉何龕上獻'
·≪晋書≫ 卷4·惠帝 '(元康元年)是歲(291)東夷十七國, 南夷二十四部, 竝詣校尉內附'

3세기 후반의 韓 諸國과 倭가 2郡과 洛陽에 通交하는 동향을 전하는 ≪晋書≫는, 646년에 唐의 房玄齡 등이 太宗황제의 칙을 받들어 편찬한 正史이다. 당해 시대부터 300년 정도 후에 편찬된 것이지만 逸書의 각종 ≪晋書≫를 바탕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東夷傳이 너무 간략하다고는 하지만 通交의 경향은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東夷'의 복수국들이 西晋에 通交했던 것은 '東夷六國來獻' 등으로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東夷馬韓新彌諸國'과 같이 ≪三國志≫ 韓傳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 마한의 '新彌國'이 보인다. 마한과 진한 내에서 소국이 왕성하게 通交했던 배경으로는 幽州都督인 張華가 東夷에 대하여 실시했던 慰撫策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에 반응하여 韓 내부의 각 소국들에서는 정치사회의 변화가 태동하고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倭國이 西晋에 通交했던 기사는 266년의 '重譯'에 의한 조공례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데 倭國이 西晋에 通交한 것이 이 한번뿐이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마한 諸國의 안내를 받아 入貢이 가능했던 것은 '重譯'이라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어서 '東夷'의 십여 국의 通交 중에는 倭國을 구성하는 지역 내의 한 세력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前代의 倭가 마한 '臣智'層의 안내를 받아 帶方郡에 通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두절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2. 한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교류

2~3세기 반도와 열도지역의 교류에 대해서 이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韓國史 중에서 현존하는 最古의 편찬역사서인 ≪三國史記≫가 그 대상이 된다. 이 사서에

도 2~3세기에 상당하는 시대의 열도지역의 정치사회체는 '倭' '倭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기록은 아래와 같다. 倭, 倭人이 신라와 관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신라와 다른 세력과의 관계와 연동되고 있다는 배경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기록도 아래에 같이 소개한다.

【AD 2세기】

① ≪三國史記≫ 卷1·新羅本紀 '(婆娑尼師今)二十六年(AD105년)春正月. 百濟遣使請和'
② 同 '婆娑尼師今二十七年(AD106년)秋八月. 命馬頭城主伐加耶'
③ 同 '婆娑尼師今二十九年(AD108년)夏五月. 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幷之'
④ 同 '祇摩尼師今四年(AD115년)春二月. 加耶寇南辺. 秋七月. 親征加耶. 帥步騎, 度黃山河. 加耶人伏兵林薄, 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囲數重. 王揮軍奮擊. 決囲而退'
⑤ 同 '祇摩尼師今五年(AD116년)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継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乃還'
⑥ 同 '祇摩尼師今十年(AD121년)夏四月. 倭人侵東辺'
⑦ 同 '祇摩尼師今十一年(AD122년)夏四月. 大風東來, 折木飛瓦. 至夕而止. 都人訛言. 倭兵大來. 爭遁山谷. 王命伊飡翌宗等諭止之'
⑧ 同 '祇摩尼師今十二年(AD123년)春三月. 與倭國講和'
⑨ 同 '祇摩尼師今十四年(AD125년)春正月. 靺鞨大入北境. 殺掠吏民. 秋七月. 又襲大嶺柵. 過於泥河. 王移書百濟請救. 百濟遣五將軍助之. 賊聞而退'
⑩ 同 '逸聖尼師今四年(AD137년)春二月. 靺鞨入塞. 燒長嶺五柵'
⑪ 同 '逸聖尼師今六年(AD139年)八月. 靺鞨襲長嶺. 虜掠民口. 冬十月. 又來. 雷甚. 乃退'
⑫ 同 '逸聖尼師今七年(AD140년)春二月. 立柵長嶺. 以防靺鞨'
⑬ 同 '逸聖尼師今九年(AD142년)秋七月. 召羣公議征靺鞨. 伊飡雄宣上言不可. 乃止'
⑭ 同 '逸聖尼師今十三年(AD146년)冬十月. 押督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地'
⑮ ≪三國史記≫ 卷2·新羅本紀 '(阿達羅尼師今)五年(AD158년)春三月. 倭人來聘'
⑯ 同 '阿達羅尼師今十二年(AD165년)冬十月. 阿飡吉宣謀叛, 發覺. 懼誅亡入百濟. 王移書求之. 百濟不許. 王怒出師伐之. 百濟嬰城守不出. 我軍糧盡乃歸'
⑰ 同 '阿達羅尼師今十四年(AD167년)秋七月. 百濟襲破國西二城. 虜獲民口一千而去. 八月.命一吉飡興宣. 領兵二萬伐之. 王又率騎八千. 自漢水臨之. 百濟大懼. 還其所掠男女乞和'
⑱ 同 '阿達羅尼師今十七年(AD170년)冬十月. 百濟寇辺'
⑲ 同 '阿達羅尼師今二十年(AD173년)夏五月. 倭女王卑彌呼遣使來聘'
⑳ 同 '伐休尼師今五年(AD188년)春二月. 百濟來攻母山城. 命波珍飡仇道. 出兵拒之'
㉑ 同 '伐休尼師今六年(AD189년)秋七月. 仇道與百濟戰於狗壤. 勝之. 殺獲五百餘級'
㉒ 同 '伐休尼師今七年(AD190년)秋八月. 百濟襲西境圓山鄉. 又進囲缶谷城. 仇道率勁騎五百擊之. 百濟兵佯走. 仇道追及蛙山. 爲百濟所敗. 王以仇道失策. 貶爲缶谷城主. 以薛支爲左軍主'
㉓ 同 '伐休尼師今十年(AD193년)六月. 倭人大饑. 來求食者千餘人'
㉔ 同 '奈解尼師今四年(AD199년)秋七月. 百濟侵境'

【AD 3세기】

① ≪三國史記≫ 卷2·新羅本紀 '(奈解尼師今)十三年(AD208년)夏四月. 倭人犯境. 遣伊伐飡利音. 將兵拒之'
② 同「助賁尼師今三年(232)夏四月. 倭人猝至囲金城. 王親出戰. 賊潰走. 遣輕騎追擊之. 殺獲一千餘級.
③ 同 '助賁尼師今四年(233)五月. 倭兵倭東辺. 秋七月. 伊飡于老與倭人戰沙道, 乘風縱火焚舟, 賊赴水死盡'
④ 同 '沾解尼師今三年(249)夏四月. 倭人殺舒弗邯于老'
⑤ 同 '儒禮尼師今四年(287)夏四月. 倭人襲一禮部, 縱火燒之, 虜人一千而去'
⑥ 同 '儒禮尼師今六年(289)夏五月. 聞倭兵至, 理舟楫繕甲兵'
⑦ 同 '儒禮尼師今九年(292)夏六月. 倭兵攻陷沙道城, 命一吉飡大谷領兵救, 完之'
⑧ 同「儒禮尼師今十一年 (294) 夏. 倭兵來攻長峯城, 不克」
⑨ 同 '儒禮尼師今十二年(295)春. 王謂臣下曰, 倭人屢犯我城邑, 百姓不得安居, 吾欲與百濟謀, 一時浮海, 入擊其國, 如何. 舒弗邯弘權對曰, 吾人不習水戰, 冒險遠征, 恐有不測之危, 況百濟多詐, 常有呑噬我國之心, 亦恐難與同謀, 王曰, 善'
⑩ 同 '基臨尼師今三年(300)春正月. 與倭國交聘'

2세기에 비하여 3세기에는 倭와 관련된 기사가 늘어난다. '倭女王 卑彌呼'가 신라에게 '遣使하여 來聘'했다며 '阿達羅尼師今二十年(AD173년)夏五月'로 ≪三國史記≫에서는 편년한 것은 ≪三國志≫ 魏志·倭人傳의 기사를 반세기 정도 거슬러 올라가 편년에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新羅本紀>의 倭, 倭人기사에는 ≪三國志≫ 편찬의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라는 이미 진한 12국을 통합하여 신라국으로 성장하고, 또 '倭'國과는 '聘'交하는 대등한 외교를 추진했다고 편찬한 그 배경에는 '倭女王 卑彌呼'가 신라에 '遣使하여 來聘'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 배경에는 '倭女王 卑彌呼'가 魏황제로부터 '親魏倭王'으로 책봉되어 있었는데 신라는 아직 신라국으로서는 성립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倭女王 卑彌呼'와의 '聘'交관계를 2세기 중반에 맺었다고 가정함으로써 신라국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승인받았다고 하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3세기의 倭, 倭人이 신라를 침입했다고 하는 일련의 <新羅本紀>의 기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일찍이 津田左右吉씨는 <新羅本紀>의 倭 관계기사는 "사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津田 1966】라고 무시했지만, 최근 30년간은 오히려 이러한 기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이다.

旗田巍氏씨는 倭가 신라에 침입하는 계절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왜를 4, 5, 6월에 집중적으로 신라의 사람과 물건을 약탈하는 '계절적 해적집단'이라고 봤다【旗田 1973】. 즉 야마토정권 등 열도의 왕권이 발동한 침입이라고는 이해하고 있지 않다.

<新羅本紀>에서 보이는 倭의 신라침입기사는 침입을 당한 측의 기록이어서 침입을 발동하는 주체와 그 소재지 등의 기록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新羅本紀>의 倭 관계기사만을 봐서는 신라에 침입하는 倭의 세력범위에 대해 기사의 경향을 바탕으로 해적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정당하지는 않다. 또 그 발원지를 加羅에 있다든가【井上 1978】, 또 북부 九州라든가 아니면 백제계와 신라계 倭國이라고 해석하는 설【金 1969】도 隣接史料와 고고학적 견지와의 정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田中 1982년】.

【참고문헌】

·池田溫, 1998 <東洋學からみた『魏志』倭人傳>, 平野邦雄編 ≪古代を考える邪馬台國≫, 吉川弘文館, 池田溫, 2002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井上秀雄, 1978 <『日本書紀』の新羅傳說記事>, 井上秀雄≪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井上秀雄, 1991 <中國史書にみえる倭><朝鮮史書にみえる倭>, 井上秀雄≪倭·倭人·倭國－東アジア古代史再檢討－≫, 人文書院
·金子修一, 1998 <二·三世紀の東アジア世界>, 平野邦雄編 ≪古代を考える邪馬台國≫, 吉川弘文館
·金錫亨, 1969 ≪古代朝日關係史一大和政權と任那一≫ 後編 第5章 第1節 <朝鮮史料からみち五世紀までの朝日關係>, 勁草書房
·高寬敏, 1996 ≪『三國史記』の原典的硏究≫ <第二章新羅本紀の國內原典>, 雄山閣出版)
·鈴木英夫, 1996 <『三國史記』の倭關係記事>, 同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靑木書店, 첫 출간은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4号, 1985年
·西嶋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第3章 親魏倭王册封に至る東アジアの情勢－公孫氏政權の興亡を中心として－>, 東大出版會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 <序章·倭國の形成とその國際的契機 / 第一章·一～三世紀の東アジアと倭國 / 第二章·四～六世紀の東アジアと倭國>, 東大出版會
·武田幸男, 1990 <魏志東夷傳における馬韓> ≪馬韓·百濟文化≫ 第12号, 韓國·圓光大學校
·李賢惠, 1994 <三韓稅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일본어 번역은 金井塚良一譯,<三韓の對外交易体系> ≪東洋硏究≫ 第119号
·武田幸男, 1995～1996 <三韓社會における辰王と臣智> (上·下) ≪朝鮮文化硏究≫ 第2,3号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にみえる「倭」關係記事について> ≪歷史公論≫ 第8卷 第4号. 雄山閣
·津田左右吉, 1966 <三國史記の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新硏究≫, 津田左右吉全集別卷第一, 岩波書店
·旗田巍, 1973 <『三國史記』新羅本紀の「倭」>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9号
·李成市, 1998 <第一編樂浪郡設置と高句麗の國家形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木村誠, 1998 <倭人の登場と東アジア>, 平野邦雄編 ≪古代を考える邪馬台國≫, 吉川弘文館
·西嶋定生, 1999 ≪倭國の出現－東アジア世界のなかの日本－≫, 東大出版會
·大庭脩, 2001 ≪親魏倭王≫, 學生社, 增補初版

·堀敏一, 2006 <漢代の異民族支配における郡縣と册封>, 同 ≪東アジア世界の形成一中國と周辺國家一≫, 汲古書院
·堀敏一, 2006 <異民族支配からみた三國時代の位置>, 同 ≪東アジア世界の形成一中國と周辺國家一≫, 汲古書院

古代 王權의 成長과 韓日關係

－任那問題를 包含하여－

김태식(金泰植)

序論
제1장 高句麗와 百濟의 爭覇 및 新羅·加耶·倭의 動向
제1절 고구려·백제의 발전과 가야·왜의 교류
제2절 고구려와 백제의 쟁패 및 그 결과
제2장 高句麗의 南進과 百濟·加耶·新羅·倭의 抵抗
제1절 5세기 전반의 한반도와 일본열도
제2절 고구려의 팽창과 한반도 남부의 동향
제3절 왜 5왕의 작호와 백제의 호남 서부 지역 경략
제3장 百濟·倭의 連結과 新羅의 加耶 併合
제1절 가야를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경쟁
제2절 신라의 팽창과 가야의 소멸
제3절 소위 '임나일본부'의 성격
제4절 삼국의 정립과 왜
結論

【國文抄錄】

4~6세기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매우 활발한 성장의 시대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국제 조건을 이용하여 성장하였으며, 新羅·加耶·倭는 다시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문화를 전수받으며 성장하였다. 그 시기에 대한 한일관계사는 加耶史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4세기에 들어와 고구려와 백제는 율령과 불교 등을 토대로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고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군사적 대결을 벌였으며, 한반도 남부의 신라와 가야는 그에 부수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였다. 일본열도에서는 河內를 중심으로 한 왜 왕권이 가야를 매개로 하여 백제와 교류하게 되었다.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倭賊' 또는 '倭寇'는 일본 畿內 大和 세력의 파견군이되, 그들은 가야 및 백제의 의도에 따라 對新羅 戰線이나 고구려와의 전쟁에 투입되기도 하였

으며, 그 실상은 가야 – 왜 연합군이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하자, 백제는 낙동강 유역을 중개기지로 하는 대왜 교역망을 상실하게 되었고, 김해의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은 큰 타격을 입고 해체되었다.

5세기에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중추적 중개교역자로 성장하여 한강 이남에 대한 南進政策을 추진하였고, 백제는 신라, 가야 등과 동맹을 맺고 이를 막아냈으며, 그런 과정에서 신라는 고대국가를 성립시켰다. 가야 지역은 고구려 – 신라 연합군의 任那加羅 정벌 이후 큰 타격을 입고 약화되었으나, 고령의 伴跛國은 철광산을 개발하며 발전하여 大加耶로 국명을 바꾸고 후기 가야연맹을 건립하였다.

5세기 이후 일본열도에는 가야로부터 援助工人과 流亡民, 즉 가야계 이주민이 들어와 철제 갑주, 마구, 도질토기 등 선진문물이 보급되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한반도와 왜의 교역은 김해를 대신하여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계속되어나갔다. ≪宋書≫ 倭國傳에 나오는 왜 5왕의 七國諸軍事號로 보아, 그들은 한반도 남부를 군사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권리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듯하나, 그것은 왜왕의 의도일 뿐 실효성이 없는 행위였다.

6세기에 들어 백제는 한강에 이르는 영토를 회복하고 가야 세력권에 있던 '任那 4縣', 즉 호남 동부의 섬진강 유역을 점령하였으며, 신라는 율령 반포, 불교 공인 등을 통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하였다. 대가야는 백제와의 대결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여 초기 고대국가를 성립시켰으나, 결국은 신라에게 병합되었다.

백제는 왜에 오경박사와 승려들을 보내 유학과 불교 등을 전수하였으니,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대 한일 교류의 패턴은 기존의 百濟 – 加耶 – 九州倭 – 近畿倭를 거치는 형식으로부터 百濟 – 近畿倭로 직결되는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日本書紀≫에 보이는 '任那日本府'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나 지배설이 퇴조하고 백제나 가야와의 외교나 교역을 중시하는 설로 바뀌었으며, 그 용어도 사실에 가까운 安羅倭臣館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 高句麗, 百濟, 新羅, 加耶, 倭, 廣開土王陵碑文, 倭五王, 任那日本府

序 論

4~6세기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매우 활발한 성장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중국은 오호십육국시대를 거쳐 남북조시대로 정비되어, 만리장성 안에서 중국인 한족과 이방인 호족이 함께 공존하면서 민족적, 문화적 융합을 이루었다. 북쪽에서는 새로운 통치자로 대두한 胡族이 한족의 체제와 문화를 수용하면서 중국화되었고, 남쪽에서는 북쪽에서 이동한 중국계 僑民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중원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였다.[1)]

그 시기에 北魏는 남쪽으로 南朝 국가들과 대결하고 북쪽으로 유목제국인 柔然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동방의 강국인 高句麗의 독자적 세력권을 확인해주고 상호 교역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였고, 남조의 東晉·宋·濟·梁 등은 북위와의 대결을 치르면서 百濟와 활발하게 교역하며 때로는 고구려와의 교섭도 마다하지 않았다. 고구려와 백제는 이러한 국제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성장하였으며, 그 외곽의 新羅·加耶·倭는 다시 고구려와 백제의 대결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문화를 전수받으며 국가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에 고구려·백제·가야·신라라는 4개의 문화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반도처럼 분명하지는 않지만 일본열도에도 다원적인 문화 중심들이 성립하여 있었기 때문에, '한일관계'라는 단순한 용어 아래 그들 사이의 국제관계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한국사 연구자들은 평소에 일본열도를 염두에 둔 연구 전통이 거의 없어서, 4~6세기의 한일관계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일본사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듯하다. 일본 고대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中國史書의 倭人傳이나 ≪三國史記≫에 보이는 왜인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고대사학계에서는 한일 또는 중일관계사에 대한 연구 전통이 깊다. 또한 사료적 신빙성의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日本書紀≫의 해당 시기 기사들은 상당수가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도 풍부하다. 즉, 일본의 고대사 연구는 그 자체가 한일관계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가 아무리 두텁다고 해도 이는 다분히 自國民들만을 위한 설명 체계였고, 그것이 상대국인 他國民까지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

1)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硏究≫ (一潮閣)

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중에서 과거 일부의 연구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 또는 경영의 대상으로 삼아 고대로부터 일본의 우월성을 선양하기도 하였다.[2] 근래에 들어 일본 고대사는 고고학적 발굴과 금석문·목간 연구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객관성을 높여가고 있지만, 과거의 편린은 아직도 일본의 여러 개설서와 교과서에 남아 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는 분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하다. 얼마간의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任那日本府說'의 설명 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부정을 반복하거나, 혹은 ≪日本書紀≫ 기사의 주어를 대부분 왜왕이 아닌 백제왕으로 바꾸어 보아야 한다든가,[3] 거기 나오는 백제·신라·가야 등은 한반도가 아닌 일본열도에 있던 分國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4] 같은 극단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대 한일관계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6세기의 가야에 대한 선입견이다. 이제 한일 양국의 고대사 연구자들 사이에는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한다고 公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5] 임나일본부설은 20세기 전반기를 거치면서 ≪日本書紀≫, ≪宋書≫ 倭人傳, 廣開土王陵碑文 등의 검토를 통하여 뒷받침된 당시의 학문적 성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본의 조선 침략 및 식민지주의를 긍정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6] 그것이 21세기인 지금에 와서 설득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이의 의견이 합일되어 부정하는 것은, 4세기 후반에 왜군이 가야 지역을 군대로 정벌한 후에 이를 지배하였고 그 통치기관으로서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논리일 뿐이다. 그 가설을 부정한다고 공언해도, 그와 비슷한 기조를 바탕으로 가야를 바라보는 시각, 즉 가야를 경시하는 논리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7]

그리하여 최근의 연구에서도 왜군이 4세기 후반에 가야를 정벌하지는 않았지만 6세기

---

2)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1956 再版, (吉川弘文館)

3)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 上·中·下 ≪문학과 지성≫ 28·29·31;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4) 金錫亨,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1988 ≪초기조일관계사 (하)≫ (사회과학출판사)

5) 구체적인 연구사에 대해서는, 본고 제3장 제3절 참고.

6) 山崎雅稔, 2002 <廣開土王時代の高句麗の南進と倭王權の展開> ≪廣開土太王과 高句麗 南進政策≫ 高句麗研究會 編, (學研文化社) 97

7) 金泰植, 2004 <加耶史輕視論への批判>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566

전반에 가야는 백제와 신라 등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서 왜국에 구원 요청을 하였으므로 그 후로 가야는 왜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거나,[8] 혹은 그 이전에도 가야 지역은 그런 논리의 연장으로 어느 정도 왜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9] 이런 인식들을 정리해 본다면, 가야는 鐵資源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소국들로 분립되어 있어서 힘이 약했고, 그래서 일본 大和朝廷에 대하여 의존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 가야 지배 기구로서의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권이 가야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自己中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탓할 수 없다. 사료가 부족한 고대사의 특성상, 주변의 어떤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역사의 전개 상황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위배된다면 곤란하다.[10]

어떤 사람들은 가야는 소국들이 分立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하지 못해 힘이 약하였고 하나의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서양 중세의 봉건국가들은 중앙집권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 시대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그리스가 소국으로 분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세력들의 강한 영향력 또는 지배 아래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당연시 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세력의 실체와 여건 및 기능이다.

늦어도 3세기 이후로 가야연맹은 고구려·백제·신라와 관계를 맺을 때 대외적으로 하나의 정치체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 축적을 토대로 삼아 대외적으로 고대국가와 같은 면모를 보여 479년에 중국 南齊로부터 책봉을 받기도 하였고, 후술하듯이 510년대의 대가야는 북부 가야 지역을 포괄하는 초기 고대국가를 형성했다. 가야연맹이 아무리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이들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4세기부터 6세기까지 300년간의 역사를 제대로 구성할 수 없다.

그리하여 실로 고대사 분야에서는 加耶史를 둘러싼 韓日關係史의 상호 반성 및 연구 진작을 위하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성립된 것이 아닐까 한다. 제1기 3년간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고 진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로 상대방 연구자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4~6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학설사를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논하는 장편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11] 고대사를 담당한 제1분과의 제1기 연구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

8)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上·中·下 ≪古代文化≫ 32-9·11·12 (古代學協會, 京都) ; 1999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吉川弘文館, 東京)
9) 鈴木英夫, 1996 ≪古代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10) 金泰植, 2004 <앞 논문> 566~567

더라도, 기존의 한일관계에 대한 편견을 일부 불식시키고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음은 분명하다. 즉 4~6세기에 왜군의 가야 정복이나 지배는 없었으며 근래에 전문 연구자로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 다시 동의하였다.[12]

그러나 그 연구들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복잡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과서나 개설서 집필자들을 위한 지침이 되지 못한 듯하다. 이런 반성에 바탕을 두고 제1분과의 제2기 연구위원들은 좀 더 넓은 시기에 걸쳐 개설적인 서술에 바탕을 둔 한일관계사를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도 양국의 연구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전문성도 잃지 말고, 집필자 자신의 판단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러한 취지 아래 작성되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고대사에서 4~6세기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 4국의 왕권이 상호 갈등 속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시대였으며, 그러한 점은 왜의 왕권도 다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시기에는 지배층들의 고분에 부장품을 많이 묻는 시기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도 너무 많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국경을 넘어 왕래하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移民者들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온전한 한일관계사라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정리해야 할 것이나, 이것은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고 또 필자의 능력에는 그런 여력도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4~6세기 한반도와 일본열도 각 정치세력 사이의 관계를 왕권 성장과 관련하여 개관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4~6세기 한일관계에서 주요 쟁점을 이루고 있던 任那問題는 사료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학설의 연구 동향까지 포함하려고 한다.

본고의 제1장에서는 4세기의 한일관계를 정리한다. 이 시기는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시아에서 성장이 가장 앞섰던 고구려와 백제가 왕권 강화에 따른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하면서 그 둘이 4세기 후반에 패권을 다투고, 그에 따라 신라, 가야, 왜 등의 주변 세력이 여기에 휘말리는 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에 더하여 임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神功 49년조 기사 및 광개토왕릉비문의 해석에 대한 연구 성과를 포함할 것이다.

그에 이어 제2장에서는 대체로 5세기의 한일관계를 정리한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백제·가야·신라가 연합하여 이에 대항하는 국제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 남하의 위기 속에서 백제가 한 차례 좌절의 위기를 겪고 신라와 가야가 그 와중에 왕권 강화를 이룩하는 과

1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1권 ; 日韓歷史共同研究委員會, 2005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 第1分科篇≫ (韓歷史共同研究委員會, 東京)

12) ≪위 책≫ 437~443 ; 日本語版, 311~313

정도 검토한다. 이 당시의 왜는 가야의 제세력들과 교역하기도 하고 한반도 남부로부터의 유망민을 수용하면서 고대국가 형성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일단의 왕권 강화도 이룩하였다. 왜 5왕이 중국 宋에 요구한 諸軍事號와 왜왕 武 상표문에 대한 이해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6세기의 한일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는 백제가 부흥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외교를 주도하고, 신라가 그동안의 문화적 축적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역사 전개의 핵이었다고 보인다. 그에 따라 가야 제국이 일시적인 제도 정비를 이루었다가 결국은 몰락하고, 왜는 고급 정신문화를 수용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의 ≪日本書紀≫ 欽明朝 기록에 나오는 이른바 '任那日本府'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부정적 한일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임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13]

제1장 高句麗와 百濟의 爭覇 및 新羅·加耶·倭의 動向

제1절 고구려·백제의 발전과 가야·왜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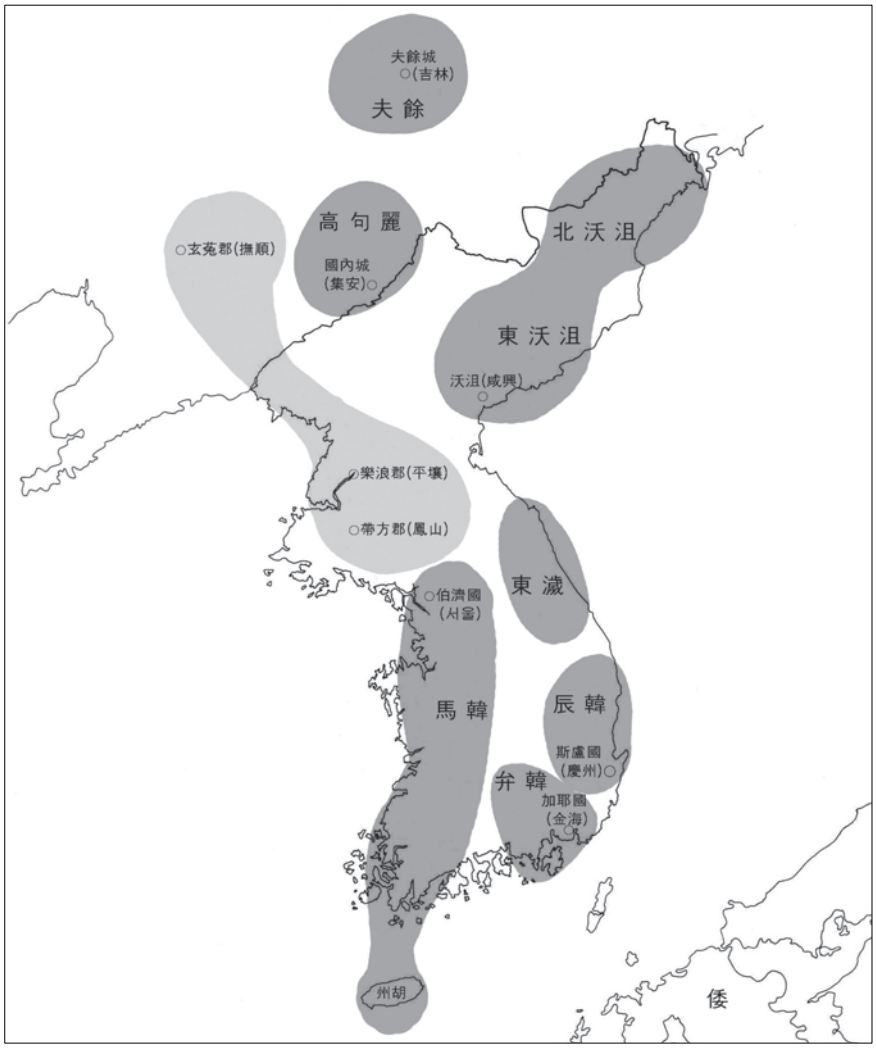
1. 고구려의 왕권 성장과 낙랑 병합

4세기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漢族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동북아시아 여러 종족의 운동력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중국에서는 291년 西晉의 洛陽에서 8王의 亂이 시작된 이후, 북방의 匈奴와 鮮卑가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하여 長城 안으로 혼입되어 들어오고 關中의 氐族과 羌族의 독립이 잇따랐다. 그에 따라 西晉은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다가 멸망하고, 317년에 그 일족인 司馬睿가 揚子江 이남에 망명정권 東晉을 세웠다.

---

13) 본고의 序論을 제외한 제1장부터 結論까지의 내용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진행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다. 제1장은 同 위원회 제1분과 제6차 합동회의(宮崎, 2008. 1. 26.)와 제7차 합동회의(全州, 2008. 3. 15.)에서 발표되었고, 제2장은 제14차 합동회의(濟州, 2009. 5. 16.)에서 발표되었으며, 제3장은 제12차 합동회의(岡山, 2009. 1. 31.)에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結論은 전체 위원이 모인 심포지엄(東京, 2008. 12. 29.)에서 발표되었던 要旨이다. 물론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分科會議에서의 질의·토론과 追後 연구를 거쳐 문장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華北에서는 흉노족 劉淵이 303년에 漢(후의 前趙)을 건국하면서 혼란스러운 오호십육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羯族의 石勒이 319년에 後趙를 세우고 세력을 키우더니 329년에 前趙를 멸망시키고 화북 일대를 장악하였다. 요동에서는 慕容廆가 307년에 鮮卑大單于를 자칭하며 세력을 구축하여, 321년에는 襄平과 平郭을 거점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였고, 337년에는 燕王을 자칭할 정도로 강성해졌다.[14]



[지도 1] 3세기의 한반도 정세

14) 余昊奎,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 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 > ≪역사와 현실≫ 36 (역사비평사, 서울)

고구려는 3세기 후반에 서진의 혼란을 틈타 동옥저 및 동예 지역을 다시 회복하고,[15] 西川王 때에는 각 지역에 온존하던 那部 지배세력을 수도인 王都로 집결시켜 중앙 행정단위인 方位部로의 편제를 완료함으로써[16] 5部體制를 질적으로 전환하여 연방제적인 초기 고대국가를 벗어나 왕과 중앙귀족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왕권의 성장을 토대로 삼아, 고구려 美川王은 313년에 낙랑군을, 314년에 대방군을 멸망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로써 400여 년 동안 한반도 서북부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군현 세력은 일소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팽창은 요동 지방에 세력을 구축하던 선비족과의 대결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319년과 320년에 東夷校尉·平州刺史 崔毖와 鮮卑 段部·宇文部 등과 연합하여 前燕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330년 이후로는 華北의 後趙와 화친을 맺고 전연을 견제하다가 342년에 慕容皝의 공격을 받아 丸都城이 함락되고 王母 周氏와 남녀 5만이 포로로 잡혀가는 패배를 맛보았다.[17] 그 후 고구려 故國原王은 343년에 평양 東黃城으로 옮겨 거의 30년에 걸쳐 이 지역에 대한 지배체제 정비에 힘을 쏟았으며, 그동안 전연은 352년에 後趙를 멸망시키고 화북 일대까지 장악하는 등 중원 경영에 몰두하느라 고구려와 군사적 충돌 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2. 전기 가야와 왜의 교류

한반도 남부의 낙동강 유역에서는 3세기 말 이후 김해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가야 소국연맹체가 독점적으로 영도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가야국의 중심은 김해시 서쪽의 주촌면 일대에 있다가 현재의 김해 시내 쪽으로 옮겨졌으며, 그 최초의 고분은 김해시 大

15) 林起煥, 2004 <고구려와 낙랑의 관계> ≪韓國古代史硏究≫ 34, 156

16) 林起煥, 1995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7 ;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서울) 104~105 ; 余昊奎, 1995 <3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과 통치체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15 (한국역사연구회) ; 윤성용, 1997 <고구려 귀족회의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11 (한국고대사연구회) ;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서울) 167~168

17)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2년, "十一月 皝自將勁兵四萬 出南道 以慕容翰·慕容覇爲前鋒 別遣長史王寓等 將兵萬五千 出北道以來侵. (中略) 諸軍乘勝 遂入丸都 王單騎走入斷熊谷. 將軍慕輿埿 追獲王母周氏及王妃而歸. 會王寓等 戰於北道 皆敗沒 由是 皝不復窮追 遣使招王 王不出. (中略) 皝從之 發美川王墓 載其尸 收其府庫累世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毁丸都城而還"

成洞 29호분[18]이다. 이 고분은 대형 덧널무덤[木槨墳]으로서 단단한 도질토기를 다량 부장하고 순장을 하였으며 오르도스 청동솥[銅鍑], 철제 갑주, 기승용 마구 등의 북방문화 요소를 부장하여, 강하고 부유한 지배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19] 북방문화 요소는 김해 지방의 가야국이 한반도 서북 지역과 원활한 교역 활동을 하고 있던 2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3세기 말, 4세기 초 중국 북부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시아 세계에 전해진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20] 즉 4세기의 가야는 북방 유목민족의 기마 무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그들의 철제 미늘갑옷에 자극을 받아 긴 철판들을 가죽이나 못으로 연결한 판갑옷과 투구를 개발하였다.[21] 일부 학자들은 이를 전형적인 기마 무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나, 비록 重裝騎兵이 조직적이며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가야에 기병이 존재하고 가야의 일부 엘리트계층이 중장 기마전술을 수용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22]

그러나 고구려에 의한 낙랑·대방군의 멸망은 한반도 동남부에서 그들과의 원거리 무역을 통해 발전하던 김해 가야국의 영도력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마산 서쪽의 고성, 사천 등에 있는 浦上八國이 맹주국인 김해 가야국을 공격하는 등 난조를 드러내었고, 그 후 가야연맹은 함안 安羅國 중심의 서부 지역과 김해 加耶國 중심의 동부 지역으로 분열되었다.[23] 4세기의 古式 陶質 無蓋高杯가 분화하여, 筒形高杯는 주로 마산 서쪽에서 진주까지 나타나고, 外反口緣 無透窓高杯가 주로 창원 동쪽에서 김해·부산 지방까지 나타나는 것은 그 분열 양상을 반영한다.[24]

한편 4세기의 일본열도는 소국연맹체의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의 연맹체는 주도 세력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주

18)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Ⅰ≫ (경성대학교박물관, 부산) 141~153
19) 申敬澈, 2000 <金官加耶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加耶 各國史의 재구성≫ (혜안, 서울) 45~72
20) 宋桂鉉, 2000 <토론 요지: 金官加耶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加耶 各國史의 재구성≫ (혜안, 서울) 85~87
21) 申敬澈, 1994 <加耶 초기마구에 대하여> ≪釜大史學≫ 18 ; 2000 <金官加耶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加耶 各國史의 재구성≫
22) 李蘭暎·金斗喆, 1999 ≪韓國의 馬具≫ (韓國馬事會 馬事博物館, 果川) 219~220
23) 金泰植, 1994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韓國史硏究≫ 86 (한국사연구회, 서울) 60
24) 安在晧·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고찰－義昌 大坪里出土品을 通하여－> ≪嶺南考古學≫ 1 (嶺南考古學會, 大邱) 50~53 ; 趙榮濟, 1986 <西部慶南 爐形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史學≫ 2 (慶尙大學校, 晉州) 24 ; 朴升圭, 1993 <慶南 西南部地域 陶質土器에 대한 硏究> ≪慶尙史學≫ 9 (慶尙大學校, 晋州) 4~5 ;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서울) 134~137

[지도 2] 전기 가야연맹 소국들의 위치

로 북부 九州 세력이 철기 제작에 쓰이는 가야의 板狀鐵斧를 독점하였으나,[25] 古墳時代 前期가 시작되는 3세기 후반에 畿內의 邪馬台國이 近畿 각지와 瀨戶內海 연안 각지의 여러 세력을 결집하여 한반도 남부, 특히 弁辰 즉 가야와 철 자원을 둘러싼 상호작용의

25) 武末純一, 2002 <日本の九州および近畿地域における韓國系遺物－土器·鐵器生產關係を中心に－>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三國의 交涉≫ (福泉博物館, 부산) 88

주체로 대두되었다.[26] 그러나 철은 가야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상당수의 선진문물은 중국 방면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야가 한반도 서북 지역을 통하여 중개하는 것이므로, 그 교역관계는 동아시아 전반의 형세에 따라 연동되어 움직이는 측면이 컸다.

4세기 전반에는 중국 西晉의 혼란으로 인한 東部都尉의 몰락, 중국 동북부 및 한반도 북부 고구려의 낙랑·대방군 병합, 이에 따른 가야연맹의 동서 분열 등으로 말미암아, 일원적인 문화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3세기에 성립했던 畿內 大和 중심의 연맹체도 그다지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자 한반도 남부의 여러 세력들과 개별적인 교섭을 하였다.

철제 판갑옷의 분포로 보아 4세기 전반의 국제교역 체계는 고구려－신라－가야(부산·김해)－왜로 이어지는 것이었다고도 하고,[27] 또 당시에 함안 안라국 양식의 繩蓆文兩耳附打捺壺의 유례가 對馬의 아사히야마[朝日山] 고분, 福岡縣 히가시시모다[東下田] 유적, 니시신마치[西新町] 유적, 島根縣 가미나가하마[上長浜] 패총, 鳥取縣 아오키이나바[青木稻場] 유적 등에서 발견되었으며,[28] 금관가야 양식의 토기는 일본열도에서 주로 大阪을 중심으로 한 近畿 지방과 東海 지방에서 주로 출토되었다고 한다.[29] 이는 동서로 구분된 전기 가야연맹이 각기 다른 경로로 일본열도와 교류하는 면모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세기 전반의 일본열도 近畿地方에서는 기존의 문화 축적을 토대로 하여 奈良 남부 중심의 세력이 청동거울, 벽옥제 가래 모양 팔찌[鍬形石]와 바퀴 모양 팔찌[車輪石] 등과 같은 종교적 성격의 위세품 분급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3. 백제의 왕권 성장과 중앙집권체제 정비

백제는 3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古爾王 후기에 중국 군현의 간섭과 마한 소국연맹체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部體制를 시행하는 초기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다.[30] 고이왕

---

26) 白石太一郎, 2000 ≪古墳と古墳群の研究≫ (塙書房) ; 2002 <倭國誕生> ≪倭國誕生(日本の時代史1)≫ (吉川弘文館) ; 2006 <倭國の形成と展開> ≪古代史の流れ(列島の古代史8)≫ (岩波書店) 29

27)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 1, (韓國古代史研究會) 175

28) 朴天秀, 2002 <考古資料를 통해 본 古代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相互作用> ≪韓國古代史研究≫ 27 (韓國古代史學會) 59 ; 2007 ≪새로 쓰는 고대한일교섭사≫ (사회평론, 서울) 51

29) 朴天秀,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서울) 78

30) 盧泰敦, 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서울) 14

이후의 백제는 낙랑과 지속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하여, 298년과 304년에는 責稽王과 汾西王이 낙랑과의 대결 과정에서 살해되기도 하였다.[31] 그러나 백제는 4세기 전반에 肖古系의 比流王이 40여 년간 재위하면서 왕권을 다진 이후, 4세기 중후반 近肖古王 때에 이르러서는 중앙집권화를 완비하고 대외적인 팽창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백제 왕실의 고분군인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4세기 후반에 基壇式 돌무지무덤[積石塚]이 새로이 나타났고 그 중에 최초의 것이면서 최대(한 변 길이 50m)의 것인 석촌동 3호분은 근초고왕릉으로 추정된다.[32]

한강 하류 유역에서 출토된 4세기 東晉의 유물로는 청동 자루솥[鐎斗], 晉式 금동 허리띠[銙帶] 金具 등이 있어서, 백제와 동진 사이의 교섭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동진의 청자는 백제 지역에 속하는 서울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을 비롯하여 경기도 포천 자작리, 강원도 원주 법천리, 충남 천안 화성리 고분 등지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이는 고구려나 신라, 가야, 왜 등과 달리, 백제에는 낙랑군과 대방군의 축출 이후 중국계 이주민들이 다수 그 영역으로 들어와 지배계급의 일부를 구성하며 동진 청자와 같은 중국 본토 문화의 수요층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33] 그 결과 마한 지역 내에서 한강 유역을 점유한 백제의 우위는 크게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백제 근초고왕은 366년과 368년에 걸쳐 신라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다짐으로써 남방을 안정시키고, 369년에는 雉壤(황해도 연백군 은천면)에서 고구려 2만 병을 맞이하여 5천여 명을 殺獲하였으며, 371년에는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故國原王을 살해하였다.[34] 369년과 371년의 전투는 백제의 對 고구려 전쟁에서 절정을 이루는 승리였으며, 377년에도 백제 3만 군이 평양성을 치는 등 우세는 한동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硏究≫ (一潮閣, 서울) 98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2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50

31)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古爾王 13년 8월, "魏幽州刺史毌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 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 責稽王 13년 9월 "漢與貊人來侵 王出禦爲敵兵所害薨" ; 汾西王 7년 "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 王爲樂浪太守所遣刺客賊害薨"

32) 金元龍·李熙濬, 1987 <서울 石村洞 3호분의 연대> ≪斗溪 李丙燾博士 九旬記念 한국사학논총≫

33) 權五榮, 2003 <백제의 對中交涉의 진전과 문화변동> ≪강좌 한국고대사≫ 4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6~11

34)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1년 3월, "遣使聘新羅" ; 같은 王 23년 3월, "遣使新羅送良馬二匹" ; 같은 王 24년 9월,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 같은 왕 26년, "高句麗擧兵來 王聞之 伏兵於浿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안 지속되었다.[35]

이러한 승세를 바탕으로 백제 근초고왕(餘句)은 372년에 동진에 사신을 파견하여 '鎭東將軍 領樂浪太守'를 책봉 받고,[36] 그 후로도 동진과의 교류를 지속하였으며,[37] 이를 전후하여 博士 高興에게 國史인 ≪書記≫를 편찬케 하였다.[38] 얼마 후 枕流王이 384년과 385년에 걸쳐 불교를 공인하였다는 것으로[39] 보아, 이 당시에 백제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체제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의 사이에 서울 석촌동 고분군이 정비되고 지방의 주요 고분군들이 사라지는 현상은,[40] 지방 세력가들이 몰락하고 중앙집권화가 비약적으로 강화된 면모를 반영한다.

백제는 이러한 성장을 배경으로 삼아, 한편으로는 남쪽으로 마한 잔여세력을 억압하여 영역 확대에 나서고, 한편으로는 동진으로부터 수입한 선진문물을 토대로 하여 가야 및 왜로 연결되는 교역로를 개척하였다.[41] 그 당시에 백제의 공세로 인하여 영역에 포함된 범위는 전라북도 서쪽 방면까지 미쳤다.[42] 또한 백제는 전남 해안의 해남·강진 방면 세력의 대외교섭권을 박탈하여 세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43] 해안에서 벗어난 영암이나 나주 등의 영산강 유역 세력에는 무력적인 제재 없이 공납적 지배를 하였다.[44]

---

35) ≪위 책≫ 近仇首王 3년 10월,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36) ≪위 책≫ 近肖古王 27년 정월, "遣使入晉朝貢" ; ≪晉書≫ 卷9, 帝紀9 簡文帝 咸安2年 "春正月 辛丑 百濟·林邑王各遣使貢方物 (中略)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鎭東將軍領樂浪太守"

37)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8년 2월, "遣使入晉朝貢" ; 近仇首王 5년 3월 "遣使朝晉 其使海上遇惡風 不達而還" ; 枕流王 원년 7월 "遣使入晉朝貢"

38) ≪위 책≫ 近肖古王 30년,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39) ≪위 책≫ 枕流王 元年 9월, "胡僧摩羅難陁自晉至 王迎之致宮內 禮敬焉 佛法始於此" ; 같은 왕 2년 2월,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盧重國, ≪앞 책≫ 115

40) 朴淳發, 1997 <漢城百濟의 中央과 地方> ≪백제의 중앙과 지방≫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51

41)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涉과 征服> ≪백제의 중앙과 지방≫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48~51

42) <위 논문> 51

43) 權五榮, 1999 ≪복암리고분군≫ (전남대박물관) 310

44) 李賢惠, 2000 <4~5세기 영산강 유역 토착세력의 성격> ≪歷史學報≫ 166, 30 ; 文安植·이대석, 2004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 영산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 ≫ (혜안, 서울) 107

4. 神功紀 49年條의 해석과 七支刀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하여 4세기 한일관계사의 쟁점은 일본 제14대 仲哀王의 왕비인 神功이 '신라'를 정벌했는가의 여부에 있다. 그 근거가 되는 사료는 ≪古事記≫ 중권과 ≪日本書紀≫ 神功 즉위전기에 나온다.

그 기사들에 따르면 神功王后가 탄 배를 물고기들이 업고 날랐다거나,[45] 그 배를 받치고 있던 파도가 멀리 신라 땅의 절반을 잠기게 하였다거나,[46] 이를 보고 신라왕이 두려워서 즉시 항복하여 스스로 말 사육하는 곳이 되어 공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는[47] 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결과 ≪고사기≫에서는 신라국을 '御馬甘'으로 삼고 백제국을 '渡屯家'로 정하였다고 하고,[48] ≪일본서기≫에서는 신라를 '飼部'로 삼고 高麗·百濟 두 나라를 '內宮家屯倉'으로 정하고 이를 '三韓'이라고 불렀다고 하여[49] 약간 차이가 난다.

이른바 '신공황후의 신라 정토' 또는 '신공황후의 삼한 정벌'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사는 위와 같이 사실성이 희박하고 설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관념은 663년에 백제부흥군을 돕던 왜군이 白江口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패배한 후에 실제로 이를 주도했던 여왕인 齊明을 모델로 삼아 조작되어[50] 712년에 편찬된 ≪고사기≫와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 설화가 신라에 대한 강한 복수심을 표현하고 있고, 고구려·백제·신라를 '삼한'으로 부르는 7세기 후반 이후의 용어[51]를 답습하고 있

---

45) ≪古事記≫ 中卷, 仲哀天皇, "故 備如教覺 整軍雙船 度幸之時 海原之魚 不問大小 悉負御船而渡"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卽位前紀 仲哀九年 冬十月 己亥朔 辛丑, "從和珥津發之. 時飛廉起風, 陽侯擧浪, 海中大魚, 悉浮扶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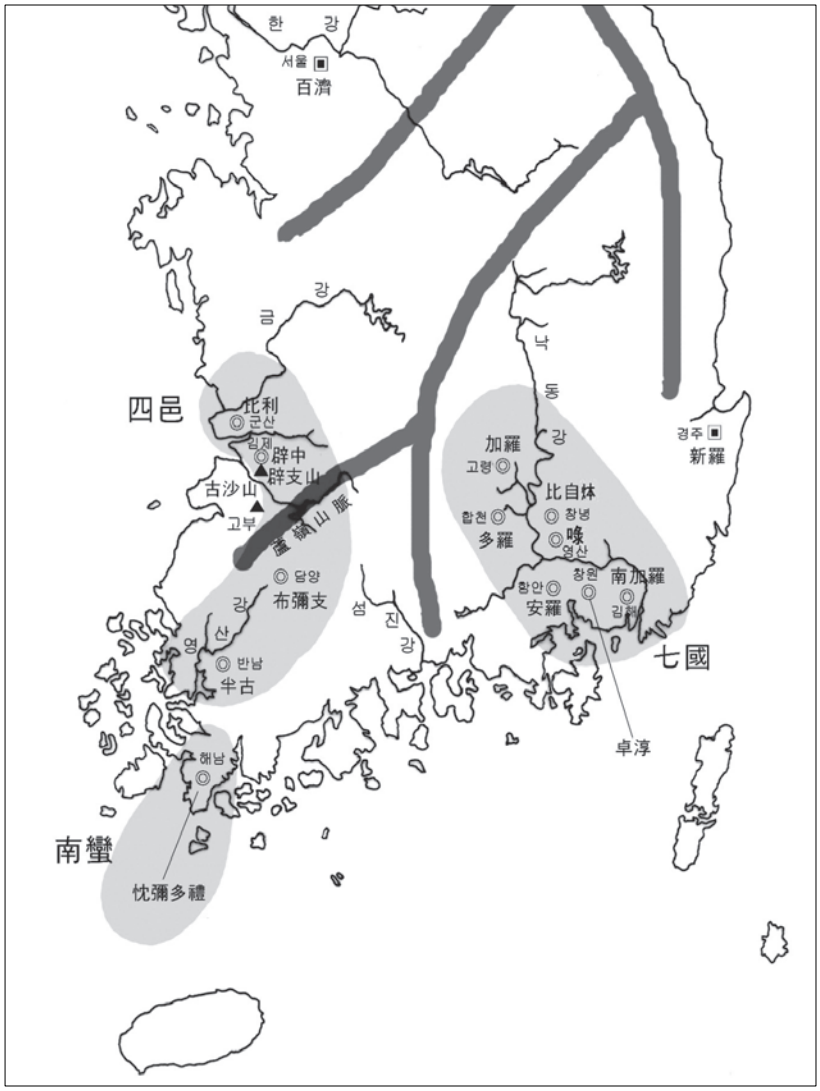
46) ≪古事記≫ 中卷, 仲哀天皇, "爾 順風大起 御船從浪 故 其御船之浪瀾 押騰新羅之國 旣到半國"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卽位前紀 仲哀九年 冬十月 己亥朔 辛丑, "則大風順吹 帆舶隨波 不勞櫓楫 便到新羅. 時隨船湖浪 遠逮國中 卽知 天神地祇悉助歟"

47) ≪古事記≫ 中卷, 仲哀天皇, "於是其國王畏惶奏言 自今以後 隨天皇命而爲御馬甘 每年雙船 不乾船腹 不乾栲樴 共與天地 無退仕奉"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卽位前紀 仲哀九年 冬十月 己亥朔 辛丑, "新羅王 於是 戰戰慄慄厝身無所. (中略) 因以叩頭之曰 從今以後 長與乾坤 伏爲飼部. 其不乾船栲 而春秋獻馬梳及馬鞭. 復不煩海遠 以每年貢男女之調"

48) ≪古事記≫ 中卷, 仲哀天皇, "故是以新羅國者 定御馬甘 百濟國者 定渡屯家"

49)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卽位前紀 仲哀九年 冬十月 己亥朔 辛丑, "乃解其縛爲飼部 遂入其國中 封重寶府庫 收圖籍文書. (中略) 於是 高麗·百濟二國王 聞新羅收圖籍 降於日本國 密令伺其軍勢 則知不可勝 自來于營外 叩頭而款曰 從今以後 永稱西蕃 不絶朝貢 故因以 定內宮家屯倉 是所謂之三韓也. 皇后從新羅還之"

50) 直木孝次郎, 1988 <神功皇后傳說の成立> ≪古代日本と朝鮮·中國≫ (講談社學術文庫)



[지도 3] 神功紀 49년 조의 한반도 관련 지명

음을 보아 알 수 있다.

신공왕후의 신라 정벌 및 임나 지배라는 것은 이미 에도시대의 ≪고사기≫ 및 ≪일본서기≫에 대한 국학 연구 때부터 기정사실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에도시대의 한 연구에 의하면, 崇神王 말년에 任那王에게 비단을 주었는데 신라가 이를 가로챘기 때문에, 결국 신공왕후가 임나를 위하여 신라를 정벌하여 韓地에 일본부를 두고 宰에게 맡겨 다

51) 盧泰敦, 1982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硏究≫ 38 (韓國史硏究會)

스렸는데, 신라가 일본의 은혜를 위배하고 欽明王 23년에 임나를 침략하여 멸망시켰으니, 신공왕후 이래 593년 동안 임나가 존속했다는 것이었다.[52] 에도시대의 연구는 ≪일본서기≫의 편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崇神 말년(B.C. 30)부터 欽明 23년(562)까지를 임나 지배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근대 사학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자세를 취하여, 崇神紀와 垂仁紀의 임나 관계기사는 '임나 조공의 전설'로서 史實의 기재가 아니나, 神功紀 끝 무렵부터는 사실의 기재이되 연대는 깎아내려야 한다고 보았다.[53] 신공기 즉위전기와 달리 그 후반부에는 신공왕후가 직접 출정한 것이 아니라 장군들을 보내 신라를 정벌했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주장 이후로 ≪일본서기≫ 신공 49년(369) 조 기사가 임나 지배 개시의 '史實'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사료의 줄거리는 神功 49년에 왜가 장군들을 파견하여 신라를 친 결과 比自㶱(경남 창녕), 南加羅(경남 김해), 㖨國(경남 창녕군 영산면), 安羅(경남 함안), 多羅(경남 합천), 卓淳(경남 창원), 加羅(경북 고령) 등의 일곱 나라[54]를 평정하였고, 서쪽으로 돌아 南蠻 忱彌多禮(전남 해남)를 잡아 백제에게 주었으며, 이에 그 왕 肖古와 왕자 貴須도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모이니 比利(전북 군산), 辟中(전북 김제), 布彌支(전남 담양), 半古(전남 나주시 반남면) 등의 네 읍이 저절로 항복하였다는 것이다.[55]

그리하여 ≪일본서기≫를 다른 사료들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연구자들은 이 기사의 연대를 백제의 근초고왕 때와 비교하여 369년으로 확정하고, 4세기 후반 왜의 임나 정벌을 사실로 인식하였다.[56] 이는 칠지도와 광개토왕릉비의 명문 연구

---

52) 松下見林, 1688 ≪異稱日本傳≫ 卷下, 東國通鑑卷之一 新羅始祖八年條 註釋, "仍齎赤絹一百疋賜任那王 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 其二國之怨 始起於此際矣 終至神功皇后得征之 蓋爲任那征之也 (中略) 於是 韓地置日本府 任宰以治之 新羅當親戴我與天地不變 而時逆天昔孟 違我恩義 數侵任那 至欽明天皇二十三年 新羅遂滅任那 自神功皇后以來五百九十三年 任那之存如此永久也 此非神功皇后之大神餘烈乎"

53)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1956 再版, (吉川弘文館) 21~22

54) '比自㶱 등의 일곱 나라'는 그 위치가 모두 加耶聯盟에 속한 소국들이므로 이후로는 '加耶 7國'이라고 칭함.

55)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攝政 49年 3月,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沙奴跪[是二人 不知何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㶱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

56) 末松保和, 1949 ≪앞 책≫ 58~63 ;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 朝鮮關係記事 考證≫ 上卷 (吉川弘文館, 東京)

를 통하여 일본 학계에서 널리 사실로 인정받고 일본 고대사 서술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일본 사학의 발전에 따라 1970년대 이후로는 일본에서도 그 기사 및 사실 모두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57] 즉 ≪일본서기≫에서는 6세기의 사실을 말하는 繼體紀 및 欽明紀 이후의 사료가 되어야 사실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전의 사료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지이다.

한편 위의 신공기 49년 조 기사에 나오는 백제장군 木羅斤資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蓋鹵王 말년(475) 조에 나오는 木劦滿致의 부친이므로, 목라근자의 생존연대와 관련지어 이 기사의 일부가 서기 429년의 것이라는 3周甲引下論[58]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나, 그에 바탕을 둔 記事分解論[59]도 木氏 문제만 제외하고는 가야 7국 평정에 대하여 부정 일변도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신공기 49년 조 기사가 '왜의 가야 정벌'을 나타낸다고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이를 4세기 후반 백제의 마한 잔여세력 정벌로만 보려는 견해가 있다가[60], 1980년대 이후로는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게 되었다. 즉 그 기사의 주석에 '백제장군 목라근자'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삼아 가야 7국 평정의 주체를 왜에서 백제로 교체하여 이를 369년 백제에 의한 가야 정벌로 보는 견해가 나왔고,[61] 혹은 그 연대를 429년으로 늦추어야 하나 그 역시 木羅氏 家系傳承의 그릇된 주장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62] 기사 전체를 후대 사실의 반영이라고 하여 전면 부정하기도 하였다.[63]

한편 ≪일본서기≫에서 그 존재 사실이 분명한 6세기 전반 欽明紀 2년(541) 조 기사

57)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 ; 請田正幸, 1974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任那'日本府'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上·中·下 ≪古代文化≫ 32-9·11·12 (古代學協會, 京都) ;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任那日本府'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58)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59)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60) 李丙燾, 1937 <三韓問題의 新考察> 六 ≪震檀學報≫ 7 ;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서울)

61)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 上·中·下, ≪문학과 지성≫ 28·29·31 ;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 1993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 朱甫暾, 1995 <序說－加耶史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加耶史研究≫ (경상북도) ; 盧重國, 1995 <大加耶의 정치·사회구조> ≪加耶史研究≫ (경상북도)

62) 李根雨, 1994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63) 李永植, 1995 <百濟의 加耶진출과정> ≪韓國古代史論叢≫ 7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延敏洙,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에 나오는 백제 聖王의 언급에 의하면, "조상인 速古王과 貴首王 때에 安羅, 加羅, 卓淳 旱岐 등이 사신을 보내 서로 친하게 지냈다"[64]고 하였다. 사료 상으로 보아 이 기록이 4세기 후반 백제와 가야의 관계를 보여주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신공기 49년 조 기사와 흠명기 2년 조의 기사를 연결해 보면, 4세기 후반에 백제나 왜가 가야에 군대를 보내 평정하고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백제가 가야와 처음으로 친교를 트고, 이를 토대로 가야와 밀접한 교역을 이루고 있던 왜와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65] 지금까지 알려진 고고학적인 유적, 유물의 존재 상태로 보아도 이런 상정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신공기 49년 조 기사는 이른바 '任那日本府'라는 용어는 물론이고 그 성립과도 전혀 관계없는 기사이다.

한편 위의 가야 7국 평정 기사 뒤를 이어 신공기 52년 조에는 왜국이 바다 서쪽[海西]을 잘라 백제에게 준 보답으로 백제가 왜국에 사신 보내 七枝刀와 七子鏡을 주었다는[66]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1874년에 일본 奈良縣 天理市 布留町에 있는 石上神宮의 宮司(菅政友)에 의하여 칠지도가 발견되고, 이어서 이것이 곧 ≪일본서기≫ 神功紀에 나오는 '七枝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67]

칠지도 명문[68]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작 연대이다. 제작 연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인 연호의 첫 번째 글자에 대하여 칠지도 발견 초기의 연구자들[69]은 대개 '泰初'로 판독하여, 칠지도 제작 연도를 西晋 泰始 4년(268)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공

---

64)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年 4月,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

65) 金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 李鎔賢, 1999 <加耶と東アジア諸國> (國學院大學 博士學位論文) ; 南在祐, 2003 ≪안라국사≫ (혜안) ; 白承玉,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 ; 白承忠, 2005 <日本書紀 神功紀 소재 한일관계 기사의 성격>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광개토대왕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66)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52년 9월 정묘삭 병자, "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 及種種重寶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飮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 海東貴國 是天所啓. 是以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國基永固. 汝當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不絶 雖死何恨. 自是後 每年相續朝貢焉"

67) 星野恒, 1892 <七枝刀考> ≪史學雜誌≫ 37 (東京)

68) [前面] 泰□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鍊)七支刀(出)辟百兵宜供供侯王□□□□(祥)
[後面]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

69) 菅政友, 1907 <大和國石上神宮寶庫所藏七支刀> ≪菅政友全集≫ 雜稿 1 ; 高橋健自, 1914 <京畿旅行談> ≪考古學雜誌≫ 5~3 ; 喜田貞吉, 1918 <石上神宮の神寶七枝刀> ≪民族と歷史≫ 1~1 ; 大場磐雄, 1929 ≪石上神宮寶物誌≫ (吉川弘文館) ; 末永雅雄, 1941 <象嵌銘文を有する鉾－七支刀> ≪日本上代の武器≫ (弘文堂)

기의 기년을 2주갑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론[70]이 널리 퍼지고, 이를 '泰和'로 판독하여 칠지도 제작 연도를 東晋 太和 4년(369)으로 보는 연구 결과[71]가 나온 이후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72]이 이를 따르고 있다.

반면 한국 쪽에서는 이를 백제 고유의 연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기서는 '泰和'를 백제 근초고왕의 연호로서 서기 372년일 것으로 보기도 하고,[73] 백제 연호가 失傳되어 구체적인 연대는 알 수 없으나 5세기 무렵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74] 혹은 날짜 간지를 중시하여 태화 4년을 腆支王 때인 408년으로 보기도 하고,[75] 혹은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하여 백제 고유 연호인 '奉□'로 보고 무령왕 4년인 504년으로 보기도 하였다.[76] 일본에서도 중국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여 동진 태화 4년설을 부정하고 南宋 泰始 4년(468)설이 나온 바 있다.[77]

또한 고고학적으로 보아 칠지도는 鐵製三叉鉾, 鐵製蛇行劒, 有棘鐵器(=有刺利器) 등과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그 유물들은 6세기 전반에 성행하였다는 것을 밝힌 논고[78]도 있

---

70)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1956 再版, (吉川弘文館)

71)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美術研究≫ 158 ;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補考> ≪美術研究≫ 162 ;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 再補> ≪美術研究≫ 165 ; 1969 ≪日本建築史研究≫ 재수록 ; 1971 ≪論集日本文化の起源≫ 2 (平凡社 재수록)

72) 榧本杜人,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と其銘文> ≪朝鮮學報≫ 3 (朝鮮學會, 天理) ; 西田長男, 1956 <石上神宮の七支刀の銘文> ≪日本古典の史的研究≫ (理想社) ; 三品彰英, 1962 <石上神宮の七支刀>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 (吉川弘文館) ; 藤間生大, 1968 <七支刀> ≪倭の五王≫ (岩波新書) ; 栗原朋信, 1970 <七支刀の銘文よりみた日本と百濟 東晉の關係> ≪歷史教育≫ 18~4 ; 上田正昭, 1971 <石上神宮と七支刀> ≪日本なかの朝鮮文化≫ 9 ; 古田武彦, 1973 ≪失われた九州王朝≫ (朝日新聞社) ; 佐伯有清, 1977 ≪七支刀と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大王の成立をめぐって－>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神保公子, 1981 <七支刀銘文の解釋をめぐって>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 鈴木靖民, 1983 <石上神宮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坂本太郎頌壽記念日本史學論集≫ 上 ; 木村誠, 2000 <百濟史料としての七支刀銘文> ≪人文學報≫ 306 (東京都立大學 人文學部) ; 濱田耕策, 2005 <4세기의 일한관계>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73) 李丙燾, 1974 <百濟七支刀考> ≪震檀學報≫ 38 (진단학회, 서울) ;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재수록

74) 金錫亨, 1963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3-1 ;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75) 손영종, 1983 <백제 7지도의 명문해석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1 ≪력사과학≫ 1983-4

76) 延敏洙, 1994 <七支刀銘文の再檢討－年號の問題と製作年代を中心に－> ≪年報 朝鮮學≫ 4

77) 宮崎市定, 1982 <七支刀銘文試釋> ≪東方學≫ 64 ; 1983 ≪謎の七支刀－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中央公論社) ; 1992 ≪謎の七支刀(文庫版)≫ (中央公論社) ; 李進熙, 1987 <日本にある百濟の金石史料> ≪馬韓百濟文化研究の成果と課題(第九回馬韓百濟文化國際學術會議)≫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고, ≪일본서기≫에 백제사신이 칠지도와 함께 가져갔다고 나오는 칠자경은 백제 무령왕릉 출토경과 일본 출토의 七獸帶鏡을 말한다는 견해[79]도 있다. 그렇다면 칠지도는 무령왕릉의 축조 시기인 525년 무렵 또는 그보다 앞서는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칠지도의 존재가 신공기의 사료적 가치를 보증해 줄 수 없게 된다.

제2절 고구려와 백제의 쟁패 및 그 결과

1. 고구려의 중앙집권체제 정비 및 신라와의 연결

고구려는 371년에 故國原王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 평양성에서 전사하는 어려움을 겪고,[80] 거듭되는 외환 속에 주변 국가에 대한 거시적 외교와 안정된 지배질서 창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하여 小獸林王은 前秦王 苻堅과 교류하여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세우고 373년에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성숙한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를 이은 故國壤王은 後燕과 대결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반도 동남부의 신라에 사신을 보내 수호하였다. 이 때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하면서 왕족 實聖을 인질로 받은 것은,[81] 대대적인 백제 정벌을 앞두고 신라가 백제와 연결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외교 전략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정비에 힘입어 고구려는 391년에 廣開土王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契丹과 後燕 및 백제에게 공세를 취하였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즉위 첫 해부터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10성을 빼앗고 關彌城(경기도 파주시 탄현면?)[82]을 함락시키더니, 396년에는 백제 58城 700村을 빼앗고 백제왕의 동생과 大臣 10인을 잡아 돌아옴으로써, 한강 이북지역을 모두 점령하였다.[83] 또한 서북쪽으로는 402년까지 요동의 주요 거점을

78) 村上英之助, 1978 <考古學から見た七支刀の製作年代> ≪考古學硏究≫ 25-3

79) 樋口隆康, 1972 <武寧王陵出土鏡と七子鏡> ≪史林≫ 55-4

80)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39년, "秋九月 王以兵二萬 南伐百濟 戰於雉壤 敗績" ; 같은 왕 41년, "冬十月 百濟王率兵三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 薨. 葬于故國之原"

81) ≪위 책≫ 故國壤王 8년, "春 遣使新羅修好 新羅王遣姪實聖爲質"

82) 尹日寧, 1990 <關彌城位置考 －廣開土王碑文·三國史記·大東地志를 바탕으로－> ≪北岳史論≫ 2 (국민대 국사학과) 103~164

83)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원년 "秋七月 南伐百濟 拔十城" ; 같은 왕 2년, "秋八月 百濟侵南邊 命將拒之" ; 같은 왕 3년, "秋七月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 逆擊敗之 餘寇夜走. 八月 築國南七城 以備百濟之寇" ; 같은 왕 4년, "秋八月 王與百濟戰於浿水之上 大敗之 虜獲八千餘級" ; ≪廣開土王陵碑文≫ 永樂 6년, "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中略) 於是 得五十八城 村七百

취득하고 후연과 공방을 거듭하다가[84] 407년 馮跋의 쿠데타로 慕容王室이 무너짐으로써 요하 일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신라는 訖解尼師今을 끝으로 昔氏 王統이 단절되고 356년에 奈勿尼師今이 왕위에 오른 후 외교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 377년에 신라가 前秦에 사신을 파견할 때 고구려의 사신과 동행했다든가,[85] 381년(혹은 382년)에 신라가 고구려를 통해 사신 衛頭를 전진에 파견했다든가,[86] 392년에 고구려와 우호의 대가로 實聖을 볼모로 보냈다든가[87] 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이는 신라로서는 국가 발전에 대한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4세기 후반의 30여 년에 걸쳐 옛 대방 지역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기나긴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백제로 볼 때는 근초고왕, 근구수왕, 진사왕, 아신왕에 걸치는 기간이었고, 고구려로 볼 때는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에 걸치는 기간이었다. 전투가 일어났던 주요 지역은 雉壤(황해도 연백군 은천면), 浿河(예성강) 강변, 平壤城(평양시), 水谷城(황해도 신계군 다율면), 都坤城, 石峴等 10여 성, 關彌城, 靑木嶺(경기도 개성 부근) 등이었다.[88] 즉 369년부터 399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84)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원년, “九月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 같은 왕 9년 2월, “燕王盛 以我王禮慢 自將兵三萬襲之 以驃騎大將軍慕容熙爲前鋒 拔新城·南蘇二城 拓地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 같은 왕 11년,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 棄城走” ; 같은 왕 13년, “冬十一月 出師侵燕” ; 같은 왕 14년,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 且陷 熙命將士 ‘毋得先登 俟剋平其城 朕與皇后乘輦而入’ 由是 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 같은 왕 15년, “冬十二月 燕王熙襲契丹 至陘北 畏契丹之衆 欲還. 遂棄輜重 輕兵襲我. 燕軍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我木底城 不克而還”

85) ≪資治通鑑≫ 卷104, 晉紀26 太元 2년, “春 高句麗·新羅·西南夷 皆遣使入貢于秦”

86)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26년(381), “遣衛頭入苻秦 貢方物. 苻堅問衛頭曰 卿言海東之事與古不同 何耶. 答曰 亦猶中國 時代變革 名號改易 今焉得同” ; ≪太平御覽≫ 卷781, 東夷新羅條에 인용된 ≪秦書≫에는 같은 내용의 기사가 苻堅建元18年(382) 조에 나오고 있다.

87)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37년, “春正月 高句麗遣使. 王以高句麗强盛 送伊湌大西知子實聖爲質”

88)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년(369),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 같은 왕 26년(371), “高句麗擧兵來. 王聞之 伏兵於浿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 같은 왕 30년(375), “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 王又將大擧兵報之” ; 近仇首王 2년(376) “冬十一月 高句麗來侵北鄙” ; 같은 왕 3년(377), “冬十月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十一月 高句麗來侵”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辰斯王 3년(387), “秋九月 與靺鞨戰關彌嶺不捷” ; 같은 왕 5년(389), “秋九月 王遣兵侵掠高句麗南鄙” ; 같은 왕 6년(390), “九月 王命達率眞嘉謨 伐高句麗 拔都坤城

년까지의 30년간에 걸쳐, 황해도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10여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초기에는 백제가 황해도 남부 및 예성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황해도 북부 및 평양성까지 넘보곤 하였으나, 392년 이후로는 전세가 역전되어 고구려가 예성강 유역까지 차지하고 한강 이남까지 넘보는 상태였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쟁패는 단순한 영역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대국가 운영에 필요한 고급 문화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기도 하였다. 옛 낙랑군과 대방군 지역은 起源 상으로는 고조선의 유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나, 後漢 초기 이후 중국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당대의 中原文化를 시차 없이 수용해 왔던 귀족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89] 그래서 고구려는 이 지역을 무리하게 직접 통치하기보다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초에 걸쳐 平東將軍·樂浪相 冬壽, 帶方太守 張撫夷, 幽州刺史 鎭 등의 중국 망명객을 대표자로 내세워 그들의 막부 조직을 통해 간접 통치하였다.[90] 백제가 빼앗으려고 한 것도, 고구려가 막으려고 한 것도, 바로 그들의 선진 문화와 기술 인력이었다.

4세기 후반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교섭 및 전쟁의 이면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옛 대방 지역의 영역과 문화 인력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기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4세기 후반 한반도 관련 국제 정세의 기본은 고구려와 백제 양대 강국의 대결구도였다. 그에 비하면 한반도 남부의 신라와 가야는 그에 부수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였다.

2.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왜군의 성격

4세기 후반 김해 중심의 東部 加耶는 대방－가야－왜의 교역로에서 대방이 사라진 상

虜得二百人" ; 같은 왕 8년(392), "秋七月 高句麗王談德 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城" ; 阿莘王 2년(393), "秋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 같은 왕 3년(394), "秋七月 與高句麗戰於水谷城下 敗績" ; 같은 왕 4년(395),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 伐高句麗. 麗王談德 親帥兵七千 陣於浿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冬十一月 王欲報浿水之役 親帥兵七千人 過漢水 次於靑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廻軍至漢山城 勞軍士" ; 같은 왕 7년(398),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柵. 其夜 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 같은 왕 8년(399), "秋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89) 尹龍九, 1989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 126 (歷史學會) 140

90) 林起煥,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 ≪歷史學報≫ 147 (歷史學會) 42

태에서 왜와의 교역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4세기 후반에 속하는 김해 대성동 2호분, 13 호분, 23 호분에서 일본계 위세품인 바람개비형 청동기[巴形銅器]가 나오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시기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야와 교류를 원하자 가야제국은 이를 좋은 기회로 여겨 낙랑－대방을 대신하여 백제와 교역을 시작하였다.[91]

여기서 가야의 중개능력은 富와 기술과 무력을 모두 갖춘 데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백제와 왜 사이의 교역을 위한 지리적 편의성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김해의 가야국의 우월성은 철 생산과 철기 제작기술과 무력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한 다량의 덩이쇠[鐵鋌]와 철제 종장판 釘結 판갑옷 및 기마 무장 관련 유물 등은 이를 보여준다. 이는 가야가 백제를 통하여 옛 대방 지역, 즉 황해도 방면과 교역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어서 그 지역의 고구려－백제간 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유이민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다.[92]

그에 더하여 백제와의 교역이 시작되자, 동서로 분열되었던 가야연맹은 4세기 후반에 다시 김해의 加耶國을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통합되어, 백제와 왜 사이의 중개기지로서 안정적인 교역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광개토왕릉비문이나 ≪삼국사기≫ 强首傳에 보이는 '任那加羅(任那加良)'라는 명칭은, 김해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연맹의 4세기 후반 당시의 이름이며 존재방식이었고, 그 명칭의 기원은 창원의 임나국과 김해의 加耶國의 합칭에 있었다.[93]

한편 일본열도에서 4세기 중엽부터 후반까지 거대 고분의 조영 상황을 보면, 최대 고분들의 중심지가 기존의 奈良盆地 동남부에서 북부의 사키[佐紀] 고분군으로 옮겨지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분구 길이 200m를 넘는 거대한 前方後圓墳이 각지에 출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94] 그리고 그 때까지도 고분 부장품은 4세기 전반과 마찬가지로 주술적·종교적 농경의례 물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새로운 발전의 기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실은 한반도와의 교류가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왜국 수장연합 맹주의 통합력이 극히 불안정해진 것을 보이고 있다.

---

91)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年 4月條,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

92) 金泰植·宋桂鉉,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 (韓國馬事會·馬事博物館, 果川) 193～196

93) 金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서울) 86

94) 白石太一郎, 2006 <倭國の形成と展開> ≪古代史の流れ(列島の古代史8)≫ (岩波書店) 50. 즉, 그 시기에 奈良盆地 西南部의 葛城地方에는 廣陵町 스야마[巢山] 고분이나 川西町 시마노야마[島の山] 고분, 南河內의 古市 고분군에도 쓰도시로야마[津堂城山] 고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4세기 말엽에서 5세기 초의 일본열도에서는 河內 羽曳野市·藤井寺市의 후루이치[古市] 고분군과 堺市 모스[百舌鳥] 고분군을 축조한 신흥 세력이 갑자기 대두하였다. 이들은 교역이나 대외교섭을 중시하며 가야의 철의 교역체계를 장악하여 철제 갑주를 공급하는 새로운 위세품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했다고[95] 한다. 다만 같은 시기의 고분 규모로 보아, 당시의 吉備 지방도 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경쟁적으로 대외교역과 세력 확대에 열중하였다고 보이므로, 畿內 세력의 '장악'이라는 표현은 좀 더 후대의 사실로 미루어야 한다. 일본열도의 두 지역에 이러한 새로운 기운이 나타난 것은 일본열도의 사정보다는 한반도의 사정에 의하여 촉발되었을 개연성이 더욱 높다.

전통적으로 가야와 왜는 物的 자원인 철소재와 선진문물 및 人的 자원인 노동력[96]을 교환하는 긴밀한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4세기 이후로는 선진문물 공급의 부진으로 인하여 양자의 교류가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4세기 말엽이 되자 한반도의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양자의 교류관계는 가야의 군수물자 수출 및 工人 지원[97]과 왜의 군사력 동원[98] 문제가 중요시되었다. 그 시기에 河內 지방을 중심으로 한 왜왕권은 吉備 지방을 비롯한 주변 지역 수장들과의 주도권 경쟁을 위하여 가야의 철과 기술을 필요로 하였고, 김해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한 임나가라 왕권은 낙동강 유역을 둘러싼 신라와의 쟁패 및 백제와의 교류 과정에서 왜의 인력, 특히 군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서기 391년에 고구려 광개토왕이 왕위에 오르자, 백제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던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를 일으켜, 백제 阿莘王은 396년에 고구려군의 도성 포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원히 '奴客'이 되겠다는 맹세까지 하였다.[99] 이에 백제 아신왕은 397년 왜국

---

95) 田中晋作, 1990 <百舌鳥·古市古墳群の被葬者の性格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22 (古代學協會) ; 2000 <巴形銅器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51

96) 신경철, 2000 <앞의 논문> 73~77

97) 4세기 말엽 이후 일본열도의 새로운 무기와 마구는 낙동강 하류 금관가야의 것이 도입되거나 또는 그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田中晋作, 橋本達也, 宋桂鉉, 小林謙一, 金斗喆, 千賀久 등의 연구가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金泰植·宋桂鉉,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 (韓國馬事會·馬事博物館) 161~164 참조.

98)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日本の時代史2 倭國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東京) 15

99) ≪廣開土王陵碑文≫ 永樂六年 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首 攻取壹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氐利城 □□城 閣弥城 牟盧城 弥沙城 □舍蔦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奥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莫□□□□城 □而耶羅城 瑑城 於利城 農□城 豆奴城 沸□□利城 弥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城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彡穰城 曾□城 □□盧城 仇天城 □□□□□其國城. 殘不服義 敢出迎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歸穴 □便圍城. 而殘主困逼 獻□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과 우호를 맺으려고 태자 腆支를 보냈으니, 여기에는 任那加羅, 즉 금관가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백제는 가야를 매개로 하여 왜군을 끌어들였던 것이다.100) 백제가 4세기 말 고구려와의 전쟁에 임나가라와 왜를 끌어들인 조치는, 西晉이 3세기 말 4세기 초의 극심한 내란 중에 병력 보급을 위하여 五胡를 끌어들인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였다.

광개토왕은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400년(永樂 10년 庚子)에 步騎 5만을 신라에 보냈다. 신라에 들어와 있던 왜군은 고구려군을 보고 물러갔다.101) 여기서 왜군이 경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김해 방면까지 도망해 갔다는 것은, 그 왜군이 원래부터 임나가라의 지원에 의존하는 세력이었음을 보인다.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왜군의 성격에 대해서, 임나일본부설에서는 南韓(任那)에 地盤을 두고 고구려의 남침에 반격하는 日本軍이라고 보고 있으나,102) 최근의 학자들은 그 왜군은 당시 각국의 대등한 국제관계 속에서 들어온 것이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는데, 광개토왕의 업적을 강조하려는 고구려에 의하여 왜군의 활동이 과장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주도한 것이 倭였는가,103) 百濟였는가,104) 加耶였는가105)에 대해서는 관점이 갈리고 있다.

광개토왕릉비문의 '倭賊'이란 것은 실은 백제의 후원을 받는 가야－왜 연합군인데, 고구려는 그 연합군 중에 복식이 다른 왜를 과도하게 인식하고 또 왜인들이 일부 섞여 있는 군대를 경멸하는 의식 아래 그렇게 지칭한 것이다.106) 이는 ≪南齊書≫ 百濟傳에서

太王恩赦先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 得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100) 金泰植, 2005 <4世紀의 韓日關係史－廣開土王陵碑文의 倭軍問題를 中心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70~74

101) ≪廣開土王陵碑文≫ 永樂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卻 乘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 拔新羅□農城 倭寇萎潰 城夫十九 盡煞抑徙 安羅人戍兵. 師□□□□其□□□□□□□言□□□□□□□□□□□□□□□□□□□□□□□□□□辭□□□出□□□□□□□殘□潰□□□城 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 未有身來服事 □□□□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朝貢"

102)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71~78

103) 武田幸男, 1985 <四～五世紀の朝鮮諸國> 三上次男 外, ≪シンポジウム好太王碑≫ (東方書店, 東京) ; 濱田耕策, 2005 <4세기의 일한관계>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104)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 上·中·下 ≪문학과 지성≫ 28·29·31 ;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105) 김태식, 2005 <4세기의 한일관계사－광개토왕릉비문의 왜군문제를 중심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106) <위 논문> 45

북위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고구려의 군대를 '魏虜'라고 칭한 것과[107] 마찬가지의 어법이다.

≪三國史記≫ 朴堤上傳에 그가 왜국에 도착했을 때(신라 눌지왕 2년, 418)의 기사에 의하면, 前에 백제인이 왜에 들어와 신라와 고구려가 왜왕국을 침략하려 한다고 '讒言'하여, 왜가 병사를 보내 '新羅國境의 밖'에서 '邏戍'케 하였는데, 고구려가 쳐들어와 왜의 '邏人'을 모두 잡아 죽였으므로, 왜왕이 백제인의 말을 참으로 믿었다고 한다.[108]

여기서 백제인의 유도로 왜의 순라병이 신라국경 밖, 즉 가야 지역에 들어와서 주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왜병의 규모는 대군이 아니라 정세를 탐지하기 위한 소규모의 순라병에 지나지 않았고, 이 왜군의 동원에 백제의 의도와 가야의 협력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고구려의 무장체계는 쇠투겁창 중심의 重裝騎兵과 步兵이 조화를 이루는 단계에서 밀집대형 騎兵隊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것이었다.[109] 가야의 무장체계는 살상력이 극대화된 단면 마름모꼴 쇠투겁창과 長頸式 쇠화살촉으로 개량되어 있었고, 防護具도 이에 대응하여 철제 종장판 釘結 판갑옷으로 전환되었으며, 목심철판피 발걸이와 하트모양 말띠드리개도 보유하여 중장 기마전술의 구사가 가능한 수준의 것이었다.[110]

반면에 왜의 무장체계는 단검, 단도, 두께가 얇은 양날창[鈹]과 쇠화살촉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양날창과 쇠화살촉은 어느 정도의 갑옷과 방패만 있으면 치명상을 입힐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서, 실전적인 무기로서보다는 과시적인 위세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111] 또한 4세기 후반에 일부 나타나는 일본열도의 수신판 혁철 판갑옷[竪矧板革綴短甲]과 방형판 혁철 판갑옷[方形板革綴短甲]은 한반도 남부의 종장판 정결 판갑옷[縱長板釘結板甲]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나, 가야의 판갑옷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여 전체 구조나 제작 기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미숙한 것이었다.[112]

---

107) ≪南齊書≫ 卷58, 列傳39 百濟國, "是歲(490) 魏虜又發騎數十萬攻百濟 入其界. 牟大遣將沙法名·贊首流·解禮昆·木干那 率衆襲擊虜軍 大破之"

108) ≪三國史記≫ 卷45, 列傳5 朴堤上傳, "遂徑入倭國 若叛來者. 倭王疑之. 百濟人前入倭 讒言新羅與高句麗謀侵王國. 倭遂遣兵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幷擒殺倭邏人. 倭王乃以百濟人言爲實"

109) 余昊奎, 1999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韓國軍事史硏究≫ 2 (國防軍史硏究所, 서울) 71~73

110) 金斗喆, 2003 <武器·武具 및 馬具를 通해 본 加耶의 戰爭> 韓國民族文化硏究所 編, ≪加耶考古學의 새로운 照明≫ (혜안, 서울) 145

111) 松木武彦, 1999 <古墳時代の武裝と戰鬪> ≪戰いのシステムと對外戰略≫ (東洋書林, 東京)

112) 橋本達也, 2002 <古墳時代甲冑の系譜－朝鮮半島との關係－>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國立歷史民俗博物館 발표요지)≫ (佐倉) 115~118

그 결과 가야를 매개로 하여 동원된 왜군들은 위와 같은 무장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인 행위를 하기 보다는 가야군대의 하급단위로 편제되어 활용되었을 것이다.[113] 그들은 가야의 의도에 따라 對新羅 戰線에 투입되기도 하고 백제와 가야의 교섭에 따라 고구려와의 전쟁에 투입되기도 하였으니, 실상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倭賊' 또는 '倭寇'는, 가야군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면서 왜의 원군이 일부 가세된 가야－왜 연합군이었다.

3. 백제의 대패 및 전기 가야연맹의 해체

400년, 즉 庚子年의 전투는 고구려측 비문의 기술에 따라 고구려군과 왜군이 치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상은 해당 지역인 낙동강 유역을 둘러싼 양대 세력, 즉 신라와 가야 사이의 패권 경쟁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고구려의 步騎 5만 대군은 소수의 왜군을 겨냥한 군대가 아니라, 신라의 요청에 따라 그 배후의 가야연맹 핵심부를 치기 위해 동원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구려는 가야 정벌을 통하여 백제와 왜를 견제하는 효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로부터도 일정한 반대급부를 취하였을 것이다.

임나가라에서 합쳐진 가야－왜 연합군은, 추격해 온 고구려－신라 연합군이 城에 이르자 곧 항복하였다. 가야 자체의 전반적인 군비나 전투 능력은 신라에 비하여 손색이 없었으나, 그를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남하해 온 고구려의 대군에 비하면 열세였기 때문이다. 그 직후에 고구려는 평정한 임나가라에 '羅人', 즉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물론 여기서의 '安羅人戍兵'이라는 구절을 함안 안라국의 수비대를 가리키는 명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문맥이 닿지 않는다. 다만 고구려가 순라병을 두었다고 해도, 이 지역은 고구려에 인접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신라군을 배제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114]

그런데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永樂 14년 甲辰條에도 '倭'가 나온다. 거기서 왜군이 帶方界, 즉 황해도 방면에 침입하였다가 고구려 평양에서 출동한 광개토왕이 이끄는 군대에게 토벌되었다는 줄거리는 명백하다.[115] 다만 이 비문만으로는 왜와 백제의 연계성

113) 金斗喆, 2005 <4세기 후반~5세기 초 고구려·가야·왜의 무기·무장체계 비교>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광개토대왕비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 金泰植, 2005 <앞 논문> 73
114) 金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99~100
115) ≪廣開土王陵碑文≫ 永樂十四年甲辰條,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石城 □連船□□□.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그저 왜군의 반격으로만 보기도 하고,[116] 백제와의 결탁에 의한 공동작전으로 보기도 한다.[117] 404년에는 왜군이 어째서 九州, 가야, 백제를 지나 帶方界에까지 나타나 고구려와 싸웠는가? 대방계는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 지역이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왜군이 가야를 돕기 위한 군대인가, 또는 백제를 돕기 위한 군대인가 하는 점이다. 397년에 아신왕이 왜국과 우호를 맺었다거나,[118] 광개토왕이 399년에 백제와 왜가 화통한다는 것을 듣고 평양성으로 내려갔다는 것으로[119] 보아, 일단 백제의 원병이었다고 생각된다. 404년에 대방계에 나타나 (殘兵과 화통하여?) 배를 이어 공격하다가 궤멸 당했다는 '倭寇', 즉 가야－왜 연합군은 백제를 위해 동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99년과 400년에 신라를 침입했다는 왜군은 행동반경으로 보아 가야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 동안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나 기록으로 보아서도, 왜군은 가야를 위한 군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의 일본열도에 가야의 문물은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백제의 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120]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04년의 왜병도 백제가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끌어들인 것이었으나, 역시 가야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김해의 가야국은 대내적으로 가야연맹 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외적으로 신라에 대항하고 백제와의 선진문물 교류에 응하기 위하여 왜의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고대 일본의 이른바 '南韓經營'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평상적인 가야와 왜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교역 전통이 백제의 개입으로 증폭되어 고구려와의 전쟁에

王躬率□□ 從平穰 □□□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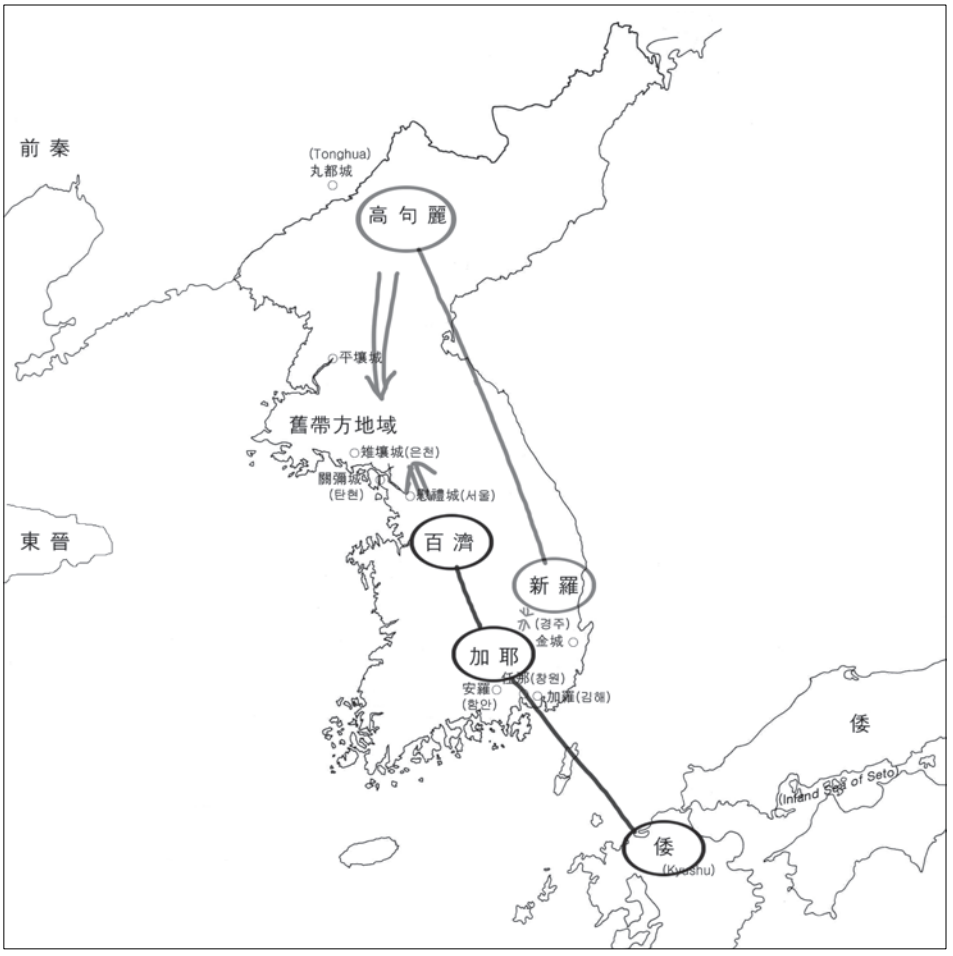
116)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75

117)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硏究≫ (博英) 384 ; 王健群, 1984 ≪好太王碑硏究≫ (吉林出版社) ; 王健群 著, 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硏究≫ (역민사, 서울) 275 ; 鈴木靖民, 1988 <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 讀賣テレビ放送 編, ≪好太王碑と集安の壁畵古墳≫ (木耳社, 東京) 63~64

118)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阿莘王 6年, "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119) ≪廣開土王陵碑≫ 永樂九年 己亥, "百殘違誓 与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120) 일본열도 소재 4세기의 백제계통 문물로는 兵庫縣 데아이[出合] 유적의 窯와 甕, 시루[甑], 無文內拍子 등의 軟質土器에 불과하고, 長野縣 아사가와바타[淺川端] 유적 출토 馬形帶鉤도 백제 중앙보다는 天安을 포함한 牙山灣 일대로부터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의 마형대구는 같은 長野縣의 네쯔카 유적에서 金海市 良洞里 古墳群 출토품과 같은 계통의 蕨手紋裝飾附 鐵劍이 출토되고 있어 역시 金海 지역의 중개로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朴天秀, 2007 ≪새로 쓰는 고대한일관계사≫ (사회평론, 서울) 78~79



[지도 4] 4세기 말 5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

투입된 것, 즉 백제의 이민족 동원능력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나오는 신라를 침공한 倭人·倭兵은 시기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료 原典에 대하여 추구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체로 계절적으로 약탈을 행하는 해적의 성격을 띤다고 보이나[121] 그 중에 일부는 가야의 지원을 받은 왜군이 가야 영역에 들어와 있다가 신라를 공략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122]

121) 旗田巍, 1975 <三國史記新羅本紀にあらわれた倭> ≪日本文化と朝鮮≫ 2

12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6년(463)조, "春二月 倭人侵歃良城 不克而去 王命伐智·德智 領兵伏候於路 要擊大敗之 王以倭人屢侵疆場 緣邊築二城"의 歃良城 침입 기사가 그런 것 중의 하나이나, 그 전에도 그런 성격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고구려－신라 연합군의 임나가라 정복지에 대한 순라병 설치를 비롯한 일련의 전투로 인하여, 4세기 이후 본격화된 영남 지역의 패권 경쟁에서, 고구려의 무력을 앞세운 신라는 결정적으로 가야보다 앞설 수 있게 되었으며, 백제는 옛 대방 지역의 영토와 함께 가야 지역을 중개기지로 하는 대왜 교역망을 상실하게 되었다.[123] 이 사건의 여파로 백제의 右翼이면서 김해의 加耶國을 대표로 하는 전기 가야연맹은 막을 내렸다. 고구려군의 南征은 전기 가야연맹을 해체시키면서 한반도 사국의 세력판도를 백제 위주로부터 고구려 위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의 제물은 가야였다.

제2장 高句麗의 南進과 百濟·加耶·新羅·倭의 抵抗

제1절 5세기 전반의 한반도와 일본열도

1. 고구려와 백제의 국제교류망 구축

고구려는 4세기 말 5세기 초의 광개토왕 재위 기간 중에 광대한 영토를 획득하였다. 서쪽으로는 요하까지 닿았고, 서북으로 거란을 쳐서 일부를 귀속시키고, 북으로 북부여를 점령하여 말갈족의 대부분을 복속시키고, 동으로 동부여를 병탄하였으며, 남으로 백제를 쳐서 한강 이북을 차지하였다. 長壽王은 이를 바탕으로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여[124]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436년에는 北燕 왕 馮弘의 무리를 받아들이면서[125] 北魏와 긴장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대체로 중국의 東晉, 宋 및 北魏와 조공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교역을 이루었다. 5세기의 각종 국제 기록들을 통관해 볼 때,[126] 5세기 당시 동북아시아 동북부

123) 金泰植, 2005 <4世紀의 韓日關係史－廣開土王陵碑文의 倭軍問題를 中心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124)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15년, "移都平壤"

125) ≪위 책≫ 長壽王 24년, "夏四月 魏攻燕白狼城 克之. 王遣將葛盧·孟光 將衆數萬 隨陽伊至和龍迎燕王"

126) ≪宋書≫ 卷97, 列傳57 夷蠻 東夷高句驪國, "高句驪王高璉 晉安帝義熙九年(413) 遣長史高翼 奉表獻赭白馬. (中略) 璉每歲遣使 十六年(439) 太祖欲北討 詔璉送馬, 璉獻馬八百匹. (中略) 大明三年(459) 又獻肅愼氏楛矢石砮" ; ≪北史≫ 卷94, 列傳82 室韋國(南室韋), "多猪·牛. (中略) 其國無鐵, 取給於高麗. 多貂" ; ≪建康實錄≫ 南齊 高麗傳, "其官位加長史司馬參軍之屬. 拜則申一脚 坐

의 중추적 중개 교역자였던 고구려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즉 고구려는 挹婁, 南室韋, 夫餘, 涉羅 등의 주변 민족에게 철기 생활도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담비를 비롯한 동물 가죽이나 천연 보석류를 받아 중국 남북조에 중개 교역하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銀이나 말을 중국에 보내고 그 대가로 중국 문물을 수입하였다. 고구려의 성장 동력은 동북아 일대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성장하던 서로 다른 민족들의 문화적 차이를 알고 이를 총괄하는 대표자가 되어 중국과 중개 교역하던 능력에 있었던 것이다.[127]

반면에 397년에 왜국에 갔다가 405년에 귀국하여 왕이 된 백제 전지왕은[128] 409년과 418년에 왜국과의 공식적 교섭을 이루었고,[129] 이런 성향은 毗有王 즉위 직후인 428년까지 이어졌다.[130] 그러나 비유왕은 얼마 후 왜국 일변도의 교섭에서 벗어나 고구려에 대항하는 중국 남조 및 한반도 남방 제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429년, 430년, 440년, 450년에 걸쳐 중국 남조의 宋나라에 사신을 보내고,[131] 한반도 남부 쪽으로도 433년 및 434년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좋은 말과 흰 매를 보내[132] 우호관계를 튼 것은 이를 말해준다.

또한 이를 전후해서 백제는 영산강 유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 의지를 보였다. 5세기 중반 이후 나주 반남 고분군의 성장은 백제의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5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분의 대형 독무덤에서 백제 계통의 금동관과 금동장식신발 등의 복식 유물과 백제 계통의 은상감 단봉문 고리자루

則跪 行則走 以爲恭敬 國有銀山 採爲貨 並人參貂皮. 重中國綵繒 丈夫衣之 亦重虎皮" ;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後貢使相尋 歲致黃金二百斤 白銀四百斤"

127) 金昌錫, 2004 <高句麗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 ≪新羅文化≫ 24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24 ; 金泰植, 2006 <韓國 古代諸國의 對外交易－加耶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101, 6

128)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腆支王 卽位年, "阿莘在位第三年 立爲太子. 六年 出質於倭國. 十四年 王薨 王仲弟訓解攝政 以待太子還國. 季弟碟禮殺訓解 自立爲王. 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旣至國界 漢城人解忠來告曰 大王棄世 王弟碟禮殺兄自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碟禮 迎腆支卽位"

129) ≪위 책≫ 腆支王 5년, "倭國遣使 送夜明珠 王優禮待之" ; 같은 왕 14년, "夏 遣使倭國 送白綿十匹"

130) ≪위 책≫ 毗有王 2년, "倭國使至 從者五十人"

131) ≪宋書≫ 卷97, 列傳57 夷蠻傳 百濟國, "(元嘉)七年 百濟王餘毗 復修貢職 以映爵號授之. 二十七年 毗上書獻方物 私假臺使馮野夫西河太守 表求易林·式占·腰弩 太祖並與之"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3년, "秋 遣使入宋朝貢" ; 같은 왕 4년, "夏四月 宋文皇帝 以王復修職貢降使册授先王映爵號" ; 같은 왕 14년, "冬十月 遣使入宋朝貢"

132)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7년 "遣使入新羅請和" ; 같은 왕 8년, "春二月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큰칼[銀象嵌單鳳文環頭大刀]이 출토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133] 백제계 유물의 새로운 등장은 백제와의 보다 직접적인 교섭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 독무덤[甕棺]이라는 묘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으로 보아 아직 이 지역의 토착 세력이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은 듯하나, 5세기 중반에는 그 首長이 백제의 벼슬을 받고 대외적으로 '백제의 영토'라고 칭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5세기 전반의 백제가 왜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세력의 중개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日本書紀≫ 神功紀와 應神紀의 기록에는 서기 262년에 백제 장군인 木羅斤資가 왜왕의 명령을 받아 加羅의 사직을 복구해 주었다거나,[134] 294년에 그의 아들인 木滿致가 아버지의 공으로 任那를 오로지하고 백제와 왜국을 왕래하면서 백제 조정에서 높은 권세를 누렸다는[135] 등의 기록이 나온다. 이 기사들을 문장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21년(475) 조의 木劦滿致와 관련하여 그 편년을 3갑자 내려서 보고[136] 제한적인 사실성을 인정한다면 그 시기를 442년 및 474년으로 결정하게 되어, 5세기 중엽 이후로 '加羅' 즉 고령의 伴跛國을 중심으로 한 백제－왜 교류 관계가 존재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백제 귀족인 목씨의 활동을 매개로 하여[137] 고령의 반파국이 백제의 대왜 교통에 협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138] 多沙城을 백제의 '往還路驛'으로 주었다는 神功紀 50년 조의 기사로 보

133) 이정호, 1999 <영산강유역의 고분 변천과정과 그 배경> 崔盛洛 編著, ≪榮山江流域의 古代社會≫ (學研文化社) 114

134)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攝政 62년(262), "新羅不朝. 卽年 遣襲津彦擊新羅.[百濟記云 壬午年新羅不奉貴國. 貴國遣沙至比跪 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 加羅國王己本旱岐 及兒百久至·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汶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旣殿至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 捨而不討 反滅我國. 兄弟人民 皆爲流沈. 不任憂思 故以來啓. 天皇大怒 卽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 (下略)]"

135) ≪日本書紀≫ 卷10, 應神天皇 25년(294)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婬 多行無禮. 天皇聞而召之. [百濟記云 木滿致者 是木羅斤資討新羅時 娶其國婦而所生也. 以其父功 專於任那. 來入我國 往還貴國. 承制天朝 執我國政 權重當世. 然天朝聞其暴 召之.]"

136) 山尾幸久, 1978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史料の檢討を中心に－>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卷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會編) (吉川弘文館) 198~202

137) 李道學,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195~197

138) ≪宋書≫ 卷97, 夷蠻傳 百濟國條의 기록으로 보아, 蓋鹵王 4년(458)에 왕의 추천으로 송나라로부터 관작을 받은 11인 중에 8인이 백제의 왕족인 餘氏인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木羅斤資로 추정되는 木衿이 龍驤將軍의 작호를 받은 것은, 개로왕이 그의 이러한 공로를 크게 인정한 덕분이라고 보인다. 金琪燮, 2000 ≪백제와 근초고왕≫ (學研文化社) 166

아,[139] 430년 이래 백제와 반파에 의하여 경남 하동 방면이 대왜 교역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가 가야 지역 중에서도 내륙 깊은 곳에 있던 고령의 반파국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제철 산업 기반과 대왜 교역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 계통의 금은상감 고리자루큰칼이 5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고령 지산리 32NE－1호분과 남원 월산리 M1－A호분에서 출토된 것은, 백제 귀족인 목씨의 활동 결과를 반영한다고 보인다.[140] 다만 고령 지산리 고분군의 해당 시기 유물에 백제계 문물의 요소는 고리자루큰칼과 같은 일부 위세품에 지나지 않고, 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생활 유물은 재지 기반의 독자적인 것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 당시에 목씨의 매개를 통해 고령 지방에 미친 백제의 영향력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고령 세력의 선택에 의한 상호동맹적인 성격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신라의 6부체제 형성과 대외관계

신라는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 군대의 도움을 받아 가야－왜 연합군을 물리치고 낙동강 동쪽의 가야 세력을 대부분 복속시키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신라의 초기 왕릉인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의 출토품에 靑銅壺杅, 銀盒을 비롯한 각종 고구려 계통 漢式 청동용기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페르시아, 흑해 연안, 카자흐스탄, 스키타이, 중국 북방의 흉노를 비롯한 胡族의 물품들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141] 신라는 고구려를 매개로 한 교역을 통해 활발한 문화 변혁을 이루어나갔음을 알 수 있다.[142] 그 대가로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에 시달려야 했다.

392년에 고구려에 볼모로 갔던 實聖이 401년에 돌아온 후[143] 그 이듬해에 奈勿王이

---

139)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攝政 50년(250) "夏五月 千熊長彦·久氐等 至自百濟. 於是 皇太后歡之 問久氐曰 海西諸韓 旣賜汝國 今何事以頻復來也. 久氐等奏曰 天朝鴻澤 遠及弊邑. 吾王歡喜踊躍不任于心. 故因還使 以致至誠. 雖逮萬世 何年非朝. 皇太后勅云 善哉汝言. 是朕懷也.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140) 淸州 新鳳洞 고분군의 출토 유물을 기반으로 하여 백제 귀족 木氏의 세력 근거지로 淸州 지역을 손꼽는 견해가 있다. 朴淳發, 2000 <百濟의 南遷과 榮山江流域 政治體의 再編> ≪韓國의 前方後圓墳≫ (충남대학교출판부) 130

141) 崔秉鉉, 1992 ≪新羅古墳硏究≫ (一志社) 347~351

142) 金泰植, 2006 <韓國 古代諸國의 對外交易－加耶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101.

14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麻立干 37년, "春正月 高句麗遣使. 王以高句麗强盛 送伊湌大

죽고 실성이 왕위에 올랐다든가, 417년에 실성왕은 고구려군을 이용하여 訥祇를 죽이려 하였으나 눌지가 이를 역이용하여 실성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든가[144] 하는 것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라는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삼고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신라 지역 통합의 주체로 부각시킴으로써 커다란 국가적 성장을 이루어 초기 고대국가로 발돋움했다. 이는 신라가 언제 部體制를 성립시켰는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部는 외교권과 무역권은 박탈당하였으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 단위정치체였다가,[145] 고대국가 완성 단계 이후로는 수도 내의 행정구역으로 전환되는 존재를 가리킨다.[146]

신라의 경우에는 고분 유물 상으로 보아 위세품을 주변의 部로 추정되는 親新羅系 지방 세력들에게 賜與하는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5세기이다. 5세기 초부터 6세기 초에 걸쳐 강원도 삼척, 경상북도 순흥, 안동, 의성, 선산, 성주, 칠곡, 대구, 경산, 영일, 경상남도 창녕, 양산, 부산 등에서 신라 계통의 금동관, 귀걸이, 허리띠장식 등이 출토되었다.[147] 거기서 출토된 신라 冠의 양식적 齊一性은 마립간 시기에 착장형 위세품의 分與를 매개로 중앙과 지방 정치체 사이에 형성된 간접 지배 양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148]

西知子實聖爲質" ; 같은 왕 46년, "秋七月 高句麗質子實聖還"

144) ≪위 책≫ 訥祇麻立干 卽位年, "奈勿王三十七年 以實聖質於高句麗. 及實聖還爲王 怨奈勿質己於外國 欲害其子以報怨 遣人招在高句麗時相知人 因密告 見訥祇則殺之. 遂令訥祇往 逆於中路. 麗人見訥祇 形神爽雅 有君子之風 遂告曰 爾國王使我害君 今見君 不忍賊害 乃歸. 訥祇怨之 反弑王自立" ; ≪三國遺事≫ 第18, 實聖王條, "王忌憚前王太子訥祇有德望 將害之 請高麗兵而詐迎訥祇. 高麗人見訥祇有賢行 乃倒戈而殺王 乃立訥祇爲王而去"

145) 盧泰敦,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韓國古代史硏究≫ 17, 26

146) 기존 설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신라의 六部 성립 시기를 5세기 후반 이후로 보았으나(末松保和, 1936 <新羅六部考> ; 1954 ≪新羅史の諸問題≫, 재수록 ; 李丙燾, 1937 <三韓問題의 新考察(六)> ≪震檀學報≫ 7 ; 金哲埈, 1952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歷史學報≫ 1·2), 部體制라는 이름으로 심화시킨 연구에서는 5세기 전반 訥祇麻立干 대를 주목하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그 시기를 점점 올려 잡아 3세기 중엽까지 올라갔으며[全德在, 1992 <新羅 6部體制의 變動過程 硏究> ≪韓國史硏究≫ 77 ; 1996 ≪新羅六部體制硏究≫ (一潮閣)], 그 중에는 1세기 초로 올려 잡은 견해도 있다[李鍾旭, 1980 <新羅上古時代의 六村과 六部> ≪震檀學報≫ 49 ; 李文基, 1981 <金石文資料를 통하여 본 新羅의 六部> ≪歷史敎育論集≫ 2 ; 崔在錫, 1987 <新羅의 六村·六部> ≪韓國古代社會史硏究≫ (一志社) ; 朱甫暾, 1992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연구 초기에는 都城의 행정구역을 6부로 구분하고 그 위에 6部貴族制가 운영된 시기를 6部制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 성립 시기를 5세기 후반 이후로 잡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部體制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단계에 와서는, 연맹 소속국들의 외교권이 왕권에 의하여 통제되어 대외관계의 창구가 단일화되는 시기를 중시하였다.

147) 李漢祥, 1995 <5~6세기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韓國史論≫ 3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63

이러한 신라의 위세품들이 출토된 지방은 아직 그 지역 지배층의 통치 기반이 신라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라의 영역 내에 포함되어 신라 왕권에게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고 판단된다.[149]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고분들은 5세기 전반 이후 신라계 유물들이 유입되면서 규모도 커지고 부장품도 많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그들이 신라 왕권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50] 그러므로 신라의 6부체제는 5세기 전반에 성립되었으며, 그 결과 선산, 대구, 경산, 창녕, 양산, 부산 등지를 아우르는 초기 고대국가를 성립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삼국사기≫에서 눌지왕이 位號를 尼師今에서 麻立干으로 고친 첫 왕으로 기록되고 있음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눌지마립간은 고구려 군대의 도움을 받아 417년에 왕위에 올랐으나, 그 후 418년에 水酒村干(경북 예천), 一利村干(고령군 성산면), 利伊村干(영주) 등을 불러 의논하여 歃良州干(양산) 堤上을 보내 고구려와 왜에 볼모로 보낸 동생들을 귀환시키고,[151] 433년과 434년에 이어진 백제의 화친 요청을 수락함으로써[152] 고구려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고구려 계통 청동용기의 출토가 5세기 후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신라는 아직 고구려와의 단절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내에서 反고구려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450년에 신라 何瑟羅城(강원 강릉) 성주가 悉直(삼척) 들에 들어와 사냥하던 고구려 변방의 장수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153] 그러나 고구려가 사신과 군사를 내어 이에 항의하자 신라 왕이 겸손한 말로 사과했다는 것으로 보아,[154]

---

148) 咸舜燮, 2002 <신라와 가야의 冠에 대한 序說> ≪大加耶와 周邊諸國≫ (高靈郡·韓國上古史學會) 146

149) 金泰植, 1985 <5세기 후반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硏究> ≪韓國史論≫ 12, 47～49;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162～163

150) 李熙濬,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43～244

151) ≪三國史記≫ 卷45, 列傳5 朴堤上傳, "及訥祇王卽位 思得辯士 往迎之 聞水酒村干伐寶靺·一利村干仇里迺·利伊村干波老三人有賢智 召問曰 吾弟二人 質於倭·麗二國 多年不還 兄弟之故 思念不能自止 願使生還 若之何而可. 三人同對曰 臣等聞歃良州干堤上 剛勇而有謀 可得以解殿下之憂. 於是 徵堤上使前 告三臣之言而請行. 堤上對曰 臣雖愚不肖 敢不唯命祇承. (下略)"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祇麻立干 2년, "春正月 親謁始祖廟 王弟卜好 自高句麗 與堤上奈麻還來. 秋 王弟未斯欣 自倭國逃還"

15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祇麻立干 18年, "春二月 百濟王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冬十月 王以黃金明珠 報聘百濟"

153) ≪위 책≫ 訥祇麻立干 34年, "秋七月 高句麗邊將 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 出兵掩殺之"

154) 위와 같은 조,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 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侵

신라는 아직 고구려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가야 지역의 세력 구도 변화

전기 가야맹의 소멸과 함께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던 가야 지역은 멸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문헌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고학적인 유적 상황을 토대로 5세기 이후 가야 지역 내부의 정세를 정리해 보면, 낙동강 동쪽 지역은 신라 문화권으로 이탈해 들어가고, 낙동강 서쪽의 후기 가야 문화권은 그 내부에서 고령권, 함안권, 고성－진주권, 김해권 등의 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신라에 자발적으로 투항하였다고 보이는 성주, 창녕, 양산, 부산 지역은 5세기 내내 크게 발전하여 고분 규모가 커지고 경주 계통의 유물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은 원래 가야연맹 소속이었으나, 신라에 복속하는 대가로 독립적인 지역 지배권을 신라로부터 인정받고 그 후원을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155] 이들은 김해의 맹주국이 약화된 것을 계기로 대왜 교역을 주도하면서 신라 문물을 중개하기도 하고, 가야제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조개무지[貝塚] 및 대형 덧널무덤[木槨墓] 등이 다량 출토되던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구 유역의 해안 지대에서는 5세기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고분 유적의 수효가 줄어들고 규모도 소형 돌덧널무덤[石槨墓] 정도로 축소되고, 일부 신라 계통 유물이 복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 지역에서 번성하였던 전기 가야연맹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156]

셋째, 함안에는 의령, 칠원, 마산, 진북, 군북을 포함한 일대에 소형 군집분과 중소형 봉토분으로 조합된 하위 고분군 그룹들을 거느린 도항리 고분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함안 양식 토기 문화권은 다른 지역으로 문화권이 넓혀지지도 못하였고, 다른 문화권의 침범을 거의 허용하지도 않아서[157] 고립적이고 자급자족

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155)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168

156) ≪위 책≫ 169

157) 李盛周, 1999 <考古學을 통해 본 阿羅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제23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넷째로, 고성, 사천, 진주 지방에 걸친 고성 양식 토기의 존재 범위는 매우 넓게 나타나서, 그에 인접한 거창, 함양, 아영 지방의 세력권이나 함안, 의령, 칠원 지방의 세력권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면모를 띠었다.[158] 그러나 이 토기권은 그들 사이에 토기 양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도 발전의 주체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존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맹 전체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강대한 힘과 경제력을 갖춘 존재가 배출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159]

다섯째로, 전기 가야시대에 후진 지역이었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의 내륙 산간 지역은 5세기 전반 이래로 가야의 기존 문화 내용이 축적되어 5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형 분구묘를 축조하면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묘제나 유물의 성격 면에서 그들은 4세기 이전 진변한 공통 문화기반을 계승하면서, 전반적인 경제력 및 지배 권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였다.[160]

이로 보아 5세기 전반 가야 지역에서 국제교역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김해, 창원 일대의 세력은 극도로 쇠락한 채 어느 정도 신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 있었다. 나머지 경남 서남부 지역이나 경상 내륙 산간 지역의 소국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로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국제 관계에서 이전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4. 일본열도의 문화 변동과 그 성격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면서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 사이의 대외교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5세기 전반에는 김해의 가야국이 크게 약화됨으로써 일본열도에 철이나 선진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주도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가야소국과 옛 가야 소국들이 각자의 노력으로 소규모로 왜와 교섭하였다.

오사카부[大阪府] 오바테라[大庭寺] 유적의 TG232폐기장에서 출토된 鉢形器臺의 문양 구성은 부산 복천동 21－22호분과 거의 일치하며, 그에 이어 복천동 10－11호분 계통의

158) 安在晧, 1997 <鐵鎌의 변화와 劃期> ≪加耶考古學論叢≫ 2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서울) 79~88 ; 朴天秀, 1999 <器臺를 통하여 본 加耶勢力의 動向> ≪加耶의 그릇받침≫ (國立金海博物館) 98

159)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2권≫ (푸른역사) 179~182

160)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88~90;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가야사 1)≫ (푸른역사) 17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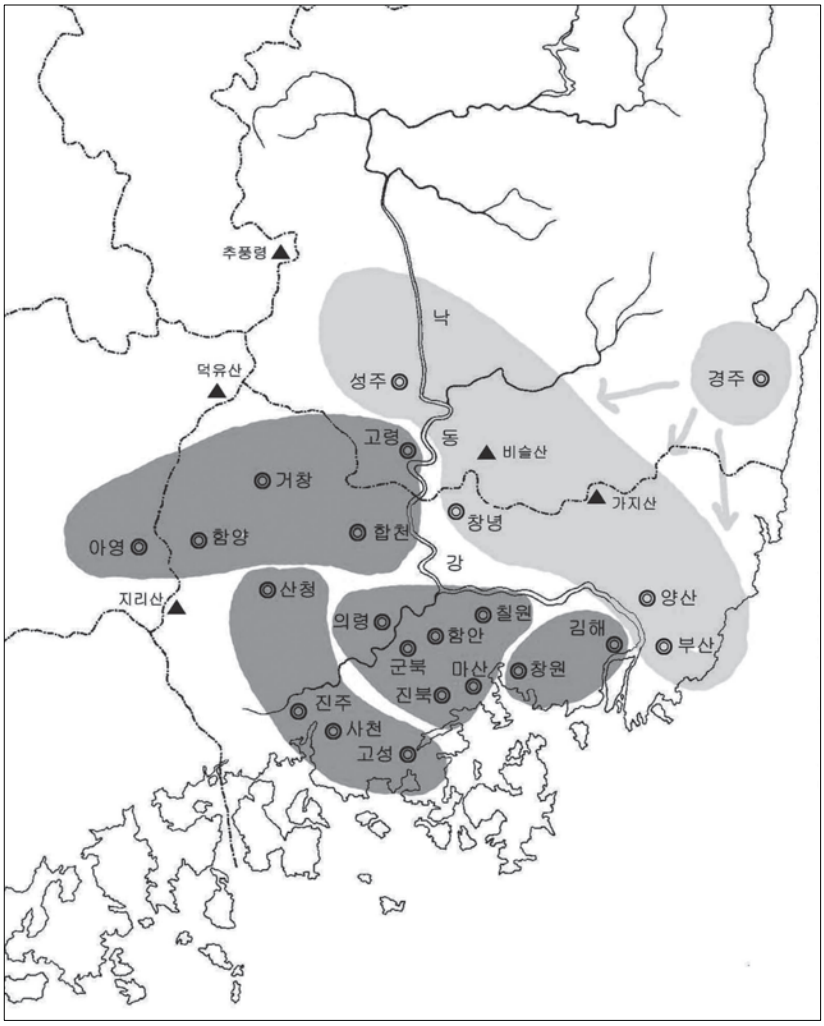
문양도 나타난다.[161] 부산 복천동 고분군 축조 세력, 즉 瀆盧國은 4세기에는 가야계통에 속한 세력이었으나 5세기 초에 신라계통의 문물을 출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들은 김해의 加耶國이 약화된 시기에 그를 대신하여 한동안 일본열도 근기 지방과의 교섭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함안 양식의 繩蓆文打捺壺가 나가사키현[長崎縣] 다이쇼군야마[大將軍山] 고분이나 후쿠오카현[福岡縣] 히가시시모다[東下田]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162] 함안의 안라국은 3~4세기 단계에 이어 5세기에 일본열도와의 독자적인 교류를 좀 더 강화시켰다고 보인다. 통형고배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스에키는 일본 四國 지방의 가가와현[香川縣] 미야야마[宮山]窯와 미타니사부로이케[三谷三郎池]窯 및 에히메현[愛媛縣]의 고분군 등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는 함안의 안라국 계통의 工人이 파견되어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163] 한편 고성 양식의 三角形透窓高杯와 水平口緣壺 등으로 보아, 후쿠오카현[福岡縣] 아사쿠라[朝倉]窯와 인근 고테라[古寺] 고분군 및 이케노우에[池の上] 고분군의 스에키는 고성 고자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工人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인다.[164]

이렇게 볼 때 5세기 전반의 일본열도는 近畿의 왜왕권과 부산 독로국과의 관계가 주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四國 호족, 九州 호족세력들도 각기 가야연맹의 유력 소국들인 안라국 및 고자국과 별개의 관계를 맺으면서 독자적인 교섭활동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간의 철과 기마 문물 교류에 관해서는 근래에 들어 기초적인 자료 면에서 대체적인 공통점에 도달하였다. 즉 일본에서 제철이 행해지지 않던 5세기까지는 교역을 통하여 가야로부터 철소재를 입수해서 이를 가지고 鍛冶 과정을 거쳐 철기를 생산하였으며, 6세기 이후 왜의 단야와 제철 개시도 가야 또는 백제 남부 지방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이다.[165] 뿐만 아니라 4세기 내지 5세기 전반 일본열도의 기마 관련 무기와 마구는 낙동강 하류역 금관가야의 것이 도입되거나 또는 그 영향 아래

161) 朴天秀, 2007 ≪새로 쓰는 古代 韓日交涉史≫ (社會評論, 서울) 50
162) ≪위 책≫ 51
163) ≪위 책≫ 216~217
164) ≪위 책≫ 222
165) 藤尾愼一郎, 2004 <彌生時代の鐵>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 東潮, 2004 <弁辰と加耶の鐵>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 穴澤義功, 2004 <日本古代の鐵生產>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 大澤正己, 2004 <金屬組織學からみた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鐵>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지도 5] 5세기 전반 가야문화권 考古遺蹟 변동

만들어진 것이며, 5세기 후반의 일본 마구는 대가야의 것을 수용하여 재지화시킨 것이라고 한다.[166]

166) 田中晋作, 2004 <古墳時代の軍事組織につい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 宋桂鉉, 2004 <加耶古墳の甲冑の變化と韓日關係>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 橋本達也, 2002 <古墳時代甲冑の系譜 – 朝鮮半島との關係 – >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 金斗喆, 2004 <加耶と倭の馬具>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 千賀久, 2004 <日本出土の'非新羅系'馬裝具の系譜 – 大加耶圈の馬具との比較を中心に – >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또한 그 중 일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畿內 신흥 세력의 무기와 갑주 및 마구는 김해 금관가야에서 건너간 공인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며, 5세기 후반의 일본 갑주와 무기, 마구 등은 한반도의 대가야 또는 백제에서 건너간 공인에 의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가 만들어져 곧 재지화 하였다고 보았다.[167] 4~5세기에 일본열도로 건너간 한반도계 이주민들은 주로 항만 등에 거주하면서 교역에 종사하거나, 또는 지방 수장이나 왜 왕권 등에 의하여 工房에 배치되어 철기 제작, 토기 제작 등에 종사했다고 한다. 이들 교역 종사자와 각종 기술을 갖춘 공인들은 일종의 가치 높은 상품으로서 대체로 한반도 쪽 정권의 원조 아래 교역되었다고 보고 있다.[168]

기술자 파견, 또는 증여는 4세기 말 이후부터 시작되어 6세기 전반까지의 시기에 한정된 가야-왜 사이의 교역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援助工人의 기술 수준이나 규모 등의 범위는 가야와 왜의 여러 제세력의 협의 아래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5세기 일본열도의 물질문화 발전에는 援助工人이 중요한 역할을 행하였지만, 그것만을 원인으로 보기에는 그 변혁의 속도가 너무 급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

한일간의 소규모 교류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일본열도의 고분문화는 4세기까지와 5세기 이후의 사이에 극히 큰 차이를 보인다. 매장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까지의 竪穴系의 매장시설과는 별도로, 새로이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橫穴系의 매장시설이 4세기 말엽의 九州 지역에서 생겨나서 西日本, 東日本의 각지로 확산된다. 부장유물에서는 그때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마구가 부장되게 되고, 무기·무구 등도, 劍이 차츰 刀로 바뀌고, 弓矢에서도 살상력이 뛰어난 細身의 鐵鏃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더욱이 갑옷과 투구에도 새로운 鉄留 기술로 제작된 强固한 판갑옷이나 小札을 꿰매 맞춘 활동적인 미늘갑옷이 출현한다. 또한 그때까지는 그다지 보이지 않았던 금동제의 장신구류 등도 많아진다.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종래의 수혈식 주거에 화덕이 부설되게 되고, 또한 土師器에 더하여 새로이 한반도의 도질토기의 영향을 받은 須惠器 생산이 시작되어 널리 쓰이게 된다.[169]

(佐倉)

167) 田中晋作, <위의 논문> ; 千賀久, <위의 논문> ; 金泰植·宋桂鉉,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 (韓國馬事會·馬事博物館) 165

168) 그들이 한반도에서 전해준 交易 對象이었다면, 왜 왕권은 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방 정권, 즉 금관가야, 대가야, 또는 백제에게 무엇을 지불하였는가? 그 가장 주요한 것은 군사병력 또는 노동인원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이들도 한반도에 왔다가 일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상대방 측의 처분에 맡겨서 영구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한다. 金泰植·宋桂鉉, 2003 ≪앞의 책≫ 172

그리하여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일본열도에 갑자기 나타난 각종 선진문물 제작 기술은 평상적인 한일간 문화 교류의 결과라기보다 다수의 이민과 함께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170] 4~5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日本書紀≫ 武烈紀 이전 시기의 일본 대외관계 기사에서도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의 대량 이민을 전하고 있다. 그 이주민들을 이주 원인별로 분류하면, 자발적으로 왜국으로 건너갔다는 경우로서 都怒我阿羅斯等의 童女, 天日槍과 그 從人, 弓月君과 120縣, 阿知使主·都加使主와 17縣, 貴信, 紀生磐宿禰 등이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 삼국이 왜국의 요구에 따르거나 조공으로 보냈다는 사례로서 眞毛津, 阿直岐, 王仁, 木滿致, 能匠, 新齊都媛과 7婦女, 池津媛=適稽女郎, 今來才伎, 須流枳·奴流枳, 斯我君 등이 있다. 또한 전쟁을 통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경우로서 草羅城 俘人, 4邑 人民, 韓奴 6口 등이 있다.[171]

그 이민의 성격에 대한 기존 설을 보면, 渡來人의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한반도 제국을 蕃國으로 예속시킨 결과,[172] 또는 임나 경영의 결과에 따른 한국·중국계 주민의 이동이라고 보는 견해[173]도 있으나, 기마민족의 정복이라고 보는 견해,[174] 금관가야의 해체에 따른 피난민 행렬,[175] 또는 금관가야 왕권과의 교섭에 따라 畿內 왜왕권에 원조된 加耶工人과 전기 가야연맹의 해체에 따른 流亡民, 즉 가야계 이주민에 의하여 이루어

---

169) 白石太一郎, 2006 <倭國の形成と展開> ≪古代史の流れ(列島の古代史8)≫ (岩波書店) 45

170) 江上波夫, 1984 <日本における國家の形成－倭人の國から大和朝廷へ－> ≪東洋硏究≫ 72 ; 1992 ≪江上波夫の日本古代史－騎馬民族說四十五年－≫ (大巧社, 東京) 256~257 ; 崔秉鉉, 1992 <考古學的으로 본 加耶와 日本의 관계> ≪韓國史市民講座≫ 11 (一潮閣, 서울) 111~117 ; 中村潤子, 1991 <騎馬民族說の考古學> ≪考古學その見方と解釋≫ (筑摩書房) ; 森浩一 編, 1993 ≪馬の文化叢書 第一卷 古代 －埋もれた馬文化≫ (馬事文化財團, 橫浜) 483 ; 酒井淸治, 2001 <倭における初期須惠器の系譜と渡來人> ≪4~5世紀 東亞細亞 社會와 加耶(제7회 加耶史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김해) 99~101 ; 申敬澈,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78

171) 金泰植, 1998 <日本書紀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硏究≫ 14 (韓國古代史學會)

172) 石母田正, 1973 ≪日本古代國家論≫ (岩波書店) ; 1989 ≪石母田正著作集≫ 4 ; 吉村武彦, 2006 <ヤマト王權と律令制國家の形成> ≪列島の古代史8 古代史の流れ≫ (岩波書店) 94

173)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264 ; 關晃, 1956 ≪歸化人≫ (至文堂) ; 1996 ≪古代の歸化人 (關晃著作集 第三卷)≫ (吉川弘文館) 10~11 ; 上田正昭, 1965 ≪歸化人－古代國家の成立をめぐって－≫ (中央公論社, 東京)
다만 우에다의 渡來人說은 가야 지역에 일본 야마토 정부의 세력이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존재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주민들이 건너와 일본 고대문화 건설에 기여한 것을 '歸化'라는 말로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 도래인의 구성에는 중국계보다 한국계가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한 점에 의미가 있다.

174) 江上波夫, 1992 ≪앞 책≫ 256~257

175) 申敬澈, 2000 <앞 논문> 78

졌다고 보는 견해[176] 등이 있다.

여기서 자발적 이민자들의 모국은 한반도의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4국에 골고루 분포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다수가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지대인 옛 낙랑·대방군 지역과 신라와 가야의 접경지대인 낙동강 연안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한반도에서 전쟁의 승자는 고구려와 신라였고 패자는 백제와 가야였다. 그러므로 전쟁에 시달리거나 패배한 대방계 백제인들과 낙동강 유역의 가야인들 상당수가 일본열도로 피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 시기는 김해 중심의 전기 가야와 고령 중심의 후기 가야 사이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가야의 유망민들은 경상남북도 내륙 산간지역으로 도피하기도 하였으나, 가까이 교류하던 일본열도로도 상당수 도피하였던 것이다.

제2절 고구려의 팽창과 한반도 남부의 동향

1.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의 남천

5세기 후반에 고구려는 동북아시아 동북부의 중추적 중개교역자로 성장하여, 중국 남북조와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479년에는 외몽고 지방의 柔然과 모의하여 흥안령산맥 일대의 거란족 일파인 地豆于의 분할 점령을 시도하였고,[177] 남쪽으로는 한강 이남에 대한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는 450년, 454년, 468년, 481년에 걸쳐 신라를 공격하였고,[178] 455년과 475년에는 백제를 침공하였다.[179] 그 당시 한반도 남

176) 金泰植·宋桂鉉,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 (韓國馬事會·馬事博物館, 果川) 215~219

177) ≪魏書≫ 契丹國傳 太和 3년(479),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于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弗賀勿于率其部車三千乘·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入內附 止於白狼水東"

178)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38년(450), "新羅人襲殺邊將 王怒 將擧兵討之 羅王遣使謝罪 乃止" ; 같은 왕 42년(454), "秋七月 遣兵侵新羅北邊" ; 같은 왕 56년(468), "春二月 王以靺鞨兵一萬 攻取新羅悉直州城"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년(481),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17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祇痲立干 39년(455),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 같은 책, 慈悲麻立干 17년(474), "秋七月 高句麗王巨連 親率兵攻百濟. 百濟王慶 遣子文周求援. 王出兵救之 未至百濟已陷 慶亦被害"
다만 신라본기의 慈悲麻立干 17년 조 기사는 고구려본기 및 백제본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기년이 1년 틀린 것이다.

부 3국, 즉 백제·신라·가야의 성장 및 공동 대응으로 인하여 고구려의 한강 이남 공략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 장수왕은 결국 475년 백제 수도 慰禮城(서울 송파구)을 함락하고 蓋鹵王을 전사시켰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판도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었다.

백제 개로왕은 비유왕을 이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457년, 458년, 471년에 중국 남조의 宋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180] 472년에는 북위에 국서를 보냈으며,[181] 461년에는 왜국에 동생 昆支를 보내 우호를 닦았다.[182] 또한 늦어도 5세기에 백제는 지방 지배의 거점이 되는 일부 성읍에 자제·종족 등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檐魯制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며,[183] 5세기 중반 이후로 나주 반남 고분군 축조 세력 등에 문물 지원을 지속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해나갔다. 그러나 백제 내부에서는 급속한 중앙집권력 강화 과정에서 사회적 내분과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 결국 475년에 고구려의 침공을 막지 못하고 수도 위례성이 함락되었다. 이에 文周王이 熊津(충남 공주)으로 천도하여 수습을 도모하였으나, 477년에 병관좌평 解仇의 반란이 일어나고[184] 문주왕과 三斤王이 재위 3년 만에 죽는[185] 등의 혼란을 겪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국경선이다. 왜냐하면 475년의 漢城(위례성) 함락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서는 그 후의 기사에서도 마치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국경선이 黃海道 방면이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백제가 계속해서 한강 유역의 한성을 영유하였다는 것을 긍정하는 견해,[186] 부정하는 견

---

180) ≪宋書≫ 卷97, 列傳57 百濟國, "毗死 子慶代立 世祖大明元年 遣使求除授 詔許. 二年 慶遣使上表曰「臣國累葉 偏受殊恩 文武良輔 世蒙朝爵. 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等十一人 忠勤宜在顯進 伏願垂愍 並聽賜除.」仍以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 爲冠軍將軍. 以行征虜將軍左賢王餘昆·行征虜將軍餘暈 並爲征虜將軍. 以行輔國將軍餘都·餘乂 並爲輔國將軍. 以行龍驤將軍沐衿·餘爵 並爲龍驤將軍. 以行寧朔將軍餘流·糜貴 並爲寧朔將軍. 以行建武將軍于西·餘婁 並爲建武將軍. 太宗泰始七年 又遣使貢獻"

181) ≪魏書≫ 卷100, 列傳88 百濟國, "延興二年 其王餘慶始遣使上表曰(下略)"

182)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5년, "夏四月 百濟加須利君[盖鹵王也] 飛聞池津媛之所燔殺[適稽女郎也] 而籌議曰 昔貢女人爲采女 而旣無禮 失我國名 自今以後不合貢女. 乃告其弟軍君[昆支也]曰 汝宜往日本以事天皇. 軍君對曰 上君之命不可奉違 願賜君婦而後奉遣. 加須利君則以孕婦 旣嫁與軍君曰 我之孕婦旣當產月 若於路產 冀載一船 隨至何處速令送國. 遂與辭訣 奉遣於朝"

183)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硏究≫ (一潮閣) ; 1991 <百濟의 檐魯制 實施와 編制基準> ≪啓明史學≫ 2 ; 金英心,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
盧重國은 檐魯制 실시의 기원을 4세기 후반 近肖古王 대에 두고 있고, 金英心은 5세기 중후반 蓋鹵王 대에 두고 있다.

184)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文周王 3년, "秋八月 兵官佐平解仇 擅權亂法 有無君之心 王不能制. 九月 王出獵 宿於外 解仇使盜害之 遂薨"

185) ≪위 책≫ 三斤王 3년, "冬十一月 王薨"

해,[187] 일시 회복하였었다는 견해[188] 등으로 나뉘어 있고, 최근에는 한강 이남 금강 유역인 대전 월평동 유적[189]과 청원 남성곡 유적[190]에서 고구려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연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 나온 종합적 견해로서는, 고구려의 최대 남한계선을 예산읍에서 천안을 거쳐 청원을 지나 대전을 거쳐 괴산에 이르는 일대까지로 보는 견해와,[191] 대체로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선에 따라 나뉘나 충청북도 일대는 대부분 고구려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견해[192] 등이 있다.

2. 대가야의 대두와 대왜 교류

가야 지역은 5세기 중엽 이후 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재기하게 된다. 그 기반은 첫 번째로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지역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아서 고령의 伴跛國이 전기 가야의 선진 기술자들을 받아들여 가야산 기슭의 철광산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제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며,[193] 세 번째는 이들이 백제 및 왜와 대외 교류를 활발히 하여 가야 지역 전체의 교류 중심으로 부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94]

고령 지방에 전하는 대가야 伊珍阿豉王 신화로 보아,[195] 5세기 중엽에 고령의 반파국

---

186) 千寬宇, 1976 <三韓의 국가형성> ≪韓國學報≫ 3 (一志社) 115 ; 김영관, 2000 <백제의 웅진 천도의 배경과 한성경영> ≪忠北史學≫ 11·12합, 75~91 ; 김병남, 2002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白山學報≫ 64, 131~156 ; 2004 <백제 웅진 천도 초기의 북방영역 관련 지명 분석> ≪韓國上古史學報≫ 52, 5~23

187) 李基白, 1978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백제연구≫ 9 (충남대 백제연구소) 7 ; 盧重國,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高句麗歷史財團) 19~22

188) 朴燦圭, 1991 <백제 웅진초기 북경문제> ≪史學志≫ 24 ; 梁起錫, 2005 <5~6세기 백제의 북계－475~551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문제를 중심으로－> ≪博物館紀要≫ 20 (단국대학교 昔宙善기념박물관) 48

189)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大田 月坪洞遺蹟≫

190) 忠北大學校博物館, 2004 ≪淸源 南城谷 高句麗遺蹟≫

191) 盧重國, 2006. <앞 논문> 30

192) 金泰植 외 6인, 2008 ≪韓國 古代 四國의 國境線≫ (書景文化社) 31~32, 89

193) 金泰植, 1986 <後期加耶諸國의 성장기반 고찰> ≪釜山史學≫ 11 (부산사학회) ;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91~95

194) 金泰植, 2007 <加耶와의 관계> ≪百濟文化史大系 제9권: 百濟의 對外交涉≫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公州)

19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高靈縣 建置沿革,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金官國王惱窒靑裔二人 則惱窒朱日爲夷珍阿豉王之別稱 靑

은 大加耶로 국명을 바꾸면서 후기 가야연맹을 형성하였다. ≪宋書≫ 倭人傳에 나오는 왜 5왕 중 왜왕 濟가 451년에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이라는 작호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고령 반파국이 加羅國으로 국호를 바꾼 것은 5세기 중엽 이전으로 올려보아야 한다.[196] 또한 대가야는 5세기 중엽부터 거창, 함양, 아영, 운봉을 거쳐 섬진강 하류로 통하는 반월형 교역루트를 개척하여,[197] 소백산맥을 서쪽으로 넘어 전북 남원, 임실,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지의 세력들을 연합하면서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러한 개척에 힘입어 加羅王 荷知는 479년에 중국 남제에 조공하여 '輔國將軍 本國王'의 작호를 받았다.[198] 그에 이어 대가야는 481년에는 신라에 군대를 보내 고구려의 남진을 물리치는데 협조하기도 하고,[199] 496년에는 신라에 흰 꿩을 보내 우호를 닦았다.[200] 후기 가야연맹이 가장 번성하였던 5세기 후반 및 6세기 초에 대가야는 호남지역 6개 소국과 영남 지역 16개 소국을 합하여 모두 22개 소국을 아우르고 있었다.[201] 이는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한 움식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墳] 및 가야토기의 분포권과도 일치한다. 고령 지산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 산청 중촌리 고분군, 함양 백천리 고분군, 전북 남원 월산리 고분군, 전남 순천 운평리 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유사성은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고령 지산리 고분군의 유물은 다른 지역들의 것에 비해 질과 양의 측면에서 우월성을 유지하였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에 걸쳐 발전한 가야 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5~6세기 후기 가야 문화권은 고령권, 함안권, 고성－진주권, 김해권의 4개 권역으로 나뉘고, 각 권역은 상호간에 서로 다른 특징과 발전과정을 보인다. 그리하여 후기 가야 문화권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분립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에 대한 견해로는 ①가야 단일 연맹체론,[202] ②가야 소국 분립론,[203] ③대가야

裔爲首露王之別稱"

196) 李鎔賢, 1999 ≪加耶と東アジア諸國≫ (日本 國學院大學 博士學位論文)

197) 朴天秀, 1997 <政治體의 相互關係로 본 大伽耶王權> 仁濟大 加耶文化硏究所 編, ≪加耶諸國의 王權≫ (新書苑) 186

198) ≪南齊書≫ 卷58, 列傳39 東南夷傳 東夷,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19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年,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200) ≪위 책≫ 炤知麻立干 18年, "春二月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201)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182~183 ; 같은 책 2권, 205~207

202) 李丙燾, 1976 <加羅諸國의 聯盟體>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 金廷鶴, 1982 <古代國家의 發達(伽耶)> ≪韓國考古學報≫ 12 (한국고고학회) ; 1987 <加耶의 國家形成段階> ≪精神文化

연맹론,[204] ④가야 지역 연맹체론[205] 등이 있다. 이러한 학설 상황으로 보아, 가야 지역은 독립적인 여러 소국들이 합쳐진 하나의 연맹체로 인정할 수 있되, 그 소국들은 연맹체에 특유한 分節體系의 존재 양상을 띠어 3~4개의 小地域聯盟體로 나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5세기 후반을 대가야의 고대국가 형성 시기로 논하고 있다.[206] 그런데 부체제가 형성되는 시기를 초기 고대국가로 인정한다면, 적어도 왕이 각부의 무력을 통제할 수 있을 것과 왕 우위의 관등 서열화가 이루어졌을 것 등의 기준이 갖추어졌어야 한다.[207] 그러나 남제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연맹체의 강화로 보아야 할지 초기 고대국가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5세기 중엽에 가야 지역이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재통합되자, 그 이후로는 대가야가 왜와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대가야는 야마토[大和]를 비롯한 일본열도 각지의 작은 세력과도 교류하며 덩이쇠[鐵鋌]와 더불어 장신구, 마구 등의 물품들을 수출하고, 왜로부터 왜인 병력을 들여다 활용하였다. 대가야 계통 유물은 5세기 중엽에 에히메현[愛媛縣] 기노모토[樹之本] 고분에서 고령 양식의 목항아리[長頸壺]가 출토된 이후 일본전역으로 확대되어, 후쿠이현[福井縣] 니혼마쓰야마[二本松山] 고분, 사이타마현[埼玉縣] 이나리야마[稻荷山] 고분,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오타니[大谷] 고분, 구마모토현[熊本縣]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 등에서 고령 양식 토기와 대가야의 금동관, 귀걸이를 비롯한 위세품들이 나타났다.[208] 또한 고령, 합천, 함양, 남원, 임실 등의 대가야 권역에서 출토

研究≫ 32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3권≫ (푸른역사)

203) 李永植, 1985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 －加耶聯盟說의 再檢討와 戰爭記事分析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32 ;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東京) ; 白承玉,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 南在祐, 2003 ≪安羅國史≫ (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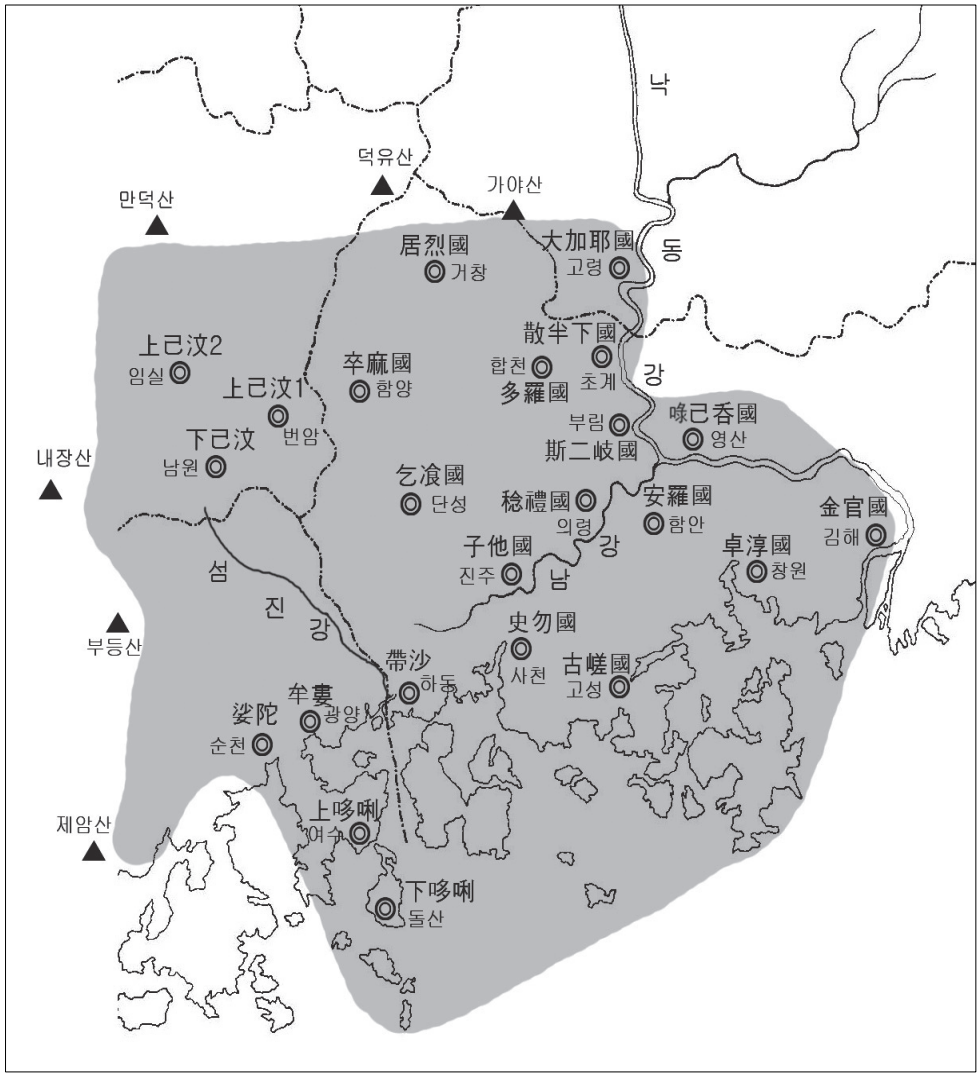
204)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58~159

205) 權鶴洙, 1994 <가야 제국의 상관관계와 연맹구조> ≪한국고고학보≫ 31 ; 白承忠, 1995 <가야의 지역연맹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世基, 盧重國, 朴天秀, 李明植, 李熙濬, 朱甫暾 編, 1998 ≪가야문화도록≫ (경상북도) ; 李炯基, 2009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206) 李熙濬, 1995 <토기로 본 대가야의 권역과 그 변천>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 朴天秀, 1996 <大伽耶의 古代國家 形成> ≪碩晤尹容鎭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 金世基, 1995 <대가야 묘제의 변천>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 1997 <加耶의 殉葬과 王權> ≪加耶諸國의 王權≫ (新書苑) ;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學研文化社)

207)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3~30

208) 朴天秀, 1995 <渡來系文物에서 본 加耶와 倭에서의 政治的 變動> ≪待兼山論叢(史學編29)≫



[지도 6] 후기 가야연맹의 최대판도

되는 따비형, 鐵鋤形, 鐵斧形, 낫형 등의 축소모형 철제 농기구가[209] 6세기 초엽까지 일본열도에서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210] 고령 지방의 반파국이 왜와 교류한 것을 반영

(大阪大學文學部, 大阪) ; 1996 <日本 속의 加耶文化> ≪加耶史의 새로운 理解(發表要旨)≫ (韓國古代史研究會)

209) 金在弘, 2006 <大加耶地域의 鐵製農器具 – 小形鐵製農器具와 살포를 중심으로 – > ≪大加耶의 成長과 發展≫ (고령군·한국고대사학회)

210) 都出比呂志, 1967 <農具鐵製化の二つの劃期> ≪考古學研究≫ 13-3

한다.

한편 가야에 의하여 왜의 무력 강화를 위한 원조로서 5세기 중반부터 후반의 일본열도에 말을 사육하는 馬飼集團의 집중적인 이주가 이루어졌으나, 대가야의 상황에 비하면 왜의 중장 기마군단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이며, 6세기에 들어가서는 武裝보다 裝飾馬具의 생산이 성행하게 되었다.[211] 또한 5세기 말엽에는 일본열도에서 자체적으로 철생산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철생산 기술은 대가야가 아닌 다른 가야소국, 또는 영산강 유역의 백제계통 소국들로부터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12]

3.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대응

신라는 5세기 전반에 고구려의 보호 및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였으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그 내부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日本書紀≫ 雄略 8년(464) 조에 신라 땅에서 고구려군과 任那王이 보낸 왜군이 대적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213] 여기서 '고구려가 군사 100인을 신라에 주둔시켰다'든가, '신라가 고구려군을 닭의 수컷에 비유하며 살해했다'든가, 또는 '고구려가 신라의 筑足流城을 쳐들어왔다'든가 하는 등의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서, 여기에는 신라측의 原典에 바탕을 둔 상당한 구체성이 보인다.[214]

---

211) 千賀久, 2002 <加耶と倭の馬文化>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171~174 ; 2004 <日本出土の'非新羅系'馬裝具の系譜>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第五回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283~307

212) 東潮, 2004 <弁辰と加耶の鐵>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第五回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31~54

213)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8년, "春二月 遣身狹村主青·檜隈民使博德 使於吳國. 自天皇卽位至于是歲 新羅國背誕 苞苴不入 於今八年. 而大懼中國之心 脩好於高麗. 由是 高麗王遣精兵一百人 守新羅. 有頃 高麗軍士一人 取假歸國. 時以新羅人爲典馬[典馬 此云于麻柯比] 而顧謂之曰 汝國爲吾國所破 非久矣.[一本云 汝國果成吾土 非久矣.] 其典馬聞之 陽患其腹 退而在後. 遂逃入國說其所語. 於是 新羅王乃知高麗僞守 遣使馳告國人曰 人殺家內所養鷄之雄者. 國人知意 盡殺國內所有高麗人. 惟有遣高麗一人 乘間得脫 逃入其國 皆具爲說之. 高麗王卽發軍兵 屯聚筑足流城[或本云 都久斯岐城] 遂歌儛興樂. (中略) 二國之怨 自此而生.[言二國者 高麗·新羅也.] 膳臣等謂新羅曰 汝以至弱 當至强. 官軍不救 必爲所乘 將成人地 殆於此役. 自今以後 豈背天朝也"

214) 高寬敏, 1996 <五世紀, 新羅の北邊>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雄山閣出版) ; 1997 ≪古代朝鮮諸國と倭國≫ (雄山閣出版) 146

다만 雄略紀 8년 조에 나오는 '日本府' 관련 구절은 신라왕이 임나왕에게 사람을 보내 日本府의 行軍元帥 등에게 구원을 청했다는 내용을 보여서 주목된다. '日本府'라는 이름은 ≪일본서기≫에서도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석의 밑줄 친 부분[215]은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漢書≫ 高帝紀와 ≪三國志≫ 魏書 武帝紀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216] 그 전투 장면이나 신라왕의 발언 내용도 ≪日本書紀≫ 편찬자의 모방 작문이다. 이를 제외하고 남는 것은 '신라왕이 임나왕에게 日本府 行軍元帥의 구원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가시하데노 오미 이카루가[膳臣斑鳩] 등 3인의 일본인명 뿐이다.

그러므로 이는 ≪일본서기≫ 편찬자의 의도에 의하여 몇몇 일본인명과 그들의 활약 내용이 추가되면서 원전이 크게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당시 가야 군대 안에 왜인 병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태의 주역이 아니었던 왜인들의 家傳에 전하는 모호한 서술이 ≪일본서기≫ 편찬자로 하여금 조작을 감행케 한 것이다.[217] 따라서 이를 이른바 '任那日本府' 관련 자료로 이용할 수는 없다.

이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신라가 任那王 즉 가야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남는다. 이는 ≪삼국사기≫에 481년 고구려가 신라의 狐鳴城(경북 영덕군 영덕읍) 등 일곱 성을 빼앗고 彌秩夫(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진군하였는데, 신라군이 백제와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이를 막았다는 기록[218]과 상당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신라가 가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는 기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구려와 신라가 처음으로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으로는 ≪삼국사기≫에서 450년에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悉直(강원 삼척시)의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何瑟羅城主 三直이 군사를 내어 죽이자 고구려가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고,[219]

---

215)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8년 2월, "於是 新羅王 夜聞高麗軍四面歌儛 知賊盡入新羅地. 乃使人於任那王曰 高麗王征伐我國. 當此之時 若綴旒然. 國之危殆 過於累卵. 命之脩短 太所不計. 伏請救於日本府行軍元帥等. 由是 任那王勸膳臣斑鳩[斑鳩 此云伊柯屢俄]吉備臣小梨難波吉士赤目子 往救新羅. 膳臣等 未至營止. 高麗諸將 未與膳臣等相戰 皆怖. 膳臣等乃自力勞軍 令軍中 促爲攻具 急進攻之. 與高麗相守十餘日 乃夜鑿險 爲地道 悉過輜重 設奇兵. 會明 高麗爲膳臣等爲遁也悉軍來追. 乃縱奇兵 步騎夾攻 大破之"

216) 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 上 (塙書房) 325

217) 金泰植, 2006 <5~6세기 高句麗와 加耶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역사재단) 124~127

218)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年,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219) ≪위 책≫ 訥祇麻立干 34년, "秋七月 高句麗邊將 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 出兵掩殺之. 麗

그에 이어 454년에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는 기사,[220] 468년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 悉直城을 습격하였다는 기사[221] 등이 나온다. 고구려군이 침범했다는 筑足流城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음운상의 비교에 의하여 達句伐城, 즉 지금의 대구로 보는 견해가 있다.[222] 그러나 '筑足流'는 '達句伐'보다는 '悉直'과 비슷한 어감을 주며, 실직(강원 삼척)은 450년과 468년에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곳이었다.

그러므로 雄略紀 8年條의 한반도 관련 기사는 464년의 1년에 그치는 편년 기사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50년에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그에 이은 일련의 사건 결과 481년에 신라가 가야에 구원을 요청하여 가야군이 그에 가담한 것을 모두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 당시에 왜군이 가야군의 일원으로 참여했었는가의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전통적으로 가야와 왜 사이에 이루어지던 물적·인적 자원교역 형태로 말미암아[223] 가야군대 안에 왜인 병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로 보아 고구려는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 쪽으로도 영토 확장을 도모하여, 450년 이후 悉直州城(강원 삼척)을 치기 시작하여 468년에 빼앗고, 481년에는 彌秩夫(경북 포항시 흥해읍)까지 쳐내려갔다. 이에 대하여 백제 東城王은 대내적으로 국력을 회복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481년에 신라를 구원하여 고구려군의 남진을 물리치고 493년에 신라에게 청혼하여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224]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가야도 481년에 신라를 구원하고 496년에 신라에 흰 꿩을 보냈다는[225] 것으로 보아 그들의 우호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이로 보아 5세기 후반의 한반도 정세는 고구려의 남진에 대처하여 백제－신라－가야가 군사동맹을 맺어 방어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사료에 보이는 왜군은 고구려의 남진을 막는 주력이 아니라 가야군에 소속된 부수적인 존재였을 뿐이다.

이처럼 신라는 5세기 후반에 백제 및 가야와의 협력을 토대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

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 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220) ≪위 책≫ 訥祇麻立干 38년, "八月 高句麗侵北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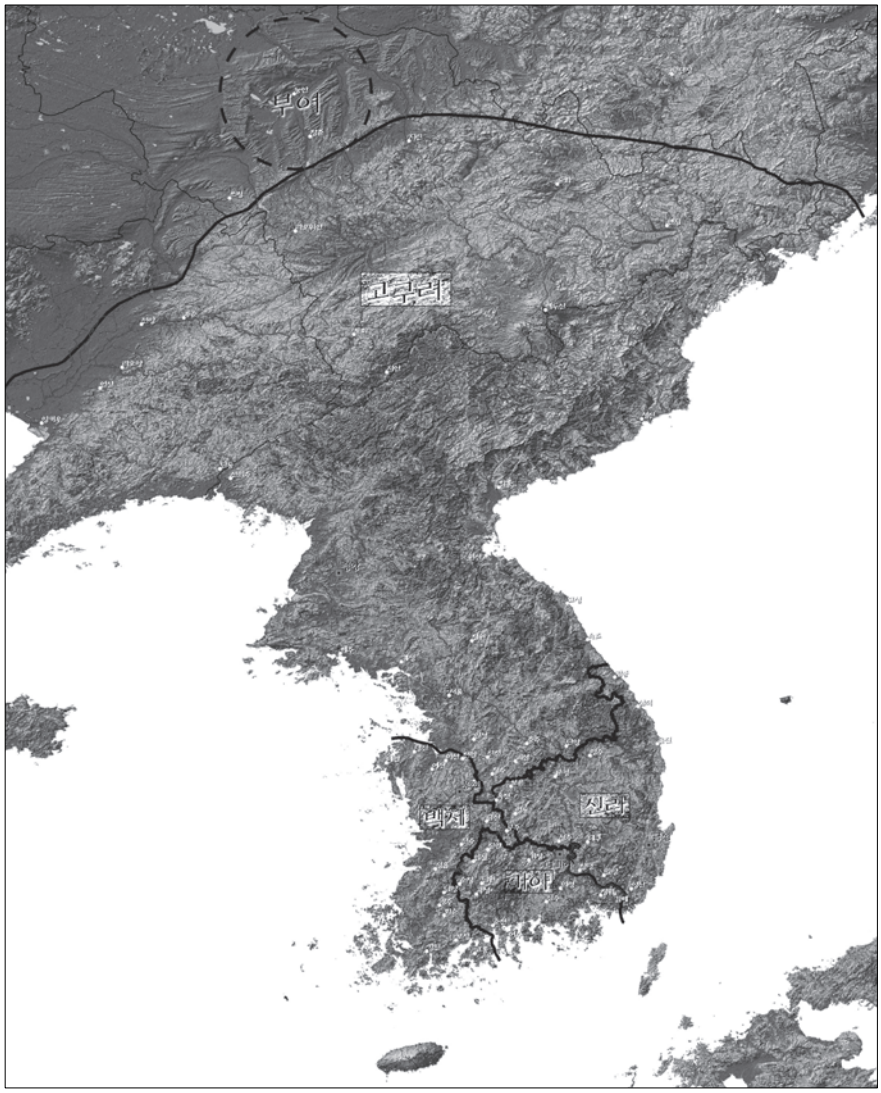
221) ≪위 책≫ 慈悲麻立干 11년, "春 高句麗與靺鞨 襲北邊悉直城"

222)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1956 再版, (吉川弘文館) 86

223) 金泰植, 2005 <4世紀의 韓日關係史－廣開土王陵碑文의 倭軍問題를 中心으로－> ≪韓日歷史共同硏究報告書≫ 1 (韓日歷史共同硏究委員會) 72

224)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5년 "春三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飡比智女 歸之"

22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8년, "春二月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지도 7] 482년 한반도 사국의 국경선[226]

하여 소백산맥 이북과 강원도 강릉일대까지 영토를 보존하였으니,[227] 이를 바탕으로 하여 慈悲麻立干은 469년에 수도의 坊里名을 정하고,[228] 炤知麻立干은 487년에 神宮을 짓

226) 金泰植 外 6人,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45
227) 姜鍾薰, 2008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 ≪韓國 古代 四國의 國境線≫ (書景文化社) 119~121
228)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2년, "春正月 定京都坊里名"

고 사방에 郵便驛을 설치하고 官道를 수리하는 등[229] 중앙 통치 기반을 닦았다. 특히 신라가 470년부터 474년 사이에 소백산맥 추풍령 방면의 안팎으로 三年山城(충북 보은), 芼老城(경북 군위군 효령면), 一牟城(충북 청원군 문의면), 沙尸城(충북 옥천군 이원면), 沓達城(경북 상주시 화서면), 仇禮城(충북 옥천군 옥천읍), 坐羅城(충북 영동군 황간면) 등을 축성하고,[230] 486년에 三年城(충북 보은)과 屈山城(충북 옥천)을 개축했다는 것은[231] 인상적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의 신라가 바깥으로 국경선을 정비하고 안으로 수도를 정비하면서 그로 통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4. 顯宗紀 3年 是歲條의 해석

≪日本書紀≫ 顯宗 3년(487) 조에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의 관계를 추정케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도 많고 해독도 어려운 그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이 해에 기노 오히하노 스쿠네[紀生磐宿禰]는 任那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구려[高麗]에 교통하고, 서쪽에서 三韓의 왕이 되려고 하여 官府를 정비하고 스스로 신성하다고 칭했다. 任那 左魯 那奇他甲背 등의 계책을 사용하여 백제의 適莫爾解를 爾林<이림은 고구려의 땅이다.>에서 죽였으며, 帶山城을 쌓고 동쪽 길[東道]을 막아 지켜서 양곡 운반하는 나루를 차단하여 군사들을 굶어 지치게 하였다. 백제왕은 크게 노하여 領軍 古爾解와 內頭 莫古解 등을 파견하여 무리를 이끌고 帶山에 모여 공격하였다. 이에 오히하노 스쿠네는 군대를 내보내 맞받아 쳤는데, 담기가 더욱더 왕성해져서 향하는 곳마다 모두 격파하고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병사가 다하고 힘이 지쳐서 일이 성취되지 못함을 알고 임나로부터 돌아왔다. 그리하여 백제국은 佐魯 那奇他甲背 등 300여 명을 죽였다.[232]

임나일본부설에서는 이를 왜의 호족인 紀生磐宿禰에 의한 임나 지배가 백제의 남진으

---

229) ≪위 책≫ 炤知麻立干 9년, "春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230) ≪위 책≫ 慈悲麻立干 13년, "築三年山城" ; 같은 왕 14년, "春二月 築芼老城" ; 같은 왕 17년,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

231) ≪위 책≫ 炤知麻立干 8년, "春正月 拜伊湌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城"

232) ≪日本書紀≫ 卷15, 顯宗天皇 3년, "是歲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 高麗地也]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粮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로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해석한다.[233] 그러나 이 기사에서 紀生磐宿禰는 木氏 계통 백제 귀족 중의 하나로서 이 당시에 왜국으로 망명한 사람이며, 那奇陀甲背는 가야 재지의 小君長으로서 백제와 협력해온 武官으로 보아야 한다.[23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데, 그 爾林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아, 이를 전북 임실군으로 보는 견해,[235] 전북 김제군 청하면(옛 지명 乃利阿)으로 보는 견해,[236] 경기도 임진(옛 지명 津臨城)으로 보는 견해,[237] 충북 음성(옛 지명 仍忽縣) 또는 괴산(옛 지명 仍斤內郡)으로 보는 견해[238] 등이 있다. 그러나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이림은 충북 음성으로 한정되며, 帶山城은 괴산군 도안면의 道薩城과 동일시할 수 있다.[239] 그렇다면 일단 5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영역이 충북 일대까지 깊숙이 내려와 있었다는 것을 ≪삼국사기≫ 외의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재해석하면, 487년에 백제가 고구려 영토였던 이림(충북 음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제군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목씨 세력 紀生磐 및 가야의 나기타갑배 일행이 고구려와 내통하여 백제의 적막이해를 죽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대산성(충북 괴산군 도안면)을 쌓아 백제군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백제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백제군의 반격에 의하여 가야의 나기타갑배 등 300여 명이 죽임을 당했고, 나기타 집단의 일부는 가야 남부의 안라로 망명하게 되었으며 紀生磐은 왜국으로 망명했다고 추정된다.

---

233) 末松保和, 1949 ≪앞 책≫

234)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서울) 244~249 ; 李鎔賢, 1997 <五世紀末における加耶の高句麗接近と挫折> ≪東アジアの古代文化≫ 90 ; 1999 ≪加耶と東アジア諸國≫ (日本 國學院大學 博士學位論文) 42~43

235)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地名考> ≪雜攷≫ 7 下卷, 25~27 ; 延敏洙, 1990 <六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소위 '任那日本府'說의 究明을 위한 序章－> ≪新羅文化≫ 7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106~112 ; 李永植, 1995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韓國古代史論叢≫ 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서울) 207 ; 南在祐, 2003 ≪安羅國史≫ (혜안, 서울) 211~212

236) 末松保和, 1956 ≪앞 책≫ 76~77

237) 山尾幸久, 1978 <任那に關する一試論－史料の檢討を中心に－>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會 編,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卷 (吉川弘文館) 218 ; 白承忠, 1995 ≪加耶 地域聯盟史 硏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62~263

238) 李鎔賢, 1997 <五世紀末における加耶の高句麗接近と挫折> ≪東アジアの古代文化≫ 90 ; 1999 ≪加耶と東アジア諸國≫ (日本 國學院大學 博士學位論文) 46~47

239) 金泰植, 2006 <5~6세기 高句麗와 加耶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高句麗歷史財團) 136~140

[지도 8] 5세기 후반 한일관계 지명도

그러므로 顯宗紀 3년 是歲條의 기사는 紀氏家傳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왜인 호족의 임나에서의 군사 활동을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은 백제 귀족 목씨의 배반 및 왜국으로의 망명 과정을 왜곡 기술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 보아 5세기 후반에 백제는 가야 세력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웅진 천도 이후 그 권위가 흔들려 귀족 내부에서도 반란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서 발생한 유망민은 또 가야나 왜로 흘러가고 있었다. 또한 가야군은 경우에 따라 신라를 지원하기도 하고 백제를 지원하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고구

려와 적대적인 입장에 섰으나, 이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백제를 지원하여 무엇인가 대가를 취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구려군과 내통하여 백제군을 배반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제3절 왜 5왕의 작호와 백제의 호남 서부지역 경략

1. 고구려왕·백제왕·왜왕의 장군호

≪宋書≫ 倭國傳에는 왜의 5왕, 즉 讚·珍·濟·興·武가 宋에 조공하여 작호를 취득한 사정이 전하고 있다. 그 기사로 보아, 421년과 425년에 倭讚의 조공이 있었고, 438년에는 倭王 珍이 '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을 자칭하였으나 송은 '安東將軍 倭國王'만 승인하였다. 443년에는 왜왕 濟가 조공하여 '安東將軍 倭國王'을 제수받았고, 451년에는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를 加號하고 安東將軍은 그대로 두었다. 462년에는 世子 興이 조공하여 '安東將軍 倭國王'을 제수받았고, 479년에는 왜왕 武가 조공하여 '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를 자칭하였으나 '百濟'를 제외하고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으로 임명되었다.[240]

여기서 왜 5왕이 자칭하거나 제수받은 爵號는 都督諸軍事號, 將軍號, 王號로 이루어져 있고, 각국의 왕이 제수받은 장군호에는 각각 차등이 있다고 보인다. ≪宋書≫ 百官志에 의하면 征東, 鎭東, 安東의 3將軍號는 모두 제3품에 해당하며 정원은 1명이다. 각국의 왕들이 중국 남조로부터 받은 장군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40) ≪宋書≫ 卷97, 列傳 第57 夷蠻傳 東夷, "倭國 在高驪東南大海中 世修貢職. 高祖永初二年 詔曰 倭讚萬里修貢 遠誠宜甄 可賜除授. 太祖元嘉二年 讚又遣司馬曹達 奉表獻方物. 讚死 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表求除正. 詔除安東將軍倭國王. 珍又求除正倭隋等十三人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 詔竝聽. 二十年 倭國王濟 遣使奉獻. 復以爲安東將軍倭國王. 二十八年 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將軍如故. 幷除所上二十三人軍號. 濟死 世子興 遣使貢獻. 世祖大明六年 詔曰 倭王世子興 奕世載忠 作藩外海 稟化寧境 恭修貢職. 新嗣邊業 宜授爵號 可安東將軍倭國王. 興死 弟武立.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中略) 詔除武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표 1〉 4~5세기 각국왕의 將軍號

국명	고구려왕	백제왕	왜왕	가라왕
장군호	征東將軍(413, 高璉) 征東大將軍(420, 高璉) 征東大將軍(422, 高璉) 車騎大將軍(463, 高璉) 驃騎大將軍(479, 高璉) 征東大將軍(493, 高雲)	鎭東將軍(372, 餘句) 鎭東將軍(416, 餘映) 鎭東大將軍(420) 鎭東大將軍(430, 餘毗) 鎭東大將軍(?, 牟大)	安東將軍(438, 珍) 安東將軍(443, 濟) 安東將軍(451, 濟) 安東大將軍(478, 武) 鎭東大將軍(479, 武)	輔國將軍 (479, 荷知)

<표 1>에서 5세기에 중국 남조로부터 받은 장군호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구려왕은 征東(大)將軍 또는 車騎大將軍을 제수받고 백제왕은 鎭東(大)將軍을 제수받았으며, 왜국왕은 安東(大)將軍을 제수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정3품 上位의 벼슬들이나, 그 사이에는 정동장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진동장군이며, 그 다음의 안동장군은 비교적 하위라는 서열이 있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이다.[241] 가라왕은 479년에 처음 조공하여 비교적 낮은 정3품 하위의 輔國將軍을 제수받았다. 그렇다면 왜 5왕이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장군호를 보유한 백제를 포함시킨 한반도 남부 지역의 諸軍事號를 자칭했다는 것이 무리라는 점은 자명해진다.

다만 고구려왕, 백제왕, 왜왕의 장군호들은 서열 차이가 아니라 조공 순서에 따른 차이이고 계급 상으로는 서로 대등하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하였다.[242] 그러나 승진 사례를 살펴 볼 때 그 사이에 서열은 정동장군, 진동장군, 안동장군의 순서였다. 479년의 南齊 성립 직후에 고구려왕이 車騎大將軍에서 驃騎大將軍으로 승진하고,[243] 왜왕이 안동대장군에서 진동대장군으로 승진한 것[244]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그러므로 정동장군 고구려왕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진동장군 백제왕이었으며, 안동장군 왜국왕이 가장 하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한 장군호는 5세기 당시의 중국이 매긴 각국의 실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241)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盧重國, 2005 <5세기 한일관계사－"宋書" 倭國傳의 검토－>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42) 石井正敏, 2005 <5世紀의 日韓關係－倭의 五王과 高句麗·百濟－>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43) ≪南齊書≫ 卷58, 列傳39 高麗國, "宋末 高麗王樂浪公高璉爲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 太祖建元元年 進號驃騎大將軍"

244) ≪南齊書≫ 卷58, 列傳39 倭國 "建元元年 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 號爲鎭東大將軍"

2. 왜 5왕 諸軍事號의 실효성 여부

5세기 한일관계사의 쟁점은 ≪宋書≫ 倭國傳에 나오는 왜왕 武 등의 5왕이 자칭하거나 받은 爵號 중에서 將軍號보다도 都督諸軍事號였다. 여기서의 都督諸軍事號는 '都督'과 '諸軍事' 사이에 들어간 지역에 대하여 군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5왕이 중국 남조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왜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부의 여러 국가를 포함하여 요구한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반도 남부와 관련된 제군사호만을 다시 정리하면, 왜는 438년에 百濟 新羅 任那 秦韓 慕韓의 군사권을 송에 요구하였다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였고, 451년에 백제를 빼고 가라가 추가된 新羅 任那 加羅 秦韓 慕韓의 군사권을 인정받았으며, 479년에 百濟 新羅 任那 加羅 秦韓 慕韓의 군사권을 송에 요구하였다가 백제를 뺀 나머지를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5세기 당시의 왜국은 거기에 거명된 여러 국가들에 대한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던 것일까? 그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논쟁점은 위의 '제군사호'가 각국의 군사권에 대한 (1) 실제를 반영하는가, (2) 단순한 왜왕의 의도를 반영하는가, (3) 단지 일본열도의 대내용 거짓 작호인가, (4) 혹은 일본열도 내의 여러 종족(이른바 '渡來人')에 대한 통수권인가 하는 점들에 있다.

(1)번의 주장에서는, 왜군이 실제로 한반도 남부에 진출하였으므로 한반도 남부의 군사권 소유와 안동대장군호의 획득을 송에 요구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를 임나일본부설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245] 혹은 왜왕이 백제를 추가하는 것은 인가받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신라나 임나·가라 등은 모두 왜의 군사 영역에 편입되었다가, 479년에 加羅王 荷知가 輔國將軍에 제수되었을 때 任那 이하가 자칭호에서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였다.[246]

(2)번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남조가 자기 지배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실력자의 주장을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인정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지역의 군사권이나 행정권을 동시에 복수의 여러 외국의 왕에게 주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칭호는 현실적으로 지배권을 확립하지 않았어도 자칭할 수 있었고 임명받기도 했다고 하였

245) 末松保和, 1949 ≪앞 책≫ ;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 (岩波新書) ; 吉村武彦, 2006 <ヤマト王權と律令制國家の形成> ≪古代史の流れ(列島の古代史8)≫ (岩波書店)

246) 平野邦雄, 1980 <金石文の史實と倭五王の通交> ≪岩波講座 日本歷史 1(原始·古代1)≫ (岩波書店)

다.[247]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황제의 책봉이나 관작이 당시의 국제관계 위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248]

혹은 왜왕의 도독제군사호에 포함되어 있는 한반도의 지명은 실제로 현지의 왕 혹은 수장을 통해 軍丁·軍資의 징발이 가능한 유력한 나라이므로 왜왕은 한반도 남부에서의 잠재적 군사행동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였다.[249] 혹은 왜왕 武의 祖禰의 시기에 왜가 한반도의 95국을 평정한 것은 과거에 왜왕의 한반도에서의 군사 활동을 시사하는 것이나 武의 시대에 한반도 남부의 都督號를 자칭하고 있어도 왜왕의 현실적 지배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250]

또는 좀 더 분명하게, 왜왕은 고구려의 영역을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대한 군정권 승인을 宋왕조에 요청하였으나 이는 왜국이 실제로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시기의 백제나 신라는 분명 독립국이었으며, 가야 소국들도 결코 왜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왜왕의 관작을 통해 왜왕이 한반도 남부를 군사 지배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라고 말하였다.[251] 또한 이를 인정하여, 도독제군사호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나, 이 칭호를 얻었다고 하여 그 영역에 대해 실질적 지배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 견해도 있다.[252]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왜왕의 한반도 '支配'는 아니라고 해도 왜왕의 상대적 '優位'는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세기에 왜는 신라와 백제로부터 복종의 증거로 質을 취하였으므로 왜국과 신라·백제와의 관계는 상하 복속관계에 있었으며 그 활동의 場은 한반도 남부 일대에 미쳤다고 생각되므로 왜왕의 제군사호는 실질을 동반하지 않은 허공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253] 혹은 4세기 후반 이후 왜국과 한반도 제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였으나, 가야 제국은 소국이었기 때문에 왜국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의존·보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왜는 백제·신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군사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왕족 출신의 質을 요구하고 정치적 개입도 하였으므로, 왜왕이 고구려를 제

247)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248) 江畑武, 1968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中國との册封をめぐつて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249)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250)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251) 熊谷公男, 2001 ≪日本の歷史03 大王から天皇へ≫ (講談社)
252) 石井正敏, 2005 <5세기의 일한관계－왜의 오왕과 고구려·백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53) 坂元義種, ≪앞 책≫

외한 한반도 전역의 軍政權을 송에게 요청한 것은 왜왕이야말로 反고구려 세력의 맹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지위를 국제적으로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였다.[254] 즉 이는 왜왕의 한반도 남부 제국에 대한 실질적 지배까지는 상정할 수 없어도 왜왕은 이를 의도하고 있었으며,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의 왜군의 군사적 활동, 정치적 개입 등의 사례로 보아 왜왕의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2)번을 주장하는 이 가운데 한국 쪽 견해들을 보면, 왜왕이 송에 요구한 장군호가 백제가 받은 진동대장군보다 낮다는 것은 왜왕 스스로가 백제왕보다 하위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므로, 백제가 포함된 도독제군사호를 근거로 삼아 왜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지배했다고 보는 것은 의문이라고 하였다.[255] 또한 중국 쪽의 견해에서는, 왜왕 珍, 濟, 武가 한반도 남부 제국에 대한 군사지배권을 요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요구에 불과하며, 백제, 신라, 가라 등을 포함한 自稱號를 반복해서 요청한 사실 자체가 왜가 한반도 남부를 통치한 사실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256]

(3)번의 주장에서는, 한반도 제국이 포함된 왜왕의 자칭호는 대외적으로는 백제가 중심이 된 백제－신라－가야－왜 연합이라고 하는 對 고구려 외교망에 참여한 왜가 연합세력의 주축을 놓고 백제와 경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칭한 것이며, 대내적으로 일본열도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제국과의 교역권을 장악하자 이를 여러 호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칭함으로써 송으로부터 인정받아 신뢰성을 부가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왜가 한반도 제국을 지배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257]

(4)번의 주장에서는, 당시의 일본열도 내에 한반도 계통의 소국이나 이주민들이 많이 실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왜왕이 일본열도 내의 여러 세력을 총괄하기 위해서 해당 소국이나 이주민들의 본거지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6국 내지 7국 중의 첫 자리에 놓인 '倭'는 畿內 지방의 야마토국이고 그 나머지는 일본 야마토 지방 부근의 한반도 계통 소국들에 지나지 않는다거나,[258] 혹은 중국 남조나 백제에서 이주민 계열의 인물들에게 자신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작호를 주거나 인정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왜도 한반도 남부로부터의 이주민('渡來人')들에게 그 본거지의 작호를 주고

254) 熊谷公男, ≪앞 책≫
255) 延敏洙,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256) 王健群, 1992 <임나일본부와 왜의 오왕> ≪가야문화≫ 5
257) 盧重國, 2005 <5세기 한일관계사－"송서" 왜국전의 검토－>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58) 金錫亨,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왜왕은 이를 통괄하는 권위를 획득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259]

이로 보아 일본 학자들은 대개 (1), (2)번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 학자들은 (3), (4)번을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 (1)번과 (4)번은 약간 지나친 주장이고, 문제의 해답은 (2)번과 (3)번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왕의 '제군사호'는 한반도 남부 각국의 군사적 지배에 대한 실제를 반영하거나 혹은 일본열도 내의 여러 종족에 대한 통수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왜왕의 희망사항을 반영하거나 혹은 일본열도 통치를 위한 대내용 작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5왕이 중국 황제로부터 한반도 남부지역명이 포함된 제군사호를 인정받은 것과 왜왕이 실제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군사권을 발휘할 수 있었던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으며, 한반도 남부의 문헌 사료나 고고학 자료로 볼 때 그런 증빙은 없다. 혹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송서≫에 나오는 왜왕의 제군사호 인정 기사만 강조하면, 역사 기술로서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역사적 사실을 오도할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왜가 실제로 한반도 남부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왜 5왕의 제군사호는 일종의 외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한반도 남부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즉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다.

3. 왜왕 武 상표문과 수장통합체 형성

중국 남조 송나라 順帝 昇明 2년(478)에 왜왕 武가 보낸 상표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 본국[왜]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책봉을 받아 해외의 제후국이 되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와 아버지[祖禰] 때부터 몸소 갑옷과 투구를 입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느라고 편안하게 쉴 새가 없었습니다. 동쪽으로는 毛人 55國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衆夷 66국을 복속시켰으며, 바다 북쪽의 95국을 건너가 평정하였습니다.[260]

259) 李永植, 1988 <5세기 倭王 稱號의 해석을 둘러싼 一視角> ≪史叢≫ 34 ;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260) ≪宋書≫ 卷97, 列傳57 夷蠻傳 東夷, "順帝昇明二年 遣使上表曰 封國偏遠 作藩于外. 自昔祖禰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위의 기록에서 왜왕 武의 祖禰가 평정하였다는 바다 북쪽의 95국이 어느 곳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여기서의 논쟁점은 바다 북쪽의 95국이 (1) 한반도 남부이고 실제로 평정했다고 보는가,[261] (2) 한반도 남부이나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으로서 왜왕의 희망사항을 나타낸 것인가,[262] (3) 한반도와 관계없는 규슈 지방일 뿐인가[263] 하는 몇 가지 점으로 나뉘고 있다.

山尾幸久의 연구에 의하면, 이 상표문은 문장 수식이 매우 심하므로 '征', '服', '平' 등의 문자를 글자 뜻 그대로 객관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당시 야마토 왕권이 일본열도나 한반도에서 무엇인가의 직접적 접촉을 가지고 있던 지역집단을 '잠재적 군사행동권'과 관련시켜 의미 붙인 것이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平'字에 의하여 과거 야마토 왕권의 임나 지배를 객관시 또는 실체시하는 이유로는 될 수 없다고 하였다.[264]

이제 왜왕 무의 상표문과 관련하여 (1)번처럼 실제로 왜가 한반도 남부지역을 정벌하고 지배했다고 보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2)번의 주장처럼 왜왕의 의도된 계산이든, 아니면 (3)번의 주장처럼 후세 학자들의 지명 고증 착오이든, 5세기의 왜왕이 한반도 남부를 군사적으로 통솔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점은 사실일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근래의 한일학계는 이런 정도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상표문에서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은 왜왕 武의 자부심으로서, 일본열도의 각 지역 수장을 통합한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의 언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埼玉縣과 熊本縣에서 출토된 鐵劍銘을 통해서 獲加多支鹵大王, 즉 왜왕 武(雄略)의 통치 범위가 關東부터 九州에 이르는 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지방의 수장층은 직접 畿內의 大王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왕의 아래에서 특정의 職掌을 분담하는 중앙 호족과 그 職掌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었고, 그 지방 수장의 독립성은 공고하게 유지되었던 듯하다.

---

261) 末松保和, 1949 ≪앞 책≫ ; 平野邦雄, 1980 <앞 논문> ; 鬼頭清明, 1994 ≪大和朝廷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62) 山尾幸久, 1989 ≪앞 책≫ ; 鈴木英夫, 1996 ≪앞 책≫ ; 熊谷公男, 2001 <앞 논문> ; 石井正敏, 2005 <앞 논문>

263) 盧重國, 2005 <앞 논문>

264)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226

4. 호남 서부지역의 전방후원분 문제

5세기의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근래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전남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10여 기의 '前方後圓墳'이다. 이를 나열해 보면, 전북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고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월계 1·2호분,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신덕 1호분, 함평읍 장년리 장고산 고분, 영암군 시종면 태간리 자라봉 고분,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장고봉 고분, 용두리 고분,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1·2호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열도의 전방후원분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고분들이 전남 해안 및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된 사실을 놓고, 그 축조 세력의 성격에 대해서 이들을 (1) 在地首長으로 보는 견해와 (2) 倭人으로 보는 견해로 크게 나뉜다. 그 안에서 (1)군에 속하는 견해로는 ① 영산강 유역의 재지 수장들의 대왜 친연성 주장에 의한 것으로 보는 獨立的 在地首長說[265]과 ② 백제왕권과 연계 하에 재지수장이 전방후원분을 묘제로 채택한 것으로 보는 百濟連繫 在地首長說[266]이 있다. (2)군에 속하는 견해는 좀 더 복잡하여 ① 철의 교역을 위해 九州 또는 왜왕권에서 영산강 유역으로 들여보낸 집단이주민으로 보는 移住倭人說(=慕韓說),[267] ② 영산강 유역에서 在地人化하고 있던 왜인으로 보는 在地化倭人說,[268]

---

265) 岡內三眞, 1996 <前方後圓形墳の築造モデル> ≪韓國の前方後圓墳≫ (雄山閣) ; 土生田純之, 2000 <韓日 前方後圓墳의 比較檢討> ≪韓國의 前方後圓墳≫, 충남대출판부; 2006 ≪古墳時代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 申敬澈, 2000 <고대의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왜>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출판부) ; 朴淳發, 2000 <백제의 남천과 영산강유역 정치체의 재편>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출판부) ; 2001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意義> ≪朝鮮學報≫ 179 ; 朝鮮學會 編, 2002 재수록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 2003 <百濟の南遷と倭> ≪檢証古代日本と百濟≫ (大巧社) ; 申大坤, 2001 <榮山江流域の前方後圓墳> ≪飛鳥の王權と加賀の渡來人≫ (石川縣立歷史博物館, 金澤) ; 田中俊明, 2001 <韓國の前方後圓形古墳の被葬者·造墓集團に對する私見> ≪朝鮮學報≫ 179 ; 朝鮮學會 編, 2002 재수록,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 柳澤一男, 2002 <全南地方の榮山江型石室の系譜と前方後圓墳> 朝鮮學會 編,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 李暎澈, 2006 <前方後圓形古墳と墳周土器> ≪海を渡った日本文化≫ (鑛脈社) ; 辻秀人, 2006 <榮山江流域의 前方後圓墳과 倭國 周緣地域의 前方後圓墳> ≪百濟硏究≫ 44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大田) ; 2007 <榮山江流域の前方後圓墳と倭國周緣域の前方後圓墳> ≪歷史と文化≫ 42 (東北學院大學)

266) 禹在柄, 2004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墳의 出現과 그 背景> ≪湖西考古學≫ 10 (湖西考古學會)

267) 東潮, 1995 <榮山江流域と慕韓> ≪展望考古學≫, 考古學硏究會40周年紀念論叢; 2001 <倭と榮山江流域－倭韓の前方後圓墳をめぐって－> ≪朝鮮學報≫ 179 (朝鮮學會, 天理) ; 朝鮮學會 編, 2002 <倭と榮山江流域>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 柳澤一男, 2008 <韓國の前方後圓墳と九州>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 李鎔賢, 2008 <韓國古代における全羅道と百濟·加耶·倭>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 鈴木英夫, 2008 <韓國の前方後圓墳と

③ 백제가 남방 개척을 위해 왜인을 받아들여 정착시킨 것으로 보는 倭系 百濟官僚說,[269] ④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갔던 이주민이 전방후원분 축조기술을 가지고 돌아와서 만들었다는 歸鄕倭人說,[270] ⑤ 나주 반남 지역에 있던 독자적 정권이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 왜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倭系 潘南官僚說[271]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이설을 표출하며 대립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전남 영산강 유역이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에 일본열도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한창 진행 중이며, 아직 어떤 설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를 ≪일본서기≫의 문헌기록에 나오는 '임나' 문제와 직접 관련짓는 견해는 없는 실정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보아 초기에는 (1)－①의 독립적 재지수장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전남지역 전방후원분의 축조방식이나 출토유물이 일본열도의 것과 다른 점이 많다고 하는 점에서 주장되었다. 인용 및 논문 게재 숫자로 보아서는 (2)－③의 왜계 백제관료설도 만만치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분이 주변의 재지수장 계열과 전혀 관계없이 돌연 출현하였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분산 배치되었으며, 그중 일부에 백제의 위신재가 부장된 점 등은 왜계 백제관료설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倭の史的動向>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268) 土生田純之, 2008 <前方後圓墳をめぐる韓と倭>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269) 朱甫暾, 2000 <백제의 영산강유역 지배방식과 전방후원분 피장자의 성격>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출판부) ; 山尾幸久, 2001 <五,六世紀の日朝關係－韓國の前方後圓墳の一解釋－> ≪朝鮮學報≫ 179 (朝鮮學會) ; 西谷正, 2002 <韓國の前方後圓墳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會 編,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 朴天秀, 2002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상호작용> ≪한국고대사연구≫ 27 (한국고대사학회) ; 2002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被葬者の出自とその性格> ≪考古學研究≫ 49-2 (考古學研究會, 岡山) ; 2003 <榮山江流域と加耶地域における倭系古墳の出現過程とその背景> ≪熊本古墳研究≫ 1 (熊本古墳研究會, 熊本) ; 2003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出現の歷史的背景>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7 (大和書房, 東京) ; 2004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が提起する諸問題> ≪歷史と地理≫ 577 (山川出版社, 東京) ; 2007 ≪加耶と倭 韓半島と日本列島の考古學≫ (講談社) ;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서울평론, 서울) ; 2008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からみた古代の韓半島と日本列島>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270) 林永珍, 1997 <湖南地域 石室墳과 백제의 관계> ≪湖南考古學의 제문제(제21회 한국고고학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271) 林永珍, 2000 <영산강유역 석실봉토분의 성격>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새로운 조명≫ (역사문화학회·목포대박물관, 목포) ; 2003 <百濟の成長と馬韓勢力, そして倭> ≪檢証古代日本と百濟≫ (大巧社)

(2)－①·②의 이주왜인설은 초기에는 미약하였으나 최근 들어 갑자기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土生田純之와 柳澤一男은 (1)－①을 주장하다가 이것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연구 동향으로 보아, 전방후원분의 축조 주체를 전남 지역의 재지수장으로 보는 견해보다 왜인으로 보는 견해가 좀 더 강해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백제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왜계 백제관료설에서는 그 축조 시기를 6세기 전반으로 보고, 일본열도의 선택을 중시하는 이주왜인설에서는 이를 5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어서, 편년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만 ≪南齊書≫ 百濟國傳 永明 8년(490) 조[272]와 建武 2년(495) 조[273]에 나오는 기록으로 보아, 백제의 지방관에 대한 王·侯 작호 책봉은 전국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5세기 후반부터 말기에 걸쳐 전남 서부 일대가 백제의 직할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고, 王·侯號 보유자는 이 지역에 분봉된 항구적 지배자가 아니라 5년 안에 교체되곤 하는 지방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5세기 말 당시에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분 피장자는 王侯制와 관련된 지방관 본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방관에게 복종하고 있던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274] 어느 설을 취하든 간에 이 점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 東城王은 자신이 중국이나 한반도 및 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세력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통치 가능한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다. 동성왕의 484·486년[275]과 490·495년의 네 차례에 걸친 南齊 조공과 그 중 490년대 두 차례의 王·侯 작호 가칭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일본 九州의 熊本縣 江田 船山 고분의 백제

272) ≪南齊書≫ 卷58, 列傳39 百濟國, "報功勞勤 實存名烈. 假行寧朔將軍臣姐瑾等四人 振竭忠効 攘除國難 志勇果毅 等威名將 可謂扞城 固蕃社稷 論功料勤 宜在甄顯. 今依例輒假行職. 伏願恩愍聽除所假. 寧朔將軍·面中王姐瑾 歷贊時務 武功竝列 今假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 建威將軍·八中侯餘古 弱冠輔佐 忠効夙著 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建威將軍餘歷 忠款有素 文武列顯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廣武將軍餘固 忠効時務 光宣國政 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273) ≪위 책≫ 建武 2년, "牟大遣使上表曰 (中略) 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 贊首流爲行安國將軍·辟中王 解禮昆爲行武威將軍·弗中侯 木干那 前有軍功 又拔臺舫 爲行廣威將軍·面中侯. 伏願天恩特愍聽除. (中略) 詔可 竝賜軍號"

274) 金泰植, 2008 <고대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지평－朴天秀, 2007. 11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한국고대사연구≫ 50 (한국고대사학회)

275)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6년, "春二月 王聞南齊祖道成 册高句麗巨璉爲驃騎大將軍遣使上表請內屬 許之. 秋七月 遣內法佐平沙若思 如南齊朝貢 若思至西海中 遇高句麗兵 不進"; 같은 왕 8년 "三月 遣使南齊朝貢"

계통 금동관이나 금동 장식신발 및 고리자루큰칼 같은 부장품에 보이듯이, 백제는 일본 열도 각지에도 백제의 선진 문물을 파급시켜 자신과의 연계 필요성을 입증해 보이기도 했다. 동성왕이 481년에 가야와 함께 신라에 원병을 보내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485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한 것이나,[276] 493년에 신라에 혼인을 청하여 결혼 동맹을 맺은 것도[277] 그러한 외교의 일환이었다. 한편으로는 498년에 耽羅를 빌미로 삼아 武珍州(지금 광주광역시)까지 진격하여 무력시위를 하기도 했던 것이다.[278] 백제의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호남 서부의 영산강 유역은 대부분 6세기 초까지는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百濟·倭의 連結과 新羅의 加耶 倂合

제1절 가야를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경쟁

1. 백제의 부흥과 호남 동부지역 병합

5세기 말 이후 6세기에 들어서도 고구려는 계속해서 백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록으로 보아,[279] 495년부터 512년 사이의 전쟁터는 북으로 水谷城(황해 신계군 다율면)이나 高木城(경기 연천군 연천읍)으로부터 남으로 漢城(서울 송파구) 또는 圓山城(충북 陰城)에 이르기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양국의 공방이 매우 치열하고 영토 소유의 변화가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75년의 위례성 함락 이후 한강과 금강 사이의 영토, 즉 충북 청원 남성곡 유적과 대전 월평동 유적 및 서울시 송파구 몽촌토성 등에 대한 고구려의 점유 기간이 그

276) ≪위 책≫, 東城王 7년, “夏五月 遣使聘新羅”

277) ≪위 책≫, 東城王 15년, “春三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飡比智女 歸之”

278) ≪위 책≫, 東城王 20년,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耽羅卽耽牟羅.]”

279)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4년(495), “八月 遣兵圍百濟雉壤城 百濟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德智 率兵來援 我軍退還” ; 같은 왕 12년(503), “冬十一月 百濟遣達率優永 率兵五千來侵水谷城” ; 같은 왕 15년(506), “冬十一月 遣將伐百濟 大雪 士卒凍皸而還” ; 같은 왕 16년(507), “冬十月 遣使入魏朝貢 王遣將高老 與靺鞨謀 欲攻百濟漢城 進屯於橫岳下 百濟出師逆戰 乃退” ; 같은 왕 21년(512), “秋九月 侵百濟 陷加弗·圓山二城 虜獲男女一千餘口”

리 길지 않았다고 추정되고, 반면에 고구려가 영위한 한강 이북 아차산 제4보루의 토기류는 제작기법이나 형태상의 특징으로 보아 그 중심 연대가 6세기경으로 추정된다.[280] 그렇다면 6세기 초에는 백제의 반격이 이루어져 고구려군이 물러감에 따라 양국의 戰線이 한강 하류에 근접한 것이라고 하겠다. 521년에 백제 武寧王이 중국 梁나라에 사신을 보내 "거듭 고구려를 격파하고 이제 비로소 더불어 通好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281] 이를 말해준다. 게다가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백제는 6세기 초까지 호남 서부의 영산강 유역을 대부분 영역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성공적 분위기 속에서 백제 무령왕은 왜와의 직접적인 교역을 위해서는 좋은 항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282] 가야 세력권에 있던 호남 동부를 관통하는 섬진강 유역 및 그 하구를 잠식해 들어갔다. ≪日本書紀≫ 繼體 6년(512) 조부터 10년(516) 조까지 나오는 백제의 任那 4縣 및 己汶·帶沙 공략은 이를 나타낸다.

거기서 임나 4현과 기문 등을 왜왕이 6세기 초에 백제왕에게 '割讓'했다고 하여, 기존설에서는 그 곳이 원래 왜왕이 지배하는 임나에 속했다고 보았다.[283] 이 지역에 대한 지명비정은, 今西龍이 己汶을 경북 개령으로 보았다가[284] 전북 남원으로 수정하고,[285] 鮎貝房之進이 임나 4현을 고산, 진산, 상주, 용담으로 각각 비정한 것을[286] 末松保和가 전북 고창과 전남 서부의 영광, 함평, 무안(여기까지 牟婁), 광주, 영암 등지(여기까지 哆唎) 및 전남 동부의 구례(娑陀) 등으로 수정한[287] 후, 일본에서는 지금도 대개 이것을 토대로 역사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임나 4현 및 기문을 上哆唎=여수, 下哆唎=돌산, 娑陀=순천, 牟婁=광양, 己汶=남원으로 비정하는 설[288]이 나온 이후 한국학계는 대개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289] 그

280) 金泰植, 2006 <5~6세기 高句麗와 加耶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역사재단) 141~142

281) ≪梁書≫ 卷54, 列傳48 諸夷 百濟傳, "普通二年(521) 王餘隆始復遣使奉表稱 累破句驪 今始與通好 而百濟更爲强國"

282)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년 3월, "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嶋曲[謂海中嶋曲崎岸也 俗云美佐祁.] 每苦風波 因玆 濕所齎 全壞无色. 請 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283)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1956 再版, (吉川弘文館) 120~123

284) 今西龍, 1919 <加羅疆域考> ≪史林≫ 4-3·4; 1970 ≪朝鮮古史の硏究≫ (國書刊行會) 재수록

285) 今西龍, 1922 <己汶伴跛考> ≪史林≫ 7-4 ; 1970 ≪朝鮮古史の硏究≫ (國書刊行會) 재수록.

286) 鮎貝房之進, 1937 ≪雜攷≫ 7, 下卷, 32~44

287) 末松保和, 1956 ≪앞 책≫ 120~123

288)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46

289) 順天大學校 博物館, 韓國上古史學會, 2008 ≪전남동부지역의 가야문화(제36회 한국상고사학회

[지도 9] 우륵 12곡 내 가야제국의 위치

성격에 대해서도 왜왕의 임나 할양이라는 측면이 아닌 백제와 대가야의 분쟁에 따른 가야연맹 영토 축소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290] 그 전제의 하나는 대가야 악사인 우륵의 12곡 이름 중에 上奇物, 下奇物, 達已, 勿慧가 나오는데, 이는 임나 4현 중의 上·下多唎, 牟婁 및 己汶과 音相似하므로 이 지역 소국들은 후기 가야연맹에 속한다는 것이다.[291]

학술발표대회)≫ 2008년 11월 14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2층 대회의실. 이날 발표자 중에 金泰植, 李東熙, 朴天秀, 權五榮은 6세기 초까지 임나 4현으로 추정되는 전남 동부지역이 가야의 영역이었다는 관점에 동의하여 글을 발표하였으며, 田中俊明만은 末松說을 일부 수정하여 임나 4현을 호남 서부의 榮山江 유역으로 비정하였다.

290)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가야사 1)≫ (푸른역사) 182~183 ; ≪같은 책≫ 2, 187

291)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涉과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또한 2006년에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1호분에서 5세기 말 내지 6세기 초엽의 고령 양식의 뚜껑목항아리[有蓋長頸壺]와 그릇받침[器臺]이 출토된 것은[292]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이로써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까지의 후기 가야연맹 최대 범위에 호남 동부지역의 6~7국, 즉 上己汶(전북 장수 번암 혹은 임실), 下己汶(전북 남원), 娑陀(전남 순천), 牟婁(전남 광양), 上哆唎(전남 여수), 下哆唎(돌산) 등이 있었다는 가설은 중요한 근거를 획득하였다.[293]

繼體紀 6년 조 기사에 의하면, 512년 12월에 백제가 왜에 조공하면서 任那國의 上哆唎, 下哆唎, 娑陀, 牟婁의 4현을 달라고 요구하자, 哆唎國守 호즈미노오미 오시야마[穗積臣押山]가 이에 찬성하는 의견을 왜국 조정에 냈으며, 결국 왜는 그 땅을 백제에게 주었다고 하였다.[294] 여기서 穗積臣押山은 처음에 왜의 사신으로서 백제에 왔지만 다리국에 주재하면서 백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왜계 백제관료가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만한 인물이다. 또한 여수·순천의 백제 산성 아래에 있는 고분들은 원래 가야계 석곽이었으나 6세기 전반에 백제의 문물에 경도되면서 백제계 석곽으로 변화해갔다.[295] 이는 해당 지역이 가야 소국이었다가 바로 백제 영토로 전환되어 간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왜의 '임나 4현 할양'이라는 관념은, 그 전에는 그 땅이 왜왕의 소유였다는 것이 아니라,[296] 멀리 떨어져 있는 교역대상자인 왜왕의 호응을 얻어 가야의 영토 일부를 빼앗으려는 백제의 외교적 修辭에 현혹되어 생긴 환상일 뿐이다.

그 이듬해에 대가야와 백제는 '己汶'이라는 곳을 놓고 영역을 다투게 되는데, 이 사실

백제연구소) 58~60

292) 李東熙, 2006 ≪순천 운평리 고분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 (전라남도·순천시·순천대학교박물관)

293)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182~183 ; ≪같은 책≫ 2권, 187 ; 李東熙, 2004 <전남동부지역 가야계 토기와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6 ; 郭長根, 2004 <호남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 ; 朴天秀, 2006 <임나사현과 기문·대사를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 ≪가야, 낙동강에서 영산강으로(제12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김해시)

294)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6년, "夏四月 辛酉朔丙寅 遣穗積臣押山 使於百濟 仍賜筑紫國馬卅匹.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爲異場 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 具得是言 同謨而奏 (中略) 由是 改使而宣勅付賜物幷制旨 依表賜任那四縣"

295) 李東熙, 2007 <백제의 전남 동부 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103

296) 森公章,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吉川弘文館) 117에서는 繼體紀 6년 12월 조의 '임나 4현' 관련 기사에 대하여, "물론 倭國이 朝鮮半島에 領地를 가진 적은 없었다"고 서술하였다.

은 繼體紀 7년 조 기사에 보인다. 그에 따르면, 백제가 513년 6월에 姐彌文貴將軍과 州利卽爾將軍을 왜에 사신으로 보내, “伴跛國이 백제 땅인 己汶을 공격하여 빼앗았으니, 이를 돌려 달라”고 왜왕에게 요청하였고,[297] 왜는 11월에 己汶과 帶沙를 백제에게 주었다는 것이다.[298]

여기서 己汶(전북 남원, 임실, 번암)이 원래 백제 땅이었다면, 이를 伴跛, 즉 대가야가 빼앗았다고 하여 왜왕에게 그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왜왕이 이를 돌려줄 권한도 없는 것이다. 이 역시 왜와의 교역을 빙자하여 가야연맹 소속국을 잠식해 들어오는 백제의 외교 방식을 보여준다.[299] 왜와 기문국은 선진 문물의 면에서 대가야보다 우월한 백제의 유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300] 백제의 외교적 명분에 동의하여 영토 확장에 도움을 준 왜에게 백제는 513년, 516년에 오경박사 段楊爾, 漢高安茂 등을 보내 유학을 전수하였다.[301] 그 결과 백제가 호남 지역을 모두 영유하게 되어, 가야와 백제는 소백산맥을 자연적 경계로 삼게 되었다.

그 후의 상황을 보이는 사료로 ≪梁職貢圖≫가 있다. 그에 따르면, 梁 普通 2년(521)에 백제왕이 수도를 固麻(충남 공주)에 두고 지방에는 22담로를 두어 통치하였는데, 인접한 소국으로 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己文, 下枕羅 등이 그에 부속되어 있다고 하였다.[302] 여기서 斯羅, 즉 신라가 백제에게 부속되었다거나, 혹은 가야연맹의 유력한 소국들인 叛波(경북 고령), 卓(경남 창원), 多羅(합천), 前羅(함안)가 백제에 부

297)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7년 6월,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天恩 判還本屬”

298) ≪위 책≫ 繼體天皇 7년 11월 신해삭 을묘, “於朝廷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斯羅汶得至·安羅辛已奚及貫巴委佐·伴跛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滯沙 賜百濟國. 是月 伴跛國 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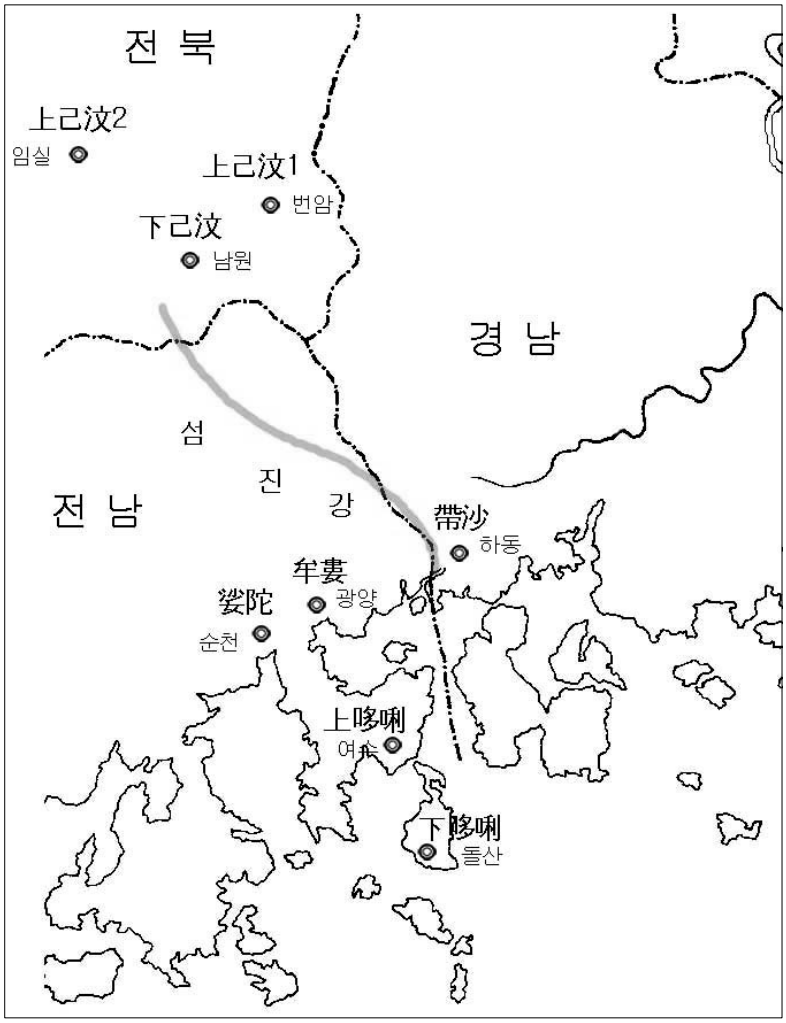
299) 金泰植, 2002 ≪앞 책≫ 1, 188

300) 위치나 정황상의 정확한 설명은 못되나 일본의 吉田連 家系傳承에도 이 지역이 원래는 三己汶의 넓은 지역이었고 任那에 속했었는데 결국 자발적으로 백제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下 吉田連條 및 ≪續日本後紀≫ 卷6, 仁明天皇 承和 4년 6월 壬辰朔 己未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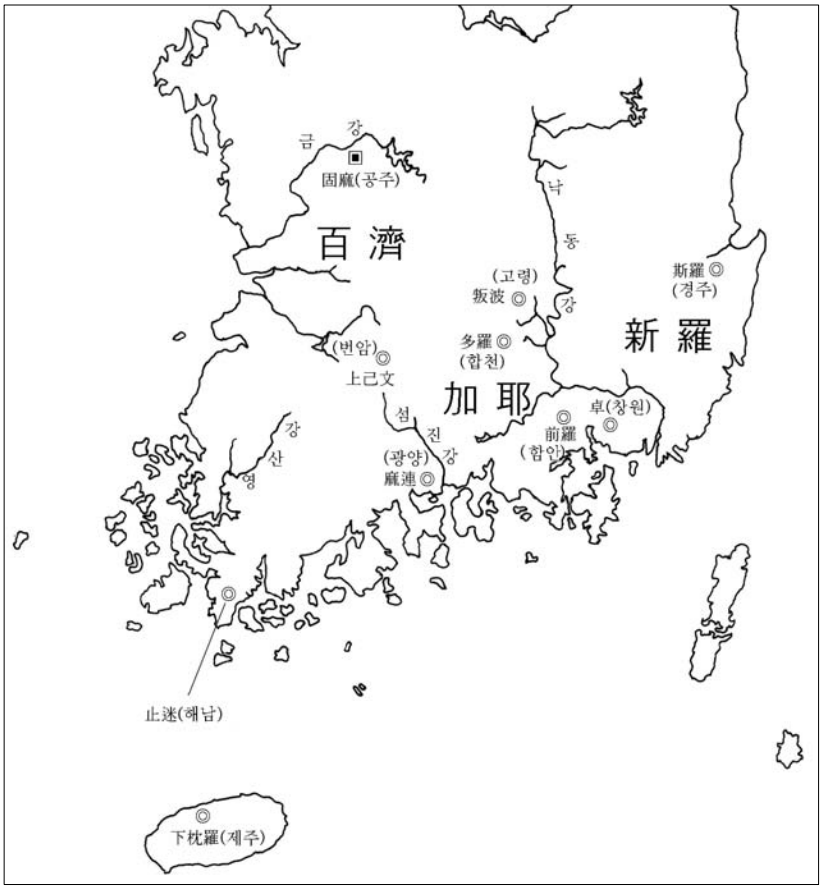
301)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7年(513), “夏六月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天恩 判還本屬” ; ≪같은 책≫ 繼體天皇 10年(516), “秋九月 百濟遣州利卽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 請代博士段楊爾. 依請代之”

302) ≪梁職貢圖≫ 百濟國使 圖經, “普通二年 其王餘隆 遣使奉表云 累破高麗 所治城曰固麻 謂邑檐魯於中國郡縣 有二十二檐魯 分子弟宗族爲之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속되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다만 그 이하의 止迷(전남 해남), 麻連(광양), 上己文(전북 임실, 반암), 下枕羅(제주도) 등이 백제에 부속되었다 해도 아직까지 소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지미, 마련 등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야와의 인접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521년 단계에도 호남 동부의 몇몇 세력은 정치적으로 백제에게 복속되었으나, 아직 지방관이 파견되어 군현으로 편제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지도 10] 任那 4縣 및 己汶·帶沙의 위치



[지도 11] 梁職貢圖 百濟國使傳 '旁小國'의 위치

2. 신라의 왕권 성장과 중앙집권체제 정비

신라는 6세기에 들어 智證痲立干이 왕권을 강화하여 '新羅國王'의 尊號를 채택하고(503), 그 후 국내의 州郡縣制를 제정하고(505), 于山國을 정벌하고(512), 阿尸村(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小京을 설치하는 등(514)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303] 그를 이어 法

30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痲立干 4年(503), "冬十月 羣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臣等以爲 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宜矣. 又觀自古有國家者 皆稱帝稱王 自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未正尊號 今羣臣一意 謹上號新羅國王 王從之" ; 같은 왕 6年(505),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始於此" ; 같은 왕 13年(512),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

興王은 兵部 설치(517), 율령 반포와 百官公服 및 위계 설정(520), 불교 공인(528), 上大等 임명(531), 金官國 병합(532), 建元 年號 제정(536) 등과 같이 중앙집권 체제를 크게 정비하였다.[304]

한편 589년에 멸망한 양나라의 사서인 ≪梁書≫ 新羅傳에는 5개의 관등만 나오고,[305] 618년에 멸망한 수나라의 사서인 ≪隋書≫ 新羅傳에 가서야 17개의 관등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306] 일부 학자들은 6세기 후반까지 신라에는 5개 또는 6개의 京位만이 존재했다거나,[307] 또는 법흥왕대의 관료제를 신분제와 관련된 衣冠制와 같은 초보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308] 그러나 迎日冷水里碑(503)와 蔚珍鳳坪碑(524)가 발견된 이후 17관등의 대부분이 법흥왕 때 존재하던 것임이 확인되었다.[309]

그 외에 학자들은 몇 가지 점을 더 확인하였다. 즉, 법흥왕 11년(524) 당시의 6부가 독자적인 단위정치체에서 단순한 王京의 행정구역으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것이었고, 中古期 신라 왕실은 喙部와 沙喙部를 직접적 지배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다.[310] 또한 관등으로 干支만을 칭한 존재들은 그가 冠稱한 部의 지배자이며 신라의 중앙 관등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연구도 나왔다.[311]

왕실이 아닌 사탁부에 소속된 인물들이 중앙 관등을 띠고 있는 것은, 사탁부를 이루던 지배층들이 수도에 거주하면서 중앙 조정 중심의 17관등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524년까지 단지 '干支'만을 칭하던 岑喙部, 本彼部, 斯彼部 등

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湌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 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 則降" ; 같은 왕 15年(514),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 充實之"

304) ≪위 책≫ 法興王 4年(517) "夏四月 始置兵部" ; 같은 왕 7年(520),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 같은 왕 15年(528), "肇行佛法. (中略) 不復非毁佛事" ; 같은 왕 18年(531), "夏四月 拜伊湌哲夫爲上大等 摠知國事. 上大等官 始於此 如今之宰相" ; 같은 왕 19年(532),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中略) 以國帑寶物來降" ; 같은 왕 23年(536), "始稱年號 云建元元年"

305) ≪梁書≫ 卷54, 列傳48 新羅, "其官名 有子賁旱支 齊旱支 謁旱支 壹告支 奇貝旱支"

306) ≪隋書≫ 卷81, 列傳46 新羅國, "其官有十七等 其一曰伊罰干 貴如相國 次伊尺干 次迎干 次破彌干 次大阿尺干 次阿尺干 次乙吉干 次沙咄干 次及伏干 次大奈摩干 次奈摩 次大舍 次小舍 次吉士 次大烏 次小烏 次造位"

307) 曾野壽彦, 1955 <新羅の十七等の官位成立の年代についての考察> ≪古代研究≫ Ⅱ (東京大 教養學部) 116
宮崎市定, 1959 <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 ≪朝鮮學報≫ 14, 163~164

308) 武田幸男, 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85~93

309) 盧泰敦,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研究≫ 2, 183

310) 李文基,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中古期의 六部問題> ≪韓國古代史研究≫ 2, 170

311) 全德在, 1996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은 신라 왕실의 연합집단으로 인정받아 중앙의 諸干支會議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었으나, 아직 그 지배층의 중앙 이주를 미루고 있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312]

그러나 그 후 불교가 공인되고 531년에 귀족회의 의장으로서 상대등이 임명된 것은 신라의 왕권이 초월적인 지위로 승격한 것을 보여준다. 각 部 지배층의 중앙 이주는 강화된 신라 왕권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고 部長 가족들은 진골귀족 또는 6두품으로 편입되었을 것이다.[313] 그러면 수도에 거주하는 왕과 귀족들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배가 완성되는 것이다.

532년에 신라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한 김해의 金官國은 6부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자인 仇亥王 일가는 신라 수도로 이주하여 사탁부에 소속되면서 진골로 편입되었다.[314] 이는 常道에 어긋난 특혜로서, 신라가 금관국의 王家를 우대함으로써 여타 가야 제국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일종의 선전술이었다.[315]

수도 내에 행정구역으로서의 6부 거처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지방의 5부 중심 세력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주해 들어온 듯하다. 대구, 부산 지방 등에서는 5세기 말 무렵에 봉토 직경 20m 이상의 큰 고분군이 없어지고, 양산, 창녕 지방 등에서는 6세기 전반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部의 지배층이나 기타 소국 지배층의 中央集住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316]

---

312)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2(고대국가의 구조와 사회1)≫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67

313) 봉평비의 인물 배치는 관등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本彼部의 □夫智 干支와 岑喙部의 美昕智 干支가 沙喙部의 而粘智 太阿干支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들은 추후 眞骨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피부와 잠탁부의 長은 아직 중앙 관등에 편입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진골만의 관등인 제5등 大阿湌보다 서열이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 6부 지배층의 신분이 한 단계 격하되었을 수도 있다. 왕비의 아버지였던 朴英失 각간이 있었던 牟梁部를 제외한 本彼·習比·漢祇部人의 경우 530년대 이후의 비문이나 문헌 기록에서 大阿湌 이상의 관등을 가진 관리가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喙部와 沙喙部를 제외한 4부인들은 6두품에 편제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全德在, 2000 <7세기 중반 관직에 대한 관등규정의 정비와 골품제의 확립> 河一植 외 5인 공저, ≪한국 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309~311

31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9년,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315) 朱甫暾, 1982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 ≪慶北史學≫ 4

316) 봉토 직경 10m 이하의 고분군은 지방을 막론하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는 세력이 약화된 토착 촌주 세력들의 무덤일 것이다.

3. 대가야의 고대국가 형성과 남부지역 일부 상실

≪日本書紀≫ 繼體 8년(514) 조 기사로 보아, 伴跛(경북 고령의 大加耶)는 子呑(경남 진주)과 帶沙(경남 하동)에 성을 쌓아 滿奚(전남 광양)에 이어지게 하고, 봉수대와 저택을 설치하여 백제 및 왜국에 대비했다. 또한 爾列比(경남 의령군 부림면)와 麻須比(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성을 쌓아 麻且奚(경남 삼랑진) 및 推封(경남 밀양)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를 핍박했다고 한다.[317]

여기서 반파가 성을 쌓은 위치가 고령에서 멀리 떨어진 점이나, 사졸과 병기를 모았다는 표현으로 보아, 대가야국은 연맹의 수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방에서도 노동력이나 군대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대가야의 왕권이 강화되어 넓은 영역에 걸쳐 무력을 독점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인정해도 좋다. 이는 대가야가 백제와의 영역 다툼 과정에서 가야 북부지역에 걸쳐 고대국가를 성립시켰음을 의미한다.

이 당시의 대가야 영역은 지금의 고령군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서부, 하동군 일대를 포함하며, 남쪽으로 합천군과 의령군 동부 일부, 창녕군 남부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이런 범위는 6세기 초에 고령 양식 토기 유형이 유행하던 지역과[318]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가야는 늦어도 510년대에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초기 고대국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범위는 가야 소국연맹체라고 여겨지던 지역의 2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나머지 의령 서부, 진주 동부, 함안, 사천, 고성, 마산, 창원, 김해 등의 세력은 대가야에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가야연맹 소국을 이루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 지역은 토기 문화권으로 보아, 함안 양식(함안, 마산, 의령 서부),[319] 고성－진주 양식(고성, 사천, 진주, 산청),[320] 김해 양식(김해, 창원) 토기 유형 등으로 다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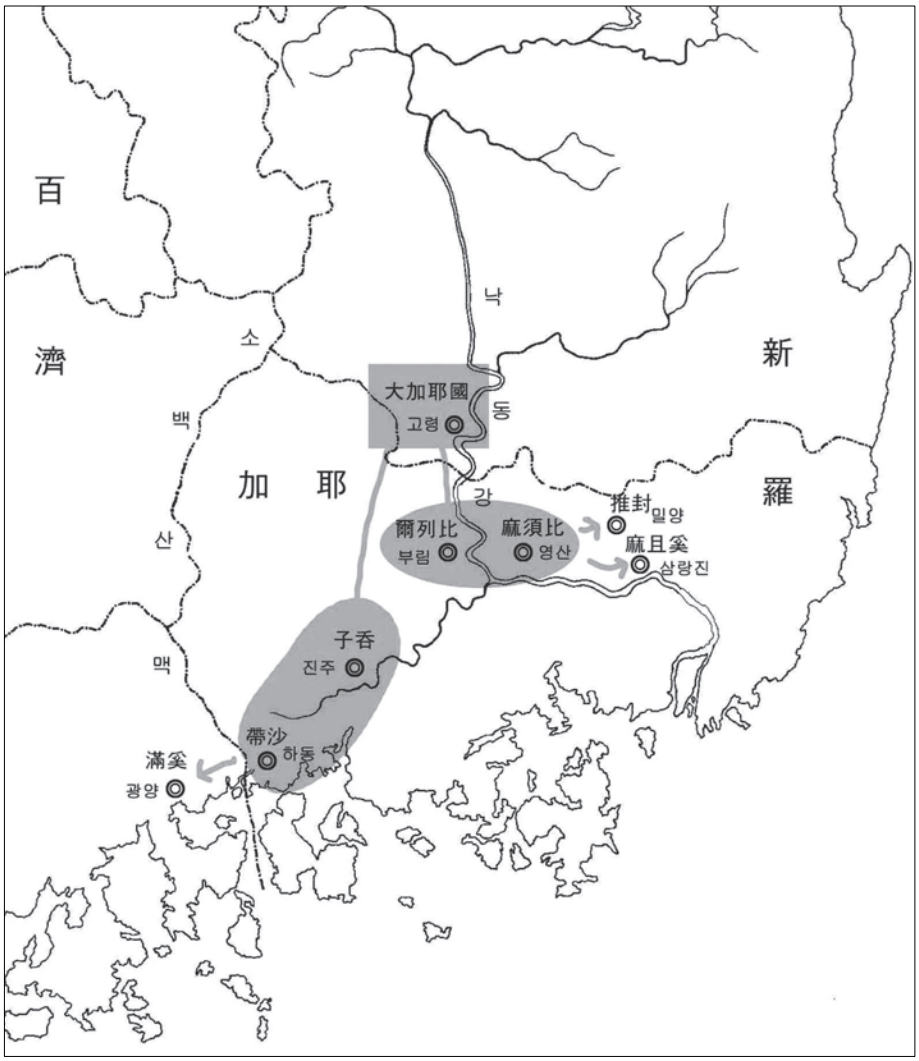
---

317)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8년 3월, "伴跛築城於子呑·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紿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駈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지명 고증에 대해서는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涉과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61～67 ;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188～192 참조.

318) 朴天秀, 1998 <대가야의 역사와 유적> ≪가야문화도록≫ (경상북도) 14

319) 金正完, 1997 <신라와 가야토기의 발생 및 변화과정> ≪한국고대의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58

320) 尹貞姬, 1997 <소가야토기의 성립과 전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다만, 晉州, 山淸 지방에는 固城－晉州 양식 토기와 高靈 양식 토기가 공존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도 12] 6세기 초 대가야의 사방 축성

繼體紀 9년(516) 조에는 왜국 사신 物部連과 수군 500명이 帶沙江에 머무른 지 6일 만에 伴跛가 군대를 일으켜 와서 그들을 공격하여 쫓아냈다는 기사가 나온다.[321] 이는 반파, 즉 고령의 대가야가 군대를 일으켜 帶沙江, 즉 하동 부근의 섬진강 유역까지 와서 왜국 사신 일행을 공격한 사건을 말한다. 이것은 고령 지방에 중심을 둔 대가야 왕권의

321)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9년,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 伴跛人 懷恨銜毒 恃强縱虐 故物部連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跛興師往伐 逼脫衣裳 劫掠所齎 盡燒帷幕. 物部連等 怖畏逃遁 僅存身命 泊汶慕羅.[汶慕羅 嶋名也]"

[지도 13] 530년대 말 가야연맹의 지역 범위

무력이 멀리 하동 지방까지 미친 것을 나타내므로, 가야 왕권의 무력 독점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런 조건에서 대가야는 보다 큰 권위를 가지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즉, 522년에 고령 대가야의 異腦王이 신라에 청혼하자 법흥왕이 이찬 比助夫의 누이동생을 보내주어 결혼이 성립되었다.[322] 얼마 안 있어 대가야에 시집온 신라 왕녀는 月光太子를 낳았으

32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9년,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飡比助夫之妹送之" ;

며, 결혼 2년 후인 524년에는 신라국왕이 남쪽 경계를 돌아보며 땅을 개척하는데, 가야국왕이 와서 만나기도 하였다.[323] 이는 가야연맹의 대표 세력인 고령 대가야의 왕이 신라 법흥왕과 낙동강 방면에서 만나서 영토의 경계를 상호 확인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 법흥왕의 계획된 책동에 의하여 몇 년 후에 이 동맹은 파탄에 이르고, 그에 따라 가야연맹 내부에는 분열의 조짐이 생겨났다. 이를 포착한 신라는 529년을 전후하여 무력 공세를 통하여 喙己呑國(경남 창녕군 영산면)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으며, 뒤이어 532년에 金官國(=南加羅國, 김해시), 530년대 후반에 卓淳國(창원)도 신라에 투항하였다. 그런 사이에 백제도 安羅國(함안) 주변의 乞乇城과 久禮牟羅城(칠원) 등을 침공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었다.[324] 이처럼 520년대 후반 이후로 가야연맹이 분열의 조짐과 함께 일부 소국들이 멸망하면서 약세를 보임에 따라, 호남 동부지역의 마지막 소국인 麻連과 上己文 등도 백제에게 통합되어 군현으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磐井의 亂과 교류 패턴의 변화

백제가 호남 동부지역을 점령한 6세기 전반 이후,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왜와의 교역을 담당하고 있던 대가야의 역할은 약화되었다. 이는 백제가 가야를 매개로 하지 않고 왜와 직접 교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열도에서는 527년에 筑紫國造 이와이[磐井]가 九州 북부에 세력을 뻗치고 있으면서 신라의 뇌물을 받고 반란을 일으켜서, 한반도 각지에서 오는 배들을 주도적으로 유치하였다가,[325] 이듬해에 중앙 귀족인 모노노베노 아라카히[物部麤鹿火]의 토벌군에게 진압당한[326] 사건이 일어났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高靈縣 建置沿革 引用 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32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1년 9월,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

324) 金泰植, 1988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 ≪韓國古代史硏究≫ 1 (한국고대사연구회)

325)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1년 6월 壬午朔 甲午, "近江毛野臣 率衆六萬 欲住任那 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喙己呑 而合任那. 於是 筑紫國造磐井 陰謨叛逆 猶預經年. 恐事難成 恒伺間隙. 新羅知是 密行貨賂于磐井所 而勸防遏毛野臣軍. 於是 磐井掩據火豊二國 勿使修職. 外邀海路 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年貢職船. 內遮遣任那毛野臣軍"

326) ≪위 책≫ 繼體天皇 22년 11월 甲寅朔 甲子, "大將軍物部大連麤鹿火 親與賊帥磐井 交戰於筑紫

여기서 九州 북부의 호족이 왜국 중앙정권에게 반기를 든 것은 가야 및 신라의 계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백제와 왜국 중앙과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이것을 왜국의 중앙정권이 진압했다는 것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교류에서 九州 왜인의 중간 역할이 무력화됨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510년 및 520년대를 거치면서 고대 한일 교류의 패턴은 기존의 百濟－加耶－九州倭－近畿倭를 거치는 형식으로부터 百濟－近畿倭로 직결되는 형식이 우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가야가 호남 동부지역에서 백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가야 남부지역의 고성군 송학동 1호분 B호석실, 의령군 경산리 1호분, 운곡리 1호분 등에서 왜계 석실구조와 대가야 양식의 토기, 마구, 靑銅盌 등의 부장품을 갖춘 고분들이 나타났다. 이 고분 구조는 주로 일본 九州 福岡縣과 熊本縣 등에서 나타나며, 해당 시기의 北九州 지역에서도 고령 양식의 귀걸이와 토기, 고성양식의 토기 등이 나타나므로, 양 지역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상정된다.[327] 이는 원거리 중개능력을 상실한 加耶와 九州倭의 양자 사이에 전통적인 교류 통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2절 신라의 팽창과 가야의 소멸

1. 가야의 남북 분열

6세기 중엽 가야 지역의 유적 상황을 살펴보면, 고령, 합천, 거창, 진주 등의 대가야 문화권에는 굴식 돌방무덤 및 三足器 등 백제 문물의 요소들이 약간 추가된다. 반면에 함안, 고성, 사천 등의 가야 서남부지역은 여전히 기존의 문화 기반을 유지 발전시킬 뿐이고 상대적으로 백제 문물의 영향이 희박하다.[328] 또한 가야 지역 전체의 고분 분포 상황을 통관해 볼 때, 개개의 봉분 및 고분군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고령 지산리 고분군과 함안 말산리·도항리 고분군이다. 이는 고령과 함안의 지배 세력들이 가야 말기에 문화 성격이 서로 구별되는 가야 북부 및 남부지역의 중심 세력이었음을 확인케 한다.

이러한 세력 편제는 고령의 대가야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함안의 안라국이 가야연맹 내에서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520년대 후반에 탁순국이 신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御井郡. 旗鼓相望 埃塵相接 決機兩陣之間 不避萬死之地. 遂斬磐井 果定疆場"

327) 朴天秀, 2007 ≪새로 쓰는 古代 韓日交涉史≫ (社會評論, 서울) 242~243

328)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251~253

그 와중에 탁기탄국이 신라에 병합되자, 가야연맹 내의 남부제국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 대가야를 불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구책으로 자체 내의 단결을 도모했는데 함안의 안라국이 이를 주도했다. 즉 안라가 높은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정치적 합의체 맹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백제, 신라, 왜 등의 사신을 초빙하여 국제회의, 즉 안라회의를 개최한 것은[329] 이를 반영한다.

백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531년에 안라로 침공해 들어가서 乞乇城을 영유하고,[330] 더 나아가 534년에 탁순국 북방의 久禮牟羅(칠원)에 성을 쌓아 군대를 주둔시켰다.[331] 그 결과 안라 및 그 서남부의 가야 소국들은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였다. 그러나 백제로부터 지속적인 억압을 받고 있던 창원의 탁순국왕이 538년경에 신라군을 불러들여서 반대 집단을 소탕하고 스스로 신라에 편입되었고,[332] 신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례산성(칠원)에 주둔한 백제 군사를 물리쳐 쫓아냈다.[333]

그러자 백제는 가야 지역의 최대 세력인 대가야와 그에 동조하는 가야 북부지역에 선진문물을 나누어 주면서 적극적으로 포섭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야 북부의 대가야 측 소국들은 신라의 배반과 남부지역 소국들의 독립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 백제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졌으니, 고령, 거창, 합천 등 대가야 문화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백제계 문물 요소는 그의 반영이라 하겠다. 또한 가야 북부 소국 사이에 백제의 권위가 통용되면서 대가야의 통합력은 소국연맹체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반면에 가야 남부지역에는 안라국이 주도하는 자주적 성격의 연맹체가 형성되었다. 久禮牟羅城을 신라가 영유하게 되면서 안라는 신라와 협조하지 않는 한 존속할 수 없는

---

329)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년 3월,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勅勸新羅 更建南加羅·喙己呑.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鹵等 往赴安羅 式請詔勅. 新羅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請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 謨謀乎堂上. 將軍君等 恨在庭焉"

330) ≪위 책≫ 繼體天皇 25년 12월조 細注의 百濟本記 인용문, "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 營乞乇城"

331) ≪위 책≫ 繼體天皇 24년 9월, "於是 阿利斯等 知其細碎爲事 不務所期 頻勸歸朝 尙不聽還. 由是 悉知行迹 心生飜背. 乃遣久禮斯己母 使于新羅請兵 奴須久利 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討背評[背評地名 亦名能備己富里也] 傷死者半. 百濟則捉奴須久利 柮械枷鏁 而共新羅圍城. 責罵阿利斯等曰 可出毛野臣. 毛野臣 嬰城自固. 勢不可擒. 於是 二國圖度便地 淹留弦晦 築城而還. 號曰久禮牟羅城. 還時觸路 拔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 五城"

332)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년 4월, "其卓淳 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 ; 같은 왕 5년 3월, "至於卓淳 亦復然之 假使卓淳國主 不爲內應新羅招寇 豈至滅乎"

333) ≪위 책≫ 欽明天皇 5년 3월, "新羅春取喙淳 仍擯出我久禮山戍 而遂有之"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에 안라는 신라 및 왜국과의 친분을 내세움으로써 백제에 대하여 좀 더 독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대가야에 못지않은 가야연맹 중심 세력의 하나로 대두했다. 이러한 안라의 대두로 말미암아 가야연맹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大加耶－安羅 二元體制로 돌입했다.

530년대를 거치면서 가야는 연맹 전체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540년대에는 백제 및 신라의 침공에 대비하며 독립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당시에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에 공동 대응하는 나제동맹을 맺고 있었으면서도, 가야 지역의 병합을 위해서는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가야연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백제와 신라와의 경쟁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후기 가야연맹은 고령 대가야국과 함안 안라국 중심의 南北 二元體制로 분열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7~8개국의 執事들로 구성된 대외교섭단체를 마련하여 백제와 신라 양측과의 외교 교섭을 도모하였다.

2. 백제의 통치체제 재정비와 외교적 성공

백제의 聖王은 526년에 熊津城(충남 공주)을 수리하고 沙井柵(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을 세워[334] 수도 주변 방어를 튼튼히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538년에 泗沘(충남 부여)로 천도하고 국호를 南扶餘로 고치는 등[335] 중흥을 꾀하여, 내외 관청을 22부로 확대하고 수도와 지방을 5부와 5방으로 정비하였다.[336] 그는 이러한 통치체제 재정비를 토대로 삼아 적극적인 대외관계를 전개하였다. 그래서 백제는 541년에 梁나라에 毛詩博士와 涅槃經義 및 工匠과 畵師 등을 청하고,[337] 신라에 화해를 요청하였으며,[338] 한편으로는

334)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4년(526), "冬十月 修葺熊津城 立沙井柵"

335)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16년(538), "春 移都於泗沘[一名所夫里] 國號南扶餘"

336) ≪北史≫ 卷94, 列傳82 百濟,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熊津城 (中略) 各有部司 分掌衆務 內官有前內部·穀內部·內掠部·外掠部·馬部·刀部·功德部·藥部·木部·法部·後宮部 外官有司軍部·司徒部·司空部·司寇部·點口部·客部·外舍部·綢部·日官部·市部. 長吏三年一交代 都下有萬家 分爲五部 曰上部·前部·中部·下部·後部 部有五巷 士庶居焉 部統兵五百人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三人 以德率爲之 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人庶及餘小城 咸分隸焉"

337)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19년,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涅槃等經義幷工匠·畵師等 從之"

가야연맹의 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541년 4월과 544년 11월의 두 차례에 걸쳐 安羅(경남 함안), 加羅(경북 고령), 卒麻(경남 함양), 散半奚(합천군 초계면), 多羅(합천), 斯二岐(의령군 부림면), 子他(진주시), 久嗟(고성)[339] 등 가야연맹 7~8개 소국의 旱岐 등이 백제 수도에 모였다.[340]

제1차 사비회의에서 가야연맹의 사신단은 자신들의 독립 보장 및 신라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341] 이에 대하여 백제 성왕은 안이한 자세로 가야연맹 제국을 부속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상호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3년 후에 열린 제2차 사비회의에서 백제 성왕은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1) 가야연맹 및 왜의 협조 아래 가야의 변경에 6성을 축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라의 久禮山 5성을 쳐서 회복하고, (2) 안라 중심의 독자 세력 추진 집단을 무력화시키며, (3) 임나의 下韓에 파견된 백제의 郡令·城主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342] 성왕이 제시한 것은 가야 영토에 대한 점진적 침탈 정책에 지나지 않았으며 가야를 위한 양보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야연맹 집사들은 그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였다.[343]

그러자 백제는 545년부터 3년에 걸쳐 문물 증여를 통해서 가야연맹의 마음을 달래고 왜국에 대해서도 백제 문물의 우수성을 입증시킴으로써, 그 대가로 기존의 세 가지 계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다.[344] 그 결과 백제와 가야연맹 제국 및 왜로 이어지는 외교

---

338)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년, "百濟遣使請和 許之"

339) 지명 비정에 대해서는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제2권≫ 200~204 참조.

340)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년(541) 4월, "安羅次旱岐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旱岐 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夷他 斯二岐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闕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 같은 왕 5년(544) 11월,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旱岐 久嗟旱岐 仍赴百濟"

341) ≪위 책≫ 欽明天皇 2년 4월, "任那旱岐等對曰 (中略) 夫建任那者 爰在大王之意 祗承敎旨 誰敢間言 然任那境接新羅 恐致卓淳等禍[等謂喙己呑·加羅 言卓淳等國 有敗亡之禍]"

342) ≪위 책≫ 欽明天皇 5년(544) 11월, "竊聞 新羅·安羅兩國之境 有大江水 要害之地也 吾欲據此修繕六城. 謹請天皇三千兵士 每城充以五百 幷我兵士 勿使作田 而逼惱者 久禮山之五城 庶自投兵降首 卓淳之國 亦復當興 所請兵士 吾給衣粮 欲奏天皇 其策一也 猶於南韓 置郡令·城主者 豈欲違背天皇·遮斷貢調之路 唯庶剋濟多難 殲撲强敵. 凡厥凶黨 誰不謀附 北敵强大 我國微弱 若不置南韓 郡領·城主 修理防護 不可以禦此强敵 亦不可以制新羅 故猶置之 攻逼新羅 撫存任那. 若不爾者 恐見滅亡 不得朝聘 欲奏天皇 其策二也 又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 猶在任那國者 天皇雖詔建成任那 不可得也 請 移此四人 各遣還其本邑. 奏於天皇 其策三也"

343) ≪위 책≫ 欽明天皇 5년 11월, "於是 吉備臣·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 歸以敬諮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安羅王·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歟"

－교역망이 구축되어, 546년에 왜는 말 70필과 배 10척을 보내고,[345] 548년에는 왜 병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다.[346]

이에 대하여 안라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구려에게 백제 정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獨山城, 즉 馬津城(충남 예산군 예산읍) 전투가 신라의 참전으로 인하여 고구려의 패배로 끝나면서, 고구려와 안라 사이의 밀통이 발각되었다.[347] 그러자 안라의 상층부는 백제에게 대항할 계책이 궁해져 무력화되었다. 결국 백제의 설득과 문물 증여에 따라 그 뜻이 관철되면서 550년을 전후하여 가야연맹은 백제에게 종속적으로 연합되었다.

3. 신라의 한강 유역 병합

외교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백제의 성왕은 551년에 그 권위를 가지고 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의 남부를 쳐서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다. ≪일본서기≫ 기사는 백제 성왕이 신라와 임나(=가야)의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서 한강 하류지역 漢城과 平壤의 옛 땅 6郡을 수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348]

한편 신라 眞興王은 제도를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불교 교단을 육성하여[349]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면서 사방에 軍主를 파견하여[350] 영토 팽창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550년에는 고구려의 道薩城(충북 괴산군 도안면)과 백제 金峴城(충북 진천)을 빼앗고,[351] 551년에는 고구려가 영유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백제 성왕과 함께 공격하였다.

---

344) ≪위 책≫ 欽明天皇 6년(545) 9월, "百濟遣中部護德菩提等 使于任那 贈吳財於日本府臣及諸旱岐 各有差" ; 같은 왕 7년(546) 6월, "百濟遣中部奈率掠葉禮等獻調" ; 같은 왕 8년(547) 4월, "百濟遣前部德率眞慕宣文·奈率奇麻等 乞救軍. 仍貢下部東城子言 代德率汶休麻那"

345) ≪위 책≫ 欽明天皇 7년(546) 정월, "百濟使人中部奈率己連等罷歸. 仍賜以良馬七十匹·船一十隻"

346) ≪위 책≫ 欽明天皇 9년(548) 정월, "百濟使人前部德率眞慕宣文等請罷. 因詔曰 所乞救軍 必當遣救. 宜速報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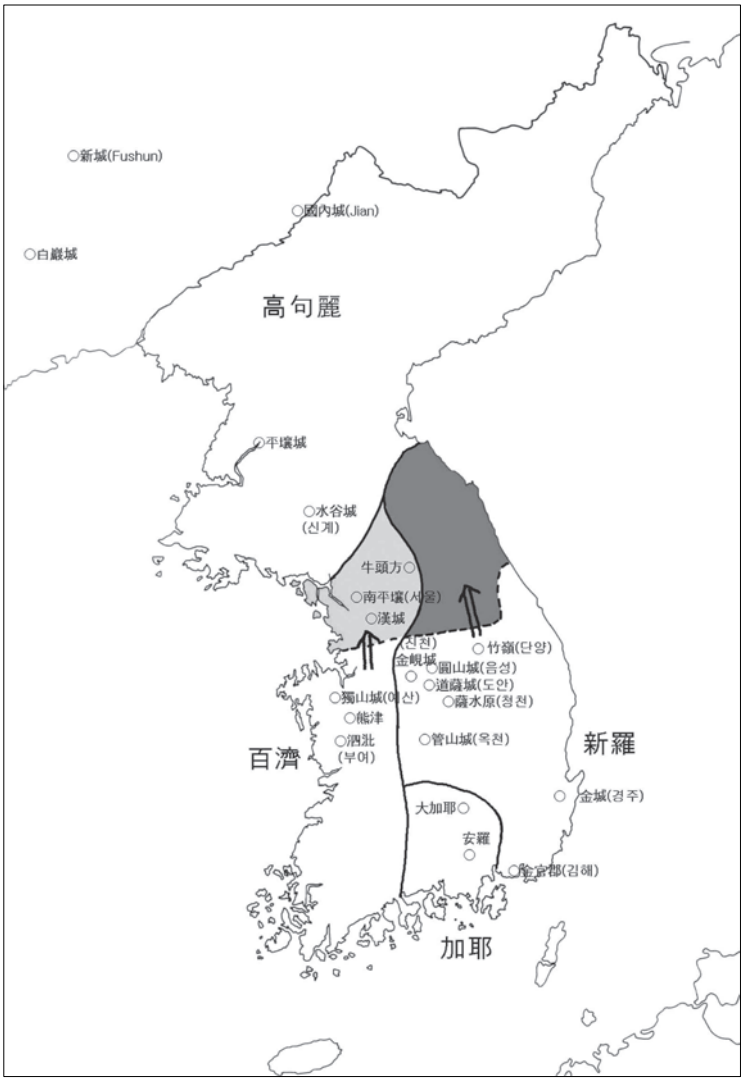
347) ≪위 책≫ 欽明天皇 9년 4월, "百濟遣中部杆率掠葉禮等奏曰 (中略) 然馬津城之役[正月辛丑 高麗率衆 圍馬津城] 虜謂之曰 由安羅國與日本府招來勸罰 以事准況 寔當相似 然三廻欲審其言 遣召而並不來 故深勞念"

348) ≪위 책≫ 欽明天皇 12년(551),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34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5년, "春二月 興輪寺成 三月 許人出家爲僧尼 奉佛"

350) ≪昌寧眞興王拓境碑≫ (561), "四方軍主. 比子伐軍主 沙喙 登□□智 沙尺干. 漢城軍主 喙 竹夫智 沙尺干 碑利城軍主 喙 福登智 沙尺干 甘文軍主 沙喙 心麥夫智 及尺干"

35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1년(550), "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陷百



[지도 14] 551년 백제 – 신라 연합군의 한강 유역 공략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왕이 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에 침입케 하였는데, 이긴 기세를 타고 10개 군을 빼앗았다"[352]고 하였고, 거칠부열전에는 "백제 사람들이 먼저 平壤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리의 기세를 타서 竹嶺 바깥, 高峴 이내의 10郡을 취하였다"[353]고 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에 백제 – 가야 연합군은 한강 하류지역을

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湌異斯夫 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一千戍之"

35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2년(551), "王命居柒夫等 侵高句麗 乘勝取十郡"

[지도 15] 553년 신라의 팽창

쳐서 漢城과 平壤(=南平壤, 지금 서울)을 비롯하여 6郡을 회복하였고, 신라군은 한강 상류지역을 쳐서 竹嶺(충북 단양)과 高峴 사이의 10郡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백제－가야－신라 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공격 및 한강 유역 점령은 백제와 신라의

353)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飡·比台角飡·耽知迊飡·非西迊飡·奴夫波珍飡·西力夫波珍飡·比次夫大阿飡·未珍夫阿飡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 乘勝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

분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극적인 반전을 보였다. 즉 ≪삼국사기≫에 의하면, 553년 7월에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新州(경기 하남시)를 설치하였기[354]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일본서기≫에서는 552년 是歲條에 "백제가 漢城과 平壤을 버렸기 때문에 신라가 한성에 들어가 살았다"[355]라고 기록하였다.

이 사건에서 신라가 한성을 점령한 시기는 편년 자료의 성격상 ≪삼국사기≫ 쪽을 따라 55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신라의 일방적인 백제 공격에 의한 한강 하류 점탈로 보기보다는 552년이나 553년 초 고구려와 신라의 和約에 의한 백제 협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356] 그 때 고구려는 이미 상실한 한강 유역과 함께 함흥평야 일대를 신라에게 넘겨주고, 대신 양국이 화평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357]

4. 가야의 멸망

한강 하류지역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120년 동안 이어져오던 나제동맹(433~553)이 파탄에 이르렀다. 백제 성왕은 왜와 직접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왜와의 교역을 중개하던 가야를 고립시켜 약화시키고 왜의 군수물자 및 군사력을 동원하여 신라와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백제는 552년에 왜에 불교를 전수하고, 554년에는 유학과 역법 및 의약 등을 전수하였으며, 왜는 백제의 요청에 따라 말·화살과 원군 1,000명 등을 보냈다.[358]

그러자 백제는 554년에 가야 및 왜의 원군을 이끌고 신라에 쳐들어가 管山城(충북 옥

35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년,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湌武力爲軍主"

355)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3년,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地名未詳]"

356)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硏究≫ 13 (한국사연구회) ;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서울) 429~433

357) ≪위 책≫ 433

358)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3년(552) 10월, "百濟聖明王[更名聖王]遣西部姬氏達率怒唎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幡蓋若干·經論若干卷" ; 같은 왕 14년(553) 6월, "遣內臣[闕名] 使於百濟. 仍賜良馬二匹·同船二隻·弓五十張·箭五十具 勅云 所請軍者 隨王所須. 別勅 醫博士·易博士·曆博士等 宜依番上下 今上件色人 正當相代年月. 宜付還使相代. 又卜書·曆本·種種藥物 可付送" ; 같은 왕 15년(554), "春正月 (中略) 於是 內臣奉勅而答報曰 卽令遣助軍數一千·馬一百匹·船卌隻 (中略) 夏五月 丙戌朔戊子 內臣率舟師 詣于百濟"

천) 전투를 일으켰다. 이 전쟁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이 백제와 가야가 신라를 침으로써 유발된 것이며, 여기서 그 연합군이 패하여 군사 29,600명이 전사하는 대규모의 것이었다.[359] 그런데 ≪일본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는 554년 6월에 九州의 왜군 1,000명을 받아 12월 9일에 函山城 즉 관산성을 공격하였고, 백제는 군사 10,000명을 보내 임나를 돕고 있었다.[360]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전사한 29,600명 중에 18,600명 이상이 임나 즉 가야의 군대이니, 관산성 전투의 주력부대가 가야군이었던 셈이다.

말하자면 백제는 백제－가야－왜 연합군의 대부분을 가야인으로 구성하여 신라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백제 성왕이 그 전투를 지휘하고 있던 아들 餘昌을 위로하기 위해 久陀牟羅塞(충북 沃川)로 가다가 신라군에게 잡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자,[361] 백제－가야－왜 연합군은 사기가 떨어져 급격히 패퇴되었다. 그 결과 백제에 의지하던 가야연맹 제국은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후 신라는 555년부터 558년에 걸쳐 한강 유역 경영을 마치고 나서[362] 가야연맹을 병합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560년 무렵에 阿羅加耶(=安羅國, 함안)가 먼저 신라에게 투항하는 등[363] 쇠퇴의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大加耶(=加羅國, 고령)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신라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나타냈다. 이에 신라는 대군을 출동시켜 대가야를 정복하였다(562).

임나일본부설에서는 서기 562년을 임나일본부의 멸망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日本書紀≫ 欽明 23년 조의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사는 本文에서 "新羅打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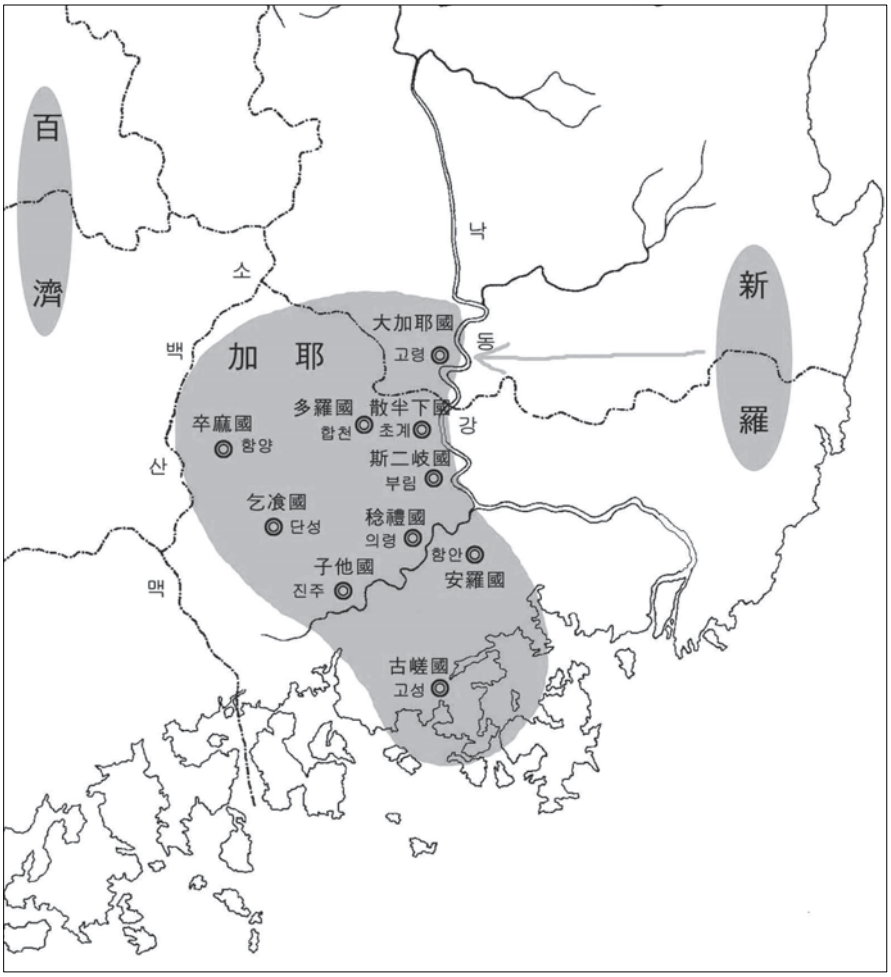
35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년 7월, "百濟王明禮與加良 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湌耽知等 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 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 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

360)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5년 12월, "而天皇遣有至臣 帥軍以六月至來. 臣等深用歡喜 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奇武連 領其方軍士 攻函山城 有至臣所將來民竹斯物部莫奇委沙奇 能射火箭 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 焚城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 (中略) 伏願 速遣竹斯嶋上諸軍士 來助臣國 又助任那 則事可成. 又奏 臣別遣軍士萬人 助任那"

361) ≪위 책≫ 欽明天皇 15년 12월,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 久廢眼食 父慈多闕子孝希成 乃自往仰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 斷道擊破 是時 新羅謂佐知村飼馬奴苦都[更名谷智]曰 苦都賤奴也. 明王名主也. 今使賤奴殺名主 冀傳後世 莫忘於口 已而苦都 乃獲明王 (中略) 苦都斬首而殺 堀坎而埋"

36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6년(555), "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十一月 至自北漢山 敎所經州郡 復一年租調 曲赦 除二罪 皆原之" ; 같은 왕 18년(557), "以國原爲小京. 廢沙伐州 置甘文州 以沙湌起宗爲軍主. 廢新州 置北漢山州" ; 같은 왕 19년(558),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奈麻身得作砲弩上之 置之城上"

363)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2년(561), "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 以備日本" ; 같은 왕 23년(562), "一本云 廿一年(560) 任那滅焉"



[지도 16] 가야 멸망기 10국의 위치

任那官家"라고 서술하고 그 細注에서 "一本云 卄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 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嵯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飡國 稔禮國 合十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세주의 임나 멸망 기사를 토대로 하여 ≪일본서기≫ 편찬자가 '任那官家'라는 말을 작문해 넣어 변형한 것이다.

여기서 '官家(미야케)'는 단순히 명목상의 공납국이라는 뜻이므로[364] 8세기 ≪일본서

364) ≪日本書紀≫에서 官家는 屯倉과 같이 '미야케(みやけ)'라고 발음하지만, 실제로는 屯倉 즉 일본열도 내부에 있는 大和朝廷의 課稅地區로서의 直轄 農業經營地를 가리키는게 아니라, 대부분이 百濟나 加耶諸國 자체를 가리키며, 大和朝廷에 대한 貢納國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坂本太郎外 3인, 1965 ≪日本書紀 下(日本古典文學大系 68)≫ (岩波書店) 551 補注 참조.

기≫ 찬자의 인식을 나타낼 뿐 별다른 역사적 실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신라가 멸했다는 '任那'는 가야연맹 전역에 대한 總稱이라고 하겠다. 그 細注에는 "모두 말하면 任那이고 따로 말하면 加羅國(고령), 安羅國(함안), 斯二岐國(부림), 多羅國(합천), 卒麻國(함양), 古嵯國(고성), 子他國(거창), 散半下國(초계), 乞飡國(단성), 稔禮國(의령) 등을 합해서 10국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365]

이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진흥왕 23년 조의 기사와 같이 진흥왕이 異斯夫에게 명하여 가야를 토벌케 하고 斯多含이 보좌하여 결국 함락시켰다는 사건을[366]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562년 9월 대가야의 멸망을 끝으로 가야 10국으로 표상되는 마지막 시기의 가야연맹은 멸망하였다.

제3절 소위 '임나일본부'의 성격

1. '임나일본부' 이해의 기준

任那日本府說과 관련된 6세기 한일관계사의 쟁점은 ≪日本書紀≫에 보이는 '任那日本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는 541년부터 544년까지의 기록에 5회 나올 뿐이고, '日本府'라고만 나오는 것을 포함하면 464년부터 552년까지 35회 나오며, 그 중에 둘은 '安羅日本府'라고도 나온다. 그리하여 근래의 '임나일본부' 관련 전문 연구에서는 임나일본부의 성립 시기를 4세기나 5세기로 보는 견해는 거의 없고, 대개 6세기 전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일본부' 관련 기사와 동떨어져 ≪日本書紀≫ 雄略 8년(464)조에 나오는 '일본부' 관련 구절은 앞의 제2장 제2절에서 논의했듯이 '임나일본부' 관련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 그 나머지의 '일본부' 관련 사료들은 모두 ≪일본서기≫ 欽明 2년부터 13년 사이의 기록에 나오는 것들이다. 그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첫째로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541년부터 552년 사이에 존재하였으며 그 전후로 몇 년 정도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

365) 지명 비정에 대해서는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가야사 2)≫ 200~204 참조.

36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3년, "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斯多含領五千騎先馳 入栴檀門 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둘째로 이 시기의 '임나일본부' 또는 '안라일본부'는 함안의 安羅國에 설치되어 있었다.

셋째로 '임나일본부'는 卿=大臣(的臣), 臣(吉備臣) 및 下級官人(河內直, 移那斯, 麻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왜인이거나 왜계 혈통과 관련이 있었다.

넷째로 '임나일본부'의 官人들은 가야 각국의 지배자인 任那執事들과 함께 가야연맹체의 대외정책 결정에 참여하였고, 그들의 방향은 가야연맹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이러한 성격에 불과한데, 기존의 임나일본부설에서는 이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였던 것이다. 6세기 중엽의 안라에 있었던 '임나일본부'는 그 존재가 인정되나, 이 문제는 분열상을 보이던 가야 말기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임나일본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1) 任那支配說과 (2) 外交交易說로 나뉜다. 임나 지배설은 가야가 아닌 외부 세력이 군사적 정벌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가야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학설이고, 외교 교역설은 가야의 독립성을 인정한 위에서 가야와 외부 세력 사이의 외교 또는 교역관계를 중시한 학설이다. 그 안에서 (1)군에 속하는 학설은 4種으로, ① 倭의 任那支配說, ② 야마토의 日本列島內 미마나 支配說, ③ 百濟의 加耶支配說, ④ 倭系 任那豪族說 등이 있고, (2)군에 속하는 학설도 4種으로, ① 交易機關說, ② 使臣團說, ③ 外交機關說, ④ 安羅倭臣館說 등이 있다.

2. 임나 지배설 4종

(1)－① 倭의 任那支配說은 통상 임나일본부설, 倭의 出先機關說, 또는 남한경영론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왜가 임나를 369년부터 562년까지 통치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8세기 초 ≪일본서기≫ 편찬자의 뜻을 이어 일본의 에도시대 국학자들이 계승하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문헌사학자인 菅政友, 那珂通世, 今西龍, 鮎貝房之進 등의 견해를 末松保和가 종합한 것이며 그 후로도 여러 개설적인 논고에서 반복적으로 기술되었다.[367]

1980년대 이후로는 임나 지배 기간을 축소하여, 제1기인 5세기 50년대부터 70년대까

367)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1956 再版, (吉川弘文館) 69 ; 石母田正, 1962 <古代史槪說> ≪岩波講座日本歷史≫ 1 (岩波書店, 東京) ; 八木充, 1963 <任那支配の二形態> ≪山口大學大學會誌≫ 14~2 ; 1964 <大伴金村の失脚－官家支配から日本府支配へ－> ≪日本書紀研究≫ 1, 71~74

지는 백제의 한 權臣이 임나를 직접 지배하고, 제2기인 5세기 후반(480~490년대)에는 왜 왕권이 이를 '직접 경영'하였으며, 제3기인 6세기 전반에는 왜 왕권이 백제왕을 사이에 끼고 이를 '간접 경영'하였다고 보기도 한다.[368]

혹은 그 기간을 532년부터 562년 사이의 30년으로 축소하되, 임나일본부는 신라와 백제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임나 제국의 기대 아래, 532년에 大和朝廷이 安羅에 出兵하고 官人을 파견하여 현지의 日系 세력을 통일하고 설치한 出先機關이며, 일본부는 임나 제국 전체의 합의기관에 참여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임나 지배를 실현하였다고 본 견해도 있다.[369]

또는 더 나아가 왜의 임나 지배 기간을 심지어 530년부터 531년 사이의 1년으로 축소하여, 임나일본부는 530년부터 531년에 걸치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가야 재지 지배층의 정치질서에 의거하면서 활동한 왜왕권의 관인 및 군사적 집단이며, 군사력의 제공을 매개로 한 왜왕권과 안라 사이에는 일종의 臣從關係가 인정되나, 531년 백제의 안라 진주 이후, '在安羅諸倭臣'은 이미 가야 제국의 맹주의 지위에 있었던 백제왕의 통제에 복속하고, 왜 왕권의 파견군은 백제의 '傭兵'的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370]

그러나 ≪일본서기≫의 기사들로 보아, '임나일본부' 관인들은 가야연맹의 旱岐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면모는 보여도, 가야연맹의 왕이나 한기들에게 명령을 내린다거나 지배를 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 가야 지배를 위한 경찰이나 군사력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관인들이 왜계의 인물로 추정된다고 해도 '임나일본부'를 왜의 임나 지배기구로 인정하기 어렵다.

(1)-② 야마토의 일본열도 내 미마나 지배설은 分國說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왜의 임나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그 지배 대상인 '미마나'의 위치를 일본열도 내에서 구하고, 임나일본부는 기비[吉備] 지방의 미마나[任那] 소국에 설치된 긴키[近畿] 야마토[大和]의 통치기관이라고 보았다.[371]

이 학설은 기존의 임나일본부설에 안주하고 있었던 일본학계의 반성을 촉구하는 성과

368)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216~219

369)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上·中·下 ≪古代文化≫ 32-9·11·12 (古代學協會, 京都) 537~548

370)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任那日本府'論-> ≪朝鮮史硏究會論文集≫ 24, 83~87 ; 1996 ≪古代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371) 金錫亨,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1988 ≪초기조일관계사 하≫ (사회과학출판사) 209

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서기≫를 비롯한 문헌사료들을 이용할 때 무리한 억측이 많아서 그 반론으로서의 분국설 자체도 그다지 유력한 결론이 되지 못한 듯하다.[372]

(1)－③ 百濟의 加耶支配說은 百濟軍司令部說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임나 지배설'의 관점에 서면서도, 그 지배의 주체를 왜가 아닌 백제로 보아 ≪일본서기≫의 사료를 재정리하였다. 즉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엽까지 백제가 가야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소위 '임나일본부'는 백제의 가야 지배를 위한 派遣軍司令部였다는 것이다.[373]

혹은 이런 관점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傭兵說도 있다. 백제는 그의 直轄領인 '任那'에 군사지휘자인 郡令·城主를 보내 통괄하고 거기에 백제군을 주둔시키고 본국에서 백성도 들여보내 살게 하였으며, '任那日本府'는 그것을 통할하던 기관명이라고 하였다. 백제는 신라와의 국제관계상 그 곳에 부분적으로 大和政權으로부터 日人傭兵을 받아 배치하고, 日系百濟官僚를 보내 그들을 지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374]

그런데 ≪일본서기≫의 기사들을 볼 때, '임나일본부' 관인들은 대체로 백제에 반대하여 신라 측에 가담하거나 고구려에 백제 침공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임나일본부'의 실상이 백제의 파견군사령부, 또는 백제 직할령의 통할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자료들이다.

(1)－④ 倭系 任那豪族說은 僞倭 自治集團說이라고도 하고 또는 '가야 거주 왜인설'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임나일본부는 신라·백제와의 접촉지대에 있었던 '日本府의 郡縣'을 통치하는 기관이었다고 하였다. '임나 경영'의 실태는, 왜인으로 칭하는 임나의 지방 호족이 일본의 중앙 귀족이나 지방 호족과 관계를 가진 것에 의하여 임나 제국의 연합 조직에 파고들어 그 세력을 확대하고 외교권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375] 또한 남한 지역에 어느 정도의 왜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임나일본부에는 吉備·的·河內·爲哥(伊賀) 등 왜국 중앙·지방의 豪族名을 자칭하는 자가 있었으나, 이 왜인의 정치 집단과 大和朝廷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전혀 '僞倭'만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가야 거주 왜인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376]

---

372) 金泰植, 1991 <書評: 조희승·김석형著『초기조일관계사』상·하> ≪韓國古代史論叢≫ 1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373) 千寬宇, 1977 <復元加耶史> 中 ≪문학과 지성≫ 29, 925 ; 1991 ≪加耶史硏究≫ (一潮閣) 33

374)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 (吉川弘文館) ; 1993 ≪任那日本府硏究≫ (一潮閣) 218~233

375) 井上秀雄, 1966 <任那日本府の行政組織> ≪日本書紀硏究≫ 2 ; 1973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 82~89

이는 餘他 임나 지배설들과 달리 군사 정벌을 상정하지 않았으나, 왜인 또는 왜인을 사칭하는 호족이 가야 지역에 거주하며 그 일부를 통치하고 있었다고 본 점에서는 임나 지배설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임나일본부가 가야 지역의 한 독립소국이라고 하면서, 그 중심지는 안라왕이 통치하던 안라국에 있었고 영역은 가야의 변경 지대에 있었다고 하여 특이한 형태를 상정하고 있다. 이른바 '일본부의 군현'이라는 개념도 원래 大和朝廷이 가야 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외곽 백제·신라와의 분쟁 지대에 설치한 직할령이라고 하였던 것인데,[377] 그 사료적 근거는 불투명하다.

한편 왜계 임나호족설은 근래에 약간 성격을 달리 하여 가야에 거주하는 왜인 집단을 좀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日本府'란 5세기대의 왜와 한반도와의 관계 또는 지방 호족의 독자적 통교 등에 의하여 가야 지역, 특히 옛날부터 왜와 관련이 깊었던 안라에 거주한 왜인의 一團이고, 가야 제국과 공통의 이해를 가져 거의 대등한 관계로 그들과 접하며 주로 외교 교섭에 협동하고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였다.[378]

이는 '안라 거주 왜인 집단설'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고 井上說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이나, 5세기부터 있었다는 그들의 존재가 어째서 540년대에 와서 부각되는지, 그들이 안라왕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3. 외교 교역설 4종

(2)-① 가야와 왜 사이의 交易機關說은 한국 쪽에서 먼저 나온 견해이다. '任那府'는 후세의 倭館 官吏와 같은 것으로서 본시 왜국이 가야 제국과의 무역관계를 위하여 설치한 公的 商館인데, 후에 가야 제국이 신라의 압력에 못 이겨 왜인의 원조를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그 역할의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379]

일본 쪽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나와, 4세기 이래로 가야 지역은 왜의 각지 세력들에 대한 철소재 및 생산 기술의 공급지였는데, 차츰 기나이[畿內] 세력이 일본열도에서 국가 형성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여, 당시의 가야 제국 연합이 유지하고 있던 회의체에

376) 井上秀雄, 1973 ≪앞 책≫ 109~110
377) 井上秀雄, 1959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について> ≪國史論叢≫ 1 ; 1973 ≪앞 책≫ 7~12
378) 森公章,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吉川弘文館) 164~165
379) 李丙燾, 1937 <三韓問題의 新考察> 六 ≪震檀學報≫ 7, 113 ;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서울) 305

자기 관료를 참여시켜 보다 많은 선진문물을 독점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임나 문제의 기본 성격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파견한 관료로 구성된 임나일본부는 가야에 대한 統治機關이나 軍政機關이 아니라 交易機關이었다는 것이다.[380]

또는 이를 일본 九州의 문제와 연관시켜, ≪三國志≫의 3세기 邪馬臺國이나 ≪宋書≫의 5세기 '倭의 五王'은 九州의 倭로 보아야 하므로, '임나일본부'는 5세기 이전의 九州 왜왕조와 관련이 있는 문물 수용의 통로였던 것이고, 6세기 초 繼體朝 이후에야 국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大和勢力과는 실제적 연관을 갖지 않는다고 본 견해도 있다.[381]

(2)－② 왜의 使臣團說은 '任那日本府'라는 용어의 풀이를 중시하여, 소위 '日本府'의 語義는 일본의 관청이란 뜻이지만 그 訓은 '야마토노미코토모치'로서 倭宰의 뜻이요 宰는 곧 '御事持'로서 천황의 명령을 받아 일을 집행하기 위해 파견된 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나일본부는 왜가 가야 제국과의 외교 교섭을 위해 임시로 파견한 使臣, 官人 또는 그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382]

이는 '임나일본부'의 성립 원인으로 군사 행동을 전제하지 않아, 그 성격에 대한 견해로 한일 연구자들 사이에 무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코토모치'는 야마토 왕권의 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을 전하기만 하는 단순한 사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國司' '國守'와 같이 해당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파견된 지방 장관을 포함하며, ≪일본서기≫의 용례로 보아 '日本府'라는 용어는 대부분이 기관으로서의 용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코토모치'의 용어에 기반을 둔 사신(단)설에 안주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 있다.[383] 더욱이 ≪일본서기≫의 기사에서 그 관인들을 왜 왕권이 파견한 흔적이 분명치 않고 그들은 왜 왕권의 견해대로 움직이지 않는 독자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남는다.

---

380) 吉田晶, 1975 <古代國家の形成> ≪岩波講座日本歷史≫ 2, 54~57

381) 李根雨, 1994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43

382) 請田正幸, 1974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任那'日本府'を中心として－>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1, 197 ; 鈴木靖民, 1985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岩波講座日本歷史 1(原始·古代1)≫ ; 李永植, 1990 <古代日本の任那派遣氏族の硏究－的臣·吉備臣·河內直を中心として－> 富士ゼロックス·小林節太郎記念基金1989年度硏究助成論文, 48~49 ;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274

383) 李在碩, 2004 <소위 任那問題의 過去와 現在－문헌사학의 입장에서－> ≪전남사학≫ 23, 64~74

그리하여 '임나일본부'는 왜에서 안라에 파견된 특수 외교사신으로서 執事－卿－大臣 등의 직제를 가지나, 이들은 안라에 반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안라의 정책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라국 소속의 '왜계 안라관료'라고 보아도 좋다는 절충적 견해가 있다.[384] 혹은 야마토 정권의 중앙집권 능력을 문제 삼아, 임나일본부는 야마토 정권과 별개의 정치 주체로서의 倭로부터 파견된 外交官人들의 殘存形態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385]

(2)－③ 가야와 왜 사이의 外交機關說에서는 그 설치 주체를 왜가 아닌 가야 쪽으로 옮겨,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설치 주체가 임나 제국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386] 이에 더하여 '임나일본부'는 530년대 이후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 있던 안라가 자국의 독립 보존을 위해 조직한 외교기구로, 여기에는 안라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己汶國系 망명세력, 서일본 호족, 일본계 안라인까지 참여하였다고 보아 논점을 좀 더 분명히 한 견해도 있다.[387] 혹자는 6세기 전반 안라국이 친신라적인 외교를 통해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하자, 야마토 조정이 그 곳에 왜계 인물을 파견하여 안라국의 친신라적인 외교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하여, 임나일본부를 안라국과 왜국의 합작기관으로 보기도 하였다.[388]

혹은 그 성격을 백제와 왜 왕권의 中間者的 外交機關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에 의하면 금관가야의 '倭宰'에 소속되어 통역 기능을 중심으로 외교와 해상 교역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532년에 금관가야가 멸망하자 그에 항거하여 안라와 對馬島 등지로 흩어져 임나 부흥과 韓日海域世界의 질서를 되찾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각국에 소속되지 않은 '중간자적 존재'로서, 왜 왕권이 공식적인 외교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상을 통한 외교와 교역시스템의 관리를 위임받았던 것이라고 하였다.[389]

(2)－④ 安羅倭臣館說은 위의 교역기관설과 사신단설 및 외교기관설을 합하여, 가야연맹체 말기의 정치 상황과 연동시켰다. 그에 따르면,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가야 말기인 530년대 후반부터 550년대까지 존재하였고, 외형상으로는 '倭國使節 駐在館'의 명분을

384) 白承忠, 2003 <'임나일본부'와 '왜계백제관료'> ≪강좌 한국고대사≫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78

385) 鬼頭淸明, 1974 <加羅諸國の史的發展について>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251

386) 奧田尙, 1976 <'任那日本府'と新羅倭典> ≪古代國家の形成と展開≫ (吉川弘文館) 123

387) 延敏洙, 1990 <任那日本府論－소위 日本府官人의 出自를 中心으로－> ≪東國史學≫ 24, 동국사학회, 124;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267~268

388) 이연심, 2004 <임나일본부의 성격 재론> ≪지역과 역사≫ 14 (부경역사연구소) 160

389) 鄭孝雲, 2005 <6世紀東アジア政勢と'任那日本府'> ≪日語日文學≫ 27 (大韓日語日文學會) ; 2007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임나일본부'> ≪동북아문화연구≫ 13

지닌다. 그러나 실제로는 530년대 후반의 설립 초기에는 백제가 親百濟 倭人 官僚를 안라에 들여보내 설치한 '百濟의 對倭 貿易仲介所와 같은 것이었고, 신라의 卓淳國 병합과 함께 安羅에 대한 백제의 군사적 영향력이 소멸된 540년대 이후로는 남부 가야연맹의 맹주인 安羅王이 그 인원을 親安羅 倭人 官僚들로 재편하여 안라국의 외교를 지원하는 '安羅의 特殊 外務官署와 같은 성격으로 변모시켰다고 보았다.[390]

4. 안라왜신관의 성격과 그 관인들의 행적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이라고 인식되어 온 (1)－① 왜의 임나 지배설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부정하는 설이 되었다. '임나일본부'라는 단어는 ≪일본서기≫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한반도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이 백제 쪽에 근거를 가지는 原典을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백제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다시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7~8세기 고대 일본 상층부의 인식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것의 실태이다. 다만 '日本'이라는 말은 왜가 7세기 후반부터 국명으로 표방한 것이므로,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해당 시기의 용어가 아니다. 반면에 欽明紀 15년(554) 12월 조 기사에는 이들을 '在安羅諸倭臣', 즉 '안라에 있는 여러 왜신'이라는 용어로 부른 적이 있으며, 이것이 당시의 실제 용어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실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선입견으로 오염된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安羅倭臣館'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한다.

현재 학계의 연구 동향을 보면 한국과 일본을 망라하여 (1)群의 임나 지배설 4종보다는 (2)群의 외교 교역설 4종에 많은 연구자들이 몰려 있어, (2)群의 견해가 보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 중에서도 (2)－② 사신단설과 (2)－③ 외교기관설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조하고 있으며, 외교기관설은 그 성격이나 설립 주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있다. (2)－④ 안라왜신관설은 크게 보아 외교기관설에 속하면서도 가야연맹 내부의 정치 상황을 연동시킨 점에 특색이 있다.

540~550년대 안라왜신관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관인들이 어떻게

390)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229~250 ;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가야사 1)≫ (푸른역사) 216~217

행동했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大臣이라고도 불린 안라왜신관 卿은 的臣이고, 執事인 안라왜신관 臣은 吉備臣이며, 왜신관에 소속된 하급관인으로는 河內直, 移那斯, 麻都 등이 있다. 사료 상에 드러난 그들의 행동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3)－① 吉備臣은 541년 4월과 544년 11월에 任那 旱岐(執事)들과 함께 백제에 가서 喙己呑·南加羅·卓淳 3국 멸망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였다.(欽明紀 2년 4월 조,[391] 5년 11월 조[392])

(3)－② 541년~544년 사이에 왜왕이 사신 印奇臣을 신라에 보내고 津守連을 백제에 보내자, 그들이 신라나 백제에 가는 길에 加耶地域에 들렀을 때 的臣이 사람을 보내 그 방문 취지를 물어보았다.(欽明紀 5년 2월 조의 的臣의 발언[393])

(3)－③ 的臣과 河內直 등은 541년 7월 前後에 신라에 왕래하며 安羅의 경작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欽明紀 2년 7월 조,[394] 5년 3월 조에 인용된 倭王의 국서[395])

(3)－④ 543년 11월과 544년 정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任那 執事와 倭臣館 執事를 불렀는데 的臣이 倭王의 의도를 핑계로 대면서 그들을 백제에 보내지 않았다.(欽明紀 4년 12월조,[396] 5년 정월 조,[397] 5년 2월 조[398])

(3)－⑤ 548년 정월의 馬津城 전투에서 잡힌 고구려 포로를 통해, 安羅國과 倭臣館의 延那斯와 麻都가 고구려에 몰래 사신을 보내 백제를 벌주기를 권하였음이 알려졌다.(欽明紀 9년 4월 조,[399] 10년 6월 조[400])

---

391) "安羅次旱岐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旱岐 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夷他 斯二岐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闕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392) "百濟遣使 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 遣朝天皇 奈率得文·許勢奈率奇麻·物部奈率奇非等 還自日本. 今日本府臣及任那國執事 宜來聽勅 同議任那.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旱岐 久嗟旱岐 仍赴百濟"

393) "會聞印奇臣使於新羅 乃追遣問天皇所宣. 詔曰 日本臣與任那執事 應就新羅 聽天皇勅. 而不宣就百濟聽命也. 後津守連遂來過此. 謂之曰 今余被遣於百濟者 將出在下韓之百濟郡令城主"

394) "百濟聞安羅日本府與新羅通計. 遣前部奈率鼻利莫古·奈率宣文·中部奈率木刕眯淳·紀臣奈率彌麻沙等 [紀臣奈率者 蓋是紀臣娶韓婦所生 因留百濟 爲奈率者也. 未詳其父 他皆效此也] 使于安羅召到新羅任那執事 謨建任那 別以安羅日本府河內直通計新羅 深責罵之. [百濟本記云 加不至費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等 未詳也]"

395) "於是 詔曰 的臣等[等者 謂吉備弟君臣·河內直等也] 往來新羅 非朕心也 曩者 印支彌[未詳]與阿鹵旱岐在時 爲新羅所逼 而不得耕種. 百濟路迥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朕所曾聞"

396) "是月 乃遣施德高分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俱答言 過正旦而往聽焉"

397) "百濟國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俱答言 祭神時到 祭了而往 是月 百濟復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日本府·任那 俱不遣執事 而遣微者 由是 百濟不得俱謀建任那國"

398) "日本府答曰 任那執事不赴召者 是由吾不遣 不得往之 吾遣奏天皇 還使宣曰 朕當以印奇臣[語訛未詳]遣於新羅 以津守連遣於百濟 汝待聞勅際 莫自勞往新羅百濟也 (中略) 唯聞此說 不聞 任那與日本府 會於百濟 聽天皇勅 故不往焉 非任那意"

399) "然馬津城之役[正月辛丑 高麗率衆 圍馬津城] 虜謂之曰 由安羅國與日本府招來勸罰"

400) "因詔曰 延那斯·麻都 陰私遣使高麗者 朕當遣問虛實 所乞軍者 依願停之"

이와 같은 자료들로 보아, 的臣, 吉備臣, 河內直, 移那斯, 麻都 등의 안라왜신관 관인들은 안라에 머무르면서 외국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①에서는 백제에 가서 가야연맹 전체의 앞날을 논의하는데 참여했고, (3)－③에서는 신라에 가서 안라의 경작 문제를 논의하였고, (3)－⑤에서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백제 공격을 권유하였다. 안라왜신관 관인들은 그 중에서 (3)－①에서는 가야연맹 전체 사신단의 일원으로 갔고 (3)－⑤에서는 안라만을 위해 단독으로 간 것으로 판단된다. (3)－③에서는 '安羅日本府'라고도 나오고 백제가 '使于安羅 召到新羅任那執事'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왜신관 관인들이 任那 執事, 즉 가야연맹 旱岐(執事)들과 함께 신라에 간 것으로 추정되나, 왜신관 관인이 논의한 것은 주로 안라의 경작 문제였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대외적으로 안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②에서는 신라나 백제에 가는 왜의 사신을 맞이하여 그 목적을 확인하였으며, (3)－④에서는 그 때 얻은 왜왕의 의도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가야연맹 집사들이 백제왕이 주도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로 보아 왜신관 관인들은 왜 왕권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에 오래 거주한[401] 왜인이거나 왜계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어 소통 능력을 토대로 일본열도의 정보를 알아내어 가야연맹이 타국과 대외관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사료 상에 나오는 왜신관 관인들은 가야연맹체, 그 중에서도 특히 안라국의 독립성 유지 및 대외교섭을 위해서 활동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연구 경향으로 볼 때, 이제 6세기의 '任那日本府' 문제는, 왜 왕권과의 관계는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백제사나 가야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볼 때, 안라왜신관은 540년대에 가야연맹이 대가야 중심의 연맹체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주위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인 신라와 백제의 복속 압력을 받고 있던 시기에, 가야연맹의 제2인자였던 안라국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연맹체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기구였다. 그 관인들의 행동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속한 안라왜신관은 실질적으로 안라의 외무관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1)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년 7월, "日本卿等 久住任那之國 近接新羅之境 新羅情狀 亦是所知 毒害任那 謨防日本 其來尙矣 匪唯今年"

제4절 삼국의 정립과 왜

1. 삼국의 안정과 통치체제 보완

6세기 후반의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립하여 경쟁적으로 중국의 남북조와 교섭하며 한동안 평화를 유지하였다. 고구려 平原王은 중국의 北齊 및 周, 陳, 隋나라에 조공하고[402] 586년에는 도읍을 長安城으로 옮겨[403] 번영을 구가하였다. 백제 威德王은 管山城 패전 직후의 위기를 수습하고 北齊 및 北周, 隋, 陳나라에 조공하며[404] 안정을 추구하였다.

신라 眞興王은 553년에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고 562년에 가야를 병합한 이후, 564년에 北齊, 566년 이후에 陳에 사신을 보내 조공함으로써[405] 중국과의 직접 교섭에 나섰다. 신라는 중국에 토산물을 보냈으며, 北齊가 진흥왕을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

402)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2년(560), "春二月 北齊廢帝封王爲使持節領東夷校尉遼東郡公高句麗王" ; 같은 왕 3년(561), "冬十一月 遣使入陳朝貢" ; 같은 왕 4년(562), "春二月 陳文帝詔授王寧東將軍" ; 같은 왕 6년(564), "遣使入北齊朝貢" ; 같은 왕 7년(565), "春正月 立王子元爲太子. 遣使入北齊朝貢" ; 같은 왕 8년(566), "冬十二月 遣使入陳朝貢" ; 같은 왕 12년(569), "冬十一月 遣使入陳朝貢" ; 같은 왕 13년(570), "春二月 遣使入陳朝貢" ; 같은 왕 15년(573), "遣使入北齊朝貢" ; 같은 왕 16년(574), "春正月 遣使入陳朝貢" ; 같은 왕 19년(577), "王遣使入周朝貢 周高祖拜王爲開府儀同三司大將軍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 같은 왕 23년(581), "十二月 遣使入隋朝貢. 高祖授王大將軍遼東郡公" ; 같은 왕 24년(582),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冬十一月 遣使入隋朝貢" ; 같은 왕 25년(583),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中略) 夏四月 遣使入隋朝貢. 冬 遣使入隋朝貢" ; 같은 왕 26년(584), "春 遣使入隋朝貢. 夏四月 隋文帝宴我使者於大興殿" ; 같은 왕 27년(585), "冬十二月 遣使入陳朝貢"

403) ≪위 책≫ 平原王 28년(586), "移都長安城"

404)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14년(567), "秋九月 遣使入陳朝貢" ; 같은 왕 17년(570), "高齊後主 拜王爲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 ; 같은 왕 18년(571), "高齊後主 又以王爲使持節都督東靑州諸軍事東靑州刺史" ; 같은 왕 19년(572), "遣使入齊朝貢" ; 같은 왕 24년(577), "秋七月 遣使入陳朝貢 (中略) 十一月 遣使入宇文周朝貢" ; 같은 왕 25년(578), "遣使入宇文周朝貢" ; 같은 왕 28년(581), "王遣使入隋朝貢 隋高祖詔 拜王爲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 ; 같은 왕 29년(582),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 같은 왕 30년(583), "冬十一月 遣使入陳朝貢" ; 같은 왕 33년(586), "遣使入陳朝貢"

40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5년(564), "遣使北齊朝貢" ; 같은 왕 27년(566), "春二月 (中略) 遣使於陳貢方物" ; 같은 왕 28년(567), "春三月 遣使於陳貢方物" ; 같은 왕 29년(568), "夏六月 遣使於陳貢方物" ; 같은 왕 31년(570), "夏六月 遣使於陳獻方物" ; 같은 왕 32년(571), "遣使於陳貢方物" ; 같은 왕 33년(572), "三月 王太子銅輪卒 遣使北齊朝貢"

王'으로 봉했다 하고, 陳이 불교 경론 1,700여 권을 보냈다고 하므로,[406] 6세기 중엽의 신라가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획득과 불교와 같은 고급 정신문화의 수입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진흥왕은 영토가 팽창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지에 州를 추가하고 軍主를 파견하여 다스렸다. 그리하여 한강 유역에는 新州(553), 北漢山州(557), 南川州(568)를 교대로 설치하였고, 옛 가야 지역에는 完山州(555), 大耶州(565), 신라 북부 지역에는 沙伐州에 대신한 甘文州(557), 고구려 동남부 지역에는 比列忽州(556), 達忽州(568)를 번갈아 설치하였으며,[407] 國原(충북 충주)을 小京으로 만들고 부유한 사람들을 이민시켜 충실하게 만들었다.[408] 진흥왕은 자신이 확보한 영역을 돌아보며 경상남도 창녕(561), 서울 북한산, 함경남도 황초령, 마운령(모두 568)에 순수비를 세우기도 하였으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年號를 開國(551), 大昌(568), 鴻濟(572) 등으로 바꾸어[409] 국가의 면모를 일신코자 하였다. 또한 종전의 촌락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청년 조직들을 중앙에 일괄 흡수하여 화랑도를 창설하고,[410] 불교를 장려하여 祇園寺, 實際寺, 皇龍寺를 짓고 八關筵會를 개최하였다.[411]

眞平王은 579년에 왕위에 오르자 밖으로 중국의 隋, 唐과 조공 외교를 하면서, 안으로 중앙 조정의 관부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581년에는 문관 인사를 담당

406) ≪위 책≫ 眞興王 26년(565), "春二月 北齊武成皇帝詔 以王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中略) 九月 (中略) 陳遣使劉思與僧明觀 來聘 送釋氏經論千七百餘卷"

407) ≪위 책≫ 眞興王 14년(553),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飡武力爲軍主" ; 같은 왕 16년(555), "春正月 置完山州於比斯伐" ; 같은 왕 17년(556), "秋七月 置比列忽州 以沙飡成宗爲軍主" ; 같은 왕 18년(557), "廢沙伐州 置甘文州 以沙飡起宗爲軍主. 廢新州 置北漢山州" ; 같은 왕 26년(565), "九月 廢完山州 置大耶州" ; 같은 왕 29년(568), "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

408) ≪위 책≫ 眞興王 18년(557), "以國原爲小京" ; 같은 왕 19년(558),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奈麻身得作砲弩上之 置之城上" ; 같은 왕 26년(565), "秋八月 命阿飡春賦 出守國原"

409) ≪위 책≫ 眞興王 12년(551), "春正月 改元開國" ; 같은 왕 29년(568) "改元大昌" ; 같은 왕 33년(572), "春正月 改元鴻濟"

410) ≪위 책≫ 眞興王 37년(576) "春 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羣遊 以觀其行義 然後擧而用之 遂簡美女二人 一曰南毛 一曰俊貞 聚徒三百餘人 二女爭娟相妬 俊貞引南毛於私第 强勸酒至醉 曳而投河水以殺之 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其後 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411) ≪위 책≫ 眞興王 14년(553), "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 ; 같은 왕 27년(564), "春二月 祇園·實際二寺成. (中略) 皇龍寺畢功" ; 같은 왕 33년(572) "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 七日罷"

하는 位和府를 설치하고, 583년에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하는 船府를 설치하였으며, 584년에는 조세 수취의 업무를 담당하는 調府, 수레와 가마를 만들고 관리하는 乘府를 설치하였다.[412] 586년에는 외교를 담당하는 禮部를 두고, 591년에는 외국 사신의 접대를 관장하는 領客府를 두어[413] 늘어나는 중국과의 외교 교섭에 대비하였다.

이처럼 삼국은 각기 내실을 도모하며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589년에 隋나라가 陳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자 한반도에서 경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백제 위덕왕은 수나라의 전함 한 척이 耽牟羅國(제주)에 표류했다가 돌아갈 때, 필요한 물건을 주고 사신을 보내 진나라 평정을 축하하였다.[414] 고구려 평원왕은 陳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쌓아서 방어할 계책을 세웠다. 그러나 590년에 수나라 高祖가 고구려에 국서를 보내 "비록 藩國이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정성과 예절을 다하지 않는다"고 위협하자, 양국 사이에는 戰雲이 감돌았다.[415]

2. 백제의 문화 전수와 왜의 왕권 성장

왜와의 교역 중심은 6세기 전반 내지 중엽 이후로 백제로 옮겨졌으니, 奈良의 飛鳥문화는 곧 그 반영이었다. 당시에 백제는 왜국의 요청에 따라 주로 고급 정신문화를 전하였다. 그리하여 백제는 513년, 516년의 오경박사 段楊爾·漢高安茂에 이어 554년에 오경박사 馬丁安·王柳貴 등을 보내 유학을 전수하였다.[416] 또한 백제는 552년에 怒唎斯致契 등을 보내 釋迦佛金銅像 1軀와 幡蓋 약간, 經論 약간 권을 보냈고, 577년에는 경론 약간 권과 律師, 禪師, 比丘尼, 呪禁師, 造佛工, 造寺工 6인을 보내고, 588년에는 佛舍利

412) ≪위 책≫ 眞平王 3년(581), "春正月 始置位和府 如今吏部" ; 같은 왕 5년(583), "春正月 始置船府署 大監·弟監各一員" ; 같은 왕 6년(584), "春二月 改元建福. 三月 置調府令一員 掌貢賦. 乘府令一員 掌車乘"

413) ≪위 책≫ 眞平王 8년(586), "春正月 置禮部令二員" ; 같은 왕 13년(591), "春二月 置領客府令二員"

414)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36년(589), "隋平陳 有一戰船 漂至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國界 王資送之甚厚 幷遣使奉表 賀平陳"

415)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32년(590), "王聞陳亡大懼 治兵積穀 爲拒守之策 隋高祖賜王璽書 責以 雖稱藩附 誠節未盡"

416)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7·10년 조·卷19, 欽明 15년 조 ; ≪日本書紀≫ 應神天皇 15년과 16년 조의 백제 阿直岐와 王仁, 또는 ≪古事記≫의 和邇吉師가 論語 10권과 千字文 1권을 전했다고 하여, 이것이 儒學의 최초 전수라고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와 僧侶, 寺工, 鑪盤博士, 瓦博士, 畵工 등을 보냈으며 法興寺(飛鳥寺)를 지었다고 하였다.[417] 일본의 불교와 사찰 건축은 실질적으로 그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한 554년에 백제가 왜국에 易博士, 曆博士, 醫博士, 採藥師, 樂人 등을 보냈다고 하였으니,[418] 역법 및 의약 등도 백제로부터 전수되었다고 하겠다.

왜국은 백제로부터 불교와 유교를 비롯한 정신문화를 받아들였으나, 552년에 백제 성왕이 보낸 불상을 둘러싸고 奉佛可否에 대하여 蘇我氏와 物部氏가 대립하자 이를 결정짓지 못하였다. 蘇我馬子는 왕실과의 외척 관계를 두텁게 하고, 백제와의 우호관계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였으며, 推古 때인 596년에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法興寺를 완공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숭불을 장려하고 法興寺 건립을 주도한 蘇我氏는 한반도에서 이주한 집단을 배경으로 정계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들의 조상인 蘇我滿智는 백제 귀족 木滿致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419] 한편 敏達 때 고구려와의 정식 국교가 개시되었으나 백제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3. 이른바 '任那調'의 문제

≪日本書紀≫를 보면, 임나 멸망 이후에 일본은 신라의 가야 영유를 승인하는 대신 이른바 '任那의 調'를 신라로부터 7세기 전반까지 수취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편찬자가 야마토 정권의 임나 지배라는 사관에 맞추기 위해 조작해낸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420] 또는 임나의 조는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의 것이며, 그 표현은 6세기 말 推古朝 이래 고조되기 시작한 국가의식과 ≪일본서기≫ 편찬 당시의 新羅敵視觀 및 蕃國觀이 융합되어 나타난 관념적 허상이라는 연구가 있다.[421]

신라는 575년에 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 4邑의 調, 즉 이른바 '任那調'를 보냄으로써 왜국과의 화해를 도모하였으나, 그 후 다시 신라가 위압적 자세를 보여 한동안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610년 이후로는 왜국에 대하여 자주 외교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

417)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3년(552) 10월 조·卷20, 敏達天皇 6년(577) 11월 庚午朔條·卷21, 崇峻天皇 元年(588) 是歲條

418) ≪위 책≫ 欽明天皇 15년(554) 2월 조

419) 山尾幸久, 1978 <任那に關する一試論－史料の檢討を中心に－>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卷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會)

420) 金鉉球, 1985 ≪大和政權의 對外關係硏究≫ (吉川弘文館, 東京)

421) 延敏洙, 1992 <日本書紀의'任那의 調'關係記事의 檢討> ≪九州史學≫ 105

그중 서너 차례는 任那使人과 동행한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방물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任那 사신은 이름 앞에 喙部·習部와 같은 신라 6부의 이름과 관등이 붙되, 동시에 파견된 신라 사신의 관등인 奈末보다 한 등급 아래인 大舍였던 것으로 보아, 신라 사절단의 正使를 보조하는 副使格의 존재였다고 보인다. 신라는 7세기의 치열한 삼국전쟁 속에서 그 배후에 있던 왜국과의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한동안 신라 사절에 임나 사신 일행을 추가한 것이니, 이것이 왜국의 新羅蕃國觀을 키워주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結 論

혹자는 고대 한일관계사의 사료가 어째서 이렇게 일본 쪽에 유리하게 서술되어 있는가 하고 한탄하기도 한다. 모든 문자 기록을 그대로 믿고 싶은 마음은 순진한 것일 수 있으나, 이는 사료 고증과 비판을 선행해야 하는 역사학의 근본을 沒覺한 것이다. 한일간의 문헌 사료 遺存 상태를 보면, 한국측은 1145년에 편찬된 ≪三國史記≫가 가장 오래된 것임에 비하여, 일본측은 720년에 편찬된 ≪日本書紀≫가 한일관계에 대하여 많은 기사를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신라가 고대 문명의 찬란함을 자랑하다가 덧없이 무너지고 난 후, 그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고려시대의 융성기에 유교적 합리성과 국제적 균형감을 기반으로 하여 저술된 것이기에, 자신의 과거 문화에 대한 자만이나 과시와 같은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일본서기≫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출발하여 이제 막 고대국가를 완성한 후의 자신감 속에 편찬된 것이며, 그 안의 일부에는 주변국가를 배려하지 않는 稚氣가 배어 있기도 하다. 그보다 앞선 5세기 후반의 ≪宋書≫ 倭人傳에 나오는 외교적인 주장은 그에 비할 바 아니다.

그러므로 고대 한일관계사를 서술할 때 관련 사료만을 그대로 나열하고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는 것은, 특히 많은 문제점을 남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관련 사료들의 상당수는 사실에 입각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사료 상태의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는 장편에 걸친 논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4세기 전반에는 西晉의 혼란으로 인한 東部都尉의 몰락, 고구려의 樂浪·帶方郡 병합, 이

에 따른 加耶聯盟의 동서 분열 등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일원적인 문화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일본열도 畿內 중심의 연맹체도 그다지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 지역이 한반도 남부의 세력들과 개별적인 교섭을 하였다.

백제는 4세기 중엽에 크게 발전하여, 근초고왕은 366년과 368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타진하고, 369년 雉壤(황해도 백천) 전투와 371년 平壤城 전투에서 고구려와 싸워 고국원왕을 살해하였으며, 372년에는 東晉과의 공식적 교류를 시작하였다.

≪日本書紀≫ 神功 49年條의 해석을 통해 369년 왜의 임나 정벌을 사실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3년 후에 백제가 七支刀를 왜에 보냈다고 하나, 그 제작 연도에 대해서는 年號 글자가 분명치 않아 확정할 수 없으며, 칠지도의 모양, 칠자경과의 관련, 다량의 글자를 금은으로 상감한 鐵劍類의 유행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초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神功紀 기사를 欽明紀 2년(541) 조의 성왕 회고 기사와 비교해 볼 때, 그 실상은 4세기 후반에 백제가 가야와 처음으로 친교를 트고, 이를 토대로 왜와 연결된 것이며, 신공기 49년 조는 이를 후대에 왜곡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 때 성숙한 고대국가 체제를 완비하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 수호하였다. 이 시기 한반도 관련 국제 정세의 기본은 고구려와 백제 양대 강국의 대결구도였으며, 그에 비하면 한반도 남부의 신라와 가야는 부수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였다. 거기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반도 남부에 출몰한 왜의 문제이다.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왜군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개 일본 畿內 大和 세력의 파견군이되 각국의 대등한 국제관계 속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加耶의 의도에 따라 對新羅 戰線에 투입되기도 하고 백제와 가야의 교섭에 따라 고구려와의 전쟁에 투입되기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게다가 왜군들의 무장 상태가 가야에 비해서 빈약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상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倭賊' 또는 '倭寇'는 가야-왜 연합군이었고, 그 내부에서 왜군은 가야군에 부속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군의 400년 任那加羅 전투, 404년의 帶方界 전투 승리 등으로 인하여, 백제는 황해도 지역의 영토와 함께 낙동강 유역을 중개기지로 하는 대왜 교역망을 상실하게 되었다. 고구려군의 南征은 한반도 사국의 세력판도를 백제 위주로부터 고구려 위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에 수반하여 김해 金官加耶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은 큰 타격을 입고 해체되었다.

5세기 이후 일본열도의 고대 문화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게 되었다. 즉 공격·방어도구가 모두 한반도계의 실용 무장으로 혁신되었고, 공격력이 높은 긴 목 달린 철족, 못으로 연결하는 갑주 제작기법, 마구 등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금동제의 장신구류도 많아지고, 종래의 움집 주거에 화덕이 부설되었고, 토기에서도 단단한 스에키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횡혈식 석실의 매장시설이 나타났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일본열도에 갑자기 나타난 각종 선진문물 제작 기술은 한일간 문화 교류의 결과로 보기도 하나 한반도계 주민의 이민과 함께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4~5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日本書紀≫ 武烈紀 이전 시기의 일본 대외관계 기사에서도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의 대량 이민을 전하고 있다. 그 이민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나 경영에 따른 歸化人 또는 渡來人說, 騎馬民族征服說 등이 있으나, 그 실상은 가야로부터의 援助工人과 流亡民, 즉 가야계 이주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여 안정을 도모하였다. 백제 전지왕은 주로 왜국과 교섭하였으나, 비유왕은 왜국 일변도의 교섭에서 벗어나 중국 남조 및 한반도 남방 제국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영향력에 시달렸으나, 눌지왕은 중앙집권 능력을 높여나가면서 백제의 화친 요청을 수락하였다.

가야 지역은 고구려－신라 연합군의 임나가라 정벌 이후 큰 타격을 입고 약화되었으나, 그 중에서 고령의 伴跛國은 철광산을 개발하며 발전을 주도하였다. 5세기 중엽에 반파국은 大加耶로 국명을 바꾸고 가야연맹을 복구하였으며, 나아가 소백산맥을 서쪽으로 넘어 호남 동부 각지의 세력들을 연합하였다. 그에 힘입어 加羅王 荷知는 479년에 중국 남제에 조공하여 '輔國將軍 本國王'의 작호를 받았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중추적 중개교역자로 성장하여, 479년(장수왕 67)에는 柔然과 모의하여 地豆于 분할을 시도하였고, 남쪽으로는 한강 이남에 대한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 475년 백제 수도 慰禮城(서울 송파구)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전사하자, 백제는 熊津(충남 공주)으로 천도하였다.

또한 고구려는 481년에 신라의 彌秩夫(경북 포항시 흥해)까지 쳐내려갔다. 이에 대하여 백제 동성왕은 원병을 보내 고구려군의 남침을 물리치고 493년에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가야도 481년에 신라를 구원하고 496년 신라에 白雉를 보냈다. 당시의 정세는 고구려의 남진에 대처하여 백제－신라－가야가 군사동맹을 맺어 방어하는 형국이었다. 해당 시기의 ≪일본서기≫에는 雄略紀와 顯宗紀 등에 일본열도의 일부 중앙귀족 또는 지방호족들의 家傳에 의하여 왜군이 고구려군과 싸우거나 혹은 내통하는 등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왜왕의 명령 아래 한반도 남부에 와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의 실상은 가야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대가로, 일본열도의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가야로 동원되어 와서, 가야군에 부속되어 움직이던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宋書≫ 百官志에 의하면 征東, 鎭東, 安東將軍號는 모두 제3품에 해당하며 정원은 1명이다. 승진 사례를 살펴 볼 때 그 사이에 서열은 정동장군, 진동장군, 안동장군의 순서였으니, 정동장군 고구려왕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진동장군 백제왕이었으며, 그 다음이 안동장군 왜국왕이었다. 그러한 장군호는 國家間의 국제적 지위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기 한일관계사의 쟁점은, ≪송서≫ 왜국전에 나오는 왜 5왕이 자칭한 七國諸軍事號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왜왕 武가 479년에 보낸 상표문을 통해서 볼 때, 그는 한반도 남부를 군사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권리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듯하다. 그러나 왜왕의 한반도 남부 지역명이 포함된 諸軍事號 인정 여부와 실제로 한반도 남부에서 군사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러한 실상은 문헌 사료나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혹시 ≪송서≫에서 왜왕의 제군사호 관련 기사를 인용만 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서술의 오류가 아니나, 독자들에게 史實을 오도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왜곡이다. 그것은 왜왕의 의도일 뿐, 실효성이 없는 행위였다는 점을 반드시 병기해야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의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고고학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전남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10여 기의 '前方後圓墳'이다. 그 고분 축조 세력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들을 在地首長으로 보는 견해와 倭人으로 보는 견해로 크게 나뉘나, 아직 전반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어느 학설이 더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유의해야 할 문제는 그 안에서 백제계 威信財가 다수 출토된다는 점이며, 이로 보아 그 고분군은 피장자의 혈통 여부와 관계없이 ≪삼국사기≫ 백제본기나 ≪송서≫ 백제전에 기록된 백제의 호남 서부지역 병합 과정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5~6세기 후기 가야의 교역은 전기만큼 활발하지는 못했으나, 왜와의 교역은 김해를 대신하여 고령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나갔다. 가야 계통 유물의 분포로 보아, 대가야는 장신구, 마구, 토기, 철소재와 같은 물품의 유통권을 낙동강 유역과 섬진강 유역에 걸쳐 대내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멀리 바다 건너 對倭 교역 창구를 독점하는 면모를 보였다.

6세기에 들어 백제 무령왕은, 북쪽으로 금강부터 한강에 이르는 영토를 회복하고, 남쪽으로 왜와의 교역을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가야 세력권에 있던 '任那 4縣'과 己汶, 즉

호남 동부의 섬진강 유역을 잠식해 들어갔다. 신라 지증왕은 주군현제를 제정하고 于山國을 정벌하였으며, 그를 이어 법흥왕은 율령 반포, 불교 공인 등을 통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하였다.

대가야는 백제에게 호남 동부지역을 빼앗기자, 子呑(경남 진주), 帶沙(하동), 爾列比(의령군 부림면), 麻須比(창녕군 영산면) 등에 성을 쌓음으로써(514)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시켰다. 이 시기에 대가야는 초기 고대국가를 성립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에서 異腦王은 522년에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가야연맹에서 분열이 생겨나자, 신라는 가야의 喙己呑國(경남 영산), 南加羅國(김해), 卓淳國(창원)을 병합하였다. 백제도 安羅國(경남 함안) 주변의 乞乇城과 久禮牟羅城(칠원) 등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백제 무령왕은 가야를 배제하고 왜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도모하여 513년과 516년에 오경박사를 왜에 보내 유학을 전수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대 한일 교류의 패턴은 기존의 百濟－加耶－九州倭－近畿倭를 거치는 형식으로부터 百濟－近畿倭로 직결되는 형식이 우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야와 九州倭는 원거리 교역을 중개함으로써 얻고 있던 기존의 이득을 상실하게 되었다. 527년에 筑紫國造 磐井이 왜국 중앙조정에게 반기를 든 것은, 백제와 왜국 사이의 교류를 막기 위한 가야 및 신라의 계책과 관련 있다고 추정된다.

530년대를 거치면서 후기 가야연맹은 대가야국과 안라국 중심의 남북 이원체제로 분열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7~8개국의 執事들로 구성된 대외교섭단체를 마련하여 백제·신라 양측과의 외교 교섭을 도모하였다.

백제의 聖王은 538년에 泗沘(충남 부여)로 천도하고 중흥을 꾀하여, 梁에 방물을 보내고 倭와 문화교류를 하였으며, 외교적으로 가야연맹을 부속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가야연맹 집사들을 두 차례에 걸쳐 불러들여 사비회의를 개최하고 선진문물을 증여함으로써, 결국 550년을 전후하여 가야연맹을 종속적으로 연합시켰다.

성왕은 551년에 그 권위를 가지고 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쳐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였다. 반면에 신라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쳐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더니, 2년 후인 553년에는 백제가 점령한 하류 지역까지 탈취하였다.

당시에 백제는 왜에 불교, 유학, 역법, 의약 등을 전수하였다. 그 대가로 왜가 원군 1,000명을 보내자, 백제는 554년에 신라를 침공하여 管山城(충북 옥천) 전투를 일으켰으나 백제－가야－왜 연합군은 패퇴되었다. 그리하여 560년에 阿羅加耶(=安羅國, 경남 함

안)가 신라에게 투항하고, 大加耶(=加羅國, 경북 고령)는 562년에 정복당하였다.

任那日本府說과 관련된 6세기 한일관계사의 쟁점은 ≪日本書紀≫ 欽明紀에 보이는 '任那日本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 자료들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것이 541년부터 552년 사이를 전후한 짧은 시기에만 존재하였고, 그 관인들은 가야연맹 집사들과 함께 대외정책 결정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의 정책 방향은 가야연맹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임나일본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任那支配說 4種과 外交交易說 4種으로 나뉜다. 이제 왜의 임나 지배를 논하던 전형적인 임나일본부설은 설득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도 좋다. 그리고 관련 사료의 분석에 의하여, '임나일본부'는 4~5세기에는 존속하지 않았고 6세기에만 존재했다고 본다.

게다가 그 6세기의 '임나일본부' 문제도 이제 백제사와 가야사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볼 때, '임나일본부'는 6세기 당시의 용어도 아니고 그릇된 선입견을 불러일으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다 사실에 가까운 安羅倭臣館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안라왜신관은 540년대에 가야연맹이 신라와 백제의 복속 압력을 받고 있던 시기에, 가야연맹의 제2인자였던 안라국이 자신의 王廷에 왜계 관료를 영입하여 왜국과의 대외관계를 주도함으로써, 안라를 중심으로 한 연맹 체제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외무관서와 같은 성격의 기구였다. 그러나 550년을 전후하여, 이 기구는 상호간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해가고 있던 백제와 왜 왕권의 불신임 속에 해체되었다.

6세기 후반의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립하여 중국의 남북조에 조공 교섭을 하며 한동안 평화를 유지하였다. 왜국은 백제로부터 불교와 유교를 비롯한 고급 정신문화를 받아들이며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시기에 신라는 이른바 '任那調'를 보냄으로써(575) 왜국과의 화해를 도모하였던 듯하나, 그 후 신라가 위압적 자세를 보여 한동안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610년 이후로는 왜국에 대하여 자주 외교사절을 파견하였으며, 그중 서너 차례는 任那使人과 동행토록 하였다. 여기서 任那使人이라는 것은 신라사절단의 正使를 보조하는 副使格의 존재였다. 신라는 6세기 후반 이후 7세기의 치열한 삼국 전쟁 속에서 그 배후에 있던 왜국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한동안 외교사절에 임나 사신 일행을 추가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任那調'의 문제는 신라가 일본의 임나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참고문헌】

한국 사료

- ≪廣開土王陵碑文≫ 永樂 6年 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首 攻取壹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氐利城 □□城 閣弥城 牟盧城 弥沙城 □舍蔦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奥利城 勾牟城 古模耶羅城 莫□□□□城 □而耶羅城 瑑城 於利城 農□城 豆奴城 沸□□利城 弥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城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彡穰城 曾□城 □□盧城 仇天城 □□□□□其國城. 殘不服義 敢出迎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歸穴 □便圍城. 而殘主困逼獻□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先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 ≪廣開土王陵碑≫ 永樂 9年 己亥 "百殘違誓 与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 ≪廣開土王陵碑文≫ 永樂 10年 庚子 "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倭賊退卻 乘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 拔新羅□農城 倭寇婁潰 城夫十九 盡煞抑徙 安羅人戍兵. 師□□□□其□□□□□□□□言□□□□□□□□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8년 “八月 高句麗侵北邊”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痲立干 39년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6년 “春二月 倭人侵歃良城 不克而去. 王命伐智·德智 領兵伏候於路 要擊大敗之. 王以倭人屢侵疆場 緣邊築二城”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1년 “春 高句麗與靺鞨 襲北邊悉直城”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2년 “春正月 定京都坊里名”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3년 “築三年山城”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4년 “春二月 築芼老城”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7년 “秋七月 高句麗王巨連 親率兵攻百濟. 百濟王慶 遣子文周求援. 王出兵救之 未至百濟已陷 慶亦被害”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7년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년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8년 “春正月 拜伊湌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城”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9년 “春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8년 “春二月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4년 “冬十月 羣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臣等以爲 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宜矣. 又觀自古有國家者 皆稱帝稱王 自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未正尊號. 今羣臣一意 謹上號新羅國王. 王從之”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6년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 始於此”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3년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湌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 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 則降”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5년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 充實之”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4년 “夏四月 始置兵部”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7년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9년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湌比助夫之妹送之”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1년 9월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5년 “肇行佛法. (中略) 不復非毁佛事.“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8년 “夏四月 拜伊湌哲夫爲上大等 摠知國事. 上大等官 始於此 如今之宰相”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9년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中略) 以國帑寶物來降”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9년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23년 “始稱年號 云建元元年”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년 “百濟遣使請和 許之”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5년 “春二月 興輪寺成 三月 許人出家爲僧尼 奉佛”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1년 “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湌異斯夫 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一千戍之”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2년 “春正月 改元開國”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2년 “王命居柒夫等 侵高句麗 乘勝取十郡”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년 “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년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湌武力爲軍主”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년 7월 “百濟王明禮與加良 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湌耽知等 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 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 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6년 “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十一月 至自北漢山 敎所經州郡 復一年租調 曲赦 除二罪 皆原之”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6년 “春正月 置完山州於比斯伐”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7년 “秋七月 置比列忽州 以沙湌成宗爲軍主”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8년 “以國原爲小京. 廢沙伐州 置甘文州 以沙湌起宗爲軍主. 廢新州 置北漢山州”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8년 “廢沙伐州 置甘文州 以沙湌起宗爲軍主. 廢新州 置北漢山州”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9년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奈麻身得作砲弩上之 置之城上”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3년 “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斯多含領五千騎先馳入栴檀門 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5년 “遣使北齊朝貢”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6년 “春二月 北齊武成皇帝詔 以王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中略) 九月 (中略) 陳遣使劉思與僧明觀 來聘 送釋氏經論千七百餘卷”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6년 “秋八月 命阿湌春賦 出守國原”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6년 “九月 廢完山州 置大耶州”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7년 “春二月 祇園·實際二寺成. (中略) 皇龍寺畢功”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7년 “春二月 (中略) 遣使於陳貢方物”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8년 “春三月 遣使於陳貢方物”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9년 “改元大昌”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9년 “夏六月 遣使於陳貢方物”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9년 “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31년 “夏六月 遣使於陳獻方物”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32년 “遣使於陳貢方物”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33년 “春正月 改元鴻濟”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33년 “三月 王太子銅輪卒. 遣使北齊朝貢”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33년 “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 七日罷”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37년 “春 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羣遊 以觀其行義 然後擧而用之. 遂簡美女二人 一曰南毛 一曰俊貞 聚徒三百餘人. 二女爭娟相妬 俊貞引南毛於私第 强勸酒 至醉 曳而投河水以殺之. 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其後 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3년 “春正月 始置位和府 如今吏部”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5년 “春正月 始置船府署 大監·弟監各一員”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6년 “春二月 改元建福. 三月 置調府令一員 掌貢賦. 乘府令一員 掌車乘”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8년 “春正月 置禮部令二員”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13년 “春二月 置領客府令二員”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2년 “十一月 虓自將勁兵四萬 出南道 以慕容翰·慕容覇爲前鋒 別遣長史王寓等 將兵萬五千 出北道以來侵. (中略) 諸軍乘勝 遂入丸都 王單騎走入斷熊谷. 將軍慕輿埿追獲王母周氏及王妃而歸. 會王寓等 戰於北道 皆敗沒. 由是 虓不復窮追 遣使招王 王不出. (中略) 虓從之 發美川王墓 載其尸 收其府庫累世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毁丸都城而還”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39년 “秋九月 王以兵二萬 南伐百濟 戰於雉壤 敗績”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41년 “冬十月 百濟王率兵三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 薨. 葬于故國之原”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 8년 “春 遣使新羅修好 新羅王遣姪實聖爲質”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원년 “秋七月 南伐百濟 拔十城”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원년 “九月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2년 “秋八月 百濟侵南邊 命將拒之”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3년 “秋七月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 逆擊敗之 餘寇夜走. 八月 築國南七城 以備百濟之寇”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4년 “秋八月 王與百濟戰於浿水之上 大敗之 虜獲八千餘級”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9년 2월 “燕王盛 以我王禮慢 自將兵三萬襲之 以驃騎大將軍慕容熙爲前鋒 拔新城·南蘇二城 拓地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11년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 棄城走”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13년 “冬十一月 出師侵燕”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14년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 且陷 熙命將士 ‘毋得先登俟剋平其城 朕與皇后乘輦而入.’ 由是 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15년 “冬十二月 燕王熙襲契丹 至陘北 畏契丹之衆 欲還. 遂棄輜重 輕兵襲我. 燕軍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我木底城 不克而還”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15년 “移都平壤”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4년 “夏四月 魏攻燕白狼城 克之. 王遣將葛盧·孟光 將衆數萬 隨陽伊至和龍 迎燕王”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38년 “新羅人襲殺邊將 王怒 將擧兵討之 羅王遣使謝罪 乃止”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42년 “秋七月 遣兵侵新羅北邊”
-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56년 “春二月 王以靺鞨兵一萬 攻取新羅悉直州城”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4년 “八月 遣兵圍百濟雉壤城. 百濟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德智 率兵來援 我軍退還”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12년 “冬十一月 百濟遣達率優永 率兵五千 來侵水谷城”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15년 “冬十一月 遣將伐百濟 大雪 士卒凍皸而還”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16년 “冬十月 遣使入魏朝貢. 王遣將高老 與靺鞨謀 欲攻百濟漢城 進屯於橫岳下. 百濟出師逆戰 乃退”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21년 “秋九月 侵百濟 陷加弗·圓山二城 虜獲男女一千餘口”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2년 “春二月 北齊廢帝封王爲使持節領東夷校尉遼東郡公高句麗王”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3년 “冬十一月 遣使入陳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4년 “春二月 陳文帝詔授王寧東將軍”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6년 “遣使入北齊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7년 “春正月 立王子元爲太子. 遣使入北齊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8년 “冬十二月 遣使入陳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12년 “冬十一月 遣使入陳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13년 “春二月 遣使入陳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15년 “遣使入北齊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16년 “春正月 遣使入陳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19년 “王遣使入周朝貢 周高祖拜王爲開府儀同三司大將軍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23년 “十二月 遣使入隋朝貢. 高祖授王大將軍遼東郡公”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24년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冬十一月 遣使入隋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25년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中略) 夏四月 遣使入隋朝貢. 冬遣使入隋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26년 “春 遣使入隋朝貢. 夏四月 隋文帝宴我使者於大興殿”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27년 “冬十二月 遣使入陳朝貢”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28년 “移都長安城”
-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32년 “王聞陳亡大懼 治兵積穀 爲拒守之策 隋高祖賜王璽書 責以雖稱藩附 誠節未盡”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古爾王 13년 8월 “魏幽州刺史毌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 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責稽王 13년 9월 “漢與貊人來侵 王出禦爲敵兵所害薨”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汾西王 7년 “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 王爲樂浪太守所遣刺客賊害薨”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1년 3월 “遣使聘新羅”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3년 3월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년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년 9월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6년 “高句麗擧兵來 王聞之 伏兵於浿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7년 정월 “遣使入晉朝貢”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8년 2월 “遣使入晉朝貢”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30년 “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 王又將大擧兵報之”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30년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仇首王 2년 “冬十一月 高句麗來侵北鄙”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仇首王 3년 “冬十月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十一月 高句麗來侵”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仇首王 3년 10월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仇首王 5년 3월 “遣使朝晉 其使海上遇惡風 不達而還”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枕流王 원년 7월 “遣使入晉朝貢”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枕流王 원년 9월 “胡僧摩羅難陁自晉至 王迎之致宮內 禮敬焉 佛法始於此”
-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枕流王 2년 2월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辰斯王 3년 “秋九月 與靺鞨戰關彌嶺不捷”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辰斯王 5년 “秋九月 王遣兵侵掠高句麗南鄙”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辰斯王 6년 “九月 王命達率眞嘉謨 伐高句麗 拔都坤城 虜得二百人”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 “秋七月 高句麗王談德 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城”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 “秋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阿莘王 3년 “秋七月 與高句麗戰於水谷城下 敗績”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阿莘王 4년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 伐高句麗. 麗王談德 親帥兵七千 陣於浿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冬十一月 王欲報浿水之役 親帥兵七千人 過漢水 次於靑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廻軍至漢山城 勞軍士”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阿莘王 6년 “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阿莘王 7년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柵. 其夜 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阿莘王 8년 “秋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腆支王 卽位年 “阿莘在位第三年 立爲太子. 六年 出質於倭國. 十四年 王薨 王仲弟訓解攝政 以待太子還國. 季弟碟禮殺訓解 自立爲王. 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旣至國界 漢城人解忠來告曰 大王棄世 王弟碟禮殺兄自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碟禮 迎腆支卽位.“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腆支王 5년 “倭國遣使 送夜明珠 王優禮待之”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腆支王 14년 “夏 遣使倭國 送白綿十匹”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14년 “冬十月 遣使入宋朝貢”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2년 “倭國使至 從者五十人”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3년 “秋 遣使入宋朝貢”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4년 “夏四月 宋文皇帝 以王復修職貢 降使冊授先王映爵號”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7년 “遣使入新羅請和”
-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8년 “春二月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文周王 3년 “秋八月 兵官佐平解仇 擅權亂法 有無君之心 王不能制. 九月 王出獵 宿於外 解仇使盜害之 遂薨”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三斤王 3년 “冬十一月 王薨”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6년 “春二月 王聞南齊祖道成 冊高句麗巨璉爲驃騎大將軍 遣使上表請內屬 許之. 秋七月 遣內法佐平沙若思 如南齊朝貢 若思至西海中 遇高句麗兵 不進”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7년 "夏五月 遣使聘新羅"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8년 "三月 遣使南齊朝貢"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5년 "春三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飡比智女 歸之"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20년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耽羅 卽耽牟羅.]"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4년 "冬十月 修葺熊津城 立沙井柵"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16년 "春 移都於泗沘[一名所夫里] 國號南扶餘"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19년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涅槃等經義幷工匠·畵師等 從之"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14년 "秋九月 遣使入陳朝貢"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17년 "高齊後主 拜王爲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18년 "高齊後主 又以王爲使持節都督東靑州諸軍事東靑州刺史"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19년 "遣使入齊朝貢"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24년 "秋七月 遣使入陳朝貢. (中略) 十一月 遣使入宇文周朝貢"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25년 "遣使入宇文周朝貢"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28년 "王遣使入隋朝貢 隋高祖詔 拜王爲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29년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30년 "冬十一月 遣使入陳朝貢"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33년 "遣使入陳朝貢"
-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36년 "隋平陳 有一戰船 漂至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國界 王資送之甚厚 幷遣使奉表 賀平陳"
-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飡·比台角飡·耽知迊飡·非西迊飡·奴夫波珍飡·西力夫波珍飡·比次夫大阿飡·未珍夫阿飡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 乘勝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
- ≪三國史記≫ 卷45, 列傳5 朴堤上傳 "及訥祇王卽位 思得辯士 往迎之 聞水酒村干伐寶靺·一利村干仇里迊·利伊村干波老三人有賢智 召問曰 吾弟二人 質於倭·麗二國 多年不還 兄弟之故 思念不能自止 願使生還 若之何而可. 三人同對曰 臣等聞歃良州干堤上 剛勇而有謀 可得以解殿下之憂. 於是 徵堤上使前 告三臣之言而請行. 堤上對曰 臣雖愚不肖 敢不唯命祇承. (下略)"
- ≪三國史記≫ 卷45, 列傳5 朴堤上傳 "遂徑入倭國 若叛來者. 倭王疑之. 百濟人前入倭 讒言新羅與高句麗謀侵王國. 倭遂遣兵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幷擒殺倭邏人. 倭王乃以百濟人言爲實"
- ≪三國遺事≫ 第十八實聖王條 "王忌憚前王太子訥祇有德望 將害之 請高麗兵而詐迎訥祇. 高麗人見訥祇有賢行 乃倒戈而殺王 乃立訥祇爲王而去"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高靈縣 建置沿革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金官國王惱窒靑裔二人 則惱窒朱日爲夷珍阿豉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稱"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高靈縣 建置沿革 引用 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 ≪昌寧眞興王拓境碑≫ "四方軍主. 比子伐軍主 沙喙 登□□智 沙尺干. 漢城軍主 喙 竹夫智 沙尺干. 碑利城軍主 喙 福登智 沙尺干. 甘文軍主 沙喙 心麥夫智 及尺干"

일본 사료

- ≪古事記≫ 中卷, 仲哀天皇 "故 備如敎覺 整軍雙船 度幸之時 海原之魚 不問大小 悉負御船而渡"
- ≪古事記≫ 中卷, 仲哀天皇 "故是以新羅國者 定御馬甘 百濟國者 定渡屯家"
- ≪古事記≫ 中卷, 仲哀天皇 "於是其國王畏惶奏言 自今以後 隨天皇命而爲御馬甘 每年雙船 不乾船腹 不乾栲樴 共與天地 無退仕奉"
- ≪古事記≫ 中卷, 仲哀天皇 "爾 順風大起 御船從浪 故 其御船之浪瀾 押騰新羅之國 旣到半國"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卽位前紀 仲哀九年 冬十月 己亥朔 辛丑 "從和珥津發之. 時飛廉起風, 陽侯擧浪, 海中大魚, 悉浮扶船"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卽位前紀 仲哀九年 冬十月 己亥朔 辛丑 "則大風順吹 帆舶隨波 不勞櫓楫 便到新羅. 時隨船湖浪 遠逮國中 卽知 天神地祇悉助歟"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卽位前紀 仲哀九年 冬十月 己亥朔 辛丑 "新羅王 於是 戰戰慄慄 愾厝身無所. (中略) 因以叩頭之曰 從今以後 長與乾坤 伏爲飼部. 其不乾船栲 而春秋獻馬梳及馬鞭. 復不煩海遠 以每年貢男女之調"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卽位前紀 仲哀九年 冬十月 己亥朔 辛丑 "乃解其縛爲飼部 遂入其國中 封重寶府庫 收圖籍文書. (中略) 於是 高麗·百濟二國王 聞新羅收圖籍 降於日本國 密令伺其軍勢 則知不可勝 自來于營外 叩頭而款曰 從今以後 永稱西蕃 不絶朝貢. 故因以 定內宮家屯倉. 是所謂之三韓也. 皇后從新羅還之"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攝政 49년 3월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沙奴跪[是二人不知何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㶱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攝政 50년 "夏五月 千熊長彦·久氐等 至自百濟. 於是 皇太后歡之 問久氐曰 海西諸韓 旣賜汝國 今何事以頻復來也. 久氐等奏曰 天朝鴻澤 遠及弊邑. 吾王歡喜踊躍 不任于心. 故因還使 以致至誠. 雖逮萬世 何年非朝. 皇太后勅云 善哉汝言. 是朕懷也.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攝政 52년 9월 정묘삭 병자 "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 及種種重寶.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飮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 海東貴國 是天所啓. 是以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 國基永固. 汝當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不絶 雖死何恨. 自是後 每年相續朝貢焉"
-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攝政 62년 "新羅不朝. 卽年 遣襲津彦擊新羅.[百濟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貴國遣沙至比跪 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 加羅國王己本旱岐 及兒百久至·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汶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旣殿至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 捨而不討 反滅我國. 兄弟人民 皆爲流沈. 不任憂思 故以來啓. 天皇大怒 卽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 (下略)]"
- ≪日本書紀≫ 卷10, 應神天皇 25년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婬多行無禮. 天皇聞而召之. [百濟記云 木滿致者 是木羅斤資討新羅時 娶其國婦而所生也. 以其父功 專於任那. 來入我國 往還貴國. 承制天朝 執我國政 權重當世. 然天朝聞其暴 召之.]"
-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5년 "夏四月 百濟加須利君[盖鹵王也] 飛聞池津媛之所燔殺[適稽女郎也] 而籌議曰 昔貢女人爲采女 而旣無禮 失我國名 自今以後不合貢女. 乃告其弟軍君[昆支也]曰 汝宜往日本以

事天皇. 軍君對曰 上君之命不可奉違 願賜君婦而後奉遣. 加須利君則以孕婦 旣嫁與軍君曰 我之孕婦旣當產月 若於路產 冀載一船 隨至何處速令送國. 遂與辭訣 奉遣於朝"

-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8년 "春二月 遣身狹村主靑·檜隈民使博德 使於吳國. 自天皇卽位 至于是歲 新羅國背誕 苞苴不入 於今八年. 而大懼中國之心 脩好於高麗. 由是 高麗王遣精兵一百人 守新羅. 有頃 高麗軍士一人 取假歸國. 時以新羅人爲典馬[典馬 此云于麻柯比] 而顧謂之曰 汝國爲吾國所破 非久矣.[一本云 汝國果成吾土 非久矣.] 其典馬聞之 陽患其腹 退而在後. 遂逃入國 說其所語. 於是 新羅王乃知高麗僞守 遣使馳告國人曰 人殺家內所養鷄之雄者. 國人知意 盡殺國內所有高麗人. 惟有遣高麗一人 乘間得脫逃入其國 皆具爲說之. 高麗王卽發軍兵 屯聚筑足流城[或本云 都久斯岐城] 遂歌儛興樂. (中略) 二國之怨自此而生.[言二國者 高麗·新羅也.] 膳臣等謂新羅曰 汝以至弱 當至强. 官軍不救 必爲所乘 將成人地 殆於此役. 自今以後 豈背天朝也"
-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8년 2월 "於是 新羅王 夜聞高麗軍四面歌儛 知賊盡入新羅地. 乃使人於任那王曰 高麗王征伐我國. 當此之時 若綴旒然. 國之危殆 過於累卵. 命之脩短 太所不計. 伏請救於日本府行軍元帥等. 由是 任那王勸膳臣斑鳩[斑鳩 此云伊柯屢俄]吉備臣小梨難波吉士赤目子 往救新羅. 膳臣等 未至營止. 高麗諸將 未與膳臣等相戰 皆怖. 膳臣等乃自力勞軍 令軍中 促爲攻具 急進攻之. 與高麗相守十餘日 乃夜鑿險 爲地道 悉過輜重 設奇兵. 會明 高麗爲膳臣等爲遁也 悉軍來追. 乃縱奇兵 步騎夾攻 大破之"
- ≪日本書紀≫ 卷15, 顯宗天皇 3년 "是歲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 高麗地也]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粮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 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6년 "夏四月 辛酉朔丙寅 遣穗積臣押山 使於百濟. 仍賜筑紫國馬卅匹.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爲異場 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 具得是言 同謨而奏. (中略) 由是 改使而宣勅 付賜物幷制旨 依表賜任那四縣"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7년 6월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天恩 判還本屬"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7년 11월 신해삭 을묘 "於朝廷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斯羅汶得至·安羅辛已奚及貴巴委佐·伴跛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滯沙 賜百濟國. 是月 伴跛國 遣戢支 獻珍寶乞己汶之地. 而終不賜"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8년 3월 "伴跛築城於子呑·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絙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駈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9년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 伴跛人 懷恨銜毒 恃强縱虐. 故物部連 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跛興師往伐 逼脫衣裳 劫掠所齎 盡燒帷幕. 物部連等 怖畏逃遁 僅存身命 泊汶慕羅.[汶慕羅 嶋名也.]"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10년 "秋九月 百濟遣州利卽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 請代博士段楊爾. 依請代之"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1년 6월 임오삭 갑오 "近江毛野臣 率衆六萬 欲住任那 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喙己呑 而合任那. 於是 筑紫國造磐井 陰謨叛逆 猶預經年. 恐事難成 恒伺間隙. 新羅知是 密行貨賂于磐井所 而勸防遏毛野臣軍. 於是 磐井掩據火豊二國 勿使修職. 外邀海路 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年貢職船. 內遮遣任那毛野臣軍"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2년 11월 갑인삭 갑자 “大將軍物部大連麤鹿火 親與賊帥磐井 交戰於筑紫御井郡. 旗鼓相望 埃塵相接 決機兩陣之間 不避萬死之地. 遂斬磐井 果定疆埸”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년 3월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勅勸新羅 更建南加羅·喙己呑.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鹵等 往赴安羅 式請詔勅. 新羅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請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 謨謀乎堂上. 將軍君等 恨在庭焉”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년 3월 “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嶋曲[謂海中嶋曲崎岸也. 俗云美佐祁.] 每苦風波. 因玆 濕所齎 全壞无色. 請 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4년 9월 “於是 阿利斯等 知其細碎爲事 不務所期 頻勸歸朝 尙不聽還. 由是悉知行迹 心生飜背. 乃遣久禮斯己母 使于新羅請兵 奴須久利 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討背評[背評地名 亦名能備己富里也] 傷死者半. 百濟則捉奴須久利 柮械枷鏁 而共新羅圍城. 責罵阿利斯等曰 可出毛野臣. 毛野臣 嬰城自固. 勢不可擒. 於是 二國圖度便地 淹留弦晦 築城而還. 號曰久禮牟羅城. 還時 觸路 拔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 五城”
-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5년 12월 조 細注의 百濟本記 인용문 “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 營乞乇城”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년 4월 “安羅次旱岐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旱岐 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夷他 斯二岐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闕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年 4월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년 4월 “其卓淳 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년 4월 “任那旱岐等對曰 (中略) 夫建任那者 爰在大王之意. 祇承敎旨 誰敢間言. 然任那境接新羅 恐致卓淳等禍.[等謂喙己呑·加羅. 言卓淳等國 有敗亡之禍.]”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년 7월 “日本卿等 久住任那之國 近接新羅之境 新羅情狀 亦是所知. 毒害任那 謨防日本 其來尙矣 匪唯今年”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 3월 “新羅春取喙淳 仍擯出我久禮山戍 而遂有之”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 3월 “至於卓淳 亦復然之. 假使卓淳國主 不爲內應新羅招寇 豈至滅乎”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 11월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旱岐 久嗟旱岐 仍赴百濟”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 11월 “竊聞 新羅·安羅兩國之境 有大江水 要害之地也. 吾欲據此 修繕六城. 謹請天皇三千兵士 每城充以五百 幷我兵士 勿使作田 而逼惱者 久禮山之五城 庶自投兵降首. 卓淳之國 亦復當興. 所請兵士 吾給衣粮. 欲奏天皇 其策一也. 猶於南韓 置郡令·城主者 豈欲違背天皇·遮斷貢調之路. 唯庶剋濟多難 殲撲强敵. 凡厥凶黨 誰不謀附. 北敵强大 我國微弱. 若不置南韓 郡領·城主 修理防護 不可以禦此强敵 亦不可以制新羅. 故猶置之 攻逼新羅 撫存任那. 若不爾者 恐見滅亡 不得朝聘. 欲奏天皇 其策二也. 又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 猶在任那國者 天皇雖詔建成任那 不可得也. 請 移此四人 各遣還其本邑. 奏於天皇 其策三也”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5년 11월 “於是 吉備臣·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 歸以敬諮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安羅王·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歟”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6년 9월 “百濟遣中部護德菩提等 使于任那 贈吳財於日本府臣及諸旱岐 各有

差”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7년 정월 “百濟使人中部奈率己連等罷歸. 仍賜以良馬七十匹·船一十隻”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7년 6월 “百濟遣中部奈率掠葉禮等獻調”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8년 4월 “百濟遣前部德率眞慕宣文·奈率奇麻等 乞救軍. 仍貢下部東城子言代德率汶休麻那”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9년 정월 “百濟使人前部德率眞慕宣文等請罷. 因詔曰 所乞救軍 必當遣救. 宜速報王”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9년 4월 “百濟遣中部杆率掠葉禮等奏曰 (中略) 然馬津城之役[正月辛丑 高麗率衆 圍馬津城] 虜謂之曰 由安羅國與日本府招來勸罰. 以事准況 寔當相似. 然三廻欲審其言 遣召而並不來 故深勞念”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2년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3년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地名未詳]”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3년 10월 “百濟聖明王[更名聖王]遣西部姬氏達率怒唎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幡蓋若干·經論若干卷”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4년 6월 “遣內臣[闕名] 使於百濟. 仍賜良馬二匹·同船二隻·弓五十張·箭五十具. 勅云 所請軍者 隨王所須. 別勅 醫博士·易博士·曆博士等 宜依番上下. 今上件色人 正當相代年月. 宜付還使相代. 又卜書·曆本·種種藥物 可付送”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5년 “春正月 (中略) 於是 內臣奉勅而答報曰 卽令遣助軍數一千·馬一百匹·船卌隻. (中略) 夏五月 丙戌朔戊子 內臣率舟師 詣于百濟”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5년 12월 “而天皇遣有至臣 帥軍以六月至來. 臣等深用歡喜. 以十二月九日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奇武連 領其方軍士 攻函山城. 有至臣所將來民竹斯物部莫奇委沙奇 能射火箭. 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 焚城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 (中略) 伏願 速遣竹斯嶋上諸軍士 來助臣國 又助任那 則事可成. 又奏 臣別遣軍士萬人 助任那”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5년 12월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 久廢眼食. 父慈多闕 子孝希成. 乃自往仰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 斷道擊破. 是時 新羅謂佐知村飼馬奴苦都[更名谷智]曰 苦都賤奴也. 明王名主也. 今使賤奴殺名主. 冀傳後世 莫忘於口. 已而苦都 乃獲明王 (中略) 苦都斬首而殺 堀坎而埋”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2년 “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 以備日本”
-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3년 “一本云 卄一年 任那滅焉”

중국 사료

- ≪建康實錄≫ 南齊 高麗傳 “其官位加長史司馬參軍之屬. 拜則申一脚 坐則跪 行則走 以爲恭敬. 國有銀山採爲貨 並人參貂皮. 重中國綵繒 丈夫衣之. 亦重虎皮”
- ≪南齊書≫ 卷58, 列傳39 高麗國 “宋末 高麗王樂浪公高璉爲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 太祖建元元年 進號驃騎大將軍”
- ≪南齊書≫ 卷58, 列傳39 東南夷傳 東夷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 ≪南齊書≫ 卷58, 列傳39 百濟國 "建武 二年 牟大遣使上表曰 (中略) 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 贊首流爲行安國將軍·辟中王 解禮昆爲行武威將軍·弗中侯 木干那 前有軍功 又拔臺舫 爲行廣威將軍·面中侯. 伏願天恩特愍聽除. (中略) 詔可 竝賜軍號"
- ≪南齊書≫ 卷58, 列傳39 百濟國 "報功勞勤 實存名烈. 假行寧朔將軍臣姐瑾等四人 振竭忠効 攘除國難 志勇果毅 等威名將 可謂扞城 固蕃社稷 論功料勤 宜在甄顯. 今依例輒假行職. 伏願恩愍 聽除所假. 寧朔將軍·面中王姐瑾 歷贊時務 武功竝列 今假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 建威將軍·八中侯餘古 弱冠輔佐 忠効夙著 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建威將軍餘歷 忠款有素 文武列顯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廣武將軍餘固 忠効時務 光宣國政 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 ≪南齊書≫ 卷58, 列傳39 百濟國 "是歲 魏虜又發騎數十萬攻百濟 入其界. 牟大遣將沙法名·贊首流·解禮昆·木干那 率衆襲擊虜軍 大破之"
- ≪南齊書≫ 卷58, 列傳39 倭國 "建元元年 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 號爲鎭東大將軍"
- ≪梁書≫ 卷54, 列傳48 諸夷 百濟傳 "普通二年 王餘隆始復遣使奉表稱 累破句驪 今始與通好 而百濟更爲强國"
- ≪梁職貢圖≫ 百濟國使 圖經 "普通二年 其王餘隆 遣使奉表云 累破高麗. 所治城曰固麻. 謂邑檐魯 於中國郡縣. 有二十二檐魯 分子弟宗族爲之.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 ≪北史≫ 卷94, 列傳82 百濟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熊津城. (中略) 各有部司 分掌衆務. 內官有前內部·穀內部·內掠部·外掠部·馬部·刀部·功德部·藥部·木部·法部·後宮部. 外官有司軍部·司徒部·司空部·司寇部·點口部·客部·外舍部·綢部·日官部·市部. 長吏三年一交代. 都下有萬家 分爲五部 曰上部·前部·中部·下部·後部 部有五巷 士庶居焉. 部統兵五百人.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三人 以德率爲之. 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人庶及餘小城 咸分隸焉.
- ≪北史≫ 卷94, 列傳82 室韋國(南室韋) "多猪·牛. (中略) 其國無鐵, 取給於高麗. 多貂"
- ≪宋書≫ 卷97, 列傳57 夷蠻傳 東夷 高句驪國 "高句驪王高璉 晉安帝義熙九年 遣長史高翼 奉表獻赭白馬. (中略) 璉每歲遣使 十六年 太祖欲北討 詔璉送馬, 璉獻馬八百匹. (中略) 大明三年 又獻肅愼氏楛矢石砮"
- ≪宋書≫ 卷97, 列傳57 夷蠻傳 百濟國 "(元嘉)七年 百濟王餘毗 復修貢職 以映爵號授之. 二十七年 毗上書獻方物 私假臺使馮野夫西河太守 表求易林·式占·腰弩 太祖並與之"
- ≪宋書≫ 卷97, 列傳57 百濟國 "毗死 子慶代立 世祖大明元年 遣使求除授 詔許. 二年 慶遣使上表曰「臣國累葉 偏受殊恩 文武良輔 世蒙朝爵. 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等十一人 忠勤宜在顯進 伏願垂愍 並聽賜除.」仍以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 爲冠軍將軍. 以行征虜將軍左賢王餘昆·行征虜將軍餘暈 並爲征虜將軍. 以行輔國將軍餘都·餘乂 並爲輔國將軍. 以行龍驤將軍沐衿·餘爵 並爲龍驤將軍. 以行寧朔將軍餘流·檗貴 並爲寧朔將軍. 以行建武將軍于西·餘婁 並爲建武將軍. 太宗泰始七年 又遣使貢獻"
- ≪宋書≫ 卷97, 列傳57 夷蠻傳 東夷 "倭國 在高驪東南大海中 世修貢職. 高祖永初二年 詔曰 倭讚萬里修貢遠誠宜甄 可賜除授. 太祖元嘉二年 讚又遣司馬曹達 奉表獻方物. 讚死 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表求除正. 詔除安東將軍倭國王. 珍又求除正倭隋等十三人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 詔竝聽. 二十年 倭國王濟 遣使奉獻. 復以爲安東將軍倭國王. 二十八年 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將軍如故. 幷除所上二十三人軍號. 濟死 世子興 遣使貢獻. 世祖大明六年 詔曰 倭王世子興 奕世載忠 作藩外海 稟化寧境 恭修貢職. 新嗣邊業 宜授爵號 可安東將軍倭國王. 興死 弟武立.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

軍倭國王. (中略) 詔除武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 ≪宋書≫ 卷97, 列傳57 夷蠻傳 東夷 "順帝昇明二年 遣使上表曰 封國偏遠 作藩于外.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 ≪隋書≫ 卷81, 列傳46 新羅國 "其官有十七等 其一曰伊罰干 貴如相國 次伊尺干 次迎干 次破彌干 次大阿尺干 次阿尺干 次乙吉干 次沙咄干 次及伏干 次大奈摩干 次奈摩 次大舍 次小舍 次吉士 次大烏 次小烏 次造位"
- ≪梁書≫ 卷54, 列傳48 新羅 "其官名 有子貴旱支 齊旱支 謁旱支 壹告支 奇貝旱支"
- ≪魏書≫ 契丹國傳 太和 3년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于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弗賀勿于率其部車三千乘·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入內附 止於白狼水東"
- ≪魏書≫ 卷100, 列傳88 百濟國 "延興二年 其王餘慶始遣使上表曰 (下略)"
-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後貢使相尋 歲致黃金二百斤 白銀四百斤"
- ≪資治通鑑≫ 卷104, 晉紀26 太元 2년 "春 高句麗·新羅·西南夷 皆遣使入貢于秦"
- ≪晉書≫ 卷9, 帝紀9 簡文帝 咸安2年 "春正月辛丑 百濟·林邑王各遣使貢方物. (中略)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鎭東將軍領樂浪太守"

논저

岡內三眞, 1996 <前方後圓形墳の築造モデル> ≪韓國の前方後圓墳≫ (雄山閣)
江上波夫, 1984 <日本における國家の形成 －倭人の國から大和朝廷へ－> ≪東洋研究≫ 72
江上波夫, 1992 ≪江上波夫の日本古代史 －騎馬民族說四十五年－≫ (大巧社, 東京)
江畑武, 1968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 －中國との册封をめぐつ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姜鍾薰, 2008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 ≪韓國 古代 四國의 國境線≫ (書景文化社)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Ⅰ≫ (慶星大學校博物館, 釜山)
高寬敏, 1996 <五世紀, 新羅の北邊>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雄山閣出版) ; 1997 ≪古代朝鮮諸國と倭國≫ (雄山閣出版)
高橋健自, 1914 <京畿旅行談> ≪考古學雜誌≫ 5-3
古田武彦, 1973 ≪失われた九州王朝≫ (朝日新聞社)
郭長根, 2004 <호남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
菅政友, 1907 <大和國石上神宮寶庫所藏七支刀> ≪菅政友全集≫ 雜稿 1
關晃, 1956 ≪歸化人≫ (至文堂)
關晃, 1996 ≪古代の歸化人－關晃著作集 第三卷≫ (吉川弘文館)
橋本達也, 2002 <古墳時代甲冑の系譜－朝鮮半島との關係－>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大田 月坪洞遺蹟≫
宮崎市定, 1959 <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 ≪朝鮮學報≫ 14
宮崎市定, 1982 <七支刀銘文試釋> ≪東方學≫ 64
宮崎市定, 1983 ≪謎の七支刀 －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中央公論社)
宮崎市定, 1992 ≪謎の七支刀(文庫版)≫ (中央公論社)
權五榮, 1999 ≪복암리고분군≫ (전남대박물관)

權五榮, 2003 <백제의 對中交涉의 진전과 문화변동> ≪강좌 한국고대사≫ 4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權鶴洙, 1994 <가야 제국의 상관관계와 연맹구조> ≪한국고고학보≫ 31
鬼頭淸明, 1974 <加羅諸國の史的發展について>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鬼頭淸明, 1994 ≪大和朝廷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金琪燮, 2000 ≪백제와 근초고왕≫ (學硏文化社)
金斗喆, 2003 <武器·武具 및 馬具를 通해 본 加耶의 戰爭> 韓國民族文化硏究所 編, ≪加耶考古學의 새로운 照明≫ (혜안, 서울)
金斗喆, 2004 <加耶と倭の馬具>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110 (佐倉)
金斗喆, 2005 <4세기 후반 ~ 5세기 초 고구려·가야·왜의 무기·무장체계 비교>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광개토대왕비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今西龍, 1919 <加羅疆域考> ≪史林≫ 4-3·4
今西龍, 1922 <己汶伴跛考> ≪史林≫ 7-4
今西龍, 1970 ≪朝鮮古史の硏究≫ (國書刊行會)
金錫亨, 1963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3-1
金錫亨,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金錫亨, 1988 ≪초기조일관계사≫ 하 (사회과학출판사)
金世基, 1995 <대가야 묘제의 변천>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金世基, 1997 <加耶의 殉葬과 王權> ≪加耶諸國의 王權≫ (新書苑)
金世基,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學硏文化社.)
金世基, 盧重國, 朴天秀, 李明植, 李熙濬, 朱甫暾 編, 1998 ≪가야문화도록≫ (경상북도)
金英心,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
金元龍·李熙濬, 1987 <서울 석촌동 3호분의 연대> ≪斗溪 李丙燾博士 九旬記念 韓國史學論叢≫
金在弘, 2006 <大加耶地域의 鐵製農器具 －小形鐵製農器具와 살포를 중심으로－> ≪大加耶의 成長과 發展≫ (고령군·한국고대사학회)
金正完, 1997 <신라와 가야토기의 발생 및 변화과정> ≪한국고대의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金廷鶴, 1982 <古代國家의 發達(伽耶)> ≪韓國考古學報≫ 12 (한국고고학회)
金廷鶴, 1987 <加耶의 國家形成段階> ≪精神文化硏究≫ 32
金昌錫, 2004 <高句麗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 ≪新羅文化≫ 24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金哲埈, 1952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歷史學報≫ 1·2
金泰植·宋桂鉉,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 (韓國馬事會·馬事博物館, 果川)
金泰植 외 6인, 2008 ≪韓國 古代 四國의 國境線≫ (書景文化社)
金泰植, 1985 <5세기 후반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硏究> ≪韓國史論≫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1988 再收錄(日本語譯), 齋藤忠·江坂輝彌 編 ≪先史·古代の韓國と日本≫ (築地書館)
金泰植, 1986 <後期加耶諸國의 성장기반 고찰> ≪釜山史學≫ 11 (부산사학회)
金泰植, 1988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 ≪韓國古代史硏究≫ 1 (한국고대사연구회)
金泰植, 1991 <書評: 조희승·김석형著『초기조일관계사』(상)·(하)> ≪韓國古代史論叢≫ 1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金泰植 著, 淺井良純 譯, 1993 <六世紀中葉加耶連盟の滅亡過程> ≪朝鮮學報≫ 146 (朝鮮學會, 天理)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서울)
金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서울)

金泰植, 1994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韓國史硏究≫ 86 (한국사연구회, 서울)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涉과 征服> ≪백제의 중앙과 지방≫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金泰植, 1998 <日本書紀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硏究≫ 14 (韓國古代史學會)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2권≫ (푸른역사)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講座 韓國古代史 제2권: 고대국가의 구조와 사회(1)≫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金泰植, 2004 <加耶史輕視論への批判>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110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金泰植, 2005 <4世紀의 韓日關係史－廣開土王陵碑文의 倭軍問題를 中心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1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金泰植, 2006 <5~6세기 高句麗와 加耶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高句麗歷史財團)
金泰植, 2006 <韓國 古代諸國의 對外交易－加耶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101
金泰植, 2007 <加耶와의 관계> ≪百濟文化史大系 9－百濟의 對外交涉≫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公州)
金泰植, 2008 <고대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지평－박천수, 2007. 11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한국고대사연구≫ 50 (한국고대사학회)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 (吉川弘文館, 東京)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硏究≫ (一潮閣)
旗田巍, 1975 <三國史記新羅本紀にあらわれた倭> ≪日本文化と朝鮮≫ 2
吉田晶, 1975 <古代國家の形成> ≪岩波講座日本歷史≫ 2
吉村武彦, 2006 <ヤマト王權と律令制國家の形成> ≪列島の古代史8 古代史の流れ≫ (岩波書店)
김병남, 2002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白山學報≫ 64
김병남, 2004 <백제 웅진 천도 초기의 북방영역 관련 지명 분석> ≪韓國上古史學報≫ 52
김영관, 2000 <백제의 웅진천도의 배경과 한성경영> ≪忠北史學≫ 11·12합
南在祐, 2003 ≪安羅國史≫ (혜안)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硏究≫ (一潮閣)
盧重國, 1991 <百濟의 檐魯制 實施와 編制基準> ≪啓明史學≫ 2
盧重國, 1995 <大加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硏究≫ (경상북도)
盧重國, 2005 <5세기 한일관계사 －"宋書" 倭國傳의 검토－>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1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盧重國,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高句麗歷史財團)
盧泰敦, 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硏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硏究≫ 13 (한국사연구회)
盧泰敦, 1982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硏究≫ 38 (韓國史硏究會)
盧泰敦,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硏究≫ 2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서울)
盧泰敦,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韓國古代史硏究≫ 17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上·中·下, ≪古代文化≫ 32-9·11·12 (古代學協會, 京都)

大場磐雄, 1929 ≪石上神宮寶物誌≫ (吉川弘文館)
大澤正己, 2004 <金屬組織學からみた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鐵>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都出比呂志, 1967 <農具鐵製化の二つの劃期> ≪考古學研究≫ 13-3
東潮, 1995 <榮山江流域と慕韓> ≪展望考古學≫ (考古學研究會40周年紀念論叢)
東潮, 2001 <倭と榮山江流域 －倭韓の前方後圓墳をめくって－> ≪朝鮮學報≫ 179 (朝鮮學會, 天理)
東潮, 2002 <倭と榮山江流域> 朝鮮學會 編,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東潮, 2004 <弁辰と加耶の鐵>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第五回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 (岩波新書)
藤間生大, 1968 <七支刀> ≪倭の五王≫ (岩波新書)
藤尾慎一郎, 2004 <彌生時代の鐵>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柳澤一男, 2002 <全南地方の榮山江型石室の系譜と前方後圓墳> 朝鮮學會 編,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柳澤一男, 2008 <韓國の前方後圓墳と九州>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末松保和, 1936 <新羅六部考>; 1954 ≪新羅史の諸問題≫, 재수록.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1956 再版 (吉川弘文館)
末永雅雄, 1941 <象嵌銘文を有する鉾 －七支刀> ≪日本上代の武器≫ (弘文堂)
木村誠, 2000 <百濟史料としての七支刀銘文> ≪人文學報≫ 306 (東京都立大學 人文學部)
武末純一, 2002 <日本の九州および近畿地域における韓國系遺物－土器·鐵器生産關係を中心に－>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三國의 交涉≫ (福泉博物館, 부산)
武田幸男, 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武田幸男, 1985 <四～五世紀の朝鮮諸國> 三上次男 外, ≪シンポジウム好太王碑≫ (東方書店, 東京)
文安植·이대석, 2004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영산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혜안)
朴淳發, 1997 <漢城百濟의 中央과 地方> ≪백제의 중앙과 지방≫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朴淳發, 2000 <百濟의 南遷과 榮山江流域 政治體의 再編> ≪韓國의 前方後圓墳≫ (충남대학교출판부)
朴淳發, 2001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意義> ≪朝鮮學報≫ 179 ; 2002 재수록, 朝鮮學會 編,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朴淳發, 2003 <百濟の南遷と倭> ≪檢証古代日本と百濟≫ (大巧社)
朴升圭, 1993 <慶南 西南部地域 陶質土器에 대한 硏究> ≪慶尙史學≫ 9 (慶尙大學校, 晋州)
朴燦圭, 1991 <백제 웅진초기 북경문제> ≪史學志≫ 24
朴天秀, 1995 <渡來系文物에서 본 加耶와 倭에서의 政治的 變動> ≪待兼山論叢－史學編29≫ (大阪大學 文學部, 大阪)
朴天秀, 1996 <大伽耶의 古代國家 形成> ≪碩晤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朴天秀, 1996 <日本 속의 加耶文化> ≪加耶史의 새로운 理解(發表要旨)≫ (韓國古代史研究會)
朴天秀, 1997 <政治體의 相互關係로 본 大伽耶王權> ≪加耶諸國의 王權≫ (仁濟大 加耶文化研究所編, 新書苑)
朴天秀, 1998 <대가야의 역사와 유적> ≪가야문화도록≫ (경상북도)
朴天秀, 1999 <器臺를 통하여 본 加耶勢力의 動向> ≪加耶의 그릇받침≫ (國立金海博物館)
朴天秀, 2002 <考古資料를 통해 본 古代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相互作用> ≪韓國古代史研究≫ 27 (韓國古代史學會)

朴天秀, 2002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被葬者の出自とその性格> ≪考古學研究≫ 49-2 (考古學研究會, 岡山)
朴天秀, 2003 <榮山江流域と加耶地域における倭系古墳の出現過程とその背景> ≪熊本古墳研究≫ 1 (熊本古墳研究會, 熊本)
朴天秀, 2003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出現の歷史的背景>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7 (大和書房, 東京)
朴天秀, 2004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が提起する諸問題> ≪歷史と地理≫ 577 (山川出版社, 東京)
朴天秀, 2006 <임나사현과 기문·대사를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 ≪가야, 낙동강에서 영산강으로≫ 제12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김해시)
朴天秀, 2007 ≪加耶と倭 韓半島と日本列島の考古學≫ (講談社)
朴天秀, 2007 ≪새로 쓰는 古代 韓日交涉史≫ (社會評論, 서울)
朴天秀, 2008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からみた古代の韓半島と日本列島>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白石太一郎, 2000 ≪古墳と古墳群の研究≫ (塙書房)
白石太一郎, 2002 <倭國誕生> ≪倭國誕生(日本の時代史1)≫ (吉川弘文館)
白石太一郎, 2006 <倭國の形成と展開> ≪古代史の流れ(列島の古代史8)≫ (岩波書店)
白承玉,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白承忠, 1995 ≪加耶 地域聯盟史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白承忠, 2003 <'임나일본부'와 '왜계백제관료'> ≪강좌 한국고대사≫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白承忠, 2005 <日本書紀 神功紀 소재 한일관계 기사의 성격>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광개토대왕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補考> ≪美術研究≫ 162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美術研究≫ 158
福山敏男,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 再補> ≪美術研究≫ 165
福山敏男, 1969 ≪日本建築史研究≫
福山敏男, 1971 ≪論集日本文化の起源≫ 2 (平凡社)
樋本杜人,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と其銘文> ≪朝鮮學報≫ 3 (朝鮮學會, 天理)
濱田耕策, 2005 <4世紀의 日韓關係>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山崎雅稔, 2002 <廣開土王時代の高句麗の南進と倭王權の展開> 高句麗研究會 編, ≪廣開土太王과 高句麗 南進政策≫ (學研文化社)
山尾幸久, 1978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史料の檢討を中心に－>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會 編,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卷 (吉川弘文館)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山尾幸久, 2001 <五,六世紀の日朝關係－韓國の前方後圓墳の一解釋－> ≪朝鮮學報≫ 179 (朝鮮學會)
森公章,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吉川弘文館)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 朝鮮關係記事 考證≫ 上卷 (吉川弘文館, 東京)
三品彰英, 1962 <石上神宮の七支刀>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 (吉川弘文館)
上田正昭, 1965 ≪歸化人－古代國家の成立をめぐって－≫ (中央公論社, 東京)

上田正昭, 1971 <石上神宮と七支刀> ≪日本なかの朝鮮文化≫ 9
西谷正, 2002 <韓國の前方後圓墳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會 編,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西田長男, 1956 <石上神宮の七支刀の銘文> ≪日本古典の史的研究≫ (理想社)
石母田正, 1962 <古代史概說> ≪岩波講座日本歷史≫ 1 (岩波書店, 東京)
石母田正, 1973 ≪日本古代國家論≫, 岩波書店; 1989 ≪石母田正著作集≫ 4
石井正敏, 2005 <5世紀의 日韓關係 －倭의 五王과 高句麗·百濟－>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星野恒, 1892 <七枝刀考> ≪史學雜誌≫ 37 (東京)
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 上 (塙書房)
손영종, 1983 <백제 7지도의 명문해석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1 ≪력사과학≫ 1983-4
宋桂鉉, 2000 <토론 요지: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서울)
宋桂鉉, 2004 <加耶古墳の甲冑の變化と韓日關係>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松木武彦, 1999 <古墳時代の武裝と戰鬪> ≪戰いのシステムと對外戰略≫ (東洋書林, 東京)
松下見林, 1688 ≪異稱日本傳≫ 卷下, 東國通鑑卷之一 新羅始祖八年條 註釋 "仍齎赤絹一百疋 賜任那王 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 其二國之怨 始起於此際矣 終至神功皇后得征之 蓋爲任那征之也 (中略) 於是 韓地置日本府 任宰以治之 新羅當親戴我與天地不變 而時逆天昔孟 違我恩義 數侵任那 至欽明天皇二十三年 新羅遂滅任那 自神功皇后以來五百九十三年 任那之存如此永久也 此非神功皇后之大神餘烈乎"
順天大學校 博物館, 韓國上古史學會, 2008 ≪전남동부지역의 가야문화≫, 제36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2008년 11월 14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2층 대회의실
申敬澈, 1994 <가야 초기마구에 대하여> ≪부대사학≫ 18
申敬澈, 2000 <고대의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왜>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출판부)
申敬澈,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서울)
申大坤, 2001 <榮山江流域の前方後圓墳> ≪飛鳥の王權と加賀の渡來人≫ (石川縣立歷史博物館, 金澤)
神保公子, 1981 <七支刀銘文の解釋をめぐって>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辻秀人, 2006 <榮山江流域의 前方後圓墳과 倭國 周緣地域의 前方後圓墳> ≪百濟研究≫ 4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大田)
辻秀人, 2007 <榮山江流域の前方後圓墳と倭國周緣域の前方後圓墳> ≪歷史と文化≫ 42 (東北學院大學)
安在晧·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고찰－義昌 大坪里出土品을 通하여－> ≪嶺南考古學≫ 1 (嶺南考古學會, 大邱)
安在晧, 1997 <鐵鎌의 변화와 劃期> ≪加耶考古學論叢≫ 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梁起錫, 2005 <5~6세기 백제의 북계－475~551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문제를 중심으로－> ≪博物館紀要≫ 20 (단국대학교 昔宙善기념박물관)
余昊奎, 1995 <3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과 통치체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15 (한국역사연구회)
余昊奎, 1999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韓國軍事史研究≫ 2 (國防軍史研究所, 서울)
余昊奎,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역사비평사, 서울)
延敏洙, 1990 <六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 －소위 '任那日本府'說의 究明을 위한 序章－> ≪新羅文化≫ 7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延敏洙, 1990 <任那日本府論－소위 日本府官人의 出自를 中心으로－> ≪東國史學≫ 24 (東國史學會)
延敏洙, 1992 <日本書紀の'任那の調'關係記事の檢討> ≪九州史學≫ 105
延敏洙, 1994 <七支刀銘文の再檢討 －年號の問題と製作年代を中心に－> ≪年報 朝鮮學≫ 4
延敏洙,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 －'任那日本府'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鈴木英夫, 1996 ≪古代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鈴木英夫, 2008 <韓國の前方後圓墳と倭の史的動向>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鈴木靖民, 1983 <石上神宮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坂本太郎頌壽記念日本史學論集≫ 上
鈴木靖民, 1985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岩波講座日本歷史 1(原始·古代1)≫
鈴木靖民, 1988 <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 讀賣テレビ放送 編, ≪好太王碑と集安の壁畵古墳≫ (木耳社, 東京)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日本の時代史2 倭國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東京)
奧田尙, 1976 <'任那日本府'と新羅倭典> ≪古代國家の形成と展開≫ (吉川弘文館)
王健群 著, 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서울)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出版社)
王健群, 1992 <임나일본부와 왜의 오왕> ≪가야문화≫ 5
禹在柄, 2004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墳의 出現과 그 背景> ≪湖西考古學≫ 10 (湖西考古學會)
熊谷公男, 2001 ≪日本の歷史03－大王から天皇へ≫ (講談社)
윤성용, 1997 <고구려 귀족회의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11 (한국고대사연구회)
尹龍九, 1989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 126 (歷史學會)
尹日寧, 1990 <關彌城位置考－廣開土王碑文·三國史記·大東地志를 바탕으로－> ≪北岳史論≫ 2 (국민대 국사학과)
尹貞姬, 1997 <小加耶토기의 성립과 전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栗原朋信, 1970 <七支刀の銘文よりみた日本と百濟 東晉の關係> ≪歷史教育≫ 18-4
李根雨, 1994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 학위논문)
李基白, 1978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백제연구≫ 9 (충남대 백제연구소)
李蘭暎·金斗喆, 1999 ≪韓國의 馬具≫ (韓國馬事會 馬事博物館, 果川)
李道學, 1995 ≪백제고대국가연구≫ (서울: 일지사)
李丙燾, 1937 <三韓問題의 新考察(六)> ≪震檀學報≫ 7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서울)
李丙燾, 1976 <加羅諸國의 聯盟體>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李道學,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李東熙, 2004 <전남동부지역 가야계 토기와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6
李東熙, 2006 ≪순천 운평리 고분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 (전라남도·순천시·순천대학교박물관)
李東熙, 2007 <백제의 전남 동부 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李文基, 1981 <金石文資料를 통하여 본 新羅의 六部> ≪歷史教育論集≫ 2
李文基,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中古期의 六部問題> ≪韓國古代史研究≫ 2
李丙燾, 1974 <百濟七支刀考> ≪震檀學報≫ 38 (진단학회, 서울)
李盛周, 1999 <考古學을 통해 본 阿羅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제23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이연심, 2004 <임나일본부의 성격 재론> ≪지역과 역사≫ 14 (부경역사연구소)

李永植, 1985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加耶聯盟說의 再檢討와 戰爭記事分析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32
李永植, 1988 <5세기 倭王 稱號의 해석을 둘러싼 一視角> ≪史叢≫ 34 (서울)
李永植, 1990 <古代日本の任那派遣氏族の研究－的臣·吉備臣·河內直を中心として－>, 富士ゼロックス·小林節太郎記念基金1989年度研究助成論文
李永植,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東京)
李永植, 1995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社會硏究所 편, ≪韓國古代史論叢≫ 7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서울)
李暎澈, 2006 <前方後圓形古墳と墳周土器> ≪海を渡った日本文化≫ (鑛脈社)
李鎔賢, 1997 <五世紀末における加耶の高句麗接近と挫折> ≪東アジアの古代文化≫ 90
李鎔賢, 1999 ≪加耶と東アジア諸國≫ (日本 國學院大學 博士學位論文)
李鎔賢, 2008 <韓國古代における全羅道と百濟·加耶·倭>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李在碩, 2004 <소위 任那問題의 過去와 現在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전남사학≫ 23
이정호, 1999 <영산강유역의 고분 변천과정과 그 배경> 崔盛洛 編著, ≪榮山江流域의 古代社會≫ (學硏文化社)
李鍾旭, 1980 <新羅上古時代의 六村과 六部> ≪震檀學報≫ 49
李進熙, 1987 <日本にある百濟の金石史料> ≪馬韓百濟文化硏究の成果と課題(第九回馬韓百濟文化國際學術會議)≫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李漢祥, 1995 <5～6세기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韓國史論≫ 3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硏究≫ 1 (韓國古代史硏究會)
李賢惠, 2000 <4~5세기 영산강 유역 토착세력의 성격> ≪歷史學報≫ 166
李炯基, 2009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硏究≫ (景仁文化社)
李熙濬, 1995 <토기로 본 대가야의 권역과 그 변천>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李熙濬,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日韓歷史共同硏究委員會, 2005 ≪日韓歷史共同硏究報告書 第1分科篇≫ (韓歷史共同硏究委員會, 東京)
林起煥,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 ≪歷史學報≫ 147 (歷史學會)
林起煥, 1995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林起煥,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서울)
林起煥, 2004 <고구려와 낙랑의 관계> ≪韓國古代史硏究≫ 34 (한국고대사학회)
林永珍, 1997 <湖南地域 石室墳과 백제의 관계> ≪湖南考古學의 제문제(제21회 한국고고학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林永珍, 2000 <영산강유역 석실봉토분의 성격>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새로운 조명≫ (역사문화학회·목포대박물관, 목포)
林永珍, 2003 <百濟の成長と馬韓勢力, そして倭> ≪檢証古代日本と百濟≫ (大巧社)
全德在, 1992 <新羅 6部體制의 變動過程 硏究> ≪韓國史硏究≫ 77
全德在, 1996 ≪新羅六部體制硏究≫ (一潮閣)
全德在, 2000 <7세기 중반 관직에 대한 관등규정의 정비와 골품제의 확립> 河一植 외 5인 공저, ≪한국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의 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田中俊明, 2001 <韓國の前方後圓形古墳の被葬者·造墓集團に對する私見> ≪朝鮮學報≫ 179 ; 2002

재수록, 朝鮮學會編,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田中晋作, 1990 <百舌鳥·古市古墳群の被葬者の性格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22 (古代學協會)
田中晋作, 2000 <巴形銅器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51
田中晋作, 2004 <古墳時代の軍事組織につい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地名考> ≪雜攷≫ 7 下卷
井上秀雄, 1959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について> ≪國史論叢≫ 1
井上秀雄, 1966 <任那日本府の行政組織> ≪日本書紀研究≫ 2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
鄭孝雲, 2005 <6世紀東アジア政勢と'任那日本府'> ≪日語日文學≫ 27 (大韓日語日文學會)
鄭孝雲, 2007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임나일본부'> ≪동북아문화연구≫ 13
趙榮濟, 1986 <西部慶南 爐形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史學≫ 2 (慶尙大學校, 晉州)
佐伯有淸, 1977 ≪七支刀と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朱甫暾, 1982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 ≪慶北史學≫ 4
朱甫暾, 1992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朱甫暾, 1995 <序說 -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朱甫暾, 2000 <백제의 영산강유역 지배방식과 전방후원분 피장자의 성격>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출판부)
酒井淸治, 2001 <倭における初期須惠器の系譜と渡來人> ≪4~5世紀 東亞細亞 社會와 加耶(제7회 加耶史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김해)
中村潤子, 1991 <騎馬民族說の考古學> ≪考古學その見方と解釋≫ (筑摩書房) ; 森浩一 編, 1993 ≪馬の文化叢書 第一卷 古代-埋もれた馬文化≫ (馬事文化財團, 横浜) 再收錄
曾野壽彦, 1955 <新羅の十七等の官位成立の年代についての考察> ≪古代研究≫ Ⅱ (東京大 敎養學部)
直木孝次郎, 1988 <神功皇后傳說の成立> ≪古代日本と朝鮮·中國≫ (講談社學術文庫)
千寬宇, 1976 <三韓의 국가형성> ≪韓國學報≫ 3 (一志社)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 上·中·下, ≪문학과 지성≫ 28·29·31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千賀久, 2002 <加耶と倭の馬文化>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千賀久, 2004 <日本出土の'非新羅系'馬裝具の系譜-大加耶圈の馬具との比較を中心に->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第五回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請田正幸, 1974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 -任那'日本府'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村上英之助, 1978 <考古學から見た七支刀の製作年代> ≪考古學研究≫ 25-3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崔秉鉉, 1992 <考古學的으로 본 加耶와 日本의 관계> ≪韓國史市民講座≫ 11 (一潮閣, 서울)
崔在錫, 1987 <新羅의 六村·六部>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忠北大學校博物館, 2004 ≪淸源 南城谷 高句麗遺蹟≫
土生田純之, 2000 <韓日 前方後圓墳의 比較檢討> ≪韓國의 前方後圓墳≫ (충남대출판부) ; 2006 ≪古墳時代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土生田純之, 2008 <前方後圓墳をめぐる韓と倭>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樋口隆康, 1972 <武寧王陵出土鏡と七子鏡> ≪史林≫ 55-4

坂本太郎外 3인, 1965 ≪日本書紀 下(日本古典文學大系 68)≫ (岩波書店)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大王の成立をめぐって－>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八木充, 1963 <任那支配の二形態> ≪山口大學大學會誌≫ 14-2
八木充, 1964 <大伴金村の失脚－官家支配から日本府支配へ－> ≪日本書紀研究≫ 1
平野邦雄, 1980 <金石文の史實と倭五王の通交> ≪岩波講座 日本歷史 1(原始·古代1)≫ (岩波書店)
咸舜燮, 2002 <신라와 가야의 冠에 대한 序說> ≪大加耶와 周邊諸國≫ (高靈郡·韓國上古史學會)
穴澤義功, 2004 <日本古代の鐵生產>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佐倉)
喜田貞吉, 1918 <石上神宮の神寶七枝刀> ≪民族と歷史≫ 1-1

古代 王權의 成長과 日韓關係

－4~6세기－

모리 기미유키(森 公章)
하마다 고사쿠(濱田 耕策, 제1장)

序論
제1장 4세기의 일한관계
제1절 낙랑·대방 2군의 멸망과 일한관계－삼한의 동향과 왜국－
제2절 칠지도 명문의 일한관계－백제의 국가 형성과 왜국－
제3절 광개토왕비문의 일한관계－고구려·신라의 국가 형성과 왜국－
제2장 5세기의 일한관계
제1절 왜국·한반도 제국과 중국 남북조와의 통교
1. 왜의 5왕과 중국 남조와의 통교
2. 관작의 제수와 그 의미
3. 왜 왕권의 성장과 府官制的 질서의 도입 및 도래인의 역할
제2절 백제의 남천과 왜국의 외교 정책
1. 왜왕 무와 백제왕 여경·모대의 상표문
2.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과 백제
3. 왜계 백제 관료의 생성
4. 가야 제국의 정세와 왜국·백제·신라
제3장 6세기의 일한관계
제1절 가야 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분쟁과 왜국
1. 백제의 己汶·帶沙 침공과 왜국
2. 금관국의 흥망과 왜국
3. 안라를 둘러싼 백제·왜국의 방책
4. '임나'의 용법과 '임나일본부'('재안라제왜신등')의 실태
5. 백제 성명왕의 패사와 가야 제국의 행방
제2절 가야 제국 멸망 후의 한반도 제국과 왜국
1. 왜·백제 관계의 추이
2. '임나조'를 둘러싼 왜국과 신라의 관계
3. 왜국과 한반도 제국과의 등거리 외교
맺음말

【國文抄錄】

4·5·6세기의 일한관계라고 하면, 그 중심적 과제 중 하나로써 '임나'문제를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임나일본부'라는 것이 한반도의 남부에 존재하며, 왜왕권의 파견기관 내

지는 반도경영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견해가 크게 변경되어, 사료용어로써 '임나' 또는 '임나일본부'가 사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반도남부의 역사는 가야 제국과 그 흥망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4~6세기의 일한관계를 이해하는 오늘날의 시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4세기는 일본측에 신뢰할 수 있는 문헌사료가 적어서 '수수께끼의 4세기'라고 일컬어져 왔다. '칠지도'와 '광개토왕비문'의 두 가지 해외사료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설명되어 온 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백제와 고구려의 왕권에 의한 외교와 전쟁의 기록인 이러한 사료들에 등장하는 '왜왕'이나 '왜' 등은 일본열도의 통일적 왕권과 그 세력으로 간주되며, 여기서는 문헌과 이 금석문 사료로부터 판단되는 4세기의 일한관계를 둘러싼 연구 성과의 문제점에 대해, 제1기의 본 위원회의 보고 '4세기의 일한관계'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위원 집필〕를 수정, 보충해 가면서 정리했다.

5세기에 관해서는 우선 왜의 5왕이 중국남조의 송에 요구한 관작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군사권의 위임을 보일 뿐이고 민정권이나 영토지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이해되기에 이르렀지만, 그 중에서 진한·모한에 무언가 실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바이다. 진한의 실태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한에 관해서는 1980년대에 그 존재가 확정된 한반도 서남부 전라남도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하다. 고고학적 입장에서는 영산강유역이 완전히 백제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은 6세기 중엽 이후의 일로써, 전방후원분은 그 최종적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6세기 전반 무렵까지 백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백제와 관계를 돈독히 해가면서도 왜국 내의 여러 세력, 특히 규슈의 중·북부 세력, 그리고 대가야와도 제휴하는 독자적 세력이 존립하고 있었다고 보고 여기에 '慕韓', 즉 馬韓의 잔존세력의 존재를 상정하면 어떨까 한다. 단, 그 문화적 특징으로 보아 이 지역은 백제도 아니고 가야도 아니며 물론 왜국의 영토도 아니다. 이러한 자립적 지역의 존재와 다원적 외교의 가능성이 5세기의 일한관계를 특징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5세기의 왜와 한반도 諸國의 다원적 관계가, 왜 – 백제관계 일변도가 되는 것이 6세기이며, 가야 諸國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분쟁 발발,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백제 지지입장으로 끼어있는 왜의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임나일본부'의 이해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재안라제왜신등'이 당시의 표기에 가깝고, 그 실태는 가야지역에 거주하는 왜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왜국의 조정과는 독자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본국인 왜국의 조정, 또는 각각의 출신호족과도 몇몇 파이

프라인을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스스로의 존립·활동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 유지를 희망하는 안라 등 잔존 가야 諸國과 공동으로 백제와 신라, 왜국, 나아가서는 고구려와도 외교 교섭을 하고 그 때마다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는 행동을 취했다. 또한 왕권의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6세기 중엽의 가야 諸國 멸망 후에, 왜 왕권은 이러한 지방호족의 독자적 활동이나 외교권을 접수하여 7세기에 중앙집권국가 확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주제어 : 백제계 사료, ≪삼국사기≫, 칠지도, 광개토왕비문, 왜의 5왕,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 다원적 관계, 가야, 안라, 재안라제왜신

序 論

4·5·6세기의 일한관계라고 하면, 그 중심적 과제중 하나로써 '임나'문제가 거론된다. 해당 시기의 역사를 생각함에 있어서, 일본 측의 중심적 문헌사료가 되는 ≪일본서기≫에서는, 신대기의 스사노오의 신라 또는 '韓鄕之島'에 대한 강하기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초의 외교기사는 崇神 65년(기원전 33?) 7월조이며, 垂仁 2년(기원전 28?) 是歲條에 의하면, 任那人蘇那曷叱知＝意富加羅國王之子都怒我阿羅斯等(별명을 于斯岐阿利叱智于岐라고 하고, '蘇'는 '于斯'의 조선어 sio을, '那曷'은 '岐(來)'와 같은 뜻인 '나가다' '가다'의 조선어 어근 na-ka를 묘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의 내항이 기술되어 있다. '임나'＝의부가라＝대가락(≪삼국유사≫ 권2 所引 '가락국기')은 남부 가야 제국의 유력국 중 하나인 금관국을 지칭하며, 금관국은 ≪위지≫ 왜인전에 왜국의 북쪽 해안이라고 나오는 구야한국을 이어받은 나라이므로, 崇神·垂仁紀의 기년은 제쳐 두더라도, 일찍부터 왜국과 통교관계에 있던 반도남부의 변진지역과의 교류가 ≪일본서기≫의 외교기사의 벽두를 장식하는 것은 걸맞는 것이라 하겠다.

≪일본서기≫에는 6세기의 繼體·欽明紀를 중심으로, '임나'나 '일본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임나일본부' 라는 것이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며, 왜 왕권(대화조정, 야마토 정권, 야마토 왕권 등 갖가지 호칭법이 존재하지만, 왜국의 왕권라는 의미로 본고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의 파견기관 내지는 반도경영의 거점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임나일본부'의 설치는 4세기 후반 왜왕권의 한반도 남부로의 진출(고구려 광개토왕비문에 의한) 시기이며, 처음에는 군사적 거점의 확보＝'임나'(금관국)의 군사적 통괄 형태, 軍屯的 관가로서의 지배였지만 6세기에 들어오자 백제·신라의 '임나'諸國에 대한 침입이 심하게 되어, 행정·외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일본부'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562년 신라가 '임나' 제국을 병탄하여 '임나' 제국은 멸망하고, 왜왕권의 '임나' 지배, '일본부'의 존재도 종료되는 것이다(주1). 즉, 왜왕권은 한반도 남부에 '임나'라는 영토를 갖고 있어서, 4~6세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세기의 왜 왕권의 외교활동은 이 '임나'의 보전·부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잃고 말았다고 보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현재로서는 크게 변경되고 있어서 사료 용어로서 '임나' '임나일본부'가 사용되는 것은 있지만, 반도 남부는 가야 제국과 그 흥망으로서 설명되고 있

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배경으로서, '임나'문제의 전제로서의 4·5세기의 양상에 대해서 4세기 말의 왜·백제관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石上神宮의 七支刀(奈良縣 天理市), 4세기 말~5세기 초 왜의 반도에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고구려 광개토왕비문(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집안시), ≪宋書≫ 倭國傳에 등장하는 5세기의 왜 5왕의 외교와 내정 등, ≪일본서기≫ 이외의 문헌사료에 대한 고찰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일본서기≫ 그 자체의 비판적 검토도 크게 진전한 것이 지적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임나' 문제는4~6세기의 일한관계에서 하나의 초점이 되며, 6세기의 '임나' 문제 그 자체의 이해에 대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연구의 경위나 최근 견해의 정리는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하의 서술 전체에 관한 문제로서, ≪일본서기≫, 특히 그 외교기사의 원 사료가 된 백제계 사료에 대해서 연구사와 오늘날의 견해를 종합해 두고자 한다. 720년(養老4)에 완성된 ≪일본서기≫는 6세기 무렵부터 존재한 '帝紀' '舊辭'를 중심으로, 조정의 여러 기록, 호족들의 가문 기록, 지방의 전승, 개인의 수기·각서, 사원 기록, 그리고 중국의 사서 및 백제계 사료 등 갖가지 사료를 소재로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주2) 그 가운데에서 4~6세기의 일한관계를 생각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한반도 제국과의 통교에 관해서는 4·5세기에 대해서는 ≪백제기≫, 5세기 후반의 한 시기에 ≪백제신찬≫, 6세기의 '임나문제'에 관한 부분은 ≪백제본기≫와 백제계 사료, 이른바 백제삼서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백제계 사료는 12干支로 연차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 ≪일본서기≫ 神功 46년(≪일본서기≫의 紀年으로는 246년)조의 백제와의 관계의 단서, 또는 神功 52년(252)조의 칠지도의 기사에서는 간지 2運, 즉 120년을 더하면(紀年을 수정한 修正紀年), ≪일본서기≫의 기년이 중국·조선의 사서나 금석문과 연대가 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광개토왕비문 영락 9년(399)조에 백제가 왜와 '和通'했다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阿莘王 6년(397) 5월조에 백제가 태자 腆支를 '인질'로서 왜국에 파견했다는 기사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일본서기≫ 應神 8년 3월조 分註所引 ≪백제기≫의 "百濟記云, 阿花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及峴南·支侵·谷那·東韓之地. 是以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에서 應神 8년은 ≪일본서기≫의 기년으로는 277년이지만, 120년을 가산하면 397년이 되어, 한국 측의 문헌사료·금석문의 기술과 합치하게 된다. 기사에 따라서는 다시 60년을 가산하여 간지 3운을 내려야만 하지만(주3), 이러한 형태로 ≪일본서기≫의 기사를 중국·한국 측의 사료와 대조할 수 있는

것은, 백제계 사료의 유용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百濟三書의 성립 시기나 특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제시되고 있다.

A.【津田左右吉 1963, 池內宏 1970 등】 원래는 백제에서 편찬된 通期的인 사적이었고, 7세기 후반의 망명 백제인이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서기≫ 편자의 손에는 각각 부분적으로 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편자는 이것을 사료로 하면서도 대담한 개변이나 윤색을 가하여 기원설화를 만들기도 하고 일본의 사상을 보이려 했다.

B.【今西龍 1970, 三品彰英 1962, 井上秀雄 1973 등】 6세기 말에 백제가 대왜정책의 필요상 편찬하여 제출한 것이다. 삼서는 각각 다룬 시대가 달라서, 그 성질상 백체측의 의도적 개변이나 윤색 또는 정치적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편자는 일관되게 그 원문이나 영합적 기술을 존중했다.

C.【木下禮仁 1974】 三書의 자음 가나는 '推古朝遺文'(7세기 전반의 推古朝의 것으로 생각되는 금석문 등의 1차 사료)의 그것과 지극히 높은 근사성을 보여, 8세기 나라시대의 것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따라서 삼서는 推古朝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에 '推古朝遺文'을 남긴 것과 같은 흐름을 타는 문화 담당자가 만든 것임을 보여준다.

D.【坂本太郎 1961, 丁仲煥 1974, 久信田喜一 1974, 鈴木靖民 1974, 山尾幸久 1977·1987 등】 三書의 원형은 백제의 기록 또는 사적이지만, 7세기 후반의 망명 백제인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 편찬하여, ≪일본서기≫의 修史局에 제출했다. 각각 특정 시대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에게 불리한 것을 지우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각종 變改, 윤색이 있다.

본고에서는 학설 인용 부분을 제외하고, 왜, 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국호나 군주호로서의 천황호가 7세기 후반의 天武·持統朝 무렵에 성립했다는 오늘날의 유력 학설에 의거한 것이다.(주4) 그 배경에는 이전에 유력하다고 여겨져 온 天皇號 推古朝 성립설을 지지하는 '推古朝遺文'이라 칭하여지는 금석문 등의 기재가 天智朝 또는 天武·持統朝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되게 된 것(주5), 고대국가, 중앙집권적 율령국가 성립의 획기로서의 推古朝, 乙巳의 變('大化改新')이라는 견해에 의문이 제시되어, 오히려 663년의 백촌강에서의 패전이나 672년의 壬申의 亂을 거쳐 온 天武·持統朝의 획기성이

주목되게 된 점 등이 있다.(주6) 백제삼서에는 '일본' '천황'이라는 말이 존재하여, 왜국을 지칭하여 '貴國'이라 칭하는 공통의 용어법과도 맞물려 있어, 현 단계에서는 百濟三書의 성격으로서는 D說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일본서기≫의 본문에 사용된 百濟三書의 기술 중에는, 百濟三書의 근본이 된 백제 史籍의 필치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어서 【熊谷公男 2005, 中野高行 2007】, 그러한 기술·용어의 변별에 힘쓸 필요도 있는 점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0-01 ≪일본서기≫ 欽明 15년(554) 12월조

百濟遣下部杆率汶斯干奴上表曰, 百濟王臣明及在安羅諸倭臣等·任那諸國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狛同心欲殘滅海北彌移居. 臣等共議遣有至臣等仰乞軍士, 征伐斯羅. 而天皇遣有至臣帥軍以六月至來, 臣等深用歡喜. 以十二月九日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哥武連, 領其方軍士攻函山城. 有至臣所將來民竹斯物部莫奇委沙奇能射火箭, 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焚城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 別奏, 若但斯羅者, 有至臣所將軍士亦可足矣. 今狛與斯羅, 同心戮力, 難可成功. 伏願速遣竹斯嶋上諸軍士, 來助臣國. 又助任那, 則事可成. 又奏, 臣別遣軍士萬人助任那, 幷以奏聞. 今事方急, 單船遣奏. 但奉好錦二疋·騚氈一領·斧三百口及所獲城民男二·女五. 輕薄追用悚懼.≫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久廢眠食, 父慈多闕,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斷道擊破. 是時新羅謂佐知村飼馬奴苦都<更名谷智>曰, 苦都賤奴也. 明王名主也. 今使賤奴殺名主, 冀傳後世莫忘於口. 已而苦都乃獲明王, 再拜曰, 請斬王首. 明王對曰, 王頭不合受奴手. 苦都曰, 我國法違背所盟, 雖曰國王當受奴手. <一本云, 明王乘踞胡床, 解授佩刀於谷知令斬. >明王仰天大息涕泣, 許諾曰, 寡人每念, 常痛入骨髓, 願計不可苟活. 乃延首受斬. 苦都斬首而殺,掘坎而埋. <一本云, 新羅留理明王頭骨, 而以禮送餘骨於百濟. 今新羅王埋明王骨於北廳階下, 名此廳曰都堂.> 餘昌遂見圍繞, 欲出不得, 士卒遑駭不知所圖. 有能射人筑紫國造, 進而彎弓占擬, 射落新羅騎卒最勇壯者, 發箭之利通所乘鞍前後橋及其被甲領會也, 復續發箭如雨, 彌厲不懈, 射却圍軍. 由是, 餘昌及諸將等得從間道逃歸. 餘昌讚國造射却圍軍, 尊而名曰鞍橋君<鞍橋,此云矩羅賦>. 於是, 新羅將等具知百濟疲盡, 遂欲謀滅無餘. 有一將云, 不可. 日本天皇以任那事, 屢責吾國. 况復謀滅百濟官家,必招後患. 故止之.

예를 들면, 사료 01은 백제 성명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敗死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서 그 시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백제본기>에 의거한 기사로서 자리매김 된다. 이 기사의 전반부분(≫표시까지의 부분)에는 '斯羅'(신라), '狛'(고려, 고구려), '在安羅諸倭臣等'(일본부),그리고 '竹斯嶋'(築紫島), '有致臣'(內臣) 등의 표기(괄호 안은 통상의 표기)가 있어서, <백제본기>의 원형에 가까운 문장이 남겨져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海北'이라는 말이나 '彌移居'(官家) 用字【弥永貞三 1964】또한 백제계 사료 본래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백제왕자 余昌의 돌출과 聖明王 死去의 장면을 전하는 후반 부분은 용어도 달라서, <백제본기>가 대폭 개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제계 사료에는 백제 왕족이나 백제 출신의 귀족이 왜국에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에 백제가 '천황'에게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기술한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백제계 사료의 작성 의도에 의한 윤색과 ≪일본서기≫ 편찬 시의 조작·윤색을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松波宏隆 1993】. 왜국의 대외 관계에서는 불교의 도입 등 백제와의 관계가 중시되어 왔지만, 이러한 백제 중심의 사관은 ≪일본서기≫의 사료적 성격에 다분히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백제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그 실상을 재검토하여 다른 한반도 제국과의 다원적 관계를 주의해서 살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시점에서의 새로운 연구 축적도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일본서기≫의 사료적 특성에도 유의하면서 각종 사료 검토 위에서 고대 일한관계의 여러 모습과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주1)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井上秀雄, 1973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について>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초출 1959년 ; 八木充, 1968 <大和國家の任那地排> ≪律令國家成立過程の研究≫ (塙書房), 초출 1963년 등.

(주2) 坂本太郎, 1970 ≪六國史≫ (吉川弘文館) ; 1966 日本古典文學大系≪日本書紀≫上(岩波書店) '解說' 등.

(주3) ≪日本書紀≫應神 37年(丙寅＝306＋120→426) 2月 戊午朔條 '遣阿知使主·都加使主於吳,令求縫工女. (中略)吳主於是与工女兄媛·弟媛,吳織·穴織四婦女. '과 雄略 14년 (庚戌＝470)정월 戊寅條 '身狹村主靑等共吳國使, 將吳所獻手末才伎漢織·吳織及衣縫兄媛·弟媛等泊於住吉津.' 는 같은 일이 중복되어 나타난 기사로 생각되며, 雄略朝의 일을 應神朝에서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는 干支는 같다고 해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간지의 3運을 가산해야 하는 사유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4) 森公章, 1998 <天皇号の成立をめぐって>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초출 1983년 ; 2006 <日本國王と天皇号> ≪新体系日本史≫1 國家史 (山川出版社)

(주5) 東野治之, 2004 ≪日本古代金石文の研究≫ (岩波書店)

(주6) 鈴木靖民, 1980 ≪古代國家史研究の歩み≫ (新人物往來社) ; 森公章, 2002 <倭國から日本へ> ≪日本の時代史≫3 倭國から日本へ, (吉川弘文館) 등을 참조.

【참고문헌】

○池內宏, 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の行政組織>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今西龍, 1970 <百濟史講話> ≪百濟史研究≫ (國書刊行會)
○弥永貞三, 1964 <官家·彌移居考>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35→1980 ≪日本古代社會經濟史研究≫ (岩波書店)
○木下禮二, 1974 <≪日本書紀≫にみえる≪百濟史料≫の史料的価値について> ≪古代日本と朝鮮≫ (學生社)
○久信田喜一, 1974 <「百濟本記」考> ≪日本歷史≫ 309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檢討> ≪東北學院大學論集≫29
○坂本太郎, 1961 <繼體紀の史料批判> ≪國學院雜誌≫ 62-9→1964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上 (東京大學出版會)
○鈴木靖民, 1974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および倭問題> ≪歷史學研究≫ 405
○丁仲煥, 1974 <≪日本書紀≫に引用された百濟三書について>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津田左右吉, 1963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津田左右吉全集≫2 (岩波書店)
○中野高行, 2007 <≪日本書紀≫における<任那日本府>像> ≪新羅史學報≫ 10(≪政治と宗教の古代史≫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4の改訂版·韓國語譯)
○松波宏隆, 1993 <<任那復興會議>關係記事と≪百濟本紀≫> ≪國史學研究≫ 19
○三品彰英, 1962 <百濟記·百濟新撰·百濟本記>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 (吉川弘文館)
○山尾幸久, 1977 <百濟三書と日本書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5
○山尾幸久, 1987 <≪日本書紀≫と百濟系史料> ≪立命館文學≫ 500

제1장 4세기의 일한관계

제1절 낙랑·대방 두 군의 멸망과 일한관계 －삼한의 동향과 왜국－

BC 2세기 말부터 AD 4세기 초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와 열도의 왜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왕조가 반도의 중·서북부에 두었던 낙랑·대방의 두 군과의 교섭과 이곳을 통해 왕조의 수도 낙양으로 사신 파견이 진행됨으로 인해, 통교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중원 왕조와의 臣屬 관계를 매개로 하여 맺어진 상호 견사·통교의 서클과 같은 양상이 생기게 됨으로써, 두 군이 요동으로 철수하기까지는 그곳에는 전쟁이나 대립과 같은 어려운 사태는 발생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중국왕조와 그 파견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군으로 통하는 '惑星'과 같은 관계인 반도와 열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군현에 대적하는 고구려의 무력은 2군이 방파제의 위치에 있어서 한과 왜의 지역에는 그 압력이 미치기 어려웠고, 고구려의 공격을 받는 2군으로부터는 그 피난민을 맞이했었다.

이러한 견사·통교 서클 가운데에서 왜국은 그 외연에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중국왕조나 2군에서는 유리한 일면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전한으로부터 위를 거쳐 서진왕조에 이르기까지 중국왕조가 전통적으로 채용하는 원교근공책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중국황제의 덕치를 이민족 사회로 확장하는 입장으로부터 중국왕조와 왜국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자리하고 2군을 매개로 하여 일찍이 황제의 덕치를 입은 韓 諸國은 외연에 있는 왜국의 중국왕조에 대한 통교를 촉진시킴이 요구되지만,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 덕치가 자신의 사회에도 보다 크게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왜국의 卑弥呼가 두 군과 위의 수도로 사신을 파견하고, 우대받은 것도 韓 諸國의 이러한 위치 때문에 왜국의 통교에 '重譯'을 비롯한 '職約'에서 제공되는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위가 吳에 대항하는 군사적 입장에서 왜국을 높이 평가했음에도 근거한다【西嶋 1999, 大庭 2001, 堀 2006】.

왜국이 두 군과 이것을 매개로 하여 중국의 여러 왕조와 잘 통교한 배경에는 왜국 내부의 요인과 함께 중국왕조의 대외 관계의 구조 유지 원리와 왜와의 중간에 있는 韓 諸國의 '職約'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통교의 요충이 되는 변한의 狗邪國이

나 瀆盧國, 그리고 낙랑, 대방 두 군에 접하고, 한반도 서부에 위치하는 마한의 여러 나라가 왜국의 중국 통교에 협조하는 '職約'의 자세이다. '職約'의 수행 가운데에서 문화가 가치로서 교류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왜국과 加羅, 그리고 백제와의 길고도 견고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시킨 근원 중 한 가지로 생각된다【西嶋 1983】.

그런데 이 중국왕조와 韓 諸國과 왜국을 이어주는 遣使·通交를 위협하는 존재가 동북부의 고구려이며, 그 고구려의 행동을 용이하게 해 준 국제환경은 서북의 흉노나 선비족이 중국왕조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여 고구려의 미천왕이 파견한 군대는 313년에 두 군을 공격하여 郡治를 중국 내부로 철수시킴으로 한반도의 중·서북부에 약 400년이나 되는 동안 계속된 중국왕조에 의한 반도 서북부에 있어서의 군현 지배와 반도 남부에 대한 간접 통제는 소멸되었다.

그 연대는 ≪梁書≫나 ≪資治通鑑≫에는 建興 원년(313)에 乙弗利(미천왕)가 이끈 군대가 두 군을 지배하는 요동의 장통과 모용외를 공격했다고 기록하지만, 이에 응하여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가 313년에 낙랑군을 공격하고,이어서 다음 해인 314년에는 대방군을 공격했다고 편년한다. (【사료1】 참조)

【사료 Ⅰ】

① ≪梁書≫卷54·列傳48·高句驪 '晋永嘉亂(307～312), 鮮卑慕容廆, 據昌黎大棘城, 元帝授平州刺史, 句驪王乙弗利, 頻寇遼東, 廆不能制'

② ≪資治通鑑≫卷88·晋紀10·孝愍帝上·建興元年(313)·夏4月條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美川王)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 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 廆爲之置樂浪郡,以統爲太守,遵參軍事'

≪三國史記≫卷17·高句麗本紀

③ 美川王3年(302) 秋九月, 王率兵三万侵玄菟郡, 虜獲八千人, 移之平壤.

④ 同 12年(311) 秋八月, 遣將襲取遼東西安平.

⑤ 同 14年(313) 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余口.

⑥ 同 15年(314) 秋九月, 南侵帶方郡.

⑦ 同 16年(315) 春二月, 攻破玄菟城, 殺獲甚衆.

두 군의 통치 장소가 요동으로 이전된 것, 즉 중국왕조의 군현 지배기구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한반도 서북부로부터 철수되었다 해도, 바로 고구려가 옛 군현의 토지와 백성을 그 지배 구조 가운데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었다. 두 군의 철수 후에도 군현의 옛 땅에서 동진의 연호를 찍은 벽돌에는 '韓氏' '孫氏' 등 중국인 집단의 성격을 농후하게

가진 정착형 씨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朝鮮總督府 1933】. 고구려가 이러한 토지와 세력을 통합하는 데는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까지 약 1세기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의 중서·서북부로부터 두 군이 소멸되었다고 해도 고구려와 韓 諸國 사이에 완충지대가 남아있게 되었지만, 3세기에 빈번히 진행되었던 韓 諸國과 이에 嚮導된 왜의 견사 서클과 같은 관계는 그 구심점이 소멸된 것, 또한 낙랑·대방 두 군의 옛 민족의 일부가 韓의 사회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한 諸國의 정치사회 내부에 변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 변동은 왜국에도 정치 변화를 발생시켜, 백제 그리고 조금 뒤늦게 신라, 더욱이 加羅와 왜국에서 왕권의 권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열도의 역사는 '수수께끼의 4세기'로 일컬어지듯이 4세기 열도 지역의 정치동향을 전하는 문헌기록은 부족하다. 중국왕조와 통교하며 조공을 드린 기사가 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두 군이 철수한 상태이고, 그 지역을 점거하고 있던 고구려가 통교 및 조공에는 장해가 된 것,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반도 지역에서는 마한과 진한, 그리고 열도 지역에서는 야마타이국으로부터 야마토 왕권의 왜국이 탄생하는 왕권 형성이 진행되었던 것이다【西嶋 1985】.

따라서 두 군의 요동으로의 철수 후 동아시아 동향은 한층 변동된다. 서진이 316년에 멸망하고, 318년에는 建業(南京)에 동진이 다시 부흥되었지만, 화북에서 五胡왕조가 흥망하는 중국의 정세에 대응하여, 동북의 고구려는 慕容氏 정권과의 대립을 축으로 하여 五胡16國과의 사이에 대립과 통교를 번갈아 하는 복잡한 관계가 계속된다. 이 고구려가 북쪽 이웃 세력에 대응하는 동안 남쪽의 삼한과 왜에도 고구려의 이 동향과 관련되는 새로운 변동이 생기게 된다.

【사료Ⅱ】

① ≪晋書≫ 卷6·元帝 '太興二年(319)十二月. 鮮卑慕容廆襲遼東. 東夷校尉平州刺史崔毖奔高句驪'
② ≪資治通鑑≫ 卷91·晋紀13·中宗 '太興二年(319)十二月 … 中略 … 高句麗數寇遼東. 廆遣慕容翰·慕容仁伐之. 高句麗王 乙弗利逆來求盟. 翰·仁乃還'
③ ≪晋書≫ 卷百八·慕容廆載紀 '明年(320). 高句麗寇遼東. 廆遣衆擊敗之'
④ ≪晋書≫ 卷百五·石勒載紀 '時(330). 高句麗·肅愼致其楛矢. 宇文·屋孤, 竝獻名馬于勒'
⑤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4年(334) '秋八月,增築平壤城'
⑥ 同 故國原王5年(335) '春正月,築國北新城'

고구려는 慕容氏 정권에 대하여 축성으로 대표되는 방위체제를 강화했다. 그 한편에서는 慕容皝에 패배한 慕容仁의 막하에 있는 佟壽 또는 後趙의 宋晃 등의 망명을 수용하여(336, 338년), 慕容氏와의 긴장관계나 장래를 대비한 방책을 취했다. 341년에 고구려는 남북으로부터 5만 5천의 燕軍의 진격을 받자, 고국원왕은 작전을 잘못 짜서 丸都城을 燕軍에게 빼앗기고 고국원왕은 수도에서 遁走했으며, 부친인 미천왕의 묘를 燕軍이 파헤치고 그 시체까지 빼앗기는 굴욕을 겪은 이외에도 王母와 왕비뿐 아니라 보물과 5만여 남녀를 약탈당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고국원왕은 다음 해에 燕王皝 하에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치고 그 신하가 됨으로써 부친 미천왕의 시체를 되돌려 받았지만 모친은 계속 인질로서 前燕에 잡혀 있었다.

고구려는 호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前燕에 대한 신하의 자세는 확고하지 않아서 왕은 일단 남쪽으로 옮겨 살며, 343년에는 동진에 조공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래서 고구려는 345년에는 前燕의 공격을 받았고, 다음 해에는 전연이 만 7천 명의 기병을 보내어 부여를 정벌하고 그 왕을 포로로 만든 공세에 직면하여, 349년에는 고구려에 망명했던 송황을 前燕에 되돌려 보내어 여기서 복종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고국원왕은 355년 12월에 前燕에 인질을 보내어 복종의 자세를 굳히자 14년 만에 모친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국원왕의 내외적 시책은 드디어 반세기 후에 광개토왕대의 대외정책을 반도 남부로 전개함에 이르는 진통이기도 하다. 고국원왕은 334년에 평양성을 증축했지만, 336년에 동진에 조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또한 343년에는 옛 대방군 치하의 黃城으로 고국원왕이 전연의 공세로부터 피난할 수 있었음에도 두 군의 옛 지역의 세력에 대한 회유책과 그 건설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의 두 군의 옛 지역에 대한 고국원왕의 남방 지향은 아들인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에게도 계승되었다. 고구려는 태백산맥을 따라 거점이 되는 산성을 구축하여 남하했으며, 한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도 고구려에 속했던 濊를 통하여 신라가 그 방책의 대상이 되었다【末松 1954, 鬼頭 1998】.

그 한편으로 고구려는 두 군의 옛 지역 획득을 노리는 백제와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 가운데에서 백제는 긴 역사가 있는 견사·통교 서클의 전개 가운데에서 연휴의 축적을 가진 왜국을 대 고구려 대책에 짜 넣게 되는 것이다.

이 고구려가 두 군의 옛 지역에 세력을 전진시킨 것은 고구려 왕권이 그 서북 방면에서는 열세인 대외적 위기로부터 왕권의 안정 기반을 반도의 중남부에서 구한 것을 의미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왕국의 경제기반 속에 농업경제를 짜 넣는 것을 옛 낙랑·대방군의 치하의 사회에서 구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고구려는 그 서북 방면에서는 선비족인 後燕에 시달렸지만 서남부에서는 낙랑, 대방 두 군의 지배 기구를 붕괴시킨 313년부터 약 50년 사이에 고구려가 그 옛 지역에 거주하는 유민 사회를 회유하면서 이곳을 지배 영역 속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이 일이 백제는 신라의 동향과도 얽혀 가면서 또한 왜국과도 신라와도 대응하면서, 이를 백제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다.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
基臨尼師今3年(300) '春正月, 與倭國交聘'
訖解尼師今3年(312) '春三月, 倭國王遣使爲子求婚. 以阿飡急利之女送之'
同 35年(334) '春二月, 倭國遣使請婚. 辭以女旣出嫁'
同 36年(335) '二月, 倭王移書絶交'
同 37年(336) '倭兵猝至風島. 抄掠辺戶. 又進囲金城急攻. 王欲出兵相戰. 伊伐飡康世曰. 賊遠至. 其鋒不可當. 不若緩之,待其師老. 王然之. 閉門不出. 賊食盡將退. 命康世率勁騎追擊. 走之'

【사료Ⅲ】
① ≪晋書≫ 卷7·成帝 '咸康二年(336)二月庚申. 高句驪遣使貢方物'
② ≪晋書≫ 卷百九·慕容皝載紀 '(咸康三年)其年(339). 皝伐高句麗. 王釗乞盟而還. 明年(340). 釗遣其世子朝於皝'
③ ≪晋書≫ 卷109·載記卷9·慕容皝'咸康七年(341) 皝遷都龍城,率勁卒四萬入自南陜, 以伐宇文,高句麗, 又使翰及子垂爲前鋒, 遣長史王寓等, 勒衆萬五千從北置而進. 高句麗王釗(故國原王)謂皝軍之從北路也. 乃遣其弟武, 統精銳五萬踞北置, 躬率弱卒以防南陜, 翰與釗戰于木底, 大敗之. 乘勝遂入丸都. 釗單馬而遁, 皝掘釗父利(美川王)墓, 載其尸幷其母妻珍寶, 掠男女五萬餘口, 焚其宮室, 毁丸都而歸. 明年(咸康8年(342) 釗遣使稱臣於皝, 貢其方物, 乃歸其父尸'
④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12年(342) '春二月,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 秋八月, 移居丸都城'
⑤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13年(343)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⑥ ≪晋書≫ 卷7·康帝 '建元元年(343) 十二月. 高句驪遣使朝獻'
⑦ ≪資治通鑑≫ 卷98·晋紀20·孝宗 '永和五年(349) 十二月. 高句麗王釗送前東夷護軍宋晃于燕. 燕王皝赦之'
⑧ ≪資治通鑑≫ 卷一百·晋紀22·孝宗 '永和十一年(355) 十二月. 高句麗王釗遣使詣燕. 納質修貢以請其母. 燕主皝許之. 遣殿中將軍刁龕. 送釗母周氏歸其國. 以釗爲征東大將軍營州刺史封樂浪公. 王如故'
⑨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39年(369) '秋九月. 王以兵二萬南伐百濟. 戰於雉壤. 敗積'

⑩ ≪晋書≫ 卷113·載記·苻堅 '太和五年(370), 又遣猛率楊安, 張蚝, 鄧羌十將率步騎六萬伐(慕容)暐. 堅親送猛於霸東 … 中略 … 暐遣其太傅慕容評率衆四十餘萬以救二城(晋陽, 壺關), 評憚猛不敢進, 屯於潞川. … 中略 … 堅遂攻鄴, 陷之. 慕容暐出奔高陽, 堅將郭慶執而送之. 堅入鄴宮, 閱其名籍, 凡郡百五十七, 縣一千五百七十九, 戶二百四十五萬八千九百六十九, 口九百九十八萬七千九百三十五. 諸州郡牧守及六夷渠帥盡降於堅. 郭慶窮追餘燼, 慕容評奔於高句麗, 慶追至遼海, 句麗縛評送之'

⑪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41年(371) '冬十月. 百濟王率兵三萬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薨. 葬于故國之原'

⑫ 同 小獸林王 2年(372) '夏六月. 秦王苻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 立太學. 敎育子弟'

⑬ 同 3年(373) '始頒律令'

⑭ 同 4年(374) '僧阿道來'

⑮ 同 5年(375) '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 秋七月. 攻百濟水谷城'

⑯ 同 6年(376) '冬十一月. 侵百濟北鄙'

⑰ 同 7年(377) '冬十月. 無雪. 雷. 民疫. 百濟將兵三萬來侵平壤城. 十一月. 南伐百濟'

⑱ ≪資治通鑑≫ 卷一百四·晋紀26·烈宗 '太元二年(377) 春. 高句麗新羅西南夷皆遣使入貢于秦'

⑲ ≪三國史記≫ 卷18, 小獸林王 8年(378) '旱. 民饑相食. 秋九月. 契丹犯北邊. 陷八部落'

⑳ 同 14年(384) '冬十一月. 王薨. 葬於小獸林. 號爲小獸林王'

이 절에서는 前漢의 왕조가 BC 108년과 BC 1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고조선의 옛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백두산 일대와 한반도의 북부에 4군을 설정한 이래 그 개폐로부터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313년과 314년에 군현 통치가 반도로부터 완전히 철수되기까지 그 동안의 반도와 열도의 여러 민족이 서로 통교하면서 군으로 통교하는 모습을 문헌을 통해 보아 왔다.

그 문제의식은 4세기 말의 소위 '왜국의 군사적인 한반도로의 진출'이나 '출병'이라는 대립적 관계가 갑지기 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 고대의 반도와 열도 지역 간의 교류 축적 위에서 이것이 또한 왕권의 성장과 국가 형성을 낳게 되고 그 국가 교류와 지역 간의 교류의 관계의 역사를 이해해 두는 것이 불가결하다.

거기서 이 절에서 통람한 반도와 열도의 지역 간 교류를 진전시킨 기본 요인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① BC 108년 이후에, 약 400년에 걸쳐서 한반도의 서북부에 前漢과 後漢, 그리고 公孫氏 정권과 위, 진의 군으로 존재했던 낙랑군과 3세기 초부터 약 100년 간 존재한 대방군의 두 군으로 인하여, 군에 소속된 현을 통해 중국왕조의 통치가 이 지역에 파급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반도의 남부 지역의 韓 諸國과 열도의 왜국이 연쇄되면서 두 군에

대해 통교해 왔다.

거기에 왕조의 덕치주의에도 근거하는 이민족에 대한 위무책과 遠交近攻의 왕조 방위책이 맞물려서 반도 지역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는 왜국 왕조와 두 군으로의 통교가 권장되었다. 왕조에 통교하는 창구였던 낙랑·대방의 두 군이 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것은 그 후의 일한관계가 반도 남부의 여러 민족을 통해 진행되고, 드디어는 백제와의 우호적 관계를 진전시키는 한편 신라와는 대립적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지리적 요인이었다.

이 두 군과는 반대로 반도의 동북부에 있던 임둔군이 일찍이 고구려의 공격 전에 폐지되고 현도군도 역시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반도의 동북부에서 요동으로 철수한 배경에는 고구려 족의 국가 형성을 향한 성장이 있었다. 이 지역으로부터 군현이 소멸됨으로써 반도의 동북부 지역에는 고구려의 세력이 성장하여 마침내 4세기 후반에는 반도의 동남부에 있는 신라가 고구려의 세력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② 낙랑·대방의 두 군으로 반도와 열도의 여러 나라가 통교하는 데는 상호 협조가 보인다. 3세기에 빈번히 진과 통교한 마한을 비롯한 東夷 諸國 간에는 통교를 둘러싼 분쟁 사실이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韓의 소국 수장이 魏 왕조로부터 '臣智'나 '邑君'의 작위를 받고 또한 위로부터 하사된 '印綬와 衣幘'을 몸에 걸치고 군에 와서 '朝謁'하는 것이 '千有余人'이나 된다고 ≪三國志≫ 魏書 韓傳에 있는 것은 그것을 추찰케 한다.

이 韓의 두 군에 대한 遣使 붐은 멀리 있는 왜국의 두 군에 대한 견사를 부르고 또한 그 嚮導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臣智'나 '邑君'이 통교자의 嚮導를 기피하면 그 '職約'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군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전진에 통교한 것도 고구려의 '職約'이며, 고구려가 신라에 우위적 위치를 얻는 결과도 된다.

마한 나아가서 변한 諸國이 두 군으로의 통행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왜국은 두 군을 통해 중앙 왕조의 대우를 받은 것이다. '漢倭奴國王'이나 '親魏倭王'의 金印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왜국에서는 이 우위의 지리 관계와 통교의 시스템 원리로부터 군을 통한 왕조의 하사품이 축적되어 간다. 중국의 문화 유산이 時系列로 열도의 서부 지역에 저장되는 양상이 계속되는 연유인 것이다.

【참고문헌】

○大庭 脩, 2001 ≪親魏倭王≫ (學生社)

○鬼頭清明, 1998 <東アジア世界の変貌とヤマト王權>平野邦雄編 ≪古代を考える邪馬台國≫ (吉川弘文館)
○朝鮮總督府, 1933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册≫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西嶋定生, 1999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西嶋定生, 1999 ≪倭國の出現－東アジア世界のなかの日本≫ (東京大學出版會)
○堀 敏一, 2006 ≪東アジア世界の形成－中國と周辺國家≫ (汲古書院)

제2절 칠지도 명문의 일한관계 －백제의 국가 형성과 왜국－

【칠지도 명문의 연구사】

칠지도는 오늘날 奈良縣 天理市 杣之內에 鎭坐하는 石上神宮의 寶庫에 보존되어 있다. 明治 6년(1873)에 이 신사의 大宮司에 임명된 菅政友【菅 1907】가 이것을 발견하여 '六叉鉾'라는 명칭으로 공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藤井 1995】. 그 이래로 칠지도를 향한 오늘날까지의 연구 성과와 문제점은 神保公子 씨에 의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神保 1973, 1975, 1981】.

이 刀銘이 고대의 일한관계사 연구에 불가결한 사료로 되어 그 가치가 높아진 것은 고대 일한관계사 모습을 재검토할 필요가 환기된 1970년대의 일이다.

神保씨는 칠지도 명문 연구사를 3기로 구분시켰다. 제1기는 '연구가 개시된 시기로서 메이지로부터 제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로 한다. 이 시기에는 칠지도에 명문이 있는 것이 주목되어 명문의 冒頭에 새겨진 기년의 비정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일본서기≫ 神功皇后紀에 기록된 '七支刀'야말로 이 칠지도라고 인정되었지만, 연구는 역사 서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칠지도가 아직 역사연구의 대상 외에 있던 기간이었다고 한다.

이어지는 제2기는 1950년에 榧本杜人씨가 칠지도를 실사하였고【榧本 1950, 1952, 1953, 1954, 1955】, 다음 해에는 福山敏男씨가 실제 조사 한 것에 근거하여 명문 연구를 발표【福山 1951, 1952】한 것을, 神保씨는 이것을 획기로 잡았다. 두 사람의 조사로 인해 紀年 '泰和'는 東晋의 '太和'를 달리 표기한 것이라는 판독이 유력하게 되었고, 또한 명문 중에 '백제' '왜왕'을 釋讀한 사실이 주목을 불러, 칠지도 명문은 고대 일한관계사의 연구에 높은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서기≫ 9권 神功皇后 攝政 52년(372)조에 근거하여, 이 제 2기에 "372년에 칠지도가 백제로부터 왜국

으로 헌상되었다는 이해가 강했다"고 神保씨는 파악했다.

제3기는 1963년에 발표된 김석형 씨의 논문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내의 분국에 대해서> ≪력사과학≫ 1963년 1호, 평양)가 鄭晋和씨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어, ≪歷史評論≫ (165·168·169호, 1964년 5·8·9월)지에서 일본 고대사 학계에 소개된 것에서 시작된다. 이 김씨의 논문은 백제왕이 왕의 '侯王' 즉 신하로 간주한 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주장했다. 제2기 이래로 계속된 백제왕이 왜왕에게 칠지도를 헌상했다고 본 일한관계사 모습을 여기서 그 상하를 역전시키는 김씨의 논문은 일본 뿐 아니라 마침내 한국의 고대사 학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여 칠지도 명문의 판독과 그 기년의 재검토, 백제와 왜국의 위치 관계 재검토 등의 문제가 연구자들에 의해 고찰되어, 고대 일한관계사 모습의 재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神保씨는 정리한다.

이 제3기는 그때까지의 학설에 재검토를 더하여 많은 새로운 설이 제출되었지만, 칠지도가 국보 지정 고고사료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것을 실사할 수 없었던데 기인하는 점도 있지만, 각 說은 칠지도 명문을 신중하게 실사 검토한 다음에 이루어진 연구는 아니었다는 점이 새로운 학설의 위험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실사를 끈질기게 계속 희구해 왔던 村山正雄씨에 의해 1996년 12월에 그의 편저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錄≫ (吉川弘文館, 이하 ≪圖錄≫으로 약칭한다)이 간행된 후부터 정교한 사진과 뢴트겐 사진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제4기의 연구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七支刀銘文'의 전체 61문자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얻었던 것이다.

【七支刀의 銘文】

제4기에 木村誠 씨가 村山 편저의 사진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木村 2000】가 발표되기까지 '칠지도 명문'은 61문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판독되어 왔다. 木村씨는 표면 冒頭 기년의 '年'과 '月'의 두 글자 사이가 다른 자간에 비하면 그 공간이 너무 큰 사실에 주목하고 村山씨의 지적을 계승하여 ≪圖錄≫의 뢴트겐 사진 속에서 '年月'의 글자 사이에 '＋'자가 가려져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十'자로 판독했다. 이후에 계속되는 文字格의 거의 지워진 字格은 이제까지는 주조 시의 好機로 여겨지는 盛夏 五월의 '五' 자로 추측하여 읽어 왔지만 木村 씨는 여기에서도 녹슬어 있는 부분에서 '一' 자를 판독하여,

앞의 것과 맞추어서 '年十一月'이라고 판독하는 새로운 판독을 제시했다.

吉田晶씨(2001)가 이에 납득은 했지만, 木村씨의 판독법은 ≪圖錄≫에 근거한다는 점은 평가되지만, 과연 타당한 판독인지 의문점이 있다. 山尾幸久씨(1981, 1983, 1986, 1989)나 졸고(2005)에서 서술하듯이, '年月'의 자간에 조금 공간이 있는 것이야말로 칠지도가 백제에서 '原七支刀'를 모델로 하여 彷製한 것이라는 이해를 뒷받침하는 방증 중 하나이기도 하다.

칠지도는 주조된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녹슬고 또한 금상감이 박리되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문자가 있다. 이러한 판독 불능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圖錄≫을 갖게 된 오늘날 판독에 의해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칠지도 명문' 연구사와 논점에 입각하고 ≪圖錄≫을 대면하여 61문자를 시각적으로 또한 문맥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정리한 판독문이 아래와 같다. (이하 ▯ 文字의 잔획으로 판독되는 문자. □는 명문의 문맥이나 같은 종류의 금석문 사료에서 推讀한 문자. 판독에 이르는 정리의 상세 부분은 ≪제1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보고(제1분과)≫(2005년 11월)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앞면의 명문 34자는

'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七支刀出辟百兵宜供供侯王永年大吉祥'로 되어 있다.

'泰和 4년'(369년)의 盛夏 '五月十六日'은 火氣가 강한 '丙午'의 날인데, 태양이 정남으로 뜬 '正陽' 시각에, '백' 번이나 '단련(練)'했다는 上質의 '□'을 재료로 하여, '칠지도'를 '만들(造)'었다. 이 칼은 '나와(出)'서는 '百兵을 물리친다(辟)'는 呪力을 갖고 있어서, '供供(극히 공손)'한 '侯王'이 佩刀하기에 '적절하고(宜)', 또한 '侯王'은 '永年'에 걸쳐 '大吉祥'일 것이다.

○뒷면의 명문 27자는 이하와 같다.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晋)故爲侯王旨造傳示後世'로 판독된다.

‘先世以來’로 ‘아직(未)’ ‘이(此)’와 같은(형태의, 또 그런 까닭으로도 百兵을 피할 수 있는 주술력이 강한) ‘刀’는 (백제에는) 없었다. ‘百濟王과 世子’는 ‘生’을 ‘聖스러운 晋’의 황제에게 ‘기탁하게(寄)’ 되었다. 그런 ‘故’로 ‘倭王’을 ‘爲’해 황제가 백제왕에게 하사하신 ‘旨’를 함께 하려고 이 칼을 (仿製하여) ‘만들(造)’었다. ‘後世’에 이 칼과 여기에 숨겨진 황제의 뜻을 전하기 바란다.

【七支刀銘文의 歷史像】

칠지도 명문의 판독은 저술했듯이 곤란한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 판독으로부터 구성되는 역사 해석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泰和 4년’은 東晋의 泰和 4년이며 369년이다. 그런데 칠지도가 백제 왕권의 명령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기록상으로 볼 때 백제는3년 후인 東晋 咸安 2년(372) 정월에 동진에 처음 견사하고 같은 해 6월에 백제왕 餘句(근초고왕)가 ‘鎭東將軍領樂浪太守’에 책봉되었으므로, 이 책봉을 받는 372년 6월 이전에 백제왕이 왜왕에게 보내는 칠지도에 동진의 연호인 ‘태화’를 이해하고, 이를 상감시킨 것이 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鈴木靖民씨【鈴木 1983】는 백제 왕권에 참여하는 중국계의 문필 담당자가 동진을 숭상하여 백제왕이 동진에서 책봉되기 전에 그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한다. 낙랑·대방 두 군이 한반도로부터 요동으로 철수한 후, 그 옛 지역에서 동진의 연호를 사용한 ‘永和 9년’(353년)이나 ‘元興 三年’(404년) 명문의 벽돌이 출토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고구려 왕권 또는 백제 왕권의 발동과는 다른 사적인 차원에서 연호를 지하의 묘실에 사용한 예인 것이다.

칠지도는 백제 왕권의 발동으로서 왜왕과의 외교에 반드시 필요한 증여품이다. 이 외교에서 백제가 아직 동진의 正朔을 받드는 책봉 관계에 참여하지 못한 시기에 제조한 칠지도에 동진의 연호를 자주적으로 상감했다고는 파악할 수 없다. 백제의 고도인 한성이나 웅진이나 부여 지역으로부터도 백제가 중국왕조와 책봉관계를 맺은 시기에 상당하는 무렵에도 왕조의 연호를 사용했음을 명시하는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백제의 옛 땅에서는 중국의 연호를 국내적으로 사용한 유물을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濱田 2005】.

역시 백제가 372년 이전에도 동진에 遣使했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을 생각하면, ‘泰和4년’의 기년은 본래 백제에서 오리지널하게 명기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기년을 명기

하여 전쟁 등에 '나아가(出)'서는 '百兵'을 '물리치(辟)'는 것이 가능하다는 벽사의 주술 능력이 강하게 기대되는 '칠지도'는 '侯王'이 佩刀하기에 어울린다는 완결된 앞면의 명문은 역시 '태화'의 연호를 받드는 정치사회 가운데에서 원형(모델)이 주조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백제에서가 아니라, 山尾씨의 주장한 바대로 369년의 동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山尾 1989】.

石上神宮 창고에 현존하는 칠지도는 백제가 동진에서 '제조(造)'된 칠지도를 동진으로부터 하사받고 이 외교 관계를 왜왕과도 공유하는 의도에서 백제는 이것을 왜왕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칠지도 한 자루를 새로이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해된다. 현존의 칠지도는 백제에서 모방하여 만든 것이고, 모델이 된 백제가 동진에서 하사받은 '원본 칠지도'는 백제의 지하에 매장되었는지 파괴되었는지 그 소재는 명확하지 않다.

山尾씨는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칠지도를 하사받자, 백제에서는 이 '원본 칠지도'를 '모방'하여 뒷면에 왜왕에게 증정하는 까닭의 글을 상감하여 왜왕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데【山尾 1989】, 그 지적은 여기에서는 지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나중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왜왕을 위한 뜻을 갖고 만든다'('爲倭王旨造')의 '旨'와 '造'의 글자 뜻이 납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진이 '泰和 4년'(369년)에 칠지도를 제조한 배경에는 福永光司(1987)나 佐伯有清씨(1977), 山尾씨(1989) 등이 주장하듯이, 그 형태와 '百兵'을 '물리치는(辟)' 것이 가능하다는 도교적 禁呪를 기대하는 신앙이 동진 사회에 융성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고찰해 보면, 앞면의 명문에서는 백제 왕권의 의지를 읽어낼 수가 없고 '侯王'에 '적절하다(宜)'란 황제에게 신하로 속하게 되는데, '原七支刀'를 하사받을 '侯王'이란 백제왕이 해당된다. 그 해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372년 정월에 동진에 견사하고, 그해 6월에는 '鎭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되어, 책봉사를 맞아들이는데 그 무렵에 동진의 外臣이 된 백제왕에게 '原七支刀'가 하사된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가 동진의 正朔(연호)을 받들지 못하던 무렵에 백제 거주 중국계 지식인이 칠지도를 오리지널하게 만들어 그것에 동진의 연호를 새기고, 이것을 왜왕에게 보냈다는 鈴木씨의 추측(1983)은, 지식인이라면 책봉을 받지 않는 국제관계 하에서 백제왕이 왜와의 외교에 동진의 연호를 사용하는 사실이 무리임은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칠지도의 오리진(原七支刀)은 그야말로 동진에서 주조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년을 송의 '泰始 4년'(468)으로 판독했던 宮崎市定의 설(1982)에도 무리가 있다. 백제왕의 餘慶(개로왕)이 송의 大明 원년(457)에 鎭東大將軍에 책봉되었기 때문에

468년의 개로왕대에 백제가 백제 오리진으로 본 칠지도에 송의 연호를 새기는 것에 의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에서는 무령왕이 521년에 梁으로부터 寧東大將軍으로 책봉된 후에 그 능묘에 넣은 買地券에는 梁의 연호를 새기지 않고 간지를 이용했듯이 역시 백제는 책봉 하에서도 백제가 중국의 연호도 또한 백제의 독자적인 연호를 정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함을 생각할 때, 칠지도의 기년을 '泰始 4년'(468)으로 판독해도 그 제작지는 백제가 아니라 당연히 宋朝가 되야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한편 칠지도의 '泰和'는 중국 왕조로부터의 책봉과는 무관하며 백제의 독자적 연호로 여기는 延敏洙 씨의 설(1994)에서는 '泰和 4년'이란 오늘날의 사료 범위에서는 백제에 의한 유일무이한 연호 사용 유물이 된다.

또한 '泰△ 4년'으로 판독하는 이병도씨(1976)는 ≪일본서기≫ 神功紀 52년 9월조에 칠지도가 헌상되었다는 기사에서 이 황후 52년은 임신년이며, 간지 2運을 내려가면 372년에 상당하지만, 이 해의 9월이야말로 칠지도의 '十六日丙午'의 간지에 상당한다고 하여, 여기에서 칠지도의 작성은 372년 9월 16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병도씨의 학설에서는 作刀 年月이 ≪일본서기≫에서는 칠지도가 왜에 보내진 연월로서 편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씨의 학설에서는 '태△ 4년'은 372년이며 그 원년이 369년이 되는 것이다.

이씨의 학설은 '泰△'로 판독하여 '泰和'라고는 판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진의 '泰和' 연호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에 그 논지가 성립되고 있지만, 동진의 '태화 4년'이 백제로서는 '泰△' 원년이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泰△'라고 판독하는 이씨의 설은 앞에서 서술한 판독과 마찬가지로 '泰和' 판독 전에는 무리가 생긴다. 369년 무렵은 백제가 고구려에 대하여 우세한 시기였다 하더라도 369년에 백제가 독자적으로 建元했다는 방증은 역시 찾기 어려운 것이다.

연민수씨도 '奉□ 4년'으로 판독하고 이것을 백제의 독자적인 연호로 무령왕 4년(504)이라는 설에도 방증은 없으며 또한 이 무렵에도 백제는 간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이씨의 설과 함께 백제의 독자연호설은 현재의 사료 상황으로는 성립되지 못한다.

역시 칠지도의 기년명은 山尾幸久씨가 추정하듯이 동진에서의 作刀 시에 새겨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山尾 1989】. 이제까지 ≪일본서기≫에서는 372년에 상당하는 神功皇后 攝政 52년에 칠지도가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헌상되었다는 기사에 이끌려

칠지도를 백제와 왜국의 2국 관계로 한정하고 이를 百濟製로 간주해 왔지만, 그 전제에서 벗어나 칠지도의 원형을 동진에서 찾은 山尾씨의 고찰은 주목된다.

그런데 표면의 명문은 '나와서는 백병을 물리친다'는 주술 능력을 가진 칠지도를 盛夏 '5월'의 火氣가 강한 '丙午' 날에, '백'번이나 '단련'한 소재를 사용한 정성들인 공정을 거쳐 완성했기에, 이 강한 주술 능력을 담은 '칠지도'는 '供供한(깊고 공손한)'【佐伯 1976, 1977】'侯王'이 佩刀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侯王'은 '永年大吉祥'일 것이라는 완결된 定型文이다. 이것은 이대로 동진에서 황제로부터 '侯王'에게로의 하사품으로써 단조되었고, 그 주술 능력의 강력함이 기대되어 상감되었다고 무리없이 이해된다.

그런데 뒷면의 명문 글자체를 주시해 보면, '造' '百' '刀' '王'이 表裏 양면에 모두 상감되어 있고 그 글자 형태는 山尾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차이가 많다【山尾 1989】.

이러한 앞뒤의 명문에 나타난 동일 문자의 자형 차이는 단조 시의 앞뒤 명문의 상감이 다른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기 힘들고, 山尾씨의 추정대로 앞면의 명문은 동진에서 주조된 원형 칠지도의 상감의 글자체가 모델이 되었으며, 뒷면에서는 '先世以來' 백제에 없었던 원형인 '칠지도'를 '왜왕'을 '爲'해서 '만든(造)'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백제왕의 명을 받아 원형의 칠지도를 모델로 하여 이 칠지도를 모방하여 '만든(造)' 백제왕의 발의를 오리지널하게 표시한 글이다.

이렇게 읽게 되면 앞뒤의 명문에서 모두 칠지도를 '만들(造)'었다고 상감하고 있는 것의 위화감이 해소된다. 山尾씨의 학설대로 표면은 369년에 동진에서 우선 단련하여 '만(造)'들어진 칠지도가 372년경에 백제로 전해 졌지만, 山尾씨가 가칭으로 말하는 이 '원칠지도'의 명문 가운데에서, 백제왕은 '나(出)'가서는 '百兵'을 '물리(辟)'친다는 전승의 주술 능력의 의의를 이해하고 이 주술 능력과 이를 '侯王'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 백제왕에게 하사한 동진 황제의 은혜를 '왜왕'과도 누리기 위해, 이 '원칠지도'를 모방하여 새로이 '칠지도'를 '만들(造)'어, 즉 모조하여 왜왕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칠지도는 백제왕이 동진으로부터 하사한 표면에만 34문자의 명문을 가진 원 '칠지도'를 모방하여 그 뒷면에 이것을 왜왕에게 증정하는 경위의 글을 상감한 이른바 '모조 칠지도'라는 말이 된다.

백제왕이 '원칠지도'를 모조한 의도는 '爲倭王旨造'의 문구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즉, 이 '旨'이란 것이 이제까지 ≪宋書≫ 왜국전에 기록되고 소위 '왜의 5왕'의 이름에 끌려감으로써 '왜왕'의 이름으로 이해되어 왔다【神保 1973】. 또한 宮崎(1982)는 이것을 '嘗'의 생략체이며, 이어지는 '造'에 연결되어 '처음'의 의미라고 이해했다. '嘗(처음으

로)'은 뒷면의 冒頭에 있는 '先世以來未有此刀'를 받는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책봉 관계를 배후로 하여 '侯王'에게 하사되는 신속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명문에 나타난 '旨'는 우선 인명이나 부사로 파악하기 전에 황제의 의지를 나타내는 '聖旨'나 '慈旨'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칠지도의 뒷면의 명문에서는 이 '旨'의 6자 위에 명확한 '聖'자가 새겨져 있어서 '旨'는 이것을 은밀히 받는 문자로 이해된다.

'旨'의 글자는 '聖'의 글자를 받는 글자 뜻으로 해석해야만 백제왕이 '원칠지도'의 명문의 의의, 즉 황제가 '百兵'을 물리치는 벽사와 '永年大吉祥'을 '侯王'에게 기원하는 '聖旨'를 이해하여, '원칠지도'를 그 명문과 함께 모조하여 이것을 왜왕에게 증정하는 외교 의도가 뒷면의 명문으로부터 이해되는 것이다.

즉 '聖旨'를 받들어 모시어 '이 칼'을 모방하여 '만들었다'는 백제왕의 대왜 외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 의도는 물론 백제의 것이다. 백제의 근초고왕과 태자는 369년에 대고구려전에서 유리한 형세를 획득하고, 372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6월에는 동진 외교에 성과를 올리고, '원칠지도'를 하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구려와 대치하면서 동진의 책봉을 받은 외교의 새로운 전개를 왜왕에게 알리고, 왜국까지도 이 외교 라인에 가담시켜 대 고구려 라인의 강화를 꾀하는 백제의 대왜 외교인 것이다.

단, 왜는 이미 369년의 백제·고구려 전에는 백제의 진영에 참전했다는 설이 있다【末松 1956】. 이 학설에 따르더라도 백제가 현존하는 칠지도(山尾 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백제에서 모방한 칠지도)를 왜왕에게 증정한 사실은, 백제가 동진을 배경에 두고 대 고구려 전략상 왜와의 제휴를 공고히 하는 외교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鈴木 2002】.

뒷면의 명문에 입각하여 백제의 외교를 이해하면, 백제왕(근초고왕)과 태자, 그것은 372년 6월에 백제왕은 동진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며, 이 관계로부터 볼 때 모조 시에는 태자를 '세자'라고 상감함이 가능했던 것이며, 백제왕과 '세자'는 '聖音(晋)'에 '奇(寄의 약자로 이해한다)生'한다, 즉 '생을 의지하게' 된 것이다. '聖音'이든 '聖晋'이든 간에 모두 백제왕이 '侯王'이 되어 臣屬하는 동진의 황제나 그 은덕을 입음을 의식한 존칭이다. 그 '侯王'의 심볼 중 하나가 '侯王'이 佩刀하기에 적절하다고 하여 하사된 呪刀인 원 칠지도였다. 동진 왕조의 공방에서 정성스레 주조된 벽사의 주술력이 강한 것으로 기대된 원 칠지도가 백제왕에게 하사된 것은 백제왕의 고구려에 대비한 외교 의도를 동진이 수용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백제왕(근초고왕)과 세자는 동진 황제의 '聖旨'나 은덕인 '聖音'에 돌리고 이것을 왜왕과 공유하기 위해 呪刀인 원칠지도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川口勝康씨(1993)가 이 '聖音'은 동진 황제의 '敎令·指令'의 의미로 해석하여, 백제가 '칠지도'를 단조한 배경에는 동진 황제의 명령이 있다고 이해하여 동진의 외교 의도를 높이 평가한 것도 수긍이 된다.

이와 같이 앞뒤의 명문을 이해하게 되면 칠지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① 369년에 동진의 공방에서는, '侯王'이 패도하는데 적절하고, '나가(出)'서는 '百兵'을 '물리(辟)'침이 가능한 주술력을 가진 것으로 기대되는 칠지도를 단조하여 이 주술력이 높을 것을 바라며 정성들여 이 칼을 만든 경위를 34문자의 명문에 상감했다.

② 372년 정월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동진으로 첫 사신을 보낸 때인지 아니면, 이어지는 같은 해 6월에 근초고왕을 '鎭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하는 동진의 사신을 백제는 영접하는 때인지 동진으로부터 칠지도가 백제에 하사되었다.

③ 백제에서는 동진의 '후왕'에게 적절하고, 또한 주술력을 지닌 칠지도가 하사되자, 그 주술력을 기대하면서 또한 동진 황제의 은덕을 널리 전하려고, 즉 '聖旨'를 받들어 모시어 칠지도를 모방하여 그 '聖旨'의 핵심인 표면의 34자의 명문에 덧붙여서, 백제가 칠지도를 모방하여 이 모조된 칠지도를 왜왕에게 증정하는 경위를 뒷면에 27글자로 상감하여 왜왕에게 보내는 외교를 했다.

이러한 경위로부터 표면의 명문에 있는 '侯王'이란 우선 제1차적 의미로는 原 '칠지도'를 하사받은 백제왕이 동진의 '侯王'인 것이며, 백제는 왜왕을 백제의 '侯王'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이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모조된 칠지도를 백제왕으로부터 증정 받은 왜왕은 백제로부터 보면 동진에 대해서는 백제와 같은 위치에 있는 '侯王'이며, 이는 제2차적 '侯王'인 것이다.

④ 백제왕이 왜왕에게 모조한 칠지도를 증정한 외교적 목적은, 백제왕이 동진의 책봉을 받고 '侯王'이라는 外臣이 되었지만, 그 연장선상에 왜왕을 두고 백제의 대 고구려 전략에 왜왕이 함께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⑤ ≪일본서기≫는 '칠지도' 등의 '獻'上에 이어,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飮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라고 백제 사신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谷那 鐵山이 철의 공급지인 것을 사자가 진술하는 것은 모조 칠지도의 원료가 이곳의 철이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다.

⑥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의 근초고왕은 즉위 23년(368) 3월에 신라에 遣使하여 준마 2필을 증정하고 통교했었기 때문에, 이 372년에 이르러 백제는 동진과의 관계를 핵으로 하면서 왜와도 통교하여 고구려에 대비한 남방 라인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고구려의 압력 앞에 곧 이 라인에서 이탈하여 고구려와 제휴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존하는 칠지도의 뒷면의 명문은 아래와 같이 해석해야만 백제가 동진을 배경으로 하여 왜와 관계를 맺은 외교 의도가 이해될 것이다.

> 先世以來, 아직 이와 같은 (형태의, 또 그런 고로 백병을 물리칠 수 있는 주술력이 강한) 칼은 (백제에는) 없었다. 백제왕과 세자는 동진의 책봉을 받아, 生을 성스런 晋의 황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동진 황제가 백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신 '뜻(旨)'을 왜왕과도 공유하고자 하사받은 칠지도를 (모방하여) '만들(造)'었다. 후세에도 영원히 이 칠지도와 여기에 담긴 동진 황제의 뜻을 전하여 보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백제왕이 동진에서 하사받은 칠지도(원칠지도)를 모조한 현존하는 칠지도를 왜왕에게 증정한 그 외교 자세에는, 백제왕은 왜왕까지도 자신과 동일하게 동진의 '侯王'이 될 국제관계를 구상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傳示後世'의 말 뜻이 동진을 배경에 둔 백제의 왜국에 대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후의 백제와 왜국의 관계를 아래에서 보면 그 외교는 성공한 것이다.

【七支刀를 둘러싼 국제관계】

전술한 대로 백제에서는 동진으로 처음 사신을 보내 책봉을 받음과 함께 하사받은 칠지도를 모조하여 이것을 왜왕에게 증정한 외교적 배경에는 백제가 직면하는 대외관계가 있었다. ≪삼국사기≫ 권24·백제본기에 의하면, 근초고왕 23년(368) 봄 3월에 백제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준마 2필을 증정하며 통교한 한편 다음 해(369) 9월에는 고구려왕인 고국원왕이 步騎 2만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해 왔으므로 근초고왕은 태자에게 병사를 붙여 이를 격파시키고 5천여 포로를 획득했다. 같은 해 겨울 11월에도 백제는 한수 이남에서 열병을 하고 동 26년(371)에는 다시 고구려의 습격을 받았으므로 근초고왕은 浿河에서 고구려군을 급습하고 고구려군을 패주시켰다. 같은 해 겨울에 근초고왕과 태자는 3만의 정

예병을 이끌고 북상하여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이 전투에서는 응전하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할 정도의 승리를 백제는 얻었다.

이 고구려 전에서 승리한 후에 백제는 다음 해 372년 정월에 동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 헌상하고, 같은 해 6월에 근초고왕은 동진의 사자를 영접하여 '鎭東將軍領樂浪太守'에 책봉된 것이다. 이 때 백제는 전술했듯이 칠지도를 하사받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을 모조하여 왜왕에게 증정하는 외교를 한 것이다.

그것은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神功皇后 攝政 52년(372) 9월의 일로 우선 판단되지만, 이에도 검증이 요구된다. ≪일본서기≫는 일본이 율령국가로 성립되는 과정에서의 신라 및 백제, 고구려의 관계사를 이야기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칠지도가 백제에서 '헌상'되었다고 기록하며, ≪古事記≫에서는 중권의 應神天皇記에 '照古王'이 '橫刀'를 '貢上'했다고 기록하지만, 전술한 백제로부터의 모조된 칠지도의 증여의 건은 372년 9월보다 조금 후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백제는 368년에는 신라와 통교하여 고구려전을 유리하게 진행시켰고 또한 372년에 동진의 외신이 된 국제관계를 구축하자 바로 이 라인 위에 왜국을 참여시켜, 고구려에 대비한 남방 라인을 강화한 것이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왜왕에게 증정하는 외교의 前史는 ≪일본서기≫ 권9·神功皇后 46년조에 의하면 '甲午年(364)'에 백제가 가야의 卓淳國에 사자를 파견하여 왜국에 대한 안내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백제는 왜국으로의 통교와 관련하여 가야 제국에도 통하고 있다. ≪일본서기≫ 권19·欽明천황 2년(541) 4월조에는 백제의 성명왕이 근초고왕대를 회고하며 安羅·加羅·卓淳의 旱岐 등이 처음 백제와 통교하고 '子弟'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백제의 남방 라인 형성에는 우선 가야 諸國이 불가결한 존재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주변의 왕권과 중국의 황제 사이에 한번 책봉관계가 성립되면 책봉관계를 통하여 황제의 은덕을 주변에 더욱 넓힐 것을 종주국은 被册封國에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피책봉국은 왕의 권위와 그 위치 보장을 얻기 위해서라도 인접국의 왕권을 책봉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백제를 매개로 하는 중국 남조와 왜왕이나 가야 諸國과의 사이에 6세기 전반까지 계속되는 백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의 남방 라인이 개시된 것이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스스로 구축한 동쪽의 신라와 서쪽의 동진, 그리고 남쪽의 왜국과 가야 제국을 잇는 남방 라인의 외교 체제로 북쪽의 고구려에 대항했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에는 양국이 일진일퇴의 전투를 4세기 말 고구려의 광개토왕에

이르기까지 되풀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신라는 아래에서 서술하듯이 일찍이 377년에는 백제의 남방 라인으로부터 이탈하여 고구려에 영입되고 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은 그 동안의 신라의 동향이다. ≪삼국지≫ 魏書·韓傳에 辰韓 12국 중 한 나라로서 '斯盧國'이 보였지만, ≪晋書≫에서는 3세기 말에 서진과 통교한 '馬韓辰韓等 東夷諸國'으로 일괄될 정도로 왕권은 아직 諸國을 초월하지 못했다. 그런데 377년에 이르러 신라의 이름으로 前秦에 遣使한 사실이 ≪자치통감≫ 권104·晋紀·烈宗에 "太元二年(377)春. 高句麗新羅西南夷, 皆遣使入貢于秦"이라고 보인다. 이것은 前燕이 前秦에게 멸망당한 후에 고구려와 신라가 前秦에 견사한 외교지만, 여기에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진에 입공한 사실에 신라가 백제의 라인에서 이탈하여 고구려를 따른 동향이 나타나 있다.

이어서 ≪太平御覽≫ 권781·四夷部 2·東夷 2·新羅에는 ≪秦書≫를 인용하여 "符堅建元十八年, 新羅國王樓寒, 遣使衛頭, 獻美女, 國在百濟東, 其人多美髮, 髮長丈餘. 又曰, 符堅時, 新羅國王樓寒, 遣使衛頭朝貢. 堅曰, 卿言海東之事, 與古不同何也. 答曰, 亦猶中國時代変革, 名号改易"라고 되어 있다. 이 前秦王 符堅의 建元 18년(382)에 이르러 명확히 '신라국'의 이름으로 신라왕 樓寒(내물왕)이 北朝의 前秦에 통교하고 있지만, 이 외교에도 고구려의 협조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신라는 고구려에 이끌려 북조로 이어지는 북방 라인에 편입되었지만, 이 라인은 5세기 말까지 계속되게 된다【井上 2000】.

한편 백제는 ≪晋書≫ 권9·孝武帝紀에는 "大元九年(384)七月, 百濟遣使來貢方物"이라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같은 책 "大元十一年(386)夏四月, 以百濟王世子餘暉, 爲使持節都督鎭東將軍百濟王"이라고도 있다. 백제는 고구려와 전투를 계속하는 가운데 신라의 이탈이 있으면서도 동진의 책봉체제 가운데 '백제왕'으로 인지되어 왜국에 앞서 남조의 책봉체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구축해 간다.

그런데 이 동안 왜국의 정세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3세기 이래로 종종 신라의 변경을 습격했다고 되어 있지만 나물이사금 9년(364)에 신라로 침입한 후에는 동 38년(393)까지 침입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에 걸쳐서 왜, 백제와 가야 제국의 남방 라인에 서서 고구려와 신라의 북방 라인과 충돌하 것은 고구려 입장에서 이것을 414년에 기록한 광개토왕 비문으로 알 수 있다.

【참고사료】

①≪日本書紀≫ 卷9·神功皇后攝政 '五十二年(372年)秋九月丁卯朔丙子, 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種重寶.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

日行之不及. 当飮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海東貴國是天所啓. 是以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國基永固. 汝当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不絶, 雖死何恨. 自是後每年相續朝貢焉. 五十五年(375年), 百濟肖古王薨. 五十六年, 百濟王子貴須立爲王'

②≪古事記≫ 中卷·應神天皇記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此阿知吉師者, 阿直史等之祖〕. 亦貢上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 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卽論語十卷, 千字文1卷, 幷十一卷, 付是人卽貢進. 〔此和爾吉師者文首等祖〕'

③≪三國史記≫ 卷24·百濟本紀第2 '近肖古王, 比流王第二子也. 體貌奇偉, 有遠識. 契王薨, 継位'

·同 二十三年(368年) '春三月丁巳朔. 日有食之.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二十四年〔369年〕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冬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幟皆用黃'

·同 二十六年(371年)'高句麗擧兵來. 王聞之. 伏兵於浿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同 二十七年(372年) '春正月. 遣使入晋朝貢'

·同 二十八年(373年) '春二月. 遣使入晋朝貢'

·同 三十年(375年) '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 王又將大擧兵報之. 以年荒不果.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同 '近仇首王〔一云,諱須〕. 近肖古王之子. 先是高句麗國岡王(故國原王〔一云,國岡上王 … 濱田〕)斯由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高句麗人斯紀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師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不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乃積石爲表. 登其上. 顧左右曰. 今日之後. 疇克再至於此乎. 其地有巖石罅若馬蹄者. 他人至今呼爲太子馬迹. 近肖古在位三十年薨. 卽位'

·同 三年(377) '冬十月. 王將兵三萬侵高句麗平壤城. 十一月. 高句麗來侵'

·同 五年(379) '春三月,遣使朝晋. 其使海上遇惡風. 不達而還'

·同 十年(383) '夏四月. 王薨'

·同 枕流王 '近仇首王之元子. 母曰阿爾夫人. 継父卽位. 秋七月. 遣使入晋朝貢. 九月. 胡 僧摩羅難陀自晋至. 王迎之致宮內禮敬焉. 仏法始於此'

·同 二年(385) '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④≪晋書≫ 卷9·簡文帝 '咸安二年(372)春正月辛丑. 百濟林邑王,各遣使貢方物. 六月,遣使拜百濟王餘句爲鎭東將軍領樂浪太守'

【참고문헌】

○井上直樹, 2000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情勢> ≪朝鮮史研究會論文集≫No.38

○樋本杜人, 1950 <石上神宮七支刀の銘文> ≪日本考古學協會第六回總會研究發表要旨≫
○樋本杜人,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とその銘文> ≪朝鮮學報≫ 第3輯
○樋本杜人, 1953 <七支刀の年代について> ≪日本考古學協會第11回總會研究發表要旨≫
○樋本杜人, 1954 <石上神宮の七支刀> ≪ミュージアム≫ 35
○樋本杜人, 1955 <古代における金石文,七支刀> ≪日本考古學講座≫ 5 (河出書房)
○樋本杜人, 1960 <七支刀> ≪アジア歷史事典≫ 4 (平凡社)
○樋本杜人, 1968 <七支刀銘文再考－－靑丘考古記3－－> ≪朝鮮學報≫ 第49輯. 후에 上田正昭編, 1971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2卷<日本史>(平凡社)에 수록
○川口勝康, 1993 <刀劍の賜与とその銘文>岩波講座≪日本通史≫ 第2卷, 古代1
○菅 政友, 1907 <石上神宮ノ寶庫所藏六叉刀銘> ≪菅政友全集≫ 雜稿三 수록 (國書刊行會) 成稿는 1885년경
○菅 政友, <大和國石上神宮寶庫所藏七支刀> ≪同上書≫ 雜稿一 수록
○菅 政友, <任那考> ≪菅政友全集≫수록. 1893년 원고
○木村 誠, 2000 <百濟史料としての七支刀銘文> ≪人文學報≫ 第306号 (東京都立大人文學部)
○金 錫亨, 1963 <三韓三國の日本列島內の分國について> ≪歷史科學≫ 1. 일본어역은 鄭晋和譯이 ≪歷史評論≫ 165·168·169(1964年5月·8月·9月)과 村山正雄·都龍雨譯, 1964년 11월 (朝鮮史研究會). 및 井上秀雄·旗田巍編, 1974년 11월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가 있다.
○金 錫亨, 1969 ≪古代朝日關係史－大和政權と任那≫朝鮮史研究會譯 (勁草書房)
○佐伯有淸, 1976 <七支刀の銘文を讀む－<宣供供侯王>の新解釋> ≪別册週刊讀賣≫
○佐伯有淸, 1976 <七支刀銘文の問題点> ≪北海道新聞≫ 1976년 1월 13일자, 후에 同 ≪日本古代史の風貌≫ 1977년 9월 (吉川弘文館) 수록
○佐伯有淸, 1976 <"供供"の謎を解く－七支刀銘文の新解釋－> ≪歷史書通信≫ 12. 후에 同 ≪日本古代史の風貌≫ 수록
○佐伯有淸, 1976 <ひきがえると七支刀(1)>,<ひきがえると七支刀(2)> ≪歷史地理教育≫ 248·249号. 후에 同 ≪日本古代史の風貌≫ 수록
○佐伯有淸, 1976 <七支刀銘文その後> ≪北海道新聞≫ 4월 15일자
○佐伯有淸, 1977 ≪古代史演習七支刀と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佐伯有淸, 1988 ≪三國史記倭人傳≫ (岩波文庫)
○神保公子, 1973 <七支刀研究の步み> ≪日本歷史≫ 第301号
○神保公子, 1975 <七支刀の解釋をめぐって> ≪史學雜誌≫ 第84編 第11号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年9月に吉川弘文館再版. 1986년 7월에 ≪古代の日本と朝鮮≫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吉川弘文館>에 수록
○鈴木靖民, 1980 ≪增補古代國家史研究の步み≫ <3.ヤマト政權の生成－七支刀の意味－> (新人物往來社)
○鈴木靖民, 1982 <四世紀後半の百濟と日本の關係－－七支刀銘を中心として> ≪歷史公論≫ 第8卷 第4号·通卷77号
○鈴木靖民, 1983 <石上神宮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坂本太郎博士頌壽記念≪ 日本史學論集≫上卷 (吉川弘文館)
○鈴木靖民, 1999 <同時代史料で讀む激動の東アジア-七支刀と廣開土王碑-> ≪This is 讀賣≫ 1999년 2월호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鈴木靖民編·日本の時代史2≪倭國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田中俊明, 200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加耶琴だけが殘った－≫ (吉川弘文館)
○濱田耕策, 2005 <百濟紀年考> ≪史淵≫ 142輯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
○濱田耕策, 2005 <4世紀の日韓關係>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第1分科篇>≫ (日韓歷史共同研究委員會)
○福永光司, 1985 <石上神宮の七支刀> ≪京都新聞≫昭和60年2月7·8日付. 후에 同 ≪道敎と古代日本≫ 1987 (人文書院) 수록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美術研究≫ 第158号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補考> ≪美術研究≫ 第162号
○福山敏男,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再補> ≪美術研究≫ 第165号
(이상의 3편은 일부 수정되어 <石上神宮の七支刀銘文>이라는 제목으로 ≪日本建築史研究≫ 1968년 6월 (墨水書房), 또 上田正昭 編,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2卷 <日本史> 1971년 5월 (平凡社)에 수록)
○藤井 稔, 1995 <影印≪外來金器文字記≫資料並びに解題> ≪朝鮮學報≫ 第155輯
○藤井 稔, 1995 <菅政友による七支刀銘文の釋讀について－<大和國石上神宮寶庫所藏六叉刀>と≪外來金器文字記≫の紹介を兼ねて－> ≪古墳文化とその傳統≫ 西谷眞治先生古稀記念論文集 (勉誠社)
○宮崎市定, 1983 ≪謎の七支刀－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中公新書. 후에 中公文庫 <1992年 1月>에 수록, 또 ≪宮崎市定全集≫ 21 <1993年2月,岩波書店>에도 수록
○宮崎市定, 1984 <七支刀銘文試釋> ≪東方學≫ 第64輯. 후에 同 ≪古代大和朝廷≫ <1988년 9 월> (筑摩書房) 및 ≪宮崎市定全集≫ 21 <1993년 2월>, (岩波書店) 수록
○村山正雄, 1979 <<七支刀>銘字一考－榧本論文批判を中心として－>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會編 ≪朝鮮歷史論集≫上卷,龍溪書舍. 후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錄≫ <1996년 12월> (吉川弘文館)에 수록
○村山正雄, 1979 <≪七支刀≫銘字調查の一端> ≪三上次男博士頌壽記念東洋史·考古學論集≫ (靑山學院大學史學研究室) 후에 同朋社에서 再刊. 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錄≫ <1996년 12월> (吉川弘文館)에 수록
○村山正雄, 1982 <七支刀銘文の〈侯王〉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04輯. 후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錄≫ <1996년 12월> (吉川弘文館)에 수록
○村山正雄, 1985 <<七支刀>に關する宮崎市定論文について>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歷史編≫ (平凡社), 후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錄≫ <1996년 12월>(吉川弘文館)에 수록
○村山正雄, 1990 <石上神宮·七支刀銘文發見の經緯と若干の新知見> ≪朝鮮學報≫ 135. 후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錄≫ <平成 8년 12월> (吉川弘文館)에 수록
○村山正雄, 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錄≫ (吉川弘文館)

◆図版編◆釋文編
·七支刀銘釋文比較表について
·七支刀銘釋文比較表

◆論文編
·七支刀銘字一考
·七支刀銘字調查の一端

・七支刀銘文の<侯王>について
・'七支刀'に關する宮崎市定論文について
・七支刀銘文發見の經緯と若干の新知見
・(補論1)<坂元義種論文>百濟侯王制の存在についての再批判
・(補論2)<宮崎市定論文>とくに銘文裏面部の讀み方について
・(補論3)<山尾幸久論文>その道教說の根據について
[追錄]<外來金器文字記>その他新資料の發見
[図版]<外來金器文字記> <石見見聞志>(抄)菅家所藏
○山尾幸久, 1981 <七支刀の銘について> ≪村上四男博士和歌山大學退官記念朝鮮史論文集≫ (開明書院)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III編東アジア史,5章倭王權と東アジア, 2節石上神宮藏七支刀の銘文>(岩波書店)
○山尾幸久, 1986 ≪日本古代の國家形成≫ (大和書房)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前篇3章1節<石上神宮七支刀銘の百濟王と倭王> (塙書房)
○吉田 晶, 2001 ≪七支刀の謎を解く－四世紀後半の百濟と倭≫ (新日本出版社)
○延 敏 洙, 1994 <七支刀銘文の再檢討－年号の問題と製作年代を中心に－> ≪年報 朝鮮學≫ 4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李 丙 燾, 1980 ≪韓國古代史研究－古代史上の諸問題－≫ <百濟七支刀考> 學生社. 原載는 ≪韓國古代史研究≫<1976년 3월> (博英社, 서울)

제3절 광개토왕비문의 일한관계－고구려·신라의 국가 형성과 왜국－

낙랑군이 400여 년 동안, 그리고 그 남쪽 반을 분할한 대방군은 약 100년 동안 반도 북부 지역을 중국의 전제 왕조에 의한 중앙 집권의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 그 지배는 한반도 북부에 문명과 정치 통치의 수법을 가져오고 정치의 각성을 초래했다.

중국왕조의 혼란과 고구려 족이나 한족의 정치나 문화의 각성은 마침내 고구려가 313년에 낙랑군을, 그리고 다음해 314년에 대방군의 지배 장치를 반도 지역으로부터 철수시켰다.

그래서 4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서 반도와 열도의 양 지역과의 관계는 이윽고 격렬한 병탄을 목표로 한 전쟁의 반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구려의 남하 전에 백제국이 마한 54국 중에서 그 한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로의 국가 통합 과정으로, 또한 열도지역에서는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통일왕권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다.

369년 가을 9월에는 광개토왕의 祖父인 고국원왕이 步騎 2만을 거느리고 남하해 왔으

므로 백제의 근초고왕은 태자에게 명하여 병사를 인솔하여 맞아 치게 함으로써 5천 여의 포로를 획득하고, 11월에는 한강에서 황색 군기를 올린 병사를 열람했다. 백제가 고구려전에서 황색 군기를 올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목된다.

371년에도 고구려 병사가 백제 지역에 습격해 오자 이번에는 백제의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정예병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전력을 다해 싸우는 가운데 날아온 화살에 맞아 전사한 바 양군은 병사를 후퇴시켰다.

백제가 이 승리를 얻고 도읍을 한산으로 이전한 사실은 고구려에 대한 방위체제의 강화와 함께 백제의 왕권이 옛 마한 54국의 북부를 향한 통치가 진행되고 또한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백제는 372년 정월에 동진에 처음 조공하고, 같은 해 6월에는 근초고왕(≪晋書≫ 권9·簡文帝에서는 백제왕 餘句)은 '鎭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되었다. 이 외교 가운데 백제왕은 칠지도를 하사받았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왕인 근초고왕과 그 태자가 구축한 왕권은 372년 동진에 견사하고 동진의 황제권력의 외교와 군사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칠지도를 모조하고, 같은 해 9월경에는 왜왕에게 증여하여 (≪일본서기≫ 권9, 神功皇后 攝政 52년), 계속되는 고구려로부터의 위기 속에 있는 백제에 왜의 병력이 가담하기를 요청했었다.

여기서 왜왕의 군대가 백제의 대 고구려전에 참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과 이를 인정하는 학설도 있다【末松 1949, 鈴木 2002】. 그 참전이 왜왕의 주도적 행동인지 아닌지 왜왕은 철 등의 실용과 위세품 재화를 얻는 실리의 목적으로 백제왕의 요청에 응하여 백제의 대 고구려전에 참전했다는 등의 학설도 있다.

이 후에도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은 계속된다.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 의하면, 375년 가을 7월, 376년 11월, 377년 10월, 같은 해 11월, 386년 8월, 389년 9월, 390년 9월 등 교전 기록은 계속된다. (뒤의 게재 자료 참조). 또한 <백제본기>에는 그동안에도 387년 9월, 391년 4월에 백제는 고구려의 반 백제 자세와 연계되는 말갈로부터 공격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러한 백제와 고구려의 계속되는 전투에 왜병이 주도적이든 수동적이든 백제의 전열에 참전했었다는 기록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서기≫나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서기≫ 권9의 神功皇后 49년조가 윤색된 '新羅征討' 이야기(나중에 게재되는 ≪일본서기≫ 참조)가 상기되지만, 直截의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의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신라본기>에서는 여기에 앞선 나물이사금 왕대인 364년 4월에 왜병은 대거

신라 왕성 근처에 침입했다가, 패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년 후인 366년 3월과 368년 봄에 백제는 신라와 서로 빙문하며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는 국제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그 기간에는 왜병이 신라를 침범한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왜국이 반신라·친백제의 입장에 있었던 사실이 ≪삼국사기≫에서도 고찰된다. 그 유명한 칠지도가 백제와 왜와의 군사적 상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납득이 된다.

그래서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비문이 동시대의 사료로서 4세기 후반의 고구려, 백제, 신라, 任那加羅와 왜국의 관계를 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단, 동시대의 사료로서의 비문은 동시에 건립 동기가 명료하지만, 그 때문에 시대의 인식이 비문에 직접 반영되는 점에 조심하게 된다.

이 비석은 1880년에 청조 정부가 압록강 유역의 주민을 관리하는 현을 설치하는 준비를 위해 현지조사에 들어간 懷仁縣知縣의 章樾의 幕下에 있던 關月山으로 인해 발견되었다. 다음해 1881년에는 '墨水廓塡'의 기법에 의한 탁본 제작이 시작되었다. 또한 1883년 4월부터 8월의 사이에 현지에 兵要地誌의 정보 조사에 들어간 일본 육군 참모본부 부원인 酒匂景信이 '墨水廓塡' 탁본을 한 벌 구입하여 그해 말에 酒匂는 귀국했기 때문에, 1884년부터는 참모본부에서 酒匂가 가져온 탁본 조사에 관계한 사람들에 의해 탁본의 비문 연구는 개시되었다【武田 1988, 2007, 2009】.

1889년에는 橫井忠直에 의한 '高句麗古碑考' 등의 비문 연구가 아시아협회에서 발행하는 ≪會餘錄≫ 제5집에 특집이 된 이후부터 '왜가 辛卯年(391)에 渡海하여 백제, 신라를 破하고 臣民으로 삼았다'는 이해가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기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박시형씨(1967, 1985)와 김석형씨(1969)의 비문 연구가 일본에 번역 소개되자, 비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의 재검토가 활발하게 되었다.

또한 이진희씨가 1972년 이후에 酒匂가 일본에 가져온 탁본은 酒匂가 비석에 석회를 바르고 문자를 개찬한 부분이 '辛卯年' 조를 처음으로 볼 수 있다는 근본적 비판이 뜨겁게 발표되었다. 사학사에 잠긴 사료의 안일한 이용을 경계하고 또한 이제까지 일본에서의 고대 日朝關係史 연구에서 숨어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적 자세에 반성을 환기하는 이씨의 논조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佐伯 1974】.

또한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의한 酒匂 이외의 兵要地誌 자료의 조사가 진행되어 비석이 서있는 集安에서의 酒匂의 행동도 구체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山近·渡辺 2008】

그러나 王健群씨가 비석이 서있는 현지에서 탐문 조사를 진행하고 비석의 옆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탁본의 판매를 생활의 양식으로 했던 탁본 공의 친척들로부터 비면의 석회는 탁본 채취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비문의 글자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다【王 1984】. 또한 武田幸男씨는 酒匂가 가져온 墨水廓塡의 탁본보다 초기에 탁본된, 즉 비면을 그대로 떠낸 원석 탁본에 대해 水谷悌二郎씨(1959)가 일찍이 추진했던 조사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원석 탁본을 국내와 한국, 대만에 합계 6부를 확인하고, 그 중 4본을 사진으로 소개하거나, 또는 탁본공이 석회를 바른 후 다수의 석회 탁본을 형식 분류하고 이것을 소개하였다【武田 2009】. 한국에서는 林基中씨(1995)가 북경 소재의 4본의 원석 탁본을, 그리고 북경에 거주하는 徐建新씨(2006)는 북경 소재의 7본의 원석 탁본과 1본의 墨水廓塡 탁본을 확인하고 그 조사 결과를 학계에 제공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비석에 대한 개찬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拓工에 의한 탁본 채취의 功利를 위한 석회 도포가 확인되어 원석의 탁본에 근거하는 비문 연구가 진정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래서 비문은 412년에 훙거한 광개토왕이 대백제전에 있어서의 결과, 그리고 신라를 공격하는 왜를 敗退시킨 전과, 신라가 고구려에 대한 종속의 심화 등, 이 왕의 여러 전과를 눈부시게 현창할 목적 하에 이러한 것들을 교묘한 구문과 문맥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문의 교묘함에 주의하면서 고구려, 백제, 왜, 신라, 가야의 관계 기술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軍□□南攻取壹八城臼模盧城各模盧城幹氏利城□□城關弥城牟盧城弥沙城□舍蔦城阿旦城古利城□利城雜珍城奥利城句牟城古須耶羅城莫□□□□城□而耶羅城豫城於利城農賣 城豆奴城沸□□利城弥鄒城也利城太山韓城掃加城敦拔□□□□城婁賣城散□城那旦城細城牟婁城亏婁城蘇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城□城□□□□□□城利城就鄒城□拔城古牟婁城閏奴城貫奴城彡穰城□□城儒□盧城仇天城□□□城□其國城□不服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迫城□□侵穴□便圍城而殘主困逼獻□男女生白一千人細布千匹跪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迷之御愆錄其後順之誠於是□五十八城村七百將殘王弟幷大臣十人旋師還都

永樂 '6년'(396년). '백잔과 신라는 舊(원래)」부터 고구려의 '屬民'이며, 그래서 고구려에 '朝貢'해 왔다. 그런데 '왜'가 '辛卯年 (391년)부터 그 이래로, 渡海하여, 百殘을 破하고, 【동으로·武田 2007, 2009】 신라를 □하여 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大'王'은 '軍을 躬率'하여 '殘國'(백제)을 '討伐'했다. 大王'軍'이 '南'으로 '공격(攻)'하여 '取'한 성은 다수였다. 그러나 '그 國城(백제)은 義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나와서 百戰'해 왔다. 그래서 大'王'은 '威'로써 '赫怒'하여 '阿利水'를 '건너(渡)', 그 國'城'을 '포위(囲)'하자, '殘主'(백제왕)는 '困逼하여, 남녀 生口 천 명과 細布 千.

匹’을 ‘獻’하고, 大‘王’의 앞에 ‘무릎꿇고(脆)’, ‘以後’ ‘영원히(永)’ (大王의) ‘奴客’이 될 것을 ‘스스로 맹세(自誓)’했다. ‘太王’은 百殘王(백제왕)의 ‘□迷의 愆(잘못·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에 격파당하여 왜왕의 ‘臣民’이 된 것)’을 ‘恩’으로 ‘赦’하고, ‘後順의 誠(‘이후 오랫동안 大王의 奴客이 되겠다는 서약’)을 記‘錄’했다. 그래서 태왕의 군은 백제의 ‘五十八城’과 ‘村七百’을 □하고, 殘主(백제왕)의 弟’와 ‘大臣十人’을 ‘거느리고(將)’ ‘師’를 ‘돌려(旋)’ ‘수도(都)’로 ‘돌아(還)’왔다.

◎八年戊戌教遣偏師觀帛慎土谷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自此以來朝貢論事

永樂 ‘8년’(398년). 大王은 ‘偏師’를 肅慎土谷에 ‘教遣’하여, ‘莫□羅城과 加太羅谷의 남녀 삼백여 인’을 ‘抄得’했다. ‘此 以來로, (肅慎土谷은) 朝貢하고, 事를 論’하게 되었다.

◎九年己亥百殘違誓与倭和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稱其忠誠□遣使還告以□計.

永樂 ‘9년’(399년). ‘百殘’이 奴客이 된다는 ‘誓’를 ‘어기고(違)’, ‘倭’와 ‘和通’했기 때문에, 大‘王’은 ‘平穰’에 ‘巡下’했다. 그러자, ‘신라’는 ‘使’를 ‘보내(遣)’어 大‘王’에게 ‘白’하여 ‘말(云)’하기를, ‘왜인은 그 國境에 가득(滿)하여, 城池를 潰破하고 있습니다. (太王의) 奴客이란 (그 신분은) 民이기 때문에, 왕에게 歸하여 命을 請합니다’라고. 그래서, ‘太王’은 ‘恩慈’로써(신라왕이 太王의 奴客이 된다고 歸服해 온) 그 ‘忠誠’을 ‘称’송하여, 신라의 ‘使’者를 신라에 ‘돌리(還)’며 ‘□計’를 신라왕에게 ‘告’하게 했다.

◎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侵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戍兵□□□□□城倭□倭潰城大□□□□盡□□□安羅人戍兵滿□□□□□□□□□□□□□□□□□□倭□□□□□□□□□□興□□□□□□□□□□辭□□□□□□□□□□□□□潰□□□□安羅人戍兵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僕勾□□□□朝貢.

永樂 ‘10년’(400년). 태왕은 ‘步騎五萬’을 ‘教遣’하여, ‘가(往)’서 ‘신라’를 ‘救’했다. 軍은 ‘男居城’으로부터 ‘신라성’에 이르렀던 바, ‘倭’는 ‘그 안(其中)’에 ‘가득(滿)’했지만, ‘官軍’이 ‘方(실제)’ 신라성에 ‘달하(至)’려 하자 ‘倭賊은 물러(退)’났다. ‘官軍’은 ‘急追’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자마자, 城은 즉시 歸服’했다. ‘安羅人 戍兵은 … 왜는 … ’ ‘옛날(昔)에는 신라의 (王인) 寐錦은 아직 스스로 와서 事를 論’한 적은 없었지만, ‘(國岡上廣) 開土境好太王’의 신라 救援戰의 성과가 올라, 신라의 왕자 ‘僕勾’가 … ‘朝貢’해 왔다. 강

◎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石城□連船□□□王躬率□□從平穰□□□鋒相遇王幢要截盪刺倭寇潰敗斬殺無數

永樂 ‘14년’(404년). ‘왜’가 ‘不軌’ 하게도 ‘帶方界’에 ‘侵入’하여, ‘連船’했으므로, 大王은 ‘躬率’하여 ‘平穰’으로부터 ‘□□’하여, 이것과 싸웠다. ‘倭寇’는 ‘潰敗’되어, 大王軍이 ‘斬殺하는 자 無數’했다.

◎十七年丁未教遣步騎五萬□□□□□□□□□師□□合戰斬殺蕩盡所穫鎧鉀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稱數還破沙溝城婁城□住城□□□□□□那□城

○永樂 '17년'(407년). 大王은 '步騎五萬'을 '敎遣'하여, … '合戰'하고, 敵을 '斬殺'하고,이것을 '蕩盡'시켰다. '穫'한 '所'의 '鎧鉀은 만여 領이며, '軍資器械'는 '數'를 '세는(称)'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軍은 '돌아가(還)'고, '沙溝城' 등의 六城을 타파했다.

비문은 고구려 중심의 사관에 입각하여, 광개토왕대의 전과를 대왕의 훈적으로서 기록하고 거기서 구축된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를 후세에 국가의 전례로서 전하는 것에 제1차적 목적이 있다.

비문은 신묘년조 가운데에서 대왕 즉위 이전의 고구려, 신라, 백제, 왜의 관계를 고구려 중심으로 제시한다. 즉 '百殘과 신라는 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고구려에 '조공'해 왔지만, '왜'가 '신묘년(391년)부터 그 이래로, 도해하여, 백잔을 타파하고, 신라를 □하여 신민으로 했다'는 사실에서 '원래(舊)'의 백제와 신라로부터의 조공은 단절되었다고 한다. 이 신묘년조는 이러한 4자 관계의 그 후의 전개를 비문에 명기하기에 앞선 '大前置文'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濱田 1973, 1974, 武田 1978, 1989】.

신라는 제쳐 놓더라도 백제가 대왕의 즉위 이전에 고구려의 '속민'으로써 '조공'했었다는 말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에는 양자는 교전을 계속하고 있어서 대왕의 조부 왕이었던 고국원왕은 백제와의 전투 중 371년에 전사까지 했던 것이다.

이 관계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고구려의 '속민'이며,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고 하는 것은 고구려 중심사관이 극도에 달한 표현이다. 여기에 신라를 가담시켜 '속민'이 고구려에 '조공'했던 관계가 대왕의 즉위 전에 왜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한 줄을 대왕의 훈적을 명기하는 기년 기사의 필두에 제시한다.

이러한 왜에 의해 단절된 '속민'인 백제와 신라의 두 나라가 고구려에 '조공'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원수인 왜를 격퇴하는 것이야말로 즉위 직후의 새 왕인 대왕이 재위연간에 획득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다.

대왕은 이 과제를 거의 달성하고 있다. '舊(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이라고 고구려가 인식한 '신라'를 永樂 10년(400년)에 대왕이 '步騎 5만 명'을 '敎遣'하여, '倭賊'으로부터 '救'했는데, 이것으로 '옛(昔) 신라(왕)인 寐錦(王)은 아직 스스로 (고구려에) 와서 일에 대해 논한 적은 없었지만,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신라를 구한 전투의 성과가 올라, 신라 왕자 '僕勾'가, … '조공'해 온 것이다. 이에 '속민'인 신라의 '조공'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제에 대해서는 大'王'은 '軍을 躬率'하여 '殘國'(백제)을 '討伐'했다. 그 전황은

앞에 쓴 永樂 6년조에 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大王 '軍'은 '남'쪽으로부터 '공'격하여, 탈'취'한 성은 다수였지만, '그 國城(백제)'은 저항해 왔다. 그래서 大'王'은 '威'로써 '赫怒'하여, '阿利水(漢江)'를 '건너(渡)'서, 백제의 왕성을 '포위(囲)'하자, 백제왕은 '곤핍하여, 남녀 生口 천 명과 細布 천 필'을 '獻'하고, 대'왕'의 앞에 '무릎 꿇고(脆)', '이후부터' '길이길이(永)' (대왕의) '노객'이 될 것을 '스스로 맹세'한 것이다. 그래서, '대왕'은 백잔왕(백제왕)'을 '恩'으로써 '赦'하고, 백제의 '58성'과 '촌 칠백'을 획득하고, '殘主(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거느(將)'리고 '都'로 개선했던 것이다.

여기서 고구려가 획득한 백제의 '58성'과 '촌칠백'의 땅은 평양 이남으로부터 한강이북 근처의 지역이며, 이후 '14년'(404년)에 '왜'가 '불궤'하게도 '침입'했던 '대방계'의 지방일 것이지만, 백제왕은 이 영락6년의 패전에서는 '노객'으로 종속을 강화되게 된다.

그런데 3년 후인 영락 9년(399년)에는 '백잔'은 대왕의 노객이 되는 '誓'를 '어기(違)'고 '왜'와 '화통'했다. 그래서, '대왕'은 백제를 징계하기 위해 '평양'으로 '순하'했던 것이다.

왜는 고구려의 '노객'이 된 백제를 고구려로부터 이탈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라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신라는 '평양'으로 '순하'한 대왕의 아래에 사자를 '遣'하여, '왜인'이 신라의 '국경에 가득차, 성지를 궤파'하고 있는 신라의 궁상을 보고시키고, '(신라왕은 대)왕에게 歸하여, 목숨을 구해줄' 것을 대왕에게 말씀드렸다.

여기에 이르러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 신라와의 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야 말로 왜라는 사실에서 대왕은 왜를 향해 격퇴전을 하게 된다.

'대왕'은 우선, '恩慈'로써(신라왕이 대왕의 노객이 된다고 하여 귀복하러 온) '충성'을 '칭송'하고, 신라의 '사'자에게 신라의 구원책을 신라왕에게 '고'하게 하지만, 그 방책이란 다음 해의 신라 구원전에서 실현된다.

영락 10년(400년)에는 대왕은 '보기 5만'을 '교견'하여, '신라'를 '구'하는 작전을 전개했다. 그 전황은 고구려군은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 (신라의 왕성인 금성)'에 '이르'렀던 바, '왜'는 앞의 '국경'으로부터 더욱 진입하여 '그 안'(신라의 금성)에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관군(고구려군)'이 '方(실제)'로 신라의 금성에 '도달'하자 '왜적은 퇴'하였기 때문에, 관군은 '급히 추적'하여 '任那可羅의 從拔城에 이르자, 그 성은 즉시 歸服'해 왔다.

대왕이 '왜적'을 반도의 최남단으로 몰아넣고, 신라를 구원하자, '신라의 寐錦(신라왕)'은 '아직' (스스로) (고구려에) 와서 일에 대해 논한 일은 없었지만, 신라의 왕자인 '僕勾'가,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

고구려는 '왜적'을 반도의 최남단으로 후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4년 후인 영락 14년(404년)에, 왜는 다시 고구려의 지배권을 침입하고 있다. 그것은 왜가 반도의 최남단으로 패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이 영락6년에 백제에 친정하여 획득한 그 북부의 '대방계'까지 해로로 북상하는, 고구려에서 보면 왜의 '불궤'의 침입행위이다.

그래서 대왕은 '궁솔'하여 '평양'에서 나와, 이것과 싸운 후, '왜적'은 '潰敗'되고, 대왕군은 '참살하는 자 무수'한 전과를 올렸다. 그래서 '궤패'시킨 '왜구'가 거듭 오지 못하도록, 영락 17년(407년)에 대왕은 '보기 5만'을 '교견'하여, 백제 북부지역의 소탕전에 나가, 적을 '참살'하고, 이것을 '탕진'시켜, 적으로부터 '鎧鉀은 만여 領'과 무수한 '軍資器械'를 획득했다. 또한 (고구려)군은 凱旋 도중에는 '沙溝城' 등 6개의 성까지 격파했다.

그런데, 이 영락 17년(407)의 대왕의 백제 파병은 ≪삼국사기≫ 본기에 대응하는 기사가 없는 탓도 있어서 인지, 후연을 향해 파병한 것이라는 이해가 있다【千 1973】. 그러나 광개토왕대의 후연과의 관계는 ≪梁書≫ 권54·諸夷·고구려에는, 395년에 즉위한 후연왕 寶로부터 광개토왕은 '平州牧遼東帶方二國王'으로 책봉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晋書≫ 권124·載記·慕容盛에는 399년 경에 광개토왕이 후연에 견사하여 方物을 바쳤지만, ≪자치통감≫ 권111·晋紀에는 400년에는 광개토왕이 후연에 대해 禮가 '慢'했기 때문에 후연 왕인 모용성이 거느린 3만 병사의 공격을 고구려는 받았으므로, 402년, 404년에 후연에 반격하고, 405년, 406년에는 후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전 이후인 408년에 광개토왕은 후연에 견사한 바, 후연에서는 慕容熙의 위를 이어받은 慕容雲은 그 조부가 고구려의 支庶라는 혈통 때문에 광개토왕을 후연 왕실의 종족에 제수하는 관계를 얻었으며, 이러한 고구려가 후연과의 관계에서는 열위에 있어, 이 관계는 광개토왕이 구축하는 고구려 중심의 질서를 명기하는 비문에는 부적합하여 명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광개토왕이 반도 남부 지역에 대한 전승의 훈적을 명기하는 이 비문에서는, '신묘년'조에 있어서, 신라는 고구려의 '속민이며, 조공해 왔었다'는 전제를 하고 있었지만 그 신라로부터는 왕자인 '僕勾'가 '조공'하고 오는 관계를 얻고 있다.

한편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속민이며, 조공해 왔다'고 전제를 했던 백제는 일단은 고구려 '노객'이 되면서도, 왜와 '화통'하여, 고구려의 지배권에서 이탈했으므로 이에 고구려는 공격을 가하여 그 북부의 성과 촌을 다수 획득한 것이지만, 고구려는 백제를 지배권 하에 넣을 수는 없었다.

또한 고구려에서 보면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에 조공하는 국제관계를 파괴시킨 원수인 '왜적'을 영락 10년과 14년에 패퇴시키고 혹은 '潰敗'시켰지만, '왜적'을 반도 남부의 '임나가라' 지역으로 몰아냈다 해도 반도 지역으로부터는 완전히 이를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 비문으로부터 판독된다.

그래서, 왜는 광개토왕대에 반도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했었을까? '신묘년'(391년)에 왜가 '도해'하여 '백제 신라'를 '파'하고, 이를 '신민'으로 했다는 것은 이 비문에 구성된 '大前置文'의 뜻이었겠지만, 그것이 역사적 史實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가, 즉 391년에 왜가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하기까지 침입하고, 이를 정복한 것인가?

왜는 백제와는 369년 이래의 고구려 전선에서 공동전선에 선 것에 대한 개연성이 지극히 높음은 칠지도를 둘러싼 외교로부터 납득할 수 있지만, '신묘년'에 왜가 '백제 신라'를 토벌하고 이를 '신민'으로 했다는 것은 고구려가 왜를 원수처럼 본 과도한 표현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 '大前置文'은 고구려 중심으로 반도 지역의 국제질서를 회복한다는 고구려의 정의를 제시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신묘년'의 기사는 문면 그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 후술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 의하면, 광개토왕대인 393년 5월, 405년 4월, 407년 3월에 왜는 신라에 침입하고 있다. 역시 광개토왕대에도 왜가 반도의 동남부 지역에 침입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에도 신라는 402년 3월에는 실성왕이 전 왕인 나물왕의 아들인 未斯欣을 왜에 인질로 보냈고, 그의 귀국은 광개토왕이 훙거한 후인 418년의 일인(≪삼국유사≫ 紀異第一·나물왕 金堤上) 점으로 보아도, 왜의 침입으로 고생하는 신라의 동향은 이해가 된다. 이러한 신라가 왜에 고생하는 사태는 고구려의 '정의'를 제시하는 '대전치문'에서는 '신라는 왜에 패망하여, 그 신민이 되었다'고 과도하게 표현되었다고도 생각될 것이다.

그러면 1970년대에는 '신묘년'조에 주어진 해석론에서는, '渡海' '破'의 주어를 고구려로 하여 이를 읽고, 또한 이 '신묘년'조 속의 두 文字格의 공백에도 문자를 추량하여 읽어서 고구려에 유리한 백제, 신라, 왜와의 관계를 읽는 설이 다수 제출되기도 했다. 그 때까지 '渡海' '破'의 주어를 왜로 이해하고 의문시되지 않았지만, 왜에 우위인 동향을 이 조의 문맥 속에서 해석해 온 통설에 대한 비판이 활발했던 연구사가 있다【佐伯 1974】.

그러나, '신묘년'조가 '영락 6년'의 대 백제 親征의 前置文이었고, 나아가서는 그 후의 고구려가 백제와 왜적에게 정토를 가하고 또한 신라를 구원하는 대전에 이르는 대왕의 '躬率'(親征)과 '교견'(파병)의 전쟁에 대해 고구려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내세운 '대전치

문'이라는 것이 이해되자, 이 신묘년조는 고구려에게 불리한 상황이 대왕의 친정과 파병으로 인해 해소되고, 고구려의 전과와 대왕의 공적이 보다 높이 상찬되는 구문임이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 '대전치문'의 위치와 문맥의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대전치문'이나 비문속의 왜의 동향을 다른 시각에서 과소하게 보는 설이 1990년대 이후에는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왜는 광개토왕의 훈적을 장식하는 트릭스터라는 설도 비문의 문맥과 구문의 교묘함을 평가하는 나머지 주창된 하나의 '왜 과소평가설'이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李成市 1994】.

또한 '왜' '왜적' '왜구'란 백제가 부른 '군사력'으로 해석하는 설도 최근에 제출되고 있다【金泰植 2005】. 고구려와 군사적으로 대립을 계속하는 백제의 전열에 왜인 병사가 서 있음을 인정하고 그 왜병은 백제나 가야가 철을 왜에 공급하는 대가로서 왜에 요구한 군사력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이해라 하겠다.

이 학설은 왜병이 능동적으로 반도 지역에 출병했다는 이전부터 전래되는 설 대신에 왜병을 수동적인 참전의 병력으로 보는 설이다. 그러나 이 설은 왜병이 능동적으로 백제에 가담하여 고구려전에 참전했다는 설을 충분하게 비판 극복할 수 있지는 않다. 칠지도 명문이나 비문 그리고 ≪삼국사기≫나 ≪일본서기≫가 전하는 바는 백제의 대 고구려, 신라 전선에 참가하는 왜병 왜인의 능동적 행동이다. 그 기억은 5세기의 소위 '왜 5왕'이 중국의 남조에 장군호를 요구하며 주장한 도독의 범위 속에 '백제, 신라' 등의 반도 남부 지역을 포함한 왜의 주관적 주장까지 남기고 있다【坂元 1981】.

3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서 왜국에서는 야마타이국으로부터 더 나아가 왕권의 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그 4세기의 열도 지역에서는 大和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 九州로부터 瀨戶內海 지역에 이르는 지역국가의 연합이 진행되고 있어서, 백제, 그리고 가야 지역의 위기적 동향은 이 연합 과정과 무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연합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白石 2006】.

그래서 4세기 후반의 반도와 열도의 지역세계 가운데에서 왜가 '渡海'하여, 고구려와 교전하는 백제의 전열에 선 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이 전쟁은 전후인 5세기 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왜의 4자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광개토왕비문≫을 향한 연구 성과가 우선 중요시되지만, 또한 ≪일본서기≫나 ≪삼국사기≫의 기록도 검토되면 좋겠다.

【비문 기사와 관련된 기타 사료】

고구려가 313년에 낙랑군을, 다음 해인 314년에는 대방군이라는 중국왕조가 BC 108년 이래로 반도 서북지역에 설치한 중앙집권 지배기구에 공격을 가하여, 이를 반도의 서북지역으로부터 소멸시킨 것은 마침내 반도와 열도 지역의 정치 동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두 군과 교통했던 마한 54국의 각국 가운데에서 백제가 국가로서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구려와의 완충지역이기도 했던 두 군의 소멸은 군현의 토지와 인재, 자원을 고구려와 백제가 흡수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불렀다.

광개토왕대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는 전쟁의 원인은 우선 광개토왕의 조부인 고국원왕이 371년 10월에 평양까지 공격해 올라온 백제의 근초고왕이 거느린 3만의 백제군을 맞아 싸운 전쟁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 같은 달 23일에 훙거한 패전에서 시작된다.

그 후의 양국의 교전은 전술한 칠지도와 그 명문을 둘러싼 동진과 백제와 왜, 그리고 고구려의 관계사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은 일진일퇴였다. 이 백제에 왜왕이 연휴했다는 것은 두 군의 설치 이래로 왜가 郡과 왕조에 遣使한 역사가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384년 7월에는 近仇首王은 晋과 통교하고, 386년에는 백제의 세자인 餘暉(辰斯王)가 '使持節都督鎭東將軍百濟王'에 책봉되어(≪晋書≫ 권9·孝武帝·太元 9, 11년), '백제왕'으로 동진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백제는 동진과의 관계를 진행했지만, 이 백제 외교의 안정은 왜왕을 좀 더 백제에 끌어들이게 된다.

한편 고구려는 對百濟策을 우세한 가운데 추진하려고 백제의 동쪽에 위치하는 신라를 영입하여, 377년 봄에는 신라와 함께 전진과 통교하고(≪자치통감≫ 권104·晋紀26·烈宗·太元2년), 또 382년에는 신라가 아마도 고구려의 引導를 받으면서 전진과 통교하는 등, 고구려는 신라를 영입하면서 화북의 왕조와 통교했다(≪太平魚籃≫ 권781·四夷部2·東夷 2·신라·符堅建元 18년).

그러나 광개토왕의 부친인 고국양왕은 385년에 전진을 대신하여 세력을 구축한 後燕의 요동군과 제3현도군에 공격해 들어가 패퇴했다.(≪梁書≫ 권54·高句麗傳·孝武太元10년).

고구려가 남쪽의 백제와, 그리고 서쪽에는 後燕이라는 두 쪽 관계에 고민했던 대외 정세 가운데에서 고구려는 동남쪽의 신라와의 관계를 우세하게 진행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고국양왕은 즉위 9년(392) 봄에 신라에 견사하고 이를 위압하자 신라왕은 왕의 조카 실성을 인질로 하여 고구려에 보냈다.

고구려는 신라와의 사이에서 우위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자, 392년 5월에는 훙거한 고국양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한 광개토왕(비문에는 왕의 즉위는 391년)은 즉시 같은 해 7월부터 남쪽의 백제에 공격을 준비했다. 그 후 왕이 발동한 고구려의 대외전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문의 문맥에서는 명기되었던 것이다.

광개토왕이 백제의 동쪽 이웃인 신라를 종속시키고 백제를 대상으로 시작한 공격의 전개는 <고구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高句麗本紀>
・故國壤王 3年(386) 春正月. 立王子談德爲太子. 秋八月. 王發兵南伐百濟.
・6年(389) 秋九月. 百濟來侵. 掠南鄙部落而歸.
・7年(390) 秋九月. 百濟遣達率眞嘉謨攻破都押城. 虜二百人以歸.
・9年(392) 春. 遣使新羅修好, 新羅王遣姪實聖爲質.
・廣開土王卽位年(392) 7月. 南拔百濟, 拔十城. 9月.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冬十月.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峭絶,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乃拔.
・2年(393) 8月. 百濟侵南辺. 命將拒之.
・3年(394) 7月.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逆擊敗之. 餘寇夜走. 8月. 築國南七城. 以備百濟之寇.
・4年(395) 8月. 王與百濟戰於浿水之上. 大敗之. 虜獲八千餘級.
・18年(409) 7月.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戶. 8月. 王南巡.
・22年(413) 10月. 王薨. 号爲廣開土王.

이 중에서 고구려가 우세한 가운데 전개된 對百濟戰은 <백제본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지만, 왜병의 동향이 고구려와 백제의 양 본기에 보이지 않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百濟本紀>
・辰斯王 8年(392) 7月.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余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冬10月. 高句麗攻拔關彌城. 王田於狗原. 經旬不返.
・阿華王 2年(393) 8月. 王謂武曰. 關彌城者我北鄙之襟容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囲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継. 引而歸.
・同 3年(394) 7月. 與高句麗戰於水谷城下敗績.
・同 4年(395) 8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陣於浿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11月. 王欲報浿水之役. 親帥兵七千人過漢水. 次於青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廻軍至漢山城. 勞軍士.
・同 6年(397) 5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7月. 大閱於漢水之南.
・同 7年(398) 8月. 王將伐高句麗. 出帥至漢山北柵. 其夜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9月. 集都人習射於西台.
・同 8年(399) 8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同 11年(402) 5月. 遣使倭國求大珠.
・同 12年(403) 2月. 倭國使者至. 王迎勞之特厚. 7月. 遣兵侵新羅辺境.
・腆支王卽位(405). 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旣至國界. 漢城人階忠來告日. 大王棄世. 王弟碟禮殺兄自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碟禮. 迎腆支卽位.
・同 2年(406) 2月. 遣使晋朝貢.
・同 5年(409) 倭國遣使送夜明珠. 王優禮待之.

≪삼국사기≫의 두 본기로부터 판독되는 광개토왕대의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은 武田씨(1989)도 지적했듯이 광개토대왕비문에서 본 양국의 전황에 충분히 대응된다. 즉, 대왕이 즉위한 392년 7월에는 4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여, '石峴等 10여 개의 성'과 '漢水 이북의 여러 부락'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395년 8월에 대왕이 7천의 병사를 이끌고 친정하여 浿水에서 백제군을 대파하고, 395년 겨울 11월에는 백제의 阿華王은 마찬가지로 병사 7천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보복하는 친정을 시행했다.

백제는 이 대 고구려전에 불리한 전황 가운데에서 397년 5월에는 왜국에 태자 腆支를 인질로 보내어 인연을 맺지만 여기까지의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과 백제가 왜와 인연을 맺은 외교와 그 후 398년과 399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에 보복전을 도모한 경과는, 비문에서는 영락 6년(396)에 백제가 광개토왕의 친정을 당하고 '58성'과 '촌 칠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왕(아화왕)이 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는 대왕의 '노객'이 될 것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곧 광개토왕과의 '誓'를 '어기(違)'고 '왜'와 '화통'하고, 고구려와 긴장관계를 계속한 경과와 충분히 대응되는 것이다.

또한 409년 8월에 광개토왕이 '南巡'한 군사도 비문에서 본 영락 '14년'(404)과 '17년'(407)에 걸친 광개토왕의 백제와의 경계 지역에서의 군사와 통한다【武田 1989】.

이 404년에 '대방계'에 나타난 '왜구'의 동향은 <백제본기>에서는 왜국에 인질로 있던 腆支가 405년에 귀국하여 즉위한 사정으로 되어 있는데, 왕은 왜병 백명에게 호송되어 한성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해도에서 즉위의 시기를 기다렸다는 기록과 연결될 것 같다.

이 왜병이 한반도 서해안을 한성 부근까지 북상한 군선과 해로의 확보가 왜였기 때문에, 비문에 기록된 왜의 '帶方界'로의 '不軌'의 '침입'이 가능하다. 비문과 ≪삼국사기≫

와의 대응관계는 다음의 <신라본기>에서도 볼 수 있다.

○ <新羅本紀>

·奈勿麻立干 37年(392) 正月. 高句麗遣使. 王以高句麗强盛. 送伊飡大西知子實聖爲質.

同 38年(393) 5月. 倭人來囲金城. 五日不解. 將士皆請出戰. 王曰. 今賊棄舟深入. 在於死地. 鋒不可当. 乃閉城門. 賊無功而退. 王先遣勇騎二百. 遮其歸路. 又遣步卒一千. 追於濁山. 夾擊大敗之. 殺獲甚衆.

同 46年(401) 7月. 高句麗質子實聖還.

·實聖麻立干元年(402) 3月. 與倭國通好. 以奈勿王子未斯欣爲質.

同 4年(405) 4月. 倭兵來攻明活城. 不克而歸. 王率騎兵. 要之濁山之南. 再戰破之. 殺獲三百餘級.

同 6年(407) 3月. 倭人侵東辺. 夏6月. 又侵南辺. 奪掠一百人.

同 7年(408) 2月. 王聞倭人於對馬島置營. 貯以兵革資粮. 以謀襲我. 我欲先其未發. 揀精兵擊破兵儲.

同 11年(412) 以奈勿王子卜好. 質於高句麗.

同 14年(415) 8月. 與倭人戰於風島克之.

·訥祇麻立干2年(418) 正月. 王弟卜好自高句麗, 與堤上奈麻還來. 秋. 王弟未斯欣自倭國逃還.

同 8年(424) 2月. 遣使高句麗修聘.

同 15年(431) 4月. 倭兵來侵東辺. 囲明活城. 無功而退.

同 17年(433) 7月. 百濟遣使請和. 從之.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 볼 때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서 392년은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왕이 즉위하기 전이지만, 고구려는 신라로부터 王姪 實聖을 인질로써 맞아들인다. 이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 우위의 위치에 있는 것은 '신묘년'조에 명기된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이라는 고구려 중심의 사관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역사일 것이다.

또한 신라는 왜와 백제병의 습격에 대응하여, 412년에는 신라가 왕자 卜好를 고구려에 인질로 삼게 하지만, 이는 비문에 '永樂 10년'(400)의 신라 구원책의 전과로서 신라는 고구려에 대한 종속관계를 추진하여, '僕勾'(卜好)가 고구려에 '조공'했다는 것에 대응된다.

비문에서는 永樂 9년(399)조에 백제의 '和通'을 받은 왜가, '화통'을 계기로 했을 것이지만, 신라의 '국경'에 '가득(滿)'하여 '城池'를 '潰破'하고 있다는 왜병의 구체적 행동을 평양으로 '巡下'한 광개토왕에게 구원을 요청할 목적으로 신라에서 파견된 사신이 보고하고 있다.

이 경과는 <신라본기>에서는 나물마립간 38년(393)에 왜인이 신라의 금성을 포위했다가 신라의 기병 200과 보졸 천명에게 협격을 당하고 敗走한 것, 402년에는 신라가 왕

자를 왜에 인질로 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는 405년과 407년에 신라의 왕도나 동쪽 변두리를 공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왜가 신라의 '국경'이나 왕성을 습격하는 기사는 비문의 영락 9년(399)조에 명기된 신라의 사자가 광개토왕에게 보고한 '왜인'의 동향과 신라의 위기, 그리고 다음 해인 400년에 광개토왕이 신라를 구원하여 '보기 5만'의 군을 '교견'하자, 왜적은 '국경'에서 진행하여 '신라성'의 '그 안'에 '가득'차 있었고, 고구려군 앞에서 '왜적'이 물러간 전황에 충분히 대응되는 것이다.

그런데 비문에 기록된 '신라성'은 '신라의 왕성'이 아니라, '안라의 접경지역으로써 신라의 변경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본서기≫ 欽明紀의 '久禮山五城'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을 양산에서부터 밀양 지역으로 비정하는 설이 있다【白承忠 2004】. 그러나 왜는 '그 국경'에 '가득'하여, 그 지역의 '성지'를 '궤파'하고, 이윽고 '신라성'의 '그 안'에 '가득'찰 때 까지 진군한 것이며, 광개토왕이 '교견'한 '관군'인 고구려군이 남하, 진군한 위세 앞에 왜인이 '물러'간 경과를 비문의 영락 9년부터 10년의 문맥에서 파악한다면 이 설에는 따를 수 없다.

또한 <백제본기>에는 아화왕이 397년 5월에 왜와 결합하여, 고구려에 보복전을 시도하고, 402년 5월과 403년 2월에는 왜와 사자를 교환하자, 403년 7월에는 백제가 신라의 변경을 습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신라를 습격하는 백제의 행동은 비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백제의 동향은 신라를 종종 습격한 왜병과는 서로 제휴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경우에는 <신라본기>에서는 393년 5월에 왜병에게 응전한 신라의 先遣 기병은 200명, 그리고 추가 파병의 보졸이 1000명이며, 405년 4월에 '살획'한 '왜병'은 300여 명이었던 것, 그리고 <백제본기>에 의하면, 405년에 왜가 백제의 인질이었던 왕자 전지를 백제에 호송했을 때의 왜병이 100명이었던 병사의 수가 주목된다.

한편 비문에서는 광개토왕이 '영락 10년'(400년)의 신라 구원전과 '영락 17년'(407년)의 백제 북부 평정전으로 생각되는 전투에도 '교견'한 병력이 '步騎 5만'으로 되어 있다. 이 병사 수는 반드시 고구려 병의 실체였을까? 광개토왕의 대 백제전의 병사 수는 <고구려본기>에는 '5천'(394년), <백제본기>에서는 '4만'(392), '7천'(395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백제 아화왕이 이끈 병사 수는 '1만'(393년), '7천'(395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병사 수에 비교하자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의 왕성을 습격하는 왜병의 수는 많지 않다. 비문에 명기된 '步騎 5만'의 고구려군은 백제군을 중핵으로 하고 이

에 왜병이 참가하는 군에 대응되는 병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步騎 5만'의 규모는 광개토왕의 군사권 장악 능력을 헌창하는 定型의 숫자로도 보인다.

그러한 광개토왕 대의 고구려는 결국은 백제를 완전하게 굴복시킬 수 없었다. 또한 신라의 왕성으로부터 왜병을 철수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반도 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고구려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세를 이어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고구려는 그 서북에 인접한 후연 등의 세력에도 대응해야 하며, 반도지역의 남북으로 전군을 '躬率' 또는 '교견'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아래와 같이 빈번히 서북쪽에 인접한 후연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 <高句麗本紀>의 西北方 관계기사

·故國壤王 2年(385) 夏六月. 王出兵四萬襲遼東. 先是燕王垂命帶方王佐,鎭龍城. 佐聞我軍襲遼東. 遣司馬郝景將兵救之. 我軍擊敗之. 遂陷遼東玄菟. 虜男女一萬口而還. 冬十一月. 燕慕容農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郡. 初幽冀流民多來投. 農以范陽龐淵爲遼東太守招撫.

·廣開土王 卽位年(392) 九月.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同 9年(400) 春正月. 王遣使入燕朝貢. 二月. 燕王盛以我王禮慢. 自將兵三萬襲之. 以驃騎大將軍慕容熙爲前鋒. 拔新城南蘇二城. 拓地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同 11年(402)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棄城走.

同 13年(404) 冬十一月. 出師侵燕.

同 14年(405)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 且陷. 熙命將士毋得先登. 俟剗平其城. 朕與皇后乘輦而入. 由是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同 15年(406) 冬十二月. 燕王熙襲契丹至陘北. 畏契丹之衆欲還. 遂棄輜重. 輕兵襲我. 燕軍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我木底城. 不克而還.

同 17年(408) 春三月. 遣使北燕. 且叙宗族. 北燕王雲遣侍御史李拔報之. 雲祖父高和句麗之支屬. 自云高陽氏之苗裔. 故以高爲氏焉. 慕容寶之爲太子. 雲以武藝侍東宮. 寶子之. 賜姓慕容氏.

同 18年(409) 秋7月.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戶. 8月. 王南巡.

同 22年(413) 10月. 王薨. 号爲廣開土王.

또한 ≪太平御覽≫ 권359·兵部·障泥에 의하면, 이 무렵 대왕은 南燕에도 견사하여 천리마나 皮障泥 등을 헌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구려본기>나 그 원전이기도 한 ≪자치통감≫ 등에 기록되면서도 ≪비문≫에는 명기되지 않았던 것은, 광개토왕대의 서북 방면과의 전투를 포함하는 관계가 '영락 20년'조에 북부여로 대왕이 친정하여 중단한 조공관계를 부활시킨 훈적에는 이르지 못할 정도로 고구려에는 열세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대왕의 치세는 그 뒤를 이은 아들인 장수왕이 대왕의 상이 끝난 414년에 부왕의 현창비를 세운 정치과제는 고구려 국가의 정체성이 '天'에 유래하며, 그 기반이 시조의 '巡幸南下' 이래로 오늘날에도 백제·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로부터의 조공을 계속시킨다는 '남'방책에 있는 것을 후세에도 顯示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비문≫에서는 '남'쪽의 전과를 잘 명기하고 또한 서남방을 정면으로 하여 비를 屹立시키고 있어서, 고구려의 우위적 국제관계를 구축할 수 없는 서북 방면의 전황이 명기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濱田 2005】.

광개토왕의 '남'쪽을 향한 세력권의 확장은 시조의 '순행 남하'와 접합되는 聖戰으로 이해되며, 백제와 왜병의 전투는 당연히 그 '남'방책의 요점이었다. 그 남방 진출은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는 것으로 일단 결과로서 구현된다【濱田 2006】.

≪삼국사기≫ 본기는 연월에 따른 편년법이지만, 비문은 광개토왕에 의한 '躬率'(親征)과 '교견'(派兵)에 의한 전적에 따라 구축된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 구성을 한정된 비석의 틀 안에 또한 대왕에 대한 송덕과 戰果의 현창이라는 목적으로 효과적 서술을 의도하여 편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편년의 기법이 크게 가해져 있을 것이다.

대전치문을 설정하여 대외전쟁을 '친정'하고, 또는 '파병'하는 광개토왕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대외전쟁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그 전쟁의 경과와 그 때문에 획득된 전과, 그 후에 형성된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 등의 순서로 아마도 친정이 있었던 각 해를 중심으로 편년하는 법이 비문에서는 채용되었을 것이다.

비문과 ≪삼국사기≫의 각 본기가 마찬가지 역사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사건의 편년이 완전하게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양자의 이 편년법 차이에 근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서기≫의 일한관계】

≪일본서기≫에서는 이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초까지의 일한관계는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이를 칠지도와 광개토왕비 또는 중국사료, 나아가 ≪삼국사기≫에 의해 구성된 이제까지의 일한관계사 모습과 대조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일본서기≫에서는 백제와의 관계사가 주축이 되고 있다. 이것을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과 대응시키면, ≪일본서기≫의 백제관계 기사는 압도적으로 구성요소가 풍성하며 그것들은 인물 중심의 '이야기'적 서술이 된다. 그것은 ≪일본서기≫의

편찬 과정인 7세기 후반에 살던 씨족이 그 '조상'이 율령국가의 형성 과정에 힘쓴 업적이나 왕권에 대한 기여 관계를 씨족 조상의 활동을 이야기화한 전승 기록이 편찬에 활용된 사실을 암시한다.

즉 대외관계의 이야기에서는 <백제기>를 참고로 하듯이, 백제관계 기사에서는 <백제기>를 주기하지 않는 기사라 하더라도 이것을 편찬의 참고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되는 바이다.

또한 천황을 정점으로 했던 율령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일본서기≫를 편찬하는 사관의 중심에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한 정치적 입장과 사관으로부터의 윤색이 ≪일본서기≫의 대외관계 기사에 종종 보이지만, 그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역사 고찰의 장에서 제외한다던가 또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뒤에 게재한 ≪일본서기≫의 기록 중에서, 397년의 '왕자 直支'의 일본으로의 인질과 405년의 直支의 백제로의 귀국 기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본 腆支의 인질과 귀국과 그 후의 즉위 기사와 대응해도 모순되지 않는다【三品 1962, 武田 1989】.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사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은 405년의 아화왕의 薨去 기사도 그렇지만, 이 외에도 392년의 辰斯王의 훙거와 아화왕의 즉위, 또 375년 肖古王의 薨去와 다음 해인 376년의 貴須王의 즉위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375년 11월에 近肖古王이 훙거하고, 近仇首王이 즉위했다는 기록과는 称元法의 차이에 의한 1년의 차이는 있지만, 대응되는 것이다.

이 <백제본기>에 의하면 근초고왕 30년(375)조에는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라고 되어 있다. 372년에는 백제에서는 동진으로부터 하사받은 칠지도를 모조하여 그 유래를 설파하는 27글자의 독자적인 짧은 글을 뒷면에 상감했는데, 그 무렵부터 백제는 확실히 기록서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고흥이란 출신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무렵 백제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의 군과 일진일퇴의 전황이었지만, 이러한 가운데 고흥은 '高'라는 그 성씨로부터 추측하건데 고구려 왕족에 가까운 지식인 혹은 그 2郡에 관련된 漢人系의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단, 나중에 게재되는 ≪일본서기≫의 기록은 '百濟記'를 인용 사료의 하나로 하고 있어서, ≪삼국사기≫ <백제본기>로 편년된 백제왕의 계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일본서기≫에 풍부하게 기록된 인물의 행장을 중심으로 한 백제와 왜국의 관계사의 세부

까지가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일본서기≫ 중에서 4세기에 상당하는 기사로 표현된 '천황'이나 '일본'호는 이 4~5세기에서는 아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天朝'의 칭호도 중국 남조로부터 책봉을 기본으로 하는 백제의 외교 자세를 고려하면, 백제가 일본에 대해 주창하는 호칭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것도 8세기 초반의 ≪일본서기≫를 편찬하기 전후의 천황의 왕권을 수식하는 용어이다.

≪일본서기≫의 기록이 씨족 시조의 업적을 '이야기'화하고 또 후세의 백제 관계 기록도 ≪일본서기≫ 편찬 시의 '지금', 즉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율령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씨족 국가에 대한 기여를 현시하면서 '이야기'화가 계속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화가 전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기억'을 '이야기'화했던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 '이야기'화 가운데에서 역사를 읽어내는 작업은 비판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그 '이야기'화 속에서는 편찬하는 '오늘날'에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는 씨족의 '이야기'로서는 망각되기 쉬운 것이며 그 반대로 오늘날에 유리한 '이야기'는 사료비판을 피하기 쉽다. 광개토왕과의 전투가 ≪일본서기≫에서 전혀 그 모습조차 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의 고구려와 왜의 전투 기억은 ≪宋書≫ 권97·倭國傳에 기록된 478년에 왜 5왕 중 한 사람인 武가 上表文 중에서 "句驪無道, 圖欲見呑"이라고 서술하고, 송의 順帝에게 고구려의 '無道'를 비난한 역사의 기억에서 보인다. 이와 같이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도 계속된 백제에 가담한 고구려와의 왜의 전쟁 기억은 국가 차원에서는 망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日本書紀≫

≪日本書紀≫ 卷9, 氣長足姬尊(神功皇后)紀

·同 46年(366) '春三月乙亥朔,遣斯摩宿禰于卓淳國. 〔斯摩宿禰者, 不知何姓人也〕於是, 卓淳王末錦旱岐, 告斯摩宿禰曰, 甲子年(364)七月中, 百濟人久氐, 彌州流, 莫古三人, 到於我土日, 百濟王, 聞東方有日本貴國, 而遣臣等, 令朝其貴國. 故求道路, 以至于斯土. 若能教臣等, 令通道路, 則我王必深德君王. 時謂久氐等曰, 本聞東有貴國. 然未曾有通, 不知其道. 唯海遠浪嶮. 則乘大船, 僅可得通. 若雖有路津, 何以得達耶. 於是, 久氐等曰, 然卽當今不得通也. 不若, 更還之備船舶, 而後通矣. 仍曰, 若有貴國使人來, 必應告吾國. 如此乃還. 爰斯摩宿禰卽以傔人爾波移與卓淳人過古二人, 遣于百濟國, 慰勞其王. 時百濟肖古王, 深之歡喜, 而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匹, 及角弓箭, 幷鐵鋌四十枚, 幣爾波移. 便復開寶藏, 以示諸珍異曰, 吾國多有是珍寶. 欲貢貴國, 不知道路. 有志無從. 然猶今付使者, 尋貢獻耳. 於是, 爾波移奉事而還, 告志摩宿禰. 便自卓淳還

之也’

·同 47年(367) ‘夏四月, 百濟王使久氐, 禰州流, 莫古, 令朝貢. 時新羅國調使, 與久氐共詣, 於是, 皇太后, 太子譽田別尊, 大歡喜之日, 先王所望國人, 今來朝之. 痛哉, 不逮于天皇矣. 群臣皆莫不流梯. 仍檢校二國之貢物. 於是, 新羅貢物者, 珍異甚多. 百濟貢物者, 少賤不良. 便問久氐等曰, 百濟貢物, 不及新羅, 奈之何. 對日, 臣等失道, 至沙比新羅. 則新羅人捕臣等禁囹圄. 經三月而欲殺. 時久氐等, 向天而呪詛之. 新羅人怖其呪詛而不殺. 則奪我貢物, 因以, 爲己國之貢物, 以新羅賤物, 相易, 爲臣國之貢物. 謂臣等日, 若誤此辭者, 及于還日, 當殺汝等. 故久氐等恐怖而從耳. 是以, 僅得達于天朝. 時皇太后, 譽田別尊, 責新羅使者, 因以, 祈天神曰, 當遣誰人於百濟, 將檢事之虛實. 當遣誰人於新羅, 將推問其罪. 便天神誨之曰, 令武內宿禰行議. 因以千熊長彦爲使者, 當如所願. 〔千熊長彦者, 分明不知其姓人. 一云, 武藏國人. 今是額田部槻本首等之始祖也. 百濟記云職麻那々加比跪者, 蓋是歟也〕於是, 遣千熊長彦于新羅, 責以濫百濟之獻物’

·同 49年(369) ‘春三月, 以荒田別, 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 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 沙々奴跪〔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領精兵, 與沙白, 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㶱,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七國. 仍移兵, 西廻至古爰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 辟中, 布彌支, 半古, 四邑, 自然降服. 是以, 百濟王父子及荒田別, 木羅斤資等, 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祇〕. 相見欣感.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彦與百濟王, 至于百濟國, 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敷草爲坐, 恐見火燒. 且取木爲坐, 恐爲水流. 故居磐石而盟者, 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 自今以後, 千秋萬歲,無絶無窮. 常稱西蕃,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彦, 至都下, 厚加禮遇. 亦副久氐等而送之’

·同 50年(370) ‘春二月, 荒田別等還之. 夏五月, 千熊長彦, 久氐等, 至自百濟. 於是, 皇太后歡之問久氐曰, 海西諸韓, 旣賜汝國. 今何事以頻復來也. 久氐等奏日, 天朝鴻澤, 遠及弊邑. 吾王歡喜踊躍, 不任于心. 故因還使, 以致至誠. 雖逮萬世, 何年非朝. 皇太后勅云, 善哉汝言. 是朕懷也.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同 51年(371) ‘春三月, 百濟王亦遣久氐朝貢. 於是, 皇太后語太子及武內宿禰曰, 朕所交親百濟國者, 是天所致. 非由人故. 玩好珍物, 先所未有. 不闕歲時, 常來貢獻. 朕省此款, 每用喜焉. 如朕存時, 敦加恩惠. 卽年, 以千熊長彦, 副久氐等遣百濟國. 因以, 垂大恩曰, 朕從神所驗, 始開道路. 平定海西, 以賜百濟. 今復厚結好, 永寵賞之. 是時, 百濟王父子,並嶺致地, 啓曰, 貴國鴻恩, 重於天地. 何日何時, 敢有忘哉. 聖王在上, 明如日月. 今臣在下, 固如山岳. 永爲西蕃, 終無貳心’

·同 52年(372) ‘秋九月丁卯朔丙子, 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 則獻七枝刀一口, 七子鏡一面, 及種々重寶. 仍啓日,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飮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 海東貴國, 是天所啓. 是以, 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 國基永固. 汝當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不絶, 雖死何恨. 自是後, 每年相續朝貢焉’

·同 55年(375) ‘百濟肖古王薨’

·同 56年(376) ‘百濟王子貴須立爲王’

·同 62年(382) ‘新羅不朝. 卽年, 遣襲津彦擊新羅〔百濟記云,壬午年(382), 新羅不奉貴國, 々々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 々々々王己本旱岐, 及兒百久至, 阿首至, 國沙利, 伊羅麻酒, 爾汶江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旣殿至, 向大倭敬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 捨而不討. 反滅我

國. 兄弟人民, 皆爲流沈. 不任憂思. 故, 以來啓. 天皇大怒, 卽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 一云, 沙至比跪, 知天皇怒, 不敢公還. 乃自竄伏. 其妹有幸於皇宮者. 比跪密遣使人, 問天皇怒解不. 妹乃託夢言, 今夜夢見沙至比跪. 天皇大怒云, 比跪何敢來. 妹以皇言報之. 比跪知不免, 入石穴而死也〕'

·同 64年(384) '百濟國貴須王薨. 王子枕流王立爲王'

·同 65年(385) '百濟枕流王薨. 王子阿華年少. 叔父辰斯奪立爲王'

≪日本書紀≫ 卷10·譽田天皇(應神天皇)紀

·同 3年(392) '是歲, 百濟辰斯王立之失禮於貴國天皇. 故遣紀角宿禰, 羽田矢代宿禰, 石川宿禰, 木菟宿禰, 嘖讓其无禮狀. 由是, 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 紀角宿禰等, 便立阿華爲王而歸'

·同 7年(396) '秋九月, 高麗人, 百濟人, 任那人, 新羅人, 並來朝. 時命武內宿禰, 領諸韓人等作池. 因以, 名池號韓人池'

·同 8年(397) '春三月, 百濟人來朝〔百濟記云, 阿華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禰多禮, 及峴南支侵, 谷那, 東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

·同 14年(403) '春二月, 百濟王貢縫衣工女. 曰眞毛津. 是今來目衣縫之始祖也. 是歲, 弓月君自百濟來歸, 因以奏之曰, 臣領己國之人夫百廿縣而歸化. 然因新羅人之拒, 皆留加羅國. 爰遣葛城襲津彦, 而召弓月之人夫於加羅. 然經三年, 而襲津彦不來焉'

·同 15年(404) '秋八月壬戌朔丁卯, 百濟王遣阿直伎, 貢良馬二匹. 卽養於輕坂上廐. 因以阿直岐令掌飼. 故號其養馬之處, 曰廐坂也. 阿直岐亦能讀經典. 卽太子菟道稚郎子師焉. 於是, 天皇問阿直岐曰, 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 有王仁者. 是秀也. 時遣上毛野君祖, 荒田別, 巫別於百濟, 仍徵王仁也. 其阿直岐者, 阿直岐史之始祖也'

·同 16年(405) '春二月, 王仁來之. 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 習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 是歲, 百濟阿華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 〔東韓者,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是也〕八月, 遣平群木菟宿禰, 的戶田宿禰於加羅. 仍授精兵詔之曰, 襲津彦久之不還. 必由新羅之拒而滯之. 汝等急往之擊新羅, 披其道路. 於是, 木菟宿禰等進精兵, 莅于新羅之境. 新羅王愕之服其罪. 乃率弓月之人夫, 與襲津彦共來焉'

·同 20年(409) '秋九月, 倭漢直祖阿知使主, 其子都加使主, 並率己之黨類十七縣, 而來歸焉'

【참고문헌】

○王 健 群, 1984 ≪好太王碑の研究≫ (雄渾社)

○金 錫亨, 1969 <≪廣開土王陵碑文≫にあらわれた朝日關係> ≪古代朝日關係史≫ (勁草書房)

○金 泰植, 2005 <4世紀の韓日關係史－廣開土王陵碑文の倭軍問題を中心に－>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 第1分科篇

○木村 誠, 2005 <朝鮮三國と倭>武田幸男編 ≪古代を考える 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佐伯有清, 1974 ≪研究史 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空白の五世紀－≫ (敎育社)

○徐 建 新, 2006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

○白石太一郎, 2006 <倭國の形成と展開> 上原眞人ほか編 ≪列島の古代史 ひと·もの·こと≫ 8 <古

代史の流れ＞ (岩波書店)
○末松保和, 1932 ＜新羅建國考＞ ≪史學雜誌≫ 第43編 第12号(同 ≪新羅の政治と社會≫ 上, 1995年 (吉川弘文館)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1956년에 吉川弘文館 再版. 1986년에 ≪古代の日本と朝鮮≫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吉川弘文館)에 수록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鈴木靖民編･日本の時代史2 ≪倭國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武田幸男, 1978 ＜廣開土王碑文辛卯年條の再吟味＞ ≪古代史論叢≫ 上卷 (吉川弘文館)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武田幸男, 2007 ≪廣開土王碑との對話≫ (白帝社)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濱田耕策, 1973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虛像と實像＞ ≪日本歷史≫ 第304号
○濱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NO.11
○濱田耕策, 2005 ＜4世紀の日韓關係＞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 第1分科篇
○濱田耕策, 2006 ＜高句麗長壽王という時代－父王廣開土王の治績を継いで－＞ ≪朝鮮學報≫ 第199･200合併号
○白承忠, 2004 ＜≪廣開土王陵碑文≫からみた加耶と倭＞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10集
○朴時亨, 1967 ＜廣開土王の陵碑について＞ ≪今日の朝鮮≫ 127
○朴時亨, 1967 ＜廣開土王陵碑＞ ≪朝鮮研究年報≫9
○朴時亨, 1985 ≪廣開土王碑≫ (全浩天譯)そしえて
○三品彰英, 1962 ＜高句麗廣開土王陵碑＞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 上卷 (吉川弘文館)(上･下卷, 2002년 (天山舍))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 ≪書品≫ 100号(同1977 ≪好太王碑考 付 水谷拓本≫, 開明書院)
○山近久美子･渡辺理繪, 2008 ＜アメリカ議會図書館所藏の日本軍將校による1880年代の外 邦測量原図＞ ＜日本國際地図學會 平成20年度定期大會發表論文･資料集＞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 842号
○林基中, 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出版部, 서울)

제2장 5세기의 일한관계

제1절 왜국·한반도 제국과 중국 남북조와의 통교

후한 말, 삼국시대, 서진의 불안정한 통일의 시기로부터 중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강남에서는 동진이 이 지역에 정착을 추진하고, 화북에서는 5호 16국의 흥망이 전개된 3~4세기에 동아시아 여러 민족은 각각이 독자적으로 국가를 정비하는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5세기가 되자 중국 남조에서는 송, 북조에서는 북위에 의한 안정이 유지되어 중국의 정세에 안정이 되돌아오는 조짐이 보인다. 중국과의 통교가 단절되었던 왜국도 다시 중국 사서에 동향이 알려지게 되어 일한관계에 관해서도 일·한·중 각각의 사료를 비교하면서 검토함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복안적 시야에서 보다 정합적인 역사적 사실의 규명에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중국 남북조와의 통교 양상을 매개로 하여, 5세기의 일한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왜의 5왕과 중국 남조와의 통교

우선 동진과의 통교까지 포함하여 4세기 후반 무렵부터 6세기 초까지의 왜국·한반도 제국과 중국 남북조와의 통교 사례를 통람하면, 한반도 제국의 통교사례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며 이 기간 중에 백제는 주로 남조, 고구려는 주로 북조, 때로는 남조와도 통교하고 있다. 그 외에는 479년의 가라국왕 荷知가 남제와 통교한 사례가 있을 뿐이며 신라는 아직 중국 왕조와의 연계를 갖지 못했다.

한편 왜국의 통교 사례 <표 1>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몇 개 있다. 477년의 통교는 478년과 같은 것으로, 본기와 열전의 신뢰도 등으로 볼 때, 연차는 478년 쪽이 좋을 것 같다【鈴木英夫 1996a】. 또한 479년의 남제, 502년의 양에 의한 進号는 모두 새로운 왕조 성립에 따른 것이며 반드시 각국의 입공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논의가 갈리는 것은 413년의 동진과의 통교 사례가 되겠다.

2-01 ≪晋書≫ 安帝紀義熙9年(413) 是歲條
高句麗·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 竝獻方物.

2-02 ≪太平御覽≫ 卷981 香部1 麝條 所引 義熙起居注
倭國獻貂皮·人參等. 詔賜細笙·麝香.

고구려 광개토왕비문에 의하면, 4세기 말~5세기 초에 왜국은 백제를 지원하여 고구려와 싸웠으며 나중에 서술하는 왜왕 무의 상표문에도 왜국의 고구려 정토 계획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왜국과 싸운 광개토왕(호태왕)이 죽고 장수왕이 즉위한 413년 이후, 427년에 고구려가 환도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으로 천도하고 또한 남하를 시도하는 사이에는 왜국이 고구려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413년에는 왜·고구려의 공동 입공이 이루어졌다는 설이 제시되고 있다.(공동 입공설【池田溫 2002, 川本芳昭 1992 등】). 그러나 사료 02의 왜국 헌상품(초피·인삼)은 오히려 고구려의 특산물로 생각되며 또한 이 시기에는 역시 왜국과 고구려가 연계하는 일은 없었다고 보며, 이는 고구려가 앞선 戰役에서 포로로 한 왜인을 동반하여 입공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도 있다.(왜인 포로 동행설【坂元義種 1981 등(주1)】). 또한 사료 02의 헌상품·하사품은 왜국이라 하면 이상하고 이는 고구려의 오기라 해야 하겠지만, 사료 01은 각국의 동시 입공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개별 입공을 일괄하여 쓴 것으로 보면 왜국의 단독 입공이었다고 자리매김함이 가능하다는 설(단독 입공설【石井正敏 2005】)도 제시되고 있다.

공동 입공설과 단독 입공설은 413년의 동진과의 통교를 인정한 것이며 왜인 포로설은 왜국의 통교를 부정하는 설이 된다. 공동 입공설 중에서는 ≪일본서기≫ 應神 37년(306＋120→426?) 2월 戊午朔條, 41년(310＋120→430?) 2월 是月條를 이 견사에 맞추는 이해도 제시되고 있지만, 연차가 합치되지 않고 또한 ≪일본서기≫의 해당기 전승(應神28년(297＋120→417?) 9월조, 仁德 12년(324＋120→444?) 7월 癸酉條, 8월 乙酉條)부터는 5세기 왜국의 고구려에 대한 외교 의식에서 대항심이나 적개심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입공설은 고구려와의 화평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의문이 남는다. 단독 입공설에 관해서도 이 시기에 왜국이 동진과 통교하는 적극적인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 역시 지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413년의 기사는 고구려의 동진 입공의 문맥으로써 이해해야 하며 왜인 포로 동행설이 정합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420년에 동진이 멸망하고 송이 흥기했을 때, 송은 고구려왕 高璉(長壽王)을 정동대장군, 백제왕 余映(腆支王)을 진동대장군에 進號하고 있어서, 421년의 왜 讚의 입공은 송 성립의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그 때문에 처음 입공이면서 제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에서는 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한 전지왕이 420년에 죽고, 久爾辛王(재위 420~

427년), 毗有王(재위 427～455년)의 시대가 되지만, 백제의 송 입공은 424년이 최초로써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즉응할 수 없는 무언가의 사정이 있었을까 한다. 그래서 왜국으로써는 독자적인 동아시아 외교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백제보다도 한 발 빠르게 송 성립에 즉응하여 입공한다는 행동으로 나왔던 것이다.

2. 관작의 제수와 그 의미

다음으로 왜국·한반도 제국이 중국 남북조와 통교하는 목적과 해당기의 일한관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이 수여한 관작과 그 의미를 검토한다. 각국이 중국으로 견사한 것은 자칭·제수의 칭호에 보이는 지위의 승인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칭호의 끝에 나오는 '某(國)王'은 물론 각국의 지배자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이며, 왕으로 책립됨으로써 지배 영역의 인정과 국내 지배의 유지·안정을 얻었던 것이다.

이어서 그 외의 칭호의 의미를 확인해 두자면, '使持節'은 황제로부터 '節'(깃대 표시)를 수여받아 위임을 받은 것을 보여주며, '都督 … 諸軍事'는 그곳에 기재된 지역의 군사권 승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都督 … 諸軍事'는 군사권의 승인을 보여줄 뿐으로, 民政權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국왕의 칭호에는 한반도 남부의 복수의 국명과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에는 이것을 군사적 영유를 표시하는 것으로 즉단하여 왜국의 반도 남부 영유를 뒷받침하는 재료로 자리매김을 했었지만, 중국의 관작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자【坂元義種 1978a·b】, 오늘날에는 왜국이 그 지역을 지배했었는지 아닌지, 민정권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배를 했는지 아닌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이해가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使持節都督諸軍事는 임무를 위임받은 지역에서의 최고 군사권을 의미하며 왜국은 요구 가능한 군사권의 위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국왕이 칭하는 복수의 지역명 중에서 임나는 광개토왕비문에도 '任那加羅'로 나온 지역으로서 남부 가야 제국의 중심국의 하나인 금관국을 지칭한다. '임나'가 금관국을 지칭하는 용례는 한국 측의 사료에서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삼국사기≫ 권46 강수전, 924년 崔仁渷撰 '眞鏡大師月凌空塔碑'), 중국사서인 ≪宋書≫에서도 임나＝금관국이라고 해석하여 큰 잘못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加羅는 479년에 국왕 荷知가 南齊에 입공한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그 때에 '輔國將軍本國王'으로 除正되었다고 한다(≪南齊書≫ 東南夷傳 東夷·加羅國條). 이 국왕 荷知는

省熱縣(경상북도 의령군 부림면, 斯二岐國의 옛 지역) 출신인 樂師 于勒에게 12현의 가야금으로 12곡을 만들게 하고, 악곡에 의한 諸國의 통일을 도모했다는 嘉悉(實)王(≪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2년(551) 3월, 13년조, 권32 지1 악·가야금조)에 비정할 수 있기 때문에(주2), 가라는 북부 가야 제국의 중심이 되는 대가야(高靈, 伴跛)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秦韓·慕韓은 일반적으로는 346년에 마한으로부터 백제, 356년에 진한으로부터 신라가 성립된다고 설명되고 있지만, 신라나 백제에 아직 편입되지 못한 독립된 지역이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논의 세부사항은 후에 서술하고자 하나, 최근에 한반도 서남부의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서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전방후원분이 발견되고 있어서 일본학계에서는 6세기 전반 무렵까지 백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왜국과 제휴하는 독자적 세력이 존립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모한에 비정하는 견해도 유력하다【東潮 1995, 田中俊明 2001 등】. 이 지역이 백제의 영역에 편입되는 것은 후에 기술할 475년의 백제의 수도 한성 함락과 웅진 천도에 따른 부흥의 5세기 말~6세기의 일이며 한성을 수도로 하는 단계에서는 僻遠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신라와 진한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추측되어 진한 ·모한은 실제의 지역명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李鎔賢 2008】.

이상, 왜왕의 칭호에 등장하는 군사권 요구 범위가 당시의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을 서술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490년, 495년의 백제 동성왕이 신하에게 제수를 요구한 太守號에 대해서(<표 2>), 중국의 산동·하북성의 지명인 廣陽·城陽 또는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는 樂浪·朝鮮 등이 보이고 있어서(≪南齊書≫ 백제전), 이러한 것들은 전혀 허호로써 의미는 없다고 보고, 왜왕의 칭호에서 보이는 지역명, 특히 秦韓·慕韓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李永植 1993】.

그러나 ≪宋書≫ ≪梁書≫ 百濟傳에 의하면, 백제는 진대에 중국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요서·晋平 두 군의 땅을 통치했다고 하며, 대고구려전의 과제에 관한 낙랑군 지역 모두, 백제의 '舊領' 회복 주장이 담겨있으므로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除正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백제왕의 신료가 칭한 面中王·都漢王·八中侯·阿錯王·邁羅(盧)王·辟中王·弗中侯 등은 모두 전라남·북도의 지명으로서 당시 백제가 經略을 추진했던 지역이었다. 중국 남조가 고구려에게 준 칭호에서 보이는 平·營 두 주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왜왕의 칭호까지 포함하여 왜국·한반도 제국이 중국에게 除正을 요청한 칭호는 虛號가 아니라 무언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각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 전개의 허가를 요청하는 의미가 있었다.

단, 왜왕이 요구한 지역명 중에서는 왜국 측의 자칭에는 백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송의 제수에서는 반드시 제외되고 있는 것에 주의하고자 한다. 백제는 372년에 동진에 입공한 이래로 중국 남조와 통교하고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鎭東大將軍百濟王'(≪宋書≫ 고구려전, 420년 송 성립 시의 進號 기사에 의함) 등의 官爵號를 얻었다. 따라서 왜국이 아무리 백제의 군사권 부여를 요청해도 이미 백제를 책봉하고 왜보다도 격상된 將軍號를 부여한 송으로서는 왜국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장군호에 관해서 말하자면, 왜왕이 자칭·제수받은 안동(대)장군은, 四安將軍 중 하나로써 송의 장군표(<표 3>)에서는 제3품, 제2품에 상당하는 것이다. 단, 같은 품격 내에서도 각 장군호에는 서열이 있고, 고구려, 백제와 비견하면 왜왕의 장군호는 항상 劣位였다(주3). <표 1>에 의하면, 478년에 왜왕 무는 開府儀同三司를 자칭하고 있지만, 이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463년에 송으로부터 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로 제수된 것에 대항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송은 그 제수를 인정하지 않고, 왜국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광개토왕비문 이후의 한반도 전황은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삼국사기≫의 해당 부분을 보아도 대대적 전투는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472년 백제왕 余慶(蓋鹵王)이 중국 북조의 북위에 올린 상표문에는 "構怨連禍, 三十余載財殫力竭, 轉自孱踧"이라고 되어 있어서(≪魏書≫ 백제국전), 백제와 고구려가 만성적인 전쟁 상태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대적 전투가 없다는 점에서는 소강기라고 평할 수 있지만, 왜국으로서는 대 고구려전에 대한 체제 정비에 노력할 필요가 있어서, 광개토왕이 한 때 유린한 반도 남부의 군사권 확보를 위하여 송과의 외교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왜국이 백제의 군사권을 집요하게 요청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제를 統屬 下에 두려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군호는 백제 쪽이 항상 상위이기 때문에, 가령 송이 백제의 군사권 위임을 왜국에 인정했다고 해도, 백제가 상위인 장군호로 인해 오히려 왜왕을 인솔하고 백제 자신의 군사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왜국의 자칭과 제수 요구는 백제도 지지했던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高寬敏 1997】. 단, 한편으로는 ≪삼국사기≫에서 보이는 5세기 후반의 백제와 신라의 대고구려전 동맹의 형성이나 비유왕(재위 427～455년)대에는 백제와 왜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유의하면, 5세기대의 백제와 왜의 관계는 반드시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熊谷公男 2007】. 그 한 가지 원인으로써 백제의 군사권 부여를 송

에 요구하는 왜의 독자적 외교 전개가 상정된다.

이 1지역의 2군사권 문제와 관련하여 479년의 가라국의 남제 입공과 장군호 제수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때에 가라국왕에게 도독제군사가 수여되었는지 어떤지는 명확치 않지만, 자국의 왕위 승인은 당연히 군사권 위임을 의미한다고 할 때, 새 왕조 성립에 동반되는 경하적 진호이면서 왜국에 대한 장군호 수여와 군사권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라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왜국왕의 진동대장군에 대하여 가라국왕은 보국장군이며, 장군호로부터 말하자면 후에 기술하듯이 왜왕이 신하에게 제수를 요청한 장군호와 동등한 낮은 등급의 지위였다. 그렇다면 중국 남조는 1지역의 군사권을 복수의 나라에 수여했다고 해도, 그것은 장군호의 상하관계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단, 엄밀히 말하자면 479년의 왜왕의 진호에는 한반도 여러 지역의 都督諸軍事號의 승인을 동반했는지 아닌지 명확치 않은 점이 있어서 이것을 1지역 2군사권의 명확한 사례로 보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 수가 적고【坂元義種 1978 c】,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와 같이 생각한다고 해도, 백제의 군사권을 결국 왜국에 주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때로는 무력으로 중국을 위협하고 남조로서는 북조의 견제에도 도움이 되는 고구려, 중국 왕조와의 통교를 유지하는 백제, 그리고 먼 외국 땅에 있어서 어쩌다 한 번 밖에 입공하지 못하는 왜국이라는 동아시아 諸國의 서열은 부동의 것이었던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 왕조가 인정한 군사권 행사의 실태에 대해서는 각 지역과의 구체적 통교의 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고찰해야 하는 점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3. 왜 왕권의 성장과 府官制的 질서의 도입 및 도래인의 역할

왜국과 송의 통교 양상을 보면 왜왕은 스스로 관작 제수를 요청함과 함께 438년에는 珍이 倭隋 등 13인에 대하여 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의 제수를 요청하고 451년에는 濟가 23인의 장군호·군태수호 제수를 요구하는 등 수하의 사람들의 관작 수여를 중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수를 송에 인정받으려는 것은 왜국의 국내 정치 운영, 왕권의 확립에 불가결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왜 왕권의 성장 상황을 한반도 제국과 비교하고 또한 5세기 대에 반도로부터 건너온 도래인의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해당기의 일한관계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막부'란 출정 중인 장군의 진영을 가리키는 것이 원 뜻이며,왜왕은 작위 제수된 장군

호에 근거하여 그 수하의 사람을 하위의 장군호를 갖는 지위에 임명함으로써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왜국의 지배 조직을 확립하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배 체계를 부관제적 질서로 부르고 있다【鈴木靖民 1985】. 송의 장군표 <표 3>에 의하면, 왜왕 진이 얻은 안동장군호는 倭隋 등 장군호와 똑같은 제3품이기는 하지만, 상위의 장군호이며 왜왕이 국내 질서를 통제하는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단, 倭隋의 平西將軍(四平將軍 중 하나)과 珍의 安東將軍(四安將軍 중 하나)은 근소한 1계급 차이이며, 거기에 당시의 왜국 왕권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관의 명칭은 마찬가지로 장군호를 수여받은 고구려, 백제에도 존재했다. 중국 왕조와의 통교 및 관작 수여의 역사로 말하자면, 오히려 고구려, 백제 쪽이 선행하고 있어서 왜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 국내 질서의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저 단순한 통교관계에 그치지 않는 일한관계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고구려 및 백제의 부관제적 질서의 실태를 참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고구려에 관해서는, 안악3호분 묘지(冬壽墓誌·357년) 덕흥리 벽화고분 묘지(某氏鎭墓誌·408년)의 두 명의 망명 중국인의 사례가 주목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풍의 직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虛号(허호)로 보는 것이 유력한 견해로, ≪宋書≫ 고구려전에서 보이는 長史도 외교사절로서의 칭호인데 부관으로서의 실질적 직무를 동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井上直樹 2007】. 확실히 고구려에는 중국과의 통교에서 신하에게 관작 제수를 요청한 사례는 없으며 고구려가 부관제적 질서 그 자체를 국내 질서 형성에 도입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 동수가 樂浪相의 직함을 내세운 고구려왕이 낙랑공의 관작을 얻은 것과 관계가 있으며 그 신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안악3호분 묘지에서는 동진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덕흥리 벽화고분 묘지에서는 광개토왕의 영락 연호가 사용되고 있어서 고구려의 국내 통치가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鎭은 중국풍의 장군·군태수호와 함께 고구려의 13등 관위제의 관명('國小大兄'은 제7등의 대형인가)을 칭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고구려에는 다수의 망명 중국인이 종사하고 있어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왕의 책봉호를 전제로 하는 부관제에 근거하는 질서 구성이 유효했던 것도 인정해야 하며, 동시에 고구려 독자적인 관위제도 속에 편입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5세기대로 생각되는 牟頭婁 묘지에서는 고구려인의 중급 귀족 일족의 동향이 알려졌으며【武田幸男 1989】, 고구려에서는 망명 중국인과 재래의 고구려인을 함께 지배구조 속에 끌어 들여서 독자적인 13등 관위제에 의한 질서 형성을 도

모했음이 보인다.

다음으로 백제의 경우는 <표 2>와 같이 중국에 대하여 신하의 관작 제수를 신청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제가 부관제적 질서를 이용했음은 틀림없다. ≪隋書≫ 백제전에는 "國中大姓有八族. 沙氏, 燕氏, 劦氏, 解氏, 貞(眞인지)氏, 國氏, 木氏, 苩氏"로 大姓八族이 거론되고 있지만, 백제왕 밑에서 長史·司馬·參軍 등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5세기에 유력했던 眞·解씨를 비롯한 백제의 유력 귀족의 성씨를 가진 인물은 보이지 않고 중국계의 성씨를 칭하는 사람이 많음이 특색이다【李文基 2003】. ≪隋書≫ 백제전에는 또한 "其人雜有新羅·高麗·倭等, 亦有中國人"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7세기 전후의 상황이지만 백제의 궁정의 복잡한 구성이 보인다. 5세기의 백제도 고구려의 군사력에 대하여 중국 왕조와의 통교, 왜국과의 제휴, 그리고 문화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고, 낙랑·대방계의 유민 또는 새로 온 중국인을 기용하여 왕의 권력 강화에 노력했을 것이다.

부관 중에는 余姓인 사람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왕족까지도 종속 관료에 끌어 들여 왕권 강화를 도모했음을 보여준다. 475년 백제는 고구려의 공세로 인해 존망의 위기를 맞고, 수도를 남천하여 반도 서남부로의 지배 침투로 국세를 재흥시키려 한다. 이 시기에는 지명+王·侯의 칭호를 가진 자로서 왕족이나 大姓의 유력귀족의 이름이 등장하여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 질서 속에서 그들을 편입하여 지방 지배를 위임하고 국내 통제의 강화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坂元義種 1978ｄ】. 백제에서는 부관제적 질서에 의한 국가 기구의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왜국의 경우에 위에서 말했듯이 안동장군 왜국왕 珍과 평서장군 왜수에게는 명확한 상하 관계가 있었지만, 그 차는 한 계급 밖에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왜수는 왜왕과 마찬가지 '왜'성을 칭하고 있어서 백제왕 수하의 왕·후와 마찬가지로 왕과 동족, 동등한 정도의 인물이 왕권을 보좌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왜국의 부관제적 질서의 실태나 5세기의 국내 체제 정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①千葉縣 市原市 稲荷台1号墳 出土 鐵劍銘(5세기 중엽인가), ②埼玉縣 行田市 稲荷山古墳 出土 鐵劍銘(471년), ③熊本縣 玉名郡 和水町 江田船山古墳 出土 大刀銘(5세기 후반) 등의 금석문을 고찰 자료로 하고자 한다(주4).

①, ②는 관동지방, ③는 九州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며 ②, ③에서 보이는 獲加多支鹵(와카타케루)대왕은 ≪고사기≫ ≪일본서기≫의 웅략천황의 이름 大泊瀬幼武(오호하쓰세와카타케루)와 합치되고, 왜왕 무는 '다케루'의 문자를 치환한 이름으로 생각되므로, 왜왕 무의 상표문에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宋書≫왜국전)으로 되어

있는 왜 왕권의 동·서로의 확장을 증빙하는 재료가 된다. ②는 관동 지방의 호족이 杖刀人首, 또는 杖刀人首－杖刀人의 관계이며, ③는 九州의 호족이 典曹人으로서 궁정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일본서기≫≪新撰姓氏錄≫ 등에도 雄略朝 궁정 조직 정비의 모습이 보이며 獲加多支鹵大王의 대에서는 각지의 호족을 왜 왕권에 봉사시키는 체제가 출현한 시대였다고 생각된다【鈴木靖民 1985】.

≪일본서기≫에 의하면 웅략천황은 죽을 무렵에 大伴連室屋과 東漢掬直 두 사람에게 遺詔했다고 하며(웅략 23년(479) 8월 병자조), 大伴室屋은 왜 왕가의 궁정 조직을 분장한 家宰的 호족에 속하는 인물로써 궁정 조직의 정비, 왕권강화 추진을 담당한 왜왕가의 궁정조직 정비, 왕권 강화의 추진을 담당했다. 또 한사람인 東漢直掬은 都加使主로도 기술되며 왕인을 조상으로 하는 西文首와 함께 東西史部와 같이 칭하여지는 가장 유력한 도래계 씨족 東漢씨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다. ≪일본서기≫ 웅략 2년 10월 是月條에는 "唯所愛寵, 史部身狹村主青·檜隈民使博德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한씨 계통의 도래계 씨족에 대한 신뢰는 두터웠다. 東漢씨·西文씨는 후한 황제의 후예이며, 秦씨는 진의 시황제 후예를 칭하는데(≪新撰姓氏錄≫), 동한씨는 안라(阿羅, 阿那加耶, 阿尸良국이라고도 함. ≪위지≫ 한전의 弁辰安邪國), 秦씨는 울산 부근의 출신으로 생각되며, 그들은 주로 한반도 남부 출신이며, 고구려의 남하 등에 의한 반도의 혼란을 피해 5세기에 왜국에 온 사람들이다(≪일본서기≫ 應神 14년(283＋120→403？) 是歲條, 동 16년 8월조, 동 15년 8월 정유조, 동 16년 2월조, 동 20년 9월조).

이보다 앞선 도래인으로는 葛城襲津彦이 데리고 돌아왔다는 桑原·佐糜·高宮·忍海 4읍의 漢人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갈성씨에게 귀속된 듯 하다(≪일본서기≫ 神功 5년(205？) 3월 기유조). 이것이 5세기 중엽 무렵까지의 갈성씨 세력 전성을 지탱해 준 하나의 그리고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주5). ≪일본서기≫ 允恭·安康·웅략기, 즉 왜왕 濟·興·武 시대에는 이 갈성씨와 왕권의 대립이 그려져 있어서 갈성씨를 제압하여 세력을 강화한 왕권에 있어서도 도래인의 장악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웅략기에는 또한 도래인의 조직화나 새로운 사람들의 초빙을 보여주는 기사가 산견되고 있어(후에 게재되는 사료 07, ≪일본서기≫ 웅략 14년(470) 정월 戊寅조, 동 15년조, 동 16년 7월조·10월조) 왕권에 의한 도래인 파악이 진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5세기의 도래인은 농업·토목 기술이나 제철·직물·須惠器 등 생산 면에서 갖가지 선진 기술을 가져오고 또한 문자 지식을 가진 史(후비토)나 大藏의 관리를 담당하는 藏部(≪古語拾遺≫)로서의 활동으로 왕권의 유지·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또한 身狹村主青의 '吳'

와의 통교 이야기(≪일본서기≫ 웅략 14년 정월 戊寅조)는 그들이 선진문물을 도입하는 데 주도적 입장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425년 왜왕 讚이 송과 통교했을 때 司馬曹達을 파견한 것과 금석문③의 필자가 張安인 것 등은 왜국에도 중국계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도래했던 것을 가르쳐 준다.

단 도래인의 기술, 선진문물의 도입은 아직 왜왕권만의 독점물은 아니었다. ≪일본서기≫ 웅략 7년(463) 시세조(뒤에 게재되는 사료07)에서는 吉備上道臣 田狹과 稚媛 소생의 弟君이 신라에 파견되게 되었을 때, 西漢才伎勸因知利라는 사람의 발안으로 今來才伎(새로 온 기술자)를 초빙하는 임무도 위임되었다고 한다. 弟君은 稚媛을 웅략에게 빼앗긴 父 田狹의 권유로 인해 왜 왕권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의 처 樟媛이 弟君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어떤 책의 기술에 의하면 弟君은 사명을 다하고 백제로부터 歸朝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때에 도래한 사람들은 왜 왕권에 귀속되었다고 하며 왕권에 의한 새로 온 기술 독점을 보여준다. 단 吉備 지역에도 도래인이 거주한 증거는 많아서【龜田修一 1997】, 왕권의 용무를 맡은 중에 吉備씨도 새로 온 기술 도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田狹도 반도에서 계속 체재한 듯하기 때문에, 吉備씨와 반도의 관계, 선진문물 이입 루트는 건재했다고 해야 한다. 그 외에 금석문③의 江田船山古墳으로부터는 백제계의 금동제 관모·沓·귀걸이가 출토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 호족의 독자적 문물 이입 루트의 존재를 제시해 주는 사례일 것이다.

다시 금석문①~③으로 돌아가면 5세기 중엽의 ①에서는 '왕'이었던데 반해, ②·③의 獲加多支鹵=웅략=倭王 武의 단계, 5세기 후반에는 '왕'을 넘어서는 칭호로써 '대왕'호가 성립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구려에서는 4세기 후반~5세기 초의 광개토왕이 호태왕이라 지칭되고 있어서(태왕릉 고분 출토 동령에는 "辛卯年好大王□〔所?〕造銅九十六"이라고 되어 있다), 신라의 영역 내의 경주 노서동 140호분 출토 을묘년(415)銘壺杅에 '廣開土地好太王'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또한 延壽 원년(451)銘의 慶州 瑞鳳塚出土 銀合杅에는 '太王敎造'라는 글자가 있으며, 장수왕도 '태왕'이라 이름하고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를 침투시켰던 사실이 보인다. 府官制 질서에서 설명했듯이, 백제왕의 밑에는 王·侯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백제에서도 '대왕'호가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시아에서 대왕호 호칭은 급속한 영역 확대, 국내 지배의 강화, 근린 제국의 제압, 중국과의 적극적 외교 등을 배경으로 성립되고 있으며【坂元義種 1978 e】, 왜왕 무 시기의 왜 왕권도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계에 있었다. 무의 자칭 호인 '使持節都督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에는, 백제까지도 군사 지배 하에 두는 대왕으로서 고구려에 대항하는 구상이 엿보이며, 開府儀同三司의 가칭 제수도 같은 칭호를 이미 제수 받았던 고구려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석문②에는 '左治天下', ③에는 '治天下'의 표현이 보이며, '천하'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천하'란 '전 세계, 중국 전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국 황제의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②, ③의 '천하'는 왜왕의 지배 영역을 가리키고 있으며,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자국의 영역을 '천하'로 하는 관념이 성립된 것을 보여준다. 왜왕 무의 상표문에서는 그 때까지와는 달리, 신료의 관작에 대해 제수를 요청하는 명확한 문언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즉, 왜왕 무는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로부터 이탈하여, 독자적인 '천하'의 지배를 구상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이후에 중국 남조와의 통교가 단절되는 이유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주6). 그 외에도 479년에는 그 송 왕조가 멸망하고 그 후 급진적 선양 혁명, 하극상으로 寒人으로부터 밀고 올라가는 남조의 황제 책봉을 받음에 위화감을 품은 사실도 통교가 단절되는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前之園亮 一2001】. 어쨌든 '治天下大王'의 성립으로 인해, 왜국이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인 왕권과 국토를 유지함이 가능하게 된 것은 중요하며, 그러한 점에 왜왕 무 단계가 달성한 하나의 성과가 있었다.

단,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긴박해져서, ≪일본서기≫에 의하면 왜 5왕의 계보도 武＝웅략 후에 단절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일한관계의 행방은 다음 절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최후의 국내 지배구조의 과제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일본서기≫ 웅략 7년(463) 8월조에 있는 吉備下道臣 前津屋이, 왜 왕권을 섬기는 吉備弓削部 虛空을 귀향 중에 留使했다는 이야기는, 吉備씨 수하인으로 왜 왕권에 근무하는 사람의 존재, 그런 사람도 吉備의 땅에서는 해당 지역의 최고 유력 호족인 吉備씨에게 따라야 한다는 이중 신분적 존재 형태로써 지역의 유력자와 왜 왕권의 양쪽을 섬기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을 왕권 측에 일원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지방호족의 약체화, 왕권의 강화에 이어지는 것이다. 吉備씨는 몇몇 유력 호족의 연합체로서 맹주묘도 변동되고 있지만, 5세기 대에는 造山고분, 作山고분 등 거대한 전방후원분을 축조하고 왜 왕권에 필적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瀨戶內海 교통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瀨戶內의 소금, 中國 山地의 철 등의 유용한 자원을 가진 점으로 보아도 왜 왕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서기≫에는 吉備씨 견제전승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완전히 제

압할 수는 없었으며 6세기 전반에는 한반도 남부에 있어서 吉備씨의 독자적 활동도 알려진다. 중국 왕조와의 통교에 관해서는 왜 왕권이 외교권을 독점했지만, 이러한 지방지배의 독자성이나 한반도 제국과의 개별적 통교에서 보이는 국내외에서의 지방 호족의 독립성 유지는 왜 왕권의 거듭되는 성장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였다.

제2절 백제의 남천과 왜국의 외교 정책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략하여 개로왕(재위 455～475년)을 살해한다. 괴멸적 타격을 입은 백제는 수도를 웅진에서 남천하여 국세 부흥에 노력하게 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주왕(재위 475～477년), 삼근왕(재위 477～479년)의 2대는 치세가 짧고, 대성 8족 해씨의 解仇에 의한 문주왕 살해, 해구와 결탁한 연씨의 燕信 등과 삼근왕의 대립, 진씨의 眞老에 의한 해구 주살 및 연신의 고구려로의 도주 등이 전해지고 있어서 웅진 천도 후의 백제 부흥의 혼란기였던 사실이 엿보인다.

이러한 백제의 정정이 안정되는 것은 다음에 즉위한 동성왕(재위 479～501) 대이다. 동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싸우고, 신라와의 결혼 동맹 형성이나 남제에 대한 조공 등 국제관계의 구축에 진력했다. 또한 <표 2>의 왕·후의 관할지명에 표시되는 한반도 서남부의 經略을 추진하여 탐라(제주도)를 복속시키고, 웅진시대의 백제의 안정기를 만들어 냈다. 이것이 다음 6세기대의 동방의 가야 제국으로의 침공, 신라와의 쟁탈전을 전개하는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백제의 남천 후의 왜국의 외교 활동의 모습, 백제, 신라, 왜국과 가야 제국의 관계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왜 무왕과 백제왕 여경·모대의 상표문

백제의 남천 후, 478년에 왜왕 무는 중국 남조의 송에 입공하여, 상표문을 봉정한다(≪宋書≫ 왜국전). 왜왕 무의 상표문은 ① 왜국의 역사와 과거에 있어서의 송과의 관계를 개관한 다음에, ② 이 무렵의 국제적 안건 발생(고구려와 백제의 전쟁)과 왜국의 송으로의 입공 계속화의 현상을 설명하고, ③ 다시 때를 거슬러 올라가 가까운 과거의 상황으로써 왜왕 濟 시대의 대고구려전 준비와 그 중단에 대해 서술하고, ④ 무 자신의 대고

구려전 수행 의지와 그를 위한 官爵 仮授 執行을 상표한다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상표문과 472년의 백제왕 여경의 상표문(≪위서≫ 백제전)은 사용되고 있는 어구·표현과 유사했던 바가 있어, 봉정 시기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 백제인이 기초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內田淸 1996】.

그러나, 5세기 대의 왜국·백제·고구려가 중국 왕조에 봉정한 상표문의 어구·표현을 통람하면, 중국 사서·경서에 의거하여 작성된 모습이 간파되며 널리 사서·경서에 통달한 인물이, 앞선 세기의 진대의 용례를 의식하면서 송·북위에서 사용된 새로운 어구·용례까지 도입하여 외교문서를 기초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田中史生 2005】. 왜왕 무의 상표문과 백제왕 여경의 상표문 표현이 비슷한 것은 백제의 부관 중에 보이는 중국계의 씨성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왜국에서의 曹達과 張安과 같은 인물 등 중국계 도래인이 각국에서 이룬 역할과 그들의 교양 기반의 공통성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495년의 백제왕 牟大의 상표문(≪남제서≫ 백제전)도, 왜왕 무의 상표문과 비슷하다. ① 과거의 남조와의 관계 강조, ② 그 즈음의 국제안건의 발생, ③ 사건에 대한 대응, ④ 결과에 대한 처치로서의 관직 수여 요구라는 문장 구성, 모두 부분의 '自昔'이라는 어구의 일치를 비롯한 用字에도 매우 비슷한 부분이 보인다【河內春人 2003】. 이러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자 문화권'의 공유도, 해당기의 국제 정세를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된다.

단 왜왕 무의 상표문에서는 왜국에서도 파병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파병에 이르지 못하여 왜국과 백제에서는 고구려전에 관한 심각성과 절박감은 크게 달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川崎晃 2001】. 백제왕 여경의 상표문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역사를 회고하며 중국의 前燕 멸망 후에 고구려는 북방의 위협이 없어지고, 광개토왕·장수왕대, 특히 장수왕대에 들어선 그 30년간은 지극히 강성하여 백제는 대 고구려전에서 국력이 소모·고갈되고 있음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통교관계가 없었던 중국 북조의 북위에 견사하여 원조를 구하던 참이었다. 현실적으로도 백제에는 고구려의 공격에 의한 수도 남천, 국세 재건의 위기가 찾아왔고 왜국에서도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 여러 나라의 동향과 자국의 대외정책 확립에 눈을 돌릴 필요가 생겼다.

2.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과 백제

웅진시대의 백제의 남방 경영과 관련하여 최근에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된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을 둘러싼 학설의 정리와 왜국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전방후원분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고훈시대 초기는 3세기 중엽으로 여겨지며(3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다), 전방후원형의 고분은 일본의 독자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서남부의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 전방후원분이 존재함이 판명되어 일한관계를 고찰할 새로운 재료가 제시되었다【岡內三眞編 1996, 朝鮮學會編 2002, 北鄕泰道他 2006, 朴天秀 2007ａ, 辻秀人 2007, 近藤浩一 2008ｂ, 新井隆一 2008 등】.

영산강 유역에서는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전방후원분이 13기가 발견되었다(<표 4>). 그 특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한반도 내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② 1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분산되어 분포한다. ③ 다른 고분과는 떨어져 고립된 위치에 있는 것이 많다, ④ 전장은 33m의 명화동 고분으로부터 76m의 해남 장고산 고분까지로, 일본열도의 전방후원분과 비교하면 소형이다. 그러나 백제 무령왕릉은 약 20m의 원분으로 그 외의 백제 왕릉도 20m 전후의 원분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백제 왕릉을 능가하는 크기이다. ⑤ 조영 계획에 있어서는 전체적 통일 규격은 없다. ⑥ 주체 부위는 대개 횡혈실 석실로서(자라봉 고분은 수혈식 석실), 九州 중·북부의 고분과 비슷하다. ⑦ 일본열도의 전방후원분과 같은 축조 방식은 보이지 않지만 段築·葺石이나 周壕는 있는 것이 있다. ⑧ 부장품의 대부분은 백제적이다. ⑨ 대가야계로 보이는 부장품을 동반하는 것도 있다(명화동 고분, 신덕 고분). ⑩ 원통형 토기(하니와 형의 흙제품)나 방패형 목제품이 출토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왜식이다.

그것을 만든 주체에 관해서는 크게 나누어 재지 수장설【岡內三眞 1996, 土生田純之 1996, 田中俊明 2001·2009, 朴淳發 2001·2003ｂ, 李暎澈 2006, 河承哲 2006, 辻秀人 2007 등】과 왜인설이 있으며, 왜인설은 왜로부터의 이주자설과 왜계 백제관료설【朱甫暾 2000, 西谷正2001, 朴天秀 2007ａ·2008 등】로 갈리고 있다. 왜로부터의 이주자설에는 九州 또는 왜 왕권으로부터의 세력 침투를 상정하는 설【東潮 1995·2001, 柳澤一男 2008, 李鎔賢 2008, 鈴木英夫 2008 등】과 귀향 왜인설【林永珍 1997·2000】, 즉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이 전방후원분 축조 기술을 갖고 돌아왔다는 생각, 그리고 재지인화

하는 도중의 왜인설【土生田純之 2008】의 세 가지 설이 있다. 왜계 백제관료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언급하고자 하나, 왜계 백제관료설은 ② ③ ⑤ ⑥ ⑧의 특색에 유의하여, 웅진 천도 후에 한참 동안 자력으로 남방을 통치할 역량이 부족했던 백제가 기존 질서를 깨기 위해 재지적 기반이 없는 외부 세력인 왜계 백제관료를 사민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또한 왜인끼리의 결합을 경계하여 분산적 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 왜계 백제관료의 생성 시기(후술)와의 차이에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으며【李鎔賢 2008】, 또한 왜계 백제관료는 백제 왕권을 따르기 때문에 ④와 같이 백제의 왕릉을 능가하는 크기의 전방후원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의문점도 남는다【土生田純之 1996】. 마찬가지로 왜로부터의 여러 이주설 중에서 앞의 두 가지 설은 다른 고고학적 흔적이 증명되지 못하여 역시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영산강 유역의 위치 정립은 해당기의 백제와 왜, 그리고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핵적 논점이 된다. 한국의 문헌사학계에서는 ≪일본서기≫ 神功 49년(249＋120→369) 3월조(뒤에 게재할 사료 04)의 가야 지역 7국 평정의 주체를 백제로 바꿔 읽고 이미 근초고왕대의 4세기 후반에는 전라남도 지역도 백제의 영유 하에 있었다는 의견이 유력하지만(주7), 고고학적 입장으로 보면 영산강 유역이 완전히 백제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은 6세기 중엽 이후의 일로서 문제의 전방후원분 시대는 그 최종적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게 되었다【朴淳發 2003a·b, 徐賢珠 2008, 吉井秀夫 2002·2005·2006 등】. 그렇다면 6세기 전반 무렵까지는 백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왜국 내의 여러 세력 특히 九州의 중·북부의 세력, 그리고 대가야와도 제휴하는 독자적 세력이 존립하게 되어, 위에서 서술했듯이 일본에서는 이것을 5세기에 왜왕이 중국 남조의 송으로부터 제수 받은 군사권 부탁의 범위에 등장하는 '모한', 즉 마한의 잔존 세력과 관련지으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東潮 1995, 田中俊明 2001·2009 등】. 이러한 해당 지역의 역사가 전방후원분 축조에 체현되고 있어서 재지 수장설 제시의 논거가 된다【林永珍 2003, 朴淳發 2003b등】.

모한(마한)이 결집된 정치세력이었는지 아닌지는 제쳐두고라도(주8), 해당 지역의 역사적 위치 정립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영산강 유역의 독자성 여부를 더욱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近藤浩一 2008a】.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로 인해 왜국에 철 자원이나 도질토기를 공급했었던 남부 가야의 금관국이 세력이 저하된 후에, 5세기 대에는 영산강 유역으로부터 도질토기 등의 문물을 왜국으로 가져간 사실이 판명되고 있어서 '백제－영산강 유역－九州－왜 왕권'이라는 관계 모델도 제시되었다【朴淳發 2001】. 즉 5세

기대의 왜국은 이러한 작은 세력의 자립을 지원했거나 또는 九州의 세력이 독자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인정했지만, 다음의 6세기가 되자 백제의 영토 확대를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방책으로 바뀌거나 또는 백제의 가야 제국 침공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선택으로 이어져, 관계 모델은 '백제－왜왕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커다란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3. 왜계 백제 관료의 생성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을 축조한 주체에서 나온 왜계 백제 관료와 관련하여, 남천 전후의 백제와 왜국의 관계 또는 왜계 백제 관료의 양태·성립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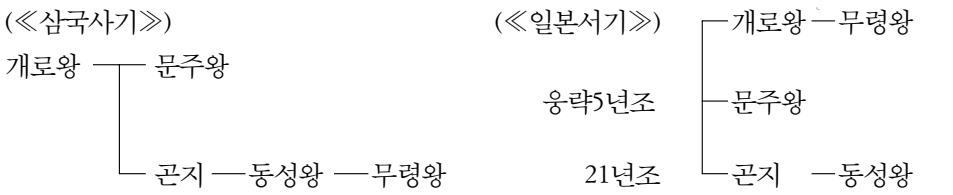
고구려에 의한 한성 공략의 모습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475) 9월조, 문주왕 즉위 전기, ≪일본서기≫ 웅략 20년(476) 겨울 조(分註에 인용된 <백제기>에는 을묘년(475)으로 되어 있다) 등에 묘사되어 있지만 이 백제 남천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왜국은 나중에 알게 된 듯하다. ≪일본서기≫ 웅략 21년(477) 3월조에는 왜국이 백제 부흥을 지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가 구원을 요청한 것은 신라이며 5세기 후반이 되면 신라도 고구려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고, 북방에서는 백제, 또는 '가야'(고령, 대가야)와 협력하여 고구려의 남하에 대항하려고 한다.(≪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9년(455) 10월조, 소지마립간 3년(481) 3월조, 동6년(484) 7월조, 동 16년(494) 7월조, 동 17년(495) 8월조, <백제본기> 비유왕 7년(433) 8월조, 동성왕 16년(494) 7월조, 동 17년(495) 8월조, ≪일본서기≫ 웅략 8년(464) 2월조 등).

상기와 같이 동성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으며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연구에서는 이전부터 주장되었지만, 최근에 일본에서도 5세기 후반의 나제동맹을 고려에 넣어 왜국과 백제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창이 나오고 있다 【熊谷公男 2007, 森公章 2006 등】. ≪삼국사기≫ <백제본기> 비유왕 2년(428) 2월조에는 "倭國使至, 從者五十人"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서기≫ 應神 39년(308＋120→428) 2월조의 新齊都媛 귀래 기사와 대응되는 것이지만 비유왕(재위 427～455년)대의 통교의 예로서는 이것뿐으로 ≪일본서기≫는 비유왕의 존재를 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기의 왜와 백제간의 관계는 반드시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다음 개로왕 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서기≫ 웅략 5년(461)조에 加須利君(개로왕)이 남동생의 軍君(곤지)를

왜국으로 파견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475년의 백제의 위기에 임하여 왜국이 즉시 부응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웅진 천도 후의 백제에 대하여 왜국이 명확한 지원을 한 것은 동성왕 즉위 때가 처음이며, 삼근왕 서거에 임하여 왜국은 곤지의 차남인 末多王에게 병기를 하사하고 筑紫國의 군사 500명을 보내 호송하고 이를 동성왕으로 즉위시켰다 한다(≪일본서기≫ 웅략 23년(479) 4월조). 위에서 서술한 웅략 21년 3월조에는 웅진 천도 시에 문주왕에게 지원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分註所引 '日本舊記'가 서술하고 있듯이 이는 말다왕(동성왕) 대의 지원을 소급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동성왕은 문주왕 대에 內臣佐平이 된 왕제 곤지(477년 서거)의 아들이었다. 개로왕·문주왕·곤지의 관계, 동성왕의 왕통 계보상 위치나 곤지의 왜국에서의 체류, 백제로의 귀국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와는 큰 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앞으로의 검토과제로 하고자 한다【坂元義種 1978f, 古川政司 1981, 山尾幸久 1989, 李根雨 1997 등】.

〈두 종류의 백제 王統譜〉



무열 4년 시세조 所引 ≪백제신찬≫

≪일본서기≫ 웅략 23년 시세조에는 또한 백제로부터의 調賦가 관례보다 많았기 때문에 筑紫의 安致臣·馬飼臣 등 船師를 파견하여 고구려와 싸웠다고 되어 있다. 이 戰役은 ≪삼국사기≫에서 대응 기사를 발견하지 못하여 명확하지 않지만 이때에 파견된 군사는 筑紫, 즉 九州의 병력이며 동성왕 즉위 시의 호송과 함께 왜국의 원정군 편성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의하고자 한다. 다음 6세기대에는 백제에서는 物部·科野·巨勢·紀臣·葦北君·久米·竹志 등 왜인의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제의 16등 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끔 보이며(≪일본서기≫ 繼體·欽明紀), 그들은 왜국이나 '임나일본부'와의 외교 협상에서 활약하고 있어 왜계 백제관료라 칭할 존재였다(주9). 554년에 백제 성명왕이 신

라에 패사한 전투에는 '東方領 物部莫哥武連'이 등장하고 있다(사료 0-01). ≪周書≫ 백제전에 의하면, 方領에는 達率(제2위)을 기용한다고 기술되어 있어서, ≪일본서기≫에서 보이는 왜계 백제관료는 奈率(제6위)의 예가 많지만, 상위로 승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 알려져서, ≪隋書≫ 백제전에서 그려진 백제 궁정의 융합적 구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筑紫의 호족 출신자를 포함하는 이러한 왜계 백제관료 등용에 있어서 하나의 기점은 이 동성왕 즉위 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朴天秀 2007 a】. 또한 상술한 영산강 유역 세력의 존재와 관련하여 백제가 해당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6세기 중엽의 단계에서 이 땅의 세력과 제휴했던 왜인이 왜계 백제관료가 되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熊谷公男 2005】. 왜계 백제관료가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다음의 6세기이며,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분쟁에 즈음하여, 그들은 백제로부터의 사신으로써 왜국에 도래하여 외교 문제의 협의에 종사했다. 6세기대에 왜국과 백제의 관계가 밀접하게 된 것은 유교나 불교를 비롯한 선진문물을 백제가 제공했음과 함께 이 왜계 백제관료의 존재가 백제에 대한 왜국의 신뢰를 양성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가야 제국의 정세와 왜국·백제·신라

동성왕 즉위에 따른 이상과 같은 왜국의 방책에 대하여 백제 측은 반드시 왜국과의 관계 일변도는 아니어서 동성왕대에도 신라나 남제 등과 다원적 외교를 구축하려고 했으며 왜국과의 관계도 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왜국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다음의 6세기대에 백제가 신라와 그 귀속을 둘러싸고 싸우게 되는 가야 제국과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479년에는 가라왕 하지가 남제에 입공했으며 이 '가라국'은 북부 가야 지역의 고령(대가야, 伴跛)을 말하는 것으로, 5세기대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대가야연맹이라고도 칭할 만한 정치적 결합이 형성되었고(주10), 그것을 배경으로 중국 남조에 대한 입공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 북부가 가야 지역과 왜국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동성왕대의 사건이 되는 487년의 帶山城 사건을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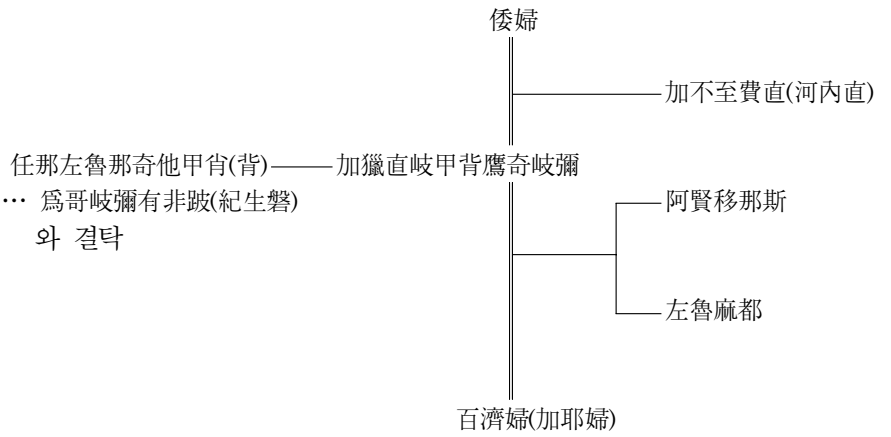
2-03 ≪日本書紀≫ 顯宗天皇 3年(487) 是歲條

紀生磐宿禰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宮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距守東道, 斷運粮津令軍飢困. 百濟王大怒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干帶山攻. 於是, 生磐宿禰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여기에 등장하는 紀生磐宿禰는 ≪일본서기≫ 웅략 9년(465)조에서 신라 정벌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장군 중 한 명인 紀小弓宿禰의 아들인 紀大磐宿禰로 비정된다. 부친의 병마·船官·여러 小官을 이어 받기 위해 大磐이 바다를 건너자 장군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이 군사는 실패로 끝났다. 그 후 大磐＝生磐은 가야 지역과 신라와의 경계 지대에 머물러 487년의 대산성 사건에서 백제인을 살해하는 것이다(주11). 이 사건에는 '任那左魯 那奇他甲背(背)'라는 가야계의 인물이 관여하여 가야의 세력이 반도에서 활동하는 왜국의 호족과 고구려를 끌어들여 백제의 세력을 쫓아 내려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는 계기로서는 481년, 484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했을 때에, '가야'(대가야)와 제휴하여 구원했던 것으로 상기되며(≪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3년 3월조, 6년 7월조), 이번 사건을 구실로 백제는 북부 가야 지역에 대한 제압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任那左魯 那奇他甲背(背)의 계보≫



* ≪일본서기≫ 현종 3년 시세조, 欽明 5년 2월조 등에 의함.

또한 이 那奇他甲背는 6세기의 가야 제국을 둘러싼 분쟁 가운데에서 백제 성명왕이 비난한 가야계의 河內直·移那斯·麻都 등의 조상으로 생각되며, 백제에는 가야 진출을

둘러싸고 왜국과 이해가 다른 부분도 있던 것 같다. 那奇他甲背가 가지는 '左魯'는 그 자손인 麻都도 冠称으로 하고 있어서 무언가의 칭호로 생각되며 '甲背'는 이 칭호를 받은 백제인의 존재가 알려져 있으므로(≪일본서기≫ 繼體 23년(529) 3월 是月條의 麻那甲背, 欽明 2년(541) 4월조의 城方甲背 味奴 등), 백제의 칭호로 추정된다. 즉 가야인이면서 백제의 칭호를 갖고, 백제·왜, 또한 신라·고구려와도 관계를 가지고, 복잡한 행동을 하는 세력이 존재했음이 알려져 해당기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가야 지역 사람들의 주체적 선택의 방향도 고려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2-04 ≪日本書紀≫ 神功 49年(249＋120→369＋60→429?) 3月條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奉上沙白盖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沙奴跪<是二人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與沙白盖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㶱·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西廻至古爰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自然降服. 是以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 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祇>, 相見欣感,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彦與百濟王, 至于百濟國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敷草爲坐, 恐見火燒. 且取木爲坐, 恐爲水流. 故居磐石而盟者. 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絶無窮, 常稱西蕃,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彦, 至都下厚加禮遇. 亦副久氐等, 而送之.

2-05 ≪日本書紀≫ 神功 62年(262＋120→382＋60→442?)條

新羅不朝. 卽年遣襲津彦擊新羅. <百濟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貴國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飭美女二人,迎誘於津. 沙至比跪受其美女,反伐加羅國. 加羅國王己本旱岐及兒百久至·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汶至等,將其人民,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旣殿至,向大倭啓云,天皇遣沙至比跪,以討新羅,而納新羅美女捨而不討,反滅我國. 兄弟人民皆爲流沈,不任憂思. 故以來啓. 天皇大怒,旣遣木羅斤資,領兵衆來集加羅,復其社稷. 一云,沙至比跪知天皇怒,不敢公還,乃自竄伏. 其妹有幸於皇宮者,比跪密遣使人問天皇怒解不. 妹乃託夢言,今夜夢,見沙至比跪. 天皇大怒云,比跪何敢來. 妹以皇言報之. 比跪知不免, 入石穴而死也.

2-06 ≪日本書紀≫ 應神 25年(294＋120→414＋60→474?)條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婬, 多行無禮. 天皇聞而召之. <百濟記云, 木滿致者是木羅斤資討新羅時, 娶其國婦而所生也. 以其父功專於任那, 來入我國往還貴國, 承制天朝執我國政, 權重當世. 然天皇聞其暴召之.>

2-07 ≪日本書紀≫ 雄略 7年(463) 是歲條

吉備上道臣田狹侍於殿側, 盛稱稚媛於朋友曰, 天下麗人莫若吾婦, 茂矣綽矣, 諸好備矣. 曄矣溫矣, 種相足矣, 鉛花弗御, 蘭澤無加, 曠世罕儔, 當時獨秀者也. 天皇傾耳, 遙聽而心悅焉. 便欲自求稚媛爲女御, 拜田狹爲任那國司, 俄而天皇幸稚媛. 田狹臣娶稚媛而生兄君·弟君也. <別本云, 田狹臣婦名毛媛者, 葛城襲津彦子, 玉田宿禰之女也. 天皇聞體貌閑麗, 殺夫自幸焉.>田狹旣之任所聞天皇之幸其婦, 思欲求援而入新羅. 于時, 新羅不事中國, 天皇詔田狹臣子弟君與吉備海部直赤尾曰, 汝宜往罰新羅. 於是, 西漢才伎歡因知利在側, 乃進而奏曰, 巧於奴者多在韓國, 可召而使. 天皇詔群臣曰, 然則宜以歡因知利副弟君等, 取道於百濟, 幷下勅書, 令獻巧者. 於是, 弟君銜

命, 率衆行到百濟而入其國. 國神化爲老女, 忽然逢路. 弟君就訪國之遠近. 老女報言, 復行一日而後可到. 弟君自思路遠不伐而還. 集聚百濟所貢今來才伎於大嶋中, 託稱候風, 淹留數月. 任那國司田狹臣乃喜弟君不伐而還, 密使人於百濟, 戒弟君曰, 汝之領項有何牢鏁, 而伐人乎. 傳聞, 天皇幸吾婦遂有兒息<兒息已見上文>. 今恐, 禍及於身可蹻足待. 吾兒汝者, 跨據百濟, 勿使通於日本. 吾者據有任那, 亦勿通於日本. 弟君之婦樟媛, 國家情深, 君臣義切, 忠踰白日, 節冠青松. 惡斯謀叛盜殺其夫, 隱埋室內. 乃與海部直赤尾將百濟所獻手末才伎在於大嶋. 天皇聞弟君不在, 遣日鷹吉士堅磐固安錢<堅磐, 此云柯陀之波>使共復命. 遂卽安置於倭國吾礪廣津邑,而病死者衆<廣津, 此云比盧岐頭>. 由是, 天皇詔大伴大連室屋, 命東漢直掬, 以新漢陶部高貴·鞍部堅貴·畫部因斯羅我·錦部定安那錦·譯語卯安那等遷居于上桃原·下桃原·眞神原三所. <或本云, 吉備臣弟君還自百濟,獻漢手人部·衣縫部·宍人部.>

왜국과 북부 가야 지역과의 관계라고 하면, 사료 04의 卓淳을 거점으로 하는 왜·백제에 의한 신라 공격 계획과 그 전말도 주목된다. 여기서는 戰果가 卓淳을 포함하는 가야 지역 7국 평정과 '南蛮' 忱弥多禮(耽羅)의 토벌이 되고 있지만, 卓淳이 토벌 대상이 된 데에는 의문이 있어서 가야 제국이나 탐라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6세기대의 백제의 활동 범위를 소급한 것으로써 이 기사 자체는 전승적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단 간지 삼운을 가산하는 기년 수정으로 인해【山尾幸久 1989】 이것이 429년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해에는 백제의 비유왕이 適稽女郎을 '인질'로 하여 왜국에 파견하고 있으며(≪일본서기≫ 웅략 2년(458) 7월조 所引 ≪백제신찬≫에 '을사년'(429)의 來朝로 보인다), 이를 받은 왜국이 백제와 함께 가야 제국을 공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료 05는 왜국의 중앙 유력 호족 갈성씨의 沙至比跪(葛城襲津彦인지)와 '가라'(대가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이지만, 이것도 왜의 북부 가야 지역에 대한 進攻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田中俊明 2003】, 451년의 왜왕 濟의 칭호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가라'(대가야)가 등장하는 것과 이어지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사료 06에는 백제의 직지왕(전지왕) 훙거 후에, 久爾辛王 즉위 후의 일로써 왕이 유년이었기 때문에 木滿致가 국정을 장악하고 왕의 모친과 相婬하여 많은 무례를 행하였으므로 왜왕은 이를 소환하는 뜻의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목만치는 475년에 문주왕과 함께 웅진으로 천도한 木劦滿致(≪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475) 9월조)로 비정되어 이것도 간지 3운을 가산하여 연차를 수정해야 한다.(주12).

사료 04·05에서는 백제 木羅斤資의 활동이 특기되어 있어서 목라근자－목만치 부자가 북부 가야 지역에서 맹위를 떨친 모습을 전하고 있다. 木(木劦)씨는 백제 大姓八族 중 하나로, 大姓者에는 王·侯로 책봉된 예도 보이며(<표 2>), 동성왕 대의 백제 재건은 유

력 호족에 의한 지방 지배 추진으로 지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75년에 백제가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려 한 것은 북부 가야 지역을 매개로 하는 木氏와 신라의 접촉이 있었다고도 추측되는 바이다. 그 전제를 비난받은 滿致는 왜국에 도래하였고 왜국이 그것을 수용한 것은 왜국에는 木씨가 구축한 북부 가야 지역과의 관계를 계승할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부 가야 지역은 5세기 도래인의 출신지이며 또한 사료 07의 '임나국사' 吉備上道臣田狹과 같은 지방 호족의 진출도 있었다. 이러한 가야 지역과 왜국의 여러 세력과의 여러 관계는 백제와 신라가 가야 제국의 쟁탈을 전개하는 6세기 대에 왜국이 선진문물이나 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의 동란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단, 북부 가야 지역에 대한 활동은 葛城씨나 紀씨(왜계 백제관료의 씨성에도 보인다)라는 유력 호족 독자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남부 가야 지역에서의 吉備씨 활동 모두가 이러한 중앙·지방의 유력 호족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는 왜 왕권에 있어서 여전히 과제였다고 해야 한다.

또한 ≪삼국사기≫ <신라본기> 炤知麻立干 18년(496) 2월조에는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이라고 되어 있어서 신라도 대가야와의 통교를 시도했다. 그 신라와 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웅략 9년(465)조에 왜국의 신라 공격이 그려져 있어서 적대상황이 전해지고 있다. 단, 고고학적 견지에서 보면 5세기 전반에는 신라의 金工 기술이 왜국으로 이입되었다는 지적도 있어서【朴天秀 2007 b】, 왜·신라 관계는 반드시 대립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왜인 관계 기사를 보아도(<표 5>), 해당기의 왜는 신라의 영역을 침해하는 존재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왜인·왜병은 이것을 반도에 소재했던 것, 또는 가야로 바꾸어 이해하는 설도 있지만【三品彰英 1962, 井上秀雄 1973】, 왜인·왜병의 행동에 착목하면 성을 공략했다는 기술은 있지만, 계속적 점령은 아니며 또한 내습의 시기가 바다가 온화한 4~6월의 봄, 여름에 집중되는 것은 일본열도로부터 반도의 동해안으로의 도래에서 엿볼 수 있으며, 그들은 가야 지역과 교류하며 철 등의 선진문물을 얻었던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호족에 의한 행위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鈴木靖民 1974, 鈴木英夫 1996 b】. 또한 462,3년의 대규모 병력 내습 기사는 왜 왕권에 의한 출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6세기 대의 가야 제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왜국의 개입 배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5세기대의 양상으로부터 왜국이 신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가는가도 다음의 6세기 일한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주1) 그 외에, 堀敏一, 2000 ≪中國通史≫ (講談社), 西嶋定生, 1983 <東アジア世界と册封体制>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467頁 補1 등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다.

(주2)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 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주3)【石井正敏 2005】는 同品內의 各將軍号는 同格이었다고 생각하고, 宋이 倭國에 百濟의 軍事權을 주지 않은 것은 선행하여 백제에 부여한 것이 이유였고, 장군호의 서열이 問題로 여겨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百濟에 대한 先行付与를 이유로 하는 점이 좋겠지만, 諸將軍号가 同格이었다고 하는 점은 지지하기 어렵다.

(주4) 瀧口宏監修, 市原市教育委員會·財団法人市原市文化財センター 編, 1988 ≪「王賜」銘鐵劍概報≫ (吉川弘文館) ; 東野治之, 2004 ≪日本古代金石文の研究≫ (岩波書店) ; 東京國立博物館, 1993 ≪江田船山古墳出土國寶銀象嵌銘大刀≫ (吉川弘文館) 등.

(주5) 2006 ≪葛城氏의 實像≫ (橿原考古學研究所).

(주6)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주7) 千寬宇, 1974 <韓國史の潮流－三國時代(抄)>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 金鉉球, 1993 <「神功紀」の加羅七國平定記事に關する一考察> ≪翔古論聚≫ 久保哲三先生追討記念論文集刊行會 등. 【鈴木英夫 2008】도 5세기 후반에는 百濟가 全羅南道를 지배했다고 보고 있다.

(주8)【山尾幸久 2001】는 慕韓을 益山·金堤·扶安付近으로 보고, 榮山江流域을 慕韓으로 비정함에 반대하고 있다.

(주9) 李弘稙, 1936 <任那問題を中心とする欽明紀の整理－主要關係人物の研究－> ≪青丘學叢≫25 ; 笠井倭人, 2000 <欽明朝における百濟の對倭外交>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 吉川弘文館) ; 金鉉球, 1985 <日系百濟官僚>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등. 또한 663년 白村江戰에서 百濟가 완전히 滅亡한 다음에, 倭國(→日本)으로 망명한 百濟人에는, ≪續日本紀≫ 神龜 元年(724) 5月 辛未條에 物部·久米姓, 寶字 5年(761) 3月 庚子條에 竹志·科野姓의 사람이 보이고 있어서, 그들 倭系 百濟官僚는 百濟 滅亡時까지 百濟에 봉사한 사실이 알려진다.

(주10) 金泰植, 1985 <五世紀前半大加耶發展에 대한 研究> ≪韓國史論≫ 12 ; 1988 <六世紀前半加耶南部諸國의 消滅過程考察> ≪韓國古代史研究≫1; 1993 <六世紀中葉加耶連盟의 滅亡過程> ≪朝鮮學報≫ 146 ; 2001 <加耶史輕視論에 대한 批判>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田中俊明 주(2) 글 등.

(주11) 帶山城의 比定地는 全羅北道 井邑郡 泰仁(옛이름은 大尸山)로 보는 것이 유력한 설이지만, 史料 03의 登場人物·地名으로 생각하면, 百濟와 新羅와 加耶의 境界付近이며, 또한 高句麗의 領域과도 近接하는 땅을 상정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12)【大橋信彌 1989】는 史料 06을 久爾辛王 즉위전의 滿致의 專斷体制→429年 毗有王 즉위로 인한 倭國으로의 망명→455年 蓋鹵王 즉위 후의 歸國과 475年 文周王을 따라 南遷이라고 해도 年代에 矛盾은 없다고 하며, 毗有王代의 倭·百濟關係 不調를 滿致의 倭國으로의 망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滿致의 부친 木羅斤資의 활약 시기로 생각해 보면, 역시 연대적인 정합성이 없는 바가 있어서, 5世紀 후반의 인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木滿致를 蘇我씨의 조상 중 한 사람인 蘇我滿智宿禰로 비정하는 설(門脇禎二, 1977 ≪蘇我蝦夷·入鹿≫ (吉川弘文館) 등)은 현재도 거의 부정되고 있다.

〈표 1〉 왜국과 중국 남조와의 통교

413年 ○ …高句麗王高璉, 東晋에入貢→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이 되다 [宋書高句麗傳]
倭國도 入貢한다고 한다 〔≪晋書≫安帝紀,≪太平御覽≫卷981香部1麝條所引義熙起居注〕
421年 ○ …倭讚, 宋에 入貢→除授 있음 [傳]
425年 ○ …倭王讚, 司馬曹達를 遣하여,宋에 入貢 [傳]
430年正月…倭國王, 宋에 入貢 [紀]
438年 4月…倭王珍, 宋에 入貢. 自称'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除正'安東將軍倭國王', 倭隋 등 13人의 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号의 除正을 요구하다 [傳]
443年 ○ …高句麗·百濟,宋に入貢 [紀]
倭王濟, 宋에-入貢→除正'安東將軍倭國王' [紀·傳]
451年10月…高句麗, 宋에 入貢 [紀]
○ …倭王濟, 宋에 入貢→加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23人의 軍·郡를 除正 [傳]
462年 3月…高句麗, 北魏에 入貢 [紀]
倭王世子興, 宋에 入貢→除正'安東將軍倭國王' [紀·傳]
477年 2月·9月…高句麗, 北魏에 入貢 [紀]
11月…倭國, 宋에 入貢〔紀〕
478年 5月…倭王武, 宋에 入貢하여, 上表. 自称'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竊自仮開府儀同三司, 其余咸仮授'→除正'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倭王' [紀·傳]
12月…高句麗, 宋에 入貢 [紀]
479年 ○ …加羅國王荷知, 南齊에 入貢→輔國將軍本國王이 되다 [傳]
南齊, 高句麗王樂浪公高璉の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を驃騎大將軍에 進号 [傳]
南齊, 倭王武を鎭東大將軍에 進号 [傳]
502年 4月…梁, 高句麗王高雲を車騎大將軍, 百濟王余大を征東大將軍,倭王武を征東將軍에 進号 [紀]
※ 출전을 주기한 것 이외에는 해당 중국 사서에서 紀는 本紀, 傳은 해당국의 傳을 말한다. 한반도 여러 나라의 입공 기사는 같은 해의 입공이 있는 것만을 참고하도록 게재했다.

〈표 2〉 백제왕 휘하의 왕·후와 부관

久爾辛王 5年(景平2＝424)〔≪宋書≫百濟傳〕
長史 張威
毗有王 24年(元嘉27＝450)〔≪宋書≫百濟傳〕
臺使 馮野夫→西河太守
蓋鹵王 4年(大明2＝458)〔≪宋書≫百濟傳〕
行冠軍將軍右賢王 余紀→冠軍將軍
行征虜將軍左賢王 余昆→征虜將軍
行征虜將軍 余暈→征虜將軍
行輔國將軍 余都→輔國將軍

行輔國將軍 余久→輔國將軍
行龍驤將軍 沐衿→龍驤將軍
行龍驤將軍 余爵→龍驤將軍
行寧朔將軍 余流→寧朔將軍
行寧朔將軍 糜貴→寧朔將軍
行建武將軍 于西→建武將軍
行建武將軍 余婁→建武將軍
蓋鹵王 18年(延興2＝472)〔≪魏書≫百濟傳〕
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 余禮
龍驤將軍帶方太守司馬 張茂
東城王 8年(永明8＝490)〔≪南齊書≫百濟傳〕
寧朔將軍面中王 姐瑾〔→〕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冠軍將軍都將軍
建威將軍八中侯 余古〔→〕行寧朔將軍阿錯王→寧朔將軍
建歷將軍 余歷〔→〕行龍驤將軍邁盧王→龍驤將軍
廣武將軍 余固〔→〕行建威將軍弗斯侯→建威將軍
行建威將軍廣陽太守兼長史 高達→建威將軍廣陽太守
行建威將軍朝鮮太守兼司馬 楊茂→建威將軍朝鮮太守
行宣威將軍兼參軍 會邁→宣威將軍
東城王 17年(建武2＝495)〔≪南齊書≫百濟傳〕
行征虜將軍邁羅王 沙法名→征虜將軍
行安國將軍辟中王 贊首流→安國將軍
行武威將軍弗中侯 解禮昆→武威將軍
行廣威將軍面中侯 木干那→廣威將軍
行龍驤將軍樂浪太守兼長史 慕遺→龍驤將軍
行建武將軍城陽太守兼司馬 王茂→建威將軍
兼參軍行振武將軍朝鮮太守 張塞→振武將軍
行揚武將軍 陳明→揚武將軍
※〔→〕·'行'은 仮授이며 →는 제수를 가리킨다.

〈표 3〉 송의 장군호 관품표

第一品 大將軍 / 諸位從公
第二品 特進 / 驃騎將軍 / 車騎將軍 / 衛將軍 / 諸大將軍 / 諸持節都督
第三品 侍中 / 散騎常侍 / 四征將軍 / 四鎭將軍 / 中軍將軍 / 鎭軍將軍 / 撫軍將軍 / 四安將軍 / 四平將軍 / 左·右將軍 / 前·後將軍 / 征虜將軍 / 冠軍將軍 / 輔國將軍 / 龍騏將軍 / 光祿大夫 / 領護軍 / 縣侯
第四品 二衛將軍 / 驍騎將軍 / 遊擊將軍 / 四軍將軍 / 左·右中郎將 / 五校尉 / 寧湖將軍 / 五威將軍 / 五武將軍 / 四中郎將 / 刺史領兵者 / 戎蠻校尉 / 鄉侯
第五品 散騎侍郎 / 謁者僕射 / 三將 / 積射將軍 / 彊弩將軍 / 鷹揚將軍 / 折衝將軍 / 輕車將軍 / 揚烈將軍 / 威遠將軍 / 寧遠將軍 / 虎威將軍 / 材官將軍 / 伏波將軍 / 凌江將軍 / 刺史不領兵者 / 郡國太守內史相 / 亭侯

〈표 4〉 한국의 전방후원분

七岩里古墳〔B〕… 全羅北道 高敞郡 孔音面 七岩里 淵洞村
東側 全長 55m, 後円部直徑 38.4m, 高 10.3m, 前方部 30.8m, 高 5.7m. 段築(?)
月溪古墳(月桂古墳)〔B〕…靈光郡 法聖面 月山里 月溪村
全長 41.2m, 後円部直徑 22.5m, 高 6m, 前方部 長 18.7m, 幅 15.5m, 高 2.5m. 百濟系 筒形器台 출토.
月城山古墳(古城里古墳)…潭陽郡 水北面 古城里 月城山
楕円形으로 長軸은 24m. 前方後円墳(?)
月田古墳〔?〕…潭陽郡 古西面 聲月里 月田
全長 45m, 高 2.3m. 陶質土器 출토.
月桂洞1号墳〔B〕…光州廣域市 光山區 月桂洞 748
全長 45.3m, 後円部直徑 25.8m, 高 6.1m, 前方部幅 31.4m, 高 5.2m. 段築(?) 周壕 있음(円筒形土器, 石見型·盾形·埴輪形의 木製品, 笠形木製品 출토). 石室로부터 百濟系土器 출토.
月桂洞2号墳〔B〕…光州廣域市 光山區 月桂洞 748
全長 34.5m, 後円部直徑 20.5m, 高 3.5m, 前方部 幅 약 22m,高 약 3m. 段築 있나? 周壕 있음.
長鼓山古墳〔A〕…咸平郡 咸平邑 長年里 長鼓山
全長 약 70m, 後円部直徑 36～39m, 高 3.5～8m, 前方部幅 약 37m, 高 약 7m.
新德古墳(新德1号墳)〔A〕…咸平郡 月也面 禮德里 新德山 176～178
全長 51m, 後円部直徑 30m, 高 5m, 前方部幅 25m, 高 4m. 葺石 있음. 墳丘周囲에 溝가 둘러쌈(石室羨道部前端에서는 끊김). 裝飾木棺·裝身具는 百濟產(?) 大加耶系의 伏鉢付冑 출토.
明花洞古墳〔B〕…光州廣域市 光山區 明花洞 170-5
全長 33m(後円部·前方部 모두 크게 변형되어, 本來의 墳丘 형태 잃음). 段築 있음. 周壕 있음(円筒形土器 출토). 石室로부터 大加耶樣式의 蓋, 百濟系筒形器台 출토.
杓山1号墳(馬山里1号墳)〔B〕…咸平郡 鶴橋面 馬山里 杓山
全長 46m, 後円部直徑 25m, 前方部幅 26m.
자라봉 古墳〔?〕…靈岩郡 始終面 泰潤里 立石
長軸 35.6m, 後円部長軸 23.3m, 短軸 20.2m, 高 5m, 前方部 長 12.2m, 幅 7.4m, 高 2.25m. 竪穴式石室.
말무덤 古墳(龍頭里古墳)〔A〕…海南郡 三山面 昌里 龍頭 578
全長 40.5m, 後円部直徑 23m, 高 5.1m, 前方部 長 19m, 幅 16.7m, 高 3.5m.
海南 長鼓峰古墳(海南 長鼓山古墳,新芳古墳)〔A〕…海南郡 北日面 方山里
全長 약 76m, 後円部直徑 43m, 高 10m, 前方部 幅 37m, 高 9m.

※A·B는【辻秀人 2007】에 의한 구분. A…後円部 墳頂으로 비교적 넓고 뚜렷한 평탄면을 갖는다. 공통의 설계 등 세부까지가 일치하는 양상은 없다. 고분 축조에 있어서 축조 주체자가 스스로 갖고 있는 정보나 정치적인 관계 하에서 필요에 따라 고분 축조에 관한 기술자를 수용하면서 墳丘나 매장시설을 만들었다. B…後円部 墳頂에 뚜렷한 평탄면을 갖지 않는다. 墳丘 구조의 공통성이 뚜렷하고 또한 유사성이 높다. 지역 속에 전방후원분의 생긴 모습이 공유되고 있다.

〈표 5〉≪삼국사기≫〈신라본기〉의 5세기의 왜인 침입기사

431年(訥祇麻立干15) 4月 …倭兵이 東辺을 侵하고,明活城을 둘러싸다
440年(訥祇麻立干24) …倭人이 南辺을 侵하고, 生口를 掠取
6月에 또 東辺을 侵하다
444年(訥祇麻立干28) 4月…倭兵이 金城을 둘러싸기를 10日
459年(慈悲麻立干2) 4月 …倭人,兵船百余艘에서 東辺을 습격하여 月城을 둘러싸다
462年(慈悲麻立干5) 5月…倭人이 活開城을 破하고, 1000人을 포로로 잡아가다
463年(慈悲麻立干6) 2月…倭人이 歃良城을 侵했지만 克하지 못하고 물러가다
476年(慈悲麻立干19) 6月…倭人이 東辺을 侵하다
477年(慈悲麻立干20) 5月…倭人, 兵을 擧하여, 五道로 내습하다
428年(炤知麻立干4) 5月…倭人, 辺을 侵하다
486年(炤知麻立干8) 4月…倭人, 辺을 犯하다
479年(炤知麻立干19) 4月…倭人, 辺을 犯하다
500年(炤知麻立干22) 4月…倭人, 長峯鎭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다

【참고문헌】

○東潮, 1995 <榮山江流域と慕韓> ≪展望考古學≫ (考古學研究會)
○東潮, 2001 <倭と榮山江流域－倭韓の前方後円墳をめぐって－> ≪朝鮮學報≫ 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新井隆一, 2008 <「古代九州の古墳文化と韓國の前方後円墳」關係論文(日本語文)目錄(稿)>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石井正敏, 2005 <5世紀の日韓關係－倭の五王と高句麗·百濟－>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 第1分科篇 (日韓歷史共同研究委員會)
○池田 溫, 2002 <義熙九年倭國獻方物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井上秀雄, 1973 <古代日本のいわゆる南朝鮮經營>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井上直樹, 2007 <集安出土文字資料からみた高句麗の支配体制についての一考察> ≪朝鮮學報≫ 203
○內田 淸, 1996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6
○大橋信弥, 1989 <百濟における木劦滿致專制体制の成立> ≪立命館文學≫ 514→1996, ≪日本古代の王權と氏族≫ (吉川弘文館)
○岡內三眞編, 1996 ≪韓國の前方後円形古墳≫ (雄山閣出版)
○河承哲, 2006 <五~六世紀における加耶地域の倭系遺物と遺構> ≪海を渡った日本文化≫ (鉱脈社)
○龜田修一, 1997 <考古學から見た吉備の渡來人>武田幸男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川崎 晃, 2001 <倭王權と五世紀の東アジア> ≪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 (吉川弘文館)
○川本芳昭, 1992 <倭國の413年東晋遣使> ≪新版古代の日本≫ 2 (角川書店)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檢討> ≪東北學院大學論集≫ 29
○熊谷公男, 2007 <五世紀の倭·百濟關係と羅濟同盟> 東北學院大學 ≪アジア文化史研究≫ 7

○高寬敏, 1997 <倭の五王と朝鮮> ≪古代朝鮮諸國と倭國≫ (雄山閣出版)
○河內春人, 2003 <倭王武の上表文と文字表記> ≪國史學≫ 181
○近藤浩一, 2008ａ<榮山江流域慕韓說の研究史的檢討>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近藤浩一, 2008ｂ<韓國榮山江流域 古代史關係文獻目錄(稿)>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坂元義種, 1978ａ<五世紀の日本と朝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坂元義種, 1978ｂ<五世紀における倭國王の称号について>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坂元義種, 1978ｃ<五世紀の日本と朝鮮の國際環境－中國南朝と河南王･河西王･宕昌王･武都王－>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の朝鮮≫ (吉川弘文館)
○坂元義種, 1978ｄ<五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坂元義種, 1978ｅ<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坂元義種, 1978ｆ<中國史書における百濟王關係記事の檢討> ≪百濟史の研究≫ (塙書房)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 (教育社)
○朱甫暾, 2000 <百濟の榮山江流域支配方式と前方後円墳被葬者の性格> ≪韓國の前方後円墳≫ (忠南大學校出版部)
○徐賢珠, 2008 <榮山江流域における古墳文化の変遷と百濟> ≪百濟と倭國≫ (高志書院)
○鈴木英夫, 1996ａ<倭王武の對宋外交の一側面－昇明元年の遣使の倭王をめぐって－>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鈴木英夫, 1996ｂ<≪三國史記≫の倭關係記事>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鈴木英夫, 2008 <韓國の前方後円墳と倭の史的動向>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鈴木靖民, 1974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および倭問題> ≪歷史學研究≫ 405
○鈴木靖民, 1985 <倭の五王の外交と內政>林陸朗先生還曆記念會編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續群書類從完成會)
○武田幸男, 1989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田中俊明, 2001 <韓國の前方後円形古墳の被葬者･造墓集団に對する私見> ≪朝鮮學報≫ 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田中俊明, 2003 <倭の五王と朝鮮>姜德相先生古稀･退職記念≪日韓關係史論集≫ (新幹社)
○田中俊明, 2009 ≪古代の日本と加耶≫ (山川出版社)
○田中史生, 2005 <武の上表文> ≪文字と古代日本≫ 第2卷 (吉川弘文館)
○朝鮮學會編, 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辻秀人, 2007 <榮山江流域の前方後円墳と倭國周縁域の前方後円墳>東北學院大學≪歷史と文化≫ 42
○西谷正, 2001 <韓國の前方後円墳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土生田純之, 1996 <朝鮮半島の前方後円墳>專修大學人文科學研究所≪人文科學年報≫26→2006 ≪古墳時代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土生田純之, 2008 <前方後円墳をめぐる韓と倭>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古川政司, 1981 <五世紀後半の百濟政權と倭> ≪立命館文學≫ 433･434
○朴淳發, 2001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円墳の意義> ≪朝鮮學報≫ 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朴淳發, 2003ａ≪百濟國家形成過程の研究≫ (六一書房)
○朴淳發, 2003ｂ＜百濟の南遷と倭＞ ≪檢証古代日本と百濟≫ (大巧社)
○朴天秀, 2007ａ≪加耶と倭 韓半島と日本列島の考古學≫ (講談社)
○朴天秀, 2007ｂ<5-6世紀金工品の系譜と移入の背景＞ ≪日韓交流展 王者の裝い≫ (宮崎縣立西都原考古博物館)
○朴天秀, 2008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円墳からみた古代の韓半島と日本列島＞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北郷泰道他, 2006 ≪海を渡った日本文化≫ (鉱脈社)
○前之園亮一, 2001 ＜倭の五王の通宋の開始と終焉について＞ ≪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 (吉川弘文館)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卷 (吉川弘文館)→2002 (天山舍)
○森 公章,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吉川弘文館)
○柳澤一男, 2008 ＜韓國の前方後円墳と九州＞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山尾幸久, 2001 ＜五･六世紀の日朝關係－韓國の前方後円墳の一解釋－＞ ≪朝鮮學報≫ 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吉井秀夫, 2002 ＜朝鮮の墳墓と日本の古墳文化＞ ≪日本の時代史≫2(吉川弘文館)
○吉井秀夫, 2005 ＜朝鮮半島西南部における古代國家形成過程の諸問題＞ ≪國家形成の比較研究≫ (學生社)
○吉井秀夫, 2006 ＜考古學から見る百濟の國家形成とアンデンティティ＞ ≪東アジア古代國家論≫ (すいれん舍)
○李永植, 1993 ＜五世紀の倭王の称号の解釋をめぐる一視角＞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李暎澈, 2006 ＜前方後円形古墳と墳周土器＞ ≪海を渡った日本文化≫ (鉱脈社)
○李根雨, 1997 ＜「百濟新撰」と昆支＞ ≪古代の日本と渡來の文化≫ (學生社)
○李文基, 2003 ＜百濟內朝制度試論＞ ≪學習院史學≫ 41
○李鎔賢, 2008 ＜韓國古代における全羅道と百濟,加耶,倭＞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林永珍, 1997 ＜湖南地域石室墳과 百濟의 關係＞ ≪湖南考古學의 諸問題≫ (第21回韓國考古學會發表要旨) (韓國考古學會)
○林永珍, 2000 ＜榮山江流域의 石室封土墳의 性格＞ ≪榮山江流域古代社會の新照明≫ (歷史文化學會, 全羅南道)
○林永珍, 2003 ＜百濟の成長と馬韓勢力,そして倭＞ ≪檢証古代日本と百濟≫ (大巧社)

제3장 6세기의 일한관계

제1절 가야 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분쟁과 왜국

6세기가 되자 백제에서는 501년에 무령왕이 즉위하고(재위 501～523년), 그의 23년 동안에 이르는 치세는 웅진시대의 백제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왜국에서도 5세기 이래로 왜 5왕의 계보를 이을 왕통에 남자가 끊어져, 그 출신에는 왕족설과 지방호족설이 있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北近江·越을 본거지로 하여 近江·尾張이나 河內 등의 호족과의 혼인 관계를 세력 기반으로 하여, '譽田天皇(應神) 5세손'이라 칭하는 男大迹王(繼體天皇)이 507년에 왜 왕권의 대왕으로 취임하고 있다(재위 507～531년). 繼體도 25년의 치세를 누렸고 새로운 왜국의 안정, 방향 결정에 진력하고 있어서, 왜국·백제 모두 새로운 세기를 새로운 형태로 맞이한다(주1).

475년 고구려에 의한 한성 함락 후에, 웅진 그리고 538년에는 부여의 천도와, 남천하여 국가의 유지와 남방·동방으로의 새 영토 확대를 계획하는 백제는 마찬가지로 북방을 고구려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방·서방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신라와의 사이에 가야 제국의 쟁탈전을 전개하여 왜국은 기본적으로 백제 지지의 입장에서 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562년의 대가야의 멸망으로 귀착되는 신라에 의한 가야 제국 병탄까지의 과정과 왜국·한반도 제국의 관계, 그리고 '임나일본부'를 둘러싼 논의 등을 정리하여 6세기의 일한관계를 생각해가는 실마리로 하고자 한다.

1. 백제의 己汶·帶沙의 침공과 왜국

가야 제국을 둘러싼 분쟁의 전반 단계, 백제와 신라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 개시와 양국이 안라를 사이에 두고 직접 대치하기에 이르는 530년 무렵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된다. 백제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은 ≪삼국사기≫에는 사료가 없고, 백제계 사료에 의거한 ≪일본서기≫에 기술되어 있다. 오늘날 이 전반 단계가 <표 1>과 같이 이해되게 된 것은 복잡하게 뒤얽힌 ≪일본서기≫의 관계 기사 해독이 진전되었음이 크다. 그 가운데에서도 伴跛＝대가야(고령)설이 확립되고 내륙부인 대구로 비정되

었던 卓淳을 금관국과 안라의 중간에 해당하는 연안부에 위치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이것들을 기축으로 하여 대가야 연맹이나 안라 등 가야 제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하는 시점에서 관계기사를 정확히 이해함이 가능하게 된 것은 커다란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원동력이었다 할 수 있다(주2).

아래와 같이 <표 1>을 보충하는 형태로 관계 사료를 언급하면서 백제·신라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과 왜국의 관여 상황을 검토해 가고자 하지만, 우선은 소위 '任那四縣 할양'이 일련의 분쟁과 관련되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3-01 ≪日本書紀≫ 繼體 3年(509) 2月條
遣使于百濟<百濟本記云, 久羅麻致支彌從日本來, 未詳>, 括出在任那日本縣邑百濟百姓浮逃絶貫三四世者並遷百濟附貫也.

3-02 ≪日本書紀≫ 繼體 6年(512) 4月丙寅條
遣穗積臣押山使於百濟. 仍賜筑紫國馬卅匹.

3-03 ≪日本書紀≫ 繼體 6年 12月條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合爲同國, 固存之策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爲異場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具得是言, 同謨而奏. 迺以物部大連麤鹿火充宣勅使. 物部大連方欲發向難波館宣勅於百濟客. (中略)於是, 或有流言曰, 大伴大連與哆唎國守穗積臣押山受百濟之賂矣.

3-04 ≪日本書紀≫ 欽明 元年(540) 9月 己卯條
幸難波祝津宮. 大伴大連金村·許勢臣稻持·物部大連尾輿等從焉. 天皇問諸臣曰, 幾許軍卒伐得新羅. 物部大連尾輿等奏曰, 少許軍卒不可易征. 曩者男大迹天皇六年, 百濟遣使表請任那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大伴大連金村輒依表請許賜所求. 由是新羅怨曠積年, 不可輕爾而伐. 於是, 大伴大連金村居住吉宅, 稱疾不朝. 天皇遣靑海夫人勾子, 慰問慇懃. 大連怖謝曰, 臣所疾者非餘事也. 今諸臣等謂臣滅任那. 故恐怖不朝耳. 乃以鞍馬贈使厚相資敬. 靑海夫人依實顯奏. 詔曰, 久竭忠誠, 莫恤衆口. 遂不爲罪, 優寵彌深.

본 건에서는 '哆唎國守' 穗積臣押山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는 '四縣'의 현상 분석을 제시하고 백제에 대한 부여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 (사료 03). 이의 押山의 친백제 자세에 착목하여 '國守'를 관할 영역을 갖는 상주 지방관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러한 왜국의 영역이 해당지역에 존재했음을 의문시하며, 押山은 왜계 백제 관료이며 해당 지역도 백제의 영역이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金鉉球 1985 a , 李弘稙 1936】. 또한 이 '四縣'의 소재지에 관해서는 이를 전라남도 전역으로 비정하는 설【末松保和 1949】과 기문·대사에 접한 전라남도 동남부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全榮來 1985】, 또한 최근의 영산강유역에 있어서의 전방후원분의 존재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으로 비정하는 설(上哆唎＝靈巖, 下哆唎＝光州, 娑陀＝咸平·茂長, 牟婁＝靈光·務安)도 제시되고 있다【田中俊明 2009】. 어쨌든 '四縣 割讓'으로 인하여 백제는 가야 제국과 영토를 접하게 되고, 이것이 다음의 목표로서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의 단서가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사료 01은 ≪일본서기≫ 속에서는 사료 03의 백제에 의한 '四縣' 요구의 전제가 되는 기사로서 게재되고 있다. '任那日本縣邑'의 정확한 소재지는 명확치 않고, 물론 왜국이 가야 지역을 영토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실은 없으므로 그 점은 그대로 두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백제인이 가야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3·4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주는 상당히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주3). 이러한 뒤섞인 거주 형태가 백제에 주민 보호 등을 구실로 가야 지역에 진출할 실마리를 주게 되고, 여기에 백제 및 신라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 쟁탈전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국의 지방관인 '國司'의 훈은 구니노미코토모치라고 하여 옛날에는 '國宰'라고 표기되었다. 이 '宰'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敏達 6년(577) 5월 丁丑條 分註에, "王人奉命爲使三韓, 自称爲宰. 言宰於韓, 蓋古之典乎", ≪釋日本紀≫ 권11·述義7에 "令持天皇御言之人也. 故称美古止毛知"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정 범위의 관할 영역을 갖는 國宰 제도가 성립되는 것은 국내 통치의 경우에서도 7세기 후반의 天武朝 무렵이며 그 이전에는 때때로 임무를 갖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미코토모치의 형태를 가졌었다(주4). 따라서 押山의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백제에 파견된 왜국의 사신의 행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백제가 요구하는 남부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에 묵인할 것임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四縣割讓'이 약 30년 후의 사료04에서 다시 문제가 되어 가야 제국의 혼란의 발단이 되었다고 비난되는 것은,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5세기대에는 전라남도의 영산강 유역이나 가야 제국과도 관련을 갖고 이러한 작은 세력의 자립을 지지했던 왜국이 여기에 이르러 백제의 영토 확대를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방책으로 돌아선 점에 있다. 이는 백제의 가야 제국 침공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져, 왜국의 외교정책이나 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되는 결단으로 이어졌다【熊谷公男 2005】.

다음으로 백제의 기문·대사에 대한 침공과 그 경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서기≫ 繼體 23년(529) 3월조·是月條에 그려진 多沙津을 둘러싼 문제에 등장하는 '下哆唎國守' 穗積臣 押山이나 物部伊勢連父根은 513～515년의 기문·대사 문제(사료 05～07, ≪일본서기≫ 繼體 7년(513) 11월 是月條, 同 9년 2월 丁丑條·是月條, 같은 해 4월조, 同 10년

5월조)에서 활약하는 穗積臣 押山과 物部至至連은 동일하며 이들은 동일한 사건을 서술한 것이므로 繼體 23년 3월 是月條는 그 후의 전말까지 포함하여 일괄해서 그 해에 게재한 기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田中俊明 1992】, 기문·대사 문제 자체는 513~515년경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521년 백제가 중국 남조의 양에 견사한 것과 관련되는 ≪梁職貢図≫ 백제조에는 백제에 부용하고 있는 '旁小國' 안에 '上己文'이 쓰여 있다. '旁小國'에는 실제로는 부용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叛波＝伴跛國＝대가야 등의 가야제국의 나라명이나 斯羅＝신라도 보이고 있어, 이는 백제의 주장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겠지만, 522년에 가야(대가야)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있어서(≪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9년 3월조),이는 백제에 대항하는 활로를 찾은 방책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문과 대사에 관하여는 521년 무렵에는 백제의 세력 하에 있었던 추측된다. 또한 529년에는 '가라'＝대가야와 신라의 대립이 현재화되어 (≪일본서기≫ 繼體 23년 3월 是月條), 결혼 동맹이 해소된다는 흐름을 잡을 수 있다(주5).

3-05 ≪日本書紀≫ 繼體 7年(513) 6月條
百濟遣姐彌文貴將軍·洲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3-06 ≪日本書紀≫ 繼體 7年 11月 乙卯條
於朝庭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貴巴委佐, 伴跛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帶沙賜百濟國.

3-07 ≪日本書紀≫ 繼體 8年(514) 3月條
伴跛築城於子呑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絪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駈略子女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그런데 513년에 기문·대사 문제가 발생하자 11월에 왜국에서 관계국을 소집한 회의가 개최되었다(사료 06). 한반도 제국으로부터는 백제, 신라, 안라, 伴跛가 참가하고, 왜국은 물론 백제의 기문·대사 영유를 인정하려고 한다. 伴跛國＝대가야는 진귀한 보물을 왜국에 헌상하고 대가야 연맹에 의한 기문·대사의 유지를 요청했지만 왜국은 그것을 고려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일본서기≫ 繼體 7년11월 是月條). 그래서 514년이 되자 伴跛國은 무력에 의한 저항으로 나온다. 사료 07은 백제계 사료에 의거한 기사로 생각되어, '以備日本'이라는 것은 본건의 흐름으로 보아 백제의 침공에 대처한 것으로 정정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신라에 대한 대처가 기술되어 있는 것은 신라도 이 무렵부터 가야 제국에 대

한 공세를 가했음을 보여서 왜국에서의 회의에 신라가 참가한 것은 동방으로부터 가야 제국으로 침공하는 신라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함이며 또한 백제의 침공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도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 후의 전말로서는 왜국은 사신과 舟師 500명을 보내어 백제를 도왔지만, 반파국의 군사력도 막강하여 전선은 교착되었고, 결국은 백제가 왜국의 사신 억류구출을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출병하여 기문·대사 영유문제에 결말을 짓고, 대가야 연맹은 기문·대사를 잃게 된다.(≪일본서기≫ 繼體 9년(515) 2월 丁丑條·是月條, 동년 4월조, 동 10년 5월조, 동 23년 3월조·是月條).

왜국에서의 회의 출석국 중에 안라는 남부 가야 제국의 중심국 중 하나이므로 백제·신라의 침공이 진행되면 언젠가 그 존재가 초점이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이해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5세기 대에 왜국으로 도래한 유력한 도래계 씨족 東漢씨는 안라 출신으로 생각되어 안라는 왜국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나라다. 伴跛＝대가야에 관해서도 제2장 제2절 제4항에서 언급한 대로 5세기 후반 경부터 왜국의 조정에서 파견된 사람, 또는 왜국의 여러 호족이 가야 지역에서 활동했던 모습을 알아 챌 수 있음으로 인해 왜국과 갖가지 연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왜국에는 몇몇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며 반파도 왜국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어서 회의의 장으로서 왜국의 존재가 의미를 가졌던 것도 이상의 한반도 여러 나라와 왜국의 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왜국의 조정은 백제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원적 외교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한 결과가 된다. 그 이유로서 본 건에 대해 결말이 지어진 516년 9월 백제 사신이 오경박사 고안무를 파견하고 단양이와 교체시킨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일본서기≫ 繼體 10년 9월조). 오경박사 단양이의 着任은 513년으로(사료 05), 이것도 '任那四縣' 영유 승인에 대한 백제의 사의를 표시한 것이었다. 즉 왜국은 백제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승인하기도 하고 직접적 군사 원조를 하기도 한 대가로서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이나 인재 등의 문화적 이익을 얻고, 국제 지배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주6). 이러한 공여는 중국 남조와 정기적 통교가 없는 가야 제국에게는 무리이며 여기서 백제 지지의 기본적 정책을 취하는 왜국의 입장의 이유가 존재했다. 또한 제2장 제2절 제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는 왜국과의 통교에 왜계 백제관료를 기용하고 있어서 (≪일본서기≫ 繼體 10년(515) 9월 무인조가 처음),이것도 왜국의 백제에 대한 신뢰감 양성에 유효했다【李弘稙 1936, 金鉉球 1985a, 笠井倭人 1964】.

2. 금관국의 흥망과 왜국

그런데 513년의 왜국에서의 회의에는 남부 가야 제국의 또 한 나라인 유력국 金官國(大駕洛, 意富加羅, 南加羅)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522년의 대가야와 신라의 혼인 동맹 성립 이후에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1년(524) 9월조에는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라고 있어 신라왕과 대가야의 국왕이 회동하고 있다. 이 '南境拓地'는 동방의 대가야 연맹과의 제휴·관계 안정을 얻은 신라의 금관국에 대한 제1차 침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의 금관국은 동방으로부터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시도하는 신라의 표적이 되어 위험한 지역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同 19년(532)조에 "金官國主金仇亥與王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이라고 되어 있는 금관국의 멸망, 신라에 의한 병탄으로 귀결되는 커다란 획기가 되었다(≪삼국유사≫ 권2 '駕洛國記'도 참조).

그와 관련하여 옛 금관국의 왕족은 신라왕과 같은 金씨 성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경주에 거주하며 신라왕도의 전통적 거주·출생 구분에서 유래하는 六部, 梁部(喙部), 沙梁部(沙喙部), 漸梁部(牟梁部), 本彼部, 漢祇部(漢岐部), 習比部(習部) 중에서 왕을 배출하는 喙部와 함께 이중 왕권 체제하에서 부왕인 葛文왕을 배출하는 격식을 갖는 沙喙部에 편입되어 신라 귀족의 일원으로 영입된 사실이 알려져 있다(마운령 신라진흥왕순수비(568년), ≪삼국사기≫ 권41～43 김유신전). 喙己呑(喙國)이나 卓淳도 왕족이 우선 신라의 산하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여, 국론이 양분되었고 한 마음으로 신라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신라의 병탄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서기≫ 欽明 2년(541) 4월조, 동 5년(544) 3월조, 뒤에 싣는 사료 12·16). 신라는 옛 왕족을 대우함으로써 그 옛 지역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림과 함께 오히려 신라와 한 마음이 되어 신라를 위해 일하는 환경을 준비한다는 방책을 취하여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3-08 ≪日本書紀≫ 繼體 23年(529) 3月 是月條
遣近江毛野臣使于安羅, 勅勸新羅更建南加羅·喙己呑.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鹵等往赴安羅式聽詔勅. 新羅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 奚奈麻禮等往赴安羅, 式聽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在於堂下. 凡數月, 再三謨謀乎堂上. 將軍君等恨在庭焉.

3-09 ≪日本書紀≫ 繼體 23年 4月 是月

遣使送己能末多干岐幷詔在任那近江毛野臣,推問所奏和解相疑. 於是,毛野臣次于熊川<一本云,次于任那久斯牟羅>,召集新羅·百濟二國之王. 新羅王佐利遲遣久遲布禮<一本云,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百濟遣恩率彌騰利,赴集毛野臣所而二王不自來參. 毛野臣大怒責問二國使云,以小事大天之道也<一本云,大木端者以大木續之,小木端以小木續之>,何故二國之王不躬來集受天皇勅輕遣使乎. 今縱汝王自來聞勅,吾不肯勅,必追逐退. 久遲布禮·恩率彌騰利,心懷怖畏,各歸召王. 由是,新羅改遣其上臣伊叱夫禮智干岐<新羅以大臣爲上臣. 一本云,伊叱夫禮知奈末>,率衆三千來請聽勅. 毛野臣遙見兵仗圍繞,衆數千人,自熊川入任那己利城. 伊叱夫禮智干岐次于多多羅原,不敢歸,待三月,頻請聞勅,終不肯宣. 伊叱夫禮智所將士卒等,於聚落乞食,相過毛野臣傔人河內馬飼首御狩. 御狩入隱他門,待乞者過捲手遙擊乞者. 見云,謹待三月,佇聞勅旨,尙不肯宣,惱聽勅使. 乃知欺誑誅戮上臣矣. 乃以所見具述上臣. 上臣抄掠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是爲四村. 一本云,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 盡將人物入其本國. 或曰, 多多羅等四村之所掠者,毛野臣之過也.

3-10 ≪日本書紀≫ 繼體24年(530) 9月條

任那使奏云, 毛野臣遂於久斯牟羅起造舍宅, 淹留二歲<一本云, 三歲者, 連去來年數也>, 懶聽政焉. 爰以日本人與任那人, 頻以兒息諍訟難決, 元無能判. 毛野臣樂置誓湯曰, 實者不爛,虛者必爛. 是以投湯爛死者衆. 又殺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大日本人娶蕃女所生爲韓子也>, 恒惱人民終無和解. 於是, 天皇聞其行狀遣人徵入, 而不肯來. 願以河內母樹馬飼首御狩, 奉詣於京而奏曰, 臣未成勅旨還入京鄕, 勞往虛歸, 慚惡安措. 伏願, 陛下待成國命, 入朝謝罪. 奉使之後, 更自謨曰, 其調吉士亦是皇華之使. 若先吾取歸, 依實奏聞, 吾之罪過必應重矣. 乃遣調吉士, 率衆守伊斯枳牟羅城. 於是, 阿利斯等知其細碎爲事不務所期, 頻勸歸朝, 尙不聽還. 由是悉知行迹, 心生飜背. 乃遣久禮斯己母, 使于新羅請兵, 奴須久利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討背評<背評地名. 亦名能備己富里也>, 傷死者半. 百濟則捉奴須久利, 柮械枷鎖而共新羅圍城, 責罵阿利斯等曰, 可出毛野臣. 毛野臣嬰城自固, 勢不可擒. 於是, 二國圖度便地淹留弦晦, 築城而還, 號曰久禮牟羅城. 還時觸路拔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五城.

이와 같은 신라에 의한 제1차 금관국 침공의 소식을 접하고 527년 6월, 왜국은 近江毛野를 도해시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 近江毛野의 떠날 시기에 즈음하여 筑紫君磐井의 난이 일어나(≪일본서기≫ 繼體 21년(527) 6월 甲午條), 毛野는 도해의 연기를 할 수 없이 하게 되었다. 磐井은 신라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磐井의 난과 毛野의 파견이나 신라와의 관계는 ≪일본서기≫의 조작에 의한 것이어서 원래는 관계가 없던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坂本太郎 1961, 池內宏 1970, 三品彰英 2002, 熊谷公男 2008】. 그러나 繼體 21년조나 사료 08에는 신라가 南加羅(금관국)·喙己呑에게 침공한 것이 毛野 파견으로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신라에는 毛野의 도해를 방해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國造本紀≫ 伊吉嶋造條에는 "磐余玉穗朝, 伐石井從者新羅海辺人天津水凝後, 上毛布直造"라고 되어 있어서, 磐井과 신라의 관계를 시사하는 사료도 존재한다. 또한 6세기 중엽 무렵까지는 왜국의 반도에 대한 파병

은 '竹斯嶋上諸軍士', 즉 九州의 여러 호족의 병력에 의존하고 있어서【森公章 2008】, 그 부담에 대한 불만도 고려해야 하며, 역시 毛野의 도해는 磐井의 난 발발 중 하나의 호기였던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繼體 21년 조에서 毛野는 군사 6만명을 인솔했다고 하지만, 磐井의 난에는 대처하지 못하고(조정에서 파견된 物部麤鹿火가 진압), 도해 후에도 3000명의 신라 병사의 도래에 대항하지 못했던 것(사료 09) 등으로 생각해 볼 때, 대규모 병력의 도해는 의문이며【李永植 1989, 森公章 2006, 熊谷公男 2008】, 毛野는 외교 협상을 임무로 하는 왜국의 사신으로서 파견된 것으로 해석된다. 毛野의 파견처는 안라이며 신라에게 南加羅(금관국)·喙己呑의 재건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임무였다. 이 협상은 안라에서 이루어졌고 백제·신라는 사신을 파견했지만, 안라의 대응은 국왕과 국내의 대인이 高堂 위에 올라가 왜국의 사신하고만 협의를 거듭하는 식이어서(사료 21), 가야 제국에 대하여 침공을 꾀하는 백제·신라의 사신은 무시된 모양새가 되었다. 안라에게는 백제·신라 모두 침략자로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백제에 관해서는 왜국이 이 구상에 가담하는 것은(주7)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毛野는 웅천(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으로 숙소를 옮기고 신라·백제의 왕을 소집하여 사태의 해결을 도모하려 한다(사료 09). 그러나 신라·백제는 사태 해결의 전망이 없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인지 사신을 파견했을 뿐이어서 毛野는 다시 국왕의 소환을 요청했다. 신라는 이번에는 上臣 伊叱夫禮智干岐(異斯夫＝당시 신라의 군사적 지도자)가 군사 삼천을 이끌고 만나러 오자, 毛野는 그 군세에 두려움을 느껴 웅천으로부터 任那 己叱己利城(사료 08의 久斯牟羅)에 틀어박히고 만다. 신라는 多多羅原에 주둔하고 金官·背伐·安多·委陀(한 책에서는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의 4촌 즉 금관국의 주요 읍을 초략했다고 하니 결국은 금관국은 신라의 제2차 침공을 받고 게다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외교적 실책을 범한 近江毛野는 귀국을 못하게 되었고, 다음 해인 530년 9월이 되었는데도 久斯牟羅에 머물러 있었다(사료 10)(주8). 그래서 '阿利斯等'(안라왕)은 사신을 신라·백제에 보내어 병사를 청하고 이 두 나라의 힘을 빌려서 毛野를 배제하려고 계획했다. 毛野는 백제의 병사가 온다는 것을 듣고 '阿利斯等'을 동행하여 背評에서 농성했다. 백제는 안라가 파견한 사신을 잡아서 신라의 병사와 함께 성을 포위하고, '阿利斯等'을 질책하면서 毛野를 내어 놓으라고 말했다 한다. 결국 이것은 백제에 의한 안라에 대한 침공의 구실로 이용되고 말았으며, 백제는 久禮牟羅城을 구축하고 철수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사료 10에서 보이는 布那牟羅(≪일본서기≫ 繼體 23년 3월 是月條에서도 보인다)·阿夫羅·久知波多枳는 대가야 방면의 성으로써 이는 신라에도 대가야의 5성 공략의 전과가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田中俊明 1992】. 近江毛野 파견의 총괄로써는 '擾亂加羅'(≪일본서기≫ 繼體 24년 10월조)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안라를 사이에 두고 백제와 신라가 직접 대치하는 단계를 맞게 된다.

3. 안라를 둘러싼 백제·왜국의 방책

백제에서는 무령왕 다음으로 성명왕(聖王, 재위 523~554년)이 즉위하여, 538년에는 웅진에서 부여(사비)로 천도하고 부여시대로 들어갔다. 안라를 둘러싼 신라와의 대결이 초미의 문제가 되었을 때 성명왕은 안라·대가야 등의 가야 제국의 사람들을 백제로 소집시켜서 왜국과 함께 '임나 부흥'을 상담하는 방책을 꾀했다. 이 회의는 541년과 544년의 두 번에 걸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임나 부흥회의' Ⅰ·Ⅱ라 칭한다. 그곳에 참가자는 <표 2>와 같으며 가야 제국과 함께 '임나일본부'로부터의 출석자도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임나 부흥회의'의 내용이나 국제 정세의 추이를 검토함과 함께 '임나일본부'의 실태를 해명할 기본 정보 수집에도 유의하고 한다.

3-11 ≪日本書紀≫ 雄略 8年(464) 2月條

遣身狹村主青·檜隈民使博德, 使於吳國. 自天皇卽位至于是歲, 新羅國背誕, 苞苴不入, 於今八年. 而大懼中國之心, 脩好於高麗. 由是高麗王遣精兵士一百人, 守新羅. 有頃高麗軍士一人取假歸國. 時以新羅人爲典馬<典馬, 此云于麻柯毘>而顧謂之曰, 汝國爲吾國所破非久矣<一本云, 汝國果成吾土非久矣>. 其典馬聞之, 陽患其腹, 退而在後, 遂逃入國說其所語. 於是, 新羅王乃知高麗僞守, 遣使馳告國人曰, 人殺家內所養鷄之雄者. 國人知意, 盡殺國內所有高麗人. 惟有遣高麗一人, 乘間得脫, 逃入其國, 皆具爲說之. 高麗王卽發軍兵, 屯聚筑足流城<或本云,都久斯岐城>, 遂歌儛興樂. 於是, 新羅王夜聞高麗軍四面歌儛, 知賊盡入新羅地, 乃使人於任那王曰, 高麗王征伐我國. 當此之時, 若綴旒, 然國之危殆過於累卵, 命之脩短大所不計. 伏請救於日本府行軍元帥等. 由是任那王勸膳臣斑鳩<斑鳩,此云伊柯屢餓>·吉備臣小梨·難波吉士赤目子, 往救新羅. 膳臣等未至營止. 高麗諸將未與膳臣等相戰, 皆怖. 膳臣等乃自力勞軍, 令軍中促爲攻具急進攻之, 與高麗相守十餘日, 乃夜鑿險爲地道,悉過輜車設奇兵. 會明高麗謂, 膳臣等爲遁也, 悉軍來追. 乃縱奇兵, 步騎夾攻, 大破之. 二國之怨自此而生<言二國者, 高麗·新羅也>. 膳臣等謂新羅曰, 汝以至弱當强, 官軍不救, 必爲所乘, 將成人地殆於此役. 自今以後, 豈背天朝也.

3-12 ≪日本書紀≫ 欽明 2年(541) 4月條

安羅次旱岐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旱岐, 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夷他, 斯二岐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闕名字>, 往赴百濟俱聽詔書. 百濟

聖明王謂任那旱岐等言, 日本天皇所詔者, 全以復建任那. 今用何策起建任那. 盍各盡忠奉展聖懷. 任那旱岐等對曰, 前再三廻與新羅議而無答報所圖之旨, 更告新羅尙無所報, 今宜俱遣使往奏天皇. 夫建任那者, 爰在大王之意, 祇承敎旨, 誰敢間言. 然任那境接新羅, 恐致卓淳等禍<等謂喙己呑·加羅. 言卓淳等國有敗亡之禍>.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 而今被誑新羅使天皇忿怒而任那憤恨, 寡人之過也. 我深懲悔而遣下部中佐平麻鹵·城方甲背味奴等赴加羅會干任那日本府相盟. 以後繫念, 相續圖建任那, 旦夕無忘. 今天皇詔稱, 速建任那. 由是欲共爾曹謨計, 樹立任那國, 宜善圖之. 又於任那境, 徵召新羅, 問聽與不, 乃俱遣使奏聞天皇, 恭承示敎. 儻如使人未還之際, 新羅候隙侵逼任那,我當往救, 不足爲憂. 然善守備, 謹警無忘. 別汝所奬, 恐致卓淳等禍, 非新羅自强故所能爲也. 其喙己呑, 居加羅與新羅境際, 而被連年攻敗, 任那無能救援, 由是見亡. 其南加羅, 蕞爾狹小, 不能卒備, 不知所託, 由是見亡. 其卓淳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 因斯而觀三國之敗, 良有以也. 昔新羅請援於高麗, 而攻擊任那與百濟, 尙不剋之. 新羅安獨滅任那乎. 今寡人與汝戮力幷心, 翳賴天皇, 任那必起. 因贈物各有差. 忻忻而還.

3-13 ≪日本書紀≫ 欽明 2年 7月條

百濟聞安羅日本府與新羅通計, 遣前部奈率鼻利莫古·奈率宣文, 中部奈率木刕昧淳·紀臣奈率彌麻沙等<紀臣奈率者, 盖是紀臣娶韓婦所生, 因留百濟爲奈率者也. 未詳其父. 他皆效此也>, 使于安羅, 召到新羅任那執事謨建任那. 別以安羅日本府河內直通計新羅,深責罵之<百濟本記云, 加不至費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等, 未詳也>. 乃謂任那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 與故旱岐等, 始約和親, 式爲兄弟. 於是我以汝爲子弟, 汝以我爲父兄, 共事天皇, 俱距强敵, 安國全家至于今日. 言念先祖與舊旱岐, 和親之詞, 有如皎日. 自玆以降, 勤修隣好, 遂敦與國, 恩踰骨肉, 善始有終, 寡人之所恒願. 未審何緣輕用浮辭, 數歲之間, 慨然失志. 古人云, 追悔無及, 此之謂也. 上達雲際, 下及泉中, 誓神乎今, 改咎乎昔, 一無隱匿,發露所爲, 請誠通靈, 深自克責, 亦所宜取. 盖聞, 爲人後者, 貴能負荷先軌, 克昌堂構, 以成勳業也. 故今追崇先世和親之好, 敬順天皇詔勅之詞. 拔取新羅所折之國, 南加羅·喙己呑等, 還屬本貫, 遷實任那, 永作父兄, 恒朝日本, 此寡人之所食不甘味, 寢不安席, 悔往戒今之所勞想也. 夫新羅甘言希誑, 天下之所知也. 汝等妄信旣墮人權. 方今任那境接新羅, 宜常設備. 豈能弛柝. 爰恐陷羅誣欺網穽, 喪國亡家, 爲人繫虜. 寡人念玆, 勞想而不能自安矣. 竊聞, 任那與新羅運策席際, 現蜂蛇怪, 亦衆所知. 且夫妖祥所以戒行, 災異所以悟人, 當是明天告戒, 先靈之徵表者也. 禍至追悔, 減後思興, 孰云及矣. 今汝遵余, 聽天皇勅, 可立任那, 何患不成. 若欲長存本土, 永御舊民, 其謨在玆. 可不愼也. 聖明王更謂任那日本府曰 天皇詔稱, 任那若滅, 汝則無資, 任那若興, 汝則有援. 今宜興建任那, 使如舊日, 以爲汝助, 撫養黎民. 謹承詔勅悚懼塡胸, 誓効丹誠. 冀隆任那, 永事天皇, 猶如往日. 先慮未然, 然後康樂. 今日本府復能依詔, 救助任那, 是爲天皇所必褒讚, 汝身所當賞祿. 又日本卿等, 久住任那之國, 近接新羅之境. 新羅情狀, 亦是所知. 毒害任那, 謨防日本, 其來尙矣, 匪唯今年, 而不敢動者. 近羞百濟, 遠恐天皇, 誘事朝廷, 僞和任那. 如斯感激任那日本府者, 以未禽任那之間僞示伏從之狀. 願今候其間隙, 詰其不備, 一擧兵而取之. 天皇詔勅勸立南加羅·喙己呑非但數十年, 而新羅一不聽命, 亦卿所知. 且夫信敬天皇, 爲立任那, 豈若是乎. 恐卿等輒信甘言, 輕被譖語, 滅任那國, 奉辱天皇. 卿其戒之, 勿爲他欺.

3-14 ≪日本書紀≫ 欽明 4年(543) 11月 甲午條

遣津守連, 詔百濟曰, 在任那之下韓百濟郡令·城主, 宜附日本府. 幷持詔書, 宣曰, 爾屢抗表, 稱當建任那十餘年矣. 表奏如此, 尙未成之. 且夫任那者爲爾國之棟梁, 如折棟梁, 誰成屋宇. 朕念

在玆, 爾須早建. 汝若早建任那, 河內直等<河內直已見上文>自當止退, 豈足云乎. 是日, 聖明王聞宣勅已, 歷問三佐平內頭及諸臣曰, 詔勅如是, 當復何如. 三佐平等答曰, 在下韓之我郡令·城主, 不可出之. 建國之事宜早聽聖勅.

3-15 ≪日本書紀≫ 欽明 5年(544) 2月條

百濟遣施德馬武·施德高分屋·施德斯那奴次酒等, 使于任那, 謂日本府與任那旱岐等曰, 我遣紀臣奈率彌麻沙·奈率己連·物部連奈率用歌多, 朝謁天皇. 彌麻沙等還自日本, 以詔書宣曰, 汝等宜共在彼日本府早建良圖副朕所望, 爾其戒之, 勿被他誑. 又津守連從日本來<百濟本記云, 津守連己麻奴跪. 而語訛不正, 未詳>, 宣詔勅而問任那之政. 故將欲共日本府·任那執事, 議定任那之政, 奉奏天皇. 遣召三廻尙不來到, 由是不得共論圖計任那之政, 奉奏天皇矣. 今欲請留津守連, 別以疾使, 具申情狀遣奏天皇, 當以三月十日發遣使於日本. 此使便到, 天皇必須問汝. 汝日本府卿·任那旱岐等, 各宜發使共我使人, 往聽天皇所宣之詔. 別謂河內直<百濟本記云, 河內直移那斯·麻都. 而語訛未詳其正也>, 自昔迄今, 唯聞汝惡. 汝先祖等<百濟本記云,汝先那干陀甲背, 加臘直岐甲背. 亦云, 那哥陀甲背, 鷹哥岐彌. 語訛未詳>, 俱懷奸僞, 誘說爲哥可君<百濟本記云, 爲哥岐彌, 名有非岐>專信其言不憂國難, 乖背吾心縱肆暴虐. 由是見逐, 職汝之由. 汝等來住任那, 恒行不善. 任那日損, 職汝之由. 汝是雖微, 譬猶小火燒焚山野, 連延村邑. 由汝行惡, 當敗任那, 遂使海西諸國官家, 不得長奉天皇之闕. 今遣奏天皇, 乞移汝等, 還其本處. 汝亦往聞. 又謂日本府卿·任那旱岐等曰, 夫建任那之國, 不假天皇之威, 誰能建也. 故我思欲就天皇, 請將士, 而助任那之國. 將士之粮我當須運. 將士之數未限若干, 運粮之處亦難自決. 願居一處, 俱論可不, 擇從其善, 將奏天皇. 故頻遣召, 汝猶不來, 不得議也. 日本府答曰, 任那執事不赴召者, 是由吾不遣, 不得往之. 吾遣奏天皇, 還使宣曰, 朕當以印哥臣<語訛未詳>, 遣於新羅, 以津守連, 遣於百濟. 汝待聞勅際, 莫自勞徃新羅·百濟也. 宣勅如是. 會聞印哥臣使於新羅, 乃追遣問天皇所宣詔, 曰, 日本臣與任那執事, 應就新羅, 聽天皇勅, 而不宣就百濟聽命也. 後津守連遂來, 過此, 謂之曰, 今余被遣於百濟者, 將出在下韓之百濟郡令·城主. 唯聞此說, 不聞任那與日本府, 會於百濟, 聽天皇勅. 故不徃焉, 非任那意. 於是, 任那旱岐等曰, 由使來召, 便欲徃參, 日本府卿不肯發遣, 故不徃焉. 大王爲建任那, 觸情曉示, 覩玆忻喜難可具申.

3-16 ≪日本書紀≫ 欽明 5年 3月條

百濟遣奈率阿乇得文·許勢奈率哥麻·物部奈率哥非等, 上表曰, 奈率彌麻沙·奈率己連等至臣蕃, 奉詔書曰, 爾等宜共在彼日本府同謀善計, 早建任那. 爾其戒之, 勿被他誑. 又津守連等至臣蕃, 奉勅書, 問建任那. 恭承來勅, 不敢停時. 爲欲共謀, 乃遣使召日本府<百濟本記云, 遣召烏胡跛臣, 盖是的臣也>與任那, 俱對言, 新年旣至, 願過而徃. 久而不就, 復遣使召, 俱對言, 祭時旣至, 願過而往. 久而不就, 復遣使召, 而由遣微者, 不得同計. 夫任那之不赴召者, 非其意焉. 是阿賢移那斯·佐魯麻都<二人名也, 已見上文>奸佞之所作也. 夫任那者以安羅爲兄, 唯從其意, 安羅人者, 以日本府爲天, 唯從其意<百濟本記云, 以安羅爲父, 以日本府爲本也>. 今的臣·吉備臣·河內直等, 咸從移那斯·麻都指撝而已. 移那斯·麻都, 雖是小家微者, 專擅日本府之政, 又制任那, 障而勿遣. 由是不得同計奏答天皇, 故留己麻奴跪<蓋是津守連也>, 別遣疾使迅如飛鳥, 奉奏天皇. 假使二人<二人者, 移那斯與麻都也>在於安羅, 多行奸佞, 任那難建, 海西諸國, 必不獲事. 伏請移此二人, 還其本處, 勅喩日本府與任那, 而圖建任那. 故臣遣奈率彌麻沙·奈率己連等, 副己麻奴跪上表以聞. 於是詔曰, 的臣等<等者謂吉備弟君臣·河內直等也>往來新羅非朕心也. 曩者, 印支彌與阿鹵旱岐在時, 爲新羅所逼, 而不得耕種. 百濟路迥,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朕所會聞. 若已建任那, 移那斯·麻都, 自然却退. 豈足云乎. 伏承此詔,喜懼兼

懷. 而新羅誑朝, 知匪天勅. 新羅春取喙淳, 仍掠出我久禮山戍, 而遂有之. 近安羅處, 安羅耕種, 近久禮山處, 新羅耕種, 各自耕之不相侵奪. 而移那斯·麻都, 過耕他界, 六月逃去. 於印支彌後來許勢臣時<百濟本記云, 我留印支彌之後, 至旣酒臣時. 皆未詳>, 新羅無復侵逼他境, 安羅不言爲新羅逼不得耕種. 臣嘗聞, 新羅每春秋, 多聚兵甲, 欲襲安羅與荷山. 或聞, 當襲加羅. 頃得書信, 便遣將士, 擁守任那, 無懈怠也. 頻發銳兵, 應時往救. 是以任那隨序耕種, 新羅不敢侵逼. 而奏百濟路迥,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是上欺天朝, 轉成奸佞也. 曉然若是, 尙欺天朝. 自餘虛妄, 必多有之. 的臣等猶住安羅, 任那之國恐難建立. 宜早退却. 臣深懼之. 佐魯麻都雖是韓腹, 位居大連, 厠日本執事之間, 入榮班貴盛之例, 而今反著新羅奈麻禮冠, 卽身心歸附, 於他易照. 熟觀所作, 都無怖畏. 故前奏惡行, 具錄聞訖. 今猶著他服, 日赴新羅域, 公私往還, 都無所憚. 夫喙國之滅, 匪由他也. 喙國之函跛旱岐, 貳心加羅國, 而內應新羅. 加羅自外合戰, 由是滅焉. 若使函跛旱岐不爲內應, 喙國雖小, 未必亡也. 至於卓淳, 亦復然之. 假使卓淳國主不爲內應新羅招寇, 豈至滅乎. 歷觀諸國敗亡之禍, 皆由內應貳心人者. 今麻都等腹心新羅, 遂着其服, 往還旦夕, 陰搆奸心. 乃恐, 任那由茲永滅. 任那若滅, 臣國孤危, 思欲朝之, 豈復得耶. 伏願天皇玄鑒遠察, 速移本處, 以安任那.

3-17 ≪日本書紀≫ 欽明 5年 11月條

百濟遣使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 遣朝天皇, 奈率得文·許勢奈率哥麻·物部奈率哥非等還自日本. 今日本府臣及任那國執事, 宜來聽勅同議任那.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旱岐, 久嵯旱岐, 仍赴百濟. 於是, 百濟王聖明略以詔書示曰, 吾遣奈率彌麻佐·奈率己連·奈率用哥多等, 朝於日本. 詔曰, 早建任那. 又津守連奉勅問成任那, 故遣召之. 當復何如能建任那,請各陳謀. 吉備臣·任那旱岐等曰, 夫建任那國, 唯在大王. 欲冀遵王, 俱奏聽勅. 聖明王謂之曰, 任那之國, 與吾百濟, 自古以來約爲子弟. 今日本府印岐彌<謂在任那日本臣名也>, 旣討新羅, 更將伐我. 又樂聽新羅虛誕謾語也. 夫遣印支彌於任那者, 本非侵害其國. 往古來今新羅无道, 食言違信, 而滅卓淳股肱之國, 欲快返悔. 故遣召到俱承恩詔. 欲冀興繼任那之國, 猶如舊日永爲兄弟. 竊聞, 新羅·安羅兩國之境有大江水, 要害之地也. 吾欲據此脩繕六城, 謹請天皇三千兵士, 每城充以五百, 幷我兵士勿使作田, 而逼惱者, 久禮山之五城, 庶自投兵降首, 卓淳之國, 亦復當興. 所請兵士吾給衣粮. 欲奏天皇, 其策一也. 猶於南韓置郡令·城主者, 豈欲違背天皇遮斷貢調之路, 唯庶剋濟多難殲撲强敵. 凡厥凶黨,誰不謀附. 北敵强大, 我國微弱. 若不置南韓郡領·城主修理防護, 不可以禦此强敵, 亦不可以制新羅. 故猶置之攻逼新羅撫存任那. 若不爾者, 恐見滅亡不得朝聘. 欲奏天皇, 其策二也. 又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 猶在任那國者, 天皇雖詔建成任那, 不可得也. 請移此四人, 各遣還其本邑. 奏於天皇, 其策三也. 宜與日本臣·任那旱岐等, 俱奉遣使, 同奏天皇, 乞聽恩詔. 於是, 吉備臣·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歸以敬諮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安羅王·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歟.

3-18 ≪日本書紀≫ 欽明 13年(552) 5月 乙亥條

百濟·加羅·安羅, 遣中部德率木刕今敦·河內部阿斯比多等, 奏曰, 高麗與新羅, 通和幷勢, 謀滅臣國與任那. 故謹求請救兵, 先攻不意. 軍之多少隨天皇勅. 詔曰, 今百濟王·安羅王·加羅王與日本府臣等, 俱遣使奏狀聞訖. 亦宜共任那, 幷心一力. 猶尙若茲, 必蒙上天擁護之福, 亦賴可畏天皇之靈也.

3-19 ≪日本書紀≫ 欽明 14年(553) 8月 丁酉條

百濟遣上部奈率科野新羅·下部固德汶休帶山等上表曰, 去年臣等同議, 遣內臣·德率次酒·任那

大夫等, 奏海表諸彌移居之事, 伏待恩詔如春草之仰甘雨也. 今年忽聞, 新羅與狛國通謀云, 百濟與任那頻詣日本, 意謂是乞軍兵伐我國歟. 事若實者, 國之敗亡可企踵而待. 庶先日本兵未發之間, 伐取安羅絶日本路, 其謀若是. 臣等聞玆深懷危懼, 卽遣疾使輕舟, 馳表以聞. 伏願, 天慈速遣前軍·後軍, 相續來救, 逮于秋節以固海表彌移居也. 若遲晩者噬臍無及矣. 所遣軍衆來到臣國, 衣糧之費, 臣當充給. 來到任那亦復如是. 若不堪給, 臣必助充令無乏少. 別的臣敬受天勅, 來撫臣蕃, 夙夜乾乾勤修庶務. 由是海表諸蕃皆稱其善, 謂當萬歲肅清海表. 不幸云亡, 深用追痛. 今任那之事誰可修治. 伏願天慈速遣其代, 以鎭任那. 又復海表諸國, 甚乏弓馬. 自古迄今, 受之天皇, 以禦强敵. 伏願天慈多賜弓馬.

'임나 부흥회의' Ⅰ은 갑자기 소집되었다는 느낌이 강한데, 그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백제 성명왕이 영도하고 있어서, ≪일본서기≫의 의거 사료도 <백제본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백제에 의한 안라 확보 방책을 시사하는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Ⅰ·Ⅱ의 참가자는 대개 같은 얼굴들이며(<표 2>), 가야 제국에서는 旱岐=왕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출석한 것은 近江毛野가 백제·신라의 왕을 소집했을 때에 신분이 낮은 사신 밖에 오지 않았던 것과 견주어 보면 각국이 이 회의에 나름대로 기대를 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541년 4월의 Ⅰ은 안라에 머물면서 신라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백제는 사신을 가야에 파견하여 '임나일본부'와도 만나서 서로 사이를 약속했다고 되어 있어서(사료 12), 회의 참가자에 대한 사전 교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가야 제국은 신라와도 협상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고 유효한 대처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 회의에 참가했던 것 같다. 백제는 근초고왕(재위 346~375년)·근구수왕(재위 375~384년)대 이후의 가야 제국과의 역사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금관국 등이 지배자 층의 신라에 대한 내통으로 멸망했다는 것에 비추어 생각할 때 ① 백제와 가야 제국의 제휴 유지를 도모함, ② 신라의 침공에 대해서는 백제가 원군을 파견하여 싸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Ⅰ의 종료 후 7월에는 '안라일본부'가 신라와 내통했다는 정보가 들어 왔다(사료 13). 이는 안라에 잠재하는 반백제적 동향에 근거하는 것으로써, '안라일본부'의 河內直·移那斯·麻都 등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제2장 제2절 제4항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의 선조는 백제와도 왜와도 통교하는 가야계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서, 국제 정세를 지켜보면서 복잡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Ⅰ-②의 제안은 백제에 의한 안라에 대한 군사 주둔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아마도 백제는 541년 7월 시점에서 '任那之下韓'으로 진출하여, 郡令·城主를 설치한다는 강경 수단으로 나온 것이다.

백제는 542,3년의 두 해 연속하여 왜국에 견사하고 있어서(≪일본서기≫ 欽明 2년(3

년＝542?>) 7월조, 同 4년 9월조), '下韓任那之政', 즉 그 동안의 사정 설명에 힘쓴 것으로 생각된다. 欽明 4년조의 '扶南財物'(扶南은 인도차이나 남부 메콩강 하류지방에 있었던 크메르족의 나라)은 백제가 541년에 중국 남조의 양에 입공했을 때에 얻은 물품을 分賜한 것이어서, 선진 문물 공여에 의한 왜국의 지원 획득을 기도한 행위였다. 그러나 왜국의 조정은 백제의 안라 주둔에는 난색을 표한 것 같고(사료 14), '일본부'나 안라가 신라와 내통한 것도 이 백제의 주둔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국은 신라와 공모한 河內直 등에 관해서는 백제가 가야 지역의 안정을 확립하면 해결되는 것이기에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할 뿐이었다. 백제는 郡令·城主의 퇴각은 불가하다고 하며 가야 지역의 안정에 힘쓴다는 점에 한해서만 왜국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에 응하여 544년 11월에 Ⅱ가 개최된다. 이 단계에서는 백제와 안라의 관계가 지난번만큼 원활하지는 않았으므로 '임나집사'·'任那旱岐等'이나 '일본부집사'·'일본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집합을 연기했으므로(≪일본서기≫ 欽明 4년 12월조·是月條, 同 5년 정월조·是月條, 사료 15·16), 개최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왜국이 백제의 군사진출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사료 15). 그래서 백제로서는 '일본부'나 안라에 있는 친신라, 반백제의 기운을 전환하는 일이 급무였기 때문에, Ⅱ에서는 ① 531년 이래로 신라가 수비하는 구례산의 5성을 탈취하고 탁순국을 부흥시킨다, ② 백제가 下韓(남한)에 설치한 郡令·城主는 '임나'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백제의 군사적 진출은 유지된다), ③ '일본부'의 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 등을 퇴각시킨다는 세 가지 방책을 제시하고, 가야 제국과 함께 왜국에 견사하여 공동 제안이라는 형태로 왜국의 지지를 얻는다는 방책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③의 대상인 吉備臣도 열석하고 있었고, 게다가 참석자는 전권 위임을 받지 못했으므로, 각각 귀국하여 '日本府之大臣', 안라왕, 가라(대가야)왕 등에게 자문하고자 한다며 백제의 방책에 대한 회답은 보류되고 있다. 백제는 결국 단독으로 왜국에 견사하고 있어서(≪일본서기≫ 欽明 6년(545) 5월조) 가야 제국과의 제휴는 실현되지 못했다. 백제는 또한 '吳財'＝대중국 외교에서 얻은 물품을 사용하여 가야 제국을 자국의 진에 붙잡아 두려고 한다(欽明 6년 9월조).

왜국은 백제사의 귀국에 즈음하여 상당량의 군사물자를 주고 있지만(≪일본서기≫ 欽明 7년(546) 정월 병오조), 이는 ①에서 요청된 3000명의 병사 파견에 대한 협력 거부의 대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왜국은 ②에는 불찬성이고, ③에 관해서도 '임나 부흥'이 달성된다면 그들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으로 전

혀 실행력이 없었다. 왜국에 있어서는 안라의 독립 유지, 백제와 신라의 세력 균형에 의한 가야 제국의 현상 유지가 바람직했던 것이며, 여기에 이르러 가야 제국을 둘러싼 왜국과 백제의 방책에는 어긋남이 생기게 된다.

4. '임나'의 용법과 '임나일본부'('재안라제왜신등')의 실태

전항의 '임나 부흥회의'에서 일련의 백제 성명왕의 발언과 관련하여 '일본부'의 구성이나 특색을 살펴보았고, 여기에서는 '임나'라는 말의 뜻(어의)이나 '임나일본부'에 관한 지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서기≫에 있어서 최초의 외교기사는 崇神 65년(기원전 33?)년 7월조, 垂仁 2년(기원전 28?)是歲條의 임나인 蘇那曷叱知＝意富加羅王之子都怒我阿羅斯等(별명을 于斯岐阿利叱智干岐라고 하여, '蘇'는 '于斯'(牛)의 조선어 sio를, '那曷'는 '岐(來)'와 동의어인 '나가다' '가다'의 조선어의 어근 na-ka를 베껴 쓴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蘇那曷＝于斯岐이고, 阿利叱智·叱知, 干岐는 모두 군주를 나타내는 말)의 來航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임나'＝意富加羅는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의 대가락, 즉 금관국 바로 그것이다. 제2장 제1절 제2항에서 보았듯이 '임나'가 금관국을 지칭하는 사례는 조선·중국의 사료에도 있으며, ① '임나'＝금관국이 '임나'의 語義의 기본이다(주9).

단 ≪일본서기≫의 '임나'에는 ② 가야 제국을 막연히 '임나'로 칭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본 절 제1～3항에서 언급한 대로, ③ '임나'＝대가야나 ④ '임나'＝안라 등 금관국 이외의 가야 제국 가운데 유력한 나라를 지칭하는 경우도 보인다. '임나'의 용법은 각각이어서 '임나'가 각각의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하나하나 사료를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라'는 대체로 북부 가야 제국의 대가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라' '한'이 가야 제국을 막연히 지칭하는 용례도 있으며 또한 '임나 부흥회의'의 장면에서 보이는 '남가라'는 남부 가야 제국의 유력한 나라 중 하나로써 또 하나의 '대가락'에 해당하는 금관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임나일본부'의 실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임나일본부'에 관한 학설을 정리한다【李永植 1993, 鈴木英夫 1987, 鄭孝雲 2005, 中野高行 2007】.

A. 왜 왕권의 출장기관설…왜국이 반도 남부를 영유하여 그 경영을 위해 설치한 기

관으로서 행정·외교 기능을 갖는 군사 기지로 이해한다【末松保和 1949, 井上秀雄 1973a, 八木充 1963】.

B. 분국론 … 왜 왕권이 지배했다고 ≪일본서기≫에 기록되는 백제·신라나 '임나' 등은 한반도 제국으로부터 일본열도로 이주한 집단이 건국한 '분국'이며, '임나일본부'는 그러한 일본열도 내의 여러 '분국'을 통치하는 기관으로 보는 입장【金錫亨 1969】.

C. 가야 지역 거주 왜인설 … 안라에 잔존했던 왜인 집단에 의한 조직으로 왜 왕권의 출장기관도 한반도 경영의 거점도 아니라는 입장【井上秀雄 1972·1973b, 鈴木靖民 1974, 鬼頭清明 1976·1992, 山尾幸久 1977, 森俊道 1983, 佐伯有清 1983, 延敏洙 1990, 森公章 2006, 中野高行 2007】.

D. 가야 제국에 의한 설치설… 신라왜전＝대왜 외교기관을 참고로 하여 가야 제국이 대왜 외교를 위해 설치했다고 본다【奥田尚 1976】.

E. 백제의 출장기관설

a. 군사령부설…A의 주체를 왜로부터 백제로 치환하여 사료를 다시 본 다음에 행정·외교 기능을 가진 군사 기지로 이해한다【金延鶴 1977, 千寬宇 1974·1983, 金鉉球 1985b】.

b. (D－b)무역중개소설…원래는 백제가 설치한 '왜국사절 주재관'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백제는 이것으로 인해 대왜 무역의 루트를 확보했었다고 본다. 단 540년 이후는 안라가 이것을 장악하고 안라왕의 지휘 하에 대왜 외교·교역기관으로 재편되어 안라의 세력 과시와 백제의 압력 완화에 역할을 했다고 본다【金泰植 1993】.

F. 사신·외교 교섭 단체설…왜국으로부터 '임나'로 파견된 사신, 또는 왜국의 사절과 가야 제국의 旱岐와의 사이에 구성된 외교 교섭 단체로 보는 견해로서 왜 왕권의 파견기관, 또는 왜 왕권과 군신관계를 맺는 신료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지만 군대나 영토는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請田正幸 1974·1987, 吉田晶 1975, 山尾幸久 1980, 大山誠一 1980, 鈴木靖民 1983, 平野邦雄 1985, 鈴木英夫 1987·1996·2006, 李永植 1989, 角林文雄 1996, 李鎔賢2002, 鄭孝雲 2005, 熊谷公男 2008】.

G. 신·분국론 … 한반도 사람들이 왜국으로 도래하여 그 후예인 九州의 왜가 본국인 가야 지역 전역에서 수시로 교역을 한 임시교역소이며 그 중심은 안라라고 하는 설【尹錫曉 1993】.

이들 중에 A설은 ≪일본서기≫에 기록된 神功皇后 '三韓 征討' 후에 神功 49년 3월조에서 보이는 荒田別·鹿我別에 의한 가야 지역 7국 등의 평정과 백제를 위한 군사행동 시에 宰를 두고 여러 한국을 통제한 것이 '일본부'였던 것으로 한다. ≪大日本史≫나 新井白石의 '白石史論'(현존하지 않는다)의 설을 답습한 것으로서 1970년경까지는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장 제2절 제4항에서 언급했듯이 神功 49년조에 등장하는 지역을 백제가 영유·침공한 것은 5세기 말~6세기 전반의 시기로 생각되어, 오히려 해당기의 가야 제국을 둘러싼 백제의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다(주10). 따라서 이것을 '임나일본부'의 기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1970년대 이후에 ≪일본서기≫의 사료적 성격의 재검토, 관계 기사의 정합적 해석의 구축이 진행되어 현재는 A설은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G의 분국론에 대해서도 ≪일본서기≫의 해석에 무리가 있어서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주11).

그러면 C~F설에 관해서는 어떨까? 아래에 관계 기사로부터 엿볼 수 있는 '임나일본부'의 특색을 정리하는 형태로 여러 설의 옳고 그름이나 '임나일본부'의 실상을 밝혀 보고자 한다.

(가) '일본부'는 백제·신라의 가야 지역에 대한 침공이 진행되는 6세기대에 등장한다. 그 이전에 유일하게 '일본부'가 등장하는 것은 사료 11이며, 이것을 '일본부'의 기원으로 하는 의견도 있지만【大山誠一 1980】, 사료 11에는 '日本府行軍元帥等'으로 기록되어 왜국의 중앙호족인 膳臣斑鳩, 지방호족인 吉備臣小梨, 외교의 실무를 관장하는 吉士집단 難波吉士赤目이라는 구성은, 오히려 후술하는 6세기의 '일본부' 구성원을 반영한 것이 아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사료 11에서는 '일본부'가 독자적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고 묘사되고 있지만 6세기의 '일본부'에는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일본부'에 군사력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보류해 두어야 한다.

(나) 사료 13에는 '안라일본부'라는 표현도 보이지만, 이는 동일한 사료 중의 '임나일본부'와 같은 뜻이며 소재지는 안라였다고 생각된다.

(다) '在安羅諸倭臣等'(사료 0-01)이 그 정식 명칭이다. ≪일본서기≫의 '일본부'의 '府'자의 古訓은 欽明紀에만 미코토모치(宰, 司)로 되어 있지만, 이는 왜국 조정과의 관계를 오해한 훈으로서 그 외의 개소에 있는 '府'자의 古訓 쓰카사(官, 司)가 본래의 훈으로 생각된다. 단, 사료 38의 '今日本府印支彌'를 分註에서 '在任那日本府臣名也'로 설명하는 사례에서 보아 '일본부'는 조직·개인 모두에게 사용되고 있어서 충분히 의식된 용어는 아니며 '臣' '府' '府臣'은 상통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鈴木英夫 2006】.

(라) 구성원에는 日本府大臣－日本府臣의 서열이 있으며('日本府卿' '日本府執事'는 이러한 것들의 총칭?), 전자에는 的臣 등의 왜의 중앙호족의 성을 가진 자가 취임하며 후자에는 吉備臣 등의 지방호족이 있어서 그 밑에 河內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 등 가야계의 사람들(왜인과의 혼혈아를 포함한다)이 실무관으로써 실권을 장악한다는 실태였다(사료 12·13·14·15·16·17).

(마) 544년 당시의 '日本府大臣'은 的臣(烏胡跛臣)이지만, 사료 16·17에 의하면 전임자로써 印支彌, 許勢臣(旣酒臣) 등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료 16에서는 왜국 측의 발언으로써 이전에 印支彌와 阿鹵旱岐(안라왕의 이름, 또는 阿鹵=안라로서, '안라왕'이라는 의미인지)의 시대에, 신라가 안라를 침공하여 파종을 못하게 되고 백제도 구원을 보낼 수 없었다고 쓰여 있으며, 백제 측의 설명에서는 이것을 久禮山 주변의 파종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531년의 신라에 의한 卓淳 제압과 백제의 구례산 수비 퇴거=신라에 의한 구례산 확보와 관련되는 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 17에서는 印支彌는 당초 신라와 대결 자세였지만, 후에는 반백제로 돌아섰다고 하여 사료 16에 의하면 다음의 許勢臣 때에는 신라의 침공이 소강상태였던 것과 백제가 때에 따라 원병을 파견했기 때문에 구례산 주변의 파종이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許勢臣의 취임 시기, 的臣으로의 교체 과정은 명확치 않지만, 현임 적신 등이 친신라의 방책을 취한 이유 중 하나에는 이 구례산 주변의 파종, 완충지대의 유지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 印支彌에 대해서 사료 16 所引 <백제본기>에는 "我留印支彌之後, 至旣酒臣時", 사료 17의 백제 성명왕의 말에 "夫遣印支彌於任那者, 本非侵害其國"이라고 되어 있으며, 印支彌는 백제가 파견한 것으로 【奧田尙 1976】, 그 거취도 백제왕의 의향에 달린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E-a설에서는 그들을 왜계 백제관료로 하고, 백제가 보낸 것으로 '일본부'를 백제의 출장기관으로 보는 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주12). 한편 F설에서는 印支彌를 백제 재주 왜계의 인물로 보지만, '일본부'에 취임한 후에는 '왜신'으로써 왜왕의 신료가 되었다고 해석하고 그 활동에 불만을 품은 백제는 그를 실력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료 16·17에 의하는 한 許勢臣·的臣의 내력은 확언할 수 없지만(사료 19에서는 적신은 "敬受天勅, 來撫臣蕃"(이 경우의 '臣蕃'은 성명왕으로부터 본 '임나'에 관한 것인지)라고 되어 있다), 印支彌가 백제로부터 온 점은 인정해야 한다. 단, 印支彌는 반드시 백제의 의도대로는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부'가 백제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사료 15·16·17에 의하면, 백제는 河內直 등의 퇴거를 왜국에

요청하고 사료 19에서는 的臣의 죽음을 보고함과 함께 "伏願天慈速遣其代, 以鎭任那"라고 말하고 있어, 백제의 인식으로서는 '일본부' 관인의 진퇴는 왜국 측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 13·15에는 백제가 안라에 파견한 사신 중에 왜계 백제 관료인 紀臣奈率彌麻沙, 施德斯那奴次酒가 보이고 있어서 '일본부'의 吉備臣·河內直 등에 대한 백제의 인식, 즉 그들을 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적도 존재한다【李永植 1989】. 사료 13에는 또한 "日本卿等, 久住任那之國, 近接新羅之境"이라고도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印支彌는 아무리 백제에서 도래했다고 해도 백제와는 별개의 '일본부' 중 一員으로 '재안라제왜신등'으로써 행동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사) '일본부'의 활동 내용·역할로써는 백제·신라, 고구려 등 한반도 제국이나 왜국과의 협상을 하고 '任那執事·國國旱岐等'(사료 14), '任那執事'·'任那旱岐等'(사료 15·17), '任那諸國旱岐等'(사료 0-01)과 동석하여 협의하고 행동을 함께 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사료 15에서는 '일본부'의 의향이 '任那旱岐等'의 행동을 규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며, 사료 16에도 "夫任那者以安羅爲兄, 唯從其意, 安羅人者, 以日本府爲天, 唯從其意<百濟本記云, 以安羅爲父, 以日本府爲本也>"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백제에 대한 소집을 지연시키는 구실이나 백제의 '일본부' 배제 요구를 지지하는 과대평가에서 유래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서【中野高行 2007】, 가야 제국 특히 안라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은 조금 깎아서 볼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일본부'와 안라와의 관계에서 보아 D설, E-b설과 같이 안라에 의한 설치를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야 한다.

(아) 사료 18에는 '日本府臣'이 백제·가야 제국과 함께 왜국에 견사한 사실이 보이지만, '일본부'가 단독으로 왜국에 견사한 사례는 없다. 또한 사료 15에 의하면 왜국의 방책에 대해서는 '일본부'는 왜국이 신라 또는 백제에 파견한 사신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으며, 왜국이 '일본부'에 견사하는 일은 없었다. 원표기로 생각되는 '在安羅諸倭臣等'에도 '왜신' 즉 왜 왕권의 신하, 왜 왕권과의 직접적 연관을 시사하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백제가 '일본부' 관인의 배제를 재삼 왜국에 요청했을 때, 왜국은 확실히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사료 14·16), (사)에서 언급한 백제 측의 '일본부' 관인과 왜국의 관계 서술은 어디까지나 백제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실제로 '일본부'는 왜국의 지시를 받는 등 직접적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F설도 지지하기 어렵다.

이상이 '일본부'에 관한 견해들인데, 결론으로써는 '일본부'('在安羅諸倭臣等')란 5세기대의 왜와 반도의 관계나 지방호족의 독자적 통교 등으로 인해 가야 지역, 특히 예부

터 왜와 연관이 깊었던 안라(유력한 도래계 씨족 東漢直씨는 안라 출신으로 여겨진다)에 거주했던 왜인의 一団이며, 가야 제국과 공통의 이해를 갖고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그들과 접하며 주로 외교 협상에 협동하여 종사했었다고 종합할 수 있어서 C설이 정합적으로 생각된다. 안라에 있어서의 구체적 존재 형태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던 식의 출장기관적 기구로서의 성립을 형성했던 것은 아니며 평상시에 그 존재 의의는 크지 않았다고 풀이된다.

그들의 존재가 클로즈업된 것은 백제와 신라가 안라를 사이에 두고 직접 대치했던 단계 이후이며, 왜국은 백제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지지했었지만, 가야 제국의 멸망, 백제·신라의 더 이상의 침공은 바라지 않았고 안라 등이 완충지역으로써 존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재안라제왜신등'은 본국인 왜국의 조정, 또는 각각의 출신 호족과도 몇몇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립·활동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 유지를 희망하는 안라 등 잔존하는 가야 제국과 공동으로 백제와 신라, 왜국 그리고 고구려와도 외교 협상을 하여 그 때 그 때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활동은 안라 점령을 기도하는 백제에는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서 비쳤기 때문에 백제계 사료에 의거한 ≪일본서기≫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중요시되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일본서기≫ 欽明紀에서는 이 '在安羅諸倭臣等'의 소멸, 가야 제국이 멸망을 향하는 단계 이후에 왜국의 국내 지배 체제 정비와 관련된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吉備 지역에 屯倉이라는 왜 왕권의 지배 거점을 설치한(欽明 16년(555) 7월 임오조, 동 17년 7월 기묘조) 것은 반도에 있어서의 吉備臣의 활약으로 독자적 통교 루트를 갖고 있었던 吉備씨가 그 파이프라인을 잃고 세력이 저하된 틈을 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관계가 국내 정치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방 호족의 독자적 외교권을 탈취하여 조정이 외교권을 일원화하는 방향도 간파할 수 있으며(欽明 31년(570) 4월 을유조·5월조), 왜 왕권의 외교·군사 면에서의 국내 통제는 오히려 이 이후에 정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주13).

5. 백제 성명왕의 패사와 가야 제국의 행방

안라를 둘러싼 방책에 있어서 약간 간격이 생긴 왜국과 백제였지만, 백제에는 다른 위협이 다가와 왜국도 백제 지원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북방으로부터의

고구려 남하였다.

548년 정월, 고구려는 예병 6천으로 백제의 독산성(충청북도 충주시說,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說, 서울시 북방의 북악說 등이 있다)을 공격했다. 이 때 백제는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고 원병 3천을 얻어 고구려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한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9년 2월조, <고구려본기> 양원왕 4년 정월조, <백제본기> 성왕 26년 정월조). 이 전쟁에 대하여 4월에 도래한 백제 사신은 고구려인 포로의 증언에 의거하여 '馬津城之役'은 안라와 '일본부'가 고구려를 불러들인 것이므로 '일본부'의 移那斯·麻都 등이 고구려의 무력을 이용하여 백제를 안라로부터 퇴각시키려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서기≫ 欽明 9년(548) 4월 갑자조). 이때에 왜국은 '안라 도망 空地'에 대한 원병 파견을 약속하고 있어서 아마도 안라와 '일본부'의 반백제 세력은 와해되고 백제의 안라 장악이 결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왜국도 백제의 안라 주류를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국은 또한 370명을 파견하여 백제의 得爾辛(德斤支=충청남도 논산군 은진 땅이라고도 하지만 미상)의 축성을 지원하고 있다(≪일본서기≫ 欽明 9년 10월조).

550년 정월에 백제는 고구려의 道薩城(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을 함락시키고 드디어 한산성의 옛 땅을 탈환했다. 그러나 3월에는 고구려가 金峴城(충청북도 진천군 진천면)을 포위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라가 그 틈을 타서 道薩城과 金峴城을 탈취했다고 하며(이상은 ≪삼국사기≫에 의함), 여기서 신라가 반도 서해안에 진출함과 함께 북방에 있어서도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주 14). 신라는 553년 7월에 이 땅에 新州를 설치하고 영토 확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백제·'가라'(대가야)·안라는 왜국에 견사하여 출병 요청을 했으며(사료 18), 바야흐로 백제와 운명공동체가 된 가야 제국에게도 절박한 사태가 되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주 15). 백제는 553년에도 왜국에 견사하여 고구려와 신라가 제휴하여 백제·안라를 공경한다는 풍문을 전하고 원병 파견을 요청하고 있어서(사료 19), 이는 백제와 '재안라제왜신등'·'임나 제국 旱岐等'의 공통 의지라고 하며(사료 0-01), 이 단계에서 점점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결속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554년 5월에 도해한 왜국의 군병(≪일본서기≫ 欽明 15년 5월 戊子條)이 6월에 도착하자, 백제는 곧 신라에 공격을 가하여 왜계 백제관료인 東方領 物部莫奇武連이 이끄는 군사가 函山城(관산성,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을 공격하고, 왜국의 有至臣이 인솔한 竹斯物部莫奇委沙奇의 화전이 위력을 발휘하여 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고구려의 개입을 두려워 한 백제는 스스로 군사 1만 명을 증강함과 함께 왜국의 '竹斯嶋上諸軍士'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왜국의 파견군이 筑紫의 호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요청한 왜국 군대의 도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해에 대 고구려전에서 승리하여(≪일본서기≫ 欽明 14년 10월 己酉條) 자신감을 가진 백제 왕자 余昌(威德王)은 현재 보유한 세력으로 가일층 신라 공격을 거행했다. 부친 성명왕이 여창을 위로하기 위해 전선으로 향했던 바, 신라는 이를 격파하여 성명왕은 패배, 사망하고 만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5년 7월조, <백제본기> 성명왕 32년 7월조). 余昌도 신라군에게 포위되었지만 '能射人' 筑紫國造가 신라의 기병을 쏘아 떨어뜨렸으므로 余昌 일행은 겨우 포위망을 벗어나 귀국할 수 있었다(사료 0-01). 결과적으로 백제는 국왕의 패배, 사망이라는 대패배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상이 안라를 둘러싼 백제와 왜국의 방책과 그 결말이다. 대승리를 거둔 신라는 백제라는 후원자를 잃은 가야 제국의 제압에 매진하여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지만, 562년에 가야 제국 병탄을 완성하는 것이었다(≪일본서기≫ 欽明 23년 정월조,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23년조)(주 16).

또한 이 성명왕의 패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전쟁에 대한 출병을 둘러싼 왜국과 백제의 협상 가운데에서 백제는 왜국에 불교전래를 비롯한 선진문물의 공여를 하고 왜국은 그 대가로서 군병 파견을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왜국의 佛教公傳 연대에는 ≪上宮聖德法王帝說≫, ≪元興寺緣起≫의 538년설과 ≪일본서기≫의 552년설(欽明 13년 10월조)이 있다. 538년설 중 하나의 근거에는 522년의 '大唐漢人' 案部村主司馬達止에 의한 불교 숭배, 즉 선행되는 私傳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열거되어 있다(≪扶桑略記≫ 欽明 13년 10월 13일조 所引 '日吉山藥恒法師法華驗記'). 達止 일족은 왜국에서 최초의 出家人이 되는 嶋女(善信尼), 佛師로서 저명한 鳥(止利仏師) 등을 배출했으며, 왜국에서 초기 불교 수용이 그들 도래계 씨족에게 지워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584년에 딸인 嶋가 출가했을 때에 11살이었다고 하니 達止가 불상을 숭배했다는 壬寅年은 간지 1운을 내려서 582년경의 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達止의 개인적 불교 수용의 연대에 가깝기 때문에 538년설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元興寺緣起≫ 撰進 과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538년설은 聖德太子 신앙의 전개로 인해 후대에 창출된 연대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서, 반드시 ≪일본서기≫에 선행하거나 필적하는 유력 설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552년설에 대해서도 당시 생각되었던 末法 개시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반드시 정확한 연차를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따라서 佛教公傳의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공약수와 같이 6세기 중엽의 欽明朝의 일이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주17).

단,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라는 관점을 가미하면 538년은 성명왕이 부여 천도를 하여, 백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해였지만, 국제 정세는 552년 쪽이 절박하여 문물의 공여로 인해 왜국의 외교적 지지나 군사원조를 이끌어 내온 백제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결정타를 내놓았다고 보면 552년설 쪽이 유력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왜국이 백제로부터 불교를 도입한 것은 541년에 백제가 梁에 입공하고 529년경부터 정비되는 계율사상과 황제보살에 의한 국가 통치를 기반으로 하는 梁의 불교를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上川通夫 2007】. 그렇다면 왜국에 대한 불교 전래는 541년 이후로 될 수밖에 없다. 왜국은 불교를 說授하는 승려 이외에 오경박사나 의박사 등 학예 전수를 위한 인재, 그리고 여러 문물을 백제로부터 받고 있어서 왜국의 문명화를 추진함에 있어 백제와의 관계는 끊기 어려운 것이었다.

제2절 가야 제국 멸망 후의 한반도 제국과 왜국

6세기 후반의 한반도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를 맞게 된다. 백제와의 가야 쟁탈에 승리한 신라는 반도의 서해안에 달하는 새로운 영역 통치를 확립하고 중국의 남조와 북조에 입공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존재감을 더해 간다. 왜국에 있어서는 이 신라와의 관계 구축이 새로운 문제가 되지만, 신라에도 대 백제·고구려를 위한 방책을 모색한다는 과제가 존재했다. 570년에는 고구려가 왜국에 견사하지만 (≪일본서기≫ 欽明 31년(570)조～敏達 3년(574)조), 그 통교관계는 아직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여, 이하에서는 백제·신라와의 통교를 중심으로 6세기 후반의 일한관계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왜·백제 관계의 추이

성명왕의 패배와 사망 후에 백제에서는 余昌이 즉위하여 威德王(재위 554～598년)이 되었다. 위덕왕은 555년 2월에 동생인 왕자 惠를 왜국으로 파견하여(≪일본서기≫ 欽明 16년 2월조), 왜국이 친백제 정책을 유지하도록 손을 쓰고 있다. 惠는 원병 파견을 요청했지만, 왜국 측은 국가 체제의 안정을 敎示하고 있어서 즉각 출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다음 해에 惠가 귀국할 때 阿倍臣 등이 筑紫國舟를 거느리고 호송했다고 하며, 그와는 별도로 筑紫火君이 용사 1000명을 이끌고 弥氐(경상남도 남해 섬(섬진강 입구) 동남단의 彌助里(?))에 호송하여, '津路要害之地'를 지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일본서기≫ 欽明 17년 정월조), 왜국의 '竹斯嶋上諸軍士'의 건재함이 알려짐과 함께 백제에 대해 왜국이 계속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덕왕의 치세는 40년 이상에 이르러, 惠王(재위 598～599년), 法王(599～600년)의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武王(600～641년), 義慈王(641～660년)으로 계속되는 새로운 세기의 백제 융성을 가져오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 제국 멸망 후에 백제의 신라에 대한 방책으로써 그 군사 행동의 모습을 정리하면 <표 3>대로이다. 이 중에서는 577～79년의 침공이 주목되며, 이는 신라 우세의 상황을 구축한 진흥왕(재위 540～575년)의 죽음, 그 다음의 진지왕(576～579년) 즉위의 틈을 탄 군사로서 신라의 서쪽 즉 옛 가야 지역의 탈환을 시도한 것이었다. 575년에 백제가 왜국에 견사한(≪일본서기≫ 敏達 4년 2월 乙丑條) 것은 사전 제휴를 모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의 國是는 신라에 침공하여 옛 가야 지역을 영토적으로 탈취하는 것이며, 이것이 백제의 '任那復興' 바로 그것이다.

또한 <표 3>을 보면 위덕왕의 신라에 대한 침공은 579년 이후 기록이 없고 왕의 남은 치세 기간과 비교하여 그 이후는 적극적 신라 침공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581년부터 시작되는 隋와의 관계라는 새로운 요소, 동아시아 정세의 커다란 변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상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점은 7세기의 일한관계에 관한 검토에 넘기고 여기서는 왜국과 백제의 관계를 좀 더 보아 가고자 한다.

3-20 ≪日本書紀≫ 敏達 12年(583) 是歲條

復遣吉備海部直羽嶋召日羅於百濟. 羽嶋旣之百濟, 欲先私見日羅, 獨自向家門底, 俄而有家裏來韓婦, 用韓語言, 以汝之根入我根內, 卽入家去. 羽嶋便覺其意隨後而入. 於是, 日羅迎來, 把手使坐於座, 密告之曰, 僕竊聞之, 百濟國主奉疑天朝, 奉遣臣後留而弗還, 所以奉惜不肯奉進. 宜宣勅時, 現嚴猛色催急召焉. 羽嶋乃依其計而召日羅. 於是, 百濟國主怖畏天朝不敢違勅, 奉遣以日羅, 恩率德爾, 余怒, 哥奴知,參官, 柁師德率次干德, 水手等若千人. 日羅等行到吉備兒嶋屯倉, 朝庭遣大伴糠手子連而慰勞焉. 復遣大夫等於難波舘使訪日羅. 是時日羅被甲乘馬到門底下, 乃進廳前進退跪拜歎恨而曰, 於檜隈宮御寓天皇之世, 我君大伴金村大連奉爲國家使於海表火葦北國造刑部靭部阿利斯登之子, 臣達率日羅, 聞天皇召恐畏來朝, 乃解其甲奉於天皇. 乃營舘於阿斗桑市使住日羅, 供給隨欲. 復遣阿倍目臣物部贄子連·大伴糠手子連, 而問國政於日羅. 日羅對言, 天皇所以治天下政, 要須護養黎民. 何遽興兵翻將失滅. 故今令議者仕奉朝列, 臣連二造<二造者, 國造·伴造也>, 下及百姓, 悉皆饒富令無所乏. 如此三年, 足食足兵, 以悅使民, 不憚水火, 同恤

國難. 然後多造船舶, 每津列置, 使觀客人, 令生恐懼. 爾乃以能使使於百濟, 召其國王. 若不來者, 召其太佐平王子等來, 卽自然心生欽伏, 後應問罪. 又奏言,百濟人謀言, 有船三百, 欲請筑紫. 若其實請, 宜陽賜予. 然則百濟欲新造國, 必先以女人小子載船而至國家. 望於此時, 壹岐·對馬多置伏兵, 候至而殺, 莫翻被詐. 每於要害之所, 堅築壘塞矣. 於是, 恩率·參官臨罷國時<舊本以恩率爲一人, 以參官爲一人也>, 竊語德爾等言, 計吾過筑紫許, 汝等偸殺日羅者, 吾具白王, 當賜高爵. 身及妻子, 垂榮於後. 德爾·余奴皆聽許焉. 參官等遂發途於血鹿. 於是, 日羅自桑市村遷難波館, 德爾等晝夜相計將欲殺, 時日羅身光有如火焰, 由是德爾等恐而不殺. 遂於十二月晦, 候失光殺. 日羅更蘇生曰, 此是我駈使奴等所爲, 非新羅也. 言畢而死<屬是時, 有新羅使, 故云爾也>. 天皇詔贄子大連·糠手子連, 令收葬於小郡西畔丘前. 以其妻子·水手等居于石川. 於是, 大伴糠手子連議曰, 聚居一處,恐生其變. 乃以妻子居于石川百濟村, 水手等居于石川大伴村. 收縛德爾等置於下百濟阿田村, 遣數大夫推問其事, 德爾等伏罪言, 信, 是恩率·參官敎使爲也, 僕等爲人之下不敢違矣. 由是下獄復命於朝庭, 乃遣使於葦北, 悉召日羅眷族, 賜德爾等, 任情決罪. 是時葦北君等受而皆殺投彌賣嶋<彌賣嶋,盖姬嶋也>, 以日羅移葬於葦北. 於後海畔者言, 恩率之船被風沒海, 參官之船漂泊津嶋, 乃始得歸.

583년에 왜국의 조정은 왜계 백제관료인 達率(제2위) 日羅라는 사람을 초빙하여 '임나부흥'책을 상담하려고 했다. 日羅의 부친은 宣化朝에 도해한 적이 있는 火葦北國造 刑部靭部 阿利斯登으로, '竹斯嶋上諸軍士'의 일원임과 함께 大伴金村을 '我君'으로 우러러보며, 大伴씨 밑에서 조정의 군사력 일단을 담당하는 靭部(靭負)라는 호칭이나 왜 왕권의 왕족 資養에게 봉사하는 刑部 등을 갖고 있어서 왜국의 조정과의 관계도 긴밀했다. 日羅 자신도 현명·용감한 인물이라는 평판이 전해져 오고 있어서 왜국에 있어서는 백제 왕권의 내부에 의사가 통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든든한 것이었다.

日羅는 다른 백제인과 함께 조정에 들어와, '국정'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아뢰었다(사료 20). 그 내용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2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졸속 출병을 억제하고 민정안정·국력을 충실히 한 다음에 선박 제작·每津列置에 의한 협박으로 백제왕 또는 大佐平·왕자의 來朝를 촉진하며 문책을 행한다. ② 백제의 筑紫에 있어서의 '新國' 창건 계획에 대해서는 속은 시늉을 하여 여자·어린이를 받아 들여서 壹岐·對馬에 복병을 숨겨서 살해한다. 이는 백제에 대한 방책을 제안한 것 바로 그것이며 백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인지, 그 후 日羅는 동행했던 백제인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이 日羅獻策은 왜·백제 관계의 흐름에서는 난해한 것으로서 내용 해명을 위한 깊은 연구는 적다. 우선 ①에 대해서는 '임나 부흥'에 협력적이 아닌 백제에 압력을 가하여 백제와의 결합을 돈독히 해가면서 '임나 부흥'을 실현하는 방책이었다고 하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西本昌弘 1987】. 그러나 백제가 무력에 의한 '임나 부흥'에 힘썼던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이며 ①에서 日羅는 왜국에 대하여 그 백제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되는 일로써 후대의 사례이지만, 642년에 백제 의자왕이 옛 가야지역의 40성 남짓 탈환했을 때의 왜국과의 통교 방식을 참조하면(뒤에 인용할 사료 28·29), 백제는 옛 가야 지역을 탈환했는데도 왜국에 충분한 양의 '任那調'를 헌상하지 않거나 그 積算 근거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즉 백제의 '임나 부흥'은 반드시 왜국의 이익과 직결되지는 않는 것이어서 575년의 견사(≪일본서기≫ 敏達 4년 2월 乙丑條)처럼, '益恒歲'라는 物實送付를 실행하지 않는 백제의 자세가 문제시되어 그것을 문책·해결하지 않으면 왜국의 '임나 부흥'책이 진전되지 못할 것으로 주목되지 않았을까 한다【森公章 2002】.

다음으로 ②의 '新國' 창건 계획에 관하여는 '新國'은 '임나'의 이주민 집단이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火葦北國 등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했던 筑紫에 '新國'을 세우는 것은 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筑紫에 대한 왜 왕권의 세력 확장과 선진문물의 도입 경로 확보 그리고 반도 남부에 있어서의 백제의 制海權 유지 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구상되었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金鉉球 1985 c】. ≪隋書≫ 왜국전에는 筑紫로부터 10여 국을 거쳐서 隋使가 입경한 것을 기록한 다음에 "自竹斯國以東, 皆附庸於倭"라고 되어 있어서 당시의 왜국은 기나이 야마토 왕권을 중심으로 竹斯國 등의 소국＝지방호족인 國造가 역사적 지배를 구축했던 구니가 附庸(외교권을 빼앗겨 종속)하는 형태로 존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에는 筑紫가 할양을 얻기에 가능한 땅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단, 상술한 火葦北國造와 왜국의 조정의 관계로부터 생각하여, 磐井의 난 이후의 筑紫에 대한 지배가 불충분한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시 백제가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이용하여 신라로부터 옛 가야 지역을 탈취하려고 했던 점에 유의하면, 570년대 말의 침공이 일단락되고 그 다음 전개를 시도함에 있어서는 백제에는 筑紫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의 백제의 筑紫 땅의 하사 요구, '新國' 창건이란 이러한 '竹斯嶋上諸軍士'를 백제에 편입하여 자유롭게 착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백제인을 보내어 백제의 거점을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해 두고자 한다【森公章 2002】.

이상의 日羅獻策은 집행되지는 않았지만(주18), 백제에 대하여는 '百濟是多反覆之國'이라는 비평도 보여서(≪일본서기≫ 推古 31년(30?＝622) 是歲條), 왜국은 백제에 대한 불신감을 남겨놓은 채로 있었다. 그 한 가지 원인으로서 신라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흐름

이 상기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신라와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임나조'를 둘러싼 왜국과 신라의 관계

575년 6월 가야 제국 멸망 후에는 협상 내용이 판명되는 최초의 신라 사신이 도래한다(사료 21). 이 때 신라는 '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四邑之之調'를 송부했다고 하며 이 4촌은 금관국의 주요 읍으로(사료 22), 이는 이후에 문제가 되는 '任那調' 바로 그것이다.

3-21 ≪日本書紀≫ 敏達 4年(575) 6月條
新羅遣使進調多, 益常例. 幷進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四邑之調.

3-22 ≪日本書紀≫ 推古 8年(600) 是歲條
命境部臣爲大將軍, 以穗積臣爲副將軍<並闕名>, 則將萬餘衆, 爲任那擊新羅. 於是, 直指新羅以泛海往之, 乃到于新羅攻五城而拔. 於是, 新羅王惶之, 擧白旗到于將軍之麾下, 而立割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加羅·阿羅々六城以請服. 時將軍共議曰, 新羅知罪服之, 强擊不可. 則奏上. 爰天皇更遣難波吉師神於新羅, 復遣難波吉士木蓮子於任那, 並檢校事狀. 爰新羅·任那二國遣使貢調, 仍奏表之曰, 天上有神, 地有天皇, 除是二神, 何亦有畏乎. 自今以後, 不有相攻, 且不乾般柁, 每歲必朝. 則遣使以召還將軍. 將軍等至自新羅, 卽新羅亦侵任那.

3-23 ≪日本書紀≫ 推古 18年(610) 7月條
新羅使人沙喙部奈末竹世子, 與任那使人喙部大舍首智買, 到于筑紫.

3-24 ≪日本書紀≫ 推古 19年(611) 8月條
新羅遣沙喙部奈末北叱智, 任那遣習部大舍親周智, 共朝貢.

3-25 ≪日本書紀≫ 推古 31年(30?=622) 7月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任那遣達率奈末智, 並來朝. 仍貢佛像一具及金塔幷舍利, 且大灌頂幡一具·小幡十二條. 卽佛像居於葛野秦寺, 以餘舍利·金塔·灌頂幡等皆納于四天王寺. 是時, 大唐學問者僧惠齊·惠光及醫惠日·福因等並從智洗爾等來之. 於是, 惠日等共奏聞曰, 留于唐國學者, 皆學以成業, 應喚. 且其大唐國者法式備定之珍國也. 常須達.

3-26 ≪書紀≫ 推古31年(30?=622) 11月
磐金·倉下等至自新羅. 時大臣問其狀, 對曰, 新羅奉命以驚懼之, 則並差專使, 因以貢兩國之調, 然見船師至而朝貢使人更還耳. 但調猶貢上. 爰大臣曰, 悔乎, 早遣師矣. 時人曰, 是軍事者, 境部臣·阿曇連, 先多得新羅幣物之故, 又勸大臣, 是以未待使旨而早征伐耳. 初磐金等渡新羅之日, 比及津, 莊船一艘迎於海浦. 磐金問之曰, 是船者何國迎船. 對曰, 新羅船也. 磐金亦曰, 曷無任那之迎船. 卽時更爲任那加一船. 其新羅以迎船二艘始于是時歟.

3-27 ≪日本書紀≫ 皇極 2年(643) 7月 辛亥條
遣數大夫於難波郡檢百濟國調與獻物. 於是, 大夫問調使曰, 所進國調, 欠少前例. 送大臣物, 不改去年所還之色, 送群卿物, 亦全不將來, 皆違前例. 其狀何也. 大使達率自斯·副使恩率軍善俱答曰, 卽今可備. 自斯, 質達率武子之子也.

3-28 ≪日本書紀≫ 大化 元年(645) 7月 丙子條

高麗·百濟·新羅, 並遣使進調. 百濟調使兼領任那調使, 進任那調. 唯百濟大使佐平緣福遇病, 留津館而不入於京. 巨勢德大臣, 詔於高麗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天皇所遣之使, 與高麗神子奉遣之使, 旣往短而將來長. 是故可以溫和之心相繼往來而已. 又詔於百濟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始我遠皇祖之世, 以百濟國爲內官家, 譬如三絞之綱. 中間以任那國屬賜百濟, 後遣三輪栗隈君東人觀察任那國堺. 是故百濟王隨勅悉示其堺, 而調有闕, 由是却還其調. 任那所出物者, 天皇之所明覽. 夫自今以後, 可具題國與所出調. 汝佐平等, 不易面來, 早須明報. 今重遣三輪君東人·馬飼造<闕名>. 又勅, 可送遣鬼部率意斯妻子等.

3-29 ≪日本書紀≫ 大化2年(656) 9月條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 遂罷任那之調<黑麻呂更名玄理>.

사료로부터 알 수 있는(주 19) '任那調'의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鈴木英夫 1983】.

① '任那調'는 신라에 의한 가야 제국의 병탄 후에 등장하는 것으로써 그 이전에 가야 제국이 왜국에 무언가 물품을 보냈었다는 흔적은 없다.

② '任那調'란 옛 금관국 4읍의 '調'(공물＝복속하는 의미를 포함한 공납품) 바로 그것이다(옛 금관국에는 王弟가 현지에 남아, '食邑'을 관리했었다).

③ 그 '任那調'를 일정한 관위를 갖는 '임나'使가 가져 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신라는 왜국에 대한 '任那調' 송부에 임하여 자국의 사신과 함께 실제로는 신라인이지만 따로 '任那'使를 세워서 來朝시키고 있다(사료 26의 迎船의 규정도 참조).

④ 신라는 옛 금관국을 '임나'로 하고 '任那調'를 왜국에 납부함으로써 가야를 부흥시켰다는 형태를 갖추어 가야 제국의 부흥을 명목으로 왜국의 군사 원조를 끌어내려는 백제의 대왜 외교에 대항하려 했다.

⑤ 왜국에 있어서는 독립한 '임나'使가 來朝하여 '任那調'을 가져오는 것은 '임나 부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실제의 영유 관계를 문제로 하지 않고 '任那調'의 납입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任那調'는 왜국과 신라의 고도로 정치적·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이듯이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신라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신라로서도 왜국과 통교하여 왜국이 백제·고구려 측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도를 생각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왜국에 있어서는 신라와의 교섭→'임나'使의 來朝, '任那調'의 획득＝'임나 부흥'이라는 명목을 얻을 수 있고 백제와는 또 다른 입장에서 한반

도 삼국과 통교가 가능하게 된다. 단, '任那調' 송부는 신라의 국제 정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서 신라사가 단독으로 도래하였고 '임나'사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왜국이 신라사를 물리치는 사태도 발생한다. 왜국에는 신라와도 백제와도 충분한 관계가 구축될 수 없다는 과제가 남지만, 한편으로는 고구려를 포함한 한반도 삼국의 세력 균형 위에 서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3. 왜국과 한반도 제국과의 등거리 외교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왜국과 한반도 제국과의 통교 사례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왜국과 백제와의 통교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물의 교류가 본간이 되었고, '임나 부흥' 운운 등 정치 문제는 표면에 나오지 않게 된다. 신라, 고구려도 불교를 중심으로 왜국에 인재와 물자를 공여하고 있어서 ≪隋書≫ 왜국전의 "新羅·百濟, 皆以倭爲大國, 多珍物, 竝敬仰之, 恒通使往來"라는 평가는 이러한 한반도 삼국으로부터 균등한 형태로 통교가 이루어 진 상황에 입각한 것으로 생각된다(주 20). 왜국은 한반도 제국과 등거리 외교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해당기의 왜국의 아스카문화는 고훈시대 이래의 전통을 기반으로 중국의 남북조문화를 한반도 삼국으로부터 흡수함으로써 국제적 색깔이 풍부한 최초의 불교문화를 꽃피우게 했던 것이다. 최초의 본격적인 사원이 되는 飛鳥寺(法興寺)의 조영 시에는 백제로부터 불사리가 헌상되었고 寺工, 鑪盤博士, 瓦博士, 畵工 등 사원 건립에 필요한 기술자도 백제로부터 파견되었다. 왜국 최초의 출가자인 善信尼는 백제로 가서 계법을 배웠고 도래한 고구려 승 혜자와 백제 승 혜총이 '三寶之棟梁'라고 하여 불교계를 주도했다고 하니, 승려 양성 등 불교 문화의 이입·정착에는 백제 그리고 고구려에 의존한 바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로부터도 불상을 가져와, 京都太秦의 廣隆寺에 전래되는 半跏思惟像(彌勒菩薩像) 등에서는 신라 불교의 영향을 볼 수 있는 바이다.

왜국의 불교 문화 수용을 추진한 것은 蘇我씨이며, 蘇我씨는 東漢씨를 비롯한 도래계 씨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飛鳥寺의 刹柱를 세웠을 때 蘇我馬子와 100여 명의 사람들은 백제 의복을 착용하고 열석했다고 하니(≪扶桑略記≫ 崇峻 원년(588) 정월조), 백제 문화를 기리는 자로서의 蘇我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종래의 왜국 궁실은 역대 遷宮의 형태를 취했지만, 궁도를 아스카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도로써의 아스카 정비를 계속한 것도 蘇我씨였다(주 21). 飛鳥寺의 서쪽 광장은 국가적 향연

의 장이었고 그곳에는 백제의 路子工이 조영한 須彌山石이 신기한 정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스카의 궁도는 飛鳥강 오른쪽 기슭의 낮은 습지에 있었기 때문에 川原石나 응회암의 절석 등을 이용한 돌을 깐 시설이 많았지만, 苑池(연못정원)의 조영 모두 이것들은 백제, 또는 신라의 수도를 본 따 만든 경관을 만들어 낼 의도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왜국이 등거리 외교의 성과를 누리는 가운데에도 한반도에서는 반도 통일을 둘러싼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어 간다(<표 3>). 또한 4세기 초반 이래로 오랜 동안 남북조의 분열이 계속되었던 중국에서도 589년에 북조의 隋가 남조의 陳을 멸하고 중국 통일을 실현한다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隋, 그리고 그 다음의 唐은 한반도의 분쟁에도 개입하여 동아시아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왜국과 한반도 제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다음의 7세기 일한관계의 고찰 과제다.

(주1) 繼體의 본거지였던 近江國 高島郡 水尾村에 소재하는 鴨稻荷山 고분은 6세기 전반의 전방후원분으로써 繼體 즉위 후의 것이 되지만, 금제 귀고리, 금동제 관, 금동제 쌍어패, 금동제 신발 등 한반도 남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장품이 검출되어, 繼體 대왕을 만들어낸 이 지역의 국제적 환경을 추찰하게 해 주는 재료를 제시한다【大山誠一 1999ｂ】. 그리고 和歌山縣 橋本市 隅田八幡宮 소장인 物畵像鏡에는 "癸未年八月日十大王年男〔孚〕弟王在意柴沙加宮時斯麻念長奉遣開中費直穢人今州利二人等〔尊〕取〔所(取)〕白上同(銅)二百旱(桿)作〔所(作)〕此竟(鏡)"(〔 〕은 유력한 다른 해석, ( )는 다른 음훈으로 읽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未年은 443년이라는 설도 있지만, 2007 ≪歷史考古學大辭典≫ (吉川弘文館) '隅田八幡神社·人物畵像鏡'의 項(寺西貞弘 씨 집필)에 의하면, 鏡의 고고학적 연대는 6·7세기를 밑도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503년 설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즉위 전의 男弟王＝繼體가 大和國의 忍坂宮에 있었을 때, 斯麻＝백제의 무령왕으로부터 '長奉'＝우호 관계의 계속이 기대되는 듯한 입장에 있었던 사실이 간파되므로 왜왕권이 백제 지지의 외교 방책을 취하는 배경을 알게 된다.

(주2) 대한민국에서의【金泰植 1985·1988】등의 연구에 대응하여, 일본에서는【田中俊明 1992】이 연구를 크게 전진시켰다. 또한 伴跛＝대가야설은, 예를 들면【今西龍 1970ｂ】가【今西龍 1970ａ】에서는 伴跛＝本彼(星州)라는 통설을 지지했던 것에 대해, "伴跛는 성주를 제2 중심으로 하고, 고령의 땅을 제1중심으로 하고 대가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추정함에 이르러"(391 페이지)로 서술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가야 제국으로부터의 시점을 축으로 하여 관계 기사의 전체적인 이해의 재검토를 추진한 것은 金泰植씨·田中俊明씨의 뛰어난 연구 성과다. 또한 卓淳의 比定地에 관해서는 金泰植씨는 今西說을 계승하여 낙동강 남쪽의 창원설을 취하지만,【松波宏隆 1994】는 낙동강 동북 해안으로 풀이하고, 昌寧(比自㶱)의 남쪽 靈山을 卓淳에 맞추고 있다.

(주3) 원인으로서는 475년 고구려의 공격에 의한 백제 남천 후의 혼란, 동성왕 대에도 가끔 보이며, 무령왕 대의 502년, 506년, 521년(신라에 도망한 것이 900호로 기술되어 있다)으로 계속 닥쳐오는 역병이나 기근(≪삼국사기≫)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4) 森公章, 2000 <評の成立と評造> ≪古代郡司制度の研究≫ (吉川弘文館) ; 2003 <國宰, 國司制

の成立をめぐる問題> ≪歴史評論≫ 643) 등.

(주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高靈縣·建置沿革條所引 崔致遠撰 <釋利貞傳>에 기술된 대가야 왕가의 계보에 의하면 신라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異腦王이며, 所生子는 月光太子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서기≫ 繼體 23년(529) 4월 무자조, 사료 09의 '任那王己能末多干岐'는 '已能末多'의 誤記이며 異腦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왕 자신이 왜국으로 도래했다는 것은 의문이지만 이 '임나'는 '가라'=대가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6)【田中史生 2008】는≪일본서기≫ 欽明 15년(554) 2월조에서 五經博士 王柳貴와 교체된 固德(제9위) 馬丁安는 백제의 관위를 갖고 있으며, 백제 왕권을 섬기는 관인으로써 백제의 정치적·전략적 의도를 왜 왕권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

(주7)【古川政司 1980】은 후술하는 백제의 안라에 대한 군사진출을 둘러싼 왜국과의 의견 대립에 입각하여 毛野 파견 시에도 왜와 백제 사이에는 무언가의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백제의 사신 배제로 이어졌지만 이 점에서는 그러한 대립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주8)【熊谷公男 2008】는 毛野 파견 실패 후에 안라 주재 왜계인을 '임나일본부'로써 조직했다고 보고 있으며, 毛野가 했던 '韓子'에 관한 재판은 그 후신인 '임나일본부'에도 이어져서, 안라 및 그 주변지역 주재 왜계인의 통괄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毛野의 재판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9) 이 경우의 '임나' 닌나는 '주인의 나라'와 같은 의미로써 금관국의 왕읍을 지칭했거나 아니면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의 彌烏邪馬國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유력하다.

(주10) 神功 49년조의 '南蛮忱彌多禮'에 대해서【金鉉球 1993】는 전라남도 강진에 비정하고 있지만, 18페이지 주(39)에서는 탐라로 비정할 수 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森公章, 1998 <古代耽羅の歷史と日本>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만'의 관칭은 탐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 좋고 탐라가 백제의 부용국이 된 것은 5세기 말~6세기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도 그 시기의 백제 활동의 범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주11) 平野邦雄, 2007 <歸化人研究の諸問題> ≪歸化人と古代國歌≫ (吉川弘文館).

(주12)【金鉉球 1985b】는 사료 38의 '임나 부흥회의' Ⅱ에서 문제가 된 백제의 군령·성주를 구례산 부근에 배치된 것으로 하고, '일본부'의 군사령부적 성격을 주장한다. 그러나 군령·성주가 배치된 '下韓' '南韓'이 이 지역을 지칭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그 후의 경위를 보아도 구례산의 탈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라의 반 백제 기운으로부터 생각해도 안라와 卓淳의 경계 부근으로 보이는 구례산 주변으로 백제가 단숨에 군사 전개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구례산 주변의 병사 주둔은 Ⅱ-①의 방책이며, ②의 군령·성주 설치는 별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D설의【奧田尙 1976】도 印支彌·許勢臣을 백제로부터 파견된 인물로 본다.

(주13) 森公章, 2008 <「海北」から「西」へ>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 (吉川弘文館).

(주14) ≪일본서기≫는 이 쟁탈전을 551·2년의 일로 보며, 欽明 12년 是歲條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漠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遂復故地", 同 13년 是歲條 "百濟棄漢城與平壤,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地名未詳>"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欽明 11년(550)4월 庚辰朔條의 고구려인 포로 송부는 이 해의 전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주15) 사료 18의 사신 중에서 河內部阿斯比多는 그 이름으로부터 생각할 때 '일본부'의 구성원으로 보이며, 이 단계에서도 '일본부' 내지는 그 잔존 세력이 가야 제국과 공동으로 외교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李永植 1989】는 가야와 안라의 사신으로 보지만, '日本府臣'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한다.

(주16) ≪일본서기≫ 欽明 22년 是歲條 "復遣奴氏大舍獻前調賦. 於難波大郡序諸蕃, 掌客額田部連·葛城直等使列于百濟之下而引導. 大舍怒還不入館舍, 乘船歸至穴門. 於是, 脩治穴門館. 大舍問曰, 爲誰客造. 工匠河內馬飼首押勝欺紿曰, 遣西方無禮使者之所停宿處也. 大舍還國告其所言. 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 以備日本"의 阿羅波斯山은 咸安의 城山山城으로 비정되며 여기에서는 목간이 출토되고 있어서 신라의 옛 가야 제국 지배의 방식이 밝혀지고 있다【朴鍾益 2007, 李鎔賢 2007】. 또한 축성 목적에 '以備日本'이라는 것은 오히려 백제의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바꿔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17) 이상의 연구사는 速水侑, 1986 ≪日本佛教史≫古代 (吉川弘文館) ; 本郷眞紹, 2005 <『元興寺緣起』の再檢討> ≪律令國歌佛教の研究≫ (法藏館) 등을 참조.

(주18) 日羅獻策의 유효성을 제시하는 사항으로는 후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651년에 신라가 唐風화를 추진하여, 도래한 사신이 당풍 복장을 착용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이 주의를 끈다. ≪일본서기≫白雉 2년(651) 是歲條에는 "新羅貢調使知万沙飡等, 著唐國服泊于筑紫. 朝庭惡恣移俗, 訶嘖追還. 于時巨勢大臣奏請之曰, 方今不伐新羅, 於後必當有悔. 其伐之狀不須擧力, 自難波津至于筑紫海裏, 相接浮盈艫舳, 召新羅問其罪者, 可易得焉"으로 되어 있어서, 선박을 每津列置하고 협박한다는 방식은 日羅獻策①의 집행을 기도한 것이었다. 이는 집행 대상이 백제가 아니라 신라이지만, 日羅獻策이 한반도 제국에 대한 왜국의 행동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남긴 것이 엿보인다.

(주19) 【延敏洙 1992】는 元 금관국왕의 食邑은 金仇衡의 사후(575년 이전에는 서거)에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고, '四邑之條'는 신라의 직접 수취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복속의 뜻을 표하는 '調'가 아니라, 철 자원 등 이전의 남부 가야와 왜와의 무역물자를 공여하고 신라가 왜국에 선진문물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일본서기≫의 任那使人 來朝에 대한 기술(사료 21~26)에는 편찬 시에 조작이 있었다고 자리매김하고, 복속의 뜻을 보여주는 '調'의 송부라는 생각을 부정했다. 그러나 사료 26에 의하면, 왜국은 임나사의 來朝, '임나'의 존속이라는 형식의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신라도 그 허구성을 인식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왜국의 '임나 부흥'이라는 요망에 부응한 형태를 제시한다는 합의 하에 실시된 외교 형식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조작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20) 黑田裕一, 1998 <推古朝における「大國」意識> ≪國史學≫ 165는 ≪隋書≫ 각국전의 '大國'이라는 용례를 검토하고, 안으로 예절을 갖추어 유지함과 함께 예절 질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나라가 '大國'이며, 600년의 견수사 이후에 왜국이 禮制의 섭취를 추진한 것을 추인한 다음, 隋의 대 고구려 전쟁 수행을 위해 왜국이 창건한 '大國'적 구조를 隋의 예절 질서 사회에 편입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大國'의 의미는 그대로 인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통교 관계에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본문과 같이 풀어 두고자 한다.

(주21) 森公章編 ≪日本の時代史≫3 倭國から日本へ (吉川弘文館) ; 明日香村編, 2006 ≪續·明日香村史≫上卷 등.

〈표 1〉 백제와 신라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

(백 제)	(신 라)
	* 5세기 후반부터 居柒山國 등의 남부가야 제국은 신라의 영향 하에 있었다.
	512(지증왕11) 何瑟羅州軍主異斯夫가 우산국(울릉도)을 항복시키다(참고)
513(무령왕 13) 己汶에 침입	
514 대가야는 子呑·帶沙 축성하여 대항	
516 己汶을 확보	
→나아가 帶沙에 진출하여 확보	
522 대가야는 신라에 구혼→신라와의 혼인동맹 성립	
	524(법흥왕 11) 금관국·喙己呑에 제1차 침공. 이때 대가야 왕과 맹약
525(聖王 3) 백제와 신라가 交聘	
527 왜국은 近江毛野 파견을 계획	
529 近江毛野渡海 / 대가야는 신라와의 혼인동맹을 파기	
	529 금관국에 제2차 침공
531 안라에 진주하고, 구례산을 수비	531 탁순을 공격하고, 구례산을 함락하고, 탁순을 제압
	532 금관국 항복

※백제·신라 왕대는 교체가 있을 때만 注記했다

〈표 2〉 '임나 부흥회의'의 참가자

국명	Ⅰ欽明 2년(541) 4월	Ⅱ欽明 5년(544) 11월
百濟	聖明王(聖王)	聖明王(聖王)
安羅	次旱岐 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下旱岐 大不孫·久取柔利
加羅	上首位 古殿奚	上首位 古殿奚
卒麻	旱岐	君
散半奚	旱岐兒	君の兒
多羅	下旱岐 夷他	二首位 訖乾智
斯二岐	旱岐兒	旱岐
子他	旱岐	旱岐
久嗟	－	旱岐
－	任那日本府臣 吉備臣	任那日本府臣 吉備臣

〈표 3〉 백제·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침공·略年表

557년 10월 백제,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략→敗退. 신라 안에 利西城을 축성.
(위덕왕24 / 진지왕2)
587년 ○ 백제, 閼也山城(전북 익산군 여산면)을 얻다.
579년 2월 백제, 熊峴城(충북 보은군 내속리면)·松述城을 축성, 신라의 萩山城(慶北醴泉郡醴泉邑)·應峴城·內利西城으로 가는 길을 막다.
602년 8월 백제, 신라의 阿莫山城을 포위하다→敗退. (武王3 / 眞平王24)
603년 8월 고구려, 신라의 北漢山城(서울시 종로구 신영)을 공격→敗退. (嬰陽王14 / 眞平王25)
605년 2월 백제, 角山城(전북 정읍군 내장면 갈현)을 축성.
8월 신라, 백제의 東辺을 侵略.
608년 4월 고구려, 牛鳴山城(함남 안변 서곡면)을 함락시키다.
611년 8월 백제, 赤嵒城을 축성.
10월 백제, 신라의 椵岑城(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을 멸망시키다.
≪611～614 隋의 고구려 征討≫
616년 10월 백제, 신라의 母山城을 공격.
618년 ○ 신라, 椵岑城을 회복하다.
≪618 唐의 성립≫
623년 백제, 신라의 勒弩縣(충북 괴산군 괴산면)을 습격.
≪623 唐, 조선 삼국을 책봉≫
624년 10월 백제, 신라의 速含(경남 함양군 함양면)·櫻岑·岐岑·烽岑·旗懸·穴柵 6성을 취하다.
626년 7월 백제, 신라의 主在城(충북 청원군 문의면)을 공격하여 성주를 살해.
627년 7월 백제, 신라의 西鄙 두 성을 취하다.
≪627 唐,삼국 화친을 說諭≫
628년 2월 백제, 신라의 椵岑城을 포위→敗退.
632년 7월 백제, 신라 攻伐의 發兵→ 불리.
633년 8월 백제, 신라의 西谷城을 취하다. (武王34 / 善德王2)
636년 5월 백제, 신라의 獨山城(경북 월성군 서면)공격을 계획하고,玉門谷(경북 월성군 서면천촌)에 복병을 두다→敗退.
638년 10월 고구려, 七重城(경기도 파주군 적성면)을 공격→敗退.
(寶藏王21 / 善德王7)
※괄호 내의 王名은 백제왕·고구려왕·신라왕의 교체가 있는 경우만 표시했다.

〈표 4〉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왜국과 한반도 삼국의 통교

584년 9월 …백제로부터 歸朝한 鹿深臣이 弥勒石像1軀, 佐伯連이 佛像1軀를 將來.
587년 6월 …來朝한 百濟調使에 대하여, 大臣蘇我馬子가 善信尼 등의 渡航, 戒法學習을 依賴하는 것도 이때에는 이루지 못함.
588년 ○ …백제使가 來朝하여 仏舍利, 僧, 技術者를 헌상. 善信尼 등의 백제행이 실현.
595년 5월 …고려僧 혜자 來朝.
○ …백제僧 혜총 來朝. 혜자와 함께 '三寶之棟梁'이 되다.
597년 4월 …백제왕자 阿佐가 朝貢.
11월 …吉士磐金을 신라에 派遣.
598년 4월 …難波吉士磐金이 歸朝하여 까치 2마리를 헌상.
8월 …신라가 공작 1마리를 貢上.
599년 9월 …백제가 駱駝1匹·驢1匹·羊2頭·白雉1隻을 貢上.
602년 10월 …백제僧 觀勒이 來朝. 曆本·天文地理·遁甲方術之書를 獻上.
閏10월 …고구려僧 僧隆·雲聰이 來朝.
605년 4월 …고구려왕이 飛鳥寺 丈六仏에 黃金300兩을 獻上.
608년 6월 …遣隋使 小野妹子 등이 백제를 경유하여 歸朝.
○ …신라인이 化來하다.
610년 3월 …고구려僧 曇徵·法定이 來朝. 曇徵은 彩色·紙墨·碾磑의 제조법을 전하다.
612년 ○ …백제로부터 路子工(芝耆摩呂)이 化來하여, 須弥山形·吳橋를 만들다.
또한 伎樂에 능통한 味摩之도 오다.
615년 7월 …遣隋使 犬上御田鍬 등이 백제의 送使와 함께 歸朝.
11월 …고구려僧 혜자가 귀국.
616년 7월 …新羅使가 仏像을 貢上.
618년 8월 …고구려가 對隋戰爭의 捕虜·戰利品을 보내다.
621년 ○ …新羅使가 朝貢하고, 상표문을 捧呈.
622년 7월 …新羅使·'任那'使가 來朝하고, 仏像·金塔·舍利·大灌頂幡·小幡을 貢上. 遣隋留學生 등의 歸朝를 보내다.
625년 正월 …고구려僧 惠灌이 來朝. 僧正에 임하다.
630년 3월 …高麗使, 百濟使가 來朝.
632년 8월 …遣唐使 犬上御田鍬 등이 신라의 送使와 함께 歸朝. 唐使 高表仁도 同行. 遣隋留學僧靈雲·僧旻 등도 歸朝.
635년 6월 …百濟使가 朝貢.
638년 ○ …백제, 신라·'임나'가 朝貢.
639년 9월 …遣隋留僧 惠穩·惠雲이 신라 送使와 함께 歸朝.
640년 10월 …遣隋留僧 清安·學生 高向漢人玄理 등이 신라를 경유하여 歸朝. 백제·신라의 送使가 來朝하여 朝貢.

※출전은 ≪일본서기≫

【참고문헌】

○池內 宏, 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井上秀雄, 1972 ≪朝鮮史≫ (日本放送出版協會)
○井上秀雄, 1973a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について>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井上秀雄, 1973b <任那日本府の行政組織>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今西 龍, 1970a <加羅疆域考>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今西 龍, 1970b <己汶伴跛考>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尹錫曉, 1993 ≪加耶國と倭地≫ (新泉社)
○請田正幸, 1974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請田正幸, 1987 <任那日本府> ≪週刊朝日百科日本の歷史≫ 41原始·古代8 邪馬台國と倭國
○延敏洙, 1990 <任那日本府論> ≪東國史論≫24
○延敏洙, 1992 <日本書紀の<任那の調>關係記事の檢討> ≪九州史學≫ 105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古代文化≫ 32-9·11·12→1999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吉川弘文館)
○奧田尙, 1976 <<任那日本府>と新羅倭典> 大阪歷史學會編 ≪古代國家の形成と展開≫ (吉川弘文館)
○角林文雄, 1996 <任那·加羅·伽耶と倭> ≪日本書紀研究≫ 第20册 (塙書房)
○笠井倭人, 1964 <欽明朝における百濟の對倭外交> ≪日本書紀研究≫ 第1册, 塙書房→2000b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 (吉川弘文館)
○上川通夫, 2007 <ヤマト國家時代の仏教> ≪日本中世仏教形成史論≫ (校倉書房)
○鬼頭淸明, 1976 <<任那日本府>の檢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ジア≫ (校倉書房)
○鬼頭淸明, 1992 <所謂<任那日本府>の再檢討> ≪東洋大學文學部紀要≫史學科篇17
○金延鶴, 1977 ≪任那と日本≫ (小學館)
○金鉉球, 1985a <日系百濟官僚>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金鉉球, 1985b <<任那日本府>の實体>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金鉉球, 1985c <蘇我·物部氏の紛爭による日羅の召喚と對百濟關係の斷絶>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金鉉球, 1993 <<神功紀>の加羅七國平定記事に關する一考察> ≪翔古論聚≫久保哲三先生追討記念論文集刊行會
○金錫亨, 1969 ≪古代朝日關係史－大和政權と任那－≫ (勁草書房)
○金泰植, 1985 <五世紀前半大加耶發展に對する研究> ≪韓國史論≫ 12
○金泰植, 1988 <六世紀前半加耶南部諸國の消滅過程考察> ≪韓國古代史研究≫ 1
○金泰植, 1993 <六世紀中葉加耶連盟の滅亡過程> ≪朝鮮學報≫ 146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檢討> ≪東北學院大學論集≫ 29
○熊谷公男, 2008 <金官國の滅亡をめぐる國際關係> ≪百濟と倭國≫ (高志書院)
○佐伯有淸, 1983 <任那日本府はなかったのか> ≪朝鮮·モンゴル≫<世界の國シリーズ15>, 講談社→1986 ≪日本の古代國家と東アジア≫ (雄山閣出版)
○坂本太郎, 1961 <繼體紀の史料批判> ≪國學院雜誌≫ 62-9→1964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上 (東京大學出版會)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鈴木英夫, 1983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任那日本府>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1996 a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鈴木英夫, 1996 <「任那日本府」(在安羅諸倭臣)の解体と高句麗> ≪日本古代の國家と祭儀≫ (雄山閣出版)
○鈴木英夫, 2006 <「任那日本府」と「諸倭臣」> ≪國學院大學紀要≫ 44
○鈴木靖民, 1974 <いわゆる任那日本政府及び倭問題－井上秀雄≪任那日本政府と倭≫評を通して> ≪歷史學研究≫ 405
○鈴木靖民, 1983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講座日本歷史≫ 1 (東京大學出版會)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の変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千寬宇, 1974 <韓國史の潮流－三國時代(抄)>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千寬宇, 1983 <任那日本府管見> ≪韓≫ 7-7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田中俊明, 2009 ≪古代の日本と加耶≫ (山川出版社)
○田中史生, 2008 <六世紀の倭·百濟關係と渡來人> ≪百濟と倭國≫ (高志書院)
○鄭孝雲, 2005 <六世紀の東アジア情勢と<任那日本府>> ≪日語日文學≫27
○中野高行, 2007 <≪日本書紀≫における<任那日本府>像> ≪新羅史學報≫ 10(≪政治と宗教の古代史≫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4 改訂版·韓國語譯)
○西本昌弘, 1987 <東アジアの動亂と大化改新> ≪日本歷史≫ 468
○平野邦雄, 1985 <"任那日本府"の問題> ≪大化前代政治過程の研究≫ (吉川弘文館)
○古川政司, 1980 <六世紀前半の日朝關係> ≪立命館史學≫1
○朴鍾益, 2007 <咸安城山山城の發掘調査と出土木簡の性格>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出版)
○松波宏隆, 1994 <欽明紀<任那復興>關係記事と卓淳> ≪龍谷史壇≫ 101·102
○三品英彰, 200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卷
○森公章, 2002 <加耶滅亡後の倭國と百濟の<任那復興>策について> ≪東洋大學文學部紀要≫史學科篇27→2008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 (吉川弘文館)
○森公章,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吉川弘文館)
○森俊道, 1983 <任那日本府と加不至費直> ≪東アジアの古代文化≫ 37
○八木充, 1963 <任那支配の二形態> ≪山口大學文學會誌≫ 14-2→1968 ≪律令國家成立過程の研究≫ (塙書房)
○山尾幸久, 1977 ≪日本國家の形成≫ (岩波書店)
○山尾幸久, 1980 <任那支配の實態> ≪ゼミナール古代史≫下 (光文社)
○吉田晶, 1975 <古代國家の形成> ≪岩波講座日本歷史≫2 (岩波書店)
○李永植, 1989 <所謂<任那日本府>の語意について>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16→1993 <任那日本府の實体>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李永植, 1993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に關する研究史>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李弘稙, 1936 <任那問題を中心とする欽明紀の整理－主要關係人物の研究－> ≪青丘學叢≫25
○李鎔賢, 2002 <任那と日本府の問題>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0
○李鎔賢, 2007 <咸安城山山城出土木簡>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出版)

맺음말

이상 4·5·6세기의 왜국이 갖가지 연관을 갖고 한반도와 통교한 모습을 정리해 보았다. 한반도에서 왜인의 활동 흔적은 여러 곳에서 인정되지만, 왜국의 영토가 존재했다는 이해는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시기에는 왜 왕권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의 유력 호족도 독자적으로 한반도 제국과 통교할 수 있었으므로, 다원적 국제관계를 상정해야 한다. 후대에 있어서의 국경선의 획정과 엄밀한 영역 개념은 아직 성립되지 않아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제국 등이 각각 영역을 획정하고 왕권을 확립해 가는 도상에 있었다. 왜국도 백제·고구려 등에서 모델을 찾아가며 왜 왕권이 급속히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중앙집권적 통치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광개토왕비문에 그려진 왜의 군대 전개 규모는 확실치 않으므로 제쳐 두기로 하고, 그밖에 해당 시기에 있어서의 왜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파병은 '竹斯嶋上諸軍士'라 불리우는 九州의 호족을 주체로 하여 대체로 최대 1000명 규모였다. 따라서 왜국이 대대적인 군사 전개를 했다는 이해에는 재검토·정정이 필요할 것이다. 왜국이 만 명 규모의 군대를 도해시킨 것은 7세기 후반의 백제부흥운동 지원 단계가 처음이며, 그 과정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7세기의 일한관계를 검토할 때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韓日關係

－7~9세기－

노태돈(盧泰敦)

序論
제1장 三國統一戰爭期 三國과 倭(日本)의 關係
제1절 隋·唐帝國의 膨脹과 高句麗·百濟·新羅·倭의 對應
1. 高句麗·隋 戰爭
2. 645年 高句麗와 唐의 戰爭
3. 新羅·唐 同盟 對 高句麗·百濟·倭 連繫의 形成
제2절 百濟의 滅亡과 百濟復興戰爭
1. 百濟의 滅亡
2. 周留城 攻略戰와 白江口 戰鬪
3. 百濟復興戰爭 以後 各國의 動向
제3절 高句麗 滅亡
제4절 新羅·唐 戰爭과 新羅·倭(日本) 關係
1. 新羅·倭 國交 再開와 新羅·唐 開戰
2. 新羅·唐 戰爭의 推移와 新羅·日本 關係
제2장 7世紀 終盤~8世紀代의 新羅·日本 關係
제1절 676年 以後 新羅와 日本의 關係
1. 新羅와 唐의 關係
2. 新羅와 日本의 相互認識 : '隣國'과 '蕃國'의 同床異夢
제2절 8世紀 新羅와日本의 關係
1. 渤海의 發興에 따른 國際情勢의 變動
2. 新羅·日本 間의 外交 紛爭
제3장 7~9世紀 韓日 間의 文化 交流
제1절 律令文化의 交流
1. 三國의 律令
2. 古代 韓日 間 律令文化의 交流 事例
제2절 佛敎文化의 交流
1. 僧侶와 制度의 交流
2. 佛敎 典籍의 交流
3. 8世紀 終盤 以後의 樣相
제4장 8世紀 渤海·日本 關係
제1절 727年 渤海와 日本 間의 國交 樹立
제2절 8世紀 中葉 日本의 新羅 征伐計劃과 渤海의 對應
제3절 8世紀 末 渤海·日本 間의 外交儀禮를 둘러싼 葛藤
結論

【國文抄錄】

7~9세기 한일관계사를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고대 한일관계사 전개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인 白(村)江口 전투에 대해 살폈

다. 백강구 전투는 해전인데, 신·당 동맹군의 해군은 그 주력이 당군이었다. 그래서 이 전투를, 나아가 백제부흥전쟁을 당군과 왜군의 대결로 파악하고, 신라군은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간 일본학계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실제 당시 전쟁 상황을 보면, 백강구 전투는 663년 8월에 있은 백제부흥군의 본거지인 주류성 공략전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싸움이었다. 이 때 주된 전장은 周留城이었으며, 신·당 동맹군에 의한 주류성 공략전의 주력은 육군이었고, 그 중심은 신라군이었다.

백강구 전투에 대한 이해에서 신라군의 존재를 홀시한 것은 ≪日本書紀≫의 시각에 의존한 데서 비롯하였다. '부수적이고 약한 신라'라는 그릇된 인식은 그 뒤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주었다.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직전 신라는 일본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양국 간에는 국교가 재개되었다. 이후 7세기 말까지 신라와 일본은 당과의 교섭을 사실상 두절한 채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양국이 상대방을 각각 隣國과 蕃國으로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겉으로는 빈번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갈등 요소가 짙게 깔려있었다. 8세기 초 발해가 발흥하고, 신라와 일본이 당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등의 새로운 국제관계가 전개됨에 따라, 그간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양국 간에 외교적 마찰이 벌어지고 긴장이 조성되었으며, 마침내 8세기 후반 단교로 이어졌다. 양국 관계가 이런 사태로 나아가게 된 객관적 배경과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한편 7세기 대 이래로 한국의 고대국가들과 일본과의 사이에는 긴밀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불교문화와 율령문화에서 그런 면을 살펴보았다. 전자의 문화가 후자에 짙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해와 일본의 교섭 관계에서 초기에는 발해가 군사적 목적으로 일본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734년에 있은 발해와 신라·당 간의 전쟁이 종결된 이후 발해는 현상 유지에 주력하였고, 上京으로 遷都한 무렵에 터진 安祿山의 난 이후에도 그러하였다. 그에 따라 발해는 760년대 초에 일본이 추진한 신라를 남북에서 협공하려는 침공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일본과의 교섭에서 발해가 추구한 주된 목적은 상업적 이익이었다.

주제어 : 白(村)江口 戰鬪, 周留城, 律令, 隣國, 蕃國, 佛敎文化, 新羅侵攻計劃, 上京, 遷都

序論

7~9세기 한일관계는 당시 양국 역사의 전개에 큰 작용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양국인들의 상대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7~9세기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양국의 학인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 학자들 간에 이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나, 그간 연구에서 소홀하였던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7~9세기 한일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검토할 대상은 다음의 주제들이다.

먼저 663년에 있었던 백(촌)강구 전투를 위시한 백제부흥전쟁을 중심으로 그 전후 시기의 한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한일관계사의 전개과정에서 백제부흥전쟁은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간 일본학계에서 이 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역사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행해져왔지만, 다분히 일본사의 맥락에서만 고찰하였던 면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日本書紀的 관점에 입각한 이해에 치중하였고, 그에 따라 정작 이 전쟁의 당사국인 신라를 부수적인 존재로 보는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개설서나 교과서 등에서 대부분 백강구 전투를 도외시하는데, 이 역시 편향된 역사인식이라 하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백강구 전투를 위시한 백제 부흥전쟁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라가 당과 대립하던 시기의 신라·일본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접적인 무력 상쟁을 벌이던 시기는 물론이고, 676년 이후 신라가 당과 이면적인 대립을 지속하던 시기에, 신·일 관계는 신·당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움직였다. 이 면에 대한 이해는 곧 이 시기 신·일관계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중시하여,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신·일관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 양국관계의 전개 양상과 양국 조정이 상대국에 대해 지녔던 상이한 인식 및 그것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외교적 갈등과 마찰을 일으켜 마침내 8세기 중반 국교 단절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고찰해보려 한다.

7세기에서 8세기에 걸치는 시기에 한반도의 고대국가들과 일본열도의 국가 간에 대립과 상쟁 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행해졌다. 그것은 양국인 간에 깊은 상호 문화적 연대감을 지닐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바이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선 활발히 연구되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홀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율령문화와 불교문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한일 간의 율령문화 교류에 대

한 연구가 그간 자료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쳐 왔는데, 최근 한국에서 木簡 자료가 속속 발굴되어 나와, 이 방면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불교문화의 경우도,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고대 한국인들의 저술이 확인되고 있어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런 면을 활용하여 7~8세기 양측 간 문화교류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마지막으로 8세기 중엽 일본 조정이 세운 신라 침공 계획을 둘러싸고 벌어진 발해와 일본 간의 교섭을 중심으로 해서, 8世紀代 발해와 일본 간의 교섭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기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부족한 면이 많을 줄 안다. 諸賢의 많은 指摘을 바란다.

제1장 三國統一戰爭期 三國과 倭(日本)의 關係

제1절 隋·唐帝國의 膨脹과 高句麗·百濟·新羅·倭의 對應

1. 高句麗·隋 戰爭

隋帝國이 대륙을 제패하자, 기존(5~6세기)의 勢力均衡的인 國際情勢는 무너졌다. 남조의 陳이 멸망하자 고구려는 곧바로 拒守之策을 강구하였다. 이어 契丹, 靺鞨 등의 種族에 대한 支配權을 둘러싸고 高句麗와 隋 간에는 紛爭이 발발하였으며, 598년 兩國 간에 戰端이 열렸다. 그것은 4차례 隋軍의 侵攻으로 구체화되었고, 隋의 敗北로 一段落되었다.

이 시기 百濟는 겉으로는 隋帝國에 呼應하였으나, 실제는 兩端을 보며 中立的 姿勢를 취하였다. 高句麗와 百濟의 壓迫을 받고 있던 新羅는 隋에 請兵하였다. 그러나 實際的인 戰爭 介入은 없었다. 倭國 또한 隋와 通交하고, 自國을 '天子國'으로 自負하기도 했지만, 高·隋戰爭에 실제적인 介入은 하지 않았다. 高句麗는 隋와의 戰爭期間 중 北方의 突厥과의 連結을 圖謀하였으나, 구체적인 成果를 낳지 못하였다. 그 외에 高句麗가 新羅나 百濟 및 倭와 軍事 同盟을 추구한 痕迹은 確認되지 않는다.

隋帝國의 膨脹은 隋의 存立期間이 짧았고, 또 그 軍事力이 遼河 線에서 高句麗에 의해 沮止되었기 때문에, 그 波動이 遼河 以東으로 直接的으로 깊이 波及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7세기 초 이후 新羅에선 縣이 設置되는[1] 등 地方 行政組織의 擴充이 進行되었으

며, 村落社會 內部에까지 中央政府의 支配力이 浸透하여 村落民으로 構成된 法幢軍團이 편성되었다. 新羅의 主要 軍事力인 6停의 하나인 軍師幢이 眞平王 26년(604)에 조직되었다. 軍師幢에선 村主級의 地方 有力者인 軍師가 자신의 影響力 아래에 있는 村落民으로 조직한 部隊를 이끌고 中央官인 軍師幢主의 指揮 하에서 下級 武官으로 복무하였다. 三國 간 抗爭의 激化와 隋帝國의 膨脹에 따른 軍事的 危機 狀況은 人力과 物資에 대한 動員力의 極大化를 要求하였고, 그것은 中央集權化의 進展을 促進시켰다. 百濟에서도 비슷한 狀況을 想定할 수 있겠다.

2. 645年 高句麗와 唐의 戰爭

隋帝國의 滅亡 以後 混亂에 빠진 中國大陸을 唐이 再次 統一한 뒤, 唐 中心의 一元的인 世界秩序 構築을 指向하여 對外的 膨脹을 持續하였다. 唐은 周邊 國家와 種族들을 征服하여 이들의 羈縻州化를 追求하였다.

唐이 628년 突厥의 突利可汗을 擊破하고 蒙古高原을 制壓하자 동부 내몽고 일대의 契丹, 奚 등의 유목민들이 당에 服屬하였다. 고구려의 서북부 국경 일대가 당의 세력 앞에 전면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이에 631년 2월 고구려는 千里長城을 築造하기 始作하였다. 그러자 이 해 7월에 唐은 官人을 파견하여 隋와의 전쟁 뒤 高句麗가 遼西地域에 세웠던 景觀을 파괴하여,[2] 反應을 나타내었다. 이 景觀은 고구려 침공 때 죽은 隋軍의 屍體를 모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은 것으로, 고구려에게는 일종의 戰勝記念物的인 性格을 지닌 것이었다. 물론 唐 朝廷은 이후에도 隋 末의 戰亂으로 죽은 이들의 白骨을 수습하고 唐 領域 내의 各地에 있던 景觀을 없애는 작업을 행하였다.[3] 그런 면에서 요서 지역 景觀의 破壞도 그 일환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요서 지역에 있는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파괴하는 조처는 명백히 고구려에 대한 威脅이며 挑發이었다. 이에 兩國 간에는 緊張이 高潮되었으나, 아직 流動的인 中央아시아 地域의 情勢로 인해 直接的인 衝突은 뒤로 미루어지고, 당과 고구려 간의 不安한 平和가 당분간 維持되었다.

그러던 중 唐은 640년 高昌國을 滅하고 郡縣을 설치한[4] 뒤, 641년 5월 兵部郞中 陳大

1) 金昌錫, 2007 <新羅 縣制의 成立과 機能> ≪韓國古代史硏究≫ 48
2) ≪舊唐書≫ 3, 太宗 貞觀 5년 8월 甲辰
3) ≪唐大詔令集≫ 114, 貞觀 5년 2월, "剗削景觀詔" ; 貞觀 19년 4월, "收葬隋朝征遼軍士骸骨詔" [≪唐大詔令集 卷5(中華文史叢書 1)≫ (華文書局, 臺灣)]

德을 고구려에 派遣하였다. 고창국의 멸망 소식을 접한 고구려의 上下에선 戰爭에 대한 危機意識이 高潮되었고, 對唐 政策을 둘러싸고 貴族 간의 葛藤이 激化되었다. 陳大德의 報告를 받은 唐 太宗은 고구려에 대한 侵攻 意志를 분명히 하였다.[5]

한편 이 해(641) 3월에 百濟에선 義慈王이 卽位하였다. 이어 11월에는 큰 규모의 政變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의자왕은 王權 强化를 도모하였다. 나아가 이듬해인 642년 여름 신라를 공격하여 大耶城 등 40여 성을 빼앗았다. 10월에는 高句麗에서 大規模 流血政變을 통해 淵蓋蘇文이 執權하였다. 이 해 末, 百濟의 攻擊을 받아 窮地에 처한 新羅에서는 金春秋가 平壤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淵蓋蘇文과 金春秋의 평양성 談判은 無爲로 끝났다. 신라의 평화 제의를 연개소문이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집권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외 강경책을 추구하였다. 이는 이후 兩國 關係에서 하나의 分水嶺이 되었다.

643년, 高句麗와 百濟는 協力하여 新羅에 대한 攻擊을 圖謀하였다. 이에 新羅는 唐에 請兵을 거듭하였다. 고구려 침공의 기회를 노리던 唐은 일단 外交的 壓力을 가했으나, 高句麗가 拒否하자 644년 高句麗 攻擊을 위한 動員에 들어갔다. 그리고 645년 2월 新羅와 百濟에 使臣을 보내어 對高句麗戰에 參戰할 것을 促求하며, 참전한 병력은 唐의 海軍 司令官인 大總管 張亮의 指揮를 받을 것을 要求하였다.[6]

대략 20萬 以上으로 算定되는[7] 唐軍은 645년 봄 고구려 침공에서 初盤戰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해 5월 3만의 新羅軍이 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신라군의 北進을 틈타 百濟軍이 東으로 新羅를 攻擊하자, 신라군이 급히 後退하여 歸還하였다.[8] 이제 고구려와 당의 대결에 따른 戰火가 韓半島 內에까지 擴散되었다.

한편 이 해 6월 倭國에서 政變이 일어나, 執權貴族인 蘇我氏 세력이 제거되고, 中大兄王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勢力이 執權하였고, 이어 大化改新이 단행되었다. 이 政變에는 蘇我氏 세력의 專橫이라는 對內的 要素 외에도, 高句麗와 唐 간의 戰爭에 따른 緊迫한 國際情勢와 渡唐留學生을 통한 새로운 文物에 대한 知識이, 倭國 朝廷의 上下에게 새로운 變化를 追求하는 改革의 必要性을 切感케 하는 要素로 作用하였던 것 같다.

요동 전선은 安市城 郊外의 會戰에서 唐軍이 大勝을 거두고, 安市城 包圍戰이 시작되

4) ≪資治通鑑≫ 195, 唐 太宗 貞觀 14년 9월조
5) ≪資治通鑑≫ 195 唐 太宗 貞觀 15년 8월 己亥
6) ≪文館詞林≫ 364, "貞觀中撫慰百濟王詔", "貞觀中撫慰新羅王詔"
7) 盧泰敦, 2009 ≪三國統一戰爭史≫ (서울대학교출판부) 82, 94
8) ≪三國史記≫ 新羅本紀 善德王 14년 5월

었다. 그러나 안시성을 둘러싼 공방전은 長期化되었고, 그와 함께 점차 高句麗軍의 戰列이 再整備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서 가을철이 깊어지고, 북방의 遊牧民 國家인 薛延陀와 高句麗 간의 同盟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具體化되자,[9] 唐軍은 마침내 9월 말 撤收하였다.

3. 新羅·唐 同盟 對 高句麗·百濟·倭 連繫의 形成

(1) 戰後 各國의 動向

①高句麗

對唐 防禦에 對外關係의 焦點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唐을 側面에서 威脅할 수 있는 勢力과의 同盟을 摸索하였는데, 몽골고원의 유목민 집단이 당에 굴복함에 따라 더 서쪽으로 나가 교섭 대상을 찾았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시 교외에 있는 아프라시앞 宮殿遺跡에서 발견된 宮殿 壁畵에 그려져 있는 高句麗人으로 여겨지는 두 명의 鳥羽冠을 쓴 使節의 모습은[10] 그러한 고구려 조정의 切迫한 努力의 한 證據이다. 그리고 645년 敗戰以後 唐의 勢力이 萎縮됨을 이용해 다시 遼河 上流地域으로 세력을 뻗치어, 契丹族을 둘러싸고 唐과 角逐을 벌였고,[11] 한편으로는 新羅를 牽制하기 위해 百濟와의 結束을 强化하고, 倭國과의 交流에 힘을 쏟았다.

②唐

646년 薛延陀를 攻擊하여 服屬시킨 뒤, 고구려에 대해 小規模 兵力을 수시로 投入하여 치고 빠지는 長期 消耗戰을 진행하여 高句麗를 疲弊하게 할 것을 도모하였다. 그런 뒤 다시 高句麗를 大規模 侵攻하는 방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唐軍이 지닌 긴 補給線의 弱點을 補完하고 高句麗의 防禦力을 分散시키기 위해, 高句麗 南部에 第2戰線을 構築하

---

9) ≪新唐書≫ 高麗傳

10) L. I. Alibaum, 1975 *Zivopisi Afraciaba*, Tashikent, 75 ;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シヤブ都城址出土壁畵に見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80 ; 金元龍, 1976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앞 宮殿壁畵의 使節圖> ≪考古美術≫ 129·130 ; 1984 <古代韓國과 西域> ≪美術資料≫ 34 ; 박진욱, 1988 <쏘련 싸마르깐드 아흐라샤브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년 3기 ; 노태돈, 1989 <高句驪·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涉에 관한 硏究> ≪大東文化硏究≫ 23 ;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재수록.

11) ≪舊唐書≫ 77, 韋挺 子 待價傳 ; 盧泰敦 ≪위 책≫ 118~119

는 것에 留意하였다. 따라서 자연히 新羅의 戰略的 位置에 새삼 注目하게 되었다.

③百濟

高句麗·唐 戰爭에서 實際 行動으로 高句麗를 지원하였다. 唐과 高句麗의 戰爭은, 隋와 高句麗의 戰爭이 그러하였듯, 後者에 勝算이 있다고 判斷하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645년 戰爭의 結果가 그러하였던 만큼,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確信하고, 戰後에도 해를 이어 新羅를 공격하였으며, 高句麗 및 倭와의, 특히 후자와의 友好關係 維持에 注力하였다.[12] 하지만 唐과의 關係 破綻은 피하려 하여, 表面的으로는 朝貢 關係를 維持하였다. 그러나 이미 對外政策의 基本 方向을 百濟는 選擇하였으며, 그 점을 新羅와 唐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신라와 당의 對應만 남아있는 狀況이 되었다.

④新羅

唐의 東進이 沮止된 상황에서 신라는 高句麗와 百濟의 挾攻에 시달리는 형편이었으며, 百濟와 連結된 倭의 動向도 憂慮의 對象이었다. 아울러 신라 내부에선 645년 전쟁에 직접 참전하였다가 실패로 끝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조정 내에서 있었던 것 같고,[13] 後嗣가 없는 여왕의 후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어 646년 9월 왜국이 高向玄里를 신라에 파견하여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質'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안팎의 난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647년 正初, 首都에서 '女主不能善理'를 내세운 毘曇의 亂이 勃發하였다. 亂은 貴族會議 勢力 對 金春秋·金庾信 勢力의 對決로, 後者의 勝利로 종결되었다. 새로 옹립된 眞德女王 하에서 金春秋·金庾信 勢力이 政局의 主導權을 잡았고, 이후 中央集權化가 급속히 推進되었다. 對內的인 問題가 한 단락이 지워진 후, 對外的 危機 局面을 打開하기 위해, 倭國의 要請에 應해 647년 金春秋가 倭國에 파견되었다. 兩國 간의 關係 改善을 追求하고, 倭와 唐 간의 通交를 위한 新羅의 仲介 役割도 論議되었는 듯하다.[14] 金春秋로선 倭國을 親新羅·唐으로 旋回할 수 있도록 努力하였을

12)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13년 8월조에 "王與倭國通好"라 한 것은 그런 면을 나타낸다.
13) 선덕여왕 14년(645) 11월 水品을 교체하여 비담을 상대등으로 삼은 것은 이 해 5월에 행한 고구려 공격의 실패에 대한 귀족층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여겨진다(≪三國史記≫ 5, 선덕여왕 14년 11월조). 朱甫暾, 1993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 內政> ≪韓國學論集≫ 20
14) ≪舊唐書≫ 倭傳. 648년 신라 사신이 3차례 당에 파견되었는데, 그 중 한 사신을 통해 倭國이 唐에 國書를 전달하였다(附新羅奉表 以通起居). 이런 일이 前年 왜국을 방문하였던 金春秋와 倭國 關係者 간에 論議되었을 수 있다. 적어도 新羅가 積極的으로 唐과 倭國 간의 關係改善에 一定한 役割을 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다.

것이다. 그러나 양국 간의 협의는 별다른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648년 金春秋는 새로운 突破口를 찾기 위해 唐으로 건너 갔다.

⑤倭國

645년 이후 改新政權은 對外政策에서 새로운 摸索을 하였다. 新政權이 親百濟的이었던 蘇我氏 勢力을 打倒하고 執權하였으며, 渡唐留學生 출신으로서 新羅를 거쳐 歸國하였던 高向玄理와 僧 旻 등이 國博士가 되어 改新政權의 브레인으로 參與하였던 사실 등은 政策 方向을 둘러싸고 새로운 摸索을 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이 되었다. 이런 摸索의 一環으로 646년 9월 新羅에 高向玄理를 派遣하여 '質'의, 사실은 高位 貴族의 派遣을 要請하였다. 그에 응해 647년 金春秋가 渡倭하였다.[15] 이 때 양국관계와 그리고 唐과 倭의 國交 再開 등을 포함한 여러 懸案을 둘러싼 意見交換이 있었던 같다. 특히 後者에 대해 新羅의 役割이 論議되었던 것 같다. 이는 648년 唐에 파견된 新羅使를 통해 倭의 國書가 傳達된 사실, 金春秋를 이어 649년 倭에 金多遂가 派遣되었던 事實 등을 통해서 推測할 수 있는 바이다. 金多遂는 644년 唐에 使臣으로 派遣되었다가, 新羅의 對高句麗戰 參戰을 要求하는 唐太宗의 璽書를 받아 歸國하였던 일이 있다. 이 시점에 新羅와 唐의 對外關係에 깊은 理解를 지녔을 수 있는 金多遂를 倭國에 派遣한 것은 곧 倭國을 新羅－唐 路線에 끌어들이려는 신라의 意圖를 담은 措處였다.

아무튼 倭國은 653년과 654년 唐에 使臣을 파견하였다. 654년의 경우 新羅道를 통해 派遣되었다. 이 654년의 遣唐使가 귀국하는 편에 新羅를 支援하라는 唐 高宗의 詔書를 받았다. 그러나 倭國은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았다. 改新政權은 對外政策에서 새로운 摸索을 하였지만, 급격한 政策 變化를 나타내지 않았다. 新羅와 百濟 중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左袒하지 않고, 兩國이 倭國을 大國으로 여겨 서로 競爭的으로 倭國과 交流하려는 것을[16] 보며, 情勢를 觀望하는 姿勢를 持續하였다.

(2) 新羅·唐의 軍事同盟 成立

①唐

649년 唐 太宗 李世民이 죽음으로써, 그가 계획하였던 高句麗 遠征 計劃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唐의 東北方 政策의 最大 目標가 高句麗의 滅亡임은 여전하였다. 그런데 長期

15) ≪日本書紀≫ 25, 孝德紀 大化 2년 9월조, 3년 是歲條
16) ≪隋書≫ 倭國傳

戰이 要望되는 대고구려전의 遂行을 위해선 두 가지 條件의 解決이 必要하였다. 하나는 西方 中央아시아 地域에서 唐의 支配力 確立이고, 다른 하나는 東北方에서 高句麗에 대한 挾攻과 軍糧 조달을 해줄 수 있는 同盟勢力의 確保였다. 唐 太宗은 죽기 전 해에 당에 온 金春秋와 만나 논의하여, 新羅와 具體的인 軍事同盟을 맺었다. 이는 唐 高宗에 의해서 繼承되었다. 對高句麗戰에서 新羅의 積極的인 參與와 活動을 위해서, 新羅軍의 움직임을 牽制하는 百濟의 滅亡을 먼저 도모한다는데 양국이 同意하였던 같다. 아울러 新羅의 背後에 있는 倭를 牽制할 必要性이 있었다. 新羅가 倭와의 關係를 改善하려는 努力을 繼續한 것이나, 654년 唐 高宗이 倭의 사신 편에 보낸 詔書에서 新羅를 支援할 것을 要求한 것은 그러한 면을 나타낸다. 이런 가운데서 蘇定方이 이끈 唐軍이 657년에서 659년 사이 中央아시아 方面에서 西突厥을 완전 制壓하였다.[17] 이에 당은 660년 蘇定方을 司令官으로 百濟 侵攻을 敢行하였다.

②新羅

648년 金春秋가 唐으로 건너가 李世民과 新·唐 軍事同盟을 맺었다. 이후 新羅는 기존의 獨自的인 年號를 폐지하고 唐의 年號를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官服도 당의 것을 채택하는 등 급속한 親唐 政策을 推進하였다. 한편 650년에서 656년까지 新羅는 每年 倭國에 使臣을 派遣하여, 關係改善을 追求하였으며, 倭를 新羅－唐 軸으로 끌어들이려 努力하였다. 하지만 倭國의 反應이 여의치 않자, 651년에는 唐式의 官服을 입은 新羅 使臣을 倭國에 파견하여, 唐과 新羅의 結束을 誇示하는 衝擊 療法을 驅使해 倭國과의 關係에 突破口를 마련하려는 試圖를 하기도 하였다.[18] 653년에는 倭國이 제2차 遣唐使를 파견하였으며, 654년에는 제3차 遣唐使를 派遣하였다. 後者는 新羅道를 거쳐 산동반도의 萊州로 건너갔다. 즉 신라의 協助를 얻어 파견한 것이다. 이는 倭와 關係改善을 하려는 新羅의 政策的 意圖와 無關한 것은 아닐 것이다.[19]

그러나 倭와의 關係進展을 더 이상 期待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이상의 교접 시도는 對百濟戰 準備에 沮害가 될 수 있다고 判斷함에 따라, 신라는 657년 倭의 遣唐使와 留學生이 新羅를 거쳐 唐으로 가려는 것을 되돌려 보냄으로써, 倭와의 關係를 사실상 斷切하는 措處를 취하였다.

---

17) ≪舊唐書≫ 83, 蘇定方傳
18) ≪日本書紀≫ 25, 白雉 2년 是歲條
19) 井上光貞, 1973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歷史 2≫ (岩波書店)

③百濟

651년 唐 高宗이 百濟 使臣에게 新羅와의 友好關係를 당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당이 直接 介入할 것임을 通報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이에 대한 拒否意思를 表明하였다. 百濟는 652년을 끝으로 이후 唐에 대한 使臣 派遣을 中斷하였으며, 반면에 650년부터 656년까지 每年 倭에 使臣을 派遣하여 倭와의 關係에 크게 依存하는 政策을 취하였다.[20] 즉 高句麗－百濟－倭를 連結하는 協力 路線을 표명하였다. 당이 공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想像力 貧困으로 海路를 통한 侵攻 可能性에 대한 별다른 對應策을 講究치 않았다.

④倭國

大化改新 이후에도 旣存의 百濟와의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新羅와의 關係를 維持하였고 唐과의 關係 改善도 도모하였다. 651년 唐服을 着用한 新羅使臣에 대해 接見을 拒否하고 激한 反應을 보였지만, 倭는 분명하게 新羅－唐 軸과 高句麗-百濟 軸 중 어느 한편에 左袒하려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堅持하였다. 이는 實際에 있어선 後者에 기울어져 왔던 旣存의 立場을 維持한 것이 되었다. 659년 唐에 파견된 倭國使가 歸國하려 하자, 機密 漏泄을 우려한 唐이 이들을 對百濟戰이 終結될 때까지 抑留하는 狀況이 일어났음에서 보듯, 왜국은 상대적으로 國際情勢에 無心한 면을 露出하였다.

제2절 百濟의 滅亡과 百濟復興戰爭

1. 百濟의 滅亡

660년 7월 新羅·唐 동맹군은 水陸 兩面으로 百濟를 공격하여, 단기간의 전투 끝에 泗沘城과 熊津城을 陷落하고, 백제를 멸망시켰다. 곧 이어 9월 초, 당군 1만과 신라군 7천을 주둔시키고, 양군의 주력은 백제로부터 철수하였다. 수도권이 공략되었지만, 그 외 지역의 百濟 軍事力量은 保存되어 있어, 泗沘城 陷落 直後부터 각지에서 百濟復興運動이 전개되었다. 초기의 유력한 움직임은 任存城(忠南 禮山 大興山城)을 중심으로 한 抵抗이었다. 당군과 신라군은 수차례 이들 百濟復興軍을 공격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점차

20) 註 12)와 同

각지의 부흥운동 세력이 연합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중심 인물로 福信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복신은 660년 10월 왜국에 청병하고, 扶餘豊을 王으로 擁立하려 한다며 그의 歸還을 要請하였다. 이에 왜국은 백제부흥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한편 당과 신라는 百濟復興運動에 대해 적극적인 對應을 하지 않은 채, 백제를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高句麗 攻滅戰에 착수하였다. 당은 660년 12월 高句麗 遠征을 선언하고, 661년 1월부터 動員에 들어갔다.

한편 고구려는 658~9년에 걸친 唐의 요동 방면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견제로, 660년에 있었던 신·당군에 의한 百濟 攻滅戰에 별다른 對應을 하지 못하였다.[21] 이어 661년 唐軍은 百濟攻略戰처럼 水陸 兩 方面으로 대거 高句麗 侵攻을 감행하였고, 신라군 역시 이에 동참하였다. 이 전쟁은 662년까지 전개되었다. 자연 신라군과 당군은 백제부흥군을 공략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백제부흥군은 軍事的·時間的 餘裕를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唐의 駐留軍과 新羅軍의 攻擊을 沮止하면서 錦江 以南 地域으로 세력을 擴大하였다. 倭國은 高句麗를 支援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하였으나[22] 實際的 介入은 못하였고, 百濟復興軍 지원에 集中하였다.

2. 周留城 攻略戰과 白江口 戰鬪

백제부흥군은 661년 3월 경 周留城으로 중심지를 옮겼으며,[23] 당의 駐屯軍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였다. 그리고 661년 9월 扶餘豊이 귀국하여 백제왕위에 취임하였고, 이 때 倭軍 5千이 그를 옹위하여 백제에 도착하였다. 왜국은 662년 정월 다량의 화살 등 물자를 지원하였다. 이어 扶餘豊은 중심지를 周留城에서 금강 남쪽의 避城(全北 金提)으로 옮겼다. 避城은 平野地帶로, 이곳으로의 遷都는 長期的으로는 부흥군 세력 기반의 확대에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防禦에 脆弱한 점이 지적되어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21) 高句麗軍이 660년 11월 1일 臨津江 기슭 新羅 七重城에 대한 공격을 하였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武烈王 7年 11月 1日) 이는 때늦은 대응이라 하겠는데, 658~9년에 걸친 당군의 요동 공격으로, 당의 진정한 군사적 의도를 파악치 못한 채 방어책에 치중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 전투 역시 단기적인 것이었고, 이어 당군의 대규모 침공으로 南顧할 여력이 없었다.

22) ≪日本書紀≫ 27, 天智 元年 3월조

23) 복신은 661년 3월에 있었던 신라군의 주류성 공격을 격퇴하였고, 그 세력을 금강 남쪽으로 확대하였다. 이 무렵에 중심지를 주류성에 두었던 것 같다.
≪三國史記≫ 文武王 11년조, '答薛仁貴書' "熊津請兵 日夕相繼 新羅多有疫病 不可徵發兵馬 苦請難違 遂發兵衆 往圍周留城 賊知兵小 遂卽來打 大損兵馬 失利而歸 南方諸城 一時總叛 幷屬福."

그러나 이를 강행하였는데, 그 후 新羅軍이 인근까지 壓迫을 가해오자, 백제부흥군은 다시 周留城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정치적 기반을 달리하였던 扶餘豊과 福信 간의 軋轢과 對立이 심해졌다.[24]

백제부흥군은 신라군의 공세에 직면하자 倭國에 援兵을 要請하였고, 倭國은 663년 3월 2차 원병으로 2萬 7千을 派遣하여 新羅를 攻擊케 하였다. 악화되는 주변 상황 속에서 福信과 扶餘豊 간의 葛藤이 激化되어, 이 해 6월 마침내 扶餘豊이 福信을 處刑하는 사태에 이르렀다.[25] 이런 상황 전개는 復興軍 내부의 결속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런 百濟復興軍의 內紛을 포착한 신라군과 당군은 이를 好機로 삼아 攻勢를 展開하였다.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扶餘豊은 高句麗와 倭國에 救援을 要請하였다.

이 때 熊津城에 주둔하고 있던 唐軍은 孫仁師가 이끄는 7천명의 支援軍을 맞이하여 사기가 한껏 올랐다. 孫仁師의 부대는 山東 海岸地域 出身이며, 다수가 海軍으로 여겨진다. 신라의 문무왕이 28명의 將帥와 大兵을 이끌고 熊津城에 合流하였다. 웅진성에서 열린 戰略會議에서 周留城을 향해 두 방향으로 進軍하기로 하였다. 陸軍은 周留城으로 향하는 進擊路上에 있는 험준한 加林城(忠南 扶餘郡 臨川面 聖興山城)은 건너뛰고 周留城을 直攻하기로 하고, 海軍은 熊津(江)에서 江을 따라 내려가 白江口로 가 그곳에서 陸軍과 만나기로 하였다. 陸軍이 主力이고 이를 海軍이 補助하는 形勢였다. 그 점은 양 방면군의 將領의 構成에서도 確認된다. 陸軍의 指揮部는 文武王과 新羅 將帥들 그리고 당시 百濟 駐屯 唐軍 司令官인 劉仁願과 孫仁師 등이고, 海軍의 그것은 劉仁軌와 杜爽·扶餘隆 등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劉仁軌는 당의 추가 지원군 사령관인 熊津道 行軍總管 孫仁師 휘하 幕府의 參謀인 行軍長史였으며, 杜爽도 휘하의 別將이었다.[26] 육군은 신라군이 중

---

24) 避城 遷都를 왜국의 지원에 세력 근거를 두었던 부여풍이 주도하였다고 보지 않고, 土着 基盤을 지니고 있던 복신이 長期的인 觀點에서 세력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 주도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鈴木英夫, 1997 <百濟復興運動と倭王權－鬼室福信斬首の背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그러나 扶餘豊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日本書紀≫ 天智 元年 12月의 기사가 전해주는 바에 따라 부여풍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여풍이 백제부흥운동 초기부터 복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주류성 등 금강 이북 지역에서 벗어나, 금강 이남 지역에 새로운 근거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5) ≪日本書紀≫ 天智 2년 6월

26) 劉仁軌가 그 뒤 크게 出世하여 ≪新·舊唐書≫에 立傳되어 있으나,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劉仁軌에 관한 기록 중에는 여러 곳에서 불확실한 점이 보인다. 그 점과 그와 劉仁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拜根興, 2003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52~160 참조. 백제부흥군을 진압한 뒤 세워진 것이 "劉仁願 紀功碑"였다는 사실은 당시 당군의 總帥가 劉仁願이었음을 말해준다.

심이었고, 해군은 당군이 주력이었다. 海軍은 白江 河口로 陸軍에 소요되는 軍糧을 運送하고, 白江口를 방어하여 바다에서 오는 援兵(倭兵)을 沮止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듯하다.

陸軍은 먼저 豆良尹城(忠南 靑陽郡 定山面 鷄峯山城)을 攻略한 뒤, 8월 13일 周留城에 도착하였다. 마침 倭의 支援軍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여풍은 일부 倭軍과 復興軍을 끌고 8월 13일 白江口 方面으로 이를 맞이하러 갔다.[27] 倭의 支援軍과 합류하여 周留城을 공격하는 新·唐軍을 안팎에서 협공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最惡의 경우 退路를 確保하려는 意圖도 있었을 것이다. 이어 新·唐軍이 17일 周留城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白江口에 8월 17일 唐의 海軍이 도착하여 陣을 치고 대기하였다. 8월 27일에 倭의 海軍이 도착하였다. 兩側 사이 交戰의 序章은 강 기슭에서 百濟復興軍의 騎兵과 新羅 騎兵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윽고 이들간에 걸쳐 唐과 倭의 海軍 사이에 戰鬪가 전개되었다. 전투는 倭軍의 敗北로 끝났고, 扶餘豊은 高句麗로 달아났다.

白江口 戰鬪의 結果는 戰艦의 性能과 戰術 등에서 보인 兩側 간의 軍事力量의 差異인[28] 동시에, 兩側 執權體制의 成熟度 差異가 反影되었다는 解析이 一般的이다.[29] 단, 당시 倭軍 兵士의 出身地域이 廣範圍하여 將帥와 兵士의 出身地가 一致하지 않은 사실이라든가,[30] 倭軍의 '前·中·後軍'體制가 普遍的인 軍隊編制 樣式이라는 점과 '大將軍'의 存在를 전하는 記錄 등을 重視하여야 한다는 指摘이 있다. 즉 倭軍의 性格이 지방 유력자의 휘하 軍事力을 糾合해 臨時的으로 編成한 軍隊로서 上下 指揮體系가 確立되어있지 않았다는 解析은 結果論的인 것에 불과하다는 批判이다. 이런 점은 앞으로 더 檢討의 餘地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왜국이 아직 律令에 입각한 國家體制가 成立되기 전이었다는 점은 留念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白江口戰鬪에 대해 한번쯤 考慮하여야 할 점은 이 戰鬪가 지닌 比重과 그 意義에 대한 理解이다. 백강구전투의 의의를 당시 東아시아 國際情勢를 판가름하는 決定的인 會戰이었다고 이해하려는 시각은 지나친 誇張이라는 사실이다. 이 戰鬪의 主力이 唐軍과 倭軍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意識하여, 마치 뒷날 壬辰倭亂이나 淸日戰爭과 대비하여 古代

27) ≪日本書紀≫ 天智 2年 8월 甲午

28) 卞麟錫, 1994 ≪白江口戰爭과 百濟·倭 關係≫ (한울) 170~185

29) 八木充, 1970 <百濟の役と民衆> ≪國史論集≫ (小葉田淳教授退官紀念會出版) ; 鬼頭淸明, 1976 <白村江の戰いと律令制の成立> ≪古代日本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58~171 ; 森公章, 1998 ≪「白村江」以後≫ (講談社) 149~152

30) 森公章, 1992 <朝鮮半島をめぐる唐と倭－白村江 會戰前夜> ≪古代を考える 唐と日本≫ (吉川弘文館)

中國勢力과 日本勢力이 韓半島에서 雌雄을 決한 戰鬪인 것처럼 認識하려는 것은 實相과 符合하지 않는다. 물론 이 전투가 百濟復興戰爭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그리고 이를 고비로 倭의 勢力이 韓半島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니, 이는 古代 韓日關係史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 이 戰鬪에서의 敗北 以後 日本은 中央集權的 國家體制인 '律令體制'를 形成하였던 만큼, 이 戰鬪가 日本史의 展開에 한 단락을 짓는 契機가 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런 면에서 백강구 전투가 지니는 歷史的 意味는 重視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투는 당의 입장에선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투는 아니었으며,[31] 新羅에게도 주된 戰鬪는 아니었다. 戰鬪 規模도 양측 모두 실제 동원한 병력이 각각 萬 數千名 線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다. 무엇보다 이 해에 벌어진 百濟復興戰爭의 主 戰場이 周留城攻略戰이었다는 사실과 新羅軍의 存在를 忽視하게 되고, 나아가 新羅는 被動的인 存在로 把握하는 歷史 이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그 뒤의 歷史 展開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포위된 周留城은 백강구 전투의 결과가 알려진 후, 9월 7일 降服하였다. 아직 任存城이 저항을 계속하였지만, 이로써 백제부흥전쟁은 사실상 終結되었다.

3. 百濟復興戰爭 以後 各國의 動向

唐의 東方政策의 最優先 課題는 高句麗攻略이었다. 唐은 이를 위해 百濟地域에 대한 安定的인 支配權 確立에 注力하였다. 熊津都督府는 안으로는 戰後 復舊策을 통해 百濟遺民들을 懷柔하여 安定시키려 노력하였으며, 밖으로는 新羅 勢力의 浸透를 沮止하기 위해 新羅王과 熊津都督 扶餘隆의 會盟을 强要하여 實行하였다. 그리고 倭國과 몇 차례 交涉을 試圖하였는데, 이는 倭國을 唐의 勢力 하로 끌어들이려는 목적과 함께 新羅에 대한 牽制策이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 新羅와 唐 간에는 戰後 百濟 地域의 支配權을 둘러싸고 葛藤이 內燃하였다. 신라는 唐과 倭의 交通에도 疑惑의 눈길을 보냈으나, 이 모든 것을 對高句麗戰 以後로 미루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倭國에선 新羅軍과 唐軍의 日本列島 侵攻 可能性에 대한 憂慮가 高潮되어, 그 對備策에 腐心하였다. 百濟 遺民들의 助力을 받아 이른바 朝鮮式山城을 西部 日本 各地에

31) 韋蘭春, 2000 <'白村江の戰'と戰後の唐·日關係>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 85

築城하였던 것도 그 一環이었다. 唐의 交涉 試圖에 대해서 왜국은 이에 消極的으로 對應하되, 唐을 刺戟하려 하지 않으면서 情勢의 推移를 注視하는 愼重한 姿勢를 堅持하였다.

高句麗는 백제의 멸망으로 그 戰略的 位置가 크게 弱化되었다. 이런 상황에 처해, 淵蓋蘇文은 後繼 構圖를 具體化하는 作業을 서둘렀다. 그는 일찍부터 아들들에게 兄系 官等를 授與하였는데, 당시 地方長官이나 軍의 各級 部隊長은 兄系 官等을 지닌 이들이 就任하였다. 즉 아들들에게 일찍부터 單位 機關이나 部隊의 指揮官職을 歷任케 하였던 것이다.[32] 그의 長子인 男生은 15세에 中裏小兄, 18세에 中裏大兄, 23세에 中裏位頭大兄, 그 이듬해에 將軍職을 받았으며, 28세에(661년) 莫離支 三軍大將軍, 32세(665년, 寶藏王 24년)에 太莫離支가 되어 軍國의 機務를 總括하였다.[33] 그가 莫離支 三軍大將軍이 된 해가 백제 멸망 이듬해인 661년이었다. 이 해에 연개소문은 男生에게 사실상 軍事權을 대폭 移讓하였던 것이다. 男生은 實際 이 해에 있었던 唐軍의 侵攻에 맞서 鴨綠江 防禦戰을 主導하였다. 그런데 男生의 동생인 男產도 15세에 小兄을 제수받았으며, 18세에 大兄을, 21세에 中裏大活, 23세에 位頭大兄을 받은 뒤 陞差하여 中軍主活을 역임하였고, 30세에 太大莫離支가 되었다.[34] 그가 歷任한 中裏大活과 中軍主活은 具體的인 性格을 알 수 없으나, 官等이 아니라 官職으로 여겨진다. 그 역시 軍權을 分占하였던 것이다. 墓誌銘이 전해지지 않는 男建의 경우도 비슷한 過程을 거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연개소문은 아들들에게 軍權을 나누어 주어 자신의 死後 安定的인 權力承繼가 이루어지도록 企圖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內紛을 觸發하는 要素가 되었다.

제3절 高句麗 滅亡

666년 兄弟 간의 權力鬪爭에서 밀려난 男生이 國內城을 근거로 하여 唐에 投降하였다. 絶好의 機會를 포착한 唐은 大兵을 동원하여 高句麗를 侵攻하였다. 오랜 戰亂으로 疲弊해진 狀態에서 最高指揮部에서 일어난 內紛과 投降은 高句麗의 抵抗力을 크게 弱化시키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高句麗는 倭國에 사신을 보내[35] 아마도 請兵을 하였던 듯 하나, 倭國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唐軍에 軍需品을 공급하며 助戰하던 신라는 668년 최종

32) 盧泰敦, 1999 ≪앞 책≫ 476~8
33) 朴漢濟, 1992 <泉男生墓誌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 493~494
34) 朴漢濟, 1992 <泉男產墓誌銘> ≪위 책≫ 529
35) ≪日本書紀≫ 27, 天智 5년 정월, 7년 7월

적인 平壤城 攻略戰에 文武王이 직접 대군을 끌고 參戰하였다. 이 때 金庾信은 首都에 머물며 後方의 業務를 總括하였다. 마침내 668년 9월 초 平壤城이 陷落되었다.

제4절 新羅·唐 戰爭과 新羅·倭(日本) 關係

1. 新羅·倭 國交 再開와 新羅·唐 開戰

668년 9월 12일 新羅使 金東巖이 倭國에 도착하였다. 이 해는 657년 兩國 간의 國交가 斷切된지 11년 만이며, 平壤城이 陷落되기 直前이었다.[36]

新羅 朝廷이 金東巖을 倭國에 派遣한 것은 눈앞에 다가온 고구려 멸망 이후 必然的으로 치루어야 할 唐과의 戰爭에 對備키 위해, 背後의 安全을 圖謀하려는 事前 措處였다.[37] 新羅 朝廷은 倭國과의 和解와 國交 再開를 희망하였던 것 같고, 고구려 멸망 후 豫想할 수 있는 新·唐軍의 侵攻을 憂慮하던 倭의 朝廷은 이 提議에 友好的인 반응을 보였다. 新羅使를 歡待한 것이나, 倭王 天智와 重臣 中臣鎌足이 文武王과 金庾信에게 각각 배 1隻을 선물하는 등의 反應은 그러한 면을 말해준다. 이 이후 兩國 關係는 급속히 好轉되었다.

이러한 조처가 있은 뒤 신라 조정은 669년 5월 이전에 唐과 開戰하였다. 670년 3월 新羅軍과 高句麗遺民軍의 聯合軍이 鴨綠江 넘어 遼東地域에 共同作戰을 벌였으며, 唐軍이 遼東方面에서의 戰鬪에 注力하는 동안 文武王이 직접 이끈 新羅軍의 主力은 옛 百濟地域의 唐軍에 대한 全面的인 攻擊을 敢行하여 이를 制壓하고, 672년 泗沘城에 所夫里州를 設置하였다. 이에 앞서 670년 寶藏王의 사위이고 淵淨土의 아들인 安勝이 이끈 高句麗遺民集團을 金馬渚에 安置시키고, 安勝을 高句麗王으로 封하였다. 일단 開戰한 뒤, 新羅는 政治·軍事的인 면에서 성공적으로 緖戰을 장식하였다. 그렇게 전쟁이 진행된 데에는 唐이 吐蕃과의 전쟁에 주력하여야 하는 周邊 狀況이 일정하게 작용하였다.[38]

---

36) 9월 12일은 ≪三國史記≫에 따르면 평양성이 함락되기 9일 전이며, ≪資治通鑑≫에 의하면 陷落 當日이다.

37) 松田好弘, 1980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 ; 直木孝次郎, 1985 <近江朝末年における日唐關係の一考察－唐使郭務悰の渡來を中心に－> ≪末永先生米壽紀念獻呈論文集≫ ; 鄭孝雲, 1993 <天智朝 對外關係에 대한 一考察－백강구전후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14 ; 金恩淑, 1996 <百濟復興運動 以後 天智朝의 國際關係> ≪日本學≫ 15 ; 盧泰敦, 1997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事≫ 34

이 무렵 倭國은 669년 末 唐에, 그리고 670년 9월에는 新羅에 各各 使臣을 파견하여, 高句麗 滅亡 以後 唐의 對外政策과 新·唐 戰爭의 狀況 등 새로운 情勢의 把握에 주력하였다. 한편 孤立無援에 빠진 熊津都督府는 活路를 찾기 위해 日本[39]과의 交涉에 힘을 기울여 그 軍援을 얻으려 노력하였다. 671년에는 唐人 官吏를 파견하였을 뿐 아니라, 휘하의 百濟 遺民集團으로 하여금 日本에 使臣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新·唐 戰爭의 進行 狀況을 알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唐에 協力하여 新羅와의 戰爭에 介入할 意思는 없었다. 그렇다고 唐에 敵對的인 態度를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671년 11월 唐人 郭務悰이 이끈 600여명과 百濟人 沙宅孫登 외 1400명 등 2000여명을 태운 대규모 船團이 日本에 왔다. 이들 중 沙宅孫等 외 1400여명은 白江口 戰鬪 때 捕虜가 된 日本人과 百濟人으로 여겨지며,[40] 이들을 送還하는 대신 軍事援助를 獲得하려는 企圖였던 것 같다. 이 때 마침 天智王이 죽고 繼承紛爭(壬申의 亂)을 거쳐 天武가 즉위하는 王位交替期여서, 해결에 시간을 끌다가 이듬해 일본 조정은 兵力이 아닌 軍需物資를 支給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그러면서 이 해 일본을 방문한 新羅使에게 배 1隻을 주어, 신라에 대한 일본의 우호적 입장을 표시하였다. 郭務悰 一行이 돌아간 이후, 702년 再次 遣唐使를 파견할 때까지 日本과 唐 간의 交涉은 杜絶되었다.

한편 671년에 高句麗使가 日本을 방문하였다. 이 高句麗使는 金馬渚에 있는 安勝의 高

38) 陳寅恪, 1944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考≫ (1982, 上海古籍出版社) ; 黃約瑟, 1997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 徐榮教, 2002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

39) 왜가 국호를 일본으로 정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그간 논의가 분분하였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문무왕 10년 12월조에서, "이 때 처음으로 倭에서 日本으로 국호가 변경하였다. 해가 솟아오르는 곳에 근접해 있어 그렇게 이름 지었다(自言近日所出 以爲名)" 하였다. 만약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이 해 9월에 신라에 파견된 일본 사신 阿曇連頰垂를 통해 국호 변경이 신라에 알려졌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사가 ≪新唐書≫ 日本傳의 기사와 일치하여, 그것을 전재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秦政明, 2000 <『三國史記』倭國更號日本の史料批判> ≪日本書紀研究≫ 23). 사실 위의 ≪三國史記≫ 기사는 ≪新唐書≫ 일본전의 기사를 전재한 듯하다. 그런데 왜 ≪三國史記≫ 찬자가 이 기사를 하필이면 문무왕 10년 12월조에 轉載하였을까? 표현 字句는 ≪新唐書≫의 그것을 전재하였지만, 이 기사를 문무왕 10년 12월조에 기술한 것은 신라 자체의 전승에 그 해에 무엇인가 이와 연관되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를 압축해서 기술하는데 ≪新唐書≫ 일본전의 기사를 援用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이러한 추정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만큼, 670년에 국호개정이 있었다고 단정키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선 잠정적으로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라 670년 12월 이전의 경우는 倭로, 이 이후는 일본으로 표기하겠다. 그리고 천황 칭호의 경우도 그 사용 시점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天武 이후부터는 천황 칭호로 표기하고 그 이전은 왕이라 기술한다.

40) 松田好弘, <앞 논문> ; 直木孝次郎, <앞 논문>

句麗였다. 新羅의 慫慂과 支援下에 이루어진 使臣 派遣이었다. 이 이후에도 金馬渚의 고구려국에서 일본으로의 사신 파견은 680년대 초까지 행해졌다. 唐과 新羅는 日本의 向方에 神經을 곤두세우고, 각각 百濟遺民과 高句麗遺民을 동원하여 日本을 자기편에 有利한 쪽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新·唐 간의 開戰으로, 白江口 戰鬪 이후 계속되던 安保 危機에서 벗어난 日本 朝廷으로선 어느 편에 가담하여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情勢를 觀望하는 姿勢를 堅持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대내적으로 中央集權의 强化와 體制整備에 拍車를 가하였다.

2. 新羅·唐 戰爭의 推移와 新羅·日本 關係

唐과의 戰爭이 加熱될수록 日本의 動向이 新羅의 安危에 重大한 要素가 되었다. 新羅는 많은 物品을 日本에 보내었다. 그에 비해 日本은 新·唐戰爭 初期에는 신라에 物資를 提供하였으나, 그 뒤 이런 면을 보이지 않았다. 使臣 派遣도 新羅가 더 빈번히 하였다(<표 1> <표 2>). 이는 보다 다급한 쪽이 新羅였다는 客觀的 狀況에 따른 結果이며, 그에 비해 新·唐戰爭이 되돌릴 수 없게 進展됨에 따라 보다 느긋해진 일본 朝廷의 反應이라 하겠다.

특히 唐軍의 攻勢에 밀려 新羅가 危機에 處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였다. 예컨대 674년 唐이 文武王의 册封을 취소하고 왕의 동생인 金仁問을 新羅王으로 封한 뒤, 대규모 軍事的 攻勢를 취하자, 新羅는 675년 2월 日本에 파격적으로 王子 忠元과 級飡 金比蘇 등 大監 2명과 大奈麻 朴務摩 등 弟監 2명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그전까지 日本에 보낸 使臣의 官等은 주로 級飡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王子를 보내고 武官인 大監과 弟監을 각각 2명씩 보낸 것은 新羅 朝廷이 느끼고 있는 危機感을 反影한 것이다. 곧 唐의 政治·軍事的 攻勢에 對應하여 일본의 動靜을 살피고 변함없는 新羅 支持를 說得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혹 軍事的 助力을 要請하였을 可能性도 있다. 이어 이 해 4월에 新羅가 다시 급찬 朴勤修와 대나마 金美賀를 고구려의 大兄 多武 등과 함께 일본에 파견하였다. 急迫한 狀況展開를 느끼게 한다. 이는 675년 2월 劉仁軌의 唐軍이 七重城 지역에서 新羅軍을 擊破하는 등 攻勢를 强化하는 狀況과 有關한 것이다.

이 때 新羅 使臣을 맞이한 뒤 日本 朝廷은 특별한 反應을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觀望 姿勢를 계속 維持하였다. 그러면서 7월 新羅에 使臣을 派遣하여 情勢 探索을 하였

다. 결국 事態를 판가름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新羅軍과 唐軍 간의 戰況이다. 窮極的으로 그것에 의거하여 日本의 向背를 決定하는 政策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新羅는 戰爭 중에도, 唐과 朝貢册封關係를 유지하였다. 이를 활용해 당에 대한 强穩 兩面의 對應을 하였다. 四天王寺와 望德寺 說話는 당시 신라가 처한 어려움과 唐에 대한 兩面 對應의 斷面을 전해준다.[41] 또한 唐과의 外交關係를 維持한 데에는 日本에 대한 考慮도 作用하였던 듯하다. 즉 언제든 다시 唐과 再結束을 할 수 있다는 餘地를 남겨두어, 日本의 政策 變更 可能性을 牽制하려는 意圖가 그것이다. 唐도 吐蕃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었던 관계로, 軍事的 餘力이 별로 없었으므로, 사태가 급박해지면 新羅와 朝貢册封關係를 통한 折衷을 하는 등 軍事면에서의 緩急을 調節하였다. 對唐 戰爭期間中에도 新羅가 唐의 年號를 계속 사용하였음은 경주에서 발굴되는 銘文瓦片이나 塼片과 石刻 등을 통해 確認된다.[42]

現實的으로 唐과 對決하는 狀況에서 新羅로선 日本과의 外交에서 어려움을 堪耐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671년 6월 이후 '別獻物'이라 하여 大臣과 君卿에게 따로 物品을 보내는[43] 등 對日 外交에 盡力하게 되었다. 그에 반해 戰爭이 長期化하여 安保 危機에서 벗어난 日本은 新羅에 대해 점차 高姿勢가 되어갔다.

제2장 7世紀 終盤~8世紀代의 新羅·日本 關係

제1절 676年 이후 新羅와 日本의 關係

1. 新羅와 唐의 關係

676년 唐軍이 韓半島에서 撤收한 뒤, 新羅와 唐 간의 表面的인 戰爭狀態는 終結되었다. 그러나 양국 간에는 裏面的 對立이 持續되었다. 唐은 機會가 오면 再次 韓半島로 侵攻하려는 姿勢를 堅持하였다. 실제 678년에는 대규모 新羅 遠征計劃을 推進하였다. 이

41) ≪三國遺事≫ 2, 文虎王法敏
42) 안압지에서 출토된 '調露二年銘 塼', 蘿井 유적지와 望星里 瓦窯址에서 각각 출토된 '儀鳳四年皆土銘 瓦', 川前里 書石의 '上元二年銘'과 '上元四年銘'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43) ≪日本書紀≫ 27, 天智 10년 6월

計劃은 마침 吐蕃이 唐에 대해 攻擊을 감행함에 따라, 兩面 戰爭에 부담을 느낀 唐의 朝廷이 實行에 옮기지는 못하였다.[44] 그러나 이후에도 唐은 高句麗와 百濟의 王孫을 각각 '高麗朝鮮郡王'과 '百濟帶方郡王'으로 封하여 唐의 首都에 머물게 하고,[45] 新羅의 韓半島 領有를 認定하지 않았으며, 新羅에 대한 壓迫을 계속하였다. 그에 따라 兩國 간에는 裏面的 對立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680년 신문왕 즉위 초 唐이 太宗武烈王의 諡號가 唐 太宗의 廟號와 같다는 점을 들어 개정을 요구하자 신라 조정이 이를 거부하는 외교적 분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46]

이러한 唐의 政策에 對應해 新羅는 對唐 防禦策에 注力하지 않을 수 없었다. 王權과 中央集權力의 强化, 軍備 擴充을 도모하였다. 王 直屬의 中央軍團인 9誓幢 중 5個가 676년 이후 編成되고, 9州 5小京 體制가 確立되며, 일부 貴族에 대한 肅淸이 행해졌던 것은 그런 면을 말해준다. 대외적 긴장과 위기의식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47]

2. 新羅와 日本의 相互認識 : '隣國'과 '蕃國'의 同床異夢

7세기 후반 日本은 新羅가 당의 東進勢를 막아주고 있는 동안, 律令體制의 確立에 주력하였다. 唐의 律令體制를 移植한 日本은 皇帝國으로서 意識과 儀禮를 갖추려 하였다. 對內的으로는 일본에 이주해온 高句麗와 百濟 遺民에게 '百濟王'이나 '高麗王'이란 姓을 사여하여, 朝廷에 仕宦케 함으로써, 天皇의 位相을 높이는 要素로 활용하였다.[48] 對外的으로는 帝國으로서의 位相을 具顯하기 위해 蕃國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新羅를 蕃國으로 자리매김하고 그에 相應한 儀禮를 新羅에 强要하였다. "大唐은 隣國이고, 蕃國은 新羅이다"라는 식의 意識이 그런 면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49] 이러한 이 시기의 時代 狀況과 당시 日本 支配層의 三國에 대한 認識이 ≪日本書紀≫의 歷史觀에 反影되었다.

---

44) ≪舊唐書≫ 85, 張文瓘傳
45) ≪舊唐書≫ 高麗傳, 百濟傳. 이들 양 郡王은 725년 泰山의 封禪 때도 內蕃의 왕으로서 참여하였음을 볼 때, 8세기 전반까지도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舊唐書≫ 23, 禮儀3 開元 13년 11월 壬辰條).
46) 權悳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 遣唐使硏究 - ≫ (一潮閣) 45 참조.
47) 盧泰敦, 2009 ≪앞 책≫ 276~278
48) 筧敏生, 1989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古代帝國> ≪日本史硏究≫ 317, 189
49) ≪令集解≫ 31, 公式令詔書式條

한편 唐과 對立을 持續하고 있었던 新羅는 자국을 朝貢國으로 간주하려는 日本의 주장에 被動的으로나마 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막대한 물자를 일본에 보내었다. 唐과의 開戰 이후 新羅에서 보낸 物品은 주로 고급 비단과 金屬器 및 屛風·깃발(幡) 등의 奢侈品과 佛敎 關聯 物品 및 金·銀 등이 主流를 이루었다. 그 중에는 孔雀·鸚鵡·香藥 등 동남아시아산과 駱駝와 같은 북아시아산 동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물품은 당과의 교역을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이는 一面에선 高級 文物을 提供함으로써, 이런 物資를 통해 신라국의 文明과 國際的 交易 範圍를 과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50] 근래까지 奈良 등 近畿 지역의 궁터나 절터 고분 등에서 이 시기의 신라 녹유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신라에서도 중앙에서 특별 관리하는 고급 품목인 녹유토기의 일본 유입은 양측 간의 국가적 교섭을 통해서일 것이다.[51] 이 시기 唐의 侵攻 可能性에 대비한 軍備擴充과 함께 日本에 대한 物資 供與는 新羅에 막대한 財政 負擔이었다.

新·唐 간의 戰爭과 對立에 따른 最大 受惠國이면서도, 困境에 處한 新羅를 壓迫하는 日本에 대해 新羅 朝廷은 적어도 表面的으로 不滿이나 敵對感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明示的으로 日本의 新羅蕃國觀을 받아들인 것 같지도 않다. 이 시기 日本 朝廷의 要求에도 不拘하고 新羅使는 '表文'을 携帶치 않았으며,[52] 新羅 자체에선 계속 唐의 年號를 사용하였다. 이런 사실은 곧 新羅人의 對外意識과 政策의 斷面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적인 緊密한 交流에도 불구하고, 裏面的으로는 日本에 대한 警戒와 對立意識을 堅持하였던 것이다. 文武王의 海中陵 說話와 感恩寺(鎭國寺) 創建 緣起說話는 이 시기 新羅人의 對日意識의 內面을 말해주는 바이다.[53]

相對에 대한 서로 다른 認識이 潛伏된 채로 表面上의 緊密한 交流를 持續하였는데, 이는 對外的 與件의 變動에 따라, 즉 新羅와 唐의 關係가 變化할 때 早晩間 破綻할 수밖에 없는 性格을 지닌 것이었다.

---

50) 新川登龜男, 1988 <日羅間の調(物產)の意味> ≪日本歷史≫ 481 ; 1999 <日羅間の調> ≪日本古代の對外交涉と佛敎－アジアの中の政治文化≫ (吉川弘文館) ; 金昌錫, 2004 <8세기 신라 일본간 외교관계의 추이－752년 교역의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84

51) 洪普植, 2004 <日本出土 新羅土器와 羅日交涉> ≪韓國上古史學報≫ 46

52)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가 表文을 휴대하였음을 나타내는 例로 거론되는 유일한 것이 703년의 "新羅國使薩湌金福護表云 寡君不幸 自去秋疾 以今春薨 永辭聖朝 朕思 其蕃君雖居異域 至於覆育 允同愛子 雖壽命有終 云云 "한 기록이다. 그런데 이는 신라왕의 국서가 아니다. '寡君'으로 시작되는 표문은 그 문투로 보아 신라의 공적 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 신라사신의 口奏를 일본인이 중국 고전을 인용한 이른바 율령적 필법으로 작성한 것이거나, 신라사신의 그것을 개작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延敏洙,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244~245

53) ≪三國遺事≫ 2, 萬波息笛

제2절 8世紀 新羅와 日本의 關係

1. 渤海의 發興에 따른 國際情勢의 變動

8세기에 들어 日本은 大寶令을 撰修한 직후인 702년 遣唐使를 보내 唐과의 國交를 再開하였다. 이어 703년 신라에 204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율령체제의 기본 틀을 수립한 뒤 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이를 당과 신라에 알려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여겨진다.[54] 아울러 대보령의 내용을 適用, 點檢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探索하려는 면도 있었던 것 같다. 新羅 또한 703년 唐에 사신을 보냈고, 이후 거의 每年 使臣를 파견하였다. 이에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가 7세기 후반과는 판이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8세기 이후 국제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 발해의 발흥이었다. 698년 건국한 直後 渤海는 突厥과[55] 新羅[56]에 使臣을 보내 建國을 通報하였고, 急速한 勢力 擴大를 해 나갔다. 발해의 세력이 남으로 세를 확장하자, 신라는 718년 漢山州 管內에 여러 성들을 축조하였고, 721년에는 阿瑟羅道의 壯丁 2천을 징발하여 북쪽 경계에 장성을 축조하였다.[57] 북방의 새로운 정세에 대응한 조처였다. 발해의 발흥은 신라 조정에 안보상의 문제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남으로부터의 위협 가능성에 다시 留意하게 하였다. 양 방면의 상황은 신라의 국가 안위에 직결되며 상호 連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22년 聖德王은 수도의 남쪽 出口인 울산항과 통하는 길목인 毛伐郡에 關門城을 축조하여 일본에 대비하는 조처를 취하였다.[58]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였다.[59] 당도 발해를 견제할 필요성에서 신라에 대한 기존의 적대적 정책을 바꾸게 되니,[60] 신라와 唐은 급속히 관계 개선을 하게 되었다. 이에 日本에 대한 新羅의 戰略的 位置는 크게 改善되었다.

---

54) 石母田正, 1989 <天皇と諸蕃> ≪石母田正著作集 4≫
55) ≪舊唐書≫ 渤海靺鞨傳
56) 崔致遠, <謝不許北國居上表> ≪崔文昌侯全集≫
57) ≪三國史記≫ 성덕왕 17년, 20년조
58) ≪三國史記≫ 성덕왕 21년조
59) 聖德王 3년(703)에서 성덕왕 36년(737) 사이에 신라는 당에 46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60) 714년 唐 玄宗이 內殿에서 신라사신에 대한 饗宴을 베풀고 宰臣과 4품 이상 淸官들을 연회에 참석하게 한 것은 이 무렵 당의 대 신라정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三國史記≫ 聖德王 13년 10월).

일본은 720년 渡嶋津輕津司의 諸君鞍男 등 6명을 '말갈국'에 파견하여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한 탐색을 하게 하였다.[61] 이 '말갈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를 발해로 보는 견해도 있다.[62] 아무튼 이는 발해국의 勃興에 따라 일어난 현상의 하나라 볼 수 있겠다. 이어 727년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양국이 통교하게 되었다. 흑수말갈을 둘러싸고 당과 대립하고 있으며, 또 당과 신라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발해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일본과의 연결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733년의 渤海에 대한 新·唐軍의 挾攻이 실패로 끝난 뒤인 734년, 唐은 大同江 以南을 新羅가 統合한 것을 정식으로 承認하고, 渤海와 新羅 간의 대립과 勢力均衡을 통한 동북아 정세의 現狀維持를 指向하는 쪽으로 政策 轉換을 하였다. 신라 또한 발해에 대해 더 이상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당과 발해 간의 관계도 곧 정상화되었다. 그에 따라 新羅·唐·渤海의 關係가 構造的으로 安定化되어 갔다.

한편 渤海는 734년 이후에도 日本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日本은 新羅와 渤海의 對立相을 活用할 수 있는 位置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新羅와 渤海 關係는 더 이상 惡化되지 않고, 現狀 維持를 나타내었다.

이런 狀況 變動은 旣存 新羅의 對日本 政策에 根本的인 轉換을 可能하게 하였다. 그것은 외교 儀禮上의 마찰로 表面化되었다.

2. 新羅·日本 間의 外交 紛爭

735년에 일본에 온 新羅使 金相貞이 自國을 王城國이라 稱한 것을 문제로 삼아 日本 朝廷이 接見를 拒否하고 歸國시켰다.[63] 이어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737년 2월 귀국한 일본사신이 復命하기를 "新羅失常禮 不受使旨"라 하였다. 그 구체적인 事端의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이 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上·下位 官人 45인의 意見 開陳을 듣는 일이 이어졌고, 이어 諸司에서 抗議使를 파견하자거나 軍을 派兵하자는 등의 對策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4월에는 伊勢神宮 등 5곳의 神社에 이 사건을 告하는 儀式이 베풀어졌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었다.[64] 이어 일본

61) ≪續日本紀≫ 8, 元正天皇 養老 4년 정월 丙子
62) 鳥山喜一, 1968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232~5
63) ≪續日本記≫ 12, 天平7년 2월 癸丑

은 738년 6월 來日한 신라사의 入京을 거부하였으며, 742년 2월에도 신라사의 入京을 거부하고 歸國케 하였다.[65]

742년(景德王 원년) 10월 신라는 日本使臣의 接見을 拒否하고 되돌려 보냈다.[66] 이 역시 구체적인 理由는 전해지지 않는데, 아마도 外交儀禮를 둘러싼 마찰에서 起因한 것 같다. 이어 743년 新羅使가 日本에 가져간 物資를 新羅使가 口頭로 '土毛'라 한 것을, 일본측이 服屬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은 '調'라 하지 않았다고 是非하여 되돌려 보냈다.[67] 前年에 있었던 新羅 朝廷의 措處에 대한 報復的인 性格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土毛'라는 말의 의미를 살린다면, 그간 신라가 일본에 보내는 物品 중 土產品은 계속 보내고, 그 외의 것으로서 新羅가 對外 交易을 통해 확보한 唐 및 東南아시아產 物品은 이제 交易品으로 轉換하려는 試圖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推論을[68]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런 양국 간에 벌어진 상대국 使臣의 接受를 拒否한 사건은 변화된 國際 情勢 하에서 兩國關係를 새롭게 設定해보려는 新羅의 企圖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743년 이후 751년까지 兩國 간의 交涉은 없었다. 그 뒤 752년 新羅 使節 700여명이 日本을 訪問하였다. 그 중 370명이 日本 首都에 갔다. 兩國 間의 關係改善을 摸索하고, 交易하려는 目的이었다. 현재 正倉院 等에 所藏되어 傳해지는 '買新羅物解'는 이 때 新羅使가 교역을 目的으로 가져온 物品 중에서 일본 貴族家에서 購買하려 하는 物品의 種類와 價格을 記錄하여 內藏寮에 報告한 文書로 여겨진다.[69] 즉 外國使臣이 가져온 物品은 官廳에서 먼저 購買한다는 '官司先買'의 原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物品 購買 希望書를 官에 제출한 뒤 기다렸던 것이다. 이 때 수도에 가지 않은 신라 사절 3백 수십 명은 아마도 大宰府 등지에 머물며 交易하였을 것이다. 이는 곧 이 신라사절단의 주요 목적이 외교에 못지않게 교역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들이 가져온 물품에는 귀족들의 工房에서 만든 것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正倉院 所藏 新羅氈의 貼布記 分析을 통해 그 점이 구체적으로 논해졌는데,[70] 正倉院 소장의 '新羅楊家上墨'·'新羅武家上墨' 역시 그러한

64) ≪續日本記≫ 12, 天平 9년 2월 己未, 3월 壬寅, 4월 乙巳
65) ≪續日本記≫ 13, 天平 10년 6월 辛酉 ; ≪같은 책≫ 권14 天平 14년 2월 庚申
66) ≪三國史記≫ 경덕왕 원년 10월
67) ≪續日本紀≫ 15, 天平 15년 4월 甲午 무
68) 金昌錫, <앞 논문>
69) 東野治之, 1977 <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の硏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硏究≫ (塙書房)
70) 李成市, 1998 <正倉院所藏新羅氈貼布記の硏究－新羅·日本間交易の性格をめぐって－>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제품으로, 신라에서 대외교역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71] 이 752년의 신라사절을 통해 볼 때 兩國 간의 交涉에서 交易이 차지하는 比重이 커진 듯하나, 政治的인 相互認識의 差는 如前하였다. 그 면은 뒤이어 事端을 惹起하였다.

753년 8월 景德王은 新羅에 온 日本使臣을 傲慢無禮하다고 接見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다.[72] 한편 唐에 간 新羅使와 日本使가 753년 正月 唐 朝廷의 新年 儀禮에 참석하였는데, 日本使臣은 吐蕃 使臣 아래의 西畔 제2위로, 신라는 아랍국 위의 東畔 제1위에 位置케 하였다. 이에 日本使가 抗議하여 序列 調整을 요구하는 이른바 爭長事件이 發生하였고, 이 사건은 이듬해인 754년 정월 일본사신이 歸國한 뒤 일본 조정에 報告되었다.[73]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뒤, 758년 9월 渤海에 파견된 일본 사신 小野田守가 귀국하였는데, 그는 발해를 통해 들은 安祿山의 亂에 관한 소식을 전하였다.[74] 이 정보에 접한 일본조정은 唐이 內亂으로 신라에 대한 支援이 不可能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 같고,[75] 759년 여름 藤原仲麻呂 등이 중심이 되어 渤海와 연결하여 신라를 侵攻할 計劃을 推進하여 軍備 强化에 나섰다.[76] 일본은 761년 다수의 新羅語 通譯을 양성하는[77] 등 新羅 侵攻 計劃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無爲로 그쳤다. 한편 신라는 760년 級飡 金貞卷을,[78] 763년에는 級飡 金體信 등 211인의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여,[79] 정세 탐색을 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으나, 徒勞에 그쳤다. 764년에는 渡唐留學僧 戒融의 귀국 여부를 묻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워 金才伯 등 91인을 일본에 파견하였고,[80] 769년에는 在唐 日本使臣과 留學生의 書狀을 轉送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金初正 등 189명과 送使 39인을 일본에 파견하였다.[81] 774년에 金三玄 등 235명이 大宰府에 到着하여 '舊好'를 이어갈 것을 모색하였으나,[82] 여전히 신라를 蕃國視하는 일본의 완강한 거부로 兩國 간의 關係改善은 별다른 進展을 보이지 않았다. 惠恭王 15년(779) 10월 귀국 중 조난을 당해 耽羅에

71) 東野治之, 1977 <正倉院氈の墨書と新羅の對外交易> ≪앞 책≫
72) ≪三國史記≫ 景德王 11년 12년 8월
73) ≪續日本紀≫ 19, 孝謙天皇 天平勝寶 6년 정월 丙寅
74) ≪續日本記≫ 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 12월 戊申
75) 和田軍一, 1924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 10·11
76) ≪續日本紀≫ 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 6월 壬子, 8월 己亥, 9월 壬午
77) ≪續日本記≫ 23, 淳仁天皇 天平寶字 5년 정월 乙未
78) ≪續日本記≫ 23, 天平寶字 4년 9월 癸卯
79) ≪續日本記≫ 23, 天平寶字 7년 2월 癸未
80) ≪續日本記≫ 23, 天平寶字 8년 7월 甲寅
81) ≪續日本記≫ 30, 神護景雲 3年 11월 丙子
82) ≪續日本記≫ 33, 寶龜 5년 3월 癸卯

漂着한 日本 遣唐使의 일부 인사를 본국으로 歸還시키코자 派遣된 新羅使 金蘭蓀을 끝으로 양국 간의 公式的 交涉은 사실상 杜絶되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일본의 견당사 파견에 따른 협조 요청이나 표착민의 송환 등을 둘러싼 양국 關聯 機關 간의 산발적인 교섭은 있었으나, 양국 조정 간의 사신 파견을 동반한 공식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兩國 支配層의 相對에 대한 認識인 '隣國과 蕃國'의 同床異夢은 계속 이어졌다. 이 시기 新羅의 對外政策인 事大交鄰은 그 뒤 高麗·朝鮮時代을 이어 對外政策의 基本軸이 되었다.

한편 공식적인 교섭은 8세기 후반 이후 마찰이 심해져 마침내 두절되었지만, 양국 간의 민간 교역은 지속되었다. 외교의례를 둘러싼 갈등이 심하던 시기인 768년 10월 일본 조정은 左右 大臣과 大納言 등의 高位 官人과 貴族들에게 총액 8만 5천 屯의 大宰府綿을 '新羅 交關物을 購入하게 하기 위해' 賜與하였다.[83] 이 大宰府綿은 大宰府에 지급되어 비축된 것으로, 이곳에서 신라인과 교역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였다. 즉 신라와 외교의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식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면서, 다른 일면에서는 新羅와의 交易을 實際上 許容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綿은 장기간 貯藏하면 腐蝕毁損되므로, 위의 조처는 언제 올지 불확실한 新羅使節團과의 交易뿐 아니라 私貿易 즉 新羅 私商과의 交易도 사실상 考慮하여 취한 것이라는 解釋도 가능하겠다. 아무튼 760년 金貞卷의 派遣 이후 매번 日本에 派遣한 使節이 外交的 問題로 紛亂을 惹起하였지만, 신라는 763, 764, 769, 774년 등 連續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使節團을 보냈고, 또 外交 紛爭의 渦中에서도 위 768년의 例에서 보듯 兩國 간의 交易이 행해졌다. 이런 면은 곧 新羅產 物品이나 新羅商人을 통한 外國產 物品에 대한 日本 支配層의 需要가 있었음을 말한다. 나아가 兩國 모두에게 每番 紛糾를 惹起하는 公的 交流를 통하지 않고 私貿易을 통한 交易을 追求하게 하였을 것이다. 실제 9세기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단 이러한 이해가 이 時期 國際 交易이 순전히 市場 論理에 의해 展開되었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 兩國 간의 交易이 私貿易에 依存하였다는 것 自體가 이 時期 兩國 간의 政治的 關係에 따른 樣相이요 그 產物이었던 것이다.

83) ≪續日本記≫ 30, 神護景雲 2年 10월 甲子, 庚午

〈표 1〉 668년~700년 사이 신라와 일본 간의 사신 왕래

	신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신라로	소고구려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소고구려로
668	o			
669	o			
670		△		
671	o o		☆	
672	o		☆	
673	o		☆	
674				
675	o o	△	☆	
676	o	△	☆	
677				
678	o(海難)			
679	o	△	☆	□
680	o		☆	
681	o	△		□
682			☆	
683	o			
684		△		□
685	o			
687	o	△		
689	o			
692	o			
693	o	△		
695	o	△		
697	o			
700	o	△		

〈표 2〉 新羅·日本 間의 贈與 物品

新羅紀年/西曆/日本紀年.月	신라→일본	일본→신라	典據
眞平王 20/598/推古 6. 8	孔雀		≪日本書紀≫
眞平王 38/616/推古 24. 7	佛像		≪日本書紀≫
眞平王 45/623/推古 31. 7	佛像, 金塔, 舍利, 大觀頂幡, 小幡		≪日本書紀≫
眞德女王 元年/647/大化 3	孔雀, 鸚鵡		≪日本書紀≫

文武王 8/668 /天智 7. 9		-絹, 綿, 韋을 신라왕에게 -신라왕과 김유신에게 각 船 1척	≪日本書紀≫
文武王 11/671 /天智 10. 6	別獻物 : 水牛, 山鷄		≪日本書紀≫
文武王 11/671 /天智 10.11	*427) 袈裟, 金鉢, 象牙, 沈水香, 栴檀香, 諸珍財(추정)[84]	絹, 絁, 棉, 韋을 신라왕에게 보냄	≪日本書紀≫
文武王 12/672 천무 1. 12		신라 사신 金押實에게 배 1척	≪日本書紀≫
文武王 19/679 /天武 8. 10	- 金, 銀, 鐵, 鼎, 錦, 絹, 布, 皮, 馬, 狗, 騾, 駱駝 - 別獻物 : 金, 銀, 刀, 旗		≪日本書紀≫
神文王 元年/681 /天武 10. 10	- 金, 銀, 銅, 鐵, 錦, 絹, 鹿皮, 細布 - 別獻物 : 金, 銀, 霞錦, 幡, 皮		≪日本書紀≫
神文王 5/685 /天武 14. 5	馬, 犬, 鸚鵡, 鵲, 種種物		≪日本書紀≫
神文王 6/686 /朱鳥 1. 11	- 細馬, 騾, 犬, 鏤, 金器, 金, 銀, 霞錦, 綾羅, 虎豹皮, 藥物 - 別獻物 : 金, 銀, 霞錦, 綾羅, 金器, 屛風, 鞍, 皮, 絹, 布, 藥物		≪日本書紀≫
神文王 7/687 /持統 1.	金, 銀, 佛像, 珍寶		≪扶桑略記≫
神文王 8/688 /持統 2. 2	- 金, 銀, 絹, 布, 皮, 銅, 鐵 - 別獻物 : 佛像, 種種彩絹, 鳥, 馬 - 金霜林 所獻 : 金, 銀, 彩色, 種種珍異之物 80여종		≪日本書紀≫
神文王 9/689 /持統 3. 4	金銅阿彌陀像, 金銅觀世音菩薩像, 大勢至菩薩像, 彩帛, 錦, 綾		≪日本書紀≫
孝昭王 7/698 /文武 2. 1	貢物		≪續日本紀≫
孝昭王 9/700 /文武 4. 10	孔雀, 珍物		≪續日本紀≫
孝昭王 10/701 /大寶 1. 1		- 신라 사신 金所毛의 죽음에 絁, 綿, 布를 내림 - 水手 이상에게 祿을 사여	≪續日本紀≫
聖德王 2/703 /大寶 3. 10		錦, 絁 (使臣에게는 衾, 衣 사여)	≪續日本紀≫
聖德王 5/706 /慶雲 3. 1	貢物	使臣에게 祿 사여	≪續日本紀≫
聖德王 8/709 /和銅 2. 3	貢物	絹, 美濃絁, 糸, 綿 (使臣에게는 祿을 내림)	≪續日本紀≫

聖德王 14/715 /靈龜 1. 3		綿, 船 (使臣에게는 祿, 綿을 내림)	≪續日本紀≫
聖德王 18/719 /養老 3. 7	貢物, 騾馬	祿	≪續日本紀≫
聖德王 25/726 /神龜 3. 6·7	貢物	- 使臣에게 祿 사여 - 金順貞의 賻物로 黃絁, 綿 증여	≪續日本紀≫
聖德王 31/732 /天平 4. 5	種種財物, 鸚鵡, 鴝鵒, 蜀狗, 獵狗, 驢, 騾	신라의 왕과 使臣에게 祿을 줌.	≪續日本紀≫
景德王 11/752 /天平勝寶 4. 7	- 貢物 - 金泰廉의 私獻物 : 土産物	使臣에게 絁, 布, 酒肴를 내림	≪續日本紀≫
惠恭王 6/770 /寶龜 1. 3	貢物	신라의 왕과 使臣에게 祿으로 絁, 糸, 綿을 줌	≪續日本紀≫
惠恭王 16/780 /寶龜 11. 1	貢物	- 신라 국왕 : 答信物 - 使臣 : 祿, 當色, 履	≪續日本紀≫
哀莊 5./804 /桓武 23.		黃金	≪三國史記≫ 新羅本紀
憲康 8/882 /元慶 6.		黃金, 明珠	≪三國史記≫ 新羅本紀

제3장 7~9世紀 韓日 間의 文化 交流

제1절 律令文化의 交流

1. 三國의 律令

(1) 그간의 硏究

7世紀에 들어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國家들은 政治的·軍事的으로 緊密한 關係를 가졌다. 그와 함께 文化的인 면에서도 相互交流가 깊이 進展되었다. 7世紀 後半 百濟復興戰爭으로 白江口 戰鬪에서 新羅軍과 倭軍이 直接 武力 對決을 벌이는 事態를 겪기도 하였으나, 곧이어 668年 9月 新羅와 倭國이 國交를 再開하였다. 이후 兩國은 오랜 期間 密接한 政治的 關係를 맺었고 그와 함께 兩國間에 頻繁한 交流가 이어졌다. 新羅는 唐과의

84) 이 해 10월에 있었던 法興寺 奉進物을 통한 新川登龜男의 추정에 의하였다.
新川登龜男, 1999 <앞 논문> 11

對決과 뒤 이은 不便한 緊張狀況이 持續되는 가운데서 中央集權的인 國家體制를 擴充해 나갔고, 日本은 '律令體制'를 構築하는데 盡力하였다. 이렇듯 새롭게 政治體制를 整備하는 過程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새로운 國家體制의 構築과 運營에 規範이 되는 法令의 制定이었다. 日本에서는 701년 大寶令이 頒布되었다.

律令은 前近代 時期 中國의 法律體系이며, 大寶令은 唐 律令을 典範으로 삼아 編纂된 것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法律體系는 서로 다른 歷史的 背景과 文化를 지닌 他國의 것을 쉽게 移植하여 形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 기간 律令文化에 대한 經驗과 檢討를 거친 뒤, 公式的으로 受容되어 法令 編纂이 이루어지는 것이 一般的인 樣相이다. 日本의 경우, 670年代 初 以後 701年까지 唐과의 公式的인 交流가 斷切된 狀況에서 大寶令이 完成되었다. 이런 점을 考慮하여, 日本의 律令編纂에 韓國 古代國家들과의 交流가 상당한 影向을 주었을 可能性이 일찍부터 注目되어 왔다. 물론 이는 7世紀 以前 時期에 韓國의 古代國家들에서 律令이 編纂되어 施行되었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만약 韓國 古代國家들의 律令 條項이 남아 전한다면 그것과 日本의 律令을 對比하면 바로 그 可否를 點檢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 古代國家들의 그것이 具體的으로 남아 傳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古代 韓日間의 律令文化 交流에 대한 關心은 韓國古代國家들에서 과연 律令이 編纂된 事實이 있느냐의 與否를 檢討하는데 焦點을 두고 論議되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高句麗는 小獸林王 3년(373)에 '처음으로 律令을 頒布'하였다 한다. 이 때의 律令을 泰始律令을 母法으로 한 것으로 推定하는 說이 提起되었는가[85] 하면, 이 記事의 事實性을 否定하는 見解도 發表되었다.[86] 이런 高句麗 律令 頒布 與否를 둘러싼 論難은 이어 新羅의 그것에 대한 論議로 이어졌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法興王 7年(520) 正月에 "律令을 頒布하고, 百官의 公服과 그 服色에 따른 序列을 制定하였다(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한다. 그리고 武烈王 元年의 "理方府令 良首 等에게 命하여 律令을 자세히 檢討해 理方府格 60餘條를 修定하였다(命理方府令良首等 詳酌律令 修定里方府格六十餘條)"는 記事와 文武王 21年 遺詔에서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곧 다시 고칠 것이며(律令格式有不便者 卽便改張)"라 한 記事가 있다. 이들 記事에 대해서도 그 事實性에 대한 肯·否定論이 이어졌다. 이 記事를 그대로 認定하면서 新羅 律令은 高句麗 律令의 影向을 받아 頒布되었다고 보는 肯定論이[87] 있었는가 하면, 당시 新羅의 社

85) 田鳳德, 1956 <新羅律令攷> ≪서울大論文集≫ 4 ; 盧重國, 1979 <高句麗 律令에 관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86) 林紀昭, 1994 <高句麗の律令> ≪古代 東亞細亞의 再發見≫ (湖巖美術館)

87) 田鳳德, <앞 논문> ; 李基東, 1978 <新羅 官等制度의 成立年代 問題와 赤城碑의 發見> ≪歷史

會 成熟과 國家 發達 程度로 볼 때 中國的인 特色을 살린 律令의 施行은 不可能하며,[88] 太宗 武烈王代 以後 統一期인 中代에 들어서야 비로서 律令이 編纂되었고,[89] 그것도 唐의 律令을 그대로 使用하면서 施行細則인 格式만을 編纂하였다는 說이 있었다.[90] 한편 新羅에서 律令制가 施行되지 않았다는 見解도 發表되었다. 즉 新羅와 高麗에서는 國家體制의 基礎가 되는 體系的인 法典으로 律令이 編纂되지 않았고, 中代 이후에도 新羅의 支配體制나 國際關係로 보아 中國的인 律令이 施行되기 어려웠다는 視覺이 그것이다.[91] 또한 蔚珍 鳳坪碑에 '杖100', '杖60'과 같은 中國 律令의 痕迹이 보이지만 新羅는 물론 高麗에서도 '受入法=律令法'이 支配的인 形態가 되지 못하였고, 新羅의 法制에는 新羅 社會의 獨特한 個性을 反映한 固有法이 强하게 作用하고 있었기 때문에 新羅를 律令制 國家로 볼 수 없다는 見解가 發表되었다.[92]

이러한 그간의 論議를 一瞥할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이 律令의 存在에 대한 理解에서 서로 다른 槪念을 想定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法興王代의 律令 頒布를 肯定하는 論者들은 律令을 中國 法制로 보고, 律令 自體가 存在하였는지의 與否에 焦點을 두었다. 반면에 '律令不在說'이나 '中代 成立說'을 主唱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律令을 律令制 또는 律令體制와 같은 意味로 設定하였다. 後者는 律令의 完成이라고 할 수 있는 隋·唐代의 律令과 律令制를 그 準據의 基準으로 삼았으며, 다분히 古代 日本의 경우와 같이 律令을 全面的으로 導入한 경우만을 律令 受容이라 理解한 視覺을 堅持하였다. 아울러 新羅 律令의 存否에 대한 論議에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各國의 律令 頒布 時期와 律令制의 施行與否를 통해 그 社會의 發展 程度와 優劣을 가름하려는 듯한 認識이 그 裏面에 깔려있음도 否認키 어렵다는 점이다.[93]

中國 法制로서 律令 自體는 隋唐代 以前에도 他國에 影向을 주었다. 中國 以外 地域에서 古代國家가 成長함에 따라, 그 國家體制의 構築과 運營을 위해 나름의 法制가 만들어

學報≫ 78 ; 金龍善, 1982 <新羅 法興王代의 律令頒布를 둘러싼 몇 가지 問題> ≪加羅文化≫ 1

88) 林紀昭, 1967 <新羅律令に關する二·三の問題> ≪法制史硏究≫ 17 ; 武田幸男, 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89) 武田幸男, 1978 <朝鮮の律令制> ≪岩波講座 世界歷史 6≫ (岩波書店)

90) 石上英一, 1979 <律令法國家(1)> ≪歷史硏究≫ 222·223

91) 北村秀人, 1982 <朝鮮における律令制の變質>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 日本古代史講座 7≫ (學生社)

92) 李佑成, 1989 <高麗土地·課役關係 '判·制'에 끼친 唐令의 影響－新羅 律令國家說의 檢討를 兼하여－> ≪大東文化硏究≫ 23

93) 李佑成은 위의 論文에서 新羅의 法制가 固有法的인 要素가 강하였으므로 律令制國家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新羅의 後進性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新羅社會의 獨特한 獨自性에 의한 것이라고 强調하였다. 이는 그간의 硏究에서 보였던 그러한 傾向을 意識함에 따른 披瀝이라 하겠다.

졌다. 그 過程에서 이러 저러한 國際的 契機를 통해 전해진 律令이 많든 적든 간에 受容되었다. 具體的으로 各國의 法制에서 固有法的인 要素와 律令法的인 要素가 각각 차지하는 程度는 律令 受容國의 歷史的 條件에 따라 그 樣相을 달리하였다. 그것이 律令法의 傳播와 受容을 통해 이루어진 동아시아 各國 文化의 共通性과 差異性의 具體的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律令을 통해 그러한 면을 把握하고 各 時期에 이룩된 동아시아 各國史의 共通性과 差異性을 動態的으로 理解하는 데에는, 律令을 部分的으로 受容하거나 變容시킨 境遇라도 그것을 律令法의 範疇에 넣고, 그 具體的인 性格에 대한 檢討가 必要한 바이다. 律令制 내지 律令體制라는 槪念 대신에 律令型 國家라는 槪念이 提示된 것도 이런 視覺에서이다.[94] 이러한 시각에서의 一次的인 課題는 律令이 언제부터 韓國 古代國家에서 頒布·施行되었는가하는 事實 確認이다.

(2) 新羅의 律令

韓國의 古代國家들에서 律令의 存在와 그 性格에 대한 論議는 1978년 丹陽 赤城碑, 1988년 蔚珍 鳳坪碑 등의 金石文이 發見되고 最近에 多樣한 木簡이 發掘됨에 따라 새로운 段階로 접어들었다. 524년 당시 新羅의 北邊인 蔚珍 地域에 세워진 鳳坪碑에는 紛亂을 일으킨 이들에게 '杖 100', '杖 60' 등의 處罰 措處를 行하였음을 記述하였다. 그리고 '種種奴人法' 이란 言及이 보인다.[95] 아울러 이 碑에 登場하는 官人들의 官等을 통해, 이 때에는 新羅의 17等 京位의 官等制가 確立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96] 碑가 세워진 524年은 三國史記에서 律令을 頒布하였다고 전하는 法興王 7年(520)에서 4년 뒤이다. 이런 점은 당시 新羅에 律令이 存在하였음을 意味한다. 具體的으로 鳳坪碑를 통해, 刑罰을 規定한 刑律과 官等制에 관계된 官位令, 그리고 아마도 새로이 服屬시킨 邊境地域 住民들의 處地를 規定한 여러 종류의 奴人法[97] 등의 存在가 確認된다. 아울러 三國史記에 전하듯이 520年에 官人의 公服과 官等에 따른 朱紫靑黃의 服色을 정하였다는 官服令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어 550년 무렵으로 推定되는 丹陽 赤城碑에는 缺落된 부분이 있어 正確한 意味는 把握되지 않지만, '國法'·'赤城佃舍法'·'小子'·'小女子' 등의 表現이 登場한

94)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 54~58
95) 李明植, 1992 <蔚珍 鳳坪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14~24 참조.
96) 盧泰敦, 1989 <蔚珍 鳳坪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硏究≫ 2
97) 奴人法의 性格을 '令'이라고 본 見解와[朱甫暾, 1998 <鳳坪碑 段階의 外位制整備>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律로 보는 설이(洪承佑, 2004 <新羅律의 基本性格－刑罰體系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50) 있다.

다.[98] 佃舍法의 具體的인 內容은 正確히 알 수 없으나, 國法으로 表現된 律令의 한 篇目으로 邊境地域의 土地 運用에 관한 어떤 法이었을 것이다. '小子'·'小女子' 등은 民을 年齡에 따라 區分한 制度와 聯關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6世紀 中盤 以後에는 이들 事項과 聯關된 田令이나 戶令과 같은 令이 制定되어 행해졌음을 뜻한다. 아울러 金石文의 人物에 대한 표기에서 '官職名－部名－人名－官等'의 순으로 記述하는 방식이 6세기 중엽에 確定됨에서 보듯 事項을 記錄하거나, 行政 官署 간에 문서를 受發하는 데 必要한 一定한 書式을 규정한 公式令과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後述). 鳳坪碑의 發見 以後 新羅 律令의 存在를 認定하는 것이 韓國學界의 通說이 되었다.

이어 新羅 律令의 系統과 그 性格에 대한 論議가 進行되고 있다. 新羅는 377년 高句麗를 통해 前秦에 使臣을 派遣한 바 있으나 이어지지 않았고, 521년 南朝의 梁에 使臣을 派遣하였는데 이 때도 百濟 使臣과 同行하였다. 그러니 520년 頒布된 新羅 律令은 中國王朝로부터 直接 受容한 것이라 할 수 없겠고, 일단 高句麗 律令에 影向을 받았다는 想定이 可能하겠다. 具體的으로 鳳坪碑에 보이는 杖刑의 構成으로 볼 때 新羅律은 北魏律이나 梁律을 母法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見解가 發表된 바 있고,[99] 아울러 新羅의 連坐罪가 唐律과 差異가 있다는 事實이 指摘되었다.[100] 그리고 三國史記 文武王 9年條에서 전하는 '赦免下敎'를 中心으로 新羅本紀에 전하는 事例를 檢討하여, 官人에 대한 刑律과 盜賊과 負債에 관한 刑律 등에서 新羅律이 唐律과 差異가 나는 점을 指摘하면서 新羅律의 淵源이 南北朝時代의 그것으로 遡及됨을 논한 硏究[101]가 나왔고, 村落文書에 보이는 戶口 把握方式이 南北朝時代의 것과 통한다는 主張이 提起되었다.[102] 또한 新羅 刑罰에서 杖刑의 內容과 死刑의 等級(棄市, 斬首) 등이 唐律과 다르며 또 杖刑과 流配刑이 竝科된 것이 隋律 및 그것의 淵源인 北朝律과 通함을 擧論하면서, 新羅律의 母法이 梁이나 北魏의 律이거나 高句麗律이었을 可能性을 提起하였다. 아울러 '奴人法'과 '佃舍法'의 例처럼 이를 律이나 令이라 하지 않고 '法'이라 하였음을 보아 이들 法은 律令이 아니라 固有法이었을 可能性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103] 또한 高麗律은 唐律과 다

98) 朱甫暾, 1992 <丹陽 赤城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33~40 참조.
99) 朱甫暾, 1989 <蔚珍 鳳坪碑新羅碑와 法興王代의 律令> ≪韓國古代史硏究≫ 2
100) 朱甫暾, 1984 <新羅時代의 連坐罪> ≪大邱史學≫ 25
101) 尹善泰, 2003 <新羅 中代의 刑律－中國律令 受容의 新羅的 特質과 關聯하여> ≪講座 韓國古代史3≫
102) 尹善泰,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新羅 古文書와 木簡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6~169
103) 洪承佑, 2004 <新羅律의 基本性格－刑罰體系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50

르고 新羅律을, 멀리는 新羅律의 淵源이 된 高句麗律을 繼承한 面이 있음을 指摘하면서, 高麗律은 新羅律, 唐律, 宋刑統 등을 能動的으로 受容하여 變形시킨 것이라는 설이[104] 提起되기도 하였다. 이런 主張들은 좀더 具體的인 檢討를 기다리지만, 일단 新羅 律令이 唐 律令에만 依據하였던 것은 아니며, 時間的으로는 南北朝時代의 律令과 連結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제시한 武烈王 元年 理方府格 60餘條의 修定措處와 文武王 遺詔에서 不便한 律令格式을 更張할 것을 言及한 것은 新羅 中代 初인 7世紀 後半에는 中國 律令의 受容과 模倣 段階를 넘어 이의 一部를 新羅化하는 面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理解하는 것도 可能하다.[105]

하지만 律令과 格式을 制定하였다는 것이 곧 新羅 社會가 全面的으로 律令體制로 轉換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여전히 律令法的인 要素와 傳統法的인 要素가 함께 存在하고 있었던 같다. 그런 면을 重視하여, 三國의 法制에는 律令法的 要素 못지않게 固有法的인 要素가 있음을 强調하고, 傳統法 體系를 律令的 型式에 맞추어 整備한 것이 新羅律令의 性格이라고 보기도 하였다.[106] 新羅 中代인 7世紀 後半 以後에는 律令格式이 施行되었고, 그에 依據하였을 村落文書와 같은 計帳이 作成되는 등, 中國 律令이 追求하는 바를[107] 신라가 指向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면서도 당시 新羅社會를 規制하는 傳統的인 秩序인 骨品制가 官僚制 運營과[108] 日常生活에서 여전히 강하게 作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律令의 構成과 運營에 中國의 그것과는 다른 新羅的 特性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族降'과 같은 身分刑이 存在하였고 身分에 따른 衣冠制가 實施되는 등 新羅的 特性을 나타내는 固有法이 律令과 함께 存在하였음은 그런 면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3) 百濟의 律令

百濟의 경우, 三國史記에는 律令 頒布나 그와 聯關된 어떤 具體的인 言及은 보이지 않

104) 韓容根, 1999 ≪高麗律≫ (서경문화사)
105) 註 101)과 同
106) 註 103)과 同
107) 族制的이고 分權的인 상태를 止揚하고, 國土와 人民에 대한 齊一的 支配를 追求하여, 中央集權的인 郡縣制와 官僚制, 徵兵制, 良賤制, 國家의 人民과 土地에 대한 稅金賦課와 이를 통한 國家財政의 運營 등을 指向하였다고 여겨진다.
108) 李基東, 1980 <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 ≪震檀學報≫ 50

는다. 그런데 근래 발견된 百濟 木簡은 보다 具體的으로 百濟 律令의 한 면을 전해준다. 2008年 4月 扶餘의 雙北里에서 百濟時期 建物址를 發掘하던 중 그 周邊에서 발견된 '佐官貸食記'木簡이 그 한 例이다. 이 木簡은 길쭉한 板型의 木片의 兩面에 글을 쓴 것으로 上段 中央部에 구멍이 있어 이곳에 실을 꿰어 文書로 만든 듯한 編綴木簡이다. 文書의 첫 부분에는 618년으로 推定되는 '戊寅年 6月에 作成된 佐官貸食記'라는 題目을 記述하였다. 이 文書에는 10名에게 貸付해준 穀食의 量과, 利息을 포함한 償還(上), 未償還(未)의 穀量이 記述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선 貸付한 糧穀 總量(幷)과 償還한 糧穀 總量(得)이 表記되어 있다. 度量衡 單位로 '石'과 '斗' 외에도 '半'과 '甲'이 사용되었다. '半'은 5升을, '甲'은 2.5升을 나타낸 것이다. 利息率 50%의 高利貸였다.

'佐官貸食記'는 佐官을 官職名으로 볼 경우 '佐官'이 主管하는 '貸食事業의 記錄'이란 뜻이 되며, 또는 '佐'를 동사로 볼 경우 '穀食 貸與를 통해 官의 財政運營을 補佐하는 事業의 記錄'이 될 수도 있다.[109] 이 木簡 文書에 '邑佐'가 나오고 또 羅州 伏岩里 목간에도 '郡佐'로 여겨지는 글자가 보이므로(後述),[110] 佐官은 官職名일 可能性이 크다. 한편 '佐官貸食記' 木簡이 出土된 遺蹟에서, '外椋部鐵 代綿十兩'이라 적힌 木簡이 함께 발굴되었다. 이 木簡은 外椋部가 鐵의 代價로 받은 綿 10兩을 담은 자루에 붙여둔 荷札木簡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라 혹 목간이 發掘된 地點이 百濟 22部 官司 중 內官의 하나인 外椋部가 있었던 곳이고, '佐官貸食記'의 佐官이 外椋部의 佐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外椋部' 木簡은 '佐官貸食記' 木簡과 함께 黃褐色 모래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層은 外部에서 流水의 流入에 의해 形成된 것으로 把握된다. 자연 이들 木簡은 建物址 自體와는 關聯性이 없다.[111] 문제의 木簡들은 이 遺跡보다 높은 地點에 있던 官衙에서부터 흘러 들어왔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流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地點에서 發掘된 만큼, 두 木簡은 相互 聯關性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佐官'을 外椋部의 屬司인 官廳으로 보는 見解가 제기되었다.[112] 아무튼 '佐官'은 '外椋部 소속의 官職'일 可能性이 크다.

穀食을 받은 10명 중 9명에게는 이를 貸付하였는데, 다른 1名인 '刀己邑佐'에 대해선

109) 李鎔賢, 2008 <佐官貸食記와 百濟의 貸食制> ≪百濟木簡≫ (國立扶餘博物館) 61~63

110) 國立羅州文化財硏究所, 2009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木簡≫. 4號 木簡 前面에 쓰여진 글자를 "郡仿△△文"으로 판독하였는데, '仿'이 아니고 '佐'로 여겨진다.

111) 朴泰祐·鄭海濬·尹智熙, 2008 <扶餘 雙北里 280-5番地 出土 木簡 報告> ≪木簡과 文字≫ 2호 ; 朴泰祐, 2009 <木簡資料를 통해 본 泗沘時代의 空間構造－'外椋部' 銘 木簡을 中心으로－> ≪百濟學報 創刊號≫

112) 盧重國, 2009 <百濟의 救恤·賑貸 정책과 '佐官貸食記' 木簡> ≪白山學報≫ 83

그가 받은 穀食 3石을 '与'라 表記하였다. 즉 貸付한 게 아니라 그냥 주었다고 表記하였다. 그는 邑佐라는 官職을 지닌 官吏로 여겨진다. 한편 貸付한 9명 중 3명의 이름이 '佃目之', '佃麻那', '佃首行'인데, 이 '佃'이 國家 土地를 耕作하는 佃戶를 나타내는 表示가 아닐까 하는 推論이 提起되어[113] 留意된다. 丹陽 新羅 赤城碑의 佃舍法의 '佃'과도 聯關하여 檢討해 볼 점이 되겠다.

이 '佐官貸食記'는 播種期나 端境期에 民에게 糧穀을 貸與하는 制度가 백제에서 行하여졌음을 전해준다. 高句麗에서도 3월에서 7월 사이에 百姓들에게 家口의 多少에 따라 差等있게 穀食을 빌려주고 10월에 돌려받는 制度로 賑貸法이 施行되었음을 三國史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114] 百濟의 貸食制가 高句麗의 影向을 받아 成立하였거나 村落共同體의 傳統的인 再分配 機能에 淵源을 둔 百濟 固有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두 可能性 중 어느 것이라면 百濟 貸食法은 傳統的 性格을 강하게 지닌 固有法으로 律令法이 아닌 게 된다. 하지만 百濟의 貸食制와 類似한 일본 出擧制의 法的 根據가 되는 條文이 養老雜令 20條에 있다.[115] 비록 이 조문이 唐雜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곡식대부와 유사하다.[116] 그렇다면 唐 以前 時期의 律令에 貸食制와 통하는 令이 있었는지 더 檢討하여야 할 것이나, 百濟 貸食制가 中國 律令에 그 淵源을 두었을 可能性이 크다. 구체적으로 '貸食'이라는 用語가 後漢代에 使用된 바 있다.[117] '佐官貸食記'가 百濟의 官制와 文書行政 등 中央集權的 古代國家의 體制整備와 밀접히 聯關된 것으로 여겨지며, 貸食制는 貸食의 利率을 50%로 規定함을 보아 中國 法制의 影向을 받은 律令에 의해 그 運營이 規定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구체적인 百濟 貸食法의 淵源에 대한 檢討가 必要한 바이다.

또 하나 注目되는 木簡이 扶餘 陵山里 寺址 中門址 남쪽에서 발견되었다. 그 記錄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支藥兒食米記 初日食四斗 二日食米四斗小升一 三日食米四 ×

113) 李鎔賢, <앞 글>
11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故國川王 16년조
115) 井上光貞 等校注, 1976 ≪律令≫ (岩波書店) 479~480
116) 三上喜孝, 2009 <古代東アジア出擧制度試論>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117) 後漢代人 鄭玄은 ≪周禮≫에 대한 注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즉 ≪周禮≫ 권10에서 地官 大司徒의 職掌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로 凶年이 들었을 때 해야 할 일(荒政)인 '散利'를 들었다. 이를 鄭玄은 '貸種食也'라 하여, 貧窮民에게 種子와 食糧을 貸與해 주는 것이라고 注하였다. (≪十三經注疏≫ 3 ≪周禮≫ 권10 地官 大司徒)

2. 五日食米三斗大升一 六日食三斗大二 七日食三斗大升二 八日食米四斗 ×
3. 食道使△△次如逢使 猪耳其身者如黑也 道使△△彈耶方牟氏牟祓 祓耶 ×
4. × 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

(×는 파손)

이 木簡을 羅城 大門의 禁衛와 關聯된 것으로 보고, 羅城 大門을 統制한 官人들이 藥材를 運搬해온 '支藥兒'들에게 食米를 支給하고 그 出納 事實을 整理한 것이라고 본 見解가 발표되었다.[118] 이어 이를 批判하면서, 이 木簡은 '支藥兒'라는 어떤 建物이나 施設에서 地方官인 道使들에 의해 陵山里 寺址의 建立에 動員되어 力役을 遂行한 地方民들에게 米를 支給한 것을 적은 中間 메모와 같은 帳簿라고 보는 說이 提起되었다.[119] 後者에 따르면, 당시 地方民에 대한 行政制度와 地方官을 통한 力役動員이 體系的으로 행해졌음을 말해준다. 이는 律令的 秩序의 樹立과 有關한 것이다.

百濟 律令과 聯關된 다른 主要 資料가 羅州 伏岩里 出土 木簡들이다. 製鐵遺址를 포함한 伏岩里 古墳群 周邊遺跡에서 木簡 31점이 出土되었다. 그 부근에서 '豆肹舍'銘土器가 出土되어, 이 地域이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전하는 百濟 豆肹縣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진다.[120] 한편 여기에서 나온 11호 木簡에 '△午四月'이라 記述되어있는데, '△'를 庚으로 본다면, 庚午年은 일단 百濟 武王 11년(610), 또는 新羅 文武王 10년(670)으로 볼 수 있어, 出土 木簡들의 年代를 짐작할 수 있다.[121]

이들 목간들 중 2號 木簡은 墨痕이 약하여 判讀이 如意치 않은 字가 많으나, 判讀되는 字로는 "中口四 △二", "文丁"등이 있다. 이중 前者는 扶餘의 宮南池에서 出土된 "西阝後巷"銘 木簡의 表記方式과[122] 같다. 이는 年齡에 따라 人口를 區分한 것이다. 그 區分의 基準에 대해선 三國史記의 記事에 따라 15세를 基準으로 보는 見解가 있고,[123] 그와는

118) 尹善泰, 2006 <百濟 泗沘都城과 嶋夷－木簡으로 본 泗沘都城의 안과 밖－> ≪東亞考古學論叢≫ 2 (忠淸文化財硏究院)
119) 李炳鎬, 2008 <扶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木簡과 文字≫ 創刊號
120) ≪三國史記≫ 地理志3, "錦山郡 本百濟發羅郡 景德王改名 今羅州牧 領縣三 會津縣 本百濟豆肹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鐵冶縣 本百濟實於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餘皇縣 本百濟永川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이 곳의 考古學的 環境과 發掘 槪要 및 主要 出土 遺物은 金聖範, 2009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百濟木簡과 其他 文字 關聯遺物> ≪百濟學報≫ 創刊號에 紹介되어 있다.
121) 金聖範, <羅州 伏岩里 遺跡 出土 百濟 木簡> ≪古代의 木簡, 그리고 山城≫ (國立文化財硏究所 40年, 韓國博物館開館100周年 紀念 學術심포지움 發表文)
12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궁남지≫ 78~84. "西阝後巷已達已斯丁依舌△丁" "歸人中口四小口二 邁羅城法利源 水田五形"
123) 李鎔賢, 1999 <扶餘 宮南池 出土 木簡의 年代와 性格> ≪宮南池≫

달리 中國 律令의 年齡等級制에서 西魏·隋·唐代에 '丁中制'가 서서히 確立되었는데, 그것이 百濟 律令에 그대로 適用되었다고 보는 說도 있다.[124] 아무튼 이에 대해선 앞으로 새로운 木簡 資料의 發掘을 기다려야겠다. 그 다음 '文丁'은 扶餘 雙北里 현내들 遺跡에서 나온 85-8號 木簡의 "△率牟氏丁一 ×/ △◎隆△丁一× / △酒丁一 / × △"[前面, ◎는 구멍, ×는 破損]와[125] 그리고 扶餘 陵山里寺址 出土 木簡의 '資丁'과 比較가 된다. '文丁'을 文翰을 담당하는 職役으로 보는 說이 제기되었는데,[126] 이 역시 앞으로 좀더 具體的인 檢討를 要한다.

4號 木簡은 地方 官衙에서 米를 거두어들여("受米") 바치는("貢") 일과 關聯된 事實을 記錄한 行政文書로 여겨진다.

5號 木簡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丁一　　中口
前面: 大祀◎村△弥首山△△　　牛一
△丁 一

涇 水田二形 得七十二石 △△在月三十日△△
後面: ◎白田一形 得六十二石
△耕麥田一形△

이 木簡은 大祀村 내의 土地와 收穫量 및 人力과 畜力에 관한 事項을 記述한 一種의 村落文書이다. '中口', '丁' 등 年齡區分에 따른 人口 編制, '水田'·'白田'·'麥田' 등 耕作地의 區分, 宮南池 木簡에서도 보였던 '形'이라는 土地 單位, '石'으로 表示된 收穫量 등은 당시 村落과 農民生活 및 이들에 대한 國家의 統治 樣態를 理解하는 데 主要한 面을 전해준다.

6號 木簡은 封緘(封檢)木簡으로 表面에 '上' 裏面에 '第十一草'라 표기되어 있다. 伏岩里 地域에 있던 地方官衙에서 中央의 上級 官廳에 올리는 機密文書를 담는 木簡으로 여겨진다. 9號 木簡에선 前面에 "麻中練六四斤"이란 글자가 確認된다. 受取關係 文書의 일부로 여겨진다.

12號 木簡은 前面에 "軍那德乎至安(軍那의 德乎가 安全하게 이르렀다)"라 적혀있다.

---

124) 尹善泰, 2007 ≪木簡이 들려주는 百濟 이야기≫ 172~180
125) 李昄燮·尹善泰, 2008 <扶餘 雙北里 현대들·北浦 遺跡 調査成果> ≪木簡과 文字≫ 創刊號
126) 金聖範, <앞 논문>

軍那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熊津都督府 하에 設置된 6州 중의 하나인 帶方州 하의 縣이다.[127] 신라 武州 咸豊縣이 백제의 屈乃縣이라 하였으므로, 같은 地域이다. 이에 대해, '屈奈'라는 地名을 百濟 때 이미 보다 洗練된 形態인 '軍那'로 使用하였고, 이것을 熊津都督府에서 襲用하려고 한 計劃案을 三國史記 地理志 末尾에 轉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한다.[128] 이를 耕作地 獲得 關聯 事實을 記錄한 것인 듯한 10號 木簡에서 "△△州久三十田得"이라고 한 것과 連結해 보면, 伏岩里 木簡의 年代에 주요한 論據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백제 지역 출토 木簡은 百濟 律令에 관한 몇 가지 점을 말해준다. 百濟에서 늦어도 7세기 以後에 民을 나이에 따라 編制하는 戶令, 土地의 單位에 따른 區分과 課稅 등을 규정한 田令, 貸食制에 관한 令, 文書行政과 관련한 書式을 정한 公式令, 度量衡에 관한 令 등이 存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史書에서 전하는 바에 의할 때, 官位令과 中央과 地方 官署의 職員 數와 그 官等을 規定한 職員令 등이 存在하였음을 推定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金石文과 木簡을 통해 新羅와 百濟에서 律令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었다. 律令의 受容은 中央集權的인 國家의 成立과 密接히 聯關된 것이다. 즉 律令은 '大王國土'[129]에 있는 人民과 地域을 一元化된 方式으로 支配하려는 指向性을 담은 法律體系였다. 자연 그 안에는 田地區劃, 編戶, 力役動員, 租稅收取, 官職의 數와 그 官等 등에 관한 規定이 包含되기 마련이다. 이런 면을 重視하여, 비록 具體的인 律令 條項이 確認되지 않지만, 高句麗에서 中央集權的 領域國家의 成長 推移와 聯關시켜 關聯 文獻 史料를 통해 律令의 存在를 想定하고 그것의 再構成를 試圖한[130] 硏究와, 新羅史의 發展에서 律令이 지닌 意味를 解釋해 보려 한 試圖,[131] 그리고 百濟 律令의 頒布時期를 그 地方制度의 정비과정과 連結하여 考察해보려는 논고[132] 등은 그 나름의 意味를 지닌 試圖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考古學的 遺蹟·遺物에 대한 分析을 통해, 三國時代 律令의 受容과 施行을 밝혀보려 한 硏究도 그러한 視角에서 追求된 論考이다. 즉 遺跡에서 出土된 遺物로 볼 때 어느 시기부터 威信財인 金屬製 裝身具나 武器 등을 통해 權力을 誇示하는 效

127) ≪三國史記≫ 47, 地理志4 帶方州條
128) 金聖範, 2009 <앞 논문>
129) 徐永大, 1992 <中原高句麗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 36~53
130) 盧重國, 1979 <앞 논문>
131) 姜鳳龍, 1992 <三國時期의 律令과 民의 存在樣態> ≪韓國史硏究≫ 78
132) 洪承佑,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韓國古代史硏究≫ 54

果가 사라지고, 同一한 模樣의 服飾을 着用하면서 색깔이나 材質 差異만으로 政治的 位階의 差異(官位)를 나타내는 方式으로 바뀌었음에 주목하고, 그리고 文書行政 시스템의 發達을 想起시키는 木簡 외에 벼루와 文房具類의 普及을 나타내는 遺物 및 都市遺跡 등에 留意하여, 이런 변화를 律令(制)의 受容과 施行에 따른 樣相으로 解析하였다.[133] 그리고 6世紀 中盤 이후 整形化된 帶金具가 各地의 古墳에까지 擴散됨을 중시하여, 일정한 樣式의 帶金具나 冠帽·衣服을 着用한 무덤의 被葬者들은 官人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정한 衣服令이나 喪葬令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34] 이런 硏究들은 中央集權的 領域國家 體制와 律令制 硏究에 考古學的 遺物 遺跡을 積極 活用한 것으로, 그 主張의 具體的인 面에서의 妥當性 與否를 떠나 論議의 幅을 넓힌 새로운 試圖라 할 수 있다.

이어 現在까지의 資料를 통해 韓日 古代國家들 간의 律令文化 交流의 一面을 살펴보자.

2. 古代 韓日 間 律令文化의 交流 事例

(1) 百濟의 貸食制와 日本의 出擧制

百濟 '佐官貸食記' 木簡에서 記述된 利率이 50%인데, 이는 日本 養老雜令에 規定한 公出擧의 利率과 同一하다. 따라서 養老雜令이 唐雜令을 直接 受容한 것인지 百濟의 그것을 受容한 것인지가 일단 問題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日本의 이른 時期 出擧木簡, 가령 7世紀 後半의 福岡縣 大宰府跡 出土 木簡에서 "八月△日記 貸稻數…"式으로 記述되어 百濟 貸食記 木簡의 記載樣式과 相通한다. 다른 出擧木簡에서도 '貸稻'라는 用語가 쓰이는 등 百濟의 그것과 통하는 것이 적지 않다. 아울러 '未'·'上'으로 償還與否를, '石'과 '斗' 외에 '半'과 '甲'으로 穀量을 表記한 例도 보인다.[135] 이런 점에서 日本의 出擧制 運營을 規定한 養老雜令의 淵源을 一次的으로는 百濟 律令文化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日本에서 出擧는 春·夏, 즉 播種期인 3월과 端境期인 5월에 행해졌다. 그런데 貸食記 木簡에서는 6월에 행하였다고 전한다. 이런 兩者 간의 差異에 대해선, 中國의 例를

133) 山本孝文, 2006 ≪앞 책≫
134) 李漢祥, 1997 <5~7世紀 百濟의 帶金具> ≪古代硏究≫ 5 ; 山本孝文, 2009 <考古學으로 본 三國時代의 官人> ≪韓國古代史硏究≫ 54
135) 三上喜孝, 2009 <앞 논문>

들어 糧穀 貸與가 地域 事情에 따라 差異가 있었음을 指摘한 見解가 留意된다.[136] 나아가 오히려 日本의 例로 보아 百濟에서도 2次例 행해졌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겠다. 현재 알려진 百濟의 貸食文書는 하나뿐이고, '貸食'이란 표현이 6月 端境期에 食糧을 供給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勘案하면 播種期에 種字穀을 貸與하였을 可能性을 想定할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高句麗에서 3月과 7月 사이에 糧穀을 賑貸하였다는 記錄도 參考가 된다.

(2) 日本의 束把制와 新羅의 結負法

다음으로 日本의 出擧木簡에선 糧穀의 量 單位로 '石'과 '斗'외에도 '束'과 '把'를 使用하였다. 日本의 束把制는 稻를 '束(たば)ねる' 한 것에서 由來하였다고 하는데,[137] 束은 韓國語에선 稻 등의 穀食이나 花 등을 묶은 '다발'이며, 'たば'도 '다발'과 같은 語源으로 여겨진다. 新羅의 土地 面積 單位는 結·負·束·把이었다. 面積單位로서 結負制는 新羅에서 늦어도 7世紀 中盤에는 成立되었다.[138] 把는 한 움큼(손으로 잡아 쥘 수 있는 量)의, 束은 한 묶음의, 負는 한 등짐의 稻 줄기를 말한다. 1結은 100負, 1負는 10束, 1束은 10把가 된다. 즉 이런 量이 수확되는 어떤 標準 田土의 面積에 의거해 各 單位의 絶對 面積을 算出한 후, 그것을 全國에 適用하여 土地 面積 單位로 施行하였던 것이다. 일단 정해진 후, 이 單位들은 農地뿐 아니라, 垈地·山林·鹽田 居住地域 등의 絶對 面積을 算出하는 單位로도 使用되었다.[139] 자연히 이런 結負法은 律令에 依據해 規定되었을 것이다. 結·負·束·把는 이후 一貫된 絶對 面積 單位로 高麗時代까지 사용되었다. 이어 朝鮮時代에는 農地의 肥瘠에 따른 所出의 차이를 반영하여, 300斗의 所出을 내는 面積을 1結로 하는 수확량 기준의 토지 면적 단위가 되었다. 아무튼 거슬러 올라가면 '負' '束' '把'의 語源이 나타내는 바에 따라 이것이 절대면적 단위를 나타내는 제도로 정립되기 이전, 즉 糧穀의 所出量 單位로 사용된 것은 늦어도 7세기 중반보다 이른 시기부터였을 것이다. 그 시기에 '束'·'把'가 全國에 걸친 租稅 收取에서 一定한 곡식의 量을 나타내는 單位로 通用되었다면, 負·束·把로 표현되는 糧穀의 絶對量에 대한 規定이 令으로 定해졌을 것이

136) <위 논문>
137) 井上光貞 等校注, ≪律令≫ 570
138) 663년 11월 百濟復興運動軍을 鎭壓한 뒤 文武王이 金庾信에게 田 500결을 賜與하였다(≪三國史記≫ 金庾信傳 中).
139) 李宇泰, 1989 <新羅時代의 結負法> ≪泰東古典硏究≫ 5 ; 2002 <古代度量衡制의 發達> ≪講座 韓國古代史≫ 6

다. 이것을 늦어도 7世紀 中葉에는, 앞서 말했듯이 絶對 面積單位로 다시 設定하였던 것이다. 6世紀 後半의 城山山城 出土 木簡에서는 糧穀의 量 단위로 石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건대, 이 무렵에는 石斗制가 糧穀의 量單位로 公式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糧穀의 量 單位로서 石斗制와 '把·束制'가 병행하여 사용되었던 듯한데, 아마도 把束制가 먼저 행해지다가 어느 시기부터 石斗制와 竝行하여 사용되고, 늦어도 7세기 중엽 이후에는 量制로 石斗制만 행해지고, 束把制는 土地面積 單位로만 使用하게 되었다. 日本에서 束把制가 記錄上에 登場한 것은 大化改新詔에서 였다.[140] 大化改新詔에 담긴 내용이 그 당시의 것인지에 대해선 오랜 論難이 있어 왔는데, 아무튼 일본에서 束把制는 8세기대에도 糧穀의 量制로 使用되었다. 일단 그 名稱으로 볼 때, 新羅와 日本의 束把制는 그 淵源에서 相互 密接한 聯關性이 있다. 앞으로 兩國의 束把制의 起源과 그 施行 樣相에 대한 보다 具體的 檢討와 論議가 要望되는 바이다. 이는 兩國의 律令文化 交流에 대한 한 事例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月城 垓子 2號 木簡과 養老書式令

月城 垓子에서 出土된 2號 木簡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大烏之郎足下万拜白之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斤
牒垂賜敎在之後事者命盡
使內
(* 判讀者에 따라 몇 字 差異가 있고, 각 行의 順序 配列에서도 差異가 있음)

이 木簡의 作成年代에 대해선 6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大烏之郎의 大烏之를 新羅 官等 중 第15位의 大烏로 보고, 金石文 上에서 이 官等에 대한 表記를 '大烏'라 한 것은 南山新城碑 第3碑(591) 以後부터이고, 그 以前인 永川 靑堤碑 丙辰銘(536)에선 大烏第, 丹陽赤城碑(550)에선 大烏之라 하였으므로, 월성 해자 2호 목간은 536년에서 591년 사이인 550년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위 판독문의 第3行을 第1面으로 보아, 文書를 解析한 說이 提起된 바 있다. 이

140) 日本의 束把制에 대한 言及은 ≪日本書紀≫ 25, 大化2년 正月條에 실린 大化改新詔에서 보인다. 즉 "長 30步 廣12步를 1段으로하고, 10段을 1町으로 하며, 1段마다에 租로 稻2束2把를 1町마다에 稻 22束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할 때 束把는 量單位가 된다.

說은 大烏之郞이 文書의 受信者이고, 萬引을 그 發信者로 보았다. 그래서 이 文書를 寫經에 필요한 종이 購入을 請求하기 위한 牒式文書로 보았다. 나아가 이런 文書 樣式이 大烏郞과 萬引이라는 個人과 個人 간의 上申文書로 使用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 문서 양식이 7世紀 後半 日本의 牒式木簡과 8世紀 養老公式令의 牒式 規定에 影向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해하였다.[141] 이는 日本 養老公式令의 牒式 規定이 唐 公式令과는 달리 官司의 下達文書가 아니라 官人 個人의 上申文書로 規定되었던 점과 類似함에 着目한 見解이다.

이에 대해, 이 목간의 '牒'은 札로서 簡牘을 뜻하며, "牒垂賜敎在之後事者命盡"을 "牒함. 내리신 敎가 있었습니다. 後事는 命한대로 다하도록"이라 하지 않고, "牒(木簡)을 내리신 命令(敎)이 있었습니다. 뒤의 일(後事)은 命한대로 다 하였습니다"로 해석하여, 이 木簡文書는 牒式 文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說이 提起되었다.[142] 아울러 이 木簡의 "某足下白之"는 日本 古代의 '某前申(白)' 形式의 文書木簡에서 보이는 '白之'와 비슷하며, 그것의 淵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 '之'는 文章終結詞로서의 '之'인데,[143] 이 같은 '之'의 用法은 古代 韓國에서 먼저 사용되었고 이후 日本에 影向을 주었을 것이란 指摘이 앞서 있었다.[144]

月城 垓子 2號 木簡文書가 新羅에서 令으로 規定한 文書樣式인지, 또 이것이 養老公式令과 直接 聯關되는지 與否는 앞으로 좀더 具體的 事例 檢討와 論議가 必要한 問題이다. 그러나 일단 新羅 또는 百濟의 書式과 日本의 그것 간에는 聯關이 있을 蓋然性은 充分히 있는 만큼, 이 또한 兩側 간의 律令文化 交流의 한 例로 考慮 對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日本의 地方 各地에서 出土되는 出擧木簡과 各種 文書木簡이 말해주

141) 위에서 提示한 文書에서 第1行의 '萬拜'를 '萬引'으로 읽고 이를 人名으로 본 견해이다.
李成市, 2005 <朝鮮の文書行政> ≪文字と古代日本 2≫ 吉川弘文館 ; 三上喜孝, 2006 <文書樣式'牒'の受容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學 歷史·地理·人類學論集≫ 7

142) 李京燮, 2009 <新羅 月城 垓子에서 出土한 '2號 木簡'에 대하여> ≪韓國古代史 硏究의 現段階－石門 李基東敎授 停年 紀念 論叢－≫

143) 南豊鉉, 2005 <韓國古代吏讀文의 文末語助辭 '之'에 대하여> ≪口訣硏究≫ 15 ; 李宇泰, 2005 <金石文을 통하여 본 漢字의 導入과 使用> ≪韓國古代史硏究≫ 38

144) 藤本幸夫, 1996 <古代朝鮮の言語と文字文化> ≪日本の古代 14≫ (中央公論社) ; 犬飼隆, 2006 <日本語を文字で書く> ≪列島の古代史 6－言語と文字－≫ 6 (岩波書店)
한편 終結詞 '之'가 古代 韓國에서 비롯한 것(吏讀)이 아니라, '之'의 그런 用例는 秦·漢의 簡牘에서도 確認됨을 밝힌 연구가 발표되었다.[金秉駿, 2009 <樂浪의 文字 生活> ≪古代 文字資料로 본 東亞細亞의 文化交流와 疏通≫ (동북아역사재단)] 그런데 古代 中國 내에서 행해진 '之'의 다양한 用例 중 그런 것이 있음은 同意하지만, 終結詞로서 '之'가 많이 사용된 것은 역시 古代 韓國의 漢文 敍事에서의 特性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는 文書行政의 普及과 文字生活의 成熟이 律令制 施行의 土臺가 되었다는 事實이 留意된다. 이런 文字生活의 活性化에는 百濟나 新羅의 木簡使用을 포함한 文字生活文化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도[145] 좋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國家間 交流의 産物인 동시에 移住를 포함한 兩側 住民間 交流의 結果라고 여겨진다. 앞으로 이런 면에 좀더 留意할 必要性이 提起되는 바이다.

제2절 佛敎文化의 交流

1. 僧侶와 制度의 交流

6世紀 中葉 百濟에서 倭國으로 佛敎가 傳해진 以後, 兩國間에는 緊密한 佛敎文化의 交流가 있었다. 552년 12월 釋迦佛金銅像과 幡蓋 및 약간의 經論이 百濟에서 倭國으로 보내졌으며, 이어 554년에는 백제가 曇慧 등 9인의 僧侶를 왜에 派遣하여 이미 가있던 僧侶 道深 등 7人과 交代케 하였다. 이 시기 百濟와 倭國 간 佛敎文化의 交流는 군사적·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즉 百濟가 倭國의 軍事援助를 獲得하기 위해 5經博士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인 師와 工 등을 보내었고 불교의 전파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당시 百濟와 倭國 간 文化交流 樣相의 一面을 보여준다. 아무튼 이후 百濟와 倭國 간에 佛敎文化의 交流가 進展되었으며, 兩國 佛敎界 간의 人的 交流도 增大되었다. 577년에는 百濟에 使行하였던 大別王이 귀국할 때, 백제가 經論 약간 卷과 아울러 律師·禪師·比丘尼·呪禁師·造佛工·造寺工 등을 함께 파견하였고, 倭國은 이들을 難波의 大別王寺에 安置하였다.[146] 587년에는 百濟가 惠總 등의 僧侶들과 佛舍利를, 그리고 數名의 僧侶 律師와 寺工·鑪盤博士·瓦博士·畵工 등 技術者들을 倭國에 보냈다. 이 해에 시작한 法興寺의 創建은 이들 百濟 僧侶와 技術者들에 의해 主導되었을 것이다. 또 이 해에 왜국은 司馬達等의 딸인 善信尼 등 3명의 比丘尼가 歸國하는 百濟國使를 따라 百濟로 가 修學케 하였다.

高句麗는 570년에 倭에 使臣을 派遣하여 兩國間에 國交가 열렸다. 아마도 韓半島 中部地域을 차지하며 强盛해진 新羅가 中國의 南朝와만 交流하던 데서 벗어나 高句麗의 背

145) 三上喜孝, 2008 <日本 古代의 木簡의 系譜> ≪木簡과 文字≫ 創刊號
146) ≪日本書紀≫ 敏達紀 6년 11월조

後에 있던 北齊와 交流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對應으로 高句麗도 新羅의 背後에 있는 倭國과 通交하는데 熱意를 보이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147] 高句麗에서 倭國으로 佛敎文化의 傳來도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570년 이후 兩國 간의 佛敎文化와 僧侶의 交流도 이어졌다. 倭國 僧侶 鞍作得志, 道登, 行善 등이 高句麗에 留學하였다.[148] 新羅도 579년 倭國에 佛像을 보냈다.[149] 이런 周邊 狀況의 進展은 百濟가 倭國과의 佛敎文化 交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였던 한 要因이 되었던 것 같다.

한편 倭國에서는 587년 蘇我馬子가 佛敎 受容에 反對하던 物部守屋을 除去한 뒤, 佛敎가 本格的으로 受容되었다. 593년 法興寺塔의 刹柱를 세울 때, 蘇我大臣 등 100餘人이 함께 百濟服을 입고 佛舍利 奉安式에 參席하였다. 596년 11월 法興寺가 完工되자, 百濟인 慧聰, 고구려인 慧慈를 이곳에 駐錫케 하였다.[150] 이 두 승려는 당시 國政을 主導하던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었으며, "佛敎를 弘演하여 三寶의 棟樑이 되었다"고 한다.[151]

百濟에서 608년 曆法과 天文에 관한 書籍과 함께 觀勒이 보내졌고, 고구려 승려 僧隆과 雲聰이 倭國에 갔다. 觀勒은 624년 倭國 最初의 僧正이 되었다.[152] 625년 高句麗가 僧侶 慧灌을 파견하니 倭國 朝廷이 그를 僧正으로 삼았다.[153] 그는 隋로 건너가 吉藏에게 三論學의 宗旨를 배웠으며, 倭國에서 三論學을 弘布해 日本三論宗의 始祖가 되었다. 이 시기 倭國에서 活躍한 高句麗人 慧慈와 慧灌, 百濟人 慧聰과 觀勒은 모두 三論學에 깊은 造詣가 있었으며 成實論에도 通達한 僧侶로서 聖德太子와 깊은 關係를 가졌다.[154] 이러한 倭國과 百濟 및 高句麗 간의 佛敎文化와 僧侶의 交流는 이 시기 이들 國家들 간의 密接한 政治的 友好關係에 肯定的으로 作用하였을 것이다.

한편 607년(推古 15년) 倭國은 隋와 通交하였으며, 608년에는 遣隋使와 함께 高向玄理 등 4명의 留學生과 旻 등 4명의 學問僧이 파견되었다. 623년 신라는 왜국에 불상과 金塔·舍利 등을 보내면서 왜의 渡唐留學僧인 惠光, 惠齋과 醫師 惠日, 福因 등을 新羅使와 함께 귀국하게 하였다.[155] 이들의 歸國 루트는 從前의 百濟路를 택하였던 것과는 다른

147) 李成市, 1990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795 ;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재수록
148) 中井眞孝, 1994 <高句麗佛敎と日本の古代> ≪朝鮮と日本の古代佛敎≫ (東方出版) 45~49
149) ≪日本書紀≫ 20, 敏達紀 8년 10월
150) ≪日本書紀≫ 22, 推古 4년 11월
151) ≪日本書紀≫ 22, 推古 3년 5월 丁卯
152) ≪日本書紀≫ 22, 推古 32년 4월 壬戌
153) ≪日本書紀≫ 22, 推古 33년 정월 戊寅
154) ≪三國佛法傳統緣起≫ 卷中, 成實
155) ≪日本書紀≫ 22, 推古 31년 7월

것이었다. 以後 632년과 639년, 640년 唐에 갔던 新羅使가 歸國 할 때 倭國의 入唐 留學僧과 學生들이 함께 돌아왔고, 이들은 신라에서 왜국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취하였다(<표 3>참조). 그리고 654년에 智宗, 658년에 智通 등이 入唐할 때 新羅를 통해 갔다. 이런 일들이 당시 兩國의 關係 進展에 어떠한 影響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論議가 있었다. 690년에도 渡唐留學僧인 智宗 등이 신라를 거쳐 귀국하였다.[156] 아무튼 이는 新羅와 倭國 간 佛教文化 交流에 肯定的인 影響을 주었을 것이라고 推測할 수 있겠다.

〈표 3〉 日本의 新羅留學僧과 唐留學僧 (歸國年 基準)[157]

	新羅 留學僧	唐 留學僧
文武王 以前(~660)		福仁(623), 惠齋(623), 惠光(623), 僧旻(632), 靈雲(632), 惠隱(639), 慧雲(639), 請安(640), 道昭(651)
文武王代(661~680)	道行(668)	定惠(665), 妙位(668), 法勝(668),
神文王代(681~691)	觀常(685), 雲觀(685), 行心(686), 智隆(687), 明聰(689), 觀智(689)	
孝昭王代(692~701)	辨通(696), 神叡(693 ?)	智宗(690), 義德(690), 淨願(690)
聖德王代(702~736)	義法(707), 義基(707), 惣集(707), 慈定(707), 淨達(707), 行善(718)	道慈(718), 智鸞(703?), 智雄(703?)

8세기 중반 화엄 전적을 일본에 가져온 審祥의 경우, 그가 留學한 나라가 唐이라는 說과 新羅라는 說이 있는데, 그가 新羅에 다녀간 것은 확실하다.

690년 新羅 僧侶 詮吉과 級飡 北助知 등 50여 인이 日本에 歸化하였다.[158] 758년에도 新羅 僧侶 32인과 比丘尼 2명 및 남녀 40명이 武藏野에 정착하는[159]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계속 행해졌다.

三國과 日本의 佛教文化 交流의 자취는 寺刹의 伽藍 配置 構圖를 통해서도 確認된다. 飛鳥時代 寺院인 四天王寺의 경우, 中門－塔－金堂－講堂을 南北 一直線上에 配置하고 中門에서 講堂에 이르는 左右 回廊을 설치한 構圖였다. 이는 扶餘의 軍守里 廢寺址와 定林寺 등에서 보이는 典型的인 百濟의 1塔 1金堂式 伽藍 配置와 直結되는 面을 보인다. 607년에 完成된 것으로 推定되는 法隆寺 創建 伽藍은 現 法隆寺의 東南方에 자리한 若草伽藍址에 있었다. 塔과 金堂의 規模가 현재의 것과 거의 비슷한 이 寺址는 1塔式 伽藍

156) ≪日本書紀≫ 30, 持統 4년 9월 丁酉
157) 이 표는 鄭炳三, 2002 <古代 韓國과 日本의 佛教 交流> ≪韓國古代史研究≫ 27에서 인용.
158) ≪日本書紀≫ 30, 持統 2월 戊午
159) ≪續日本紀≫ 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 8월 癸亥

配置 構圖를 보여준다.[160] 또한 日本 最初로 建立된 法興寺(飛鳥寺)의 경우, 1塔 3金堂式인데 이는 平壤의 淸岩洞 廢寺址와 定陵寺址의 그것과 직결되는 伽藍 配置 樣式을 보여준다. 그리고 奈良에 있는 川原寺의 伽藍이 飛鳥寺의 伽藍 配置를 變形한, 즉 東金堂을 除去한 樣式임이 밝혀져 日本 古代의 寺院 建築에 미친 高句麗의 影響을 말해준다. 단 高句麗의 塔은 8角塔인데 비해 百濟의 塔은 4角塔이고, 飛鳥寺의 그것은 4角塔이다. 飛鳥寺의 경우는 高句麗의 伽藍 配置 構造에다 百濟 樣式의 塔이 세워진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新羅 寺院의 伽藍 配置와 類似한 例는, 7世紀 말 8世紀 代에 登場하였다. 698년 奈良에 처음 건립되었다가 718년 平城京으로 移建된 藥師寺에서 확인된다. 藥師寺式 伽藍 配置는 慶州의 佛國寺 등에서 보이는 雙塔式 伽藍 構圖와 直結된다. 이런 雙塔式 伽藍 配置를 지닌 가장 이른 시기 新羅의 절이 679년에 세워진 四天王寺인데, 최근 그 遺址가 發掘되었다. 단 新羅의 그것은 金堂 左右에서 東西 回廊에 이르는 翼廊이 있으나, 藥師寺에는 그것이 없고 처음부터 北回廊이 있어 差異를 보인다. 新羅의 雙塔式 伽藍 配置를 取하면서도 變形된 面을 나타냈다.[161] 무엇보다 塔의 材質에서 三國이나 日本 모두 처음에는 木塔을 세웠다. 그러나 7世紀에 들어서 三國에선 石塔을 세우게 되었고, 日本에선 계속 木塔을 造營하였다. 兩側에서 각각 良質의 石과 木이 産出되는 地域的 特性에 따른 文化 樣相의 差異라 하겠다.

國家의 佛敎 寺院 運營에 있어서도 新羅와 日本은 비슷한 面을 나타냈다. 新羅는 神文王 4년(684)에 四天王寺, 奉聖寺, 感恩寺, 靈廟寺, 永興寺에 成典을 設置하여 寺院의 維持와 經營을 맡도록 하였다. 日本에서는 680년 國大寺 制度를 施行하여 造寺司를 設置하고 寺院 運營을 擔當하도록 하였다. 寺成典과 造寺司는 그 性格上 類似한 一面을 보여준다.[162] 이 시기 新羅와 日本의 佛敎는 護國佛敎的 性格을 강하게 지녔는데, 日本의 경우 8世紀 中葉 護國經의 功德으로 政治와 社會의 安定을 바라는 國分寺 制度의 運營을 시작하였다. 즉 諸國에 國分寺를 설치해 7層塔을 1개 만들고, 金光明經最勝經과 法華經을 10部씩 書寫하고, 寺名은 僧寺는 金光明四天王護國寺라 하며 尼寺는 法華滅罪寺라 하였다. 每月 金光明經을 읽고 半月說戒하며 6齋日에 殺生을 禁하도록 하였다. 經典을 讀誦함으로써 災殃을 물리치고 國家의 平安을 祈願하며 鎭護國家를 指向하는 이 國分寺는 唐 則天武后가 施行했던 大雲經寺 制度를 본 딴 것이라 한다.[163] 이런 官寺佛敎 제도가 이 시

160) 張慶浩, 1994 <百濟와 日本의 古代 寺刹建築> ≪百濟史의 比較硏究≫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61) 金正基, 1982 <新羅伽藍配置와 日本에의 影響>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 203~207
162) 鄭炳三, <앞 논문>

기 新羅에서도 행해졌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神文王 4년의 成典寺院이 이러한 官寺佛敎라고 보는 설이[164] 있는가 하면, 이들 成典寺院은 어디까지나 王室 寺院이므로 이를 官寺佛敎라 볼 수 없다는 反論이[165] 있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166] 일단 日本의 國分寺가 地方 各地에 設置되었던 데에 비해 新羅의 成典寺院은 首都에만 세워져서 差異를 보인다.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고대 일본의 國分寺 制度와 新羅의 成典寺院 및 隋·唐의 大雲寺(開元寺) 制度 등을 比較하는 檢討가 要望된다.

한편 三國과 倭國에서 佛敎에 대한 理解가 깊어짐에 따라, 僧侶 交流와 함께 佛敎 關聯 典籍도 交流되었다.

2. 佛敎 典籍의 交流

百濟에서 倭國으로 佛敎가 傳來된 初期부터 약간의 經論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典籍의 性格을 알 수 없다. 아울러 7世紀를 前後한 時期 三國人의 著述로서 倭國으로 전해진 불교 관련 書籍도 그간 구체적으로 把握되지 않아 왔다. 그런 면에서 ≪大乘四論玄義記≫의 著者를 둘러싼 最近의 論議가 留意되는 바이다. 이 책은 12권 23편으로 이루어졌다. 확인되는 23편 중 현재 전해지는 것은 續藏經에 수록된 二諦義, 佛性義, 斷伏義, 金剛心義, 二智義, 感應義, 三乘義, 莊嚴義, 三位義 등 9篇과 새로 발견된 筆寫本에 收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初章中假義, 八不義 등 총 11篇이며, 이 중 二諦義, 佛性義의 일부 내용은 결락되어 있다. 나머지 12편 중 涅槃義, 法身義, 淨土義, 般若義 등 4편은 원래 몇 卷에 수록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권8, 11 등은 逸失되었다. 이 책의 著者에 대해 여러 文獻에서 '僧正 慧均'에 의해 編纂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6世紀 後半 中國의 江南 지방에서 活動한 法朗(507~581)을 자신의 스승으로 重視하는 內容을 이 책에 담고 있어, 法朗 門下에서 修學하여 吉藏(549~623)보다 약간 이른 時期에 活動하였을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167] 著者인 慧均을 종래 中國人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를

163) 石田瑞麿, 1983 ≪日本佛敎史≫ (岩波書店) ; 李永子 譯, 1988 ≪일본불교사≫ (民族社) 60~64
164) 李泳鎬, 1983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硏究≫ 43
165) 尹善泰, 2000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硏究≫ 108
166) 新羅 成典寺院에 관한 論議는 다음 論文 參照.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機能과 構造> ≪釜山史學≫ 8 ; 朴南守, 1996 <統一新羅 寺院成典과 佛寺의 造營體系> ≪東國史學≫ 28 ; 1996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재수록
167) 이상의 大乘四論玄義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의거하였다. 伊藤隆壽, 1969 <慧均 '大乘四論玄

百濟人으로 보아야 한다는 主張이 근래 提起되었다.[168] 만약 이 說이 妥當性을 지닌다면 初期 日本佛敎의 가장 주요한 流派인 三論宗의 形成에 高句麗 뿐 아니라 百濟의 三論學이 至大한 影響을 주었음을 再確認할 수 있으며, 6世紀에서 7世紀 前半에 걸쳐 三論學을 매개로 中國의 南北朝와 隋·唐, 韓國의 三國, 倭國으로 연결되는 東아시아 佛敎文化 交流의 주요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具體的인 資料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現傳하는 韓國의 가장 오래된 佛敎 關聯 著述이 되는 셈이다.

慧均을 百濟人으로 보고 ≪大乘四論玄義記≫가 百濟에서 著述된 것으로 보는 주된 論據는, 이 책에 기술된 內容 중 慧均의 講論에 대한 質疑 應答을 담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檢討를 통해서 이다.

> 問: (前略) 앞의 10명의 學者들의 見解가 모두 잘못을 擁護하는 것이어서 論破되었다고 한다면, 此間(이곳)의 寶意淵師와 祇洹雲公이 眞如를 (佛性의) 正因性(본질)이라고 主張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게 論해야 하는가?
>
> 答: 일단 그들의 主張을 살펴보면 (중략) 論破할 對象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치 耽羅·刀牛(??)利 등의 사람이 禮樂의 敎化를 입지 못한 것과 같다.

즉 여기에서 慧均이 논박한 寶意淵師와 祇洹雲公은 寶熹寺의 淵師와 祇洹寺의 雲公으로서, 이들은 佛敎에 관한 中國 文獻에서 確認되지 않는 인물이고, 寶意寺도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 扶餘의 陵山里 절터에서 발견된 20餘種의 木簡 중에서 '寶意寺' 라는 기록이 보여, 寶意寺가 百濟의 寺刹이라는 점이 確認되었다. 그리고 野蠻人의 例로써 당시 中國人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耽羅人을 든 것은 이 책이 中國人의 著述로 보기 어려운 점이니, 이에서 말하는 '此間(이곳)'은 百濟를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런 主張에 대한 反論이 곧 提起되었다.[169] 즉 위 문답에서 말하는 寶意淵師와 祇洹雲公은 南中國의 金陵 지역을 중심으로 活躍하였던 寶亮法師(442~507)와 光宅 法雲을 말하며, ≪大乘四論玄義記≫를 百濟에서 傳寫할 때 寶亮을 寶意로 誤寫하였을 가능

義'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硏究≫ 36 ; 1971 <'大乘四論玄義'の構成と基本的 立場> ≪駒澤佛敎學部論集≫ 2 ; 1974 <慧均'大乘四論玄義'について(二)> ≪印度學佛敎學硏究≫ 40 ; 1974 <'大乘四論玄義' 逸文の整理> ≪駒澤佛敎學部論集≫ 5

168) 崔鈆植, 2007 <百濟 撰述 文獻으로서의 '大乘四論玄義記'> ≪韓國史硏究≫ 136 ; Jorg Plassen, 2007 "On the significance of the Daeseung saron hyeunui gi大乘四論玄義記 for research on early Korean Buddhist thought -Some initial observations focusing on hwajaeng" ≪韓國史硏究≫ 136

169) 金成哲, 2007 <'大乘四論玄義記'는 백제에서 찬술되었나?－崔鈆植 敎授의 百濟 撰述說에 대한 反論－> ≪韓國史硏究≫ 137

성이 있고, 책 內容의 展開上으로도 그렇게 볼 경우 無理없이 論旨가 展開된다고 主張하였다. 이어 그런 批判에 대해 '亮'을 보다 劃이 많은 '憙'로 傳寫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며, 또 陵山里 寺址에서 出土된 木簡에선 '憙' 字가 분명한 만큼 '寶憙'를 '寶亮'의 誤寫로 보기 어렵다고 한 反批判이 나왔다.[170] 현재로서는 慧均－百濟人說이 百濟 木簡의 '寶憙寺'와 耽羅에 대한 언급 등 보다 구체적인 면을 지니지만, 그것으로는 '誤寫'의 가능성을 완전 拂拭하기에는 不足한 면도 있다. 앞으로 이 册의 일부분으로 그 存在가 알려진 ≪大乘四論玄義記≫ 第1卷 <初章中假義>와 같은[171] 資料의 全貌가 公開되고, 이를 활용한 論議의 進展이 있기를 기대한다.[172]

韓國佛敎史와 古代 韓日 佛敎文化 交流史를 이해하는 데에 ≪大乘四論玄義記≫가 지닌 意義가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兩國 學人의 앞으로의 硏究가 期待되는 바이다.

兩國 住民 간의 佛敎 典籍의 交流는 7世紀 終盤 以後에도 持續되었다. 日本에 전래된 新羅人의 佛敎 關係 著述과 普及은 8世紀代 日本에서 행해진 寫經 事業을 통해 그 程度를 짐작해볼 수 있다. 寫經된 經典 註釋書의 著述家는 中國人이 84名이고 新羅人이 15名이었는데, 그들 중 元曉의 著述이 가장 많아 多樣한 經論에 걸쳐 60餘種 83回의 寫經 횟수를 헤아린다.[173]

華嚴 典籍의 本格的인 傳來는 新羅에서 華嚴을 익히고, 740년에서 3년간 華嚴經을 東大寺에서 講義한 審祥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宗派를 망라한 70部 645卷의 經論을 가져왔다. 그 중 新羅 僧侶의 것이 50部 132卷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新羅에 많은 唐의 經籍이 流通되었음을 알 수 있다. 754년 唐의 僧侶 鑑眞이 日本에 올 때 가져온 典籍이 35部 330卷이었음을 볼 때 審祥이 가져온 典籍이 日本 佛敎에 끼친 影響을 알 수 있다. 이후 東大寺가 華嚴의 根本 道場이 되었다. 日本 華嚴宗은 法藏을 중심으로 展開되었지만, 元曉의 敎學도 크게 影響을 주었다. 현재 일본의 訓讀点의 일종인 '오토코' 点의 원류로 여겨지는 신라의 角筆이 확인되는 判比量論(大谷大學圖書館 所藏)도 8세기 前半 新羅에서 전해진 것으로 여겨진다.[174]

---

170) 崔鈆植, 2007 <'大乘四論玄義記' 百濟 撰述 再論－金成哲 敎授의 反論에 대한 批判－> ≪韓國史硏究≫ 138

171) 橫超慧日, 1958 <新出資料 四論玄義の初章中假義> ≪印度學佛敎學硏究≫ 13

172) 이 論考가 作成된 後에 "四論玄義의 初章中假義"를 포함한 大乘四論玄義記가 崔鈆植 敎授에 의해 校勘 출판되었다. 崔鈆植, 2009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佛光出版社)

173) 石田茂作, 1930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敎の硏究≫ (東洋文庫) 5~8

174) 小林芳規, 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朝鮮學報≫ 182 ; 小林芳規, 2002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硏究≫ 8

그런데 8世紀代 日本에 傳來된 典籍 중에는 傳統的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 性格을 把握한 見解가 提起되고 있는 책들이 있어, 이 시기 新羅와 日本 간의 佛敎 典籍 交流의 理解를 위해 留意되는 바이다. ≪華嚴經問答≫이나 ≪遊心安樂道≫ 등이 그러한 例이다. 각각 唐人 法藏과 新羅人 元曉의 著述로 오랜 기간 알려져 왔다. 그런데 前者는 法藏의 다른 著述과는 異質的인 內容을 包含하고 있고, 後者에는 元曉 死後에 飜譯된 經典이 引用되어 있는 점 등이 지적되어, 前者는 新羅 義湘의 弟子들이 스승의 講義를 整理한 책이고,[175] 後者는 奈良時代에 東大寺 開創을 主導하였던 僧正 良辨의 弟子인 智憬이 元曉의 著述을 母胎로 하여 增廣한 것이라는[176] 說이 제기되었다.

반면 그간 新羅에서 著述된 것으로 알려진 책이 실은 日本에서 著述된 것으로 주장되는 典籍도 있다. 즉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은 奈良時期 東大寺 僧侶 智憬이 著述한 것이고,[177] ≪華嚴一乘成佛妙義≫는 新羅 僧侶 見登이 日本에 건너가 著述한 것이라는 說이[178] 그것이다.

≪起信論一心二門大意≫도 저자가 잘못 알려진 예이다. 이 책은 傳統的으로 '楊州 智愷' 즉 ≪大乘起信論≫의 飜譯者로 알려진 眞諦 三藏의 제자인 智愷의 著述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 책의 內容과 文體로 보아 6世紀 末 7世紀 初에 活動한 智愷의 著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日本 佛敎 文獻에 보이는 文字를 옮겨 쓴 흔적이 있다. 그래서 近代 以後 日本學界에선 이를 11世紀 以後 日本 僧侶의 著述일 可能性이 높다고 指摘되어 왔다. ≪起信論一心二門大意≫은 大乘起信論의 思想을 敷衍한 內容을 담고 있으며, 元曉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理解를 反影하고 있다. 이 책에는 ≪流轉本際經≫이 引用되어 있는데, ≪流轉本際經≫은 中國과 日本에선 그 存在가 알려지지 않은 著述인데, 高麗와 朝鮮의 文獻에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起信論一心二門大意≫가 元曉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註釋書들이 流通된 以後 新羅에서 著述되었을 蓋然性이 높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179] 이 역시 앞으로의 硏究가 期待된다.

日本에는 中國과 韓國에는 傳해지지 않는 佛敎 關聯 文獻들이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文獻들의 性格에 대한 보다 精緻한 分析은 앞으로 古代 東아시아 佛敎思想의

175) 石田公成, 1985 <'華嚴經問答'の著者> ≪印度學佛敎學硏究≫ 66 ; 金相鉉, 1996 <『雞洞記』와 그 異本『華嚴經問答』> ≪韓國學報≫ 84
176) 愛宕邦康, 1944 <'遊心安樂道'の撰述者に關する一考察－東大寺華嚴僧智憬とその思想的關聯に着目して－> ≪南都佛敎≫ 70
177) 崔鉉植, 2001 <'大乘起信論同異略集'の著者について> ≪駒澤短期大學佛敎論集≫ 7
178) 崔鉉植, 2002 <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 ≪韓國史硏究≫ 115
179) 崔鉉植, 2006 <新羅佛敎 文獻으로서의 "起信論一心二門大意"> ≪佛敎學硏究≫ 13

面貌를 理解하고, 古代 韓國과 日本 佛敎界의 思想的 動向을 理解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는 바이다.

한편 727년 國交가 열린 이후 渤海에서 日本으로 34회, 日本에서 渤海로 13회의 使臣 派遣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兩國 간에 佛敎文化의 交流도 행해졌다. 渤海人 仁貞(?~815)과 貞素(774~828)가 日本과의 交流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814년 日本에 간 王孝廉이 日本人 僧侶 空海와 詩文을 交換하였으며, 861년 渤海使 李居正이 전해준 ≪佛頂尊勝陀羅尼經≫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180]

3. 8世紀 終盤 以後의 樣相

新羅와 日本 간의 頻繁한 佛敎文化 交流는 8世紀 中盤 以後 兩國 간의 外交的 摩擦과 뒤 이은 國交 杜絶에 따라 함께 衰退하였다. 이는 兩國 간 政治的 狀況의 進展에 따른 樣相일 뿐 아니라, 東아시아 佛敎界의 變化, 그리고 兩國 佛敎 自體의 性格 變化와도 有關한 面을 지닌 것이었다.

8世紀 後半 以後 唐에서는 그간 法相宗과 華嚴宗을 中心으로 活潑하게 展開되던 敎學佛敎가 安史의 亂을 고비로 衰退하는 樣相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唐 佛敎界의 狀況은 당시 東아시아 佛敎界의 흐름 전체에 큰 影響을 주었다. 唐에서 새로운 佛敎 理論과 文獻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서 東아시아 佛敎界의 相互 交流는 크게 줄어들었고, 新羅와 日本에서 敎學佛敎의 位相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반면 敎學佛敎가 萎縮되면서 東아시아 地域에서는 實踐佛敎가 대두하였다.

唐에선 8世紀 中葉 이후 그간 都市를 중심으로 興盛하였던 敎學佛敎와 달리 農村에 근거를 둔 禪宗이 興盛하였다. 新羅에서도 8世紀 中盤 이후 華嚴宗의 義湘系 佛敎와 眞表系의 彌勒信仰이 興隆하였다. 前者는 華嚴經만을 重視하는 傾向을 띠었으며, 敎學佛敎이지만 著述이나 理論의 體系化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體驗을 통한 깨달음을 重視하였으며, 지방에서 下層民을 包括한 修行共同體를 指向하였다. 後者는 彌勒에 대한 歸依와 함께 占察經을 根本으로 한 占察信仰을 유일한 修行法으로 重視하였고, 下層 一般民을 布敎의 對象으로 하여 勢를 넓혀나갔다. 新羅 下代 佛敎의 主流를 형성한 이 두 敎團은 모두 綜合的이지 않고 하나의 思想에만 置重하는 宗派性이 강하였고, 몸(身)을 사용

180) 宋基豪, 1996 <불교와 기타신앙> ≪한국사 10(발해)≫ (국사편찬위원회)

하는 修行을 重視하였다. 곧 기존 新羅 中代의 理論的 佛敎와 달리 修行佛敎·信仰佛敎가 擡頭하였으며, 이런 傾向은 840년 무렵 이후 禪宗의 擡頭로 이어졌다. 初期 禪宗 僧侶는 주로 義湘系와 眞表系 僧侶 出身이었다. 한편 日本에서도 9世紀부터 儀式을 강조하고 密敎的 성격이 강한 眞言宗과 天台宗이 새롭게 定立되어 佛敎界를 主導해 갔다.[181]

中國에서 성립된 敎學佛敎 思想들이 곧바로 韓國과 日本 佛敎界에 受容되었던 것과 달리 實踐佛敎인 禪宗은 곧바로 受容되지 않았다. 禪宗은 新羅와 日本에 이미 8世紀에 알려졌지만, 별로 注目을 받지 못하였다. 禪宗이 本格的으로 受容되어 興隆케 된 것은 新羅에선 9世紀 中葉, 日本에서는 13世紀에 들어서였다. 實踐佛敎는 그 屬性上 間接的인 傳言이나 文獻만으로 전해지기 힘들고 直接的인 經驗과 多數의 사람들의 交流에 의해 傳해질 수 있다. 新羅와 日本의 本格的인 禪宗 受容은, 9世紀 中葉과 13世紀에 각각 中國과의 民間交流가 活潑하게 展開되었다는 事實과 有關한 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182]

아무튼 各國이 서로 다른 實踐佛敎를 發展시키는 동안, 各國 佛敎는 점차 서로 異質的인 性格을 띠어가게 되었다. 그와 함께 佛敎 典籍의 交流 또한 活潑하지 않게 되었다. 韓日 간의 僧侶와 佛敎 文獻 交流의 衰退도 8世紀 中盤 以後 新羅와 日本 간의 政治的 冷却과 함께 이런 동아시아 佛敎界 全體의 變貌와 聯關된 現象이었다.

제4장 8世紀 渤海·日本 關係

제1절 727年 渤海와 日本 間의 國交 樹立

698년 渤海의 建國과 뒤이은 급속한 成長은 旣存의 東北亞 國際秩序를 뒤흔드는 중대한 變化였다. 東部 滿洲 地域은 676년 新羅와 唐 간의 戰爭이 終熄된 후 唐·新羅·突厥 등 어느 나라도 힘을 뻗치지 못한 일종의 國際的인 힘의 空白地帶였고, 靺鞨의 여러 部族과 高句麗 遺民들이 小規模 單位로 各地에 散在하여 自治를 營爲하고 있었다. 이런 地域에 遼西의 營州로부터 탈주해온 大祚榮 集團이 登場하자, 이 새로운 힘의 求心點을 중심으로 급속한 勢力 結集이 進行되었다.[183] 당시 唐은 天門嶺 戰鬪에서 大祚榮 集團에게

181) 鄭炳三, <앞 논문>
182) 崔鉉植, 2005 <8세기 新羅佛敎의 動向과 東아시아 佛敎界> ≪佛敎學硏究≫ 12
183) 盧泰敦, 1981 <渤海 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敗北한 이후 더 以上의 積極的인 追擊과 壓迫을 벌이지 못하였다. 이는 內部的으로 武則天의 執權에 따른 政治的 葛藤과 外部的으로는 突厥 勢力이 遼西를 壓迫하는 狀況에 起因한 것이었다. 신라는 발해가 建國 直後 使臣을 派遣해오자 大祚榮에 大阿湌의 官等을 賜與하여 眞骨로 대접하였으나,[184] 이는 발해에 대한 적극적인 對應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한편 신라는 703년 唐과 交涉을 再開한 이후 每年 使臣을 派遣하여 그간의 不便한 關係를 解消하는데 注力하였고, 이를 渤海에 대한 對應策으로 삼았던 것 같다. 唐 역시 渤海의 登場이란 새로운 變數에 대응하기 위해 新羅와의 關係 改善에 힘썼다. 이런 가운데서 渤海는 突厥과의 友好 關係를 維持하며, 勢力 擴大를 해 나갔다.

720년대에 들어 발해를 둘러싼 새로운 情勢가 造成되어 갔다. 玄宗이 卽位한 뒤 政治的 安定을 되찾은 唐은 契丹의 李盡忠의 亂 때 幽州로 옮겼던 營州都督府를 717년 原位置로 復舊시키며[185] 다시 東北方으로 세력을 뻗쳤다. 이에는 716년 突厥의 默綴可汗이 對鐵勒戰에서 사망한 뒤 突厥이 일시 瓦解되어 그 세력이 萎縮된 狀況도 作用하였던 것 같다. 이어 唐은 渤海의 배후에 위치한 黑水靺鞨이 722년 2차례, 724년 1차례, 725년 4차례, 726년 1차례 등 빈번히 朝貢해오자, 이를 계기로 726년 黑水靺鞨에 黑水府를 設置하고 그 首領을 都督으로 삼았으며, 따로 長史를 두어 그 部落들을 監領케 하였다. 이어 728년에는 黑水都督에게 '李氏' 姓과 '獻誠'이라는 이름을 주어 특별한 關心을 표하였다.[186] 이는 명백히 渤海에 대한 直接的인 威脅이었다. 이에 크게 반발한 渤海 武王은 동생 大門藝의 反對를 물리치고 黑水靺鞨 征伐을 强行하였고, 大門藝는 唐으로 亡命하였다. 자연히 渤海와 唐 간의 葛藤은 高潮되었다. 이 무렵 新羅가 每年, 때로는 1년에 3차례, 唐에 使臣을 派遣하는 등 唐과 密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일련의 狀況 進展으로 渤海朝廷은 唐이 東北方으로 再次 勢力을 뻗쳐, 그것도 新羅와 聯合하여, 渤海를 攻擊할 可能性을 깊이 憂慮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渤海 朝廷은 이에 對應해 한편으로는 唐에 빈번히 사신을 파견하여 양국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려 하였다. 발해의 對唐 使臣 派遣의 목적에는 懸案인 大門藝와 黑水靺鞨 문제 등을 타결하려는 의도와 함께 新羅와 唐의 關係를 의식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187]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727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唐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당과 연결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남녘에 있는 新羅의 動向을 牽制하기 위한 것이었다.

---

184) 崔致遠, <謝不許北國居上表> ≪崔文昌侯全集≫
185) ≪新唐書≫ 39, 地理志 營州 柳城郡 上都督府
186) ≪舊唐書≫ 199 下, 靺鞨傳, 渤海靺鞨傳
187) 韓圭哲, 1995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 189~190

이어 728년 무렵 渤海 武王은 唐과 연결한 黑水靺鞨을 攻擊하였다. 나아가 唐이 大門藝를 洛陽에 계속 留居케 한 데에 대해, 다시 말해 大門藝를 渤海 瓦解 工作에 活用하겠다는 唐의 政策에 대해 强硬 武力對應을 하였다. 이 무렵 突厥이 再興하여 契丹 등을 制壓하고 唐의 遼西 地域을 壓迫하였다. 이런 북아시아의 情勢 進展과 照應하면서 武王은 732년 海軍을 동원하여 唐의 登州를 攻擊하고 육군을 遼西의 馬都山 方面으로 진격케 하는 등 武力 攻勢를 펼쳤다. 이에 唐軍과 新羅軍이 聯合하여 733년 渤海를 挾攻하였다. 이 挾攻은 실패로 끝났다.

735년 唐은 新羅의 要求를 받아들여 "浿江(大同江)에 鎭戍하여 渤海의 要衝에 대응하고, 또 (서쪽으로) 祿山과 서로 바라보며 遠圖를 꾀하려 하니 좋은 계책(長策)이다. (中略) 侵寇를 警戒하고 邊境의 安定을 이루려는 것인데 어찌 不可함이 있겠는가"[188]라 하였다. 즉 신라의 浿江 以南 병합을 승인하고, 발해와 대립을 조장하여 渤海의 膨脹을 막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발해와의 관계도 737년 渤海의 朝貢과 唐軍 捕虜 送還이 이루어지고,[189] 이어 武王이 죽고 文王이 卽位하여 책봉을 받음에 따라, 이후 唐과 渤海는 안정된 關係를 維持하였다.

발해의 興起에 따라 動搖하던 東北亞 地域의 國際情勢는 新羅와 渤海間의 勢力均衡과 唐의 現狀維持策으로 다시 安定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留意되는 점은 신라의 浿江 이남 지역 併合을 唐이 公式的으로 認定한 사실이다. 그에 따라 新羅는 676년 唐과의 戰爭이 表面的으로 終結된 이후에도 裏面的으로 지속되어왔던 唐軍의 侵攻 可能性이라는 不安 要素를 解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후 新羅의 對日關係에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그것은 다시 일본과 발해 관계에 影向을 주었다.

제2절 8世紀 中葉 日本의 新羅 征伐計劃과 渤海의 對應

727년 國交 樹立 後 발해와 일본 간에는 수차례 使臣 往來가 있었다. 그러던 중 8세기 중엽 日本에서 新羅 征伐 計劃이 具體的으로 推進됨에 따라 渤海와 日本 간의 關係에 緊迫感이 실리게 되었다. 즉 758년 9월 遣渤海使 小野田守가 귀국하였는데, 이 때 발해는 聖武天皇의 죽음에 대한 弔問使로 大使 輔國大將軍 兼 將軍 行木底州刺史 兵署小正 開國

188) 張九齡, <勅新羅王金興光書> ≪全唐文≫ 285
189) 張九齡, <勅渤海王大武藝書> ≪全唐文≫ 285, "(渤海使)多蒙固所送水手及承前沒落人等來 云云"

公 揚承慶과 副使 歸德將軍 楊泰師 등 23인을 함께 일본에 파견하였다. 귀국 후 小野田守는 復命하면서 발해를 통해 들은 唐에 관한 情報를 傳하였다. 즉 唐에서 安祿山의 亂이 755년 터졌으며, 756년에 平盧留後使 徐歸道가 渤海에 精兵 4만을 請하였는데 발해가 움직이지 않았고, 758년에는 徐歸道를 죽인 安東都護 王玄志가 발해에 將軍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였는데, 발해가 믿지 않고 자세한 情報를 蒐集 중이며, 唐皇帝가 勅書를 보내왔고 발해에서 狀을 올렸다는 내용을 告하였다.[190] 이런 정보를 접한 일본 조정은 758년 12월 大宰府에 勅을 내려 安祿山 亂의 餘波가 밀려올 것 같으니 對策을 세우라고 명하였다.[191] 이 때 일본에 온 渤海使 揚承慶은 발해의 서쪽 국경 지대로서 遼東 平野로 나가는 길목인 蘇子河 流域 木底州의 刺史였다. 대륙의 情勢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일본의 要求에 副應하기 위해 渤海 朝廷은 唐에 대한 情報에 밝은 接境地域의 地方官을 使臣으로 보냈던 것이다. 759년 10월 발해의 遣日本使 高南申이 輔國大將軍 玄菟州刺史였다는 事實도 같은 의미이다. 아무튼 759년 2월 揚承慶 등은 歸國하였다. 이어 3월에 大宰府에서 兵亂에 대비할 準備 不足에 대한 憂慮를 表明하였다. 그런데 6월에는 大宰府로 하여금 新羅를 치기 위해 行軍式을 만들게 하는 등 新羅征伐計劃에 着手하였다.

이렇듯 발해를 통해 安祿山의 亂에 관한 情報를 入手한 뒤, 日本 朝廷은 그 亂의 餘波가 海東으로 밀려들 것을 憂慮하였는데, 그에 관한 對應策이 新羅 征伐 計劃으로 나타났다. 어떤 論理에서 兩者가 연결되어 具體化되었을까? 이에 대해, 일본 조정이 安祿山의 亂으로 당이 신라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틈을 타 신라를 공격하려 했다는 풀이가 제기된 바 있다.[192] 다른 하나로는 758년 12월 大宰府에 내린 勅에서 叛亂軍이 "西進할 수 없어서 도리어 海東을 칠" 것이라고 한 언급에서 보듯, 신라가 東進해온 叛亂軍의 攻擊으로 打擊을 입을 것이므로 이 때를 이용하여 新羅를 攻擊하려 하였다고 理解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어느 쪽이든 간에 日本 朝廷은 唐이 혼란에 빠진 상황을, 외교의례 등으로 그 간 갈등을 빚어오던 新羅와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好機로 파악하고, 신라 공격을 위한 戰爭 準備에 착수하였다.

759년 8월 大宰府 三品船親王을 (神功皇后를 祭祀하는) 香椎廟에 보내어 新羅를 征伐하려는 狀況을 告하였고, 9월 兵船 500隻을 3년 이내에 建造할 것을 命하였으며, 761년 正月 美濃·武藏 두 地域에서 각각 20명의 少年을 뽑아 新羅語를 익히게 하였고, 11월에

190) ≪續日本紀≫ 21 天平寶字 2년 12월 戊申
191) 위와 同
192) 和田軍一, 1924 <淳仁朝にお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0·11

는 節度使體制를 宣布하였다. 또 762년 11월에 신라 정벌을 위한 訓練을 하는 軍隊를 위해 香椎廟에 封幣하였다.

한편 여기에서 留意되는 것은 遣渤海使 小野田守가 753년 新羅에 使行을 하였다가 接見을 拒否당하고 되돌아왔던 經歷이 있는 者이고, 761년 10월의 遣高麗(渤海)使인 高麗朝臣大山은 753년 정월 唐 朝廷의 元會에서 新羅使와 爭長事件을 벌였던 日本使節團의 一員이었다는 事實이다. 이 점을 중시하여, 小野田守를 758년 2월 발해로 파견할 때에 일본이 신라와의 국경 문제로 불안해하는 渤海와 連携하여 新羅를 공격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193] 나아가 일본과 발해가 신라를 南北에서 挾擊할 同盟을 小野田守가 締結하였으며, 그런 계획을 안 新羅가 762년 그 北邊에 築城을 하며 방어에 나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94] 이 무렵 758~763년 간에 일본과 발해 사이에는 사신이 꼬리를 물고 왕래하였다(<표 4> 참조).

〈표 4〉 758년~763년 사이 渤海와 日本 간의 使臣往來表

758. 2	日本, 小野田守 渤海에 派遣. 聖武天皇의 訃音 전함
758. 9	渤海, 小野田守 歸國 때, 揚承慶을 聖武天皇의 弔問使로 日本에 派遣
759. 2	日本, 高元度와 內藏全成을 揚承慶의 歸國 때 함께 渤海에 派遣, 唐에 가 있는 藤原河淸의 歸國 斡旋을 渤海에 要請
759. 12	渤海, 內藏全成의 歸國 때 高南申을 日本에 派遣
760. 2	日本, 高南申의 歸國 때 陽候史玲璆를 渤海에 派遣
760. 11	陽候史玲璆, 日本으로 歸國
761. 10	日本, 高麗朝臣大山을 渤海에 派遣
762. 10	渤海, 高麗朝臣大山의 歸國 때 王信福을 日本에 派遣
763. 2	日本, 王信福의 歸國 때 板振鎌束을 渤海에 派遣
763. 10	板振鎌束, 渤海로부터 日本으로 歸國

발해에서 일본으로 4차례, 일본에서 발해로 5차례의 사신 파견이 행해졌다. 759년 이후 신라정벌계획이 公式化하면서, 일본 遣渤海使의 주된 任務는 大陸 情勢의 把握, 그리고 발해와 對新羅 挾擊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59년 2월 遣渤海使가 唐에 가 있는 日本人 藤原河淸의 歸國에 관한 일에 渤海의 協助를 要請한 것도 唐의 情勢를 파악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이런 일본의 對新羅 挾攻 要請에 대해 渤海는

193) 酒寄雅志, 2001 <渤海國家の史的 展開と國際關係>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66~7
194) 酒寄雅志, 2001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 ≪위 책≫ 222~3

어떤 입장을 취하였을까? 이에 대해선 일본과 발해가 적어도 처음에는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설이 제기되었고,[195] 그와는 달리 발해가 일본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발표되었다.[196]

758년과 759년 일본에 보내진 渤海使가 각각 木底州刺史와 玄菟州刺史로서 武官이었던 점이 발해가 이 事案에 積極的이었음을 나타낸다고 想定해 볼 餘地를 제기한다. 그런데 渤海는 天寶 末에 그 首都를 中京 顯德府인 顯州에서 上京 龍泉府로 옮겼다.[197] 이때의 遷都는 安祿山 亂의 勃發 이후 安保上의 必要에 따라 행한 것이라는 說이[198] 있고, 이와는 달리 발해의 발전에 따른 필요성에 의거해 오랜 기간에 걸친 면밀한 준비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199] 제기되었다. 上京은 거대한 計劃都市였다. 그 면에서는 後者의 說이 의미를 가진다. 또한 安祿山 亂의 餘波가 직접 밀려드는 상황에서, 中京보다 더 북쪽에 있는 上京이 防禦上 더 有利한 位置에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런 만큼 두 설은 각각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밀려드는 安祿山 亂의 餘波에 대한 渤海의 對應策을 보면, 발해 조정은 그 어느 쪽에 加擔하여 亂에 직접 介入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對外的 紛爭을 피하고 遷都에 따른 문제에 對處하는데 注力하겠다는 발해 조정의 姿勢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渤海가 서쪽에서 安祿山 亂이 持續되고 있는 狀況에서 日本과 聯合해서 對新羅 挾擊에 加擔하려 했다는 假定은 首肯키 어렵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밀려들 가능성이 있는 安祿山 亂의 餘波에 대응하거나, 새롭게 遷都한 上京을 經營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招來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渤海가 이 무렵 新羅와 相爭 중이었던 것도 아니었다.[200]

---

195) 石井正敏, 2001 <初期日本·渤海交涉における一問題> ≪日本渤海關係史の硏究≫ (吉川弘文館) ; 酒寄雅志, <위 논문>

196) 宋完範, 2006 <8세기 중엽 '新羅征討' 계획으로 본 古代 日本의 對外方針> ≪韓日關係史硏究≫ 25

197) ≪新唐書≫ 43下, 地理志33下 羈縻州 河北道, "顯州 天寶中王所都" ; ≪같은 책≫ 219, 渤海傳 "天寶末欽茂徙上京"

198)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94~99

199) 金起燮·金鎭光, 2007 <渤海의 上京 建設과 遷都> ≪韓國古代史硏究≫ 45

200)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景德王 7년(748) 大谷城 등 14개 군현을 설치하였고, 동왕 21년(762) 오곡성 등 6個 城을 築造하고 각 城에 太守를 두었다. 이는 735년 唐으로부터 浿江 以南 지역의 新羅 領有를 公認받은 뒤, 그간 당과의 완충지대로 남겨놓았던 禮成江 서편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經營을 하였음을 전한다. 그런데 748년과 762년의 축성과 군현 설치 등의 예성강 서쪽 지역 經營이 渤海의 侵攻에 對備한 것이었다거나, 渤海를 對象으로 한 北進策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733년 발해·신라 전쟁이 그러하였듯이, 兩國의 軍事的 對決에서 攻擊路는 東海岸 루트였다. 즉 이들 기사에서 전하는 신라의 郡縣 設置나 築城이 발해에 위협을 주었다거나, 750년대 말의

〈표 5〉 鐵利·拂涅·越喜·黑水靺鞨 朝唐表

朝貢 年代	渤海 紀年	拂 涅	鐵 利	越 喜	黑 水
714	高王 17년	OO	O	O	
716		O			
717		O			
718		O	O		
719		OOO	O	O	
0721	武王 仁安 2년	O	O		
0722		O	OO	O	OO
0723		O	O	O	
0724		O	OO	OO	O
0725		O	O	O	OOOO
0726					O
0727			OO		
0730		O			OO
0735		O	O	O	
0736				O	
0737		O			
0739	文王 大興 2년	O			
0740			O	O	
0741		O		O	O
0747					O
0748					OO
0750					O
0752					O
0802	康王 正曆 8년			O	
0815	僖王 朱雀 2년				O
0841	彝震王 咸和11	O	O		
0912	末王 6년				O
0924					O
0925					O

* 本表는 ≪册府元龜≫ 外臣部 朝貢과 褒異의 기록에 의거하였음.
* O는 조공 회수를 나타냄

일본과 발해의 新羅 挾攻 計劃에 威脅을 느낀 신라의 對應이었다고 보는 것은 首肯키 어렵다(具蘭憙, 1999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일본의 신라침공계획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 10 參照).

이 시기 발해는 신라 방면보다 요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설도 있다(韓圭哲, ≪앞책≫ 209).

新羅와 國境을 接한 渤海의 南境 一帶에 黑水, 鐵利, 達姑 등의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達姑는 그 原住地가 北流 松花江 下流 東便인 室韋族이었고,[201] 鐵利와 黑水의 원주지는 東流 松花江 中·下流 지역이었다. 발해가 이들 部族들을 정벌한 뒤 그 일부를 발해 南境인 咸興 平野 一帶로 移住시켰다.[202] 이들의 移住 時期는 唐에 대한 鐵利靺鞨의 入貢이 杜絶된, 다시 말해 鐵利靺鞨에 대한 발해의 征伐이 이루어졌던 740년대 말 무렵으로 여겨진다(<표 5>참조). 746년에는 渤海人과 鐵利人 천 백여 명이 일본에 건너온 일이 있었는데,[203] 이는 鐵利部族이 발해에 服屬된 뒤의 일이라 보아야겠다. 黑水靺鞨은 720년대 말 발해의 攻略을 받았다. 이 때 완전히 발해에 服屬된 것은 아니었지만, 對唐 朝貢이 일시 中斷되었음에서 보듯 큰 打擊을 입었던 듯하다. 740년대 다시 對唐 조공이 행해지다가 752년 이후부터 오래동안 중단되었다. 이런 면을 볼 때, 740년대나 750년대 전반 발해가 정복한 鐵利靺鞨과 黑水靺鞨 및 達姑 部族의 일부를 신라와의 接境地帶에 强制 移住시켜 일종의 緩衝地帶를 形成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204] 이는 곧 734년 新羅의 北進에 따른 한 차례의 전쟁을 겪은 뒤, 渤海가 그 南方으로 膨脹을 試圖하기보다는 現狀維持를 하려 했음을 뜻한다.

渤海와 唐의 관계에선, 渤海가 叛亂軍側에 가담치 않고 신중히 대응한 데에 대해 758년 唐 皇帝가 호의적인 뜻을 담은 勅書를 보내왔고, 발해도 狀을 보냈다.[205] 즉 발해와 당은 양국의 旣存 關係에 變動을 惹起하지 않으려는 우호적 立場을 취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발해가 唐과 友好的 關係에 있는 新羅를 공격하여 唐과의 紛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을 감행하려 했을까? 그럴 蓋然性은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750년대 말 760년대 초 渤海는 日本의 對新羅 挾攻策에 參與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이 安祿山의 亂 이후 전개된 大陸情勢에 대한 情報를 얻으려 하는 데에는 協助하였으나, 그 이상 양국 간의 對新羅 軍事同盟으로 나아가는 데는 同意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對新羅 挾攻策에 가담치 않겠다는 발해의 입장은 762년의 遣日本使 王信福을 통해 표명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종전의 발해사와는 달리 王信福이 文官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206] 아울러 入唐 日本人 僧侶 戒融의 歸國

201) ≪新唐書≫ 東夷傳, "又有達末婁 達姤二部 (中略) 達姤 室韋種也 在那河陰 涑末河之東 云云"
202) 小川裕人, 1937 <三十部女眞に就いて> ≪東洋學報≫ 24-4 ; 三上次男, 1941 <新羅東北境外における黑水鐵勒達姑の諸族に就いて> ≪史學雜誌≫ 52-11
203) ≪續日本紀≫ 16, 天平 18년 是年條
204) 盧泰敦, 2003 <三國史記에 登場하는 靺鞨의 實體> ≪韓半島와 滿洲의 歷史 文化≫ (서울대학교출판부)
205) ≪續日本紀≫ 22, 天平寶字 2년 12월 戊申

與否 確認을 둘러싼 唐·渤海·新羅·日本 간의 接觸 過程을 통해서도 이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762년 唐은 文王 大欽茂를 '渤海郡王'에서 '渤海國王 檢校太尉'로 進爵하여 册封하였다. 이때 唐의 册封使 韓朝彩와 同行하여 渡唐日本留學僧 戒融이 渤海로 갔다. 763년 2월 渤海使 王信福이 돌아갈 때 그 送使로 발해로 갔던 板振鎌束이 이 해 10월에 日本으로 귀국하였는데, 그 때 戒融이 그 배를 타고 日本으로 돌아갔다. 그 뒤 韓朝彩는 渤海에서 新羅로 가, 新羅 朝廷에 日本僧侶 戒融이 무사히 歸國했는지 與否를 알아보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764년 7월 新羅 朝廷이 大奈麻 金才伯 등 91인의 사절단을 大宰府에 파견하여, 戒融 件을 문의하였다. 大宰府에선 중앙의 乾政官에게 이 사항을 질의하여, 그가 무사히 歸國하였음을 新羅 執事部에 알리는 牒文을 받아, 이를 新羅使節에 넘겨 주었다. 그리고 신라사절에게 "근래 너희 나라에서 投化해 온 백성들이 '本國에서는 軍隊를 내어 警備를 하고 있는데, 日本에서 쳐들어올까 염려' 해서 라고 하는데 그 虛實이 어떠한가" 라고 質問하였고, 그에 대해 신라사절은 唐이 亂離로 어지럽고 海賊이 猖獗하여 軍隊를 징발해 邊方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신라가 防禦를 强化하고 있음을 是認하였다.[207] 이때 韓朝彩는 아마도 발해의 '新羅道'를 통해 신라 泉井郡의 炭項關門을[208] 거쳐 신라 首都로 갔던 것 같다.[209] 이를 발해가 용인하였다는 것은 곧 763년이란 시점에 발해가 신라에 대한 어떤 전쟁 의지를 가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발해에 갔던 唐의 册封使 韓朝彩의 歸國 經路와 文王을 신라왕과 對等한 '渤海國王 檢校太尉'로 册封한 것을 통해볼 때, 唐도 발해와 신라의 均衡 위에서 現狀維持를 하려는 意志를 지녔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런 당의 의도를 발해가 受容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金才伯 등에 대한 大宰府의 審問을 통해, 이 무렵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신라가 防禦力을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對備하고 있었고,[210] 일본 또한 이런 신라의 對應을 把握하고 있

206) 石井正敏, <初期日本·渤海交涉における一問題>

207) ≪續日本紀≫ 25, 天平寶字 8년 7월 甲寅

208) ≪三國史記≫ 35, 地理志2 朔州 泉井郡

209) ≪三國史記≫ 지리지에 인용된 賈耽의 ≪古今郡國志(古今郡國縣道四夷述)≫에 의하면 渤海의 東京 龍原府에서 新羅의 泉井郡까지 39개의 驛이 있다고 한다. 9세기 초에 편찬된 이 책의 기사는 763년 발해에서 신라로 갔던 韓朝彩의 여행 報告文에 依據하였던 것 같다. ≪古今郡國志≫는 ≪三國史記≫ 地理志 2 朔州條에도 引用되어 있다. 朔州는 위에서 말한 韓朝彩의 渤海－新羅 旅行路에 있는 地域이다.

210) 760년 9월 신라는 級湌 金貞卷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는 일본의 신라공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탐색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763년 2월에도 級湌 金體信 등 211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政情의 探索과 함께 交易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續日本紀≫ 23, 天平寶字 4년 9

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양측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상황을 파악키 위해 신라 조정은 戒融 件을 活用해 일본에 使節團을 派遣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사절단의 규모가 상당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機會에 交易도 함께 하려 했던 것 같다.

日本의 新羅 征伐計劃은 764년 9월 惠美押勝(藤原仲麻呂)의 亂을 고비로 霧散되었다. 이 계획이 挫折한 이유에 대해선, ① 이 계획이 처음부터 대내적 모순과 불만을 밖으로 배출하려는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설,[211] ② 藤原仲麻呂를 둘러싼 국내 政情이 급속히 변화하였다는 점, ③ 일본 국내 정세보다 발해가 당과의 관계가 호전되자 방침을 바꾼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설,[212] ④ 多年間의 災害와 遠征 準備 등에 따른 민의 피폐화 때문이라는 설[213] 등이 거론되었다. 신라 정벌계획을 주도하였던 藤原仲麻呂는 淳仁天皇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762년 여름 이후 淳仁天皇과 孝謙太上天皇 간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藤原仲麻呂의 권력이 弱化되었고, 이를 反轉시키려는 試圖가 764년 9월의 亂이었는데 鎭壓되었다. 이 해는 "是年 兵과 旱의 連續으로 米價가 한 石에 千錢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전하는 바처럼[214] 그간 災害와 戰爭 準備로 民生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거기다 앞서 말한 바처럼 발해는 新羅 挾攻策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對內外的 狀況 展開에 따라 자연 신라 정벌계획도 消滅되었다.

제3절 8世紀 末 渤海·日本 間의 外交儀禮를 둘러싼 葛藤

일본의 신라 정벌계획이 霧散된 이후에도 발해와 일본 간에는 교류가 이어졌다. 단 이 交流는 그 전과는 달리 軍事的 意味를 지니지 않은 것이었다. 먼 바다를 사이에 둔 양국이 특별한 軍事的 連帶를 摸索할 狀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교류에서, 발해는 經濟的 利益 追求가 주된 목적이 되어 갔다. 日本은 天皇의 正統性과 權威를 宣揚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蕃國 渤海의 入朝'가 지니는 對內的인 政治的 意味를 重視하였다. 아울러 日本 朝廷은 新羅와의 外交가 杜絶된 상황에서 渤海가 지닌 日·唐 間의 情報와 人的 交流의 仲介者로서의 역할에도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였을 수 있

월 癸卯 ; ≪같은 책≫ 24, 天平寶字7년 2월 癸未)

211) 岸俊男, 1969 ≪藤原仲麻呂≫ (吉川弘文館) 261~274

212) 石井正敏, 2001 <앞 논문>

213) 宋浣範, <앞 논문>

214) ≪續日本紀≫ 25, 天平寶字 8년 是年條, "是年兵旱相仍米價石千錢"

다. 그래서 때로는 발해사 접대에 경비가 많이 드는 점을 들어 '商旅'인 발해사절단을 우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批判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215] 渤海와의 交流를 계속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양국 간의 外交的 摩擦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는 양국 간의 교류 지속에 中核的인 사항이기도 한 '蕃國'에 副應하는 外交儀禮를 渤海가 잘 받아들이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 國書의 形式과 內容 등이 그 주요한 紛爭 事項이다.

763년 遣日本使 王信福이 귀국한 이후, 10년의 공백이 있은 뒤인 771년 발해사 壹萬福이 日本을 訪問하였다. 그가 지니고 온 國書에 渤海王이 天孫을 自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 조정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 訂定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사항이 그 뒤 발해사가 가져온 국서에서도 제대로 反影되지 않자, 796년 일본 조정은 "朝聘하는 道理는 禮義와 恭敬을 우선으로 삼으니, 이와 어긋난다면 어찌 서로 간에 往來할 必要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國交 斷切을 暗示하는 强硬한 입장을 천명하였다.[216] 이에 발해는 796년 10월 일본의 要求를 反影한 國書를 보내었고 聘期도 日本에 맡긴다고 하였다. 이에 일본 조정 上下가 滿足하였고, 臣下들은 축하의 表文을 올리기도 하였다.[217] 이후 798년 발해가 大昌泰를 파견하여 聘期 6년을 短縮하여 줄 것을 要求하자,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 年限을 두지 않게 되었다.[218]

이처럼 渤海는 日本이 要求하는 外交儀禮 形式을 受容하고, 日本은 발해의 朝聘 期限 短縮 要求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의 妥協點을 찾았다. 이런 타협의 바탕에는 8세기 중반 이후 對日外交의 目的을 貿易 利益 追求에 두는 渤海의 政策 變化가 깔려 있었다.[219] 당시 발해는 對內的으로는 皇帝國의 位相을 指向하였다. 貞孝公主 墓誌銘에서 그녀의 아버지인 文王을 '皇上'이라 表現하였고, 制度的으로도 '宣詔省'·'詔誥舍人' 등의 存在는 그런 면을 말해주는 바이다. 근래 延邊 朝鮮族自治州 和龍縣 龍海區域 渤海墓群에서 두 개의 墓誌銘이 발굴되었는데, 아직 全文이 공개되지 않아 그 具體的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각각 3대 文王의 妃인 '孝懿皇后'와 9대 簡王의 妃인 '順穆皇后'의 것이다.[220] 모두 '皇后'라고 기술되어 있어, 발해가 '外王內帝'를 지향하였음을[221] 再確認할 수 있다. 발

215) ≪日本逸史≫ 34, 天長 3년 3월 戊辰
216) ≪日本後紀≫ 4, 延曆 15년 5월 丁未
217) ≪日本後紀≫ 5, 延曆 15년 10월 己未, 壬申
218) ≪日本後紀≫ 7, 延曆 17년 12월 壬寅 ; ≪같은 책≫ 8, 延曆 18년 4월 乙丑
219) 石井正敏, 1995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445 ; 金宗福, 2008 <8~9世紀 渤海와 日本의 外交的 葛藤과 解消> ≪韓國史學報≫ 33
220) 吉林省考古文物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해가 8세기 중반 이후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堅持하면서 자신들의 상업적 利益을 追求하였던 것이다.

結論

이상에서 5개 주제를 중심으로 7~9세기 한일관계사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한다. 먼저 제1장 삼국통일전쟁기 삼국과 왜(일본)와의 관계에선, 백(촌)강구 전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백강구 전투 양상을 살폈다. 백강구 전투는 해전인데, 신·당 동맹군의 해군은 그 주력이 당군이었다. 그래서 그간 일본학계에선 이 전투를, 나아가 백제부흥전쟁을 기본적으로 당군과 왜군의 대결로 파악하였고, 신라군은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는 백강구 전투에만 초점을 두어 기술한 ≪日本書紀≫의 기사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데서 비롯한 편향적인 이해이다. 당시 전황을 보면 백강구 전투는 백제부흥군의 본거지인 주류성 공략전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싸움이었다. 주된 戰場은 주류성이었으며, 신·당 동맹군의 주력은 육군이었고 주류성 공략전에 투입되었다. 육군의 중심은 신라군이었다. '부수적이고 약한 신라군'이라는 인식은 그 뒤 시기의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었다.

한 차례 왜국과 전쟁을 벌였던 신라는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직전 왜국에 사신을 보내어, 극적인 화해와 국교 재개를 하였다. 신라로선 唐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배후의 적대 세력인 왜국과의 화해가 꼭 필요하였고, 왜국도 663년 백강구 전투 이후 신·당 동맹군의 일본열도 침공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제의에 호응하였다. 669년 신·당전쟁이 개전된 이후, 신·일관계는 신·당전쟁의 추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제2장 7세기 중반~8세기대의 신라·일본관계에서는, 676년 신·당전쟁이 종결된 이후 8세기 후반 신라와 일본 간의 국교가 단절되기까지의 기간에 전개되었던 한일관계를 살폈다. 676년 신·당전쟁이 종결된 이후 7세기 말까지 신라와 일본은 당과의 교섭이 사실상 두절된 채로 당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런 만큼 신라와 일본은 상호 협조와

221) 宋基豪, 1995 <渤海國의 位相> ≪앞 책≫ 178~199

교류를 필요로 하였다. 특히 신라는 당과 직접 대결을 벌인 바 있고, 676년 이후에도 당이 신라 침공 의지를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군비 강화와 함께 일본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주력하였다.

한편 이 기간 중 신라와 일본은 모두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의 구축에 진력하였다. 唐의 制度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이른바 율령체제를 구축한 일본은 신라를 蕃國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儀禮와 의무를 신라에 강요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일본을 어디까지나 隣國으로 여겼다. 단 신라는 당시 당의 침공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빈번히 우호적인 교류를 하였지만, 그 裏面에서는 '隣國과 蕃國의 同床異夢'에 따른 갈등의 요소가 깔려 있었다.

698년 발해가 건국되고 급속히 성장해 나갔다. 아울러 702년과 703년에 일본과 신라가 각각 당과 국교를 재개하였고, 당과 신라 간에는 빈번한 교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 진전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지형이 크게 달라졌다. 신라와 당은 734년 발해를 상대로 한 공동 군사작전을 행하였고, 735년 당이 신라의 대동강 이남 지역 병합을 공식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히 되었다. 이는 곧 오랫동안 신라를 압박해온, 당과 일본에 의한 협공 가능성이란 惡夢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자연 그에 따라 신라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위치는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신라는 기존 양국 관계에 변화를 요구하였고, 그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였다. 양국 간의 갈등은 몇 차례 외교적 분쟁을 거쳐 마침내 8세기 후반 단교로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 7~9세기 한일 간의 문화 교류에서는 율령과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국의 고대국가들과 왜(일본) 간 교류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먼저 삼국의 율령에 대해 살펴보면, 6세기 초반에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였다는 삼국사기의 짧은 언급은 사실성을 지닌 것이며, 신라국가의 성장과 함께 율령이 보다 많이 갖추어져 갔음이 확인된다. 백제의 경우, 목간 자료를 통해 백제 율령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백제 율령이 일본 대보령의 일부 조항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동아시아 역사권 내에서 중국－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율령문화의 확산과정과 각국의 율령문화의 동질성 및 차이성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국의 율령이 중국의 남북조 및 隋·唐의 율령과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다시 일본의 율령이 이와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되겠다.

양측 간에 행하여진 불교문화의 교류에 대해서는, 6세기 이후 8세기 대에 걸쳐 양 지역 간에는 불교문화와 불교 승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삼국과 통일기 신라의 불교문화가 고대 일본의 불교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때 행해진 교류의 결과물이 일본에 적지 않게 남아 전하는데, 그것을 통해 역으로 삼국과 통일신라 불교문화의 일면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저자가 백제인 慧均이란 사실이 밝혀져 한국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大乘四論玄義記"이다. 그 외에도 그간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저술이라 알려져 왔던 몇몇 불교 서적이 실은 신라인의 저술임이 밝혀진 것들이 있다. 또한 이 시기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불교 서적(元曉의 저술인 判比量論)에 角筆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일본의 訓讀点의 일종인 '오토코' 点의 원류가 신라에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제4장 8세기 발해와 일본 관계에서는 8세기 중엽 일본 조정이 취한 신라 침공계획을 중심으로 양국 간의 교섭 관계를 살폈다. 727년에 시작된 발해와 일본 간의 교섭은 8세기 중엽 활기를 띄었다. 일본이 신라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발해와 동맹을 맺어 남북에서 신라를 협공하려는 계획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발해가 이 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였던가 등을 살펴보았다. 발해는 처음부터 일본의 계획에 소극적이었다고 여겨진다.

그 이후에도 발해와 일본 간에는 교섭이 이어졌는데, 양측 간의 외교의례를 둘러싸고 분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곧 渤海가 日本이 要求하는 外交儀禮 形式을 受容하고, 日本은 발해의 朝聘 期限의 短縮 要求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간의 妥協點을 찾았다. 이런 타협의 배경에는 8세기 중반 이후 對日外交의 目的을 貿易 利益 追求에 두는 渤海의 政策變化가 깔려 있었다. 당시 발해가 '外王內帝'를 지향하였는데, 8세기 중반 이후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堅持하면서 자국의 상업적 利益을 追求하였던 것이다.

7~9세기는 和戰 양면에 걸쳐 한일 양측의 고대국가들 간에 교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한일관계사에서 독특한 일면을 나타내었던 시기였다. 이번 이 시기 한일관계사에 대한 공동 연구가 기존 역사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역사인식을 양국인 사이에 함양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崔文昌侯全集≫
≪隋書≫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唐大詔令集≫
≪文館詞林≫
≪全唐文≫
≪日本書紀≫
≪續日本紀≫
≪令集解≫
≪三國佛法傳統緣起≫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國立羅州文化財硏究所,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2009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木簡≫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궁남지≫
權悳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 遣唐使硏究 – ≫ (一潮閣)
卞麟錫, 1994 ≪白江口戰爭과 百濟·倭 關係≫ (한울)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盧泰敦, 1999 ≪高句麗史硏究≫ (사계절)
盧泰敦, 2009 ≪三國統一戰爭史≫ (서울대학교출판부)
延敏洙,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崔鈆植, 2009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佛光出版社)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
韓容根, 1999 ≪高麗律≫ (서경문화사)
拜根興, 2003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井上光貞 等校注, 1976 ≪律令≫ (岩波書店)
鳥山喜一, 1968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
森公章, 1998 ≪「白村江」以後≫ (講談社)
石田瑞麿, 1983 ≪日本佛敎史≫ (岩波書店) 李永子 譯, 1988 (民族社)
岸俊男, 1969 ≪藤原仲麻呂≫ (吉川弘文館)
L. I. Alibaum, 1975 *Zivopisi Afraciaba*, Tashikent
姜鳳龍, 1992 <三國時期의 律令과 民의 存在形態> ≪韓國史硏究≫ 78
具蘭憙, 1999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 – 일본의 신라침공계획을 중심으로 – > ≪韓日關係史硏究≫ 10

金起燮·金鎭光, 2007 <渤海의 上京 建設과 遷都> ≪韓國古代史硏究≫ 45
金秉駿, 2009 <樂浪의 文字 生活> ≪古代 文字資料로 본 東亞細亞의 文化交流와 疏通≫ (동북아역사재단)
金相鉉, 1996 <『雞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韓國學報≫ 84
金聖範, 2009 <羅州 伏岩里 遺蹟 出土 百濟木簡과 其他 文字 關聯遺物> ≪百濟學報≫ 創刊號
金聖範, 2009 <羅州 伏岩里 遺跡 出土 百濟 木簡> ≪古代의 木簡, 그리고 山城≫ (國立文化財硏究所 40年, 韓國博物館開館100周年 紀念 學術심포지움 發表文)
金成哲, 2007 <'大乘四論玄義記'는 백제에서 찬술되었나? - 崔鈆植 敎授의 百濟 撰述說에 대한 反論 - > ≪韓國史硏究≫ 137
金龍善, 1982 <新羅 法興王代의 律令頒布를 둘러싼 몇 가지 問題> ≪加羅文化≫ 1
金元龍, 1976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앞 宮殿壁畵의 使節圖> ≪考古美術≫ 129·130
金元龍, 1984 <古代韓國과 西域> ≪美術資料≫ 34
金恩淑, 1996 <百濟復興運動 以後 天智朝의 國際關係> ≪日本學≫ 15
金正基, 1982 <新羅伽藍配置와 日本에의 影響>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
金宗福, 2008 <8~9世紀 渤海와 日本의 外交的 葛藤과 解消> ≪韓國史學報≫ 33
金昌錫, 2004 <8세기 신라 일본 간 외교관계의 추이 - 752년 교역의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 > ≪歷史學報≫ 184
金昌錫, 2007 <新羅 縣制의 成立과 機能> ≪韓國古代史硏究≫ 48
南豊鉉, 2005 <韓國古代吏讀文의 文末語助辭 '之'에 대하여> ≪口訣硏究≫ 15
盧重國, 1979 <高句麗 律令에 關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盧重國, 2009 <百濟의 救恤·賑貸 정책과 '佐官貸食記' 木簡> ≪白山學報≫ 83
盧泰敦, 1981 <渤海 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盧泰敦, 1989 <高句驪·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涉에 관한 硏究> ≪大東文化硏究≫ 23
盧泰敦, 1989 <蔚珍 鳳坪碑와 新羅의 官等制> ≪韓國古代史硏究≫ 2
盧泰敦, 1997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事≫ 34
盧泰敦, 2003 <三國史記에 登場하는 靺鞨의 實體> ≪韓半島와 滿洲의 歷史 文化≫ (서울대학교출판부)
朴南守, 1996 <統一新羅 寺院成典과 佛寺의 造營體系> ≪東國史學≫ 28 ; 1996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재수록
박진욱, 1988 <쏘련 싸마르깐드 아흐라샤브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년 3기
朴泰祐·鄭海濬·尹智熙, 2008 <扶餘 雙北里 280 - 5番地 出土 木簡 報告> ≪木簡과 文字≫ 2
朴泰祐, 2009 <木簡資料를 통해 본 泗沘時代의 空間構造 - '外椋部' 銘 木簡을 中心으로 - > ≪百濟學報≫ 創刊號
宋基豪, 1996 <불교와 기타신앙> ≪한국사 10, (발해)≫ (국사편찬위원회)
宋浣範, 2006 <8세기 중엽 '新羅征討' 계획으로 본 古代 日本의 對外方針> ≪韓日關係史硏究≫ 25
徐榮教, 2002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硏究≫ 79
尹善泰,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 新羅 古文書와 木簡 分析을 中心으로 - ≫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尹善泰, 2000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韓國史硏究≫ 108
尹善泰, 2003 <新羅 中代의 刑律 - 中國律令 受容의 新羅的 特質과 關聯하여> ≪講座 韓國古代史 3≫
尹善泰, 2006 <百濟 泗沘都城과 嶋夷 - 木簡으로 본 泗沘都城의 안과 밖 - > ≪東亞考古學論叢≫ 2

(忠淸文化財硏究院)
尹善泰, 2007 ≪木簡이 들려주는 百濟 이야기≫ (주류성)
李昕燮·尹善泰, 2008 <扶餘 雙北里 현대들·北浦 遺跡 調査成果> ≪木簡과 文字≫ 創刊號
李京燮, 2009 <新羅 月城 垓子에서 出土한 '2號 木簡'에 대하여> ≪韓國古代史 硏究의 現段階－石門 李基東敎授 停年 紀念 論叢－≫
李基東, 1978 <新羅 官等制度의 成立年代 問題와 赤城碑의 發見> ≪歷史學報≫ 78
李基東, 1980 <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 ≪震檀學報≫ 50
李炳鎬, 2008 <扶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木簡과 文字≫ 創刊號
李鎔賢, 1999 <扶餘 宮南池 出土 木簡의 年代와 性格> ≪宮南池≫
李鎔賢, 2008 <佐官貸食記와 百濟의 貸食制> ≪百濟木簡≫ (國立扶餘博物館)
李佑成, 1989 <高麗土地·課役關係 '判·制'에 끼친 唐令의 影響－新羅 律令國家說의 檢討를 兼하여－> ≪大東文化硏究≫ 23
李宇泰, 1989 <新羅時代의 結負法> ≪泰東古典硏究≫ 5
李宇泰, 2002 <古代度量衡制의 發達> ≪講座 韓國古代史≫ 6
李宇泰, 2005 <金石文을 통하여 본 漢字의 導入과 使用> ≪韓國古代史硏究≫ 38
李泳鎬, 1983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硏究≫ 43
李漢祥, 1997 <5~7世紀 百濟의 帶金具> ≪古代硏究≫ 5
張慶浩, 1993 <百濟와 日本의 古代 寺刹建築> ≪百濟史의 比較硏究≫
田鳳德, 1956 <新羅律令攷> ≪서울大論文集≫ 4
鄭炳三, 2002 <古代 韓國과 日本의 佛敎 交流> ≪韓國古代史硏究≫ 27
鄭孝雲, 1993 <天智朝 對外關係에 대한 一考察－백강구전후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14
朱甫暾, 1984 <新羅時代의 連坐罪> ≪大邱史學≫ 25
朱甫暾, 1989 <蔚珍 鳳坪碑新羅碑와 法興王代의 律令> ≪韓國古代史硏究≫ 2
朱甫暾, 1993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 內政> ≪韓國學論集≫ 20
朱甫暾, 1998 <鳳坪碑 段階의 外位制整備>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機能과 構造> ≪釜山史學≫ 8
崔鈆植, 2001 <'大乘起信論同異略集'の著者について> ≪駒澤短期大學佛敎論集≫ 7
崔鈆植, 2002 <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 ≪韓國史硏究≫ 115
崔鈆植, 2005 <8세기 新羅佛敎의 動向과 東아시아 佛敎界> ≪佛敎學硏究≫ 12
崔鈆植, 2006 <新羅佛敎 文獻으로서의 "起信論一心二門大意"> ≪佛敎學硏究≫ 13
崔鈆植, 2007 <百濟 撰述 文獻으로서의 '大乘四論玄義記'> ≪韓國史硏究≫ 136
崔鈆植, 2007 <'大乘四論玄義記' 百濟 撰述 再論－金成哲 敎授의 反論에 대한 批判－> ≪韓國史硏究≫ 138
洪普植, 2004 <日本出土 新羅土器와 羅日交涉> ≪韓國上古史學報≫ 46
洪承佑, 2004 <新羅律의 基本性格－刑罰體系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50
洪承佑,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韓國古代史硏究≫ 55
吉林省考古文物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년 6호
陳寅恪, 1944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考≫ (1982, 上海古籍出版社)
黃約瑟, 1997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犬飼隆, 2006 <日本語を文字で書く> ≪列島の古代史6－言語と文字－≫, (岩波書店)
筧敏生, 1989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古代帝國> ≪日本史研究≫ 317
鬼頭清明, 1976 <白村江の戰いと律令制の成立> ≪古代日本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東野治之, 1977 <烏毛立女屛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東野治之, 1977 <正倉院氈の墨書と新羅の對外交易>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藤本幸夫, 1996 <古代朝鮮の言語と文字文化> ≪日本の古代 14≫ (中央公論社)
武田幸男, 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武田幸男, 1978 <朝鮮の律令制> ≪岩波講座 世界歷史 6≫ (岩波書店)
北村秀人, 1982 <朝鮮における律令制の變質>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7≫ (學生社)
山本孝文, 2009 <考古學으로 본 三國時代의 官人> ≪韓國古代史研究≫ 54
森公章, 1992 <朝鮮半島をめぐる唐と倭－白村江 會戰前夜> ≪古代を考える唐と日本≫ (吉川弘文館)
三上次男, 1941 <新羅東北境外における黑水鐵勒達姑の諸族に就いて> ≪史學雜誌≫ 52－11
三上喜孝, 2006 <文書様式'牒'の受容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學 歷史·地理·人類學論集≫ 7
三上喜孝, 2008 <日本 古代의 木簡의 系譜> ≪木簡과 文字≫ 創刊號
三上喜孝, 2009 <古代東アジア出擧制試論>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小林芳規, 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朝鮮學報≫ 182
小林芳規, 2002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研究≫ 8
小川裕人, 1937 <三十部女眞に就いて> ≪東洋學報≫ 24-4
石母田正, 1989 <天皇と諸蕃> ≪石母田正著作集 4≫
石上英一, 1979 <律令法國家(1)> ≪歷史研究≫ 222·223
石田公成, 1985 <'華嚴經問答'の著者> ≪印度學佛教學研究≫ 66
石田茂作, 1930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教の研究≫ (東洋文庫)
石井正敏, 1995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石井正敏, 2001 <初期日本·渤海交涉における一問題>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松田好弘, 1980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
新川登龜男, 1988 <日羅間の 調(物產)の意味> ≪日本歷史≫ 481
新川登龜男, 1999 <日羅間の 調> ≪日本古代の對外交涉と佛教－アジア中の政治文化≫ (吉川弘文館)
愛宕邦康, 1944 <'遊心安樂道'の撰述者に關する一考察－東大寺華嚴僧智憬とその思想的關聯に着目して－> ≪南都佛教≫ 70
鈴木英夫, 1997 <百濟復興運動と倭王權－鬼室福信斬首の背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韋蘭春, 2000 <'白村江の戰'と戰後の唐·日關係>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 85
伊藤隆壽, 1969 <慧均 '大乘四論玄義'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6
伊藤隆壽, 1971 <'大乘四論玄義'の構成と基本的 立場> ≪駒澤佛教學部論集≫ 2
伊藤隆壽, 1974 <慧均'大乘四論玄義'について(二)> ≪印度學佛教學研究≫ 40
伊藤隆壽, 1974 <'大乘四論玄義' 逸文の整理> ≪駒澤佛教學部論集≫ 5
李成市, 1990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795 ;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李成市, 1998 <正倉院所藏新羅氈貼布記の研究－新羅·日本間交易の性格をめぐって－>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李成市, 2005 <朝鮮の文書行政> ≪文字と古代日本 2≫ (吉川弘文館)
林紀昭, 1994 <高句麗の律令> ≪古代 東亞細亞의 再發見≫ (湖巖美術館)

林紀昭, 1967 <新羅律令に關する二·三の問題> ≪法制史研究≫ 17
井上光貞, 1973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歷史 2≫ (岩波書店)
酒寄雅志, 2001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酒寄雅志, 2001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中井眞孝, 1994 <高句麗佛教と日本の古代> ≪朝鮮と日本の古代佛教≫ (東方出版)
直木孝次郎, 1985 <近江朝末年における日唐關係の一考察－唐使郭務悰の渡來を中心に－> ≪末永先生米壽紀念獻呈論文集≫
秦政明, 2000 <『三國史記』倭國更號日本の史料批判> ≪日本書紀研究≫ 23 (塙書房)
八木充, 1970 <百濟の役と民衆> ≪國史論集≫ (小葉田淳教授退官紀念會出版)
和田軍一, 1924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0·11
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ミヤブ都城址出土壁畵に見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80
橫超慧日, 1958 <新出資料 四論玄義の初章中假義> ≪印度學佛教學研究≫ 13
Jorg Plassen, 2007 "On the significance of the Daeseung saron hyeunui gi大乘四論玄義記 for research on early Korean Buddhist thought -Some initial observations focusing on hwajaeng" ≪韓國史研究≫ 136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韓關係

－7~9세기－

사카우에 야스토시(坂上康俊)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제1장)

제１장 7세기의 일한관계
제1절 隋·唐의 성립과 동아시아 제국의 동향
1. 倭國의 對隋外交와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
2. ≪隋書≫의 '大國' 評言에 대하여
3. 唐의 興起와 국제균형시기
제2절 白村江戰과 동아시아 지역의 재편
1. 백제 왕자 豊璋의 來倭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642년
2. 白村江戰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3. 白村江戰과 당·신라·백제·고구려·왜
4. 신라의 對唐전쟁 수행과 왜와 신라의 관계
제2장 일본 율령국가의 성립
제1절 일본 율령제의 성립과정에 신라가 미친 영향
1. 신라의 '율령제'와 일본의 율령법전
2. 일본 율령국가 성립 과정에 신라가 미친 영향
제2절 일본 율령국가의 국제질서 구상
1. '隣國' '蕃國'論
2. 唐에서 본 세계질서
제3절 외교기구와 迎接儀禮
제4절 신라·발해 간의 외교문서
제3장 일본과 신라의 관계 추이
제1절 8세기 일본과 신라의 관계
1. 신라와 倭(일본)의 蜜月期
2. 일본·신라 관계의 알력
3. 藤原仲麻呂의 신라 정벌 계획
4. 일본과 신라의 외교 관계 단절
제2절 奈良時代의 불교와 신라
제3절 正倉院 보물 속의 신라 문물
1. 물품
2. 문서
제4절 平安時代 일본과 신라의 관계
1. 신라 상인의 내항
2. 장보고와 入唐僧
3. 貞觀 연간의 신라 해적선의 습격과 王土王臣思想
4. 고려 건국·신라 멸망과 일본
제4장 일본과 발해의 관계 추이
제1절 奈良時代의 일본과 발해의 관계－양국의 地位에 대한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제2절 平安時代의 일본과 발해의 관계
1. 年期制의 성립과 그 운용
2. 渤海使 迎接儀禮와 문인 관료
3. 일본과 발해의 교역
4. 渤海使·遣渤海使의 항로와 교통로

【國文抄錄】

7세기의 동아시아는 隋·唐의 성립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격동의 시대를 맞이한다. 642년을 기점으로 한반도 삼국의 대립은 최종 단계에 돌입하고 倭國도 등거리 외교에서 어쩔 수 없이 백제 지지로 전환하게 되어, 660년 백제 멸망 후 663년의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하여 唐·신라와 白村江戰에서 전투를 하고 대패를 당한다. 이로 인해 倭國이 유사 이래 쌓아온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는 한동안 두절된다. 그러나 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여 唐과 전쟁을 시작한 신라는 倭國에 매년 遣使하여 '조공' 자세로 관계 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라가 唐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대등한 예로 대하는(亢禮)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고, 8세기에는 상이한 對外觀 때문에 日羅關係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 시기 7세기 말엽에 성립된 발해가 唐·신라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존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본에 使者를 파견하고 그 이후 약 200년간에 걸쳐 일본과 발해의 외교관계가 성립되게 된다. 초기에는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 관계는 唐에 安史의 亂이 일어나게 되어,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쳐서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관계로 이행해 간다.

8세기 말에는 일본과 신라와의 사이에 외교 관계가 두절되게 되지만, 그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본에는 신라에서 다양한 문물이 들어왔다. 9세기에 들어서면 신라 국내의 상황이 악화된 것도 있어서 일본에 신라인이 오게 되고 그 중에는 동지나해를 무대로 日·唐·신라 삼국 간의 교역에 종사하는 海商이라고 불러야 할 존재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장보고는 8세기 중엽에 반란을 일으켜 멸망하게 되지만, 그가 유지하고 있던 해상 네트워크는 일본에서는 오로지 '唐商'이라고 알려진 존재가 이어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행착오가 이루어졌다. 한편 발해와의 사이에서는 9세기에는 年期制가 채택되게 되고, 발해가 일본에 조공을 하는 형태로 유지되면서 상당히 빈번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에서 唐이 멸망하고 五代의 시대를 맞이하는 때와 시기를 같이하여, 신라말기의 반란 속에서 고려가 건국되어 신라가 멸망하고, 또 조금 뒤에 발해도 거란에 항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7세기 후반에 성립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붕괴되었다.

주제어 : 隋·唐과 동아시아 諸國, '大國', 白村江戰, 율령체제, '調', 조공, 蕃國, 賓禮, 영접, 正倉院, 화엄종, 安置供給, 新羅海商, 年期制, 장보고, 해적, 唐商

제1장 7세기의 일한관계

제1절 隋·唐의 성립과 동아시아 제국의 동향

중국에서는 4세기 초반 이후 장기간에 걸쳐 南北朝시대의 분열이 계속되었지만, 589년에 北朝의 隋가 南朝의 陳을 멸망시키고 약 300년 만에 중국 통일을 실현했다. 隋는 3번에 걸친 고구려 정벌 등으로 인해 사실상 2대 煬帝 때에 괴멸해 버리지만 隋(581～618년), 그리고 다음의 唐(618～907년)은 전근대 동아시아에 있어서 보편적인 國制의 모델이 된 律令法을 완성시킨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였다. 그러한 隋·唐의 등장으로 인해 그 사이 독자적으로 국가 형성을 진행시켜 온 倭國, 한반도 제국은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응해 가야만 했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여기에 隋·唐의 개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여 그때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분쟁이 전개되게 된다.

1. 倭國의 對隋外交와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

隋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 한반도 제국에서는 백제가 589년, 고구려가 591년, 신라는 594년에 隋에 사신을 보낸다. 隋에 대한 한반도 제국의 대응은, 隋와 대립하여 정벌을 받아 이를 격퇴한 고구려, 隋의 고구려 정벌에 의존하면서도 이에 편승하여 신라를 공격하고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 확보를 도모한 백제, 그리고 隋에 臣從함으로써 고구려·백제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신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삼국의 대응은 다음에 이어지는 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倭國이 제1회 遣隋使를 파견한 것은 600년의 일이고 동아시아 제국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사자파견이었다. 600년의 遣隋使는 자국의 정치 양식 등을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隋의 초대 황제 文帝에게 '此太無義理'라고 일축당하고 중국식으로 바꾸도록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隋書≫ 倭國傳). 倭國은 603년 冠位十二階 제정, 604년 憲法十七條 작성, 小墾田宮의 禮式改訂 등 國制 개혁을 추진하고, 607년 제2회 遣隋使인 小野妹子를 파견하기에 이른다.

冠位十二階는 倭國 최초의 冠位制度로 한반도 삼국, 특히 백제의 제도를 따랐다【黛弘道 1959, 1979】. 그 후에 隋·唐과 通交를 거듭했지만 隋·唐制를 전면적으로 채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倭國은 우선 사회의 발전 단계가 서로 비슷한 한반도 제국의 제도를 참조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森公章 2008a】.

607년의 倭國의 國書 '日出處天子, 致書日沒處天子, 無恙云云'(≪隋書≫ 倭國傳)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日出處'와 '日沒處'에 격차를 찾아내어 倭國은 대등 외교를 주장했다고 하는 의견이 우세했었다【森克己 1962】. 그러나 현재는 이 어구는 불전인 ≪大智度論≫이 그 典據이고, '東'·'西'의 방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며 오히려 '菩薩天子'라고 칭해졌던 隋 황제에게 배려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설이 유력하다【東野治之 1992, 河上麻由子 2008】. '致書'와 '天子'의 어구도 반드시 대등관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이해【森公章 1988】, 그리고 설령 대등 관계 구축을 의도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중국 왕조와의 군신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중국 왕조에 필적하는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 등이 필요한데, 당시 왜국은 분명히 이 부분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隋와의 군신 관계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廣瀨憲雄 2008】.

이와 관련하여 倭國을 '日出處'라고 하는 발상은 倭國 조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國書 起草와 對隋 외교의 방침결정에 대해서는 595년에 일본에 와서 당시 倭國의 유력 왕족이었던 廐戶王(聖德太子)의 불교 스승이 되었던 고구려僧 慧慈의 영향이 컸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日出處'·'日沒處'는 고구려의 입장에서 본 倭國과 唐을 가리킨다고 설명함)【李成市 1990】. 慧慈는 隋의 고구려 정벌이 고비를 넘긴 615년에 귀국하고 있고 아마도 倭國이 전면적으로 중국 편이 되는 것을 막는 '使命'을 다한 것이 된다. 이 시기 고구려는 승려 파견이나 불교·문화면에서의 공헌을 보여서 倭國의 希求에 응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제3장의 <표 4>를 참조), 다음의 唐代에도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고구려, 또 백제와 신라의 국제 활동이 倭國의 대중국 외교에 미친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1 ≪日本書紀≫ 推古 16年(608) 6月 丙辰條

客等泊于難波津. 是日, 以餝船卅艘迎客等于江口, 安置新館. 於是, 以中臣宮地連摩呂·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爲掌客. 爰妹子臣奏之曰, 臣參還之時, 唐帝以書授臣. 然經過百濟國之日, 百濟人探以掠取. 是以不得上. 於是, 羣臣議之曰, 夫使人雖死之不失旨. 是使矣, 何怠之失大國之書哉. 則坐流刑. 時天皇勅之曰, 妹子雖有失書之罪, 輒不可罪. 其大國客等聞之亦不良. 乃赦之不坐也.

그리고 隋使 裴世淸은 백제를 경유하여 倭國에 도착했지만(≪隋書≫ 倭國傳), 이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귀국한 小野妹子의 말에 따르면 귀국하는 과정에서 백제에서 백제인에게 隋 황제가 보낸 문서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다. 이 '唐帝以書授臣'이라는 문서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서로 보는 견해가 유력했지만, 국서는 裴世淸이 지참하고 있고 ≪日本書紀≫ 推古 16년(608) 8월 壬子條에 捧呈되었다는 내용이 있다(황제가 신하에게 하사하는 慰勞制書의 형식으로 倭國의 遣使를 '조공'이라고 하는 어구도 있다). 백제는 隋가 倭國에 무엇을 고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국서 강탈은 당연히 큰 국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제인이 탈취했는가에 대한 사실 여부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書'는 倭國의 '無禮'를 敎諭한 문서를 이르는 것이고, 小野妹子는 이것이 倭國 조정에 공개되면 자신의 사명 달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강탈을 구실로 보고한 것이 아닐까? 또 조정도 그것을 옳다고 인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川本芳昭 2004】.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2. ≪隋書≫의 '大國' 評言에 대하여

≪隋書≫ 倭國傳에는 "新羅·百濟, 皆以倭爲大國, 多珍物, 竝敬仰之, 恒通使往來"라는 기술이 남아 있다. 당시 일한관계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倭國과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崇峻朝부터 推古朝에 걸쳐 倭國은 ①591～595년과 ②602～603년의 2번에 걸쳐 筑紫에 군대를 주둔시켜서(駐兵) '任那 부흥'의 자세를 보여준다【森公章 2002a】. ①은 594년 신라가 入隋한 이후의 동정을 지켜본 결과 철수, ②는 백제·고구려의 신라 침공(<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제3장의 <표 3>을 참조)에 응답한 것이었지만, 600년에 보낸 遣隋使의 결과가 좋지 않아 국정 개혁과 동아시아 외교 재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요인이 되어 중지되게 된 것 같아서, 倭國의 행동이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02 ≪日本書紀≫ 推古 18年(610) 7月條
新羅使人沙喙部奈末竹世士, 與任那使人磯部大舍首智買, 到于筑紫.
1-03 ≪日本書紀≫ 推古 19年(611) 8月條
新羅遣沙磯部奈末北叱智, 任那遣習部大舍親智周智, 共朝貢.
1-04 ≪日本書紀≫ 推古29年(621) 是歲條
新羅遣奈末伊彌買朝貢. 仍以表書奏使旨. 凡新羅上表,蓋始起于此時歟.

倭國이 위에 서술한 隋와의 通交를 거친 610, 611년에는 倭國에 新羅使와 '任那'使가 오게 된다. 敏達朝 이래의 '任那 부흥' 노력, 2번에 걸친 興兵으로도 실현할 수 없었던 '任那'使가 일본에 온 것과 '任那調' 送付가 달성된 것이다. 그 이유로는 倭國의 遣隋使 파견, 隋와의 通交라고 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신라는 608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북부 국경 지대에서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피해를 입고 隋에 고구려 정벌을 발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平王30年條). 이런 정세 속에서 신라는 倭國에게도 구원을 요청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任那調' 送付를 통한 관계의 회복·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일 것이다. 그러한 신라와 대항하기 위해 백제가 일본에 오고 문물을 공여하고 나아가 隋와 대립하고 있던 고구려와 접촉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하다(<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제3장의 <표 4>를 참조).

≪隋書≫의 '大國' 용례에 따르면 '大國'이란 내적으로 예절을 갖추어 유지하고 이와 함께 禮的 질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라고 정의되는 것 같은데【黑田裕一 1998】, 倭國이 한반도 삼국의 균형 위에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大國' 評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한다. 단, 이번의 '任那調' 획득은 倭國의 주체적인 '任那復興'책 발동으로 인해 달성된 것이 아니었다. '大國' 평가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倭國의 국력 확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큰 것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唐의 興起와 국제균형시기

618년 고구려 정벌 실패 등으로 인해 隋가 멸망하고 唐이 성립된다. 고구려는 619년 백제와 신라는 621년에 唐과 通交하게 되지만, 각국의 通交자세는 기본적으로는 隋代와 마찬가지였다.

1-05 ≪舊唐書≫ 倭國傳(貞觀5年＝631)
貞觀五年, 遣使獻方物, 太宗, 矜其道遠, 勅所司, 無令歲貢. 又遣新州刺史高表仁, 持節往撫之. 表仁無綏遠之才, 與王子爭禮, 不宣朝命而還.

倭國이 제1회 遣唐使를 파견한 것은 630년이고, ≪舊唐書≫ 倭國傳(사료 05)에 따르자

면 631년에 倭國이 入貢했을 때, 唐·太宗은 歲貢면제를 지시했다고 하며 이것은 唐이 倭國을 책봉하고 倭國이 매년 조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西嶋定生 1962·1981, 金鉉球 1983】. 그러나 倭國에 파견된 唐使 高表仁이 '與王爭禮'라고 하듯이(≪舊唐書≫에는 '왕자'라고 되어 있지만, ≪新唐書≫ 日本傳, ≪善隣國寶記≫ 舒明3年條 所引 '唐錄' 등에 따라 개정했다【池田溫 1971】) 倭國은 책봉을 거부한 듯하다. 倭國은 隋의 책봉도 받지 않은 것 같고, 대등 외교 운운하는 것과는 별개로, 倭國이 중국의 책봉을 받지 않는 것은 隋代부터의 일관된 방침이었던 것 같다. 이 시기 唐은 북방·서방에 문제를 안고 있어서 630년 突厥의 頡利可汗을 격파, 635년 吐谷渾 토벌, 640년 高昌國 평정, 641년 吐蕃에 공주를 降嫁시키는 등 641년까지는 동방정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唐이 고구려에 陳大德을 파견하여 동태를 살피게 한 것은 641년 8월이고, 이때쯤부터 동방에 두루 신경을 쓰기 시작함). 따라서 倭國과 高表仁의 마찰도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무사하게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倭國이 제1회 遣唐使를 파견하기 직전인 630년 3월에 高句麗·百濟使가 같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전해진다(<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제3장의 <표 4>를 참조). 이 사절은 倭國의 對唐외교에 어떠한 형태의 견제를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구려와 백제가 倭國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 엿보인다. 白村江戰에 이르게 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倭國이 결국은 백제·고구려 측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때쯤부터 이루어진 工作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을 것이다.

제2절 白村江戰과 동아시아 지역의 재편

660년 唐·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663년 白村江戰에서 백제의 유민과 倭國이 대패하여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 멸망으로 전개된 이후, 한반도 전체의 領有를 꾀하는 唐과 신라 간에 전쟁이 시작되고, 676년 신라에 의한 반도 통일(통일신라의 성립)로 귀착되게 되는 동아시아 대변동의 과정 속에서 642년은 하나의 획을 긋는 해였다.

1. 백제 왕자 豊璋의 來倭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64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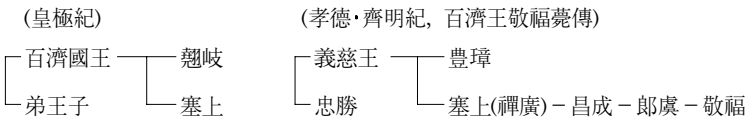
642년 전년에 즉위한 백제의 義慈王(재위 641～660년)은 스스로 병사를 이끌고 신라를 침공하여 40여 城을 함락시키고 숙원이었던 옛 가야 지역 탈환을 달성했다. 나아가 백제는 고구려와 和親하고, 643년 11월에는 党項城(京畿道 華城郡 西新面 尙安里)을 취하고, 舊都 漢城의 故地 주변을 탈환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라의 善德女王(재위632～647년)이 唐에 구원을 청하여 공격은 중지되었지만, 백제는 東部·北部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 신라에 대한 침공을 격화시킨다(≪三國史記≫ <新羅本紀>·<百濟本紀>).

義慈王은 또 642·3년경에 왕자 豊璋을 倭國에 '인질(質)'로 파견하고 있다. 이 백제의 왕자 豊璋의 도래 시기에 대해서는 631년 설도 있지만(≪日本書紀≫ 舒明3年(631) 3月 庚申朔條), 631년은 義慈王 이전인 武王(재위 600～641년)의 시대여서 의문이 남는다. 義慈王 즉위 후인 642년 내지는 643년에[1]일본에 온 백제 왕자 중에 翹岐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日本書紀≫ 皇極 元年 2月 戊子條, 同 2年 4月 庚子條), 이 翹岐가 豊璋과 동일인물이며 豊璋＝翹岐가 일본에 온 것도 642·3년경이라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고 여겨진다【西本昌弘 1985】. 지금 翹岐와 豊璋의 관계 계도를 작성해 보면 양자를 둘러싼 인물들은 매우 유사하며, 豊璋의 別名이 糺解이라는 점(≪日本書紀≫ 齊明 7년(661) 4月條, 天智2年(663) 5月 癸丑朔條)에 주목해 보면, 糺解(기우케)와 翹岐(게우키)의 음(≪釋日本紀≫ 卷19·20의 秘訓에 의함)이 유사하여, 豊璋＝糺解＝翹岐라고 해석할 수 있다[2].

---

1) 皇極紀 기사에 年次的 혼란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鈴木靖民 1970, 西本昌弘 1985】등을 참조.

2) 643년의 기사에서는 豊璋(余豊)이 '百濟太子'라고 나와 있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4年(644)條에 의하면, 이 해에 扶余隆을 태자로 세웠다고 하고 있어서, 倭國에 파견된 太子 豊璋 대신에 扶余隆을 태자로 세운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豊璋은 644년보다는 조금 전에 일본에 왔다고 추정됨. 그리고 【宋浣範 2005】은 豊璋과 翹岐는 다른 인물이라 하여, 豊璋은 武王의 아들로서 631년에 일본에 온 인물(倭國의 제1회 遣唐使 파견으로 인해 唐·신라와 倭國의 연합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처한 것으로 봄)이고, 翹岐는 義慈王 즉위로 인한 백제 대란의 영향으로 643년에 일본에 온 인물로 보고 있지만, 【西本昌弘 1985】의 논거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로서의 결론이 아니며, ≪舊唐書≫ 百濟傳,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20年(660)條의 '故(古)王子' 를 '故(古)王의 子'라고 읽고, 당 세대에서는 王子라고 부르는데 어울리지 않는 王子의 뜻으로 한다는 점, 해당 시기의 倭國의 외교정책이 친신라에서 반신라, 그리고 친백제로 전환된다고 보는 점 등 몇 가지 논점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역시 【西本昌弘 1985】를 지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인질'로 체류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倭國 조정과 교류하는 이른바 고급 외교관으로서 倭國을 親百濟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羅幸柱 1996】, 이러한 '인질'을 둘러싼 사정에도 유의해야만 한다.

동아시아 제국의 642년의 상황에 대해 다시 보자면, 고구려에서의 642년 10월에 국왕이 시해되고 泉蓋蘇文(淵蓋蘇文)[3]에 의한 專制政治가 확립된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고구려가 국가체제의 강화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鬼頭淸明1981】. 唐의 고구려 정벌은 蓋蘇文 생존 시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의 사후 아들들의 형제 간 분쟁이라는 하는 내부 분열을 맞게 되어 668년에 점차 고구려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사반세기에 이르는 唐과의 전쟁이 가능했던 것은 蓋蘇文의 수완에 의한 것이 컸다. 백제·고구려에서 專制權力의 확립·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체제가 정비되는 가운데 6세기대에 대발전을 이룩한 신라만은 이 시기 정체기에 빠져있었다. 642년 당시의 신라왕은 善德女王이었고 다음으로 眞德女王(재위647～654년)의 치세가 이어진다. 여왕이기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남자 왕을 세우지 못했던 배경에는 왕권의 약화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라는 643년 9월, 唐에 사신을 보내어 백제·고구려의 영토 침범을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한다. 北方·西方의 안정을 이룩한 唐에는 동방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唐이 반도 정세에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3) 泉蓋蘇文은 중국의 史書와 ≪三國史記≫(卷49傳에 '姓泉氏')에 '泉蓋蘇文'이라고 나오지만, 蓋蘇文의 弟 淨土를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6年 12月條 등에서는 淵淨土라고 하고 있다. ≪舊唐書≫ 高句麗傳에 '蘇文姓錢氏'라고 나오는 것은 泉과 錢의 音通이다. ≪東史綱目≫ 附錄 卷上에 따르자면 泉은 원래 淵이라고 칭했던 것이지만, 唐·高祖의 諱를 피하여 淵을 泉이라고 고친 것이라고 추측한다. 일본 측의 사료를 보면 ≪日本書紀≫ 皇極 元年 2月 丁未條에 '伊梨柯須弥'라고 나오고, 伊梨는 이 淵의 자음에 가깝고 柯須弥는 蓋蘇文의 音譯이라고 생각되어 原音은 Ir-kasum였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淵蓋蘇文이 原音表記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되며 한국의 학계와 독서계에서는 이 표기가 일반적이다. ≪日本書紀≫ 天智3年 10月條에는 蓋蘇文을 蓋金, 同 6年 10月條에 蓋蘇文의 子를 太兄男生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일본 측 사료에는 '泉蓋蘇文'이라고 하는 표기는 없어서, 이 일족의 姓이 泉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서는 '蓋蘇文'이라고 하는 이름만 표기하고 있고, 寶藏王 26年 9월條에서는 그의 아들을 泉男建·泉男生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후자인 泉姓의 기사는 ≪新唐書≫를 문헌상의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 사정도 있는 것 같다.

642년은 하나의 획을 긋는 해이기도 하다.

倭國에서는 642년에 舒明天皇의 皇后 寶皇女가 皇極天皇으로 즉위하여 신라와 마찬가지로 여왕의 통치가 출현하게 된다. 이 皇極朝에서는 蘇我蝦夷·入鹿 부자, 蘇我本宗家를 주축으로 권력 집중을 꾀하여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전제정치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심해져, 倭國에서는 645년 6월에 皇極天皇의 아들 中大兄皇子(天智天皇)와 中臣鎌足들이 실동 부대로 蘇我本宗家를 토벌하고 敏達系 왕족인 孝德天皇(皇極의 형제)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乙巳의 変이 일어난다. 645년은 唐·太宗의 고구려 정벌이 시작된 해이며, 乙巳의 変은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면서도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국가체제 구축의 방향까지 그 논점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 孝德朝의 개혁('大化改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 단계에서 倭國은 아직 완전하게는 중앙집권적 국가 건설에 착수하지는 못했다【森公章 2002b, 2005b】.

2. 白村江戰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乙巳의 変과 외교 방식과의 관계와 白村江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A)親百濟派였던 蘇我本宗家에 대하여 中大兄皇子일파는 親新羅·唐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그 후에 親百濟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山尾幸久 1967, 金鉉球 1985, 八木充 1986】, (B)642년에 백제가 옛 가야지역을 탈환하면서 '任那調' 확보를 추구하는 蘇我本宗家와 '任那調'를 포기해서라도 백제·신라 양국과의 관계 유지를 도모하는 中大兄皇子 일파와의 대립이 있었고, 中大兄皇子 일파는 한반도 제국의 항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백제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白村江戰으로의 길을 가게 된다【鬼頭淸明 1970】, (C)倭는 642년 이래 일관되게 親百濟策이었고 이 방침에 반하는 행위(내용불명)를 취한 蘇我本宗家을 토벌했다【西本昌弘 1987】는 등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1-06 ≪日本書紀≫ 大化 元年(645) 7月 丙子條

高麗·百濟·新羅, 並遣使進調. 百濟調使兼領調任那使, 進任那調. 唯百濟大使佐平緣福遇病, 留津館而不入於京. 巨勢德大臣, 詔於高麗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天皇所遣之使, 與高麗神子奉遣之使, 旣往短而將來長. 是故可以溫和之心相繼往來而已. 又詔於百濟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始我遠皇祖之世, 以百濟國爲內官家, 譬如三絞之綱. 中間以任那國屬賜百濟, 後遣三輪栗隈君東人觀察任那國堺. 是故百濟王隨勅悉示其堺, 而調有闕, 由是却還其調. 任那所出

物者, 天皇之所明覽, 夫自今以後, 可具題國與所出調. 汝佐平等, 不易面來, 早須明報. 今重遣三輪君東入·馬飼造<闕名>. 又可送遣鬼部達率意斯妻子等.

1-07 ≪日本書紀≫ 大化 2年(646) 9月條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 遂罷任那之調<黑麻呂更名玄理>.

1-08 ≪日本書紀≫ 大化 3年(647) 是歲條
新羅遣上臣大阿飡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顔善談咲.

1-09 ≪日本書紀≫ 大化 5年(649) 是歲條
新羅王遣沙喙部沙飡金多遂爲質. 從者卅七人<僧一人, 侍郎二人, 丞一人, 達官郎一人, 中客五人, 才伎十人, 譯語一人, 雜傔人十六人, 幷卅七人也>.

1-10 ≪日本書紀≫ 白雉 2年(651) 是歲條
新羅貢調使知万沙飡等, 著唐國服泊于筑紫. 朝庭惡恣移俗, 訶嘖追還. 于時巨勢大臣奏請之曰, 方今不伐新羅, 於後必當有悔. 其伐之狀不須擧力, 自難波津至于筑紫海裏, 相接浮盈艫舳, 召新羅問其罪者, 可易得焉.

1-11 ≪日本書紀≫ 齊明 元年(655) 是歲條
高麗·百濟·新羅, 並遣使進調<百濟大使西部達率余宜受·副使東部恩率調信仁, 凡一百餘人>. 蝦夷·隼人率衆內屬, 詣闕朝獻. 新羅別以及飡彌武爲質,以十二人爲才伎者. 彌武遇疾而死.

乙巳의 変 직후인 645년 7月에 일본에 온 고구려와 백제의 使者에 대하여 倭國은 고구려와는 앞으로의 通交를 기대한다는 말을 나누고, 이와 함께 백제에 대하여는 '인질'로 보이는 鬼部達率意斯의 처자들을 되돌려 보내고 옛 가야지역 탈환에 따른 '任那調' 송부를 요구하면서 送付 시의 세칙을 제시하고 있다(사료 06). 그리고 倭國은 다음 해인 646년 9월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任那調' 송부 정지와 '인질' 파견을 지시했다(사료 07). 따라서 옛 가야지역을 영유하고 있는 나라로 부터는 '任那調' 송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부터는 '인질' 파견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동아시아 등거리외교가 견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제는 자신의 힘을 믿고 倭國에 별로 사신을 보내지 않고 신라 쪽이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했고 후에 太宗 武烈王으로 즉위하는 金春秋도 647년에는 일시적으로 '인질'로 일본에 오게 되는(사료 08) 등 倭國과의 관계 유지를 추구하는 구조가 되었다[4].

4) 金春秋가 일본에 온 내용은 ≪三國史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단, 【石井正敏 2007】는 延喜22년(922)에 후백제의 왕 甄萱이 파견한 使者를 추방할 때의 ≪本朝文粹≫ 卷12 <大宰答新羅牒>에 인용된 甄萱의 牒狀 중에 "而自質子逃遁, 隣言矯誣, 一千年之盟約斯渝, 三百歲之生疎到此"라는 어구가 있고 '一千年'은 기원전 18년의 백제 건국, '三百歲'는 660년 또는 663년의 백제 멸망에서 부터의 어림수, '質子'는 金春秋를 가리키며 金春秋가 倭國과의 제휴를 단념하고 入唐하여, 唐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백제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측의 사료에도 金春秋가 '質子'로 일본에 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는 이

金春秋는 648년에는 唐에 갔고, ≪舊唐書≫ 倭國傳에는 제1회 遣唐使를 둘러싼 분란에 이어, “又附新羅奉表, 以通起居” 라고 나와 있다. 신라는 이 해에 3번 遣唐使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德王 2年條), 정확하게는 어떤 使者에 위임했었는지 불분명하지만, A설의 입장에서는 金春秋에게 위임하여 신라를 지지하는 방침을 알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전달 내용은 분명하지 않고 또 倭國의 제2회 遣唐使 파견은 653년이 되기 때문에, 등거리 외교 유지설이라는 입장에서는 倭國과 唐과의 通交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651년에는 일본에 온 新羅使의 唐國服着用問題가 일어난다(사료 10). 강경 의견도 나왔었지만, 역시 倭國의 구체적인 대응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등거리외교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반응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해석된다.

642년 이후부터 660년에 唐·신라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기까지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기구분이 가능할 것이다【森公章 1992·1998】.

Ⅰ. 〔642～647년 : 唐의 三國和親 說諭와 한반도 제국의 對應〕 고구려는 唐을 적대하고 백제는 표면상으로는 사죄를 하지만 계속 신라를 침공한다. 신라에서는 唐의 군사원조의 조건＝唐의 皇子를 국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둘러싸고 親唐依存派와 親唐自立派의 대립이 물밑에서 진행된다.

Ⅱ. 〔648～654년 : 신라의 唐風化정책과 唐에 대한 접근〕 신라는 647년 毗曇의 亂을 겪고 【武田幸男 1985】 친당자립파를 중심으로 왕권 강화에 나서지만, 唐의 고구려 정벌 실패, 647년에 백제의 침공을 받아 위기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金春秋를 唐으로 보내어 唐과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일련의 唐風化 정책을 취하면서 唐과 같은 국가조직 구축, 동질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唐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또 신라의 왕권 강화, 강력한 군국체제 구축에 힘썼다. 백제는 651년에 唐에 사신을 보내지만 653년 8월에 倭國과 친교를 맺은 이후 遣唐使를 파견하지 않게 되고 唐과 대립하는 길을 선택한다.

Ⅲ. 〔655～660년 : 唐의 고구려 정벌 재개와 백제 멸망까지의 과정〕 655년 2월 唐의 고구려정벌이 재개되고 이후 668년 고구려 멸망까지 전투가 이어진다. 신라는 고

야기가 되고, 그것은 ≪舊三國史≫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단, 【渡邊誠 2009】는 ‘一千年’은 긴 시간을 막연히 가리키는 ‘千年에 달하는 永遠’이란 뜻이고(‘三百歲’도 마찬가지), 日本으로부터의 ‘인질’이 도망쳤다는 것은 ≪日本書紀≫ 神功 5年 3月條의 微叱己知波珍干岐(未斯欣)의 이야기를 가리킨 것이라며, 石井씨의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구려·백제의 침공에 대하여 唐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唐은 고구려에 가담하고 있는 백제를 처단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656년 이후에는 新羅使를 倭國에 보내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도 신라의 외교 방침의 추이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倭國과 고구려의 通交, 특히 전술한 655년 이후의 제Ⅲ기의 양상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고자 한다. 前節에서도 언급했었던 645년에 일본에 왔다는 기사 이후 ≪日本書紀≫ 孝德紀에는 매년 한반도 삼국에서 使者가 왔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 기사들은 다소 유형적 기술이며 또 孝德紀에는 윤색도 존재하기 때문에 倭國과 고구려와의 通交의 실태는 불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부분은 656년의 高句麗使가 일본에 오고 이에 응하여 倭國에서도 遣高句麗使 膳臣葉積·坂合部連磐鍬 등을 파견했다고 알려져 있다(≪日本書紀≫ 齊明 2年 8月 庚子條·是歲條, 9月條). 이와 동시에 遣百濟使도 파견하고 (齊明 2年 是歲條)있기 때문에, 여기서 倭國이 고구려·백제의 정세 파악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는 660년에도 倭國에 사신을 보내고 있고, 정확히 백제가 멸망하는 7월에 귀국한다(齊明 6年 正月 壬辰朔條·5月 戊寅條·7月 乙卯條). 高句麗使는 어쩌면 이런 변고를 예고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가령 倭國이 고구려와 제휴를 꾀하려고 해도 이미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백제를 토벌한 唐·신라 연합군은 고구려정벌에 전력을 쏟을 수 있게 되어 고구려에게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倭國으로 사신을 보내는 것도 곤란해지게 된다.

3. 白村江戰과 당·신라·백제·고구려·왜

660년 7월, 唐·신라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한다. 그 후 唐은 약간의 주류군을 남기고 옛 백제 영토를 통치하게 한다. 唐·신라군의 주력 부대는 고구려 전선으로 향한다. 이런 가운데 이미 8월에는 백제 유민이 봉기하여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되게 된다. 백제 유민들은 9월에 倭國에 使者를 파견하여 원조를 요청했고 倭國은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백제의 멸망과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백제 유민의 요망은 倭國의 원군 파견과 이와 함께 '인질'로 倭國에 체재하고 있던 왕자 豊璋을 백제왕으로 맞아 백제 부흥을 완수하는 것이었다(<표 1>-A·B).

倭國은 곧바로 백제부흥운동 지원을 결정한 것 같다(<표 1>-B).그 이유로는 4세기

후반 이래의 백제와의 관계, 백제 멸망으로 인해 문물 수입 루트가 단절된 것과 한반도 제국에 대한 등거리외교가 끝나게 되는 것 등, 倭國에게 유리한 국제 정세가 격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그리고 '인질'인 왕자 豊璋의 존재 등이 상정된다. 豊璋을 백제왕으로 귀환시킬 때 倭國은 그에게 織冠(大化5년 당시 冠位制 중 최상위)을 수여하고, 多臣蒋敷의 여동생과 혼인시키고 있어서(<표 1>-C), 倭國은 백제왕을 신하로 만들어 백제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구축하려고 했을 지도 모른다【筧敏生 1989】. 그런 계획과 함께 倭國의 전략 구상에서 신라와 싸우고자 하는 의식이 강했고 唐과 싸운다는 현실인식이 희박했던 점에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표1과 관계 사료 검토의 성과를 바탕으로【池內宏 1961, 坂本太郎 1955, 八木充 1970, 鬼頭清明 1981 등 참조】, 倭國의 파병과 백제부흥운동의 戰況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森公章 1998b】.

① 〔661년 9월 : 백제 왕자 豊璋의 귀국과 衛送軍 5000명(제1차 파견군) 파견〕
筑紫大宰帥阿倍比羅夫를 중심으로, 筑紫의 豪族을 중심으로 하는 병력이 바다를 건넜다(<표 1>-D·E·K).이 파견군은 백제인과 함께 싸워, 661～2년 백제가 우세였던 상황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662년 12월 백제 유민이 산이 험해서 방어에 유리한 周留城(州柔, 疏留城이라고도 한다. 錦江 하구 부근설, 扶余邑보다 江景邑 쪽으로의 錦江 강변설, 忠淸南道 舒川郡 韓山面의 乾芝山城說 등 錦江 연안으로 보는 설과 全羅北道 扶安郡의 禹金岩山城說이 있다. 전자에서 白村江은 錦江, 후자에서는 東津江 혹은 万項江이 된다.)에서 豊穰한 토지가 있는 僻城(全羅北道 金堤)로 옮길 것을 제안했고, 이에 倭國 장병은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동한 결과, 唐·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663년 2월에는 다시 周留城으로 돌아가게 된다.

② 〔663년 3월 : 27000명의 제2차 파견군이 바다를 건넘〕
신라 방면을 공격하는 군대로 신라 본국을 위협함으로써 662년 말 이후로 백제에게 불리했던 전황을 전환하고자 하는 방책이었던 것 같다(<표 1>-Q·S). 그러나 백제에서는 豊璋과 鬼室福信의 대립이 일어나고, 663년 6월 豊璋이 福信을 살해하여 부흥운동의 실질적인 중심인물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唐·신라는 5월경부터 병력을 증강시켜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인 周留城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三國史記≫ <百濟本紀> 龍朔 2年條, ≪舊唐書≫ 劉仁軌傳).

③〔663년 8월 : 약 만 명의 제3차 파견군의 출병〕

周留城을 압박해 오는 唐·신라군과의 결전을 위해 白村江으로 향한 군대(<표 1>-T). ②의 일부가 우회했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별도의 부대라고 생각한다.

1-12 ≪日本書紀≫ 天智 2年 8月 甲午·戊戌·己酉·癸卯條(T·U·V·W)

甲午, 新羅以百濟王斬己良將, 謀直入國先取州柔. 於是, 百濟知賊所計, 謂諸將曰, 今聞, 大日本國之救將廬原君臣率健兒萬餘, 正當越海而至. 願諸將軍等應預圖之. 我欲自往待饗白村. 戊戌,賊將至於州柔繞其王城. 大唐軍將率戰船一百七十艘, 陣烈於白村江. 戊申, 日本船師初至者, 與大唐船師合戰. 日本不利而退, 大唐堅陣而守. 己酉, 日本諸將與百濟王不觀氣象, 而相謂之曰, 我等爭先彼應自退. 更率日本亂伍中軍之卒進打大唐堅陣之軍, 大唐便自左右夾船繞戰. 須臾之際, 官軍敗績, 赴水溺死者衆. 艫舳不得廻旋. 朴市田來津仰天而誓, 切齒而嗔殺數十人, 於焉戰死. 是時百濟王豐璋與數人乘船逃去高麗.

1-13 ≪舊唐書≫ 劉仁軌傳

(상략)仁軌遇倭兵於白江之口, 四戰捷, 焚其舟四百艘. 煙焰漲天, 海水皆赤. 賊衆大潰, 餘豐脫身而走, 獲其寶劒.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率士女及倭衆幷耽羅國使, 一時竝降. 百濟諸城皆復歸順. (하략)

1-14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1年(671)7月 26日條(大王報書)

(상략)至龍朔三年(663)惣管孫仁師領兵來救府城, 新羅兵馬亦發, 同征行至周留城下. 此時倭國船兵來助百濟, 倭船千艘停在白沙, 百濟精騎岸上守船. 新羅驍騎爲漢前鋒, 先破岸陣, 周留失膽遂卽下. (하략)

白村江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당해 시기의 고구려의 동향, 倭國·백제와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표 1>-G·J·R·W). ≪日本書紀≫ 齊明 7년(661) 是歲條(<표 1>-G)에는 '日本救高麗軍將等'이라는 표현이 있고, 倭國과 고구려가 동맹 관계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5], 직접적으로 연락을 나누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백제부흥운동의 원군으로 파견된 倭國의 軍將이 고구려와 연락을 취하기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표 1>-R), 이것은 倭本國의 지시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백제부흥운동을 주도하는 백제왕 豊璋과 鬼室福信의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표 1>-G·J는 고려 沙門道顯이 <日本世記>에 의거하여 쓴 기사로 고구려

5)【鄭孝雲 1990】은 655년에 백제·고구려가 신라의 30여 성을 탈취했고 이로 인해 倭國은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어 (≪日本書紀≫ 齊明 2年(656)9 月條)고구려와 동맹을 맺었다고 본다. 또 660년 11월·661년 5월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7年 11月條, 8年 5月條)하는데 이는 동맹국이었던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보복행위였다고 한다. 그 외 【鈴木英夫 1980, 韓昇 2005】도 齊明 2年條에 대하여 같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白村江戰에서 倭國과 고구려가 전략 면에서 제휴하고 있었다는 확증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 道顯의 기대가 담긴 표현이었다고 간주된다. 백제부흥운동이 융성해져 唐·신라군이 백제 방면으로 분산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구려 전선이 허술해져서 고구려에게 있어서는 '救援'이 된다고 하는 의미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倭國과 고구려가 긴밀한 연락을 나눈 결과로서의 작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森公章 2005a】.

4. 신라의 對唐전쟁 수행과 왜와 신라의 관계

663년 8월의 白村江戰 이후 唐과 신라는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唐에게 적대하던 나라 중에 남은 것은 倭國뿐이었다. 倭國에게는 唐·신라군 침공의 위협이 있었고 방어체제 정비가 급선무였다. 664년 5월에 옛 백제 영토에 주류하던 唐의 鎭將劉仁願이 사자를 파견하여 倭國의 정세를 관찰시켰는데 倭國의 경계가 강화되고 山城 축조를 중심으로 對馬에서 大宰府·瀨戶內海를 거쳐 畿內에 이르는 一大 防衛網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성곽건설을 담당한 것은 모두 망명한 백제인들이었으며 그들은 군사 기술 전문가였다. 방위계획 뿐만 아니라 망명 백제인 혹은 고구려 멸망 후의 망명 고구려인들이 倭國에 미친 영향은 다방면에 이르고 있다.

668년 9월 唐과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같은 9월에 白村江戰 후 처음으로 新羅使가 온다(<표 2>). 倭國은 정중히 응접하고 귀국하는 新羅使를 배웅하는 遣新羅使를 파견했다. 670년 倭國은 고구려평정을 경하하는 遣唐使를 파견하고 있어서(≪唐會要≫ 권99 倭國條, ≪新唐書≫ 日本傳), 신라에게서 국제정세를 전달받고 동아시아에서 唐에게 적대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였던 倭國은 신중하게 외교 활동을 전개시켜 나갔던 것이다. 사실 이 670년경에는 唐의 倭國 정벌 풍문이 있었던 것 같다(≪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1年(671) 7月 26日條 大王報書, ≪日本書紀≫ 持統 4年(690) 10月 乙丑條).

1-15 ≪日本書紀≫ 天智 10年(671) 11月 癸卯條
對馬國司遣使於筑紫大宰府言, 月生二日, 沙門道文·筑紫君薩野馬·韓嶋勝娑婆·布師首磐四人從唐來曰, 唐國使人郭務悰等六百人, 送使沙宅孫登等一千四百人, 合二千人, 乘船卌七隻俱泊於比智嶋. 相謂之曰, 今吾輩人船數衆, 忽然到彼恐彼防人驚駭射戰. 乃遣道文等豫稍披陳來朝之意.

그러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크게 변동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의 영유를 둘러싸고 신라가 唐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 唐이 倭國을 침공하는 위험은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신라는 옛 백제 영토와의 국경 획정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大王報書), 669년 말에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신라는 이를 지원한다. 그리고 唐軍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신라에 의한 한반도 통일사업에 나선다. 670년 7월에 옛 백제 영토를 침공하고, 8월에는 괴뢰 정권인 報德國이 건국되자 唐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고, 676년경에는 신라가 반도 전체를 영유하게 된다(통일신라의 성립, <표 3>). 倭國에는 반도에 주류하는 唐軍(사료 15 등)과 신라에 복속할 것을 요구받고 있던 耽羅 등으로부터도 사신이 왔었지만【森公章 1998b】, 倭國은 한반도 정세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對唐전쟁을 수행 중이었던 신라는 '請政'이라는 형태로 국제 정세와 국왕의 서거 등의 국내 사정을 倭國에 전달하고 매년 사신을 보내어 '조공' 자세를 표하여 倭國이 唐과 손을 잡지 않도록 노력했다. 倭國에는 또 報德國(≪日本書紀≫에서는 이것도 또 '고려'(고구려)라고 표기되어 있다)으로 부터의 사자도 오지만 여기에는 신라인이 '送使'로 수행하고 있어서 결코 자유로운 외교적 의도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신라는 자국으로부터의 사자뿐 아니라 報德國使의 送使라고 하는 형태로도 倭國과의 通交 유지를 꾀했던 것이다【田村圓澄 1979】. 倭國은 신라가 우세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체로 신라와 通交를 유지한다는 방책을 선택했던 것 같고, 이후에는 반도의 일은 신라에게 맡기고 그 신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과 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외교과제가 된다. 倭國은 670년에 遣唐使를 보내고, 701년에 그 다음 遣唐使를 임명하는데, 그 사이인 30년간 倭國은 동아시아 정세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율령국가 건설에 매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신라와 一國中心主義的 외교를 맺어서 외교면에서의 분란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唐風化의 본보기이며 동아시아 정세의 전달자로서도 倭國이 신라에 기대하는 바는 커서 이 시기에는 신라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도 중요해진다【關晃 1955, 鈴木靖民 1974, 1982b, 2007】.

1-16 ≪日本書紀≫ 持統 3年(689) 5月 甲戌條

命土師宿禰根麻呂, 詔新羅弔使級飡金道那等曰, 太政官卿等奉勅奉宣, 二年遣田中朝臣法麿等, 相告大行天皇喪. 時新羅言, 新羅奉勅人者元來用蘇判位, 今將復爾. 由是法麻呂等不得奉宣赴告之詔. 若言前事者, 在昔難波宮治天下天皇崩時, 遣巨勢稻持等告喪之日, 翳飡金春秋奉勅. 而言用蘇判奉勅, 卽違前事也. 又於近江宮治天下天皇崩時, 遣一吉飡金薩儒等奉弔. 而今以級飡奉弔, 亦遣前事. 又新羅元來奏云, 我國自日本遠皇祖代並舳不干楫奉仕之國. 而今一艘亦乖故典也. 又奏云, 自日本遠皇祖代, 以淸白心仕奉, 而不惟竭忠宣揚本職, 而傷淸白詐求幸媚, 是故調賦與別獻並封以還之. 然自我國家遠皇祖代, 廣慈汝等之德不可絶之. 故彌勤彌謹, 戰々兢々.

修其職任, 奉遵法度者, 天朝復益廣慈耳. 汝道那等奉斯所勅, 奉宣汝王.

다만 신라가 최대의 현안이었던 唐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표 3>), 倭에 대한 외교 자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689년 5월 持統天皇은 일본에 온 新羅使에게 送付物을 돌려주고 신라는 '我國自日本遠皇祖代並舳不干楫奉仕之國'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제대로 예를 다하도록 명하고 있다(사료 16). 문제의 발단은 天武天皇 서거를 전하는 遣新羅使를 대하러 나온 신라 측 응접자의 位階가 저하된 데서 시작되었고, 이번 사자도 종래보다 상당히 위계가 낮아진 것이다. 신라는 683년에 報德國을 병합하고, 686·7년에는 고구려·백제의 殘民을 誓幢軍団에 편입시켜 통일신라의 통치체제가 완성되고 있다. 그리고 686년에는 唐에 사신을 보내어 '吉凶要禮'를 하사받고 있고 이때쯤부터 대당관계 수복도 크게 진전되었다【古畑徹 1983】. 결국 대당관계 수복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한 신라는 倭國에 대한 '조공' 자세를 바꾸어 대등한 예로 대하는 亢禮로의 변경을 꾀하면서 이번의 분란이 일어난 것이며, 倭國은 끝까지 '조공' 자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외방책·의식의 차이는 8세기 日羅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 가는데 그 양상과 이후의 일한관계의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 章 이후의 고찰에 맡기고자 한다.

〈표 1〉 百濟救援 略年表　　※출전은 ≪日本書紀≫

660년
9월　…백제는 達率·沙弥覺從 등을 파견하여 백제 멸망과 부흥운동이 흥기했음을 알림 〔齊明6年 9月 癸卯條 (A)〕
10월　…佐平 鬼室福信은 佐平 貴智 등을 파견하여 唐의 포로 100여명을 헌상하고 구원군 파병과 왕자 豊璋의 귀환을 청하다 〔齊明6年 10月條 (B)〕
〔이 시기 齊明大王은 백제 구원을 결정하고 筑紫로 옮김〕
661년
4월　…福信은 왕자 糺解(豊璋)의 귀환을 바라는 上表文을 전달한다 〔齊明7年 4月條 (C)〕
〔7월 齊明大王이 서거〕
8월　…前將軍大華下阿曇比邏夫連·小華下河邊百枝臣, 後將軍大華下阿倍引田比邏夫臣·大山上物部連熊·大山上守君大石 등 '救於百濟遣, 仍送兵杖五穀'하고 별도로 大山下狹井連檳榔·小山下秦造田來津을 보내어 '守護百濟' 〔天智称制前紀 8月條 (D)〕
9월　…中大兄皇子는 왕자 豊璋에게 織冠를 내리고 多臣蔣敷의 여동생을 처로 맞이하게 하고 大山下狹井連檳榔·小山下秦造田來津에게 5000여 군을 이끌게 하여 '衛送於本鄕' 〔天智称制前紀 9月條 (E)〕
11월　…≪日本世記≫에는 福信이 포획한 唐人 續守言이 筑紫에 보내졌다고 함

〔齊明7年 11月 戊戌條 (F)〕

是歲 …'日本救高麗軍將等'이 백제의 加巴利濱(皆火＝全羅北道 扶安)에 머묾

〔天智称制前紀齊明7年是歲 (G)〕

662년

정월 27일 …福信에게 矢·絲·綿·布·韋·稻種을 내리다 〔天智元年 正月 丁巳條 (H)〕

3월 4일 …백제왕에게 布를 내리시다 〔天智元年 3月 癸巳條 (I)〕

3월 是月 …唐·신라의 정벌을 받은 고구려가 倭國에게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軍將을 疏留城(周留城)에 파견

〔天智元年 3月 是月條 (J)〕

5월 …대장군 大錦中阿曇比邏夫連 등은 수군 170척을 이끌고 豊璋을 백제로 보냄

〔天智元年 5月條 (K)〕

6월 28일 …백제는 達率萬智 등을 파견하여 헌물(獻物) 〔天智元年 6月 丙戌條 (L)〕

12월 1일 …백제왕 豊璋·福信등이 狹井連·朴市田來津에게 州柔(周留城)에서 避城(全羅北道 金堤)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田來津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

〔天智元年 12月 丙戌朔條 (M)〕

是歲 …백제구원을 위해 兵甲·선박·군량을 갖춤 〔天智元年 是歲條 (N)〕

663년

2월 2일 …신라, 백제의 南畔4州를 태우고, 安德(德安?) 등의 요지를 함락시킴. 백제는 州柔(周留城)로 돌아감

〔天智2年 2月 丙戌條 (O)〕

是月 …福信이 唐人 포로 續守言 등을 보냄 〔天智2年 2月 是月條 (P)〕

3월 …前將軍上毛野君稚子·間人連大盖, 中將軍巨勢神前臣譯語·三輪君根麻呂, 後將軍阿倍引田臣比邏夫·大宅臣鎌柄에게 27000명을 이끌게 하여 '打新羅'

〔天智2年 3月條 (Q)〕

5월 1일 …犬上君은 고구려에 兵事를 고하고 돌아가는 도중 糺解과 石城(忠淸南道 扶余 의 동남쪽 石城里에서 만나는데 糺解는 福信의 죄를 호소한다

〔天智2年 5月 癸丑朔 (R)〕

6월 …前將軍上毛野君稚子 등은 신라의 '沙鼻岐, 奴江' 2성을 함락시킴. 백제왕 豊璋은 福信을 주살함

〔天智2年 6月條 (S)〕

8월 13일 …신라는 州柔(周留城)공격을 계획함. 백제왕 豊璋은 '大日本國之救將廬原君臣率健兒萬餘, 正當越海而至'라고 듣고 白村에 待饗하러 나감

〔天智2年 8月 甲午條 (T)〕

8월 17일 …신라가 州柔(周留城)을 둘러쌈. 唐軍은 전함 170척을 이끌고 白村江에 진열함

〔天智2年 8月 戊戌條 (U)〕

8월 27일 …倭는 唐의 수군과 싸워 고전하고 퇴각함 〔天智2年 8月 戊申條 (V)〕

8월 28일 …倭는 白村江에서 唐軍에게 대패함. 豊璋은 고구려로 도주함

〔天智2年 8月 己酉條 (W)〕

9월 7일 …州柔(周留城)은 唐에게 항복함. 백제인들은 倭로 망명할 것을 결정

〔天智2年 9月 丁巳條 (X)〕

9월 11일 …牟弖(弥弖＝全羅南道 羅州軍平面)으로 출발

〔天智2年 9月 辛酉條 (Y)〕

9월 13일 …弖禮(全羅南道 寶城郡 鳥城面)에 도착함 〔天智2年 9月 癸亥條 (Z1)〕

9월 24일 …倭의 수군과 망명 백제인들은 弓禮城에 도착하여 25일에 출항
〔天智2年 9月 甲戌條 (乙2)〕

〈표 2〉 白村江戰 이후의 신라·고구려(報德國)와의 通交 略年表

668년(天智7, 文武王8) : 9월 신라의 級飡 金東嚴이 '進調'. 11월 신라왕과 金庾信에게 배를 하사하고 왕에게 賜物함, 遣新羅使인 小山下道守臣麻呂·吉士小鮪를 파견

669년 : 9월 신라 沙飡 督儒가 '進調'.

670년 : 9월 阿曇連頬垂를 신라에 파견.

671년 : 6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進調'. 별도로 물소 한 마리, 꿩 한 마리를 보냄, 8월에 고려 上部大相 可婁가 '進調'. 10월 신라 沙飡 金萬物이 '進調'. 11월 신라왕에게 賜物함.

672년(天武1년, 文武王12년) : 5월 고려 前部 富加抒이 '進調'.11월 新羅客 金押實 등 에게 筑紫에서 향연을 열어주고 녹을 하사함.12월 新羅 客에게 배 한척을 하사함.

673년 : 윤6월 신라 '賀騰極'使인 韓阿飡 金承元·阿飡 金祗山·大舍 霜雪 등, '弔先皇喪'使 (일설에는 '調使')인 一吉飡 金薩儒·韓奈末 金池山 등이 옴. 送使인 貴干寶眞毛는 보내고, 承元·薩儒는 筑紫에 머물면서 筑紫에서 향연과 녹을 하사하고 귀국시킨다. 8월 賀騰極使 등 27인은 상경함. 고려 上部位頭大兄 邯子·前部大兄 碩千이 '조공'. 신라는 韓奈末 金利益을 보내 高麗使人을 데리고 筑紫에 도착.

675년 : 2월 신라 왕자 忠元과 大監級飡 金比蘇·大監奈末 金天冲·弟監大麻 朴武麻·弟監大舍 金洛水가 '進調'. 送使인 奈末 金風那와 奈末 金孝福이 筑紫에 도착. 3월 고려의 大兄 富于와 大兄 多武가 '조공', 신라 級飡 朴勤脩와 大奈末 金美賀가 '進調'. 7월 小錦上 大伴連國麻呂를 大使, 小錦下 三宅吉士入石를 副使로 하여 신라에 파견.

676년 : 2월 大伴連國麻呂 등이 귀국. 10월 大乙上物部連麻呂를 大使, 大乙中山背直百足을 小使로 하여 신라에 파견. 11월 신라의 沙飡 金淸平이 '請政', 汲飡 金好儒· 弟監大舍 金欽吉이 '進調'. 送使인 奈末 被珍那·副使인 奈末 好福이 筑紫에 도착. 고려가 大使인 後部主博 阿于·副使인 前部大兄 德富를 보내 '조공'. 신라의 送高麗使人 大奈末 金楊原이 筑紫에 옴. '肅愼'7인이 淸平과 함께 옴.

677년 : 2월 物部連麻呂 등이 귀국함. 3월 新羅使人 淸平 등 13명이 入京. 5월 신라인 阿飡朴刺破 등이 표류하다 血鹿嶋에 도착.
8월 金淸平이 귀국. 朴刺破 등이 귀국.

678年 : 신라의 送使인 奈末 加良井山·奈末 金紅世가 筑紫에 도착. '當年之調'를 送付하는 사신으로 級飡 金消勿과 大奈末 金世 등을 보내지만 도중에 표류하다가 행방불명이 됨.

679年 : 정월 신라 送使인 加良井山·金紅世 등이 京으로 향함. 2월 고려의 上部大相 桓欠과 下部大相 師需婁이 '조공'. 신라의 送使인 奈末 甘勿那가 筑紫에 옴. 9월 遣新羅使人과 遣高麗使人이 拜朝(※파견기사 불분명). 10월 신라의 阿飡 金項那과 沙飡 薩藥生이 '조공'. '調物'은 금·은·鐵鼎, 錦·絹·布, 皮, 개·구·노새·낙타였다. 그리고 天皇·皇后·太子에게는 별도의 獻物로 금·은·刀·旗를 보냈다.

680년 : 5월 고려 南部大使 卯問과 西部大兄 俊德이 '조공'. 신라의 送使인 大奈末 考那이 筑紫에 옴. 11월 신라의 沙飡 金若弼과 大奈末 金原升이 '進調'. 習言者 3人도 옴.

681년(天武10년, 神文王1년) : 7월 小錦下 采女臣竹羅를 大使로, 當麻公楯를 小使로 하여 신라에, 小錦下 佐伯連廣足을 大使로, 小墾田臣麻呂를 小使로 하여 고려에 파견함.
9월 遣高麗·新羅使人 들이 拜朝. 10월 신라가 沙喙一吉飡 金忠平과 大奈末 金壹世를 보내 '貢調'(금·은·동·철, 錦·絹, 鹿皮·細布). 天皇·皇后·太子에게는 별도의 獻物로서 금·은, 錦, 霞幡,

皮를 보냈다. 신라 使者가 국왕의 薨去를 고한다.

682년 : 5월 遣高麗大使인 佐伯連廣足 등이 使旨를 御所에 보고함. 6월 고려왕이 下部助有卦婁毛切·大古昻加를 파견하여 '方物'을 貢上함. 신라가 보낸 사신 大那末 金釋起가 筑紫에 옴.

683년 : 11월 신라의 沙飡 金主山과 大那末 金長志가 '進調'.

684년 : 4월 小錦下 高向臣麻呂를 大使로, 小山下都努臣牛甘을 小使로 하여 신라에 파견. 5월 三輪引田君難波麻呂를 大使로, 桑原連人足을 小使로 하여 고려에 파견. 12월 大唐 유학생인 土師宿禰甥·白猪史寶然, '百濟役時沒大唐者' 猪使連子首·筑紫三宅連得許 등이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 신라의 送使인 大奈末 金儒가 筑紫에 옴.

685년 : 5월 高向朝臣麻呂 등이 귀국. 學問僧인 觀常과 雲觀도 귀국함. 신라왕이 말 2필·개 3마리·앵무 2마리·까치 2마리·각종 보물을 送付. 9월 遣高麗國 使人들이 귀국. 11월 신라 波珍飡 金智祥·大阿飡 金健勳이 '請政'하고 '進調'.

686년 : 4월에 筑紫가 신라의 '進調'를 진상함(細馬1필·노새 1마리·개 2마리, 鏤金器, 금·은, 霞錦·綾羅, 虎豹皮, 藥物 외에 100여 종). 金智祥 등의 별도의 獻物은 금·은, 霞錦·綾羅, 金器, 병풍, 鞍皮, 絹·布, 藥物 등 60여 종을 皇后·皇太子·親王에게도 貢物로 바치고, 5월 金智祥 등은 筑紫에서 귀국.

687년(持統1년, 神文王7년) : 정월에 直廣肆田中朝臣法麻呂·追大貳守君苅田 등을 신라에 파견하고, 天武天皇의 喪을 고한다. 9월 신라의 왕자 金霜林, 級飡 金薩擧, 級飡 金仁述, 大舍蘇 陽信이 '奏請國政'하고 '調賦'를 진상한다. 學問僧 智隆이 귀국. 筑紫大宰가 천황의 崩御를 霜林 등에게 고한다. 霜林은 發哭함.

688년 : 정월 천황의 崩御를 金霜林 등에게 奉宣. 金霜林 등은 發哭함. 2월 大宰가 신라의 '調賦'를 진상함(금·은, 絹·布, 皮, 銅鐵 등 10여 종, 별도의 獻物인 불상, 각종 彩絹, 새, 말 등 10여 종). 霜林이 별도로 바친 獻物은 금·은, 彩色, 각종 진귀한 물건 80여 종이다. 筑紫에서 귀국.

689년 : 정월 遣新羅使人 田中朝臣法麻呂이 귀국함. 4월 신라 級飡 金道那 등이 '奉弔'. 學問 僧인 明聰·觀智 등을 보냄. 별도로 金銅阿彌陀像·金銅觀世音菩薩像·大勢至菩薩像 각 1구씩, 綵帛·錦綾을 보냄. 5월 新羅使를 문책함. 6월 學問僧인 明聰·觀智 등이 신라 師友에 보내는 絁 각 140근을 筑紫大宰가 공급함. 7월에 弔使 金道那 등이 筑紫에서 귀국함.

690년 : 9월 大唐學問僧 智宗·義德·淨願, 軍丁筑紫國 上陽咩郡大伴部博麻가 신라의 送使인 大奈末 金高訓 등과 함께 筑紫로 귀환함. 12월 送使 金高訓 등 筑紫에서 귀국.

692년(持統6년, 孝昭王1년) : 11월 신라의 級飡 朴億德·金深薩이 '進調'. 朴憶德 등에게 難波館에서 향연을 열어줌. 12월 '新羅調'를 伊勢·住吉·紀伊·大倭·菟名足의 5社에 봉납함.

693년 : 2월 신라의 沙飡 金江南·韓奈麻 金陽元이 왕의 喪을 고함.

695년 : 3월 신라 왕자 金良琳, 薩飡 朴强國, 韓奈麻 金周漢·金忠仙이 '奏請國政'하고, '進調獻物'함. 9월 遣新羅使 直廣肆小野朝臣毛野·務大貳伊吉連博德 등이 출발함.

※출전은 ≪日本書紀≫. 일본의 천황, 신라의 王代는 교체가 있는 해만을 주를 닮.

〈표 3〉 白村江戰 이후의 한반도 정세 略年表

665년 8월 …熊津에서 신라·백제의 맹세.
668년 9월 …고구려 멸망
○ …신라가 백제를 침공
669년 5월 …신라가 唐에 謝罪使를 파견
말 …鉗牟岑이 唐에게 모반함.
670년 7월 …신라가 백제를 침공.
8월 …金馬渚에 報德國이 성립됨.
671년 7월 …신라가 所夫里州를 설치.
○ …신라가 湯井州를 설치.
○ …신라가 所夫里州 總管을 설치. 백제 유민을 白衿誓幢으로 편성.
672年 7월 …신라의 阿飡 大吐가 唐과 내통하여 반란을 꾀하지만 주살됨.
8월 …신라가 西海에 병사를 주둔시킴(鎭守).
673년 ○ …신라가 투항해 온 백제인에게 內外官을 하사함.
674년정월 …唐이 文武王의 官爵을 삭탈함.
675년 2월 …唐은 신라가 사죄함에 따라 官爵을 회복시킴.
○ …신라는 백제의 땅을 취함.
676년11월 …신라는 所夫里州 伎征浦에서 唐軍과 싸움.
677년 3월 …신라는 所夫里州에서 白鷹를 바침.
678년 4월 …신라는 武珍州의 都督을 임명함.
683년10월 …報德國 멸망.
684년11월 …報德國 유민의 반란을 평정.
686년 …신라는 唐에 사신을 보내어 '吉凶要禮'를 하사받음.

제2장 일본 율령국가의 성립

제1절 일본 율령제의 성립과정에 신라가 미친 영향

1. 신라의 '율령제'와 일본의 율령법전

동아시아 세계에서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에 걸쳐 일본은 唐의 율령 법전을 본떠 자체적인 율령 법전을 편찬하면서 율령을 國制의 기본으로 하는 국가를 만들어 간다. 그러한 국가체제를 일본에서는 율령체제라고 습관처럼 부르고 있고 7세기 말부터 대체로 9세기경까지를, 나아가서는 그 이후 중세국가가 성립되기까지를 율령국가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7세기 후반 이후의 일본고대국가의 國制를 정한 율령 법전은 그 존재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近江令(≪藤氏家傳≫, ≪弘仁格式≫ 序에 보임. 670년의 庚午年籍은 그 시행을 나타내는가) 이후에, 飛鳥淨御原令을 諸司에 班賜(持統9년, 689년, 다음 해 庚寅年籍의 작성은 이 중에서 戶令에 입각함)하는 것을 거쳐, 大寶 원년(701)에 시행되는 大寶令, 다음해 시행되는 大寶律에서 어느 정도 완성되게 되었고, 그것이 養老 연간(및 그 이후, 養老2年은 718년)에 수정된 것이 天平寶字 원년(757)에 시행되는(養老律令)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편찬된 일본 율령에 신라의 율령 내지는 법제도의 영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 논란은 신라를 포함하는 삼국의 사료에서 보이는 '律令' '格' '式'이라고 하는 字句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일찍이【田鳳德 1971】은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3년(373)의 기사 '頒示律令'을 사실로 보고, 晋의 泰始律令(268년)이 그 母法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林紀昭 1968, 武田幸男 1971, 井上秀雄 1971, 1972-71～2, 鈴木靖民 1974-55】 등이 비판을 하고, 武田幸男은 中國風의 법 체계라고는 간주하기 어렵다고 하고, 鈴木靖民도 중국 법으로서의 율령이 아니라 고유법을 정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고구려에서는 그 이후 '율령' 등의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三國史記≫(이하, <新羅本紀>) 法興王 7년(520) 正月條에 보이는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朱紫之秩"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武田幸男 1974】가 여기에서 제

정된 율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라의 독자적인 百官의 公服制度이며, '율령'도 '規定'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意義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이래 일본에서는 이것이 통설로 되어있다. 단, 그 후에 발견된 法興王 11년(524)의 蔚珍鳳坪碑에 '奴人法' '杖六十'이라는 표현을 함께 고려하여, 여기서 말하는 '율령'을 신라 왕권 법제의 중국적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시각【鈴木靖民 2008b-243】이 제기되고 있어서, 적어도 法興王 7년의 기사는 신라 고유법의 정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李成市 1989-165】는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어서 武烈王 元年(654) 5月條의 "命理方府令良首等, 詳酌律令, 修定理方府格六十余條"에 대해서는 【武田幸男 1967】이 여기서 말하는 율령은 年代的으로 볼 때 永徽律令格式(651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는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井上秀雄 1971】은 眞德王 원년(647)의 毗曇의 亂을 계기로 율령제화가 진행되어 同 5년 이후에 율령 관제가 성립되고, 文武王 12년(672)부터 神文王 10년(690)까지 율령적 군제가 성립되었고, 同 5년부터는 지방 행정 조직도 개혁되었다고 신라의 율령체제의 성립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료 그 자체에 관해서 【北村秀人 1982a-183～4】은 고려의 御史台格과 같은 禁令集이며 상세하게 검토한 대상은 唐의 永徽律令格式이라는 견해를 표하고 있다. 원래 고려의 御史台格은 御史台의 格이므로 禁令集이라고 하는 요소가 크다고 볼 수도 있어서, 과연 理方府의 格도 禁令集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 北村秀人의 견해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나아가 文武王 21年(681) 7月 1日條의 "律令格式有不便者, 卽改張, 布告遠近, 令知此意. 主者施行"에 대하여 【鈴木靖民 1974-14～15】는 이 이전에 신라의 독자적인 율령 격식이 형식상으로는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후술하는 村落文書에서 볼 때 村落構造에는 자연촌락적인 특유의 制가 전개되는 등 신라 율령의 독자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石上英一1979】와 같이 唐의 율령과 왕의 敎令으로 이루어진 격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 【北村秀人 1982a-184～5】과 같이 제도와 규칙 일반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용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哀莊王 6년(805) 8월의 '公式二十余條'의 頒示 기사가 신라의 율령제를 보여주는 최후의 기사이다. 【武田幸男 1971-68】은 '公式'을 公式令이라고 보지만 이에 대해서도 【北村秀人 1982a-185】은 고려의 '公式'(≪高麗史≫ 卷84 刑法志)을 참조하여 官吏에 관한 각종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사의 흐름을 대강 정리해 보면 초기에는 신라에도 唐·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율령 법전이 편찬되었다고 했었지만, 점차 그 견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北村秀人 1982a-185～6】이 말하듯이 신라에서는 체계적인 율령 법전이 편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본에서는 유력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鈴木靖民 2008b-245】[6]. 唐의 율령을 참작하면서 시의 적절하게 개별적으로 각 編目이 정리되었다고 하는 이해도 나오고 있다【濱田耕策 1980-104】.

율령법에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보편성이 있고 동아시아의 '세계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石母田正 1973】, 한편 唐律令에는 帝國法, 즉 天子로서 천하를 통치하는 자만이 편찬하고 시행할 수 있는 條文도 포함되어 있고(연호와 詔·勅, 황제·천자, 外蕃 등의 용어와 그것들이 구성하는 사고체계), 禮制에 있어서의 唐의 규칙【濱田耕策 1984-66～71】을 참조하면, 신라가 唐과 같은, 적어도 일본 정도로 唐과 닮은 율령 법전을 자체적으로 편찬 시행했을 가능성은 적고【大町健 1992, 坂上康俊 1997】, 【堀敏一 1994-104～105】와 같이 신라에서는 형식적으로는 唐의 율령을 받들었지만 실제로는 格式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册封体制論'을 제창한 【西嶋定生 1962-399】는 '동아시아세계'의 공통요소로서 처음에는 한자 문화·유교·불교와 함께 율령제를 들었었지만, 【西嶋定生 1981-32】에서는 이 가운데 율령을 빼려고 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법전으로서의 율령을 隋唐과 동시대에 편찬한 것은 주변 제국 중에서는 일본뿐이라는 견해는 【堀敏一 1993-252】등 일본의 동양사학계에서는 통설로 되어있다.

2. 일본 율령국가 성립 과정에 신라가 미친 영향

한반도 제국, 특히 신라의 율령에 대한 이러한 평가의 변화, 즉 율령국가군의 하나로서 일본보다 선행하여 율령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견해에서, 법전으로서 체계가 선 율령은 한반도 제국에서는 편찬·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로의 변화는 일본 율령 성립과정에서의 신라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과 신라의 제도 중에서 공통된 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신라로부터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7].

---

6) 한국에서는【梁正錫 1999】과 같이 적극적으로 신라율령의 복원을 시도하는 연구도 보인다. 그리고 <新羅村落文書>와 관련하여 兼若逸之의 일련의 연구는 이것을 균전제 시행을 나타낸 것이라고 규정지었지만, 濱中昇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후술을 참조)

① 學令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卷38 職官志上國學條에 보이는 신라의 교과서 과목과 일본의 大寶·養老令11經周易尙書條의 교과서 과목이 唐의 開元七年令(719) 學令復元3條에 비하여 둘 다 ≪春秋≫의 公羊·穀梁 兩傳이 빠진 사실, 또 大寶令에서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文選≫이 들어가 있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한다【利光三津夫 1966, 高島正人 1971, 高明士 1977】. 단, 開元七年令·大寶令·養老令에는 규정이 있는데 ≪三國史記≫ 職官志에만 ≪周禮≫≪儀禮≫가 없고 또 ≪爾雅≫는 大寶令에만 보이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목하여 배경을 밝히려는 연구도 있다【久木幸男 1968, 濱田耕策 1980-104～110】.

② 喪葬令에 관해서는 ≪日本書紀≫ 持統 5年(691) 10月 8日詔의 규정("詔曰. 凡先皇陵戶者置五戶以上. 自余王等有功者置三戶. 若陵戶不足, 以百姓充, 免其徭役, 三年一替". 이는 養老喪葬令1先皇陵條 "凡先皇陵,置陵戶令守. 非陵戶令守者, 十年一替. 兆域內, 不得葬埋及耕牧樵採"의 式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武烈王代에 규정을 정비한 ≪三國史記≫ 文武王 4年(664) 2月條의 기술("命有司徙民於諸王陵園各二十戶")과 비슷한 점 등, 淨御原令制 하의 규정과 신라의 제도가 비슷하다고 한다【林紀昭 1970-124～9】.

③ 四等官制도 唐에는 없어서 일본의 四等官制는 신라의 眞德王 5년(651)～神文王 5년(686)의 令·卿·大舍·史制를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井上秀雄 1972-220～221】. 단, 최근의 연구에서는 일본에 四等官制 성립 이전에 三等官制가 존재했었다는 점【東野治之 1971】, 그리고 결재 과정 등에서 唐과 일본의 官司의 내부 구조는 상당히 이질적이었다는 점이 판명되고 있어서【吉川眞司 1988, 佐藤全敏 2007】, 신라의 四等官制의 실정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는 단계이다.

④ 大寶 원년의 外位制가, 신라의 재지 수장층인 村主에게 文武王 15년(675)까지 부여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三池賢一 1973】. 그리고 일본의 位階制는 한반도 삼국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순위를 매기는 것이고, 隋唐의 品階와 같은 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숫자 표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隋唐의 散官이 아닌 品階와 비슷하다는 점은 일찍이 밝혀진 바 있다【宮崎市定 1959ab, 井上光貞 1963】.

⑤ 天智朝 말년의 內外位階制('內小七位'라고 하는 예가 알려져 있음)는 백제의 內官·外官制에 따른 것인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鈴木靖民 1982b-72～77】.

---

7)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견해에 대해서는【鈴木靖民 1974-17～18】을 참조하고 있음.

⑥ 일본 編戶制의 源流가 백제에서 시행된 唐의 熊津都督府의 編戶라고 추정하는 설이 있다【明石一紀 1975b】. 단, 編戶에 대해서는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도래인에 대한 편성 형태가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견해【岸俊男 1969】가 유력하며, 또 과연 熊津都督府에서 인위적인 編戶가 이루어졌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立花大輔 2009】.

⑦ 7세기의 兵政官은 신라의 兵部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8세기의 兵部省은 唐風化한다고 하는 설이 있다【請田正幸 1978】.

⑧ 일본戶令의 年令구분은 특히 次丁(老男과 殘疾로 이루어짐)을 설치한 점이 唐과 다르고, 이는 옛 중국의 제도가 한반도를 경유하여 전해진 것이라는 설이 있다【虎尾俊哉 1974a】.

⑨ 天武朝 이후의 神祇信仰과 불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은 신라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설이 있다【鈴木靖民 2008a】.

⑩ 나아가 【李成市 2004】는 신라 골품제(진골=왕족신분, 6~4두품=귀족신분, 1~3두품=평인(서민)신분)의 성립을 神文王代로 고쳐 추정하고, 天武13년(684) 10월에 제정된 八色姓(眞人·朝臣·宿祢·忌寸)이 골품제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당시의 신라에서는 條坊制 시행 등의 王京 정비, 九州·五京制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제도와 군사제도의 정비, 五等官制 채용, 祿邑폐지와 月俸支給 등 官人給与制의 정비, 寺院의 건립과 寺院 관계 官司의 정비, 宗廟와 大中小祀制라는 중국적인 祭祀 정비 등 다방면에서의 집권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율령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유일한 參照系로서의 신라에서 唐율령의 참조 상황을 배웠다는 사실을 중시해야만 한다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견해와 대응하여 白村江 이후의 遣新羅使가 신라로부터 율령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설이 있다【關晃1955】. 또 唐 永徽令을 일본에 가져온 것도 天智 7년(668)에 일본에 온 新羅使로 상정하고(이것이 ≪藤氏家傳≫에 보이는 鎌足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함), 天武 13년(684)에 白猪骨(寶然)이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한 것을 淨御原令의 편찬에 착수하게 되는 계기로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森公章 2008a】.

그러나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유사성에 비하여, 天聖令【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의 발견으로 인해 唐과 일본 令文이 서로 비슷하다 점이 확인됨에 따라, 적어도 大寶令 이후에 대해서는 신라의 영향을 크게 상정하지

않는 것이 대세일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신라 내지는 한반도 삼국 제도들 간에 보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유사점은 이른바 신라 율령에서 유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구려·백제를 포함하는 한반도 제국과 일본과의 사회·풍습의 어떤 면에서의 공통성에서 유래한 것인지, 또 특히 7세기 전반까지에 대해서는 백제로부터의 문화·제도의 도입에 유래한다고 보는 편이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도 검증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연구 동향에 입각하여 일본의 율령 법전에 대한 신라의 영향이라고 하는 문제에 한하여 말하자면, 일찍이 【野村忠夫 1970-494～495, 鈴木靖民 1974-17～18】이 주장했던 것처럼 淨御原令과 大寶令 사이의 큰 단절을 인정하고, 淨御原令 단계까지는 신라 법제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는 설이, 일본의 太政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신라에서 上大等을 정점에 두고 執事部를 중추로 하여 아래에 府·部·典·署를 두는 방식을 참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鈴木靖民 1994, 2008b】[8] 과 혹은 7세기까지의 일본의 國制는 중국 南北朝期 國制의 강한 영향 하에 있어서 淨御原令 단계에서의 唐令의 계승은 신라와 마찬가지로 개개의 조문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唐令을 한 조목씩 차례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日本令을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계승은 大寶令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大隅清陽 2008-227～231】과 같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설의 대부분은 관료제와 관계된 방면의 사료에 의해 구성된 것이어서, 五十戶一里制와 班田收授制 등 인민 지배의 면에서 봤을 때의 大寶令의 淨御原令으로부터의, 더 거슬러 올라가면 孝德朝로부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吉川眞司 2004】와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신라를 포함하는 한반도 삼국의 國制와 율령국가인 일본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출토 문자 자료 비교 연구, 그리고 皇南洞 123유적의 朝堂樣遺構와 일본의 朝堂·官衙의 평면계획과의 유사성(중국의 宮殿·朝堂·官衙의 평면계획과의 이질성)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平川南 1999, 李成市 2005, 2009, 鈴木靖民 2007, 三上喜孝 2006, 2007, 2009】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角材에 논어 텍스트를 書寫, 付札木簡의 하단 양측에 홈을 넣는 등의 형상과, 藏·倉의 의미에서의 '椋', 열쇠의 의미에서의 '鎰', 升의 의미에서의 '刀', 部의 약자인 '𠆢' 등의 字義·字体에 대해서 한반도 삼국의 자료와 일본의 고대 자료와의 유사성이 지적되어서 유입 시기와 원류에 대한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예·사상 면에서도 신라

8) 그리고【倉本一宏 1993, 朴昔順 2001-9～11】도 일본에서 율령제 성립 시에 신라 율령국가에서 배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공부한 유학승 등에 의해 의학·儒學·陰陽道등이 수용되는 것과【關晃 1955, 鈴木靖民 2007-60】, 신라를 통한 음양도·유학 텍스트의 유입도 지적되고 있다【水口幹記 2005】.

일본 율령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內官佐平과 兵官佐平, 또는 法部와 外椋部 등의 22부제를 포함한 백제의 관제가 일본의 天智朝 말년부터 天武朝의 6관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鬼頭淸明 1978】을 제외한다면 종래에 등한시되어 왔던 감이 있는 백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9]. 왜냐하면 백제의 古都扶余의 双北里유적에서 '戊寅年六月中 / 佐官貸食記'라는 제목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이 【李鎔賢 2008】이 해설하는 대로 5割의 이자를 붙여서 가을에 상환하도록 하는 出擧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 율령국가의 지방 재정을 뒷받침했던 公出擧는 백제에서 선행되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일본의 公出擧는 백제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단, 문제의 목간은 全文一筆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 과연 5월에 빌려준 것에 대한 상환 상황이 동일한 筆致로 기록되었는가의 여부도 의문이다. 출토지점도 官衙구역이었고 일본의 公出擧와 같이 경작자에게 빌려준 것인가의 여부도 의문이다. 이자를 부과하는 형태의 대여는 月借錢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相田二郎 1923, 鬼頭淸明 1968, 中村順昭 1992】, 문제의 목간이 일본의 公出擧에 상당하는 제도가 확실히 백제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검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일본 율령국가의 국제질서 구상

1. '隣國' '蕃國'論

大寶令의 시행은 비록 인민지배 상에서는 淨御令制下와의 연속성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續日本紀≫의 編者가 大寶 원년(701) 정월의 朝賀를 "文物의 儀가 여기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文物の儀, ここに備われり)"라고 했듯이 국가체제로서 큰 획을 긋는 시기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大寶令에서는 일본과 주변 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하

9)【鈴木靖民 2008b-248～249】는 推古朝에서 백제 國制를 이어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원류에 대한 연구 중에서 좀 더 이전의 예로는 【井上光貞 1965】가 있다.

고 있었던 것일까? 이 점을 검토하기에 앞서 大寶 원년에 임명되어 실제로는 2년에 바다를 건넜던 大寶 遣唐使의 목적 내지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종래에는 이 遣唐使가 大寶令을 唐朝에 알리고 일본이 주변 제국을 蕃國으로 거느리는 帝國이라는 점을 唐朝에 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설이 유력했었다【石母田正 1963, 鈴木靖民 1974】. 그러나 大寶令을 唐 왕조에게 보여주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율령의 제국법적 성격은 唐朝와의 대등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설이 현재는 유력하지 않나 생각한다【河內春人 1996, 坂上康俊 1997】. 大寶 원년에 30년 만의 遣唐使가 임명되었던(출항은 다음해)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舊 百濟·高句麗領을 둘러싸고 대립관계에 있던 唐과 신라가 드디어 680년대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古畑徹 1983】, 이와 반비례하여 신라가 일본을 경시한 정황이 있어서(후술을 참조), 이러한 정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이 唐과의 직접 교섭을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설이 있다【新藏正道 1995】.

大寶律令에 규정된 국제관계에 대해서 예전에는 天平 10년(738)에 성립된 古記의 설명을 그대로 이해하여, 唐＝隣國, 신라＝蕃國이라고 보고 일본 율령국가가 제국 구조를 가진다는 설이 유력했지만【石母田正 1963】, 大寶律令의 조문에서 異國은 모두 蕃國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고【平野邦雄 1980】, 그런 의미에서는 唐의 제국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국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賦役令 16外蕃還條의 "其唐國者, 免三年課役"이라고 하는 一節은 大寶令에는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진 결과【森公章 1988a】, 大寶令의 法意에 따르자면 唐도 蕃에 들어가지만, 養老令에서는 蕃이어도 다른 外蕃과 同列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식되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단, '蕃國'에는 '이웃나라(トナリノクニ)'라고 하는 訓을 달아 놓은 부분도 있어서, 강력한 상하관계가 의식되고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成澤光 1975, 朴昔順 2001-7～8, 大津透 2004-31】.

고대 일본의 제국 구조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거론되는 것 중에, 渡來系 氏族에 대해서 백제왕·肖奈王·고려왕 등 '王'이라고 하는 가바네(姓, 역주: 고대호족이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세습했던 칭호)【早川庄八 1981, 長瀨一平 1985, 筧敏生 1989, 田中史生 1994-40】를 붙힌 姓을 하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大刀契'가 있다.

이 중 '백제왕'은 백제 義慈王의 아들 余豊璋의 남동생인 善光(禪廣)이 持統朝에 하사받은 姓이다(≪續日本紀≫ 天平神護 2年(766) 6月 28日條(百濟王敬福薨傳)). 【利光三津

夫 1962】는 '백제왕' 이라는 姓이 처음으로 보이는 "以百濟王善光王等居于難波"(≪日本書紀≫ 天智天皇 3年(664) 3月條)를 難波에 대한 封地賜与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백제의 망명 정권을 성립시켰지만 ≪日本書紀≫ 持統 7年(693) 正月 15日條에 "以正廣參贈百濟王善光, 幷賜賻物"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持統朝에는 百濟王氏에게 官位를 부여하고 망명 정권은 해소되었다고 논했다.

이에 대하여 大刀契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거론한 【大石良材 1971】는 平安時代 이후의 사료에 '傳國璽'라고 보이는 '大刀契'(≪小右記≫ 長和 5年(1016) 丁月 22日條·寬弘 2年(1005) 11月 17日條, ≪禁秘抄≫卷上大刀契, ≪塵袋≫ 8, 그 밖에 【田島公 1988, 川尻秋生 1997】 등 참조)는 백제 국왕의 寶器인 大刀契가 백제 멸망 후에 일본으로 전해져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일본 왕권은 백제 왕권을 거두어들여 이를 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岡田精司 1983】도 이를 지지하여 倭國 대왕은 백제 국왕을 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10].

이러한 이른바 同君連合과 같은 견해에 대하여 【長瀨一平 1985】은 적어도 淨御原令의 시행 이후에는 百濟王氏에게 官位를 수여하고 있으므로 백제 왕권은 일본 왕권에 종속된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논하고, 【石上英一 1984, 1987】도 일본 왕권 내에 백제 왕권이 포함되게 되었고 일본의 '帝國' 질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견해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筧敏生 1989】이 백제왕＝內臣, 신라왕＝外臣＝諸蕃, 唐＝不臣인 客＝隣國이라고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지만, 【田中史生 1994-43～45】이 말하듯이 筧의 비판은 성립되지 않고 百濟王氏의 존재 의의는 일본 왕권에 의한 백제 왕권의 수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단, 【田中史生 1994-45～51】은 天智朝에서 天武朝에 걸친 백제로부터의 망명자에 대한 叙位를 근거로 百濟王姓 하사 이전에 백제 왕권은 일본의 내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고, ≪日本書紀≫ 天武天皇 3年(674) 正月 10日條에 "百濟王昌成(당시 생존 중이었던 善光의 아들) 薨. 贈此小紫位"라고 나오고 있으므로, 賜姓과 제국구조와는 별도의 차원이었고 이미 天武 3년 단계에서 백제

10) 단, 岡田는 당해 논문을 ≪古代祭祀의 史的硏究≫(塙書房, 1992년)에 실으면서, 長瀨·石上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百濟王을 겸하는 것이 아니라 天皇이 百濟王을 臣從시키는 상징으로서의 大刀契라고 생각하고 있다(71p). 또 사료에 나오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도 平城朝부터이기 때문에 【笠井純一 1994-77】과 같이 大刀契가 卽位儀禮에 받아들여진 것은 桓武朝가 아닐까 하는 의견, 또 【薗田香融 1964】와 같이 大刀契는 4～5세기경에 백제가 증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東野治之 1980-339】는 ≪塵袋≫에 기재되어 있는 銘文을 보면 4～5세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봐도 좋다고 한다.

왕이라고 하는 집단적 姓이 성립되어 있었고 일본왕권에 服屬奉仕하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왕'에 대한 것은 ≪續日本紀≫ 大寶 3年(703) 4月 4日條의 "從五位下高麗若光賜王姓"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으며, 【田中史生 1994-54～55】은 이와 ≪日本書紀≫ 天智天皇 元年(662) 4月條의 "鼠產於馬尾. 釋道顯占曰. 北國之人將附南國. 盖高麗破而屬日本乎"를 대응시켜서 高麗王氏가 등장한 것은 일본 왕권에 의한 고구려 왕권의 수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肖奈王'은 고구려 五部의 하나인 '消奴部'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으며【佐伯有淸 1991】, 이 씨족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續日本紀≫ 養老 5년(721) 正月 27日條의 "博士正七位上肖奈公行文"이다. 이것이 ≪續日本紀≫ 天平 19년(747) 6月 7日條에 "正五位下肖奈福信, 外正七位下肖奈大山, 從八位上肖奈廣山等八人, 賜肖奈王姓"이라고 나와 있듯이 '王' 姓을 하사받아 '肖奈王'이 되었다. 이 賜姓의 배경에 대해서 【菅澤庸子 1990】는 고구려의 계승국을 자처하고 있던 발해의 출현 및 그 계승국 인식과 관련된 일본·발해 양쪽의 생각의 차이【石井正敏 1975b】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발해를 下位에 두고자 하는 일본 측의 의도를 읽으려고 하고 있고, 【田中史生 1994-61】은 이에 더해 대신라관계의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2년 반 후인 天平勝寶 2년(750) 정월에 '肖奈王'氏는 '高麗朝臣'으로 改姓되어 遣唐使와 遣渤海使에 임용되지만 寶龜 10년 3월에 '高倉朝臣'으로 다시 改姓된 이후에는 遣外使節로 등용되는 일은 없다. 그들의 遣外使節 등용에 대해서 【菅澤庸子 1990, 田中史生 1997-62】는 일본이 옛 고려 왕족을 신하로 삼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다.

2. 唐에서 본 세계질서

일본은 신라에 대해서 調를 헌상하는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調란 고대 일본에서는 스키(ツキ)라고 읽고, 貢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속의 증거로서 하위에 있는 자가 상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였다고 한다【石上英一 1973, 1974】. 新羅使는 구두로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調'의 어감을 공유하고 있었는지 의문시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고【大町健 2004, 231～234】, 또 신라가 일본에 지참하고 온 물품과 唐에 지참했던 물품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교역품이 많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견해도 있다【新川登龜男 1988】. 그러나 신라도 비록 구두라고는 해도 '調'가 아닌 '土毛'라는 표현으로 진상물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續日本紀≫ 天平 15年 4月 25日條, 同 寶龜 5年 3月 4日條, 후술 참조), '調'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과 신라 간에서는 복속·조공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기 때문에, 신라 측의 의도 및 일본 측이 받은 심리적인 영향은 어찌 되었든 간에 國史上에 보이는 대화 등을 통해 판단하는 한은 제일의적으로는 내용이 아니라 호칭이 가장 중요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唐에 대해 일본이 조공국의 입장이었다는 사실은, 원래 唐은 天下觀에 입각하여 대등한 국가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대전제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는 일본 사신이 唐 측으로부터 朝貢使로 간주되고 있고 일본 측도 그렇게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사가 곳곳에 보이고 있고(開成 3年(838) 9月 20日條·4年 7月 16日條·5年 8月 23日條 등)【森公章 1988】, 또 ≪性靈集≫ 卷5 '爲藤大使与渤海王子書'에 "賀野(遣唐大使 藤原葛野麻呂), 恭就朝貢"이라고 나와 있듯이 스스로도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保科富士男 1989】. 大伴古麻呂의 귀국보고에 나오는 唐의 元日朝賀 때 일어난 신라와의 爭長事件(≪續日本紀≫ 天平勝寶 6年(754) 正月 30日條)【石井正敏 1981, 1983】과[11], ≪續日本後紀≫ 承和 6年(839) 9月 17·18日條에 보이는 '大唐勅書'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때, 표면적인 방침과는 별도로 唐에 대해 조공국이라는 자각은 널리 일본의 위정자 간에 공유되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과 신라에 대한 唐 측의 시각을 외교문서의 양식 면에서 말하자면, 隋代에 일본은 '致書' 양식의 문서를 보내어 煬帝의 심한 분노를 샀고 그 이후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善隣國寶記≫ 卷上 鳥羽院元永 元年(1118)條에 따르면, 隋 및 初唐에서 慰勞詔書 양식의 문서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石井正敏 1992-549～60, 金子修一 2001】. 그러나 開元 연간이 되면 일본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라(絶域)라는 시각이 정착되었고【森公章 1988】, 開元 20～24년에 張九齡이 起草한 국서의 양식과 용어 등을 분석해 보면, 唐은 일본보다는 신라를 훨씬 더 중요한 나라로 간주하고 있어

11)【卞麟錫 1967, 1987】은 이 사건이 중국 사료에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그 史實性을 의심하고 있지만, 【池田溫 1995】는 鑑眞과 동행하여 일본에 온 思託의 저서 ≪延曆僧錄≫에 "元日拜朝賀正, 勅命日本使可於新羅使之上"라고 하여 같은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그 史實性을 인정하고 있다.

서 唐과 신라는 강력한 군신관계로 맺어져 있었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山內晋次 1986-23～31】[12].

제3절 외교기구와 迎接儀禮

율령국가 일본에서는 외국의 사절을 영접하기위해 唐을 따라 賓禮를 정비했다【田島公 1985, 1986, 平野邦雄 1993, 森公章 1995, 浜田久美子 2003】. 중앙에서 외교 관계를 관장하는 것은 治部省 관하의 玄蕃寮였지만 신라, 唐과의 외교는 大宰府가 직접적으로, 또 발해와의 외교에 있어서는 越前·加賀·能登의 諸國司 등이 직접적인 창구가 되고 있다【Batten Bruce 1985】.

영접 의례 정비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시기는 隋使 裴世淸을 맞이했을 때라고 생각되지만[13], 奈良時代에는 筑前國의 博多津에 筑紫館을【平野邦雄 1990】, 그리고 難波宮에는 難波館을, 또 平城京에도 客館을 설치하고 있었다【平野卓治 1988ab, 森公章 1995】. 平安천도 후에는 平安京의 客館【川勝政太郎 1962】과 筑紫館만이 남게 되었고 둘 다 弘仁 연간 이후에는 鴻臚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筑前國의 鴻臚館(大宰府 鴻臚館)은 발굴 조사 결과, 福岡市의 舊平和台球場跡地에 존재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남북에 2동의 담을 두른 掘立柱(역주 : 아무렇게나 땅만 파고 세운 기둥)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9세기에는 모두 초석 건물로 바뀌고 있다【大庭康時·松川博一 2007】. 8세기 전반부터 중반에 걸친 목간이 출토된 화장실 遺構에서는 신라 도기가 출토되고 있다. 筑紫館＝大宰府 鴻臚館은 초기에는 주로 新羅使와 遣新羅使·遣唐使의 숙박과 영접 장소로 사용되었지만 9세기에는 신라에서 일본으로 사절이 오지 않게 되어, 오직 신라와 唐상인들의 安置장소가 되었고 대체로 10세기 말까지는 폐관된 것으로 보인다. 平安京의 鴻臚館은 도면상으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발굴 성과로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단, 11세기 전반까지는 건물이 있었던 것 같다【田島公 1995】.

新羅使가 일본에 도착하면 우선 大宰府가 存問하고 安置를 공급한다. 가지고 온 국서에 대해서는 寶龜 2·3년(771·2)의 渤海使가 일본에 온 것을 계기로 도착지인 大宰府 내지는 國司가 문서를 개봉하여 그 사본을 작성하여 太政官에 보내는 것으로 시스템이 개

12) 최근 唐朝의 국서를 집성한 것으로는 【石見淸裕 1999】가 있음.
13) 이때에 隋의 賓禮가 도입되었다고 하는 견해에는【瀧川政次郎 1963, 黒田裕一 1998】이 있음.

정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石井正敏 1970】. 그 경위를 보면 寶龜 4년에 渤海使 烏須弗이 도착했을 때,

> 遣使宣告渤海使烏須弗曰. 太政官處分. 前使壹万福等所進表詞驕慢. 故告知其狀罷去已畢. 而今能登國司言. 渤海國使烏須弗等所進表函, 違例无禮者. 由是不召朝廷, 返却本鄉. 但表函違例者, 非使等之過也. 涉海遠來, 事須憐矜. 仍賜祿幷路粮放還. 又渤海使取此道來朝者,承前禁斷. 自今以後. 宜依旧例從筑紫道來朝. (≪續日本紀≫ 寶龜 4年 6月 24日條)

라며 能登 國司가 국서 등을 검사하고 그 내용이 무례하다는 판단을 太政官이 추인하여 사절을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 寶龜 10년(779)에 新羅使가 大宰府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大宰府가 表를 지참하고 왔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表가 있다면 사본을 太政官에게 진상하도록 명을 받아,

> 勅大宰府. 新羅使金蘭孫等, 遠涉滄波, 賀正貢調. 其諸蕃入朝. 國有恒例. 雖有通狀. 更宜反復. 府宜承知研問來朝之由, 幷責表函. 如有表者, 准渤海蕃例, 寫案進上. 其本者却付使人. 凡所有消息, 驛傳奏上. (≪續日本紀≫ 寶龜 10年 10月 乙巳條)

그 후 재차 太政官이 使者를 파견하여 일본에 온 이유를 묻는(寶龜 10年 11月 己巳條)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도착지에서 외국의 사신이 갖고 온 국서를 개봉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太政官의 판단에 따라 入京을 허가하는 제도에 관해서는 '國書開封權'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혹은 그것이 大宰府와 諸國司에게 주어진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14]. 그리고 國史에 신라로부터의 國書奏上의 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渤海國使

14)【中西正和 1990】는 天平 15년 4월 25일(大宰府 폐지 중)의 檢校新羅客使의 행위(≪續日本紀≫)로 보아 大宰府의 국서 개봉권은 이미 8세기 전반에는 주어졌었지만, 諸國司에 대해서는 天長 5년 정월 2일(20개,【石井正敏 2001-40】)에 비로소 주어졌다고 했고, 【酒寄雅志 1988-주15】도 마찬가지로 해석했지만, 【石井正敏 1991】은 이들을 비판하면서 舊稿를 보정하여 大宰府와 諸國司에게는 寶龜 3～4년에 동시에 국서 개봉권이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天長 5년까지 조정에서 온 使者를 기다려 결정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平野邦雄 1993】은 ≪續日本紀≫ 天平寶字 8年(764) 7月 19日條에 따르자면, 大宰府는 이 시기에 이미 新羅國 執事牒을 개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寶龜 연간에 새롭게 국서 개봉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판을 가하고, 【石井正敏 1995】이 反批判을 가했지만, 【倉住靖彦 1992, 中野高行 1997】은 平野說에 동의한다고 하고, 또 【中西正和 1997】은 재차 ≪續日本紀≫ 天平 15年 3月 6日·4月 25日條에 의거하여 자신의 설을 다시 주장했지만, 【石井正敏 1998a】이 反批判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中西正和 1998, 森公章 1998a, 中西正和 1999, 森田悌 1999】를 이어받아 【石井正敏 1998b】(저서에 수록할 때에 附記가 있음)가 있고, 또 【河內春人 2000】이 있다.

에 의한 國書奏上은 보임. ≪續日本紀≫ 神龜 5年 正月 甲寅條 등) 貢調儀禮의 존재 등을 근거로 신라에 대해서는 唐禮的인 賓禮가 아닌 令制 이전부터의 服屬儀禮의 계보를 잇고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浜田久美子 2003-146～7】.

入京한 新羅使는 설날에는 朝賀儀에 참례한 것이 사료에서 보이고(점차로 참례하지 않게 됨. 후술 참조), 또 연회를 베풀어 주고 천황에게서 다음 節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慰勞詔書 양식의 국서를 받아서 귀국했던 것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의 遣新羅使가 신라의 영역 내에서 어떠한 코스를 거쳐 어떻게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사료에는 없기 때문에 ≪三國史記≫에 나오는 개략에 대한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濱田耕策 1990】. 신라에서 일본사절을 전적으로 관리한 것은 신라 왕실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던 官府인 內省에 편입되어 있던 倭典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조공국에 대한 回賜品은 원칙적으로 帝室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라에서는 일본사절을 조공사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李成市 1982】[15], 三國史記의 表記에는 "耽羅國遣使朝貢"이라고 나와 있듯이 조공이라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견해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濱田耕策 1990-166】.

제4절 신라·발해 간의 외교문서

신라 및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를 양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啓 내지는 表, 그리고 관청 간의 상호문서인 牒으로 나눌 수 있다【石井正敏 1992】. 啓와 表는 모두 국왕이 천황에게 올리는 下意上達 문서라고 평가할 수 있고, 啓보다는 表 쪽이 더욱 敬意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에는 7세기부터 8세기 극히 초기까지는 ≪日本書紀≫ 推古天皇 29年(621, 眞平王 43年) 是歲條에

> 新羅遣奈末伊彌買朝貢, 仍以表書奏使旨. 凡新羅上表, 蓋始起于此時歟.

라고 나오고, ≪續日本紀≫ 大寶 3年(703) 閏4月朔條에,

15) 단, 【李成市 1998】에서는 이 견해가 삭제되어 있다.

饗新羅客于難波館, 詔曰. 新羅國使薩飡金福護表云, 寡君(孝昭王)不幸, 自去秋疾, 以今春薨, 永辭聖朝(하략).

라고 나와 있듯이 신하가 군주에게 제출하는 문서인 表를 지참하는 것이 통례였던 것 같다[16]. 그러나 아마도 신라에서 聖德王 13년(714)에 詳文師가 通文博士로 개정된(≪三國史記≫ 同年 2月條) 것과 같은 시기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唐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있던 表를 가지고 오지 않게 되었다【濱田耕策 1979-130～131】(그 배경에 대해서는 후술을 참조). 일본은 여러 번에 걸쳐 表를 지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다【石井正敏 1987】. 그러한 가운데 예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天平勝寶 4년(752) 6월에 일본에 온 金泰廉에 대한,

新羅王子金泰廉等拝朝, 幷貢調, 因奏曰. 新羅國王言日本照臨天皇朝庭 (중략) 兼令貢種種御調, 謹以申聞, 詔報曰. (중략) 詔報. 泰廉所奏聞之 (하략)

라고 하는 기사(≪續日本紀≫ 天平勝寶 4年(752) 6月 14日條) 및 寶龜 11년(780)에 일본에 온 金蘭孫에 대한 "新羅使獻方物. 仍奏曰. 新羅國王言. 夫新羅者 (하략)"(≪續日本紀≫ 同年 正月 5日條)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2회에 한해서는 '奏'라고는 하지만 上表文의 형식이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山田英雄 1974, 奥田尙 1991, 石井正敏 1992】. 그러나 적어도 후자에 대해서는 신라왕의 表를 上奏한 것이 아니라 使旨를 口奏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전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濱田耕策 1979-142～3】.

한편 발해로부터는 神龜 4년(727)의 제1회 遣日使 이래, 발해 국왕이 啓를 보내는 일이 많았다【山田英雄 1974】. 단, 제2회 渤海使가 가져온 국서에 '臣名'이 적혀있지 않았던 것을 일본 측에서는 문제 삼았고, 제3회 국서에서도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았던 사실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續日本紀≫ 天平勝寶 5年 6月 8日條)【石井正敏 1975b, 1992-554】. 그리고 天平寶字 2년(758)부터 寶龜 10년(779)까지의 국서에는 表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安史의 亂이라고 생각하는 설이 있다【浜田久美子 2005】. 단, 吉備眞備의 致仕 문서를 '啓'라고도 '表'라고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續日本紀≫ 寶龜 元年 10月 8日條), 【奥田尙 1991】는 발해 국왕의 啓도 어떤

16)【栗原朋信 1967, 濱田耕策 1979. 石井正敏 1992-547～9】은 일본과 신라 간에는 문서 외교가 정착되지 않았고, 大宝 이후 일본은 문서를 사용했지만 신라는 일본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表'라고 간주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石井正敏 1992-554】는 啓에 '臣名'이 있으면 '表'라고 간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 이 이후에는 문서의 '違例'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는데 발해가 啓를 狀이라고 고쳤기 때문에 그 違例를 책망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만(≪日本後紀≫ 弘仁 2年 10月 2日條·弘仁 6年(816) 正月 22日條),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서술하겠다.

그리고 신라와 발해의 관청에서 온 문서가 일본의 太政官 앞으로 송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新羅國執事省牒(≪續日本紀≫ 天平寶字 8年(764) 7月 19日條, ≪續日本後紀≫ 承和 3年(836) 12月 3日條, ≪日本三代實錄≫ 仁和 元年(885) 6月 25日條)과 渤海國 中台省牒(≪續日本紀≫ 天平寶字 3年 10月 18日條, ≪類聚國史≫ 天長 5年 2月 26日條, ≪類聚三代格≫ 天長 5年 正月 2日 官符, ≪續日本後紀≫ 承和 9年 3月 6日條)가 이에 포함된다【中村裕一 1979, 酒寄雅志 1985ab, 田島公 1991】. 이러한 문서가 첨부되게 된 계기로는 실무적인 문서를 통해 서로의 전달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中村裕一 1979-446, 石井正敏 1992-557~9】.

한편 일본에서는 '天皇敬問某國王'으로 시작되는 唐의 慰勞詔書(制書)를 본뜬 국서를 상대 국왕에 대해 발급했다【中野高行 1984, 田島公 1985, 金子修一 2003】. ≪延喜式≫ 內記에는 서두를 '天皇敬問'(大蕃國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天皇問'(小蕃國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 두 종류가 게재되어 있지만, 國史에서 보이는 실례(단, 본문만)에서는 모두 '天皇敬問'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파견되어 온 使者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서를 手交하고 이와 함께 使者에 대한 詔書를 읽어 내렸다【中野高行 1987, 坂上康俊 2004】. 그리고 일례에 불과하지만 일본이 신라의 上宰·故金順貞에게 준 '璽書'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勅伊飡金順貞, 汝卿云々'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서(≪續日本紀≫ 神龜 3年(723) 7月 13日條), 論事勅書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중추관청에 대한 太政官牒이 발급된 적도 있다(≪續日本後紀≫ 承和 3年(836) 閏5月 13日條, 同 承和 9年 4月 12日條).

제3장 일본과 신라의 관계 추이

제1절 8세기 일본과 신라의 관계

1. 신라와 倭(일본)의 蜜月期

660년 백제의 멸망, 663년 白村江 전투에서 백제의 부흥군과 일본(倭)군의 패배, 668년 9월 고구려의 멸망 이후 한반도에서는 唐의 점령군과 신라와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唐은 676년에 安東都護府를 遼東故城에, 그리고 다음 해에는 遼東新城으로 옮김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어 결국은 신라에 의해 반도가 통일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669년을 마지막으로 遣唐使 파견을 일시 정지하고(이 遣唐使의 귀국 시기는 불분명), 국내의 방비체제를 공고히 하고 율령체제로의 길을 걷는다. 한편 唐과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던 신라는 일본에 빈번하게 사신을 보냈고, 특히 고구려의 先王인 嗣子 혹은 庶子라고 하는 安勝(후의 報德王)을 고구려왕에 봉하는 등 그 名義를 이용하여 신라 자신은 送使로서 수행하고 일본에 빈번하게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시키면서[17],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다. 이 고구려에 대하여 天武 10년(681)과 天武 13년에 일본에서 遣高句麗大使를 파견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라 측도 이러한 사절에 대한 대응에는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도 좋다.

어디까지나 ≪日本書紀≫에서 보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신라는 '調'를 지참하는 등[18], 일본에 대하여 상당히 저자세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天武 4년(675) 2월에는,

> 新羅遣王子忠元·大監級飡金比蘇·大監奈末金天冲·弟監大麻朴武麻·弟監大舍金洛水等,進調. 其送使奈末金風那·奈末金孝福, 送王子忠元於筑紫.

17) ≪日本書紀≫ 天武 元年(672) 5月 28日條, 同2年 8月 20日條, 天武 5年 11月 23日條, 天武 8年 2月 1日條, 天武 9年 5月 13日條, 天武 11年 6月 1日條.

18) ≪日本書紀≫ 天智 10年(671) 6月條, 同年 10月 7日條, 天武 4年(675) 3月條, 天武 5年 11月 3日條, 天武 8年 10月 17日條, 天武 9年 11月 24日條, 天武 10年 10月 20日條, 天武 12年 11月 13日條, 天武 14年 11月 27日條, 朱鳥 元年(686) 4月 19日條.

라며 왕자 金忠元을, 또 持統 원년(687) 9월 23일에는,

> 新羅遣王子金霜林·級飡金薩擧·及級飡金仁述·大舍蘇陽信等, 奏請國政, 且獻調賦. 學問僧智隆附而至焉. 筑紫大宰便告天皇崩於霜林等. 卽日, 霜林等皆著喪服東向三拜, 三發哭焉.

이라며 왕자 金霜林을 파견하여 '調'를 貢進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金忠元·金霜林이 신라의 왕자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일본 측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하며 신라가 20년 정도에 걸쳐 '調'를 순조롭게 계속 貢進해 왔고 때로는 왕자를 일본에 파견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억, 이것이 大寶律令 시행 이후 일본의 對新羅觀을 규제한다.

한편 【古畑徹 1983-60～61】에 따르자면, 675년～711년에 걸쳐 신라와 唐의 관계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흘러간다.

Ⅰ. 675～680년 唐·신라 전쟁의 연장선에서의 대립시대. 唐은 신라에 대한 재공격을 계획하고 신라도 이에 대비해 일본과 손잡고 있는 시기. 이는 678년을 경계로 하여 唐이 吐蕃에게 침략당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관계로 이행되어 간다.

Ⅱ. 680년대 唐·신라 모두 특별히 상대에게 관심을 표하지 않는 시기. 唐은 정책전환을 했지만 신라와 융화해가려고 하지 않고, 신라도 그 시기의 중심 과제였던 옛 백제 영토 통치문제가 唐과 관련이 없어서 특별히 唐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시기. 단 이 시기에도 책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는 이어져 있음.

Ⅲ. 690년대 唐·신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시기. 唐은 국제정세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자세를 완화시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유하는 자세를 보이고, 신라는 중심과제가 北進策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시 唐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다. 이 시기 신라는 일본과의 관계를 점차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Ⅳ. 700년대 703년을 기점으로 신라와 唐의 관계는 명확하게 친밀해지고 있어서 양국 관계의 회복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이다. 唐은 동북정책의 일환으로 신라에게 강하게 권유를 하고 신라도 종래의 北進策에 對日문제가 더해져 여기에 호응하기 시기.

Ⅲ·Ⅳ 시기, 즉 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원활해진 이후의 신라에게 있어서 對日관계는 중요성이 떨어져서 굳이 일본에 대하여 외교상의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바로

여기에 8세기 이후 일본의 對新羅觀과 신라의 對日本觀 사이의 차이가 있었던 근본원인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일본·신라 관계의 알력

신라가 對唐관계를 회복시켜나감에 따라 對日 저자세외교를 수정해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 처음으로 문제시했던 것은 아래에 보는 것처럼 持統 3년(689) 5월의 일이었다.

> 五月癸丑朔甲戌. 命土師宿祢根麻呂, 詔新羅弔使級飡金道那等曰. 太政官卿等奉勅奉宣. (持統)二年遣田中朝臣法麻呂等, 相告大行天皇天武喪. 時新羅言. 新羅奉勅人者, 元來用蘇判位. 今將復爾. 由是法麻呂等, 不得奉宣赴告之詔. 若言前事者, 在昔難波宮治天下天皇(孝德天皇)崩時, 遣巨勢稻持等告喪之日, 翳飡金春秋奉勅. 而言用蘇判奉勅, 卽違前事也. 又於近江宮治天下天皇(天智天皇)崩時, 遣一吉飡金薩儒等奉弔. 而今以級飡奉弔, 亦遣前事. 又新羅元來奏云. 我國自日本遠皇祖代, 並舳不干楫奉仕之國. 而今一艘, 亦乖故典也. 又奏云. 自日本遠皇祖代, 以淸白心仕奉. 而不惟竭忠, 宣揚本職. 而傷淸白, 詐求幸媚. 是故, 調賦与別獻, 並封以還之. 然自我國家遠皇祖代, 廣慈汝等之德不可絶之. 故彌勤彌謹, 戰々兢々, 修其職任, 奉遵法度者, 天朝復益廣慈耳. 汝道那等奉斯所勅. 奉宣汝王.
>
> (≪日本書紀≫ 同月 22日條).

이미 持統 2년 6월에는 淨御原令이 諸司에 반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石井正敏 1992-548】는 여기에서 말하는 '不得奉宣赴告之詔'라는 것은 문서화된 詔書를 신라에게 지참시켜 올리려고 했었는데 거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다. 단, 이 시기에도 신라는 아직 '調'를 계속 貢上하고 있었고(持統 6年 11月 18日條, 文武 2年(698) 正月 3日條), 또 持統 9년(695) 3월에는,

> 新羅遣王子金良琳·補命薩飡朴强國等, 及韓奈麻金周漢·金忠仙等, 奏請國政, 且進調獻物.
>
> (≪日本書紀≫ 持統 9年(695) 3月 20日條)

와 같이 왕자 金良琳을 파견하여 '調'를 貢上하는 등 저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 이후에 일본은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遣唐使를 파견하는데, 이 때 처음으로 則天武后가 唐 왕조를 찬탈했던 이른바 武周革命이 있었다는 정보를 얻는 등 신라가 제공하는 중국 정보에 대하여 일본은 어느 정도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坂上康俊

1999】. 한편으로 신라 측에서도 일본이 직접 唐과 접촉하는 遣唐使를 재개했기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해 더욱 唐에 접근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古畑徹 1983】[19].

단, 이 이후에도 慶雲 2년(705)에 일본에 오고 다음 해에 귀국한 新羅使(≪續日本紀≫ 慶雲 3年 正月 4日條), 養老 3년의 新羅使(≪續日本紀≫ 養老 3年 閏7月 7日條), 그리고 神龜 3년의 新羅使가 '調'를 올리는 등 (≪續日本紀≫ 神龜 3年 7月 13日條), 신라는 일본 측의 요청에 어느 정도 응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文武 2년(698)에 金弼德, 大寶 원년(701) 정월에 金所毛, 慶雲 3년(706) 정월에 金儒吉과 같이 元日朝賀에 참례하거나, 和銅 8년(715) 정월의 重阿飡·金元靜과 같이 大射의 儀에 참례하는 등(모두 ≪續日本紀≫), 大寶令 撰定·공포·실시 당시의 일본의 요구에 응하여 스스로를 일본에 대해 諸蕃의 위치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로서 이 때 쯤 파견되었던 遣新羅使[20]가 大寶令을 보이고 正月朝賀에 대한 참례를 종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고【濱田耕策 1979-123～5·142】[21], 또 발해건국 직후에 唐이 신라보다 발해를 중시했고 그 결과 신라가 일본에 대하여 융화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古畑徹 1986b, 新藏正道 1999】. 養老 7년(723)·神龜 3년(726)에 新羅使가 일본에 왔을 때에는 右大臣, 후에 左大臣인 長屋王이 사저에 新羅使를 불러 향연을 여는 등【石母田正 1964, 鈴木靖民 1967b·1968, 村田正博 1984, 辰巳正明 1990, 井實充史 1994, 佐藤信 1997-96～7 】[22], 일본 측도 이러한 자세를 환영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天平 4년(732)에는 그 해 정월에 일본에 온 新羅使의 요청에 따라 來日 주기를 3년에 한번으로 했다(≪續日本紀≫ 天平 4年 5月 21日條). 신라와 일본과는 조공관계를 맺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일본 측의 인식이었다고 봐도 좋다. 단, 같은 해 8월 17일에 제정되고, 天平 6년 4월 21일에 정지된 東海·東山·山陰·西海諸道의 節度使

19) 【鈴木靖民 1967a-124】는 慶雲 원년(704) 10월에 임명되어 다음 해 5월에 귀국하는 遣新羅使 幡文造通의 使命을 일본과 唐 간의 국교 재개를 신라에 대해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나 보고 있다.

20) 文武 4년(700) 5월에 임명되어 10월에 귀국하는 佐伯宿祢麻呂, 그리고 大宝 3년(703) 9월에 임명되어 慶雲 원년(704)에 귀국하는 波多朝臣廣足, 慶雲 원년 10월에 임명되어 다음 해 5월에 귀국하는 幡文造通 등의 遣新羅使 및 ≪三國史記≫ 新羅本紀 聖德王 2년(703) 7월條의 "日本國使至. 總二百四人" 등을 참조.

21) 이 기간 중인 和銅 2년(709)에 일본에 오는 金福信은 '方物'을 바치는데 이에 대해서 【濱田耕策 1979-141】는 金福信이 정식 신라 사절이 아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22) 藤原不比 등도 和銅 2년(709) 5월에 朝堂에서의 향연 후에 新羅使와 특별히 대면하고 있다【佐藤信 1997-95～6】.

체제는 제정 6일 전인 8월 11일에 귀국한 遣新羅使 角家主의 귀국 보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라와의 군사적 긴장의 산물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坂本太郎 1932, 村尾次郎 1953, 早川庄八 1962, 鈴木靖民 1974, 瀧川政次郎 1977, 北啓太 1984】, 특히 【鈴木靖民 1967b, 1968】은 후에 거론하는 바와 같은 ≪三國史記≫ 聖德王 21年(722, 養老 6년) 10月條의 축성 기사와 同王 30年 4月條의 日本兵船 來襲 기사를 근거로 이 시기 일본과 신라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 節度使 설치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하고, 【井上辰雄 1970】은 ≪新抄格勅符抄≫의 大同 2年牒에 기록되어 있는 氣比神에게 天平 3년 12월 10일에 從二位가 내려진 것의 배경으로 신라와의 관계가 긴박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또 【友寄隆史 1979, 下向井龍彦 1995, 原田諭 1999】는 후에 서술하는 唐·신라와 발해 간의 긴장 고조를 節度使 설치의 중요한 계기라고 하고 있다. 단, 【奥田尙 1975-119～131】은 【鈴木靖民 1968】이 근거로 삼고 있는 ≪三國史記≫의 기사에 대한 해석에 이론을 주장하고, 이것을 그대로 관계 악화가 명확해 진 것이라고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天平 4년의 新羅使 영접 상황을 보면 양국 간의 긴장이 보이지 않고 있고, 天平 2년의 遣渤海使의 귀국에 의해 일본에 대한 신라의 중압이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된 일본에서 天平 2년에 防人制가 정지된 것과 節度使制가 표리관계에 있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天平 7년에 일본에 온 新羅使는 스스로를 '王城國'이라고 불러서 일본은 귀국시켜 버린다(≪續日本紀≫ 天平7年 2月 27日條). 신라가 이 시점에서 일본에 대하여 거만한 자세를 공공연히 드러낸 중요한 배경은 天平 4년(唐의 開元 20년, 732) 9월에 黑水靺鞨의 唐에 대한 조공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발해가 唐의 登州를 공격한 데 대해서 唐이 신라에 파병을 요청하여 같이 발해를 공격하지만 패배한 사건이 있다(≪舊唐書≫ 卷199下 渤海靺鞨傳, ≪新唐書≫ 卷219 渤海傳)【石井正敏 1973, 古畑徹 1984】. 이 때 唐과 신라의 동맹관계는 확립되고 신라왕은 새롭게 '寧海軍使'의 칭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天平 7년(735, 開元 23년) 2월에는 唐이 신라에게 浿江(大同江) 이남의 영유를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한다【末松保和 1974】. 이러한 唐과의 관계 강화를 배경으로 신라가 일본에 대해 대등한 관계를 갑자기 강하게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이 시기의 신라에서는 禮制가 정비되어 唐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자국을 上位의 藩國이라고 규정하고 그 결과 일본에 대해 '대등한 예로 대하는(亢禮) 隣國'이라는 의식이 자라나게 된 것이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末松保和 1933, 濱田耕策 1979-129, 1983-336～339】, 신라의 使者가 일본의 正月儀禮에 참례하는 것도

和銅 8년(715)의 金元靜 이후 寶龜 11년(780)의 金蘭蓀까지 보이지 않게 된다【濱田耕策 1979-125】. 그리고 聖德王 24년(725)에 대일관계를 중시하던 上宰 金順貞이 서거한 것이 신라의 대일본 대등의식이 점점 강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和田軍一 1924a-23～24, 濱田耕策 1979-135～37】. 天平 9년(737)에 귀국한 遣新羅使가 "新羅國失常禮, 不受使旨"라고 復命한 것은(≪續日本紀≫ 天平 9年 2月 15일條), 이러한 신라의 일본에 대한 자세 변화로 인해 일본의 慰勞詔書 수취를 거부했던지 授受 형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것일 것이다【石井正敏 1992-550】.

天平 15년(743)에 일본에 온 新羅使는 '調'가 아닌 '土毛'를 지참했었기 때문에 "檢校新羅客使多治比眞人土作等言. 新羅使調改称土毛, 書奧注物數. 稽之旧例, 大失常禮. 太政官處分. 宜召水手已上, 告以失禮之狀, 便卽放却"(≪續日本紀≫ 天平 15年 4月 25日條)이라고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신라의 官制 중에서 領客府에서 倭典을 분리시켜서 오직 일본과의 교섭만을 담당시키게 된 것은 이 시기가 아닐까 하는 설이 있다【濱田耕策 1979-133～5】[23].

그런데 天平勝寶 4년(752)에 일본에 온 '신라왕자'라고 칭하는 金泰廉[24]과 貢調使大使는 '調'를 貢進하면서 신라국왕의 말로써,

> 新羅國者, 始自遠朝, 世々不絶, 舟楫並連, 來奉國家, 今欲國王親來朝貢進御調. 而顧念, 一日無主, 國政絶亂. 是以, 遣王子韓阿飡泰廉, 代王爲首, 率使下三百七十余人入朝, 兼令貢種々御調.

라며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일본에 대해 타협적인 자세를 표명했다(≪續日本紀≫ 平勝寶 4年 6月 14日條). 이에 대해 일본은,

> 新羅國來奉朝廷者, 始自氣長足媛皇太后平定彼國, 以至于今, 爲我藩屛. 而前王承慶·大夫思恭等, 言行怠慢, 闕失恒禮. (중략) 自今以後, 國王親來, 宜以辭奏. 如遣余人入朝, 必須令齎表文.

이라며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 전설을 상기시키면서 신라 국왕 자신이 일본에 오든지 다른 자를 파견할 경우에는 上表文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續日本紀≫ 天平勝寶 4年 6月 17日條). 神功皇后의 신라정벌 전설은 ≪日本書紀≫ ≪古事記≫에는 기재되어

---

23) 단 '倭典'에 관해서는 【三池賢一 1971·72, 鈴木靖民 1977, 李成市 1982】등과 같이 대일 교역을 담당한 官司가 아니었을까 하는 설도 있다.

24) 金泰廉을 소위 '가짜 왕자'라고 보는 설에는 【和田軍一 1924a, 濱田耕策 1983-346～8】이 있고, 庶子인 왕자였을 것이라고 보는 설에는【石井正敏 1987】가 있다.

있지만, 奈良時代의 외교 관계 속에서 신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으로, ≪日本書紀≫ 持統 3年 5月 22日條(위에 게재)에 이은 것이다[25]. 그리고 天平 후반부터 신라 사절단의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末松保和 1933, 內藤雋輔 1961, 東野治之 1974-305】는 이 시기부터의 來日 목적에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金泰廉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李成市 1997, 田村圓澄 1999, 石井正敏 2001b】 등 다수의 연구가 있고, 신라 측의 경제적인 목적 혹은 종교를 통한 일본 측의 정치적인 목적 등을 추측하고 있지만, 【酒寄雅志 1977b-211～212】는 景德王代에 신라의 北辺 경영이 활발해졌고 발해의 제3회 遣日使節이 天平勝寶 4년 9월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일본과 발해가 연계하여 신라를 협공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려는 예방적인 목적을 들고 있고, 【李成市 1998-366】도 통상무역론을 비판하면서 긴장관계에 있던 국제 관계를 배경으로 양국의 왕권이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賓禮' 속에서 문물을 교환했다고 하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다음 해인 天平勝寶 5년(753)에 신라에 파견된 小野田守에 대해서는, ≪續日本紀≫에 "其後遣小野田守時, 彼國(新羅)闕禮, 故田守不行使事而還歸"(天平寶字 4年(760) 9月 16日條), 그리고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12年(753) 8月條에 "日本國使至. 慢而無禮, 王不見之, 乃廻"라고 나와 있듯이 景德王이 '無禮'를 책망하며 회견을 거부했다. 신라 측의 태도가 강경해 진 원인으로는 唐의 元日朝賀 때의 신라와 일본 간의 爭長事件(위의 서술을 참조)이 상정되고 있다【和田軍一 1924ab, 坂本義種 1967～68】. 일본에서는 天平勝寶 8歲(756)에 怡土城을 축조하는 등【大類伸 1918, 鏡山猛 1937, 瀧川政次郎 1961, 角田文衛 1963, 酒寄雅志 1977, 前原市教育委員會 2006】, 서서히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天平寶字 원년(757) 11월10일의 文章得業生 후보자에 대한 시험에서는,

> 頃蕞爾新羅, 漸闕蕃禮, 蔑先祖之要誓, 從後主之迷図, 思欲多發兵船, 遠揚威武, 斬奔鯨於鯢鯓, 戮封豕於鷄林. 但良將伐謀, 神兵不戰. 欲到斯道, 何施而獲.

라고 하는 設問이 있는 등(≪經國集≫ 卷20 策下), 이미 이 시점에서 신라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石母田正 1971】.

때마침 그런 시기였던 天平寶字 2년(758)에 발해에서 귀국한 小野田守가 唐에서 安祿山의亂이 발발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唐이 신라를 도와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상정

25) 神功皇后의 三韓征討 전설과 고대 일본의 한반도 三國觀에 대해서는 【鈴木靖民 1969, 渡邊誠 2009】를 참조.

한 일본은【和田軍一 1924ab, 石母田正 1971】, 藤原仲麻呂가 주도하여, 天平寶字 3년부터 시작하여 3년간 내지는 天平寶字 7년의 節度使 정지까지에 걸쳐 신라 정벌 계획을 추진한다.

3. 藤原仲麻呂의 신라 정벌 계획

天平寶字 2년(758) 9월 渤海使 楊承慶 등 23인이 遣渤海使 小野田守의 귀국길에 같이 일본에 왔다. 小野田守는 聖武天皇의 서거를 발해에 알리기 위해 파견된 자로【鳥山喜一 1968, 新妻利久 1969, 酒寄雅志 1977a-213】, 이번 渤海使의 파견 목적은 조문에 있었다고 생각되지만(≪續日本紀≫ 天平寶字 3年 正月 3日條 所引 高麗國王大欽茂言을 참조), 小野田守가 安祿山의 反亂을 보고하고, 또 唐에서 발해에게 지원요청을 하는 칙서까지 갖고 오면서 渤海使의 來日 그 자체가 그 후에 전개되는 일본의 신라정벌계획에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고, 이 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일본과 발해 간의 제휴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설도 있다【酒寄雅志 1979-66～7】. 小野田守를 발해에 파견할 때에는 당시 紫微內相이었던 藤原仲麻呂의 자택에서 송별 연회가 개최되었고(≪万葉集≫ 卷20-4524), 그 仲麻呂는 紫微中台(天平勝寶 원년 8월)와 紫微內相(天平寶字 원년 5월)이라고 하는 발해의 中台省·大內相(政堂省의 長官)의 호칭을 따랐다고 하는 官司와 官職을 설치한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瀧川政次郎 1954】, 발해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石井正敏 1974】, 小野田守의 발해파견 단계에서 日羅관계의 타개를 발해와의 교류를 통하여 꾀하려고 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酒寄雅志 1977a-213～218】.

天平寶字 3년(759) 6월에는 "令大宰府造行軍式 以將伐新羅也"(≪續日本紀≫ 同月 18日條)와 신라 정벌 계획이 발안되어 병선 500척을 3년 이내에 건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續日本紀≫ 同年 9月 19日條). 天平寶字 5년 11월에는 節度使 체제가 시행되고(≪續日本紀≫ 冬月 3日條), 天平寶字 6년 11월 16일에는 '爲征新羅調習軍旅'를 목적으로 香椎廟에 공물을 바치는(奉幣) 등 정벌계획이 추진되어 간다. 그리고 【河內春人 1995】는 당초에는 위협만 하는 것이었겠지만, 天平寶字 4년(760)에 일본에 온 新羅使 金貞卷의 對日 자세가 강경했었기 때문에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간 중 天平寶字 5년 10월에는 일찍이 唐의 天寶12載 元日朝賀 때 신라와 爭長事件을 일으켰을 때의 遣唐使의 일원으로 고구려 계통 망명자의 일족이었던 高麗大山[26]이 遣渤海使로 임명되어 天平寶字 6년 4월 이후에 출발했지만【石井正敏 1974】, 이는 造船

명령에서 말하는 3년째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신라 협공에 대한 건이 使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酒寄雅志 1977a-223】. 그리고【酒寄雅志 1979-68】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21년(762) 5月條에 보이는

築五谷·鵂巖·漢城·獐塞·池城·德谷六城,各置大守.

라고 하는 북방의 大同江에 근접한 지역에서의 築城記事를 일본에게 유입을 거부당해 귀국한 신라인들(≪續日本紀≫ 天平寶字 3年 9月 4日條 참조)에게 정보를 얻어 그 결과【酒寄雅志 1977a-222～234】, 일본과 연계하여 발해의 침공에 대비하는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처한 위치가 '太守'였고 무관이 아닌 점에 의문이 남는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天平寶字 6년(762) 6월에 孝謙太上天皇과 淳仁天皇과의 관계가 악화되어(≪續日本紀≫ 同月 3日條), 이를 배경으로 藤原仲麻呂정권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仲麻呂의 亂이 일어나 신라 정벌 계획은 자연히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酒寄雅志 1979-69】.

한편 寶應 원년(762)에 唐은 발해왕 大欽茂를 발해 국왕으로 하고 신라 국왕과 동등한 '檢校大尉'라고 하는 官을 수여했다(≪新唐書≫ 渤海傳). 이를 통해 발해는 신라 정벌 방침을 전환하고 唐에 접근하게 된다. 이것이 일본과의 연계를 포기한 배경으로 중시되며, 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의 文官(政堂省左允)渤海使 王新福이 일본에 왔다고 하는 설이 있지만【石井正敏 1974, 酒寄雅志 1979-68～9, 李成市 1994-413】, 唐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신라가 北辺에 성을 축조하는 등 발해와 신라는 계속 긴장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酒寄雅志 1977a-225】는 王新福은 오히려 정벌의 기회는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온 것이 아닐까 보고 있다.

4. 일본과 신라의 외교 관계 단절

仲麻呂가 신라 정벌 계획을 한참 추진하고 있던 가운데 天平寶字 4년(760)에 일본에

26) 高麗大山은 원래 肖奈大山이라고 하지만, 天平 19년(747) 6월에 肖奈福信 등과 함께 肖奈王이란 姓을 하사받고 있다. 그 후 天平勝宝 2년(750) 정월에 福信 등에게 巨万(高麗)이란 姓이 하사되었을 때와 동시에 賜姓된 것 같고, 동년 8월에는 造東大寺司判官으로서 高麗大山의 自署가 있다(≪大日本古文書≫ 25권 134p).

온 金貞卷이,

不脩職貢, 久積年月. 是以, 本國王令齎御調貢進. 又無知聖朝風 俗言語者. 仍進學語二人.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은

凡是執玉帛行朝聘, 本以副忠信通禮儀也. 新羅旣無言信, 又闕禮儀. 棄本行末, 我國所賤.

라고 비난하고 향후에는 "專對之人, 忠信之禮, 仍旧之調, 明驗之言"을 갖추라 하며, 國使來朝의 조건을 명시했다(≪續日本紀≫ 天平寶字 4年 9月 26日條).

그러나 신라가 일본의 요구에 응할 리가 없고, 天平寶字 7년(763)에 일본에 온 신라의 國使 金体信에 대하여 金貞卷에게 제시했던 지난번의 4가지 조건을 구비하고 왔는지 물었을 때 金体信은 "承國王之敎, 唯調是貢. 至于余事, 非敢所知"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를 무례하다고 생각한 太政官은 다시 "自今以後, 非王子者, 令執政大夫等入朝. 宜以此狀, 告汝國王知"라고 명했다(≪續日本紀≫ 天平寶字 7年 2月 10日條).

寶龜 5년(774)에는 金三玄을 大使로 하는 235명의 사절단이 大宰府에 왔기 때문에 河內守從五位上紀朝臣廣純과 大外記外從五位下內藏忌寸全成 등이 파견되어 일본에 온 이유를 묻고 다음과 같은 문답을 나누었다(≪續日本紀≫ 寶龜 5年 3月 4日條)

三玄言曰. 奉本國王敎, 請修旧好每相聘問, 幷將國信物及在唐大使藤原河淸書來朝. 問曰. 夫請修旧好每相聘問. 乃似亢禮之隣. 非是供職之國. 且改貢調称爲國信. 変古改常. 其義如何.
對曰. 本國上宰金順貞之時, 舟楫相尋, 常脩職貢. 今其孫邕, 継位執政. 追尋家聲, 係心供奉. 是以, 請修旧好每相聘問. 又三玄本非貢調之使. 本國便因使次, 聊進土毛. 故不称御調. 敢陳便宜. 自外不知.
於是, 勅問新羅入朝由使等曰. 新羅元來称臣貢調, 古今所知. 而不率旧章, 妄作新意. 調称信物, 朝爲修好. 以昔准今, 殊無禮數. 宜給渡海料, 早速放還.

실제로 淸河는 770년에 서거하고 있어서 【增村宏 1988-246】은 이 파견을 신라의 工作의 하나라고 보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어쨌든 신라가 일본과 唐의 중간에 있는 위치를 이용하여 '亢禮之隣'이라는 입장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濱田耕策 1997-384~6】, 일본은 사의를 표하기는 하지만 명분상으로는 조공 관계 이외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寶龜 10년(779)에 일본에 온 신라국의 貢調使 金蘭孫 등이 다음 해 정월에

> 夫新羅開國以降, 仰賴聖朝世々天皇恩化, 不乾舟楫, 貢奉御調, 年紀久矣. 然近代以來, 境內奸寇, 不獲入朝. (하략)

라는 신라 국왕의 인사를 전한 것에 대해 光仁天皇은

> 新羅國世連舟楫, 供奉國家,其來久矣. 而泰廉等還國之後, 不修常貢, 每事無禮. 所以頃年, 返却彼使, 不加接遇.

라고 비난하면서도 이번 使者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고 했지만(≪續日本紀≫ 寶龜 11年 正月 5日條), 그들이 귀국할 때에 준 신라국왕에게 보내는 璽書(慰勞詔書)에서는

> 王自遠祖, 恒守海服, 上表貢調, 其來尙久. 日者虧違蕃禮, 積歲不朝. 雖有輕使, 而無表奏. 由是, 泰廉還日, 已具約束. 貞卷來時, 更加諭告. 其後類使, 曾不承行.

라며 지금까지 몇 번이나 敎示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갖추어야 할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을 회고하며 앞으로는 "必須令齎表函, 以禮進退"라고 명하고 있다(≪續日本紀≫ 寶龜 11年 2月 5日條). 이러한 일본의 고자세는 安史의 亂 이후 唐제국이 신라의 후방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신라 자체가 780년 4월의 惠恭王 암살사건에 이르는 혼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가 하고 상상할 수 있다【坂上康俊 2001】. 그러나 결국에는 이때를 마지막으로 新羅使는 일본에 오지 않게 되었다. ≪三國遺事≫ 卷2 元聖王條에 貞元 2년(786) 10월과 다음해에 걸쳐 일본왕 文慶이 거병하여 신라에 압력을 가해 신라 왕실에 전하는 '万波息笛'이라고 하는 靈寶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전설이 실려 있는데 일본 측에는 이에 대응하는 사료가 없다.

이상으로 奈良時代 일본의 對新羅國觀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日本書紀≫에 나온 神功皇后가 신라를 복속시켰다는 전승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신라가 唐과 대립관계 있던 시기에 '왕자'가 일본에 왔던 것과 '調' 貢上을 전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일본에 대해 복속의 상징인 '調'를 貢進해야 하고 국왕 자신의 來日이나 국왕의 上表文이라는, 신하가 군주에게 제출하는 양식의 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이에 반하여 신라는 金泰廉이 일본에 왔을 때와 같이 가끔은 일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세를 보이면서도 결국은 그런 조공관계를 거부하는 방향

으로 가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이 이렇게까지 고자세로 신라에 대해 조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신라가 결정적인 거절이라고 하는 방침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신라 측에도 일본과의 국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는 ≪三國史記≫ 聖德王 21년(722, 養老6) 10월에 "築毛伐郡城, 以遮日本賊路", 同書 地理志一에 "臨關郡, 本毛火郡. 聖德王築城, 以遮日本賊路.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라고 나와 있고, 또 ≪三國遺事≫ 卷2 孝成王條에는 "開元十年(722) 壬戌十月, 始築關門於毛火郡. 今毛火村, 屬慶州東南境, 乃防日本塞垣也"라고 나와 있듯이 일본에 대비하여 關門城(毛伐城)이 축조되고 있고[27], 同王 30년 4월에는 "日本國兵船三百艘, 越海襲我東過, 王命將出兵大破之"와 같이 일본의 병선이 신라를 침공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실제로 교전하고 있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일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인 聖德王 20년(721)에 북방에 長城을 축조하고 있듯이 7세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건국된 발해와의 관계가 작용하여 일본과 결정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피했을 가능성도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金泰廉과 후의 張保皐의 사례를 가지고 추정해보면【濱田耕策 1983-349～51】 일본과의 교역 관계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내생산과 唐과의 사이의 교역 활동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상정하고 있다.

제2절 奈良時代의 불교와 신라

奈良時代의 불교에 신라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飛鳥時代 이래의 일본불교의 흐름 속에서의 신라불교의 역할 특히 신라에서 일본으로 온 승려들의 활동이 있고, 두 번째로는 특히 聖武朝 이후에 화엄경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 전개에서의 신라의 역할이다.

우선 첫 번째 측면에 대해서 논하자면, 飛鳥에 궁을 두었던 6~7세기 일본의 조정은 특히 불교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와

27) 毛伐城의 축성과 대일관계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鈴木靖民 1967b, 奥田尙 1975, 酒寄雅志 1977a】 등을 참조.

도 교류를 하고 있었다【曾根正人 2007】. 이런 가운데 신라의 승려로서는 우선 ≪日本書紀≫ 朱鳥 元年(686) 10月 2日條에 보이는 大津皇子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飛驒의 가람으로 옮겨진 '新羅沙門行心'이 있다. 그는 ≪懷風藻≫의 大津皇子傳에 "新羅僧行心, 解天文卜筮"라고 나와 있고, ≪續日本紀≫ 大寶 2年(702) 4月 8日條에 飛驒의 僧隆觀은 流僧幸甚의 아들로 보이는 幸甚과는 동일인물일 것이라 하고 있다【關晃 1954, 鈴木靖民 2002-60~61】. ≪日本書紀≫ 持統 4年(690) 2月 11日條에는 "新羅沙門詮吉·級飡北助知等五十人歸化"라고 나와 있어서, 신라 승려가 일본에 오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山本幸男 2004-456】. 단, 한참 뒤의 시대이지만, ≪日本三代實錄≫ 貞觀 5年(863) 4月 21日條에 "先是, 大宰府言. 新羅沙門元著·普嵩·淸願等三人, 着博多津岸. 至是勅安置鴻臚舘, 資給粮食, 待唐人船, 令得放却", 同 貞觀 15年(873) 9月 8日條에 "甲斐國言. 新羅沙門傳僧·卷才二人, 來寄山梨郡. 傳僧等, 貞觀十三年徙配上總國者也. 仍令還着本處焉"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포함하여 일본에 온 경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日本書紀≫ 持統 元年(687) 4月 10日條에는 "筑紫大宰獻投化新羅僧尼及百姓男女廿二人. 居于武藏國, 賦田受稟, 使安生業"이라고 하고, 이것도 한참 뒷시대이지만, ≪續日本紀≫ 天平寶字 2年(758) 8月24日條에는 "歸化新羅僧卅二人·尼二人·男十九人·女廿一人, 移武藏國閑地. 於是, 始置新羅郡焉"이라고 나와 있어서, 신라 출신 승려를 다수 포함하는 아마도 개발 기술을 가진 집단을 개발 예정지에 투입했던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런 예는 신라 승려뿐만 아니라, ≪日本書紀≫ 天武天皇 13年(684) 5月 14日條에 "化來百濟僧尼及俗人男女幷廿三人, 皆安置于武藏國"이라고 하듯이 백제 승려에 대해서도 같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었다. ≪日本書紀≫ 持統 7年(693) 6月 1日條에 "詔高麗沙門福嘉還俗"이라고 하듯이 7세기 말~8세기 초에는 외국에서 온 승려도 일종의 기술자로서 대우받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속시켜서 조정에서 일하게 하고 있다【關晃 1955】. 養老 5년(721)에는 80세를 넘었다고 하는 백제에서 온 승려 道藏도, 天武 12년·持統 2년의 기우제로 유명해졌다. 天智 원년(662) 4월에 고구려의 멸망을 예언하고 ≪日本書紀≫에 실린 <日本世記>의 필자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는 고구려의 승려 道顯【橋川正 1920】도 마찬가지로 간주되고 있다.

이 시기 敎學의 면에서는 隋로 건너가, 三論宗을 대성시킨 嘉祥大師 吉藏에게 사사하여 三論을 공부하고, 推古 33년(625)에 고구려왕이 보내어 일본에 와서 元興寺에 머무르며 三論을 보급시킨 고구려 승려 惠灌, 그의 제자로 역시 고구려 출신 승려였던 福亮(大化 원년의 十師 중 한 명)등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遣隋使·遣唐使를 수행하여

隋·唐에 왕래하였던 僧旻·惠日·惠隱·惠妙(~680) 등, 그리고 玄奘에게 사사하고 齊明 7년(661)에 귀국하여 法相宗을 전파한 道昭(629~700), 白雉 4년(653) 4월에 唐에서 유학하고 ≪依四分律抄撰錄文≫一卷을 저술한 道光, 혹은 고구려에서 유학했던 것으로 보이는 道登, 大寶 2년에 당으로 가서 養老 2년에 귀국하는 道慈(744) 등 주로 당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는 승려들의 활동이 눈에 띄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奈良時代에 들어서 玄昉으로 이어진다. 원래 신라 출신 승려로 大寶 3년에 당에 갈 것을 명받아 智周에게 사사하고 귀국한 후에는 法相宗을 보급한 智鳳과 같은 경력을 가진 자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라 불교와의 관련이 중시되어 온 것은 제2의 논점인 華嚴敎學에 주목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華嚴經≫이 일본에 들어온 것은 養老 2년(718) 12월에 당에서 귀국한 승려 道慈가 가져온 것 같고, 養老 6년 11월 19일에는 元明天皇의 1주기에 즈음하여 그 書寫를 명하고 있다(≪續日本紀≫). '靑丘留學華嚴審祥大德'(≪華嚴一乘開心論≫ 下卷, 天長 7년경, 普機撰) '新羅學生審祥大德'(≪東大寺要錄≫ 卷5 '東大寺華嚴別供緣起')이라고 칭해지고 있고, 일본에서 화엄의 祖師라고 불리는 審祥은 신라에 유학하여 華嚴宗 第二祖·智儼의 제자 義湘(625~702)의 제자가 되고 후에 唐에도 유학하여 第三祖·法藏(643~712, 義湘의 동문 후배)에게 화엄종을 배웠다고 전한다 (≪三國仏法傳通緣起≫ 卷中 '華嚴宗'). 그 후 天平 12년(740) 10월에는 勅에 의해 金鐘寺(후에 발전하여 東大寺가 됨)에서 ≪華嚴經≫을 강의했다(≪三國仏法傳通緣起≫ 卷中·≪東大寺要錄≫ 卷1)【堀池春峰 1973, 宮崎健司 1998, 山本幸男 2004】. 審祥의 藏書에 대해서는 正倉院 문서 속에 보이는 "右五十部 二百五十卷 審祥師"(≪大日本古文書≫ 17卷 134p)라는 기술에서 추측할 수 있는데 목록의 일부에 가까운 것으로서 170점의 서적을 기재하는 '更可請章疏等'(天平 20年, ≪大日本古文書≫ 3卷 84~91)이 있다【大平聰 2009 143~4】. 그의 제자로는 良弁·慈訓 등이 있다.

正倉院 문서를 통람해 보면, 智儼·法藏의 저작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元曉·義湘·明晶·表員 등 신라 學僧의 주석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石田茂作 1930-84~5】. 正倉院 문서에서 조금씩 보이는 審祥으로부터의 經典 대여관계 사료를 바탕으로【堀池春峰 1973】가 정리한 바에 따르자면, 審祥이 소지하고 있던 經論은 170部 645卷에 이르고, 元曉·義寂·玄一·義湘·大行 등 신라 學僧들의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고 특히 元曉의 것은 32部 78卷에 이르렀다고 한다. 단, 天平勝寶 3년(751) 5월 25일 <華嚴宗布施法定文案>(≪大日本古文書(編年文書)≫ 11卷 557~562p)을 이용하여 당시의 화엄종 연구 양상을 상세하게 검토한 【山本幸男 2008-96】은 東大寺의 화엄종은 法

藏의 화엄교학을 핵심으로 하는 學団이며, 學僧인 元曉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한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聖武朝에 융성기를 맞이하는 華嚴宗에 대해서는 교학적으로 一卽多(하나의 것이 전 우주와 대응한다)라는 장대한 사상이 聖武天皇의 이상에 들어맞았다는 설명【末木文美士 1992-54～5】, 또 聖武天皇은 ≪金光明最勝王經≫으로 율령국가 수호를 꾀하면서 ≪華嚴經≫에서 설명하는 十方世界의 관념(보편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천연두 등으로 인해 피폐해진 일본국가의 재생과 번영을 구상했다는 설명【森本公誠 2003】, 혹은 法相宗 이후에 등장한 華嚴宗에는 기존의 모든 종파를 포섭하여 서열화한다는 독특한 이론이 구축되어 있어서, 圓經(완전한 가르침)으로서 세속의 권력이 의존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지적【山本幸男 2008-116】 등 전적으로 교학적인 측면에서 융성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것이다. 또 신라에서는 法藏의 別敎一乘을 元曉의 一心觀에 의거하여 一乘大乘이라고 동일시해버리는 太賢과 같은 교학이 생겨나고 그것이 審祥에 의해 일본에도 전해져서 東大寺 조영과 대불 건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제창되고 있다【吉津宜英 1991-551～561, 1997】.

그러나 聖武·孝謙朝에 ≪華嚴經≫에 열중하는 것은 四字年號, 唐風官名, 國分寺·尼寺의 건립, 대불(盧舍那佛) 조영 등 여성 황태자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 유일의 여제인 武則天의 시책을 모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武則天은 ≪大雲經≫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시켜서 불교 신앙을 이용하여 즉위한 후【矢吹慶輝 1927】, ≪華嚴經≫을 자신의 정치이념으로 삼고 화엄종을 대성시킨 화엄종 第三祖·法藏에게서 受戒했다【鎌田茂雄 1965-147, 任繼愈 1994-86】. 聖武·孝謙朝 이후 화엄종이 일단 급속하게 쇠퇴하는 점도 염두에 둔다면 교학적인 면에서의 설명에 더해, 唐(周)에서 화엄종을 중요시한 것이 동기였다고 하는 편이 설명하기 쉽고, 인맥적으로는 신라의 화엄종과도 연계되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엄종에서 중요시되는 盧舍那佛에 대해서는 金泰廉 등의 일행이 經卷을 바친 것으로 보이고 天平勝寶 4년(752) 6월 22일에 '新羅國 使人'이 奉請한 ≪法華經≫ ≪梵網經≫ ≪頭陀經≫에 대한 이야기가 '自所々請來經帳'(≪大日本古文書≫ 12卷 289·296p)에 보인다【東野治之 1974-305, 田村圓澄 1999, 鈴木靖民 2007-55】. 그리고 오타니(大谷)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判比量論≫(신라의 元曉가 671년에 찬술)은 그 書風·書体·料紙를 관찰해 보면 8세기 전반 신라로부터의 舶載經으로 審祥이 소지했던 것일 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 당해 경전에 신라의 角筆이 확인됨에 따라【小林芳規

2002c】, 신라로부터의 舶載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鈴木靖民 2007-53～5】. 【宮崎健司 2006-49】는 이 경전의 藏書印을 조사하여 당해 경전은 橘三千代가 죽기 전에 光明皇后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天平 5년(733) 이전의 書寫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 【山本信吉 2006】는 東大寺 聖語藏 ≪大方廣仏華嚴經(自卷第七十二至卷第八十)≫이 일부 합본이라는 점, 省略本이라는 점, 楮紙·無界라는 점, 紙數表記에 '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볼 때 奈良時代의 寫經이 아닌 통일신라 내지는 고려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적을 받은 【小林芳規 2008-1～4】는 東大寺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同經(自卷第十二至卷第二十)이 이와 僚卷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여기에는 확실하게 신라어와 신라 훈독 부호가 角筆로 기입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訓点의 일종인 오코토(ヲコト)점, 返讀点, 구기리후(句切り符, 역주 : 단락 구분 기호), 合符의 원류가 신라에 있다고 【小林芳規 2002d】는 추측하고 있다.

이 외에 皇龍寺에서 이루어졌던 백 명의 승려가 일제히 ≪仁王經≫을 독송하여 외적의 침공과 내란을 막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百座講會가, 신라에서는 眞平王 35년(613)에 처음으로 보이고, 憲康王 2년(876) 이후에는 즉위 의례의 하나로서 1대에 한번 실시되는 흐름이 있지만【濱田耕策 1982-34】, 이것과 일본 仁王會와의 관계는 향후의 과제이다.

제3절 正倉院 보물 속의 신라 문물

1. 물품

正倉院 보물에 대해서는 "실크로드의 발착역이 長安이라고 한다면 正倉院 寶庫는 제2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본과 마찬가지로 唐 문화권에 속하는 신라 문물의 전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正倉院事務所 1978-8】. <國家珍寶帳>에 기재된 2대의 '金鏤新羅琴'은 弘仁 14년(823)에 出藏되어 버렸지만 동년에 소장된 다른 2대의 新羅琴(<雙倉雜物下帳>에 '相替施入'이라고 보임)은 현존하고 있고【荒川浩和 1981, 木內武男 1981, 成瀨正和 1991, 定森秀夫 1999】, 또 마찬가지로 <國家珍寶帳>에 기재된 "銀平脫合子四合(各納棊子)"도 이전에는 백제 義慈王이 보내온 감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국 義慈王이 內大臣 藤原鎌足에게 보낸 赤漆槻木

감실 一口는 현존하지 않고 同帳에 실린 '百濟畵屛風'도 현존하지 않는다. 이 외에 여러 가지 藥帳에 '新羅羊脂'가 보이는데 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28]. 이 외에는 【松島順正 1978-169】에 '新羅楊家上墨' '新羅武家上墨'이라고 채록되어 있는 2점의 신라墨이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正倉院 보물 중에 있는 신라 문물에 대해서는 【鈴木靖民 1982a】의 개론이 있고 [29], 상기의 것 이외에 아래와 같이 소개하는 것이 있다.

① 南倉의 佐波理鋺·佐波理加盤(여러 겹으로 되어 있음, 重鋺)은 佐波理重鋺 속에 한 반도의 고문서 같은 것(후술을 참조)이 부속되어 있다는 점【關根眞隆 1969, 中野政樹 1976-19, 鈴木靖民 1977】에서 신라에서 온 물건으로 보인다.[30] 문서는 그 형태로 보아 처음부터 있는 鋺과 鋺 사이에 접어서 끼워져 있었을 것이다【鈴木靖民 1977】. 天平勝寶 5년(753) 6월에 '檢定'했다는 墨書가 있으므로 天平勝寶 4년에 왔던 金泰廉 일행이 지참했던 것을 東大寺가 한꺼번에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고【關根眞隆 1969】, 佐波理皿·鋺에는 물감 접시로 화공·經師가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점을 보면, 造東大寺司가 일괄 구입했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鈴木靖民 1977】. 단, 【中野政樹 1981】은 문서가 부속되어 있던 세트는 다른 것과 비교하면 대형이기 때문에 正倉院의 모든 佐波理鋺이 신라제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한다. 그리고 雁鴨池에서 출토된 鋺과 접시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중국의 陝西省 등의 유적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것이 출토되고 있음)【李蘭暎 1983-382·388】, 숟가락 세트도 雁鴨池 출토품은 正倉院 보물과 비슷하다【李蘭暎 1983-391】.

② 南倉의 佐波理皿의 針銘[31] 중에는 '爲水栖'(22번 6호)이 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인명과 관명에 사용되는 乃末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새겨진 단계에 문제는 있지만 신라에서 온 물건이든지 신라인이 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佐波理 주조 제품인 加盤은 전부 86組 436口가 있고(佐波理蓋·承盤 각 2개를 포함), 佐波理皿은 700口 및 16口에 상당하는 殘欠이, 佐波理匙(南倉45)는 18束 345枚가 있고, 이외에 鋺, 水瓶, 合子 등도 있는데【中野政樹 1976-8～9】, 이 중에서 숟가락은 円匙·長匙 2

28) 延曆 6년, 弘仁2년의 寶庫開檢目錄에는 보이고 있다.
29) 이 외에 【鈴木靖民1990, 1997】도 참조.
30) 그리고 佐波理加盤의 명문 일람은 【柳雄太郎1976】에 게재되어 있음.
31) 일람은 【柳雄太郎1976】에 게재되어 있음. 그리고 佐波理皿의 명문에서는 '埊(地)'의 則天文字를 볼 수 있다(36番1～5의 바깥 면).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상황이 雁鴨池의 출토 상황과 동일하다【中野政樹·李蘭暎 1978-81, 鈴木靖民 1977-389】.

③ 南倉 33의 金銅剪子(가위)는 그 형상이 雁鴨池에서 출토된 촛대용 가위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신라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金東賢 1976, 中野政樹 1976-19, 鈴木靖民 1977-388, 中野政樹 1978-79】.

한국에서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진전되면서 그 결과 正倉院 문물 속에서 신라와 관련이 깊은 것이 발견되는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河田貞 1981】.

그리고 正倉院 보물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문물이 한반도에서 온 것이라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① 法隆寺 헌납보물 중에서 水瓶·塔鋺·脚付鋺·蓋鋺·鋺·加盤(重鋺)·托子·匙·柄香爐가 있고【阪田宗彦 1974】, 7세기 말~8세기 초기 재건 당시에 묻은 法隆寺五重塔心礎出土鋺도 佐波理에 가깝다. 단, 【鈴木靖民 1977-384~7】는 그 산지에 관해서는 국내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②【尾崎喜左雄 1964】는 群馬縣의 많은 고분에서 출토되는 佐波理는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 같다고 한다.

③ 貞觀 13년(871)의 <安祥寺資財帳>에 기입되어 있는 疊子·五盛埦·閼伽盌·塗香盤·円匙에는 '신라'라는 주석이 달려있어서, 이것들은 同帳에서 말하는 '新羅商客'에게서 매입한 물건이라고 생각된다【東野治之 1974-334】.

④ 平城宮에서는 花形와 葉形의 문양을 틀로 눌러서 찍고, 녹색의 유약을 바른 신라제 도기의 파편이 출토되었고, 西市에서 가까운 금속 공방 유적의 토광에서 신라제 長頸甁의 청회색 파편도 출토되었다【千田剛道 1996-210, 2006】.

이 외에 전국에서 출토되고 있는 신라제 문물에 대해서는 【江浦洋 1988, 1992, 1994】 등에서 집대성이 시도되고 있지만 지금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長屋王邸 등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도 '신라'라는 말이 보이고 있고(≪木簡硏究≫ 12-22, ≪平城京發掘調査出土木簡槪報≫ 17-19, 27-13, 32-22), ≪万葉集≫ 卷3-460·461 左註에서 보이는 신라 尼僧인 理願과 같이 귀화 내지는 都京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의 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鈴木靖民 1997-209~218, 2007-61~2】.

2. 문서

우선 이른바 '신라 촌락문서'에 대하여 보자. 1933년 10월에 正倉院 中倉 계단 아래의 中棚에 수납되어 있던 13매의 經帙 중에서 파손 수리를 위해 해체된 華嚴經論帙의 布心에 발라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신라 촌락문서'는 【野村忠夫 1953】에 의해 학계에 소개된 이후 많은 연구가 거듭되어 왔다. 이러한 硏究史는 1986년 단계까지는 【濱田耕策 1986】가, 2003년 단계까지는 【宋浣範 2003】 및 【尹善泰 2003】가 정리했다[32]. 지금 그 내용을 분석 중인 것[33]을 제외하고 작성 연차와 전래 경로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만 소개하자면, 우선 【旗田巍 1958·59】는 '烟受有田畓'을 ≪三國史記≫ 聖德王 21年(722)條의 '始給百姓丁田'의 丁田이라고 해석하고 문서 속의 '乙未年'을 755년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하여 【武田幸男 1976】는 ≪三國史記≫ 景德王 16年(757) 3月條의 "除內外群官月俸, 復賜祿邑"에 주목하고 본 문서는 內省 내지는 內省의 관직에 지급된 祿邑 관계 문서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815년설을 제창했고[34], 이것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통설로 되어있다. 이 외에 【李弘稙 1954】의 875년 가능성설도 있다.

이에 대하여 【尹善泰 1995, 1996, 1998, 2000ab】는 ① 744년~758년 사이에 唐·신라에서는 '年' 대신에 '載'가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壹月'이라는 표기는 695년~700년 사이에만 사용되었다는 점, ③ 帙로 사용되었던 華嚴經論은 7帙 이상이었기 때문에 唐의 李通玄(635~730 혹은 646~740)이 新譯華嚴經 80卷에 주석을 단 40卷이 아닌, 北魏의 靈弁이 舊譯華嚴經 60卷에 주석을 단 100卷본을 가리키며 한반도 계통 華嚴經을 일본에 가져온 審祥(736년에는 일본에 있었음, 751년경에 사망)이 소지하고 있던 華嚴經論 65卷(≪大日本古文書≫ 10卷 278p, 同 17卷 129p)과의 관련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점, ④ 그리고 문서 속의 西原京은 685년에 설치된 것이니, 그 이후라고 보면, 乙未年은 695년에 해당한다는 설을 제창하고 있다. '載'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755년설을 부정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해당 華嚴經論帙이 審祥의 소장본이었다는 확증은 없고【李仁哲 2001-73~5】, 또 【木村誠 2004-99~100】는 '壹月'의 설명

32) 이 외에 【金壽泰 2001, 李文基 2002】가 있음.

33) 【崔吉成 1960, 虎尾俊哉 1974ab, 明石一紀 1975ab, 木村誠 1976, 兼若逸之 1976·1979ab·1980, 濱中昇 1982·1983, 李宇泰 1983, 兼若逸之 1984ab, 濱中昇 1985·1986, 安部井正 1989, 李泰鎭 1990, 濱中昇 1993, 李仁哲 1993, 李宇泰 1993, 李喜寬 1994】등 다수.

34) 【李弘稙 1954, 田鳳德 1956】도 同年說에 들어간다.

에 대해서는 尹善泰 설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祥瑞記事의 집중을 근거로 신라에서는 803년에 周正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위해 '壹月'라고 하는 표기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전히 815년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외에 則天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尹善泰 설을 비판하는 견해를 【金壽泰 2001-15, 李仁哲 2001-77～8】에서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佐波理加盤 부속문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宮內廳 正倉院事務所編 ≪正倉院의 金工≫(日本經濟新聞社, 1976년)에 게재된 図版(銘文図版33)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正倉院 南倉에 소장되었던 문서로 全45組의 佐波理(동·주석·은 합금) 加盤(크기가 다른 같은 모양의 기물을 차례로 포개어 넣는 식기에 뚜껑을 덮은 것) 중에서 제15호 四重鋺의 제4호 鋺 속에 들어있던 것이다. 【柳雄太郎 1976-121】에서 해설(단, 釋文은 달지 않음), 【鈴木靖民 1977, 1978】에서 釋讀을 한 연구가 있다. 鈴木에 따르자면, ① 본 문서에는 吏讀가 사용되고 있고, ② 곡류의 계량단위를 石·斗·刀로 나타내고 있고 또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고려 중엽 이전의 것이며, ③ 巴川村은 李朝 이전에 4곳이 있고 어느 곳인지 결정하긴 어렵고, ④ 표는 馬肉을 바친 것과 尾를 바쳤으나 오염되었다는 것과 巴川村의 정월에서 3월까지의 上米·大豆의 수량을 기술한 것이고, 뒷면은 '永忽知乃末' 이하 3명의 上米·丑의 수량과 그 수령 유무를 기록한 것이며, ⑤ 인명·관명 같은 것(永忽知杂, 六直杂, 奮米山奮은 그 상한이 眞平王代, 하한이 高麗초기이다. 해당 문서에 관해서는, 【中野政樹·李蘭暎 1978-81～2】에 출납장의 한 장일지도 모른다는 李蘭暎의 언급이 있고, 【尹善泰 1997】 등의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買新羅物解(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 그 외에 대하여 보자. 【鬼頭淸明 1969】가 모두 신라 관계라고 지적했던, 鳥毛立女屛風의 초배지로 사용되었던 문서인데, 【東野治之 1974】에 따르자면 正倉院과 일부는 尊經閣에도 소장되어 있는 비슷한 문서(원래는 右図의 초배지 중 일부인가)와 一群의 것으로 天平勝寶 4년 6월 중순～하순의 날짜가 적혀있으며, 향료·약물·안료·염료·금속·기물·생활용품 등의 품목을 열거하고, 그 가격을 絁·絹·糸·綿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天平勝寶 4년에 일본에 온 왕자 金泰廉 이하 신라 사절들이 배에 싣고 온 물건들을 둘러싸고 구입을 희망하는 五位 이상의 귀족 계급에서 아마도 內藏寮에게 제출했던 買新羅物解이다. 향료·약물·안료 등 중에는 중국·동남아시아·서역·인도 등이 산지인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는 신라에 의한 중계무역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러 종의 약물·松子, 佐波理製의 鋺·盤과 氈은 신라의 특산품이다. 이 문서에 관해서는 이 외에 【金義煥 1982～1984, 杉本一樹 1990, 皆川

完一 1994, 李成市 1997-제1～3장】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關根眞隆 1975, 1982】은 해당 문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교역품이라는 생각과 함께 신라의 조공품을 팔려고 내놓았을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東野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이 외에 北倉에 보관되어 있던 花卉長方氈과 紫色氈에는 각각 '行巻韓舍価花氈一/ 念物得追于' '紫草娘宅紫称毛一/ 念物糸乃綿乃得/追于' '今綿十五斤小/ 長八尺 廣三尺四寸'(異筆) '라고 하는 墨書가 있고, 麻布로 만든 小箋이 붙어있다. 이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신라의 문자라고 【藤田亮策 1954】 등이 추측했었고, 또 본래 각각의 氈에 부속되었던 것이라는 것도 기재된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다.【東野治之 1977】은 念物이란 교역품의 의미로 후자는 糸이나 綿과 교역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에 대하여 綿十五斤이라고 하는 대가가 기록된 것이고, '行巻韓舍' '紫草娘宅'는 판매자나 제조업자의 상호일 것이다. '新羅墨'(前述)을 참조하면 당시의 신라에서 대외교역을 고려한 수공업 생산이 관인과 제조업자 하에서 전개되고 있었고 내외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상인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본 문서에 관해서는 이 외에 【李成市 1998, 尹善泰 1997b】 등의 연구가 있고, 李成市는 '念物'을 희망품이라고 고쳐 해석하여 신라의 귀족이 일본과의 교역을 전제로 그 名義와 가치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교역 희망품의 획득을 지시하기 위한 짐의 꼬리표로 오늘날의 전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고, 內省管下의 官司인 倭典에서 작성하여 그것을 毛氈에 꿰매어 부착해 일본에 반입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제4절 平安時代 일본과 신라의 관계

1. 신라 상인의 내항

신라에서는 780년 惠恭王 부부가 살해된 이후 下代라고 불리는 동요·쇠퇴기에 들어선다【北村秀人 1982b, 李成市 2000, 武田幸男 2000】. 寶龜 10년(779)의 사절을 마지막으로 신라는 일본에 사자를 보내지 않게 되고, 일본이 遣唐使 왕래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자를 모욕하는 등 일본과 신라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단, ≪三國史記≫ <新羅本紀> 哀莊王 4年(803) 7月條에는 "與日本國交聘結好", 또 同

5年 5月條에는 “日本國遣使, 進黃金三百兩”이라고 나온다. 전자는 延曆의 遣唐使 파견에 즈음하여 아마도 해안에 도착했을 때의 보호를 의뢰하는 것을 使命으로 延曆 22년(803) 3월에 신라로 파견된 齋部浜成(宮內廳書陵部藏明應本 ≪古語拾遺≫ 識語)의 교섭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石井正敏 1986】, 후자는 다음 해의 遣唐使가 재출발한 후 慰勞詔書가 아니라 太政官牒을 가지고 가서 使人의 보호를 요청한 遣新羅使 大伴岑万里의 일(≪日本後紀≫ 延曆 23年 9月 18日條)을 가리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濱田耕策 1979-140～141】은 여기에 드디어 일본이 신라가 주장하는 대등한 예로 대하는(亢禮) 隣國으로서의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그 배경으로 일본에서 율령제가 동요되고 있던 상황을 들고 있지만[35], 이러한 遣新羅使는 遣唐使의 항로상 안전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太政官牒을 가지고 간 것이 나타내듯이 국서를 교환하는 국교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의하면 哀莊王 7년(806) 3월에도 “日本國使至, 引見朝元殿”, 9년 2월에도 “日本國使至, 王厚禮待之”라고 나와 있는데, 대응하는 일본 측의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36].

실제로 파견되었던 마지막 遣唐使였던 承和의 遣唐使 파견에 앞서 承和 3년(836)에도 遣唐使가 신라에 도착했을 경우에 보호와 송환을 ‘告喩’하기 위한 遣新羅使로서 紀三津이 파견되고 있는데, 이 때 紀三津의 말과 지참했던 太政官牒과의 모순(아마도 후자는 거만했었기 때문일 것이다)에 대해 책망하고, “恕小人(＝紀三津)荒迫之罪, 申大國(＝신라)寬弘之理. 方今時屬大和, 海不揚波. 若求尋旧好, 彼此何妨”이라며 신라의 大國 의식을 선양하는 내용의 執事省牒을 부여하여 되돌려 보낸다 ≪續日本後紀≫ 承和 3年 12月 丁酉條)[37].

한편 사적인 교류에 눈을 돌려보면, 奈良時代부터 平安時代 초기에 걸친 신라인 漂着者들에 대한 처우의 변화【山內晋次 1990】가 후에 여러 차례 오는 신라 상인에 대한 조

35) 단, 【濱田耕策2000c-266】에서는 일본 측이 대신라 외교자세를 개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도, 【濱田耕策 2000c-267】에서는 신라는 발해와 일본을 ‘交聘’國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확립했다고 하고 있어서 관점이 흔들리고 있다.

36) 【森克己 1964】는 이러한 사례를 大宰府의 官人과 西日本의 상인의 사적인 통교라고 보지만, 【山內晋次 1990-106】는 이 외에 景文王 4년(864), 憲康王 4년(878), 同 8년의 사례를 포함하여 표류민 송환을 위한 使者였을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37) 9세기에 3번 파견한 遣新羅使에 관해서는 【石井正敏 1987】을 참조. 紀三津사건에 대해서는 【西別府元日 2000, 山崎雅稔 2007】이 있고, 西別府는 장보고의 세력 등 동아시아의 多島海에서 활동하는 교역자(‘島嶼之人’ ‘商帆’)의 존재가 신라 정부의 의심을 고조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치의 전제로서 주목된다. 寶龜 연간부터 다음에 거론하는 承和 9년(842)에 藤原衛의 奏上이 있기까지의 시기에는 '歸化'와 '流來'의 구별에 따라 신라인 漂着民에 대한 처우가 결정되었고, 전자는 종래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후자에 대해서는 '放還'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 조치의 유래는 ≪續日本紀≫ 寶龜 5年(774) 5月 17日條(≪類聚三代格≫ 卷18에도 동일 날짜의 太政官符 '應大宰府放還流來新羅人事'를 수록)에 나오는 아래의 勅이다.

> 勅大宰府曰. 比年新羅蕃人, 頻有來著. 尋其緣由, 多非投化. 忽被風漂, 無由引還留爲我民, 謂本主何. 自今以後, 如此之色, 宜皆放還以示弘恕. 如有船破及絶粮者, 所司量事, 令得歸計.

이 이전에는 漂着者에 대해서 新羅使가 귀국할 때 같이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도착 시점에 '放還'시키는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칙명에 의해 '流來'와 '歸化'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후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었다. 실제로 9세기에도 弘仁~天長 연간에 걸쳐서는 다수의 신라인이 '歸化'한 사례가 알려져 있고【佐伯有淸 1964, 奥村佳紀 1971】 이와 함께 송환이 실시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日本後紀≫ 弘仁 2年(811) 8月 12日條, 同 弘仁 3年 3月 1日條, 同 弘仁 3年 9月 9日條).

【山內晋次 1990-75】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당시의 일본과 신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 본의 아니게 표착하게 된 자를 일본 국내에 머물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의식하게 된 것과 신라에서 온 표착민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상위자로서의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日本後紀≫ 弘仁 4年(813) 3月 18日條 逸文(≪日本紀略≫)에는

> 大宰府言. 肥前國司今月四日解稱. 基肆団校尉貞弓等, 去二月廿九日解稱. 新羅一百十人駕五艘船, 着小近嶋, 与土民相戰, 卽打殺九人, 捕獲一百一人者. 又同日解稱. 新羅人一淸等申之. 同國人淸漢巴等, 自聖朝歸來. 云々. 宜明問定, 若願還者, 隨願放還. 遂是化來者, 依例進止.

라고 하여, 5척의 배에 탄 신라인 110명이 五島列島에 상륙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중 9명을 죽이고 나머지를 체포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점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아마도【北村秀人 1982b, 生田滋 1991】가 서술하는 것과 같은 국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라에서 온 유입자가 8세기 말부터 증가 추세에 있었고, 특히 北部 九州에서는 신라와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平野卓治 1996】이 실제로 이 시기의 신라에서는 반란·기아·역병이 빈발하고 주민의 해외 도피가 많아져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田中史生 1997-216～219, 239～240】은 寶龜 5년의 시점에서 이미 교역을 목적으로 한 來航者가 섞이게 되어 좀 전의 칙령은 국가 간의 교역 이외의 국제교역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당시 실제로 교역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논거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런데 9세기의 전반에는 신라 상인이 일본에 오는 일이 빈번하게 보이게 된다. 【田中史生 1997-236~7, 西別府元日 2000】은 ≪日本後紀≫ 延曆 18年(799) 5月 13日條에,

> 前遣渤海使外從五位下內藏宿祢賀茂麻呂等言. 歸鄉之日, 海中夜暗, 東西掣曳, 不識所著. 于時遠有火光. 尋逐其光, 忽到嶋濱. 訪之, 是隱岐國智夫郡. 其處無有人居. 或云. 比奈麻治比賣神常有靈驗. 商賈之輩,漂宕海中, 必揚火光. 賴之得全者, 不可勝數. 神之祐助, 良可嘉報. 伏望奉預幣例. 許之.

라고 나오는 '商賈之輩'를 隱岐 근해라고 하는 위치에서 봤을 때 일본해를 무대로 국가 간 교역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국제교역자라고 추측하고 있다. '신라 상인'이라고 명기된 자가 일본에 온 첫 사례는 ≪日本後紀≫ 弘仁 5年(814) 10月 丙申條의 "新羅商人卅一人, 漂着於長門國豊浦郡"에서 보이지만, 【榎本涉 2007-93～4】는 ≪日本後紀≫ 逸文(≪日本紀略≫) 弘仁 9年(818) 正月 13日條의 "大宰府言. 新羅人張春等十四人來獻驢四"에서 보이는 張春과 同逸文(≪日本紀略≫) 弘仁 11年(820) 5月 4日條의 "新羅人李長行等進羖羼羊二, 白羊四, 山羊一, 鵞二"에 보이는 李長行도 아마 海商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일본 정부의 대응은 "若願還者, 隨願放還. 遂是化來者, 依例進止"(앞의 ≪日本後紀≫ 弘仁 4年(813) 3月 18日條), 또 ≪日本後紀≫ 逸文 弘仁 5年(814) 5月 9日條(≪日本紀略≫)에,

> 新羅王子來朝之日, 若有朝獻之志者, 准渤海之例. 但願修隣好者, 不用答禮, 直令還却. 但給還粮.

라고 나와 있듯이 국가적 외교와 그 외의 來航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그 주된 대상은 신라 상인이었고【石上英一 1984】, 그들에게 大宰府에서의

관리 교역을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었다【西別府元日 2000】. 天長 8년(831)에는 다음과 같이 신라 상인과의 교역 제한령이 내려질 정도가 된다.

> 太政官符
> 應檢領新羅人交關物事
> 右,被大納言正三位兼行左近衛大將民部卿淸原眞人夏野宣偁. 奉勅, 如聞, 愚闇人民, 傾覆櫃逮, 踊貴競買. 物是非可鞫遺, 弊則家資殆罄. 耽外土之聲聞, 蔑境內之貴物. 是實不加捉搦所致之弊. 宜下知大宰府, 嚴施禁制, 勿令輒市. 商人來着, 船上雜物一色已上, 簡定適用之物, 附驛進上, 不適之色, 府官檢察, 遍令交易. 其直貴賤, 一依估価. 若有違犯者, 殊處重科,莫從寬典.
> (≪類聚三代格≫卷18 天長 8年 9月 7日 太政官符)

이 官符에 의하면 신라 상인이 가져오는 물품은 매우 호평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고가에 매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大宰府에 명하여 우선 조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京都에 진상시키고, 그 후에 大宰府 官人의 감독 하에 공정 가격으로 사적 교역을 허하도록 하게 되었다【石井正敏 1988, 田中史生 1997-241~2】. 결국 이는 그때까지 외국에서 오는 사절과의 교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던 규정을 신라 상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弘仁 연간의 방침을 제도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渡邊誠 2003】.

이러한 신라 상인의 활발한 교역활동과 그에 대응하는 일본 측의 무역 통제 강화의 배후에는 靑海鎭 大使 장보고의 활동이 있었다[38].

2. 장보고와 入唐僧

장보고의 업적에 대해서는 【日野開三郞 1960~61】을 비롯하여 특히 【蒲生京子 1979, 石井正敏 1988, 堀敏一 1998a, 濱田耕策 1999, 李基東(近藤浩一譯) 2001, 千田稔 2003, 田中史生 2005, 2007, 黃純艷 2008-332】 등의 연구가 있고, 신라 국내에서의 세력 신장과 붕괴 과정 및 대일 무역의 전개 양상이 검토되었다.

장보고(弓福·弓巴라고도)는 唐에서 徐州의 武寧軍 節度使의 부하인 軍中小將이라고 하는 군직에 있었고 귀국 후에는 莞島를 근거지로 하여 해상활동을 전개한다. 그는 天長

38) 【山崎雅稔 2001a-5】은 이때에 정비된 장보고와 大宰府 간의 日羅무역을 '靑海鎭－鴻臚館貿易'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榎本涉 2007-93】이 지적하듯이 이 무역은 日羅 사이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원년(824)에 일본에 온 적이 있었던 것 같고(≪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5年 9月 22日條), 【李炳魯 1993】은 이 시기부터 장보고는 大宰府 管內에 거주하며 교역 활동을 하고 있던 在日 신라인을 세력 하에 두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에서는 810년 전후부터 唐, 특히 山東半島로의 인신 掠賣가 극성이었기 때문에, 828년(天長 5년)에 唐에서 귀국한 장보고는 이를 진압하여 막기 위해 신라 興德王에게 청원을 하여 靑海鎭大使에 임명되어 이미 在唐新羅人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李炳魯 1993】, 신라·일본·唐의 3국간 교역을 통괄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라의 閔哀王 2년(839)에는 그에게 의탁하고 있던 金祐徵을 받들어 반란을 일으켜 閔哀王을 치고 金祐徵을 神武王으로 즉위시킨다. 그 다음해인 承和 7년(840)에는

> 大宰府言. 藩外新羅臣장보고, 遣使獻方物. 卽從鎭西追却焉. 爲人臣無境外之交也.
> (≪續日本後紀≫ 承和 7년(840) 12月 27日條)

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 太政官仰大宰府云. 新羅人장보고, 去年十二月進馬鞍等. 寶高是爲他臣. 敢輒致貢. 稽之旧章, 不合物宜. 宜以禮防閑, 早從返却. 其隨身物者, 任聽民間令得交關. 但莫令人民違失沽價, 競傾家資. 亦加優恤, 給程粮, 並依承前之例.
> (≪續日本後紀≫ 承和 8年(841) 2月 27日條)

라고 일본에 통교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종래에 신라상인에게서 받고 있던【奧村佳紀 1971, 李侑珍 2004】 貢獻物 수납도 거부되고 단지 교역만은 인정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장보고가 이러한 요청을 했던 배경으로는 그때 쯤 이미 장보고는 지위의 안정을 외부 권력에 요구해야만 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다【山崎雅稔 2001a-5, 森公章 2008b-224～225】.

그 후에 장보고는 山東半島의 동쪽 끝에 설치된 新羅坊에 赤山法華院을 조영하고 있고(≪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4年〈承和 6年, 839〉 6月 7日條), 承和 遣唐使의 일원으로 唐에 간 후 唐에 남아있던 円仁은 開成 5년(840) 2월 17일, 靑海鎭 大使(장보고)에게 法華院에서 체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대한 인사와 출국 시에 筑前守小野末嗣가 장보고에게 보낸 서한을 唐土를 목전에 두고 배가 침몰했을 때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죄를 하는 서한을 보냈다(≪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5年〈承和 7年, 840〉 2月 17

日條). 이것으로 보아 장보고와 大宰府 근방의 官人들과의 사이에는 사적인 통교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고, 그것은 뒤에 나오는 文室宮田麻呂에 의한 화물 억류 사건에 의해 보다 분명해 진다.

그리고 承和의 遣唐使 자신도 동승하고 있던 신라 통역 金正南의 활약으로 9척의 신라 배를 수배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겨우 귀국할 수 있었다. 唐에 잔류하여 후에 마찬가지로 신라 배로 귀국한 円仁에 대해서는 그의 일기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대한 【Reischauer 1955·1963, 小野勝年 1964】, 그리고 【白化文·李鼎霞·許德楠 2007】등의 주석적 연구와 【足立喜六譯注 1970·1985】가 한문을 훈독하여 일본어의 순서대로 읽고 주를 달았고, 【深谷憲一 1990】의 현대어 번역문에서 円仁과 신라인과의 교섭을 언급하고 承和의 遣唐使 전반을 다룬【佐伯有淸 1978】과, 【石井正敏 1979·1985·1994, 金文經 2001, 酒寄雅志 2005】 등의 연구에서 円仁과 장보고를 포함하는 신라인과의 교류가 검토되었다[39]. 특히 신라 譯語라고 불렸던 劉愼言(楚州新羅譯語, 후에 新羅坊惣管), 張詠(登州新羅通事, 勾當新羅所押衙平盧軍節度同十將), 金正南(第1船 新羅譯語), 道玄·朴正長(모두 第2船 新羅譯語)에 대해서는 【坂上早魚 1988】이 있고, 그리고 円仁이 山東半島에서 귀국한 후에 勸請했다고 하는 新羅明神에 대해서는 【辻善之助 1915】이래 많은 논고에서 다루고 있다[40].

장보고는 神武王의 아들 文聖王(재위 839~857)의 후궁으로 딸을 들여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반란을 일으켜 841년 11월에 암살된다. 이미 承和 8년(841) 3월 28일에는

> 詔曰. (중략)大宰府者, 匪亶古來鎭遏之區, 兼復当時怪見之地也. 最須先愼以備不虞. 布告遐邇, 俾知朕意.

또 承和 8년(841) 8월 19일에는

> 以大宰府曹百四口充對馬嶋. 兼充防人.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날에는

39) 오래된 연구로는 【今西龍 1933, 那波利貞 1954~6, 日野開三郎 1960, 內藤雋輔 1961】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佐伯有淸 1964, 新川登龜男 1993】도 참조.

40) 【春山武松 1931, 倉田文作 1963, 岩佐貫三 1965, 宮井義雄 1992, 伊東史朗 1996, 高梨純次 1998, 山本勉 1998, 黑田智 2001, 宮家準 2002】등.

> 勅曰. 聞. 下大宰府驛傳官符幷彼府言上解文, 路次諸國·長門關司等, 每各開見. 縱國裏機急, 境外消息, 不可必令万民咸知. 而解文委曲未來京華, 下符辭狀無達宰府, 載記之旨諠譁民間, 途說之輩滿溢內外. 寔是專輒開見所致之漸也. 宜告山陽道諸國司更莫令然. 亦四畿六道之內, 指一ケ國所下之符, 同無令開.

라고 나와 있는 점으로 보아(모두 ≪續日本後紀≫, 또 ≪類聚三代格≫ 卷17 承和 8년 8월 20일 官符 '應禁止開見驛傳馬符幷言上解文事'도 참조), 【山崎雅稔 2001a-6】은 장보고의 세력이 안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정보가 일본에 상당히 빨리 전달되어, 이에 대한 정보 관리의 강화를 포함한 현실적인 대응을 꾀했었던 것이라고 한다. 장보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술되어 있듯이 承和 9년(842) 정월에는 일본 정부가 알게 되었다.

> 新羅人李少貞等卌人, 到筑紫大津. 大宰府遣使問來由. 頭首少貞申云. 장보고死, 其副將李昌珍等欲叛亂, 武珍州[別駕인지]列賀閣丈興兵討平, 今已無虞. 但恐賊徒漏網, 忽到貴邦, 擾亂黎庶. 若有舟船到彼不執文符者, 並請切命所在推勘收捉. 又去年廻易使李忠·揚円等所齎貨物, 乃是部下官吏及故장보고子弟所遺, 請速發遣. 仍齎閣丈上筑前國牒狀參來者. 公卿議曰. 少貞曾是寶高之臣, 今則閣丈之使. 彼新羅人, 其情不遜. 所通消息, 彼此不定. 定知, 商人欲許交通, 巧言攸稱. 今覆解狀云. 李少貞齎閣丈上筑前國牒狀參來者. 而其牒狀無進上宰府之詞, 無乃可謂合例. 宜彼牒狀早速進上. 如牒旨無道, 附少貞可返却者. 或曰. 少貞今旣託於閣丈, 將掠先來李忠·揚円等. 謂去年廻易使李忠等所齎貨物, 乃是故寶高子弟所遺,請速發遣. 今如所聞, 令李忠等与少貞同行, 其以迷獸投於餓虎. 須問李忠等, 若嫌与少貞共歸, 隨彼所願, 任命遲速. 又曰. 李忠等廻易事畢, 歸向本鄕. 逢彼國亂, 不得平著, 更來筑前大津. 其後於呂系等化來云. 己等장보고所攝島民也. 寶高去年十一月中死去, 不得寧居. 仍參着貴邦. 是日, 前筑前國守文室朝臣宮田麻呂, 取李忠等所齎雜物. 其詞云. 寶高存日, 爲買唐國貨物,以絁付賜, 可報獲物. 其數不尠. 正今寶高死, 不由得物實. 因取寶高使所齎物者. 縱境外之人, 爲愛土毛, 到來我境. 須欣彼情令得其所, 而奪廻易之便, 絶商賈之權. 府司不加勘發, 肆令幷兼. 非失賈客之資, 深表無王憲之制. 仍命府吏, 所取雜物, 細碎勘錄, 且給且言. 兼又支給粮食, 放歸本鄕.
>
> (≪續日本後紀≫ 承和 9年(842) 正月 10日條)

이 기사에서 筑前守였던 文室宮田麻呂(承和 9年(840) 4月 6日任)가 장보고에게 적지 않은 자금을 맡기고 唐國의 화물을 구입하려고 했던 점, 그런데 장보고가 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의 부하였던 李忠 등이 가지고 있던 재화를 압류했던 점, 그러나 그 행위는 일본 정부로부터 비판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大宰府 근방의 官人들에 의한 사적인 상행위가 발각된 것이다. 承和 10년(843) 12월에는 宮田麻呂가 모반 혐의로 고발당해 左右衛門府에 구금되고 죄를 한 단계 낮춰 주어, 본인은 伊豆國에, 두 아들은 각각

佐渡·土左國에 유배되었다. 貞觀 5년(863)에 神泉苑에서 개최된 御靈會에서는 그가 위령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그의 모반 사건은 무고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무고한 죄의 배후에는, 신라·唐과의 상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되고 있다[41]. 그리고 사건은 단순한 사교역 적발이 아니라(사교역 자체는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渡邊誠 2005, 森公章 2008b-227】과 같이 宮田麻呂는 중앙의 內藏寮에서 파견된 교역 담당 특사였는데 그가 화물을 계속 억류했고, 게다가 李少貞이 계속 大宰府에 체재했기 때문에 신라의 내정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內豎을 파견하여 藏人所에 소환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장보고의 서거에 따른 일본과 신라 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承和 9년(842) 8월, 大宰府의 사실상의 長官이었던 大宰大貳 藤原衛는 四箇條의 제안을 정부에 올렸다. 그 第1條는

> 新羅朝貢, 其來尙矣. 而起自聖武皇帝之代, 迄于聖朝, 不用旧例, 常懷姦心, 苞苴不貢. 寄事商賈, 窺國消息. 望請, 一切禁斷, 不入境內.

였다(≪類聚三代格≫ 卷18 承和 9년 8월 15일 官符. ≪續日本後紀≫ 同年 8月 15日條도 약간 字句의 차이가 보이지만 거의 같음【渡邊誠 2003】).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 德澤泊遠, 外蕃歸化. 專禁入境, 事似不仁. 宜比于流來, 充粮放還. 商賈之輩,飛帆來著, 所齎之物, 任聽民間令得廻易, 了卽放却. 但不得安置鴻臚館以給食.

으로 신라인이 오면 표류에 준하여 귀국시키고 귀화를 원하는 자도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역은 민간 교역만을 허가하지만(정부에서 매입은 하지 않음), 鴻臚館에서의 安置 공급은 인정하지 않고 거래가 끝나면 바로 귀국시킨다고 하는 것이었다【山內晋次 1990, 山崎雅稔 2001a-4, 渡邊誠 2003, 森公章 2008b-229】. 이 조치가 선택된 배경에는 군사적인 긴장과 신라와의 무역이 위기에 처하자 교역의 가능성을 남겨놓으면서도 신라국의 혼란이 일본 국내로 파급되는 것을 가능한 한 막으려고 했던 일본의 방침이 있었다고 추측되지만【石上英一 1984-262, 山崎雅稔 2001a-3～7】[42], 어찌되었든 여기서

41) 文室宮田麻呂 사건에 대해서는, 【戶田芳實 1967, 松原弘宣 1994, 1998-337, 1999, 李成市 1997-168～170, 山崎雅稔-1999, 保立道久2004】 등을 참조.

42) 【佐伯有淸 1964】는 여기에다가 신라인은 각지에 新羅坊을 두고 율령국가에 반항하는 경향이 있는 점, 및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있던 신라가 大國과의 관계를 반영한 排外思想을 추가로 거론

‘歸化’를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 자신이 명목상 국제사회 속에서 설정하였던 위치, 즉 德化思想을 동반하는 小中華思想의 포기라는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石上英一 1984-263】.

원래 일본 율령국가에 있어서 ‘歸化’는 당초부터 功利的인 관점에서 이용되어, 7세기 후반에는 다수의 신라·백제·고구려로 부터의 이민을 東國을 중심으로 하는 미개척지에 자리 잡고 살게 하여 선진 개발기술을 발휘시키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大津透 1987】.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中華思想에 준하여 王化를 우러러 일본에 온 자를 처우한다는 방침을 버리고 단순한 표착민은 국경을 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功利的인 관점에서의 선별이 노골적으로 발현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지만 弘仁 11년(820)에는

> 配遠江·駿河兩國新羅人七百人反叛. 殺人民, 燒屋舍. 二國發兵擊之, 不能勝. 盜伊豆國穀, 乘船入海. 發相模武藏等七國軍, 勠力追討, 咸伏其辜.

라는 사건이 일어나(≪日本後紀≫ 逸文 弘仁 11年(820) 2月 13日條(≪日本紀略≫) 귀화했다는 것으로, 일본 국내에 있던 신라인들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가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藤原衛의 起請 후 사료 상으로는 일본에 오는 신라 상인은 감소하고 그 대신에 ‘唐國상인’ ‘唐商’들이 증가한다[43]. 이에 대해서는 신라 상인과 唐 상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일본 측이 신라에 대한 경계를 강화시키고 唐에 거점을 두고 있는 海商과의 관리 무역을 추진하게 되었고【松原弘宣 1999, 渡邊誠 2003】, 한편 唐商 쪽도 신라인과의 연계와 唐 국내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과 교역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吳玲 1999, 李侑珍 2004, 田中史生 2007-5】 실제로 교

하고, 【松原弘宣 1999-380】은 신라 상인의 鴻臚館 安置를 거절하고 唐 상인과의 교역을 우선시했던 것은 신라 상인과 西海道 지방관과 호족들의 사교역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43) 遣唐使를 따라 오는 사람들 이외에 唐人의 來日가 처음 보이는 것은 ‘新羅人船’을 타고 온 ‘大唐 越州人 周光翰·言升則 등’이고(≪日本紀略≫ 弘仁 6年(815) 11月 壬戌條), 다음은 承和 원년에 大宰府에 있던 ‘唐人 張継明’이지만(≪續日本後紀≫ 承和 元年(834) 3月 丁卯條)【森公章 2008-212～213, 243】, 분명히 상인이며 표류하다가 온 것이 아닌 예로는, 承和 9년(842) 5월 5일에 博多를 출항하여 唐으로 돌아가는 ‘大唐商客’ 李處人(<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 ≪平安遺文≫ 164호)이 있으며, 일찍이 【森克己 1949-214】가 거론했던 같은 해에 일본에 오는 李麟德은 唐海商이라고 하는 확증이 없다【榎本涉 2007-82·92】.

역의 주체가 신라 상인에서 唐商으로 변화했다는 견해【山崎雅稔 2001a-7】이 있는 한편, 무역을 통한 이윤을 중시하는 현지 관인들이 來航者를 '唐人' '唐國商人'으로서 대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藤原衛의 起請 취지가 무시되었다는 견해【村上史郎 1999】, 혹은 唐海商이란 唐에서 일본으로 오는 海商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족적인 구분으로 말하자면 신라인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의 太政官符 이래에 불리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생겨났기 때문에 在唐 신라인이 의도적으로 唐海商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다고 하는 견해【黃約瑟 1993, 榎本涉 2007-87】이 있다. 실제로 仁壽 3년(853)에 당에 간 圓珍은 '大唐商人' 王超의 배를 같이 타고 갔다는 기술도 있는 한편(≪平安遺文≫ 102·103호에 "大唐商客王超·李延孝"라고 나옴), 王超를 신라 상인이라고 한 사료도 있고(≪平安遺文≫ 124호에 "新羅商主王超"라고 나옴), 또 ≪入唐求法巡禮行記≫ 大中 元年(847) 6月 9日條에 '新羅人'이라고 나온 金珍이 同記 承和 14年 10月 19日條에서는 '唐人 金珍'으로 나오는 등 이른바 唐 상인 중에는 실제로는 唐에 근거지를 둔 신라 상인이 포함되어 있었거나 唐 상인과 신라 상인이 동일 선단을 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小野勝年 1964-四-407～8, 渡邊誠 2003, 榎本涉 2007-82～85, 田中史生 2007-8, 森公章 2008b-239～240】. 이 점은 일찍이 李少貞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弘仁 11년(820)에는 唐人이라고 하는데(≪日本紀略≫ 弘仁 11年 4月 27日條에 "唐人李小貞等二十人漂着出羽國"이라함), 앞서 거론했듯이 承和 9년(842)에는 신라인이라고 되어 있다. 또 會昌 연간에 明州에서의 활동이 보이는 李鱗德도 최근에는 在唐 신라인이라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坂上早魚 1988, 龜井明德 1991, 金文經 2001, 李侑珍 2004, 田中史生 2007-9～11】. 현실적으로 출신지·출항지·거래처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어도 상인 자체의 국적과 민족적인 귀속 내지는 船籍이라는 개념은 大宰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長江이남 특히 明州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인의 居留區·교역 거점이 각지에 전개되어 있었던 것이 후대의 사료이기는 하나 중국의 地方志류에 여기 저기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만 하고【田中史生 2007-6～8, 黃純艷 2008】, 신라 국내의 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하여 신라인의 국외이주가 시도되어【濱田耕策 1999】, 唐人과의 협업도 8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서【榎本涉 2007-87～88】, 9세기 중엽에 신라 海商에서 唐 海商으로 세력이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에는 회의적이고, 신라 海商－唐 海商－吳越 海商－宋 海商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주류라고 할 수 있다【榎本涉 2007-86～91】.

단, 8세기의 신라와의 교역에서는 綿이 대가로 사용되고 있고, 9세기에 들어서도 앞에

서 다루었던 文室宮田麻呂는 대가로서 絁를 주고 있고, 신라 해적선도 貢綿船을 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에서는 綿(眞綿)과 絹 등의 섬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 ≪日本三代實錄≫ 元慶 元年(877) 12月 8日條에는

> 先是, 大宰府言. 資財·蕃客·遣唐使留置返上等四箇帳, 貢綿千一百五十二屯, 徒積庫底, 將致腐損. 請相博沙金五百七十二兩, 以爲永貯. 至是許之.

라고 나와 大宰府에 축적되어 있는 綿이 교역에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承和 9년 이후에도 민간과의 교역은 인정되고 있었지만, 藤原衛의 제의로 인해 신라 상인을 大宰府의 鴻臚館에 安置하지 않게 되고 綿을 이용하는 신라와의 공교역이 감소했던 것과 대응하고 있다는【皆川雅樹 2002-27～28】의 지적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공교역의 상대는 "大宰府馳驛言上. 大唐商人五十三人多齎貨物, 駕船一隻來著"(≪續日本後紀≫ 嘉祥 2年(849) 8月 4日條) 이래 명목상 唐商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松原弘宣 1999-366～368】. 그리고 일본 측에서 파악하는 호칭은 변화했다고 해도 일본의 수입품은, 예를 들어 도자기에 대해 말하자면, 신라제품이 아닌 唐제품이므로 수요의 중심은 唐 제품 내지는 唐에서 유통되고 있는 南海產品으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榎本涉 2007-93】.

承和 12년 말에는 "大宰府馳驛言. 新羅人齎康州牒二通. 押領本國漂蕩人五十余人來著"(≪續日本後紀≫ 承和 12年(845) 12月 5日條)라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靑海鎭 大使 장보고의 암살을 계기로 혼란 상태에 빠졌던 해상의 질서는 대충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大中 원년(847)에 귀국하기 위해 신라 배를 타고 있던 円仁은 한반도 서해안의 불온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서(≪入唐求法巡禮行記≫ 大中 元年 9月 6日條, 同 8日條), 신라 주변 해역의 수상 교통로는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고, 이를 계기로 在唐 신라인의 거점 자체가 江南지역으로 이동했고, 때마침 會昌廢仏의 영향이 조금 약했던 江南지역의 唐商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견해를 【田中史生 2007-16～26】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9세기 전반에 在唐 신라인들이 浙東·江蘇·山東·한반도·北部 九州에서 구축했던 동지나해 해역의 네트워크는 宋元시대의 海商에게 넘어가서 동지나 해역 상권으로 계속되었지만, 在唐 신라인 사회는 10세기의 吳越 때까지는 존속하나 고려의 무역통제로 인해 宋代가 되면 자취를 감추게 된다【榎本涉 2001, 2007-81～2, 90】.

그리고 藤原衛에게 있어서 신라는 이미 사실상 국교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본에 조공을 해야 하는 나라이며, 그 본래의 형태가 무너진 것은 8세기 전반의 聖武朝(724～749)이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쪽의 틈을 노리는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藤原衛가 가리키는 聖武朝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거론했던 일본과 신라와의 관계사를 참조해 보면, 앞서 거론했던 天平 7년 신라 국사가 자신의 本國을 '王城國'이라고 하여 귀국 조치를 당하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천황 서거로 인해 服喪 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신라사가 大宰府에서 귀국 조치에 처해진 적은 있었지만, 신라사의 언동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귀국 조치를 당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3. 貞觀 연간의 신라 해적선의 습격과 王土王臣思想

承和 12년(845)에는 앞서 거론했듯이 "大宰府馳驛言. 新羅人齎康州牒二通, 押領本國漂蕩人五十余人來着"(≪續日本後紀≫ 承和 12年 12月 5日條)라는 기사가 보이고 또 일본에 흘러들어온 신라인에 관해서도, "大宰府奏言. 新羅人卅人漂著此岸. 稟粮放歸"(≪文德實錄≫ 齊衡 3年(856) 3月 9日條), 또 "先是, 大宰府言. 新羅沙門元著·普嵩·淸願等三人, 着博多津岸. 至是勅安置鴻臚舘, 資給粮食, 待唐人船, 令得放却"(≪日本三代實錄≫ 貞觀 5年(863) 4月 21日條), 그리고 "因幡國言. 新羅國人五十七人, 來着荒坂濱頭. 略似商人. 是日, 勅給程粮, 放却本蕃"(≪日本三代實錄≫ 貞觀 5年(863) 11月 17日條), "先是. 去年新羅國人卅余人漂着石見國美乃郡海岸. 死者十余人, 生者廿四人. 詔國司給程粮放却"(≪日本三代實錄≫ 貞觀 6年(864) 2月 17日條)라고 나오고, 또 신라에서도

> 卯時, 到武州南界黃茅島泥浦泊船. 亦名丘草島. (중략)少時, 守島一人, 兼武州太守家投鷹人二人來船上, 語話云(중략)四月中, 日本國對馬島百姓六人, 因釣魚漂到此處. 武州收將去, 早聞奏訖. 至今勅未下. 其人今在武州囚禁, 待送達本國. 其六人中一人病死矣.
>
> (≪入唐求法巡禮行記≫ 大中 元年(847) 9月 6日條)

라고 나와 있듯이[44], 대체로 貞觀 연간 전반까지는 표류민의 상호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

44) 여기서 보이는 '囚禁'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山內晋次 1990-98】은 관청의 엄중한 감시 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당시의 일본과 신라 간의 긴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村上史郎 1998】은 일련의 송환 수속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下代 말기인 9세기 후반에는 국내의 혼란이 심각해져가고 아마도 그 정보와 관련된 형태로 貞觀 8년 이후 일본 관인과 신라와의 通謀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테면 貞觀 8년에는

> 大宰府馳驛奏言. 肥前國基肆郡人川辺豊穗告. 同郡擬大領山春永語豊穗云. 与新羅人珎賓長, 共渡入新羅國, 熹造兵弩器械之術, 還來將擊取對馬島. 藤津郡領葛津貞津·高來郡擬大領大刀主·彼杵郡人永岡藤津等, 是同謀者也. 仍副射手卌五人名簿進之.
>
> (≪日本三代實錄≫ 貞觀 8年 7月 15日條)

라고 나와 肥前國 諸郡의 郡領 급에 있는 자들이 신라와 通謀한 것을 동료가 고발하고 있다. 그 진위의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지만, 【田中正日子 1989】는 신라를 해적으로 간주하고 현해탄 주변의 해상 방비를 강화하려고 했던 大宰府에 대항하여 여기서 적발된 郡領氏族은 신라 상선과의 사적 교역 루트(有明海 루트)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이어 貞觀 8년 중에는

> 太政官論奏曰. 刑部省斷罪文云. 貞觀八年隱岐國浪人安曇福雄密告. 前守正六位上越智宿祢貞厚, 与新羅人同謀反造. 遣使推之, 福雄所告事是誣也. 至是法官覆奏. 福雄應反坐斬. 但貞厚知部內有殺人者不擧. 仍應官当者. 詔. 斬罪宜減一等處之遠流. 自余論之如法.
>
> (≪日本三代實錄≫ 貞觀 11年 10月 26日條)

라고 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어서, 隱岐國守와 신라와의 通謀에 관해서는 무고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지만 그런 무고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서 당시 신라와의 긴장관계를 엿볼 수 있다. 【松原弘宣 1999-384～385】는 越智貞厚를 仁壽 3년 2월 11일 大宰府牒(≪平安遺文≫ 102호)에 보이는 '大典越' '貞原'과 동일인물이라고 보고 원래 대외 교통에 대한 관여가 있었고 이에 대해 '浪人安曇福雄'은 그 姓을 보면 해상교통과 교역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양자의 이해가 대립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시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貞觀 11년(869)에 일어난 아래의 사건이었다[45].

---

45) 신라 해적 사건에 대해서는 【遠藤元男 1966, 平野邦雄 1970, 生田滋 1991, 山崎雅稔 2000, 2001】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大宰府言. 去月廿二日夜. 新羅海賊, 乘二艘, 來博多津, 掠奪豊前國年貢絹綿,卽時逃竄. 發兵追, 遂不獲賊.

(≪日本三代實錄≫ 貞觀 11年 6月 15日條)

사건에 경악했던 大宰府와 일본정부는

先是. 大宰府言上. 徃者新羅海賊侵掠之日, 差遣統領選士等, 擬令追討. 人皆懦弱, 憚不肯行. 於是調發俘囚, 御以膽略. 特張意氣, 一以當千. 今大鳥示其怪異, 龜筮告以兵寇. 鴻臚中島館幷津廚等, 離居別處, 無禦侮. 若有非常,難以應猝. 夷俘分居諸國, 常事遊. 徒免課役, 多費官粮. 請配置處分, 以不虞. 分爲二番. 番別百人, 每月相替, 交相駈役. 其粮者, 諸國所擧夷俘利稻之內, 每國令運輸, 以給其用. 至是,勅曰. 俘夷之性, 本異平民. 制御之方, 何用恒典. 若忽離旧居, 新移他土, 衣食無續, 心事反常. 則野心易驚, 遂致猜変. 宜簡典有謀略者, 令其勾当, 幷統領選士幹事者, 以爲其長. 勉加綏誘, 能練武衛. 設有諸國粮運闕如, 卽須府司廻撥支濟. 又以百人爲一番, 居業難給, 轉餉多煩. 宜五十人爲一番.

(≪日本三代實錄≫同年 12月 4日條)

이라며 俘囚을 동원하여 博多湾 일대의 방비를 굳건히 하고 이와 함께 伊勢大神宮에 사자를 파견하여 奉幣하고 다음과 같은 告文을 진상하게 했다.

天皇我詔旨止, 掛畏岐伊勢乃度會宇治乃五十鈴乃河上乃下都磐根爾大宮柱廣敷立, 高天乃原爾千木高知天稱言竟奉留天照坐皇大神乃廣前爾, 恐美恐美毛申賜倍止申久. 去六月以來, 大宰府度々言上多良久. 新羅賊舟二艘筑前國那珂郡乃荒津爾到來天豊前國乃貢調船乃絹綿乎掠奪天逃退多利. 又廳樓兵庫等上爾依有大鳥之怪天卜求爾, 隣國乃兵革之事可在止卜申利. 又肥後國爾地震風水乃有天, 舍宅悉仆顚利. 人民多流亡多利. 如此之比古來未聞止, 故老等毛申止言上多利. 然間爾, 陸奥國又異常奈留地震之言上多利. 自余國々毛, 又頗有件止言上多利. 傳聞. 彼新羅人波我日本國止久岐世時利相敵美來多利. 而今人來境內天奪取調物利天無懼沮之氣. 量其意況爾兵寇之萠自此而生加. 我朝久無軍旅久專忘警多利. 兵亂之事尤可愼恐. 然我日本朝波所謂神明之國奈利. 神明之助護利賜波, 何乃兵寇加可近來岐. 况掛毛畏岐皇大神波, 我朝乃大祖止御座天, 食國乃天下乎照賜比護賜利. 然則他國異類乃加侮致亂倍岐事乎, 何曾聞食天驚賜比拒却介賜波須在牟. 故是以王從五位下弘道王·中臣雅樂少允從六位上大中臣朝臣冬名等乎差使天, 禮代乃大幣帛遠, 忌部神祇少祐從六位下齋部宿祢伯江加弱肩爾太襁取懸天, 持齋令捧持天奉出給布. 此狀乎平介久聞食天, 仮令時世乃禍亂止之天, 上件寇賊之事在倍岐物奈利止毛, 掛毛畏支皇大神國內乃諸神達乎毛唱導岐賜比天, 未發向之前爾沮拒排却賜倍. 若賊謀已熟天兵船必來倍久在波, 境內爾入賜須天之, 逐還漂沒女賜比天, 我朝乃神國止畏憚禮來禮留故實乎澆多之失比賜布奈. 自此之外爾, 仮令止之天夷俘乃造謀叛亂之事, 中國乃刀兵賊難之事, 又水旱風雨之事, 疫癘飢饉之事爾至万天爾, 國家乃大禍·百姓乃深憂止毛可在良牟乎波, 皆悉未然之外爾拂却鎭滅之賜天, 天下無躁驚久, 國內平安爾鎭護利救助賜比皇御孫命乃御体乎, 常磐堅磐爾与天地日月共爾, 夜護晝護爾護幸倍矜奉給倍止, 恐美恐美毛申賜久止申.

(≪日本三代實錄≫ 同年 12月 14日條)

이 宣命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日本朝는 이른바 神明의 나라다"라고 중세에 이은 神國사상이 표현되었다【村井章介 1995】.

이 사건에 이어서 貞觀 12년에는,

> 筑後權史生正七位上佐伯宿祢眞継奉進新羅國牒. 卽告大宰少貳從五位下藤原朝臣元利萬侶与新羅國王通謀欲害國家. 禁眞継身付非違使.
>
> (≪日本三代實錄≫ 貞觀 12年 11月 13日條)

> 勅大宰府. 追禁少貳藤原朝臣元利萬侶·前主工上家人·浪人清原宗継·中臣年麿·興世有年等五人. 以從五位下行大內記安倍朝臣興行, 爲遣大宰府推問密告使. 判官一人·主典一人.
>
> (≪日本三代實錄≫ 貞觀12年 11月 17日條)

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貞觀 12년 당시의 帥는 時康親王, 大貳는 參議 藤原冬緖라고 하는 陣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大宰府의 장관이라고 해도 좋은 大宰少貳라고 하는 元利萬侶의 지위로 보아 본 건에도 교역과 관련된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森公章 2008b-236】은 같은 시기에 마찬가지로 少貳로 대신라 강경파였던 坂上瀧守과의 대립을 상정하고 있다. 한편 【渡邊誠 2007】은 신라와의 교역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북부 九州의 부호층에 의해 元利萬侶가 실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松原弘宣 1998-359～360】은 일찍이 円珍이 歸京했을 때에 天安 2년(858) 12월 28일, 藤原良相가 円珍에게 위문을 하기 위해 이 元利萬侶를 파견하고 있다는 점(≪行歷抄≫ 293p. ≪大日本仏教全書≫遊方傳叢書第一, 仏書刊行會, 1915年. 大法輪閣復刊, 2007年)도 참조하고, 良相·円珍·伴善男으로 이어지는 대외무역(단, 唐에 주안점을 둠) 확대파의 존재를 지적한다. 良相이 貞觀 9년에 서거했다는 점, 應天門의 変 때에 良相과 형인 良房이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여 숙청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松原弘宣 1999-385】.

貞觀 12년에는,

> 先是, 大宰府言. 對馬島下縣郡人卜部乙屎麻呂, 爲捕鳥, 向新羅境. 乙屎麿爲新羅國所執, 囚禁土獄. 乙屎麿見彼國挽運材木, 搆作大船, 擊鼓吹角, 簡士習兵. 乙屎麿竊問防援人, 曰. 爲伐取對馬島也. 乙屎麿脫禁出獄, 纔得逃歸. 是日, 勅. 彼府去年夏言. 大鳥集于兵庫樓上. 決之卜筮, 当夏隣兵. 因, 頒幣轉經, 豫攘. 如聞. 新羅商船時々到彼,縱託事賈販, 來爲侵暴. 若無其, 恐同慢藏. 况新

羅凶賊心懷覬覦, 不收尾. 將行毒螫. 須令緣海諸郡特愼警固. 又下知因幡·伯耆·出雲·石見·隱岐等國, 修守禦之具焉.

(≪日本三代實錄≫ 貞觀 12年 2月 12日條)

이라며 對馬島民이 신라가 對馬侵攻計畵을 세우고 있다고 통보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어서 大宰府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류민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심문을 한 다음 모두 放還하게 되었다.

勅大宰府. 新羅人潤淸·宣堅等卅人及元來居止管內之輩, 水陸兩道給食馬入京. 先是彼府言. 新羅凶賊掠奪貢綿, 以潤淸等處之嫌疑, 禁其身奏之. 太政官處分. 殊加仁恩, 給粮放還. 潤淸等不得順風, 无由歸發其國. 對馬嶋司進新羅消息日記幷彼國流來七人. 府須依例給粮放却. 但爾新羅, 凶毒狼戾, 亦迺者對馬嶋人卜部乙屎麿, 被禁彼國, 脫獄遁歸, 說彼練習兵士之狀. 若彼疑洩語, 爲伺氣色差遣七人, 詐稱流來歟. 凡垂仁放還, 尋常之事. 挾奸往來, 当加誅僇. 加之, 潤淸等久事交關, 僑寄此地, 能候物色, 知我无備. 令放歸於彼, 示弱於敵, 旣乖安不忘危之意. 又從來居住管內者, 亦復有數. 此皆外似歸化, 內懷造謀. 若有來侵, 必爲內應. 請准天長元年八月廿日格旨, 不論新旧, 併遷陸奧之空地, 絶其覬覦之心. 從之.

(≪日本三代實錄≫ 貞觀 12年 2月 20日條)

先是大宰府言. 去九月廿五日, 新羅人卅二人, 乘一隻船, 漂着對馬嶋岸. 嶋司差加使者送府. 卽禁其身, 着鴻臚舘. 是日勅曰. 新羅人挾年久, 兇毒未悛. 疑亦流着之体, 搆候隙之謀. 宜重加搜, 審覈情狀, 早令放歸.

(≪日本三代實錄≫ 貞觀 15年 12月 22日條)

先是, 大宰府上言. 新羅人金四·金五等十二人, 駕船一艘, 漂着對馬嶋. 至是勅府司問來由, 早從放還.

(≪日本三代實錄≫ 貞觀 16年 8月 8日條)

이 기간에는 征夷경험이 있는 군사 관료를 大宰府에 임명하는 조치도 취하는 등【關幸彦 1989】 경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습격한 것은 불과 2척의 신라선이었지만, 이렇게 경계를 한 배경에는 신라 해적의 현실적인 위협과【旗田巍 1962】 내통하는 신라인 세력의 존재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일본인이 있었다【松原弘宣 1999-383～86】.

4. 고려 건국·신라 멸망과 일본

元慶 연간에도 여전히 일본 측의 긴장은 계속되었지만【太田英比古 1974】, 신라에서

漂着民이 오는 것은 일단락되고 있었다. 仁和 원년(885)에는 新羅國使라고 칭하는 자가 執事省의 牒이라고 칭하는 물건을 지참하고 肥前肥後國 天草郡에 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국서의 형식은 물론 종래의 執事省牒의 형식도 참조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放還된 사실을 아래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大宰府言. 去四月十二日, 新羅國判官徐善行·錄事高興善等四十八人, 乘船一艘, 來着肥後國天草郡. 問其來由, 答曰. 前年漂蕩, 適着海岸, 蒙給官粮, 得歸本鄉. 今奉賀仁恩, 賚國牒信物等來朝者. 今檢, 寄事奉賀, 牒貨相兼. 只有執事省牒, 无國王啓. 其牒不納函子, 以紙裹之. 題云. 新羅國執事省牒上日本國, 其上踏印五字. 謹案先例, 事乖故實. 仍寫牒幷錄貨物數進上. 勅. 新羅國人, 包藏禍心, 窺覦家國. 雖寄事於風波,然猶疑其毒蟄. 須懲其姦匿, 以從重法. 然而, 朝家好仁, 不忍爲之, 在宥放還, 然其首領矣.
>
> (≪日本三代實錄≫ 仁和 元年 6月 20日條)

신라 해적인 跳梁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던 것은 寬平 연간에 들어서부터이다. 寬平 5년(893) 5월 (≪日本紀略≫ 同月 22日條)에서 6년간에 걸쳐서는 ≪日本紀略≫ 寬平 5年 5月 22日條, 閏 5月 3日條, 6月 20日條, 同 6年 2月 22日條, 3月 13日條, 4月 14日條, 4月 17日條, 5月 7日條, 9月 19日條, 9月 20日條, 10月 6日條 와 같이 종종 신라 해적의 동향이 기술되고 있고, 이에 대해 특히 山陰道 제국에 대해서는 新羅賊心調伏의 修法, 弩師 설치, 防人(역주: 北九州 등 변방 경비병) 差遣, 烽燧 설치 등의 대응책이 취해졌다. 그리고 大宰府管內에 거주하던 신라인을 제국으로 移配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關幸彦 1989, 石井正敏 2001a】. 이러한 가운데 신라에서 오는 漂流民에 대한 조치도 엄격해져서 신병을 엄중하게 구속하고 심문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山內晋次 1990- 77～78】.

이러한 일련의 기사 속에서도 ≪扶桑略記≫ 寬平 6年(894) 9月 5日條는 신라 해적의 상세한 실정과 그 배경으로 신라왕의 혹독한 징세【石井正敏 2001a】, 그리고 일본 측의 방위 태세를 기술한 것으로 유명하다.

> 對馬島司言新羅賊徒船四十五艘到着之由. 大宰府同九日進上飛驛使. 同十七日記曰, 同日卯時, 守文室善友召集郡司·士卒等, 仰云, 汝等若箭立背者, 以軍法將科罪, 立額者, 可被賞之由言上者. 仰訖, 卽率列郡司士卒, 以前守田村高良令反問, 卽島分寺上座僧面均·上縣郡副大領下今主爲押領使, 百人軍各結廿番. 遣絶賊移要害道. 豊圓春竹卒弱軍四十人, 度賊前. 凶賊見之, 各銳兵而來向善友前. 善友立楯令調弩, 亦令亂聲. 時凶賊隨亦亂聲射戰, 其箭如雨. 見賊等被射幷逃歸, 將軍追射. 賊人迷惑, 或入海中, 或登山上. 合計射殺三百二人. 就中大將軍三人·副將軍十一人. 所收

雜物, 大將軍縫物甲冑·貫革袴·銀作太刀·纏弓革·胡籙·苑夾·保呂各一具. 已上附脚力多米常継進上. 又奪取船十一艘, 太刀五十柄·梓千基·弓百十張·胡籙百十·房楯三百十二枚. 僅生獲賊一人. 其名賢春. 卽申云. 彼國年穀不登, 人民飢苦, 倉庫悉空, 王城不安. 然王仰爲取穀絹, 飛帆參來. 但所在大小船百艘, 乘人二千五百人. 被射殺賊其數甚多. 但遺賊中, 有最敏將軍三人. 就中有大唐一人. 已上日記.

이러한 신라 해적의 활동의 배경에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聖王 2年(888) 2月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眞聖女王 치정 하에서 왕권의 동요, ≪三國史記≫ 3年條와 列傳 甄萱條에서 보이는 국내 통치의 혼란이 있었다【森公章 2008c-3】.

신라에서는 9세기 말에 각지에서 군벌이 세력을 펼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 중에서는 892년(일본의 寬平 4년)에 武珍州(光州)에서 독자적인 기반을 성립한 甄萱이 完山州(全州)를 도읍으로 정하고 스스로를 후백제왕이라 칭했다(900년, 일본의 昌泰 3년). 한편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자칭한 弓裔는 901년(일본의 延喜 원년)에 松岳(開城)에서 독립된 기반을 성립하여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弓裔가 세운 나라는 후에 摩震(904～), 그 후 泰封(911～)이라고 개명하고 도읍도 鐵原(江原道)으로 옮기는데, 이렇듯 慶州에 잔존하고 있던 신라를 포함하여 후삼국시대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윽고 이러한 鼎立 상태는 弓裔의 부하로 開城 출신인 王建에 의해 해소된다. 王建은 918년(일본의 延喜 18년)에 弓裔를 무너뜨리고 왕위에 앉게 되고 고려 왕조의 성립을 선언, 다음해에는 開城을 도읍으로 정한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敬順王은 935년(일본의 承平 5년)에 고려에 항복하여 신라는 멸망하게 된다. 그 다음해에는 후백제도 멸망시키고 王建의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한다. 고려는 後梁과도 통교하고 있었지만, 933년에는 後唐의 책봉을 받고 그 이후 五代부터 宋에 걸쳐서 중국의 책봉체제 속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정하고 있었다. 이 시기 후백제의 甄萱과 고려의 王建이 遣日使를 파견한다【中村榮孝 1927, 森公章 2008c】.

한편 현재의 중국 동북지방에서 러시아령 沿海州 일대를 영토로 가지고 있던 발해가 거의 동 시기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렇게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일본 이외의 구성국인 唐·신라·발해가 모두 멸망하게 되면서 동아시아는 일시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본왕조로서는 국제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한동안은 정세를 관망하기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 한참 빠져있던 한반도에서는 우선 延喜 22년(922)에, 당시 스스로를 후

백제왕이라고 칭하고 있던 甄萱이 파견한 부하인 輝弼 등이 對馬에 와서 일본에 대하여 表函(上表文을 넣은 상자)과 方物(특산품)을 보내려고 했다[46]. 그러나 이때는 신라의 大官으로서 일본과 교섭을 신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일본 측은 "朝天之禮, 陪臣何專"(≪本朝文粹≫ 卷12 大宰府答新羅返牒 菅原淳茂作) 즉 외교는 왕의 전권 사항이므로 신라왕의 신하인 甄萱에게는 일본과 외교를 맺을 권한이 없다고 하고 사절을 對馬에서 귀국시켰다(≪扶桑略記≫ 延喜 22年 6月 5日條에는 "對馬島新羅人到來. 早可從却歸之由, 官符給宰府了"라고 나옴).

후백제는 신라인과 唐人들이 형성하고 있던 해상 네트워크를 계승하고 있고【北村秀人 1982b-57~8】, 甄萱은 延長 7년(929)에도 사절을 對馬로 파견하고 있지만 이때에도 일본 측은 이를

> 新羅甄萱使張彦澄等二十人, 來着對馬島. 持送大宰府司書狀幷信物, 又送島守坂上經國書及信物等, 請向府. (하략)
>
> (≪扶桑略記≫ 延長 7年 5月 17日條)

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은 이보다 전인 동년 정월에 貪羅(濟州島)와의 사이에서 海藻를 교역하려고 하고 있던 신라의 배가 對馬에 漂着했던 것을 島守 經國이 보호하여 시중을 붙여서 全州까지 보내주었을 때 全州王인 甄萱이 수십 州를 併呑하여 '大王'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실과, 甄萱이 일본에 조공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알게 된 太政官은 "人臣無私, 何有逾境之好"라고 ≪春秋左氏傳≫을 인용하여 甄萱으로부터의 조공 신청을 거절하고, 對馬島로부터는 "前救溺頂之危, 適成援助之慮. 非是求隣好, 唯爲重人生云々"이라고 전해 大宰大貳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人臣之義, 已無外交"라고 하는 서한을 보내어 사절을 귀국시켰다(≪扶桑略記≫ 5月 21日條).

이렇게 甄萱의 사절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끝까지 신라의 大官으로서 통교와 조공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 같고[47], 일본 정부로서는 신라국왕을 통하지 않는 교섭은 딱 잘라 거절한다고 하는 논리로 물렸던 것이다. 발해 멸망 후에 건국된 東丹國의 使者로 裴璆가 일본에 온 것은 그 해 말의 일이다. 드디어 甄萱은 고려에 항복하고(935년), 같은 해에 신라도 멸망한다. 甄萱의 뒤를 이은 아들 神劍은 936년에 고려에 항복하고 이로써 고려

46) 이하의 甄萱의 대일교섭에 대해서는 【山崎雅稔 2004, 石井正敏 2007】도 참조.

47)【森公章 2008c-6】는 일본 측이 후백제가 독립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에 의해 한반도는 재통일된다. 결국 후백제 甄萱으로부터의 사절은 2번으로 끝났다.

이어서 사료에 나타나는 한반도에서 온 使者는 고려가 통일을 이룩한 다음 해(937)에 大宰府에 온 神秋連이라는 使者라고 전한다. 이 때 그는 고려의 왕이 조공을 일본에게 거절당한 것을 괴로워하고, 하다못해 선물을 헌상해서라도 조공에 준하는 형식을 취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결국 이 使者에 대해서는 大宰府에서 高麗國의 廣評省이라고 하는 중추관청 앞으로의 牒을 내주었다고 하는 것이 나온다(≪日本紀略≫ 天慶 2年 3月 11日條). 그리고 동년 3월에는 武藏介源經基가 平將門의 모반을 奏上하여, 藤原秀鄕 등이 다음 해 2월에 平將門을 멸망시킨다. 이러한 타이밍을 고려할 때 일본 조정이 고려와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번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京都에서 公卿들이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大宰府에서 상대국의 관청에 답장을 보내는 방식은 이후에도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되는 관례가 된다. 결국 천황의 명의로 발급하는 국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일본의 중추관청인 太政官이 발급하는 官牒이 되어야 하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출장기관일 뿐인 大宰府에서의 사무적인 처리로서 상대국에 통지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후 일본과 고려 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과 吳越·宋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서 교환을 수반하는 정식 국교를 맺지 않게 된다.

9세기 말에 왕성하게 사료에 기록되었던 신라 해적의 동향은 10세기에 들어서면 급격하게 사료 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 이는 한반도 내부의 항쟁이 수습되어 가는 것과 대응하는 면이 있겠지만 일본 측의 사료 상황의 변화 즉 국사의 종언과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실태는 불분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延長 8년 太政官牒 '應擇補大宰府四王寺四僧事'(≪政事要略≫ 卷56 交替雜事)에는 "方今怪異屢示, 告兵賊", ≪日本紀略≫ 承平 5年(935) 12月 30日條에는 "賜官符於大宰府. 殺害新羅人事"(≪貞信公記≫ 逸文 承平 5年 12月 30日條도 참조)라고 나와 신라에 대한 경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일본과 발해의 관계 추이

제1절 奈良時代의 일본과 발해의 관계
－양국의 地位에 대한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7세기 말 聖曆 원년(698, 일본의 文武天皇 2년)에 大祚榮에 의해 건국된 振國(震國이라고도. ≪日本後紀≫ 逸文 延曆 15年 4月 27日條(≪類聚國史≫ 卷193)참조)는 開元 원년(713)에 大祚榮이 唐으로부터 渤海郡王으로 책봉되면서 발해라고 개칭했다. 그 발해는 합계 34회의 渤海使를 일본에 보냈고 일본에서도 13회의 遣渤海使를 파견하였다[48].

초기의 渤海使로는 무관이 임용되고 있고 또 그들은 '結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石井正敏 1974, 古畑徹 1986ab】[49], 760년대에는 문관 사절 파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세기 후반에는 군사를 포함하는 정치적인 통교에서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인 통교 쪽으로 비중이 옮겨 가고 있었던 것 같다【鳥山喜一 1915, 末松保和 1933, 森克己 1951, 新妻利久 1969, 酒寄雅志 1979】.

일본과 발해와의 관계를 渤海使에 대한 賓禮방식의 변천, 渤海使의 來日 형태와 목적, 일본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森公章 2003-167～171】은 아래와 같이 시기 구분을 했다.

Ⅰ. 唐·신라와 대립하던 발해가 일본에 접근한 시기〔神龜 4년(727)～天平勝寶 4년(752)〕

遣使는 10년에 1번 정도로 약간 소원한 통례 관계. 발해 측은 한 척의 배에 최고 75명, 일본 측은 送使라고 하는 형태로만. 발해 측은 臣禮를 취하는 상하관계와 上表文을 奉呈하는 조공 관계가 아닌 대등한 통교를 요구함.

Ⅱ. 일본 측의 요청으로 통교가 재개되어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진 시기〔天平寶字 2년(758)～天平寶字6년(762)〕

48) 상세한 일람표가 酒寄雅志 ≪渤海와 古代日本≫(校倉書房, 2001년), 石井正敏 ≪日本渤海關係史研究≫ (吉川弘文館, 2001년)에 부록으로 실려 있고, 이 외에도 【上田雄 2002】가 매회의 渤海使의 동향을 정리했다.

49)【李成市 1997】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교역이 중심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일본 측은 대신라 관계의 타개를 목표로, 藤原仲麻呂가 신라 정벌 계획을 진행한다. 발해 측은 무관을 대표로 20명 정도가 개별 목적 수행을 위해 일본에 옴. 발해 측은 구두 상의 奏上만 하고 국서의 양식문제는 보류되어 있었다. 발해와 당의 관계가 호전되고 仲麻呂가 몰락하면서 전기를 맞이한다.

Ⅲ. 교역을 주목적으로 한 사절단이 일본에 오는 시기〔寶龜 2년(771)～弘仁 14년(823)〕

발해는 對唐관계의 회복과 국내의 수공업 발전을 배경으로 교역을 통한 국가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시기. 단 일본 측은 그다지 교역에는 열의가 없었고 외교 방식의 정비를 목표로 하여 一紀一貢의 원칙을 통고한다.

Ⅳ. 一紀一貢의 年期制에 의한 통교가 확립된 시기〔天長 2년(825) 이후〕

渤海使의 인원수는 105명으로 일정함. 일본 측의 賓禮가 정비되어 외교문서의 양식도 발해 측은 王啓와 中台省牒을, 일본 측은 慰勞詔書와 太政官牒을 발급하는 것으로 정립되었다. 빈번하게 來貢하려고 하는 발해에 대한 대응이 일본 측에게는 과제였고, 一紀一貢이 가끔은 깨진다.

이하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제Ⅱ기까지의 양상을 특히 양국의 지위에 대한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해 가고자 한다.

발해에서 최초의 使者가 도착했던 神龜 4년(727) 말, 발해의 유래에 대하여 ≪續日本紀≫의 地의 文〔최종 완성은 延曆 16년(797)〕에서는

> 渤海郡者, 旧高麗國也. 淡海朝廷七年冬十月, 唐將李勣伐滅高麗. 其後朝貢久絶矣. 至是渤海郡王遣寧遠將軍高仁義等廿四人朝聘. 而着蝦夷境, 仁義以下十六人, 並被殺害. 首領齊德等八人, 僅免死而來.

라고 서술하여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神龜 4年 12月 29日條).

다음 해 正月 17日條에는 발해 국왕인 大武藝가 보낸 국서를 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 高齊德等上其王書幷方物. 其詞曰. 武芸啓. 山河異域,國土不同. 延聽風猷, 但增傾仰. 伏惟, 大王, 天朝受命, 日本開基, 奕葉重光, 本枝百世. 武芸, 忝当列國, 濫惣諸蕃, 復高麗之旧居, 有扶余之遺俗. 但以天崖路阻, 海漢悠悠, 音耗未通, 吉凶絶問. 親仁結援, 庶叶前經, 通使聘隣, 始乎今日. 謹遣寧遠將軍郎將高仁義·游將軍果毅都尉德周·別將舍航等廿四人, 齎状, 幷附貂皮三百張奉送. 土

宜雖賤, 用表獻芹之誠. 皮幣非珍, 還慚掩口之誚. 生理有限, 披瞻未期. 時嗣音徽, 永敦隣好.

라고 나와 있다. '啓'는 下達上文書의 하나로 鄭余慶 ≪大唐新定吉凶書儀≫(9세기 전반 성립)의 文例와 같은 시기 발해왕의 啓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아, 【石井正敏 1992-552~3】은 이런 종류의 書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제1회 국서에서 발해는 일본의 천황을 '大王'라고는 칭하고 있지만 보내온 것은 일본 측의 표기로는 '方物'이지만 발해 측의 표기에는 '土宜'여서, 이는 일부러 자신을 하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 '啓'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저자세를 취하면서도 일본을 동격으로 보고 있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단,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점은 일찍이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고구려를 상기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는 해도 동시에 그것은 일찍이 對唐 전쟁이 한창일 때에 일본에 조공을 해 온 나라로서의 고구려를 일본 측에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본에 영합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이었다【石井正敏 1975ab】. 사실 좀 전에 거론한 ≪續日本紀≫ 神龜 4年 12月 29日條에서는 國史의 地의 文에서 보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본 측이 발해 측의 통교 취지를 '朝聘'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발해왕의 국서에 대한 천황의 답장으로서의 慰勞詔書(神龜 5年 4月 壬午條)에서는

天皇敬問渤海郡王. 省啓具知. 恢復旧壤, 聿修曩好, 朕以嘉之. 宜佩義懷仁, 監撫有境. 滄波雖隔, 不斷往來. 便因首領高齊德等還次, 付書幷信物綵帛一十疋·綾一十疋·絁廿疋·絲一百絇·綿二百屯. 仍差送使發遣歸鄉. 漸熱. 想平安好.

라며 옛 국토 회복을 축하하고 있다. 이때의 문서 양식에는 慰勞詔書를 사용하고 있고, 渤海郡王이 보낸 '啓'에 대하여 분명히 上位者가 보내는 下達文書의 양식이다. 상대를 명확하게 신하로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인식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고구려는 예전에 조공을 바치던 존재인 이상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조공 관계를 수립해 가고자 하는 의향을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渤海郡王'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는 唐이 발해에게 부여한 것임을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50], 일본 측은 발해에 대해 동시에 二國에 조공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大武藝가 '左金護衛大將軍渤海郡王'을 자칭하면서 '啓'를 보냈던 선택은 唐 高祖가 突厥

50) 【金子修一 1998】은 여기에서 발해가 '渤海郡王'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唐에 內屬되어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보았다.

에 대해 베푼 배려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石井正敏 1992-552～3】.

이때에 발해가 사신을 보낸 배경에 대해서는 726년에 唐에 들어가 통교했던 黑水靺鞨과 발해와의 항쟁이 발해와 唐의 대립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唐과 관계가 친밀했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末松保和 1933, 森克己 1951, 西嶋定生 1962, 酒寄雅志 1977-200, 1979-57】.

그리고 平城京左京三條二坊八坪의 東二坊坊間路西側溝(長屋王 저택의 동남쪽 밖)에서는 '渤海使' '交易'이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習書木簡이 출토되고 있어서[51], 이는 시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 渤海使가 처음 일본에 온 그 시점부터 일본과 교역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연히 長屋王이라고 하는 執政大臣과의 사이에 한정된 것일 지도 알 수 없기는 하다【佐藤信 1997, 酒寄雅志 1998b, 2003-10】.

이 최초의 渤海使는 神龜 5년(728)의 正月朝賀에 참례하고 있는데, 그 이후 渤海使는 寶龜 10년(779) 정월의 張仙壽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正月朝賀에 참례하고 있어서 신라와는 대조적이다. 이 점을 중시하는 【濱田耕策 1979-142】는 일본은 발해를 조공국의 위치로 인식하고 발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단, 天長 2년(825) 이후에는 정월에 入京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기의 渤海使를 배웅한 使者(제1회 遣渤海使)는 보통 神龜 5년(728)에 그 일행이 출발했다고 하지만, 天平 2년(730)의 越前國正稅帳에 "送渤海郡使人等食料伍拾斛" "糒"이라고 나온 것으로 보아, 【鎌田元一 2005】는 실제로 출발한 것은 天平 2년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제1회 渤海使가 朝賀에 참례했을 때 일본의 수도는 천도하고 나서 18년 후인 平城宮이었다. 그 平城宮이 위치한 平城京의 평면계획과 가장 오랫동안 발해의 수도였던 上京龍泉府의 평면계획 사이에 적지 않은 일치점을 발견한【井上和人 2005-108】은 渤海使의 견문이 天寶 말년(755년 경)에 中京顯德府에서 천도한 上京龍泉府의 조영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있다.

제2회 渤海使는 天平 11년(739)에 왔다. 이때에도 渤海郡王 大欽茂는 그 '啓' 속에서 자신의 선물인 물품명은 거론하고 있지만 총칭을 쓰지 않는 식으로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續日本紀≫ 天平 11年 12月 10日條). 제2회 渤海使의 파견 목적에 대해서 【酒寄雅志 1977a-208～210】은 大欽茂가 왕위를 계승했음을 일본에 통지하는 것과 737년에 신라의 聖德王이 서거한 후에 신라의 정정이 불안정해 졌다는 것을 일본에 전하는 것도

51) ≪平城京跡發掘調査出土木簡概報≫ 23-20上, 그리고 ≪平城京木簡一 長屋王家木簡一≫(吉川弘文館, 1995년).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91-30】도 참조.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한다.

제3회 渤海使에 대해서는 ≪續日本紀≫ 天平勝寶 5年(753) 5月 25日條에

> 渤海使輔國大將軍慕施蒙等拜朝, 幷貢信物. 奏稱, 渤海王言日本照臨聖天皇朝. 不賜使命, 已經十余歲. 是以, 遣慕施蒙等七十五人, 齎國信物, 奉獻闕庭.

라고 나오듯이 발해에서는 '調'가 아닌 '國信物'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 후에도 발해에서는 '方物'이 進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발해에 대해서는 신라와는 달리 '調'를 받기 보다는 '表'를 제출하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절에 대해서 천황이 발급한 慰勞詔書(≪續日本紀≫ 天平勝寶 5年 6月 8日條)는

> 天皇敬問渤海國王. 朕以寡德,虔奉寶図. 亭毒黎民, 照臨八極. 王僻居海外, 遠使入朝. 丹心至明, 深可嘉尙. 但省來啓, 無稱臣名. 仍尋高麗旧記, 國平之日, 上表文云, 族惟兄弟, 義則君臣. 或乞援兵, 或賀踐祚. 修朝聘之恒式, 効忠款之懇誠. 故先朝善其貞節, 待以殊恩. 榮命之隆, 日新無絶. 想所知之, 何仮一二言也. 由是, 先廻之後, 旣賜勅書. 何其今歲之朝, 重無上表. 以禮進退, 彼此共同. 王熟思之. 季夏甚熱. 比無恙也. 使人今還. 指宣往意. 幷賜物如別.

이라며 "앞으로는 '啓'가 아닌 예전의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臣某'라고 국왕의 名을 기록한 '表'를 지참하라, 이는 지난번에 분명히 명했는데 이번에도 종래대로의 문서를 가지고 온 것은 좋지 않다"며, 명확하게 臣禮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石井正敏 1992-554, 堀敏一 1998-254】. 단, 좀 더 주목해야하는 것으로는 이 璽書에서는 명확하게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이해하고 이에 입각해 조공국으로 대우하려는 의사를 표하고 있지만【石井正敏 1974】, 신라에 대해서는 양국의 관계를 형제 관계에 견주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鈴木靖民 1969, 酒寄雅志 1977a-210～211】은 신라를 대할 때와는 달리 오히려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발해를 약간 후하게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渤海使에 대한 일본 측의 叙位는 新羅使에 대한 그것보다도 높은 것이었다【平野卓治 1985】. 그리고 【酒寄雅志 1977a-211】는 이때의 遣日使節 파견 이유를 東大寺 大佛의 開眼祝賀와 신라 景德王代의 의욕적인 北邊經營에 대한 견제라고 하고 있다.

이 후의 天平寶字 3년(759)부터 天平寶字 6년(762) 11월의 香椎奉幣까지의 3개년 내지는 天平寶字 7년 8월의 節度使 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과 발해와의 대신라 동맹【酒寄雅志 1977a】과 藤原仲麻呂의 신라 정벌 계획이 전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前

章에서 언급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天平勝寶 7歲(755) 8월 21일 紫微中台請經文에 보이는 인물과 동일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목간(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平城宮木簡二 解說≫ 2726호, 1975년)에서 보이는 '靺鞨'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하여【酒寄雅志 1997a-347】은 이 이전에 渤海使에 의해 전해진 雅樂의 곡명 '古靺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제3회 渤海使에 대한 일본 측의 이전의 요청에 응하여 발해는 天平寶字 2년(758)의 遣日使節 이후에는 '表'를 제출해 오지만[52], 天平寶字 6년(762)의 王新福이 일본에 온 이후 얼마 동안 간격을 두고 일본에 온 寶龜 2년(771)의 渤海使에 관해서는 ≪續日本紀≫ 寶龜 3年(772) 正月 16日條에

> 先是, 責問渤海王表無禮於壹万福. 是日, 告壹万福等曰. 万福等, 實是渤海王使者. 所上之表, 豈違例無禮乎. 由玆不收其表. 万福等言. 夫爲臣之道, 不違君命. 是以不誤封函, 輒用奉進. 今爲違例, 返却表函. 万福等, 實深憂慄. 仍再拜據地, 而泣更申. 君者彼此一也. 臣等歸國,必應有罪. 今已參渡, 在於聖朝. 罪之輕重, 無敢所避.

라고 나오듯이 또 아래에 있는 慰勞詔書에서 지적하듯이 국서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달 25일에는 "渤海使壹万福等, 改修表文, 代王申謝"라는 것으로 사태는 수습되고, 2월 28일에는 아래와 같은 慰勞詔書를 보낸다.

> 天皇敬問高麗國王. 朕繼體承基, 臨馭區宇. 思覃德澤, 寧濟蒼生. 然則率土之濱, 化有輯於同軌. 普天之下, 恩無隔於殊隣. 昔高麗全盛時, 其王高氏, 祖宗奕世, 介居瀛表. 親如兄弟, 義若君臣. 帆海梯山, 朝貢相續. 逮乎季歲, 高氏淪亡. 自爾以來, 音問寂絶. 爰泪神龜四年, 王之先考左金吾衛大將軍渤海郡王遣使來朝, 始修職貢. 先朝嘉其丹款, 寵待優隆. 王襲遺風, 纂修前業. 獻誠述職, 不墜家聲. 今省來書, 頓改父道. 日下不注官品姓名, 書尾虛陳天孫僭号. 遠度王意, 豈有是乎. 近慮事勢, 疑似錯誤. 故仰有司, 停其賓禮. 但使人万福等, 深悔前咎, 代王申謝. 朕矜遠來, 聽其悛改. 王悉此意, 永念良図. 又高氏之世, 兵亂無休. 爲仮朝威,彼称兄弟. 方今大氏曾無事. 故妄称舅甥, 於禮失矣. 後歲之使, 不可更然. 若能改往自新, 寔乃継好無窮耳. 春景漸和, 想王佳也. 今因廻使, 指此示懷. 幷贈物如別.

여기에서도 일본 측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왕이 高氏에서 大氏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고구려와 발해는 계승관계에 있다고 하고, 일찍이 고구려는 일본에 조공을 하고 있었

52)【浜田久美子 2005】에 의하면 발해가 국서에 表를 사용한 것은 天平宝字 2년(758)부터 宝龜 10년(779)까지임.

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高氏의 멸망 후에는 조공관계가 끊어졌었지만, 神龜 4년에 재개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식이 상례를 벗어나고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53]. 그리고 국서(慰勞詔書) 속에서 발해에 대해 '高麗'라고 표기하는 것은 仲麻呂 정권 하인 天平寶字2～6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堀敏一 1998b-250～60, 金子修一 2003-120】은 이 속에서 신라에 대해 함께 적대하기를 바라는 仲麻呂의 의도를 읽어내려고 하고 있다.

제2절 平安時代의 일본과 발해의 관계

1. 年期制의 성립과 그 운용

寶龜 2년(771)의 渤海使는 17척의 배에 325명의 방대한 인원이 나누어 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전적으로 교역만을 하는 상인의 성격을 띤 발해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된다. 이 시기를 경계로 하여 渤海使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변화했다고 이야기되는 이유이다. 그 변화의 배경으로서 【酒寄雅志 1977a-227】는 신라 景德王의 서거(765년 6월)이후 惠恭王 살해(780년 10월)에 이르기까지의 신라 국내 지배층 내부의 항쟁을 들고 있다.

그 이후에도 일본과 발해 간에는 表函 내지는 啓의 書式이 상례에 어긋나서 문제시되는 사건이 가끔 일어나지만(예를 들어 ≪續日本紀≫ 寶龜 4年(773) 6月 24日條, 同 寶龜 10年 11月 9日條, ≪日本後紀≫ 逸文 延曆15年 10月 15日條(≪類聚國史≫), 발해 측으로부터는

> 渤海使史都蒙等貢方物. 奏曰. 渤海國王, 始自遠世供奉不絶. 又國使壹万福歸來, 承聞, 聖皇新臨天下, 不勝歡慶. 登時遣獻可大夫司賓少令開國男史都蒙入朝, 幷戴荷國信, 拜奉天闕.

이라고(≪續日本紀≫ 寶龜 8年(777) 4月 22日條), '遠祖'로부터 供奉이라는 표현에서 일본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寶龜 4년의 발해 국왕은 文王大欽茂이고, 神龜 4년(727)의 왕은 武王大武藝로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발해의 遣使가 '遠祖'로

53) 延曆 17년의 慰勞詔書에서는 이 시기의 상황을 <中間書疏傲慢, 有乖旧儀>(≪日本後紀≫ 逸文 延曆 17년 5월 戊戌條 (≪類聚國史≫))라고 하고 있다.

부터 온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명백히 발해는 고구려의 對日外交의 역사를 전제로서 상기시키려고 하였던 것이었다.[54]

延曆 5년(786) 9월에 일본에 온 渤海使 李元泰가 다음 해에 漂着地에서 귀국한 이후 한동안은 일본과 발해 관계 사료가 단절되었다가, 延曆 14년(795)에 재개되었을 때에는 발해에서 '啓'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 때의 기사를 실은 ≪日本後紀≫ 逸文 延曆 15年(796) 4月 27日條(≪類聚國史≫ 卷193)에는

> 渤海國者, 高麗之故地也. 天命開別天皇七年, 高麗王高氏, 爲唐所滅也. 後以天之眞宗豊祖父天皇二年, 大祚榮始建渤海國, 和銅六年, 受唐册立其國. 延袤二千里, 無州縣館驛, 處々有村里. 皆靺鞨部落. 其百姓者, 靺鞨多, 土人少. 皆以土人爲村長. 大村曰都督, 次曰刺史. 其下百姓皆曰首領. 土地極寒, 不宜水田. 俗頗知書. 自高氏以來, 朝貢不絶.

이라고 나온다. 이는 ≪日本後紀≫에 처음으로 발해가 등장했기 때문에 서술하고 있는 國史의 地의 文이므로 그 奏上시점인 承和 7년(840)의 인식이기는 하지만, "自高氏以來, 朝貢不絶" 즉 고구려 시대부터 오랫동안 계속 조공을 해왔던 나라라는 인식에는 단절이 없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다만 이 시기의 渤海使는 결국 "首尾不愷, 旣違旧儀"라며 入京을 거부당하고 있다.

발해와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日本後紀≫ 逸文 延曆 17年 5月 19日條(≪類聚國史≫)에 게재된 慰勞詔書에도

> 天皇敬問渤海國王. 前年廣岳等還, 省啓具之. 益用慰意. 彼渤海之國, 隔以滄溟, 世脩聘禮, 有自來矣. 高氏繼緒, 每慕化而相尋, 大家復基, 亦占風而靡絶. 中間書疏傲慢, 有乖旧儀. 爲此, 待彼行人, 不以常例. 王追蹤曩例, 脩聘于今. 因請隔年之裁, 庶作永歲之則. 丹定款誠所著, 深有嘉焉.

이라고 하듯이 발해의 大氏는 고구려 高氏의 계승자라고 일본 측에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日本後紀≫ 逸文 弘仁 5年(814) 5月 9日條(≪日本紀略≫)에는 "新羅王子來朝之日, 若有朝獻之志者, 准渤海之例. 但願修隣好者, 不用答禮, 直令還却. 但給還粮"이라고 나와서 당시 발해의 사절은 단순히 '願修隣好'라는 명목이 아닌 '朝獻之志'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발해 측의 자세에 대응하여 일본 측도 굳이 表를 지참하라고까지 요구하지 않게 된 것 같다【石井正敏 1995】. 실제로 이미 延曆 15年 10月 15日條(≪類聚國史≫卷193)에서

---

54) 발해의 고구려계승의식에 대해서는 특히 【石井正敏 1975b】를 참조.

先是, 渤海國王所言上書疏, 体無定例, 詞多不遜. 今所上之啓, 首尾不失禮, 誠款見于詞.

라고 나오듯, 비록 '啓'일지라도 '失禮'가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하는 판단이 엿보인다.

발해와 교섭 시에 사용했던 용어를 검토하여 이를 통해 延曆 15년~承和 8년에는 通交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聘'이라고 칭하는 등 발해에 대해서는 신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발해의 위상이었던 '蕃國'이 아닌 지위를 올려 '諸侯'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提說이 있고【重松敏彦 1997】, 또 寶龜에서 延曆 연간에 걸쳐 외교상의 용어에 상하 관계가 명시되도록 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현저해졌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保科富士男 1995】. 어찌되었든 문서상 용어에 구애되는 형태로 상호인식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약간 보류하려는 의도가 양쪽 모두에게 엿보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대신에 등장한 것이 아래에서 서술하는 年期制였다.

延曆 14년(795)에 일본에 온 渤海使 呂定琳을 발해까지 배웅한 送使 御長廣岳·桑原秋成은 그 귀국 시에 발해국왕의 啓를 가지고 온다.

> 正六位上御長眞人廣岳等歸自渤海國. 其王啓曰. 嵩璘啓. 差使奔波, 貴申情禮. 佇承休眷, 瞻望徒勞. 天皇頓降敦私, 貺之使命. 佳問盈耳, 珍奇溢目. 俯仰自欣, 伏增慰悅. 其定琳等, 不料辺虜, 被陷賊場. 俯垂恤存, 生還本國. 奉惟天造, 去留同賴. 嵩璘, 猥以寡德, 幸屬時來. 官承先爵, 土統旧封. 制命策書, 冬中錫及. 金印紫綬, 邃外光輝. 思欲修禮勝方, 結交貴國. 歲時朝覲, 檝帆相望. 而巨木梮材, 土之難長. 小船汎海, 不沒卽危. 亦或引海不諧, 遭罹夷害. 雖慕盛化, 如艱阻何. 儻長尋旧好, 幸許來往, 則送使數不過廿, 以玆爲限, 式作永規. 其隔年多少, 任聽彼裁. 裁定之使, 望於來秋. 許以往期, 則德隣常在. 事与望異, 則足表不依. 其所寄絹廿匹·絁廿匹·絲一百鉤·綿二百屯, 依數領足. 今廣岳等, 使事略畢. 情求迨時, 便欲差人送使奉謝新命之恩. 使等辭以未奉本朝之旨. 故不敢淹滯, 隨意依心. 謹因廻次, 奉付土物. 具在別狀. 自知鄙薄, 不勝羞愧.
>
> 〔≪日本後紀≫ 逸文 延曆 15年 10月 2日條(≪類聚國史≫ 卷193)〕

위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는 일본에 朝聘 간격을 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시기 발해는 建中·貞元 연간(780-804)에 겨우 4회 밖에 唐에 사절을 보내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 【酒寄雅志 2001a-70~71】은 왕위 계승의 혼란 속에서의 國人세력이 커지게 되어 경제적 요구의 실현을 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일본은 이 요청에 대하여 延曆 17년(798) 4월에 內藏加茂麻呂를 발해에 파견하여 '但顧巨海之無際, 非一葦之可航. 驚風踊浪, 動罹患害. 若以每年爲期, 艱虞叵測. 間以六歲, 遠近合宜'(≪日本後紀≫ 逸文 延曆 17년 5月 19日條(≪類聚國史≫ 卷193))라며 "六年一貢"

이라고 전했다. 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고른 점에 대해서는 大寶令의 주석서인 令集解職員令太政官條古記에 '朝聘者, 經六歲聘一年也'라고 하는 해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石井正敏 1995】은 고전에 정통했던 桓武天皇이 明王의 制인 周의 六年周期說을 선택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교역을 중시했던 발해는【石井正敏 1974, 鈴木靖民 1999, 森公章 2004-191】 6년은 너무 간격이 멀다며 동년 12월에 渤海使가

> 嵩璘啓. 使賀万等至. 所貺之書, 及信物絹各卅疋, 糸二百鉤, 綿三百屯, 依數領之. 慰悅實深. 雖複巨海漫天, 滄波浴日, 路無倪限. 望斷雲霞, 而巽氣送帆, 指期旧浦, 乾涯斥候, 無闕糇粮. 豈非彼此契齊, 暗符人道, 南北義感, 特叶天心者哉. 嵩璘莅有旧封, 纘承先業, 遠蒙善弊, 聿脩如常. 天皇遙降德音, 重貺使命. 恩重懷抱,慰喩慇懃. 況俯記片書, 眷依前請, 不遺信物, 許以年期. 書疏之間, 嘉免瘕纇, 庇廕之顧, 識異他時. 而一葦難航, 奉知審喩. 六年爲限, 窃憚其遲. 請更貺嘉図, 並廻通鑑. 促其期限, 傍合素懷. 然則向風之趣, 自不倦於寡情, 慕化之勤, 可尋蹤於高氏. 又書中所許, 雖不限少多, 聊依使者之情. 省約行人之數, 謹差慰軍大將軍左熊衛都將上柱將開國子大昌泰等, 充使送國, 兼附信物. 具別狀. 土無奇異. 自知羞惡.
>
> 〔≪日本後紀≫逸文 延曆 17年 12月 壬寅條(≪類聚國史≫ 卷193)〕

이라고 단축을 요청하는 王啓를 가지고 왔고, 그 결과 일본은 '勿勞年限'이라며 일단은 年期制를 포기해 버린다.

이 기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일본 측에서 대부분 送使라고 하는 명목으로 파견하고 있던 渤海使가 弘仁 원년 임명되어 弘仁 2년에 돌아온 林宿祢東人을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일본과 발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濱田耕策 2000a】, 이것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年期制가 확립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과 발해와의 상호인식이 안정된 상황으로 자리 잡아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부터 외교문서 상의 표현에 관한 일본과 발해와의 사이에 갈등은 보이지 않게 되는데【森公章 2004-201～3】, 이것은 年期制를 채용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일본과 발해 사이의 명분적 관계를 상징한다【浜田久美子 2008】는 것처럼 일본 측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일단 年期制는 포기했지만, 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발해국왕 宣王 大仁秀 시대에 들어서면서 弘仁 9년, 10년, 12년, 14년, 天長 2년, 4년과 같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渤海使가 일본에 오면서 賓待 비용, 路次諸國의 피폐 등이 문제시되고(≪日本後紀≫ 逸文 天長 원년 2월 3日條·天長 3年 3月 1日條, 모두 ≪類聚國史≫ 卷194), 때로는 入京을 거

부당하게 된다(弘仁 14년). 이런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계기와 '12年'이라고 하는 숫자의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森公 章 2004-195】, 天長 원년(834) 6월에 일본은 발해의 來日年期를 一紀(＝12년)一貢으로 개정하고 이것이 이후에 定制가 된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일본에 온 渤海使에 관해서는 藤原緖嗣에게 "渤海客徒, 旣違詔旨, 濫以入朝. 偏容拙信, 恐損旧典. 實是商旅, 不足隣客. 以彼商旅爲客, 損國未見治体"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石井正敏 2001d】(≪日本後紀≫ 逸文 天長 3年 3月 1日條(≪日本紀略≫)), 在唐學問僧 靈仙의 表物을 가지고 온 것과 年期制가 알려지지 않은 것일 거라는 것이 고려된 듯하여 【森公章 2004-199】入京을 허락하고 있다.

年期制에 대해서는 天長 4년에 일본에 온 王文矩이 역시나 年期制를 지켰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入京을 딱 잘라 거절당한 후에는

> 遣勅使於鴻臚舘, 宣詔. 賜渤海王書曰. 天皇敬問渤海國王. 福延等至, 得啓具之. 惟王奉遵明約, 沿酌旧章. 一紀星廻, 朝覲之期不爽, 万里溟濶, 踩貢之款仍通. 言念乃誠, 無忘鑒寐. 前年聘唐使人却廻, 詳知芯蒭靈仙化去. 今省別狀, 事自合符. 亦悉付遣黃金陷沒綠浦. 雖人逝賚失元図不諧. 而思夫轉送之勞. 遙感應接之義. 悠悠天際, 足非可跂. 予相見無由, 焉不已耳. 附少國信, 色目如別. 夏景初蒸, 比平安好. 略此還答, 指不多及. 太政官賜中台省牒曰. 日本國太政官牒渤海國中台省. 入覲使政堂省左允賀福延等壹佰伍人牒. 得中台省牒稱. 奉處分, 日域東遙, 遼陽西阻. 兩邦相去, 万里有余. 溟漲滔天, 風雲雖可難測. 扶光出地, 程途亦或易標. 所以每航海以占風, 長候時而入覲. 宜遵旧章欽修覲禮. 謹差政堂省左允賀福延. 令覲貴國者. 福延等來修聘禮. 守一紀之龍信, 凌千里之鼇波. 乘風便以企心, 仰日光而追影. 事有成規, 准例奏請. 被勅報曰. 隣好相尋, 匪亶今日. 靜言純至, 嘉尙于懷. 宜加優矜得復命者. 今使還之次, 附璽書幷信物. 至宜領之. 但啓函修飾, 不依舊例. 官儀棄瑕不擧. 自後奉以悛之. 准勅牒送. 牒到准狀. 故牒. 勘解由判官正六位上藤原朝臣栗作. 文章生從六位上大中臣朝臣清世等爲領客使. 是日. 使賀福延等歸鄉.
>
> 〔≪續日本後紀≫ 承和 9年(842) 4月 12日條〕

라고 나오듯이

> 今更遣使, 誠非守期. 雖然, 自古隣好, 憑禮相交. 曠時一歲, 猶恐情疎. 况玆, 星律轉廻, 風霜八変. 東南向風, 瞻慕有地. 寧能恬寂, 罕續音塵. 謹備土物, 隨使奉附. 色目在於後紙.
>
> 〔≪續日本後紀≫ 嘉祥 2年(849) 3月 14日條〕

라고 하는 정도의 변명을 쓴 王啓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하면서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안정되었다【森公章 2004-199～200】[55]. 발해에서는 '啓'와 '信物' 내지는 '方物'을

가지고 왔고 일본에서는 '璽書' '勅書' (사실은 모두 慰勞詔書)와 '信物'이 전달되는 관계가 계속되었지만, 嘉祥 2년(849)의 국서에도 '入貢使'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처럼 渤海使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조공 사절로서 그 위상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金子修一 2003-126】. 그리고 承和 9년(842) 3월 28일에 太政官에 송달된 것으로 平安 후기의 사본인 宮內廳書陵部所藏의 咸和 11년(841, 일본의 承和 8년) 渤海國中台省牒(寫)(≪壬生家文書≫ 古往來消息雜雜)은 新羅執事省牒〔≪續日本後紀≫ 承和 3年(836) 12月 3日條〕와 承曆 3년(1079) 高麗國禮賓省牒(≪朝野群載≫ 卷20異國)과는 달리 '牒'이 아닌 '牒上'이라고 기록하는 점, 또 문장의 맺음이 '謹牒'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 【中村裕一 1979】는 中台省이 보내는 牒은 奈良時代부터 일관되게 갖고 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酒寄雅志 1985a】는 좀 전에 거론한 특징을 갖는 牒은 일본을 종주국으로 모시는 부용국 발해라는 외교문서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서 9세기 초인 弘仁연간(810-823)에 발해에 대하여 牒을 가지고 올 것을 의무화했던 성과라고 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天長 4년(827) 12월 29일에 일본에 온 渤海使 王文矩의 목적에 대해서 ≪類聚三代格≫ 卷18에 실린 天長 5년 정월 2일의 太政官符는, "文矩等申云, 爲言大唐淄青節度使康志睦交通之事, 入覲天庭. 違期之程, 逃罪無由"라고 渤海使가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핑계에 대하여 【石井正敏 1976-524～539】는 827년 5월에 일어난 唐의 橫海節度使 李同捷의 亂과 연관시켜서 발해국왕 大仁秀가 발해와 당의 교통에 방해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알리는 것을 구실로 경제적인 통교의 기회를 늘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고[56], 【酒寄雅志 1979-78～9】는 이에 대해 그 전년에 발해에 대비하여 大同江연안에 長城을 축조한 신라를 일본에게 견제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榎本淳一 2003】는 위의 【濱田耕策 2000b-151】가 '交通'을 '通交'의 의미로 해석한 것에 대하여 語義 자체는 '交際'의 의미인 '通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淄青節度使가 일본에 通交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어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세기 말인 貞觀 15년(873)에 일어난 아래의 사건과 그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긴 교섭 끝에 결론이 난 일본의 對渤海觀을 對新羅觀과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종합평가라고 할

55)【森公章 2004】는 嘉祥 2년의 예외를 仁明天皇의 四十賀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6) 그리고 【石井正敏 1976】는 '康志睦'는 '康志睦'을 잘못 쓴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수 있을 것이다【坂上康俊 2008-64】.

> 先是. 大宰府言. 去三月十一日, 不知何許人, 舶二艘載六十人, 漂着薩摩國甑嶋郡. 言語難通. 問何用, 其首崔宗佐·大陳潤等自書曰. 宗佐等, 渤海國人. 彼國王差入大唐, 賀平徐州. 海路浪險, 漂盪至此. 國司推驗事意, 不公驗. 所書年紀, 亦復相違. 疑是新羅人, 僞稱渤海人, 來竊窺辺境歟. 領將二舶, 向府之間, 一舶得風, 飛帆逃遁. 是日, 勅. 渤海遠蕃歸順於我. 新羅爾久挾禍心. 宜令府國官司, 審加推勘, 實是渤海人者, 須加慰勞粮發歸. 若新羅凶党者, 全禁其身言上, 兼令管內諸國, 重愼警守.
>
> 〔≪日本三代實錄≫ 貞觀 15年(873) 5月 27日條〕

발해는 9세기에도 번영을 유지하고 唐으로부터 '海東盛國'(≪新唐書≫)이라고 칭해질 정도였지만, 10세기에 들어서면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쇠퇴하고 더욱이 지배층 내부의 분쟁도 발생한다. 이것을 본 이웃나라 거란(후에, 947년에 국호를 遼라고 개정)의 耶律阿保機는 925년에 발해를 침공하고 다음 해에는 上京龍泉府를 몰락시켜서 발해 국왕인 大諲譔은 거란에 항복하게 된다. 거란은 遼河(siramuren河) 유역에 東丹國을 만들게 하고, 한편 발해 왕세자인 大光顯은 鴨綠江 유역에 발해국을 재건하고, 또 上京龍泉府의 옛 땅에 후발해국을 건국한 집단도 있었지만, 934년에는 大光顯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고려에 망명을 요청하여 발해의 유민 대부분은 고려가 받아들이고 있고, 한편 각지에 잔존하고 있던 발해 세력도 거란에 흡수되어 갔다.

이런 정세 속에서도 발해는 遣日使를 계속 파견하여 延喜 8년(908)·19년에는 大使 裴璆가 일본에 오고 있는데 그 裴璆가 이번에는 東丹國이 보낸 使者로서 일본에 왔다는 것을 延長 7년(929) 정월 3일에 丹後國이 전해왔다. 위에서도 서술했던 것처럼 이미 이 시기 발해는 쇠퇴해가고 있어서 거란이 만든 괴뢰정권 중 하나가 東丹國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 左大臣 藤原忠平 이하의 公卿은 入京시킬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함께 丹後國에 使者를 파견하여 사절단에 대응하게 했다. 그런데 大使 裴璆는 "전에는 발해 사람이었다고는 해도 지금은 물러나서 東丹의 신하가 되었다. 그런데도 대답 중에 대부분이 거란王의 죄악을 말한다"(≪扶桑略記≫)고 하여 일본 조정의 불신을 사서 사죄문을 요구하고 귀국시킨다. 이것이 발해와의 마지막 교섭이 되었다.

天慶 5년(942) 5월에는 兼明親王이 발해 大使를, 그리고 成明親王(후의 村上天皇)이 일행의 대장 역할을 하며 궁전에서 蕃客來朝를 흉내 내는 詩宴을 주최하고 또 餞別儀까지 거행했다고 전한다(≪日本紀略≫, ≪古今著聞集≫ 三·公事). 안심하고 조공을 받을 수 있는 발해와 같은 국가가 있었던 시대에 대한 향수는 이후에도 平安 귀족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2. 渤海使 迎接儀禮와 문인 관료

渤海使가 일본에 오게 된 이후, 일본의 영접의례의 대체적인 흐름을 理念型的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森公章 2003-167～172】.

a. 도착지에서의 安置(寶龜2～4년 사이에 도착지의 國司에게 國書開封權이 부여됨)
b. 存問使 파견(存問)
c. 領客使에 의한 京上(領客)
d. 入京시의 郊勞(郊勞)(奈良時代에는 飾馬·騎兵의 영접, 아마도 承和 8년부터는 郊勞使 파견으로)
e. 鴻臚館에 安置, 勞問使·慰勞使의 파견과 掌客使의 임명(奈良時代는 朝見場에서 慰問(唐使의 예에 의함), 아마도 承和 8년부터는 勞問使·慰勞使)
f. 조정에서의 使旨奏上(國書 또는 口頭), 貢獻物 奉呈(奈良時代는 太極殿出御型, 平安時代는 朝堂院型[57])
g. 여러 행사에 참가(정월행사, 五月五日節會에 참가) (天長 2년 이후, 정월 入京 없음)
h. 천황 참석 하에 賜宴, 授位·賜祿(奈良時代는 閤門出御型, 平安時代는 豊樂院型)
I. 교역
j. 신하에 의한 賜饗(奈良時代는 執政大臣의 사택에서, 朝集院에서의 신하의 향연은 延曆 17년에 처음으로 보임)
k. 鴻臚館에서의 향연(詩宴) (당초에는 없었음, 貞觀 13년을 계기로 거행)
l. 鴻臚館에서의 慰勞詔書賜与(天長2년 이후에는 太政官牒도)
m. 領歸鄕客使가 인솔하여 出京·귀국(弘仁元까지는 送使를 파견, 아마도 承和 8년부터는 領歸鄕客使가 출항지까지 배웅함)

이러한 의례를 담당하는 役職으로는 延喜太政官式蕃客條에 存問使·掌客使·領歸鄕客使 각 2명, 隨客使·通事 각 1명, 郊勞使·慰勞使·勞問使·賜衣服使 각 1명, 宣命使·供食使 각 2명, 賜勅書使·賜太政官使 각 2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한편으로 治部

57) 朝堂院型·豊樂院型·太極殿出御·閤門出御 등의 형식에 대해서는 【橋本義則 1984】를 참조.

省式蕃客條에는 이 외에도 領客使 2명, 隨使 1명, 掌客 2명(＋史生 2명), 共食 2명을 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 두 규정에 대하여 【浜田久美子 2002】는 전자의 迎接使는 承和 8년(841) 이후의 正史의 기사에 가끔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領客使를 제외하면 ≪日本書紀≫ 이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두 규정은 성립 시기가 다르다고 하고 또 存問使와 領客使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m의 送使가 領歸鄕客使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는 【森公章 2003-173～4】가 언급한 것이 있는데, 弘仁 2년(811)에 돌아온 送使가 돌아오는 길에 2척 중 1척이 표류하다가 침몰된 사건에서 상징되듯이 항해상의 위험 및 실상 교역이 주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 반대로 말하자면 일본과 발해와의 사이에 정치·외교상 특단의 과제가 없어졌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 시기에 일본과 발해가 상호인식의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 弘仁 2년의 送使에게 보내려고 했던 발해 국왕의 국서에 대하여

> 正六位上林宿禰東人等. 至自渤海. 奏曰. 國王之啓. 不據常例. 是以去而不取. 其錄事大初位下上毛野公嗣益等所乘第二船. 發去之日, 相失不見. 未知何在.

와 같은 違例問題가 발생하는 등(≪日本後紀≫ 弘仁 2年 10月 2日條), 送使의 파견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배려된 결과일 가능성도 역시 고려되어도 좋을 것이다. 발해측은 送使의 파견을 꼭 환영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배경도 있다(≪日本後紀≫ 延曆 15年 10月 2日條에는 "送使數不過廿, 以玆爲限, 式作永規"라고 하는 발해 국왕의 제안이 보임). 즉 朝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 측이 체면을 지키면서 年期制에 입각한 안정된 교역 관계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大目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해 요인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渤海使를 영접했을 때에 주고받은 詩文에 대해서는 弘仁 5년(814)의 渤海使王孝廉以下와 교섭 시에 주고받은 것이 ≪文華秀麗集≫과 ≪經國集≫에 수록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漢文學[58]과 歷史學[59] 양 분야에서 독해와 검토가 이루어져서 漢詩文의 時系列에 따른 排列에 대하여 각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浜田久美子 2006-13】. 이때의 사절에 대해서는 그 영접 모습에 대하여 ≪日本後紀≫와 ≪類聚國史≫에도 기사가

58)【小島憲之 1964, 遠藤光正 1995ab, 後藤昭雄 2003, 河野貴美子 2004, 岡部明日香 2004, 2005, 井實充史 2004, 山谷紀子 2004, 中村成里 2004, 加畠吉春 2005, 蔣義喬 2005】

59)【大日方克己 2000, 上田雄 2002, 加藤順一 2004】

남아 있는데, 山陰에 도착하여 出雲에서 공급을 받은 후에 入京했고 돌아갈 때에는 敦賀【小島憲之 1964, 遠藤光正 1995ab】 내지는 出雲【大日方克己 2000, 加藤順一 2004, 浜田久美子 2006-3】에서 출항했지만 바다를 건너는데 실패하여 다음 弘仁 7년 5월에 재출항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弘仁 12년(821)의 渤海使에 대해서도 ≪經國集≫에 수록되어 있는 漢詩文에서 영접의 순서를 복원하고 특히 다음 해 정월 16일에 豊樂殿의 앞마당에서 개최되고 渤海使 王文矩도 참가했던 打毬의 실상을 추측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遠藤光正 2001, 浜田久美子 2006】[60].

【古畑徹 1995b】는 渤海使가 일본에서 했던 漢詩文 交歡은 발해의 중화의식을 발현하는 장으로서 기능했다고 하는데[61], 분명히 裴頲·裴璆 부자와 같이 문인으로서 저명한 인물이 파견되어 왔던 적이 있다. 元慶 6년에 裴頲가 일본에 왔을 때에는 일본 측에서도

> 是日. 以正六位上行少外記大藏伊美吉善行·式部少丞高階眞人茂範, 爲存問渤海客使. 前筑後少目從八位上伊勢朝臣興房爲通事.
>
> (≪日本三代實錄≫ 元慶 7年 正月 1日條)

또

> 以右衛門大尉正六以上坂上大宿祢茂樹·文章得業生從八位上紀朝臣長谷雄,爲掌渤海客使. 民部大丞正六以上清原眞人常岑·文章生從八位下多治眞人有友, 爲領歸鄕渤海客使.
>
> (同 4月 2日條)

그리고

> 緣饗渤海客, 所司官人雜色人等,客徒在京之間, 聽帶禁物. 以從五位上式部少輔兼文章博士加賀權守菅原朝臣道眞, 權行治部大輔事. 從五位上行美濃介嶋田朝臣忠臣權行玄蕃頭事. 爲對渤海大使裴頲,故爲之.
>
> (同 4月 21日條)

라며 文章博士 菅原道眞·島田忠臣을 각각 權行治部大輔事·權行玄蕃頭事로 하고 掌客使에는 文章得業生紀長谷雄, 領客使에는 大藏善行을 임명하는 등 당시 일본의 저명한 문인

60) 이때의 打毬에 대해 다룬 논문 중에서 시기가 빠른 것은 【瀧川政次郎 1939】가 있다.
61)【河野貴美子 2008】

들을 총출동시켜 대응하고 있고 이때 교환한 詩文은 ≪菅家文草≫ 卷2·7, ≪田氏家集≫ 속에 수록되어 있다. 또 裴璆가 3번째로 일본에 왔던 延喜 19년의 渤海使의 경우에는 ≪本朝文粹≫ 卷9에 紀在昌의 詩序가 ≪扶桑集≫卷7·9에 菅原淳茂·大江朝綱 등의 詩文이 수록되어 있다.

3. 일본과 발해의 교역

제1절에서 거론했듯이 神龜 4년(727)에 첫 渤海使가 일본에 왔을 때 그들은 담비 가죽(貂皮) 300張을 가지고 온다. 특히 760년대 이후가 되면 渤海使는 전적으로 경제적인 통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고, 【鈴木靖民 1999b】는 중계무역 내지는 자국산품의 수출로 인한 이익을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발해의 국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후 사료에 보이는 한 渤海使의 貢納品은 大虫(＝虎)皮·羆(皮?)·豹皮·인삼·꿀(이상은 信物), 貂裘(別貢物) 외에 麝香·裘帶 등으로 발해 국내산 짐승 가죽(獸皮)이 중심이며[62], 일본에서는 平安 중기가 되어도 발해의 獸皮에 대한 동경이 시들지 않았다[63]. 단 이전에는 발해가 갖고 오는 물품들은 대부분 모두 발해산이라는 점 때문에, 중계무역을 하고 있던 신라와는 다르다고 해 왔지만【秋山謙藏 1939-220, 森克己 1975-20, 東野治之 1974-35】, 玳瑁로 만든 酒盃(≪日本三代實錄≫ 元慶 元年 6月 25日條)와 契丹大狗(≪日本後紀≫ 逸文 天長 元年 4月 17日條(≪類聚國史≫卷194))와 같이 발해산이 아닌 것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은 唐과 거란에서 입수한 물건일 것이다【東野治之 1984, 酒寄雅志 2003-10】.

그리고 貞觀 원년(859) 정월에 能登國에 도착하여 入京을 허가받지 못한 채 加賀國에서 돌려보내진 渤海使 烏孝愼이 가져온 唐의 宣明曆(貞觀 3年 6월 16일 太政官符. ≪類聚三代格≫卷17)에 대해서는 【大日方克己 2003】의 專論이 있고, 또 【田島公 1991】는 石山寺 所藏 ≪仏頂尊勝陀羅尼記≫ 本奧書에 나오는 渤海大使 李居正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한편 발해가 일본과의 통교를 통해 입수했던 것은 綵帛·綾·綿·紬·糸·布·錦·羅 등의 섬유 제품과 袍·朝衣 등의 섬유 가공품이 중심이었지만, 황금·수은 등의 광물, 金漆·海

62) 상세한 내용은【田島公 1993】을 참조.
63)『江家次第』卷5 春日祭에 기록되어 있는 '黑貂의 裘' 에피소드를 참조.

石榴油 등의 식물 제품, 水精念珠·檳榔扇 등의 공예품도 있었다【酒寄雅志 2003-10】.

奈良時代 교역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선 養老의 關市令8官司條에

> 凡官司未交易之前, 不得私共諸蕃交易. 爲人糺獲者, 二分其物, 一分賞糺人, 一分沒官. 若官司於其所部捉獲者, 皆沒官.

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관의 先買權이 있었다고 추측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平安時代에 들어선 단계부터는 민간의 교역이 과열 기미를 보였던 것 같으며, 天長 5년(828) 정월 2일에는 아래와 같은 官符가 발표되어(≪類聚三代格≫卷18), 일본에 온 渤海使와의 사적인 교역을 금지시키고 있다.

> 一, 應禁交關事
> 右, 蕃客齎物, 私交關者, 法有恒科. 而此間之人, 必愛遠物, 爭以貿易. 宜嚴加禁制, 莫令更然. 若違之者, 百姓決杖一百, 王臣家遣人買, 禁使者言上. 國司阿容及自買, 殊處重科, 不得違反.

이 시점은 바로 전년인 12월에 渤海使 王文矩이 但馬國에 왔는데도 年期 위반이라는 이유로 入京을 거부당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官符가 발표되고 있는 것은 王臣家가 도착한 현지까지 가서 교역을 하고 있던(하려고 하였던)사실을 나타낸다【森公章 2004-194～5】. 【酒寄雅志 2003-11】는 이 금지령을 사적 교역의 전면 금지인 것처럼 이해하지만, 언급되어 있는 法條가 위에 서술한 關市令文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은 官의 先買權을 무시한 사적 교역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京內에서 渤海使의 교역 상황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료인 ≪日本三代實錄≫ 貞觀 14年(872) 5月 25日條에는, "內藏寮与渤海客, 廻易貨物" 다음 21日條에는 "聽京師人与渤海客交" 그리고 22日條에서는 "聽諸市人与客徒私相市易. 是日, 官錢四十万賜渤海國使等, 乃喚集市廛人, 賣与客徒此間土物"이라고 나와 있듯이 官의 先買權을 확보하고 난 후에 都의 市人과 渤海使의 화물을 교역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위의 禁令이 완화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渤海使가 도착한 지점에서의 민간과의 교역을 우려하는 바가 사라지지 않고 官의 先買權 확보가 지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실제로 ≪日本三代實錄≫ 元慶 6年(882) 11月 28日條에는

> 是日. 下符加賀國, 安置渤海客於便處, 依例供給, 謹加優遇. 又禁制私廻易客徒所賚貨物.

이라고 나와 있듯이 현지에서의 사교역을 엄금하는 명령을 계속 발표하고 있었던 것이다【石井正敏 2001e】.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詩文의 應酬를 제외한 문화적인 면에서의 교류에 대해서는 우선 渤海樂에 대해서 【荻美津夫 1995】가 개관하고 있고, 【酒寄雅志 1997a,1998a】도 渤海樂의 하나인 '新靺鞨'의 所作과 裝束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10세기 초반에는 '新靺鞨'은 雅樂이 아닌 散樂이었지만, 11세기 전반의 刀伊의 入寇를 계기로 渤海使가 천황 앞에서 拝舞했던 모습을 상기해 내서 다시 부흥하여 오늘날에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는 渤海使와 관계된 문자 자료로서 秋田城 유적에서는 ① '客人'(9세기第一四半期), ② '客厨'(9세기第二四半期)라고 각각 먹으로 쓴 赤褐色土器杯[64]와 ③ '下狄饗料'라고 쓴 8세기 말의 목간【鈴木拓也·熊田亮介 1995】[65], ④ 秋田城이 위치하는 寺内 지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高麗'라고 먹으로 쓴 토기편(현재는 소재 불명)【上法香苗 1957】, ⑤ 石川縣 金澤市 교외의 戸水大西 유적에서는 9세기 전반의 대형 건물군과 함께 8세기 말~9세기 초반으로 시기를 비정할 수 있는 '宿家'라고 쓴 墨書토기가 출토되었고【出越茂和 1994-152】, '宿家'에 대해서【酒寄雅志 2001-29】는 貞觀 원년(859)에 能登國에 도착한 渤海使 烏孝愼 등을 安置했던 加賀國의 '便處'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⑥ 그 부근의 戸水 C유적에서는 거의 동시기의 '津'이라고 적힌 墨書토기가, ⑦ 마찬가지로 金澤市의 畝田·寺中 유적의 河跡에서는 '津' '津司' '天平二年'이라고 쓰인 8세기 중반의 墨書토기가 출토되었고【和田龍介 2000】, 여기에다가 天平 2년(730)에 제1차 遣渤海使 引田虫麻呂가 越前國 加賀郡으로 되돌아온 점, 그리고 天平 3년의 越前國 正税帳의 기술 중에 "送渤海使人使等食料五十石"이라고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 【藤井一二 2004-319】는 '津司'는 발해와 관련된 외교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유적이 존재하는 일대가 상륙·체재 지점이었으며 여기에 수 십 명 규모의 사절단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과 보급시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⑧ 平城京 左京三條二坊八坪의 東二坊坊間路 西側 溝에서 출토된 '渤海使' '交易'이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하는 習書 木簡에 대해서는 본장 제1절에서 소개했었다.

이 외에 발해를 포함하는 대륙 북방계로 추측되는 토기·三彩壺·오비(帶)장식금구·釜·挂甲小札이 平城宮·京을 비롯해 北海道 이남의 일본해 연안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출토

64)【秋田市教育委員會 1987, 1990】
65) 단, 【秋田城を語る友の會 1992-60】에서는 '下粮饗料'라고 읽고 있다.

되고 있지만【酒寄雅志 1997b-247, 2001b-28, 2003-12～3】, 이 중에는 일본해를 횡단하여 직접 반입된 물건도 있다고 강조하는 견해【木村英明 1996, 小嶋芳孝 1996ab】와 이들 중에는 오호츠크인이 일본해 측에도 진출하고 있던 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酒寄雅志 1997b-247～8】가 있다.

4. 渤海使·遣渤海使의 항로와 교통로

마지막으로 渤海使·遣渤海使의 왕래 루트에 관한 연구를 언급하고자 한다. 【上田雄 1986】은 발해와 일본과의 교섭 루트로서 東京 龍原府→일본의 北陸以東, 南京南海府→일본의 山陰·北陸이라는 2가지 일본해 횡단 루트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新野直吉 1994】는 沿海州에서 사할린·北海道를 경유하는 북쪽 경유 루트의 존재를 상정했고, 최근에는 【小嶋芳孝 1994, 1996a, 1997】가 북쪽 경유 루트 외에도 대륙과 東北·北海道와의 직접적인 교역 루트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河上洋 1989】는 五京과 唐·신라·일본·거란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밝히고, 【酒寄雅志 1997b-241】는 寶龜 7년(776)의 渤海使가 南京 南海府(府治는 咸鏡南道 北青郡 青海土城인가)의 吐号浦에서 출항하고 있는 것은 그 부근에 있던 穢이래의 전통적인 항해술을 갖고 있던 백산말갈(白山靺鞨) 등의 海洋民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발해는 785년부터 794년에 걸쳐 東京 龍原府(중국 琿春市 八連城으로 比定되고 있음)로 천도하고 있고, 여기는 ≪新唐書≫ 渤海傳에 의하면 '日本道'라고 하며 여기부터 러시아의 포시예트만의 크라스크노土城을 경유하여 일본해를 건너는 코스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渤海使가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는 【古畑徹 1994, 1995a, 1999, 上田雄 2002】와 같이 직접 일본해를 횡단한다고 하는 견해와【稻垣直 1992, 田島公 1993】과 같이 일단 對馬 해류를 타고 일본해 연안을 북상하여 北海道 내지는 사할린 앞바다에서 리만해류로 갈아타서 沿海州 앞바다를 남하한다는 견해이다.

渤海使가 탔던 선박에 대해서 【上田雄 1986】은 한 척당 20명 전후인 시기(770년대 이전)와 60명 전후인 시기(780년대부터), 그리고 100명을 넘는 시기, 3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 분명히 사절의 총 인원수는 弘仁 14년 이후에는 100명 전후로 일정하지만, 그 인원수를 한 척의 배가 수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단, 平安時代에 들어서서는 일정한 인원수가 빈번하게 일본에 오고 있어서 발해의 조선 능력이 진보했음을 엿볼 수 있고, 【酒寄雅志 1997b-242·249】는 일본이 기술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渤海使에 대해서는 제8차 渤海使 烏須弗에 대한 太政官 처분에 있어서 “自今以後, 宜依旧例從筑紫道來朝”(≪續日本紀≫ 寶龜 4年(773) 6月 24日條)라고 명하고 있고 이 北路를 통해 일본에 오는 것을 금하는 명령은 ≪續日本紀≫ 寶龜 8年 正月 20日條, 同 寶龜 10年 11月 9日條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寶龜 11年 7月 26日勅에서는 “今北陸之道, 亦供蕃客”이라며 위의 禁令이 해제되었다고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日本後紀≫ 延曆 23年(804) 6月 27日條에서는 能登國에 渤海使를 위한 客院이 설치된 사실이 나온다. 위의 北路에 대한 禁令은 蝦夷와 긴장 관계에 있었던 寶龜 2년 6월에 325명이라고 하는 전례가 없는 인원이 일본에 온 제7차 渤海使 壹萬福 때에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하여 【石井正敏 1970-570～2】는 對蝦夷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나온 조치이며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라는 관점에서 고구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大宰府에 가라는 명을 내린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66].

일본에서는 ≪扶桑略記≫ 延喜 19年(919) 12月 24日條에 渤海使를 ‘越前國松原驛館’에 安置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고, ≪延喜式≫ 雜式에도 “凡越前國松原客館, 令氣比神宮檢校”라고 나오듯이 越前에 客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 松原客館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하다【淺香年木 1983·1994, 田島公 1993, 舘野和己 2003】.

渤海使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찾아낼 수 없지만, 9세기 후반이 되면 때로는 渤海人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무역상인의 움직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850년대부터 870년대까지에 걸쳐 적어도 8회는 일본과 唐 사이를 왕래하고 円珍의 <台州公驗請狀>에 ‘渤海商主’라고 기록되어 있는 李延孝와【黃約瑟 1993, 鈴木靖民 1999a】 동 <請狀>에 李延孝와 함께 열거되어 있는 李英覺, ≪金液還丹百問訣≫에 唐에서 일본에 건너와 활동했던 사실이 보이는 발해인 李光玄【王勇 1999】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다루었던 ‘新羅商主’ ‘唐商’ 등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6) 渤海使의 大宰府 회항을 둘러싸고는【Bruce Barton 1985, 中西正和 1990】도 언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相田二郎, 1923 <金錢の融通から見た奈良朝の經師等の生活(上·下)> ≪歷史地理≫ 41-2·3

明石一紀, 1975a <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 ≪日本歷史≫ 322

明石一紀, 1975b<續·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 ≪民衆史硏究≫ 13

正倉院事務所, 1978 ≪正倉院寶物 北倉≫, 朝日新聞社

秋田市敎育委員會, 1987 ≪昭和61年度秋田城跡發掘調査槪報≫

秋田市敎育委員會, 1990 ≪平成元年度秋田城跡發掘調査槪報≫

秋田城を語る友の會, 1992 ≪秋田城出土文字資料集Ⅱ≫≪秋田城跡調査事務所硏究紀要≫Ⅱ

秋山謙藏, 1939 ≪日支交涉史硏究≫, 岩波書店

淺香年木, 1983 <能登客院考>, 石川考古學硏究會編 ≪北陸の考古學≫ 26

淺香年木, 1994 ≪松原客館の謎にせまる－古代敦賀と東アジア－≫, 氣比史學會

足立喜六, 1970·1985 譯注·塩入良道補注 ≪東洋文庫 入唐求法巡禮行記1·2≫, 平凡社

安部井正, 1989 <新羅村落文書に見える九等戶區分について> ≪朝鮮學報≫ 133

荒川浩和, 1981 <新羅琴> ≪特別展正倉院寶物≫, 東京國立博物館

生田滋, 1991 <新羅の海賊> ≪海と列島文化2 日本海と出雲世界≫에 수록, 小學館

池內宏, 1961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硏究≫ 上世第2册에 수록, 吉川弘文館

池田溫, 1971 <裴世淸と高表仁>, 후에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池田溫, 1995 <天寶後期の唐·羅·日關係をめぐって> ≪春史卞麟錫敎授還曆紀年唐史論叢≫에 수록

石井正敏, 1970 <大宰府の外交機能と外交文書>,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1973 <日本通交初期における渤海の情勢について> ≪法政史學≫ 25

石井正敏, 1974 <初期日本·渤海交涉における一問題>, 후에 ≪日本渤海關係使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1975a <第一回渤海國書について>, 후에 <神龜四年, 渤海の日本通交開始とその事情> と改題して ≪日本渤海關係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1975b <日渤交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について>, 후에<日本·渤海交涉と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 と改題して ≪日本渤海關係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1976 <日唐交通と渤海>,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1979 <円仁と장보고－入唐日本人と新羅人> <關係人物小傳>, 上原和他編 ≪図說人物海の日本史1 海上の道と古代人≫, 每日新聞社

石井正敏, 1981 <唐の<將軍吳懷實>について> ≪日本歷史≫ 402号

石井正敏, 1983 <大伴古麻呂奏言について－虛構說の紹介とその問題点－> ≪法政史學≫ 33号

石井正敏, 1985 <日本·唐·新羅三國で活躍した政商장보고> ≪歷史讀本≫ 30-11

石井正敏, 1986 <≪古語拾遺≫の識語について> ≪日本歷史≫ 462号

石井正敏, 1987 <八·九世紀の日羅關係>, 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에 수록, 吉川弘文館

石井正敏, 1988 <九世紀の日本·唐·新羅三國間貿易について> ≪歷史と地理≫ 394号

石井正敏, 1991 <大宰府·緣海國司と外交文書>,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1992 <古代東アジアの外交と文書>,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1994 <コラム 入唐僧円仁の見た異國と異國人>, 東野治之編 ≪朝日百科日本の歴史別册4 歴史を讀みなおす4遣唐使船－東アジアのなかで≫, 朝日新聞社
石井正敏, 1995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1998a <寶龜十年十月勅をめぐって>,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1998b <天長5年正月官符をめぐって>, 후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石井正敏, 2001a <寬平六年の遣唐使計畵と新羅の海賊> ≪アジア遊學≫ 26
石井正敏, 2001b <天平勝寶四年の新羅王子金泰廉來日の事情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石井正敏, 2001c <日本·渤海關係の概要と本書の構成>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石井正敏, 2001d <藤原緖嗣の≪實是商旅, 不足隣客≫ 云々發言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石井正敏, 2001e <年期制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石井正敏, 2007 <≪日本書紀≫ 金春秋來日記事について>, 佐藤信他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에 수록, 山川出版社
石上英一, 1973 <日本古代における調庸制の特質> ≪歴史學研究別册特集 歴史における民族と民主主義≫, 青木書店
石上英一, 1974 <古代における日本の稅制と新羅の稅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龍溪書舍
石上英一, 1979 <律令制時代への手引き7·8律令法と國家> ≪歴史研究≫ 222·223号
石上英一, 1984 <古代國家と對外關係>, 歴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編 ≪講座日本歴史2 古代2≫, 東京大學出版會
石上英一, 1987 <古代東アジア地域と日本> ≪日本の社會史1列島內外の交通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石田茂作, 1930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仏教の研究≫, 東洋文庫
石母田正, 1962 <日本古代における國際意識について>, 후에 ≪石母田正著作集4 日本古代國家論≫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石母田正, 1963 <天皇と≪諸蕃≫>, 후에 ≪石母田正著作集4 日本古代國家論≫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石母田正, 1964 <詩と蕃客>, 후에 ≪石母田正著作集10古代貴族の英雄時代≫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 후에 ≪石母田正著作集3日本の古代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石母田正, 1973 <官僚制國家と人民>, 후에 ≪石母田正著作集3日本の古代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89年
伊東史朗, 1996 <同聚院不動明王像と園城寺新羅明神像－定朝様成立に至る図像と技法> ≪國華≫ 1203(101-6)
稻垣直, 1992 <美保關から隱岐島まで(再考)> ≪ぐんしょ(再刊)≫ 18(5-4)
井上和人, 2005 <渤海上京龍泉府形制新考> 田村晃一編 ≪東アジアの都城と渤海≫에 수록, 財団法人

東洋文庫
井上辰雄, 1970 <<民部省式>をめぐる諸問題> ≪日本歷史≫ 262
井上秀雄, 1971 <朝鮮·日本における國家の成立> ≪岩波講座世界歷史6古代6東アジア世界の形成Ⅲ≫, 岩波書店
井上秀雄, 1972 ≪NHKブックス172 古代朝鮮≫, 日本放送協會
井上光貞, 1963 <冠位十二階の史的意義>, 후에 ≪井上光貞著作集第1卷日本古代國家の硏究≫에 수록, 岩波書店, 1985年
井上光貞, 1965 <日本における仏教統制機關の確立過程>硏究≫, 후에 ≪井上光貞著作集1日本古代國家の硏究≫에 수록, 岩波書店, 1985年
今西龍, 1933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を讀みて> ≪新羅史硏究≫에 수록, 近澤書店, 후에國書刊行會, 1970年復刊
井實充史, 1994 <「於長王宅宴新羅客」詩の論> ≪上代文學≫ 73
井實充史, 2004 <滋野貞主「春日奉使入渤海客館」> ≪アジア遊學≫ 64
岩佐貫三, 1965 <シナ司命思想の日本的受容 泰山府君と赤山明神を例として>, 東洋大學東洋學硏究所,≪東洋學硏究≫ 1
石見淸裕, 1999 <唐朝發給の≪國書≫一覽> ≪アジア遊學≫ 3号
尹善泰, 1995 <正倉院所藏新羅村落文書의 作成年代－日本의 華嚴經論 流通狀況을 中心으로－> ≪震檀學報≫ 80, 한글
尹善泰, 1996 <新羅村落文書의 作成年代와 記載樣式－中國日本의 帳籍文書와의 比較檢討를 中心으로－> ≪歷史學會月例發表會發表文≫ 332回, 한글
尹善泰, 1997a <正倉院 所藏佐波理加盤付屬文書의 新考察> ≪國史館論叢≫ 74, 한글
尹善泰, 1997b <752年新羅交易과『買新羅物解』－正倉院所藏貼布記의 解釋을 中心으로－> ≪歷史と現實≫ 24号, 한글
尹善泰, 1998 <新羅의 力祿과 職田－祿邑硏究의 進展을 위한提言－> ≪韓國古代史硏究≫ 13, 한글
尹善泰, 2000a ≪新羅統一期王室의 村落支配－新羅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博士學位論文, 한글
尹善泰, 2000b <新羅村落文書의 記載樣式과 用途>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下)≫에 수록, 서울大學校出版部, 한글
尹善泰, 2003 <新羅村落文書硏究の現狀>, 新川登龜男·早川万年編 ≪美濃國戶籍の總合的硏究≫에 수록, 東京堂出版
上田雄, 1986 <渤海使の海事史的硏究> ≪海事史硏究≫ 43
上田雄, 2002 ≪渤海使の硏究≫, 明石書店
上法香苗, 1957 <秋田市新城の古代窯址群について> ≪秋田考古學≫ 8
請田正幸, 1978 <七世紀末の兵政官－新羅官制と比較して－> ≪ヒストリア≫ 81号
江浦洋, 1988 <日本出土の統一新羅系土器とその背景> ≪考古學雜誌≫ 74-2
江浦洋, 1992 <古代日羅關係の考古學的檢討Ⅰ>考古學を學ぶ會≪考古學論集≫ 4
江浦洋, 1994 <海をわたった新羅の土器－土器からみた古代日羅交流の考古學的硏究> 荒木敏夫編≪古代王權と交流5 ヤマト王權と交流の諸相≫에 수록, 名著出版
榎本淳一, 2003 <渤海が傳えた<大唐淄靑節度使康志睦交通之事>について>, 후에 ≪唐王朝と日本≫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榎本涉, 2001 <明州市舶司と東シナ海域>, 후에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에 수

록, 吉川弘文館, 2007年
榎本涉, 2007 <新羅海商と唐海商>佐藤信他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에 수록, 山川出版社
遠藤光正, 1995a <渤海國使と勅撰漢詩集> ≪東洋文化≫復刊75
遠藤光正, 1995b <渤海國使王孝廉と≪文華秀麗集≫> ≪東洋研究≫ 116
遠藤光正, 2001 <渤海大使王文矩と嵯峨天皇の打毬詩> ≪東洋文化≫復刊86号
遠藤元男, 1966 <貞觀期の日羅關係について> ≪駿台史學≫ 19
王勇, 1999 <渤海商人李光玄について－≪金液還丹百問訣≫の史料紹介を兼ねて－> ≪アジア遊學≫ 6
大石良材, 1971 <大刀契>, 후에 ≪日本王權の成立≫에 수록, 塙書房, 1975年
大隅清陽, 2008 <律令制成立の諸問題>, 大津透編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에 수록, 山川出版社
太田英比古, 1974 <陽成帝朝前期に於ける新羅來寇への危機意識－「弩師」設置問題を中心として> ≪政治經濟史學≫ 100
大津透, 2004 <『日本』の成立と律令國家> ≪上代文學≫ 92号
大津透, 1987 <近江と古代國家>, 후에 ≪律令國家支配構造の研究≫에 수록, 岩波書店, 1993年
大庭康時·松川博一, 2007 <鴻臚館跡出土の木簡·年代·トイレ> ≪木簡研究≫ 29号
大平聰, 2009 <留學生·僧による典籍·仏書の日本將來－吉備眞備·玄昉·審祥－>, 專修大學社會知性開發研究センター≪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 2号
大町健, 1992 <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律令國家> ≪新版 古代の日本2 アジアから見た古代日本≫에 수록, 角川書店
大町健, 2004 <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律令國家> 歷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編 ≪日本史講座2律令國家の展開≫, 東京大學出版會
大類伸, 1918 <怡土築城考> ≪歷史地理≫ 31-4
岡田精司, 1983 <大王就任儀禮の原形とその展開－卽位と大嘗祭－>, 후에 岩井忠熊他編 ≪天皇代替り儀式の歷史的展開－卽位儀と大嘗祭≫에 수록, 柏書房, 1989年, 更に ≪古代祭祀の史的研究≫에 수록, 塙書房, 1992年
岡部明日香, 2004 <桑腹赤「和渤海入覲副使公賜對龍顔之作一首」> ≪アジア遊學≫ 62
岡部明日香, 2005 <王孝廉「在辺亭賦得山花戲寄兩箇領客使幷滋三一首」> ≪アジア遊學≫ 72
荻美津夫, 1995 <古代芸能を通じてみた日本と渤海交流>, 新潟大學環日本海研究會 ≪環日本海論叢－渤海と環日本海交流－≫ 8
奥田尙, 1975 <天平初期における日羅關係について>, 時野谷勝教授退官記念會編 ≪日本史論集≫에 수록, 清文堂出版
奥田尙, 1991 <『續日本紀』の渤海國王からの國際文書の周辺記事> ≪追手門學院大學文學部紀要≫ 25
奥村佳紀, 1971 <新羅人の來航について> ≪駒澤史學≫ 18
尾崎喜左雄, 1964 <上野における韓來文化>, 金正柱編 ≪韓來文化の後榮≫ 下卷에 수록, 韓國資料研究所
小野勝年, 1964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全4册, 鈴木學術財団
鏡山猛, 1937 <怡土城趾調査> ≪日本古代文化研究所報告≫ 6
大日方克己, 2000 <日本·渤海間の交通と山陰諸國>, 島根大學法文學部 ≪社會システム論集≫ 5
大日方克己, 2003 <宣明曆と日本·渤海·唐をめぐる諸相>, 佐藤信編 ≪日本と渤海の古代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筧敏生,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古代帝國> ≪日本史研究≫ 317

笠井純一, 1994 <大刀契と卽位儀禮> 續日本紀硏究會編 ≪續日本紀の時代≫, 塙書房
加藤順一, 2004 <文士と外交> 三田古代史硏究會編 ≪政治と宗敎の古代史≫에 수록, 慶應義塾大學出版會
金子修一, 1998 <唐朝より見た渤海の名分的位置付けについて>, 후에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에 수록, 名著刊行會, 2001年
金子修一, 2001 <唐代國際關係における日本の位置>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에 수록, 名著刊行會
金子修一, 2003 <日本から渤海に与えた國書に關する覺書>, 佐藤信編 ≪日本と渤海の古代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兼若逸之, 1976 <新羅古文書를 둘러싼 問題에 대해서－計烟計算의『基本數』및 그『分數化』를 批判한다－> ≪韓國史硏究≫ 14, 한글
兼若逸之, 1979a <新羅『均田成册』의 硏究－이른바 民政(村落)文書의 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史硏究≫ 23, 한글
兼若逸之, 1979b<新羅『均田成册』에서의 烟人動態의 復原試図> ≪韓國史硏究≫ 27, 한글
兼若逸之, 1980 <新羅『均田成册』에서 推定되는 平均壽命> ≪韓國史硏究≫ 30, 한글
兼若逸之, 1984a <新羅『均田成册』에서의 烟人動態의 實態> ≪誠信硏究論文集≫ 17, 한글
兼若逸之, 1984b ≪新羅『均田成册』의 分析을 통해서 본 村落支配의 實態≫, 延世大學校博士學位論文, 한글
加畠吉春, 2005 <王孝廉「春日對雨.探得情字.一首」> ≪アジア遊學≫ 71
鎌田茂雄, 1965 <武周革命における華嚴思想の形成> ≪中國華嚴思想史の硏究≫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鎌田元一, 2005 <第一次遣渤海使の發遣年次>, 후에 ≪律令國家史の硏究≫에 수록, 塙書房, 2008年
龜井明德, 1991 <鴻臚館貿易>, 平野博之他編 ≪新版古代の日本③九州≫에 수록, 角川書店
蒲生京子, 1979 <新羅末期の張保皐の抬頭と反亂>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6
川勝政太郎, 1962 <平安京の鴻臚館について>, 古代學協會編 ≪桓武朝の諸問題≫에 수록
河上洋, 1989 <渤海の交通路と五京> ≪史林≫ 72-6
河上麻由子, 2008 <遣隋使と仏敎> ≪日本歷史≫ 717
川尻秋生, 1997 <國立歷史民俗博物館藏『大刀節刀契等事小右記中右記拔書』> ≪日本歷史≫ 586
河田貞, 1981 <正倉院寶物に關連する近年の新羅古蹟出土遺物> ≪ＭＵＳＥＵＭ≫ 369
川本芳昭, 2004 <隋書倭國傳と日本書紀推古紀の記述をめぐって> ≪史淵≫ 141
韓昇, 2005 <白村江開戰前夜における唐と新羅･日本との關係> ≪東アジアと日本－交流と変容≫ 2
木內武男, 1981 <作品解說(金薄押新羅琴)> ≪太陽 正倉院シリーズⅣ≫ 28号
岸俊男, 1969 <家･戶･保>, 후에 ≪日本古代籍帳の硏究≫에 수록, 塙書房, 1973年
北啓太, 1984 <天平四年の節度使>土田直鎭先生還曆記念會編 ≪奈良平安時代史論集≫ 上卷에 수록, 吉川弘文館
北村秀人, 1982a <朝鮮における『律令制』の変質>, 井上光貞他編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7 東アジアの変貌と日本律令國家≫에 수록, 學生社
北村秀人, 1982b <新羅の滅亡と高麗の建國>井上光貞他編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7 東アジアの変貌と日本律令國家≫에 수록, 學生社
鬼頭淸明, 1968 <八, 九世紀における出擧錢の存在形態>, 후에 ≪日本古代都市論序說≫에 수록, 法政大學出版局, 1977年

鬼頭清明, 1969 <新羅と日本との貿易>, 井上秀雄編 ≪セミナー日朝關係史Ⅰ≫에 수록, 櫻楓社
鬼頭清明, 1970 <七世紀後半の國際政治史試論>, 후에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에 수록, 校倉書房, 1976年
鬼頭清明, 1978 <日本の律令官制の成立と百濟の官制>, 彌永貞三先生還暦記念會編 ≪日本古代の社會と經濟≫ 上에 수록, 吉川弘文館
鬼頭清明, 1981 ≪白村江≫, 教育社歷史新書
木村英明, 1996 <文化のクロスロード>, 第10回 <大學と科學> 公開シンポジウム組織委員會編 ≪北方文化と日本列島≫에 수록, クバプロ
木村誠, 1976 <新羅の祿邑制と村落構造>, 후에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4年
木村誠,<新羅村落文書の作成年について>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4年
金義煥, 1982～1984 <朝鮮文化史研究(上)～(下)> ≪帝塚山短期大學紀要(人文·社會科學編)≫ 19～21
金鉉球, 1983 <初期の日·唐關係に關する一考察－『日本書紀』"高表仁來日"記事を中心に－> ≪日本歷史≫ 423
金鉉球, 1985 <大化改新と日·羅·唐の三國連合体制の成立>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金壽泰, 2001 <新羅村落帳籍研究의 爭点> ≪韓國古代史研究≫ 21, 한글
金東賢, 1976 <雁鴨池發掘參觀略記> ≪佛教芸術≫ 109
金文經, 2001 (高慶秀譯) <在唐新羅人社會と仏教－入唐求法巡禮行記を中心にして> ≪アジア遊學≫ 26
熊谷公男, 1981 <墨(新羅の墨)> ≪特別展正倉院寶物≫, 東京國立博物館
倉田文作, 1963 <園城寺新羅明神像> ≪古美術3 日本の神·神像彫刻≫, 三彩社
倉住靖彦, 1992 <大宰府論－その對外的機能を中心に－>, 荒野泰典他編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Ⅱ·外交と戰爭≫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倉本一宏, 1993 <律令制成立期の≪皇親政治≫>, 후에 ≪日本古代國家成立期の政權構造≫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7年
栗原朋信, 1967 <上代の日本へ對する三韓の外交形式>, 후에 ≪上代日本對外關係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78年
黒田智, 2001 <史料紹介 新羅明神記> ≪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 11
黒田裕一, 1998 <推古朝における『大國』意識> ≪國史學≫ 165号
黃純艷, 2008 <新羅人在中國南方地區的活動>, 嚴耀中主編 ≪唐代國家与地域社會研究≫에 수록, 上海古籍出版社
河內春人, 1995 <東アジアにおける安史の亂の影響と新羅征討計畫> ≪日本歷史≫ 561号
河內春人, 1996 <大寶律令の成立と遣唐使派遣> ≪續日本紀研究≫ 305号
河內春人, 2000 <新羅使迎接の歷史的展開> ≪ヒストリア≫ 170号
河野貴美子, 2004 <釋仁貞「七日禁中陪宴詩」> ≪アジア遊學≫ 60
河野貴美子, 2008 <渤海使と平安時代の宮廷文學>, 仁平道明編 ≪王朝文學と東アジアの宮廷文學≫에 수록, 竹林舍
高明士, 1977 ≪日本古代學校教育的興衰與中國的關係≫, 學海出版社
黃約瑟, 1993 <"大唐商人"李延孝与九世紀中日關係> ≪歷史研究≫ 1993-4
小島憲之, 1964校注≪日本古典文學大系 懷風藻·文華秀麗集·本朝文粹≫, 岩波書店

小嶋芳孝, 1994 <日本と渤海を結ぶ海の架け橋－古代日本海域の航路> ≪越の海, 波濤の海－古代國際交流の據点·北陸－≫에 수록, 北陸電力
小嶋芳孝, 1996a <蝦夷とユーラシア大陸の交流>鈴木靖民編 ≪古代王權と交流Ⅰ 古代蝦夷の世界と交流≫에 수록, 名著出版
小嶋芳孝, 1996b <古代日本と渤海> ≪考古學ジャーナル≫ 411
小嶋芳孝, 1997 <日本海の島々と靺鞨·渤海の交流> ≪境界の日本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後藤昭雄, 2003 <王孝廉「奉勅陪內宴詩」> ≪アジア遊學≫ 57
小林芳規, 2002a <新羅の角筆文獻>, 후에 ≪角筆文獻研究導論 上卷 東アジア篇≫에 수록, 汲古書院, 2004年
小林芳規, 2002b<朝鮮半島の角筆文獻>, 후에 ≪角筆文獻研究導論 上卷 東アジア篇≫에 수록, 汲古書院, 2004年
小林芳規, 2002c<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 大谷大學図書館報≪書香≫ 19
小林芳規, 2005 ≪角筆文獻研究導論 別卷 資料編≫, 汲古書院
小林芳規, 2008 <角筆による新羅語加点の華嚴經> ≪南都仏教≫ 91号
崔吉成, 1960 <新羅における自然村落的均田制－旗田氏の≪新羅の村落≫に關する若干の問題－> ≪歷史學研究≫ 237号
佐伯有淸, 1964 <九世紀の日本と朝鮮>, 후에 ≪日本古代の政治と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1970年
佐伯有淸, 1978 ≪講談社現代新書520 最後の遣唐使≫, 講談社
佐伯有淸, 1991 <背奈氏の氏称とその一族> ≪成城文芸≫ 136
坂上早魚, 1988 <九世紀の日唐交通と新羅人> ≪文明のクロスロード Museum Kyushu≫ 28号
坂上康俊, 1999 <大寶令制定前後における日唐間の情報傳播>池田溫·劉俊文編 ≪日中文化交流史叢書 2 法律制度≫, 大修館書店
坂上康俊, 2001 ≪律令國家の轉換と「日本」≫, 講談社
坂上康俊, 2004 <勅命下達文書の比較研究> ≪東アジアと日本≫創刊号
坂上康俊, 2008 <古代の日韓關係のなかでの戰爭と記憶>韓日關係史學會·東北アジア歷史財団編 ≪戰爭と記憶の中の韓日關係≫에 수록, 景仁文化社
阪田宗彦, 1974 <法隆寺の佐波理遺品> ≪ミュージアム≫ 280号
坂本太郎, 1932 <正倉院文書出雲國計會帳に見えたる節度使と四度使>, 후에 ≪坂本太郎著作集7律令制度≫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9年
坂本太郎, 1955 <天智紀の史料批判>, 후에 ≪坂本太郎著作集2古事記と日本書紀≫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8年
坂本義種, 1967-68 <古代東アジアの國際社會>,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에 수록, 吉川弘文館, 1978年
酒寄雅志, 1977a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酒寄雅志, 1977b<怡土城に關する一考察> ≪續日本紀研究≫ 194号
酒寄雅志, 1979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酒寄雅志, 1985a <渤海國中台省牒の基礎的研究>,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酒寄雅志, 1985b<渤海國中台省牒の位署について>,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酒寄雅志, 1988 <渤海通事の研究> ≪栃木史學≫ 2号
酒寄雅志, 1997a <雅樂<新靺鞨>にみる古代日本と東北アジア>,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酒寄雅志, 1997b <日本と渤海·靺鞨の交流>, 후에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2001年
酒寄雅志, 1998a <海を渡った渤海樂> ≪しにか≫ 9-9
酒寄雅志, 1998b <平城京出土の渤海木簡> ≪しにか≫ 9-9
酒寄雅志, 2001a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酒寄雅志, 2001b <渤海史研究の成果と課題> ≪渤海と古代の日本≫에 수록, 校倉書房
酒寄雅志, 2003 <渤海の交易>佐藤信編 ≪日本と渤海の古代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酒寄雅志, 2005 <円仁の足跡を訪ねて－山東半島>平成13年度～平成1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2))研究成果報告書≪『入唐求法巡禮行記』に關する文獻校定および基礎的研究≫(研究代表者：田中史生)
定森秀夫, 1999 <新羅土偶と樂器> ≪九州歷史大學講座≫ 9-6
佐藤信, 1997 <古代の≪大臣外交≫についての一考察>, 村井章介他編 ≪境界の日本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佐藤全敏, 2007 <古代日本の四等官制>, 후에 ≪平安時代の天皇と官僚制≫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2008年
重松敏彦, 1997 <平安初期における日本の國際秩序構想の変遷－新羅と渤海の位置づけの相違から－> ≪九州史學≫ 118·119合併号
下向井龍彦, 1995 <軍縮と軍擴の奈良時代> ≪歷博≫ 71
蔣義喬, 2005 <王孝廉「和坂領客對月思鄉見贈之作」> ≪アジア遊學≫ 73
新川登龜男, 1988 <日羅間の調(物産)の意味>, 후에<調(物産)の意味>로 제목을 바꾸어≪日本古代の對外交涉と仏教≫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9年
新川登龜男, 1993 <入唐求法の諸樣相－義湘そして円仁·道昭>, 후에<入唐求法の諸相>로 제목을 바꾸어 ≪日本古代の對外交涉と仏教≫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9年
新藏正道, 1995 <大寶の遣唐使派遣の背景> ≪續日本紀研究≫ 293号
新藏正道, 1999 <養老遣唐使の唐服着用のもつ意味>, 薗田香融編 ≪日本古代社會の史的展開≫에 수록, 塙書房
任継愈, 1994 ≪漢唐仏教思想論集≫, 人民出版社
末木文美士, 1992 ≪日本仏教史≫, 후에 新潮文庫, 1996年
末松保和, 1933 <日韓關係>, 후에 ≪古代の日本と朝鮮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四≫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6年
末松保和, 1974 <郡縣制完成期の問題点>, 후에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2 新羅の政治と社會≫ 下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5年
末松保和, 1933 <日韓關係>, 후에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4 古代の日本と朝鮮≫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6年
菅澤庸子, 1990 <古代日本における高麗の殘像> ≪史窓≫ 47
杉本一樹, 1990 <鳥毛立女屛風に用いられた文書故紙について>, 후에 ≪日本古代文書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1年
鈴木拓也·熊田亮介, 1995 <古代東北の海道·陸道> ≪東北開發研究≫ 97

鈴木英夫, 1980 <七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の對倭外交>, 후에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에 수록, 青木書店, 1996年
鈴木靖民, 1967a <奈良初期の對新羅關係>,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鈴木靖民, 1967b<養老期の對新羅關係>,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鈴木靖民, 1968 <天平初期の日羅關係>, 후에<天平初期の對新羅關係>と改題して≪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鈴木靖民, 1969 <奈良時代における對外意識>,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鈴木靖民, 1974 <日本律令制の成立·展開と對外關係>,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鈴木靖民, 1977 <正倉院佐波里加盤付屬文書の基礎的研究>,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鈴木靖民, 1978 <正倉院佐波理加盤付屬文書の解讀>,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鈴木靖民, 1982a <正倉院の新羅文物>,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鈴木靖民, 1982b <日本律令國家と新羅·渤海>, 후에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官, 1985年
鈴木靖民, 1990 <八世紀の新羅と日本の文化交流> ≪古代の日本と韓國5 古代の新羅と日本≫에 수록, 學生社
鈴木靖民, 1994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形成> ≪岩波講座日本通史3古代2≫에 수록
鈴木靖民, 1997 <平城京の新羅人と新羅文化>, 武田幸男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에 수록, 山川出版社
鈴木靖民, 1999a <渤海の遠距離交易と荷担者> ≪アジア遊學≫ 6
鈴木靖民, 1999b <渤海國家の構造と特質－首領·生產·交易－> ≪朝鮮學報≫ 17
鈴木靖民, 2005 <新羅の文字の傳播> ≪日本歷史≫ 685
鈴木靖民, 2007 <古代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と新羅>, 佐藤信他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에 수록, 山川出版社
鈴木靖民, 2008a <日本古代の神信仰の展開と仏教信仰>, 鈴木靖民編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에 수록, 勉誠出版
鈴木靖民, 2008b<日本律令の成立と新羅>, 大津透編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에 수록, 山川出版社
關晃, 1954 <新羅沙門行心>, 후에 ≪關晃著作集3古代の歸化人≫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6年
關晃, 1955 <遣新羅使の文化史的意義>, 후에 ≪關晃著作集3古代の歸化人≫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6年
關根眞隆, 1969 <奈良時代の廚房用具> ≪奈良朝食生活の研究≫, 吉川弘文館
關根眞隆, 1975 <大陸と日本との文物の交流はどのようであったか>, 森克己他編 ≪海外交涉史の視点1 原始·古代·中世≫에 수록, 日本書籍
關根眞隆, 1982 ≪万葉流轉－寧樂史私考－≫, 教育社
關幸彦, 1989 <平安期, 二つの海防問題－寬平期新羅戰と寬仁期刀伊戰の檢討> ≪古代文化≫ 41-10
千田剛道, 1996 <出土品からみた國際交流>, 田中琢編 ≪岩波新書468 古都發掘－藤原京と平城京－≫,

岩波書店
千田剛道, 2006 <平城京出土の新羅土器> ≪奈良文化財研究所紀要≫ 2006
千田稔, 2003 <中國の國際交易活動－장보고の海上王國について>, 千田稔他編 ≪東アジアと≪半島空間≫－山東半島と遼東半島－≫에 수록, 思文閣出版
宋浣範, 2003 <正倉院所藏『華嚴經論帙內貼文書』(いわゆる新羅村落文書)について> ≪東京大學日本史學研究室紀要≫ 7
宋浣範, 2005 <七世紀の倭國と百濟－百濟王子豊璋の動向を中心に> ≪日本歷史≫ 686
曾根正人, 2007 ≪聖德太子と飛鳥仏教≫, 吉川弘文館
薗田香融, 1964 <護り刀考>, 후에 ≪日本古代の歸屬と地方豪族≫에 수록, 塙書房, 1992年
高島正人, 1971 <日唐兩學令の一考察> ≪社會文化史學≫ 7号
高梨純次, 1998 <園城寺新羅善神堂> ≪週刊朝日百科1183 日本の國寶77≫, 朝日新聞社
瀧川政次郎, 1939 <日渤打毬の競技> ≪滿支史說史話≫에 수록, 日光書院
瀧川政次郎, 1954 <紫微中台考>, 후에 ≪法制史論集第四册 律令諸制及び令外官の研究≫에 수록, 名著普及會, 1986年
瀧川政次郎, 1961 <怡土城大宰府主船司> ≪史跡と美術≫ 315·317
瀧川政次郎, 1963 <江都集禮と日本の儀式>, 岩井博士古稀記念事業會編 ≪岩井博士古稀記念典籍論集≫에 수록
瀧川政次郎, 1977 <山陰道節度使－日本海沿岸の國防－> ≪國學院大學紀要≫ 15
武田幸男, 1967 <高麗朝における功蔭田柴科法の意義> ≪前近代アジアの法と社會≫에 수록, 刘草書房
武田幸男, 1971 <律令國家群の形成(朝鮮の律令制)> ≪岩波講座世界歷史6古代6東アジア世界の形成Ⅲ≫에 수록, 岩波書店
武田幸男, 1974 <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 朝鮮史研究會編·旗田巍監修≪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武田幸男, 1976 <新羅の村落支配－正倉院所藏文書の追記をめぐって－> ≪朝鮮學報≫ 81
武田幸男, 1985 <新羅"毗曇の亂"の一視角>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歷史編≫에 수록, 平凡社
武田幸男, 2000 <高麗王朝の興亡と國際情勢>, 武田幸男編 ≪世界各國史2朝鮮史≫, 山川出版社
田島公, 1985 <日本の律令國家の『賓禮』> ≪史林≫ 68-3
田島公, 1986 <外交と儀禮> ≪古代の日本≫ 7卷, 中央公論社
田島公, 1988 <「氏爵」の成立－儀式·奉仕·叙位－> ≪史林≫ 71-1
田島公, 1991 <海外との交涉>, 橋本義彦編 ≪古文書の語る日本史 平安≫에 수록, 筑摩書房
田島公, 1993a <奈良·平安初期の對外交涉> ≪福井縣史 通史編一≫에 수록, 福井縣
田島公, 1993b <日本, 中國·朝鮮對外交流史年表>, 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編 ≪貿易陶磁－奈良·平安の中國陶磁≫에 수록, 臨川書店
田島公, 1995 <大宰府鴻臚館の終焉> ≪日本史研究≫ 389号
立花大輔, 2009 <古代日本·朝鮮半島における戶の編成>,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府修士論文
辰巳正明, 1990 <長屋王と作寶樓の文學(新羅使人を送る, 作寶樓に置酒す)>, 후에 ≪万葉集と中國文學第二≫에 수록, 笠間書院, 1993年
舘野和己, 2003 <松原客館と渤海使>, 藤井讓治編 ≪街道の日本史31 近江·若狹と湖の道≫에 수록, 吉川弘文館
田中史生, 1994 <「王」姓賜与と日本古代國家>, 후에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에 수록, 校

倉書房, 1997年
田中史生, 1997 <筑前國における銀の交通と國際交易>, 후에 대폭 증보하여, <『歸化』と≪流來≫と≪商賈の輩≫>로 제목을 바꾸어,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에 수록, 校倉書房, 1997年
田中史生, 2005 <承和期前後の國際交易－장보고·文室宮田麻呂·円仁とその周辺>平成13年度～平成1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2))研究成果報告書≪『入唐求法巡禮行記』に關する文獻校定および基礎的研究≫(研究代表者：田中史生)
田中史生, 2007 <江南の新羅人交易者と日本>, 佐藤信·藤田覺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에 수록, 山川出版社
田中正日子, 1989 <古代の海外交流とその意義> ≪文明のクロスロード Museum Kyushu≫ 32
田村圓澄, 1979 <新羅送使考> ≪朝鮮學報≫ 90
田村圓澄, 1999 ≪古代日本の國家と仏教－東大寺創建の研究－≫, 吉川弘文館
辻善之助, 1915 <新羅明神考 附 三井寺の起り>, 후에 ≪日本仏教史之研究≫에 수록, 金港堂書籍, 1919年
角田文衛, 1963 ≪人物叢書 佐伯今毎夷≫, 吉川弘文館
鄭孝雲, 1990 <天智朝と"百濟の役"> ≪韓≫ 116
出越茂和, 1994 <石川·戸水大西遺跡> ≪木簡研究≫ 16
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2006 ≪天一閣藏明抄本天聖令考証≫, 中華書局
田鳳德, 1971 <新羅の律令攷>, 渡部學·李丙洙譯≪李朝法制史≫에 수록, 北望社. 원관은 <新羅律令攷> ≪韓國法制史研究(暗行御史研究其他)≫에 수록, 서울大學出版部, 1968年, 첫 發表 1956
東野治之, 1971 <四等官制成立以前における我國の職官制度>, 후에 ≪長屋王家木簡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96年
東野治之, 1974 <鳥毛立女図屛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77年
東野治之, 1977 <正倉院氈の墨書と新羅の對外交易>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東野治之, 1980 <護身劍銘文考>, 후에 ≪日本古代木簡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83年
東野治之, 1984 <日唐間における渤海の中継貿易> ≪遣唐使と正倉院≫에 수록, 岩波書店, 1992年
東野治之, 1992 <日出處·日本·ワークワーク> ≪遣唐使と正倉院≫에 수록, 岩波書店
戸田芳實, 1967 <領主的土地所有の先驅形態> ≪日本領主制成立史の研究≫에 수록, 岩波書店
友寄隆史, 1979 <節度使設置について> ≪立正史學≫ 45号
虎尾俊哉, 1974a <ミヤケの土地制度に關する一試論－新羅國民政文書の檢討を通じて－>, 후에 ≪日本古代土地法史論≫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1年
虎尾俊哉, 1974b <新羅文書の「計烟」算出法>, 후에 ≪古代典籍文書論考≫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2年
鳥山喜一, 1915 ≪渤海史考≫, 東京奉公會, 후에 原書房, 1977年復刊
鳥山喜一, 1968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內藤雋輔, 1961 <新羅人の海上活動に就いて> ≪朝鮮史研究≫에 수록, 東洋史研究會
長瀨一平, 1986 <白村江敗戰後における≪百濟王權≫について> ≪千葉史學≫ 6
中西正和, 1990 <新羅使·渤海使の來朝と大宰府－大宰府の外交的機能について－> ≪古代史の研究≫ 8
中西正和, 1997 <大宰府と存問>, 横田健一編 ≪日本書紀研究≫ 21册, 塙書房
中西正和, 1998 <渤海使の來朝と天長五年正月二日官符> ≪ヒストリア≫ 159号

中西正和, 1999 <大宰府の國書開封について>, 薗田香融編 ≪日本古代社會の史的展開≫에 수록, 塙書房
中野高行, 1984 <慰勞詔書に關する基礎的考察>, 후에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에 수록, 岩田書院, 2008年
中野高行, 1987 <慰勞詔書と『對蕃使詔』の關係>, 후에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에 수록, 岩田書院, 2008年
中野高行, 1997 <日本古代における外國使節處遇の決定主体> ≪日本歷史≫ 593号
中野政樹, 1976 <正倉院の金工 總說> ≪正倉院の金工≫에 수록, 日本經濟新聞社
中野政樹編, 1978 ≪日本の美術141正倉院の金工≫, 至文堂
中野政樹, 1981 <正倉院寶物の佐波理加盤鋺> ≪ミュージアム≫ 368
中野政樹·李蘭暎, 1978 <對談 正倉院の中の新羅文物>, 中野政樹編 ≪日本の美術141正倉院の金工≫에 수록, 至文堂
中村成里, 2004 <巨勢識人「春日餞野柱史奉使存問渤海客」> ≪アジア遊學≫ 69
中村榮孝, 1927 <後百濟および高麗太祖の日本通使>, 후에 ≪日鮮關係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65年
中村裕一, 1979 <咸和一一年渤海國中台省牒について－古代東アジア國際文書の一形式>, 후에<渤海國咸和一一年(八四一)中台省牒－古代東亞國際文書の一形式>으로 제목을 바꾸어≪唐代官文書研究≫에 수록, 中文出版社, 1991年
中村順昭, 1992 <奉寫一切經所の月借錢について>, 후에 ≪律令官人制と地域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那波利貞, 1954~6 <唐代の敦煌地方に於ける朝鮮人の流寓に就きて> ≪文化史學≫ 8~10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編, 1991 ≪平城京長屋王邸宅と木簡≫, 吉川弘文館
成澤光, 1975 <蕃國と小國>, 후에 ≪政治のことば≫에 수록, 平凡社, 1984年
成瀨正和, 1991 <図版解說(樂器) 金薄押新羅琴 柱>, 松本包夫編 ≪正倉院寶物にみる樂舞·遊戲具≫에 수록, 紫紅社
新妻利久, 1969 ≪渤海國史及び日本との國交史の研究≫, 東京電機大學出版局
新野直吉, 1994 <肅愼から靺鞨へ> ≪古代日本と北の海みち≫에 수록, 高科書店
西嶋定生, 1962 <六－八世紀の東アジア>, 후에<東アジア世界と册封体制－六－八世紀の東アジア>로 제목을 바꾸어≪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1983年
西嶋定生, 1981 <七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5隋唐帝國の出現と東アジア≫에 수록, 學生社
西別府元日, 2000 <九世紀前半の日羅交易と紀三津の「失使旨」事件>, 후에 岸田裕之編 ≪中國地域と對外關係≫에 수록, 山川出版社, 2003年
西本昌弘, 1985 <豊璋と翹岐> ≪ヒストリア≫ 107
西本昌弘, 1987 <東アジアの動亂と大化改新> ≪日本歷史≫ 468
野村忠夫, 1953 <正倉院より發見された新羅の民政文書について> ≪史學雜誌≫ 62-4
野村忠夫, 1970 <戰後の律令官人制研究> ≪律令官人制の研究 增訂版≫에 수록, 吉川弘文館
バートン, ブルース, 1985 <律令制下における新羅使·渤海使の接待法－大宰府外交機能の解明へ－> ≪九州史學≫ 83号
白化文·李鼎霞·許德楠, 2007 ≪日唐求法巡禮行記校注≫, 花山文芸出版社
橋川正, 1920 <日本世記の著者高麗沙門道顯> ≪歷史と地理≫ 6-5

橋本義則, 1984 <平安宮草創期の豊樂院>, 후에 ≪平安宮成立史の硏究≫에 수록, 塙書房, 1994年
旗田巍, 1958·59 <新羅の村落－正倉院にある新羅村落文書の硏究－>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에 수록, 法政大學出版局, 1972年
旗田巍, 1962 <十～十二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岩波講座日本歷史≫古代4, 岩波書店
浜田久美子, 2002 <延喜式に見える外國使節迎接使－太政官式蕃客條と治部式蕃客條の檢討－> ≪延喜式硏究≫ 18
浜田久美子, 2003 <古代日本における賓禮の受容>, 佐藤信編 ≪日本と渤海の古代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浜田久美子, 2005 <渤海國書にみる八世紀日本の對外認識－啓と表の考察を通して> ≪國史學≫ 185号
浜田久美子, 2006 <漢詩文にみる弘仁六年の渤海使> ≪法政史學≫ 66号
浜田久美子, 2006 <弘仁十二年の渤海使－『經國集』の漢詩を手がかりに> ≪法政大學大學院紀要≫ 57号
浜田久美子, 2008 <九世紀の日本と渤海> ≪ヒストリア≫ 210号
濱田耕策, 1979 <聖德王代の政治と外交>, 후에 ≪新羅國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濱田耕策, 1980 <國學と遣唐留學生>, 후에 ≪新羅國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濱田耕策, 1983 <中代·下代の內政と對日本外交>, 후에 ≪新羅國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濱田耕策, 1984 <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 후에 ≪新羅國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濱田耕策, 1986 <『新羅村落文書』硏究の成果と課題－その作成年および內省の祿邑說を中心に－> 唐代史硏究會編 ≪律令制－中國朝鮮の法と國家≫에 수록, 汲古書院
濱田耕策, 1990 <迎賓機構>, 후에 ≪新羅國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濱田耕策, 1997 <對日外交の終幕>, 후에 ≪新羅國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濱田耕策, 1982 <新羅の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후에<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로 제목을 바꾸어≪新羅國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濱田耕策, 1999 <王權と海上勢力－特に張保皐の淸海鎭と海賊に關連して> ≪新羅國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濱田耕策, 2000a <渤海國の遣日本使> ≪慶北史學≫ 23
濱田耕策, 2000b ≪渤海國興亡史≫吉川弘文館
濱田耕策, 2000c <下代初期における王權の確立過程とその性格>, 후에 ≪新羅國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2年
濱中昇, 1982 <統一新羅における均田制の存否>, 후에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에 수록, 法政大學出版局, 1986年
濱中昇, 1983 <新羅村落文書にみえる計烟について>, 후에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에 수록, 法政大學出版局, 1986年
濱中昇, 1985 <統一新羅の村落と村主> ≪歷史學硏究≫ 547
濱中昇, 1986 <高麗の公田と私田>, 田名網宏編 ≪古代國家の支配と構造≫에 수록, 東京堂出版
濱中昇, 1993 <新羅村落文書を通してみた土地開發と分村> ≪神田外語大學紀要≫ 5
早川庄八, 1962 <天平六年出雲國計會帳の硏究>, 후에 ≪日本古代の文書と典籍≫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7年
早川庄八, 1981 <八世紀の任官關係文書と任官儀について>, 후에 ≪日本古代官僚制の硏究≫에 수록, 岩波書店, 1986年

林紀昭, 1968 <新羅律令に關する二, 三の問題> ≪法制史研究≫ 17号
林紀昭, 1970 <飛鳥淨御原律令に關する諸問題>, 후에 ≪論集日本歷史2律令國家≫에 수록, 有精堂, 1973年
原田諭, 1999 <天平の節度使について> ≪續日本紀研究≫ 321号
春山武松, 1931 <海風鈔(三)－園城寺藏≪新羅明神像≫>飛鳥園≪東洋美術≫ 10
久木幸男, 1968 <大學寮と朝鮮·中國の學制> ≪大學寮と古代儒教≫에 수록, サイマル出版會
日野開三郎, 1960~61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 후에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第9卷에 수록, 三一書房, 1984年
平川南, 1999 <屋代遺跡群木簡のひろがり>, 후에 ≪古代地方木簡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3年
平野邦雄, 1970 <新羅來寇の幻影>鏡山猛他編 ≪古代の日本3 九州≫, 角川書店
平野邦雄, 1980 <國際關係における"歸化"と"外蕃"> ≪大化前代政治過程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5年
平野邦雄, 1990 <鴻臚館の成立> ≪古代文化≫ 42-12
平野邦雄, 1993 <大宰府と東アジア－大宰府外交の權限と實務> ≪歷史と地理≫ 454 <日本史の研究> 161号
平野卓治, 1985 <律令位階制と「外蕃」>林陸郎先生還曆記念會編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에 수록, 續群書類從完成會
平野卓治, 1988a <日本古代の客館に關する一考察> ≪國學院雜誌≫ 89-3
平野卓治, 1988b <山陽道と蕃客> ≪國史學≫ 135
平野卓治, 1996 <九世紀における日本律令國家と對新羅「交通」>, 林陸朗他編 ≪日本古代の國家と祭儀≫에 수록, 雄山閣出版
廣瀨憲雄, 2008 <『東天皇』外交文書と書狀> ≪日本歷史≫ 724
深谷憲一, 1990 ≪日唐求法巡禮行記≫, 中公文庫
藤井一二, 2004 <天平期における加賀郡「津」と遣渤海使一「天平二年」「津司」墨書銘を中心に>, 續日本紀研究會編 ≪續日本紀の諸相≫에 수록, 塙書房.3c2091
藤田亮策, 1954 <靑丘遺文>, 藤田先生記念事業會≪朝鮮學論考≫에 수록
卞鱗錫, 1967 <唐代外國使爭長의 研究－『續日本紀』所載의 소위 大伴古麻呂에 대하여－>,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亞細亞研究≫ 28, 한글
卞鱗錫, 1987 <唐代外國使의 爭長事例로 본 古麻呂抗議의 再論－『續日本紀』關係史料의 批判을 中心으로－>서울大學校≪東洋史研究≫ 26, 한글
古畑徹, 1983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 ≪朝鮮學報≫ 107
古畑徹, 1984 <大文芸の亡命年次について> ≪集刊東洋學≫ 51
古畑徹, 1986a <唐渤紛爭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 55
古畑徹, 1986b<日渤海交涉開始期の東アジア情勢－渤海對日交涉開始要因の再檢討－>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3
古畑徹, 1994 <渤海·日本間航路の諸問題－渤海から日本への航路を中心に> ≪古代文化≫ 46-8
古畑徹, 1995a <渤海·日本間の航路について> ≪古代交通研究≫ 4
古畑徹, 1995b<渤海使の文化使節的側面の再檢討－渤海後期の中華意識·對日意識と關連させて－>, 東北大學≪東洋史論集≫ 6
古畑徹, 1999 <環日本海諸「地域」間交流史の中の渤海國－七~一〇世紀における航路の変遷を中心に>唐代史研究會編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地域 唐代史研究會報告Ⅷ≫에 수록, 刀水書

房
朴昔順, 2001 <日本古代國家の對『蕃』認識> ≪日本歷史≫ 637
保科富士男, 1989 <古代日本の對外關係における贈進物の名称> ≪白山史學≫ 25
保科富士男, 1995 <古代日本の對外意識－相互關係をしめす用語から－>, 田中健夫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에 수록, 吉川弘文館
堀池春峰, 1973 <華嚴經講說より見た良弁と審祥>, 후에 ≪南都仏教史の研究≫ 上에 수록, 法藏館, 1980年
堀敏一, 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堀敏一, 1994 <律令制傳播の特質>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에 수록, 汲古書院
堀敏一, 1998a <唐代新羅人居留地と日本僧円仁入唐の由來> ≪古代文化≫ 50-9
堀敏一, 1998b ≪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日本≫, 研文出版
前原市教育委員會編, 2006 ≪怡土城≫
增村宏, 1988 <粟田眞人と藤原清河> ≪遣唐使の研究≫에 수록, 同朋舍出版
松島順正, 1978 ≪正倉院寶物銘文集成≫, 吉川弘文館
松原弘宣, 1994 <文室朝臣宮田麻呂について>, 續日本紀研究會編 ≪續日本紀の時代≫, 塙書房
松原弘宣, 1998 <海賊と應天門の変>, 후에 ≪古代國家と瀨戶內海交通≫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4年
松原弘宣, 1999 ≪人物叢書 藤原純友≫, 吉川弘文館
松原弘宣, 1999 <九世紀代における對外交易とその流通>, 후에 ≪古代國家と瀨戶內海交通≫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4年
黛弘道, 1959 <冠位十二階考>, 후에 ≪律令國家成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2年
黛弘道, 1979 <冠位十二階の實態と源流>, 후에 ≪律令國家成立史の研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82年
三池賢一, 1971～72 <新羅內廷官制考(上下)> ≪朝鮮學報≫ 61·62
三池賢一, 1973 <日本と朝鮮の位階>井上秀雄編 ≪セミナー日本と朝鮮の歷史≫에 수록, 東出版
三上喜孝, 2006 <文書様式「牒」の受容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學歷史·地理·人類學論集≫ 7
三上喜孝, 2007 <韓國出土木簡と日本古代木簡>朝鮮文化研究所編 ≪韓國出土木簡の世界≫에 수록, 雄山閣出版
三上喜孝, 2009 <古代東アジア出擧制度試論>, 工藤元男他編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에 수록, 雄山閣
水口幹記, 2005 ≪日本古代漢籍受容の史的研究≫, 汲古書院
皆川完一, 1994 <買新羅物解 拾遺> ≪正倉院文書研究≫ 2
皆川雅樹, 2002 <9～10世紀における日本の金と對外關係> ≪古代交通研究≫ 11
宮家準, 2002 <新羅明神信仰と役行者像> ≪神道宗教≫ 188
宮井義雄, 1992 <素戔嗚尊と新羅明神>, 横田健一編 ≪日本書紀研究≫ 18, 塙書房
宮崎市定, 1959a <日本の官位令と唐の官品令>, 후에 ≪宮崎市定全集22日中交涉≫에 수록, 岩波書店, 1992年
宮崎市定, 1959b <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 후에 ≪宮崎市定全集22日中交涉≫에 수록, 岩波書店, 1992年
宮崎健司, 1998 <東大寺の『華嚴經』講說－テキストと經疏をめぐって－> ≪仏教大學總合研究所紀要≫ 別册 <宗教と政治>
宮崎健司, 2006 <大谷大學図書館藏『判比量論』斷簡の性格> ≪日本古代の寫經と社會≫에 수록, 塙書

房
村井章介, 1995 <王土王民思想と九世紀の轉換> ≪思想≫ 847
村上史郎, 1998 <9世紀における日本律令國家の對外交通の諸樣相－大唐通事·漂流民送還·<入唐交易使>をめぐって－> ≪千葉史學≫ 33
村上史郎, 1999 <9世紀における日本律令國家の對外意識と對外交通> ≪史學≫ 69-1
村田正博, 1984 <上代の詩苑－長王宅における新羅使饗應の宴> ≪人文硏究≫ 26-8
村尾次郎, 1953 <出雲國風土記の勘造と節度使>, 후에 ≪律令財政史の硏究≫에 수록, 吉川弘文館, 1961年
森克己, 1949 <末期日唐貿易と中世的貿易の萌芽>, 후에 ≪續日宋貿易の硏究≫에 수록, 國書刊行會, 1975年
森克己, 1951 <遣唐使と新羅·渤海との關係>, 후에 ≪續日宋貿易の硏究≫에 수록, 國書刊行會, 1975年
森克己, 1962 ≪遣唐使≫, 至文堂
森克己, 1964 <慈覺大師と新羅人>, 후에 ≪續日宋貿易の硏究≫에 수록, 國書刊行會, 1975年
森克己, 1975 ≪日宋貿易の硏究≫, 國書刊行會
森公章, 1988 <古代日本における對唐觀の硏究>, 후에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8年
森公章, 1992 <朝鮮半島をめぐる唐と倭>, 후에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8年
森公章, 1995 <古代難波における外交儀禮とその変遷>, 후에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에 수록, 吉川弘文館, 1998年
森公章, 1998a <大宰府および到着地の外交機能>, 후에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에 수록, 吉川弘文館
森公章, 1998b ≪「白村江」以後≫, 講談社
森公章, 2002a <加耶滅亡後の倭國と百濟の<任那復興>策について>, 후에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a
森公章, 2002b<倭國から日本へ>森公章編 ≪日本の時代史3倭國から日本へ≫에 수록, 吉川弘文館
森公章, 2003 <賓禮の変遷から見た日渤關係をめぐる一考察>, 후에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森公章, 2004 <日渤關係における年期制の成立とその意義>, 후에 ≪遣唐使と日本古代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8年
森公章, 2005a <白村江戰鬪と高句麗>, 韓日關係史學會國際學術大會 <東アジアのなかの高句麗と倭> 報告集
森公章, 2005b<中大兄の軌跡> ≪海南史學≫ 43
森公章, 2008a <七世紀の國際關係と律令体制の導入>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森公章, 2008b <承和度の遣唐使と九世紀の對外政策>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에 수록, 吉川弘文館
森公章, 2008c <古代日麗關係の形成と展開> ≪海南史學≫ 46
森田悌, 1999 <蕃國國書の開見>, 후에 ≪日本古代の驛傳と交通≫에 수록, 岩田書院, 2000年
森本公誠, 2003 <東大寺と華嚴經－聖武天皇による華嚴經止揚への過程を追って－> ≪南都仏教≫ 83号
八木充, 1970 <百濟の役と民衆>, 小葉田淳教授退官記念≪國史論集≫에 수록

八木充, 1986 <難波遷都と海外情勢> ≪日本古代政治組織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柳雄太郎, 1976 <正倉院金工の銘文> ≪正倉院の金工≫에 수록, 日本經濟新聞社
矢吹慶輝, 1927 <大雲經と武周革命> ≪三階經の研究≫에 수록, 岩波書店
山內晋次, 1986 <唐朝の國際秩序と日本>, 후에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3年
山內晋次, 1990 <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って>, 후에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에 수록, 吉川弘文館, 2003年
山尾幸久, 1967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歷史≫ 229
山崎雅稔, 1999 <貞觀五年神泉苑御靈會の政治史的意義－文室宮田麻呂の慰撫を中心に>, 十世紀研究會編 ≪中世成立期の政治文化≫, 東京堂出版
山崎雅稔, 2000 <貞觀八年應天門失火事件と新羅賊兵> ≪人民の歷史學≫ 146
山崎雅稔, 2001a <承和の変と大宰大貳藤原衛四條起請> ≪歷史學研究≫ 751号
山崎雅稔, 2001b<貞觀十一年新羅海賊來寇事件の諸相> ≪國學院大學大學院紀要(文學研究科)≫ 32
山崎雅稔, 2004 <甄萱政權と日本の交涉> ≪韓國古代史研究≫ 35号
山崎雅稔, 2007 <新羅國執事省牒からみた紀三津「失使旨」事件>木村茂光編 ≪日本中世の權力と地域社會≫에 수록, 吉川弘文館
山田英雄, 1974 <日·唐·羅·渤間の國書について>, 후에 ≪日本古代史攷≫에 수록, 岩波書店, 1987年
山谷紀子, 2004 <滋野貞主「春夜宿鴻臚簡渤海入朝王大使」> ≪アジア遊學≫ 66
山本勉, 1998 <新羅明神坐像> ≪週刊朝日百科1183 日本の國寶77≫에 수록, 朝日新聞社
山本幸男, 2004 <天平十二年の『華嚴經』講說>續日本紀研究會編 ≪續日本紀の諸相≫에 수록, 塙書房
山本信吉, 2006 <聖語藏『大方廣仏華嚴經(自卷第七十二至卷第八十)』の書誌的考察> ≪正倉院紀要≫ 28号
山本幸男, 2008 <東大寺華嚴宗の敎學と實踐> ≪南都仏敎≫ 91号
吉川眞司, 1988 <奈良時代の宣>, 후에 ≪律令官僚制の研究≫에 수록, 塙書房, 1998年
吉川眞司, 2004 <律令体制の形成>, 歷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編 ≪日本史講座 1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の形成≫에 수록, 東京大學出版會
吉津宜英, 1991 ≪華嚴一乘思想の研究≫, 大東出版社
吉津宜英, 1997 <全一のイデア－南都における<華嚴宗>成立の思想史的意義－>鎌田茂雄博士古稀記念會編 ≪華嚴學論集≫에 수록, 大藏出版
ライシャワー, エドウィン O.. 1955'Enin's Diary－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ライシャワー, エドウィン O.. 1963 ≪世界史上の円仁≫ 田村完誓譯, 實業之日本社, 후에 제목을 바꾸어 ≪円仁 唐代中國への旅≫, 原書房 1984年, 또 ≪講談社學術文庫 円仁 唐代中國への旅≫, 1999年
羅幸柱, 1996 <古代朝·日關係における<質>の意味> ≪史觀≫ 134
李宇泰, 1983 <新羅『村落文書』と村域に對する一考察> ≪金哲埈博士華甲紀年史學論叢≫에 수록, 知識產業社, 한글
李宇泰, 1993 <新羅西原京研究の現狀と課題－村落文書を中心として－> ≪湖西文化研究≫ 11, 한글
李喜寬, 1994 <新羅村落帳籍に見える村の性格>, 후에 ≪統一新羅土地制度史研究≫에 수록, 一潮閣, 1999年, 한글
李基東, 2001(近藤浩一譯)<張保皐とその海上王國(上)(下)> ≪アジア遊學≫ 26·27号
李弘稙, 1954 <日本正倉院發見の新羅民政文書>, 후에 ≪韓國古代史の研究≫에 수록, 新丘文化社,

1971年, 한글
利光三津夫, 1962 <百濟亡命政權考> ≪律令制とその周辺≫에 수록, 慶應通信, 1967年
利光三津夫, 1966 <奈良時代における大學寮明法科>, 후에 ≪律令制とその周辺≫에 수록, 慶應通信, 1967年
李仁哲, 1993 <新羅帳籍に見える村の形態と性格>, 후에 ≪新羅村落社會史≫에 수록, 一志社, 1996年, 한글
李仁哲, 2001 <新羅帳籍に對する幾つかの論議> ≪韓國古代史研究≫ 21, 한글
李成市, 1982 <正倉院寶物氈貼布記を通して見た八世紀の日羅關係> ≪朝鮮史研究會會報≫ 67号
李成市, 1989 <蔚珍鳳坪新羅碑の基礎的研究>,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98年
李成市, 1990 <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國書問題に關する一試論>,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98年
李成市, 1994 <渤海の對日本外交への理路>,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98年
李成市,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正倉院の寶物が來たもう一つの道－≫, 青木書店
李成市, 1998 <正倉院所藏新羅氈貼布記の研究－新羅･日本間交易の性格をめぐって>, 후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에 수록, 岩波書店, 1998年
李成市, 2000 <三國の統一と新羅･渤海>, 武田幸男編 ≪世界各國史2朝鮮史≫에 수록, 山川出版社
李成市, 2004 <新羅文武･神文王代の集權政策と骨品制> ≪日本史研究≫ 500
李成市, 2005 <古代朝鮮の文字文化>, 平川南編 ≪古代日本 文字の來た道≫에 수록, 大修館書店
李成市, 2009 <韓國木簡研究の現在>, 工藤元男他編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에 수록, 雄山閣
李泰鎭, 1990 <新羅村落文書の牛馬>碧史李佑成教授定年退職紀年論叢≪民族史の展開とその文化≫上에 수록, 創作と批評社, 한글
李文基, 2002 <最近の韓國學界における韓國における韓國古代史研究の動向－新羅史關係資料問題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4
李炳魯, 1993 <九世紀初期における<環シナ海貿易圈>の考察－張保皐と對日交易を中心として> ≪神戸大學史學年報≫ 8
李侑珍, 2004 <九世紀, 唐･新羅･日本の交易と商人> ≪國學院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35
李鎔賢, 2008 <佐官貸食記と百濟貸食制>國立扶余博物館≪百濟木簡≫, 한글
李蘭映, 1983 <統一新羅の銅製器皿について> ≪大宰府古文化論叢≫ 下卷에 수록, 吉川弘文館
梁正錫, 1999 <新羅公式令の王命文書様式> ≪韓國古代史研究≫ 15, 한글
和田軍一, 1924a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畵について(第一回)> ≪史學雜誌≫ 35-10
和田軍一, 1924b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畵について(第二回 完)> ≪史學雜誌≫ 35-11
和田龍介, 2000 <畝田･寺中遺跡> ≪木簡研究≫ 22
渡邊誠, 2003 <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大宰府> ≪ヒストリア≫ 184号
渡邊誠, 2005 <文室宮田麻呂の「謀反」> ≪日本歷史≫ 687
渡邊誠, 2007 <藤原元利万侶と新羅の「通謀」> ≪史學研究≫ 258
渡邊誠, 2009 <日本古代の朝鮮觀と三韓征伐傳說> ≪文化交流史比較プロジェクト研究センター報告書≫ Ⅵ

좌담회 토론문

김태식 : 지금부터 1분과 16차 합동분과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일정은 한 주제당 통역 포함해서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전 중에 제 1주제 3세기 이전에 대해서 마치고, 2주제의 한 절반 정도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주제 나머지와 3주제를 하고, 약간 시간을 내서 이번 우리 제2기 위원회 1분과에 대한 반성과 전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회의는 편집회의가 될 텐데, 원고 마감이 9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작성에 있어서 약간 더 논의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것을 끝내기 전에 잠깐 더 논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2기 제1분과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濱田 : 좀 전에 선생님께서 좌담회의 방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1분과의 각 테마에 대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좌담회의 테이프 녹취, 향후의 편집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좋은 발언을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태식 : 1기 때부터 해오던 원칙인데 좌담회 녹취록은 고칠 수 없으니, 조리 있게 정리된 말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좌담회의 원칙은 각 주제별로 한일 양측에서 약 10분간 발제문을,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표하고, 나머지 분들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대한일 또는 일한관계의 성립>입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이니, 역시 손님이 먼저, 하마다 선생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濱田 : 조 선생님께서 충분히 준비하셨으니, 조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김태식 : 손님이시니까 하마다 선생님 먼저 하시지요.

濱田 : 아, 그렇습니까? 손님이 먼저였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손님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먼저 쓴맛을 보는 것이 이 회의입니까? 농담입니다.

저는 <고대 일한관계의 성립>, '지역 간 교류에서 고대국가의 관계로'라는 부제로 연구정리에 임해왔습니다.

저의 보고문 목차로 아실 수 있겠는데, '고고학의 성과로 본 반도·해협·열도의 지역 간 교류'를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고학자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주제 하에서 주로 고고학자들의 논문과 문서들을 읽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부분의 글은 전문가이신 고고학자들이 보면 여러 가지로 비판 혹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우리는 주제를 폭넓게, 시대적으로 길게 설정했습니다. 그러한 의욕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연구 또는 관심 주제로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일한관계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일한관계사라는 문제의 설정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하는, 이른바 저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부제로 '지역 간 교류에서 고대국가의 관계로'라고 하여 '지역과 교류', '국가와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기원을 생각할 때, 혹은 일본 문화의 형성을 생각할 때 한반도 지역, 한반도 지역과의 교류는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사에 치환하면, 오늘날의 한국으로 이어지는 또는 한국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기원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 한반도에서는 대륙과의, 중국 동북 또는 산동 지역과의 관계·교류라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는 한반도 지역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지역 간 교류라는 것이 고대국가의 관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 간 교류는 과연 오늘날에 말하는 국가 관계로 이해해도 충분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혹성이 형성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하나의 고대국가를 하나의 혹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혹성이 아직 혼돈된 코어상태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혹성이 되는 상태에서 말하면, 일본·한국의 고대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지역 간 교류라는 것은 그런 코어라고 할까, 혼돈이라고 하면 혼란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혼돈 속의 국가 성립 이전의 지역 간 교류라는 것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광범위한 세계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10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고대국가, 일본의 고대국가, 한국의 고대국가가 언제쯤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까, 또는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대의 일한관계사를 세계적인 규모에서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며 또 양국 국민들의 중요한 교양의 하나로서 배양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식 : 하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폭넓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법종 선생님께서도 한 10분 정도 발제문을 발표해 주시죠.

조법종 : 그럼 준비된 발표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하마다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의 문화교류 내지는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봐야 한다고 했을 때, 선사문화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언급, 연구 성과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일선사문화의 교류에 대한 것을 일단 큰 절로 설정을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일 선사문화 교류에 대한 한국·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볼 기회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야요이(彌生) 문화 성립의 중요요소인 水田稻作, 그리고 청동기, 철기 등 금속문화의 전래양상에 대해서 종래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나 개설서에서는 전래의 주체나 지역에 대해서 좀 폭넓게 대륙이라고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연구 성과를 완전히 다 포괄해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접한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양국의 연구 성과가 확인되고 있었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

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稻作文化의 경우 한반도의 송국리 문화의 영향이 확실하게 양국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청동기의 경우도 세형동검,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한국식 동검으로 불리는 한반도 중심의 동검문화가, 청동문화가 일본열도에 전해졌음이 확인되어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야요이 연대 상한과 관련된 AMS를 활용한 일본 사쿠라(佐倉)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최근 연구 활동과 성과는 상당히 유의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야요이 문화의 형성에 한반도로부터의 청동문화가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연구 성과나 내용이 충분히 포괄되지 않은 입장은 아직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연대 상승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외교류에 대한 최초의 역사기록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山海經≫과 ≪漢書≫ 地理志 기록의 내용을 볼 때에 일본 학계에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출발과 근거로서 이 사료를 활용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기록은 고조선 개국 등 倭와 奚 사이에 존재하였던 교류와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사건임을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만조선 이후 성립된 낙랑, 대방 등 군·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위만조선과 왜 사이에 이미 존재했던 교류관계가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고조선과 왜와의 관계가 보다 새롭게 확인이 되었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래의 이 같은 이해가 양국의 개설서나 연구서에서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좀 더 의미가 부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역사시대의 중국과의 관계까지 앞서 하마다 선생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때 '중역외교'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고조선 및 삼한을 포괄한 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중역외교'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서를 통해 동이 세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역을 해주는 중역 국가와 피중역 국가와 종족 사이에 附庸國家的인 성격의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삼한이 왜를 군·현과 중계하는, 연결하는데 중역을 해 주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러한 관계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 중역외교에 의한 삼한·왜 등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향후 더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적인 연구 그리고 고고학적인 연구를, 제가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선사 고대의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향후 양국의 고고학적 성과를 체계화하고 종합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상당히 관심 높게 진행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폭넓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앞서 하마다 선생님께서 제기한 것처럼 그 공동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태식 : 조법종 선생님의 발제는 크게 봐서는 3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벼농사와 금속문화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전래된 것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관계는 고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역외교라는 체제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서의 국제관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하마다 선생님이 제기한 한일관계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또는 지역 간 교류와 국가 간 교류, 지역 간 교류를 국가 간 교류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된다고 보입니다. 우선 조법종 선생님의 발제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회의를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우선 조법종 선생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하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濱田 : 제가 조 선생님과 같은 시대를 담당했었기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공동연구 좌담

회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를 담당한 선생님께서도 부디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처럼 딱딱하게 굳은 머리를 깨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본의 연구, 일본의 이해 속에는 稻作文化 또는 청동기문화는 1차적으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에서 들어온 것은 분명하여, 한국 충청남도의 송국리를 중심으로 한 稻作 또는 주거문화라는 것은 송국리에서 한반도 남부 그리고 북부 규슈(九州)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규슈 대학의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듯이 稻作文化가 보다 훨씬 전에 산둥반도를 경유하여 그리고 한반도 서남부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광범위한 루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청동기문화도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일본열도 들어오지만, 자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나 하는 시각이 일본학계에서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동아시아사적으로 볼 때 또는 세계사적으로 그런 문화의 전파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속에서 국소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들어오는 최종적인 전파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글쎄 잘못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한 견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고조선 시대에 있어서의 왜와의 관계도 향후에는 꼭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른바 고고학에서 발굴한 곳의 양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의 전파상황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절대 연도로 해서 어떤 시대로 설정할까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山海經≫이나 ≪漢書≫ 地理志 등에 왜가 나옵니다. 이것은 즉 어떤 형태로든 왜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자 측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 정보는 중간에 있는 고조선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가 토대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헌은 매우 단편적이고 매우 적어서 역시 그런 조금밖에 없는 문헌기록에 나타난 예상되는 교류라는 것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은 역시 땅속에 묻힌 문화재를 해석해 나가는 고고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의 양 지역의 교류가 드디어 3세기, 4세기의 일한관계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토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중역외교에 대한 점인데요, 두 지역, 한반도지역과 일본열도 서부지역과의 사이에서 그때까지의 이른바 느슨한 외교를 보다 강한 왕권이라고 할까요? 권

력의 집중이라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진부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漢 武帝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황제 권력의 직접적인 출장기관인 4개의 군을 두었다는 것은 두 지역의 그 때까지의 교류를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고, 이것은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무시할 수 없다. 잘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삼한이 왜를 낙랑군, 대방군에 안내하자 왜의 나라들이 낙랑군, 대방군에 사절을 보낸다는 것은 당연히 삼한의 국가들과의 연계 하에서 또는 그 토지들을 경유하면서 나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 선생님의 문제제기 속에서 중국왕조로 안내하여 중국어로 통역한다는 입장의 국가가 안내 받는 종족 또는 국가에 대하여 이것을 부용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관계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나지만 고대사의 논문을 읽어보고 갑자기 개념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용국이라는 관계는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좋을까 하는 점이 이 단어를 쓰는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 선생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부용국 관계라고는 것은 어떤 실태를 또는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가를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시나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틀어 부용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양자의 관계를 결정지어 버리는 것도 너무 지나친 것일 것으로, 다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로는 중역하는 使者 또는 국가는 피중역국의 사자를 동반함으로써 그 자신이 중국왕조로부터 받는 평가가 높아진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하마다 선생님이 조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3가지를 간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벼농사나 금속기 문화가 한반도 남부에서 북규슈로 전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볼 때 일본식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조선과 왜의 관계를 고고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하고 문헌 등에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 중역 외교에 대해서는 조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셨다고 생각됩니다. 조 선생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법종 :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稻作文化와 청동기문화의 한일관계의 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큰 틀에서의 이야기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나누어져서 설명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稻作文化는 기술을 가진 집단의 이동이 전제된 것이었기 때문에, 단지 볍씨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집단을 통해서 왔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의미가 부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동기, 철기 등 금속문화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새롭게 중국의 청동기 문화와는 별도의 전혀 새로운 청동 문화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동일한 형태로 일본까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의 접근,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됩니다만, 사실 고조선과 관련된 왜와의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것과 사실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을 때, 오히려 고고학적인 세형동검 문화로 상징되는 문화의 상당한 파급이 고조선으로부터 끊임없는 많은 인구이동이라고 할까, 그런 남쪽으로의 이동이 있었을 때 그 연결고리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맥락의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가 좀 더 문헌적인 내용을 보완하면 실상이 잘 나오지 않을까, 하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다 선생님께서 중역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중역 외교의 성격은 아무튼 중역 국가나 피중역 국가나 종족과의 관계에서의 부용적 관계라는 것은 갑자기 돌출된 것은 아니었고, 고구려와 숙신과의 관계라든지 백제나 신라와 주변국가 또는 다른, 제가 모든 중역의 사례를 미처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부용국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정치적, 국가 간 상하관계의 양상을 설명하는 용어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내용적인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 조 선생님 말씀의 앞의 2가지는 하마다 선생님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

고 계십니다. 3번째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마다 선생님, 조금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濱田 : 아니요. 여기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의 견해에서 그 속에서 좋은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조 선생님과 3가지 테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김태식 : 그러면, 다른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坂上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稻作의 일본으로의 전래에 대해서는 역시 조 선생님의 말씀하신 대로 집단에 의한 이주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일본 학계에서는 결국 그 이주의 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매우 문제시될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좀 전에 조 선생님이 '남으로, 남으로'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남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계기라는 것이 어쩌면 중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란이라든가 그런 원인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일본에서는 稻作의 전래에 대해서 역시 동아시아 전체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법종 : 예,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다양한 동아시아에서의 문화교류나 그에 연결되는 인구이동이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예측하기는 참 힘들고 기왕에 남아있는 중국 사료에 몇 개 그 정치적인 격변이랄까,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지만, 사실 그 인구의, 사람의 이동을 한두 개, 몇 개의 사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동아시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는 데에 당연히 동의했지만, 그것을 특정할 수 없는 지금은 아쉬운 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요소를 앞으로 계속 연구를 통해서 뭔가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전부터 이미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류의 네트워크 선상에서도 이러한 이동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아무 것도 없는 신천지를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교류의 하나의 연장선 속에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식 : 이 문제는 일본에서 바라보는 '대륙'이라는 용어와 한국에서 바라보는 '대륙'이라는 용어에 관점 차이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대륙에서 왔다고 하면 한반도를 포함해서 대륙으로 표현하는 많은 사료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대륙이라고 하면 거의 중국과 동일시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쪽 두 분께서 어떤 식의 관념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坂上 : 모리 선생님!

森 : 경우에 따라서….

濱田 :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森: 통상 문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요컨대 대륙이라고 할 때에 중국, 한반도를 포함하여 말 할 때도 있고 한반도라고 할 때는 한반도라고 하고 구별할 때도 있습니다. 대륙문화의 전래라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아스카(飛鳥) 문화 등도 크게 말하면 대륙문화의 전래라고 하면 서술방법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요. 당연히 거기에는 백제라든가 고구려라든가 하는 한반도의 문화가 온 것인데, 그것은 역시 폭넓게 대륙문화의 전래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본에서 대륙이라고 할 때에는 결국 양쪽 모두 한반도·중국을 포함할 때도 있어, 좀 용법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김태식 :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청동기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했을 때 그 청동기문화는 세형동검 계통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중국에는 없는 것이고 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청동기 자체, 제작기술 자체는 중국에서 전래했다고 해도 문화 전반은 한반도에서 양성된 한국고대문화이지요.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지, 중국계통의 것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서운한 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법종 : 문화계통의 구별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문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濱田 : 문화를 거시적으로 볼 것인가, 국소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차이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전에 사카우에 선생님과 조 선생님의 논의를 듣고 생각한 것이, 문화는 사람과 함께 전래된다고 하는 면과 문화의 구체적인 작품이 전파된다고 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고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가운데 고대 한국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고,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어디에서 온 걸까? 고조선 이래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일까? 일본에서는 '도래인'이라는 주제로 일정 집단이 국가형성에 활약한 것에 관심이 미치는데, 한국에서도 도래, 사람의 이동, 외부에서 사람이 이동해 온다는 것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의 稻作의 전래라든가 청동기의 전래 같은 것은 그 청동기만이 남하한 것이 아니라 역시 북방에서 사람이 이동해 온다는 문화의 전래와 함께 사람의 이동이라는 것도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병행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법종 : 예,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동아시아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면 중국문화의 외연 확장의 틀을 전제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되겠지요, 문헌역사학 쪽에서는 그게 좀 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선사시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대 선사로 갈수록 중국의 또는 우리가 구체화하기로는 中原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화는 상당히 작았고 파급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훨씬 뒤에 가서 그 영향성이 강해진 것이고, 오히려 북방의 문화라고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문화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히 취급되거나 약하게 설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 일본이나 한국은 언어·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중국은 전혀 다른, 그러한 문화적 계통을 갖고 있는 흔적만을 봐도, 연결고리의 흔적이나 연결고리가 중국의 어떤 영향성을 받았다고, 특히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언어적인 현상의 결과만 역으로 추정해 봐도 중국과는 전혀 다른 언어문법·구조적 체계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어떤 문화

가 한국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큰 예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한국의 문화의 특이성이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게 연결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한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독특한 문화적인 양상이 이제 하마다 선생님이 지적하기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실 그것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구체화된 섬으로 된다면 그 연결고리나 루트가 단순할 텐데, 한국은 결국은 거대한 아시아대륙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저 북방의 문화가 특히 강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의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이나 독자성이 특별하게 강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다 설명할 순 없겠지만, 그런 큰 틀의 인식을 갖되 동아시아사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문화의 외연 확장적 공간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북방 유목·수렵으로 상징되는 문화와 연결된 그런 어떤 문화 생태적 양상의 연결고리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청동기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역사적인 첫 출발에 고조선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가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인식 틀을 갖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坂上 : 조 선생님이 말씀 하신 것은 매우 지당한 말씀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학적인 면에서 말씀 드리자면, 역시 이 북방, 시베리아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아도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현재의 일본인의 선조가 도래해 온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홋카이도(北海道) 경유인지 한반도 경유인지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하여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한반도'라는 식으로 한정시켜버리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가 한반도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해 버립니다.

지금의 한국 문화의 바탕이 된 것은 아마도 중국의 동북부 주변, 전부를 포함하여 상당히 일체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 '한반도'라는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도 오히려 지금의 영역에 얽매어 버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들은 '대륙'으로 표현하는 편

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법종 : 아! 예, 절대 한반도로 한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북방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한반도와 지금의 만주, 말씀하신 중국의 요녕이나 동북지역을 포함하는 그런 공간이 세칭 中原의 농경문화로 대변되는 중원 문화와는 독자성을 갖고 있는 별도의 문화권이라는 것,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반도와 만주를 포괄하는 그 어떤 문화적 성격이나 특성, 그런 내용이 한국의 청동기 문화라든지 고조선이라든지 그 연결고리에 고구려, 그 이후의 역사로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하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와 연계를 짓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뭔가 대륙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또는 일반적으로는 중원 문화만으로 국한되어서 오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문화계통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인들이나 학자들 간에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대륙이야기를 제가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김태식 : 지금까지 논의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로 한정이 된 것 같은데, 10분만 더 논의를 하고 이 문제를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제와 연결하기 위해 3세기 단계의 한일관계의 현상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세기의 한일관계에서 조법종 선생님이 중역외교, 즉 중국에 통역을 해주는 나라와 통역을 받는 나라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坂上 : 제가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조 선생님께서 이 '부용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대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선생님께서도 3세기 이 테마와 관련하여 질문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이라는 것이 과연, 물론 직접 대방에 갈 경우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을 경유하여 외교관계를 성립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魏 등은 야마타이국이 한반도의 부용국이라고는 그다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그 부용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역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법종 : 예, 사실은 그 문제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료상으로는 지금 魏와 晉과의 관계에서 중역이라는 기록이 이번에 제가 연구한 속에서는 2건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나머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이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역이라는 동아시아, 특히 東夷세계에서의 외교관계, 다른 사례를 유추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숙신관계라든지, 백제의 신라,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양상인가를 유추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정치상황, 양상으로 볼 때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또 그 양상을 크게 벗어나기도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식으로 이번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濱田 : 이 건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구체적인 검토는 사카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반도지역과 열도지역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군현지배라고 하는 관계가 끼어들었을 때에, 그 때까지의 반도와 열도지역의 여러 세력 속에 새롭게 어떤 관계가 생겨날까 하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뒤까지 이어집니다. 반도지역과 열도지역의 작은 정치세계 속에서 강력한 권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의 관계로부터 양자는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움직이려 하는가 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는 오후의 토론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5왕이라든가 중국왕조에 대한 외교의 형태, 또는 백제, 고구려가 중국과 어떻게 외교를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의 초기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제가 너무 시간을 압박을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오전의 첫 번째 주제, 고대 한일관계 성립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5분 쉬고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1) 4세기의 한일관계

김태식 : 그럼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일한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조법종 선생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조법종 : 예, 그럼 제가 진행사회를 맡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문건자료는 김태식 선생님 것이 있습니다. 모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하실 예정인 것 같지요? 아, 죄송합니다. 하마다 선생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진행을, 좀 하마다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새롭게 하마다 선생님께서 칠지도 명문을 바탕으로 한 일한관계 그리고 광개토대왕비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濱田 : 예, 제가 넓은 범위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2 주제인 <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4,5,6세기－>라는 범위 속에서 제1장의 '4세기의 일한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일한관계를 고려할 때의 2가지 주제로서 칠지도 명문의 일한관계, 즉 백제와 왜국의 국제관계라는 주제와 광개토대왕비문의 일한관계, 즉 고구려, 신라, 왜국의 국가형성이라는 두 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1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어서 제1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 두 자료에 대해서 크게 연구방법을 바꿀 정도의 연구 동향,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칠지도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 미세하게 연구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크게 말하자면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남하라는 큰 압력 하

에서 왜국에 칠지도를 보내 원군을 요청했다. 칠지도는 그 기념이라고 할까요, 기념비적인 답례품으로서의 칼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보면 371년에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백제의 병사에 의해 평양에서 전사해 버리는 고구려와 백제와의 큰 전투 속에서, 이미 왜와 왜인 병사가 백제군 속에 원군으로 가담하고 있었고 그 전승에 대한 기념품으로서 왜왕에게 보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칠지도가 백제에서 作刀되어 그리고 왜국에 보내졌다, 그 국제적인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습니다만, 요컨대 백제와 왜국이 군사적인 제휴를 맺은 것을 상징하는 기념으로서의 칠지도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의 백제는 東晉과의 관계를 배경에 두고, 東晉, 백제, 왜국이라는 제휴를 백제가 적극적으로 맺는, 그런 백제의 적극적인 외교자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걸친 일한관계를 고려할 때에 중요한 사료인 광개토왕비문에서의 왜와의 관계기사를 해독하고 다른 문헌사료와의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1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다루었고, 그 이후 이 비문 해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크게 해석을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문의 탁본에 대해서 비문에 관한 기본 사료 연구는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선생님에 의해 지금까지의 연구 또는 그 후의 연구가 정리되어 2권의 저서로 출판되었습니다.

다케다 선생님은 이른바 辛卯年條에서 현재는 읽지 못하는 부분의 한 글자를 '東'이라는 글자로 읽고 "왜가 백제를 무찌르고 동쪽으로 가서 신라를 □했다"는 식으로 새롭게 '東'이라고 읽은 것이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광개토왕 시대의 반도지역과 열도지역의 격렬했던,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17년에 걸친 전쟁을 거쳐 5세기의 새로운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외교활동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의 연구는 마치고 모리 선생님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조법종 : 오늘 새로 나눠주신 두 자료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어떤 그 새로운 입장이랄까요? 사실은 기왕에 연구하셨던 내용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다만 칠지도는 4세기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백제의 원군을 보낸 것에 대한 답

례품으로 일본학계가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비에서는 새로운 해석이 다케다(武田) 선생님에 의해서 한 두 가지 진행된 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일부 신라와의, 고구려와의 관계를 좀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입장 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의를 조금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김태식 선생님이 준비하신 것을 지금 발표하시겠습니까? 그럼 모리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 김태식 선생님과 연결하여 총괄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노태돈 : 오전 시간을 고려한다면 다 하는 것은 복잡하니까, 하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조법종 : 예, 그러면 4세기에 대해서만 하시고 김태식 선생님의 1,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4세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발표하시고 논의를 오전 시간에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식 : 그럼,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서기≫ 神功 49년조 해석을 통해서 369년의 왜의 임나 정벌을 사실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근래 학계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임나일본부설은 붕괴되었다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 사료 즉 神功 49년조의 가치와 성격 및 그 의미에 대한 논의는 제 각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왜군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개 그것이 일본 기나이(畿內)의 야마토(大和) 세력의 파견군인데, 각국의 대등한 국제관계 속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왜군들의 수가 고구려의 대군과 맞설 만큼 많지 않았고 무장상태도 가야에 비해서 빈약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상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倭賊 또는 '왜군'은 가야·왜의 연합군이었다고 보이는데 비문에서 이를 왜군으로 과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고대사에서 한일관계사에서의 중심지역은 가야지역인데, 가야지역의 독자적 왕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4세기 이전의 전기 가야는 경남 김해의 가야국 또는 김관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가야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국연맹체였고, 5,6세기 후기 가야는 경북 고령의 가야국 또는 가라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고령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국연맹체였으며, 6세기 전반에는 가야 북부지역에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가 4,5,6세기에 3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신라나 백제에 비해서 작은 세력이었다거나 분열되어 있어서 힘이 없었다거나 하는 인식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조법종 : 예, 지금 김태식 선생님께서는 3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서기≫ 神功 49년조의 해석에 대한 기왕의 학계의 연구 성과가 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임나일본부설의 대변자였던 이 사료의 부정은 결국은 임나일본부설을 이해하는 인식의 이른바 일본적인 인식의 틀이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논의할 것인가를 좀 보다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왜군의 성격은 가야·왜의 연합군이 과장되어서 '왜'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야의 독자 왕권에 대한 한일 양국 학계의 인식이랄까, 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독자 왕권, 독자 국가로서의 성격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마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濱田 : 제 견해를 말씀 드리자면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특히 神功皇后紀 49년조 또는 52년조 등 한반도 남부지역, 가야, 백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 중심의 역사상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음미하면서, 분해해 가야만 하는 그런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이 남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일본서기≫의 이른바 한반도 관계기사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자세입니다.

49년조는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神功皇后의 군대에 의해 정복된 이후 조공을 서약했다는 그런 기사였다고 기억합니다만, 그 기사의 액면 그대로는 부정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후세에 ≪일본서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일

한, 한반도의 지역과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야마토 조정이든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돌아보면서 구성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자의적인 역사상입니다만, 전혀 황당무계한 망상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森 : 49년조는 가야 7국 평정 아닙니까?

濱田 : 가야 7국 평정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369년은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를 평정했다는 기사라고 말했습니다만, 모리 선생님의 지적으로 가야의 칠국평정기사라고 정정합니다.

광개토왕비에 나타나는 倭寇 또는 倭賊은 가야와 왜의 연합군이 아니었나, 그것을 비문에서 왜군을 굉장히 크게 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격파한 고구려군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래의 倭寇, 倭賊의 존재는 비문에서는 과장된 것이라면서 힘을 작게 평가하는 견해가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광개토왕의 군대가 5만의 보·기병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 수치였는지 어땠는지. 광개토왕비문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백제를 조공국으로 만들지 못했고, 신라는 고구려의 조공국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倭賊도 최종적으로는 근절시키지 못했고, 가야도 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5만의 군대를 두 번 정도 파병했어도, 한반도 전체를 고구려의 지배하에 넣지 못했다. 그리고 또 7세기까지 그토록 대단하던 고구려가 이 반도 전체의 유일한 왕권국가로서는 성립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일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외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고구려의 5만 병사라는 숫자가 실제 수치였을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비문에서는 고구려와 적대하던 倭賊에게는 倭賊 단독이 아니라 역시 백제군이나 가야 병사도 마구 뒤섞여 있지는 않았더라도, 제휴해서 고구려군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가야는 매우 재미있는 지적으로 역시 '현대의 가야 국왕'이라고 할까, 가야 전문가이신 김 선생님께서 가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하신 지적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에 비해 가야는 지리적으로는 낙동강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에 걸쳐져 있다고 하는 한정된 자연조건,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서쪽에 백제, 북동에 신라, 그리고 바다 건너에 왜로 세 방향이 둘러싸여 있다. 그 세 방향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등이 있어서 이 가야 소국은 소국연맹체에서 독립된 고대국가로서는 매우 어려운 코스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도 있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하면, 가야는 작은 세력이었다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각을 바꾸면 왜국의 문화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평가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김태식 : 우선 神功紀 49년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에 조공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가야 7국 평정에는 뭔가 좀 사실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까?

濱田 :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견해를 도출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어떤 사실을 반영한 기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7국을 평정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평정'이 아니겠지만, 이 369년의 반도와 열도의 국제관계를 생각해 볼 때, 고구려와 백제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 때에 왜인 병사들도 백제군에 참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학설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런 학설을 논하는 사람들은 그 왜인 병사들은 가야지역에서도 어떻든 공동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그런 공동행동을 후세에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상으로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서 ≪일본서기≫의 神功皇后紀 49년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입장인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그 역사서는 완전히 공상, 자기에게 유리한 공상이라고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 역사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문헌사학자인 제가 해석하는 자세입니다. 단, 가야 7국을 평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부정되겠지요. 평정이라는 오늘의 시각에서 보는 해석으로 말하는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점거했다는 의미의 '평정'이라면 그것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이 49년조는 완전히 싹 지워버려도 되나 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그 핵이 되는 것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김태식 : 우선 4세기의 한일관계는 문헌이 아직은 불충분한 것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한일관계의 추세는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 토대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4세기에는 가야지역에 김해라는 중심이 분명해지고 거기에 가야국이 다른 지역의 전체 가야지역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규모, 또 10배 이상의 부장품을 내는 고분이 형성되어서 가야지역에 분명한 중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일본열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열도도 3세기 후반부터는 긴키(近畿) 지방에 세력의 중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 중심지의 고분 규모라든가 부장품의 수준은 신라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한일관계는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또는 제작된 철의 소재가 가야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관계, 이러한 것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서는 일본지역이나 가야지역에서 백제계통의 유물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한일관계는 일단 가야지역과 일본 긴키 지역과의 긴밀한 교역이 기본이 되는 것을 토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神功紀 49년조는 왜군과 백제군이 혼합이 된 왜군이 가야 7국을 평정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하여 ≪일본서기≫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欽明紀에는 근초고왕대의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백제 聖王이, 그 당시에 근초고왕 때에 가야와 백제는 형제관계를 맺었고, 그 때부터 친하게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사실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그러니까 4세기 후반의 백제가 김해의 가야와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그 때 백제는 간접적으로 왜와 연결되었을 뿐이며, 거기에는 어떤 군사관계라든가 군사적인 복속,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마다 선생님의 견해를 보니, 7국 평정이 아주 공상은 아니고 뭔가 있을 것이고 사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372년의 칠지도를 백제가 보낸 것이라고 보시고 그것은 아마 369년조의 왜군의 공헌에 대한 백제의 보답이 아닌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49년조의 사실성을 굉장히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濱田 : 오해입니다.

김태식 : 동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철검에 이렇게 명문을 새긴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대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칠지도도 역시 그 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지도를 4세기 372년의 시기로 인정하게 되면 역시 369년조에 뭔가 조금 더 사료적 표현과 비슷한 사실성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인정할 경우에 그 369년조, 즉 神功紀 49년조는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에 대하여 조금 더 분명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濱田 : 저도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잘 중시되지 않았던 ≪삼국사기≫ 속의 신라본기에 나오는 왜인의 동향, 즉 3세기, 4세기, 5세기에 걸쳐서도 왕성하게 신라를 침입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한관계사 속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 神功皇后紀 49년조 또는 칠지도, 광개토왕비문을 통하여 본 일한관계 속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인의 동향에 대해 어떤 위상을 부여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새롭게 제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자가 모여 회의를 한 후에 서로 기록을 만들어 대조하고 합의하지만, 고대에 있어서 가야와 왜가 무슨 일을 하고 직후에 기록을 교환하면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관계가 있었고, 그 일을 시대가 흐른 후에 각기 역사관을 가지고 각각의 국가를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과거의 관계를 기록할 때, 여러 가지로 과장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서술을 해 버립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평정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말하는 7국을 '평정'했다는 것은 부정되더라도, 거기에 왜와 가야가 어떠한 관계·교류가 있어서 그 배경에 그 저편에 백제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라는 중국 남조의 東晉과 백제, 가야, 왜라는 그 연계, 이것은 그 3세기 후반 이후 형성됩니다. 북방의 고구려 또는 중국 北魏, 중국 북방의 왕조와 고구려·신라라고 하는 북쪽 라인도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문맥에서 이 4세기 후반의 동아시아를 생각할 때, '평정'이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가야지역과 왜인, 왜와의 사이에 관계사가 형성되었다.

가야도 연합체이고, 일본열도도 야마토를 중심으로 북부 규슈 지역 또는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 지역 그런 곳을 연결하는 연합체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봐도 될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7국 평정이라는 것은 부정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는 있다. 그 관계는 군사적 '평정'인가 아니 협력인가, 그것을 후세 사람들이 '평정'이라고 기술한 것뿐이며, 실제로는 '제휴'였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태식 : 제가 지금 막 들어보니, 하마다 선생님의 대답에 좀 발전이 있었어요.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칠지도를 말씀하시면서 東晉과 백제와 왜의 관계가 거기서 보인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은 東晉과 백제와 가야와 왜의 관계가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마다 선생님께서 가야를 인식하고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가야 7국 평정이 부정되지만 교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백제와 倭 사이에 가야 칠국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백제와 왜가 연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류가 있었다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新羅本紀>에 나오는 왜인들이나 왜병들의 동향인데, 결국 왜구나 왜병은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는 존재로만 많이 나오다가 끊어지게 됩니다. 역시 그것은 그 당시에 왜병이 상당부분 가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왜병은 결국은 가야와는 친했지만 가야의 경쟁자였던 신라 측을 일정하게 공격하는데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신라본기에 나오는 왜의 동향을 고고학적 동향과 연결해서 봤을 때 올바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 편년 상으로는 조금 조정될 필요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神功紀 49년조의 해석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법종 : 사실은 이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연장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끝낼까요? 예, 혹시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森 : 두 가지입니다. 神功紀 49년조에 관한 것인데요, 다음의 그 5,6세기와 관계가 있는데요, ≪일본서기≫의 근본이 되었던 그 이른바 '백제계 사료'라는 것, 즉 神功 49년조에는 그 왜와 백제가 협력하여 가야 칠국을 평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제에 합병시켰다고 되어 있으니, 거기에는 역시 그 백제의 입장에 선 주장이라는 것도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기 보다 거기에 ≪일본서기≫가 근본으로 삼고 있는 백제계 사료, 그

런 백제의 눈으로 본 왜라든가 가야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만, 가야사에 대한 연구가 일한 양국 모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만, 우리 연구회에서 일본에 오셨을 때에 역시 각 지에서 가야계의 유물과 한국식 토기가 있어 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가야 토기가 들어왔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야의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기에 일본의 어떤 지역에 들어왔나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문헌사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부탁이랄까 주문이랄까, 이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지만, 가야사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은 좀처럼 없으니까, 부디 한국의 가야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 즉 가야의 어떤 지역의 토기가 어디에 갔고 또 다음에 어떤 시기에 갔는지를 규명하면, 역시 문헌이 적은 4세기의 왜와 가야의 구체적인 관계가 하는 것이 판명되지 않을까? 이것은 감상과 부탁입니다.

김태식 : 모리 선생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연구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으로서 맞는 말씀이고, 神功 49년조에 백제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神功 49년조는 연구자라면 대개 아시다시피 거기에 '평정'이라는 용어라든가 그 중의 일부는 한 세기 더 한 갑자 뒤로 돌려야 할 사실들이 있다든가, 荒田別, 鹿我別과 같은 일본 장군의 이름은 사실이 아닌 어떤 가족 전승이랄까, 일본의 가문 전승에 의한 것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하는 사료적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神功 49년조에 기본적으로 백제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의 왜곡도 상당히 많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태돈 :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두 분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것을 첨부하겠습니다. 금석문하고 문헌자료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금석문이 가지는 가치는 문헌자료가 전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항을 당대의 금석문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자료로서 의미를 지니는데, 지금은 칠지도 명문과 神功 49년조의 기사를 놓고 봤을 때 칠지도 명문을 이해, 명문을 통해서 神功 49년조나 그 당시의 백제와 왜의 관계를 이해해 보려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겠다는 점에서 칠지도 명문을 주목했는데, 칠지도 명문을 논의하다 보니, 이번에는 거꾸로 문헌자료, 神功 49년조를 위시한 그런 문헌자료를 통해서 칠지도 명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의도와는 달리, 처음 금석문에 주목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것과는 달리 금석문을 통해서 문헌자료의 다른 측면을 이해한다는 시도, 기대와는 달리 역으로 기존의 문헌자료를 통해서 금석문을 해석하는 시도를 해 나가려는 면이 좀 보이는데,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문헌자료와 금석문의 통합·이해라는 측면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제시된 글들을 보고 있으면 이 관계가 계속 순환관계로 계속되어 버리지, 새로운 돌파구라든가 새로운 진전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칠지도 명문이 당대의 1차 사료인 칠지도 명문에 대해서 좀 더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시켜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법종 :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아무래도 또 혹시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한 두 개 더 첨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4세기까지의 고대 한일관계, 고대 왕권의 등장과 한일관계에서의 4세기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 5~6세기의 한일관계

조법종 : 네, 그럼 오전 4세기까지 진행된 내용에 이어서 오후 회의에서는 5세기, 6세기 이후의 김태식 선생님, 그리고 모리 선생님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모리 선생님 먼저 하실 수 있겠습니까?

森 : 그러면 구두로 발표하겠습니다. <고대 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중에서 저는 5세기 6세기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 또는 4세기를 포함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측의 고고학적 성과의 진전,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의 발견이라든가 그 가야 제국에서의 다양한 발굴 그리고 백제의 6세기의 왕도, 공주와 부여의 발굴, 혹은 최근의 彌勒寺와 王興寺 같은 절의 발굴, 이런 새로운 사료가 추가됨에 따라 역사를 다른 시

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고학적인 유물뿐 아니라 출토문자 사료, 특히 백제나 또는 함안의 城山산성과 같은 신라의 6세기의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7세기 중반 경 이후의 목간이 있지만, 6세기의 목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은 다음의 사카우에 선생님과 노 선생님의 담당 부분인 율령체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계되지만, 여기에서도 그 고대왕권의 확립을 고려할 경우에 그 통치제도나 사무조직과 같은 것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성과의 진전의 그 효과라는 것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새로운 성과를 향후에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를 고찰해 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새로운 고찰재료를 고려하여 5, 6세기에 대해 말하자면, 역시 그 '임나일본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역시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든가 또는 한반도 남부를 이 시기에 야마토 정권이 영토적으로 영유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제로라고는 못해도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연구의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왜인의 활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5, 6세기의 일한관계를 고찰할 때 큰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왜 5왕의 칭호 문제라든가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을 만든 주체 또는 '임나일본부'라고 할까요, '在安羅諸倭臣'말이지요. 安羅에 있던 여러 倭臣들의 활동의 실태는 어떤가 하는 것이 각각의 시대의 개별적인 논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역시 한국측의 연구에서는 이런 활동을 용병적 혹은 그 안라 등에 예속된 왜인의 활동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측은 역시 왜국 측의 주체성이라는 것에서부터 생각해 나가는 연구의 하나의 관점이랄까, 그것은 각각 한국사 혹은 일본사의 입장에서 그 활동을 어떻게 파악하려 하는지에 많은 부분이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역시 왜국 측의 주체성 즉 야마토 왕권의 외교 방책과 일본 각지의 지역의 유력 호족과 한반도의 활동, 그 주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아직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을 새로운 고찰 재료로 삼아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든가, 나아가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문헌사료 말인데요,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은 좀처럼 금방은 정리되지 않는, 또는 영원한 과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결국 그 시기를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일한관계를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사료의 문제로서 말입니다. ≪일본서기≫의 임나문제입니다. 繼體紀, 欽明紀 부분은 여기는 이른바 백제계 사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베이스로 하여 외교기사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그려진 것은 백제에서 본 안라나 신라에 대한 관점 또는 거기에 왜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식으로 사료를 해석하는 편이 ≪일본서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근래의 문헌 해석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사료에 더 가치가 있다거나 어느 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각각 그 일면이랄지, 즉 ≪일본서기≫라면 어느 쪽인가 하면 백제가 본 가야와 왜가 비교적 나오는 데에 반해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본 가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양면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6세기 가야를 둘러싼 문제 속에서의 각국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가는 것이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고, 더욱 연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법종 : 예, 다 요약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고고학계의 다양한 성과로 인해서 기왕의 임나일본부설의 입장은 새롭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른바 한반도에 출격했던 '임나일본부'라는 설은 이젠 거의 0%라고 할 순 없지만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부정이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왜인의 활동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계속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 주셨습니다. 특히 ≪삼국사기≫가 신라 입장에서 가야라든지 왜를 봤다면, ≪일본서기≫는 백제의 입장에서 가야와 왜를 봤던 그런 내용들의 관점이나 관심의 차이를 염두에 두는 연구랄까요,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는 전망 중심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논의는 아무래도 김태식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의 4번부터 7번까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연결된 것 같아서, 김태식 선생님 발표를 함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식 : 그동안 모리 선생님과 제가 5, 6세기 한일관계사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하면서 모리 선생님이 일본학계나 우리 한국학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종합해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는 점은 역시 가야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즉 가야사를 중심에다 놓고 보는 시각은 아직 없고, 주로 백제와 왜와의 관계, 왜를 중심으로 한 백제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신라도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고 가야도 거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과 합쳐서 몇 가지로 쟁점을 나눠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쟁점을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느끼는 것과 논문에서 그 동안 발표하신 것에서 받는 인상이 조금 느낌이 다른 것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견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5세기 한일관계사에서 쟁점이 ≪宋書≫ 倭國傳에 나오는 왜 5왕이 七國諸軍事號를 자칭했는데요, 그 자칭호, 七國諸軍事號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왕 武가 479년에 보낸 상표문을 볼 때, 그는 한반도 남부에 일정한 군사적 권리가 있음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권리에 민정적 권리는 없기 때문에 지배권과는 관련 없다는 것까지는 모리 선생님과 저의 이해가 같은 것 같은데, 모리 선생님은 제군사호를 인정받으려는 데에는 왜왕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는 점인데, 제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표현해도 좋을지, 한번 모리 선생님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5세기 한일관계에 있어서, 고고학계에서 근래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전남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10여기의 전방후원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고분 축조세력의 성격에 대해서 재지 수장으로 보는 견해와 왜인으로 보는 견해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공동연구에서 느낀 바로는 모리 선생님이 전방후원분의 축조세

력을 왜인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다시 한 번 쭉 살펴보니까 왜인으로 보는 견해가 왜인 이주민으로 보는 견해와 왜계 백제관료로 보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논문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재지 수장으로 보는 견해가 일리가 있는 것처럼 썼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재지 수장으로 보는 견해에 찬성하시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임나일본부설과 관련된 6세기 한일관계사의 쟁점이 ≪일본서기≫ 欽明紀에 보이는 '임나일본부'라는 그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성격에 대해서, 저는 크게 임나 지배설 계통의 4가지 종류와 외교 교역설 계통의 4가지 종류로 나누어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것에 군사적인 성격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전형적인 임나지배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래 학계의 추세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는 임나, 즉 가야에 설치된 일본의 지배적 관청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용어 자체를 '安羅倭臣館'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료를 본 것을 정리해 보면, 이 '安羅倭臣館'이 그 구성원은 왜인과 왜계 가야인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존속 시기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처음에는 530년대 후반에 백제에 의하여 왜와의 교역을 명목으로 安羅에 설치되었지만, 540년대에 곧 성격이 변화되어서 가야연맹의 제2인자였던 安羅國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였던 외무관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리 선생님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어감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법종 : 일곱 번째는 안 읽으시겠습니까?

김태식 :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조법종 : 지금 김태식 선생님께서는 모리 선생님과의 연구 과정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3가지 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왕 武가 자칭한 七國諸軍事의 성격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영산강 유역에서 나타난 전방후원분의 축조세력이 재지수장으로 보시는 것인지, 왜인 계통으로 보시는지 명확하게 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를 '安羅倭臣館'으로 고쳐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3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모리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森 : 저는 조금 전에 개괄적인 것을 말씀 드렸는데요, 김태식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일한 양국의 대체적인 부분에서는 대체로 공통된 인식도 형성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역시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나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지적하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가야사에 대한 이해가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려진 것이 역시 좀 전에 잠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혹은 백제가 적대시하는 신라와 고구려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왜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술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가야사의, 가야 제국의 상세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좀 전에도 잠시 말씀 드렸다시피, 일본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가야계 토기와 가야 제국, 그리고 일본 제국, 일본 각 지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역시 가야와 왜와의 관계라는 것도 염두에 둔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연구가 진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세기의 諸軍事號 문제인데요, 우선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사권이며 그 영토의 영유 또는 민정권은 일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일본 학계에서도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5왕시대 동안 몇 번이나 그 지역의 군사권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국측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역시 그런 것을 일본, 왜국 측이 신청을 하고 중국이 인정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선 고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왜의 5왕, 특히 왜왕 武의 상표문에서는 백제를 도와 고구려와

싸운다. 그런 속에서 7국이니까 백제의 군사권도 신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측은 그것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반도의 남쪽지방과의 관계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백제를 지원하는 그런 방책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다음 문제인 전방후원분 문제와도 관계가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慕韓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지역이 물론 왜는 아니겠지만, 백제도 아닌 독자적인 지역이 있었고 거기와 어떤 실태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일본 측에서는 보려고 하고, 그 속에서 무언가 실효성을 찾을 가능성이 없을까 하는 연구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방후원분의 성격은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혹은 김태식 선생님도 좀 전의 4세기 부분에서 약간 소개하셨지만, 5세기도 포함하여 의외로 왜와 백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삐걱거린 것 같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어서 불교와 유교라는 백제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5세기 말과 6세기라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아서, 그런 5세기의 왜·백제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런 왜와 백제 사이에 있는 영산강 유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방후원분은 일본, 왜의 독특한 고분 형태이기 때문에, 즉 시각적인 면에서 왜와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만들었나 하는 것도 그 전방후원분의 출현을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다양한 설이 있고,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향후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보고서 속에서 그런 왜도 아니고 백제도 아닌 이른바 왜왕 武의 상표문 속에서 굳이 말하자면 慕韓이라는 그런 지역의 독립성, 혹은 아직 백제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자립성이라는 것을 포함하여 이 5세기의 이 지역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방후원분을 만든 주체는 재지 수장이거나 또는 좀처럼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재지화한 왜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주체로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백제왕권의 발전과 일한관계, 즉 백제·왜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 관점에서 전방후원분 문제를 고찰해 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6세기의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실태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군사적인 성격이라든가 정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라는 것은 거의 부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7세기 말 경에 만들어진 단어이고, '府'라고 하는 말은 역시 관청이나 기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시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安羅倭臣館'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在安羅諸倭臣', 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임나일본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는 점에 관해서 김태식 선생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역시 한국사를 주체로 볼 것인가, 일본사를 주체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역시 저는 아무래도 ≪일본서기≫를 보면 백제는 在安羅諸倭臣과 安羅를 구별하여 이해하고 있고, 在安羅諸倭臣의 활동은 安羅나 가야 제국의 이해와 합치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在安羅諸倭臣이 安羅 밑에 예속되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安羅에 있는 왜인들이 어느 정도 자립된 활동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역시 약간의 의견 차이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법종 : 두 분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답이 되셨습니까? 김태식 선생님?

김태식 :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安羅倭臣館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安羅에는 독자적인 왜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리 선생님은 현재의 사료를 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논문을 통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만 세 번째 문제는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지수장을 긍정하시면서도 在地 왜인일 수도 있다고 해서, 역시 불분명하시네요.

森 : 在地 왜인이라고 할까, 在地化한 왜인이지요. 그 지역에 살게 되면 그 지역 사람과

다름없어지는 것이니까 좀처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태식 : 두 번째 그 전방후원분의 축조 세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모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아직 조금 더 증거를 기다려서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추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왜왕 武의 상표문의 의도는 왜왕이 백제를 지원하면서 고구려와 싸우고자 하는 데 있었고, 그런 의도에 의해서 七國諸軍事號에 백제 등 칠국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백제를 지원하면서 고구려와 싸우고자 했으면,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군사호에 백제가 빠지고 고구려가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반대인데도 왜왕이 백제를 지원하면서 고구려와 싸우고자 그런 군사권을 요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森 : 고구려의 군사권을 왜가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 백제에서, 신라에서, 남쪽 한반도 전체와 손을 잡은 군사권, 그런 왜의 군사권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고구려의 군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일본서기≫에 나오는 5세기, 6세기 상반까지의 왜군의 활동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왜군들이 신라지역에 가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백제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시기의 왜군은 가야지역으로부터 기술, 또는 기술자를 받고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 저기 군대에 가야인들과 함께 파견되어 활동하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는 지역이 남한 지역 전역에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군사호에 나오는 지역이 오히려 명백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싸운다든가, 뭐 이런 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추인 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야를 통해서 백제나 신라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실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고 고구려와 싸운다는 것은 명분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森 :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5세기 왜와 백제의 관계는 의외로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구에서는 역시 5세기 특히 5세기 후반, 나제동맹, 신라와 백제가 제휴하여 고구려를 북쪽으로 밀어낸다는 관점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5세기의 일한관계를 고찰해 가는 가는데 역시 왜와 백제의 관계라는 것은 5세기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 ≪일본서기≫ 등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공유해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적이랄까 기술적인 우수성과 요컨대 군사력과 정치력의 대소는 꼭 대응하지는 않거나 정비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야가 선진 문물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왜가 기반이 되는 정치세력이나 군사력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을 크게 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력과 문화적인 선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만은 정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것입니다만, 백제나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의 軍事號 밖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왜만이 왠지 반대로 말하자면 한반도 남쪽의 모든 지역의 군사권을 주장해야만 했다는 것도, 지금은 그 이유에 관해 대답할 수는 없지만, 역시 향후에 검토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법종 : 예, 지금 논의가 두 분이 집중적으로 되면서 5王의 七國諸軍事號의 성격이나 의미 문제와 그 다음에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의 주체 성격 문제, '임나일본부'를 오히려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다 빼버리고 났을 때는 오히려 安羅의 어떤 왜와 관련된 성격의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정리되면서도 입장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계속적인 논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또 좀 질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濱田 : 왜 5왕의 문제는 아니지만 김태식 선생님께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安羅倭臣館'이라고 바꿔 부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는데요. 모리 선생님 ≪일본서기≫의 기록에는 '在安羅諸倭臣'이지요?

森 : 예, '倭臣'입니다.

濱田 : '倭臣'이죠. '諸'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수많은'이라는 의미지요.

森 : 예, 여러 가지(입니다).

濱田 :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倭臣', 김 선생님의 '倭臣', 모리 선생님의 '倭臣'이 왜의 신하라고 한다면 그 주인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일본의 야마토 왕권이라는 말이겠지요. 이 '倭臣'. 왜인 신하, '倭臣'이라고 한다. 그 '倭臣'의 주인공은 야마토 왕권입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森 : 그럼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하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고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형성되는가 하는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분명 왜 왕권이랄까, 야마토 왕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중국외교에 있어서는 일본열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在安羅諸倭臣' 부분에 나오는 '倭臣'들은 제가 보기에는 야마토 왕권의 컨트롤 하에라고 할까, 그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고 있다고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비노오미(吉備臣) 등 유력 지방호족이 역시 이 경우라면 安羅 지역과 관계를 갖고 그 하나의 이권 등을 지키기 위해서 安羅와 일체가 되어서 활동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서기≫에서는 일단 '倭臣', 넓게 말하자면 기비(吉備)도 야마토 정권의 구성원이므로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거기는 이른바 훗날의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일과는 역시 다른 단계라는 것이 5,6세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고대국가의 형성 시기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倭臣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좀 명확한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꼭 야마토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이 일본학계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태식 : 하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倭臣의 주인이 야마토 왕조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셨는데, ≪일본서기≫에 나오는 在安羅諸倭臣의 '倭臣'이라는 용어는 백제 측에서 쓴 용어이지, 일본 측에서 쓴 용어는 아닙니다. 일본 측에서가 아니라 백제가 倭臣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倭 왕조 긴키 지방의 왜왕의 신하라는 의미에서 '倭

臣’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백제 사람이 쓴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왜인이다, 왜인으로서 신하다’, 그런 뉘앙스라고 보겠습니다. 사료상으로 보면 安羅倭臣館의 倭臣들이 야마토 왕조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그들에게 대치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들이 왜 왕권, 즉 긴키의 왜 왕권의 신하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 백제는 이 사람들의 선임권이라든가 하는 것이 긴키의 왜 왕권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든가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보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마치 일본 전체의 대표성이 긴키의 왜 왕권에게 있는 것처럼 힘을 보태주는 측면에서 쓴 백제의 외교적 책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倭臣’이라고 해서 그 왜가 왜 왕권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료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역시 모리 선생님과 같은 견해입니다.

조법종 : 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安羅倭臣館은 530년대 후반에 백제에 의하여 왜와의 교역을 명목으로 安羅에 설치되었다고 했었다면 주체가 백제라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닌가요?

노태돈 :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격이 변화했다고…

조법종 :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변화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신의 주종적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김태식 : 그 당시에 백제가 安羅에 보낸 사람들은 역시 백제에 파견되어 와서 활동하던 왜인 부대 또는 왜인 관료들이고, 그 중의 일부는 어떤 지방정권 또는 중앙정권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신과 같은 성격으로 와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백제가 포섭해서 그 지역으로 파견해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던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법종 : 백제가 주체가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신다는, 그러다가 나중에 安羅로 바뀐다는 것인가요?

노태돈 : 그 뜻을 지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安羅諸倭臣'했을 때 '臣'이 누구에 대한 '臣'으로 표기되어 있느냐? 그런데 지금 김 선생님은 백제에 대한 신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입니까?

김태식 : 왜인으로서, 관료라는 것입니다.

노태돈 : 왜인이라는….

김태식 : 왜인 관료,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노태돈 : 그럼 모리 선생님은 이 '臣'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일본열도에 소속된 존재다, 일본열도에 臣屬된 존재다, 그 당시의 야마토 왕으로 상징되는 포괄적인 일본열도 세력에 대해 신속되어있는 신이다, 이런 뜻인가요?

濱田 : 倭人官僚하고 하면 관료는 어떤 왕권에 대하여 '臣'이기 때문에 그럼 그 倭人官僚를 데리고 있는 군주라고 할까요? 왕권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지요.

森 : 좀 전의 '在安羅諸倭臣'이라고 하는 표현은 김태식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본서기≫ 속에서는 명확하게 백제계 사료, 즉 백제의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백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들을 일본열도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점을 야마토 정권에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제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야마토 조정에 속해있는 사람이라고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단, ≪일본서기≫에 묘사된 실태를 고찰해 보면 역시 야마토 조정의 직접적인 지시 등을 받고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서기≫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倭臣'이 되어 버리지만, '왜인'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태식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在安羅諸倭臣'을 백승충 교수가 '倭系安羅官僚'라고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濱田 :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在安羅倭臣館' 혹은 '在安羅諸倭臣'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일본의 국가가 형성된 후에 일본의 역사서를 작성할 때 '在安羅諸倭臣'을 일본고대국가의 歷史像에서 도입하여, 이른바 호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그것은 곧 '임나일본부'라는 이른바 부풀려서 과장된 표현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森 :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면 끝이 없으니까, 사료에 대한 면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제3기(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법종 : 예, 지금 논의가 끝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일단 5, 6세기까지의 논의를 일단 이것으로 종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약 15분 휴식하고, 4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

김태식 : 그럼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로서 7, 8, 9세기의 한일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 발제문이 사카우에 선생님의 것이 아주 길고, 노태돈 선생님의 것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태돈 선생님이 먼저 발제를 해 주십시오.

노태돈 : 7, 8세기의 한일관계사에 대한 부분은 전 몇 가지 주제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주로 기존 연구에서 특히 일본에서 간행된 개설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검토했습니다.

첫째는 7세기 중반 대까지 양측의 접촉에서, 663년에 벌어진 白江口 전투(=白村江 전투)에 관한 서술입니다. 백제부흥전쟁과 백강구 전투에 대한 이해에서 이 전투의 양상과 성격에 대한 파악에서 주로 당군과 왜군의 대결이라는 시각에서 정리해서 신라군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신라군에 대한, 신라군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미흡은 그 다음 시기에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의 주제에 대해서는 8세기 중반에서 신라와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과 단교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신라와 당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라는 그 전쟁과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있은 신라와 일본과의 교섭에서 양측의 입장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8세기 중반에 터져 나온 신라와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과 단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663년에서 668년 신라와 일본 사이에 국교가 재개된 이후 양국 사이에서는 아주 긴밀한 외교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긴밀한 우호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상이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의 괴리는 결국 발해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정

세, 당과 신라, 당과 일본 간의 교섭이 재개되는 그런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때 7세기 중반에 벌어진 표면상에서의 제기되었던 양국 간의 마찰의 본질적인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나는 隣國과 蕃國이라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상이한 이해의 동상이몽이 결국 파탄을 초래하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측면으로서 불교문화를 통한 양국 간의 교류 또 율령문화를 통한 양국 간의 교류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불교문화의 경우에선 일본에 현재 전하고 있는 신라인이나 백제인의 불교저술에 대한 주목은 양국의 불교의 상호 교류의 양상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동아시아 불교권 문화 내에서의 양국 간의 불교 교류의 상황 또 양국의 불교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율령과 율령체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한일 양측에서 확인되는 자료들을 좀 더 검토해서 상호 간의 율령문화의 교류에 대한 측면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크게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의 율령문화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그간에 제가 살펴본 바를 통해서 볼 때 일본측 연구랄까요, 서술에서는 다분히 뭔가 하면 율령이라든가 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신라의 위상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신라를 타자화해서 신라를 일본보다도 하위에 있는 그런 실체로 인식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대 일본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근대사학의 정점의 시기에 일본사학에서 내세웠던 주요 특성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고대 한국과 일본 상호 간에서 상대를 타자화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동아시아지역 역사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상호의 동질성과 차이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이해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 지역의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양 지역 주민 간의 교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위해서

는 양국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확립한 이후에 그런 관념에 입각해서 그 전 시기를 이해하고 정리한 자료 그리고 근대 초기에 국민국가 정립 시에서 제기되고 통용되었던 역사인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양 지역 주민간의 교류의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 전반적으로 7, 8, 9세기의 한일관계에서 신라가 소외되거나 소홀하게 보이고 있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7세기는 모리 선생님 그리고 8, 9세기는 사카우에 선생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모리 선생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森 : 저는 이 중에서 7세기를 담당했습니다. 7세기에 관해서는 역시 지금까지의 4, 5, 6세기와는 크게 다른 점이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것이 주제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隋와 唐 등 중국에 강대한 국가가 출현했을 때에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가운데에서 일한관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간다는 점이 이전 세기와는 다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본 측에는 고대국가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3·5·7논쟁 즉 3세기 야마타이국(邪馬台國) 단계에서 고대국가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것인가, 5세기 거대한 전방후원분이 축조되던 단계에서 고대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인가, 그리고 7세기의 중앙집권적인 율령국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고대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역시 고고학자들은 앞의 2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율령국가라는 것이 고대국가의 하나의 완성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방후원분체제에 대해 이야기 한 쓰데 히로시(都出比呂志) 씨 등도 6세기가 하나의 국가를 생각하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좀 전의 6세기 문제를 7세기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점도 연구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쨌든 7세기에는 고대국가가 성립되니까, 한반도 쪽에서는 통일신라가 반도 전체를 통일하고 한편 일본열도 쪽에서는 왜에서 일본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율령국가가 성립되어간다. 그 속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보다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런 6세기까지의 일한관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7세기 이후에 대한 관점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 여기서 논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白村江戰 때의 신라에 대한 평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7세기 시점에서 고대국가라는 것이 형성되어 명확한 국경선이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전에는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 중에 한반도의 역사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별개의 나라라는 의식이 있으며, 그 부분은 신라 역사이지, 일본 역사가 아니라는 점도 있어서, 역시 7세기 이후의 신라가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세기까지의 일한관계를 보는 관점과 신라의 위상이 조금 변화한다는 점이 좀 전의 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감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노태돈 : 그것에 대해서 백강구 전투를 하나의 포인트로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리 선생님께서는 "7세기 후반 들어서 일본에서의 율령국가의 성립이 그 전 시기와는 달리 국경 관념과 국가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신라에 대한 저평가 혹은 신라에 대해서 백강구 전투와 같은 데서 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일본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그러한 7세기말 이후에 일본에서 성립되어 있는 사료를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근대의 일본사학에서 왜의 어떤 역사인식이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또는 근대조선을 상대화, 타자화해서 일본의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그러한 인식이 작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령국가, 율령문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삼국, 신라, 백제, 고구려의 율령문화에 대한 이해가 근대사학에서 근대일본사학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내지는 충분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증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부흥전쟁에서의 실질적인 주력은 신라군이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율령문화에 관해서는 신라에서는 6세기 대에, 백제에서도 6세기 대에 들어오면 율령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령체제'라고 굳이 '체제'란 말까진 붙이지 않더라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법률체제

로서의 율령은 6세기 대에 들어오면 신라와 백제에서 이미 시행되어 나갔고, 그것이 구체적인 지방 지배에서는 피정복지에 대한 지배방식 통치방식으로서 지방제도의 성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서 신라의 율령의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그것은 고구려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령문화의 기원을 신라는 신라 혹은 백제는 백제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구려로 이어지고, 고구려에서 다시 북중국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본으로, 신라를 통해서든 백제를 통해서든 고구려를 통해서든 일본으로 그 영향이 가는 이런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율령문화의 확산과정과 연관해서 좀 파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일관계사에 대한 인식의 토대에서 이해의 기본적인 토대에서 상대국을 자꾸 자국과 비교해서 자국의 우월성 내지는 자국 역사의 독자성을 인식,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상대국의 나라의 역사를 타자화하는 그런 식의 근대 초기에 보이고 있는 역사인식의 영향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함께 노력하고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식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리 선생님께서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森 : 역시나 일본 측에서는 백촌강전에 관해서는 의식이 집중되지만 周留城의 공방이라든가 육상 쪽은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좀 더 연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서기≫는 신라를 敵國視한다든가 服屬視하는 하나의 사관에서 쓰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음의 8세기 대외의식 같은 것을 좀 더 해명해 가는 가운데 신라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율령제에 관한 것은 다음의 사카우에 선생님의 논의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 7세기 말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도 7세기의 목간이 몇 개 발견되었고 그 속에 신라적인 표기라든가 신라적인 제도를 반영한 것이 있어서 역시 7세기 말의 신라로부터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풍속, 습관을 중국화하는 단계에서 그런 신라의 방식을 모방한다든가 하는 그런 점은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점을

또 새롭게 발견해 내서 신라와의 관계를 더욱 다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여기에 대한 노 선생님의 답변은 생략하고, 사카우에 선생님의 발제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게 좀 길어서 조금 더 짧게 부탁드립니다.

坂上 : 아니요, 읽으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서요.

출토 문자 사료를 통해 신라·백제의 고대사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혹은 심화·발전, 연구를 하면서 흥미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노 선생님의 보고입니다.

신라의 이른바 율령제에 대해서는 신라도 唐, 일본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법전을 만들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서, 만들었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한편, 개별 條文 내지는 條文群을 그 때마다 명령으로 내렸던 결과 어떤 점에서는 唐과 일본의 제도에 가까워졌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율령에 관해서는 개별 조문이 분명하지 않은 일본의 오미료(近江令)와 기요미하라료(淨御原令)와 마찬가지로 방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적인 제도에 대하여 출토 문자 사료가 향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백제 목간의 출토로 실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거듭된다면 신라·백제 율령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질 것이고 일본의 율령제의 특징도 파악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한 간 교섭사 연구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곳이 다르다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4~6세기 왜 5왕과 임나일본부, 광개토왕비 등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그 후에 젊은 층에는, 여기서 젊은 층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통설이 크게 바뀔 예감이 없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나라(奈良)시대보다 오히려 헤이안(平安)시대 이후부터의 일본과 신라·고구려의 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서는 최근에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발해와의 교섭사도 일본에서는 러시아령까지 시야에 넣고 여전히 활발히 진

행 중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적어도 이번 공동연구에서 받은 인상으로는 이 분야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직 장보고 등의 영웅을 중시하는 연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일교류사의 연구사는 직접 그것을 말해 주는 사료가 한국측에 있는 경우의 교섭사에 한정되어 있고, 교섭이 없는 혹은 희박했던 혹은 한국측에 사료가 없는 시기에 관해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역사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그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든 체제비교론이 없다면, 신라의 율령제에 대한 논의도 서로 자신의 주장만 펴면서 끝이 나지 않는 논쟁으로 끝나 버리고 연구는 발전이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의 발전이라는 것은 가령 신라의 율령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사 속에서 그것은 어떤 위상을 갖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일본과 마찬가지의 문제로 다룰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요한 논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고려의 무인정권, 일본의 헤이시(平氏) 정권 이후 양국이 걸어간 길까지 같이 살피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봉건제의 존재 여부, 시대구분론으로 연결되는 논의가 가능할까 하는 것이므로, 부디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는 신라사가 아니라 한일관계사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이 교섭사보다는 오히려 비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한관계사 연구는 교섭사로 채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왜 이러한 교섭사가 되었는가 하는 원인론을 근현대까지 시야에 넣고 논의할 때에는 어디가 다른가, 어디에서 왜 달라진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8세기라면, 8세기 국가에 의한 사람의 파악이라는 것은 촌락문서 등을 이용하여 문헌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8세기의 宮都, 國衙, 郡家뿐만 아니라 촌락과 논, 밭 등 생산수단의 발굴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선사시대 이후의 촌락의 모습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입지에 기인한 원인이 있어서 일본의 촌락은 散村이거나 계획촌락이 많았던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邑的인 촌락이 통일

신라시대에도 같은 형태였다면, 산성이 많은 것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율령제 시행의 의의와 율령제 도입 시의 사회 상황은 일본과 신라에서 완전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은 이번의 출토 문자 사료와 촌락을 거론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고고학 쪽에 기대하는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문헌학과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고고학의 일한공동연구가 이른바 고고학자 간의 연구교류가 아닌, 또 고분시대에까지 한정된 것이 아닌 또 보물찾기식의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문헌학과 대조해 나가면서 교류를 거듭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나중에 반성에 대한 시간이 또 있으니까,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식 : 사카우에 선생님은 한일관계사에 관해서 한국측 자료가 일본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카우에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 선생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노태돈 : 사카우에 선생님의 말씀에 또 제안에 대부분 동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 공동연구에서 비교사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사회제도라든가 생활양상 또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상호비교 등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간의 교섭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양국의 양 지역의 주민들과 그들의 삶을 규정했던 여러 제도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양국의 역사 진전에 있어서의 동질적인 측면과 차이가 있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고학적인 측면 고고학 분야도 연구에 합류시켜서 출토 유물들을 통한 또는 그 유적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역사상을 가지고서 비교사학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도 동감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진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사로서의 어떤 역사체계의 구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함께 해보는 그런 노력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에는 '율령문제가 있다, 없다'는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율령체제에 있어서 차이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坂上 :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좁혀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료적으로는 예를 들어 좀 전에 제 보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경전 속에 角筆이 나오는데 신라에서는 적어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계통은 잘 모르지만, 뭐라고 할까요, 경전에 대나무 주걱 같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한자의 음을 달거나 합니다. 일본에 남아 있는 경전 그것이 신라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것은 확실하게 신라에서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모방했다고 할까 그것을 배워서 일본의 訓讀 방법 등을 일본에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최근에는 활발하게 연구로서 진행되어, 결국 그 사료, 그런 의미에서 출토 문자 사료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헌사료 속에도 그런 신라적인 것이 혹은 신라의 것이 발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료적으로 앞으로 또 늘어나거나 혹은 방법을 개발해 나가면서 그 논의의 폭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차이점이 영 안 나오는데요.

坂上 : 그럼 잠시 좀 전의 노선생님의 8세기 이후에 대한 견해에 대해 저의 감상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처럼 일본의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을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같이 생각해서 또는 율령을 메이지시대의 헌법과 같이 생각하여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헌법을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율령에까지 투영시켜 신라보다 앞섰다든가 하는 평가를 해 왔다는 점에 대해 말하자면, 분명 그런 연구사도 있기는 합니다.

단, 그런 경우에 율령제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 규정 그 자체가 일본에서 꼭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처럼 일본 율령제를 하고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라사는 매우 재미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신라에서도 체계적인 율령법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같은 조건하에서 어느 쪽이 먼저인가에 대해 논쟁하는 것, 그야말로 무언가, 뭐라고 할까요? 그 연구사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8세기 이후의 신라에 대하여 일본에서 연구가 별로 활발하지 않은 원인은 唐과 비교하여 견당사가 매우 화려했다고 하는 면도 있지만 역시 唐의 경우에는 사료가 방대합니다. 그리고 문헌사료뿐만 아니라 투르판(turfan)문서 라든가 敦煌 문서 등 그런 율령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문서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속일본기≫ 라든가 또는 율령 그리고 正倉院 문서 등의 문헌사료가 많이 존재하고,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또는 실태에 근접한 논의가 가능한 데 비하여, 역시 신라는 사료적으로 매우 적은 면이 있어서 연구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일본과 唐은 비교하기 쉽지만, 일본과 신라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이유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새로운 방법이든 사료가 늘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채워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 사카우에 선생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신라가 사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돈 : 사카우에 선생님의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한일관계사 연구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의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래에 한국에서 활발하게 관심들을 가지는 분야의 하나가 문자의 전래와 사용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즉 한자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수용되고 사용되어 나갔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논의 중의 하나를 예를 들면 갈지(之)자 있지요? 이 之자가 이 땅의 문장의 종결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고구려나 신라, 백제에서 이 之자가 문장의 종결사로 사용되었는데 일본의 목간이나 여타 기록에서도 之자가 문장의 종결사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라를 통해서 혹은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 전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면에서 한자 수용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고대국가에 있어서의 한자수용에 있어서의 동일한 현상을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之자가 문장 종결사로 사용된 것이 중국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다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에서 한자 사용에 독특한 어떤 한 형식이었다고 주장하던 것이 실제로는 중국에서도 그런 용례가 사용됨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식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之자에 대한 중국에서의 다양한 용례 중에서 문장 종결사로 쓰인 그 케이

스를 특별히 고대 한국이나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사용· 정착시켰다는 것은 유례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대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독특한 한자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요소의 기원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수용되고 정착되는 데에서의 특성을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케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간의 또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의 여러 측면들을 비교·연구하는데 있어서 동아시아 전체 속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위치시키고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식 :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비슷한 논조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일본 쪽 선생님 중에 누가 한 분이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濱田 : 예, 모리 선생님도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셨으면 하는데요, 사카우에 선생님께서 율령제의 비교사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한공동연구에 있어서 교섭사에서 비교사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령에 관해 말씀 드리자면, 좀 전에 노태돈 선생님께서 한자의 사용법과 관련해 신라와 일본을 비교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중국의 문화, 넓은 의미에서는 큰 문화, 근본적인 문화를 신라와 일본이 어떤 스타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 수용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를 반 이상은 계승하고 있는 그런 발해에서는 중국의 문화와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 연구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신라·일본·발해를 비교해서 조합하는 것은 또 중국문화를 수용하는 별도의 형태를 그 속에서 발견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태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그 속에 발해는 들어가겠지요.

조법종 : 한국사의 논의 속에서 동아시아사의 큰 틀의 이야기를 다루려면 당연히 훨씬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시라면 동의합니다.

김태식 : 그러면 하마다 선생님의 그 발전적인 제안을 마지막으로 해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좌담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연구활동기록

제1회 합동분과회의

○회의일시 : 2007년 6월 23일(토) 14:00～17:00
○회의장소 : 일본 도쿄 호텔 뉴오타니(서미트이스트)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金泰植), 노태돈(盧泰敦), 조법종(趙法鍾)
일본－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사카우에 야스토시(坂上康俊),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통역> 우시오 게이코(牛尾惠子)
○협의내용 : 합동분과회의 운영과 연구과제

제2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7년 7월 22일(일)～25일(수)
○회의일시 : 2007년 7월 23일(월) 9:00～15:30
○회의장소 : 한국 경주 힐튼호텔 오크룸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蔡仁惠)
○협의내용 : 공동연구의 대주제, 소주제 및 연구 담당, 연구 성격, 연구보고서 구성방식, 연구기간 및 절차
○공동조사 : 경주 南山 佛谷, 彌勒谷, 塔谷, 佛國寺, 獐項里寺址, 利見臺, 大王巖, 感恩寺址, 국립경주박물관, 石窟庵(안내－경주시청 이채경 학예사), 四天王寺 발굴현장(해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장미 학예사), 大陵苑, 月城垓子 발굴현장(해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정태은 학예사), 雞林(안내－경주시청 이채경 학예사)

제3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7년 9월 7일(금)～9일(일)
○회의일시 : 2007년 9월 8일(토) 09:30～18:00
○회의장소 : 일본 가나자와 시 이시카와 현 문교회관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선미(金善美)
○협의내용 : 각 위원의 연구과제의 설정
○공동조사 : 이시카와 현 매장문화재센터(해설－湯尻修平 동 센터 조사부장·小嶋芳孝 가나자와학원대학 교수), 이시카와 현청 전망실에서 犀川·河北潟 일대의 사적을 조망. 志賀町 福浦港, 遣渤海使船造船所跡地, 寺家遺跡, 氣多神社,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제4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7년 10월 26일(금)～28일(일)
○회의일시 : 2007년 10월 27일(토) 10:00～18:40
○회의장소 : 한국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혜원(金惠媛), 이남희(李南姬)
○협의내용 : 상세한 연구 목차 보고 및 검토

제5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2007년 11월 23일(금)～25일(일)

○회의일시: 2007년 11월 24일(토) 09:00～12:00
○회의장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피코크룸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협의내용 : 연구 목차 확정안의 제출
○연구보고 : 이홍종,「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제6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8년 1월 26일(토)～28일(월)
○회의일시 : 2008년 1월 26일(토) 10:00～18:00
○회의장소 : 일본 미야자키 시 미야자키종합역사박물관(연구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이치노미야 하루요시(一宮啓祥)
○연구보고
1. 혼고 히로미치(北郷泰道),「미야자키 현내 출토 고고자료로 보는 일한교류」
2. 김태식,「고구려와 백제의 쟁패 및 신라·가야·왜의 동향」
○공동조사 : 西都原고분군, 미야자키현립西都原고고박물관, 新田原고분군, 生目고분군(안내－東憲章 미야자키현립西都原고고박물관 학예보급담당 주사), 가고시마 현 美山의 沈壽官窯(제15대 심수관 방문), 玉山神社

제7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8년 3월 14일(금)～17일(월)
○회의일시 : 2008년 3월 15일(토) 09:00～18:00

○회의장소 : 한국 전주시 국립전주박물관 1층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이혜숙(李惠淑)
○연구보고
1. 김태식,『고구려와 백제의 쟁패 및 신라·가야·왜의 동향」제2절
2. 모리 기미유키,『5세기의 일한관계」
○공동조사 : 전주시 豐南門, 慶基殿, 井邑 古阜邑城(안내－전북문화재연구원 강원종 연구실장), 扶安 開巖寺, 禹金山城, 來蘇寺, 竹幕洞遺蹟, 益山 王宮里遺蹟, 帝釋寺址(안내－부여문화재연구소 전용호 학예사), 彌勒寺址(안내－미륵사지유물전시관 김승대 학예사)

제8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8년 6월 6일(금)～9일(월)
○회의일시 : 2008년 6월 7일(토) 09:00～18:00
○회의장소 : 일본 도쿄 호텔 빌라폿테뉴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임현주(林賢珠)
○연구보고
1. 모리 기미유키, 제2장 5세기의 일한관계 제2절 백제의 남천과 왜국의 외교정책
2. 조법종, 제2장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제1절 도작농경문화의 전파

제9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8년 8월 20일(수)～22일(금)
○회의일시 : 2008년 8월 21일(목) 09:00～18:00
○회의장소 : 일본 센다이시 하넬 센다이(연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은정(金銀貞), 정기선(鄭基善)
○연구보고
1. 조법종, 제2장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제2절 야요이토기문화의 성립과 한일 문화교류
2. 사카우에 야스토시,「고대 동아시아세계의 재편과 일한관계－7～9세기」①
○공동조사 : 東北역사박물관, 多賀城跡, 多賀城碑(안내－進藤秋輝 관장, 後藤秀一 多賀城跡 조사연구소장, 吉野武 부주임연구원), 塩竈神社 및 博物館(안내－鈴木重和權禰宜·茂木裕樹 학예원), 瑞巖寺(안내－堀野宗俊 보물관 학예원)

제10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2008년 10월 10일(금)～12일(일)
○회의일시: 2008년 10월 11일(토) 09:00～18:00
○회의장소: 한국 포천군 산정호수 한화콘도 1층 난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회의), 윤혜령(尹惠玲, 답사)
○연구보고
1. 하마다 고사쿠,「고대 일한관계의 성립」제1장 '신화/설화'와 '역사'－'고조선'과 '왜'

2. 노태돈,「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제1～2장(7～8세기의 한일관계)

○공동조사 : 철원 弓裔都城址, 到彼岸寺, 연천 瓠盧古壘, 敬順王陵, 파주 烏頭山城

제11회 합동분과회의

○회의일시: 2008년 11월 29일(토) 09:00～12:20
○회의장소: 한국 서울시 롯데호텔 36층 소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연구보고 : 모리 기미유키,「6세기의 일한관계」

제12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2009년 1월 30일(금)～2월 1일(일)
○회의일시: 2009년 1월 31일(토) 09:30～18:30
○회의장소: 일본 오카야마시 오카야마시티호텔(연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선미, 김영찬(金英燦)
○연구보고
1. 모리 기미유키, 제11회 회의의 질의응답
2. 김태식,「6세기의 한일관계」
3. 사카우에 야스토시,「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일한관계－7～9세기－」
제4장 일본·발해 관계의 추이

○공동조사 : 大原미술관(咸和四年銘仏像, 備中國分寺·고모리塚古墳·備中國分尼寺·作山古墳·鬼ノ城·造山古墳·吉備津神社)(안내·해설－乘岡實 문화재부전문감, 오카야마시 교육위원회 문화재과)

제13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2009년 3월 19일(금)～3월 21일(일)
○회의일시: 2009년 3월 20일(토) 09:00～18:30
○회의장소: 한국 국립부여박물관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연구보고
1. 하마다 고사쿠,「고대 일한관계의 성립」제2장 문헌·문자사료로 본 고대 일한관계
2. 조법종,『고대 한일관계의 성립』제2장 한일 금속문화의 교류
○공동조사 : 국립부여박물관, 扶餘郡 扶餘邑 皐蘭寺, 落花巖, 定林寺址, 官北里遺蹟, 王興寺址, 扶餘郡 外山面 無量寺, 扶餘郡 林川面 聖興山城, 舒川郡 韓山面 乾芝山城(안내·해설－국립부여박물관 尹龍熙 학예사, 공주대학교 徐程錫 교수)

제14회 합동분과회의

○회의일시 : 2009년 5월 16일(토) 09:00～18:00
○회의장소 : 한국 국립제주박물관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연구보고

1. 노태돈, 7～9세기 한일 간의 불교문화 교류
2. 모리 기미유키, 7세기의 일한관계
3. 김태식, 제2장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가야·신라·왜의 저항

○공동조사 : 국립제주박물관, 濟州市 龍潭洞 支石墓, 濟州4·3平和公園, 涯月面 高內里 環海長城, 郭支貝塚, 翰京面 高山里 遺蹟, 大靜邑 松岳山 陣地洞窟, 上摹里貝塚 및 足跡化石(안내－국립제주박물관 張齊根 학예사)

제15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9년 6월 26일(금)～28일(일)

○회의일시 : 2009년 6월 27일(토) 09:00～18:30

○회의장소 : 일본 마쓰야마 시민회관(제6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金善美

○연구보고

1. 조법종, 제3장 고조선·삼한·삼국초기 왜와의 교류
2. 하마다 고사쿠, 제 2 장 문헌·문자사료로 보는 고대 일한교류
3. 노태돈, 7～8 세기 한일 간의 율령문화의 교류
4. 사카우에 야스토시, 제 3 장 일본·신라관계의 추이

○공동조사 : 松山市考古館(大淵遺跡, 船ヶ谷遺跡, 樽味高木遺跡, 猿ヶ谷2号墳, 市場南組窯跡, 傳播磨塚古墳群出土遺物), 文京遺跡, 久米官衙遺跡群 및 傳·齊明天皇滯在地(熟田津)(해설－에히메대학 매장문화재조사실 三吉秀充 교수)

제16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9년 8월18일(화)～20일(목)
○회의일시 : 2009년 8월 19일(수) 09:00～18:30
○회의장소 : 한국 속초시 마레몬스호텔 2층 B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최정선
○좌담회
○공동조사 : 束草市 雪岳洞 權金城, 新興寺, 襄陽郡 陳田寺址, 洛山寺, 襄陽鰲山里先史遺蹟博物館(해설－양양군 全有吉 학예사)

제17회 합동분과회의

○전체일정 : 2009년 11월 13일(금)～15일(일)
○회의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 09:00～18:30
○회의장소 : 日本 那覇市 호텔 솔비치프리미어 旭橋 회의실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김선미
○편집회의
○공동조사 : 沖縄縣立博物館·中城城跡·座喜味城跡·今歸仁城跡(안내·해설－當眞嗣一 전 오키나와현립박물관장, 현 류큐대학 강사)

제18회 합동분과회의

○회의일시 : 2009년 11월 28일(토) 09:00～12:00

○회의장소 : 한국 서울시 롯데호텔 피코크룸
○참석자 : <연구위원> 한국 – 김태식, 노태돈, 조법종
일본 – 하마다 고사쿠, 사카우에 야스토시, 모리 기미유키
<통역> 채인혜
○협의내용 : 최종보고서 편집에 대한 최종 검토 및 확인
○공동조사 :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시대 官印 특별전

연구 후 소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활동을 정리하며

조법종(趙法鍾)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기 제1분과 위원으로서 지난 2년 6개월의 활동은 '한일 역사학계의 쟁점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활동'으로서 뜻 깊고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된다.

한일 양국 학계에서 기존에 여러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행되었던 학술회의와 연구 작업이 특정주제에 대한 집중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진행되거나 분야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양국의 전문가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를 심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존 단속적인 연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제2기 공동위원회 제1분과에서는 한일 간 선사 및 고대사에 나타난 관계사에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연구와 학계의 입장을 정리하여, 양국 학계의 공통인식과 차이를 파악하고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며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자국사 중심의 역사 이해와 논리를 근거로 대중적 역사이해를 추진하고 있는 현상은 쉽게 극복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학술 논의와 역사 현장 확인을 통한 연구의 심화 및 공유를 통해 상호 간극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양국 역사학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향후 한일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선사 및 고대 초기 양국 교류사에서 문헌사적 이해와 함께 선사시대 이래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양국 고고학계의 연

구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헌사학계와 공유하고 대중적인 이해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의 개설서 및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청동기 철기문화, 및 농경문화와 일본의 야요이 문화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일본측의 언급은 선사시기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 소개가 생략되거나 개괄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고대사 시기에 활발하게 전개된 한일 교류 양상을 체계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이 같은 고고학분야의 보다 전문화된 연구논의와 소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한일 양국 학계의 연구 성과가 대중적 역사교육 현장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은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양국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이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교과서 및 관련서적들에 대한 보완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보다 발전된 연구 활동은 한일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성과물로서 한일 양국 역사학계의 소통과 이해뿐만 아니라 양국의 발전 및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구성의 디딤돌로서 큰 의미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고대사분과 위원 분들의 깊은 연구와 학문적 성과는 본인에게 많은 자극과 공부가 되어 향후 저 자신의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공동연구를 끝내고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공동연구를 끝내고' 무언가 소감을 말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본래 업무에 본 위원회 일이 더해져서 실로 多忙했다. 2개월에 1번의 빈도로 연구회를 진행했는데, 그것은 금방 다가왔다.

더욱이 일한의 역사, 게다가 관계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해의 根底에 서로 접근할 수 없는 폭넓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관계사의 이해는 각각의 국가와 문화의 인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각기 彼我에 관계사의 논리가 있는 것이 설명되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논의하는 가운데 문화 마찰을 느낀 경우가 여러 차례였다. 관계사에 대해서 그 역사인식을 관련된 두 나라 간에 공통으로 갖는 것의 요원함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떠한 강제력이 작용해서라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개인의 주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행복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런데 일한의 관계사 연구의 대상은 제1·2기를 통틀어서 국가의 관계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동연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약도 생긴다. 일한 공동이라는 틀에서 생겨난 마이너스적인 면의 하나이기도 하다. 더 자유롭게 대상을 풍부하게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각 분야에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 가운데에서 '고대의 일한관계는 어떻게 탄생했나' 또 '고대 한국사회의 고유한 문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탄생하고, 擴延했나'에 대해서 고찰해 나가는 약간의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공동연구회를 마치고, 이 기간의 조사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본 보고 논문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다.

화제를 바꿔 말하면, 이 기간 동안 한류 붐은 더 일어났다. 이 붐은 일본에서 한국을

찾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경주나 부여를 가보면, 일본에서 온 고령의 여행자들을 자주 만난다.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유적을 방문한 후에는 서울로 향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소용돌이를 체험하는 것 같다. 30년 동안 한국사 연구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해 왔던 나는 한국의 격변과 訪韓者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한국의 변치 않는 부분도 실감하고 있다.

한편 도쿄 시내의 야마노테선(山手線)을 타면 한국에서 온 남녀 학생을 자주 본다. 전국적으로도 관광과 교통안내에는 한글 표기가 되어 있다. 일한 간의 사람들의 왕래는 사상 최고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역사의 상호인식이 적절한 가치를 가지고 활용되도록 한사람의 한국고대사 연구자로서 미미한 능력이나마 임무를 다하고 싶다.

공동연구 말미의 단상

김태식(金泰植)

대다수 구성원이 바뀐 제2기의 1분과 연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남짓한 연구 기간이 끝나서 이를 回顧한다고 하니 세월의 빠름을 탓하게 된다.

고대 한일관계사의 4～6세기는 韓半島 및 日本列島에 포진한 여러 세력들의 王權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發展期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현상도 나타나지만, 地理的 位置와 歷史的 背景 및 社會的 成長度 또는 현존하는 編纂書의 敍述內容에 따른 차이도 看取된다.

한일 양 지역의 고대 왕권 성장을 연구하면서, 新羅와 大和의 발전 과정과 수준에 유사한 점이 많고 加耶와 九州의 운명에도 공통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피상적인 느낌만 지적한다면, 5세기에 신라와 야마토가 자기 지역에서 배타적인 왕권을 확립시키고, 6세기에는 기존의 교역 선도 세력이었던 가야와 九州 지역이 몰락하고, 7세기에 신라와 야마토가 전국적인 왕권을 재구성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에 비하여 고구려와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 또는 경쟁하면서 선진적으로 발전하여 1～3세기에 고대국가를 성립시키고, 4세기에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여 신라·가야 및 일본열도의 諸般 勢力에 비하여 압도적인 先進性을 구현하고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2强은 4～6세기에 걸쳐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였고, 신라와 가야의 2弱은 형세에 따라 그들의 인도를 받았다. 왜는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통적으로 친숙한 가야 또는 백제가 이끄는 쪽으로 유도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사국 분립상태의 果實을 취하였다.

고대 일본열도의 왕권 성장 과정은, 그곳이 한반도와 달리 지리적으로 바다에 의하여 격절되어 있고 중국과의 관련이 간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별도의 왕권이 성장하여 그들 사이의 재통합 과정을 겪지 않고, 성장이 불충분하더라도 일찍부터 전국적인 왕권이 성립하여 그것이

일본열도를 대표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일본적인 특성이다.

이제 앞으로의 고대 한일관계사는 이른바 '任那日本府說'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교류의 성격 및 왕권 성장 과정 비교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所期의 成果를 이루지 못하였다. '任那問題를 包含하여'라는 副題를 붙인 것은 그와 같은 본질에 미치지 못한 미진한 연구를 변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번 공동 연구의 기본 목적을 勘案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적어도 2개월에 1번씩 만나 합동분과회의 17회를 진행하면서, 1분과의 한일 연구위원들 사이에 그에 상응하여 친분이 쌓인 점은 바람직하였다.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공식적인 만남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해를 깊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일본측 위원들의 연구 능력이나 자세에 대해서는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연구 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의 공동 연구는 제1기에 비하여 분과 및 연구자 개인들의 所信 있는 표현이 全體의 要求라는 이름 아래 다분히 억제당한 느낌이 든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제2기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연구를 마친 소감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이번 일한역사공동연구에서는 나는 <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중의 제2장 '5세기의 일한관계'와 제3장 '6세기의 일한관계',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일한관계> 중에서 제1장 '7세기의 일한관계'를 담당했다. 이 가운데 예를 들어 5·6세기의 일한관계에서 중심과제가 되는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는 양국의 기본적 이해의 기반은 형성되어 왔다고 여겨지지만, 세부적으로는 양국 각각의 國史의 시점에서 유래하는 차이도 존재한다. 다른 논점에 관해서도 앞으로 더욱 사료 해석의 대조를 해 나가면서, 整合的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시대들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 가야 제국의 발굴, 6세기의 백제의 王都나 弥勒寺·王興寺 등의 사원 등, 특히 한국측의 최근 몇 년의 고고학적 견식의 증가는 새로운 고찰 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출토 문자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7세기 목간이 다수 검출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숫자는 적기는 하나, 6세기의 백제·신라목간이 출토되고 있어, 고대 왕권의 확립에 관한 통치제도나 사무운영의 방법 등의 계승 유무를 밝혀내는 것이 기대된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자료와 사료를 실제로 보고 유적을 견학할 수 있어, 고고학적 식견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은 해당 시기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유익했다. 양국의 문헌사학의 연구 성과들, 이러한 고대 사학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 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번역체제의 확립도 앞으로의 연구 환경 정비에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각지로부터 가야계 토기와 한국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해당 시기의 일한관계의 실상을 규명하는 데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라는 관점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개인적인 과제로서는 일한 고대사연구에는 한문 사료라는 공통 소재가 있지만, 역시 서로의 일상적 의사소통에는 언어의 문제가 크다고 느꼈다. 지금까지도 몇 번 한글 공부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晩學'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더 어려워졌

고,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익히지 못하고 끝난 것이 유감이다. 통역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한국측 위원 세 분의 선생님들과 각지에서 신세를 진 여러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체험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이것을 앞으로의 국제적 공동연구와 국제교류에서도 활용해 가고 싶다.

공동연구를 마치고

노태돈(盧泰敦)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 제2기의 終了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感懷로선 먼저 安堵感이다. 자유로운 한 個人으로서 韓日 간의 共同研究에 參與한다는 것과는 달리, 양국을 대표하는 公式的인 機構의 委員으로 活動한다는 事實이 주는 壓迫感이 일정하게 作用하는 가운데서, 第2期 委員會가 出帆한 뒤 곧바로 부딪친 事案이 研究 主題 選定을 둘러싼 마찰이었다. 4개 분과로 구성된 委員會는 制限된 人力으로 2년이란 期間 동안 作業하여야 하는 限時的인 機構였다. 이런 客觀的인 條件 하에서,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研究 主題와 그 論及의 範圍에 관한 論難이 오래 동안 전개되었다. 과연 委員會의 事業이 제대로 遂行될 수 있을까 라는 懷疑가 간간히 들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第1分科에선 큰 어려움 없이 공동연구 주제의 設定이 비교적 일찍 合意되었고, 이제 그 結果物을 提出할 수 있게 되었다. 古代史 分科에 속한 양측 委員들 간의 相互 信賴와 尊重이 이를 가능케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 다음 느끼는 것은 아쉬움이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기간 내에 작업을 무사히 마쳤지만, 賦課된 業務를 충실히 遂行하였는가라고 자신에게 反問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는 韓日 양국의 史學界에서 理解의 差異가 큰 問題를 研究 主題로 하였다. 그에 따라 共同研究 또한 양측 學界의 旣存 研究成果를 되살펴 意見의 差異를 좁혀나가는 形態가 되었고, 자연 主題 設定과 研究 進行에서 政治史가 中心이 되었다. 앞으로는 社會史와 文化史로 그 研究範圍를 擴大해야 하겠고, 學界의 旣存 歷史認識의 틀을 넘어서 이를 先導할 수 있는 視覺의 提示가 必要한 바이다. 東北亞細亞 地域史라는 觀點을 적극 考慮한, 韓日 共同의 古代史 體系 樹立 方向의 摸索도 그 한 例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다시 이런 共同研究의 機會가 마련된다면, 이번 제2기의 經驗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方向이 摸索될 수 있기를 期待해 본다.

지난 2년 동안 나로서는 많은 것을 얻었다. 특히 양국을 오가며 행한 遺蹟 踏査는 印象的이었다. 남으로는 오키나와에서 북으로는 센다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여러 지역의

遺蹟과 風土를 직접 살피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幸運이었다. 이는 그간 문자를 통해 이해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이런 생생한 體驗은 일본의 歷史와 文化를 理解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機會를 자라나는 韓日 兩國의 젊은 史學徒들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方案의 摸索이 양국 歷史學界의 相互 理解 增進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切感하였다.

공동연구를 마치고

사카우에 야스토시(坂上康俊)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소감은 대체로 좌담회에서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 보충하는 내용을 쓰기로 하겠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개별 주제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한 양국에 있어서의 고대교류사 연구의 현 단계에 대해서 過不足 없이 정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것은 이번 같은 주제 결정 방식을 택한 이상, 가장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가 결정되고 나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원이 결정되고 나서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택했고, 게다가 공동연구라는 명목을 내세운 이상, 공통 주제를 세워야 한다면, 연구사의 축적이 보통이 아닌 이상, 주제가 결정되고 나서 2년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연구로 연구사에 획을 그을 만한 논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주제로 선정되거나, 아니면 어지간히 운이 좋지 않으면 우선은 바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택한 방법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물론 연구의 현 단계를 정리한다고 해도 포함시킬 수 없었던 분야는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첫 번째는 渡來人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대구분과 그 表象의 문제다. 둘 다 이후의 과제로 될 것이다.

이번의 연구 기간 동안 일본의 수상은 네 번째가 되었고, 한국의 대통령도 바뀌어 일한 양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기묘한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2기 위원회 제1분과가 우선은 순조롭게 직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위원장, 간사 등 여러 선생님들 및 지원 조직의 노력에 의한 것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아카데미즘의 성숙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 木簡의 출토 사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한국 목간학회의 창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고학적 분야뿐만 아니라 문헌사학의 방면에 있어서도 일한의 학술적인 교류가

일상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조류는 이후 점점 왕성해질 것이고, 통일 신라기의 문자 자료가 좀 더 늘어나면, 일한 고대국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한 날을 머지않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1권

2010년 2월 28일 발행

편집 및 발행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盧泰敦, 金泰植, 趙法鍾,

濱田耕策, 坂上康俊, 森 公章

한국측 사무국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사무국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빌딩 604호

전화: 02-732-6687 팩스: 02-732-6686

제 작 경인문화사(02-718-4831)

* 비매품